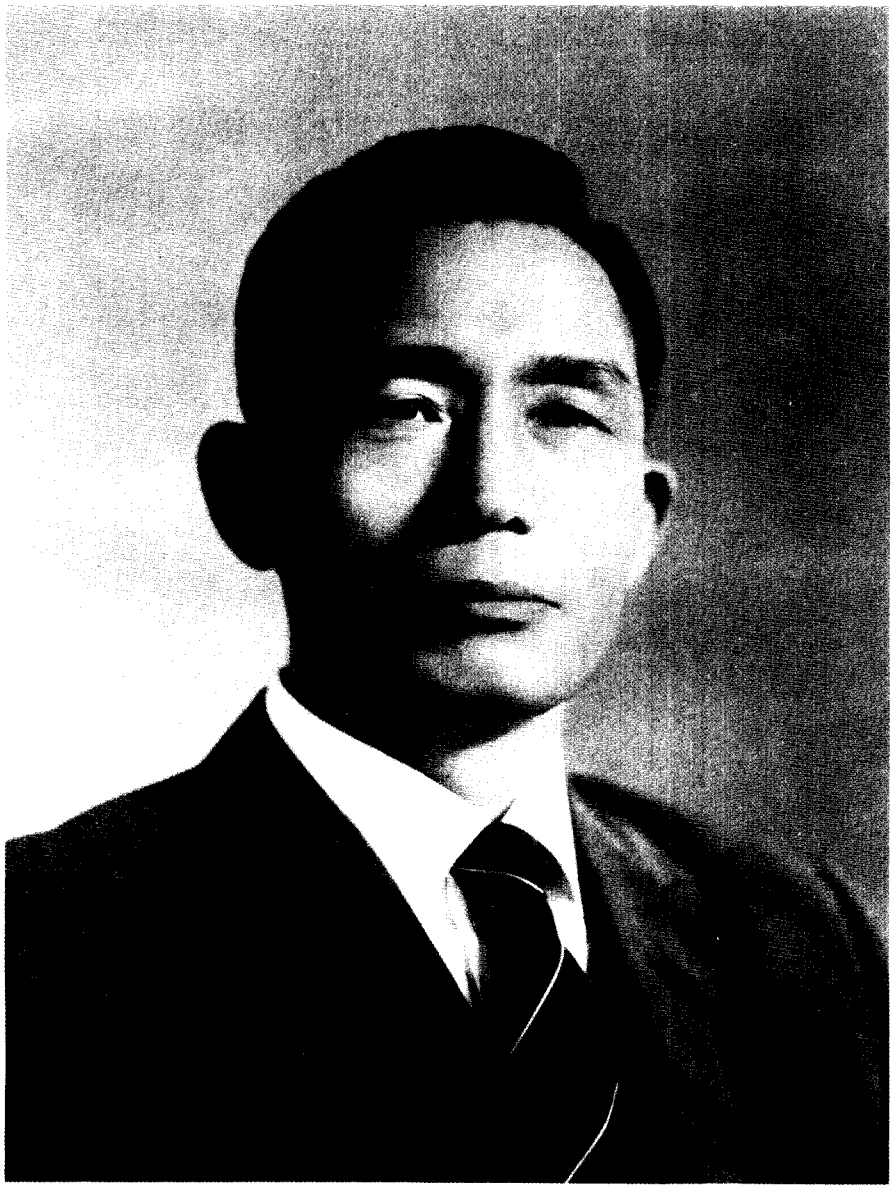
韓國戰爭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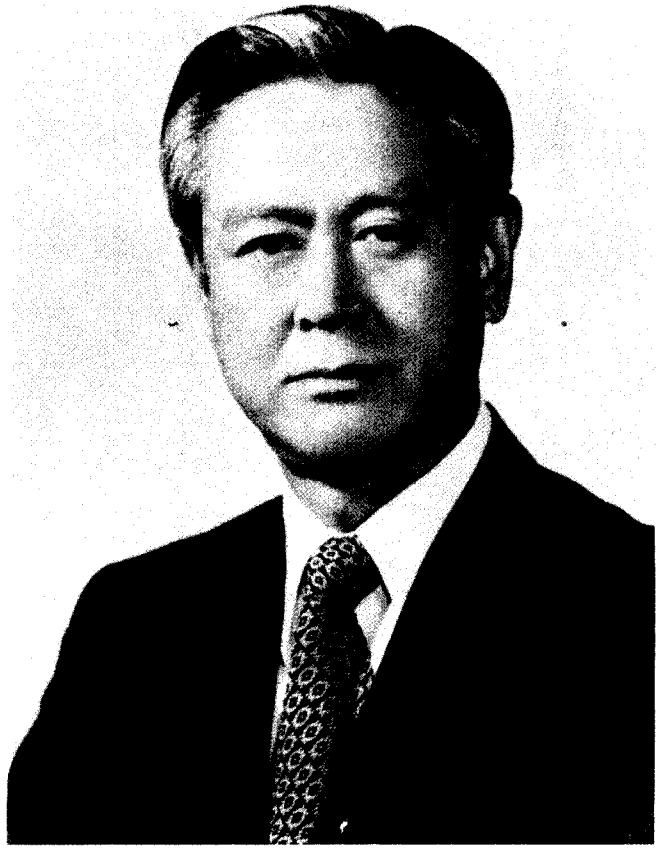
第 6 卷

制限戰線의 激動期

(1951.5.1~1951.8.31)

國 防 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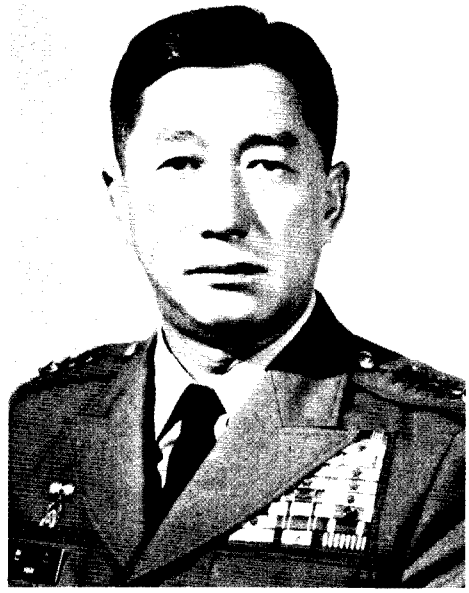




國防部 長官 徐 鐘 喆



國防部 次官 崔 侊 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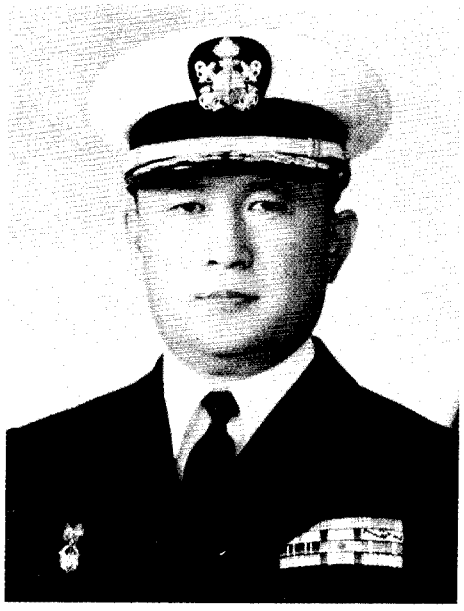


合同參謀會議 議長 陸軍大將 韓 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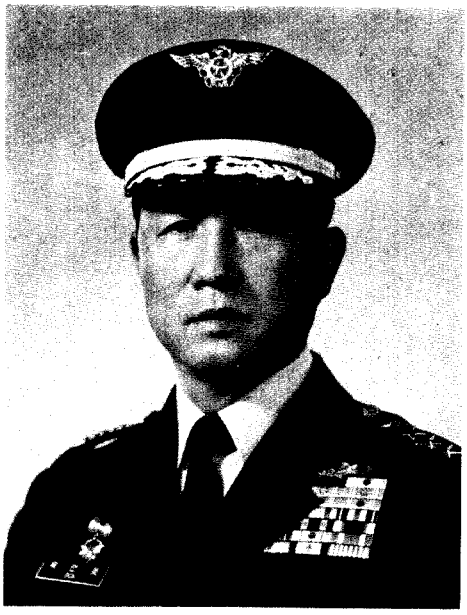
各軍 參謀總長



陸軍大將 盧 載 鉉



海軍大將 金 圭 燮



空軍大將 玉 滿 鎬

當時의 各軍總參謀長 및 海兵隊 司令官



陸軍中將 李 鍾 贊



海軍少將 孫 元 一



空軍少將 金 貞 烈



海兵准將 申 鉉 俊

序　　文

「모든 歷史는 現代의 歷史」라는 말이 있읍니다.

아무리 먼 時代의 事件이라도 歷史가 實際로 反映하는 것은 現在의 要求와 狀況이므로 어떠한 歷史的 事件도 未來를 向한 現在의 必要에 依하여 비로소 浮刻될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오늘날의 世界를 類例없는 激變의 時代라고 합니다만, 실상 平和의 潮流라는 너울 속에 벌어지는 列強의 움직임은 우리를 眩亂케 하고있읍니다. 더욱이 分斷된 國家에서의 終戰아닌 休戰狀態에 있는 우리로서는 秋毫도 放心할 수 없는 重且大한 時期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現代史의 探究를 서둘러야 할 意味가 있다고 하겠읍니다. 戰爭史에 있어서도 이와같은 意味는 똑같은 것이며 特히 現今의 우리 處地로서는 오히려 더욱 切實하고 時急한 分野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歷史上 古代로부터 近世에 이르기까지 數없이 點綴된 內擾外患에 앞서 우리 世代가 겪은 韓國戰爭을 먼저 政府의 編纂事業으로 進行하고 있는 所以도 여기에 있다 하겠읍니다.

단지 우리의 境遇에 戰爭史의 硏究가 日淺한 만큼 眼目과 實際 作業의 結果가 반드시 一致한다고 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읍니다만, 이는 우리의 努力이 깊이를 더 함에 따라 克服될 수 있는 앞으로의 課題라 할 것입니다.

이제 戰爭史의 編纂事業을 始作한지 7年이 되었으며, 決코 길다고 할 수 없는 期間이지만 어느 程度 軌道에 오른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그리하여 戰爭의 樣相도 機動戰으로부터 休戰會談과 아울러 膠着된 戰線에서의 高地를 中心으로 한 攻防戰에 접어 들었고, 이를 第6卷으로 담아 펴 내게 되었읍니다.

아직도 不足한 認識과 우리 世代가 直接 겪은 時間性이 주는 制約에 反하여 零星한 資料等의 어려움이 별로 改善되지 않은 狀態입니다만, 우리의 줄기찬 努力으로서 本 戰史를 보다 次元높은 水準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읍니다.

앞으로 後世를 爲한 戰史를 남기는데, 아쉬움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繼續 힘을 모우자는 다짐과 아울러 戰史編纂委員長 및 關係官의 勞苦를 致賀하는 바 입니다.

1973年 12月 5日

國防部長官 徐 鍾 喆

發 刊 辭

이제 韓國戰爭史 第6卷을 上梓하게 되었읍니다.

本卷에는 國軍과 UN軍이 1951年 4月末부터, 두차례에 걸친 北共과 中共의 春季攻勢를 擊碎하고 오늘날의 休戰線부근으로 躍進하는 激動期를 거쳐, 6月末에 休戰會談의 擧論으로 말미암아 戰線이 膠着된 가운데, 對陣狀態로 移行케 되는 8月末까지의 局面을 取扱하였읍니다.

4月과 5月에 乾坤一擲의 快勝을 노렸던 敵이 오히려 大破되어 마침내 繼戰能力의 限界點에 이르렀음을 自認하고 命脈扶持의 突破口를 모색한 結果, UN軍을 協商天幕 속으로 끌어 들이게 된 것인데 여기에 美國의 戰爭不擴大政策이 迎合함으로써 休戰線이라는 怪異한 것이 胚胎되기 始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期間은 우리民族의 進運을 左右하는 非常 時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現實的으로 이를 直觀하면 「善隣으로든 盟邦으로든, 局外者에 의한 紛爭의 妥結은 그 向方이 반드시 當事者의 利益에만 一致하지는 않는다」는 事實을 歷史的으로 例證할 수 있다는 點에서, 本卷이 지니는 敎訓이 매우 클 것으로 믿어집니다.

우리가 戰史를 硏究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으며, 그 目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卷을 거듭하면서 累累히 披瀝한 바 있는 까닭으로 이제 새삼스러운 贅言을 要치 않읍니다.

그러나 戰史를 다루는 姿勢에 있어, 史實을 論理的으로 體系化함으로써 다음 世代가 指向할 바의 里程標를 세운다는 時代的인 召命意識이 앞서야 한다고 믿고, 本卷을 펴냄에 있어서도 22年前의 戰爭實相을 紙面으로 再現하는 것 만으로 滿足치 않고, 史的인 意義를 具顯하는 데에 보다 높은 뜻을 두었음을 다시 한번 分明히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本卷에서는 時期的인 特性을 背景으로 政·戰의 函數關係를 糾明하면서 새로운 局地戰에 대한 要訣의 根據를 例示하고 아울러 將兵의 勇戰相을 浮刻하는데에 主眼을 두었읍니다.

이 戰局은, 同一한 地域에서 踏步狀態인 채로 出血만이 累增되는 어려운 時點이었는가 하면 또한 戰鬪經過의 叙述에도 그에 못지 않는 隘路에 直面하게 되었읍니다. 싸움터가 險山幽谷의 이름없는 戰線에 固着되고 보니, 各節의 戰鬪樣相이 모두 大同小異하므로 節마다 戰史 特有의 多樣性이나 迫眞感이 缺如된 듯 하며, 編年記事로 一貫한 흠이 없지 않습니다만, 編纂過程에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問題點이 提起되었다는 것을 밝혀 둡니다.

첫째, 休戰會談의 全貌를 如何히 收錄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會談의 進展에 따라 戰況이 매우 敏感한 反應을 나타내는만큼, 政局과 戰局의 相關性을 놓고 볼 때에는 各 卷마다 該當期間의 會談經過를 살펴봄이 全般을 理解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겠으나, 7月 10日에 開城에서 會談이 始作된 以來, 板門店으로 場所까지 옮겨가면서 空轉속에 2年동안이나 계속된 複雜怪奇한 性格으로 미루어, 그 始末에 一貫性을 賦與하는 뜻에서 獨立된 卷으로 取扱함이 妥當하다고 보고, 後方戰史에서 一括取扱키로 하였으며 各卷에서는 다만 經過의 要旨만을 槪說에서 略述키로 하였읍니다.

둘째, 일부 戰鬪名(節名)의 變更에 대한 것인데, 當時의 記錄에 의한 戰鬪地名이나 高地의 標高등이 現在까지 밝혀진 것과의 相差로 말미암아 不適合하게 表記되어 온 것이 더러 있으므로 이를 合理的인 方向으로 바로 잡아 보았읍니다. 실제로 參戰한 人士에게는 多少 生疎한 느낌이 들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本 戰史가 우리 當代의 回顧錄으로서가 아니라 後孫에 물려 줄 精神的인 遺産이라는 見地에서, 보다 正鵠을 期하기 爲한 것임을 諒察하시기 바라며, 變更된 節名에는 이미 알려진 戰鬪名을 附記하였음을 添言합니다.

세째, 敵側의 戰鬪序列 問題인데, 이는 솔직히 말씀드려 完璧을 期하지는 못하였읍니다. 現時點에서 北共이나 中共側에서 그네들의 戰鬪序列을 밝히거나 是認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關係資料의 蒐集도 거의 不可能한 實情이니만큼 本 戰史가 文獻이란 觀點으로 본다면, 史實整理上에 있어서 資料取捨의 偏向性을 否認할 수는 없읍니다. 따라서 자칫 速斷의 愚를 犯할 憂慮가 없지 않으나, 後學을 爲해서 우선 第1次的인 資料나마 밝혀둠이 마땅하다는 見解아래, 敵側의 戰鬪序列에 關한 限 當時에 戰線에서 蒐集된 未確認 資料를 土臺로 하여 실리기로 하였읍니다.

그러므로 讀者諸位께서는 당시의 우리 國軍勇士들이 이러한 깊은 안개속에서 奮戰을 거듭하였다는 것을 理解하시기 바라며, 또 이것이 實戰場의 常例라는 것을 諒察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이 分野의 資料開發에 力點을 두고 밝혀지는대로 다시 補完토록 할 작정입니다.

今年부터는 새로운 角度에서 參戰者의 證言을 蒐集하여 敍述에 적극 뒷바침함으로써, 記錄의 未備한 點을 補充하면서 次元높은 潤彩를 더 하기로 하였읍니다만, 무엇보다 參戰者諸位의 獻身的인 參與가 없고 보면 참으로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思料됩니다.

弱肉強食과 適者生存의 自然攝理가 世間의 眞理로 膾炙되는 限, 本 戰史도 不滅의 價値를 지닐 것으로 確信하고, 諸位의 아낌없는 叱正과 鞭撻있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本卷의 出刊을 보기까지, 上司의 보살핌과 江湖諸賢의 協力에 대하여 全 執筆陣과 더불어 感謝를 드리면서 發刊辭에 代합니다.

1973年 12月 5日

戰史編纂委員會

委員長 李 炯 錫

凡　　例

1. 本卷의 編纂上에 기본이 되는 몇가지 방침을 간추려 본다면 다음과 같다.

가. 卷은 分量本位로 구분하고, 篇은 內容本位로 作戰期를 一括한다.

나. 章은 作戰本位로 구성하되, 旣刊된 제5권에 이어 全帙을 통한 일련번호를 넣는다.

다. 節 以下는 戰鬪本位로 서술하되, 「공문서 분항표기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구별하여 표기한다.

節——1. 2. 3. 4. 5.

項——가. 나. 다. 라. 마.

目——(1) (2) (3) (4) (5)

款——(가) (나) (다) (라) (마)

2. 같은 卷 속에 두개 이상의 篇이 있을 때에는 卷頭에 「總說」을 넣되, 다만 한 篇만일 때는 이를 생략하며 篇과 첫 章 사이에는 「槪說」을, 章과 節 사이에는 「要旨」를 넣는다.

3. 槪說에서 취급한 사항을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가. 期間 中 敵側의 政治, 經濟, 社會, 軍事動向에 관한 大要.

나. UN軍側의 軍事動向의 大要.

다. 國內外 軍事動向의 大要.

라. 敵軍側의 作戰構想.

마. UN軍側의 作戰構想.

바. 我軍(陸, 海, 空軍 및 海兵隊)의 作戰構想.

사. 彼我政府 및 軍部의 주요한 人事異動과 그 動靜.

아. 第3國의 動向에 관한 大要.

자. 彼我兩軍의 編成, 裝備등의 변천에 관한 事項.

차. 戒嚴에 관한 事項 및 기타.

4. 要旨에서 취급한 事項을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가. 敵軍側 兵團(독립된 연대와 사단급 이상)의 작전계획과 그 행동의 大要.

나. UN軍側 兵團의 작전계획과 그 행동의 大要.

다. 我軍의 陸, 海, 空軍 및 海兵隊의 주요한 작전계획과 그 행동의 大要.

라. 作戰上의 特異性(天候, 氣象 및 地形)포함

마. 主要兵團의 編成과 隷屬, 配屬 및 支援관계와 그 이동에 관한 事項.

바. 彼我兩軍의 교육, 훈련 및 軍紀와 士氣에 관한 事項.

사. 情報활동에 관한 事項.

아. 民事, 救恤에 관한 事項.

5. 別途로 發刊되는 「UN軍參戰史」 안에서 취급한 事項이라도 心要한 內容은 이를 本卷에서도 취급하기로 한다.

6. 순수하게 後方戰史에 屬하는 事項은 가급적으로 本文 안에서 취급하지 않고, 「後方戰史」에 실기로 한다.

7. 軍隊符號는 國軍의 現用符號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반드시 이에 따르지 않은 것도 있으니, 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가. 進擊과 後退를 구분하여 앞의 것은 實線으로, 뒤의 것은 點線으로 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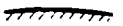
나. 我軍과 UN軍, 그리고 北共軍과 中共軍의 표시를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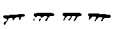
다. 行軍路와 攻擊 및 突擊 方向을 一見하여 명백하게 구분키로 하였다.

라. 같은 時期와 場所가 아닌 것은 되도록 구분키로 하였으며, 필요한 事項은 要圖에 記錄토록 하였다.

8. 要圖는 色圖化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되도록 別冊으로 수록키로 하였으며, 我軍은 靑色, 敵軍은 赤色으로 구분한다.

9. 狀況圖는 黑白을 원칙으로 하여 本文안에 삽입키로 하였으며, 我軍은 實線, 敵은 破線으로 구분한다.

例: 我 軍  我 軍 

敵 軍 敵 軍 

10. 人名, 地名, 方向(東西南北, 左右)등, 한글로 써서 그 뜻이 混同될 우려가 있는 것은 漢字를 쓰기로 하였다.

11. 되도록 慣用 軍事術語를 쓰되, 各軍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은 그 所屬 軍의 記事에 있어서는 이를 존중키로 한다.

12. 戰鬪마다 獨立性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전투 경과의 개요」 앞뒤에 각각 「전투 전의 개황」 및 「전투 후의 개황」을 넣기로 한다.

13. 작전명령, 작전지시, 각서등의 문서와 附錄등은 本文에서 필요한 것만을 채택하고, 그 나머지는 부득이 이를 割愛키로 하였으니, 이는 그 내용이 너무나도 방대한 까닭이다.

14. 여러 장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작전명령등은 附錄에서 일괄, 취급하되 本文 안에서 필요한 것은 그 要旨만을 다루기로 한다.

15. 戰鬪地名은 종래 慣用된 것을 존중하되,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은 바꾸기로 하였으며, 같은 地區에서 몇차례에 걸쳐 일어난 싸움은 이를 제1, 제2차 등으로 그 前後를 구분키로 한다.

16.

가. 隷屬부대——本來의 編成부대.

나. 配屬부대——임시로 指揮를 받는 부대.

다. 支援부대——砲兵, 工兵, 戰車부대와 通信, 輸送 等 他兵科와 後方부대가 직접지원할 때.

라. 協同부대——隣接부대와 UN軍 參戰部隊.

17. 外來語는 人名, 地名등을 原名 그대로 表記하였으나, 字母가 없는 外來語는 英語式으로, 그리고 우리말로 土着化 한 外來語는 한글表記法에 따라 表記하였다.

例 : Thailand語→英語字母로　　Radio→라디오로

18. 我軍에 대하여서는 「退却」, 「撤收」등의 術語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니, 退却은 고급 지휘관의 명령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고, 撤收도 또한 各者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6. 기타 細部에 관한 事項

가. 略語와 俗語는 되도록 피한다.

나. 將軍 등의 敬稱은 쓰지 않기로 한다.

다. 要圖, 狀況圖, 附表등에는 卷別로 일련번호를 넣는다.

라. 年, 月, 日, 時 등의 表記는 다음과 같이 통일한다.

例 : 1951년 7월 15일 오후 5시 45분

51.7.15.17.45

마. 필요한 때에 부대 記號에 北共軍을 NC, 中共軍은 CCF로 표시하고 그밖의 UN軍은 일반 慣用語를 따른다.

바. 여기에서 특히 언급하지 않은 부호는 대체로 文敎部案과 육군대학 규정 부호 및 군특명검열단 발행의 문서작성법에 따른다.

사. 참고문헌은 일괄하여 卷末에 첨부하였다.

20. 특히 北傀軍을 「北韓共產軍」의 略稱인 「北共軍」으로 바꾸어 表記하기로 하였다.

韓國戰爭史 第6卷 目次

序 文 國防部長官 徐 鐘 喆
發刊辭 戰史編纂委員長 李 炯 錫
凡 例

制限戰線의 激動期

概 說……(9)

第43章 第一次 春季 攻防戰

要 旨……(27)
1. 第2次 麟蹄地區 戰鬪……(28)
2. 臨津江—서울西北方 戰鬪……(51)
3. 雪嶽山附近 戰鬪……(72)
4. 高陽—奉日川里—東巨里附近 戰鬪……(98)
5. 海兵隊의 華川附近 戰鬪……(118)
6. 美제1군단의 臨津江—서울 撤收戰……(145)
7. 海軍의 活動……(158)
8. UN 海軍의 活動……(170)
9. UN 空軍의 活動……(176)

第44章 第二次 春季 攻防戰

要 旨……(189)
1. 縣里地區 撤收戰……(190)

2. 陰陽里—豊岩里地區 戰鬪……(220)
(一名, 昭陽江 및 九萬里地區 戰鬪)
3. 龍門山—華川 進擊戰……(239)
(芝岩里地區 進擊戰 包含)
4. 大關嶺 防禦戰……(269)
5. 奉日川地區 戰鬪……(289)
6. 美제10군단의 KANSAS線 進擊戰……(309)
7. 美제9군단의 加平—華川 進擊戰……(336)
8. 空軍의 部隊整備 및 基地展開……(354)
9. UN 空軍의 活動……(364)

第45章 夏季 攻防戰

要 旨……(385)
1. 寒溪里—瑞和里地區 戰鬪……(386)
2. 軍糧峴附近 戰鬪……(422)
(一名, 磨石峰—757高地 戰鬪)
3. 鷲峰附近 戰鬪……(446)
4. 寶蓋山—高臺山地區 戰鬪……(462)
5. 九化里—開城附近 戰鬪……(477)
6. 734高地 攻防戰……(485)
7. 第1次 蘆田坪地區 戰鬪……(511)
8. 924高地 戰鬪……(525)
9. 884高地 戰鬪……(543)
10. 第2次 蘆田坪地區 戰鬪……(560)
11. 피의 稜線 戰鬪……(571)
(一名, 杜密嶺地區 戰鬪)
12. 松峴里—松亭洞附近 戰鬪……(590)
(一名, 楊口北方 登梅里—松峴里地區 戰鬪)
13. 石柱院里附近 搜索戰……(616)
14. 海兵隊의 兜率山地區 戰鬪……(621)

15. 海兵隊의 924高地 및 1,026高地 戰鬪 ……(649)
16. 美제 9 군단의 華川—金化 進擊戰 ……(662)
17. 海軍의 活動……(682)
18. UN 海軍의 活動……(700)
19. 空軍의 單獨作戰 준비와 智異山지구 第1次 支援作戰 ……(706)
20. UN 空軍의 活動……(727)

第46章 國立警察의 活動

1. 一般狀況 ……(739)
2. 國立警察의 共匪擊滅狀況……(745)

附 錄

1. 作命·作指·訓令 ……(777)
2. 年 表 ……(832)
3. 戰歿者名單 ……(877)
4. 索 引 ……(902)

狀況圖 目次

제 1 호 戰況의 變動 ……(13)
제 2 호 제1사단 作指 제51호 부록……(101)
제 3 호 제15연대 作指 제29호 부록 ……(109)
제 4 호 제11연대 공격명령 부록……(111)
제 5 호 高陽—奉日川里—東巨里 戰鬪 ……(112)
제 6 호 華川附近 戰鬪 ……(124)
제 7 호 海上 作戰狀況 ……(162)
제 8 호 UN 海軍의 主要活動 ……(171)
제 9 호 縣里地區 撤收戰 ……(202)
제10호 龍門山 防禦戰 ……(249)
제11호 芝岩里—華川 進擊戰 ……(259)
제12호 作指제56호 및 각 연대攻擊計劃 ……(292)
제13호 作指제60호 부록 ……(304)
제14호 美제10군단의 No Name線 撤收戰 ……(322)
제15호 美제10군단의 Kansas線 進擊戰 ……(333)
제16호 加平—華川 進擊戰 ……(341)
제17호 芝岩里 부근 地形……(347)
제18호 敵 MIG—15의 作戰地域……(367)
제19호 極東空軍의 鐵道 遮斷地域……(382)
제20호 鷲峰附近 戰鬪 ……(453)
제21호 九化里—開城 부근 搜索戰……(481)
제22호 734高地 進擊戰……(492)
제23호 734高地 防禦戰……(502)
제24호 1,000高地 戰鬪……(537)
제25호 제 9 연대 제 1 대대의 攻擊……(548)
제26호 제 9 연대 제 2 대대의 攻擊……(553)
제27호 피의 稜線 戰鬪……(577)

제28호 石柱院里부근 搜索戰 ……(618)
제29호 兜率山지구 第1期 戰鬪……(624)
제30호 兜率山지구 第2期 戰鬪……(637)
제31호 大愚山 戰鬪 ……(643)
제32호 金日成一毛澤東高地 戰鬪(8. 28)……(651)
제33호 金日成一毛澤東高地 戰鬪(8. 31~9. 3)……(654)
제34호 華川一金化 進擊戰 ……(667)
제35호 西海掃海실시 (7. 8) ……(690)
제36호 江陵飛行場 확장 平面圖……(709)
제37호 空軍基地 分布圖 ……(710)
제38호 智異山부근 出擊作戰圖 ……(715)
제39호 海州부근 出擊作戰圖 ……(720)

制限戰線의 激動期

概　　說

制限戰線의 激動期

概 說

참조 : 별책부도 제 1 호
상 황 도 제 1 호

本卷은 國軍과 UN軍이 1951年 봄, 北共 및 中共의 이른바 二次의 春季攻勢를 여지없이 擊破하고 北進을 繼續하다가 國土을 分斷한채 侵略者와 協商하려는 休戰會談으로 그 正義의 進軍을 멈춘, 同年 4月 下旬부터 8月 下旬에 이르는 5個月間의 實로 痛烈함과 울분이 얼킨 새로운 局面을 다루었다.

期間中 戰勢를 概觀하면, 4月 中旬 國軍과 UN軍이 開城地區를 除外한 모든 戰線에서 38°線을 넘어 目標 Kansas線(東海岸의 南涯里—華川貯水池—永平川—臨津江河口)을 確保한 다음 金化—鐵原을 制御하기 위한 制限된 攻擊을 展開하고 있을 무렵 北共 및 中共은 이른바 春季 제1次 攻擊을 策動하여 또 다시 서울에 侵襲하려고 하였다.

이 攻擊에 直面한 國軍과 UN軍은 牽制持久로써 이에 對處하고 陸, 海, 空 三面에서 露出된 敵을 強打하여 끝내 서울을 固守하는데 成功하고 戰勢를 挽回하였다. 그러나 潰走한 敵은 5月 16日부터 제2次 攻勢를 取하고 主攻을 東部 山岳地帶인 麟蹄—縣里에 두어 我軍戰線의 地隙을 뚫고 侵透하므로 말미암아 戰勢는 逆轉되어 東部戰線에서는 下珍富里까지 隨意撤收하고 새로운 戰線을 形成하였다.

이리하여 東部에 있어서는 5日만에, 西部에 있어서는 3日만에 敵의 攻勢를 무찌를 수 있었던 國軍과 UN軍은 드디어 攻勢로 移轉하여 5月末에는 Kansas線을 再奪還하였다. 그러나 休戰의 試圖에 따라 戰線은 膠着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로부터 다만 防禦에 有利한 前進陣地를 確保하기 위한 局地戰을 계속하게 되었다.

즉 6月 23日 蘇聯 UN代表 Malik의 休戰提議로써 韓國民에 統一念願을 저버린채로 7月 10日부터 休戰會談이 開催되기에 이르렀고 我軍의 進擊도 一時中斷되었다.

그 뒤에 共産側의 策略으로 會談이 決裂되자 國軍과 UN軍은 懸案의 制限目標를 奪取하여 戰線의 齊整과 보다 地形에 符合되는 陣地를 強化할 目的下에 夏季 攻勢를 敢行하고 8月下旬까지 杆城—亥安盆地(Punch Bowl)南壁—華川北方20km—金化—鐵原—漣川西方

臨津江東岸一臨津江河口線에 進出케 되었다.

期間中의 戰況을 大別하면 敵의 4月攻勢로 빚어진 彼我의攻防戰과 5月攻勢에 따른 反擊, 그리고 休戰會談 開催를 前後한 夏季攻勢로 區分할 수가 있는데 이에 參戰한 彼我의 兵勢는 大要 다음과 같다.

我 軍

地上軍

國軍 : 陸軍 10개사단(제1, 제2, 제3, 제5, 제6, 제7, 제8, 제9, 제11, 首都)과 海兵 1개연대.

UN軍 : 8개사단<美7개사단(제1機甲, 제2, 제3, 제7, 제24, 제25 제1海兵 사단)과 英聯邦사단(英 2개여단, Canada 1개여단, Australia 2개대대, New Zealand 1개포병대대)>

2개여단(美 제187 空輸여단, Turkey여단)

9개대대(Belgium, Colombia, Ethiopia, France, Greece, Luxembourg, Netherland, Philippine, Thailand)

海上軍

國軍 : 小艦艇 28隻

UN軍 : 美極東艦隊, 英艦隊(航母 1, 巡洋艦 2, 驅逐艦 5, 기타 1) Canada 驅逐艦 3隻, France 驅逐艦 1隻, Australia 驅逐艦 1隻, Thailand 砲艦 1隻, Colombia 警備艇 1隻

空軍

國軍 : 1개飛行團

UN軍 : 美第5空軍, 英 1개 飛行團, Australia 1개戰鬪飛行團, Greece C—47 1개飛行中隊, Greece C—46 수송기 6台, South Africa 1개 戰鬪飛行團.

敵 軍

北共軍 : 8개군단(제1, 제2, 제3, 제4, 제5, 제6, 제7, 제8)으로 29개사단과 5개여단 (1개군단은 3—4개사단으로 編成)

中共軍 : 31개군 93개사단

第1次 春季攻防戰 : 國軍과 UN軍이 敵의 2月攻勢를 擊碎하고 目標 Kansas線을 指向하여 徐徐히 38°線을 넘어 進擊하고 있을 때에 敵情에는 새로운 徵候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中共 제3, 제19 兩兵團이 侵韓後에 前線으로 投入되어 그 兵力을 集中하는 것으로 判明되고 이에 따라 鐵原—平康등 지역에는 그들의 補給品을 蓄積하고 있었다.

提報에 따르면 金日成과 彭德懷는 3月 中旬에 平壤에서 軍團長會議를 主宰하고 戰勢挽回를 위한 4月攻勢를 謀議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北共은 國軍과 UN軍의 北進으로 거의 潰滅된 兵力을 補充하기 위하여 離散된 共産黨員의 再登錄을 強行하고 이들을 走狗삼아 越南家族을 비롯하여 國軍과 UN軍에 協調한 人士에 對한 彈壓과 이른바 人民裁判으로써 400,000명에 가까운 愛國同胞를 虐殺하여 極度의 恐怖분위기를 助成하는 동시에 모든 都市와 農村에서 壯丁들을 強徵하여 그들의 祭物로 만들기에 狂奔하였다.

4月中旬, 北共은 8개군단中 4개군단을 前線에 投入하고 나머지 4개군단을 北韓 東西海岸一帶에 配置하여 國軍과 UN軍의 上陸作戰에 對備케 하였는데 그 군단別 配置狀況은 다음과 같았다.

제1군단—西部戰線의 開城地域

제2군단—淮陽地域에서 部隊整備中

제3군단—東部戰線의 楊口以東地區

제4군단—鎭南浦—价川地區

제5군단—東部戰線에서 豫備

제6군단—海州—信川地區

제7군단—淮陽—元山地區

제8군단—咸興附近海岸一帶

한편 中共은 侵韓兵力의 1/4을 戰線에 投入하여 楊口以西—高浪浦線에 配陣하고 그 豫備로써 1/4을, 殘餘의 2/4를 北韓全域에 控置함으로써 어느 地域에 있어서는 住民의 數보다도 많아 마치 中共의 獨舞台를 形成케 하였다.

22日, 北共과 中共은 다시금 國軍과 UN軍을 南쪽으로 擊退하고 서울을 侵掠할 計劃밑에 北共제5군단을 東部에 增援하고 中共의 8개군(제39, 제40, 제20, 제27, 제12, 제10 제63, 제64군)과 北共제1군단을 中部 및 西部에 展開하는 한편 豫備로 北共1개군단과 中共10개군(제24, 제42, 제61, 제62, 제11, 제24, 제42, 제65, 제66, 제38군)을 併列하여 主攻을 中西部에, 助攻을 東部와 西部에 指向하여 廣德山脈을 連한 線과 麟蹄 및 高浪浦地域에서 一齊히 攻勢를 取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4時間에 이르는 砲擊을 加한 다음 中共의 9개사단(제39, 제20, 제40군)으로 제6사단과 左翼 美제24사단 正面을 強襲하고, 東部에서는 北共 제5군단으로 제7사단 正面을, 西部에서는 北共과 中共軍聯合으로 제1사단 및 英 제29여단陣地를 掩擊하였다.

이리하여 敵의 攻勢는 23日 아침까지 全戰線 240km에 번졌는데 平壤放送은 떠들기를 國軍과 UN軍의 敗退는 『時間문제』라고 豪言하기도 하였다.

近2個月 동안에 걸쳐 準備한 敵의 攻勢初動은 一時 신나게 보였으나 我側의 整然한 隨意撤收와 火力의 集中으로 말미암아 이를 支撑하지 못하고 大浦(東草南方 3.5km)—縣里—加里山—龍門山—서울北方 2km 線에서 그 攻勢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及其也는 潰滅에 直面 하지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한편 Van Fleet 중장은 이에앞서 豫測되는 敵의 攻勢를 事前에 粉碎하기 위하여 21日에 美제9, 제10 兩군단으로 하여금 華川—金化南方 6km—鐵原線을 目標로 進擊케 한 바 있었다.

그러나 22日에 이르러 敵의 火網은 점차 濃密하여지고 갑짜기 活氣를 띠게됨에 따라 漸次 防禦態勢로 轉換하는 동시에 서울을 끝까지 固守키로 決心하고 美제8軍 豫備인 美제1機甲사단(Greece, Thailand대대 배속)과 美제187空輸여단을 西部에 集結케하여 持久로써 敵을 견제토록하였다.

이와같은 敵攻勢에 直面하게 되자 1次的으로 現戰線에서 陣地를 急編하여 防禦를 試圖하였으나 大擧 侵襲을 勘耐할 수 없는 陣地의 脆弱性으로 말미암아 戰線의 維持가 困難하게 된 까닭으로 2次計劃에 이행하게 되어 No Name線(東草— 長南里—龍門山—서울北方 4km)으로 逐次로 撤收하면서 持久를 策하게 되어 露出된 敵의 前線과 延伸된 補給路 및 集結地 등을 目標로 空·地 兩面에서 間斷없는 火力을 集中하였다.

25日부터 主攻을 제6사단 正面에 指向하고 점차로 南下한 中共軍은 加平을 侵攻한 다음 서울—春川街道를 遮斷하고 北漢江 南岸一帶를 威脅하게 되자 美제9군단은 洪川—龍門山線에서 陣地를 堅守하고 敵의 醜鋒을 擊碎하였다. 그러나 兩水里부근에서는 아직도 그들의 攻勢가 執拗하였으므로 Van Fleet 중장은 洪川江線을 굳히고 서울固守를 거듭다짐하기 위하여 美제24사단(美제187空輸여단 배속)을 美제9군단에 赴援케 하는 한편 陸本直轄로 控置하였던 제2사단을 美제9군단에 配屬하였으며, 또한 美제8軍 豫備인 美제1機甲사단을 美제1군단 中央左翼에 展開하도록 措置한 然後에 要旨 다음과 같은 檄文을 示達하였다.

『敵은 豫期한 攻勢로서 제3次侵略의 戰端을 열었다.

그들은 人命의 尊重함을 無視하고 大群을 投入하였으나 우리는 이에 對決하여 3日間의

激戰으로서 우리의 威力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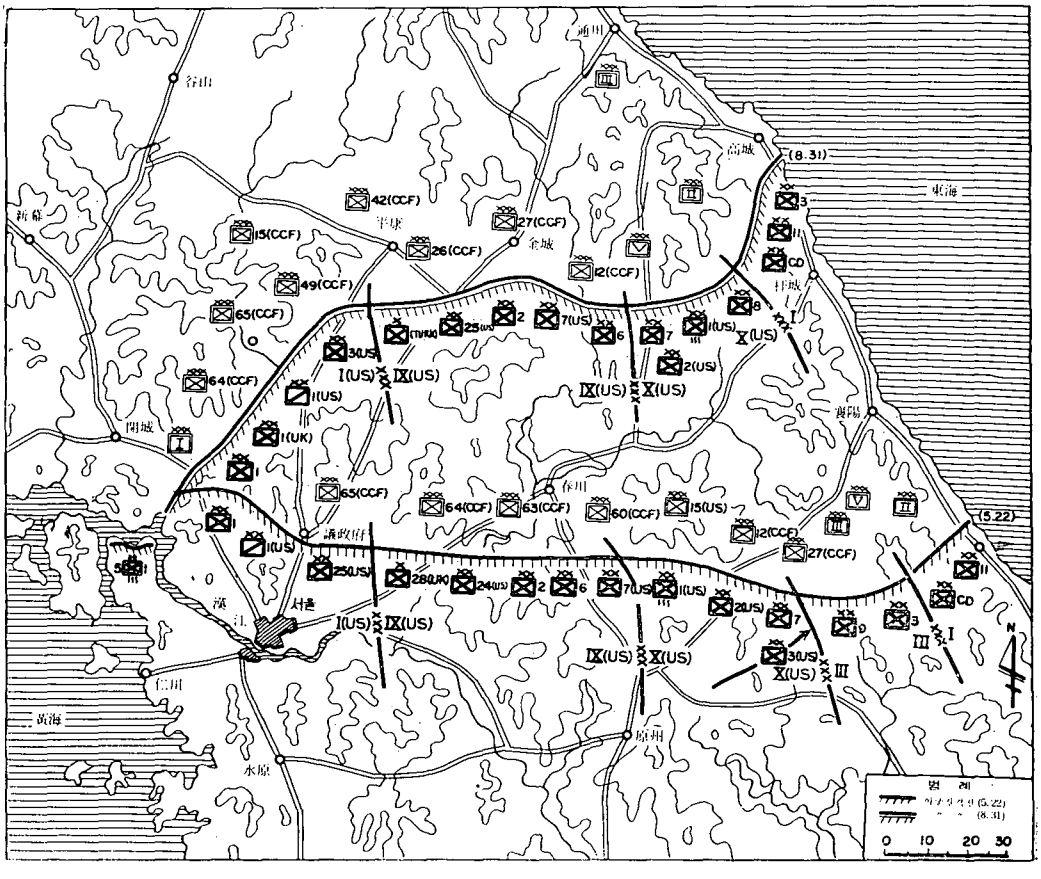
우리의 鬪爭은 自由民의 平和와 幸福을 追求하는 權利를 保障하려는 것이므로 最後의 勝利는 正義와 같이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確信하는 바이다.』

28日부터 30일사이에 國軍과 UN軍은 東海岸 襄陽北方—寒溪里—龍門山—兩水里—舊把撥線에서 敵의 攻勢를 擊破하였는데 이로써 敵은 攻擊개시 8日만에 45,000명의 人命損失 끝에 드디어 潰走하는 破局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即時로 全面的인 反擊을 展開할 수도 있었으나 May-Day에 또 다른 敵의 攻勢가 豫測되므로 主力으로 이미 確保한 戰線을 強化하는 한편 威力搜索隊를 編成하여 前面으로 派遣케 하였다.

5月 2日, 機動과 火力으로 敵의 退路를 遮斷하며 急進한 搜索隊는 아무런 抵抗없이 漸次로 前進基地를 北上하고 6日에는 東草—麟蹄—春川—加平—抱川—議政府—奉日川線에 進出하였으며 여기에서 다시 제2次 攻擊戰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 상황도 제1호 戰況의 變動



第2次 春季攻防戰：4月 攻勢에서 입은 敵의 損失은 中共 제63, 제64, 제65군의 경우 編制 兵力의 52%에 達한 것을 보아도 그 打擊이 컸던 것을 推測할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不拘하고 그들은 제2線에 있던 豫備兵力을 또다시 一線에 集結하고 軍需物資를 大量 戰線에 推進함으로써 또다시 挑發하기 시작하였다.

北共은 이즈음 崔鏞健을 戰線에 急派하여 督戰케하고 또 前線司令官인 金雄은 그 指揮所를 兩水奄(宋輝里 東南 8km)에 設置하여 제2, 제3, 제5의 3개군단을 戰線에 投入하였으며 제1군단을 계속 西部 開城南方에 控置하여 部隊를 整備한 다음 中共軍과 提携케 한 듯 하였다.

또 中共은 4月攻勢에서 再起不能에 빠진 제39, 제10兩군을 後方으로 收容한다음 제27, 제15, 제60의 3개군을 戰線에 投入하여 東에서 西로 8개군(제27, 제12, 제20, 제15, 제60, 제63, 제64, 제65군)과 北共 제1군단으로 戰線을 形成하고 後方支援은 主로 夜間을 利用하였으며 晝間에는 隱蔽된 山間狹路를 通하여 推進한 것으로 判斷되었다.

主攻을 麟蹄—縣里의 山岳地帶에, 助攻을 加平—洪川, 汶山—高浪浦線에 指向한 이른바 5月攻勢는 이로써 시작되었는데, 그들은 主攻方向인 제3군단과 美제10군단 右翼正面에 北共軍 38,000명, 中共軍 137,000명을 集中投入하고 前記 兩개군단의 間隙을 따라 侵透하여 점차 그 突破口를 擴大한 다음 我軍陣地를 威脅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一時 我軍을 南으로 隨意撤收케 하였으나 死力을 다한 이 攻勢 역시主攻인 中部에서 5日을, 助攻인 中部와 西部에서 3日 을 支撑하지 못한채로 崩壞되기에 이르렀다.

이당시 我軍側은 機甲部隊와 步兵으로 構成된 威力搜索隊로 하여금 據點을 마련케 하고 主抵抗線을 No Name線에, 그리고 前進陣地를 路洞—寒溪里—春川—加平—東豆川—高陽 北쪽에 設定하여 또 다시 敵을 前進線에서 擊滅한 다음 主抵抗線으로 誘引 擊碎키로 하였다.

敵의 侵攻에 따라 前進據點에서 威力搜索을 되풀이 하던 搜索隊들은 敵과 接觸을 維持하면서 豫定된 主陣地로 撤收하였는데 이와같이 牽制와 抑留를 豫定대로 敢行하는 동안 UN空軍은 晝夜로 出戰을 斷行하였고 地上砲火는 目標에 對한 同時集中을 加하였다.

그러나 暗夜와 嶮山을 넘어 地隙으로 侵透하기 시작한 敵은 제3군단의 唯一한 補給路를 遮斷하고 同군단의 左側背와 美제10군단의 右翼을 威脅함에 이르러 兩군단의 戰線은 점차 南下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東部戰線의 제1군단 역시 左隣接 제3군단과의 連繫를 위하여 撤收하지 않을 수 없었다. 戰勢가 이와같이 惡化되자 Van Fleet중장은 18日에 陸本經由 제1, 제3 兩개군단을 제2防禦線인 Waco線(注文津—下珍富里—豊岩里)을 占領케 하는 한편 美제8군豫備로 控置한 美제3사단과 美제24사단配屬으로서 美제9군단의 豫備로 있는 美

제187空輸여단을 21日에 美제10군단에 配屬하여 이들 兩개부대를 西部에서 中東部로 急遽轉用키로 하였다. 아울러 제8사단을 戰線에 招致하여 美제10군단을 增援케 하였으며 또한 23日에 제3사단을 제1군단으로, 제9사단을 美제10군단에 隸屬 및 配屬하게 되고 따라서 제3군단을 解體하게 되었다.

한편 東部와 中東部에서의 敵勢를 除去하기 위한 方策으로 中西部와 西部에서 反擊을 決行하기 위하여 美제9, 제1 兩개군단으로써 19日부터 Topeka線(春川—修德山—德亭里—法院里—汶山)을 目標로 進擊케한 결과 兩개군단은 20日에 一齊히 攻勢로 移轉하고 이날 美제9군단은 5~15km, 美제1군단은 汶山을 奪還한 다음 臨津江口線까지 肉迫하였다. 또 제1군단은 東部戰線에서 善戰하여 敵의 主攻을 大關嶺一下珍富里線에서 擊破하였다.

이로써 國軍과 UN軍은 24日을 起點으로 全戰線에서 攻勢로 移轉하여 25日에는 春川과 抱川을 奪還하고 27日에는 麟蹄와 華川에 突入하였으며, 5月末까지 杆城—漣川을 連하는 Kansas線을 再奪還하였는데 Van Fleet중장은 6月 2日에 要旨 다음과 같은 聲明을 發表하였다. 『이제 追敵의 局面은 끝났다. 그러나 계속 敵의 不斷한 侵略을 阻止할 것이며 또 必要하고 有利한 경우에는 北韓內에서도 侵略威脅에 對處할 것이다. 아마도 敵은 UN軍의 斷乎한 反擊에 놀랬을 것이며 無秩序하게 北으로 退却하였다. UN軍의 反擊은 砲兵과 空軍의 掩護를 最大限 利用하여 敵에게 甚大한 死傷을 주었으며 退却하는 敵은 携帶武器마저 遺棄하고 있다. 中共軍은 10,000명이 이 작전에서 捕虜가 되었는데 그 가운데는 部隊單位로 投降한 것도 있다. 捕虜들의 陳述에 따르면 그들은 饑餓에 허덕이는 者가 많으며 一部의 部隊들은 80~90%의 損失을 밝히고 있고 鹵獲裝備는 대체로 小銃 12,000정, 기관총 1,000정, 박격포 310문, 各種口徑野砲 20문, 貨物자동차 133臺, 馬匹 400頭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局面은 韓國戰爭에서 큰 意義를 지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敵의 損失은 莫大하지만 그들 戰力이 모두 消耗된 것은 아니며 아직도 攻擊을 取하는데 充分할 것이다.』

夏季攻勢：제2次의 攻勢에서 激甚한 損失을 입게 된 敵은 我軍側의 制限된 攻勢를 機會삼아 再編과 同時에 陣地를 強化하기 시작하였으니 期間中 戰況에 關하여 北共은 그들의 公刊史에서 다음과 같이 言及하고 있다. 『戰爭의 第4段階에 있어서 黨의 戰略方針은 積極的인 陣地防禦戰으로 頑強히 維持함으로써 時間과 技術裝備를 한층 強化하는 한편 敵의 兵員과 技術器材에 大量의 損失을 주고 그 攻勢企圖를 粉碎하고 彼我의 力關係를 我方에게 有利하도록 이끌어 戰爭의 終局的인 勝利를 얻을 수 있는 條件을 만드는데 있었다.』

事實에 있어서 北共은 潰走한 兵力과 豫備兵力을 새로이 戰線에 投入하여 6月初에 제3군

단의 제15사단과 제2군단의 제13, 제2 兩개사단 그리고 제5군단의 제12, 제32 兩사단을 北漢江 以東에 展開하고, 한편 西部에서는 제1군단과 제6군단을 代替하여 陣地防禦로 그 戰術을 바꾸어 戰線을 極力 維持하려 하고 潰滅한 部隊의 再編을 期하려 하였다.

한편 中共은 東에서 西로 제9, 제13兵團 隷下의 5개군(제20, 제26, 제63, 제64, 제65군)을 併列하여 兵力을 계속 補充하였다.

6月 22日 現在의 敵의 總兵力은 781,376명에 達하였는데 이들의 大部分은 戰線과 東西兩海岸에 集中 投入되어 계속 陣地를 強化하였으며 海岸에는 砲臺를 마련하여 점차로 戰勢의 挽回를 期하였다.

더구나 休戰會談을 奇貨로하여 再編強化한 北共은 飛行場을 補修하기 시작하였으며 7月부터는 北共 MIG—15機가 平壤까지 南下하여 UN空軍機와 交戰하는 局面을 보였고, 8月에는 西部의 제6군단을 東部로 轉用하여 제1군단 正面을 제19사단 으로 增援케 하여 東部前線司令部 隷下 全군단을 다시 戰線에 投入하였다.

한편 敗走하는 敵을 壓迫하여 短時日에 東部에서는 100km, 西部에서는 22km를 北進한 我軍側은 Kansas線을 強化하게 되었으나 그 以上의 北進은 政略的인 見地에서 制限을 받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 당시 美國의 戰略立案者들은 만일 韓滿國境線까지 다시 進擊하여 侵略者를 몰아내려면 이때까지의 戰況實相으로 미루어 보아 100,000명의 人命損失을 甘受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같이 하여 北進을 強行하여도 中共이 鴨綠江對岸에 健在하는 限 전쟁이 長期化될 것이 豫想되고 따라서 美國은 大兵力을 계속 韓國에 駐屯시켜야 할 것이므로 이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또 韓國에 軍事力을 集中하는 동안 他地域에서의 侵略이 시작될 경우 그 阻止力이 弱化될 것을 憂慮하는 西方自由國家들을 外面하여 孤立할 수는 없다는 觀點에서 侵略軍을 38°線以北으로 擊退하는 것으로 于先은 滿足하여 敵과 停戰을 모색하는 것이 賢明하다고 하는 內容의 戰爭不擴大政策으로 기울어 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리하여 敵의 5月攻勢가 시작된 5月 16日에 美國은 國家安全保障會議를 開催하고 戰爭을 早速히 終結하기 위한 方法으로 敵과 停戰하기로 決定하고 韓國에 있어서 UN의 目的을 政治的인 것과 軍事的인 것으로 區分하기에 이르렀다.

즉 『政治的인 目的이란 統一된 獨立自主의 民主國家를 創建하는 것이며 軍事目的은 侵略者를 擊退한 다음 敵과 停戰協定을 締結하고 防禦上으로나 行政的인 面에서 보다 適合한 停戰線을 設定한 다음 이에 韓國의 主權을 回復하여 장차 韓國軍을 增強하여 侵略을 阻止

케 하고 이로써 外國軍은 撤退케 하는 것이며, 따라서 統一하려는 政治的인 目的은 理想으로 남겨 두자는 것』이었다.

같은날 UN總會는 共産陣營 5개국이 不參한 가운데 對中共禁輸案을 可決하여 戰略物資의 中共流入을 極力阻止하기로 하면서도 『韓國의 停戰을 實現하고 平和的인 方法으로 UN이 韓國에 있어서의 目的을 達成함이 그 政策임을 確認한다』라고 하였으며, 6月1日에 UN事務總長 Trygve Lie는 聲明하기를 『38°線에 沿하는 線에서 停戰하는 것은 UN의 目的을 達成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5月 16日의 決定에 따라 앞으로의 作戰을 展開하여야 하였던 Ridgway 대장은 國軍과 UN軍이 韓半島를 兩分하는 Kansas線에 進出한 다음의 進擊은 이를 確保하기에 必要한 狀況만으로 限定하였는데 이러한 內示를 받은 Van Fleet중장은 豫備兵으로 하여금 Kansas線에 對한 築城을 實施케 하고 主力으로는 그 前進基地를 마련하기 위한 制限된 一連의 作戰을 展開하게 되었다. 勿論 이 作戰은 敵에 對한 衝擊을 계속하는 한편 그들을 牽制하고 停戰을 強要하기 위한 政治的 目的이 內包되어 있었기 때문에 目標選定에 있어서는 敵의 屢次攻勢를 準備한 本據地로 判明된 Punch Bowl(亥安盆地)과 金化—鐵原—平康을 잇는 이른바 鐵의 三角地帶를 制御할 수 있는 萬垈里—文登里—金化—臨津江線으로 局限하였다.

이러한 作戰槪念에 따라 그는 戰勢가 好轉된 5月下旬부터 6月上旬에 이르는 동안 各軍團의 戰線展開를 再調整하여 夏季作戰을 準備하였는데 이로써 제1군단은 5月 31日 그 先鋒이 高城을 占領하여 戰線을 強化하였으며 中東部의 美제10군단은 6月 15日에 瑞和—長坪里線을, 中西部의 美제9군단은 長坪里—金化線, 西部의 美제1군단은 그 搜索隊가 12日 鐵原邑에 突入하고 14日에는 平康에 進入함에 이르렀는데, 西部에 있어서의 進擊은 順調로운 反面에 Punch Bowl正面과 金城南方을 指向한 美제10, 제9 兩군단의 進擊은 敵의 執拗한 抵抗으로 말미암아 如意치 않았다.

이리하여 中東部의 美제10군단은 次期作戰과 部隊整備를 위하여 攻擊이 一時 중단된 狀態에서 主陣地를 北쪽으로 推進하고 그 強化에 注力하였으며, 이미 要線을 占領한 中西部와 西部戰線에서는 進擊을 멈춘다음 搜索戰만 反復하여 陣地를 強化함으로써 敵에게 時間的인 여유를 스스로 提供하고 그들의 陣地를 補強케 하는 結果가 되었다.

6月 23日에 Malik의 休戰提議가 있자 UN軍은 敵의 挑發이 없는 限 모든 戰鬪를 中止하고 敵의 動靜을 지켜보게 되었는데, 드디어 7月 10日에 休戰會談이 開催되어 戰線은 UN군의 一方的인 努力으로 小康狀態를 持續하였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戰鬪中止로 因한 我軍側의 士氣의 沈滯와 進行中인 會談의 決裂危機에 對處하기 위하여 UN軍司令部는 10日에 美제8군에 地上砲火를 增加하고 制限된 局地戰을 再開케 함으로써 美제10군단은 21日에 一時攻擊을 멈춘 Punch Bowl 正面에 對한 공격을 再開하게 되었다. 이에 首都사단은 美제10군단의 공격에 呼應하여 香爐峰一帶에서 攻勢를 取하였으며 美제10군단은 6月 6日以後 控置하였던 美제2사단으로써 美海兵사단의 作戰區域을 擔當케 하고 7月 20日부터 右翼에 제8사단을, 中央에 美제2사단을, 左翼에 제7사단을 그리고 豫備로 제5사단과 美제1海兵사단을 各各 展開하여 공격을 敢行하였다.

이무렵 Ridgway대장은 美極東海軍司令官 C. Turner Joy중장과 美極東空軍司令官 Otto P. Weyland 대장에게 『空軍力을 最大限으로 動員하여 北韓의 交通網을 파괴하고 集結地에 對한 공격을 強化하라.』는 要旨의 命令을 下達하였다.

全戰線의 整理와 敵의 據點을 奪取하려는 美제10군단의 공격은 地勢의 嶮難만이 아니라 霖雨의 계속으로 말미암아 航空支援의 制限과 觀測 및 機動의 制約으로 苦戰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 攻擊은 일단 延期하게 되었다. 이러는 가운데 開城에서의 會談이 雙方의 分界線問題로 8月 23日에 中斷되기에 이르자 攻擊再開를 切感한 我軍側은 當面의 敵을 驅逐하여 戰線을 보다 強化할 目的으로 Punch Bowl地域에 對한 공격을 다시 시작하였는데, 제1군단은 △924—△884 등 高地群을 攻擊하였으며, 美제10군단은 Punch Bowl 西壁을 공격하기 위하여 제5사단으로 하여금 △983(피의 稜線)를 攻略케 하고 30日에는 美제1 海兵사단을 군단右翼으로 轉用하는 한편 9月 4日에는 美제2사단으로 하여금 공격을 계속케 하였다.

國內情勢：4月 26日, 一進一退의 變化無常한 戰局에 動搖됨이 없이 長期態勢를 取하여 계속 釜山에서 開院中이던 國會는 戰時國政의 許多한 不當性을 指摘한 國政監査班의 監査報告를 聽取하였는데, 그 中에서도 國內에 큰 波紋을 던진 것이 國民防衛軍事件과 居昌事件이었다.

이는 國家重責을 忘却한 一部幹部들이 巨額의 國庫金을 不正處分하여 그 結果로 千數百의 壯丁들이 路頭에서 숨지고, 병들게 되었다는 것과, 共匪들에 加擔하였다는 理由로 蒙昧한 男女住民들을 集團殺戮한 內容이었다.

이와 같은 事實이 알려지자 世間의 物議는 자못 沸騰하고 마침내 國會에서 이 問題를 놓고 激烈한 論難이 벌어져 30日에 國民防衛軍을 解體할 것을 決議함으로써 『國民防衛軍 廢止에 關한 法律』을 可決通過시키는 한편 居昌事件에 對하여는 그 眞相을 調査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國會決議로 構成된 調査團은 現地에서 調査結果 187명의 部落民이 殺害됨이

들어나 5月 14日 國會本會議에서 關係者를 嚴重處罰할 것을 決議하기에 이르렀다.

이 兩大事件을 契機로 李承晩 大統領은 7日에 內務, 國防, 法務의 三長官을 引責辭任케 하였다.

그러나 國會와 政府間에는 摩擦이 점차 尖銳化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때에 李始榮 副統領의 辭任書가 提出되어 國會는 一旦 辭任書를 返還하기로 決議하였으나 再次 提出로 이를 受理한 다음 15日 投票에서 金性洙를 選出하게 되었다.

國會와 政府, 그리고 國會內에서의 政府側과 野黨側의 對立이 深刻한 局面에 접어들자 8月 15日 李大統領은 慶祝辭에서 『全國에 큰 政黨을 組織하고 農民과 勞動者들을 土台로 삼아 一般國民이 나라의 福利와 自己의 共同 福利를 保護하기 위하여 正當한 政黨을 만들 때가 왔다. (中略) 우리가 믿는 바는 이 새政黨으로 永久한 土台를 삼아 그 위에 政府가 굳게 서야 할 것이다. 大多數의 國民이 政府의 土台로서 自己들의 正當한 地位를 차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나는 數次 國會에 對하여 憲法上 두 條件을 改正하기를 付託하였다.

하나는 大統領을 國民이 直接投票하자는 것이요, 둘째는 國會에 兩院制를 둠으로써 民主政府를 더욱 鞏固히 하자는 것이다.』라고 하고 이를 國會에 正式改憲案으로 提出審議케 하였다. 그러나 國會는 이 두 改憲案을 否決하게 됨으로써 政爭은 그칠날이 없었고 이에 따라 政府側을 支持하는 新黨創立의 胎動이 힘차게 일기 시작하였다.

한편 戰時國政을 能動的으로 處理하여야 하였던 政府는 政爭에도 不拘하고 食糧難에 對處하기 위하여 5月 6日 米價調節緊急對策으로 政府米 200,000石을 放出하는 동시에 政府保有 $를 拂下하여 民間貿易業者로 하여금 外國産 糧穀을 輸入케 하였으며 公務員에 對한 無償糧穀 配給을 實施하고 累增하는 犯罪의 團束과 傷痍軍警 및 그 遺家族에 對한 處遇, 罹災民問題, 住宅問題, 流行性 疾病問題 等 當面의 山積한 業務들 處理하지 않으면 아니되었다.

또 政府는 7月 2日에 UN에 對하여 戰災復舊費計上에 依據 70億弗을 要請하는 書面을 發送하고 이어서 8月 4日에는 對日 賠償額이 最少限 60億에 達한다고 發表하였다.

期間中 治安問題에 있어서는 제8사단이 戰線으로 出動케 되어 警察만으로, 時勢를 틈타 더욱 跳梁하기 시작한, 共匪들을 討伐한다는 것은 힘겨운 바가 없지 않았는데 8,000명으로 推算된 共匪는 後方警備의 소홀을 機會삼아 全國山間僻地를 舞台로 가진 蠢行을 恣行하였다.

한편 國內 社會, 經濟面은 解放後 가장 深刻한 局面을 보여 인푸레現象은 國民 生活을 威脅하였다.

6月末現在 釜山의 都賣物價 指數는 開戰當時에 比하여 30倍에 達하여 7月中 釜山에서의

白米 1斗 時勢가 135,000원線을 突破하고 이에 反해 軍人과 警察의 俸給은 下士官과 巡警의 경우 20,000원으로서 1週分의 雜費에도 未達하였다.

全國의 食糧需要의 80%를 外米에 依存하는 實情이었으며, 戰時 新生活 運動으로 全國料亭 80%를 廢止하였음에도 不拘하고 釜山을 爲始한 大邱 등 大都市에서는 戰時體制가 容易하게 갖추어지지 않았고, 一般社會犯罪는 國民生活苦를 端的으로 反映하여 入監者數의 70%가 窃盜犯이었다.

이상과 같이 多事多難한 國內情勢속에서도 全國民은 一致團結하여 憤然히 궐기하여 韓國을 또다시 分斷하려는 停戰에 決死反對하는 鬪爭을 展開하였다.

6月 5日, 國會는 3月부터 끈덕지게 교리를 문 美國側의 停戰說에 『侵略者 中共이 侵略行爲를 中止, 撤退하고 大韓民國 主權下에 完全自由統一을 先決條件으로 하는 以外의 如何한 停戰에도 反對한다.』는 決議文을 採擇하였는데 이를 嚆矢로 全國 坊坊曲曲에서는 38° 線 停戰反對를 위한 國民總蹶起大會를 開催하고 『三千萬의 總意로서 共産侵略者에게 時間과 再侵機會를 주려는 停戰에 決死反對한다.』고 絶叫하였다.

또 25日에는 反共總蹶起大會가 全國에서 열려 『UN加盟國들은 自由를 위하여 싸우는 弱少民族을 傍觀치 말아야 할 것이며, UN정신을 해치는 蘇聯은 마땅히 UN에서 除去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民族의 憤怒를 參戰國元首들과 UN事務總長 Trygve Lie 및 Ridgway 대장에게 傳하였다.

李大統領은 27日, 『侵略者에게 罰을 주려는 것인가 賞을 주려는 것인가. 38°線으로의 韓國의 分割은 結局戰爭을 낳았고 장차에 도똑같은 狀態에서 戰爭을 誘發하게 하려고 努力하고 있다.』라고 하여 停戰을 云謂하는 者들에게 날카로운 一針을 加하였다. 그러나 休戰會談은 기어코 開催되었으니, 온 國民의 失意는 勿論, 이로 말미암은 錯雜한 心情은 形言키 어려웠다.

休戰會談 : UN의 끈질긴 平和交涉에도 不應한 채로 계속 侵略을 恣行하던 北共 및 中共은 마침내 屢次의 敗戰으로 말미암은 頹勢을 挽回할 수 없게 되자 窮餘之策으로 休戰을 提議케 되었는데 이로써 시작케 된 期間中의 會談進行의 槪要는 다음과 같다.

6月 23日, 蘇聯 UN代表 Jacob Malik는 放送을 通하여 『韓國問題의 解決을 爲한 措處로 交戰國들은 軍隊를 38°線으로부터 서로 撤退시키는 것을 規定하는 停戰 및 休戰을 위하여 會談을 시작하여야 한다.』고 提議하자 美行政府는 24日 駐蘇大使에게 指令하여 蘇聯의 眞意如何를 打診케 하였다.

그 結果 28일의 Moscow放送은 『38°線 停戰이 可能하다』고 發表함에 이르러 29日 Tru-

man 大統領도 『休戰協商은 推進시킬 可能性이 있다』고 發表하는 同時에 Ridgway 대장에게 指令하여 그로 하여금 敵側에 正式으로 休戰會談을 위하여 元山港內 Denmark 病院船에서 會合하자고 提議케 하였다.

兩側이 爲先의 協商을 위하여 이와같이 呼應하는 一面에서 直接 當事者인 韓國의 反應은 다음과 같았다.

즉 李承晩 大統領은 27日에 聲明하기를 『또 다른 무서운 戰爭의 序曲이 될 수 있는 如何한 停戰案도 受諾할 수 없다.』라고 明快하게 反駁하는 한편 30日에는 停戰問題에 對한 政府態度를 闡明하여 『北共과 中共은 武裝解除와 全面撤退할 것이며 UN은 제3國의 北共援助를 防止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의 主權 및 領土保全에 紛爭을 惹起할 決定 또는 計劃을 反對하며 國際會議에는 우리 代表를 參加시켜야 한다.』라는 要旨의 5個項을 發表하였다.

이에 對하여 敵側의 態度는 7月 1日 北京放送을 通하여 『開城에서 10日부터 15日 사이에 會談을 開催하자.』고 UN軍側 提議에 回答하는 同時에 北京 人民日報는 『今次의 停戰會談은 38°線을 軍事境界線으로 할 것』이라고 主張하였다.

이와 같은 狀況 속에서 Ridgway대장은 場所問題를 讓步하여 開城으로 同意한 다음 于先 그 豫備會談부터 開催하자고 通告하게 되었는데, 敵側이 이를 받아드림으로써 雙方의 連絡將校가 豫定대로 8日 開城에서 豫備會談을 開催하고 會談 始發에 必要한 兩側 正式代表名單을 手交하였다.

10日 11.00, C. Turner Joy提督을 首席으로 하는 UN軍側 代表 5명과 南日을 首班으로 하는 敵側代表 4명은 世界의 耳目을 集中시키면서 제1次本會談을 開催하고 實質討議를 시작하였다.

Joy代表는 會談劈頭에 『議事日程을 交換하고 議題에 關聯하여 政治的이거나 經濟的인 事項은 討議하지 않으며 韓國에 關係없는 軍事的인 事項도 討議하지 않겠다.』라고 表明한 反面에 敵側代表는 停戰成立과 같이 『38°線을 軍事境界線으로 하고 南北 各 10km의 地域을 非武裝地帶로 設定할 것, 短時日內에 韓國에 있어서 全 外國 軍隊의 撤退를 實行할 것』이라는 態度를 보였다.

12日, 이 會談에서도 이와같은 엇갈린 主張으로 空轉하다가 敵側이 UN軍側 記者團의 車輛通行과 會談場의 取材를 拒否한 결과 이를 契機로 會談은 停頓狀態에 빠지게 되었다.

이 事件이 發生하자 Ridgway대장의 命令으로 代表團은 會談場으로의 出發을 中止하고

되었는데 Joy代表는 南日에게 멧세지를 보내어 『記者團의 通過를 許可하여야만 會談을 續行할 수 있다』라고 表明하였으나 南日은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會談은 中斷되었다.

Ridgway대장은 13日에 會談再開 條件으로 『① 開城의 中立化 ② UN軍代表團의 通行의 自由 ③ 新聞記者를 包含한 代表團 構成決定의 自由』를 提示하고 이를 強力히 主張하였다.

이에 이르러 敵側은 合當한 UN軍側 要求를 拒絶할 수 없었던지 14日에 平壤放送을 通하여 開城을 暫定的으로 中立化하는데 同意하고 新聞記者의 會談場 出入을 受諾한다고 回信함으로써 滿 3日間 中斷되었던 會談은 다시 열리게 되었다.

記者가 參加하는 會談이 再開하게 되었다는 消息이 記者가 묵고 있는 汶山에 傳해지자 記者들은 雀躍하였다.

그러나 UN側은 休戰에 反對하는 韓國記者들을 會談場에 보낼 수 없다는 立場을 고수함으로써 한때 이들을 憤怒케 하였으나 『내나라의 일을 내나라 記者들이 取材하지 못한다는 것은 不當하다』라는 正當한 抗議에 부딪쳐 單 一名에 限하여 그 取材를 許可하기도 하였으니 매우 可笑로운 處事라고 할 것이다.

이리하여 15日에 續開된 會談에는 20명의 記者들이 參加하게 되었으나 敵側에서 外國軍의 撤退問題를 固執하였기 때문에 25日까지 會談은 遲遲不進하다가 26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다음과 같은 5개項目의 議事日程에 合議케 되었으니 『무엇을 討議할 것인가』를 決定하는데 無慮 15日이 所要된 셈이다.

1. 議題의 採擇
2. 敵對行爲 停止의 基礎的 條件으로 非武裝地帶를 設定하기 위한 雙方의 軍事的인 境界線의 協定
3. 停戰 및 休戰實施를 위한 細目의 協定
4. 捕虜交換에 關한 諸措置
5. 雙方의 關係各國政府에 對한 勸告.

이와 같이 하여 外國軍 撤退問題는 期於코 除外되었으나 平壤放送은 이날에도 이 問題의 討議를 主張하였다.

如何튼 이날부터 議事日程 제2項을 討議하기 시작하였으나 이 問題의 進展 역시 如意치 못해 舌戰만을 일삼고 7月末까지 踏步만을 거듭하였는데 이 問題를 中心으로 한 雙方의 主張은 다음과 같다.

UN軍側—雙方의 接觸線을 主張.

1. 高城—金化—臨津江에 이르는 線을 境界線으로 삼고

2. UN空軍과 海軍의 兩戰線은 鴨綠江上에 있으며 地上戰線은 38°線의 相當한 距離 北方임이 明白하다.

3. 따라서 이러한 戰線을 기초로 非武裝지대를 設定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敵軍側—38°線을 固執

1. Malik가 休戰을 提案하였을때부터 38°線을 前提하였고

2. UN軍이 38°線을 넘어서 進擊하였기 때문에 中共軍이 南下한 것이니 UN軍은 38°線以南으로 撤退하여야 한다.

3. 雙方의 實際戰線은 38°線을 中心으로 하여 計測할 때에 큰 差異가 없다.

이상의 主張을 對照檢討한다면 敵側의 黑心은 分明코 南侵以前의 原狀으로 復歸하려는데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8月 4日에 이르러 中共軍 1개중대 兵力이 제19次會談場 부근의 中立地帶를 侵犯한 事件이 發生하여 會談분위기에 또 다른 暗雲을 던졌다.

이 事件이 發生하자 Ridgway대장은 會談을 中斷하고 敵軍側에 事件說明과 將來保障을 強硬히 要求하였다. 이에 對하여 敵側은 確實한 證據를 陰蔽할 수가 없어 事實을 是認함에 따라 會談은 再開되었으나 이로부터 敵側은 宣傳과 그들이 中立地帶侵犯事實에 對한 억지 對應策으로 捏造劇을 演出하여 UN軍이 中立地帶는 勿論 後方으로 移動하는 그들 代表車輛을 攻擊하였다고 터무니 없는 抗議를 되풀이하였다. 이러한 사이에 會談成果란 겨우 停戰狀態에 빠진 議題 제2項에 對한 討議를 위하여 겨우 雙方 各己 2名의 代表로 合同小委員會를 構成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敵軍側의 連이은 事件造作으로 會談이 24日 마침내 決裂됨에 이르러 좀처럼 再開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다가 9月 6日 Ridgway대장은 드디어 新局面을 打開하기 위한 方案으로서 敵軍側에게 會談場所를 開城이 아닌 다른 곳으로 選定하는 것을 討議하자고 提案하게 되었다.

第 43 章

第一次 春季 攻防戰

要　旨

1. 第2次 麟蹄地區 戰鬪
2. 臨津江—서울 西北方 戰鬪
3. 雪嶽山附近 戰鬪
4. 高陽—奉日川里—東亘里附近 戰鬪
5. 海兵隊의 華川附近 戰鬪
6. 美 제1군단의 臨津江—서울 撤收戰
7. 海軍의 活動
8. UN海軍의 活動
9. UN空軍의 活動

第43章 第一次 春季 攻防戰

要 旨

本章에는 戰爭勃發 10個月째 접어들면서 38°線을 中心으로 하여 戰線이 激動하던 51年 4月下旬으로부터 同年 5月中旬까지 1個月동안에 展開된 全戰線의 地上戰과 이에 協同한 海, 空軍의 活動相을 收錄케 되는 바, 期間中의 特徵을 一瞥하면 세번째로 서울 強占의 一戰을 노린 敵이 21個師團 14萬 大群의 兵勢를 휘몰아 中·西部戰線의 美제9, 제1 兩군단의 正面에서 集中的으로 物量攻勢를 取함으로써 攻防激突을 惹起케 된 一面과 攻擊 開始 7일만에 그 企圖가 무너져 屠戮의 慘相만을 남긴채로 首都圈 外廓에서 退却하게 되자 이를 追及 擊破하는 局面으로 大別할 수 있는 데, 이를 일컬어 第一次 春季攻勢라 한다.

當初에 國軍 및 UN軍은 2月攻防戰을 契機로 하여 作戰의 主導權을 掌握하게되자 火力과 補給의 劣勢에 허덕이는 北共 및 中共軍을 壓迫하여 解氷과 더불어 北進의 大鼓를 울린 以來, Killer作戰(2月21日~3月4日)의 成功으로 漢水以南에서 敵勢를 完全히 驅逐하고, 곧 이어서 展開한 Ripper作戰(3월7일~3월24일)에서는 서울의 奪還을 비롯하여 全戰線에서 다시 38°線을 넘게 되었는데 4월 中旬까지의 進出狀況을 概觀하면, 제1군단은 襄陽을 넘어서 杆城으로 肉迫하였으며, 제3군단은 縣里를 거쳐서 元通里를 掌中에 넣었고, 美제10군단은 昭陽江을 건너 麟蹄와 楊口로, 그리고 美제9군단은 華川과 史倉里 南쪽에 머물었으며, 美제1군단은 抱川—漣川—臨津江線까지 逐次 進出하였으니, 大體로 Kansas線에 이르러 戰線의 等齊를 期하기 위한 局部的인 攻擊과 戰列을 整備하면서 戰局의 推移를 銳意檢討하였다.

이무렵 敵은 38°線을 固守코자하던 機動防禦의 策略이 水泡로 돌아가자 Kansas線 北쪽으로 물러서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75萬을 헤아리는 兵勢가 前後方에 尙存한데다 戰線의 後退로 말미암아 補給의 推進거리가 短縮되고 豫備隊의 投入이 容易한데 힘입어 이른바 그들의 제5단계 작전을 劃策하였으니, 華川貯水池 以東은 北共 제3, 제5군단이 擔當하고 그 以西는 中共 제9, 제13병단과 北共 제1군단이 맡아 殘兵의 糾合과 再編을 서두르는 한편 中共 제3, 제19의 兩兵團을 臨津江 北岸으로 새로이 推進하여, 開城 北쪽과 九化里地域, 平康과 鐵原地域, 金化와 華川 北쪽에서 各各 大攻擊집단을 形成하면서 乾坤의 一戰을 준비하였다.

이와같이 敵의 攻勢徵候가 表著하게되자 軍에서는 機先을 制하여 그 策源地를 烏有化하기로 決定하고 4월 21일을 期하여 中·東部에서는 Alabama線으로, 中·西部에서는 Wyoming線으로 各各 攻略 進出하였는데, 그 다음날인 22일에 敵은 中·西部戰線으로 集中攻勢를 取함으로써 華川—史倉里—抱川—漣川—議政府北쪽—泰日川線에서 彼我가 激突케 되었으며 東部의 山岳地帶에서도 北共과의 對決을 보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戰線이 無常한 一進一退의 樣相을 띠게 되었는데 이제 그 仔細한 內容은 各節에서 詳述하겠거니와 그中 史倉里戰鬪는 旣刊 제5권 제4章에 收錄하였기로 本章에서 除外하였다.

1. 第2次 麟蹄地區 戰鬪 (1951년 4월 22일부터 1951년 4월 27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2, 3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敵 軍		
美 제10군단장	중장	Edward M. Almond	北共 제3군단 장	중장	柳 京 洙
제5사단	장	준장 閔 機 植	제15사단 장	소장	朴 成 哲
제27연대	장	대령 俞 義 濬	제45사단 장	소장	池 병 학
제1대대	장	소령 李 南 周	제5군단 장	중장	方 虎 山
제2대대	장	소령 成 泳 煥	제6사단 장	소장	洪 林
제3대대	장	소령 朴 元 寬	제12사단 장	소장	崔 忠 國
제35연대	장	대령 洪 淳 龍			
	대리	대령 金 益 烈 (51. 4. 25)			
제1대대	장	소령 金 順 喆			
제2대대	장	대위 李 昌 秀			
제3대대	장	소령 李 昌 得			
제36연대	장	대령 黃 燁			
	대리	중령 金 且 先 (51. 4. 25)			
제1대대	장	중령 李 承 雨			
제2대대	장	중령 趙 始 衡			
제3대대	장	소령 李 圭 昇			
배속부대					
제7사단 제3연대	장	대령 鄭 震			
제1대대	장	소령 朴 俊 鎬			
제2대대	장	소령 李 再 起			
제3대대	장	소령 李 永 吉			
제26포병대대	장	중령 盧 載 鉉			
제5야전공병대대장		소령 洪 錫 曦			
지원부대					
美 제7사단 포병단					
美 제7사단 전차소대					
병력 : 9,800명					
장비 : 총포는 T/E, 82%					
차량은 T/E의 64%					

나. 전투전의 개황

사단은 美 제10군단 右翼으로서 4월 9일에 昭陽江 渡河作戰을 敢行하여 4월 12일에 麟蹄를 奪還하고 右一線인 제36연대(장, 黃 燁대령)가 4월 17일에, 左一線인 제35연대(장, 洪淳龍대령)가 4월 19일

에 각각 Kansas線으로 進擊함으로써 사단作命 제35호에 따르는 作戰을 끝내고 사단作命 제37호에 의거하여 防禦陣地를 補強하는 한편 威力搜索을 계속하던중 육본作命 제265호(51.4.20. 01.00) 및 美 제10군단 作戰指示 제157호에 따라 Alabama線(高城南쪽—△339—沙泉里—加田里—六岩山—楊口北方)으로의 進擊을 준비 하였다.

敵軍의 狀況：我사단의 進擊을 遲延시키던 北共 제5군단예하 제12사단은 그 받은 바 打擊이 甚한 탓으로 그 任務를 제3군단예하 제15사단에 넘긴다음 巫山(△1302)부근으로 물러나 군단主力과 合流하여 再編成을 하게되었으며, 제15사단은 그 主力을 月山里부근에 두고 예하 제3연대로서 계속 我 제5사단에 挑戰하는 한편 主抵抗線을 攪亂하고자 劃策하고 있었다. 4월 19일에 入手된 諜報의 評價分析으로 是認된 情報(陸本定期情報報告 제111호參照)에 의하면 再編成을 끝낸 제5군단예하 제12사단은 釜淵洞(瑞和里 東北쪽)으로 南下하였으며, 제6사단도 이를 後續하여 陳富里에서 東쪽으로는 제32사단 西쪽으로는 제12사단과 連繫한것으로 判斷되었다. 또 제3군단예하 제45사단은 伊布里를 거쳐 南下中에 있었는데 이는 六愚山(△1179)과 六岩山(△1316)을 目標로한 機動의 一環인 것으로 推斷되었다.

이로써 敵은 제5군단을 東翼, 제3군단을 西翼으로하여 제32사단이 제69여단의 支援下에 我 제1군단正面으로, 제6사단이 我 제3군단예하 제3사단正面으로, 제12사단과 제45사단 그리고 제15사단의 일부는 我 제5사단正面으로, 제15사단主力과 제1사단은 美 제7사단正面으로 각각 展開하여 언제라도 南侵할수 있는 態勢를 갖추었고 또 攻勢로 轉換한다면 中東部戰線에서는 麟蹄—楊口를 奪取하고 그들의 所謂 2월攻勢때의 戰線인 洪川南方線으로 我軍을 壓迫하는 한편 西部戰線에서는 서울을 奪取하여 다시금 南半部赤化의 野望을 펴보려고 노리는 것으로 最惡의 경우를 想定하게 하였다.

我軍의 狀況：사단은 Kansas線으로 進擊한 다음 사단 CP를 계속 靑邱洞에 두고 右一線인 제36연대(장, 黃 煒대령)는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를 一線대대로하여 烽火峯(△579)—△481(俗稱말거리)에 配置하여 主抵抗線防禦를 담당케하는 한편 제1대대(장 李承雨중령)는 제3중대(장 朴昌基소위)를 栗坪의 △413에 그리고 主力은 △426(西湖洞부근)의 豫備陣地를 占領하였으며, 제2대대(장 趙始衡중령)는 연대예비로써 △367(陰地村 北쪽)에 계속 위치 하였다. 연대는 사단作指 제12호에 의거하여 각대대에서 1개소대씩을 抽出하여 연대수색중대와 協同으로 搜索限界線(明塘山—月鶴里)의 搜索을 계속하였으나 4월 21일에는 사단장 閔機植준장의 口頭命令(作命 제38호로서 後達)에 따라 제7사단(장, 金炳一준장)과의 陣地交代를 준비 하였으며 연대CP는 계속 麟蹄에 位置하였다.

한편 사단 左一線인 제35연대(장, 洪淳龍대령)는 제1대대(장, 金順喆소령)를 △644(長坪 東北쪽 1km)—△719(長坪 北쪽 2km)에,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를 元通二里 北쪽의 △493—△676一帶에, 그리고 제2대대(장, 李昌秀대위)를 加兒里부근 一帶에서 陣地를 占領케하고, 계속 敵을 追擊하고 있었다. 사단예비인 제27연대(장, 俞義濬대령)는 계속 藍田里에 集結하여 사단後方경계를 담당하는 한편 사단장 閔機植준장의 口頭命令(作命제38호로 後達)에 따라 사단左一線으로 進出을 준비하였으며 제26포병대대(장, 盧載鉉중령)는 지난 17일에 南北里부근으로 進出한 以來로 사단 全正面에 대한 火力支援을 계획하고 陣中敎育을 實施하였으나 사단장의 口頭命令에 따라 加兒里로 進擊態勢를 갖추었다.

이무렵 右隣接인 제3사단(장, 金鐘五준장)은 CP를 縣里에 두고 제23연대(장, 金淙舜대령)를 右一線, 제22연대(장, 張春權대령)를 左一線으로하여 加里峯(△1519)—寒溪二里에 이르는 제44번 作戰路에 沿

하여 主抵抗線을 設置한 다음 龍垈洞—△1408—大勝瀑布—△911—△454 一帶에 警戒陣地를 編成하여 계속 威力捜索을 展開하고 있었다. 한편 제3군단(장, 劉載興소장)의 예비인 제7사단(장, 金炯一준장)은 그 CP를 蒼村里에 두고 제3연대(장, 鄭 濩대령)가 제3사단에 배속되어 사단 예비로써 泥橋에 集結 待機中에 있었으며 제8연대(장, 李賢進대령)는 蒼村에, 제5연대(장, 金仁哲대령)는 橋洞에 각각 位置하고 있었는데, 陸本作命 第265號에 의거하여 군단 戰鬪地境線 變更에 따라 군단左翼으로 進出하게되자 제3, 제5兩사단의 陣地 일부를 引受키로하여 준비中에 있었다.

左隣接인 美7제사단(장, Claude B. Ferenbaugh소장)은 CP를 陽地村에 두고 右一線인 제32연대(장, Chlares M. Mount. Jr. 대령) 主力은 加兒里 西南쪽 △928—△902—野村里一帶를 占領하여 제5사단과 連繫하고, 左一線인 美 제17연대(장, Herbert B. Powell 대령)는 1개대대로써 楊口 東쪽의 △468를, 연대主力은 桃村里—石峴里에 이르는 一帶를 각각 占領하고 威力捜索을 展開中에 있었으나 군단作指제157호에 의거하여 一部陣地를 제5사단에 引繼하고 Alabama線으로의 進擊을 준비하였으며 사단 예비인 美 제31연대(장, Allen D. MacLean 대령)는 俗稱 거리뒤골(驛內里 東北쪽 6km)에 位置하여 冠垈里—洪川에 이르는 제44번 作戰路를 경비중이었다.

또 美 제2사단(장, Clark L. Ruffner 소장)은 그 CP를 瓦東里에 두고 제23연대(장, James Y. Adams 대령) 主力은 俗稱 안말(楊口 西쪽 4km)부근의 高地一帶를, 그리고 一部병력은 △234(楊口 南쪽 2km)를 각각 占領하여 제31, 제46번 作戰路를 확보하였으며 연대에 배속中인 France軍대대는 月明峯(△719)을 확보하고 威力捜索을 계속하였으며 사단예비인 美 제38연대(장, John C. Coughlin 대령)는 城山里부근에 位置하여 美 제7사단 제31연대와의 協同으로 冠垈里—洪川間의 主補給路를 경계하는 한편 군단예비로 派遣中인 美 제9연대(장, Charles C. Sloane. Jr. 대령)는 東草里(洪川 東쪽 5km)에서 군단 CP경계를 담당하고 있었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UN군 총사령관으로 昇進한 Ridgway대장의 뒤를 이어 4월 14일에 美 제8군사령관으로 着任한 Van Fleet 중장은 空地兩面에서 入手된 諜報에 따라 不遠間에 敵의 攻勢가 있을것으로 判斷하게 되자 敵에게 出血을 強要하면서 時間을 얻으려는 遲延作戰을 堅持키로 決心하는 동시에 敵補給의 缺乏과 그 補給線의 伸張에 따르는 戰力의 枯渴을 틈타서 一大反擊으로 轉換하려는 從來의 基本戰略方針을 踏襲키로 하고 最惡의 경우에 라도 37°線 以南의 後退를 斷乎排擊키로 하였다. 그러나 首都서울의 再抛棄가 가져 올 韓國 軍官民에 대한 至大한 惡影響을 考慮하여 끝까지 서울의 固守方針을 再決意하고, 美 제9군단으로부터 美 제1기갑사단(장, Charles D, Palmer 소장)을 抽出한 다음 군 예비로 控置하는 한편, 敵에게 不斷한 壓力을 加함으로써 그들의 攻勢의 初頭를 強打하거나 또는 그

準備進行을 遲延시키는 一方 可能하면 集結據點을 奪取하려는 積極守勢의 一環策으로 東部 및 中東部戰線의 제1, 제3군단 그리고 美 제10군단은 Alabma 線으로 그리고 中, 西部의 美 제9, 제1군단은 Wyoming線으로 각각 進擊 하라고 大喝一聲하였다.

이에 따라 美 제10군단장 Almond 중장은 要旨 다음과 같은 作指제157호를 嚴達하였다.

『韓 제5사단은 군단 戰鬪地境線의 變更에 따라 一部陣地를 韓 제3군단예하 부대에 引繼한 다음 D日H時를 期하여 Alabama線(高城南쪽—△339—沙泉里—加田里—大岩山—楊口北方)을 目標로 進擊하여 이를 확보하라.

攻擊間 要請에 따라 美 제7사단 155mm 및 105mm 포병대대의 一般支援을 받을 것이다.』

이에 사단장 閔機植준장은 군단戰鬪地境線의 變更에 따라 進出하는 제7사단에 陣地를 引繼하게되는 제36연대를 麟蹄부근으로 招致하여 사단예비로 轉換케하는 한편 이미 사단예비로써 藍田里에 集結하여 待機中인 제27연대를 사단左一線으로 하여 美 제7사단 제32연대陣地를 인수케하는 동시에 右一線으로 轉換된 제35연대는 △1175—大岩山(△1316)을 逐次로 奪還한 다음 俗稱 절터에서 △1304에 이르는 Alabma線을 확보케 하며 새로이 左一線으로 投入되는 제27연대는 大岩山 西南쪽의 △1218—△1112를 차례로 공격하여 敵의 集結據點을 奪取토록하는 計劃下에 要旨 다음과 같은 사단作命 제38호를 下達하였다.

『① 사단은 kansas 線에서 D日H 時를 期하여 공격을 개시하여 當面의 敵을 驅逐한 다음 Alabama線을 확보하는 즉시로 威力搜索을 敢行하려 한다.

② 제27연대는 51.4.23. 07.00부터 행동을 개시하여 18.00까지 美 제7사단 제32연대의 陣地를 引受한 다음, D日H時를 期하여 攻勢를取함으로써 目標 "3"(△1218), "4"(△1112)를 逐次로 奪還확보하고 새로운 搜索線內의 敵에 대하여 威力搜索을 계속하라.

③ 제35연대는 現陣地에서 D日H時에 공격을 개시, 地域內의 敵을 一擊한 다음 目標 "1"(△1175)—"2"(大岩山 : △1316)를 확보하고 새로운 敵에 대하여 威力搜索을 계속하라.

④ 제36연대는 51.4.23.12.00에 제3군단地域으로부터 移動하여 사단예비로써 麟蹄부근에 集結待機하라.

⑤ 제26포병대대는 51.4.23.12.00부터 作戰路의 開通에 따라 加兒里로 機動한 다음, 사단을 一般支援하라.

⑥ 제5야전공병대대는 泥坪—佳梧作里에 이르는 作戰路를 時急히 補修확보하라.

⑦ 공격間 要請에 따라 美 제7사단의 155mm 및 105mm 포병대대의 一般支援을 받을

수 있다.

⑧ D日H時는 後達한다.』

(2) 작전실시

4월 22일 : 이날 사단장 閔機植준장은 사단作命 제38호를 下達하여 陣地交代와 Alabama線으로의 進擊준비를 명령하였는데, 右一線인 제36연대(장, 黃 煒대령)는 제7사단 제5연대(장, 金仁哲대령)에 主陣地를 引繼하고 그 主力이 麟蹄부근으로 移動하였으며 左一線인 제35연대(장, 洪淳龍대령) 는 23.00부터 敵의 攻勢로 熾烈한 戰鬪가 展開되었고 제36연대와 交代한 제7사단 제5연대 正面에도 敵의 攻勢가 漸次로 擴大되어 갔다. 사단장은 제36연대와 사단예비인 제27연대(장, 俞義濬대령)에 非常出動態勢를 갖출것을 命令하는 한편 戰線狀況의 推移를 銳意注視하였다.

1. 제36연대(장, 黃 煒대령)는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가 一線대대로서 烽火峯(△579)—△481(俗稱말거리)의 主陣地를, 제1대대(장, 李承雨중령)가 △413—△426의 豫備陣地를 각각 占領하고 제2대대(장, 趙始衡중령)는 연대예비로써 陰地村부근의 △367을 占領하고 있었는데 제7사단 제5연대(장, 金仁哲대령)가 進出함으로써 사단장 閔機植준장의 口頭命令에 따라 主陣地와 豫備陣地를 引繼하고 연대主力은 18.00에 機動을 시작하여 22.00에 제1대대는 陽地村에, 제3대대는 南北里에 각각 集結하였으며, 제9중대(장, 盧在萬소위)는 연대계획에 의거 △538—泉谷寺—△725—帶를占領하여 연대側方경계를 담당하였다. 한편 연대예비인 제2대대(장, 趙始衡중령)는 전날에이어 계속 陰地村을 占據하고 있었다.

2. 제35연대장 洪淳龍대령은 14.00에 사단作命 제38호에 의거하여 연대 作命 제38호를 下達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연대는 Kansas線에서 D日H時를 期하여 공격을 개시, 敵을 擊滅하며 Alabama線을 확보하고 계속 威力搜索을 敢行하려 한다.

② 제1대대는 1개중대로 하여금 곧 △873를 確保토록하라.

③ 제2대대는 51.4.23.06.00에 행동을 개시하여 △580(元通二里 西쪽)—△672로 進出한 다음 別命을 기다리라.

④ 제3대대는 51.4.23.12.00까지 제7사단 제5연대와 陣地를 交代하고 俗稱샛말(蘆田坪北쪽 1km)에 集結한 다음 次後指示를 받으라.』

제1대대(장, 金順喆소령)는 月鶴一里 西쪽의 △644—△719一帶를 占領하고 搜索限界線內

의 敵을 威力搜索中, 이날 下達된 연대作命에 따라 李勳榮대위가 指揮하는 제3중대로 하여금 △873를 目標로 攻擊케 하였다. 중대는 △719北쪽稜線에서 공격을 개시하여, 1개소대규모의 敵을 制壓하고 △809를 占領한 다음 곧 敗敵을 追擊하여 공격 목표인 △873를 계속 奪還하고 急編陣地를 編成하여 敵의 侵襲에 對備하였는데, 23.00에 1개대대규모의 敵이 중대를 三面으로 包圍하였다. 중대는 중대장 李勳榮대위의 陣頭指揮下에 肉迫戰을 開展하여 敵의 侵透를 阻止하였으나 끝내는 衆寡不敵으로 제4중대(장, 金道善중위) 81mm 迫擊砲의 掩護射擊下에 血路를 打開하였으며 24.00에는 △719北쪽稜線으로 撤收하여 主力과 合勢하였다. 제3중대를 追跡한 敵은 대대左翼을 迂回包圍하며, 正面으로는 突破를 試圖함으로써, 彼我間에는 手榴彈과 銃劍으로 白兵戰을 벌리게되고 敵과의 一進一退의 激戰을 반복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제2대대(장, 李昌秀대위)는 18.00에 제7중대가 俗稱 仰金밭으로 進出하여 △571西쪽稜線을 占領하였으나 제1대대(장, 金順喆소령)에 대한 攻擊에 뒤이은 敵의 侵襲으로 熾烈한 銃擊戰으로 突變하게 되자 대대장 李昌秀대위는 23.30에 제5중대(장, 金能憲소위)를 長坪으로 急進시켜 제7중대를 支援하였으며 제6, 제8중대는 계속 △745一帶를 확보하였다. 전날에 이어 △493—△676를 점령중인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는 연대作命 제38호에의거 제7사단 제5연대에 陣地引繼를 준비하던中, 24.00에 1개중대규모의 敵의 正面攻擊으로 彼此間에는 熾烈한 銃擊戰을 展開하게 되었다.

3. 사단예비인 제27연대(장, 俞義濬대령)는 전날에 이어 藍田里에 集結中이 었는데 이날 示達된 사단作命 제38호에 따라 戰線進出을 준비 中, 제35연대 제1대대正面에서 돌발한 敵의 侵攻이 全사단正面으로 擴大하게되자 사단장의 口頭命令에 따라 急히 加路里로 躍進한 다음, 戰線加入을 扼腕코 待機하였다.

4월 23일 : 전날 23.00부터 시작된 敵의 侵襲은 제35연대 全戰線과 제36연대와 陣地를 交代한 제7사단 제5연대의 正面으로 漸次로 飛火되어 主抵抗線의 一角을 突破하는 동시에 陣地間隙으로까지 侵透하는바 되어 後方의 遮斷을 받게되고 包圍와 分斷의 兩面跳梁으로써 01.10에는 제35연대 제3대대가 撤退하기 시작하였으니 제1, 제2대대도 混迷中에 빠져 그뒤를 이어 後退 하기에 이르렀다. 사단장 閔機植준장은 전날 麟蹄 부근으로 機動케한 제36연대를 急遽抽出하여 제7사단 제5연대를 增援케하는 한편, 右隣接인 제3사단 제22연대의 一部陣地마저 崩壞함으로써 麟蹄를 目標로 迂回侵襲하는 北共 제6사단을 極力阻止토록 하였다. 한편 사단作命 제38호에 따라 10.00에 麟蹄로 進出한 제27연대는 그 西北쪽에 있는 △538—△632—△719—△693를 連하는 線上을 占領케함으로써 麟蹄中心部를 防守케

하는 동시에 제35연대의 撤收를 掩護케하는 一方, 敵의 南侵을 阻止토록 하여 戰線의 再整備를 企圖하게 되었다.

1. 제35연대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는 전날 24.00부터 시작된 敵의 侵襲에 대하여 熾烈한 射擊戰과 果敢한 肉迫戰의 併用으로 이 敵을 擊退하였으나 계속 增援되는 敵의 攻勢一邊倒로 말미암아 包圍網속에 빠지게 되었다. 대대장 李昌得소령은 연대장洪淳龍대령에게 戰況의 危急性을 速報하고 대대 後方으로의 逐次抵抗을 建議한 다음, 01.10을 期하여 月下洞을 거쳐 蘆田坪으로 且戰且退의 激戰을 반복하기 시작 하였으나 이미 先制迂回한 敵의 退路 遮斷으로 因하여 대대는 元通里쪽으로 그 方向을 바꾸어 昭陽江을 強行渡河할 무렵 △426(西湖洞부근)에서 敵의 不意의 射擊을 받게되었다. 이에 兵力은 疑心暗鬼속에서 分散된 채로 그 一部로써 △492(合江里쪽)로 또 그 나머지로써 昭陽江을 건너 陽地村으로 分離行動하기에 이르렀다. 대대正面으로 侵襲한 이敵은 이때 샛말(蘆田坪北쪽 1.5km)과 蘆田坪을 거쳐 一路南侵中인 것으로 判斷되었다. 한편 연대左一線으로서 △644—△719를 占領하여 전날 밤 23.00부터 激戰을 展開한 제1대대(장, 金順喆소령)는 全火力을 集中하여 正面으로 侵透하는 1개대대규모의 敵을 能히 阻止하였으나, 西側方 제7중대와의 間隙으로 迂回한 敵이 後方을 遮斷하고 包圍공격을 敢行하게 되어 熾烈한 白兵戰을 展開한 끝에 敵의 援兵投入으로 말미암아 02.30에 血路를 뚫고 半場(長坪 東쪽 1km)으로 突出하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敵의 遮斷과 追擊으로 兵力이 暗中에 分散되었는데, 이때부터 연대와의 通信마저 杜絶되기에 이르렀다. 이 당시 제7중대는 전날 18.00에 俗稱仰金밭으로 進擊하여, 제3중대에 대한 攻勢에 뒤이어 侵攻한 敵을 맞아 長坪으로 進出한 제5중대의 支援下에 勇戰奮鬪하였으나, 漸次로 強盛되는 敵의 壓力에 밀려 제5중대의 掩護下에 逐次로 撤收한 다음, △586—△745를 連하는 線에서 陣地를 占領한 대대主力과 合勢하였다. 대대는 제1대대(장, 金順喆소령)의 撤收를 掩護하던中 敵의 梯波攻勢를 맞아 激戰을 展開하였으나 敵의 包圍攻擊으로 後方遮斷의 威脅을 받자 △940—△719를 目標로 遲延戰을 敢行하였다.

이에 연대장 洪淳龍대령은 06.30에 俗稱 소일평(麟蹄 北쪽 1km)에 落伍兵收容線을 設置하고 集結한 300명의 병력으로 混成 제1대대를 編成하여 08.00에 △492(合江里 北쪽 1km)로 挺進시켜 後退하는 부대를 掩護케 하였다. 그러나 14.00에는 △538(麟蹄北쪽)로 機動케하여 麟蹄를 固守토록 하였으며 集結된 제3대대 2개소대의 병력을 우선 △593(南北里 北쪽)에 배치 하였다. 한편 계속된 敵의 包圍攻擊으로 17.00에 △719에서 分散된 제2대대

(장, 李昌秀대위)는 開運里를 目標로 撤收하였는데 여기에 集結한 병력으로 △712(加路里 西北쪽 2km)에 再配置하였다. 또한 21.00에 사단CP(靑邱里)에 集結한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 以下 109명의 장병은 사단차량으로 麟蹄로 機動하여 연대CP경계를 담당하였다.

2. 제36연대(장, 黃 煒대령)는 이날 右隣接인 제3사단 제22연대의 一角이 崩壞되는 동시에, 제35연대 제3대대와 제5연대의 西쪽 陣地가 突破되고 戰線後方이 遮斷되었기 때문에 麟蹄가 敵의 挾擊의 威脅을 받게 됨에 따라 사단장 閔機植준장의 緊急命令으로 제5연대(장, 金仁哲대령)를 增援하는 한편, 제35연대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의 撤收를 掩護하고 제3사단지역과 昭陽江沿岸을 따라 侵透하는 敵을 阻止擊滅하고자 01.00에 緊急出動하였다. 陽地村에 集結待機中이던 제1대대(장, 李承雨중령)는 05.00에 俗稱 관벌—△834—△828—帶로 前進하여 急編陣地를 占領하고 제3사단地域으로 부터 迂回侵襲하는 敵을 阻止하였고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는 대대예비인 제9중대(장, 盧在萬소위)를 △538—泉谷寺—△725에 殘置하고 전날의 集結地인 南北里를 출발하여 04.00에 제10중대(장, 白基淳중위)를 元通 北쪽의 無名高地에, 제11, 제12중대를 △426(元通西南쪽 1km)에 진지를 각각 점령케하여 제45번 作戰路와 昭陽江沿岸을 따라 侵襲하는 敵을 阻止하였다. 그런데 06.00에 俗稱 솔정치로 迂回한 敵이 泥坪으로 侵襲하여 연대後方의 遮斷을 敢行하므로 제11중대(장 金炳國중위)는 연대장 黃 煒대령의 긴급지지에 따라 내려진 대대장의 명령으로 泥坪 北쪽의 無名高地로 轉進하였는데 下西湖 東쪽의 昭陽江橋梁에 중대의 선두가 이르렀을 무렵에는 이미 潛襲中인 敵의 不意射擊을 받아 한때 唐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때마침 제12중대(장, 張壽相대위)의 掩護가 奏效하고 중대장金炳國중위의 果敢한 戰鬪指揮로써 즉시 態勢를 가다듬고 07.00에 一齊히 突進하여 목표인 無名高地를 占領하였다. 한편 元通 北쪽高地를 확보한 제10중대(장, 白基淳중위)는 제11중대가 後方으로 侵襲한 敵과 激突하게 되자 대대장 李圭昇소령의 명령에 따라 昭陽江을 건너 제11중대의 無名高地공격을 支援하고 主力과 合勢한 다음 이 無名高地를 확보하였다. 이때에 △367(陰地村 北쪽)를 전날에 이어 확보하고 있던 제2대대(장, 趙始衡중령)는 敵이 泥坪부근으로 侵透하자, 연대장 黃 煒대령의 명령에 따라 이 敵을 擊滅코자 하였는데, 제6, 제7중대는 合江里로 迂回하여 △492를 공격, 이를 奪還하고 다시 △551(俗稱 솔정지부근)로 進擊한 다음 侵襲하는 敵에게 熾烈한 一擊을 加하였다. 그러나 右隣接인 제3사단 제22연대의 一部陣地가 敵의 強壓으로 崩壞되고 左隣接인 제35연대(장, 洪淳龍대령)의 全面撤收에 이어 제7사단 제5연대(장 金仁哲대령) 마저 撤收를 시작하자 敵의

侵攻은 그 勢를 더욱 擴大하였으므로 각대대는 逐次撤收戰으로 移行하지 않을 수 없어 12.00에는 閑陽里로 集結하게 되었다. 이때 敵은 麟蹄 北쪽의 合江里로 侵透하는 한편 古沙里 南쪽 4km부근 道路를 遮斷함에 이르러 士氣는 沮喪되고 携帶彈藥마저 缺乏되어 연대는 13.00에 다시 後退를 거듭한 나머지 古沙里—半場洞을 經由 24.00에 사단CP가 位置한 靑邱洞으로 集結하였다.

3. 제27연대장 俞義濬대령은 이날 사단作命 제38호에 따라 要旨 다음과 같은 연대作命 제16호를 下達하였다.

『① 연대는 Kansas線에서 美 제7사단의 一部陣地를 인수한 다음, 當面의 敵을 擊滅하고 Alabama線을 확보하려 한다.

② 제1대대는 51.4.23. 13.00까지 俗稱半場으로 進出하여 연대예비로서 다음 명령을 받으라.

③ 제2대대는 51.4.23. 13.00까지 △902(佳梧作里 東南쪽 2km)로 進出하여 美 제7사단 제32연대 一部陣地를 인수한 다음, D日H時를 期하여 공격을 斷行하여 元塘里一帶를 奪還하여 Alabama線을 확보하라.

④ 제3대대는 51.4.23. 15.00까지 加兒里로 進出하여 美 제32연대 一部陣地를 인수하고 D日H時를 期하여 俗稱 장개골(元塘里 東北쪽 2km) 一帶를 공격, 奪還하여 △1218를 連한 線의 Alabama線을 확보하라.

⑤ 연대수색중대는 51.4.23. 13.00까지 俗稱 仰金밭으로 進出하여 隣接한 제35연대와의 連繫를 維持하고 敵情을 搜索하라.

⑥ 통신대장은 新戰鬪地境內에 위치하는 美 제7사단 포병대대와의 有線 連絡과 同時에 연대 CP와 각대대간의 有線網을 확보하라.

⑦ 연대 OP는 4.23.13.00 以後, 半場에 위치한다.』

이에 따라 07.00에 加路里를 출발한 제1대대(장, 李南周소령)는 10.00에 麟蹄를 거쳐, 西北쪽 稜線을 따라 半場으로 進擊中, 尖兵中隊인 제3중대(장, 崔相烈대위)는 △538西北쪽 稜線에서 1개중대규모의 敵의 奇襲射擊을 받아, 제11중대와의 協同공격으로 이 敵을 擊退하고 △538(麟蹄 北쪽)一帶를 확보하였다. 한편 대대主力은 새로 下達된 作戰命令에 의거하여 △719(麟蹄 西北쪽 3.5km)를 확보하고 그 北쪽의 △940(麟蹄西北쪽 4.5km)를 공격하였으나 계속 侵襲하는 敵의 頑強한 抵抗으로 그 南쪽 無名高地를 占領하여 熾烈한 射擊戰으로써 敵의 侵襲을 牽制하였다. 그런데 21.00에 이르러 △940의 敵1개대대는 左側중대

인 제1중대(장, 金性一중위)正面으로 集中侵襲하므로 중대는 手榴彈과 銃劍으로써 悽絶한 肉迫戰을 展開하면서 地形이 有利한 △719(麟蹄 西北쪽 3.5km)로 逐次撤收한 다음, 增援된 1개소대와 더불어 제2, 제4중대의 側方支援下에 계속 敵을 阻止하여 이 高地를 밤새도록 固守하고야 말았다. 한편 제2대대(장, 成泳煥소령)는 07.00에 加路里를 출발하여 12.00에 美 제7사단 제32연대 地域으로 進出하였으나 狀況의 急變에 따른 연대장 俞義濬대령의 緊急명령으로 美軍과의 陣地交代를 斷念하고 13.00에 △693(合江里 西쪽 4km)을 占領하여 敵의 侵襲을 阻止하면서 △719를 固守中인 제1중대(장, 金性一중위)의 側方을 掩護하였다. 또한 제3대대(장, 朴元寬소령)는 10.30에 麟蹄에 進出한 다음, 연대장 俞義濬대령의 새로운 명령에 따라 美軍과의 陣地交代를 斷念하고 麟蹄를 목표로 계속 侵襲하는 敵을 맞아 逆襲을 敢行하였는데, 제11중대는 제3중대의 △538공격에 協力하는 동시에 △658(泉谷寺 東쪽)을 계속 공격하였으나 敵의 頑強한 抵抗으로 이를 奪還하지 못하고 그 南쪽의 無名高地만을 確保하면서 銃火로서 熾烈한 射擊戰을 展開하였다. 제9, 제10중대는 제11중대를 後續하여 공격을 支援하였으나 제11중대의 공격이 頓挫되자 俗稱 소일평부근 稜線을 確保한다음 元通一麟蹄一圓을 壓制하는 한편 제11중대를 火力支援하였다. 그런데 1개대대규모의 敵은 21.00를 期하여 泉谷寺부근 溪谷을 따라 제11대대 後方으로 迂回侵襲하는 一方 △658로부터 稜線을 따라 제11중대正面을 노리고 侵攻하는 듯 하였다. 대대장 朴元寬소령은 즉각 제9중대를 제11중대에 增援하여 敵을 阻止키로 決心하였으나, 계속 되는 敵의 強勢를 막지 못한채로 제1대대(장, 李南周소령)가 확보중인 △719東南쪽 稜線으로 逐次로 撤收하였다.

4. 제26포병대대(장, 盧載鉉중령)는 이날 04.40에 사단作命 제38호에 따라 加兒里로 進出코자 麟蹄에 集結하였으나 狀況이 緊迫하여지자 即刻砲陣을 占領한 다음 掩護 火力을 集中하다가, 漸次로 惡化一路를 거듭하는 戰況을 勘案한 사단장 閔機植준장의 명령에 따라 12.00에 冠垈里로 轉進하여 △492—△719 北쪽에서 熾烈한 遮斷射擊을 계속함으로써 動搖하는 第一線의 戰勢를 未倒에 挽回코자 힘썼다.

4월 24일 : 전날에 이어 麟蹄正面에 대한 2개사단규모의 敵의 攻勢가 더욱 熾烈하여지자 사단장 閔機植준장은 육본作命 제265호 修正 作指 제3호(51.4.23. 09.00) 및 美 제10군단 作戰指示에 의거하여 사단 作命 제38호에 따른 陣地交代 및 Alabama線으로의 進擊을 留保하고 俗稱 텃말부근의 內麟川 西岸—△586—南北里—△725—△619를 連한 線에서 제35연대(장, 洪淳龍대령)를 右一線, 제36연대(장, 黃 燁대령)를 中央, 그리고 제27연대(장 俞義濬대령)를 左一線으로 展開하여 背水陣을 치고 敵의 南侵을 阻止, 擊滅코자 要旨 다

음과 같은 사단作指 제13호를 下達하였다.

『① 사단은 戰鬪地境線을 變更하는 동시에 從前方針대로 南下하는 敵을 抑留하고 이를 擊破하려한다.

② 각 연대는 각각 다음 陣地를 確保하고 當面의 敵을 陣前에서 擊破하라.

제35연대—朴達高地—△586線

제36연대—南北里一帶를 連하는線

제27연대—△719—△619線

③ 제35연대장은 제7사단 제5연대 제1대대(장, 羅灘日소령)를 臨時로 統合指揮하라.

④ 제26포병대대는 冠岱里에 陣地를 占領하고 사단을 一般支援하라. 但 火力의 優先權을 제36연대正面에 指向하라.

⑤ 사단CP는 계속 靑邱洞에 位置한다.』

1. 제35연대 제1대대(장, 金順喆소령)는 전날 閑陽洞—△538 東쪽稜線一帶의 麟蹄外圍陣地를 占領하고 麟蹄를 목표로 계속 侵襲하는 敵과 激戰을 展開하던 中, 이날 02.00부터는 1개연대규모의 敵의 包圍攻擊으로 陣地의 一部가 突破되기 시작하였고 04.00에는 연대와의 通信마저 杜絶된채로 分散하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이 대대(混成 300명)의 抵抗線이 無力化되자 麟蹄에 位置하였던 연대 CP와 이를 경계중이던 제3대대主力(109명)은 같은 대대의 一部병력(2개소대)이 전날부터 확보中인 △593로 05.00에 逐次轉進하였으나 06.00에 이르러 또다시 追擊하는 敵의 壓力으로 다시 開運里로 後退한 다음 冠岱里로 集結하였다. 이리하여 12.00까지에는 分散後退한 각 대대병력의 收容을 보았는데 이로써 연대는 곧 再編成에 着手키로 하였다.

이리하여 연대장 洪淳龍대령은 사단作指 제13호에 따르는 연대作命 제39호를 下達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연대는 朴達高地—△586을 連하는線 一帶를 占領하고 內麟川과 昭陽江을 넘어 南侵을 試圖하는 敵을 阻止擊滅하려 한다.

② 제1대대의 收容兵力 150명은 51.4.24. 18.00를 期하여 우선 제3대대장 指揮下에 들라.

③ 제2대대는 51.4.24.1800까지 朴達高地一帶를 占領하고 南侵하는 敵을 擊滅하라.

④ 제3대대는 51.4.24. 18.00까지 △586를 占領하여 內麟川과 昭陽江을 渡河, 南侵하는 敵을 擊滅하라. 제1대대가 完全收容될 때 까지 그 指揮를 兼하라.』

이에 따라 연대CP는 加路里부근으로 推進開設하였고,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은 제1대대(150명)를 一時的으로 統合指揮한 다음 15.00에 冠垈里에서 出動하여 17.00에 △586南쪽 稜線을 占有할 무렵, 이미 이 要域을 目標로 潛進한 1개대대규모의 敵으로부터 先制奇襲을 받아 雙方間에 火力戰을 展開한 결과 또다시 今發里로 逐次 遲延을 꾀하는 동시에 分離된 병력을 收容하게 되었다. 이때에 제2대대(장, 李昌秀대위)의 增援을 얻게되어 △586西쪽 稜線을 따라 또다시 공격을 敢行하였으나 晝戰下에 盲目的으로 一意 抵抗하는 敵과 서로 一進一退의 爭奪戰을 벌였다. 한편 제3대대를 後續한 제2대대(장, 李昌秀대위)는 17.00에 △770(藍田里 東쪽 3km)를 攻擊하여 1개중대규모의 敵을 擊破하는 동시에 該高地를 奪還한 다음 계속 高地 北쪽 稜線을 따라 △586南斜面을 向하여 進擊하면서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의 激戰을 支援하였다.

2. 전날 靑邱洞으로 轉進하여 再編成中인 제36연대(장, 黃 煒대령)는 사단장 閔機植준장의 口頭命令(作指제13호로 後達)에 따라 南北里一帶를 占領, 확보코자 01.00에 靑邱洞으로부터 出擊 하였는데, 제2대대(장, 趙始衡중령)는 加路里를 거쳐 昭陽江을 一氣에 渡河한 다음, 05.00에는 그 北岸에 있는 畝制點인 △494를 攻擊하여 2개소대 규모의 敵의 先占부대를 捕捉 하는대로 모조리 擊破하고 餘勢를 몰아 군축嶺의 南쪽 稜線을 따라 △593(麟蹄西南쪽 2km)를 攻擊하였으나 1개대대규모의 敵의 抵抗으로 急速한 進展을 꾀지 못하였다. 이에 대대는 開運里 東北쪽 無名高地로 迂回하여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의 支援아래 11.00에 △593에 대한 攻擊을 再發起하였다. 그러나 계속 增強되는 敵의 集中火力으로 攻擊의 進捗을보지 못하고 서로 對峙한채로 戰機를 노리게 되었다. 한편 제2대대를 後續한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는 11.00에 △725 東쪽稜線을 확보중인 제9중대(장, 盧再萬소위)와 合勢하고 제2대대의 △593攻擊을 側方支援한 다음, 이 無名高地를 계속 확보하였으며, 제1대대(장, 李承雨중령)는 南北里 南쪽 無名高地로 躍進하여 연대예비로서 제2, 제3대대의 支援態勢를 갖춤으로써 연대는 사단作指 제13호에 의거한 戰鬪地境內에서의 攻防戰을 展開하기에 이르렀다.

3. 제27연대 제1대대(장, 李南周소령)는 전날 △719(麟蹄 西北쪽 3.5km)로 撤收하여 急히 尾擊하는 2개대대규모의 敵과 서로 近接戰을 展開하던中 연대장 俞義濬대령의 口頭命令에 따라 08.00에 △727(麟蹄 西南쪽 3km)一帶로 撤收하기 시작 하였는데, 後衛인 제1중대(장, 金性一중위)는 追擊을 계속 하는 敵을 맞아 激戰을 벌이면서 대대主力의 撤收를 掩護하였고, 崔相烈대위가 指揮하는 제3중대는 1개중대규모의 敵이 이미 占據한 △725西

南쪽稜線을 攻擊하여 14.00에 이를 占領함으로써 대대는 사단作指 제13호에 의거한 연대계획에 따라 △725一帶에 陣地를 占領하게 되었다. 그런데 21.00에 1개대대규모의 敵은 野砲와 迫擊砲의 支援下에 제2중대(장, 金鍾淑대위) 正面으로 出擊을 恣行하였는바 대대는 제26포병대대(장, 盧載鉉중령)의 熾烈한 砲兵制壓射擊에 뒤이어 白兵戰으로써 果敢하게 이 敵을 阻止하였으나 계속 增援되는 敵兵力의 人海的인 梯波攻勢로 말미암아 右隣接인 제36연대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의 掩護下에 △725 南쪽 無名高地로 또다시 後退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대대는 곧 再編成을 한 다음, 제26포병대대(장, 盧載鉉중령)의 近接支援射擊을 받으면서 金鍾淑대위가 指揮하는 제2중대를 突擊梯隊로 하여 手榴彈과 白兵으로 敵中突進을 敢行해서 다음날 03.00에 夜暗을 利用하여 △725頂上을 奪還, 확보하였다. 한편 제2대대(장, 成泳煥소령)는 전날에 이어 △693(麟蹄 西北쪽 5km) 一帶를 확보하고 敵의 侵襲을 阻止하던中, 연대장 俞義濬대령의 명령에 따라 △619로 逐次 轉進하여 △619(麟蹄 西쪽 4km) 東南쪽 稜線을 확보하였으며, 제3대대(장, 朴元寬소령)는 연대예비로서 開運里一帶에 陣地를 占領함으로써 연대는 사단作指 제13호에 의거한 防禦態勢를 갖추기에 이르렀다.

4월 25일 : 1. 제35연대장 洪淳龍대령은 사단一般命令 제19호(51.4.25)에 의거하여 「사단사령부로 轉出하고 그 後任으로는 부사단장 金益烈대령이 兼職勤務하게 되었다.

제2대대(장, 李昌秀대위)는 전날 △770(藍田里 東쪽 3km)를 奪還하고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의 △586攻擊을 支援하던中, 이날 04.00에 正面의 △716稜線을 타고 侵襲하는 1개대대규모의 敵과 肉迫戰을 展開하며 激戰을 벌였으나 계속 增強되는 敵의 侵攻과 迂回包圍를 企圖하는 敵이 △770 東南쪽의 △722로부터 側背面을 直衝함으로써 대대는 10.00에 그 西南쪽 無名高地로 逐次 機動하면서 계속 熾烈한 戰鬪를 벌였다. 이에 새로이 赴任한 연대장 金益烈대령은 11.00에 연대에 臨時로 배속중인 제7사단 제5연대 제1대대(장, 羅鎭日소령)를 제2대대에 急派하여 增援토록 命令하는 한편 △770에 대한 反擊으로 이를 奪還할것을 嚴達하였다. 대대는 제5연대 제1대대의 增援을 얻게 되자 勇氣百倍하여 곧 反擊으로 轉移하였으나 敵의 熾烈한 火力과 1개연대규모로 增援된 優勢한 병력의 壓迫으로 一進一退의 激戰끝에 18.00에 △770西南쪽에 있는 無名高地에서 固守陣地를 急編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전날부터 △586를 攻擊중인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는 敵의 頑強한 抵抗에 밀리는 바 되어 02.00에는 다시 今發里에서 再編成을 끝내고 09.00에 攻擊을 再開하였으

나 今發里 東쪽稜線으로 侵襲한 敵의 奇襲으로 混戰을 거듭하였다. 이리하여 敵의 包圍網이 漸次로 壓縮되자, 대대는 연대장 金益烈대령의 명령에 따라 연대CP부근으로 撤收하여 再編成을 서둘렀으니 마치 피스톤의 試動과도 같은 苦戰相이었다. 제1대대장 金順喆소령은 전날 分散된 대대병력의 集結을 보게되자 이를 2개중대로 再編成하고 16.00에는 연대장 金益烈대령의 명령에 따라 제2대대(장, 李昌秀대위)를 支援中인 제5연대 제1대대(장, 羅濬一소령)와의 任務를 交代키로 하였으며, 17.30에는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에 배속중이던 대대소속의 1개중대가 原隊復歸함으로써 戰列을 多少나마 強化하게되었다. 이리하여 대대는 18.00에 △770 西北쪽稜線의 제5연대 제1대대陣地를 引受한 다음, 제2대대에서 81mm迫擊砲 3門을 배속받아 제2대대를 계속 強壓하는 敵에 熾烈한 火力을 集中함으로써 간신히 憤怒의 一部를 解消할 수 있었다.

2. 제36연대장 黃 煒대령은 이날 陸軍病院으로 後送되고 부연대장 金旦先중령이 연대장대리로써 연대를 指揮하게 되었다.

제2대대(장, 趙始衡중령)는 美 제7사단의 戰車 5臺의 配屬을 받는동시에 熾烈한 砲兵直接支援下에 06.00를 期하여 전날에 이어 △593에 대한 攻擊을 敢行하였는데, 제5중대(장, 朴逸相중위)는 제44번 作戰道路를 따라 步戰協同으로 △593東側方을 攻擊하고, 主攻인 제6중대(장, 金仁德중위)는 同高地 南쪽 稜線을 따라 正面으로, 그리고 제7중대(장, 元相均중위)는 南北里 北쪽稜線을 따라 西側方으로 三面에서 同時에 包圍攻擊을 斷行한 결과 2개대대규모의 敵을 擊破하고 제6중대장 金仁德중위가 指揮하는 중대兵力이 10.00에 △593頂上을 奪還함으로써 대대는 普賢寺一帶에 걸친 固守陣地를 確保하였으며 이로써 △725 東쪽稜線을 占領中인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와 서로 連繫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하여 惡戰苦鬪끝에 戰線을 일단 整理하게 되자 연대장대리 金旦先중령은 사단계획에 따라 △538—△632(泉谷寺 南쪽 1km)를 계속 奪還함으로써 前進陣地를 確定할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제5중대(장, 朴逸相중위)는 계속 步戰協同으로 △538를 東南쪽에서 攻擊하는 한편 제1대대에서 挺進한 제3중대(장, 朴昌基소위)가 △538正面을 攻擊하여 15.00에 2개중대규모의 敵을 擊破하고, 麟蹄 東北쪽 無名高地에서 △538에 이르는 一帶에 제5, 제3兩중대의 前進陣地를 設定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는 金炳國중위가 직접先頭에서 指揮하는 제11중대의 主力으로 △632를 공격하여 肉迫戰끝에 1개중대규모의 敵을 一蹴하고 15.00에 同高地에 前進陣地를 編成하였으나, 17.00에 연대장 대리 金旦先중령의 명령에 따라 제5, 제3, 및 제11의 3개중대는 각각 主陣地로 復歸하였다. 그런데 20.00

에 이르러 迫擊砲와 野砲의 支援을 받는 1개대대규모의 敵이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 正面으로 逆襲을 敢行하였으므로 대대는 제2대대(장, 趙始衡중령)의 支援下에 제26포병대대(장, 盧載鉉중령)와 美 제7사단 155mm포병대대의 近接支援射擊을 받으면서 一進一退의 激戰을 벌여 敵의 侵襲을 阻止하였으나, 계속 增援되는 敵의 梯波攻擊으로 戰況은 時時刻刻으로 緊急性을 더하게 되었다. 연대예비인 제1대대(장, 李承雨중령)는 제3중대(장, 朴昌基소위)를 △538로 挺進시켜 前進陣地를 확보하였으나 연대장의 명령으로 主陣地로 復歸한 다음 대대主力을 南北里北쪽 高地로 進出케하여 제2, 제3대대의 支援態勢를 서둘렀고 제3대대正面에서 激戰이 展開되자 제4중대(장, 鄭進洙중위)의 迫擊砲는 一齊히 불을 뿜기 시작하였으며, 主力은 逆襲態勢를 갖추었다.

3. 제27연대 제1대대(장, 李南周소령)는 전날 14.00에 △725를 奪還하여 확보하던 中, 21.00에 敵의 逆襲으로 同高地 南쪽 無名高地로 撤收하여 再編成한 다음, 反擊을 敢行하여 이날 03.00에 肉迫戰으로 同高地를 再奪還하고 陣地編成을 完了하였는데 이때 연대장 兪義濬대령은 사단계획에 의거한 前進陣地확보를 위하여△719를 奪還 확보 할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공격을 개시한 제3중대는 12.00에 1개중대규모의 敵의 抵抗을 制壓하면서 △719를 奪還하여 前進陣地를 編成하였으나 대대장 李南周소령의 명령에 따라 다시 主陣地로 復歸하여 대대中央第一線으로써 △725 西北쪽稜線에 陣地를 占領하였다. 그런데 22.00에 1개대대규모의 敵이 제36연대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正面에 대한 侵襲에 뒤이어, 대대正面으로 怒濤와 같이 밀어 닥쳤고 또한 一部의 敵이 兩翼으로 同時에 迂回하여 包圍를 企圖함으로써 대대는 △725頂上을 中心으로 四周防禦陣地를 編成하고 熾烈한 戰鬪를 展開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연대左一線으로서 △619一帶를 占領하고 있던 제2대대(장, 成泳煥소령)正面에서도 이와 때를 같이하여 敵이 跳梁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들은 1개대대규모로써 右一線중대인 제5중대正面을 打擊하였다. 대대장 成泳煥소령은 즉각, 제6중대 1개소대를 제5중대에 增援하고 斗武里에서 開運里에 이르는 溪谷으로 그들이 潛襲하여 연대後方을 遮斷할 것을 미리 防止하고자 연대장 兪義濬대령에게 1개중대의 增援을 要請하였다. 이 要請에 따라 即刻 增派된 제10중대兵力에 대대 행정요원까지 合勢시켜 補強하는 즉시로 △619 南쪽稜線을 占領케함으로써 溪谷을 制壓한 다음, 대대는 誘導된 제26포병대대(장, 盧載鉉중령)의 近接支援下에 激突을 하였으나 계속 蟻集하는 醜敵의 人海攻法을 막아낼 道理가 없이 △619를 버리게 되채로 제10중대의 직접 掩護下에 俗稱 곧은골(斗武里 南쪽 1km) 부근에 있는 無名高地로 機動하는 즉시로 再編成에 着手하였다. 연대예비인 제3대대(장,

朴元寬소령)는 전날에 이어 開運里부근에서 연대後方경계를 담당하던중 이날 22.00부터 연대全正面에 걸친敵의 攻勢로 戰況이 急迫하게 되자, 연대장 俞義濬대령의 명령에 따라 제11중대를 제1대대(장, 李南周소령)에, 제10중대를 제2대대(장, 成泳煥소령)에 각각 分割增援하고 제9, 제12의 兩중대를 △725南쪽稜線에 配置하여 溪谷을 따라 潛襲하려는 敵을 擊滅함으로써 이날 밤의 危機를 克服하는 殊勳을 세웠다.

4. 제7사단 제3연대(장, 鄭 震대령)는 이날 제3군단장 劉載興소장과 美 제10군단장 Almond 중장과의 協議에 의하여 暫定的으로 제5사단(장, 閔機植준장)에 배속되어 사단예비로서 冠垈里에 集結待機中에 있었다. (陸本定期作戰報告 제102호參照)

4월 26일 : 1. 제35연대 제1, 제2대대는 전날 밤부터 △770의 敵과 熾烈한 火力戰을 벌이던중, 이날 03.00에 1개대대규모의 敵이, 제1, 제2대대의 間隙을 뚫고 侵襲하였으나 朴泰松대위가 指揮하는 제8중대 迫擊砲手들의 쉴새없는 彈幕의 集中發揮로 鏖殺하는 한편 그대로 살아남아 部分的으로 潛進하는 殘敵을 銃劍과 手榴彈으로써 무찌르자 敵은 견디어 낼수없어 05.00부터 退潮와도 같이 潰散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제2대대장 李昌秀대위는 제6중대(장, 金東浩중위)로 하여금 이 敗敵을 急追케 하여 △770를 奪還토록 號令하니 將兵들의 喊聲이 朝陽을 向하여 우렁찼다. 중대는 제8중대 迫擊砲火力의 熾烈한 支援下에 △770 西南쪽稜線을 따라 追擊을 敢行한 다음 8部稜線까지 肉迫하였을 무렵 敵이 퍼붓는 手榴彈幕에 부닥치게 되어 그 突進을 一旦中止하게 되었다. 이에 대대장 李昌秀대위는 後續중인 제5중대(장, 金能憲소위)를 右 第一線으로, 제7중대를 左 第一線으로 各各 散開시켜 三面에서 同時에 包圍공격을 斷行케 한결과 09.00에 이르러 드디어 이 高地(△770)를 奪還 확보 하였다. 그뒤 12.00에 이르러 연대장 金益烈대령은 사단계획에 따라 제2대대陣地를 제7사단 제3연대(장, 鄭 震대령)에 引繼케 하고 각 대대는 開運里에 集結할것을 명령하였다. 제2대대(장, 李昌秀대위)는 15.30에 새로이 投入된 제7사단 제3연대에 △770의 陣地를 引繼하고 18.00까지 開運里에 集結하였으나 20.00에 새로이 示達된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725의 제27연대 제1대대(장, 李南周소령)陣地를 引受하기 위하여 開運里를 出發하여 23.00에 陣地交代를 完了하였다. 한편, 전날 △586攻擊을 中斷하고 연대CP부근에서 再編成중이던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는 이날 연대CP의 轉進을 掩護하면서 15.30에 開運里로 進出한 다음, 새로이 示達된 명령에 따라 제27연대 제2대대(장, 成泳煥소령)의 陣地를 引受하고 다시 △619를 攻擊하기 위하여 17.00에 開運里에서 躍進하여 20.00에는 攻擊을 위한 준비태세를 完了하였다. 제1대대(장, 金順喆소령)는 제

2대대와 協同하여 △770에 대한 敵의 侵襲을 陣前에서 擊退하고 제2대대의 △770 攻擊을 支援한 다음, 제3대대를 後續하여 15.30, 開運里에 集結完了하고, 21.00에 제1중대(장, 宋時順중위)를 俗稱 조림(南北里 東南쪽 2km)에, 제3중대(장, 李勳榮대위)를 開運里 西北쪽 溪谷에 각각 潛進配置토록 하였으며, 제2, 제4중대는 연대예비로서 연대CP부근을 警戒케하였다.

2. 제36연대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는 전날 20.00부터 侵襲하는 1개대대규모의 敵과 肉迫戰을 展開하였으나, 계속 增援되는 敵步兵의 波狀攻勢와 敵 野砲의 火力集中으로 제2대대(장, 趙始衡중령)의 掩護下에 이날 01.00에 一旦 俗稱 두일(南北里 南쪽 1.5km)로 後退하였다가 다시 英氣를 培養한 다음 06.00를 期하여 反擊으로 移向하였다. 제3중대(장, 朴昌基소위)를 배속받은 대대는 제26포병대대(장, 盧載鉉중령)의 支援射擊에 뒤이어 제11중대(장, 金炳國중위)를 右第一線으로, 제10중대(장, 白基淳중위)를 中央第一線으로, 그리고 제3중대를 左 第一線으로 堂堂한 隊形을지어 △593(南北里 北쪽 1km)를 三面으로 동시에 包圍하는 態勢로써 一躍又一躍의 激戰을 계속하면서 頂上을 目標로 肉迫하였다. 그러나 이때에 騎醜의 一部가 東側後方으로 潛透한 다음 不意의 射擊을加함으로써 突擊 進捗이 如意치않고 死傷者가 續出하여 砲兵掩護射擊과 제2대대(장, 趙始衡중령)의 支援下에 逐次로 後退하게 되었다. 한편 普賢寺一帶를 占領한다음 敵의 陽攻에 一擊을 加하면서 제3대대를 支援하던 제2대대(장, 趙始衡중령)는 제3대대가 後退하므로써 그 西側背가 露出하게되자, 연대장 대리 金且先중령의 명령으로 제3대대의 撤收를 掩護하면서 逐次로 遲延戰을 展開하여 俗稱 두일(南北里 南쪽 1km)에 集結하였다. 이때 제1대대(장, 李承雨중령)는 南北里 北쪽稜線의 豫備陣地를 占領하고 제2, 제3대대를 支援하던중 一線연대主力의 撤收에 따라 이를 掩護하면서 追擊을 노리는 敵을 抑留하는 遲延을 꾀하였다. 이에 연대장 대리 金且先중령은 제2대대(장, 趙始衡중령)를 △398東南쪽에 있는 無名高地에,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는 南北里 南쪽稜線에, 그리고 제1대대(장, 李承雨중령)는 △725東쪽稜線일대 진지를 각각 점령케 하여 공격준비를 위한 부대 再編成을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공격준비를 끝낸 연대는 22.00에 美 제7사단 포병대대의 直接支援下에 부대展開線에서 一齊히 三面 包圍攻擊을 敢行하였다. 主攻인 제2대대(장, 趙始衡중령)는 金仁德중위가 指揮하는 제6중대를 先攻梯隊로 △398 南쪽稜線을 따라 △593(麟蹄 西南쪽 1.5km) 正面으로 肉迫케하였고 제1대대(장, 李承雨중령)는 제1, 제2의 兩중대를 攻擊梯隊로 하여 △593 西南쪽稜線을 따라 助攻토록 하였으며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는 △593(南

北里 北쪽 1km)南쪽稜線을 따라 急進케하면서 제2, 제1 兩대대의 攻擊을 支援토록 措置하였으니 我軍의 攻擊精神이 敵의 人海戰法에 屈할수는 없었던 것이다.

3. 제27연대 제1대대(장, 李南周소령)는 전날 밤 22.00를 期한 敵의 包圍攻勢로 제11중대의 增援下에 四周防禦陣地를 編成하고 手榴彈戰과 白兵戰을 併用하면서 이 醜敵과 前後 7시간에 걸친 混戰과 亂鬪를 반복하던중 黎明과 때를 같이한 美 제7사단 155mm 포병대대의 熾烈한 TOT射擊의 支援을 얻어 突擊을 敢行한 끝에 이敵을 痛擊하고 △725를 完全掌握하였다. 한편 俗稱 곧은골 부근에서 再編成을 끝낸 제2대대(장, 成泳煥소령)는 제1대대의 △725확보와 同時에 제6중대의 一部병력으로 增強된 제5중대를 先攻梯隊로하여 △619의 占領에 着手하였으나 1개대대규모로 推算되는 敵의 頑強한 抵抗으로 그 進展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대대장 成泳煥소령은 제6중대 主力과 제7중대를 제5중대 兩翼으로 增援하여 △619東南쪽의 無名高地를 一擧에 奪還한 다음 △619를 占據中인 敵과 불꽃튀기는 射擊戰을 展開하였다. 이때 연대예비인 제3대대(장, 朴元寬소령)는 開運里부근에 集結 待機中에 있었다. 연대는 사단장 閔機植준장의 口頭명령에 따라 交代次 進出한 제35연대 제2, 제3대대에 陣地를 引繼하였으나 2개연대규모의 敵의 挑戰에 부딪쳐 激戰이 벌어지자 또 다시 示達된 사단장의 嚴命으로 △725—△665(△619 東南쪽 1km)를 強襲占領함으로써 제35연대 主力과 連繫하여 敵의 侵襲을 阻止하였다.

4. 전날 사단에 배속되어 사단예비로써 冠堡里에 集結待機중이던 제7사단 제3연대(장, 鄭 震대령)는 이날 藍田里로 進出하여 CP를 開設한 다음 제1, 제2대대를 △770로 進出시켜 제35연대 제2대대(장, 李昌秀대위)陣地를 引受케 하고 敵의 逆襲을 阻止토록 하였으며, 제3대대(장, 李永吉소령)를 연대예비로 藍田里에 位置케하여 연대後方 및 CP 경계를 담당토록 하였다.

4월 27일 : 이날 사단장 閔機植준장은 美 제8군作戰計劃과 陸本作戰計劃 제23호(51.4.25 24.00)에 의거하여 제1, 제3군단 및 美 제10군단이, 洪川南方線으로 撤收한 美 제9군단 戰線과 調整하고 頹潰一路에 접어들게 된 敵의 戰勢를 有利한 地域에서 決定的으로 擊破하기 위하여 Green線으로 撤收하게 됨으로써 示達된 美 제10군단 作戰指示 제165호에 따라 要旨다음과 같은 사단作命 제39호를 下達하였다.

『① 사단은 別紙透明圖에 明示된 鷹峯山(△984)—△926(甲屯里東쪽 4km)—△836(甲屯里 東南쪽 2km) 地域을 占有한 다음 南侵하는 敵을 捕捉殲滅하려 한다.

② 제27연대는 51.4.27. 21.00에 現陣地를 撤收하여 鷹峯山—△926間에 陣地를 4.28.

17.00까지 占領하고 當面의 敵을 殲滅하라.

③ 제36연대는 51.4.27. 22.00에 現陣地를 撤收하여 △926—△836에 이르는 主抵抗線을 4.28. 17.00까지 占領하고 敵을 殲滅하라.

④ 제35연대는 사단掩護부대가 되어 現陣地에서 4.28. 03.00까지 敵의 侵襲을 阻止하고 03.00부터 俗稱방아다리로 移動한 다음, 사단예비로써 別命을 待機하라.

⑤ 제26포병대대는 現陣地에서 4.23. 06.00까지 機動부대에 대한 掩護射擊을 실시한 다음 07.00부터 機動하여 4.23. 16.00까지 彌勒洞으로 陣地를 移動하는 즉시로 사단을 一般支援하라.

⑥ 제5야전공병대대는 4.23. 15.00까지 瑞谷里로 移動하여 瓦野里—上南里間의 作戰路를 補修하고 作戰地域內의 補給路를 偵察標示하라.

⑦ 사단 前方指揮所는 51.4.23. 12.00以後 瓦野里에 位置한다.』

1. 제36연대(장, 金旦先중령)는 美 제7사단의 105 및 155mm포병대대의 直接支援下에 전날 22.00를 期하여 △593를 三面으로 包圍하고 一齊히 攻擊하였는데, 이날 主攻인 제2대대(장, 趙始衡중령)는 제6중대(장, 金仁德중위)를 先攻梯隊로 하여 正面으로, 제5중대(장, 朴逸相중위)를 右第一線으로 제7중대(장, 元相均중위)를 左 第一線으로 각각 增援하여 一進一退의 激戰을 展開하면서 07.30에 △593頂上을 奪還확보 한 다음, 전날의 陣地인 普賢寺부근 稜線一帶에 陣地를 占領하였다. 또한 제1, 제2중대를 攻擊梯隊로 하여 △725東쪽稜線으로부터 進擊하면서 제2대대공격을 助攻한 제1대대(장, 李承雨중령)는 △593奪還과 同時에 △593北쪽稜線을 따라 陣地를 占領함으로써 右로는 제2대대와, 左로는 제35연대 제2대대(장, 李昌秀대위)와 陣地를 連繫하였다. 한편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는 제2, 제1대대를 後續하여 攻擊을 支援한 다음, △593—△725一帶에 陣地를 占領하였다. 이리하여 연대는 縱深防禦陣地를 編成하였으나, 사단作命 제39호에 따라 23.00에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를 掩護부대로 하여 제1, 제2대대順으로 後退하여 다음날 03.00에 새로운 作戰地域으로의 轉進을 위한 集結地인 靑邱洞에 集結完了하였다.

2. 제27연대(장, 俞義濬대령)는 전날 △725와 △619東南쪽의 無名高地 陣地로 새로이 進出한 제35연대 제2, 제3대대에 陣地를 각각 引繼하였으나 2개연대규모의 敵의 攻擊에 부딪쳐 계속 이를 擊破하면서 용전끝에 △725—無名高地(△619 東南쪽)를 占領하고 제35연대와의 協同으로 敵을 완전 擊退한 다음, 제35연대主力의 △619공격을 支援하였다. 그러나 이날 下達된 사단作命 第39호에 따라 연대는 21.00에 제35연대 제2대대(장, 李昌秀대

위)의 掩護下에 現陣地를 撤收하여 昭陽江을 渡河하고 다음날 01.00에는 제44번 作戰道路邊의 俗稱 거리고개(上南里 西쪽 1km)에 集結完了하여 새로운 作戰地域으로의 進入을 準備하였다.

3. 제35연대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는 전날 20.00에 제27연대 제2대대(장, 成泳煥소령)의 陣地를 引受하였으나 곧 續行된 敵의 侵襲을 제27연대 제2대대支援下에 擊退하고 이날 04.30을 期하여 제26포병대대(장, 盧載鉉중령)와 美 제7사단 155mm 포병대대의 熾烈한 攻擊準備射擊에 뒤이어 △619를 攻擊하였다. 이리하여 砲擊에 큰 打擊을 받은 1개대대 규모의 敵을 一蹴하고 06.20에 이 高地를 奪還확보 하였다. △725에 陣地를 占領한 제2대대(장, 李昌秀대위)는 제3대대의 攻擊과 同時에 이를 後續, 支援한 다음 △725 北쪽稜線一帶까지 陣地를 擴張하였다. 연대는 사단作命 제39호에 의거하여 제36연대(장, 金且先중령)와 제27연대(장, 俞義濬대령)가 撤收함에 따라 제36연대 地境內의 要地인 △593一帶까지 阻止線을 넓히고 撤收를 掩護하였는데, 사단主力의 이와같은 後方機動을 看破하게된 敵은 23.00에 2개연대규모로써 제2, 제3대대 正面으로 물 밀듯 밀려 들어 彼我激戰을 展開하기에 이르렀다. 연대는 제26포병대대(장, 盧載鉉중령)와 美 제7사단 155mm 포병대대의 驚天動地의 熾烈한 掩護射擊下에 肉迫戰을 敢行한 끝에 敵을 擊退하고 사단作命에 따른 掩護부대로서의 任務를 다 한 다음, 제1대대(장, 金順喆소령)의 掩護下에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는 다음날 02.00에, 제2대대(장, 李昌秀대위)는 02.30에 각각 撤收를 시작하여 尾擊하는 敵을 抑留하면서 昭陽江을 건너 陰陽里에 一旦 集結하였다가 새로운 作戰地域인 俗稱 방아다리(上南里부근)를 目標로 機動하였다.

4. 제7사단 제3연대(장, 鄭 震대령)는 전날 제35연대 제2대대(장, 李昌秀대위)陣地(△770)를 引受한 다음, 제2대대(장, 李再起소령)가 1개대대규모의 敵을 擊退하고 △722와 △734를 逐次로 奪還하여 △734—△722—△770를 連한 線을 확보하였으며 內麟川을 건너 侵襲하는 敵을 계속 阻止하였는데, 이날 美 제10군단으로부터 배속이 解除되는 동시에 原隊로 復歸하였다.

라. 전투후의 개황

廣德山(史倉里 西北쪽 8km)의 제6사단(장, 張都暎준장)正面으로 主攻을 指向한 敵이 4월 26일에 그 主力으로 加平을 거쳐 京春街道를 遮斷하는 一方 北漢江을 沿해서 서울을 向하여 侵勢를 더욱 넓힘으로써 美 제8군사령관 Van Fleet중장은 美 제9군단(장, William M. Hoge소장)을 洪川江 南岸으로

撤收시켜 戰線의 崩壞를 防止하였다. 그리고 다음날에는 開城街道를 따라 侵攻하는 北共 제1군단에 의한 서울의 威脅이 더욱 커지자 美 제8군예비인 美 제1기갑사단을 美 제1군단에 배속하고 美 제1, 제9군단의 戰鬪地境線을 調整하여 美 제24사단(장 Blackshear M. Bryan소장)을 美 제9군단에 배속變更함과 同時에 美 제3, 제1기갑, 및 제1사단(장 姜文奉준장)을 並列시켜 서울外廓에서 敵의 侵襲을 阻止케 하는 한편, 29일에는 각 군단의 指揮系統과 담당正面을 調整하여, 敵에 決定的인 打擊을 加한 다음, 反擊의 態勢를 갖추고자 No Name線(洪川 北方—洪川江 南岸—清平 南方—서울外廓)을 設定하고, 부대의 새로운 진지 점령을 命令하였다.

이리하여, 美 제10군단과 美 제9군단의 戰鬪地境線이 變更됨으로써 美 제9군단右翼인 美 제1해병사단(장 Gerard C. Thomas소장)이 美 제10군단으로 배속이 變更됨과 同時에 美 제7사단(Claude B. Ferenbaugh소장)이 美 제10군단으로부터 美 제9군단으로 배속이 變更되었으며 또한 제7사단(장, 金炯一준장)이 육본作指電文 제1232호(51.4.30)에 의거하여, 제3군단으로부터 美 제10군단으로 배속이 變更되어 全戰線은 戰列을 가다듬기에 이르렀다.

反面에 敵은 UN軍 및 我空軍機의 1日 1000機以上의 出擊과 集中的인 砲兵火力, 그리고 戰線의 整備로 4월 30일부터는 그 侵勢가 衰退하기 시작하였는데, 舊巴撥의 제1사단(장 姜文奉준장)正面에서의 接觸을 回避한 全面撤收를 비롯하여, 中東部戰線의 北共제3, 제5, 군단은 제32사단을 掩護부대로하여 漸次潰退하기 시작 함으로써 제3군단(장 劉載興소장)의 제3사단(장 金鐘五준장)正面을 除外한 제1군단(장 白善燁소장)과 美 제10군단 正面에서는 彼我間의 偵察부대間에 散發的인 接戰만이 되풀이되었다.

이로써 廣德山正面에 中共 3개군(9개사단)으로 形成된 主攻集團을 指向, 加平—北漢江線을 沿하여 서울을 迂回侵攻하고 北共 제1군단은 助攻으로써 開城街道를 따라 서울을 挾擊, 奪取하는 一方 北共 제3, 제5군단은 麟蹄—楊口正面에서 제3, 美 제10군단에 牽制攻擊을 加하여 平昌—橫城線으로 南侵함으로써 江陵—下珍富里—平昌—橫城—楊平—서울線으로 戰線을 壓迫하여 UN軍과 我軍의 出血을 強要하고자한 敵의 所謂 一차 春季攻勢의 企圖는 霧散되채 그 幕을 내렸다.

한편 사단은 4월 28일에 사단 CP를 瓦野里에 開設한 다음, 제 27연대(장 俞義濬대령)를 右一線, 제 36연대(장 金日先중령)를 左一線으로 하여 鷹峯峠를 連해서 △946—△856—△975—△930—俗稱 항병골—△952—帶에 陣地를 占領하고 敵의 散發的인 侵襲을 沮止, 擊退하였는데 前述한 바, 제7사단(장, 金炯一 준장)이 美 제10군단으로 配屬이 變更됨으로써 5월 1일에 現陣地를 제7사단에 引繼하고 다음날에 사단CP를 踏楓里로 推進開設한 다음 제27연대를 右一線, 제 36연대를 左一線으로 展開하여 △792(俗稱단지골부근)—△864(俗稱솔구네미)—△952(俗稱오메자골北쪽)—△1,123(掛石里—區 北쪽)—△1,076—△848—△925一帶를 占領하여 威力搜索을 계속 하였다. 이날 제35연대(장, 金益烈대령)는 사단예비로써, 瑞谷里에 集結하였다.

그런데 이무렵, 敵은 中東部의 山嶽地帶에 集結據點을 形成하고 병력 및 장비를 補強하여 不遠한 時日內에 險峻한 太白山脈에 主攻을 指向해서 再次 攻勢를 恣行코자 하는 徵候가 空中偵察 및 蒐集된 諜報에 의하여 확인 되었다. 이와같은 狀況아래 中, 西部戰線에서는 主抵抗線北쪽 12—14km에 연대급의 搜索基地를 設定하고 機甲偵察隊를 北上시켜 威力搜索을 敢行하면서 敵의 企圖 探索에

注力하였다. 또 中東部戰線에서는 육본作命 제266호(51.5.4. 20.00) 및 美 제10군단作指 제169호로써 제1, 제3군단 및 美 제10군단을 Missouri線으로 進擊시켜 敵에게 再編成의 時間的 餘裕를 주지않고 集結據點을 粉碎하는 한편 계속적인 壓迫으로 敵의 攻勢企圖를 瓦解시켜 麟蹄—洪川間 作戰道路를 확보하고자 努力하였다.

사단장 閔機植준장은 사단作命 제41호(51.5.6. 18.00)를 下達하여 제27연대(장, 俞義濬대령)를 右一線으로 하고 제36연대(장, 金且先중령)을 사단예비로 轉換하는 한편 제35연대(장, 金益烈대령)를 左一線으로 起用하여 51.5.7. 08.00를 期하여 Missouri線으로 前進하기 위한 攻擊을 敢行하기에 이르렀다.

제2차 麟蹄地區戰鬪에서 거둔 戰果와 損失은 다음과 같다.

戰 果

구분 / 부대별	射殺	捕虜	多發銃	HMG	쏘式長銃	拳銃	2.36′로켙	SCR-694	SCR-536	手榴彈
제27연대	258	7				1	1	1	15	
제35연대	254	6	5	1	10					50
제36연대	459	27								
계	971	40	5	1	10	1	1	1	15	50

損 失

구분 / 부대별	戰死	負傷	失踪	M 1	CAR	BAR	LMG	HMG	60㎜MOT	3.5″로켙
제27연대	4/72	14/190	8/324	394	112	31	5	6	1	2
제35연대	1/7	17/167	22/497							
제36연대	3/39	13/293	/69							
계	8/118	44/650	30/890	394	112	31	5	6	1	2

§ 參戰者의 證言

◇ 제5사단장 閔機植준장

(1973. 3. 28. 自宅에서, 국회의원 豫, 대장)

제5사단은 4월中旬에 元通里附近의 Kansas線으로 進擊하여 제36연대를 右一線, 제35연대를 左一線으로 하여 防禦하였는데, 계획에 따라 右一線인 제36연대의 陣地를 제7사단 제5연대에 引繼하고 사단예비인 제27연대를 投入하여 Alabama線으로의 進擊을 준비하던중, 敵의 所謂 제1차春季攻勢를 맞았다. 이때 右隣接인 제7사단 제5연대는 元通里—麟蹄道路 右側을 담당하였고 左隣接은 美 제2사단으로서 加兒里以西地域을 담당한 것으로 記憶하는데 제5연대는 제36연대로부터 陣地를 引受한 即後이고 제35연대正面으로는 敵의 主力이 指向된 關係도 있었지만, 如何間 이 兩연대의 作戰失敗로 冠岱里北쪽까지 後退하여 昭陽江北岸에 背水陣을 치고 激戰을 展開하였다. 敵의 侵攻을 昭陽江線에서 一旦 阻止하였으나 군단계획에 따라 4월 28일에 사단 CP를 瓦野里로 轉進하고 제27연대를 右一線, 제36연대를 左一線으로 하여 매봉峙를 沿한 Green線上에 陣地를 占領하였다. 이 作戰의 失敗責任을 물어 某某 연대장을 交替한바 있었다.

◇ 제36연대장 黃 煒대령

(1973. 3. 7. 전매협동조합 豫, 소장)

제36연대는 4월中旬에 Kansas線으로 進擊하여 사단 右一線으로서 烽火峯一帶를 占領하고 敵의 一次攻勢의 徵候가 濃厚해짐에 따라 陣地를 補強하면서 이에 對備하였다. 이때 제7사단 제5연대와 陣地를 交代하고 撤收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나는 부사단장 金益烈대령과 사단장 閔機植준장에게 敵의 攻勢가 곧 있을것 같은데 責任을 지겠냐고 물었더니 確實한 答辯을 하지 않아서 제3군단장으로 계시던 劉載興소장에게 直接 확인을 하였더니 交代하여도 좋다는 말씀이었다. 그리하여 進出한 제7사단 제5연대와 陣地를 交代하였는데 아무리 생각하여도 敵의 攻勢가 곧 있을것만 같고 제5연대장 金仁哲대령도 個人的으로 잘 알기때문에 全연대를 撤收하지 않고 1개대대를 杆城에서 元通里로 通하는 道路를 封鎖시킨 다음, 2개대대를 合江里부근으로 移動시켜 緊急狀況에 對備케 하였다. 그런데 이날 밤 豫測한대로 敵은 攻勢를 取하기 始作하였다. 연대는 사단장의 緊急命令에 따라 제7사단 제5연대를 增援하고 杆城道路로부터의 敵의 侵襲을 阻止키 위하여 出動하였다. 이때 敵은 제35연대正面으로 1개사단, 제7사단 제5연대正面으로 1개연대 그리고 杆城道路를 따라 1개사단이 迂回侵襲하고 있었다. 東側方을 담당한 제1대대는 善戰奮鬪하여 敵을 阻止, 擊退하고 제5연대도 善防하였으나 泥坪里로 侵透한 敵이 後方을 攪亂함으로 나는 제2대대의 一部兵力으로 泥坪里로 공격케 하였는데 제7사단 제5연대가 명령에 따라 撤收하게 되어 混亂을 갖어 왔고 元通里로 侵透한 敵과 前線에서의 壓迫으로 많은 損失을 보게 되었다.

2. 臨津江—서울 西北方 戰鬪 (1951년 4월 23일부터 1951년 4월 30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4,5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제 1 사단 장 준장 姜 文 奉
제11연대 장 대령 文 亨 泰
제 1 대대 장 중령 柳 重 秀
제 2 대대 장 소령 裵 斗 龍
제 3 대대 장 소령 高 林 鉉
제12연대 장 대령 金 點 坤
제 1 대대 장 소령 柳 文 鎬
제 2 대대 장 중령 趙 成 來
제 3 대대 장 중령 金 基 容
제15연대 장 대령 金 安 一
제 1 대대 장 중령 劉 載 成
제 2 대대 장 중령 崔 炳 淳
제 3 대대 장 소령 金 國 柱
사단공병대대 장 중령 金 永 錫
대전차공격대대장 중령 石 鍾 燮
배속부대
포병 제17대대 장 중령 黃 鐘 甲
해병 제5독립대대장소령 吳 命 福
지원부대
美 제 73 戰車대대
美 제999野砲대대
美 제176野砲대대
인접부대
(右隣接) 美 제 3 사단
英 제29여단 장 준장
T. Brodie C. B. E
Gloucester대대 장 중령 J.P. Carne
4월 27일부터
(右隣接) 美 제 1 기갑사단
(左隣接) 英 제29여단

敵 軍

北共 제 1 군단 장 중장 이 한 목
제 8 사단 장 소장 김 봉 문
제47사단 장 소장 백 낙 칠
제19사단
中共 제19병단 장 楊 得 志
제63군 장 鄭 維 山
제64군 장 曾 思 玉
제65군 장 蕭 應 棠

나. 전투 전의 개황

1951년 3월에 서울을 탈환한 다음 臨津江 南岸으로 진격한 제1사단은 4월에도 계속 戰線 最西端인 同江 南岸일대를 확보한 가운데 간간이 江北의 敵陣에 대한 소규모의 기습공격을 加하고 있었다.

그리고 全戰線에 있어서의 我軍과 UN軍의 반격은 3월末에 대체로 38°線까지 이르고 있었는데, 그동안 敗退를 거듭하던 敵은 西部戰線에 中共 第19兵團을 새로이 增援하고 다시 공격할 태세를 갖추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敵의 움직임에 대하여 MacArthur元帥와 Ridgway중장은 그 侵攻을 방어함에 있어 攻勢로서 보다 有利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積極策을 취하여, 중간에 華川貯水池를 끼고 비교적 短縮된 正面의 地利를 占할 수 있는 Kansas線으로의 진출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4월에 들어서자 我軍과 UN軍은 거의 全戰線에서 38°線을 돌파하였으며, 中部의 美 제9군단(장, William M. Hoge소장)과 西部의 美 제1군단은 Kansas 線(地域內에서는 華川南쪽—新浦里—場岩里—永平川—漢灘江—臨津江 河口)에 진출하자 다시 鐵原으로 바싹 北上한 Utah線을 향하여 진격을 시작하였다. 4월 16일에는 敵이 全戰線에 放火함으로써 煙幕戰術을 폈으나 兩 軍團은 큰 接敵없이 北進하여 19일까지 Utah線(Kansas線上의 石龍山 北쪽 절골—廣德峴—自等里—文惠里—金鶴山—高臺山 西麓—洑幕里—漣川 西北方 塔巨里—臨津江 沿邊으로 南行—Kansas線上의 馬浦里 南쪽 태일)을 확보하고, 21일부터는 Utah線을 보다 擴張하여 金化 南쪽을 通하는 Wyoming線을 目標로 機動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와같이 攻擊 爲主를 標榜하는 一聯의 反擊이 곧 國土統一을 위한 본격적인 北韓으로의 총진격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즉 3월 29일에 Truman 美 大統領은 記者들에게 그 立場을 밝히기를 『MacArthur장군은 UN軍司令官으로서 필요한 諸般 權限을 保有하였다. 그리고 38°線의 돌파는 可하지만 이것이 곧 韓滿國境으로의 진격을 示唆함은 아니다. 進擊目標는 戰勢의 發展如何에 따를 것』이라 한 바 있었다.

여하간 美 제1군단은 21일 07.00를 期하여 Wyoming線으로의 진격을 시작하여 군단 右翼의 美 제24·제25 兩 사단이 北進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제1사단은 군단의 左翼으로서 右隣接인 美 제3사단과 함께 계속 臨津江 南岸을 확보하면서 江北에 대한 정찰활동을 強化하여, 20일에는 강 건너 깊숙히 長湍郡의 芬芝里부근 大德山(△236) 東南쪽—白鶴山(△229) 東南쪽—巨谷里 北쪽—江井里 北쪽을 連하는 線에 前進基地를 設定하였다. 그리하여 敵, 主로 分隊에서 中隊규모인 中共軍과의 接觸이 21일에는 더욱 잦아 졌는데, 이 무렵의 정보보고에 의하면 敵은 兵力이 20,000名 未滿으로 推算되는 北共 제1군단이 開城일대로부터 禮成江 以西에서 공격을 준비하고 中共 제19병단 3個軍의 主力이 市邊里—金川일대로부터 高浪浦를 비롯한 臨津江 北岸으로 南下하여 高浪浦—汶山—서울, 또는 東豆川—議政府—서울線으로 공격을 企圖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高浪浦—開城일대에서 점차로 증가하는 敵情을 捕捉한 22일 현재, 사단은 사령부를 碧蹄面 官山里에 두고 제12연대를 右一線, 제11연대를 左一線으로 馬智里로부터 吾今里일대에 이르는 主抵抗線을 確保하는 가운데 敵侵에 對備하고 있었다. 즉 제12연대는 積城—金坡里 道路 南쪽에서 제3대

대가 馬智里 南쪽—高士洞 東南쪽, 제1대대가 그 西쪽으로 金坡里—斗浦里 北쪽 일대의 高地에 陣地를 占有하고, 前方에는 제1대대의 일부와 연대 수색중대가 高浪浦 南岸인 長佐里—紫長里일대에 前進陣地를 점령하고 있었으며, 제2대대는 예비대로 연대본부가 있는 金谷里부근에서 직접警備中이었다. 그리고 汶山 北쪽의 제11연대는 제3대대가 연대 右一線으로 栗谷里—仙遊里일대에, 제1대대가 左一線으로 나루터가 있는 臨津里—堂洞里일대에, 예비대인 제2대대는 烽岩里 西쪽에 각각 陣地를 마련하고 있었으며, 사단 左側方인 汶山川 西쪽의 臨津江 河口에 이르는 洛河里—吾今里일대는 사단 對戰車攻擊大隊가 담당하고 있었다. 한편 제15연대는 이 때에 사단 예비대로서 大古嶺부근에 待機中이고, 배속 第5獨立海兵大隊는 金浦일대를 防守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사단은 깊고 긴 屈曲線을 이룬 江岸에는 前進部隊만을 배치하고 그 主陣地는 南쪽의 高地帶를 確保함으로써 防禦正面을 縮少한 가운데 渡河 또는 徒涉場에 대한 警戒와 各 수색대에 의한 江 北岸의 수색 정찰을 계속하였는 바, 22일 23.00에 이르자 敵은 일시에 공격준비사격으로 推測되는 砲門을 열었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 계획

敵의 攻勢를 豫想한 當初, UN軍사령부의 基本的인 方策은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持久牽制의 消極的인 行動을 反復하면서 敵에게 최대한의 打擊을 加한 다음 다시 反擊으로 轉移한다는 것이었다. 이와같이 機動性 있는 攻防自在의 反復으로써 敵의 侵攻을 拒守한다는 戰略槪念은 MacArthur元帥의 38°線 問題에 관한 見解에 더욱 잘 나타나 있으니,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우리들이 현재 韓國에서 軍事作戰을 행하고 있는 條件下에서는 韓半島를 橫斷하는 어떤 線에 따라 地域的으로 戰鬪하는 것은 적당치 못한 것이다. 특히 38°線에 관해서는 그 부근에 自然的으로 防禦에 적합한 地形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곳에 防守態勢를 갖출만 한 大兵力을 保有하고 連絡·補給線을 維持할 수 있다면 우리는 共產軍을 鴨綠江 너머로 驅逐하고 이 江을 장래의 主要防禦線으로 해서 統一使命을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戰況에서는 정세에 큰 변동이 없는 한, 軍事上의 不利點을 없애는 最上의 方策으로서 機動戰을 계속 전개하고 또한 우리의 軍事目標에 가장 적합한 지역에서 敵을 捕捉할 것이다. 따라서 交戰地點은 兩軍이 投入하는 兵力量에 따라 언제라도 移動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UP通信에 대하여 3월 15일字로 回答한 內容의 要約이다.

이러한 槪念밑에 我軍과 UN軍은 4월 前半에 Kansas線을 목표로 Rugged作戰을 展開하

여 보다 有利한 地形을 차지하는 가운데 敵의 攻勢에 對備코자 하였으며, 이어 Dauntless 作戰으로 金化一鐵原일대에 육박하려는 積極防禦策을 取하였으니 4월 4일에 美 제8군사령부로부터 下達된 同 作戰計劃의 內容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제8군은 D日H時를 期하여 現戰線으로부터 攻擊을 再開하여 Utah線 南쪽의 敵을 擊滅한 다음 Wyoming線으로 공격을 계속하려 한다.

공격은 必要한 各隊間의 모든 相互協調가 이루어지고 各部隊의 健全한 狀態가 維持되는 가운데, 敵에게 最大限의 損失을 強要토록 하여야 한다.

②. (가). 美 제1군단은 軍 西側方을 防守하면서 地域內의 Utah線을 공격 점령하라. 그리고 當 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Wyoming線을 공격 점령할 준비를 갖추라.

(나). 美 제9군단은 Utah線을 공격 점령하고 Wyoming線 공격을 준비하라.

(다). 東海岸의 韓國軍과 美 제10군단은 現任務를 계속하고, Kansas線 北方으로 공격적인 정찰을 전개하라.

③. 美 제1·제9 兩 군단장은, 本作戰 遂行中 部隊의 어떤 主要部分 전체의 安全이 위험할 정도로 완강한 敵의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군단장의 直接命令만으로 Kansas線으로의 相互協調된 撤收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行爲는 事前에 當 사령부의 承認을 받는 것이 不可能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考慮될 수 있다.』

그리하여 美 제1군단은 美 제9군단과 함께 4월 19일에 Utah線까지의 進出을 完了하였는데, 이 作戰을 指導한 新任 美 제8군사령관 Van Fleet중장은 다시 21일에 Wyoming線으로의 공격을 계속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美 제1군단장 Milburn소장은 20일 隷下 各 師團에 要旨 다음과 같은 명령을 下達하였다.

『①. 美 제24·제25 兩 사단은 4월 21일 07.00를 期하여 Wyoming線을 目標로 진격하라.

②. 韓 제1·美 제3 兩 사단은 現 任務를 계속하라. 그리고 威力捜索隊를 敵地에 파견하여 敵의 集結所를 探索, 破碎토록 하라.』

또한 다음날에는 戰鬪地境線이 臨津江 北方으로 延長되어 沙尾川一臨江里一古寺洞 線을 境界로(沙尾川 線上은 제1사단에 屬함) 美 제3사단과 제1사단은 그 東西地域을 分擔하게 되었다. 그러나 Wyoming線(華川貯水池 南쪽 梧陰里부근一名勝洞一大成山一瓦水里一東幕里一大位里一鐵原 南쪽 신탄里 線)은 美 제9군단과 美 제1군단 右翼에 해당되므로, 제1사단의 임무는 Utah線의 確保時와 마찬가지로 臨津江以北으로의 진격은 아니었던 것이다.

이러한 군단명령을 받은 사단장 姜文奉준장은 豫想되는 敵의 渡涉點에 대한 火網構成을 다시 檢討함과 아울러, 사단 및 각 연대의 수색중대는 주로 高浪浦一開城일대에 걸쳐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각 연대의 前進部隊도 北岸에 대한 정찰을 強化토록 指示하였다. 특히 前進部隊들을 小隊規模로 增強토록 하고, 一部 陣地를 再編成하여 據點式防禦를 點綴함으로써 敵이 大擧 侵攻할 경우에 最大限의 牽制抑留를 꾀하면서 隨時로 打擊을 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從來와 같은 廣正面의 橫的占據로 말미암은 縱深없는 兵力配置의 脆弱性을 消滅할 수 있도록 措置하였다.

(2) 작전 실시

4월 23일 : 지난 밤부터의 砲擊에 이어 敵은 高浪浦를 中心으로 하는 일대에 대하여 攻擊을 시작하였는데, 그 手法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縱深있는 突破에 併行하여 迂回와 包圍를 노리는 것으로 判斷되었다.

이날 敵 공격의 重點은 特히 사단 右一線인 제12연대 正面 및 右隣接인 美 제2사단과의 間隙으로 指向되어 적어도 1개 연대를 넘는 규모로써 侵攻하였으나, 我軍은 奮戰을 거듭하여 끝까지 主陣地를 堅持하고 있었다.

1. 즉 02.50에 사단수색중대와 제12연대의 수색중대가 敵의 強壓으로 臨津江 北쪽에서 南岸으로 隨意 撤收하자 이를 前後하여 各隊의 前方警戒 또는 前進소대들도 이와 步調를 같이하기 시작하였는데, 江 北岸까지 南下한 敵도 뒤이어 주로 高浪浦일대에서 夜暗을 타서 江을 건넜으므로 날이 새기 전에 이미 主抵抗線正面에서 激戰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제12연대(장, 金點坤대령)는 右一線인 제3대대(장, 金基容중령)가 積城쪽과 斗只里에서, 그리고 長佐里一高士洞으로 侵攻하는 敵과 激突하게 되고, 左一線인 제1대대(장, 柳文鎬소령)도 正面과 아울러 제3대대와의 間隙인 坡平山의 △400일대로 侵入하는 敵을 抑留코자 強打를 加하였다.



<陣地에서 奮戰하는 병사들>

제3대대 前方에서는 02.00에 수색대가 高浪浦 北쪽

으로부터 隨意 撤收한데 이어, 03.00에는 그 南岸에서 渡河點을 警戒中이던 제10중대의 1개 소대가 2개 중대 규모인 敵의 공격으로 食峴里의 △150까지 一旦 撤收하였다가 07.00에 중대로 復歸하였다. 또 江 北쪽의 沙尾川 西岸 △112에서 前方警戒 임무를 遂行중이던 대대의 先遣소대는 04.00에 斗只里로 渡河한 다음, 渡河點을 警戒中인 △128의 제9중대 1개 소대와 合勢하였는데, 이무렵 그 南쪽 2km의 △180北麓에서는 제9중대(장, 白潤基대위)가 몰려드는 敵을 여지없이 痛擊하고 있었다. 즉 중대는 사단의 最右側 一線據點을 確保하면서 固守態勢를 強化하는 가운데, 特히 右隣接 英 제29여단이 全面에 걸친 精密防禦를 못한 탓으로 생겨난 間隙을 警戒中 지난밤부터 1개 연대 규모의 敵이 積城一馬智里일대로 西南進하면서 그 先頭가 中隊正面에까지 殺到하게 된 것이다. 支援 砲兵의 火力이 敵에게 集中되는 가운데, 중대는 迫擊砲를 비롯한 모든 火力으로서 陣前에 접근하려는 敵에게 射擊을 加하니, 敵은 屍體를 넘어서 屍體를 쌓은 나머지 드디어 屍體로써 交通壕를 메웠을 뿐이며 더욱 달려들 氣力을 잃고 말았다. 그러나 敵의 全般에 걸친 南下傾向은 계속되어, △128의 제1소대가 중대로 復歸한 점심때에는 1개 중대 규모의 敵이 右側後方인 △300일대로 侵入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그 南쪽 △357에 진출한 제11중대(장, 金炳坤대위)가 공격을 加하며 15.30까지에 이 敵을 擊退한 다음, 그 西쪽에 있는 捕獸岩 前面의 交叉路 北쪽 高地로 轉進함으로써 金谷里의 聯隊指揮所로 通하는 大隊 中央部를 補強하였다. 그런데 退却하는 듯 하던 敵의 일부는 東南쪽, 즉 대대의 右側後方으로 迂回南下하려는 기색이었고, 또 △180北麓一坡平山 北端(△180西쪽 道路越便 高地) 일대로는 後續한 敵이 다시 侵攻하게 되니 대대는 여기에 다시 血鬪를 벌이게 되었다. 날이 저물자 敵의 공격은 더욱 激化하여, 22.30에 △180北쪽으로 1개 중대 규모가 侵攻한데 이어, 敵은 我軍의 砲擊에도 不拘하고 계속 증강되어 △180東北 및 北쪽일대에서 대대 右側을 強壓하기 시작하였다. 이보다 앞서 21.00에 老里川 西쪽인 坡平山 北端으로는 1개 대대 규모로 판단되는 敵이 侵攻하였는데, 이 高地를 지키던 제10중대(장, 嚴秉吉대위)가 手榴彈을 퍼부으면서 堅守不動하니, 23.00에는 敵도 일단 高士洞쪽으로 물러서는 듯 하였다.

이렇게 처음부터 敵의 공격 威力이 연대 右側에 더욱 加重되는 것을 看破한 연대장 金點坤대령은 이 敵의 氣勢를 挫折시키고자 이날 아침에 예비대인 제2대대의 出擊을 命令하였다. 이에 따라 捕獸岩 北쪽의 交叉路일대에 집결한 제2대대(장, 趙成來중령)는 美 戰車隊와 協同으로 오후에 제3대대 前線의 中央을 통과하여 食峴里의 △150 東南쪽으로 진출하였는데, 17.00에는 1개 중대 규모의 敵과 부딪치게 되었다. 대대는 戰車의 지원을 받아

이를 격퇴하였으며, 일부는 戰車와의 協同下에 19.00에 斗只里 西北方 江岸일대까지 진출하였다. 그러나 敵은 이미 곳곳에서 江을 건너 南쪽의 我軍 主抵抗線에서 전투가 本格化함에 따라, 대대는 19.15에 撤收命令을 받자 곧 機動을 始作하여 22.00에는 다시 金谷里로 철수하였다.

한편 연대 左一線인 坡平山 北쪽의 제1대대(장, 柳文鎬소령)는 前方보다도 右側方의 △496쪽으로 侵襲하는 敵을 먼저 阻止하여야만 하였다.

즉 02.00에는 高浪浦쪽에 있던 제3중대의 1개 소대가, 渡河 侵攻하는 1개 중대 규모의 敵과 交戰타가 04.00에 撤收하여 長坡里 東南쪽 △53에서 前方警戒에 任하였으며, 수색대 및 제3중대의 다른 1개 소대는 長坡里 對岸으로부터 敵의 警戒線을 뚫고 江을 건너 攻擊 短艇을 파괴한 다음, 수색대는 박석고개 北쪽의 △95로 撤收하고 제3중대의 1개 소대는 중대로 복귀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敵은 右側 제3대대와의 境界인 坡平山 東쪽 능선으로 侵襲하여 10.00에는 1개 중대 규모의 中共軍이 △400일대에 迫擊砲射擊을 集中하더니 13.30에는 △400東쪽 능선을 따라 南下하여 我軍과 接戰케 되었다. 대대는 제3중대(장, 安晳模대위)로 하여금 東進하여 이를 막게 하니, 중대는 14.00에 △496를 占領한 다음 15.00부터 敵을 공격하였다. 이리하여 중대는 險峻한 地形을 무릅쓰고 敵陣에 肉迫하여 수류탄 세례를 加하였으나 敵의 抵抗도 만만치 않아 결국 高地 中腹에서 대치하다가 사단 수색중대(장, 崔熙燮대위)에 陣地를 인계한 다음, 西北端인 訥老里 南쪽의 △125로 轉進하였다. 수색중대는 제2소대(장, 趙相璧소위)의 奮戰으로 敵을 阻止하고 있었는데, 밤이 깊어 지자 23.50에는 2개 중대 규모의 敵이 △125일대로 侵攻하였다.

2. 이렇게 사단 右一線에서 紛戰과 激鬪가 벌어진데 反하여 左一線에는 敵의 侵攻이 비교적 적어 제11연대(장, 文亨泰대령)는 이날 큰 接敵없이 陣地를 維持하고 있었다.

즉 敵은 江 北岸의 亭子里一水川浦일대에 1개 중대 규모와 京義線 鐵橋를 中心으로 한 對岸일대에 1개 대대 규모가 我軍에 대한 견제 내지 渡河를 노리고 있는 한편, 長湍일대로부터는 北共 제8사단의 主力이 長坡里 對岸의 渡河點을 향하여 東進中이었다. 또 연대 左側一線에서는 江 北岸인 石串里 北쪽과 江井里 △55 및 그 西쪽 吾今里 北岸 나루터 일대에 각각 2개 중대 규모의 敵이 南下를 企圖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石串里 北쪽 △81부근에서는 사단 對戰車공격대대의 前進인 제3중대(장, 朴仁燁대위)의 1개 소대가 07.00에 敵과 부딪쳐 1시간에 걸친 激鬪끝에 南岸으로 撤收하고, 吾今里 北岸에서는 敵이 南下함에 따라 수색대의 一部가 江을 건너 10.30에 吾今里 北쪽으로 復歸한 바 있다.

3. 한편 상황을 파악한 사단사령부에서는 특히 坡平山 南쪽으로의 敵의 侵襲을 憂慮하여 예비대인 제15연대에 出動態勢를 갖추도록 指示하였다. 그리하여 제15연대장 金安一대령은 13.00에 竹院里에 있던 제2대대(장, 崔炳淳중령)를 출동시켜 對備케 하니, 대대는 車輛으로 14.50에 納斗里에 진출하여 法院里 北쪽에 제6중대, 納斗里 고개근처에 제5중대, 道路 南쪽 鳴鶴山 東端에 제7중대, 納斗里에 제8중대를 각각 배치함으로써 四周警戒에 들어갔다.

4. 이와같이 敵의 攻擊이 東쪽에 집중됨에 따라, 砲兵大隊도 사단 右一線에 힘을 기우리게 되어, 주로 石橋一長坡里 西北쪽의 江岸과 그 안쪽으로 敵의 集結 및 移動通路에 攪亂射擊을 加하여 敵의 渡河를 妨害하였다. 그리고 主抵抗線에서 接戰케 된 다음에는 대대본부를 桂木洞으로부터 延豊里로 옮기고, 제1중대(장, 鄭仁和대위)와 제2중대(장, 金丙植대위)는 金谷里, 제3중대(장, 金榮鍾대위)는 法院里 北쪽 삼성대근처로 移動한 가운데 주로 제12연대 前面 특히 △300와 △150일대에 집중적인 支援砲擊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이날 午後에 제8군은 이미 군단에 대한 Kansas線으로의 撤收를 承認하고 있었다.

4월 24일 : 밤사이에 敵은 제12연대 正面과 특히 제11연대와의 間隙을 이용하여 我軍의 主陣地後方으로 闖入하니, 我軍은 곳곳에서 이를 破碎하는 한편 예비대로써 間隙으로 侵襲하는 敵을 填塞토록 措置하였으나 일부 陣地는 뒤로 물러서야만 하였다.

1. 즉 右一線인 제12연대는 대체로 이날 午前中에는 主抵抗線에서 攻防戰을 전개하였으나 前面의 敵은 점점 增加하고, 左右側方으로 侵入한 敵이 南쪽에서 부대의 後方을 위협하는 형세가 되어 金谷里일대까지 撤收한 것이다.

제3대대(장, 金基容중령)는 이날 새벽까지 △180 및 그 西쪽인 道路越便의 高地를 維持하다가 아침에 金谷里로 撤收를 시작하였다. 먼저 △180의 제9중대(장, 白潤基대위)는 激戰끝에 제1소대(장, 金寅高소위)를 掩護隊로 하여 커다란 손실없이 撤收할 수 있었으나, 제1소대장 金寅高소위는 責務를 完遂코자 奮鬪끝에 자신은 참호에서 敵에게 銃을 겨눈 채로 戰死하고 말았다. 이때 뒤이어 南下하는 敵은 다시 △357로 진출한 제11중대(장, 金炳坤대위)가 擊破하였으나, 이번에는 대대 左側의 제10중대(장, 嚴秉吉대위)가 危險에 빠지게 되었다. 즉 坡平山 北端一高士洞일대로 南下하여 제10중대와 激戰을 벌이던 敵의 일부가 西쪽으로 중대 左側方을 迂回 南下한 것이다. 이를 阻止코자 제11중대는 또 西쪽으로 道路를 넘어 高地의 敵을 공격하였다. 그런데 地形의 不利와 敵의 抵抗이 겹쳐 戰況이 好

轉되지 않는 가운데 敵의 일부는 西南쪽 △400일대로 그 공격 방향을 돌리고 右側 △300 일대의 敵도 물러나지 않으니, 대대 側後方에 대한 威脅을 排除키 위하여 부득이 각 중대 모두가 撤收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左側一線인 제1대대(장, 柳文鎬소령)도 △496—麻山里일대에서 △400일대에 侵攻한 敵을 阻止하는 한편 제2대대와 協助하여 대대 左側方의 間隙으로 侵入하는 敵을 擊退코자 奮戰하였으나, 增加하는 敵勢에 밀려 저녁에는 △496—坡平山 南麓까지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날 새벽에 대대 수색대가 △95로부터 철수한 데 이어 제2·제3 兩 중대는 △496 西北에 있는 標高 300稜線일대로 轉進하였는데, 麻山里일대에 侵入하여 제2대대와 交戰中이던 敵의 일부가 麻山里 北쪽 △279로 侵襲함에 대대는 △496에서의 防禦를 위하여 彌陁寺부근으로 集結하였다. 그리하여 北쪽을 사단 수색중대(장, 崔熙燮대위)와 제3중대(장, 安晳模대위)가, 그 西쪽을 제2중대(장, 韓國贊대위)가 맡고, 제1중대(장, 李鍾喆대위)와 重火器중대(장, 林憲九대위)는 대대OP와 함께 頂上일대를 지키고 있었던 바, 다시 北쪽의 △400로부터 1개 대대 규모의 敵이 사단 수색중대 正面 및 제3중대 側面으로 侵攻하였다. 이로부터 2時間餘에 걸쳐 手榴彈이 地軸을 흔들고 全火力이 累屍를 쌓는 熱戰이 展開된 끝에 彈藥이 消盡되기에 이르렀는데, 20.00에 연대장의 命令에 따라 부대를 撤收케 되었다. 대대는 제3중대를 山의 南端인 제15연대 제2대대의 右側에 배치하고 제1·제2 兩 중대로 頂上부근을 維持하는 가운데 사단 수색중대는 原隊로 復歸케 하였다. 이날 제2대대(장, 趙成來중령)는 06.00에 일부가 直川里와 龍山洞 南쪽으로 併進하여 연대 後方인 이 地域에 散發的으로 南下한 일부의 敵을 擊退하였다. 다시 金谷里 北쪽에 집결한 대대는 11.40에 美 戰車隊와 함께 熊潭里—北岩洞일대까지 진출하면서 道路 東西線으로 南下하는 敵을 공격하였는데, 20.00에 이르러 연대장의 命令에 따라 盧坡洞 南쪽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렇게 연대는 金谷里 北—西쪽 일대를 제1·제3 兩 대대로서 防禦케하고 제2대대로서 左右側方에 闖入하는 敵을 阻止토록 함으로써 法院里에 이르는 撤收路를 確保한 가운데 다음날의 反擊을 企圖하고 있었다.

2. 한편 전날에 法院里—納斗里고개 일대로 진출하였던 제15연대의 제2대대(장, 崔炳淳 중령)는 이날 斗浦里—麻山里일대로 侵入하는 敵을 阻止코자 11.00에 美 戰車隊와 協同으로 機動을 시작하였다. 대대는 四方山에서 南下하는 敵의 先頭와 接戰하고, 13.30에는 麻山里 南쪽인 俗稱 벌말일대에 展開하여 重火器중대의 砲擊 및 戰車隊의 支援을 받으면서 공격하였는데, 19.30에 이르기 까지 敵은 모두 潰散되었으며 제5중대는 斗浦里로 진출하

여 江岸과 金谷里로 通하는 道路를 中心으로 하는 일대에 대한 警戒에 들어 갔다.

3. 그리고 제11연대는 右側 제12연대와의 間隙으로 侵襲한 敵으로 말미암아 栗谷里의 高地 등 일부에서는 陣地를 부분적으로 뒤로 물렸으나, 큰 接敵狀況 없이 主抵抗線을 維持하고 있었다.

右側一線인 제3대대(장, 高林鉉소령)는 栗谷里일대의 제10, 제11중대가 敵의 強壓을 받는 가운데 수색대와 先遣소대가 新谷峴일대로 復歸하여 栗谷里一新谷峴일대를 維持하면서 특히 대대 東北方에 대한 警戒를 強化하고 있었다. 또 左側一線인 제1대대(장, 柳重秀중령)는 제3중대를 先遣線으로부터 仙遊里부근으로 隨意後退케하여, 그 北쪽 △151의 제1중대와 함께 臨津里일대에 대한 敵侵에 對備케 하였으며, 제2중대는 汶山 北쪽 板橋 南쪽에서 左側方을 警戒토록 하였다. 아울러 연대의 對戰車砲隊(장, 崔金石대위)는 제3대대 左前方 花石洞의 2개 소대와 제1대대 前方 馬井里의 2개 소대를 각각 新谷峴 西南쪽 △86부근과 鳳樓里 南쪽 赤田으로 移動배치하여 江 對岸의 敵에 대한 사격을 시작하였다. 한편 예비대인 제2대대(장, 裵斗龍중령)는 △86—汶山일대에서 제3대대에의 掩護 및 戰況의 變化에 對備하였으니, 제7중대를 제3대대의 增援부대로서 戰車隊와 함께 △86에, 제5중대를 梨川일대에, 제6 및 重火器중대는 京義本線 東쪽인 內洞에 각각 배치하고 있었다.

4. 그리고 사단 最左端인 對戰車攻擊대대(장, 石鍾燮중령)는 吾今里일대의 제2중대(장, 金尙俊대위)가 杻峴里一法興里일대에 迫擊砲 및 機關銃을 배치하고, 敵이 아직 渡河치 않는 江岸을 계속 警戒하는 가운데, 主力은 사단사령부의 警戒任務를 맡게 되었다. 즉 대대 본부와 같이 杻峴里에 있던 제1중대(장, 張富兼대위)는 19.00에 碧蹄面 官山里에 도착하였으며, 제3중대(장, 朴仁燁대위)는 제2중대 右側인 洛河里일대로부터 18.00에 機動을 시작하여 제1중대보다 1時間 늦게 도착한 다음 警戒에 臨하였다.

5. 이와 같이 사단은 右一線에서 일단 뒤로 물러섰으나, 예비대인 제15연대의 제2대대가 間隙을 막고, 또 同 연대 제1대대(장, 劉載成중령)가 法院里에, 제3대대(장, 金國柱소령)가 그 西北方으로 四方山一加野里일대에 진출하여 前線 後方으로 散發的인 南下 侵襲을 꾀하는 敵을 擊破하면서, 다음날 아침을 期하여 제12·제15연대를 並行시켜 反擊할 것을 劃策하였다. 그리하여 이날 19.00에는 作戰指示 第37號를 下達한 바 있다. 그러나 上級司令部의 意圖가 地域의 爭奪보다 敵에게 最大限의 打擊을 加하자는 데 있었음은 勿論이었다.

4월 25일 : 臨津江 南岸에서의 攻防戰이 사흘째로 접어든 이날, 사단은 부분적으로 反擊을 敢行하였으나 군단 명령에 따라 Delta線(泉峴面 葛谷里 老姑山 北쪽—炭縣面 城洞里)으로 撤收케 되었다.

즉 사단은 右一線인 제12연대와 그 西쪽 제11연대와의 間隙인 麻山里일대에 起用한 제15연대로서 새벽부터 反擊을 시작하였는데, 戰況의 進展이 順調롭기만 한 것도 아니었으며 더욱 철수명령이 내려지니 지금까지 力攻敢鬪를 계속한 제12연대를 먼저 高陽郡 碧蹄面 일대로 撤收시켜 예비대로 하고 제11·제15연대를 각각 左右一線으로 Delta線까지 撤收케 한 것이다.

1. 이날 아침 제12연대(장, 金點坤대령)는 제1대대를 金谷里로 철수시켜 예비대로 轉用하면서, 제2대대를 右側攻擊梯隊, 제3대대를 左側攻擊梯隊로 하여 △400—熊潭里 北쪽 南山(△211)일대의 敵을 공격키로 하였다. 08.00에 제2대대(장, 趙成來중령)는 제6중대를 右로, 제7중대를 左로 盧坡洞 南쪽에서 南山으로 進出을 시작하였는데, 10.30에 右側方에 있는 望月峰일대에서 1개 중대 규모의 敵이 反擊하였다. 이에 예비대로서 戰車隊와 같이 主力을 뒤 따르던 제5중대(장, 金永俊대위)가 東南쪽으로 方向을 돌린 제6중대(장, 趙基栢대위)와 함께 이를 挾擊하는 한편, 제7중대(장, 崔春影대위)는 空中支援과 砲·戰協同을 받으면서 2개 중대 규모인 敵의 抵抗을 물리치고 南山 南麓까지 진출하였다. 이때 左側의 제3대대(장, 金基容중령)는 제9중대를 예비대로 主力이 △400 東南쪽에 진출하여 역시 航空 掃射와 戰車火力의 支援下에 接戰中이었다.

그런데 이와같은 연대의 機動路는 東쪽에 紺嶽山이 聳立하고 西쪽에 坡平山이 뻗어 있는 사이의 溪谷으로서, 아래를 보고 사격하는 양쪽 벼랑의 敵을 상대하여야 하는 地形的으로 不利한 立場이었거니와, 11.00에는 北쪽에서 南山 南쪽 溪谷으로 英國軍이 느닷없이 出現하는 색다른 狀況에 부딪치게 되었다. 뒤에 판명된 바에 依하면 이들은 사단 右隣接인 美 제3사단에 배속된 英 제29여단 Gloucester대대(장, J.P. Carne 중령) 兵力으로서 여단 本隊와 10餘km나 前方에 떨어진 雪馬里 高地에서 敵의 包圍속에 갇혀 奮鬪끝에 간신이 脫出한 一部였다. 이들은 다른 대부분이 南쪽으로 脫出을 企圖한데 反하여 北쪽으로 뚫고 올라갔다가 敵中을 西行한 끝에 다시 南下함으로써 비교적 成功的으로 友軍陣地에 歸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하간 제3대대와 協同하는 美 戰車隊의 掩護下에 이 英國軍 42명(一說에는 38명)은 救出되었으나, 이번에는 연대가 後方을 一時 遮斷當하는 위험에 直面하게 되었다. 즉 12.50에 △400일대에서 1개 중대 규모의 敵이 北岩里일대로

迂回 南下하여 道路를 遮斷하는 한편 연대 OP까지 射擊을 加하다가 제8·제12·제9 三個 중대의 合同反擊을 받은 결과 擊退된 것이다.

한편 제1대대(장, 柳文鎬소령)는 이날 04.00에 제1·제2 兩 중대 正面으로 侵攻한 2개 중대 규모의 敵을 白兵戰끝에 擊退한 다음, 07.00에 예비대가 되어 金谷里에 集結 待機中이었다. 그런데 13.00부터 사단 全般의 撤收가 시작되자, 北쪽의 東西 高地에 제2중대(장, 韓國贊대위) 및 제3중대(장, 安哲模대위)와 수색대를 配置하여 金谷里 東南 및 南쪽으로 撤收하는 제2·제3대대를 掩護한 다음, 제1중대(장, 李鍾喆대위)를 四方山 東麓에 配置하였는데 18.30에는 南下 侵攻하는 1개 중대 규모의 敵과 부딪치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이 일대를 通過한 연대 主力은 그 사이에도 機動을 계속하고 있었으며, 20.00에는 대대도 大古靈일대로의 撤收를 시작하였다.

2. 그리하여 제15연대(장, 金安一대령)는 제12연대와 交代하여 사단 右一線부대가 되었는데, 午前中에 金谷里一麻山里일대에서 제2·제3대대를 각각 左右側 一線으로 激戰을 치룬 다음 14.30에 撤收를 시작하였다. 즉 제3대대(장, 金國柱소령)는 坡平山 南쪽에 있는 △261에서 警戒中이던 제10중대(장, 崔文榮대위)가 06.30에 東쪽으로 △496의 敵에 대한 攻擊을 시작하였는데, 交戰中에 제9중대(장, 李昌浩대위)와 合勢하여 △496의 西側에 있는 標高 400稜線까지 肉迫하였으나, 撤收命令이 下達됨에 따라 다시 反轉하여 南下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대대는 20.00에 錦屛山 南쪽에 이르러 그 일대를 警戒하였다. 그리고 斗浦里一麻山里일대로 突破分斷을 企圖하는 敵과 衝突한 제2대대(장, 崔炳淳중령)는 이날 아침 공격에 나선 연대 규모의 敵에 대한 反擊을 敢行하여 接戰하다가, 연대장의 命令에 따라 14.00에 제6·제7 兩 중대의 일부를 收容隊로 삼아 法院里의 交叉路 南쪽에서 掩護토록 하였다가 20.00에는 다시 西南쪽으로 옮겨 五陵里 西南쪽 일대의 高地에 兵力을 配置하고 四周 警戒에 들어 갔다. 또한 法院里에서 捜索活動을 펴고 있던 제1대대(장, 劉載成중령)는 13.00에 제3중대(장, 鄭亨澤대위)가 雌雄山(△258) 東北端으로 轉進하여 사단 右側方을 警戒하는 한편, 主力은 徒步機動으로 16.00에 그 南쪽인 北岩里 西北일대의 高地帶에 이르러 다시 合勢한 제3중대와 더불어 前方 警戒에 臨하고 있었다.

3. 그리고 비교적 敵의 侵攻이 적었던 左一線인 제11연대(장, 文亨泰대령)도 이날은 사단 규모로 判斷되는 敵과 對峙하게 되었다. 敵은 02.00부터 臨津江 鐵橋 부근의 對岸에서 射擊과 더불어 渡河를 시작하더니 03.30까지는 그 主力이 江을 건너 南下하였으며, 東北方의 長坡里 北쪽으로 渡河한 敵도 南下하여 연대 右側및 제15연대 正面을 侵攻한 것이다.

特히 1개 연대 규모의 敵은 제3대대와 제1대대를 分斷시키려는 企圖인 듯, 연대 中央인 臨津里—花石洞일대로 侵攻하였다. 그리하여 제1대대(장, 柳重秀중령)는 左右側方을 돌파하려는 敵과 數次의 攻防戰을 벌이기도 하였는데, 사단으로부터의 指示에 따라 연대는 13.30부터 撤收를 시작케 되었다. 즉 제2대대(장, 裵斗龍소령)가 鳳棲里일대에서 掩護하는 가운데, 제3대대(장, 高林鉉소령)는 梨川里 東北쪽과 △188 北쪽에 각 중대를 집결시킨 다음 向陽里—坡州를 거쳐 釜谷里일대에 부대를 배치하였으며, 제1대대는 각 중대별로 撤收를 시작하여 烽岩里에서 집결한 다음 英太里—杜門洞 일대로 南下하였다. 끝으로 제2대대는 제3대대 左側方인 樓峴—龍池洞일대로 撤收하였다.

18.00에는 사단 사령부를 警戒中이던 對戰車攻擊대대(장, 石鍾燮중령)가 다시 金村으로 진출하였다. 대대는 吾今里일대의 제2중대를 撤收시키는 한편, 제1·제3 兩 중대를 연대 左側方인 月籠山(△247)南쪽과 東쪽 道路 越便 高地일대에 配置하였는데, 이 때에 月籠山에는 이미 1개 대대 규모의 敵이 集結中이었으며 汶山일대의 敵主力도 계속 南下할 氣勢를 보이고 있었다.

4월 26일 : 지난밤에 이어 南下한 敵은 날이 바뀌는 사이에도 全面에 걸쳐 侵攻을 계속하였다. 이에 대하여 사단은 제12연대를 예비로 控置하는 가운데 제11·제15 兩 연대를 각각 左·右一線으로 配置하여 敵을 阻止케하는 한편 左一線에서는 反擊까지 敢行토록 하였으나, 군단 명령에 따라 다시 서울에 一步 가까이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

이날 敵의 攻擊은 먼저 01.30에 사단 左一線인 제11연대 前面에서 시작되었으니, 2개 연대 규모에 達하는 敵의 攻擊으로 연대는 대체로 1.5km 정도를 후퇴하였으나 곧 反擊態勢를 갖추어 09.00에는 그 半以上을 回復하였다. 敵은 05.30에 右一線인 제15연대의 右側方으로도 侵攻하여 10.00에는 老姑山(△401)으로부터 1개 대대 규모가 南下하는 한편, 反擊中인 제11연대에 대하여는 右側 제3대대 正面에 1개 대대 규모, 左側 제2대대 正面 德隱里 西쪽에서 1개 연대 규모가 각각 侵攻하였다.

이렇게 攻防의 激鬪가 벌어지고 있을 때 군단으로부터 다시 撤收命令이 下達되니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각 사단은 4월 26일 11.00를 期하여 加平 靑雨山—抱川 南쪽 內里—三崇里—鸚鵡峰(△622)—漢江 西岸의 西牌里를 連하는 線으로 隨意撤收하라.

② 各隊는 각기 地域內에서 가장 有利한 地形을 利用하여 逐次抵抗陣地를 占領하라.

③ 各隊는 隨意撤收中, 主要 部隊의 建制를 維持하면서, 敵에게 가장 큰 打擊을 加하

고 가장 많은 時間의 餘裕를 얻도록 하라.』

1. 그리하여 사단장은 地域內 鸚鵡峰 北쪽인 銀佛山(△251) 靈場里일대—東巨里—金村里—西牌里일대에 새로이 陣地를 占領토록 隸下 제11·제15 兩 연대에 指示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15연대장은 연대 作戰主任 張時雨소령으로 하여금 이날 13.30附의 要旨 다음과 같은 作戰指示 第17號를 下達케 하였다.

『① 各隊는 26日 H時를 期하여 撤收를 시작하여 透明圖와 같이 陣地를 占領하라.

(透明圖上의 位置.

제1대대 : 馬場里 南쪽, 朴達山(△369)北麓.

제2대대 : 東巨里일대.

제3대대 : 鸚鵡峰北쪽을 中心으로 素沙峴—靈場里일대

② 各 大隊는 搜索隊의 占領線에 各 1個 小隊兵力을 殘置시키고 常時 敵과 접촉을 유지케 하라.

③ 제3대대는 鸚鵡峰 東쪽 3km인 △498 근처에서 右隣接部隊와 連繫하라.

④ 제2대대는 正面의 外花山 南쪽 新炭幕일대에 先遣으로서 1개 중대 규모를 配置하라.

⑤ 각 대대는 堅固한 前進線을 構成하여 次後攻勢의 機會에 對備하라.

⑥ 제3대대는 自動車로 輸送한다.』

이에 각 대대는 14.00를 前後하여 撤收한 다음 指示된 陣地를 占領함으로써, 제3대대가 연대 右側一線이 되고, 제1대대가 中央一線, 그리고 제2대대는 左側一線이 되었으며, 先遣으로서는 제7중대(장, 白南恒대위)가 指示된 範圍內에서 萬丈山일대를 占領하였다. 그런데 제3대대 前方에서는 1개대대 규모의 敵이 素沙峴 東쪽 △380일대에서 南下하는 한편, 제2대대 正面에서도 1개 대대 규모의 敵이 22.00에 제7중대를 包圍하려는 企圖로서 중대 正面 및 東側方의 네곳으로 侵攻하였으나 激戰끝에 子正까지는 모두 擊退하고 말았다.

2. 한편 제11연대는 梧山里—金村里—交河里일대로 撤收하여 제3대대를 右側一線에, 제2대대를 左側一線에 配置하였으며, 사단 對戰車공격대대는 左端의 交河里일대를 防禦케 하였다. 즉 제3대대는 梧山里 西쪽, 弩造里 北쪽으로부터 杜門洞일대에 각 중대를 配置하였고, 제2대대는 金陵里—金村里일대에서 제5중대가 金村, 제6중대가 그 西쪽, 그리고 제7중대가 金陵里 北쪽 △170에 각각 陣地를 占領하였다. 또한 제1대대는 예비대로서 曲陵川 南쪽인 雲井 東北方일대에 配置되어 있었다.

3. 對戰車공격대대는 이날 09.00에 제1중대(장, 張富兼대위)와 대대 수색대가 △247

(月龍山)의 敵을 공격하여, 12.00까지는 1개 중대 규모의 敵을 擊滅하고 同 高地를 奪還하였으나, 대대 규모를 넘는 敵의 反擊이 계속되므로 13.00에 다시 撤收하고, 19.00에는 대대 본부를 비롯한 主力이 德耳里로 撤收하였다. 그리하여 交河里일대의 제3중대 以外에는 제2중대의 2개 소대가 葛峴里 南쪽 및 西南쪽 △38일대에 陣地를 構築하고 四周警戒에 任하고 있었다.

4. 그리고 각 연대를 支援하고 있는 제17포병대대는 이날 각 중대가 모두 碧蹄里일대로, CP는 高陽里로 移動하였다.

5. 또 그동안 金浦半島일대를 警戒中이던 海兵 獨立 第5大隊(장, 吳命福소령)는 이날 附로 英 제29여단에 配屬되었으니, 이는 同 여단이 군단 直轄로 되어 永登浦—素沙일대로 移動케 됨에 따라 指揮의 統一을 위한 措置의 一環으로 分析되었다.

4월 27일 : 敵의 攻勢도 막바지로 접어든 이날, 사단은 13.00까지 全線에서 侵攻을 계속하는 敵을 強打하며 激戰을 展開하다가 서울 西北方의 新防禦線으로 撤收를 시작하였으며, 사령부도 西大門으로 옮겼다.

1. 제15연대는 이날 午前中에 소대~대대 규모의 敵과 몇차례나 激突하면서 陣地를 確保하고 있었다. 즉 右側一線인 제3대대(장, 金國柱소령)는 前面 石峴一靈場里일대로 侵攻하는 중대 또는 소대 규모의 敵을 각 중대가 阻止 또는 反擊하여, 제9중대는 1개 중대 규모를 擊退하고 제10. 제11 兩 중대는 交戰中이었다. 제1대대(장, 劉載成중령)는 03.00에 제3중대 前面으로 侵攻한 1개 대대 규모의 敵과 射擊戰을 展開하다가, 敵의 迂回攻擊으로 04.30에는 西쪽으로 몰렸으나, 다시 大古灆에 있던 제12연대 제1대대(장, 柳文鎬소령)의 支援下에 反擊하여 1時間안에 敵을 擊退하였다. 다시 07.00에는 2개 중대 규모의 敵이 대대 左側인 제1중대를 공격하였으나 交戰 30餘分만에 擊退하고, 08.30의 再攻擊도 격퇴되었다. 그리고 左側一線인 제2대대(장, 崔炳淳중령)는 지난밤에 제7중대의 包圍를 企圖하다가 쫓긴 敵이 05.00부터 다시 侵攻하는 것을 06.00前에 물리치고 陣地를 確保하고 있었다.

2. 그리고 제11연대 前面에서 이날 敵은 서울로 通하는 汶山—서울 道와 交河——山—水色道일대에 集中的으로 侵攻하였다. 지난 子正에 제3대대 左側 前面인 登院里 北쪽으로 侵攻한 敵은 01.00에 擊退되었으나, 交河——山에 이르는 敵의 壓力은 尤甚하여 사단 對戰車攻擊대대는 敵의 包圍를 뚫고 몇차례나 激戰을 벌여야 하였다. 즉 交河里일대의 제3중대는 03.30에 侵攻하는 1개 대대 규모의 敵과 接戰을 시작하였는데, 05.00에는 敵이 左右

側方으로 迂回包圍하므로 곧 이를 벗어나 一山으로 南下하기 시작하였으나, 途中에 敵의 奇襲射擊으로 한 때 混亂되었다가 다시 兵力을 收拾하여 反擊을 加하면서 15.00에 이르러서야 一山에 到着할 수 있었다. 이렇게 苦戰하는 제3중대를 支援코자 05.00에 대대장 石鍾燮중령의 지휘로 德耳里로부터 진격을 시작한 제1, 제2중대도 揷橋 北쪽 △57에서 역시 敵의 공격으로 09.00에는 一山으로 되돌아 나올 수 밖에 없었으며, 그 사이에 대대CP도 敵의 공격으로 一山에 撤收하여야만 되었다. 연대 左端이 이렇게 몰리게 된 것은 1개 대대 以上으로 판단되는 敵이 이날 06.00에 漢江 西岸의 松村里 北쪽으로 渡河하여 山南里의 △194와 그 東쪽 2km의 俗稱 방골일대, 그리고 一山 西北方 및 △57일대로 侵襲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연대장 文亨泰대령은 一山일대에대한 敵의 後續을 막고, 主力의 左側方을 防護하며 이미 侵襲한 敵을 壓縮 擊滅하려는 一連의 措置로서 제2대대에 일부 兵力을 交河里 西北方으로 진출시키도록 指示하였다. 따라서 제2대대장 裵斗龍소령은 예비대인 제7중대로 하여금 이 임무를 遂行케 하였다.

그러나 곧 撤收命令에 따라 각 연대는 모두 新防禦線으로 撤收케 되었으니, 이날字의 사단 作戰指示 第40號는 要旨 다음과 같다.

『① 사단은 軍團命에 依하여 今 27日 11.00 現陣地에서 撤收를 시작하여 昌陵川線의 新陣地를 占領하려 한다.

② 제11연대는 1개 대대로서 연대撤收를 掩護한 다음 遲延戰을 펴면서 다음 防禦線의 警戒陣地를 占領케 하고 主力은 15.00時에 撤收를 시작하여 透明圖와 같이 新陣地를 占領하라.

(透明圖 : 1個 大隊는 舟橋일대, 主力은 東山里一花田里일대)

③ 제12연대는 1개 대대로써 제15연대의 撤收를 掩護한 後에 遲延戰을 펴면서 다음 防禦線의 警戒陣地를 占領케 하고, 主力은 13.00에 撤收를 시작하여 透明圖와 같이 新陣地를 占領하라.

(透明圖 : 1개 대대는 最初 碧蹄里 北쪽에서 碧蹄驛 일대로 撤收. 主力은 北漢山城 西北쪽一津寬內里 北쪽일대)

④ 제15연대는 제12연대의 掩護下에 14.00를 期하여 撤收를 시작하여 碌磻里 일대에 集結한 다음, 何時라도 出動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⑤ 對戰車攻擊大隊는 16.00를 期하여 撤收를 시작하여 玄川里일대에 新陣地를 占領하라.

⑥ 사단 野砲隊는 新陣地를 占領하고 계속 각 연대를 직접 支援하라.

⑦ 工兵大隊는 각 연대의 主抵抗線에 障碍物을 設置하라.

⑧ 其他 指示事項

(가) 各隊는 堅固한 前進線을 構成하여 遲延戰에 任하라.

(나) 各隊는 特히 敵의 夜間 侵透戰에 對備하라.』

이와같은 指示는 각 연대의 撤收計劃을 調整하는 過程에서 일부가 修正되었으니, 이날 13.00附의 제15연대 作戰指示 第18號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師團指示에 따라서 연대는 27日 14.00를 期하여 撤收를 시작한 다음 透明圖와 같이 移動, 新陣地를 占領하려 한다.

(透明圖 : 일단 高陽에 集結한 다음, 제2·제3대대는 碌磻里에 集結, 제1대대는 東山里일대 陣地占領)

② 제1대대는 徒步로써 撤收하여 高陽에 集結한 다음, 車輛으로 新配置地點까지 移動하여 右로 舊把撥里 西北 1km 地點에서 제12연대와, 左로 望月山 北麓(발왕손)에서 제11연대와 緊密한 連絡을 取하라.

日暮前에 陣地를 占領하라.

③ 제2대대는 高陽으로 撤收 集結한 다음, 車輛으로 新集結地까지 移動하라.

④ 제3대대는 即時 撤收하여 大古靈일대에서 제1대대의 撤收를 掩護하고, 제1대대의 通過가 完了되면 高陽에 集結하여 車輛으로 新集結地에 移動하라.

⑤ 각 대대는 撤收間 항상 敵에 대하여 警戒를 철저히 하라.

⑥ 제12연대 제2대대가 碧蹄里일대에서 연대의 撤收를 掩護한다.

⑦ 各隊는 行動間 每時 1回式 中間報告를 實施하라.

⑧ 연대 CP는 弘濟院에 設置한다.』

3. 이러한 指示들에 따라 각 연대는 撤收를 시작하였거니와, 먼저 제12연대는 제2대대가 제15연대의 撤收를 掩護한 다음 碧蹄驛부근에 警戒陣地를 占領하는 한편, 主力은 白雲臺北麓—新屯里—津寬內里일대에 主陣地를 占領하였으며, 연대 지휘소는 碌磻里로 옮겼다.

그리고 제15연대의 제1대대는 14.05에 撤收를 시작하여 15.30 高陽에 集結하였다가 17.00에는 舊把撥에 到着하여 1時間에 걸쳐 陣地에 兵力을 配置하였고, 제2대대는 18.30에 弘恩洞에, 제3대대는 撤收掩護後 16.30에 碌磻里에 각각 集結하였다.

또한 제11연대도 計劃대로 제1대대가 雲井一德耳 線에서 掩護하는 가운데 主力은 奉日川里를 거쳐 高峰山 東쪽으로 一山一楓里의 중간인 俗稱 소개울로 빠져서 花田里일대로 撤收한 다음, 21.00에는 제3대대가 右側인 望月山(△174) 일대에, 제2대대는 左側인 玄川일대에 각각 陣地를 占領하였다. 제1대대는 掩護後에 舟橋里를 거쳐 土堂里일대에 警戒陣地를 構成하였으며 17.00에 一山에서 出發한 사단 對戰車攻擊대대는 19.00에 水色으로 撤收하였다. 이로서 연대는 지휘소를 西大門밖 倉川里에 옮긴 가운데 左側으로 漢江을 끼고 英 제29연대와 隣接하게 되었다.

4. 아울러 사단 右側에서는 그동안 奮鬪한 美 제3사단이 서울로 물러서고, 다시 군단에 배속된 美 제1기갑사단이 起用됨으로써, 서울은 東北쪽으로부터 美 제25사단, 美 제1기갑사단, 제1사단의 3개 사단이 前線에 布陣하여, 군단의 總力이 서울防禦에 集中되고 있는 형세였다.

4월 28일 : 군단의 거의 全 師團이 서울防禦에 專力하게 됨에 따라 이날 09.00附로 師團間의 戰鬪地境線이 變更되어, 사단은 阿峴洞 交叉路—弘恩洞 川北의 山麓—北漢山 西端 佛光里 東쪽—老姑山(△496) 北麓의 線을 境界로 美 제1기갑사단과 接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右一線 제12연대의 陣地는 거의가 기갑사단 地域으로 包含되었다.

1. 그리하여 제12연대는 前線에서 물러나 다시 사단 예비대가 되었고, 제15연대는 사단, 右一線으로서 다시 調整된 主抵抗線인 Golden線(佛光里一葛峴里 南쪽으로 西南行—西北으로 龍頭里의 線)에 主力을 配置하게 되었으니, 이를 구체적으로 施行토록 한 이날 09.00附의 연대 作戰指示 第19號는 다음과 같다.

『① 연대는 사단 指示에 依하여 09.30에 行動을 시작하여 Golden線에 陣地를 占領하려 한다.

②제1대대는 舊把撥里 △236(鷹峰)와 東쪽 1km인 △100의 2個 地點에 前進部隊로서 各 1個 中隊씩을 配置하고, 殘餘部隊는 撤收하여 碌磻里一鷹岩 일대에 集結하라.

③ 제2대대는 Golden線上 佛光里一葛峴里의 新陣地를 占領 防禦하라.

④ 제3대대는 葛峴里一龍頭里일대의 新陣地를 占領 防禦하라.

⑤ 各隊는 現在 構築되어 있는 陣地와 施設을 最大限으로 補修 活用하여 敵砲에 依한 損失을 最小限으로 줄이도록 하라.

⑥ 各隊는 Golden線에서 積極的으로 防禦하여 敵에게 最大限의 損害를 주도록 하라.

⑦ 豫備隊를 包含한 各隊는 縱深配置에 努力하고, 前進部隊는 搜索隊를 前方 깊이 配

置하여 敵의 動向을 早速히 發見토록 하라.』

이에 따라 제1대대(장, 劉載成중령)는 12.30에 제1중대로 하여금 △100, 제2중대는 △236일대에 兵力을 配置토록 하고, 東山里로부터 撤收하였으며, 제2, 제3대대는 각기 연대 左 右側一線으로 午前中에 陣地를 占領하였다.

그런데 三松里와 그 西南쪽 昌陵川 北岸일대에는 1개 대대 규모의 敵이 南下하더니, 밤이 되자 21.00에 △236의 제2중대를 공격하였다. 중대는 野砲支援下에 3時間에 가까운 熱戰을 벌였으나 衆寡不敵으로 包圍됨에 이를 벗어나 △100로 옮겨 제1중대와 함께 이를 지키게 되었다. 敵은 또한 연대 左側의 제11연대와의 間隙인 龍頭里일대로도 1개 중대 규모가 22.30에 侵攻하여 제6, 제7중대와 1時間의 交戰끝에 일단 擊退되었는데, 여기에서 支援砲의 落彈으로 兩 中隊는 2/7名의 負傷者를 내기도 하였다.

2. 한편 제11연대 前面에서는 前哨인 土堂里의 제1대대가 계속 南下하는 敵을 막아 遲延戰鬪를 벌이다가, 밤에는 결국 1개 대대 규모의 敵에 대한 野砲의 砲擊을 용이케 하고자 主抵抗線으로 復歸하였다. 이날 특히 幸州나루 일대에는 1개 연대 규모의 敵이 集結하였는데, 海軍의 艦砲는 10.00부터 2時間에 걸쳐 이를 強打하였다.

4월 29일 : 攻擊을 시작한지 1週日째인 이날 敵은, 그 全力을 傾注하는 듯이 특히 제11연대 正面을 계속 侵攻하였으나, 步·戰·砲가 協同된 我軍의 反擊에 거의 潰滅되어 이날로서 그 攻勢가 막을 내리게 되었다.

제15연대는 이날, 지난밤 以來 △100—△236일대에서 敵의 包圍에 갇혀 있는 제1, 제2중대의 救出作戰을 벌여 兩 中隊는 救出되었으나, △236는 끝내 奪還하지 못하였다.

즉 △106—△100일대에서 防禦中이던 제1, 제2중대에 대하여 敵은 03.00에 다시 四面으로 攻擊하여, △106 北쪽의 △137를 차지한 다음 △106으로 侵攻하니 兩 中隊는 05.00 分散되어 △100 南端으로 밀렸다. 한편 06.00에 戰車와 함께 出發한 제3중대는 09.00에 △106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여 11.00에는 이를 奪還하였으며, 이에 따라 兩 중대는 佛光里에서 再編成한 다음, 제1중대는 △106에, 제2중대는 △100에 각각 配置되었다. 제3중대(장, 鄭亨澤대위)는 14.30부터 다시 △236의 敵을 공격하였으나 좀처럼 敵이 물러나지 않는 사이에 날이 저물고 軍團砲의 誘導錯誤로 支援砲擊마저 逆效果를 내는 형편이어서 공격을 中止할 수 밖에 없었다.

2. 제11연대는 警戒陣地로부터 復歸한 제1대대를 葛峴里—水色일대의 豫備陣地에 配置한 다음, 이날 새벽부터 敵의 侵攻에 對한 萬般의 態勢를 갖추고 있었다. 먼저 제3중대와 제

3대대 수색대로 하여금 연대 右側의 제15연대와의 境界인 龍頭里일대에 對備케 하였으며, 右一線인 제3대대는 昌陵川 너머 西井 南쪽一△36일대를 특히 警戒토록 하였다. 左一線인 제2대대는 戰車 및 對戰車砲중대의 2개 소대와 協同으로 京義線 鐵道일대를 警戒하며, 제7중대는 幸州의 德揚山(△125)으로부터 東進하는 敵을 阻止케 하였다. 연대가 이렇게 花田里를 中心으로 望月山一大德山일대의 高地를 占領하고, 前方에 鐵條網을 비롯하여 鐵路沿邊에의 地雷埋沒 등 各種 障碍物을 設置하였으며, 더욱 前面 昌陵川沿邊의 廣濶한 水田地帶에 支援 美 砲兵대대가 火網을 構成한 가운데 對備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이날 새벽에 1개 연대 규모의 敵은 계속 侵攻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集中되는 我軍의 火力에 06.00에 이르러서는 文字 그대로 潰滅狀態에 빠져 殘敵은 鐵道를 끼고 退却하고 말았다. 이에 제1대대는 戰車隊와 같이 다시 警戒陣地의 奪還에 나서 10.15에는 土堂里일대의 陣地를 탈환하였으며, 步戰協同搜索隊는 밤사이 我軍의 砲擊으로 射殺된 敵兵이 900명에 達함을 確認하였다.

4월 30일 : 사단 前面의 敵은 前日의 激戰끝에 거의 後退한 듯, 이날 戰線은 비교적 잠잠한 가운데 사단은 예비대인 제12연대로 하여금 제15연대 前方 舊把撥里의 △236(鷹峰)를 奪還하고 北方 깊숙히 搜索據點을 마련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제12연대장 金點坤대령은 麻浦부근에 待機中인 부대에서 제1대대를 抽出하여 支援하는 美 第73戰車大隊 第2中隊와 함께 07.00를 期하여 공격토록 하였다. 대대가 自動車로 佛光里에 移動 集結하자, 대대장 柳文鎬소령은 제2중대를 右側攻擊梯隊로 △236右端을 공격케 하고, 제1중대는 左側攻擊梯隊로서 △236을 공격하며, 제3중대는 예비대로 戰車隊와 함께 攻擊隊를 掩護케 하였다. 07.30에 공격을 시작한 제1, 제2 兩 중대는 抵抗하는 1개 중대 규모의 敵과 手榴彈을 던지면서 突擊을 敢行하여 10.00에 同 高地를 奪還한 다음, 後退하는 敵을 追擊하여 제2중대는 舊把撥里를, 제1중대는 東山里일대를 거쳐 最終目標인 三松里 北쪽으로 진격하였다. 三松里를 中心으로 하는 北쪽의 左右 高地에서는 1개 중대 규모의 敵이 抵抗하였으나 兩 中隊는 戰車의 掩護下에 이를 擊破하고 일대를 占領하였다가 17.50에 다시 撤收를 시작하였다. 한편 제3중대는 戰車隊와 함께 津寬內里일대를 搜索한 다음, 主力의 공격을 掩護하고, 다시 그 撤收를 掩護한 다음 19.30에 역시 撤收를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21.00에는 각 중대가 △236일대에 이르러, 제3중대가 右側에, 제2중대가 △236에, 제1중대가 左側의 西南端에 각각 兵力을 配置하고 警戒에 臨하였다.

이로서 연대는 사단 右側 前方에 수색 據點을 마련하고 많은 戰果를 걷우기도 하였으나, 무엇보다도 重要한 成果는 敵이 이제 中隊 規模의 收容隊를 남기고 北으로 退却하였음을 確認한 것이다. 이른바 敵의 1次 春季攻勢는 그들이 많은 損害를 입은 채 끝이 나고, 서울은 끝내 赤手로부터 지켜진 것이다.

라. 전투 후의 개항

제12연대의 舊把撥里—△236—三松里일대에 걸친 戰鬪로 敵의 공격이 멎었을 뿐 아니라, 敵이 거의 退却하였다는 事實을 알게 된 사단은 곧 前方에 對한 搜索戰을 展開하였다.

사단은 5월 1일에 △236의 제12연대 제1대대를 제15연대 제1대대와 交代시킨 다음, 威力搜索을 시작하였는데, 이렇다 할 接敵狀況은 없었다. 제15연대의 경우에는 5월 3일까지의 사이에 北으로 진출한 제1대대가 1일에 小規模의 交戰을 하였을 뿐이며, 더욱 제11연대는 4월 30일 새벽에 다시 主陣地로 復歸하였던 제1대대가 또 다시 土堂里일대의 警戒陣地로 진출하였으나 接敵狀況이 계속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如何間 敵은 커다란 損害를 본 채로 그 主力이 退却한 것이며, 이제 서울은 美 제1군단傘下 全 師團의 敢鬪로 끝내 지켜진 것이다.

그러나 敵이 아주 물러난 것은 아니었다. 사단의 傘下 全 部隊들은 三松里—新院里 北方으로 진출하는 경우에, 비록 小隊에서 中隊에 이르는 小規模이지만 빈번히 敵을 目擊하거나 交戰하였던 것이다. 즉 敵은 北共 제1군단의 일부가 사단의 진격을 遲延시키는 사이에 潰散된 부대를 整備 또는 再編成한 다음 다시 攻勢를 취하려고 企圖하는 듯 하였다. 실제로 제12연대가 제15연대와의 協同으로 敵의 再編成 및 攻擊準備를 妨害하기 위하여 4일에 高陽里 南쪽으로 진출하자 곧 대대~연대 규모의 敵과 부딪쳤다.

이에 사단은 군단 명령을 받아 5월 7일부터 臺日川에 이르는 地域에서 北共 제1군단의 主力을 挾擊 擊滅하기 위한 作戰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戰果		損失	
射殺	8,117명	戰死	154명
捕虜	257명	負傷	477명
(鹵獲)		失踪	317명
小銃	216정	M 1	135정
60mm 追擊砲	10문	C A R	18정
輕機關銃	35정	1/4ton 車	1대
重機關銃	15정	3/4ton 車	1대
		SCR — 600	2대

(註 : 대체로 戰鬪詳報에 基礎하되, 射殺은 일부 陸本 定期作戰報告에 依據하였음)

3. 雪嶽山附近 戰鬪 (1951년 5월 7일부터 / 1951년 5월 17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 6 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제 1 군단	장	소장	白 善 燁
수도사단	장	준장	宋 堯 讚
제1기갑연대	장	대령	李 龍
제 1 대대	장	소령	車 文 錫
제 2 대대	장	소령	朴 翊 均
제 3 대대	장	소령	林 觀 默
제 1 연대	장	대령	韓 信
제 1 대대	장	소령	咸 溶 翼
제 2 대대	장	중령	丁 世 鎭
제 3 대대	장	소령	李 聖 鳳
제26연대	장	대령	徐 廷 哲

제 1 대대	장	소령	權 用 性
제 2 대대	장	대위	朴 基 淳
제 3 대대	장	소령	具 泰 益

배속부대

제10포병대대장 중령 房 景 源

병력 : 11,000명

장비 : T/E상 완전편제

인접부대

右인접 제11사단장 준장 崔 德 新

左인접 제3사단 장 준장 金 鐘 五

敵 軍

北共 제 5 군단	중장	方 虎 山	
제 6 사단	소장	洪 林	

제12사단 소장 崔 忠 國

병력 : 11,000명

나. 전투전의 개황

수도사단은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 江陵北쪽에서 電擊的인 進擊戰을 斷行하여 注文津 襄陽을 占領한 연후에 계속 東部戰線으로 진출하여 極力 防守태세를 取하던 北共 제69여단을 擊破하고, 4월 15일에는 Kansas線까지 勇躍, 進出하였다.

이로부터 사단은 군단의 계획에 따라 一旦 雪嶽山 南쪽의 冠帽峯(△742)—五色里—寒溪嶺線에서 방어진을 形成하고 威力搜索을 실시하면서 戰力을 정비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敵은 38°線을 固守하려던 企圖가 挫折되자 北上潰走한 이래 戰勢를 挽回코자 부대를 再編한 다음 攻擊태세를 強化하더니 4월 中旬에 접어들면서 그 侵攻의 氣勢가 露骨化되었다.

이와같이 敵의 再南侵의 企圖가 현저하여지자 我군은 4월 21일 機先을 制하여 Alabama線(東海

岸 松島津里에서 西南向하여 沙泉里—加田里—楊口北쪽 2km를 연하는 線)까지 進出, 敵의 企圖를 粉碎키 위한 進擊戰을 決行한 것인데 이와 때를 같이하여 敵도 또한 大集團을 中東部戰線에 投入하여 反擊을 감행함으로써 彼我의 激突을 보게되었는데, 我군은 압도적인 中共의 人海戰法에 對應하여 苦戰을 거듭하였으나 戰線의 一角이 무너지기에 이르렀다.

戰況이 이에 이르자 사단은 육군본부 계획에 依한 군단命令에 따라 戰線의 均衡을 위하여 東部에서의 攻勢를 守勢로 전환하여 5월 1일에는 사단 主力을 Kansas線에서 약간 물러 선 Green線(藥水里—馬山里—寒溪嶺)上으로 轉進시켜 敵과의 一戰을 決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敵의 策源地로 判斷되는 雪嶽山의 攻略을 計劃하게 되었다.

이 當時 사단 正面의 敵은 그 CP를 珍富嶺에 둔 北共 제5군단 예하 제6사단으로서 그 主力을 雪嶽山 西北쪽 10km—圓에, 즉 路洞—白潭寺—大勝嶺—加里峯線을 연하여 配置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天險인 이 일대를 이용한 據點을 마련하고 我군의 前進을 阻止하는 한편 때를보아 雪嶽山 南麓일대가 襄陽에서 寒溪嶺—元通—麟蹄에 이르는 要地이므로 이를 確保한 다음, 南侵의 발판을 삼으려는 듯이 보였다. 또한 一部兵力을 加里峯(△1519) 南쪽 2km부근에 分置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正面의 主力과 呼應하면서 遊擊戰法으로 사단 左側背로 侵透한 다음 後方遮斷을 企圖할 것으로 判斷되었다.

增援될수 있는 敵은 北共 제3군단 예하 제69여단 인데, 이 敵은 3월 末까지 사단과 對峙하다가 打擊을 입고 杆城西北方으로 潰退하여 再編한 다음 4월 30일에는 그 CP를 新垈里에 두고 主力을 珍富嶺—馬山(△1651)에 配置하여 제2次 防禦線으로 堅固한 陣地를 구축하는 한편 일부 兵力으로써 46번 道路(東草—龍垈里—元通에 이르는 道路)를 확보케 하여 東海岸으로 부터 中, 東部 山岳지대에 대한 補給路를 確保하고 있었다.

이밖에 支援부대로는 團隊號 미상의 砲兵및 工兵 1개대대가 珍富里와 符洞부근에 布陣하고 있는것으로 判明되었다.

그리고 右인접인 제11사단(장, 崔德新준장) 正面에는 北共 제12사단이, 제3사단(장, 金鐘五준장) 正面에는 北共 제32사단이 各各 對峙하고 있었는데, 이中 北共 제12사단의 1개연대는 當 사단과의 戰鬪地境線부근인 龍垈里—馬等嶺線에 配置되어 그 間隙을 뚫고 南下코자 수색활동을 強化하고 있었다.

이 當時의 敵의 兵力은 12,000名으로 推定되며, 이 가운데 戰鬪兵力은 11,000名 내외로 判斷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主力은 我군의 反擊戰에서 打擊을 받은 다음 新兵으로 代置되었다.

이와같은 全般的인 戰勢를 銳意 注視한 제1군단장 白善燁소장은 5월 4일 육군본부가 下達한 Missouri線(東海岸 大浦里에서 西向하여 龍垈里, 沙泉里를 경유 寒溪西北쪽 6km에 있는 加里山을 連하는 線) 進擊戰에 따른 육본 作命 제268號에 의거하여 當面의 敵을 一擧에 擊碎키로 決心하고 곧 제11사단을 右翼으로 수도사단을 左翼으로 展開하여 攻擊을 斷行키로 준비하였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5월 5일 군단장 白善燁소장으로 부터 『수도사단은 5월 7일 08.00를 期해 攻擊을 개시하

여 Missouri線 까지 進擊하면서 地域內의 敵을 擊滅하고, 敵 후방에 對한 強力한 搜索을 전개하여 敵의 補給및 施設을 파괴하라』는 攻擊命令이 下達되었다. 이 命令으로 附與된 사단의 임무는 군단의 左翼으로 進擊하면서 當面의 敵을 擊滅하고 敵의 主抵抗線인 路洞—白潭寺—大勝嶺—加里峯을 突破한 다음, 계속 Missouri線까지 進出하여 이를 占領하고 그 北쪽에 있는 敵의 主補給路인 46번 道路를 확보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戰鬪正面은 太白山脈 中腹으로서 峻嶺이 虛空을 찌르고 斷崖와 狹谷이 地軸을 이루고 있으며, 寒暖의 兩氣流가 交叉하는 탓으로 濃霧가 많으며 울창한 樹林으로 말미암아 機動에 장애가 될뿐 아니라, 觀測과 視界를 제한하여 直射火器의 威力을 감소케하는 山岳戰의 特性을 露呈하고 있었다. 반면 敵은 遊擊활동을 위한 제2戰線의 形成에 적합하였으며 潛跡出沒에도 유리한 條件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단장 宋堯讚준장은 이와같은 地勢의 不利를 무릅쓰고 단숨에 太白山脈 中腹을 뚫고 Missouri線 까지 進擊할 決心아래, 李 龍대령이 지휘하는 제1기갑연대를 右一線으로, 韓 信대령이 지휘하는 제1연대를 左一線으로 각각 展開하여 併進공격케하는 한편 제26연대(장, 徐廷哲대령)를 豫備隊로 하여, 攻擊을 決行키 위한 사단作命 제131號를 下達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제1기갑연대는 사단 右一線으로 雪嶽山 西北쪽을 沿하여 進擊하면서 路洞, 一白潭寺—大勝嶺부근의 敵을 擊滅하고 이를 占領한 다음에 右인접 제20연대와 連繫하면서 Missouri線 까지 躍進하여 이를 확보하라

② 제1연대는 사단 左一線으로 加里峯—紫陽田—大勝瀑布일대의 敵을 擊破하고 이를 占領한 다음, Missouri線으로 躍進하여 이를 확보함과 동시에 左인접 제3사단과 連繫하라.

③ 제26연대는 現位置인 西林에서 藥水里로 進出하는 동시에 사단 豫備隊가 되어 側後方에 대한 警戒를 강화하되 狀況의 進展에 따라 戰線投入에 即應할 제반 태세를 갖추라.

④ 제10포병대대는 藥水里부근에 砲진지를 占領하고 사단을 一般支援하되, 一線연대의 要請에 따라 砲隊單位로 직접 지원하라.

⑤ 작전기간중 要請에 따라 艦砲사격과 空中支援을 받을수 있다.

⑥ 각급 지휘관은 인접부대 相互間에 서로 긴밀한 협조로서, 戰鬪地境線上의 間隙을 補強하고 항시 지시된 協調點에서 접촉을 維持하라.

⑦ 攻擊開始는 5월 7일 08.00로 豫定한다.』

(2) 작전실시

5월 7일 : 제 1 군단(장, 白善燁소장) 예하 수도사단(장, 宋堯讚준장)및 제11사단(장, 崔德新준장)은 左인접 제 3 군단(장, 劉載興소장)의 공격과 呼應하여 수도사단이 군단의 左翼 그리고 제11사단이 군단의 右翼 공격梯隊로서 이날 08.00를 期하여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날의 수도사단 前進目標는 路洞(雪嶽山 西北쪽 8km)—加里峯(雪嶽山 西쪽, 10km)線을 공격키 위하여 前進據點을 확보하는데 있었다.

1. 제 1 연대(장, 韓 信대령)는 수도사단 作命 제131호에 의거하여 이날 08.00에 제 3 대대를 右一線으로, 제 2 대대를 左一線으로 展開하여 現진지로 부터 躍進을 시작케하는 한편 제 1 대대를 豫備隊로 控置하여 寒溪嶺 南쪽 진지에서 연대의 側後方 경계에 임하도록 하였다.

5월 초순이되어 氣溫은 溫暖한 편이었으나 前面을 휩쌓은 짙은 안개로 視界 및 觀測이 不良하고 험준한 山岳지대가 되어서 아군의 작전수행에 유리하지는 못하였다.

이와같은 狀況아래 北共 제 6 사단 예하 제 1 연대의 증강된 1個대대 兵力은 82mm박격포 6문을 위시하여 重, 輕기관총, 그리고 다발총등을 裝備하고 加里峯 및 紫陽田부근과 大勝瀑布(加里峯 北쪽 3km) 일대에서 방어태세를 強化하고 있었다.

제 3 대대(장, 李聖鳳소령)는 이날 08.00에 大勝瀑布일대에 대한 공격을 위하여 現진지(寒溪嶺 南쪽 5km)를 출발, 紫陽田부근 稜線을 連하는 선까지 進出하여 진지를 占領한 다음 공격태세를 갖추었다.

제 2 대대(장, 丁世鎭중령)도 加里峯일대의 敵을 공격하기 위하여 望對岩山(寒溪嶺 南쪽 4km)진지로 부터 進擊을 개시하여 加里峯 東南쪽 3km부근까지 進出한 다음, 진지를 占領하였다.

2. 제 1 기갑연대(장, 李 龍대령)는 사단의 右一線으로서 이날의 前進據點을 확보한 다음, 路洞—白潭寺—大勝嶺일대에서 重裝備로 武裝하고 配置된 北共 제 6 사단 예하 제15연대를 擊滅할 目的으로 제2, 제 3 兩대대를 공격梯隊로 하여, 제10포병대대(장, 房景源중령)의 支援사격을 받으면서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右一線인 제 3 대대(장, 林觀默소령)는 산발적인 敵의 사격을 制壓하면서 進出한 다음 △1,223—△1,176(雪嶽山 西北쪽 3km)間에 진지를 확보하고 右인접 제11사단 제20연대와 連繫하였다.

한편 左一線인 제 2 대대(장, 朴翊均소령)는 敵과의 접촉없이 左인접 제 1 연대 제 3 대대

와 連繫하면서 △1,456—△1'274(雪嶽山西쪽 5km) 線上에 부대를 展開한 다음 계속 攻擊을 準備하였다.

그리고 연대 豫備隊인 제1대대(장, 車文錫소령)는 공격제대인 제2, 제3兩대대가 雪嶽山 西北쪽으로 進出함에 따라 부대를 △1,400(雪嶽山 西南쪽 3km) 稜線에 展開하였으며, 연대는 전방 지휘소를 雪嶽山에 開設하고 兩대대의 進出을 지휘하였다.

3. 제26연대(장, 徐廷哲대령)는 사단 예비대로서 下西林里에 駐屯하여 부근일대를 수색 경계하다가 사단作命 제131號에 의거, 5월 6일 松川里 —白岩里를 경유 藥水里로 前進하여 여기에 지휘소를 開設한 다음 사단 後方경계에 임하고 있었는데, 이날 一線연대의 進出에 따라 다시 五色里로 躍進함과 동시에 戰鬪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4. 제10포병대대(장, 房景源중령)는 이날 제1, 제2兩포대를 白岩里(襄陽 西쪽10km) 砲陣地로 부터 藥水里로 推進시킨 다음 加里峯과 大勝嶺일대에 300餘발의 포격을 加하게하여 敵의 戰意를 저하시켰으며, 同 제3포대는 五色里에 포진지를 占領하고 待機토록 하였다.

사단은 예하연대의 공격이 本格化하자 그간 襄陽에 設置하고 있던 CP를 加羅皮里로 옮길 준비를 하였으며, 이날 11.30에는 육군총참모장 丁一權소장과 군단장 白善燁소장이 사단을 巡視하였다. 한편 사단 右인접인 제11사단(장, 崔德新준장)은 天津—新坪里—馬登嶺을 연하는 線까지 진출하고 左인접 제3사단(장, 金鍾五준장)의 제22연대(장, 張春權대령)는 △1,063(加里峯 南쪽 3km)을 占領할 목적으로 치열한 戰鬪를 전개하면서 進擊중에 있었다.

5월 8일 : 사단은 전날 예하 연대가 계획된 進出線上에서 공격태세를 갖추자 이날 06.00를 期하여 일제히 進擊을 命令하였다. 이로써 左一線인 제1연대는 加里峯을 占領하고 右一線인 제1기갑연대는 頑強히 抵抗하는 敵을 擊破하면서 大勝嶺으로 進擊하였다.

1. 제1연대(장, 韓 信대령)는 이날 연대主力으로서 전날 占領한 진지로부터 攻擊을 再開하였는데, 이에따라 제2대대(장, 丁世鎭 중령)는 加里峯을 目標로 제6중대를 右第一線으로, 제5중대를 左第一線으로, 제7중대를 豫備隊로 하고 06.00부터 躍進하였다. 3시간 뒤인09.00에 제6중대가 加里峯 後斜面에서 敵 2개중대 규모와 激突하게 되자 대대장은 즉각 후속하던 제7중대를 加里峰 東側 깊숙히 迂回시킨 다음 三面으로 包圍, 攻擊을 敢行하였다. 그러나 敵은 이미 堅固한 진지에서 重火器의 火力을 발휘하여 頑強히 抵抗하므로 彼我間에는 불꽃튀는 치열한 攻防戰이 展開되었다. 이렇듯 敵의 抗拒力이 執拗함에 비추어 볼때 이 高地를 손쉽게 占領할 수 없음을 直感한 대대장은 곧 제6중대로 하여금 正面으

로 肉迫突擊토록 命令하고 대대의 全 火力을 集中掩護케 하니, 이에 唐惶하게된 敵의 銳鋒은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일부는 潰走하기에 이르렀다. 이때에 敵陣안으로 突入한 대대 將兵들은 수류탄의 炸裂音속에 銃劍을 휘두르며 最後까지 발악하던 敵을 모조리 擊碎하고 마침내 頂上을 占領하였다.

이 加里峯은 標高 1,519m로서 西北으로는 牛臥里—元通에 이르는 道路와 西南으로는 加里山里—縣里에 이르는 道路를 동시에 瞰制하는 戰術上의 要衝이었는데 이를 占領함으로써 제3대대의 大勝瀑布 공격을 유리하게 하는 한편 左인접 제22연대의 進擊도 容易케 하였다.

제3대대(장, 李聖鳳소령)도 제2대대와 併進하여 06.00에 大勝瀑布를 向하여 攻擊을 개시하였는데, 先鋒인 제9중대가 大勝瀑布 入口에 이르렀을 때 敵 1개중대 규모의 兵力을 발견하고 機先을 制하는 사격을 加하였으나, 敵은 도로변 稜線에서 重 輕기관총의 射擊아래 대대의 進出을 阻止하였다.

이에 대대장은 즉각 後續하던 제10중대를 迂回시켜 兩面에서 包圍圈을 形成케하여 火力을 集中한 다음, 敵을 壓縮하면서 일제히 突進하자 敵은 마침내 分散潰走하기에 이르렀다. 대대는 이를 追擊하여 戰果를 확대한 다음 大勝瀑布 西南쪽 1km부근에 陣地를 占領하고 계속 殘敵을 捕捉키 위한 搜索活動을 전개하다가 日沒과 함께 夜間 경계태세로 轉換하였다.

한편 제1대대(장, 咸溶奭소령)는 연대 豫備隊로서 전날의 진지인 寒溪嶺부근에서 계속 연대 側後方에 對한 경계임무를 遂行하였다. 그런데 이날 제2, 제3兩대대가 激戰한 뒤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敵 사살 152명과 포로 1명을 비롯하여 소총37정, 다발총 12정 및 수류탄 55발을 노획하는 동의 戰果를 올렸다.

2. 제1기갑연대(장, 李 龍대령)는 이날 06.00부터 전날에 이어 白潭寺—路洞을 占領할 目的으로 연대 主力인 제2, 제3兩대대로서 左인접 제1연대와 併行攻擊케 하였는데, 當面의 北共제6사단 제15연대의 일부는 △972(白潭寺西南쪽 1km)南麓에 自動火器로 강화된 진지에서 연대의 進出을 완강히 阻止하고 있었으며, 北쪽 正面인 路洞부근에도 증강된 1개 중대 규모의 前進부대가 배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狀況을 즉각 打開하기 위하여 연대장은 곧 右一線인 제3대대로 하여금 비교적 敵情이 미약한 路洞부근으로 進擊케하여 이 敵을 擊破한 다음, 제2대대의 白潭寺 攻擊을 左側面에서 掩護토록 指示하고 포병 제2포대에 支援사격을 措置하였다.

이에 따라 제3대대(장, 林觀默소령)는 進擊을 감행한 끝에 敵 1개 소대 규모의 兵力을

一蹴하고 △595(路洞 東南쪽 2km)를 占領함과 동시에 제2대대의 공격을 支援하였다. 한편 제2대대(장, 朴翊均소령)도 進擊을 시작한지 3시간 뒤에는 △972頂上 100m까지 접근하였는데, 때마침 제3대대의 集中사격에 허둥대는 敵의 動態를 看破한 대대장은 단숨에 이를 擊砕할 好機라고 判斷하고 突擊을 命令하였다. 이로부터 대대는 肉迫으로 敵陣에 突入하여 右往左往하는 敵을 쫓아 完全히 射殺하고 同 高地를 占領한 다음 自體경계를 強化하면서 戰列을 정비하였다.

이와같이 연대主力이 雪嶽山에서 10km 西進하자 연대 CP는 △1577(雪嶽山 西北쪽 5km)로 躍進 開設하였다.

한편 사단 右인접인 제11사단은 전날에 이어 계속 進擊中에 있었으며 左인접 제22연대도 이날 △1,063을 占領하고 加里峰 西北쪽으로 進出하게 됨으로써 我軍 相互間에 보다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 졌다.

5월 9일 : 사단은 攻擊3일째 되는 이날 四散潰走하는 敵을 더욱 潰滅상태에 빠뜨리게 하고 아울러 加里峰—大勝瀑布—白潭寺—路洞線을 확보할 目的으로 果敢한 공격을 계속하였다. 이때에 鞍山(△1,396 : 白潭寺 西北쪽 2km) 北쪽에서 南侵하여 CP를 牛臥里(加里峯 西北쪽 5km)에 둔 北共 제1연대는 그간의 慘敗를 다소라도 만회하려는 듯이 兵力과 火力을 增援하여 사단의 進擊을 極力阻止함으로써 사단은 일시 防守태세로 轉換하여 進出線 부근에서 陣地를 占領하자 곧 다음 공격을 위한 태세를 갖추기로 하였다.

이때 이 北共 제1연대는 潰走兵을 再수습한 다음 이들을 82mm 박격포 4문과 重, 輕機關銃 등으로 장비를 갖춘 1개대대 규모의 兵力과 合流케하여, 我 제1연대 正面인 大勝瀑布 西쪽 무명고지에 配置하고 있었으며, 또한 제1기갑연대 正面인 白潭寺—路洞 부근에도 800명으로 推算되는 兵力을 새로이 投入하여 頑強한 저항을 試圖하였다. 이러한 敵의 發惡은 이 일대가 그들의 補給 근거지인 동시에 接近路로 사용되는 要線이기 때문인 것으로 分析되었다.

1. 제1연대(장, 韓 信대령)는 전날 占領한 加里峯일대의 진지를 계속 확보하면서 이날도 一線梯隊로 하여금 공격을 감행토록 하였는데, 漸次로 增加하는 敵勢로 말미암아 進出線上에서 現진지를 強化토록 指示하고 곧 이 敵을 擊砕할 준비에 着手하였다.

제2대대(장, 丁世鎭중령)는 加里峯일대에서 北쪽으로 潰退한 敵을 추격하여 加里峯 北麓을 거쳐 大勝瀑布에 이르는 入口에 進出하자 增援된 새로운 敵으로부터 奇襲사격을 받았다. 대대는 彈雨속을 뚫고 奮戰하여 이를 물리치고 이 부근일대에 진지를 占領하는

동시에 곧 敵의 逆襲에 대비한 四周경계에 들어갔다.

한편 제3대대(장, 李聖鳳소령)도 제2대대와의 併進공격을 멈추고, 大勝嶺(△1,210)西南쪽 稜線일대에서 다음 공격을 위한 부대 戰列을 가다듬고 있었는데, 15.00에 수미상의 敵의 反擊을 받고, 2시간 동안에 걸친 치열한 激戰끝에 이를 물리치고 말았다.

2. 제1기갑연대의 제2대대(장, 朴翊均소령)는 전날 △972의 敵을 覆滅하고 이날10.00에는 白潭寺 南쪽 2km에 있는 △878 下端까지 進擊하였으나, 白潭寺 北쪽으로부터 增援하기 위하여 南下하고 있던 800명 규모의 敵과 부딪쳐 그 進出이 阻止된 채로 彼我間에 치열한 戰鬪가 시작되었다. 이로부터 4시간 동안에 걸쳐서 彼我間에 全火力을 총 집중하여 一進一退의 死鬪가 展開되었는데 이때에 대대장은 직접 陣頭에 나서 각 중대장에게 肉迫으로 突擊을 敢行하도록 命令하였다. 이에 全 將兵은 火炎과 硝煙이 자욱한 敵陣속으로 일제히 突入하니 敵은 血路를 찾아 北쪽을 向하여 潰散하기에 바빴다.

그뒤에 대대는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제5중대로 하여금 이 부근에서 警戒陣地를 確保토록 措置하고 대대 主力은 △972로 복귀하는 즉시로 敵의 反擊과 奇襲에 대비하였다.

한편 제3대대(장, 林觀默소령)는 전날 占領한 △595 진지로 부터 07.00에 路洞을 目標로 공격을 再開하였으나 급격히 增加되는 正面의 敵으로 부터 頑強한 抵抗을 받게됨으로써 진전을 보지 못한채 日沒과 더불어 경계태세에 들어갔다. 특히 이날 제10중대는 대대의 先鋒으로 進出하던중 永失奄(路洞 西南쪽 1.5km)右側 溪谷을 따라 侵透하여 逆襲을 企圖하려는 1개중대 규모의 敵을 발견하고 즉각 중대의 火力을 集中한 결과 敵은 戰意를 잃고 慌急히 앞을 다투며 路洞부근으로 다라나자 계속 追擊한 중대는 敵 55명을 사살하고 14명을 사로잡았으며 81mm박격포 2문과 60mm박격포 1문 그리고 HMG 1정과 다발총 7정을 비롯하여 소총 26정, 수류탄 72발, 그리고 각종실탄 1,800발등을 노획하였다.

연대 豫備隊인 제1대대(장, 車文錫소령)는 계속 雪嶽山 南麓진지에서 연대 左側方에 對한 경계임무를 遂行하면서, 제2중대로 하여금 右一線인 제3대대의 東側에 있는 馬登嶺(△1,327)으로 躍進시켜, 右인접 제20연대(장, 朴元根대령)와의 間隔을 補強토록 하였다.

이와같이 一線연대의 進出에 따른 사단 正面에서의 戰鬪가 점차로 加熱되자, 사단 사령부는 그 CP를 襄陽에서 加羅皮里로 前進開設하였다.

5월 10일 : 1. 제1연대(장, 韓 信대령)는 이날 大勝瀑布 西쪽의 敵勢가 계속 증강되자 3개대대를 전부 공격梯隊로 投入하여 堅固한 敵의 據點을 一擧에 돌파코자 決心하였다. 이리하여 그간 연대 豫備隊로서 寒溪嶺부근에서 경계에 임하던 제1대대를 前方으로 躍進

케하여 제2대대가 담당하던 加里峯진지를 引受토록 하는 한편 제2, 제3兩대대는 계속 當面의敵 線을 突破分斷토록 嚴命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제1대대(장, 咸溶奭소령)는 이날 새벽에 寒溪嶺진지를 출발하여 08,30에 紫陽田(加里峯 東北쪽 4km)에 進出한 다음 이곳으로 부터 加里峯을 연하여 부대를 展開하고 있었는데, 제2중대가 제7중대의 加里峯진지를 引受 交代하고 있을 무렵인 15.20에, 그 交代의 虛隙을 노린 2개중대 규모의 敵 兵力이 △1145(加里峯 西北쪽 2km)의 稜線을 타고 侵透한 다음 加里峯 西斜面으로 부터 불시에 기습공격을 加함으로써 彼我間에 激戰속에 일시 狀況이 不利하여 졌다.

대대장은 즉시 제3중대를 加里峯 東側으로 迅速히 進出시켜 敵의 進路를 遮斷케하고 제2중대를 急遽 增援토록 하였으나 17.00에 이르러 敵은 다시 1개중대 규모의 병력을 增強한 다음 加里峯까지 必死的으로 反擊하였으므로 彼我간에 더욱 紛戰을 惹起하게 되었다.

그러나 불굴의 鬪魂으로 뭉친 대대 將兵들은 3回에 걸친 白兵戰의 반복 끝에 이 敵을 驅逐하고 드디어 다음날 새벽 02.00에는 加里峯일대를 再確保하였다.

한편 제2대대(장, 丁世鎭중령)는 大勝瀑布一△1,069線에서 대대의 進出을 頑強히 阻止하는 北共 제6사단 제1연대의 主力을 擊破할 目的으로 전날의 激戰地인 무명高地(大勝瀑布 南쪽 3km)로부터 勇躍 進出하였는데, 13.00에 대대 先鋒인 제6중대가 敵陣에 육박하자 敵은 可用火力을 총 집중하여 치열한 사격을 加하면서 極力 抵抗하였다. 이에 대대장은 砲兵의 火力支援을 요청하고 全 主力을 突擊隊形으로 轉換케 한 다음, 砲兵의 制壓사격이 끝남과 동시에 砲煙이 자욱한 敵陣속으로 突入하여 마지막까지 發惡하는 敵을 覆滅하였다. 이로써 대대는 이틀간의 激戰끝에 敵의 要衝인 大勝瀑布와 △1,069를 掌握하게 됨으로써 연대작전에 공헌하였을 뿐 아니라 左인접 제3사단과의 接境이었으므로 제22연대(장, 張春權대령)의 進擊을 크게 돕는 效果가 있었다.

제3대대(장, 李聖鳳소령)는 이날도 연대의 右一線 공격부대로 東側의 제1기갑연대와 相互 連繫하면서 전날 새로이 增援된 北共 제12사단 소속의 1개대대를 擊滅하고 大勝嶺을 占領키 위한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이 지역은 天然의 大險路였으므로 迅速한 打擊과 果敢한 突破만이 강요되었다. 대대는 險峻한 山岳을 누비며 前進하여 2시간에 걸친 攻防戰끝에 敵의 前進陣地를 擊破하고, 三方面으로 포위망을 형성한 다음, 일제히 突擊하여 끝까지 死守하려던 敵의 據點인 大勝嶺을 占領하자 곧 逆襲에 대비하는 경계태세에 들어갔다.

이날 제1연대의 3개대대가 모두다 攻擊부대로 勇戰을 치루고 난 다음 확인된 戰果와 損失은 다음과 같다.

戰 果		手榴彈	550 발
射 殺	121 명	實 彈	2,000 발
捕 虜	2 명	損 失	
小 銃	37 정	戰 死	4 명
多發銃	7 정	負 傷	43 명
B A R	2 정		

그런데 이날 北共 제6사단의 일부 兵力이 연대 左인접인 제3사단 제22연대와의 戰鬪地境線上에 있는 加里峯 西北背를 공격하다가 제2대대(장, 丁世鎭중령)에 依하여 潰散된 바 있었는데, 이는 제1연대의 후방遮斷을 試圖하였음이 戰後에 밝혀졌다. (제1연대 戰鬪詳報參照)

2. 제1기갑연대(장, 李 龍대령)는 이날 白潭寺—路洞쪽의 敵을 공격할 目的으로 戰列을 가다듬고 있었는데, 인접 제1연대가 大勝嶺에서 치열한 戰鬪를 계속함에 따라 제2대대를 이에 協力토록 하고 제3대대는 現陣地를 強化하면서 火力으로 支援토록 하였다.

제2대대(장, 朴翊均소령)는 연대장의 命令에 따라 大勝嶺東側으로 迂回하면서 全火力으로 敵의 左側背를 強打하여 敵의 銳鋒을 꺾고 潰退하는 敵을 쫓아 擊滅한 다음 진지에 復歸하는 동시에 차후 戰鬪에 對備하였는데 이 戰鬪에서의 戰果와 損失은 다음과 같다.

戰 果		實 彈	7,000 발
射 殺	95 명	損 失	
小 銃	35 정	戰 死	7 명
多發銃	8 정	負 傷	81 명

한편 연대는 그동안 山岳戰으로 因하여 보급추진이 如意치 못하다가 이날 수송기 9臺에 依한 탄약, 식량등의 空中 보급을 얻게되어 士氣를 더욱 높이게 되었다.

5월 11일 : 사단은 전날에 潰退한 敵에게 兵力을 再收拾할 시간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하여 이날 06.00부터 攻擊을 再開하였는데, 긴밀한 步, 砲의 協同으로 敵이 龍盛里—沙泉里線을 固守할 경우 橋頭堡 역할을 하는 鞍山을 제1연대가, 路洞을 제1기갑연대가 각각 占領토록 하고 敵의 補給線인 46번 道路 (東草—미시嶺—龍盛里—元通에 이르는 道路)에 對한 계속적인 進攻을 준비하였다.

1. 제1연대(장, 韓 信대령)는 이날 제2, 제3兩대대로써 전날 占領한 大勝瀑布—△1,0

69—大勝嶺 線에서 06.00를 期하여 敵의 據點인 鞍山(△1,430)을 目標로 공격을 斷行케하고, 곧 연대 전방 지휘소를 馬山里에서 寒溪嶺으로 推進시켰다.

제2대대(장, 丁世鎭중령)는 공격을 개시한지 3시간만인 09.00에 敵의 前進陣地로 推定되는 △1,069(鞍山 南쪽 1.5km)부근에서 1개중대 규모의 敵陣을 突破한 다음 鞍山을 向한 突進을 계속하였으나 이를 死守하려는 1개대대 규모의 敵의 執拗한 抵抗으로 一進一退의 공방전을 반복하던중 地形의 不利와 치열한 敵의 火力으로 일시 前線이 膠着되었다.

戰況이 이에 이르자 대대장은 右一線으로 進出하던 제7중대로 하여금 △1,369(鞍山南쪽 500m)로 재빨리 迂回케 하여 側背로부터 敵을 急襲토록 措置하고 연대에 砲兵의 火力支援을 要請하였는데, 곧 이어 제3포대의 集中사격이 敵陣을 강타하자 이때를 타서 敢行된 제7중대의 側背에서의 急進과 急射로써 敵陣을 擾亂케 함으로써 極烈한 一角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한 대대 主力은 일제히 突擊을 敢行하여 白兵戰을 展開한 끝에 最後까지 抗戰하려는 敵을 覆滅하고 鞍山을 占領하니 그 威勢가 千仞之上에서 積水를 決하는듯 하였다.

이날 특히 제7중대는 大樹와 巨岩 그리고 깊은 안개가 덮인 險地를 踏破함으로써 대대 作戰에 크게 寄與하였다.

한편 제3대대(장, 李聖鳳소령)도 이날 제2대대와 併行 攻擊중, 大勝嶺 西斜面으로 侵透하여 攪亂을 企圖하는 敵 1개중대 규모와 激突하자 1시간 30분의 攻防戰 끝에 이를 擊滅한 다음 제2대대의 進擊을 左側方에서 掩護하다가 12.00에 鞍山—△1,396를 연하는 線에 進出하여 진지를 占領하고, 제2대대와 相互連繫하면서 敵의 逆襲에 대비하는 一方 부대 整備를 서둘렀다.

2. 제1기갑연대(장, 李 龍대령)는 이날 白潭寺—路洞을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었는데, 龍垈里—미시嶺부근에서 南下한 北共 제12사단의 1개연대가 △882—路洞을 연하는 線에 나타나 제20연대와의 間隙을 뚫고 연대 후방을 遮斷할 企圖아래 反擊을 준비 中이라는 急報에 接하였다. 이에 연대장은 計劃의 一部를 바꾸어, 機先을 制하여 當面의 敵을 一擧에 擊碎키로 決心하고 곧 연대 豫備隊인 제1대대로 하여금 戰線投入을 命令함과 동시에 제3대대로 하여금 △882로 迂回 진출케하여 敵의 腹背를 기습공격토록 하면서 이에 呼應한 全面공격을 斷行키로 하였다.

이리하여 제1대대(장, 車文錫소령)는 雪嶽山부근의 진지에서 躍出하여 제2대대(장,

朴翊均소령)의 正面攻擊에 가담하였으며, 그동안 제 3 대대(장, 林觀默소령)는 △882를 目標로 進擊中이었다. 그런데 제 3 대대가 △882 右側背에 進出하자 敵은 이와 同時에 砲兵火力을 集中하면서 正面으로 對決을 試圖하였는데 증강된 1개대대 규모의 敵과 激突하게 되어 一進一退의 激戰이 展開되었다. 이때의 敵은 數制上 유리하고 또 堅固한 진지를 占據하고 있었으므로 대대의 進路가 점차로 遮斷될 위기에 直面하게 되었다. 이러한 危急한 戰況을 打開코자 대대장은 兵力을 突擊隊形으로 展開하는 즉시로 自身이 직접 右一線 제10중대의 陣頭에 서서 白兵을 휘몰아 血戰끝에 進路를 헤치는 轉機를 마련하는 동시에 突擊號令을 내렸다. 이로써 대대는 前面에서 일제히 進擊하는 제1및 제 2 대대와 協力으로 敵陣깊이 突入함으로써 頑強히 저항하는 敵線을 破碎하고 이 高地의 主人이 되었다.

이후부터 각 대대는 연대장의 命令에 따라 계속 增強되는 敵勢에 對備한 急編방어진지를 구축하고 四周경계에 임하였다. 이날밤 제 2 대대의 제 5 중대(장, 朴昌燧대위)가 대대警戒 중대로 △882와 연결된 △747에 陣地를 占領하고 경계태세에 突入하고 있을때 夜陰을 틈탄 敵의 不時 공격을 받았다. 이때의 敵은 △747를 包圍한 다음 건조한 野草에 불을 지른뒤 이 불길을 뒤따라 包圍網을 壓縮하면서 頂上가까이 까지 接近하더니 일제히 수류탄을 던지면서 急射擊으로 發惡하기 시작하였다. 때마침 부는 南西風을 탄 불길은 밤하늘로 치솟아 올랐고, 煙氣 또한 주위를 뒤덮어 頂上의 중대원들은 앞이 가로막힌 채로 窒息상태에 빠지는 危機를 맞게되었다.

分, 秒를 다투는 切迫한 이 狀況을 直感한 중대장 朴昌燧대위는 생각하되 『군인은 모름지기 臨戰無退의 精神으로 싸움터에 서며, 더욱이 指揮者는 어떠한 逆境에서도 大膽하게 率先垂範을 보여 부하의 士氣昂揚에 注力하여야 한다』 라고 깨닫자, 곧 1개분대를 突擊組로 편성하고 彈雨속을 포복前進하여 敵前에 다다르자 肉彈으로 突破口를 뚫고 一齊 사격과 동시에 『敵을 한놈도 남기지 말고 擊滅하라』고 號令하면서 左衝右突로 銃劍을 휘두르자 그 必死를 決한 勇猛앞에 敵은 드디어 潰散하기 시작하였다.

正義를 위한 銃劍에 하늘도 무심치 않았으니 逆風을 탄 불길은 오히려 敵의 退路를 遮斷하고 이를 捕捉한 중대는 초인적인 勇敢性으로 白兵戰을 展開한 끝에 이 醜敵을 여지없이 擊碎하고 同 高地를 固守하는데 成功하였다.

무려 3시간에 걸쳐 밤의 寂寞을 깨친 銃聲이 멎고 어느듯 먼동이 트기 시작하였는데, 쓰러진 敵의 주검 위에는 焰煙이 스쳐간 자욱이 歷然하였고 北共 少年兵의 可憐한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수가 없었다.

이 戰鬪가 끝난뒤 중대장 朴昌燧대위는 이 戰功으로 忠武무공훈장을 授與받았으며 最後까지 勇戰奮鬪하다가 散華한 12명의 戰友와 27명의 負傷者에게도 무공훈장이 찬란하였으나 죽은 勇士를 다시 살릴 道理 없음을 어이하랴.

이날 3개대대가 血鬪끝에 거둔 戰果와 損失은 다음과 같다.

戰果		機關銃	2 정
射殺	470 명	實彈	700 발
捕虜	3 명	損失	
小銃	63 정	戰死	57 명
多發銃	35 정	負傷	84 명

3. 제26연대(장, 徐廷哲대령)는 이날 공격梯隊인 제1및 제1기갑연대의 進擊에 따라 敵의 增援이 현저하여 지자 사단장의 命令에 따라 出動태세를 갖추고 대기중에 있었다.

4. 제10포병대대(장, 房景源중령)는 이날 정확한 觀測과 集中砲火의 유도로서 効力射를 일시에 발휘하여 戰果獲得에 기여하였으며 夜間에는 敵陣깊 숙히 요란사격을 實施하였다.

이 作戰으로 제8군 사령관 Van Fleet중장과 육군 총참모장 丁一權소장은 사단 將兵에 對한 激讚의 辭를 주었다.

5월 12일 : 사단은 전날 占領한 鞍山—路洞을 連하는 戰線을 정리한 다음, 그 北쪽과 牛臥里일대에서 增強趨勢를 보이는 敵에 對한 공격을 계속하였는데, 敵이 또한 頑強히 저항하며 侵透威力을 加重함으로써 戰鬪는 더욱 苛烈化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날 확인된 敵情에 대한 分析에 의하면 北共 제6사단은 牛臥里에서, 그리고 제12사단은 白潭寺 北쪽에서 各各 敗殘兵을 再編하고 새로 投入된 兵力과 合流하여 主로 戰鬪地境線의 間隙을 뚫고 一意南侵을 企圖하는 것으로 判斷되었으며 그동안 이들은 補給상태와 裝備面에서도 相當히 강화된 것으로 推測되었다.

특히 CP를 蓮花里(白潭寺 北쪽 6km)에 둔 제12사단의 主力은 82mm및 60mm등의 重武裝을 갖추고 右인접 제11사단과의 接境을 노리는 것으로 보였고 제1연대 正面에도 直射와 曲射포탄이 集中하기 시작하였다.

1. 제1연대(장, 韓 信대령)는 전날 敵의 據點인 鞍山을 치열한 激戰끝에 奪取하고 그 부근에 진지를 占領하자 이날 拂曉에 또다시 그 西北쪽 2km에 있는 △1,257의 敵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 △1,257는 元通—麟蹄에 이르는 44번 道路를 瞰制할 뿐더러 그 北쪽 46번 道路(東草—龍垈里—元通에 이르는 道路)에 이르는 前進據點으로서의 要衝이기 때문

에 彼我間에 서로 激突을 免치 못하였다.

제 2 대대(장, 丁世鎭중령)는 이날 05.00에 鞍山 西斜面 진지에서 △1,257을 向해 進擊하였는데 09.00에 △1,257와 連하고 있는 △910 溪谷에 2개중대 규모의 敵이 버티고 있으면서 이 일대를 掌握코자 대대의 進出을 極力阻止하려하였다. 그리하여 대대는 곧 包圍網을 形成하는 즉시로 일시에 全 火力을 集中하고 그 동안의 快勝의 餘勢를 몰아 一時에 突進한 결과 敵의 主力은 마침내 擊退를 당하고 繼戰意志를 상실한 나머지 兵力은 각기 分散된 채로 牛臥里 北쪽 溪谷을 따라 潰走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제 3 대대(장, 李聖鳳소령)도 제 2 대대와 併行하여 鞍山 南麓을 거쳐 44번 道路 西北쪽 稜線을 따라 進擊中, △587(牛臥里 東北쪽 1km)에 潛屯하고 있던 1개중대 규모의 敵 低抗力을 목격하는 즉시로 可用한 모든 火力을 總 集中하여 強打하면서 牛臥里 北쪽 1km에 있는 無名高地 위까지 밀고들어가 이 敵을 驅逐한 다음 진지를 占領하고 경계태세로 移行하였다. 戰勢가 이와같이 됨으로써 제 2, 제 3 兩대대는 44번과 46번의 兩道路의 交叉點에서 南北으로 縱深깊게 진지를 마련하게 되고 따라서 敵의 補給線을 遮斷할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제 1 대대(장, 咸溶翼소령)는 전날에 이어 加里峯과 紫陽田을 連하는 線上에 부대를 展開하여 연대 左側背에 對한 警戒를 強化하는 동시에 一線兩대대의 進出을 掩護하였다.

제2, 제 3 兩대대가 兩日間에 얻은 戰果와 損失을 綜合하면 다음과 같다.

戰 果		수 류 탄	1,100발
사 살	379명	실 탄	7,500발
다 발 총	10정	損 失	
기 관 총	3정	전 사	23명
82mm박격포	1문	부 상	36명

2. 제1기갑연대(장, 李 龍대령)는 이날 正面의 北共 제12사단이, 122mm 野砲를 비롯한 重火器 및 각종 小銃으로 장비한 主力으로써 右인접 제20연대(장, 朴元根대령)의 제 2대대(장, 柳甲烈중령)와의 接境인 △882 東側을 따라 南侵함을 主動的으로 誘引 擊滅코자, 연대를 急編防禦態勢로 轉換키로 決心하고 右一線인 제3대대로 하여금 제20연대 제2대대와 서로 呼應하여 挾攻을 加하도록 하였다.

제3대대(장, 林觀默소령)는 연대장의 이러한 命令에 따라 △882 北쪽에서 侵透를 계속하는 敵을 擊破할 目的으로 전날의 陣地를 박차고 北斜面까지 急進하였을 때에 앞, 뒤 兩面의 敵으로부터 不意의 急射擊을 받은 결과 그 進出速度가 鈍化되었는데, 이때의 敵

主力은 이미 제20연대 제2대대의 主陣地인 △989를 掠取하고 있을때였다. 대대는 더 이상의 進出을 斷念하고 그 부근에 急編방어 진지를 구축한 다음 敵을 抑留함으로써 牽制키로 하였다.

이당시 제20연대 제2대대는 제11사단의 左一線 대대로서 전투개시 이래 血戰을 계속하면서 馬登嶺一늘목嶺線까지 進擊하여 敵에게 打擊을 加함으로써 出血을 強要하고 있었다. 그런데 山岳戰의 연속으로 말미암아 食糧과 彈藥의 支援이 뒤따르지 못하여 이날은 오직 白兵만으로 敵과 應戰하였던 것이다.

한편 제2대대(장, 朴翊均소령)도 現진지를 強化하면서 敵과의 一戰을 決할 태세를 갖추었으며, 제1대대(장, 車文錫소령)는 △1,368진지에서 東南쪽 4km에 있는 △1,408(大勝嶺東南쪽2km)부근으로 轉進하여 연대의 중심을 擴大 強化하였다.

3. 제26연대(장, 徐廷哲대령)는 이날 사단장 宋堯讚준장으로 부터 『제26연대는 1개대대로서 제20연대 제2대대를 增援토록 하고, 1個 대대는 雪嶽山 西北일대에 展開하여 阻止陣地를 占領케 한 다음 一線梯隊를 掩護케 하라』는 要旨의 命令을 받는 즉시로 연대 CP를 五色里에서 雪嶽山 頂上으로 躍進開設하고 제2, 제3兩대대를 急遽 出動시켰다. 이리하여 제2대대(장, 朴基淳대위)는 09.00에 雪嶽山 西南쪽 △1,037 陣地로부터 進出하여 16.00에 馬登嶺 (△1,327 : 雪岳山 西北쪽 6km) 부근에 展開를 完了한 다음 그 前方에서 奮戰에 奮戰을 거듭하는 제20연대 제2대대의 活路를 打開코자 戰鬪태세에 突入하였다.

한편 제3대대(장, 具泰益소령)는 寒溪嶺 부근의 진지에서 △1.226(雪嶽山 西쪽 4km)로 進出하여 제2선 진지를 占領하고 있었는데 연대의 指示에 따라 13.00에 또다시 제1 기갑연대 正面인 花採峰(△1,077 : 雪嶽山 東北쪽 2km)으로 躍進하여 그 부근에 阻止陣地를 占領하는 동시에 馬登嶺 부근의 我軍에 對한 增援태세를 갖추었다.

이무렵 육군본부는 그 間의 戰況을 銳意 注視하면서 入手된 敵情을 綜合, 分析한 결과 『敵은 소위 제2차 春季攻勢를 위하여 大兵力의 集團과 重裝備를 中東部 全域에 걸쳐 投入하고, 全面 攻勢準備에 狂奔하고 있다』는 心證을 굳게 하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이 戰局이 새로운 樣相으로 變貌하게 되자 육군본부는 육본作命 제267호(51.5.11 24.00)를 下達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軍은 5월 13일 이후 攻勢作戰을 中止하려 한다.

②제1및 제3군단은 相互協調하여 敵의 侵透를 最大限으로 지연하면서 No Name 線으로 移動한 다음 縱深진지를 구축하고 이 線上에서 敵을 擊滅하라.

③ No Name 線으로의 移動은 5월 13일 黎明을 期하여 실시하라』

그런데 이 No Name 線은 降仙里에서 西向하여 雪嶽山—加里峯—麟蹄를 연하는 線인 것이다.

이러한 命令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7일간 展開한 Missouri線을 向한 進擊戰은 이날로써 一旦 끝마치게 되었으며 따라서 사단은 東部戰線 左肩部에서 決戰防禦로 轉換하게 되었다.

한편 사단장 宋堯讚준장은 襄陽에 위치한 사단 사령부에서 육본作命 제267호에 따라, 戰線整理를 斷行하는 사단 作命 제132호를 下達하였는데, 그 內容에 이르기를 『사단은 5월 13일 06.00를 期하여 現 進出線인 牛臥里—鞍山線에서 逐次로 이동하여 加里峯—雪嶽山을 連하는 線上에 堅固한 진지를 구축한 다음 이를 主抵抗線으로 하여 敵의 南下를 阻止 擊滅하려 한다』는 要旨였다.

5월 13일 : 全 戰線에 걸쳐 敵의 全面공세의 兇計가 노골화됨에 따라 東部戰線에도 점차 새로운 戰雲이 감돌게 되었다. 이날 사단 正面의 敵의 動向을 보면, 北共 제6사단 主力은 鞍山 北쪽을 迂回하여 砂泉里(元通 北쪽 6km)—臥村(加里峯 西北쪽 7km)—加里峯을 連하는 線으로 그 毒鋒을 指向하였는데, 그들은 加里峯을 強奪 한 다음 사단의 側後方을 노려서 遮斷을 企圖하는 것으로 보였고, 또한 北共 제12사단의 主力은 新垈里에 CP를 둔 北共 제3군단예하 제69여단과 合流하여 제6사단과 呼應하면서 中央突破를 試圖할 것으로 推斷되었다.

이와같이 急變하는 戰況에 대비하여 사단장 宋堯讚준장은 이미 전날 사단作命 제132호로써 決戰 防守태세를 갖추도록 指示한 바 있었다.

1. 제1연대(장, 韓 信대령)는 이날 사단作命에 따라 牛臥里—鞍山線까지 進出한 제2대대를 大勝瀑布—△1,408線으로 轉進시켜 前進陣地를 占領케 하고 제3대대는 加里峯—紫陽田線을 占有中인 제1대대와 連繫하여 그 東쪽 △1,578(雪嶽山 西쪽 6km)에 沿하는 線에 진지를 구축하여 決戰防禦토록 措置한 다음 연대 수색중대로 하여금 搜索활동을 더욱 強化토록 指示하였다.

이 뒤에 각 대대는 예하 各 중대를 逐次的으로 계획된 新陣地로 轉進시켜 19.00에는 부대 配置를 끝마치고 日沒과 더불어 경계태세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날 24.00에 제3대대(장, 李聖鳳소령)의 제10중대는 대대 右側正面으로 侵透를 企圖하는 2개소대 규모의 敵을 발견하자 敵이 小銃 有效射程거리까지 접근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미리 構成한 火網안에서 집중사격을 同時에 加함으로써 敵 36명을 사살하였다

2. 제1기갑연대(장, 李 龍대령)는 이날 사단 作命에 따라 연대 전방지휘소를 △1,578로부터 雪嶽山으로 이동하고, 제1대대로 하여금 前進부대의 임무를 遂行케 하는 한편 제2 제3兩대대를 雪嶽山 西北斜面 일대에 轉進하여 急編방어 진지를 占領토록 하고 馬登嶺으로부터 공격하는 敵에 對備케 하였다.

이에 따라 제1대대(장, 車文錫소령)는 08.00에 白潭寺 南쪽 △1,408에서 행동을 개시하여 馬登嶺 (△1,329) 西南쪽 3km부근 △922으로 이동하는 동시에 부대를 展開하여 前方警戒에 임하였으며 제2대대(장, 朴翊均소령)와 제3대대(장, 林觀默소령)는 路洞부근 일대의 진지로부터 08.00에 출발하여 相互 併行하면서 移動하였는데, 제2대대는 雪嶽山 前斜面에, 그리고 제3대대는 同山 西側 능선에 각각 진지를 占領한 다음 夜間경계에 들어가는 일방 戰鬪態勢를 強化하였다.

3. 제26연대(장, 徐廷哲대령)는 이날 사단作命 제132호에 의한 戰線이동에 따라 연대 CP를 雪嶽山에서 長承里(襄陽 西쪽 6km)로 轉進開設하고, 예하 제2 제3兩대대는 계속 전날의 진지에서 제1기갑연대의 轉進을 掩護하는 한편 敵의 侵透를 阻止하면서 다음 命令을 대기토록 하였다.

특히 이날은 故 金白一소장의 永訣式이 江陵에서 李起鵬 국회의장및 丁一權총참모장, 그리고 각급 指揮官이 參席한 가운데 擧行되었다.

5월 14일 : 사단이 加里峯—雪嶽山線으로 轉進함을 奇貨로하여 敵은 南侵을 계속 하였는데 北共 제6사단의 主力은 전날 鼓山을 迂回하여 牛臥里부근에 布陣하더니 이날 새벽부터는 2개대대 규모의 兵力으로써 加里峯을 目標로 侵攻하여 한때 加里峯의 防守가 危機에 直面하였으나, 제1연대는 이에 應戰하여 熾烈한 격전을 반복한 끝에 固守의 目的을 다하였으며 한편 正面의 敵 제12사단의 主力도 또한 狂氣서린 侵攻을 노림으로써 彼我間에 紛戰亂鬪를 보게 되었다.

이날 새벽부터 쏟아진 降雨와 連日계속된 激戰으로 인한 砲煙은 일대의 密林, 岩壁지대의 天險과 더불어 我軍의 作戰遂行에 많은 制限을 주었다.

1. 제1연대(장, 韓 信대령)의 제1대대(장, 咸容翼소령)는 加里峯 부근진지에서 敵의 侵透를 阻止코자 戰力을 강화하였는데 13.30에 이르러 제1, 제3兩중대의 虛隙을 뚫고 공격한 2개중대 규모의 敵과 치열한 攻防戰이 전개되었다. 이로부터 一進一退의 反復속에 제3중대는 敵의 側背를 強打한 다음 제1중대와 呼應하면서 兩面에서 挾擊코자 加里峯 西斜面

능선을 재빨리 橫斷하여 進出하고 있을때 새로이 增援된 敵 1개중대의 逆襲을 받고 勇戰奮鬪하였으나 점차로 孤立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戰況을 報告받은 대대장은 命令하되 『제3중대는 死中에서 活路를 찾아라』고 激勵하는 동시에 대대의 全火力을 여기에 總集中케하면서 近接戰으로 맞서니 狂亂하던 敵의 銳鋒이 무너짐에 따라 潰退의 徵候를 보이게 되었고 이로써 대대는 끝까지 加里峯을 固守하고야 말았다.

한편 제3중대도 百折不屈의 鬪魂으로써 끝내 敵의 包圍網을 突破하고 左인접 제22연대(장, 張春權대령)의 指揮下에 編入되어 戰鬪를 계속하면서 5월 22일까지 이르렀다.

(제1연대 戰鬪詳報에서)

제2대대(장, 丁世鎭중령)는 연대의 前進부대로서 大勝瀑布一△1,408線의 前進진지를 強化하고 있던중, 15.00에 1개대대 규모의 敵으로 부터 反擊을 받았다. 이때의 敵은 각종 砲火의 支援아래 一步一步 南侵을 계속하여 17.00에는 이미 陣前 至近距離까지 肉迫하였다.

이와같은 敵의 逆攻속에서 대대장을 위시한 全將兵은 必勝無退의 信念으로 渾然一體가 되어 勇戰奮鬪를 다하고, 步砲의 全火力을 集中하여 6回에 걸친 突擊戰의 反復으로 敵에게 打擊을 加하였으나 계속 增援되는 敵兵力의 狂暴는 마침내 絶頂에 달하여 대대는 惡戰苦鬪를 免치 못하게 되었다.

이무렵 연대장 韓 信대령은 敵彈이 빗발치는 最前方까지 직접 나아가 陣頭指揮하고 있었는데 이때에 S—3 尹興禎대위가 달려와 『연대장님 위험합니다』라고 웨쳤으나 韓 信대령은 한치도 움직이지 않은채로 敵情을 觀望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대장의 勇姿를 지켜보던 대대將兵은 士氣를 되찾고 勝戰을 다짐하는 우렁찬 喊聲을 높이 웨치면서 肉彈突擊하자 敵은 드디어 그 一角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潰散하기에 이르렀다.

이 당시의 實況을 尹興禎대위는 다음과 같이 述懷하고 있다.

『激戰中에 있어서의 指揮官이 一步라도 물러선다면 全 將兵의 心的 動搖를 誘發하게 될 것이다. 이 戰鬪에서 연대장은 彈雨를 무릅쓰고 끝까지 陣頭指揮함으로써 대대 全將兵으로 하여금 泰山같은 威容을 믿고 제精神을 되찾아 끝내 敵을 潰滅시키고야 말았던 것이다.』

한편 제3대대(장, 李聖鳳소령)는 이날 △1,578北斜面 진지에서 제2대대의 激戰을 支援하다가 日沒부터 搜索活動을 강화하였다.

2. 제1기갑연대(장, 李 龍대령)는 이날 雪嶽山을 中心으로 한 陣地에서 戰列을 정비하면서 決戰태세에 臨하고 있었는데 日沒까지 특별한 接敵이 없었다. 그 뒤에 연대장은

각대대로 하여금 警戒組 및 捜索隊의 活動을 강화토록 指示한 다음 이날 敵情이 없었던 까닭을 分析한 結果 敵은 기간중 我軍이 敢行한 步砲協同 작전에서 甚한 損傷을 당하고 그 餘力을 補強키 위한 시간의 여유를 얻으려고 하는 것으로 判斷되었다.

이날 제1대대(장, 車文錫소령)의 捜索隊는 敵의 豫想接近路인 △972(馬登嶺 西北쪽2km) 부근에서 砲擊에 의해 射殺된 敵 시체 158具를 발견하였는데, 이들은 이날 아침에 侵透를 企圖하다가 제10포병대대(장, 房景源중령)의 火力洗禮를 받고 무참히 最後를 告한 것으로 推測되었다.

3. 제26연대(장, 徐廷哲대령)는 이날 사단장으로 부터 口頭名令을 받았는데 그 要旨에 이르기를 『제26연대는 雪嶽山一冠帽峯(雪嶽山 東쪽 5km)線上에 제2線 진지를 占領하고 左側方에 對한 경계를 強化하라』하였다. 이와같은 命令은 전날 제11사단의 제20연대가 戰力을 整備키 위하여 新興寺부근으로 移動하게 됨에 따라, 그 空間地帶를 노리면서 侵透하려는 敵에 미리 대비하려는 措置의 一環이었다.

이에따라 연대장은 제1대대(장, 權用性소령)를 雪岳山 東側에, 제3대대(장, 具泰益소령)를 冠帽峰에 各各 進出케하였으며, 전날 馬登嶺에 躍進하여 제20연대 제2대대를 支援하던 제2대대(장, 朴基淳대위)를 黑間里(加羅皮里 東北쪽 1km)로 轉進케하여 부대 點檢과 동시에 사단 後方警戒에 임하도록 措置하였다.

5월 15일 : 이날도 強風과 함께 몰아치는 暴雨는 太白山脈의 寒氣流와 부닥쳐서 추위를 몰아왔고 짙은 안개는 視界를 가리어 흡사 初冬의 黃昏을 彷彿케 하였다.

이러한 逆境속에 사단 장병은 연일 계속되는 激戰의 피로를 잊은채로 加重一路인 敵의 南侵威勢를 制壓코자 奮戰을 거듭하였다.

1. 제1연대(장, 韓 信대령)는 이날 寒溪嶺 전방지휘소에서 時時刻刻으로 變貌하는 戰況을 分析하였는데 이자리에서 연대장 韓信대령은 要旨 다음과 같은 그의 所信을 밝혔다. 『연대 當面의 敵은 그 主力으로 44번 道路의 兩側 능선을 따라 加里峰一紫陽田쪽으로 侵透시킨 다음 東進하여 寒溪嶺을 奪取코자 할 것이며, 그 一部로서 加里峯 西南쪽으로 迂回케하며 서로 呼應하면서 挾擊토록 할 것이다.

그리고 때를 보아 유격戰法으로 移行하면서 사단 후방에 대한 遮斷을 企圖할 것이다. 따라서 제2, 제3兩대대는 現位置에서 相互 連繫하면서 縱深진지를 確保한 나음 敵의 豫想接近路上에 可用火力을 總集中할 태세를 갖추도록 하라, 제1대대는 現 位置에서 急編방어진지를 占領하고 1개중대를 △1082(加里峯 東쪽 1.5km)에서 逐次抵抗으로 敵을 陣前에 誘

引토록 措置하라. 대저 이곳 寒溪嶺은 襄陽에 이르는 關門이므로 이를 끝까지 固守하여야 할 것이며 各級 지휘관은 全將兵으로하여금 오직 固守의 길만이 우리의 삶의 길이라는 決意를 새롭게 하도록 할 것이며 指揮官 스스로가 먼저 陣頭에 나서라』

제2대대(장, 丁世鎭중령)및 제3대대(장, 李聖鳳소령)는 연대의 계획에 따라 大勝瀑布—紫陽田을 連하는 線上에 防禦陣을 確保하고 공격의 轉機를 노리고 있었는데, 2개중대 규모의 敵이 大勝瀑布 西側능선에서 제2대대의 左側正面을 공격中이라는 急報에 接하였다. 이때에 대대장 丁世鎭중령은 敵을 小銃 유효사거리내에 近迫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急擊을 一加키로 決心하고 이뜻을 將兵들에게 周知시킨 다음 不動如山으로 敵을 기다리게 하였다

이러한 決心을 하게된 것은 冷雨와 안개로 因하여 視野가 制限되므로 敵으로서도 그 攻擊威力이 둔화된다는 點을 勘案하였기 때문이리라.

이리하여 대대는 1發의 사격도 不許하면서 敵이 陣內에 突入하려는 때에, 機先을 制하여 섬멸적 사격을 일제히 集中發揮케 한결과 敵을 陣前에서 捕捉擊砕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때 敵主力은 陣前 5—6m까지 肉迫하다가 不時의 急襲으로 崩壞하게 된 것이다.

2. 제1기갑연대(장, 李 龍대령)는 이날도 雪嶽山 진지에서 一戰을 決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는데 險峻한 地勢와 不順한 日氣의 탓인지 敵의 치열한 攻勢는 없었으며, 다만 彼我間에 경미한 火力戰만이 몇차례 反復되다가 日沒과 함께 연대는 四周경계를 더욱 強化하였다.

3. 제26 연대(장, 徐廷哲대령)는 이날 또 다시 사단장 命令에 따라, 08.00에 冠帽峯일대에서 제2線 陣地를 占領中인 제1, 제3兩대대를 撤收시키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제1대대(장, 權用性소령)를 黑間里로 이동케 하여 제2대대(장, 朴基淳 대위)와 함께 부대 整備를 하면서 사단 後方警戒에 臨하게 하고 제3대대(장, 具泰益소령)를 長承里로 轉進시켜 연대 CP에서 차후 命令을 대기토록 하였다.

5월 16일 : 이날 未明에 北共 제2군단의 主力은 中共集團의 增援아래 我 제3군단(장, 劉載興소장)의 正面을 指向하여 南侵을 재촉하였는데 그 일부는 수도사단과 제3사단 사이의 戰鬪地境線인 昭陽江畔을 따라 濁流와 같은 氣勢로 侵透를 계속하였다.

그들은 牛臥里에서 北共 제6사단과 合勢하자 版에 박힌 그들의 戰法으로 사단의 後方을 遮斷코자 하려는 듯이 加里峯 東南쪽에 많은 兵力을 投入하여 壓迫을 加하기 시작하고 한편 正面의 敵은 龍岱里 부근에 있던 1개연대 규모의 兵力支援을 받으면서 일제히 攻擊을 試圖하였다.

이와같은 大규모의 공격에 當面하게된 사단은 다만 믿는것이 火力이요, 必勝不敗를 自負하는 것이 오직 鬪魂만이었다.

1. 제1연대(장, 韓 信대령)는 集團的으로 強襲하는 敵을 맞아 모든 火力을 發揮하였으며 步一步 肉迫하는 敵에게 白兵戰을 強要한 끝에 그 銳峰을 물리치고 있었는데, 이날 오후에 이르러, 左인접 제22연대(장, 張春權대령)가 敵의 大攻勢로 말미암아 戰線의 一角이 무너짐에 따라, 연대도 또한 左側背가 露出되기에 이르렀으므로 正面과 側面의 同時壓迫에 直面하게 되었다.

제1대대(장, 咸溶翼소령)는 이날 연대에 配屬된 사단工兵대대의 제3중대(장, 趙炳建대위)와 合同으로 敵의 豫想接近路上에 地雷 및 障碍物을 設置한 다음 전날의 진지에서 急編防禦中이었는데 15.00에 이르러 2개대대 규모의 敵이 대대兩翼을 포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대는 미리 構成한 火網에서 敵을 捕捉하는 同時에 集中사격을 加하였으나 敵은 이에 屈하지 않고 屍山을 넘고 또 넘으면서 侵襲함으로써 彼我間에 苛烈한 殺戮戰이 展開되었다.

2시간에 걸친 混戰과 紛戰끝에 드디어 이 敵을 擊退하였으나 잠시後에 또다시 增援된 우세한 敵은 대대를 三面으로 包圍하고 점차 包圍圈을 壓縮하기 시작하니 危機가 장차 迫到하려 하였다. 이러한 大勢를 지켜보던 연대장 韓 信대령은 즉시 제2대대(장, 丁世鎭중령)로 하여금 增援토록 號令을 내리니 장차 『勝』이 아니면 『死』를 決하려는 一大激鬪가 展開되려하고 血雨가 쏟아지려 하였다.

이로부터 제2대대는 제5및 제6중대를 紫陽田 左側능선을 따라 進出시켰는데, 兩個 中隊는 제1대대가 決戰中인 △1082를 迂回하는 동시에 부대를 展開하여 敵의 背後를 기습 強打하며 攪亂함으로써 固着되었던 제1대대는 混戰亂鬪 끝에 包圍網을 突破 分斷하면서 지연작전으로 △815 (加里峯 東쪽 3.5km)부근에 逐次로 撤收한 다음 진지를 強化하며 戰列을 整備하였다.

我方에 火力이 있다 하여도 蒼空의 一閃이오, 我軍에 鬪魂이 있다 할지라도 大海의 一粟이니 死中에서 活路를 찾기만 하여도 多幸한 일이었으리라.

한편 제2대대는 제1대대의 撤收를 掩護하면서 激戰하다가 연대의 指示로 寒溪嶺 北麓으로 轉進한 다음 四周경계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날 제1및 제2대대가 激戰을 끝낸 뒤 걷운 戰果와 거둔 近接戰鬪에서 제2대대가 올린 戰果를 綜合하면 다음과 같다.

戰 果		M 1	15정
사살	488명	기관총	2정
포로	4명	수류탄	900발
소총	74정	損 失	
다발총	21정	전사 7명 부상	39명

2. 제1기갑연대(장, 李 龍대령)는 이틀동안 暴雨와 안개로 因하여 補給문제에 困難을 받고 있었는데, 이날 아침 사단으로 부터 食糧과 彈藥 그리고 醫療品등의 空中支援을 받음으로써 隘路를 打開하고 戰力을 補強한 다음, 大攻勢를 감행하는 敵과 一戰을 決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이무렵 馬等嶺을 장악한 北共 제12사단의 主力은 새로운 增援兵과 合流하여 雪嶽山을 強奪코자 그 西北쪽 5km에 있는 △922와 그 東北쪽 4km에 있는 花菜峯 兩側面으로 부터 侵襲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러한 狀況에서 연대장은 雪嶽山 부근을 占領中인 各 대대로 하여금 天險인 地勢의 利를 살릴수 있는 要地要部에서 急編 방어진지를 強化토록 命令하였다.

이리하여 雪嶽山을 中心으로, 제1대대는 그 東北쪽 △1253에, 제2대대는 그 西北쪽 △1224에, 그리고 제3대대는 西쪽인 △1387에 各各 진지를 占領하였는데, 이 부근은 斷崖와 狹谷을 이루고있으며 또한 正面을 어느程度 瞰制할수 있기 때문에 防者에 有利하였다. 15.00에 이르러 122mm野砲를 위시하여 82mm및 60mm迫擊砲의 支援을 받는 1개대대 규모의 敵이 제1대대(장, 車文錫소령)正面인 △1,253부근에 接近하자 곧 中央突破를 企圖하였으나 즉각 誘導된 포병 제1포대의 掩護射擊아래 치열한 攻防戰을 敢行한 결과 2시간 후인 17.00에 이 敵을 擊退하였다.

또한 15.30에는 제2대대(장, 朴翊均소령)가 花菜峯 東側 溪谷을 따라 侵襲하는 2개중대 규모의 敵과 치열한 射擊戰을 展開하였는데, 이때의 敵은 대대의 방어선을 突破코자 하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대대 勇士들의 銃口는 이들로 하여금 寸步의 前進도 용납치 않으니 數次에 걸친 이들의 突擊도 挫折만을 반복하였으며 끝내 戰意를 상실한채로 退却하고 말았다 이후에도 敵은 夜暗을 이용하여 계속적인 突擊을 반복하였으나 각 대대의 勇戰으로 敵은 그 뜻을 이루 지못하고 督戰隊가 먼저 도망치는 珍風景도 보였다고하니 이는 投降한 敵兵의 實吐로서 確認되었다.

3. 제26연대(장, 徐廷哲 대령)는 이날 사단장으로부터 『제26연대는 2개대대를 寒溪嶺을

目標로 進出시켜, 제1연대를 支援 하라』는 口頭指示에 따라 즉시 黑間里에서 부대整備中인 제2대대와 長承里에서 待機中인 제3대대를 出動시키는 동시에 연대 전방지휘소를 長承里로 부터 五色里로 躍進開設하였다.

제2대대(장, 朴基淳대위)는 연대장의 命令에 따라 이날 17.00에 黑間里를 出發하여 17.30에는 寒溪嶺 南쪽 3km에 있는 △1,158—望對岩山 線上에 부대를 展開시키고 제1연대를 支援할 제반 태세를 갖추었으며, 한편 제3대대(장, 具泰益소령)도 車輛편으로 17.00에 長承里를 출발하여 18.00에 藥水里에 集結한 다음 부대 點檢을 마치고 차후 命令을 대기하였다.

한편 이날 19.00에 襄陽 사단 전방지휘소에서는 군단장 白善燁소장을 위시하여 수도사단장 宋堯讚준장과 제11사단장 崔德新준장 및 군단 全 참모가 參席한 가운데 作戰 會議가 개최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새로운 戰雲에 휩쌓인 全般的인 情勢를 分析, 檢討한 다음 군단장 白善燁소장은 一旦 수도사단과 제11사단을 Green線(襄陽—長承里—加羅皮里를 連하는 線)으로 撤收시켜 緊迫한 戰況에 對備키로 決心하기에 이르렀고, 사단은 이에따라 이날밤 사령부를 東德里(注文津 南쪽 3km)로 옮긴 가운데, 제1연대및 제23연대를 長承里로 제1기갑연대를 石橋里(襄陽 西南쪽 2km)로 각각 17日 12.00를 期하여 撤收토록 指示하고 當面의 敵을 擊滅키 위한 새로운 方策을 樹立하였다.

5월 17일 : 이날도 수도사단 將兵들은 敵의 波狀攻勢와 對決하면서 撤收直前까지도 계속 不斷한 激戰을 벌이고 있었다.

1. 제1연대(장, 韓 信대령)는 지난밤부터 紫陽田에서 南侵한 敵과 加里峯에서 寒溪嶺으로 東進하는 敵의 壓迫으로 말미암아 계속 苦戰中이었는데 이날 새벽에 加里峯 東北쪽에서 侵攻한 敵이 제2대대 防禦線 一角을 뚫고 寒溪嶺 中腹까지 侵襲하게 되자 연대는 제3대대로 하여금 果敢한 反擊을 斷行케 하고 제2대대는 寒溪嶺 東南쪽 無名高地에 集結토록 하였다.

이때 연대장 韓 信대령은 寒溪嶺 OP에서 奮戰을 激勵하면서 빗발치는 敵彈속에서 직접 부대를 指揮하고 있었는데 사단으로 부터 撤收命令이 下達되었으므로 연대는 逐次陣地를 占領하면서 지연작전을 展開하였다.

제1대대(장, 咸溶翼소령)는 △815에서, 제2대대(장, 丁世鎭중령)는 寒溪嶺 東南쪽 無名고지에서 各各 逐次的인 轉進을 시작하여 15.00에 藥水里에 도착한 다음, 여기에서 車輛으로 移動하여 17.00에 長承里에 集結하였으며, 제3대대(장, 李聖鳳소령)는 연대 指示에 따라 寒溪嶺 北麓으로 進出하여 부대를 展開하는 동시에 死力을 다한 치열한 血戰끝에

敵의 大규모의 攻勢를 牽制抑留함으로써 제1 및 제2兩대대의 撤收를 掩護한 다음 서서히 後續하여 20.00에 長承里에 到着하여 연대에 復歸하였다.

그런데 이날 各 대대는 撤收作戰에서 戰力의 劣勢를 무릅쓰고 猛戰을 거듭한 결과, 本戰鬪 못지않게 많은 戰果를 세웠는데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戰果			
사살	132명	M 1	6정
포로	6명	수류탄	300발
소총	23정	損失	
다발총	8정	전사	6명
		부상	39명

2. 제1기갑연대(장, 李 龍대령)도 이날 未明부터 계속적인 侵攻을 加하는 正面의 敵과 激烈한 戰鬪를 감행하다가 11.00에 사단 指示에 의거하여 撤收를 斷行케 되었는데 연대장은 雪嶽山 OP에서 말하기를 『各 대대는 지연전을 展開하여 敵에게 最大의 손실을 주면소 연대CP로 集結하라』고 대대의 隨意철수를 직접 指揮하였다.

제1대대(장, 車文錫소령)는 △1,253 南쪽 진지에서 自隊계획에 따라 逐次的인 撤收를 시작하였는데, 先頭중대인 제2중대가 花菜峯 中腹에 이르렀을때, 1개중대 규모의 敵이 연대 OP를 奇襲코자 하는것을 목격하자 1시간의 激戰끝에 이를 擊滅한 다음 19.00에 연대CP에 集結하였다. 한편 제2대대(장, 朴翊均소령)는 △1,224에서, 제3대대(장, 林觀默소령)는 雪嶽山 西側方 △1,387에서 各各 15.00부터 撤收를 시작하여 20.00에 연대가 있는 馬山里에 도착한 다음 부대의 點檢을 마치고 차후 命令을 대기하였다.

3. 제26연대(장, 徐廷哲대령)의 제2대대(장, 朴基淳대위)와 제3대대(장, 具泰益소령)는 전날 進出한 진지에서 相互連繫아래 사단 左側背를 掩護하면서 戰鬪태세를 갖추고 있던중 이날 05.00에 △1,063(제3사단 正面)로부터 迂回機動으로 사단 後方을 遮斷코자 接近하는 2개중대 규모의 敵兵과 激突하게 되었는데, 이때의 제2, 제3兩대대는 그동안 豫備隊로서 能히 펴보지 못하였던 戰力을 示範하듯이 破竹之勢로 敵의 銳鋒을 꺾고 協調된 火力으로 이들을 擊破하여 203名을 사살하고 若干의 戰利品을 노획하는 戰果를 세움으로써 비로소 豫備隊로 있던 憤을 풀었다는 것이다.

이후 연대의 撤收命令에 따라 16.00부터 逐次的인 지연작전을 시작하여 02.00에 長承里에 集結하였으며 한편 연대도 제2, 제3兩대대가 계획대로 轉進하자 五色里 전방지휘소를 閉所하고 豫備隊인 제1대대(장, 權用性소령)와 함께 長承里로 機動하였다.

4. 제10포병대대(장, 房景源중령)는 이날 藥水里에 있는 진지에서 一線연대를 支援射擊하다가 襄陽으로 이르는 44번 道路를 따라 白岩里—加羅皮里—論化里를 逐次的으로 轉進하면서 掩護사격을 계속하여 巨濤와같이 侵透하는 敵에게 火力洗禮를 集中하였다.

사단은 예하 연대가 計劃된 集結地로 移動하여 부대點檢을 끝마치자 11일간에 걸쳐 奮戰亂擊을 展開한 雪嶽山附近 戰鬪를 終結키로 하였다.

라. 전투후의 개황

수도사단이 雪嶽山부근 전투에서 敵의 據點인 加里峯—鞍山—路洞을 占領확보함으로써 Missouri線까지의 進擊을 目睫之間에 둔채로 5월 16일을 期한 敵의 소위 제2차 春季攻勢로 말미암아 隨意撤收함으로써 사단의 當初目標 대로 그뜻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이는 戰局의 大勢上 避치 못할 事理에 속하는 것이었다.

특히 期間中, 太白山脈의 中腹을 잇는 天險의 地勢와 山岳戰으로 因한 補給推進이 如意치 못하여 我軍의 戰鬪능력을 制限케 하였으나 이에 屈하지 않고 勇戰奮鬪한 결과 敵 사살 1,700餘명과 각종 裝備品을 노획하였다.

5월 17일에 Green線으로 사단을 轉進한 다음 戰力을 갖추고 있던바 이날밤 또다시 戰線整理의 必要性은 느낀 육군본부 作命 제268호(51.5.17.24.00)에 의거하여, 군단으로 부터 『수도 및 제11사단은 5월 18일 12.00을 期해 現戰線으로 부터 Waco線(東海岸 南涯里에서 西南向하여 頭老峯(△1422)—피앗골을 연하는線)으로 隨意撤收하여 방어진지를 占領하고 南侵하는 敵을 擊滅하라』는 要旨의 命令이 下達됨으로써 이 계획에 따르는 機動을 斷行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사단은 5월 18일에 예하 부대를 一旦 襄陽에 集結시켜 戰力을 整備한 다음, 제1기갑및 제26연대를 Waco線으로 轉進시켰는데, 다음날인 19일에는 제1기갑연대는 右一線부대가 되어 鐵甲嶺일대에, 제26연대가 左一線 부대로써 頭老峯—東臺山에 各各 진지를 占領하고 敵과 決戰태세에 들어갔다. 한편 제1연대는 군단 直轄부대가 되어 江陵으로 直行한 다음 제11사단 제20연대(장, 朴元根대령)가 遂行하던 군단 左翼에 대한 防備임무를 交代하였다. 이와함께 제20연대는 군단 指示에 의거 제3군단과의 間隙을 뚫고 東進을 試圖하는 敵에 對備키 위하여 急遽 檢川里로 躍進하였다. 제11사단의 제9및 제13연대는 一線梯隊로서 當 사단 右翼과 連繫하면서 注文津 西北일대에 配備되어 海岸線을 끼고 방어선을 形成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北共 제5군단과 增援된 제2군단의 일부는 我軍의 隨意撤收에 따라 수도 및 제11사단의 主抵抗線을 通過하고 主攻을 수도사단에 指向하면서 集中殺到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 北共 제5군단 예하 제12사단 主力은 北共 제2군단 예하의 1개연대와 合流하여 그들의 常套戰法의 하나인 中央突破를 감행한 결과 5월 20일에는 그 先頭대대가 제26연대 正面인 頭老峯부근에 出沒하였으며, 특히 中東部戰線의 北共 제3군단과 中共軍 제3野戰軍, 제9兵團소속의 제27군 및 제32군등의 集團은 我 제3

군단 正面을 계속 侵透 南下하더니 5월 20일 午後에는 廣院里일대에서 迂回戰法으로 月精寺를 경유 楸川里一下珍富里線까지 進出하였다. 이리하여 여기에서 防備하던 제20연대는 兵力의 劣勢를 무릅쓰고 血戰을 展開하며 奮戰을 거듭하게 되었거니와, 이를 突破한 中共軍은 大關嶺을 넘어 江陵을 攻略코자 狂奔하고 있었다.

이와같이 敵의 強力한 兩面侵攻에 直面하게된 군단장 白善燁소장은 우선, 군단 直轄부대로 江陵에서 경계에 임하던 제1연대를 사단에 復歸하도록 措置하는 동시에 大關嶺으로 急派하였다.

이제 사단은 大關嶺에서 一戰을 決할 새로운 計劃을 준비하게 되고, 全 將兵은 勝戰을 다짐하는 一念으로 滅共戰線에 뛰어 들 태세를 갖추었으니 또다시 腥風과 血雨가 將至하려 하였다.

4. 高陽—奉日川里—東巨里 附近戰鬪 (1951년 5월 7일부터 1951년 5월 9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 7 호
상 황 도 제2,3,4,5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제1사단(제12R, 缺)장	준장	姜 文 奉
제11연대 장	대령	文 亨 泰
제1대대 장	중령	柳 重 秀
제2대대 장	소령	裵 斗 龍
제1대대 장	소령	高 林 鉉
제15연대 장	대령	金 安 一
제1대대 장	중령	劉 載 成
제2대대 장	소령	張 時 雨
제3대대 장	소령	金 國 柱
사단 공병대대 장	중령	金 永 錫
배속 부대		
포병 제17대대 장	중령	黃 鍾 甲
지원 부대		

美 제 73 戰車대대
美 제999野砲대대
美 제176野砲대대
美 제 3 사단 장 소장 Robert H. Soule
美 제15연대장 대령 Dennis M. Moore
(배속)
韓제1사단 제12연대장 대령 金 點 坤
제1대대 장 소령 柳 文 鎬
제2대대 장 중령 趙 成 來
제3대대 장 소령 金 斗 烈
인접 부대
(右隣接)
美제 1 기갑사단장 소장 Charles D. Palmer

敵 軍

北共 제1군단 장	중장	이 한 목
제 8 사단 장	소장	김 봉 문
제47사단 장	소장	백 낙 칠
제19사단		

中共 제19병단 장 楊 得 志
제64군 장 曾 思 玉
(64군의 一部, 1개 대대)

나. 전투 전의 개황

5月에 들어서면서 我軍은 敵과의 接觸을 維持하며 그 企圖를 探知할 목적으로 威力搜索을 시작하

였다. 즉 사단은 敵의 이른바 4月攻勢를 阻止한 다음, 右一線인 제15연대와 左一線인 제11연대가 佛光里—龍頭里—德隱里일대의 主陣地를 確保하고 제1연대를 예비대로 麻浦일때에 控置한 가운데 左右一線의 前方에 各 1개 대대로써 警戒陣地를 維持하면서 步·戰協同으로 威力 搜索을 強行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제8군은 3일 午後에 각 군단에 대하여 『威力搜索을 擴大하고 각 사단마다 연대 규모로서 前進陣地를 占領하여 항시 敵과의 接觸을 維持토록 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때의 前進陣地線은 이른바 No Name線 (軍團地域內에서는 議政府—法串里)이었던 바, 사단은 3日 18. 30附의 作戰指示 제47호로서 제12연대로 하여금 新院里일대에 前進陣地를 占領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4일 06.00에 제15연대의 제1대대가 舊把撥里일대에서 後方警戒 및 新院里에 이르는 補給路의 警戒를 시작함과 아울러 제12연대는 08.00까지 新院里에 진출하여 敵의 活動妨害 및 企圖探知에 나섰다.

한편 서울強占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敵은 일단 後退한 듯, 처음에는 分隊에서 中隊에 이르는 小規模의 散發的인 抵抗이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我軍이 수색을 擴大하자 3日 午後에 五龍洞 東쪽에서 1개 연대 규모의 敵이 제12연대의 步戰수색대와 부딪쳤으며, 4일에는 新院里 北쪽에서 또한 연대 규모의 敵이 제12연대에 抵抗하였다. 이제 敵은 아직 議政府 地區에서는 中共 제19병단이, 그리고 坡州—高陽郡일대에서는 北共 제1군단이 各各 再編成을 서두르면서 그 일부로서 我軍의 진출을 阻止하는 한편 再攻勢를 企圖하고 있는 것으로 判斷되었다.

따라서 4일 밤에 사단사령부에서는 제12연대에 新院里—五龍洞일대의 敵을 공격토록 명령하였다. 그리하여 主抵抗線의 警戒대대와 交代한 제11, 제15연대의 各 2個 中隊가 新院里및 楓里—獐項里일대로 진출하는 가운데, 5일 아침에 제12연대의 主力은 五龍洞—舟橋里일대로부터 東北方으로 공격을 시작하여 午後에는 敵을 擊退하고 元堂里—龍伏院일대까지 진출하였다가 저녁에는 다시 主抵抗線으로 復歸하였다.

이렇게 敵과의 接觸이 잦아지자 5일에 제8군에서는 美 제1군단에 北共軍에 對한 攻擊을 명령하고 군단에서는 攻擊日을 5월 7일로 잡아 사단에 이를 下達하니 사단에서는 제11, 제15연대를 攻擊梯隊로 삼고 준비에 들어가 먼저 陣地를 交代케 되었다.

그리하여 사단 右一線인 제15연대는 6일 05.00에 제1대대가 磨岩里에 集結하여 車輛으로 水色을 거쳐 舟橋里 東南쪽 國祀峰(△109)東쪽에 진출한 다음 제12연대의 제3대대와 交代하였으며, 佛光里일대의 제3대대는 제12연대의 제1대대와 交代한 다음 10.00에 碌磻里에 集結하여 역시 車輛으로 國祀峰 南쪽으로 진출하였다. 또 葛峴里—龍頭里일대의 제2대대는 제12연대 제2대대에 陣地를 引繼한 다음 徒步行軍으로 水色 北쪽에 集結하였다가 車輛便으로 13.00에 國祀峰 西쪽—花井里일대에 진출하였다. 아울러 연대는 이날 본부를 延禧洞으로부터 麻浦로 옮겼다. 그리고 左一線인 제11연대는 역시 6일 08.00를 期하여 美 제15연대와 交代한 다음, 水色의 제1대대는 大壯里일대로, 望月山의 제3대대는 白陽洞으로, 玄川里의 제2대대는 陵谷일대로 각각 前進하였으며, 12.00에는 연대의 前方指揮所가 陵谷에 설치되었다.

한편 제12연대는 6일 12.00附로 美 제3사단에 配屬되어, 左隣接인 美 제15연대와 함께 佛光里—龍頭里—玄川里일대의 主抵抗線에서 제1사단 主力의 공격을 掩護하게 되었다.

이로써 사단은 美 제3사단이 主抵抗線을 確保한 가운데, 사령부를 西大門에 두고, 제15연대를 右一線 攻擊梯隊로, 제11연대를 左一線 攻擊梯隊로 制限된 공격을 시작케 되었다.

그런데 地形은 서울—汶山 道의 東北쪽이 鷄鴉峰(△622)을 비롯하여 대체로 200m以上의 山岳地帶를 이루고 있는데 反하여, 그 西南쪽은 비교적 平坦한 水田 또는 野山으로 뚜렷한 差異를 보이고 있다. 또 西南쪽에서도 敵이 占據한 地域은 209m의 高峰山과 많은 野山이 자리하여, 사단은 敵이 瞰制하는 地形上의 不利를 안고 싸워야 할 형편이었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 계획

제8군은 서울北方에서 敵과의 接觸이 잦아지고 그 규모가 점차 擴大되자 美 제1군단에 공격명령을 내렸으나 이것이 바로 본격적인 攻勢를 뜻함은 아니었다. 즉 이 공격은 對象과 期間이 制限된 것으로, 서울을 威脅하는 敵에 대한 打擊과 아울러 敵의 企圖를 探知하는데 그 主眼이 있었던 것이니 5月 5日附의 同 作戰命令은 要旨 다음과 같다.

『① 美 제1군단은 可能한 限 早速히 地域內의 北共軍을 공격하여 이를 擊滅하라.

攻擊期間은 2日을 超過하지 못한다.

② 군단장은 다음의 어느 境遇에도 그의 判斷에 따라 攻擊期間이 滿了되기 前에 공격을 中止하고 부대를 現位置로 撤收시킬 수 있다.

(1) 군단 地域內의 北共軍이 豫想보다 微弱할 경우.

(2) 공격부대가 中共軍의 反擊으로 위험에 處할 경우.

③ D日H時는 군단에서 選定하여 報告하라.』

그런데 이때 군단 地域內의 北共 제12군단은 대체로 제1사단 正面에서 跳梁하고 있었다. 따라서 군단장 Milburn소장은 D日H時를 7일 06.00로 잡아 제1사단에 공격을 명령하는 한편, 군단 예비대로 서울南쪽에서 待機中인 美 제3사단으로 하여금 主抵抗線을 防守토록 하여 여기에 제1사단의 예비대, 즉 제12연대(장, 金點坤대령)를 6日 12.00附로 配屬시켰다. (전투 전의 개황 參照)

이렇게 공격부대로 抽出된 사단은 前述한 바와 같이 6일에 攻擊開始線으로 진출하였으며 (前同 參照), 그러한 가운데 사단장 姜文奉준장은 作戰參謀 朴珍錫중령으로 하여금 6日 10.00附로 사단 作戰指示 제51호를 隷下 各隊에 下達케 하니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사단은 軍團命에 依하여 主力으로서 공격을 시작, 北共 제1군단을 捕捉하여 擊滅하

려 한다.

② 제11연대는

㉠ 5月 7日 05.30을 期하여 공격을 開始, 目標 ③까지 계속 占領한 다음 四周防禦에 任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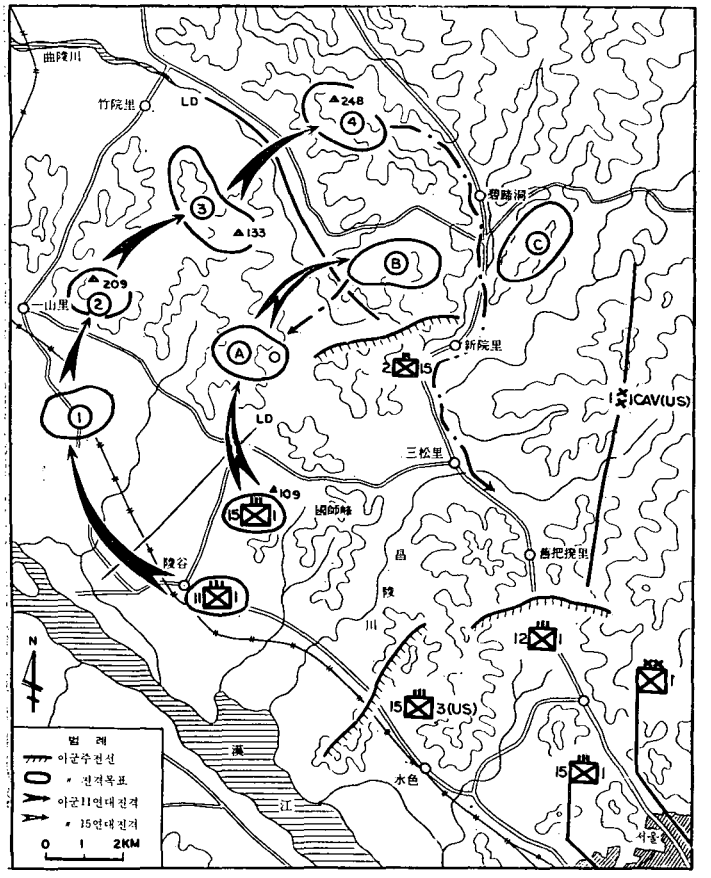
㉡ 5月 8日 05.30을 期하여 7日의 陣地로부터 공격을 開始하여 透明圖와 같이 目標 ④를 占領한 다음, 제15연대의 掩護下에 撤收하라.

③ 제15연대는,

㉠ 5月 7日 05.30을 期하여 공격을 開始, 目標"A"를 占領하고 四周防禦에 任하라.

㉡ 5月 8日 05.30을 期하여 공격을 續開, 제11연대의 目標④ 占領을 助攻하라.

◇ 상황도 제2호 제1사단 作指 제51호 부록



㉢ 目標"B"를 占領한 다음 제11연대의 撤收를 掩護하라.

㉣ 其後에 隨意 撤收하라.

④ ㉠ 사단 野砲隊에 관하여는 口頭로 指示 한다.

㉡ 戰車大隊는 각 연대에 1개 중대씩 分割支援하라.

㉢ 工兵은 각 연대에 1개 중대씩 分割支援하라.

⑤ 其他 指示事項

㉠ 각 연대의 공격은 積極的이어야 한다.

㉡ 各隊는 四周防禦를 徹底히 하며 強力한 前哨를 構成함으로써 敵情探知에 努力하라.

㉢ 各 部隊의 作戰進行狀況은 每時間마다 報告하라.

㉣ 各 聯隊의 前方指揮所는 부대 主力과 行動을 같이 하라.』

이어 사단장은 攻擊目標의 追加 및 예비대 運用에 관하여 同時附로 다음과 같은 追加指示를 下達하였다.

『① 제15연대의 豫備隊인 1개 대대는 5月 7日부터 사단 豫備隊가 된다.

② 제11·제15연대가 目標④ 및 "B"를 각각 攻擊開始하면 사단 예비대(제15연대의 1개 대대)는 現在 位置에서 待機하라.

③ 師團 命令에 依하여 目標"C"를 공격하도록 準備하라.』

여기에 指示된 각 공격 目標는 攻擊命令圖(상황도 제2호)에 表示된 바와 같으니, 제11. 제15연대를 각각 左·右一線 攻擊梯隊로 國祀峰—陵谷일대로부터 鳴鳳山(△248)—高陽里 일대에 이르는 地域에 大·小半徑의 半圓形을 이룬 目標들을 逐次 공격하려는 企圖인 것이다.

이와 같은 사단의 作戰指示가 下達되자, 제15연대장 金安一대령은 新院里 北쪽一元堂里 일대를 사단에서 공격 目標로 指定하지는 않았으나 1개 대대로서 占領토록 한 點을 勘案하여, 이를 연대 目標〔C〕로 指稱하는 한편 사단에서 指定한 목표"C"는 연대 목표〔D〕로 하는 要旨 다음과 같은 연대 作戰指示 제27호 (5.6.14.CC附)를 作戰主任 全九百소령으로 하여금 각 대대에 下達토록 하였다.

『① 연대는 師團命에 依하여 제11연대와 協同하여 當面의 敵을 擊滅하려 한다.

② ㉠ 제1대대는 사단예비대로서 現在 位置에 待機하고 一部로써 野砲大隊의 直接警戒에 任하라.

㉡ 제2대대는 明 7日 05.30을 期하여 目標〔C〕(新院里—元堂里일대)를 攻擊, 占領하고 제3대대의 攻擊을 支援하라.

㉢ 제3대대는 明 7日 05.30을 期하여 目標〔A〕를 攻擊, 占領한 다음 一部의 兵力을 8日의 攻擊開始線까지 前進시켜 敵과의 接觸을 維持케 하고, 8日 05.30을 期하여 目標〔B〕를 攻擊, 占領後 이를 確保하라.

㉣ 師團에서 命令할 경우에 각 대대는 協同하여 目標〔D〕(사단 作指 51호의 "C")를 攻擊할 準備의 萬全을 期하라.

③ 支援部隊는 다음과 같다.

㉠ 砲兵 : 美 제999野砲대대 2個 中隊

美 제176野砲대대 2個 中隊

㉡ 工兵 : A중대

㉢ 戰車 : 美 제73전차대대 1개 중대.』

또한 제11연대장 文亨泰대령은 사단 指示에 따른 ①에서 ④까지의 弧形을 이루는 目標들을 공격키 위하여 各 目標의 要地를 다시 연대의 공격 目標로 細分하여 隷下 각 대대로 하여금 공격토록 할 것을 計劃하였으니, 이날 作戰主任 崔一燦소령에 依하여 下達된 연대 作戰指示 제13호는 要旨 다음과 같다.

『① 師團은 軍團命令에 依하여 當面의 敵 北共 제1군단을 捕捉, 擊滅할 目的으로 透明圖와 같이 弧線上의 諸目標를 逐次 攻擊한다.

(상황도 제 2 호 參照)

② 연대는 當面의 敵을 공격하여 目標①, ②, ③, ④를 奪取한 다음 撤收하려 한다.

③ 제1대대는 目標 E.F.G.H를 奪取한 다음 目標M에 대한 공격을 準備하라. 연대의 左一線으로써 특히 연대의 左側을 掩護하라.

④ 제2대대는 目標 A.B.C를 奪取한 다음 目標N에 대한 공격을 準備하라. 연대의 右一線으로써 攻擊間 右隣接의 제15연대와 連絡을 維持하라.

⑤ 제3대대는 豫備隊로서 陵谷 北쪽에서 待機하다가 一線大隊의 進出에 따라 主로 제1대대를 追隨하라. 攻擊間 연대의 左側 後方을 警戒하라.

⑥ 對戰車砲중대는 陵谷 北쪽에 待機하다가 命令에 따라 進出하라.

⑦ 支援

㉠ 砲兵 제17대대(美 제999野砲대대의 1개 중대 包含)는 연대의 공격을 直接 支援함.

美 제176野砲대대(美 제999野砲대대의 2개 중대 包含)는 要求에 따라 연대를 支援할 수 있음.

㉡ 美 제73戰車대대 B중대는 연대의 공격을 直接 支援함.

㉢ 工兵·航空은 變動없음

⑧ 攻擊間 通信連絡은 SCR 300 및 傳令에 依한다.

⑨ 연대 지휘소는 最初 陵谷에 設置하고 第一線대대의 前進에 따라 五龍洞으로 前進할

豫定이다.』

즉 目標E는 目標①의 西半部인 俗稱 닭발일대이며, A와 F는 각각 ②의 東·西半部인 △73일대 및 高峰山일대로서 사단에서 指定한 目標를 보다 融通性있게 再分하여 각 대대에 指定한 것이다. 目標B와 G는 ②—③의 中間地域에 연대에서 獨自的으로 設定한 것이니, B는 甄達山일대이며 G는 △62일대이다. 다음 C와 H는 ③의 東·西半인 △133와 君子洞일대, N와 M은 ④의 역시 東·西半으로 大慈里 △208일대및 鳴鳳山일대인 것이다.

(2) 작전 실시

5월 7일 : 攻擊 初日인 이날 사단은 執拗한 敵의 抵抗을 制壓하면서 目標를 向한 進擊을 시작하였는데, 특히 左一線은 곳곳에서 敵과 激突한 結果 目標③의 占領을 다음날로 미루게 되었다.

1. 제15연대는 이날 예비대인 제1대대(장, 劉載成중령)를 國祀峰일대에 控置한 가운데, 05.30에 제2대대를 右一線 제3대대를 左一線으로 공격을 시작하여 제3대대는 午前中에 目標"A"를 占領하였으며, 제2대대는 1개 대대 규모의 敵을 擊退한 다음 午後에 이르러 新院里—元堂里일대를 確保하였다.

즉 제2대대(장, 張時雨소령)는 제5중대를 右 第一線, 제6중대를 左 第一線으로 하여 國祀峰 東北方으로 진출하였는데, 이들은 元堂里일대의 高地에서 抵抗하는 대대 규모의 敵과 부딪치게 되었다. 이때에 敵은 특히 제6중대에 射擊을 集中하였으나 대대 重火器중대와 美第999野砲大隊로부터 鐵火의 洗禮를 받아 支離滅裂되어 曲陵川건너 龍伏院쪽으로 潰退하였다. 제5·제6兩중대는 曲陵川 南岸까지 이를 追擊하여 14.00에는 일대의 高地를 確保하였는데, 다시 敵의 反擊에 부딪쳐 砲兵의 支援을 받으며 激戰을 展開한 끝에 이 敵을 擊退한 다음, 17.00에 제5중대는 元堂洞 北쪽 高地일대에, 제6·제7중대는 각각 그 南西 및 東南쪽 高地에 陣地를 占領하였다.

제3대대(장, 金國柱소령)는 國祀峰 南쪽 冷井일대로부터 제10중대를 右 第一線, 제11중대를 左 第一線으로하여 청대洞—內洞일대의 高地에서 抵抗하는 1개 중대 규모의 敵을 擊破하고 07.00까지는 目標"A"를 占領하였다. 그리고 예비대인 제9중대는 上村 △133—甄達山일대로 부터의 敵의 反擊에 對備하여 五龍洞 東쪽으로 攻擊梯隊에 後續하였으나, 제11연대가 砲兵 제17대대의 支援射擊을 받으면서 甄達山을 攻擊하므로 중대는 대대 右端인 △71로 진출하여 警戒態勢를 取하였다.

2. 한편 左一線인 제11연대는 我軍을 瞰制하는 高地를 占據한 敵의 執拗한 抵抗에 부딪쳐서 力鬪끝에 이를 擊破하였으며, 그런만큼 地域的으로 예정된 이날의 공격목표를 모두 占領하지는 못하였다.

연대 右一線인 제2대대(장, 裵斗龍소령)는 07.30에 目標A의 南端 즉 楓里 東쪽의 銅鑛山일대에서 抵抗하는 1개 중대 규모의 敵과 激戰을 치루어 09.30에 이르러 이를 擊退한 다음 前進을 계속하였으나, 다시 △53—△73일대에서 2개 중대 규모의 敵과 부딪쳐 苦戰을 겪게 되었다.

이때에 京義本線 西쪽에서 진격한 제1대대(장, 柳重秀중령)는 △60일대에서 北共 제8사단 수색대로 판단되는 1개 중대 규모의 敵을 擊破함으로써 目標E를 占領한 다음, 右側 제2대대와의 戰鬪地境線上인 俗稱 소개울 일대에서 抵抗하는 대대 규모의 敵을 공격하고 있었다. 대대는 戰車 1개 소대의 支援을 받으면서 이 敵을 곧 擊退하였으나, 敵은 高峰山(△209)으로 後退하여 地形의 利를 차지한 가운데 계속 抵抗을 企圖하였다. 10.00에는 IT 南麓의 敵을 擊破한 다음 突擊을 敢行하기에 이르렀으나 대대의 공격은 가파른 東西의 傾面과 긴 南쪽 稜線을 利用하게 되었고 敵의 抵抗 또한 끈질겼다.

이에 後續하던 제3대대(장, 高林鉉소령)가 戰車소대와 함께 10.40에 △60北端으로 진출하여 支援射擊을 加하였는데, 14.45에는 高峰山 西쪽(一山 東쪽)으로 일부의 敵이 反擊을 꾀하기도 하였으나 연대 수색대 및 대대 右側의 일부가 擊退하였다.

이렇게 5時間餘에 걸친 攻防끝에 15.15에는 空軍 戰鬪機의 支援下에 步戰砲의 協同으로 일제히 공격을 敢行하여, 드디어 △209頂上을 奪還함으로써 目標F를 確保케 되었다.

이 무렵 高峰山 東南쪽 △73 —△53일대에서 제2대대에 抵抗을 계속하던 敵도 제1대대의 高峰山 攻擊에 動搖되어 16.00에는 砲兵火力의 集中 支援을 받는 제2대대의 공격에 밀리는 바 되어 甄達山쪽으로 退却하고 말았다. 곧 이어 △73 北쪽으로는 대대 규모의 敵이 逆襲하였으나 제2대대의 集中射擊으로 退却하였으며, 대대는 다시 目標B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어둡기 전에 甄達山으로 진출한 대대는 砲兵의 支援射擊을 받으면서 突擊을 敢行하여 21.00에는 甄達山(△135)을 奪取한 다음, △135일대에 제6중대를 그 西쪽 來洞에 이르는 稜線에 제5·제7중대를 各各 配置하여 敵의 夜襲에 對備하였다.

또한 제1대대는 더 나아가 目標G까지 진출하였으나 北西쪽 德耳里의 黃龍山(△136)일대

에서도 대대 규모에 達하는 敵이 反擊의 機會를 노리고 있는 만큼 右側의 제2대대와 步調를 맞추어, 高峰山일대에서 夜間配備에 들어 갔다. 즉 소개울 △60일대에 제3중대를, 高峰山 東麓에 제1중대를, 그 北麓에 제2중대를 각각 配置한 것이다.

아울러 제3대대는 一山里 北쪽一德耳里일대의 敵에 對備하여 제10·제11兩중대를 一山里 東쪽과 西쪽에 配置하였는데, 23.30에는 黃龍山쪽에서 交戰中이던 연대 수색대가 一山으로 撤收하기 시작하자 敵은 이를 뒤따라 一山 北쪽 1.5km까지 南下하였다.

5월 8일 : 사단 左一線인 제11연대가 전날에 미처 占領하지 못한 目標③에 이어 저녁 늦게까지 目標④에 진출함으로써, 이날 사단은 負荷된 任務를 모두 遂行하였다.

1. 먼저 右一線인 제15연대는 연대 左一線인 제3대대(장, 金國柱소령)가 目標"B"에 진출함으로써 사단의 作戰指示(제51호)에 따르는 地域을 일단 確保한 다음, 다시 명령이 있을 경우 目標"C"(연대의 〔D〕)를 공격할 준비를 갖추었다.

즉 제2대대(장, 張時雨소령)가 午後에 東쪽으로 曲陵川을 건너, 제7중대가 龍伏院으로 대대 主力이 新院里 北쪽으로 진출함과 아울러, 午前에 공격을 시작한 제3대대도 午後에는 大慈里일대를 確保하였다.

제3대대는 이날도 제9중대를 예비로, 제10·제11兩중대를 攻擊梯隊로하여 공격을 시작하였으니, 제10중대는 右第一線으로 13.00에 曲陵川을 건너 13.30에는 1개 중대 규모의 敵을 擊退하고 官山里 東北쪽 △148일대를 奪還하였는데, 이때에 그 北峰을 攻擊하던 제11중대는 官山里 北쪽으로 上大慈里까지 진출한 제9중대와의 挾攻으로 15.00가 되기 前에 중대 규모의 敵을 擊退할 수 있었다. 이렇게 官山里 北東쪽 일대를 確保한 대대는 제9중대가 △148 北峰에 陣地를 構築한 가운데 下大慈里 마을을 지나 東쪽의 △188일대를 계속 공격하였다. 14.00에 공격을 시작한 제10중대는 15.00가 넘자 그 南麓에 이르러 10餘分에 걸친 交戰끝에 敵을 擊退한 다음 15.30에는 高地일대를 確保하였으며, 조금 늦게 △188 北峰을 공격한 제11중대도 15.40에는 중대 규모의 敵을 擊退하였다. 아울러 舟橋里로부터 점차 北進한 重火器중대도 16.30에 官山里에 진출함으로써 대대는 目標"B"를 確保하기에 이르러 東쪽으로 高陽里를 制壓하게 되었다.

2. 한편 제11연대는 지난밤에 黃龍山으로부터 撤收한 수색대를 00.30에 一山 西쪽에 配置하고, 뒤 쫓아 南下한 敵에게 砲擊을 集中함으로써 02.00에는 이를 擊退한 다음 未明에 다시 공격에 나섰다. 그리하여 午前中에 目標③을 占領하고 午後에는 目標④까지 진출하여 전날의 蹉跌을 一擧에 挽回하였다.

연대 右一線인 제2대대는 05.30에 甄達山일대로부터 제5·제6·제7중대를 右第一線, 中央第一線, 左第一線으로 하여 진격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제6중대(장, 安昌健대위)는 10.00前에 1개 중대 규모의 敵을 擊破하고 △133를 奪還하였으며, 제7중대(장, 高寅植대위)는 그 西쪽 제1대대와의 戰鬪地境인 △55일대에서 抵抗하는 1개 중대 규모의 敵을 擊破한 다음 芝英里 南쪽 下村일대로 진출함으로써 대대는 11.30까지 연대의 目標C를 確保케 되었다. 그러나 이로부터 目標④의 右端, 즉 연대의 目標N에 대한 공격은 奈遊里일대의 瞰制高地를 차지한 敵의 抵抗으로 말미암아 如意치 못하였다.

이무렵 연대 左一線인 제1대대도 君子洞一竹院里일대에 진출하여 目標④의 左端, 즉 鳴鳳山(△248)일대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대대는 이날 04.00에 高峰山 北麓의 제2중대 正面으로 1개 중대 규모의 敵이 逆襲하여 山허리까지 물러났다가 날이 샐 무렵에 砲兵의 支援下에 敵을 擊退한 다음, 공격을 계속하여 10.00에는 雪門里 南쪽에서 抵抗하는 1개 중대 규모의 敵을 擊破하고 主力은 11.40에 연대 目標H, 즉 君子洞일대까지 진출하는 한편 제2중대(장, 金日哲중위)는 12.30에 竹院里 北쪽 曲陵川 南岸까지 진출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奉日川 北쪽 및 金村 東쪽 일대의 高地로부터 敵의 射擊이 集中되고 鳴鳳山일대의 敵도 그 火力을 總發揮하니 대대의 공격이 역시 膠着되었다.

이와같은 狀況을 打開코자 연대장 文亨泰대령은 예비대인 제3대대를 竹院里일대에 진출토록 하는 한편 제1·제2兩대대를 目標④의 奪取에 專力케 하였다. 이에 따라 제3대대(장 高林鉉소령)는 14.20에 戰車隊와 함께 竹院里로 진출하여 奉日川一金村쪽의 敵에 대하여 射擊을 加함으로써 鳴鳳山일대의 敵과 서로 策應치 못하도록 牽制하였다.

아울러 제1대대장 柳重秀중령은 예비인 제3중대를 공격대로 내세우기로 決心한 다음, 右側의 제7중대와 協同攻擊할 것에 제2대대 장 裵斗龍소령과 合議하였다. 그리하여 兩중대는 19.30에 砲兵및 戰車의 支援을 받으면서 攻擊을 敢行한 끝에 제7중대는 鳴鳳山의 中間 △200일대를 占領하였으며, 제3중대(장, 崔鎭根대위)는 그 西쪽의 頂上인 △248일대를 掌握하였다.

이로서 연대는 目標④를 確保하게 되었는데, 제2대대는 14.30에 제6중대가 大慈里 北쪽 △209에, 제5중대(장, 金鍾九대위)는 그 西南麓에 各各 진출함으로써 20.00現在 △209—△200일대에서 夜間配備에 들어갔으며, 또한 제1대대는 20.00에 제1중대(장, 朴春光대위)가 △248西麓에 진출하고 제2중대가 曲陵川 堤防을 타고 東쪽 △248 南西麓으로 移動함으로써 鳴鳳山의 西半部를 掌握하였다.

3. 이제 當初에 計劃된 2日間의 공격도 거의 마무리 될 단계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이날 밤 늦게 사단장 姜文奉준장은 각 연대장에게 다음날에도 공격을 계속토록 命令하였으니, 이는 군단 및 사단사령부의 狀況判斷에 따라 敵을 보다 北쪽으로 驅逐하고 地形上 보다 有利한 地域을 確保함과 아울러 戰果의 擴大를 目的으로 한 것으로, 이날 21.00附로 示達된 사단 作戰指示 제53호는 要旨 다음과 같다.

『① 사단은 軍團命令에 依하여 透明圖(1)과 같이 攻擊을 계속하여 汶山川 南岸 東巨里—金村里 線을 確保하려 한다. (透明圖(1) : 右隣接인 美 제1기갑사단과는 高陽—朴達山(△369)—錦屛山(△293)—法院里 線을 戰鬪境界로 하고, 사단 地域內에서는 奉日川 東쪽—東巨里 東쪽을 連하는 線을 연대 戰鬪境界로 한다. 攻擊目標는 東巨里를 中心으로 한 汾水里—汶山川 南岸 일대, 右一線인 제15연대는 現陣地로부터 北으로 直進, 左一線인 제11연대는 西北方으로 迂回하여 金村里—東巨里로 진격.)

② 제11연대는

㉠ 明 5월 9일 05.30을 期하여 攻擊을 시작하여 연대主力으로써 透明圖(1)과 같이 迂回하면서 敵을 捕捉 擊滅하라.

㉡ 연대 右一線대대는 제15연대가 超越하면 撤收하여 연대예비대가 되라.

㉢ 目標를 攻擊하여 奪還한 다음, 透明圖(2)와 같이 陣地를 占領하고 敵情을 搜索하라.

(透明圖(2) : 奉日川里—都內里를 境界로 제15연대는 東쪽에서 東巨里를 中心한 倉滿里—新山里—내화山일대 및 그 南쪽 鳴鳳山—汾水里 間의 陽地洞—△132일대.

제11연대는 西쪽 英太里—屯田洞—金村里—衙洞里일대 및 그 南쪽 曲陵川 南岸의 雪門里일대.)

③ 제15연대는

㉠ 明 5월 9일 05.30을 期하여 攻擊을 시작하여 연대主力으로써 敵을 捕捉擊滅하라.

㉡ 사단 예비대(1개 대대=즉 제1대대)를 明 5월 9일 09.00까지 奉日川 西南方 (雪門里 北쪽)에 集結시키라. (自隊車輛使用).

㉢ 攻擊部隊의 先頭가 제11연대 右一線대대를 超越할 때에는 그 대대에 連絡하여 撤收토록 하라.

㉣ 目標를 攻擊하여 奪還한 다음, 透明圖(2)와 같이 陣地를 占領하고 敵情을 搜索하라.

④ 砲兵·戰車·工兵은 계속 각 一線 연대를 支援한다.

⑤ 其他 指示事項

㉠ 각 연대는 四周 警戒 및 遠距離 捜索을 徹底히 하라.

㉡ 各隊는 爆撃線(法院里—汶山 南쪽)을 越北하지 말라.

㉢ 攻撃開始時까지는 無電使用을 禁한다.

㉣ 각 연대의 指揮所는 現在 位置에 두되, 前方指揮所를 設置하며 사단과의 報告·連絡은 現位置의 指揮所에서 實施하라.』

5월 9일 : 사단의 작전지시를 받은 각 연대는 밤새 연대의 공격명령을 立案하여 이날 새벽에 각기 隷下隊에 下達하였는데 03.00附로된 제15연대 作戰指示 제29호는 要旨 다음과 같다.

『① 연대는 師團 命令에 依하여 透明圖와 같이 攻撃을 계속, 東巨里 北쪽 汶山川 南岸 일대를 確保하려 한다.

◇ 상황도 제3호 제15연대 作指제29호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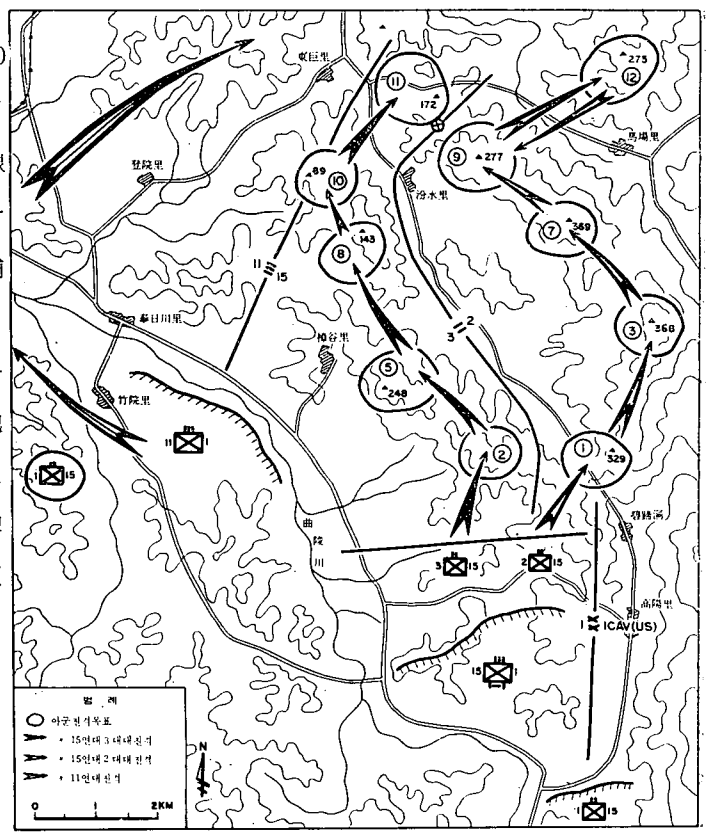
② 제2대대는

㉠ 明 5월 9일 05.30을 期하여 攻撃을 시작하여 연대 右一線으로써 透明圖와 같이 공격하여 敵을 捕捉 撃滅하라.

㉡ 目標를 奪還한 다음 사창洞 南쪽 高地—斗滿洞일대에 陣地를 占領하고 四周防禦를 하는 同時에 遠距離수색隊를 派遣하라.

③ 제3대대는

㉠ 明 5월 9일 05.30을 期하여 연대 左一



線으로써 透明圖와 같이 공격하여 敵을 捕捉擊滅하라.

㉡ 目標 奪還後 萬丈山—외화山—내화山(△151)일대에 陣地를 占領하고 四周防禦하는 同時에 遠距離수색隊을 派遣하라.

④ 사단 예비대인 제1대대는 明 9日 09.00까지 奉日川 西南方 雪門里부근에 集結하라. 輸送은 연대에서 擔當하고 細部는 口頭下達한다.』

(透明圖 : 상황도 제3호 參照)

1. 이에 따라 제2대대는 제6·제7兩중대를 攻擊梯隊로 高陽里를 거쳐 08.00에는 碧蹄洞北쪽 惠陰嶺으로 진출하여 分隊 규모의 敵을 一蹴하고 △329를 奪取하였으며, 다시 그 北쪽 1km의 340 稜線일대에서 抵抗하는 소대 규모의 敵을 擊退한 다음 14.00에 大古靈(△368) 北麓까지 진출하였다. 여기에서 대대는 1개 대대 규모의 中共軍과 부딪쳤으니 제6중대가 高地를 모두 掌握하지 못한 채로 東쪽 斜面으로부터의 敵의 反擊으로 苦戰케 되자, 곧 예비대인 제5중대가 그 南쪽으로 진출하여 제6중대를 支援하였으나 我軍이 오히려 守勢에 몰리는 形勢였다. 이에 그 北쪽의 朴達山(△369)으로 진격중인 제7중대도 1개 소대로써 △369를 確保케 하는 가운데 主力은 △368 北麓으로 轉進하여 敵과 激突을 거듭하였으나 17.00가 넘도록 敵은 물러나지 않았다.

그리고 연대 左一線인 제3대대는 이날 06.30에 高陽 西쪽의 △188일대로부터 공격을 시작하여 16.30에는 目標⑩의 △89—目標⑧의 汾水里 南쪽까지 진출하였다. 즉 右側인 제11중대는 09.30에 △218일대를 占領한 다음 11.00에 鳴鳳山(△248) 東麓을 거쳐 16.30에는 汾水里 南쪽의 △163일대에서 我軍의 진격을 阻止하려는 대대 규모의 敵과 交戰中이었으며, 左側인 제9중대는 08.40에 1개 중대 규모의 敵을 擊退하여 △209를 奪還한 다음 目標⑤인 △248과 目標⑧인 隱谷 △132—△143일대를 거쳐 16.00에는 目標⑩인 천지산 東쪽의 △89를 確保하였다. 또한 이보다 늦게 07.30에 主力의 東쪽으로부터 前進한 제10중대는 △244—△218北쪽으로 진출한 다음 內山쪽으로 西進하여 16.30까지는 중대 규모인 敵의 抵抗을 물리치고 隱谷 西北쪽인 속칭 텃골일대를 占領하고, 重火器중대도 14.30에 獐谷里일대로 진출하였다.

이와같이 연대가 진격함에 따라 敵의 일부는 抵抗을 계속하였으나 그 主力은 北으로 退走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날 15.30에는 이미 제11연대가 最終目標인 東巨里—내화山(△151)일대에 진출하여 이 敵을 挾擊하였다.

2. 이날 02.00에 제11연대장 文亨泰대령은 要旨 다음과 같은 공격명령을 예하 各隊에

下達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대대는 제15연대 正面으로부터 後退하는 敵을 截斷하여 擊滅키 위하여 東巨里—金村里일대로 진출케 된 것이다.

『① 제2대대는 05.30에 제1대대를 超越공격하라. ＃A를 奪取한 다음 ＃J·K를 공격하여 敵의 退路를 遮斷하라.

② 제3대대는 제2대대가 ＃B에 到達함과 아울러 前進을 시작하여 ＃B를 超過하여 ＃C를 공격하고 東巨里 北쪽 고지에 진출한 다음 敵의 退路를 遮斷하라.

③ 제1대대는 現陣地에서 掩護部隊로서 제2대대의 ＃A 공격을 支援한 다음 제15연대가 該線에 到達하면 ＃B로 前進하면서 主로 연대 左側方을 防守하라. 이와 同時에 一部로서 ＃H및 I의 敵을 擊碎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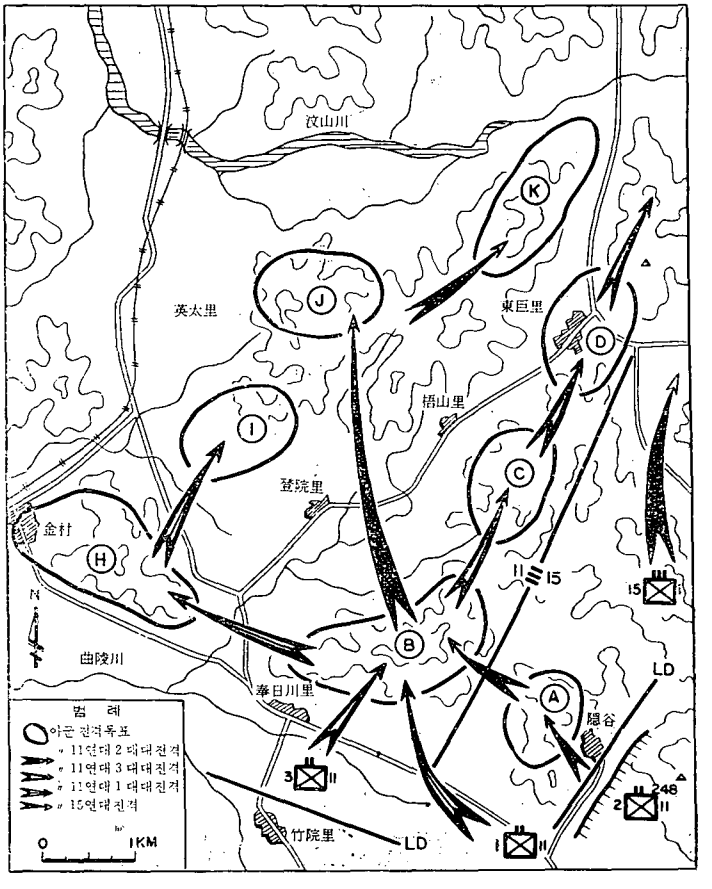
④ 戰車隊는 最初 透明圖와 같이 竹院里 西南方에서 主로 ＃H에 射擊을 集中한다.』

(透明圖, ＃A～D·H～K : 상황도 제 4 호 參照)

이로서 연대는 제2·제3대대가 奉日川里 東南및 西南兩面에서 서로 直角을 이룬 가운데 공격을 시작하여 제2대대는 西北方으로 迂回하고 제3대대는 東北方으로 直進케 되었다.

그리하여 제2대대(장, 裵斗龍소령)는 먼저 05.30에 鳴鳳山 西北麓의 제1대대 掩護線을 超越하여 09.30에 그 西北方인 樟谷里 西쪽일대의 高地에서 抵抗하는 중대 규모의 敵을 擊破함으로서 ＃A를 奪取한 다음, ＃B를 直衝하였는데 이 奉日川里일대에서는 대대 규모의 敵이 아직도 버티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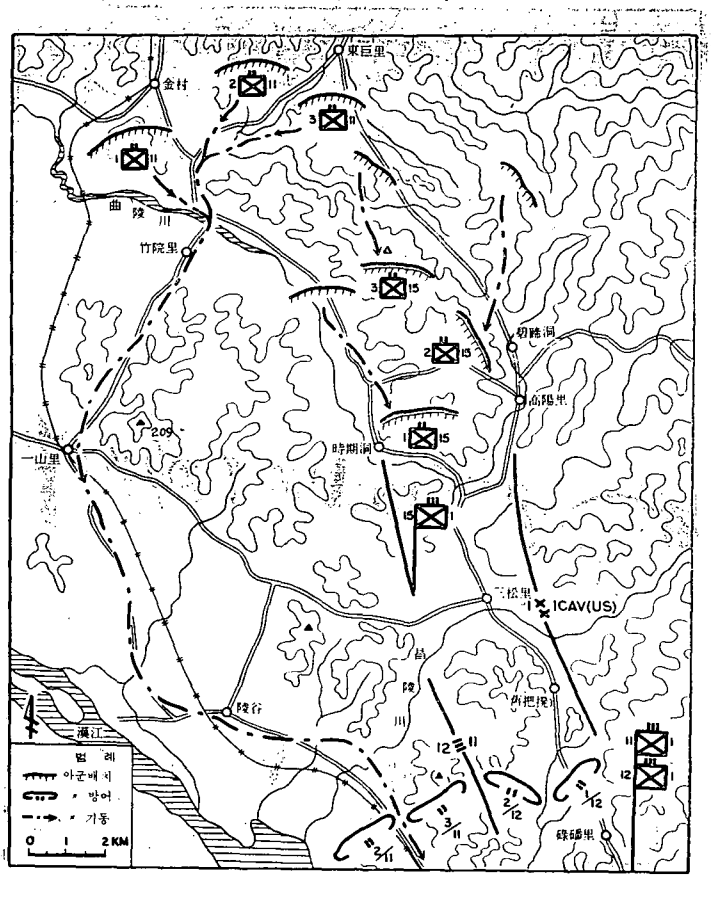
◇ 상황도 제4호 제11연대공격 명령



었다. 이에 대대는 제6중대(장, 安昌健대위)를 右 第一線, 제5중대(장, 金鍾九대위)를 左 第一線으로서 奉日川里 東南쪽 高地를 공격하여 敵의 左側을 突破하고 속칭 조산말을 거쳐 계속 前進하였다. 이로서 연대 左一線이 된 대대는 14.15에 爲造里일대에서 逆襲하는 중대 규모의 敵을 擊退하고 15.00까지 梧山里一都內里일대를 占領하였는데, 이때에 西쪽의 杜門洞一英太里로부터 다른 일부의 敵이 대대에 射擊을 指向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곧 砲兵및 戰車에 依하여 制壓되었다. 이제 사단 最前線에 나서서 東南方으로부터 退却하는 敵을 맡게 된 대대는 15.30에 제6중대를 #K인 내화山(△151)일대로 前進케 함으로써 敵의 退路遮斷및 捕捉擊滅에 더욱 박차를 加하고 있었다.

한편 제3대대(장, 高林鉉소령)는 #A를 奪取한 제2대대와 呼應하여 奉日川里일대의 敵을 擊破하고 10.00에 조산말(속칭)을 거쳐 연대 右一線으로서 13.00에는 천지山일대에 진출하였다. 대대는 계속 敵을 追擊하여 15.15에 #D인 東巨里일대를 占領한 다음 退走하는 敵을 捕捉하기 위한 擊滅戰을 시작하였으며, 15.30에는 제10중대(장, 曹正哲대위)가 北쪽으로 萬丈山일대까지 追擊하여 敵에게 鐵火를 퍼부었다.

◇ 상황도 제5호 高陽一奉日川里一東巨里 전투(5.9)



또한 예비대인 제1대대(장, 柳重秀중령)는 제15연대 제3대대의 진출에 따라 11.30에 前進을 시작하여 奉日川里를 거쳐 15.00에는 1개 중대 규모의 敵을 擊退한 다음 主力은 金村里일대를 占領하고, 제3중대(장, 崔鎭根대위)는 杜門洞까지 진출하여 京義線 越便 西北方으로부터의 敵襲에 對備하고 있었다.

3. 이와같이 제15연대가 예정된 目標⑨와 ⑪, ⑫를 남겨둔채로 追擊을 계속하고, 또한 제11연대가 이미 그 西北方에 진출하여 退走하는 敵을 挾擊하고 있을때에 사단사령부에서는 제11연대의 撤收를 명령하였으니 이날 15.00附의 사단 作戰指示 제54호는 要旨 다음과 같다.

『① 사단은 군단 명령에 依하여 1개 연대로서 사단 前進陣地를 占領한 다음 敵情을 捜索케하고 1개 연대는 主抵抗線으로 隨意復歸케 하려 한다.

② 제11연대

㉠ 今 9日 H時를 期하여 現在 位置에서 隨意撤收하여 水色부근에 集結하라.

㉡ 5月 10日 13.00를 期하여 美 제15연대와 交代하라.

㉢ 당연대의 撤收는 車輛을 利用하라. 사단에서 2個 大隊分의 車輛(55台)을 支援한다.』

③ 제12연대는 明 10日 13.00를 期하여 美 제3사단의 指揮로부터 사단으로 復歸한다.

④ 제15연대

㉠ 今 9日 H時를 期하여 鳴鳳山—大慈里—△188 및 官山里일대에 陣地를 占領하라.

㉡ 陣地를 占領한 後 四周警戒및 防禦를 施行하라.

⑤ 사단 砲兵은 각 연대를 계속 支援하라.

제15연대 支援砲兵은 別途 指示한다.

⑥ 제73戰車대대는 각 연대에 1개 중대규모로 支援한다.

⑦ 사단 工兵대대는 각 연대에 1개 중대 규모로 支援하라.

⑧ 細部指示事項

㉠ 각 연대는 遠距離捜索을 徹底히 하라.

㉡ 爆擊線을 越北함을 禁한다.』

사단은 이제 제15연대로써 보다 推進된 聯隊級의 前進陣地를 設定하는 가운데 일단 戰鬪를 終結하고 서울 西北方의 主抵抗線으로 復歸코자 하는 것이다.

4. 따라서 제15연대장 金安一대령은 이날 16.00附로 前進陣地 占領을 위한 연대 作戰指示 제30호를 下達하니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연대는 師團 命令에 依하여 사단 前進陣地를 占領하고 敵情을 捜索하려 한다.

② 제1대대는 9日 H時를 期하여 官山里일대의 陣地를 占領하는 同時에 연대예비대가 되어 第17野砲隊의 直接警備에 任하라.

③ 제2대대는 9日 H時를 期하여 大慈里일대 (高陽 西側 △188일대)의 陣地를 占領하고 北및 東方에 대한 敵情을 搜索하라.

④ 제3대대는 左隣接 제11연대가 現戰線으로부터 撤收하면 嘯鳳山일대의 陣地를 占領하고 北및 西方에 對한 敵情을 搜索하라.

⑤ 砲兵 제17대대는 연대 正面을 直接 支援한다.

美 제999野砲대대 1개 중대가 연대를 支援한다.

⑥ 日沒後에는 必要不可缺한 車輛以外에는 主抵抗線 北方에서의 運行을 禁한다.

車輛運行時의 地雷接觸을 極力豫防하라.

⑦ 제1대대의 移動은 自動車 輸送으로 하며 細部는 口頭下達한다.

⑧ 연대 指揮所는 9日 18.00以後 官山里에 設置한다.』

H時는 곧 이날 20.00로 下命되었다.

그리하여 △368일대에서 喇叭을 불며 계속 突擊하는 敵과 激鬪中이던 제2대대(장, 張時雨소령)는 17.30에 隨意撤收를 시작하여 20.00에 大慈里에 이르렀는데, 21.00까지는 △188를 中心으로 그 東北및 西麓에 제6·제5兩중대를 鱗次로 配置하고 東南麓에 제7중대를 配置함으로써 四周防禦의 態勢를 갖추었다. 아울러 重火器중대의 迫擊砲를 高地 西쪽에 配置한 가운데, 小隊一分隊규모로서 高陽 南北쪽一△244부근一上·下大慈里를 連하는 線上의 警戒를 擔當하였다.

그리고 제3대대(장, 金國柱소령)는 18.00에서 18.30사이에 各 中隊別로 撤收를 시작하였으니, 제10중대가 먼저 △85일대로부터 △248로 撤收한데 이어 제11중대는 汾水里 南쪽으로부터 20.00에 惠陰嶺에 이르러 陣地를 占領하였으며, 제9중대는 가장 늦게 △89일대에서 他 中隊의 撤收를 掩護하다가 20.00에 △248 北麓에 이르러 陣地를 占領하였다. 重火器중대는 보다 앞서 16.30에 內上里에 配置되니, 이로서 대대는 嘯鳳山일대를 確保하기에 이르렀다.

5. 한편 제11연대는 16.00에 사단의 명령을 받자 17.00부터 隨意撤收를 시작하도록 16.30에 각 대대에 명령을 下達하였다. 그리하여 제3대대가 掩護하는 가운데 제2대대가 먼저 登院里에 集結하고 이어 제1대대가 그 東쪽 조산말附近에 集結하였다. 兩대대는 다시 曲陵川을 건너 南으로 黃龍山 東쪽 청석궁일대로 移動하기 시작하였으며, 제3대대도

이어 金陵里일대에 集結한 다음 이곳을 向하니, 20.00까지는 全 聯隊가 黃龍山 東쪽에 集結을 完了하였다. 연대는 여기에서부터 自動車로 機動을 시작하였는데 21.30에는 掩護하던 戰車도 隊列의 後尾에 이어 撤收를 始作하여 一山—陵谷을 거쳐 22.40에 이르러 모두 水色에 集結完了 하였으니 이로서 사단은 3日間에 걸친 北共 제1군단 擊滅戰을 끝내고 보다 有利한 前進陣地를 確保하여 앞으로의 北進을 期約하게 된 것이다.

라. 전투 후의 개황

사단은 北共 제1군단에 대한 擊滅戰을 끝내고 다시 서울 西北쪽 Golden線上의 主陣地로 復歸하였으니 9日 밤에 水色으로 撤收한 제11연대가 10日 午後에 美 제15연대와 交代하여 龍頭里—德隱里일대인 旣往의 陣地를 引受하였으며, 제12연대도 美 제3사단으로부터 配屬이 解除되어 原隊復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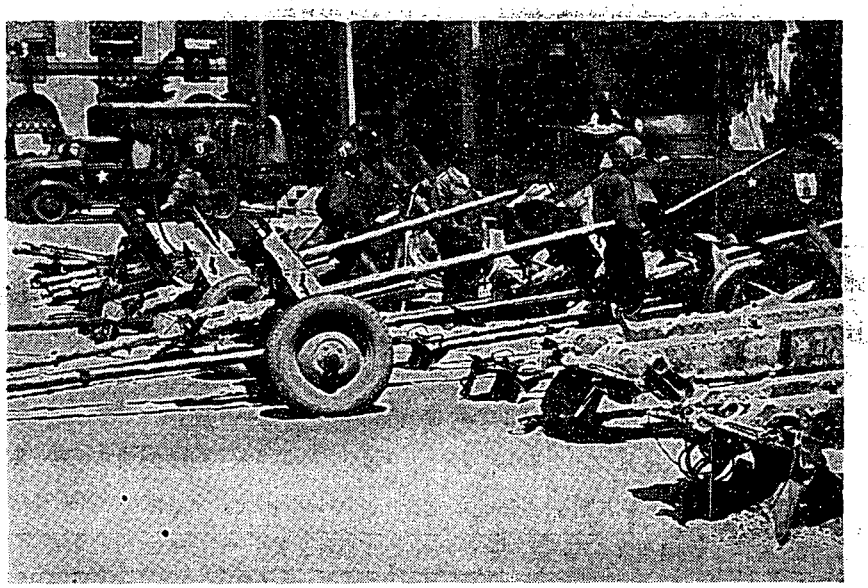
그리하여 右一線인 제12연대는 指揮所를 新村에 두고 연대 右一線인 제1대대가 佛光里—葛峴里일대, 左一線인 제2대대가 葛峴里—龍頭里일대의 陣地를 確保中이었다. 그리고 사단 左一線인 제11연대는 指揮所를 新村驛부근으로 옮긴 가운데 연대 右一線인 제3대대가 望月山일대에, 左一線인 제2대대가 大德山 北麓일대에 各各 陣地를 占領하고 前方에는 제11중대(장, 金奉健대위)를 國祀峰(△109)일대에, 제6중대(장, 安昌健대위)를 陵谷일대에 각각 配置하였으며 제1대대는 예비대로서 水色에 待機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사단은 제11·제12兩연대로써 主抵抗線을, 제15연대로써 前進陣地를 確保한 가운데 다시 搜索戰을 계속하였으니, 作戰報告에 依하면 11日中에 각 수색대는 近百名의 敵을 射殺 및 捕虜하는 戰果를 올렸다. 즉 사단 수색중대(장, 崔熙燮대위)는 堂下里로부터 曲陵川을 건너 月籠山부근까지 진출하여 2개 중대 규모의 敵과 交戰끝에 射殺35명, 捕虜 2명의 戰果를 거두었고, 제15연대의 수색대는 登院里에서 중대 규모의 敵과 交戰하여 射殺 25명, 捕虜 7명의 戰果를 올렸으며, 그밖에도 일부 수색대가 梧山里, 樓峴 北쪽등에서 都合 射殺 25명, 捕虜 2명의 戰果를 거두었다. 특히 12日에 제15연대는 作戰指示 제31호(5.11.23.00附)로서 제1대대로 하여금 威力搜索을 實施케 한 바, 대대는 06.00에 時期洞에 集結하여 美 제73戰車대대 C중대와의 協同으로 09.00에 제3대대의 陣地를 지나 隱谷 東쪽인 鳴鳳山 北端으로부터 東巨里일대로 공격을 시작하였다. 대대는 제3중대(장, 鄭亨澤대위)를 右一線, 제1중대(장, 崔永植대위)를 左一線으로 각각 萬丈山과 △151(내화山)를 공격케 하고 제2중대(장, 田炳瑞대위)는 戰車및 後方을 警戒토록 하였는데, 공격 중대는 1시간의 射擊戰끝에 2개 중대 규모의 敵을 擊破하고 14.15에 兩 高地를 占領하였다가. 18.30에 다시 官山里로 復歸하였다.

그런데 다음날인 13日에 제15연대는 陣地를 變更하여 제1·제3 兩대대를 새로이 配置하였다. 즉

제3대대는 鳴鳳山(△248) 일대로부터 제2대대(△188) 西쪽인 官山里일대로 移動하여 主力은 △148일대에 陣地를 占領하고 제10중대는 대대 前方인 楮谷里 南쪽에 配置하였다. 그리고 官山里의 제1대대는 다시 西쪽으로 옮겨 청대동에서 五龍洞 北方에 이르는 甄達山 東南方일대에 陣地를 占領하였으며 제2중대는 甄達山 西北方인 馬洞일대로 推進 配置하였다. 이로서 연대는 제2대대가 右一線, 제3대대가 中央第一線, 제1대대가 左一線으로 前進陣地를 보다 西쪽으로 擴張하여 사단 主抵抗線의 掩護에 任하게 되었다.

한편 各級 搜索隊는 계속 東巨里一金村里일대에서 搜索活動中이었으니, 13日에 사단 수색중대를



<제1사단 CP에서 展示中인 鹵獲武器들>

비롯한 각 연대 수색대는 萬丈山일대 및 登院里일대를 수색하고, 14日에는 東巨里一金村一場基里에 各各 진출하였는데, 東巨里一金村에서는 중대 乃至 대대 규모의 敵과 激突키도 하였다.

이와같이 敵과의 接觸을 維持하는 한편, 사단은 이미 11日附로 각 연대에 새로운 作戰命令을 下達하였으니, 이는 다시 臨津江線으로 진격하려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부대는 이제 攻擊日字의 下達만을 기다리면서 待機態勢로 戰雲을 바라보고 있었다.

戰 果

射 殺	2,372명	重機關銃	8정 (파괴 15)
捕 虜	250명	迫 擊 砲	4문 (파괴 10)
投 降 (鹵獲)	1명	野 砲	8문 (파괴 4)
小 銃	285정	戰 車	(파괴) 1대
輕機關銃	21정 (파괴 1)		

損 失

戰 死	56명	M1 小銃	3정
負 傷	243명	M1 帶劍	34정
行方不明	3명	CAR 〃	7정

註

(1) 제11·제15 兩연대의 戰鬪詳報에 依據하였음.
(2) 射殺의 경우, 定期 作戰報告에 依하면 사단 綜合戰果가 3237명으로 되어 있음.
(3) 負傷의 경우, 사단 醫務隊의 統計에 依하면 7~9의 3日間의 사단 全體 戰傷者數는 396명임.
(4) 兵器損失은 제11연대分 뿐임.

§. 研 究

5月 5日附의 제8軍命令에서는 먼저 『地域內의 北共軍을 공격하여 이를 擊滅하라』고 大號하여 놓고 2日을 超過하지 말것이라고 못박은 다음

1. 敵이 豫想보다도 弱할 때
2. 敵의 反擊으로 危險에 處할때

위의 두가지 경우에는 隨意退却하라고 命令하고 있으니 이해하기 어려운 變則命令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敵이 弱하여도 退却할것이며 強하여도 退却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擊滅을 要求하고있으니 戰理上으로 말한다면 『同等한 敵만을 골라서 2日間 以內에 擊滅하라』는 것이므로 알맞는 敵만을 찾아가면서 作戰을 指揮하라는 말인가? 一旦 下達되는 命令은 끝까지 實行을 強要하는 權威가 있어야 하고 이것을 違反할때에는 軍令으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實行可能을 根底로 한 制限攻擊을 命令할 것인즉 例컨대

1. 超越할 수 없는 攻擊進出線을 劃定하여 制限攻擊케 하는 方式
2. 使用할 兵力量을 限定하고 攻擊하여 到達할 目標를 規制하는 方式
3. 第一次進出線과 第二次以後의 推進線을 事前統制하는 方式
4. 制限目標와 進出限界線을 規定하고 包圍와 突破 迂回와 遮斷등 運用上의 融通性을 附與하는 方式
5. 進退와 攻防의 自由를 附與하는 遊擊戰的인 方式
6. 制限目標에대한 威力搜索의 強行을 要求하는 方式
7. 砲兵에 依한 火力占領을 重視하는 方式
8. 機甲에 依한 奇襲을 主眼으로하는 方式
9. 上記의 여러가지를 彼此混用하는 方式 등으로 適宜規制하여야 할것이다.

또 事前에 撤退할 것을 明確히 要求하고 命令까지 한다면 擊滅戰 遂行에 有害無益하기만 할것이니 上意下達에 있어서 不適當한 命令의 一例라고 할 것이다.

5. 海兵隊의 華川附近 戰鬪 (1951년 4월 10일부터 1951년 6월 1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 8 호
상 황 도 제 6 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해병제 1 연대	장 대령	金 聖 恩	
	대령	金 大 植	
	(1951년 5월 11일 교대)		
제 1 대대	장 소령	孔 正 植	
제 1 중대	장 중위	李 西 根	
제 2 중대	장 중위	李 應 德	
제 3 중대	장 중위	姜 勇	
화기중대	장 중위	李 哄 均	
제 2 대대	장 소령	尹 永 俊	
제 5 중대	장 중위	金 聲 大	
	중위	趙 容 銀	
		(1951년 4월 29일 교대)	
제 6 중대	장 중위	鄭 奉 翊	
제 7 중대	장 중위	朴 正 模	
화기중대	장 중위	李 元 坰	
제 3 대대	장 소령	金 龍 國	
	소령	金 潤 根	
	(1951년 5월 15일 교대)		
제 9 중대	장 중위	姜 福 求	
제10중대	장 중위	李 東 星	
제11중대	장 중위	朴 建 燮	
화기중대	장 중위	林 東 根	

敵 軍

中共 제39군단	장	吳 信 泉	
제115사단	장	張 竭 誠	
제117사단	장	倔 天 允	

나. 전투 전의 개황

反擊作戰을 개시한 以來 한국군과 UN군은 乘勝長驅하여 1951년 3월 末에 이미 38°線으로 躍進하고 있었으며 4월 初에 이르러 中部戰線의 美 제9군단은 春川 北쪽의 38°線을 突破하여 Kansas 線에 進出 하였다.

그러나 4월 6일 美 제8군사령관 Ridgway 중장은 다시 Quantico 線(상황도 참조)까지 進擊하라는 새로운 攻勢 作戰을 美 제9군단에 下命하기에 이르렀다. 이 작전은 이른바 敵의 戰略上의 要地인 鐵

의 三角地帶에 대하여 계속적인 空中 爆擊을 強行함에도 不拘하고 敵은 夜陰을 이용하여 反攻을 取하기 위한 補給物資의 推進과 兵力의 集中을 계속하므로 美 제9군단으로 하여금 鐵原—金化의 前方까지 進擊케하고 이 地域을 威脅함으로써 敵의 새로운 企劃을 事前에 妨害하는데 그 目的이 있었다.

4월 8일 美 제9군단장 William M. Hoge 소장은 새로운 作戰에 대비하고자 부대를 再調整하기 위하여 『美 해병제1사단은 美 제1기갑사단과 交代하여 군단의 右一線으로 공격 작전을 준비 하라』는 要旨의 명령을 하달하게 됨으로써 4월 10일 美 해병제1사단(장, Oliver P. Smith 소장)은 春川 北쪽의 美 제1기갑사단과 交代하여 Kansas 線에 부대를 展開하게 되었으며 사단의 左側에는 제6사단(장, 張都暎 준장)이 並行攻擊하게 되었다.

이 때 해병제1연대장 金聖恩 대령은 洪川 부근의 전투를 마치고 鶴谷里(春川 南쪽 4km)에 集結하여 부대를 整備한 다음, 美 해병제1사단장으로부터 『해병제1연대는 사단의 右一線으로서 美 제1기갑사단과 그 任務를 교대하고 北進할 준비를 하라』는 要旨의 작전명령을 수령하고 4월 9일 陽通里(春川 北쪽 11km)에 부대를 集結하기에 이르렀다.

當時 美 해병제1사단 前方인 華川부근의 敵은 中共 제39군단의 제115사단 및 제117사단으로서 北漢江을 따라 강력한 防禦陣을 構築하고 있었으며 捕虜와 노획문서로부터 밝혀진 바에 의하면 敵은 後退間에도 抵抗은 계속 한다는 이른바 "流動防禦(Roving defence)"라는 새로운 戰法을 사용하고 있었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北漢江 沿岸搜索과 渡河戰 (4. 10 ~ 4. 22)

(가) 작전계획

해병제1연대에 賦與된 戰鬪正面은 華川 南쪽을 지나는 Kansas 線을 連하여 左側으로는 春川—華川間을 흐르는 北漢江으로 부터 右側은 華川 貯水池의 西南端인 九萬里 發電所까지 9km에 達하였으며 연대의 左側은 美 해병제1사단의 해병제5연대가 隣接하여 併進하고 右側은 美 제10군단의 戰鬪地帶로서 그 左一線 부대인 美 제2사단과 連繫하도록 되어 있었다.

연대장 金聖恩 대령은 부여된 任務와 地形을 分析한 다음, 2개大隊를 前方, 1개大隊를 예비로 하여 부대를 展開하기로 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命令을 하달 하였다.

『① 연대는 美 해병제1사단의 右一線으로서 4월10일 07.00를 期하여 지역내의 美 제1기갑사단 부대들과 임무를 교대하고 北進할 준비를 하려 한다.

② 제2대대는 연대의 右一線으로 美 제1기갑사단의 제7연대 一部와 임무를 교대하고 右側의 美 제2사단과 連繫하라.

③ 제1대대는 연대의 左一線으로 美 제1기갑사단의 제7, 제8연대의 一部와 임무를 교대하고 左側의 美 해병제5연대와 連繫하라.

④ 제3대대는 연대의 예비대로서 최초 陽通里에 위치하여 依命 前方에 투입될 준비를 하고 1개소대로써 연대본부를 직접 警備케하라.

⑤ 연대 CP는 陽通里에 위치한다.』

(나) 작전실시

4월 10일 : 연대의 左一線인 제1대대(장, 孔正植 소령)는 이날 07,00에 예정대로 美 제1기갑사단의 陣地를 引受 占領하고 제1중대(장, 李西根 중위)를 右一線, 제3중대(장, 姜 勇 중위)를 左一線, 제2중대(장, 李應德 중위)를 예비로 하여 부대를 配置 하였으나 右一線인 제2대대(장, 尹永俊 소령)는 美 제1기갑사단과 任務交代에 關한 協調가 미쳐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날 10.00, 陽通里를 출발하여 부근一帶를 搜索하면서 徐徐히 東北으로 前進 하였다.

한편 예비대인 제3대대(장, 金龍國 소령)는 연대 CP경계를 위하여 1개소대를 抽出한 다음, 陽通里 부근의 高地를 점령케 하여 연대의 後方地域을 경계케 하였고 연대 補給所를 春川 貯水池의 東側 연변에 설치하였다.

4월 11일 : 제1대대는 이날 1개분대(증강)를 抽出, 東北쪽으로 推進시켜 龍岩里 △ 350를 점령케 하고 北漢江 연안에 대한 威力搜索을 전개하였다. 제2대대는 14.40에 美 제7기갑연대의 제2대대 지역으로 前進 하였으나 이 部隊는 交代命令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附近 高地를 점령하여 자체 경계를 하면서 待機하였다.

연대장 金聖恩 대령은 즉시 이를 美 해병제1사단에 連絡하여 迅速한 協調를 促求하였다.

그런데 이날은 極東의 情勢와 韓國戰爭을 中心으로한 UN군의 戰略上 一大轉換을 가져오는 契機가 되었는데 美 행정부는 UN군 사령관 Doulglas MacArthur 원수를 解任한다는 重大 성명을 발표 하였던 것이다.

4월 12일 : 제1대대의 情報搜索隊는 이날 北漢江 연변까지 進出하여 일대를 수색중 位羅里부근에서 4명의 敵을 추격끝에 그중 2명을 射殺하였다.

제2대대는 이날 09.00에 비로소 Kansas 線에 연하는 陣地를 引受하고 제5중대(장, 金聲大 중위)를 右一線, 제6중대(장, 鄭奉翊 중위)를 中央, 제7중대(장, 朴正模 중위)를 左一線으로 배치하였다.

또한 예비대인 제3대대도 이날 08.00에 陽通里를 출발하여 10.20에 俗稱 장아터(春川北쪽 18km)에 前進하여 必要한 지형을 占領함으로써 연대는 攻擊을 위한 부대 배치를 모두 마쳤으나 사단의 지시에 따라 制限된 偵察활동만을 전개 하면서 攻擊命令을 기다렸다.

4월 13일 : 연대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偵察을 전개하여 北漢江 以南의 殘敵을 擊滅하고 對岸의 敵情을 確認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장차 있을 攻擊命令에 대비하여 戰鬪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이날 제1대대는 예비대인 제2중대의 1개소대를 敵陣을 觀測할 수 있는 陣地 전방 1km까지 推進케 하여 監視活動을 強化 하였으며 제2대대는 제7중대 偵察소대로 하여금 北漢江 연안일대를 搜索케 한 결과 이들은 九萬里일대에서 敵으로부터 不時의 射擊를 받고 이 지역에 1개중대 규모의 敵이 활동하고 있음을 確認하게 되었다.

4월 14일 : 연대는 계속 北漢江 연안일대를 搜索偵察하면서 인접부대인 美 해병제5연대와 美 제2사단과의 連繫를 유지 하였으며 이날 제3대대에서는 제2사단의 Netherland대대(장, W.D.H Eekhout 중령)와 接觸하였다.

이때 연대가 配屬된 美 해병제1사단의 부대배치를 보면 해병제1연대를 右一線으로하고 美해병제5연대를 中央, 美 해병제7연대를 左一線으로 하여 Kansas 線上에서 陣地를 占領케 하였으며 美 해병제1연대를 예비대로 하여 攻擊準備를 끝내고 敵方에 對한 搜索偵察을 계속하였다.

4월 15일 : 연대는 前方에 대한 偵察을 계속한 바 攻擊에 대비하여 北漢江의 渡河地點을 華川邑과 戰場골 부근으로 定하고 이 地域에 대한 좀 더 세밀한 地形偵察을 實施하였다.

그런데 이날 제1대대로부터의 偵察報告에 의하면 渡河할 北漢江의 河幅은 50m이며 水深은 1.5m로서 水陸兩用車의 運行이 可能하였다.

4월 16일 : 이날부터 敵은 점차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 對岸으로부터 연대의 偵察部隊에 대한 砲擊을 개시 하였다. 그러나 연대는 계속 적극적인 偵察과 搜索을 전개 하였는데 제5중대의 偵察분대는 이날 15.00에 대대의 渡河 예정지점을 再確認 하기 위하여 九萬里 부근을 偵察하다가 잠복중이던 數未詳의 敵과 交戰끝에 이를 격퇴하고 小銃 1정과 BAR 1정을 鹵獲 하였다.

이렇듯 꾸준하게 偵察活動을 實施하여 그동안 연대가 蒐集한 敵情을 綜合하여 分析한 결과 敵 主力은 이미 北漢江 對岸에 防禦陣地를 構築中이었으며 그 一部가 華川 貯水池의 水門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이 水門이야 말로 이 地域 防禦에 있어서의 要衝으로써 지난 4월 初에도 美 제1기갑사단 搜索部隊와 美 제4유격중대가 北漢江을 渡河하다가 敵이 이 水門을 開放한 결과 洪水사태로 渡江에 失敗하고 混亂을 빚게된 經驗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 攻擊을 위하여서는 水門을 早期에 掌握하는 것이 先決문제로 認識하게되었다.

이러한 重任務를 맡게된 연대장 金聖恩 大領은 곧 參謀를 소집하여 作戰方案을 熟議한 끝에 夜陰을 利用하여 奇襲的으로 水門近傍을 奪取할 것을 결심하고 이의 實行을 제2대대장에게 命令하였다.

이리하여 제2대대(장, 尹永俊 소령)는 夜陰이 되기까지 세부 機動計劃을 樹立한 끝에 제7중대(장, 朴正模 중위)로 하여금 직접水門을 掌握토록하고 제5중대(장, 金聲大 중위)는 이 水門을 掩護할 수 있는 北쪽 突出部의 △ 454를 占領키로한 다음 이날 20.00를 期하여 隱密히 행동을 開始 하였다.

4월 17일 : 前날 밤에 攻擊을 開始한 제2대대의 제5중대와 제7중대는 이날 새벽 01.00에 敵의 輕微한 抵抗을 擊退하고 各各 계획된 目標地域을 占領하는데 成功 하였다.

한편 左側方의 제1대대도 이날 北漢江 以南지역을 모두 掌握 점령 함으로써 연대는 命令一下에 渡河할 수 있는 萬般의 準備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연대는 이날부터 偵察地域을 北漢江 對岸까지 擴張 하였던 바 이날 새벽 夜陰을 利用하여 제3중대의 1개분대는 江을 渡河하여 敵影을 찾아 搜索을 展開한 끝에 捕虜 2명의 戰果를 얻었는데 이들은 본래 陸軍제3사단 所屬이었던 者들로서 敵에게 捕虜가 되어 中共 제39군단 제117사단 공병중대의 通譯으로 利用 되었던 者 들임이 判明 되었으며 이들로 부터 많은 諜報를 入手할 수가 있었다.

4월 18일 : 제1대대는 이날 北漢江 對岸에 정찰대를 大擧 渡河시켰는데 제2중대의 2개소대는 對岸의 戰場골을 搜索하다가 △ 254와 △ 601 一帶에 出沒하던 1개소대(증강)규모의 敵과 激突한결과 박격포 支援밑에 이 敵을 공격하면서 一擧에 挺進하여 兩個高地를 占領하고 제3중대 제2소대는 華川邑 東쪽 衙里의 △ 243를 目標로 攻擊끝에 15.40에 이를 占領하였다.

한편 대대 情報搜索隊는 이날 華川邑에 突入하였는데 이때에 敵은 이미 華川邑을 抛棄하고 退却한 뒤였으나 숨어 있던 我軍 落伍兵 18명을 救援하는데 成功하였다.

4월 19일 : 연대 主力은 Kansas 線上의 主防禦線을 確保中 계속 對岸에 대한 偵察活動

을 強化하였다.

제1대대 偵察隊는 前날 점령한 △ 601에서 西北쪽 능선을 따라 進出하여 △ 497 前方까지 威力搜索을 전개하였으며 대대 情報搜索隊는 華川邑內를 계속 搜索한 결과 敵에게 포로가 되었던 我軍 3명을 다시 救出하게 되었다.

한편 제2대대는 OP를 九萬里의 華川 發電所 附近 △ 376로 移動하는 한편 제6중대의 1개소대를 渡河시켜 15.30에 大利里의 △ 653를 占領하였으며 대대 情報搜索隊는 이 △ 653 전방 河川一帶의 敵情을 探索하였다. 한편 제3대대는 北漢江 연안일대와 渡河地點을 계속 偵察하면서 隣接부대와 連繫를 維持하였다.

4월 20일 : 제1대대 정찰대는 前날에 이어 계속 △ 497일대를 搜索偵察중 民靑員 2명을 사로잡았으며 敵이 遺棄한 RKT 1문과 野砲 牽引車 1臺를 鹵獲 하였다.

제2대대는 이날 제6중대 1개소대가 占領하고 있는 △ 653에서 前方을 向해 계속 搜索을 전개하던중 敵의 산발적인 抵抗을 받았으나 이들을 곧 一蹴하였다.

이때 연대는 美 해병제1사단으로부터 進擊命令을 받았는데 그 內容은 『Kansas 線에서 躍進하여 Quantico 線을 占領 確保하라』는 要旨였다.

이리하여 연대는 4월 10일 이래의 偵察활동을 모두 끝내고 攻勢로 轉換하게 됨으로써 將兵들의 雄心은 騎虎之勢로 加速化되는 가운데 연대장 金聖恩 대령은 이날 19.00에 要旨 다음과 같은 渡河命令을 下達하였다.

『① 연대는 4월 21일 07.00를 기하여 Kansas 線에서 공격을 개시한 다음 목표 C 및 D를 占領하고 Wyoming 線까지 계속 進擊하려 한다.

② 제2대대는 연대의 右一線으로 1개소대(증강)로써 목표 10을 確保하고 대대主力은 依命 渡河하여 목표 9를 占領한 다음 계속 공격하여 연대목표 D를 점령하여 華川貯水池를 警戒하라.

③ 제1대대는 연대의 左一線으로 攻擊을 개시하여 목표 2 및 목표 6을 占領한 다음 渡河 공격을 계속하여 연대목표C를 占領하라.

④ 제3대대는 연대 예비대로 최초 목표 6을 占領하고 제1대대를 後續하여 渡河하라.

⑤ 공격간 對戰車공격을 감행하라』(상황도 참조)

4월 21일 : 제1대대는 이날 08.00에 OP를 龍岩里에 설치하고 각 중대를 北漢江 연변에 進出시켜 渡河戰을 준비케 하였다.

한편 이미 渡河한 제1대대 偵察隊는 계속 △ 497 前方을 偵察하고 대대情報搜索隊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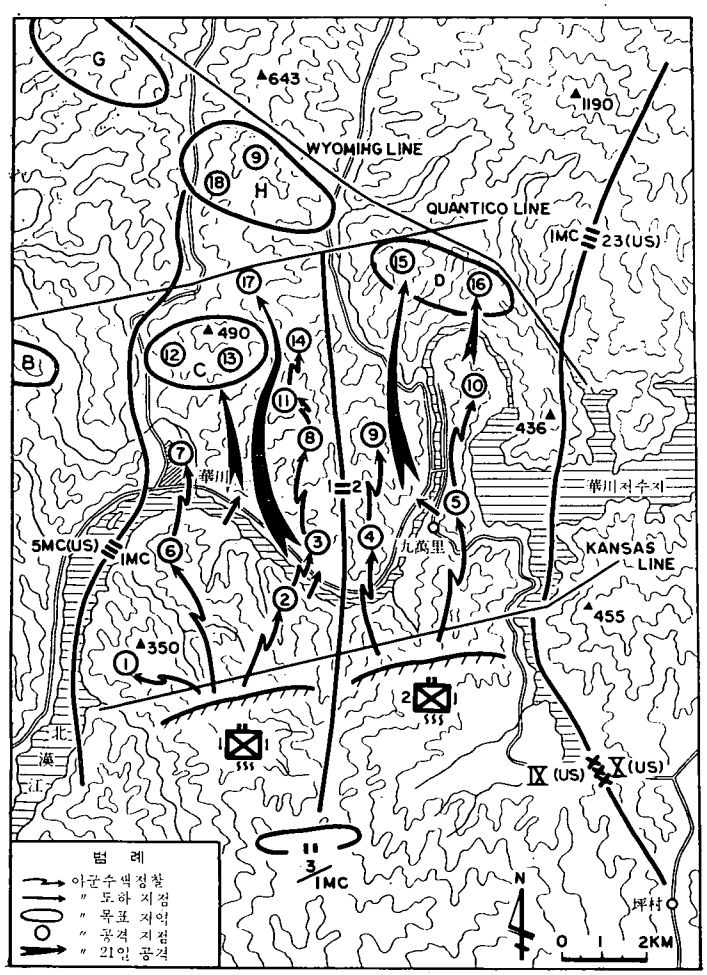
華川邑內를 수색하였는데 이때 市街에 進入한 美 해병제5연대 戰車部隊와 接觸하여 勝戰의 微笑를 나누었다.

한편 제2대대는 前날에 이미 渡河한 제6중대의 1개소대 규모의 偵察隊가 목표15(東村里 西南쪽 △ 509)와 목표16(東村里 南쪽 △ 451)까지 進擊하여 수색정찰중 敵 敗走兵 數名을 追擊한 결과 그중 1명을 射殺하였다.

이때에 前線一帶는 彼我의 砲火로 樹林이 불타 버리고 枯木의 殘影속에 煙火로 앞을 분간할 수 없었지만 乘勝의 士氣와 見敵必殺의 信念으로 더욱 緻密한 수색전을 전개하여 다음날의 공격을 준비 하였다.

또한 이날 發電所 附近에서는 다음날 제2대대를 위한 浮橋 架設作業이 美 해병工兵隊에 의하여 完成 되었다.

◇ 상황도 제6호 華川부근 전투



한편 이날 연대는 미 해병제1사단의 左側에서 제6사단과의 連繫가 이루어지지 못한 탓으로 左側方의 敵으로부터 威脅을 받고 있다는 情報를 入手하였다.

4월 22일 : 연대는 이날 07.00를 기하여 浮橋와 水陸兩用車의 利用으로 渡河를 開始하였는데 제1대대(제1중대缺)主力은 衙羅里의 俗稱 塔둔지나루터(華川 南쪽 100m)에서 水陸兩 用車로 華川邑 附近에서 渡河하고 제1중대는 九萬里 南쪽에서 고무 Boat를 이용하여 渡河에 成功하였다.

이렇듯 渡河를 완료한 제1대대는 즉각 공격을 敢行하고 제1중대는 目標17(華川 東北쪽 4km의 △ 395)에 挺進함으로써 潰走하는 敵을 追擊하여 2명을 射殺하고 1명을 사로잡았으며 機關銃 2정과 多發銃 1정을 鹵獲하였다. 한편 제3중대는 이날 15.35에 목표 C(中里의 △ 487 및 △ 296 高地群)를 占領確保하는 즉시로 防禦陣地를 構築하였다.

제2대대는 이날 09.00에 九萬里앞에 架設된 浮橋를 利用하여 一時에 渡河하였는데 제5중대는 목표16(東村里 南쪽△ 451)에 進出한다음 大隊 偵察隊와 合同하였으나 제6중대(장, 鄭奉翊 중위)는 목표15(東村里 西南쪽 △ 509)를 攻擊하는 동안 敵의 執拗한 저항에 부딪쳐 一進又一進의 激戰을 거듭한 끝에 다음날 새벽 06.00에 드디어 이를 占領하였다.

그런데 제6중대의 이 △ 509 奪還作戰은 이날 13.00를 期하여 이미 始作된 中共軍의 제5차 1단계 大攻勢가 시작된 後 처음 있었던 激烈한 反擊戰으로 이 作戰의 成功으로 말미암아 연대는 물론 左側에 인접해 있던 美 해병제5연대 前線에까지 큰 影響을 주었다는 사실을 이날 늦게서야 알게 되었다. 即 美 해병제5연대 正面에는 Quantico 線 방어에 있어 峻險한 △ 313를 사이에 두고 그동안 彼我間에 激戰을 거듭하였는데 韓國해병대가 右側에서 怒濤와 같이 進擊하여 一帶의 험한 險制高地인 △ 509를 占領하게 되자 敵은 結局 이 △ 313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어 敗走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당시 美 해병제5연대를 空中支援하던 美 해병제323全天候 戰鬪機大隊가 確認하였으며 이 報告에 接한 美 해병제1사단장 Oliver P. Smith 소장은 韓國해병대의 이와같은 勇猛性과 敢鬪 精神을 激讚하여 연대장 金聖恩 大領에게 다음과 같은 電文을 보냈다.

『貴官과 귀관麾下의 將兵들이 強力한 敵의 攻擊에 대항하면서 陣地를 固守하겠다는 그 透徹한 감투정신에 깊히 感謝하는 바 입니다. 우리들은 이와같이 莫強한 韓國해병대와 함께 戰鬪를 하게된 것을 無限한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연대 예비대인 제3대대는 이날 13.30에 제1대대를 뒤따라 華川邑 附近으로 渡河, 목표7(衙里 △ 243)과 목표8(衙里 △601)를 各各 占領하고 일대에 대한 近距離 偵察을 실시하였다.

(2) 中共軍의 제5차1단계 攻勢와 北漢江 撤收戰(4. 23—4. 26)

(가) 작전계획

지난 4월 10일 Kansas線에 進出하여 美 제1기갑사단 예하부대들과 陣地를 교대한 연대는 그동안 사단의 進擊命令을 待機하며 北漢江일대에 대한 搜索偵察을 계속하다가 사단

공격 명령에 따라 4월 22일 早朝에 北漢江을 一齊히 渡河한 다음 對岸一帶의 目標를 占領하고 餘勢를 몰아 Quantico 線을 向하여 躍進 하였다.

그러나 4월 22일 13.00를 期하여 中共軍은 全戰線에 걸쳐 攻勢를 取하였으니 이것이 곧 그들이 말하는 제5차1단계 春季 攻勢였다.

이 攻勢에 參加한 兵力은 도합 16개 軍團의 180,000명이었다. 이들 中共軍은 그동안 所謂 鐵의 三角地帶인 鐵原一金化一平康 一帶에서 人員과 裝備를 재정비 強化한 部隊들로서 지난 2개월간 友軍의 強力한 砲火의 세례속에서 병력손실을 입었음에도 不拘하고 다시 이와 같은 兵力을 加入시켜 人海戰術을 展開한 것은 그들의 풍부한 人的資源을 背景삼아 그들의 野望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如何한 人命손실도 아랑곳 없다는 端的인 표시일 것이다.

이들 中共軍의 제5차 1단계 攻勢는 우선 突破口의 選定을 위하여 美제9군단 지역을 노리게 되었으며 美해병제1사단에서 最初로 이 攻擊에 直面하게 된 兵團은 美해병제5연대와 韓國해병연대의 兩正面이었다. 즉 4월22일 저녁 21.10(연구 참조)에 제1대대 제3중대 정면에 「피리」소리와 「꽹과리」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렸는데 이때 이미 陣地 下麓에는 중공의 大群이 방망이 수류탄과 소총으로 武裝한채로 二波三波의 人海를 形成하여 衝擊하고 있었다.

제3중대(장, 姜 勇 중위) 隊員들은 中隊長을 中心으로 陣地를 固守하였으나 2시간에 걸친 激戰끝에 1개 소개의 正面이 突破 함으로써 목표 7(衙里 △243)까지 일단 물러나는 즉시로 再奪還을 준비하였다.

(나) 작전실시

4월23일 : 이날 05.00에 제1대대 제3중대는 逆襲을 敢行하여 끝내 目標12(목표 C지역내 標高 450高地, 상황도 참조)를 再奪取 하였다.

이와 같이 一進一退의 치열한 攻防戰을 계속하였으나 敵은 계속 巨大한 突擊梯波를 反復하였기 때문에 美해병제1사단 左側인 제6사단의 防禦線 一角이 밀리게 되자 美제9군단은 戰線形成을 위하여 해병연대와 美해병제1사단을 일단 同齊線까지 後退시키기로 하였다. 이리하여 이날 15.00에 연대는 Quantico線에서 2km 後方까지 철수하여 목표 7, 8, 9, 10을 連하는 線에서 急編防禦에 임하게 되었다.

이날밤 敵의 主攻부대는 제10중대 陣地에 공격을 加하고 어느때나 마찬가지로 그 「피리」와 「꽹과리」 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督戰隊에 뒤쫓기는 突擊을 감행하였다.

제10중대(장, 李東星 중위) 대원들은 이 敵을 미리 계획된 火網안에까지 유도한 然後에

集中火力으로 擊破하자 敵은 쓰러진 屍體를 넘고 또 넘어 突進을 멈추지 않았으므로 끝내는 實彈과 手榴彈이 모두 消盡되기에 이르렀다.

제10중대장 李東星 중위는 陣地를 끝까지 固守코자 하였으나 自身이 重傷을 입고 쓰러지고 말았으며 陣地一部가 突破되어 중대 CP가 危急하게 되고 中隊長마저 敵의 捕虜가 될 듯한 難局에 당면하게 되자 中隊員들은 必死의 勇으로 부상당한 중대장을 救出하는데 成功하고야 말았다.

이와 같이 前方中隊인 제10중대가 突破當하자 敵은 물밀 듯 예비대인 제11중대 陣地로 殺到하였다.

제11중대(장, 朴建燮 중위)는 제10중대의 撤收를 엄호하면서 일제히 敵과 交戰케 되었다. 그러나 時間이 흐를수록 敵의 兵力은 增加되어 제11중대 지역도 刻一刻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때 제11중대장 朴建燮 중위가 부상을 입어 後送되자 副中隊長인 陸東旭 소위가 중대 지휘를 맡게 되었다. 陸少尉는 萬一 제11중대마저 突破當하면 背面에는 溪谷에 이어 바로 北漢江이 흐르고 있으므로 이는 大隊全體의 困厄을 招來할 것으로 判斷하고 現陣地를 最後까지 死守할 것을 決心 하게 되었다.

우선 不足되는 實彈을 節約하기 위한 方途로서 射擊을 統制한 다음 敵이 陣地에 近接하였을때 일제히 命中彈을 퍼붓도록 하였는데 이 당시 多幸하게도 美해병항공기들로부터 야간 조명은 계속 제공 받고 있었다. 이때 중대를 지원하기 위해 사단으로부터 派遣되었던 美해병대의 砲兵및 航空 連絡班要員들도 사태가 위급하게 되자 모두 소총을 잡고 직접 敵을 狙擊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들중에 砲兵連絡班要員인 Rice 上兵도 中隊本部陣地에서 勇戰奮鬪 中 옆에서 싸우던 機關銃 射手가 被彈으로 쓰러지자 自己가 代身 위험을 무릅쓰고 기관총 陣地로 뛰어들어가 물밀 듯 밀려드는 敵主力을 向하여 鐵火를 퍼부었다. 그러나 Rice 上兵도 또한 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쓰러졌다. 이를 目擊한 陸소위는 즉각 上兵에게 뛰어가 그를 어깨에 걸머지고 彈雨속을 뚫고 高地 後斜面에 있는 安全지대 까지 옮겨 응급치료를 받도록 하였으므로 Rice 上兵은 감격에 못이겨 그가 배운 단 한마디의 한국말인 "감사 합니다"만 연발하는 것이었으니 戰友愛에는 果然 國境이 있을수 없었다.

中隊 保有實彈이 거의 바닥이 나자 陸소위는 자동화기는 下士官 以上 將校들이 직접 사격토록 嚴命함으로써 實彈을 節約토록 하면서 一彈必中의 狙擊效果를 걷우도록 하였다.

이 전투에서 陸소위 自身도 다리에 관통상을 입었는데 그는 이로써 두번째의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원들의 士氣를 염려하여 一切 자기의 부상을 알리지 않고 상처를 움켜

친채로 勇戰奮鬪하여 끝내 陣地를 固守하였으니 靑年將校의 氣高가 참으로 萬丈과도 같았다.

4월 24일 : 이날 아침 美제9군단으로부터 『美해병제1사단의 모든 부대들은 Kansas 線으로 撤收 하라』는 命令이 下達되었는데 이 命令은 元是 死物인 地形에만 執着하여 固守하느니 보다도 차라리 敵兵員의 殺傷을 重視하는 것이 有利하다는 見地에서의 제8군사령관 Van Fleet 중장의 方策에서 나온 것으로 보였다.

이 撤收作戰을 支援하기 위하여 美해병제1비행단은 해병대 지역에 무려 10회나 出擊을 敢行하였으나 짙은 안개와 砲煙으로 인하여 視界가 몹씨 不良하였으므로 효과적인 近接支援이 如意치 못한탓인지 때로 彼我戰線을 識別하지 못한 결과의 誤爆事例가 있었다. 즉 撤收가 지연되고 있던 제1대대의 CP에 友軍機로부터 네이팜彈이 投下된 事件이 발생하여 한때 큰 混亂이 야기되었으나 人命被害는 없었다.

이날 제1대대는 08.00에 北漢江을 渡河하여 15.00에 龍華山(華川 東南쪽 8km △878)에 右一線을 占領하였고 이어서 제2대대는 12.30에 北上 渡河時의 浮橋를 다시 利用하여 渡河한 다음 19.00에 陽通里에 移動하고 그 附近에서 연대 예비대가 되었다.

한편 戰場洞에서 예비대로 남아 있던 제3대대는 제1대대의 撤收를 끝까지 掩護한 다음, 16.00에 加孫里를 經由 北漢江을 渡河하여 龍華山의 左一線을 占領하였다.

이로서 연대는 龍華山 一帶에 防禦陣地를 構築하여 右로는 美제2사단의 France대대와 그리고 左로는 美해병제5연대와 各各 인접하였다. 한편 이날 오후에 美해병제1사단 CP에서는 離任하는 Oliver P. Smith 소장에 대한 간단한 送別式이 있었으며 新任 사단장에는 Gerald C. Thomas 소장이 赴任하였다.

4월25일 : 我軍의 撤收와 더불어 大擧 北漢江을 넘어선 中共軍은 南岸에 陣地를 구축하면서 活動範圍를 擴大 探索함과 동시에 간혹 迫擊砲 사격을 加하고 있었다.

이때 美해병제1사단 隷下의 모든 부대들은 變更된 Kansas 線까지 進出하였으나 中共軍이 이미 側面의 道路를 遮斷하였기 때문에 8군사령관 Van Fleet 중장은 더욱 南쪽으로의 부대 撤收를 바라고 있었다.

4월26일 : 이날 아침 10.00에 龍華山의 我軍 방어진지 前方까지 近接한 敵은 제3대대 正面에 二重三重으로서 波狀攻擊을 다시 展開 하였으나 제3대대 全將兵은 臨陣無退의 強靭한 鬪志로 陣地를 固守한 결과 前後 6차에 걸친 執拗한 攻勢를 끝내 擊破함으로써 敵은 물러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夜間攻勢를 준비 하는듯이 보였다.

그러나 이때 美해병제1사단은 군단으로부터 새로운 作戰命令을 받고 春川 以南으로 撤收하게 되니 연대는 사단을 따라 다시 轉進케 되었다.

즉 제1대대는 16.30에 行動을 시작하여 21.00에 사단이 支援하는 "Duck"車로 昭陽江을 渡河한 다음 이날 23.00에 月谷里까지 移動하여 연대의 右一線으로 새로운 防禦陣地를 占領하였다.

이어서 제2 및 제3 兩대대가 뒤이어 昭陽江을 渡河하여 제2대대는 연대의 左一線으로 枝內里 一帶지역을 占領하고 제3대대는 연대 예비대로 甘井里 지역을 占領함으로써 연대는 昭陽江을 연하는 새로운 防禦陣地를 구축하게 되었다.

(3) 洪川 附近 防禦戰(4.27—5.15)

(가) 작전계획

제8軍사령부로부터 통보된 情報에 依하면 中共은 西部戰線의 美제1군단 지역에 總力을 集中하여 다시 서울을 奪取코자 하고 있다는 것이었으며 그들은 5월1일 勞動節 行事를 서울에서 擧行하리라는 自慢心 아래 執拗하게도 漢江渡河를 노렸으나 友軍의 優勢한 空軍爆擊과 海軍의 艦砲射擊은 이러한 敵의 企圖를 完全히 水泡로 만들게 되었다.

한편 中部戰線의 敵情은 中共 제39, 제40 兩군이 春川 衣岩貯水池에서 北漢江을 따라 江村里의 칼峰(△530)과 柯亭里를 連하는 一線에서 대기중에 있었으며 이들을 支援하는 단대호 未詳의 野砲部隊들이 華川一帶에 布陣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美8군의 作戰方針은 敵의 人海戰術에 대하여 地域의 一部를 넘겨주는 대신 強力한 砲火를 集中하여 많은 出血을 강요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作戰方針의 奏效로 4월 末에는 敵이 더 以上의 打擊을 감당할 수 없어 退色이 濃厚하게 되었다.

이때에 美제9군단은 그 主抵抗線을 洪川을 連하는 No Name 線으로 策定하고 이 以上의 後退는 없다는 覺悟로써 이 線에서의 抑留一擊으로 敵에게 再起不能한 痛擊을 주려고 하였다.

(나) 작전실시

4월 27일 : 이와같은 군단의 새로운 構想에 따라 美 해병제1사단의 撤收命令이 下達되었으며 이날 24.00에 연대장 金聖恩 대령은 예하 대대장들에게 命令하기를 『明朝 07.30에 行動을 개시하는 즉시로 이미 지시된 作戰路를 따라 No Name 線上의 진지를 占領하라』는 要旨를 下達하였다.

4월 28일 : 이날 연대장 명령에 따라 제1대대장 孔正植 소령은 07.45에 月谷里를 出發하여 枝內里—後坪里—沙方丘에 轉進하여 연대 右一線으로 沙方丘 東北쪽 高地一帶를 점령하였다.

제3대대(장, 金龍國 소령)는 07.30에 甘井里를 出發하여 後坪洞—沙方丘에 轉進한 다음 연대의 左一線으로 沙方丘 南西쪽 高地一帶를 점령하였다.

한편 제2대대(장, 尹永俊 소령)는 연대의 예비대로 08.00에 枝內里에서 沙方丘에 이르고 洪川江(華陽江) 北쪽 高地群一帶를 점령하였다.

이때 연대 CP는 府司院里(洪川 西北쪽 7km)에, 연대 補給所는 洪川 附近에 各各 位置하였다.

4월 29일 : 이날 연대장 金聖恩 대령은 戰鬪地境線을 재조정하는 한편 부대를 再配置 하였는데 제3대대는 연대의 右一線으로 金鶴山(△ 655) 일대를 占領하는 동시에 그 CP를 古斗岩에, 제2대대는 연대의 左一線으로서 제3대대와 連繫하여 洪川江 南쪽을 占領하는 同時에 그 CP를 魯日里에 各各 설치 하였다.

그리고 제1대대는 연대의 예비대로 諸谷里에 位置 하였으며 연대 CP는 明洞里(洪川 西南쪽 12km)에 開設하였다.

이때 연대의 右一線에는 美 해병제7연대가 左一線에는 美 해병제5연대가 No Name線上에서 連繫하고 있었으며 美 해병제1연대가 사단의 예비대로서 洪川에 위치하고 있었다.

4월 30일 : 방어진지 점령을 완료한 연대는 이날부터 陣地를 補強하면서 전방에 대한 敵情의 探索을 開始하였다. 그런데 이때 敵은 西部戰線에서 서울 奪還을 위하여 最後發惡을 하고 있을 뿐 中部戰線의 美 제9군단 지역에서는 이미 攻擊의 銳鋒이 鈍化되어 潰退一路의 戰況으로 接敵마저 維持할 수가 없었다.

지난 4월 22일 中共의 소위 제5차 1단계 攻勢 以來 友軍의 強力한 空中爆擊과 地上 및 海上砲擊은 連日 敵에게 막심한 손실을 강요한 결과 4월末 現在까지 全전선에 걸쳐 敵의 人命損失은 무려 70,000乃至 100,000명에 達하여 敵의 戰力은 急激히 低下된 것으로 推斷되었다.

그러나 8군사령부 情報報告는 中共의 17개 師團이 아직까지 可用狀態에 있는 것으로 指摘하여 友軍은 全戰線에 걸쳐 強力한 防禦線을 形成할 것을 強調하고 있었다.

또한 이날 美8군사령부에서는 全般的인 防禦計劃을 討議하기 위하여 各軍團長 회의가 開催되었다.

5월 1일 : 연대는 계속 現방어진지를 確保하면서 인접부대와 連繫를 維持하고 春川附近까지 偵察搜索하였는데 이때에 敵은 春川北方에 고지를 占領하고 春川市內에까지도 이미 一部兵力이 出沒中에 있었다.

그런데 이날 15.00를 期하여 美 해병제1사단은 그동안 作戰配屬 되었던 美 제9군단을 떠나 美 제10軍團의 作戰指揮下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이는 이미 제8군사령부에서 있었던 作戰會議의 結果로, 새로운 防禦計劃에 따른 必要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美 해병제1사단은 戰線의 再調整을 단행하게 되었으니 이와같은 사단의 計劃에 따라 연대장 金聖恩 대령은 이날 06.00에 예하 대대장들에게 要旨 다음과 같은 變更된 防禦命令을 下達하였다.

『① 연대는 5월 2일 06.30에 사단에서 指定한 陣地線을 占領 確保하려 한다.

② 제1대대는 現位置에서 洪川江 沿道를 따라 上巨里에 進出한 다음 美 제7연대 제1대대와 그 任務를 交代하는 즉시로 연대 右一線으로 割當된 地域을 占領 確保하라.

③ 제3대대는 연대의 左一線으로 할당된 지역을 占領하고 左側의 美 제5연대와 連繫하라.

④ 제2대대는 美 해병제5연대 제3대대에 現陣地線을 인계한 다음 연대 예비대로 洪川江 연도를 따라 屈只里 附近에 이동하여 指定된 지역을 占領하고 1개중대 규모를 一般前哨로 배치하라.』

5월 2일 : 새로운 연대 防禦命令에 따라 제1대대는 이날 11.00에 上巨里(洪川 西北쪽 8km)에 轉進하여 제1중대를 右, 제2중대를 左, 제3중대를 예비로 하여 上巨里 前方 高地일대에 防禦陣地를 占領하고 △ 284에 대대 OP를 設置하였다.

그리고 제3대대는 연대 左一線으로 金鶴山 左側稜線一帶를 占領하고 防禦陣地를 構築하였으며 제2대대는 연대 예비대로서 美 해병제5연대 제3대대에게 陣地를 引繼한 다음 19.40에 烏羅里(洪川 西쪽 9km)에서 제6 및 제7중대를 附近一帶에 배치하는 동시에 제5중대는 연대 戰鬪前哨로 抽出하였다.

이날 제5중대(장, 趙容銀 중위)는 戰鬪前哨로 出發하기에 앞서 연대장으로 부터 指示받기를 『① 企圖秘匿에 留意하고 정찰기지와 정찰경로를 매일 변경하라.

② 강력한 적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는 敵과의 接觸을 維持하면서 제1대대지역을 通過하여 연대 예비대 지역으로 移動하라.

③ 敵의 접근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留意하는 동시에 入手된 상황은 즉시 보고하라』하였

다. 이리하여 중대는 朝陽里 北쪽 △ 425를 占領 한다음, 이곳에서 美해병사단의 戰車소대와 合同하였다.

이로써 연대는 主抵抗線의 確保態勢를 完成하였다.

5월 3일 : 연대는 방어진지를 補強하면서 前方에 대한 偵察活動을 계속하였는데 제1대대는 이날 朝陽一里의 △ 253일대를 수색하여 敵이 遺棄한 M1 6정, 蘇式小銃 2정, 九九式小銃 1정, 三八式小銃 1정, 칼빈 1정을 鹵獲하였다.

제2대대는 一般前哨부대인 제5중대를 제6중대와 交代시켰는데 제6중대는 이 날 08.30에 陣地를 出發하여 11.30에 △ 423에 進出하여 前哨任務를 引繼받고 곧 前方에 대한 偵察에 나섰다.

제3대대는 現陣地를 補強하면서 一部 兵力으로 陣地前方에 대한 偵察活動을 전개 하였다.

5월 4일 : 이날 各部隊는 계속 主抵抗線을 確保하면서 前方에 대한 수색정찰을 強化하였다.

제2대대는 또 前哨部隊인 제6중대를 제7중대와 交代시켰는데 제7중대는 11.00에 진지를 出發하여 20.00에 前哨陣地에서 任務를 교대하고 前方偵察을 실시하였다.

제1대대는 수색정찰중 제1중대가 加芝洞일대에서 敵兵을 發見하고 곧 進擊하였으나 이 敵을 射殺하지는 못하였다.

이때 敵의 先頭部隊는 이미 錦屛山(春川 南쪽 6km)일대까지 南下하고 있었다.

5월 5일 : 연대는 계속 前方에 대한 정찰활동을 전개 하였는데 제2대대 제6중대는 전날밤 前進陣地를 인계하고 이날 早朝부터 14.00까지 사이에 原隊에 復歸하였으며 前進部隊인 제7중대는 이날 前方 깊숙히 鳩岩洞까지 進出하여 정찰한 결과 錦屛山일대에 中共軍 1개중대 규모와 幹線道路의 原昌고개에는 大規模의 敵馬車部隊가 集結하여 있는 것을 探知하였다.

5월 6일 : 이날 제2대대 제5중대는 다시 제7중대와 前進部隊의 임무를 교대하고 主力은 鳩岩洞에 두는 한편 증강된 1개소대를 △ 542에 推進함으로써 錦屛山과 原昌고개 一帶의 敵의 動靜을 더욱 세밀히 살필 수 있었다.

이때 연대 右側의 美 해병제7연대는 敵과 早期에 接觸함으로써 No Name線上의 隣接 友軍部隊들에게 事前에 警告하는 바 있었으며 偵察로서 接敵을 維持하기 위하여 原昌里一帶의 高地까지 前進 배치하였고 예비대인 美 해병제1연대가 美 해병제7연대 지역까지 담당

하게 되었다. 이로서 연대 前哨部隊인 제5중대는 美 해병제7연대의 左側에 위치하면서 前方에대한 偵察을 실시하였다.

이때 연대에 入手된 情報에 의하면 團隊號 未詳의 中共軍의 一團이 大龍山(春川 東南쪽 8km) 附近에 集結中에 있다는 것이었다.

5월 7일 : 연대는 계속 現陣地를 固守하면서 敵과의 接觸을 위하여 적극적인 偵進을 전개하였다.

이날 연대 수색소대는 春川 西南쪽 北漢江 연안까지 進出하여 수색정찰중 人道橋 附近에서 北共軍 1명을 사로잡을 수가 있었다. 이때 入手된 情報에 의하면 中共 2개대대가 北漢江 對岸의 三岳山일대에서 南下하기 위하여 渡河準備中이라는 것이다.

5월 8일 : 연대는 계속 現방어진지에서 인접부대와 連繫를 유지하면서 前方에 대한 적극적인 정찰활동을 전개하여 春川 附近의 北漢江과 昭陽江 연안까지 수색하였으나 별다른 接敵 狀況은 없었다.

5월 9일 : 연대는 대대별로 계속 搜索偵察을 실시 하였는데 제2대대는 이날 前進部隊인 제5중대를 제6중대와 그 임무를 交代케 하였다.

5월 10일 : 연대는 이날 春川 西南쪽 北漢江일대에 대한 세밀한 偵察活動을 전개한 결과 三岳山일대에 박격포와 重機로 裝備된 2개대대 규모의 中共軍이 계속 渡河準備中임을 再確認하였다.

5월 11일 : 연대는 계속 現방어선을 維持 하면서 君子里일대와 鼎足里일대를 偵察하였으나 接敵은 없었다.

그리고 제2대대는 이날 前進部隊인 제6중대를 제7중대와 交代시켜 前方에 대한 수색을 계속 하였다.

5월 12일 : 이날 연대에서는 德斗院里 △ 395일대에서 中共 제39軍 예하의 2개연대가 渡河準備中이라는 情報를 入手하였는데 北漢江 연안의 八味里까지 進出하여 偵察活動中 연대 수색대가 다시 이 사실을 確認하였으며 또한 이들 敵은 北共軍과 混合編成된 部隊인 것으로 判斷되었다.

5월 13일 : 연대는 이날 美 해병제4砲兵대대 警備를 위하여 1개소대를 抽出하여 支援키로 하였다.

그리고 前進部隊인 제2대대 제7중대는 鳩岩洞 △ 542를 根據로 하여 北漢江 연안까지 偵察을 계속하였는데 東面 九峯山근방에 있는 萬泉里부락에서 中共軍이 식량을 掠奪하고

있다는 住民들의 提報에 따라 急遽 出動하여 그 부근을 包圍 수색하였으나 敵은 이미 退散한 다음이었다.

5월 14일 : 연대는 前方偵察을 계속 실시하였으며 敵의 大部隊主力이 점차로 南下하여 我軍과의 接觸이 가까워지자 연대의 前進인 제7중대가 敵의 大部隊의 攻擊을 받아 狀況이 不利할 경우에는 右側에 인접되어 있는 美 해병제7연대 제1대대 지역을 通하여 移動하고 그 대대장의 指揮下에 들어가도록 協調하였다.

5월 15일 : 이날도 연대는 春川市 南쪽 國士峰과 孝子洞일대에 대한 偵察活動을 강화하는 한편 연대S—2에서는 情報要員을 住民으로 變裝시켜 北漢江연안 八味里에 潛入케하여 敵情을 探索케한 결과 三岳山일대에서 이미 渡河를 끝낸 中共 4개연대 규모가 八味里와 江村里를 연하는 北漢江의 南岸線에서 攻擊을 準備中인 것을 確認하였다.

이와같이 敵의 大攻勢가 임박한 사실을 探知하게 되자 연대는 주요接近路上에 地雷와 철조망을 增設하는 등 陣地를 補強하고 將兵들은 各者의 守地에서 臨戰態勢를 完備하면서 敵의 動向을 계속 注視키로 하였다.

(4) 中共軍의 제5차 2단계 攻勢와 防禦戰(5. 16—5. 22)

(가) 작전계획

지난 4월 22일 제5차 1단계 攻勢에서 여지없이 擊砕된 中共軍은 그동안 後方에서 瓦解된 병력을 再糾合하고 모든 可動戰力을 再整備한 다음, 5월 16일을 期하여 再次 攻勢를 企圖하였으니 이것이 所謂 그들이 말하는 제5차 2단계 攻擊이었다.

이렇게 하여 이날 中共軍은 東部戰線에서는 125,000명에 達하는 大兵力으로 제1 및 제3 兩군단 지역에 그 主攻을 指向하여 包圍와 突破등 그들의 常套的인 戰法을 互用키로한 것으로 判斷되었다.

또한 中共 6개사단은 美 제10군단에 作戰配屬中인 제5 및 제7兩사단 正面에 集中공격하여 드디어 전선을 突破하고 32km의 突破口에서 銳意南侵함으로써 全般的인 戰線이 무너질 위기에 直面하게 되었다.

이때 8군사령관 Van Fleet중장은 이 戰線을 安定시키기 위하여 서울 東南쪽에서 예비대로 있던 美 제1군단산하 美 제3사단을 急遽 東部戰線으로 轉用 하였다.

한편 美 해병제1사단 지역은 敵의 主攻에서 벗어났으나 그 一部는 이미 我軍 前進陣地까지 威脅하고 있었다.

(나) 작전실시

5월 16일 : 이날 제2대대는 제7중대와 前進임무를 交代하고 朝陽里 △425를 점령한 제5중대는 前方 △387에 推進 하였던 1개분대가 中共 1개중대 규모의 包圍를 當하게 되었으나 分隊員들은 오히려 敵 3명을 射殺하고 突破에 成功한 다음 중대에 合勢하였는데 이때 我軍도 1명의 失踪者를 내었다.

5월 17일 : 연대는 敵의 攻擊이 加重되자 제1대대에서 1개소대를 抽出하여 美해병포병대대진지의 경비를 增援토록 하였다.

이때에 1개연대 규모의 中共이 春川—洪川間의 本道를 避하면서 연대 主補給路의 西側間道로 潛入하여 前哨部隊인 제5중대의 後方을 거쳐 新店里에 位置한 美 해병제7연대 本部를 奇襲하였으므로 제5중대는 일단 美 해병제7연대 제1대대 지역으로 移動하여 그作戰指揮를 받게 되었다.

한편 연대S—2에서는 이날 三岳山일대에 中共 2개사단 규모의 兵力이 계속 南下中이라는 情報를 入手함으로써 先制的으로 이 敵을 屠戮할 方策을 熟議하고 있었다.

5월 18일 : 이날 美 제10군단 명령으로 美 해병제1사단이 戰鬪正面을 縮少함에 따라 我 제5, 제7의 兩사단 正面에서 突破口가 開放됨으로써 그 右側面의 敵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는 美 제2사단을 支援하기 위하여 前線配置를 再調整하였다. 즉 豫期치 않던 早期의 接敵으로 敵中에 突出하는 形勢에 있던 美 제7연대를 약간 後方에 있는 No Name線에 따라 陣地를 점령케 하는 한편 美 해병제1연대를 東쪽으로 轉用하여 美 제2사단의 제9연대 지역을 담당토록 措置하였으며 美 해병제5연대는 그담당 지역을 美 제7사단의 제32연대에 인계한 다음 美 해병제1연대의 右側진지를 점령케함으로써 美 제2사단의 前線은 약간 東側方을 向해 敵과 對峙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대는 사단의 左一線이 되었으며 제5중대는 美 제7연대로부터 復歸하고 연대 右側에 있던 제1중대는 그 담당 지역을 美 해병제7연대에게 引繼하는 즉시로 제9중대가 占領中인 진지를 確保함으로써 제3대대는 1개중대를 예비대로 控置하게 되었다.

5월 19일 : 이날 美 제2사단의 前線을 南쪽으로 後退整理한 까닭으로 그 西側 隣接인 美 해병제1사단의 主抵抗線도 따라서 東側에 彎曲部를 形成하게 되었다. 이러한 緣由로서 연대는 제2중대를 後退再配置하여 △381를 占領케 하고 이에 따라 제3중대도 南쪽으로 물러나 새로운 진지를 점령하게 되었다.

이날 美 해병제1사단의 前線은 右로부터 美 해병제5연대, 美 해병제1연대, 美 해병제7연대와 左端에 韓國해병제1연대 順으로 4개연대가 모두 一線에 並列하게 되었으며 사단 CP는 陽地村(洪川 西南쪽 4km)에 位置하고 있었다.

또한 이때 사단前方에서 直接 대치하던 敵은 中共 제60軍의 제179사단인바 同사단은 海兵師團의 進出을 牽制할 目的으로 最近에 東쪽으로부터 새로 投入된 것으로 確認되었다.

5월 20일 : 連日 계속되는 友軍의 空地兩面으로 부터의 強打로 因하여 敵은 그동안 크게 萎縮을 당하였으며 더욱 通信線과 補給路의 切斷으로 말미암아 그 攻破의 銳鋒이 鈍化되고 所謂 그들의 제5차 2단계 攻勢도 1단계 攻勢보다도 더욱 커다란 誤錯을 自招하고야 말았다는 徵兆가 짙어지게 되었다.

이날 제2대대 제7중대는 遠所里에 있는 △ 411를 確保하고 待機中 연대명령에 따라 原隊로 復歸하였다.

5월 21일 : 연대는 이날 03.00부터 全前線에서 侵襲을 敢行한 敵을 맞아 1시간동안에 걸쳐 交戰한 끝에 이를 擊退하였는데 12.30에 제2대대 제5중대는 연대 前進部隊로서 朝陽里의 △ 237를 基地로 西北方을 中心으로 정찰을 계속하던 끝에 俗稱 塔골 附近에서 左側인 美7사단 제31연대와 連繫하였다.

이날 연대는 主抵抗線 前方 7km의 君子里 △ 453일대에 中共 1개연대 규모의 兵力이 集結中이라는 情報를 入手하였다.

5월 22일 : 敵은 東部戰線의 突破口를 더욱 擴開하려고 美 제10군단의 右一線인 美 제2사단 右翼에 대하여 거듭되는 大量殺戮에도 屈하지 않고 執拗한 人海侵攻을 계속하였다.

이에 8군 사령관 Van Fleet 중장은 美 제9군단에 대하여 制限된 攻擊으로써 美 제2사단 正面의 敵의 主攻威勢를 減退하도록 策하였다.

그래서 이날 美 제9군단이 進擊을 개시하게 되자 연대는 左側에 있는 美 제31연대와 連繫를 유지하기 爲하여 동시에 併進攻擊키로 하였다.

즉 이날 08.00에 연대는 제1대대를 右第一線에, 제2대대로써 제3대대를 超越케 한 다음 左第一線에, 제3대대를 예비로 하여 攻擊態勢를 取하였다.

제1대대는 朝陽里에 있는 △ 463를 目標로 進擊하여 13.30에 이를 占領하고 제2대대 主力은 09.00에 遠所里 北쪽高地까지 進出한 제5중대와 合勢하여 金鶴山 北쪽 作戰路上까지

進出하였다.

(5) 洪川北方의 攻擊戰(5. 23—6. 1)

(가) 작전계획

5월 16일 No name線에서 敵의 제5차 2단계 공격을 성공적으로 擊破한 연대는 다시 사단命令에 따라 地域을 美 제9군단 제7사단의 제31연대에 인계한 다음, 洪川北쪽을 目標로 躍進하게 되었는데 5월 22일 24.00에 연대장 金大植 대령은 예하 대대장에게 要旨 다음과 같은 攻擊準備命令을 下達하였다.

『① 연대는 美 제7사단 제31연대에 陣地를 인계하는 즉시로 松亭里로 移動하여 北進攻擊을 準備하려한다.

② 제1대대는 美 제7사단 제31연대와 陣地를 交代하는 즉시로 松亭里에 車輛機動하여 攻擊을 준비하라.

③ 제2대대는 美 제7사단 제31연대와 陣地를 交代하는 즉시로 花洞里에 車輛機動하여 攻擊을 준비하라.

④ 제3대대는 5월 23일 08.00부터 車輛으로 松亭里를 向하여 機動한 다음 攻擊을 準備하라.』

(나) 작전실시

5월 23일 : 제1대대는 이날 15.00에 美 제7사단 제31연대의 예하부대에 陣地를 인계한 다음 17.00에 本宮里(洪川 西北쪽 8km)에서 車輛으로 機動하여 19.35에 松亭里(洪川 東北쪽 6km)에 轉進하였다. 한편 제2대대는 12.00에 陣地를 인계한 다음 14.00부터 역시 車輛으로 本宮里에 機動하여 18.30에 花洞里(洪川 西北쪽 3km)에 進出하였으며 제3대대는 08.00에 新述里를 떠나 09.30에 本宮里에 集結하는 동시에 待機中인 車輛便으로 13.00에 松亭里에 도착하였다.

또 한편 연대본부는 근무중대 차량과 美 해병사단에서 지원받은 차량편으로 14.00에 出發하여 17.00에 松亭里에 도착하는 즉시로 CP를 設置하였다.

이로서 美 제7사단 제31연대와 陣地를 交代한 연대는 美 해병제1사단의 예비대로서 松亭里와 花洞里一帶에 集結하여 攻擊準備에 着手하였다.

5월 24일 : 연대(제2대대缺)는 이날 18.20에 사단 命令에 따라 車輛 및 徒步로 松亭里에서 北進을 始作하여 22.00에는 俗稱 기와집마을(松亭里 北쪽 5km)에 進出한 다음 제1대대

를 그 北方에, 제3대대를 그 東南方에 各各 진지를 점령케 하였다.

5월 25일 : 이날부터 연대는 接敵을 유지하기 위하여 前方에 대한 積極的인 搜索偵察을 실시 하였는데 제3대대(장, 金潤根 소령)는 이날 기와집마을에서 北쪽 6km까지 進出한 다음 △ 916일대에서 연대의 右側 前方을 그리고 제2대대(장, 尹永俊 소령)는 花洞里로 부터 北쪽 10km지점까지 挺進하는 동시에 北方里일대에서 연대의 左側前方을 各各 수색하였다.

한편 제1대대(장, 孔正植 소령)는 연대예비로서 기와집마을 CP를 中心으로 四周要點에 兵力을 配置하여 近距離 수색과 CP의 警戒에 臨하였다.

5월 26일 : 이날 09.00에 제2대대는 上傑里(春川 東南쪽 10km)南쪽 △ 709에 進出하여 美 해병제1연대의 임무를 引受한 다음, 昭陽江 연안까지 偵察圈을 확대하였다. (이날 美 해병제1연대는 사단 예비대로 편입 되었음.)

제3대대는 전날 占領한 △ 916에서 3km 前方까지 躍進하여 品傑里 一帶를 수색하였는데 대대의 정찰대는 멀리 昭陽江畔까지 정찰하였다. 그러나 이때에 敵의 主力은 이미 昭陽江을 渡江하여 北上退却하였으므로 커다란 衝突은 없었으며 다만 소수의 敗走兵들을 驅逐하고 그중 3명을 射殺하였다.

한편 제1대대는 연대 예비대로 이날 08.00에 기와집마을에서 本道를 따라 5km에 걸친 行軍 끝에 09.00에 楓川里(春川 東南쪽 14km)까지 進出하였으며 1개분대를 前方으로 派遣하여 △ 916에서 제3대대와의 連繫를 取하도록 하면서 近距離 정찰을 계속토록 하였다.

5월 27일 : 제2대대가 美 해병제1연대와의 임무를 交代함에 따라 연대는 사단의 左一線이 되어 계속 北方으로 進擊하게 되었다.

이날 연대 CP는 楓川里로 이동하고 제1대대는 연대의 右側前方인 鷄鳴山 一帶의 昭陽江 突出部를 搜索하기 위하여 제3대대를 超越하는 동시에 연대 右一線으로 內坪里(春川 東北쪽 16km)에 進出하였는데 이곳에서 中共 敗殘兵 2명을 逮捕하였다.

제2대대는 커다란 接敵없이 연대 左側에 있는 昭陽江 南岸一帶를 搜索하였다.

제3대대는 연대 예비대로서 연대 中央의 昭陽江 南岸 一帶를 수색하였으며 이날 제11중대 정찰분대는 內坪里 南쪽 昭陽江에 연한 △ 324에서 中共 1개소대 규모의 彷徨兵을 奇擊하여 射殺 2명 捕虜 10명에 이어 多發銃 3정과 38式小銃 3정을 노획하였다.

5월 28일 : 昭陽江 南岸에서 殘敵을 擊滅한 연대는 이날 昭陽江 北岸을 偵察하기 위하여 基地를 前方으로 推進한 다음 同北岸에 있는 △ 392(內坪里 西쪽 2km)에 本部를 設置하고 그동안 繼續的인 進擊만으로 如意치 못한 補給品을 勿老里에서 空中投下로 支援받게 되었다.

제1대대는 계속 연대 北東에 있는 鷄鳴山 南쪽 一帶에 대한 偵察을 實施하면서 △ 672(鷄鳴山 南쪽 2km)까지 進出하였다.

제2대대는 이날 06.15에 北方里(洪川 北쪽 13km)에서 사단지원차량으로 春川을 경유하여 昭陽江을 건너 泉田里(春川 東北쪽 10km)에 進出하고 14.00에 다시 徒步로 △ 392까지 前進하여 그 一帶를 점령함으로써 左側方에 있는 제7중대로서 제6사단 제7연대(장, 梁仲鎬 대령)와 連繫하였다.

한편 예비대인 제3대대는 勿老里까지 進擊하여 새로운 진지를 점령하고 근거리 偵察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이날 上級部隊로부터 入手한 情報에 의하면 昭陽江 北岸에 있는 鉢山里의 水利峰(春川 東北쪽 13km)일대에 中共 1개연대 규모의 兵力이 集結中이며 麟蹄로부터 그 南方 25km에 이르는 線上에는 中共 100,000명의 大兵力이 雲集함으로써 必是 再反擊을 노리는 것으로 判斷된다는 것이다.

5월 29일 : 이날 연대는 CP를 內坪里로 이동하고 昭陽江畔에서 더욱 北上하여 偵察威力圈을 擴大하였다.

제2대대는 楸谷里(楊口 西南쪽 10km)까지 進出하여 그 一帶를 探索하였는데 제5중대는 산막골에서 敵1명을 射殺하고 1명을 사로잡았으며 제6사단 제7연대 제3대대와 連繫하여 任務를 交代하고 楸谷里 西쪽 △ 811前方 진지를 점령 하였다. 제6중대는 吾項里 부근에서 敵 射殺 2명 捕虜 10명의 戰果를 올렸고 제7중대는 횟골에서 적 射殺 10명의 戰果를 얻었다.

또 제1대대는 鷄鳴山 東쪽 昭陽江에 연한 明吾地와 장터골 一帶를 探索하였으며 1개 정찰分隊는 沙田里의 나루터를 건너 昭陽江 北岸을 偵察中 一團의 敵의 偵察要員들과 不意에 衝突하여 交戰끝에 8명을 射殺하였다.

한편 연대 예비대인 제3대대는 照橋里(鷄鳴山 南쪽 7km)와 大同里(鷄鳴山 南쪽 3km)一帶에 對한 搜索偵察을 전개 하였다.

그런데 이날 8군사령부에서는 敵의 攻勢策動을 根本的으로 塞源하기 위하여 美 해병

제1사단으로 하여금 東海岸의 通川으로 上陸시켜 敵의 退路를 遮斷케하려는 壯快한 計劃을 論議한 바 있었으나 결국 그 實現을 보지 못하고 말았다.

5월 30일 : 연대는 敗走하는 敵을 뒤쫓아 계속 進擊하여 제1대대는 雞鳴山일대로 進擊하고 제2대대는 楸谷里에 躍進하고 있었다.

이때 연대장 金大植대령은 예비대로 있던 제3대대로써 제2대대의 右側 高地一帶를 占領케하는 동시에 계속 併進토록 命令하고 제1대대는 1개중대를 제3대대에 配屬시키도록 措置하였다.

이렇게 하여 제3대대는 08.00에 內坪里앞 昭陽江을 넘어 계속北進하였는데 이에 앞서 이날 07.30에 沙田里 나루터에서 "Duck"車로써 渡河한 제1대대 제1중대를 配屬받았으며 그뒤 18.30에 CP를 水仁里의 狹財골(楊口 西南쪽 10km)에 設置하는 동시에 제9중대를 右一線으로 하여 △ 551을 占領케하고 제11중대를 左一線으로 하여 제9중대와 連繫토록 하였다.

한편 제1대대는 연대의 右側後方에서 依命 제1중대를 제3대대에 배속시키고 12.00에 제3중대는 雞鳴山을 占領끝에 昭陽江 沿岸을 偵察토록 하였다.

5월 31일 : 이날도 연대는 계속 躍進하여 제2대대는 四明山(楊口 西南쪽 7km)一帶에 進出하고 제3대대는 제2대대의 右側에서 併進하여 △ 685(四明山 東쪽 4km)를 占領한 다음 그 CP를 雄津里에 設置하였다.

한편 제1대대(제1중대缺)는 雞鳴山 一帶의 昭陽江 突出部를 搜索하고 이날 09.30에 沙田里 나루터에서 渡河하여 11.40에 目標地인 泉內(鷄鳴山 西쪽 4km)까지 占據하였다.

6월 1일 : 제2, 제3 兩대대는 이날 華川貯水池 南岸에 대한 수색활동을 展開하였으며 제1대대는 07.50에 泉內에서 出動하여 09.20에 恭里 絲川峴(楊口 西南쪽 7km)에 進出한 다음 그 附近一帶를 占有하고 곧 偵察隊를 西北方에 있는 四明山에 派遣하여 제3대대와 連繫토록 하였다. 그리고 제3대대에 배속된 제1중대는 10.30에 原隊로 復歸하였다.

이렇게 계속 躍進을 거듭하여 이미 華川貯水池까지 掌握하게된 聯隊는 이날 사단으로 부터 또 다시 새로운 機動命令을 받았으니 그 內容의 要旨에 이르기를 『연대는 6월 3일 12.00를 期하여 現占有 지역을 제7사단 제3연대에 인계하는 즉시로 松亭里로 이동하여 美 해병 제5연대와 그 임무를 교대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연대는 現占 지역을 제7사단(장, 金容培 준장)에 인계하고 다시 楊口와 麟

蹄 사이에 있는 험준한 山岳地帶인 兜率山부근으로 轉進하게 되었다.

라. 전투후의 개황

1951년 5월 16일을 期하여 무려 125,000명의 大兵力을 動員하여 東部戰線으로 侵攻한 中共의 所謂 제5차 2단계 攻勢도 我軍側의 迅速한 機動과 強大한 火力으로 말미암아 敵은 많은 損失만을 입고 退却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友軍은 이들에게 時間의 여유를 주지 않고 계속적인 爆擊과 速攻의 互用으로써 追擊을 加하자 그들은 指揮系統의 混亂으로 積屍가 累累한 가운데 退散하게 되고 겨우 목숨을 부지한자들은 集團 투항하는 例가 적지 않았다.

이렇게 한 결과 제2단계 공세를 再演한 이래 5월末 현재까지 불과 2주동안에 그들이 입은 兵力의 損失만도 105,000명으로 推算되었으며 그중에는 17,000명의 戰死者와 10,000명의 포로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같이 戰線의 사태가 위급하게 되자 中共은 그들의 同族의 生命을 救出하기 爲하여 北共을 利用하였으니 北共 제2, 제5 兩군단을 楊口와 麟蹄 地域으로 配置함으로써 그들의 退散을 掩護케 하면서 遲延戰을 전개토록 하였다. 이때 美해병제1사단 正面에 대치한 敵은 北共 제5군단에 屬하는 제6, 제12, 제32의 3개 사단으로 判明되었다.

당시 中共의 제2단계 공세로 戰線의 一角을 喪失하였던 美제10군단은 5월末까지 사이에 全前線을 完全히 再整備強化하고 6月에 접어들면서는 總攻擊으로 移行케 되어 美해병제1사단은 楊口로부터 Punch bowl로 進擊하게 되었다.

이런中에 연대는 6월3일 12.00에 그담당 地域을 제7사단 3연대(장, 鄭震 대령)에 인계하고 東側에 있는 美해병제5연대 지역을 引受함으로 美해병사단의 中央 第一線의 主力으로 攻擊에 參加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때에 연대가 담당한 지역은 大愚山과 兜率山 一帶로서 여기는 과거에 어떤 友軍 兵團도 敢히 進擊을 試圖하지 못한 處女地帶로서 美해병제5연대가 攻擊에서 實利를 보지 못하였던 中部戰線의 太白山脈中에서도 가장 험준한 絶壁으로 圍繞된 말하자면 難攻易守의 要地이며 敵이 固守無敗를 자랑하던 著名한 據點이기도 하였다.

本(華川地區) 戰鬪에서 海兵제1연대가 거둔 大隊別 綜合戰果는 다음과 같다.

제 1 대대 : 사살 24명, 포로 26명, 美군구출 1명
노획 : 輕機 1정, M_1 소총 3정, 俄式 소총 3정, 軍馬 2匹

제 2 대대 : 사살 27명, 포로 85명, 美군구출 7명
노획 : 99式 소총 2정, 체코輕機 2정, 俄式소총 24정, M_1 소총 6정, 手榴彈 19발, Canada重機 1정, 120mm 박격포 3문, 105mm 박격포 1문, 60m/m 박격포 1문, 蘇式騎兵小銃 2정. 57m/m 무반동총 1문, 깨스車 2대, 지휘차 3대, 其他(被服 30착, 運動靴 100족 등)

제 3 대대 : 사살 2명, 포로 58명,
노획 : M_1소총 2정, 俄式소총 12정, 多發銃 5정 輕機 1정, 99式重機 1정, 99式小銃 1정, 57m/m무반동총 1문, 81m/m박격포脚 1조, 60m/m 박격포 1문, 其他(고무靴 300족, 被服 300착)

연대본부 : 사살 1명 포로 9명
노획 : 多發銃 1정

§ 參戰者의 證言

◇ 第1대대본부 張大吉 준위

(1965. 2. 23 진해교육단부단장실 대령)

우리 대대가 연대의 左일선으로 北漢江을 渡河하여 目標地域을 占領 防禦하고 있던 그날밤 22.00경에 멀리서 「피리」소리와 「팽과리」소리가 들려 온다고 전방중대에서 報告가 드러왔다.

그러더니 잠시후에는 요란한 사격과 함께 一大 血戰이 벌어졌는가 하면 동시에 중공군의 선두부대가 진지 下簾에서 개미떼처럼 밀어 닥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 我軍은 무려 3시간 이상의 격전을 계속하였으나 彼我兵力의 懸隔한 差異로 말미암아 苦戰에 陷入된 反面 敵은 더욱 攻勢를 떨치기 시작하였다. 이때 연대장(金聖恩 대령)으로부터 『대대 CP가 위태로운 것 같으니 지금 즉시 철수하도록 하라』는 電話命令이 있었다. 대대장(孔正植 소령)은 잠시 참모들의 表情을 둘러본 다음 決心한 듯이 『연대장님! 이곳 陣地는 염려마십시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 내겠읍니다. 그대신 적을 擊退하고 나거든 "위스키"나 한병 보내 주십시요』하고는 유쾌하게 웃는 것이었다. 이처럼 危急한 狀況하에서도 自信만만하고 여유있는 대대장의 態度를 본 參謀들은 勇氣百倍하였고 굳은 결의를 새롭게 하였다.

그러나 이때에 제3중대가 드디어 突破당하여 陣地를 빼앗기게 되자 대대장은 중대장(姜勇 중위)을 불러 『어떤 일이 있드라도 陣地는 確保하라』는 강경한 명령을 내리는 한편 대대 전 장병에게는 『一當 百으로 醜敵을 必滅하고야 말겠다는 信念으로 決死 奮戰하여 海兵의 勇名을 떨쳐 주기 바란다』는 뜻으로 激勵하였다. 이렇게 해서 제3중대는 다음날 黎明을 기해 必死의 逆襲을 敢行하여 陣地를 再奪還하였으며 장병의 士氣는 충천하여 침투한 敵을 격퇴하고 主抵抗線을 確保하는데 成功하였다.

그날 오후 연대장으로부터 約束대로 "위스키"가 보내져 왔으며 대대장은 이것을 가지고 우선 제3 중대장에게 직접 찾아가 격전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다.

◇ 第1대대 제3중대 제3소대장 李道祚 一曹

(1965. 2. 19 진해교육단상남훈련대 준위)

우리 중대는 美기갑부대와 임무를 교대한 이래 한동안 北漢江을 사이에 두고 彼我間에 搜索偵察만을 계속해 왔는데 나는 우리 중대의 偵察任務는 거이 도맡아 수행해 왔다.

하루는 역시 敵情探索의 임무를 부여받고 夜陰을 이용하여 隊員 2명과 함께 北漢江을 水泳으로 渡河했는데 江의 中流까지 왔을 때 마즌편에서 역시 수영으로 건너오고 있는 검은 그림자를 發見하였다. 우리는 이것이 敵의 偵察隊員임을 直感하고 이 敵을 조심히 追及한 끝에 美 해병대 지역 부근에서 겨우 사로잡을 수가 있었는데 잡고 보니 역시 중공군 정찰대원이었다.

그때 이 포로를 끌고 中隊長 앞에 나갔더니 중대장님이 좋아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기역에 새롭다. 우리는 그때 渡河를 앞두고 상세한 敵情이 필요한 때였다.

◇ 華川邑 住民 白元吉氏(당시 33세)

(1973. 4. 29 江原道 華川郡 華川面 六利里

五班 농업 56세)

(1) 北漢江을 사이에 두고 彼我間에 격렬한 戰鬪를 계속 했는데 이때 대부분의 住民들은 양곡과 의류 등을 집 울안 마당을 몰래 파서 묻어놓고 避難을 했었는데 中共軍들이 山에서 내려와 긴 쇠꼬챙이로 묻어논 곳을 쑤셔 용케도 모두 찾아내서 가지고 달아났다.

그리고 渡河하는 다리(橋)를 만든다고 마을의 집 大門은 모두 떼어가지고 갔지만 다리 건설은 실패한 모양이다.

(2) 中共軍은 華川邑內에서 美軍 포로들에게 대부분 식사를 굶기고 作業만 시켰는데 가끔 주는 식사도 더럽고 매운 음식을 주어 먹지 못하게 하였다. 이 美軍 포로들이 작업중 배가 고파서 監視兵 눈을 피해 밭에 버려진 날콩들을 허겁지겁 까먹는 것을 보고 가슴이 몹씨 아팠다.

(3) 中共軍들은 華川貯水池의 鐵製 水門을 3개나 파괴해서 山으로 끌고 올라가 火器陣地를 구축하는데 이용하였다. 이 水門은 後日 進擊한 美軍들에 依해서 다시 만들어 졌다.

(4) 해병대들이 華川에 들어 왔을 때 우리들은 靑年 治安隊를 組織해서 마을 주위와 主要施設 등을 경비하는 등 友軍의 作戰과 治安유지에 적극 協調하였으며 友軍이 移動할 때 따라나가 노무부대로 활동 하였다.

§ 硏究

(1) 1950년 4월 18일의 戰果에 대하여

海兵제1연대의 戰鬪詳報에 依하면 4월 18일 華川邑內에 숨어있던 陸軍落伍兵 18명을 救出한 事實에 대하여 美해병제1사단 戰鬪史(US Marine Operation in Korea)에서는 『中共軍 11명을 捕獲』한 것으로 記載되여 있으나 다음과 같은 理由로 연대의 戰鬪詳報를 채택 하였다.

(가) 제1대대 S-2將員 9명이 華川邑內에 突入하였을 때에는 敵은 이미 이 地域에서 멀리 退却한 다음이었는데 中共軍이 11명이나 아직까지 邑內에 남아 있을 公算이 稀薄하다.

(나) 그 前日인 4월 17일에도 敵에게 捕虜된 友軍 2명을 救出한 사실이 있고 다음날인 4월 19일에도 華川邑內에서 落伍兵 3명을 다시 救出하였다는 事實을 勘案한다면 당시 華川 附近에 負傷또는 行方不明으로 落伍된 我軍의 將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推斷할 수 있다.

(다) 參戰者들의 證言(한국전쟁史料 해병제3107호)에 의하면 華川邑內에 突入하였을 直後 華川江뚝의 굴속에 숨어있던 友軍 落伍兵들을 20명 가량 救出하였다는데 이 當時에 戰線이 서로 膠着狀態를 이루고 混迷無雙하였기 때문에 失踪者의 誘發은 있을 수 있는 全般的인 戰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4월 22일 제1대대에 關한 狀況

海兵제1연대에서 中共軍의 第5次 1段階 攻擊을 最初로 맞이한 部隊는 제1대대 제3중대로서 그 時間에 있어 해병제1연대 戰鬪詳報에는 4월 23일 11.10으로 되여 있으나 다음과 같은 根據로 4월 22일 23.10으로 訂正키로 하였다.

(가) 海兵제1연대 戰鬪詳報에 依하면 中共의 總攻勢로 일단 撤收하였다가 다음날 아침 反擊한 時間이 4월 23일 05.00로 되어 있으므로 撤收한 時間이 4월 23일 11.10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시간적으로 錯誤된 것으로 볼 것이므로 그 前날밤인 4월 22일 21.10인 것을 誤記했던 것으로 推斷하는 바이다. 즉 漢文으로 縱書한 當時의 戰鬪報告書에서 22日을 23日로 21.10을 11.10로 착오하기 쉬운 것이기 때문이다.

(나) 中共軍의 第5次 1段階 攻勢가 開始된 것이 4월 22일 13.00였으므로 제1대대 正面에 나타난 時間이 늦어도 그날 저녁인 4월 22일 21.10이 23일 11.10보다 타당할 것이다.

(다) 參戰者(第1대대 通譯官 張六吉 准尉)의 證言에 依하면 제3중대가 夜間에 일단 撤收하였다가 그 다음날 여명에 反擊하였다고 한다. (한국戰爭史料 해병제3107호)

(3) 4월24일 友軍機의 네이팜彈 誤爆에 關하여 : 해병 제1연대 戰鬪詳報에는 4월24일 狀況이 수록되어 있지 않으나 여러 參戰者들의 證言에 의하면 제1대대가 北漢江을 渡河 撤收하던날 오전(09.00경)에 友軍機로부터 대대CP 근처에 네이팜彈이 誤爆되어 一大 混亂이 야기되었으나 약간의 裝具에피해가 있었을 뿐 人命被害는 없었다고 한다.

(4) 北漢江을 渡河 撤收한 時間問題에 대하여 : 해병제1연대 예하 各 大隊가 撤收命令에 따라 北漢江을 渡河한 日字가 해병제1연대 戰鬪詳報에 依하면 제2 제3 兩대대는 모두 4월 26일 狀況으로 수록되어 있고 제1대대의 狀況은 기록조차 되어있지 않으나 前記한 美해병제1사단 戰鬪史에 따른다면 韓國 海兵隊는 4월24일 北漢江을 渡河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海兵戰鬪史 제1집에도 各 大隊가 渡河 撤收한 日字가 4월24일로 기재되어 있는 點으로 보아 4월24일이 無難한 것으로 推定되므로 이것을 채택하였다.

6. 美 제1군단의 臨津江—서울 撤收戰(1951년 4월 22일부터 1951년 4월 25일까지)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美 제1군단	장	소장 Frank. Milburn	
제1기갑사단	장	소장 Charles D. Palmer	
제5기갑연대	장	대령 Jrving Lehrfeld	
제7기갑연대	장	대령 James K. Woolnough	
제8기갑연대	장	대령 Eugean J. Field	
제3사단	장	소장 Robert H. Soule	
제7연대	장	대령 James O. Boswell	
제15연대	장	대령 Dennis M. Moore	
제65연대	장	대령 William W. Harris	
제24사단	장	소장 Blackshear M. Bryan	
제5연대	장	대령 John L. Throckmorton	
제19연대	장	대령 Ned D.Moore	
제21연대	장	대령 Richard W. Stephens	
제25사단	장	소장 J. Sladen Bradley	
제24연대	장	대령 John T. Corley	
제27연대	장	중령 Gilbert J. Check	
제35연대	장	대령 Henry G. Fisher	
韓 제1사단	장	준장 姜 文 奉	
제11연대	장	대령 文 亨 泰	
제12연대	장	대령 金 點 坤	
제15연대	장	대령 金 安 一	
배속부대			
英 제29여단	장	준장 T. Brodie, D.S.O (제3사단 배속)	
Turkey여단	장	준장 Tahsin Yazici (제25사단 배속)	
Begium대대	장	중령 B.E.M. Crahay (英 제29여단 배속)	
Philippinn 제10대대 (제3사단 제65연대배속)	장	중령 Dionisio Ojeda	
韓 제5독립해병대대	장	소령 吳 命 福	

敵 軍

北共 제1군단	장	중장 이 한 목	中共 제19병단	장	楊 得 志
제8사단	장	소장 김 봉 문	제63군	장	鄭 維 山
제47사단	장	소장 백 낙 칠	제64군	장	曾 思 玉
제19사단			제65군	장	蕭 應 棠

나. 전투전의 개황

1951年初에 三陟—烏山線으로 물러섰던 我軍과 UN軍은 徐徐히 反擊으로 轉移하여 3월에는 서울을 奪還하고 대체로 38°線까지 進擊하고 있었다.

그동안 敗退하던 敵은 主로 中·西部戰線에 새로이 中共兵團을 增援하여 再攻勢를 준비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2月末에 膨德懷가 林彪의 後任으로 中共軍 前線司令官에 赴任하면서, 「陳謝兵團」으로 알려진 제3병단(장, 陳賡, 政治委員 謝富治)과 그가 大陸에서 第1野戰軍을 指揮할 당시 手裡에 있던 제19병단(장, 楊得志)을 이끌고 北韓으로 侵入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MacArthur—Ridgway 指導下의 我軍과 UN軍은 積極防禦策을 펴, 4月 前半에 Rugged 作戰을 展開함으로써 Kansas線을 確保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MacArthur元帥의 解任으로 Ridgway 중장이 그 後任이 되고 제8군은 Van Fleet중장이 指揮하게 되었으나 基本方針에는 變動이 없이 제1, 제9 兩군단으로써 Dauntless作戰을 展開하여 19일까지는 첫단계로 Utah線에 進出한 다음 다시 Wyoming線으로 前進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군단은 Milburn소장 指揮下에 21일 07.00를 期하여 右翼 및 中央右翼인 제24, 제25 兩사단이 金化—鐵原일대로 前進을 시작하는 한편 中央左翼 및 左翼인 제3, 韓 제1 兩사단은 威力搜索을 強化하고 있었다.

그런데 敵은 美軍과의 對戰經驗이 없으나 새로이 戰鬪에 參加한 만큼 銳氣찬 膨德懷의 兩 병단을 主軸으로 會心의 서울攻擊作戰을 企圖하니 이제 漢灘江—臨津江 沿岸에는 戰機가 무르익고 있었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1951年 봄, UN軍 司令部는 정세의 변동, 예컨데 UN軍의 大幅的인 增援이 없는 한 機動性있는 攻防의 反復으로서 敵侵을 扼守한다는 戰略槪念 밑에 作戰을 指導하였고, 4月初半에 我軍과 UN軍이 Kansas線을 確保한 것은 그러한 戰略의 一環이었다.

즉 Kansas線은 我軍과 UN軍이 本格的으로 北進을 하지 않는 以上, 元山—平壤線 南쪽에 있어서는 比較的 戰線이 短縮되고 防禦에 有利한 最北端의 線으로 劃定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제8군이 4月 4日附 Dauntless作戰計劃에서 Utah線 및 Wyoming線으로의 前進을 명령한 것도 實로 Kansas線의 堅守不動이라는 目的과 表裏를 이루는 것으로서, 同 計劃에는 제1·제9 兩군단장에게 不可避한 境遇에 있어서의 Kansas線으로의 撤收를 미리 是認하고 있는 것이다(作戰計劃과 아울러 제2절 臨津江—서울西北方戰鬪 參照)

또한 제8군 사령관 Van Fleet중장은 이러한 積極防禦策를 取하면서 豫想되는 敵의 攻勢가 再次 서울攻略에 主目標를 둔 것으로 判斷하자, 軍의 機動幅이 Kansas線보다 南下하더라도 서울만은 끝내 固守하기로 方針을 定하였다. 그리하여 군 예비인 제1기갑사단을 언제든지 서울外廓(漣川—議政府, 자일里—議政府, 汶山里—서울 또는 春川—北漢江 廻廊)에 出擊할 수 있도록 待機시켰고, 제187 空輸연대 전투단(장, Frank S.Bowen, Jr. 준장)도 空輸落下를 爲한 機動에 對備케 하였다.

이제 군단은 서울北方에서 敵의 攻擊을 挫折시켜야 하는 重責을 지게 되었다.

(2) 작전실시

4월 22일 : 군단은 계획대로 전날 Utah線으로부터 Wyoming線으로의 北進을 시작하여 이날도 가벼운 抵抗을 물리치면서 右翼이 鐵原 南쪽으로 3km 정도를 前進하였는데, 午後에 군단 砲兵偵察機가 敵의 攻勢迫頭를 警告하였다.

이에 군단은 現戰線에서 急히 防禦態勢로 轉換하여 陣地를 強化하였다. 그러자 日沒과 더불어 豫測대로 敵의 이른바 「4月攻勢」의 第一波가 臨津江岸에 들어닥쳤다.

1. 이때 右翼인 제24사단(장, Blackshear M. Bryan소장)은 사령부를 馬山里에 둔 가운데 金化, 南西쪽에서 진격을 中止하고 新術里—文惠里 南쪽에 防禦陣地를 占領하였다.

즉 右一線인 제5연대는 新術里 南쪽의 상해峰(△933)—△565線에서 金化—機山里 軸線을 防禦中이고, 左一線인 제19연대는 冷井貯水池 東쪽의 △211 부근에서 文惠里 일대를 壓制하면서 鐵原 東北쪽인 연동—雲川과 鐵原—新術里의 交叉路를 扼止하는 形勢였으며, 예비대인 제21연대는 機山里 東北方인 都坪에 待機中이었다.

2. 또한 中央 右翼인 제25사단(장, J. Sladen Bradley 소장)은 사령부를 永平에 두고 제35연대를 그 西쪽의 永平川 北岸인 姑蘇城里에 예비로 控置한 가운데 主力으로써 漢灘江 北岸으로 鐵原郡 南端까지 진출하다가 午後에 防禦態勢에 突入하였다.

그리하여 右一線인 제27연대는 冷井貯水池 東岸과 金峴貯水池 北岸을 東西 兩端으로 하는 長興里일대의 盆地에서 鐵原—雲川 및 文惠里—永平 道路를 遮斷하고, 中央一線인 제24연대는 金鶴山(△947) 南麓에 陣地를 占領하고 敵侵에 對備하였으며, 左一線인 Turkey

여단은 본부를 薪畓里에 두고 主力은 道新里일대에서 東側의 제24연대와 連繫하여 新灘里—漣川 道를 掌握하고 있었는데, 20, 30에는 사단 正面에 敵의 攻擊準備射擊으로 보이는 砲擊이 시작되었다.

3. 다음 中央左翼인 제3사단(장, Robert H. Soule 소장)은 東쪽에서 Utah線, 西쪽에서는 Kansas線을 계속 確保하고 있었으니, 사령부가 있는 全谷을 中心으로 하여 右一線인 제65연대와 左一線인 配屬 英 제29여단이 臨津江岸에 沿하여 兩翼을 펼친 形勢였다.

그리하여 제65연대는 配屬中인 Philippine 제10대대로써 漣川 北쪽인 栗洞에서 Turkey 여단과 連繫하여 漢灘江 西岸과 臨津江 東岸 사이에 陣地를 占領하였으며, 연대 主力은 栗洞—全谷에 이르는 臨津江 東岸을 따라 南北으로 西쪽을 向하여 配置함으로써 西側面에 對備하였다.

英 제29여단은 본부를 龜岩里에 두고 Ulster대대를 그 부근에 豫備로 控置한 가운데 麻田里—積城의 江 兩岸을 確保하고 있었다. 즉 配屬中인 Belgium대대는 右 第一線으로 江北岸에 元立하여 麻田里부근에 前進陣地를 占領하고, 中央 第一線인 Fusilier대대는 江南岸의 장현里 일대에서 全谷—積城 및 장현里—廣水院 삼거리를 扼守하며, 左 第一線인 Gloucester대대는 紺嶽山을 등지고 積城일대를 確保中이었는데 臨津江의 甚한 屈曲에 依한 廣正面으로 말미아마 據點防禦의 態勢를 취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左隣接의 韓 제1사단과의 戰鬪地境인 馬智里 南쪽 高地에는 空間이 생기게 되었다. 그런데 이날 여단은 다음날, 즉 4월 23일의 聖 Georgia日을 기념하기 위하여 陣中에서 恒例的인 儀式에 따르는 조촐한 祝祭를 준비하고 있었던 바, 18, 00에 中共 제63군 제187사단의 第一波가 北岸의 Belgium대대를 攻圍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Ulster대대와 제8기갑대대 C중대가 急遽 赴援하였는데, 21. 00가 되자 여단은 敵의 全面攻擊에 맞서게 되었다.

한편 제7연대는 사단 예비로서 哨城里에서 제15연대는 군단 예비로 抽出되어 議政府부근에서 각각 待機中이었다.

4. 그리고 군단 左翼인 韓 제1사단(장, 姜文奉준장)은 右一線인 제12연대가 馬智里—栗谷里 北쪽, 左一線인 제11연대가 栗谷里—汶山—吾今里 일대의 主陣地를 堅守하고 있었으며, 配屬中인 海兵 제5독립대대로써 金浦半島를 保持하고 있었다. (臨津江—서울 西北方 戰鬪 參照)

4월 23일 : 밤사이 敵은 군단 全面에 공격을 시작하여 西部戰線에 加하는 그들의 이른바 「4月攻勢」가 本格化하였다. 敵의 企圖는 中共 제64군이 군단 左翼인 韓 제1사단 正面을

強壓하고, 제63군은 臨津江 彎曲線으로 말미암은 廠田里—積城의 군단 西側 腰部인 英 제29여단 正面을 突破한 다음 東豆川으로 直衝함으로써 Utah線上의 군단 主力을 抱川—東豆川線에서 遮斷함과 아울러 군단 前後를 兩斷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아울러 中共 제65군 및 제15군은 군단 東半, 즉 제24, 제25 및 제3사단 正面을 強壓함으로써 中共 제63군의 後方遮斷에 策應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제8군은 이날 제1, 제9 兩군단에 이미 內示한 계획에 따라 敵에게 最大限의 打擊을 加하면서 Kansas線으로 撤收토록 명령하였다. (同 命令, 臨津江—서울西北方戰鬪 參照)

이에 군단은 각 사단의 예비 兵力으로 永平川 北岸에 收容陣地를 急編하여 撤收를 掩護케 하는 한편, 英 제29여단으로는 군단 主力이 Kansas線을 占領할 때까지 戰線을 固守케 함으로써 敵의 腰部 突破 企圖를 牽制하는 가운데 逐次 撤收目標인 Kansas線(永平川—漢灘江—臨津江河口)으로 反轉하여 戰線을 整齊코자 하였다. 그리하여 각 사단은 激戰을 치루면서 撤收를 시작하였다.

1. 제24사단은 05.00부터 正面에서의 敵의 공격을 받게 되었는데, 右隣接인 제9군단 左翼의 韓 제6사단(장, 張都暎준장)이 史倉里 溪谷에서 中共 제40군의 強襲으로 加平쪽으로 撤收케 됨으로써 군단 右側背가 暴露되어 이에 또한 對備하여야만 하였다.

그리하여 右一線인 제5연대(장, John L. Throckmorton 대령)는 急遽 조종川 北岸의 淸溪山 南端으로부터 東麓을 거쳐 機山里 東쪽 5km인 姜氏峰(△830)에 이르는 線에 陣地를 占領하여 右側背의 防護에 任하였다. 다음 左一線인 제19연대(장, Ned D. Moore대령)는 逐次로 撤收하여 都坪—雲川과 雲川—永平의 길목인 觀音山(△733)北麓에 遮斷陣地를 急編하였으며, 都坪에 사단 예비로 待機中이던 제21연대(장, Richard W. Stephens대령)는 제19연대 東側에서 都坪—雲川 및 機山里 道를 遮斷함으로써 Kansas線上에서 사단 右一線으로 防禦에 任하게 되었다.

2. 제25사단은 전날밤 夜暗이 짙어지면서 類例없이 重砲와 戰車까지 動員한 敵의 強壓으로 밤새 激戰을 벌인 끝에 우선 제27연대(장, Gilbert J. Check중령)는 밤중에 芝浦里—古南山(△644) 일대로, 이어 제24연대(장, John T. Corley대령)는 古南山—地藏峰일대로 각각 撤收하였다. 午後에 제27연대는 제24연대의 掩護下에 다시 反轉하여 18.00에 永平川 南岸인 梁文里에 集結하고, 제24연대는 雲川 西南 5km의 漢灘江 南岸에 遮斷陣地를 占領하였다.

한편 Turkey여단(장, Tahsin Yazici준장)은 밤새 일부가 包圍된 가운데 苦戰을 免치 못

하였다. 즉 전날 子正에 敵이 여단 右側 제24연대와의 間隙을 突破하고 南쪽으로 迂回하여 右 第一線을 包圍하였던 것이다. 이에 CP附近에 放列한 여단 포병이 밤새도록 포탄 도합 2,554발을 퍼부어 包圍網을 粉碎하니, 前線의 대대는 血路를 開拓하면서 새벽에 撤收를 시작하여 08.00에는 여단 본부가 있는 薪畓里 東쪽의 漢灘江 北岸에 遮斷陣地를 占領하였다. 이로서 여단은 밤사이에 15km나 撤收한 셈인데, 그 過程에서 戰傷 35명, 失踪 105명의 損失을 보게 되고 射殺 1,000餘名의 戰果를 올렸다.

또한 사단 예비인 제35연대(장, Henry G. Fisher대령)는 이날 薪畓里 南쪽의 漢灘江 南岸에 收容陣地를 占領함으로써 Turkey여단의 撤收를 掩護하였다.

3. 제3사단은 敵이 사단의 左側 腰部를 突破하는데 공격의 重點을 두었으므로 英 제29여단 正面을 固守하는데 全力을 集中하였으며, 이에 따라 臨津江邊은 屍山血海의 激戰場으로 突變하였다.

먼저 右一線인 제65연대(장, William W. Harris대령)는 右 第一線인 philippine 제10대대(장, Dionisio Ojeda중령)가 사단의 最北端에서 지난 밤부터 Turkey여단과 함께 敵의 物量攻擊에 맞서 奮戰하였는데, Turkey여단과의 戰鬪地境의 間隙을 따라 迂回한 敵은 대대의 예비대 陣地를 急衝하였다. 이에 대대장以下 본부의 行政要員 및 炊事兵까지 전투에 참가하였으나 03.00에는 그 以上 더 戰線을 支撐치 못하게 되어 反轉하여 18.00에 龜岩里부근에 집결하였다. 그런데 이때에 英 제29여단의 狀況이 危急하게 되어 대대는 英 旅團의 作戰區處를 받으면서 이를 支援케 되었다. 한편 연대 主力은 Philippine대대의 撤收를 掩護하면서 뒤이어 漢灘江線으로 隨意撤收하였다.

사단 左一線인 英 제29여단(장, T. Brodie, D.S.O 준장)은 전날밤 祝祭의 前夜祭場이 腥風血雨가 휘몰아치는 激鬪의 소용돌이로 一變함으로써 硝煙 속에 이날을 맞아 終日토록 激戰하면서 主陣地를 堅持하였다.

臨津江 北岸에 陣을 치고 있던 Belgium대대(장, B.E.M., Crahay중령)는 敵의 強壓속에 여단과의 通信마저 杜絶된 狀態였는데, 여단 예비대인 Ulster대대(장, R.J.H., Carson중령)와 제8기갑대대 C중대(장, P.H. Huth소령)가 이를 救援코자 하였으나 夜暗과 江의 障碍로 대대와 連繫치 못하였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대대는 계속 陣地를 固守하다가 敵이 대대 左右로 迂回하여 江을 건너 여단 主力을 攻擊하자, 대대도 곧 渡河하여 제65연대 戰車의 支援下에 별다른 危害없이 여단 본부 부근으로 撤收하였다.

中央 第一線인 Fusilier대대(장, K.O.N., Foster, O.B.E중령)는 밤새 敵과 交戰을 치루

면서 陣地를 堅守하였는데, 06.10에 Belgium대대가 撤收함과 아울러 그 間隙으로 敵이 殺到하였다. 따라서 戰鬪는 加熱化하여 12.45에는 全 대대가 白兵戰에 陷入하였으나, Ulster대대의 支援을 받으며 계속 陣地를 固守하였다.

또한 左 第一線인 Gloucester대대(장, J.P. Carne, V.C, D.S.O중령)는 특히 中共제63군 主力의 集中攻擊으로 惡戰苦鬪中이었다. 01.00에 敵은 피리와 나팔을 불며 積城 正面으로 臨津江을 渡下하여 그 第一波가 積城 南쪽의 A중대를 強襲하니, 중대는 激戰끝에 본부가 蹂躙되고 중대장 D.A. Angier소령도 陣歿하였으며, 通信兵까지도 맨손으로 激鬪를 벌이는 慘憺한 情況에 빠졌다. 뒤이어 각 중대도 白兵戰을 벌이게 되었는데, 날이 밝자 敵은 대대 西側의 △357와 東側인 紺嶽山(△675)쪽의 聳壁地帶를 突破하고 대대 後方의 雪馬嶺쪽으로 積城—廣水院 道를 遮斷하였다. 敵은 또한 正面에서도 1개 연대 규모로써 계속 대대를 공격하여, 대대는 그 補給所가 潰滅되고 여단과의 有線通信이 杜絶되는 등 「前門拒虎에 後門進狼」格의 狀況에 陷入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단에서는 대대에 無電으로 『現陣地를 계속 固守하라.』고 명령하는 한편 第45野戰砲兵대대(장, M.T. Young중령)로 하여금 대대를 직접 支援케 함으로써, 대대는 野砲支援下에 接戰格鬪를 계속하였는데, 砲兵은 各 砲마다 1,000發 以上을 消耗한 결과 保有 砲彈을 모두 射盡하였다.

午後가 되자 대대는 彈藥과 食糧 등의 補給品이 缺乏되기에 이르러, 美 空軍이 近接支援으로 대대를 重圍한 敵을 強打하는 한편 補給品의 空中支援을 敢行하였다. 그러나 彼我 서로 混戰中이어서 그 成果를 보지 못하고,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대대는 이날밤까지 陣地를 固守하고 있었다.

사단 예비대인 제7연대(장, James Boswell대령)는 이날 峭城里 西쪽의 兩遠里 부근에 收容陣地를 急編한 다음, 제65연대의 撤收를 掩護하고 제15연대(장, Dennis M. Moore대령)는 계속 군단 예비로서 議政府 부근에서 戰況의 推移에 따라 戰鬪에 參加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4. 이렇게 敵이 군단 左側을 強壓함에 따라 左翼인 韓 제1사단도 전날 子正이 넘으면서 高浪浦를 中心으로 한 臨津江沿岸에서 交戰을 시작하였는데, 새벽에는 主抵抗線에서 激戰이 벌어져 主로 右一線인 제12연대가 右隣接인 英 제29여단과의 間隙으로 迂回 侵攻하는 敵과 馬智里 南쪽 △180 및 坡平山 일대로 侵攻하는 敵을 阻止함으로써 主陣地를 堅持하였다.

4월 24일 : 이날 제8군 사령관 Van Fleet중장은 敵의 主攻이 서울에 指向함에 따른 對備

策의 一環으로 大邱에서 部隊를 整備中인 제187空輸연대 전투단(장, Frank S.Bowen, Jr 준장)을 急遽 永登浦에 集結케 하고, 군 예비인 제1기갑사단의 제5기갑연대(장, Irving Lehrfeld대령)를 15.00附로 제9군단에 配屬함으로써 그 左側方인 제1군단 東側인 加平 일대의 防禦를 強化케 하였다.

그리고 군단은 英 제29여단으로써 계속 左側 腰部를 堅忍持久하는 가운데 主力은 最少限의 損失로서 敵에게 最大限의 打擊을 加하면서 永平川 南岸으로 逐次 撤收토록 하여 Kansas線 일대에 걸친 戰線의 均衡을 圖謀하였다.

1. 그리하여 右翼인 제24사단(장, Blackshear M. Bryan 소장)은 대체로 전날의 陣地를 堅持하여 弧形의 防禦陣을 펼치고 있었으니, 제5연대는 전날의 姜氏峰 南쪽 陣地에서 군단 右側方의 防護에 注力하는 한편 제21연대는 都坪 西쪽의 麝香山—姜氏峰 北쪽에 이르는 縱深陣地를 占領하여 金化—서울 軸線을 遮斷하였으며, 제19연대는 전날의 觀音山 北麓 陣地에서 2개 대대 규모의 敵과 激戰끝에 陣地의 일부를 喪失하는 가운데 主陣地를 계속 固守하였다.

2. 그리고 제25사단(장, J. Sladen Bradley소장)은 主力이 永平川 南岸으로 反轉함과 아울러 사령부를 抱川 南쪽으로 移動한 가운데 일부로서 永平川 北岸의 陣地를 維持함으로써 梁文里—雲山里—君子洞일대를 確保하고 있었다.

즉 제27연대는 전날밤에 梁文里에 集結하여 戰列을 整備하던 中, 이날 일부병력으로 하여금 다시 永平川 北岸으로 渡河하여 雲山의 제24연대 後方에 展開케 함으로써 제24연대에 대한 支援과 아울러 雲川—抱川 街道를 扼止하였으며, 永平川 北岸의 제24연대는 계속 永平 北쪽의 雲山부근 陣地를 力戰 堅持中이었다. 그 西쪽에서 제35연대는 전날 占領한 收容陣地를 계속 確保한 가운데 Turkey여단의 撤收를 掩護하였으며, Turkey여단은 漢灘江 北岸의 新畓里 東쪽 陣地로부터 反轉하여 永平 西南쪽 4km인 永平川 南岸에 集結한 다음 部隊를 整備하는 한편 일부로써 역시 南岸인 新村—君子洞 間의 橋頭堡를 確保하였다.

3. 다음 제3사단(장, Robert H. Soule소장)은 이날 사령부를 全谷에서 東豆川으로 옮긴 가운데 哨城里—積城 南쪽에서 계속 敵의 重壓을 물리치고 있었다.

제65연대는 01.45에 제7연대의 掩護下에 主力이 東豆川 東南쪽인 紙杏里에 집결하여 그 北쪽의 東豆川을 瞰制하는 △279일대에 陣地를 占領하였는데, 일부는 東豆川으로부터 그 西쪽으로 鳳岩里 北쪽의 마산에 이르는 일대에서 東豆川—廣水院 및 東豆川—議政府 道를

掌握하였으며, 또 다른 일부는 제7연대 右側으로 挺進하여 上大田里—哨城里에 遮斷陣地를 占領함으로써 제7연대와 함께 全谷—東豆川 街道를 防禦하였다.

예비대로서 사단 右一線의 撤收를 掩護中인 제7연대는 이날 哨城里의 集結 兵力을 西쪽으로 展開하여 신천 西岸에서 哨村里 西쪽 4.5km의 △398에 이르는 일대의 陣地를 占領함으로써 英 旅團 戰線에 대한 支援과 제65연대의 撤收掩護를 함께 遂行하고 있었다.

左一線인 英 제29여단은 이날 敵이 中共 제188사단을 增援하여 여단 正面에 壓力을 加重하므로 말미암아 계속 激戰의 渦中에서 陣地를 固守하고 있었다. 그러하여 Fusilier대대는 Ulster대대의 支援下에 계속 臨津江 南岸의 陣地를 維持하고, Belgium대대는 廣水院 南쪽에 集結하여 Gloucester대대에 대한 支援態勢를 갖추었는데, 左 第一線인 Gloucester대대는 後方의 機動路가 遮斷된 被圍狀態에 陷入된 가운데 血鬪를 벌이며 陣地를 死守하고 있었다. 즉 대대는 전날 積城 南쪽에서 敵과의 激戰을 치룬 A중대가 이미 潰滅에 가까왔고 B중대도 將校 1명, 士兵 15명에 不過한 實情이었던 것이다. 이에 대대장 Carne중령은 隸下 全 中隊로 하여금 雪馬里 西山인 △235(뒷날 Gloucester Hill로 命名)에 대대본부를 中心으로 圓形陣地를 編成케 함으로써 防禦正面을 縮小하였는데, 이미 여단 본부와는 7km나 離隔한 敵中에 완전히 孤立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대대는 全滅을 賭하고 陣地를 固守코자 敢鬪한 까닭으로 數千을 헤아리는 敵屍가 山腹을 덮고 있었다.

한편 이날 새벽, 여단의 作戰區處를 받게 된 Philippine대대는 07.30에 廣水院으로 轉進하여 Gloucester대대와 連繫키 위한 雪馬嶺(△235 東南쪽 3km) 突破의 임무를 부여받았다. 10.00에 대대는 A, C 兩중대를 積城—廣水院 道路 左右로 展開하여 併進케 하고, 本道上에서는 대대수색중대의 M—24戰車 3대의 先導下에 英 제8기갑대대(장, W.G.Lowther 중령)의 Centurian戰車 1개 중대가 突破를 試圖하였다. A, C 兩중대는 11.00에 雪馬嶺을 1km 앞 둔 △349—366까지 전진하였으나 兩 高地에 依據한 敵의 완강한 저항으로 말미암아 그 以上의 進展이 不振하였으며, 또한 本道上으로 진출한 戰車部隊도 雪馬嶺을 遮斷한 2개 연대 규모인 敵의 抵抗에 부딪쳤는데 先頭의 M—24戰車가 敵의 對戰車砲에 擊破되어 좁고 험난한 道路上에 擱坐됨으로써 그 역시 진전이 如意치 못하였다. 午後가 되어 대대는 Belgium대대의 일부 및 제65연대의 Puerto Rico人 部隊와 함께 戰車를 掩護하면서 다시 도로를 따라 진격하였다. 그러나 險難한 地形에 敵의 저항은 如前하여 또 한번의 突破企圖도 虛事가 되니 끝내 Glucester대대와는 2.5km라는 指呼之間에서 連繫를 이루지 못한 채 17.30에는 廣水院으로 反轉케 되었다. 이로서 대대의 終日에 걸친 奮鬪에도 不拘

하고 △235를 嬰守中인 Gloucester대대의 戰況은 조금도 好轉되지 않았다.

그리고 군단 예비인 제15연대는 이날도 계속 議政府부근에 待機中이었다.

4. 다음 韓 제1사단(장, 姜文奉준장)은 敵이 正面攻擊과 아울러 右隣接의 英 제29여단과의 間隙인 馬智里 南東쪽 山岳地帶 및 사단 左·右一線의 間隙인 麻山里 일대 등으로 迂回侵攻함에 따라 右一線인 제12연대(장, 金點坤대령)는 일단 金谷里일대로 물리고 예비대인 제15연대(장, 金安一대령)로써 後方으로 侵攻하는 敵을 阻止하고 있었다.

그런데 서울防禦에 重點을 둔 군단은 이날 午後에 제25사단을 支援中인 제176포병대대(105mm)를 군단장이 직접 掌握하여 急遽 韓 제1사단 地域으로 移動케 한 다음 제999포병대대(155mm)에 配屬과 함께 同 사단을 支援토록 命令함으로써 서울正面의 火力을 增強시켰다.

4월 25일 : 이날 군단은 각 사단으로 하여금 03.00를 期하여 모두 Delta線(抱川 南쪽一東豆川 南쪽 德亭일대一老姑山一城洞里)으로 撤收토록 命令하였다. 이어 10.30에는 사령부를 議政府로부터 永登浦로 移轉完了함과 同時에 제8군으로부터 제1기갑사단(장, Charles D. Palmer소장 : 제5기갑연대 缺)을 配屬받아 이로 하여금 金谷里(楊州)에서 戰線參加를 준비케 하였다.

1. 그리하여 右翼인 제24사단은 18.30에 Delta線에 撤收하여 陣地를 占領하였으니, 右一線인 제5연대는 전날의 陣地에서 東쪽 제9군단과의 地境線上의 虛隙을 突破하여 金化一서울 道를 遮斷코자 하는 敵과 終日 激戰을 반복하다가 제19, 21 兩연대의 撤收를 掩護한 다음 大報里에 집결하여 西坡一淸平 道를 確保하였으며, 제21연대는 下板里 南쪽인 무현一懸燈山(△936) 일대에 陣地를 占領하였다. 그리고 제19연대는 그 西쪽에 連繫하여 上烽燧里 東쪽의 △649—△548일대에서 機山里一退溪院과 抱川一淸平 道의 交叉點인 西坡를 扼守하였는데, 이와 같은 Delta線으로의 撤收에 따라 사단 사령부도 이날 加平郡의 縣里로 移動하였다.

2. 中央右翼인 제25사단은 午後에 Delta線까지의 撤收를 마친 다음 15.00 에 사령부를 泰鳳里로 옮겼다.

제27연대는 全兵力이 金珠里에 집결한 다음 抱川街道를 따라 Delta 線으로 轉進하여 抱川 西南쪽의 화봉山(△182)一檜岩고개(△309)에 陣地를 占領함으로써 사단 左一線이 되어 抱川一議政府 道路를 遮斷하였다. 永平川 北岸의 제24연대는 敵의 強壓으로 말미암아 새벽에 永平 南쪽으로 江을 건너 撤收하였다가 07.45에는 議政府 東北쪽인 방화洞에 집결하

였으며, 제35연대는 01.15에 敵과 接戰하다가 Turkey여단의 掩護下에 抱川 東南쪽 外廓의 盆地를 中心으로 陣地를 占領하여 사단 右一線이 되었다. 그리고 Turkey여단은 永平川 南岸에서 抱川으로 轉進하여 抱川 北쪽인 抱川江 東岸에 收容陣地를 急編하고 사단 主力의 撤收를 掩護한 다음 西坂 西南쪽 奄峴里부근에 집결하였다.

3. 中央左翼인 제3사단은 이날 左一線부터 撤收를 시작하였으며 사령부는 15.45에 倉洞으로 移動하였다.

左一線인 英 제29여단은 奮戰敢鬪中 이날 새벽에 撤收命令을 받고 右 第一線인 Fusilier, Ulster 兩대대가 먼저 議政府쪽으로 反轉을 시작하였다. 兩대대는 제7연대의 掩護下에 負傷者를 戰車에 싣고 東豆川을 거쳐 議政府로 機動하던 途中에 敵의 공격으로 戰車위의 負傷兵이 慘禍를 당하기도 하였으나, 3分之 2以上의 兵力이 결국 빠져 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左 第一線인 Gloucester대대는 如前히 敵의 包圍網 속에 들어 있었으며 06.00에는 撤收命令을 받았으나 이미 適機를 잃은 다음이었다. 이때 대대는 負傷兵을 합하여 300명으로 減少되고 彈藥은 바닥이 나서 敵이 陣前 15m 以內로 接近하기까지는 射擊을 禁하는 형편이었다. 07.55에 대대장 Carne중령은 각 중대장을 모아 撤收를 協議하였으나 得策이 杳然하여 우선 砲兵과 航空支援으로 撤收를 掩護하여 주도록 여단에 要請하였는데, 10.30以後에는 여단이 모두 Delta線으로 撤收케 됨으로써 砲兵支援마저 不可能하다는 通報에 接하게 되었다. 이에 대대장은 『각 중대별로 撤收組를 編成하여 包圍網을 各個 突破하면서 議政府에 集結하라. 나는 負傷兵과 함께 여기에 남는다.』는 悲壯한 決斷을 내리게 되었다. 따라서 각 중대는 곧 秩序整然하게 撤收組를 編成하여, A, B, C중대는 南쪽인 雪馬嶺쪽으로 南下하고 D중대는 중대장 Michael G. Harrey대위의 指揮에 따라 반대로 北으로 臨津江쪽을 向하여 거슬러 올라갔다. 이때 대대장 Carne중령과 Rev. S. Davies軍牧, 軍醫官 H. P. Hickey대위, 그리고 衛生兵 若干名이 負傷兵들과 함께 △235에 남아 戰友들의 撤收하는 모습을 지켜 보고 있었다. 이와같이 南北으로 갈린 각 중대 가운데 積城쪽으로 北進한 D중대는 敵과의 接觸없이 高地 北端에 이르러 다시 行首를 西쪽으로 돌려 無人之境을 지나 듯 左側의 韓 제1사단 地域으로 진출하였다.

이렇게 된다음 중대는 馬智里에서 다시 南쪽으로 迂回하여 △180와 坡平山 사이의 峽谷을 突破中, △180 西南쪽의 峽谷 左右岸으로부터 敵火가 集注되어 老里川 溪谷에서 進退維谷에 빠졌는데, 때마침 峽谷 南쪽에 진출한 美 제73戰車대대의 1개 중대가 이를 救援하게 되었다. 이 美 戰車隊는 韓 제1사단에 配屬되어 제12연대 제2대대를 支援中이던 바,

이들의 支援射擊으로 峽谷 兩側의 敵을 牽制하는 가운데 D중대는 중대장을 비롯한 중대원 38명이 敵의 包圍網을 突破하는데 성공하였다. 한편 南쪽으로 脫走한 A, B, C 3개 중대는 끝내 한사람도 友軍陣地에 到達하지 못하였으니 모두 敵의 重圍를 突破하는 과정에서 散華하고 만 것이다. 따라서 D중대의 39명(一說 42명)이 결과적으로 Gloucester대대 生存者의 全部로서 當初 622명이었던 대대는 60시간이나 陣地를 支撐한 끝에 거의 全員이 玉碎한 셈이었다.

이리하여 여단은 Gloucester대대를 잃은 채 이날 12.35에 議政府에 到着하였는데, 이 臨津江 血戰에서 兵力의 25%가 損失되었으며 裝備의 損失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Gloucester대대의 全滅을 賭한 死鬪가 없었던들 군단이 3日間이나 臨津江線을 堅守持久하여 戰線의 均衡을 維持하기가 결코 容易치 않았을 것이니 결과적으로 死馬買骨의 効를 極大化한 것이었다.

한편 英 여단 東側에서 哨城里一兩遠里일대의 遮斷陣地를 占領하고 있던 제7연대는 07.30부터 敵의 強壓을 받는 가운데 제1대대를 右 第一線, 제3대대를 左 第一線으로 左隣接인 英 여단의 Fusilier, Ulster 兩대대의 撤收를 掩護한 다음 제3대대부터 撤收를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제1대대(장, Fred D. Weyand중령)는 A중대(장, Harley F. Mooney중위)를 最終撤收梯隊로 연대 主力의 撤收를 掩護하였는데, 중대의 撤收時間인 10.00까지도 제3대대의 機動이 끝나지 않아 哨城 西쪽에서 兩遠里一哨城의 同대대 撤收路를 確保하고 있는 중대로서는 그대로 撤收키 困難하였다. 이에 중대는 제3대대 主力의 撤收完了時까지 自體의 撤收는 留保하고 계속 掩護에만 任하였는데, 敵의 壓力이 急增하여 마침내 四方에서 敵이 攻圍하는 形勢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중대는 끝까지 收容陣地를 固守하여 제3대대의 撤收路를 支撐하는 한편 當面의 敵과 激戰을 치루면서 연대 主力의 撤收가 끝난 다음인 12.15에야 戰死 3명, 負傷 3명의 損失을 본 가운데 비로소 撤收에 成功함으로써 연대가 모두 議政府부근에 集結케 되었다.

또한 제65연대는 東豆川 西쪽 陣地에서 英 제29여단 主力의 撤收를 掩護한 다음 德亭 西쪽의 Delta線上 陣地로 逐次 撤收하였으며, 이날 다시 연대로 復歸한 Philippine 대대는 廣水院 東北쪽에서 연대와 함께 遮斷陣地를 占領하고 있다가 연대의 左 第一線으로 Delta線의 陣地를 占領하였다.

그리고 군단 예비로 議政府부근에 控置中이던 제15연대는 이날 17.45에 사단으로 原隊復歸하여 19.50에 德亭 西쪽에 遮斷陣地를 占領하고 Golden 線上의 碧蹄부근에서 議政府

—碧蹄와 東巨里—碧蹄 삼거리를 扼守함으로써 군단 左翼의 補給路를 確保하였다.

4. 左翼인 韓 제1사단은 이날 새벽부터 部分的으로 反擊을 敢行하였으나 군단 全般의 撤收에 따라 점심때에는 Delta線으로 撤收를 시작하였다. 즉 右一線인 제12연대와 左右一線의 間隙에 充當된 제15연대로서 反擊을 시작하다가, 군단 명령에 따라 撤收케 되자 먼저 제12연대를 碧蹄面일대로 轉進시켜 예비대로 하고, 제15연대를 右一線으로 左一線인 제11연대와 아울러 唯雄山—五陵里 西南쪽—釜谷里—龍池洞 일대를 確保하고 있었다.

이로서 군단은 서울防禦에 5개 사단을 集中시킨 가운데 逐次 防禦線인 Delta線上에 陣地를 占領하고 敵의 侵攻을 拒支하게 되었다.

라. 전투 후의 개황

敵은 그 攻勢의 初動이 英 제29여단 戰線에서 制約되어 이를 突破치 못함으로써 군단 前後方의 同時 分斷企圖가 水泡化되었다. 뿐만 아니라 攻擊初의 3日間을 이 腰部에서 抑制됨으로써 그 들이 攻勢를 持續할 수 있는 時限에 쫓기게 되고, 그러한 나머지 26일부터는 白晝에 大路上에 成群으로 殺到하는 愚를 犯하여 第5空軍과 艦砲및 군단 포병의 好餌가 되고 말았다.

한편 군단은 27일에 右隣接인 제9군단과의 戰鬪地境線이 變更되어 右翼인 제24사단이 제9군단에 自動 編入됨으로써, 군단 예비인 제1기갑사단을 彌阿里線에 配備한 가운데 서울防禦에 專念하였다. 그리하여 이날 午後에 楸伐里—高陽里 일대로 防禦正面을 壓縮한 군단은 28일에 其間 激戰을 치룬 제3사단을 예비로 서울에 돌리는 동시에 이와 交代하여 제1기갑사단을 前線에 參加케 함으로써 제25사단을 右翼, 제1기갑사단을 中央, 韓 제1사단을 左翼으로 退溪院—佛光里—水色을 잇는 Golden線에서 敵을 抑留케 되었는데, 여기에는 海·空의 支援外에도 26個의 砲兵大隊가 敵方으로 그 砲門을 겨누고 있었다. 따라서 常套的인 物量手法만을 믿고 火力戰에 대한 對應策이 缺如된 채로 晝間의 集團行動까지 恣行한 敵은 군단의 立體的인 攻擊에 致命打를 입고 끝내 서울 攻略의 企圖가 烏有化하고 말았다.

이에 군단은 5月初부터 각 사단마다 연대규모의 前進陣地를 設定하여 威力搜索을 시작케 하였으며 中東部戰線에 集中된 이른바 敵의 「5月攻勢」가 한고비를 넘기면서 5월 20일부터는 Topeka線으로 前進을 시작하여 5月末에는 다시 Kansas線을 確保하였다. (韓 제1사단의 春日川부근 戰鬪 參照)

이 過程에서 이렇다 할 激戰없이 進擊한 군단은 6월에 공격을 再擧하여 13일에 右翼이 金化—鐵原 일대를 確保함으로써, 警戒線을 臨津江北岸으로 推進한 左翼과 아울러 夏季中 金化—鐵原에서 臨津江—金浦半島에 이르는 線을 堅持하였다. 그동안 擧論되던 休戰會談이 6월에는 公式的으로 開始되었는데, 한편 戰線은 점차 膠着되어 큰 變動을 가져올만한 徵候없이 다만 搜索과 高地를 中心으로 한 攻防을 演出하게 되었다.

7. 海軍의 活動 (1951년 5월 1일부터 1951년 5월 31일까지)

참조 : 상황도 제7호

要 旨

期間中 海上活動이 더욱 중요시 되었던 바 우리 海軍은 UN海軍과 합동으로 東西兩海岸에 철저한 封鎖作戰을 계속하면서 이에 따른 掃海와 輸送作戰도 아울러 수행하였다.

開戰初에 거의 壞滅된 敵의 해상 세력에 比하여 일방적으로 우세한 상황 아래 制海權을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韓半島의 全海域에 걸쳐 그 偉力을 과시하였다.

한편 地上에서는 敵에 의하여 획책된 所謂 春季 第1次, 第2次攻勢로 我軍과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고 있을 때 敵은 海上에서의 弱勢를 만회하려고 海岸砲臺의 증설과 機雷의 부설로 우리의 海上 作戰에 制動을 걸었던 까닭으로 JMS—306艇은 遭難을 보게도 되었다.

그러나 實戰을 통하여 급속도로 戰備態勢를 강화한 海軍은 PC—701艦을 비롯하여 34隻의 艦艇과 海上 근무자 1,381명을 포함한 도합 7,823명에 달하는 兵力으로 敵의 海上活動을 차단하고 있었다.

특히 東海岸에서는 敵의 要部인 元山港을 봉쇄하고 永興灣에 산재한 島嶼를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同港을 使用 困難토록 만들었으며, 또한 西海岸에 있어서도 黃海道沿岸일대의 島嶼를 장악하고 제반 해상작전은 물론 이곳을 근거지로 유격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愛國靑年들에 대한 支援도 併行하였다.

가. 元山灣의 戰鬪 (5. 3~5. 18)

(1) 참가함정 및 주요 지휘관

PC—701艦 장 소령 盧 明 鎬

(2) 전투전의 개황

지난 2월에 海軍은 UN軍과 긴밀한 협조아래 元山港 앞바다까지 깊숙히 침투한 다음 永興灣內의

여러 섬들을 점령함으로써 敵의 側背를 찌르는데 성공하였다.

이리하여 永興灣 안에 있는 麗島와 新島를 비롯하여 大島와 小島 그리고 黃土島를 確保하고 敵은 元山市의 방어를 위하여 一線 병력과 장비를 抽出하는 것으로 判斷되었다.

1951년 5월 중순에 同 地域의 敵의 배치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① 文川郡 北城面 松灘里에 본부를 둔 海軍中佐 崔德洙가 지휘하는 兵力 4,000명 규모의 부대는 2개 大隊를 同郡 文川面 元坪里에 그리고 그 나머지를 松田半島에 配置하여 拒守中

② 元山市 南쪽 9km에 있는 下栗里에 中共 제3야전군 제171사단의 병력 10,000명이 占領中

③ 文川地區 일대에 소속불명의 中共 8,000명이 주둔 中

이러한 배치와는 별도로 海上作戰에 직접적인 威脅이 되고 있었던 것은 虎島半島와 葛麻半島 그리고 通川郡 歙谷面 蛤津里에 증설된 해안포대와 永興灣 일대에 부설된 機雷들이었다. 그러나 海軍은 UN海軍과 합동으로 확보중인 島嶼에 대한 경비 작전은 물론 掃海作戰, 그리고 敵의 해안포대를 분쇄하는 함포사격을 연일 계속하였다.

4월 23일부터는 YMS—514艇(장, 玄時燕 대위) 이 同海域에서 海上作戰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강한 風波로 수심 20~30m의 海底에 投錨된 錨鎖가 끌리고 30~40°에 達하는 艦體의 橫動과 縱動은 艦內活動에 제한을 주었다.

(3) 전투경과의 개요

5월 3일 : 海本 作命 甲 제248호에 의거하여 PC—701艦(장, 盧明鎬 소령)은 釜山港을 출항한 다음, 경비담당해역인 元山灣을 目標로 一路 北上하였다.

5월 6일 : 08.00에 麗島의 앞바다에서 이곳 海域을 경비중이던 YMS—514艇으로 부터 임무를 교대받고 CTE 95.21 (永興灣 封鎖 戰隊司令官)의 UN艦艇들과 함께 葛麻半島의 敵 海岸砲臺에 함포 사격을 加함으로써 경비작전의 序幕을 열게 되었다.

5월 12일 : 麗島駐屯 海兵隊에서 捕虜로 한 北共軍 제24사단 작전참모의 진술에 따라 要旨 다음과 같은 敵情을 입수하였다.

『① 虎島半島 부근에 위치한 金根玉과 李完根의 魚雷艇隊는 永興灣에서 합세하여 100ton 級 發動船 5隻과 魚船 40~50隻으로 暗夜에 봉쇄구역내로 침투한 다음 我軍艦艇이 투묘하고 있는 麗島와 大高島間의 협소한 水路에 機雷의 부설을 계획 中.

② 이곳 海岸에 天然的인 地形을 이용하여 地下에 軌道로써 기동할 수 있는 120mm 野砲 6門과 82mm와 76mm野砲 15門을 配備中

③ 航空機로 공격을 加하는 동시에 小舟艇部隊로서 我軍이 확보하고 있는 永興灣 各島嶼를 점령하려고 明沙十里의 백사장에서 操艇 훈련을 실시 中

④ 永興灣에 面한 해안선 일대는 防衛隊로서 강화하고 要地에는 戰車를 배치하였으며 또한 浮遊機雷를 海上에 敷設中』

5월 17일 : 지난 12일에 입수한 정보에 따라 이날 09.00에 UN海軍의 驅逐艦 3隻과 함께 敵의 海岸砲臺를 분쇄하기 위하여 葛麻半島와 通川郡 歙谷面 蛤津里 그리고 虎島半島 사이의 海域 깊숙히 進入하였으나 地形을 이용한 敵의 海岸砲臺는 쉽사리 발견할 수가 없었다.

이날 12.30에 虎島半島(北緯 39°19′, 東經 127°37′)에 위치한 敵의 海岸砲臺가 먼저 砲擊함으로써 砲位置를 확인케 된 PC—701艦은 곧이어 主砲의 砲門을 열었고 이어서 全砲門이 불을 뿜기 시작하였다.

이날 12.50에 敵의 海岸砲는 이러한 艦砲의 射擊에 못이겨 沈默을 지켰으며 PC—701艦은 사격 후에도 계속 戰鬪配置의 상황아래 敵情을 살피며 경비임무를 계속하였다.

5월 18일 : 13.00에 葛麻半島와 虎島半島에 위치한 敵 兩海岸砲의 포격으로 말미암아 PC—701艦의 左右舷 18—45m海上에 敵砲彈이 10餘發集中되어 물기둥이 冲天하였다.

이에 戰鬪配置에 臨하면서 기회를 노리던 各砲要員은 一齊히 砲門을 열어 敵 海岸砲臺에 命中彈을 퍼부었으며, 합동작전중이던 UN海軍의 驅逐艦도 동시에 火力을 集中하자 敵의 砲臺는 完全히 沈默을 지키게 되었다.

(4) 전투후의 개황

PC—701艦은 5월 18일 16.00에 永興灣 一帶의 경비를 YMS—514艇에 다시 인계하고 鎭海로 廻航하였다.

이에 따라 YMS—514艇은 同 灣에서 我軍이 占領중인 麗島를 비롯한 其他 島嶼에 對한 海上警備作戰을 계속하였으며 이 島嶼를 근거지로 한 정보수집과 감시활동을 통하여 敵의 후방을 교란하는 작전도 계속되었다.

이 戰鬪에서 PC—701艦은 3″砲 458發과 40mm砲 121發을 發射하였으니 이 一戰의 치열相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며, 敵陣地를 확인한 다음 命中彈을 집중한 까닭으로 敵의 損失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나. 其他 海上作戰 (5. 1~5. 31)

(1) 참가함정 및 주요 지휘관

海軍總參謀長	소장	孫	元	一
PF — 61艦	장	중령	崔	孝 鏞
PC —702艦	장	소령	李	鍾 徹
PC —703艦	장	소령	鄭	昊 謨
PC —704艦	장	소령	金	淳 一
JMS—301艇	장	대위	朴	基 政
JMS—302艇	장	대위	洪	元 杓
JMS—303艇	장	대위	金	元 錫
JMS—307艇	장	대위	朴	武 鎬
JMS—310艇	장	중위	牟	禮 振
JMS—313艇	장	대위	朴	兌 鉉
YMS—501艇	장	대위	李	完 鏞
YMS—502艇	장	대위	姜	景 遠
YMS—503艇	장	대위	金	炯 培
YMS—505艇	장	중위	姜	基 憲
YMS—506艇	장	대위	金	禎 浩
YMS—507艇	장	중위	辛	光 永
YMS—514艇	장	대위	玄	時 燕
YMS—515艇	장	대위	鄭	一 燦
YMS—518艇	장	대위	崔	應 桓
LT— 1 艇	장	소령	金	玉 卿

(2) 작전의 개요

이해 4월 22일에 시작된 이른바 敵의 春季 第1次 攻勢는, 5월 3일부터 我軍의 全面적인 공격으로 麟蹄와 春川에 진격함으로써, 많은 손실만을 보게 된채 마침내 실패로 돌아가고 5월 16일에 다시 麟蹄地區를 중심으로 第2次攻勢를 取함으로써 彼我間에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는데 이 당시 海軍은 UN海軍과의 협동으로 北緯 42°5′ 以南의 東海岸과 北緯 39°37′ 以南의 西海岸을 여전히 봉쇄하면서 制海權을 掌握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敵은 海上 活動이 크게 萎縮되는 가운데 다만 漁船을 假裝한 機雷敷設 및 기타 利敵行爲를 潛行할 公算이 농후하였으므로 지난 3월 2일에 하달된 海本作命 甲 제131호에 따라 이 封鎖區域을 허가없이 침투하는 어떠한 船舶이라도 모두 敵船으로 看做하고 사전 경고없이 즉각 공격하여 포격 격침 또는 拿捕할 수 있는 任務를 附與받게 되어 海上警備의 強化를 계속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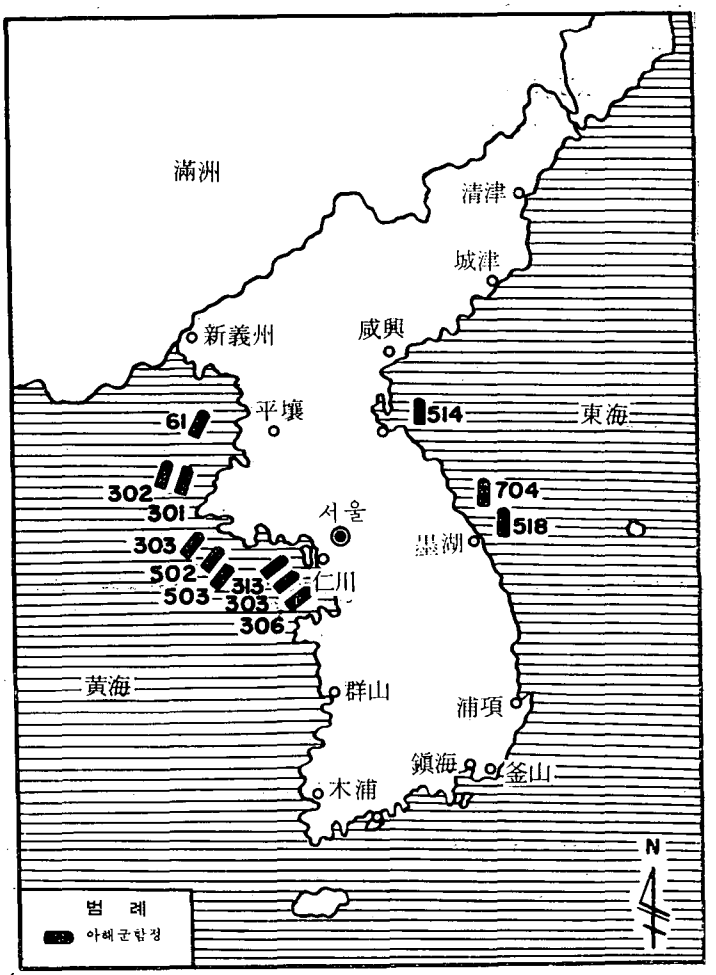
특히 東海岸의 永興灣一帶에서는 麗島와 薪島를 비롯하여 大島와 小島 그리고 黃土島를

계속 확보중이었으므로 敵은 東海岸의 大動脈을 절단 당하는 이러한 치명적인 상황속에서 벗어나려고 機雷의 敷設과 三面이 陸地로 둘러싸인 同 灣의 지리적 利點을 이용한 海岸砲臺의 증설로 우리 海軍 작전에 제동을 試圖코자 안간 힘을 쓰고 있었다.

그러나 海軍은 CTE 95.22에 소속된 UN海軍의 艦艇들과 협동으로 이곳 永興灣一帶에서 연일 警備作戰을 계속하는 한편 부설된 機雷의 掃海作業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同灣 깊숙히 進入하여 敵의 集結地와 海岸砲臺에 집중적인 艦砲射擊을 加하고 또한 注文津 앞 海上에서는 CTE의 95.28의 UN艦艇들과 함께 海上 封鎖作戰을 전개하고 있었다.

한편 西海岸에서는 白翎島와 椵島를 비롯하여 席島와 熊島 등 黃海道의 海岸에 인접한 島嶼를 我軍이 확보하고 있었으니 이는 海上作戰을 원활케 하고 유격활동을 支援하는데 있었음은 勿論이려니와 더욱이 敵의 兵力과 보급품의 수송이 西海岸에 인접한 京義本道에 집중된 탓으로 敵의 후방을 교란하는데 전략적인 위치는 더욱 중요하였다.

◇ 상황도 제7호 海上作戰現況(5. 1)



따라서 海岸을 점거한 敵은 그들에게 큰 威脅이 되고 있는 西海島嶼로 진출하려는 의도를 노출시키고 있었으나 海軍은 CTG 95.1 (西海 艦隊司令官)의 UN 艦艇들과 협동으로 이미 확보된 島嶼에 對한 警備를 계속 強化하고 아울러 掃海와 封鎖作戰도 併行실시하였다.

이와같이 東·西 兩海域에서 연일 警備作戰을 계속

하는 한편 이와 병행하여 掃海와 輸送作戰도 전개되었으니 5월중의 作戰의 槪要는 다음과 같다.

5월 1일 : YMS—514艇(장, 玄時燕 대위)은 東海岸 元山灣의 앞바다에서 CTE 95.22에 소속된 UN海軍의 艦艇과 협동으로 봉쇄작전을 전개하면서 이미 확보中인 麗島의 警備를 중점적으로 수행하였으며, 注文津 前洋에서는 PC—704艦(장, 金淳一 소령)이 YMS—518艇(장, 崔應桓 대위)을 지휘하여 38°以南으로 항해하는 船舶에 대한 統制를 加하였다.

또한 이날 西海岸의 鎭南浦 앞 海上에서 PF—61艦(장, 崔孝鏞 중령)이 지휘하는 JMS—301艇(장, 朴基政 대위)과 JMS—302艇(장, 洪元杓 대위)은 CTG 95.1에 소속된 UN艦艇과 함께 警備任務를 수행中이었으며, 白翎島 前洋에서는 YMS—502艇(장, 姜景遠 대위), YMS—503艇(장, 金烱培 대위)을 비롯하여 JMS—306艇(장, 崔炳起 중위) 그리고 JMS—303艇(장, 金元錫 대위) 및 JMS—312艇(장, 朴兌鉉 대위)이 掃海와 警備에 任하였다.

5월 2일 : 전날에 이어 東·西 兩海域에서의 海上作戰을 계속 전개하고 있었으며 延安에 있는 北共兵力 200명이 延白郡 湖南面 海岸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情報에 따라 JMS—313艇은 同海岸에 인접한 喬洞島를 중점적으로 경비하였다.

5월 3일 : 이날 JMS—302艇은 黃海島 松禾郡 眞風面 海岸一帶에 北共 1개聯隊 兵力 1,000명이 도사리고 있다는 情報에 따라 이곳 海岸線一帶를 重視 경비하였다.

5월 4일 : PF—61艦은 夢金浦 前洋과 巡威島 東端 그리고 椵島 西端를 연결하는 海域에서 封鎖作戰중이었으며 FS—騄州號는 鎭海에서 軍糧米 4,000가마를 적재하고 釜山까지 수송하였다.

5월 5일 : 짙은 海霧로 인하여 艦艇들은 活動에 많은 곤란을 받았으나 전날에 이어 海上警備作戰은 계속되었으며 PC—703艦(장, 鄭昊謨 소령)은 이날 注文津 앞바다에서 YMS—518艇으로부터 임무를 인계받고 同 海域을 封鎖하였다.

5월 6일 : 白翎島 앞 海上을 경비중이던 YMS—502艇은 旗艦 PF—61艦의 지시에 따라 이날 19.30부터 19.45까지 巡威島의 敵陣地에 艦砲射擊을 加하였는데 이섬에는 敵의 迫擊砲 9門과 重機 5挺 그리고 輕機 4挺등으로 武裝한 990명 규모의 敵이 있다는 情報에 따른 것이다.

5월 7일 : 海軍 白翎島 駐屯部隊(장, 文基燮 소령)는 黃海道 沿岸의 島嶼를 據點으로 유격 활동을 전개中인 義勇隊를 지원하여 敵 殺傷 9명과 捕虜 6명의 戰果를 올렸다.

5월 8일 : 전날에 이어 이날도 警備區域의 변동없이 東·西兩海域에서 海上活動을 계속하였다.

5월 9일 : YMS—506艇(장, 金禎浩 대위)은 墨湖 前洋에서 PC—703艦으로부터 임무를 引受하고 注文津과 墨湖間의 海域警備에 任하였으며, PC—703艦은 PC—704艦이 海上作戰을 수행하던 注文津과 北緯 39°사이의 海上을 널리 警備하였다.

한편 FS—原州號는 白翎島로 수송될 美軍의 軍需品을 또한 LST—加平號는 墨湖로 수송될 陸軍의 軍需品을 적재하고 釜山港을 출항하였다.

5월 10일 : 鎭南浦앞 海上을 경비중이던 JMS—302艇은 이날 14.00에 席島 東쪽 12km海上을 항해중인 敵의 Tug boat와 木船 3隻을 發見하자, 14.40까지 艦砲射擊을 가하여 수리 불능토록 大破하였으며, YMS—501艇과 YMS—503艇은 이날 10.00부터 10.30까지 龍湖島에 인접한 黃海道 甕津郡 興幅面 白岩里 海岸의 敵陣地를 砲擊하여 陣地施設과 兵員裝備를 烏有化하였다.

5월 11일 : YMS—501艇은 이날 20.00부터 21.00까지 黃海道 甕津郡 東南面 海岸의 敵陣地(北緯 37°48′ 東經 125°18′)에 艦砲射擊을 加하여 龍湖島로 침투하려는 敵을 阻止하였다.

한편 이날 LST—溫陽號는 墨湖로 수송될 陸軍의 軍需品을 적재하고 釜山港을 出港하였다.

5월 12일 : JMS—301艇(장, 朴基政 대위)는 JMS—313艇으로 부터 임무를 인수하여 仁川 앞바다에서 경비에 임하였으며, JMS—310艇(장, 牟禮振 중위)은 白翎島 앞 海上에서 旗艦 PF—61艦의 지휘아래 封鎖作戰을 전개하였다.

한편 LST—洪川號를 馬山에 廻航시켜 陸軍兵力을 濟州까지 수송토록 措置하였다.

5월 13일 : 白翎島 駐屯部隊는 유격활동中인 義勇隊를 지원하여 敵 殺傷 41명과 投降 1명의 戰果를 얻었으며, 한편 전날에 이어 警備區域의 변동없이 海上경비를 계속하였다.

5월 14일 : PF—61艦은 龍湖島 侵攻을 목표로 하는 敵勢로 말미암아 同島 住民들을 不安케 하고 있다는 情報에 따라 이날 13.00부터 20분간에 걸쳐 黃海道 甕津郡 東南面 海岸의 敵陣地에 치열한 艦砲射擊을 加하여 이를 制壓하였다.

5월 15일 : YMS—515艇(장, 鄭一燦 대위)은 이날 YMS—502艇으로부터 西海岸 封鎖作

戰의 임무를 인계받고 延坪島 앞바다에서 PF—61艦의 지시에 따라 海上作戰에 임하였다.

5월 16일 : 이날 FS—忠州號는 西海에 출동중인 各艦艇에 油類 및 보급물을 공급한 다음, PF—61艦의 지휘를 받아 夢金浦 앞바다에서 YMS—501艇 그리고 YMS—515艇과 협동으로 掃海作戰에 參加하였다.

5월 17일 : YMS—514艇은 PC—703艦으로부터 임무를 인계받고 注文津과 墨湖間의 海域에서 CTE 95.28의 UN艦隊와 협동으로 封鎖에 임하였다.

5월 18일 : 짙은 海霧를 무릅쓰고 전개되는 海上作戰으로 말미암아 敵의 海上活動은 계속 萎縮을 당하였으며 LST—鳥致院號는 CAC救護藥品 (150ton)을 輸送하기 위하여 木浦—群山으로 向하고 또 LST—洪川號는 政府救護米 4,000가마를 白翎島—延坪島로 수송하기 위하여 釜山港을 출항하였다.

5월 19일 : 白翎島 앞 海上에서 봉쇄 작전을 전개중이던 JMS—310艇은 이날 旗艦 PF—61艦의 특별지시에 따라 喬洞島와 江華島 그리고 金浦半島 北部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 情報員과의 연락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仁川 앞바다의 警備任務를 담당하였다.

5월 20일 : YMS—501艇과 YMS—515艇은 지난 16일부터 夢金浦 앞바다에서 掃海作業을 실시하였는데 이날 현재 掃海完了區域은 다음과 같다.

W—39°09′36″N 124°34′42″E

X—38°04′24″N 124°38′48″E

Y—37°59′N 124°27′12″E

Z—38°04′06″N 124°23′12″E

上記 4點을 연결하는 4角形內海域과

B-2—38°19′48″N 124°49′E

DOG—38°29′18″N 124°49′18″E

CHESTER—38°30′18″N 124°56′E

上記 3點을 연결하는 3角形內 海域이다.

5월 21일 : 江原道 通川郡 歙谷面 下長津里 海岸에 敵 40명이 잠복하고 있다는 情報를 입수하자, 이날 01.50에 麗島에 주둔하고 있는 海軍工作隊員 16명은 金東光 三曹의 지휘 아래 기습 상륙작전을 감행하고, 40分間의 交戰 끝에 敵 將校 3명과 士兵 3명을 射殺하였다.

5월 22일 : YMS—515艇은 이날 24.00에 黃海道 興媚面 海岸(北緯 37°49′51″ 東經 125°21′)에 敵의 軍需品이 集積되어 있는 것을 目擊하자 곧 艦砲射擊을 加하여 數個所를

擊破 또는 燃燒케 하였다.

한편 龍湖島에 對한 敵의 暗躍은 여전하였으므로 PF—61艦은 이날 19.10부터 10분간에 걸쳐 敵 陣地에 艦砲射擊을 集中하여 敵이 사용중인 家屋 10棟과 도치카 1개소를 파괴하였다.

5월 23일 : 龍湖島 海域을 경비중이던 PF—61艦과 YMS—515艇은 이날 20.00에 黃海道 興媚面 海岸(北緯 37° 45′, 東經 125° 18′ 17″)의 敵 陣地로부터 박격포 공격을 받자 즉시 이에 應戰하여 2시간에 걸친 砲擊戰 끝에 數個所의 敵 陣地와 建物을 覆滅하였다.

한편 LST—三浪津號는 釜山에서 陸軍의 軍需品을 적재하고 墨湖로 廻航하였으며, 또한 LST—安東號는 軍糧米 5,400가마를 鎭海로부터 釜山까지 수송하였다.

5월 24일 : PC—702艦(장, 李鍾敏 소령)은 西海에서 韓國海軍의 旗艦任務를 맡고 있던 PF—61 艦으로부터 업무를 인수하여 海上作戰을 전개하였으며, 또한 YMS—504艇(장, 丁漢哲 중위)은 JMS—301艇으로부터 임무를 인계받고 仁川 앞 海上에서 경비작전에 임하였다.

5월 25일 : JMS—307艇은 JMS—310艇과 임무를 교대하고 江華島—喬洞島—椒島間의 海域에 대한 경비작전을 실시하였다.

5월 26일 : YO—106艇(장, 崔富英 대위)은 이날 輕油 100,000G/L을 鎭海의 前山 貯藏庫에 공급하였다.

5월 27일 : 이날 夢金浦 앞 海上(北緯 38°20′ 東經 124°31′)에서 PC—702艦은 中共의 漁船 유덕號를 나포하여 白翎島 駐屯隊에 인계하였던 바 船長 유명한 外 7명이 승조하여 山東省 海洋島를 출항한 이 船舶은 漁撈를 가장하고 黃海道 海域에서 작전중인 UN艦隊의 동태를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LST—三浪津號(선장, 許炳錫)는 蔚山에서 仁川까지 陸軍用 油類를 수송하기 위하여 釜山港을 출항하였다.

5월 28일 : PC—702艦은, 黃海道 南쪽 海岸에 迫擊砲 3門과 重機 3挺으로 무장한 200명 규모의 敵이 인접한 龍湖島를 엿보고 있다는 情報에 따라 同島 海域을 중점적으로 경비하였다.

5월 29일 : 이날 PC—703艦은 YMS—514艇으로 부터 임무를 交代하고 注文津 앞 海上에서 YMS—503艇과 협동으로 봉쇄 活動을 展開하였으며, 또한 YMS—501艇(장, 李完鏞 대위)은 YMS—518艇으로부터 임무를 인수하고 永興灣 一帶 海域에서 경비에 注力

하였다.

5월 30일 : 이날 ＦＳ—原州號는 西海方面에 출동중인 각 艦艇에 補給品과 油類를 공급하고 ＰＣ—702艦의 지시에 따라 長山串앞 海上에서 掃海作業에 任하였다.

5월 31일 : 海軍의 各艦艇들은 東·西 兩海域에서 계속하여 警備作戰中에 있었는데 이날 현재 各 海上의 作戰現況은 다음과 같았다.

東海岸의 永興灣一帶 海域에서 ＹＭＳ—501艇이, 그리고 注文津 앞 海上에서는 ＰＣ—703艦과 ＹＭＳ—503艇이 警備中이었으며, 西海岸에서는 ＰＣ—702艦의 지휘아래 ＹＭＳ—504艇, ＪＭＳ—302艇, ＪＭＳ—307艇 등이 仁川앞바다에서, 그리고 ＹＭＳ—502艇, ＹＭＳ—507艇, ＪＭＳ—303艇의 3개 艦은 白翎島앞 海上에서 各各 警備任務를 遂行하고 있었다.

다. JMS—306艇의 遭難經緯(5. 5)

海本作命 甲 제231호에 의거하여 鎭南浦 앞바다에서 海上警備와 敵의 機雷敷設을 감시할 목적으로 4월 16일 釜山을 출항한 ＪＭＳ—306艇(장, 崔炳起 중위)은 4월 28일 현지에 도착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5월 4일 22.00에 旗艦인 ＰＦ—61艦(장, 崔孝鏞 중령)으로부터 席島로 직행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목적은 同島를 근거지로 하여 黃海道 一帶에 게릴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九月山부대의 부대장 陸軍大尉 金宗璧과 그의 간부를 白翎島로 수송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리하여 5월 5일 06.00에 ＪＭＳ—306艇은 椵島 漁沙里를 目標로 출발하였는데 이날은 未明부터 海上에 짙은 안개가 끼어 呎尺을 분간할 수 없었으니 이는 5월 海上에 종종 있는 현상이었다.

이와같은 짙은 霧中의 항해란 그 자체가 위험한 것인데 더구나 이곳 海上에는 敵의 機雷가 도처에 흩어져 있어 항해를 더욱 위험하게 하였다.

濃霧를 헤치면서 모험적인 항해를 계속한 끝에 席島 西쪽에 도착하였으나 同 島를 우회하기 위하여서는 일단 視界가 트이기를 기다려야만 되었다.

그러나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으므로 다시 항해를 계속하여 席島 南쪽 1浬 海上에 이르렀을 때에 마침내 不運의 순간은 밀어 닥쳤으니 끝내 그토록 경계하던 敵의 機雷와 直衝하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일단 觸雷로 因한 폭발을 일으키자 순식간에 機關과 後部 寢室이 파괴되고 艦橋도 부러져 넘어지면서 浸水하기 시작하였으며 通信機마저 충격으로 파손되어 救命을 요청하는 打電을 할 時間 餘裕조차 없었다.

愛艦을 구출하려는 승조원의 필사적인 작업과 끈질긴 노력이 계속되었으나 艦의 파손은 너무나 치명적이었으며 이러한 위급한 사태를 맞이한 艇長은 때마침 인근을 항해하던 帆船에 부상 인원과 兵器와 탄약 그리고 通信機材 및 서류 등을 옮겨 싣고 席島로 가도록 緊急措置하였다.

艦艇에 잔류케 된 主力은 艇長의 지휘하에 救出作業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끝내 어찌할 방도가 없었으므로 마침내 구출 작업을 단념하고 艇長은 눈물로서 승조원에게 退艦을 명령하게 되었는데 잠시후 艦艇의 勇姿는 서서히 蒼波속으로 沈沒하기 시작하더니 다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이 悲運의 沈沒時間은 같은 날 10.36이었고 그 위치는 북위 38°37′05″ 동경 124°05′36였다.

뒤늦게 이 조난보고에 접한 JMS—302艇(장, 洪元杓 대위)은 경비중인 椵島로부터 조난현장에 직행하여 조난자 구조에 전력을 다하고 席島에 기항하여 앞서 帆船으로 移送한 부상자와 機材를 수용한 다음 19.50에 椵島로 귀항하였다.

다음날인 16일 10.30에 JMS—302艇은 椵島로 출발하였으며 中途에서 부상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파견된 英國海軍의 軍醫官 등 5명을 편승시켜 初療를 加하면서 계속 항진하여 15.45에 白翎島에 무사히 後送하였다.

이 조난으로 JMS—306艇은 승조인원 36명中 부상자 17명을 포함한 30명이 구출되었고 5명의 행방불명자와 1명의 사망자를 내었다.

§ 參戰者의 證言

◇ 海軍總參謀長 孫元一 소장

(1973. 7.26 反共聯盟理事長室에서, 豫. 中將)

우리 海軍은 UN艦隊의 一員으로서 封鎖와 警備 및 島嶼防衛 等 三大任務를 수행하는 동시에 輸送 및 掃海作戰도 성실히 수행하였다.

艦艇이 作戰海域에 도착하면 現地 UN海軍 作戰指揮官의 지휘에 따라 작전임무를 수행하였으며 次期作戰을 위한 訓練과 整備 그리고 補給과

充員配置 等은 駐韓 UN海軍司令官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 海軍과 UN海軍은 서로 융통성 있게 對應하였으며, 韓國艦隊司令部(1953. 9.10 발족)가 발족되기 以前이었기 때문에 나는 作戰局長 李龍雲 대령과 艦艇의 行動計劃을 일일이 작성하여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확보된 島嶼를 중심으로 연일 警備作戰을 수행하면서도 敷設된 機雷때문에 항시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었다.

한편 나는 創軍한지 日淺한 우리 海軍이지만 『強한 海軍』으로 육성해 보겠다는 一念에서 將兵들을 UN艦隊에 派遣乘組시켜 새로운 戰術을 習得케 하였으며 보다 많은 軍艦의 확보에 心血을 기울였다.

◇ PC—701艦長 盧明鎬 소령

(1973. 6.23 행보증권주식회사 상무이사실에서, 豫. 대령)

5월 17일에 永興灣의 麗島 앞바다에서 強한 風波를 무릅쓰고 경비작전을 수행하고 있던 중, CTE 95.21(永興灣 封鎖戰隊司令官)으로부터 美驅逐艦이 元山港 깊숙히 침투하여 敵의 海岸砲臺에 艦砲射擊을 실시할 것이라는 電文을 받고 우리 艦(PC—701艦)도 함께 이 作戰에 참가 할 수 있도록 打電하였다.

그러나 機雷의 위험성과 우리 艦의 火力이 약하다는 이유로 挽留하므로, 나는 再次 開戰初에 對馬島 海域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우리 艦으로써 꼭 참가하여야 겠다고 打電하여 이 作戰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이날 午前에 많은 부설 기뢰를 조심스럽게 避하면서 美驅逐艦 3隻과 같이 海岸砲의 射程距離內까지 進入하였다.

처음에는 海岸砲를 쉽사리 발견할 수 없었으나 이윽고 地下로부터 軌道를 타고 海岸砲가 움직이더니 먼저 공격을 가해 왔기 때문에 美驅逐艦과 함께 함포사격을 집중하였다.

다음 날인 18일에도 위치가 확인된 敵 砲臺에 命中彈을 퍼부어 敵에게 막대한 손실을 준 다음 이곳 海域을 벗어나 警備任務를 교대하였다.

§ 參戰者의 略歷

◇ PC—701艦長 盧明鎬 소령

1946.12.15 해군사관학교 졸업, 임 해군소위
47. 2. 9 군산기지사령부 재무관
47.12.10 YMS—512정 부장
48.11.20 해군본부 경리국 경리과장
49. 1. 4 해군본부 수로관
50. 2.16 YMS—502정장
50.11.17 함정교육단 포술학교장
59.12. 6 PC—701함장.

8. UN 海軍의 活動 (1951년 5월 1일부터 1951년 5월 31일까지)

참조 : 상황도 제 8 호

要 旨

UN海軍은 地上에서 所謂 제 1, 제 2의 兩次 春季攻勢로 激戰이 전개中인 당시에 全海域을 장악하고 間斷없는 偵察活動으로 友軍船舶에 對한 安全航海를 계속 보장하였다.

또한 六艦隊의 巨砲와 艦載機는 地上軍과 긴밀한 협조아래 東, 西의 兩 海岸은 물론이고 內陸에까지 砲擊을 斷行함으로써 敵의 活動을 크게 위축시켰다.

특히 東海岸에서는 腰部인 元山灣을 封鎖하고 城津과 淸津에 이르는 지역까지 強打하였으며, 西海岸에서는 서울 北쪽과 平壤 一帶에 砲擊을 集中하였다.

이리하여 敵의 春季攻勢는 後方의 攪亂으로 말미암아 그 기력을 상실케 함으로써 友軍이 反擊을 斷行할 수 있도록 하여 戰勢를 크게 逆轉시키는데 기여하였다.

期間中 UN海軍은 Colombia의 巡洋艦 Amirante Padilla 號가 참가함으로써 韓國과 美國을 비롯하여 英國과 Australia 그리고 France와 그밖에 New Zealand와 Thailand 및 Canada 등 도합 10個國의 艦艇으로 構成되었다.

가. 春季攻勢에 對한 UN海軍의 活動(5. 1~5. 31)

(1)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極東艦隊 사령관 중장 C.T. Joy

第 7 艦隊 사령관 중장 H.M. Martin

第77機動部隊(高速航空母艦部隊)

사령관 소장 R.A. Ofstie

소장 G.R. Henderson (1951.5.6부터)

소장 W.G. Tomlinson (1951.5.17부터)

第90機動部隊 사령관 소장 I.N. Kiland

第92機動部隊 사령관 대령 M.P. Wright

第95機動部隊 사령관 소장 A.E. Smith

(2) 작전의 개요

4월 22일 敵의 이른 바 春季攻勢가 시작됨에 따라 東·西의 兩 海域을 장악하고 있던 UN海軍은 地上의 作戰에 對한 즉각적인 지원에 임하였다.

東海岸에서는 第77機動部隊의 航空母艦 Boxer號(함장, Dennis J. Sullivan대령)를 비롯하여 Philippine Sea號(함장, Ira Hobbs 대령) 그리고 Princeton號(함장, W.O. Gallery 대령)가 主力艦이 되어 淸津과 高城을 잇는 海岸을 공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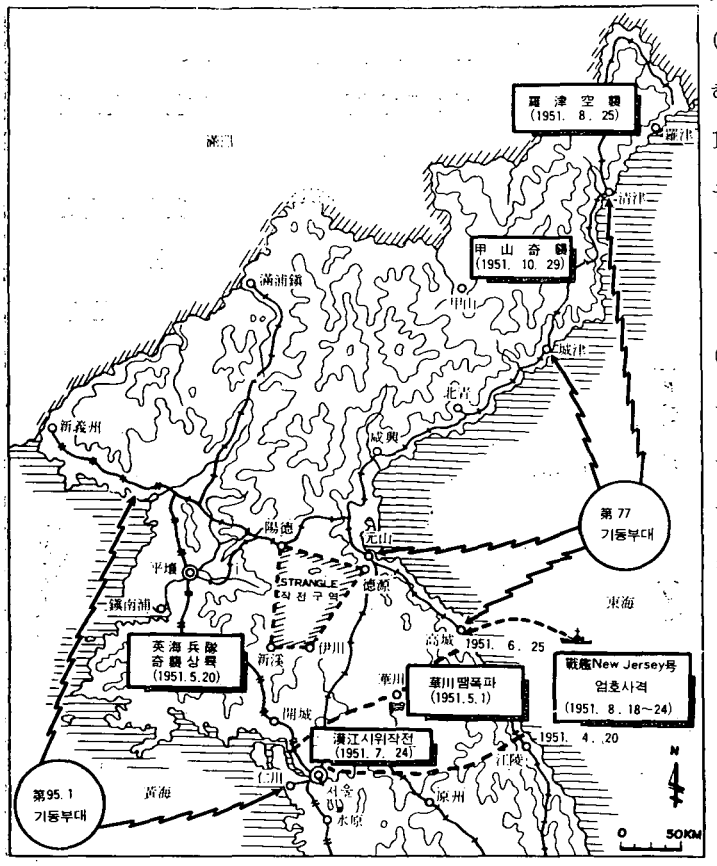
특히 5월 20일에는 戰艦 New Jersey號(함장. David M. Tyree 대령)가 다시 이번 戰爭에 참가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地上軍의 엄호가 실시되었으며 또한 西海岸에서도 第95機動部隊의 重巡洋艦 Toledo號(함장, Hunter Wood 대령)와 Battan號(함장, W.B.M. Marks 중령)를 비롯하여 Glory號(함장, O.C. Gregg 중령) 그리고 그밖의 戰鬪艦들은 仁川과 鎭南浦를 연결하는 海岸을 계속 차단하고 서울 北쪽과 平壤 一帶를 強打하였다.

뿐만 아니라 艦載機들은 東海岸 一帶에 폭격을 加하는 동시에 제5공군의 요청에 따라 西海岸 一帶에도 근접지원 출격을 敢行하여 敵에게 甚大한 損害를 주었다.

敵의 春季 제1, 제2 兩차 攻勢에 대한 UN海軍의 主要 활동은 다음과 같다.

5월 1일 : 제77기동부대의 艦載機들은 襄陽一帶에서 敵과 대치하고 있는 第11사단(장, 吳德俊 준장)과 首都師團(장, 宋堯讚 준장)을 掩護하는 爆擊을 斷行하여 敵 180명을 射殺하고 建物과 군수물 集積場 4개소를 炎上케 하였다.

◇ 상황도 제8호 UN 해군의 주요활동



한편 重巡洋艦 Toledo號(함장, Hunter Wood 대령)는 서울 西北쪽 12km 一帶의 敵 陣地에 8″砲彈 170發을 퍼부어 陣地를 파괴하고 兵力을 分散케 하였다.

5월 2일 : 驅逐艦 Oreleck號와 Parks號를 비롯한 UN 艦隊는 계속 元山灣을 封鎖하고 이날 葛麻半島의 敵 海岸砲臺에 艦砲射擊을 加

하였으며, 한편 第77機動部隊 소속의 Skyraider機 및 Corsair機 編隊는 이날 서울 北쪽과 端川一帶에 爆擊을 실시하여 機關車 23輛과 自動車 12輛을 擊破하고 敵 133명을 射殺하였다.

5월 6일 : 重巡洋艦 Helena號(함장, J.R. Clark대령)와 4隻의 驅逐艦들은 極東軍 司令部의 요청에 따라 杆城一帶의 敵陣地에 甚한 砲擊을 加하여 激戰中인 韓國軍을 支援하였다.

5월 9일 : UN海軍의 艦載機는 第5空軍과 海兵隊의 戰鬪機 等 도합 312臺로서 一時에 出擊하여 敵機 38臺를 全破 또는 半破하였으며 軍 建物 106棟을 동시에 폭파하였다.

5월 11일 : 第77機動部隊의 航空母艦 Philippine Sea號(함장, I. Hobbs 대령)와 Princeton號(함장, W.O. Gallery 대령)에 소속된 AD機 32대는 2,000Lbs의 폭탄을 各機에 搭載하고 F_4U機 32대와 F9 F機 16대의 엄호를 받으면서 이날 平壤 北쪽 橋梁 4개소를 猛打하여 3개소를 完破하고 1개소는 半破하였다.

5월 13일 : 航空母艦 Boxer號를 비롯하여 Princeton號 그리고 Philippine Sea號의 艦載機들은 東海岸 一帶에 爆擊을 斷行함으로써 31개소의 橋梁과 11개소의 道路를 破壞하였다.

5월 15일 : 第77機動部隊에 소속된 航空母艦 Princeton號(함장, W.O. Gallery대령)의 F_4U AD型 艦載機들은 이날 麟蹄에서 韓國 제3군단(장, 劉載興 소장)과 激戰中인 敵에 對하여 砲擊을 加하였다.

5월 18일 : 城津港을 봉쇄한지 73일째 되는 이날 巡洋艦 Hokya 號와 英國의 驅逐艦 Concord號는 鐵道와 道路에 砲擊을 集中함으로써 敵의 보급활동을 阻止하였다.

5월 20일 : 英國의 Cayuga號(함장, J.V. Brock 대령)를 旗艦으로 한 4개국 艦艇들은 第5.1機動部隊 사령관 Scott Moncrieff 소장의 지휘 아래 이날 英國海兵隊를 松禾郡에 上陸시키기 위하여 支援砲擊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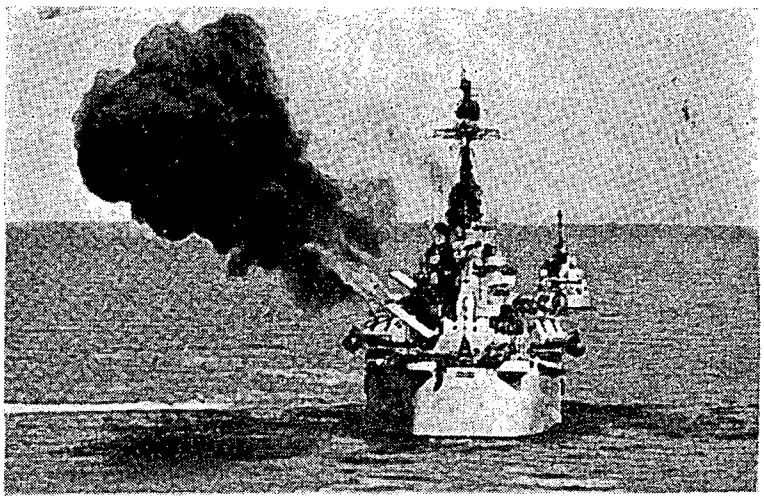
이리 하여 英 海兵隊는 아무 저항없이 松禾郡 海岸에 上陸하고 情報를 획득한 다음 艦艇의 엄호아래 무사히 귀환함으로써 制海權을 장악하고 있는 UN海軍은 隨時 何處에라도 敵의 背後에 上陸할 수 있다는 實力을 다시 한번 보여 주었다.

한편 極東艦隊의 旗艦 New Jersey號(함장, David M. Tyree 대령)는 이날 杆城 앞 바다에서 16″巨砲로 韓國軍과 대치중인 敵陣을 強打하였다.

5월 22일 : 元山灣 一帶에서 敵陣에 對한 砲擊任務를 수행하던 戰艦 New Jersey號는 이날 敵의 砲彈 1發이 命中되어 제1포대가 약간의 손상을 입고 또한 4명의 死傷者를 내었으나 계속해서 16″砲火는 敵地를 向하여 炸裂하였다.

5월 23일 : UN海軍의 艦載機들은 東海岸 一帶의 敵 要衝地에 Rocket彈과 Napalm 彈등 고성능 폭탄을 投下함으로써 敵 300명을 殺傷한 것을 비롯하여 重砲 37門과 貨車 40輛 그리고 建物 51棟을 擊破하였다.

또한 이날 驅逐艦 Stickell號(함장, Jesse B. Gay 중령)는 城津과 端川 앞 바다에서 艦砲射擊을 加하여 13개소의 鐵道와 道路를 파괴하였다.



<重巡洋艦 Helena號가 東海岸에서 敵陣地에 艦砲射擊을 集中하고 있다>

5월 25일 : Rocket艦 409號와 412號는 元山灣의 敵 陣地에 7,700發에 달하는 5″ 砲彈을 퍼부어 海岸砲臺를 沈默케 하였으며 또한 巡洋艦 Manchester號와 驅逐艦 Bass號는 虎島 半島 南쪽 海岸에 砲擊을 加하여 武裝한 小型 船舶 2隻을 完破하였다.

5월 27일 : 元山灣을 封鎖한지 滿 100일째 되는 이날 까지의 戰果 推計는 다음과 같다.

射 殺	8,195명
橋 梁	34개소(完破), 83개소(半破)
車 輛	107輛(完破) 238輛(半破)
貨 車	63輛
機關車	11輛
建 物	149棟(完破) 466棟(半破)
小型船舶	54隻(完破) 238隻(半破)

5월 29일 : 第77機動部隊에 소속된 3隻의 快速航空母艦과 2隻의 輕航空母艦은 掃海作業이 完了된 杆城 前洋 깊숙히 進入하여 地上軍에 對한 支援射擊을 실시하였다.

5월 31일 : UN艦隊는 지난 2월 16일부터 元山灣을 계속 封鎖하여 104일째 되는 이날까지 戰艦과 巡洋艦을 비롯하여 驅逐艦 그리고 護衛艦 등 6개국의 艦艇 50隻이 도합 73,000發의 砲火를 集中함으로써 元山灣을 文字 그대로 불바다로 만들었다.

나. 華川땜의 爆破(4.29—5.1)

(1)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第77機動部隊 사령관 소장 R.A. Ofstie | 航空母艦 Princeton號 함장 대령 W.O. Gallery

(2) 전투전의 개황

4월 初旬과 下旬 兩次에 걸쳐 敵은 길이 250 ft의 華川땜 水門을 닫고 漢江과 北漢江의 水深을 낮게 만들어 UN軍이 진격할 때 水門을 열어 友軍의 활동을 制限시키려고 하였으나 無爲에 그쳤다.

이러한 敵의 暗躍을 근절키 위하여 美 제8군의 요청에 따라 空軍B—29機는 高空爆擊을 加하였는데 쉽사리 파괴되지 않았으므로 雨期에 對備하여 이 땜의 爆破가 시급하게 되었다.

한편 이 무렵 美 제1海兵師團(장, G. C. Thomas 소장)은 春川 北쪽에서 敵에게 痛擊을 加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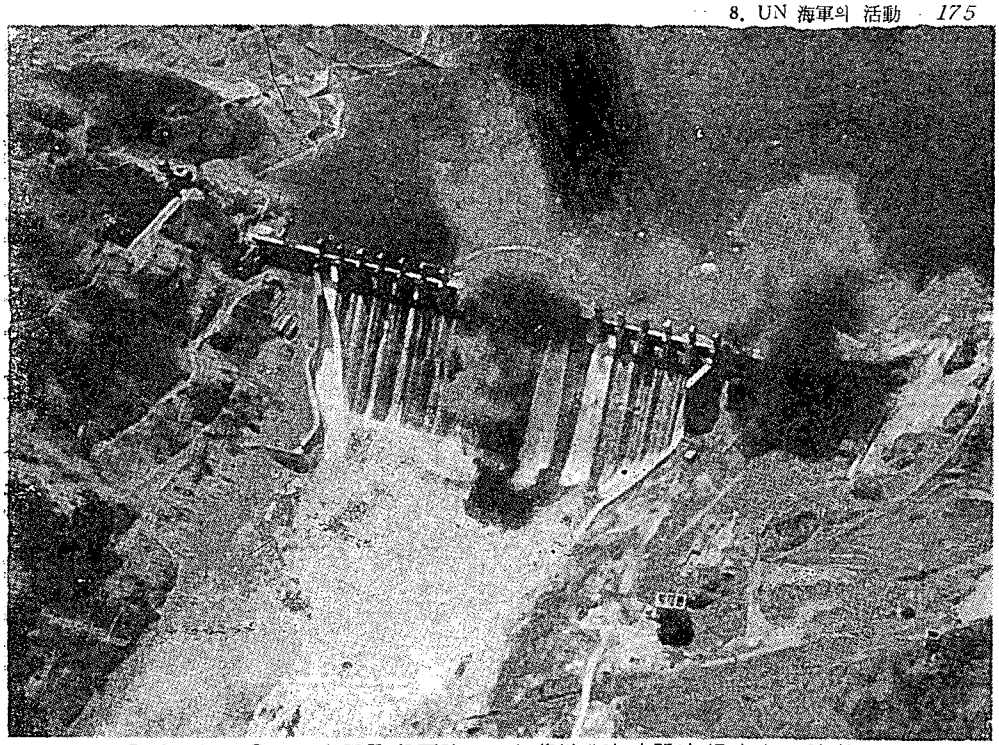
(3) 전투경과의 개요

4월 30일 : 第77機動部隊 사령관 R.A. Ofstie 소장은 이날 13.30에 美 제8군으로부터 華川땜의 水門을 폭파할 것을 요청한 電文을 받고 航空母艦 Princeton號에 공격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리하여 이날 16.00에 航空母艦 Princeton號(함장, W.O. Gallery 대령)에 소속된 제193飛行中隊의 AD機 6臺는 2,000 Lbs의 폭탄을 적재하고 E.A. Parker소령 지휘아래 Corsair機 5臺의 호위를 받으면서 땜을 폭격하였으나 한 部分이 半破되었을 뿐으로 完破 하지는 못하였다.

5월 1일 : 첫번째 폭격이 失敗되자 두번째 공격에는 이번 戰爭 처음으로 魚雷가 사용되었다.

즉 이날 10.30에 R.C. Merrick 중령과 H.G. Carlson 소령이 지휘한 8臺의 AD機는 魚雷를 적재하고 100~500 Lbs의 VT彈을 적재한 Skyraider機 12臺의 호위에 母艦 Princeton



<開戰以來 처음으로 魚雷를 投下함으로써 華川땜의 水門이 爆破되고 있다>

號를 離礁하였다.

이곳 저수지는 높은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同時에 2臺의 비행기만이 공격하기 위하여 降下할 수 있고 다른 비행기는 上空에서 선회하며 기다려야만 하였다.

또한 수직공간이 좁았기 때문에 魚雷를 투하할 때 비행속도를 결정하는 문제가 힘들고 더우기 주위의 對空砲火에 대한 위험이 곁들어 있었다.

그러나 이날 11.30에 華川땜 上空에 다다른 12臺의 Skyraider機는 敵의 對空砲를 파괴키 위하여 VT彈을 投下하였다.

곧 이어 2臺의 AD機는 急降下하면서 2개의 魚雷를 投下하였으며 나머지 6臺도 차례로 攻擊함으로써 中央의 1개 水門은 완전히 파괴되고 다른 水門에도 10 ft 정도의 破孔을 만들게 하였다.

(4) 전투후의 개황

華川땜의 水門이 爆破되어 저수지의 물이 방출됨으로써 敵의 暗躍을 분쇄하게 되었으며, 6월에는 美 해병제1사단(장, G.C. Thomas 소장)은 순조로히 진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때의 폭격으로 同 저수지를 警備하던 敵 推算 165명을 屠戮하고 數個의 兵棟을 炎上케 하였다.

9. UN 空軍의 活動 (1951년 5월 1일부터 1951년 5월 31일까지)

要 旨

UN空軍은 美 제1, 제9 兩군단이 中共軍의 제5차 공세로 서울 北쪽 3 mile 까지 遲延戰을펴면서 時間의 餘裕를 얻고 있을 때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敵陣을 強打하여 地上軍이 反擊을 斷行 할 수 있도록 戰勢를 크게 逆轉시키는데 寄與하였다.

또한 UN空軍은 制空權을 계속 一方的으로 掌握하고 空軍力을 活用하여 보려는 敵의 一斷面으로 보여지는 MIG 15機들과의 空中戰을 반복 展開하면서 敵의 機動路와 補給路를 遮斷하기 위하여 주요 철교와 교량을 폭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漸次로 強大化의 傾向으로 보여지는 敵의 滯空能力을 弱化시키는 戰略的인 작전으로 北韓 內에 있는 비행장에 對한 폭격을 重視, 敢行키로하였다.

그러나 UN空軍의 優越性에 萎縮된 敵은 退避戰法만을 거듭하다가 空中活動이 困難한 時點을 택하여 春季攻勢를 策하였기 때문에 UN軍은 한때 空地協同없는 片務의 苦楚를 嘗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UN空軍은 敵의 常套的인 夜間侵攻의 長技를 想念하고 血鬪를 거듭하는 地上軍을 掩護하기 위하여 晝間에는 그 接近을 制壓하도록 機動線上에 폭격을 反復 하였으며 夜間에는 직접 抵抗하는 敵陣을 寸斷粉碎함으로써 그 南侵을 極力抑留하는데 協力을 아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山間峽谷에서 싸우는 地上軍에 對하여 탄약과 軍裝備 그리고 많은 보급품을 空輸로 支援 함으로써 地上에서도 能히 火力을 集中發揮하고 그 餘勢를 몰아 進擊을 재촉할 수 있도록 突破分斷의 初動을 啓導하는 威容을 보여 주었다.

5월 初에 新義州 비행장에 숨겨 놓은 防壁內의 敵 單發 전투기 40臺以上을 偵察비행으로 探知 하기에 이르자 5월 9일에 美 제5공군 司令官 Earle E. Partridge 중장은 제5공군과 海軍의 艦載機와 海兵隊의 전투기등 도합 300臺를 一時에 出擊시켜 이 敵機 38臺를 全破 또는 半破토록 하였으며, 軍建物 106棟을 동시에 폭파하는 驚天動地의 一擊으로 敵의 肝膽을 서늘케 하는 同時 集中打의 快擊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一大決斷으로 敵의 春季 공세는 策源地의 動搖로 말미암아 우선 後方에서부터 그 氣力을 喪失하기 시작하여 一線에까지 脆弱波을 미치게 하였는데 이때를 놓치지 않고 極東 空軍폭격 司令部에서는 다시 敵의 주요 戰略的인 心臟部를 目標로 威力爆擊을 계속 加하여 그 繼戰意思를 剝奪키로 方策을 定하였다.

당시에 UN軍은 敵이 春季공세를 다시 試圖할 것으로 내다보고 미리 空中戰力을 極大化하고 있

었으나 드디어 비와 안개로 空軍의 活動이 制約을 받게된 5월 15일 밤을 이용하여 再侵攻을 敢行하게 되자 彼我 地上軍의 接戰으로 戰線의 온 山野는 焰煙에 휩싸이는 生地獄을 彷彿케하였다.

UN空軍은 이와 같은 熾烈한 地上接戰이 展開되자 惡天候을 무릅쓰고 果敢한 야간 근접지원까지 斷行하면서 그 一方으로는 空輸지원까지 감당 함으로써 敵의 2차 春季攻勢를 좌절시 키는데 全力을 다하였다. 이 동안에 主要 指揮官의 異動이 있었는데 21일에 극동공군 司令官 代理에 Earle E. Partridge 중장이, 그리고 美 제5공군 司令官代理에 Edward J. Timberlake, Jr. 소장이 各各 赴任되었다.

이 期間中 UN空軍에서는 도합 23,489回에 達하는 出擊을 記錄하였는데 이중 근접지원으로2,824回의 出擊을 보았으며 遮斷 작전은 도합8,224回에 걸쳐 실시 하였고 空輸 지원은 모두 7,183回를 記錄하였다.

가. 參加部隊 및 主要 指揮官

美 極東空軍 司令官
- 중장 George E. Stratemeyer
- 중장 Earle E. Partridge.
  (5월 21일이후 司令官代理)

美 第5空軍 司令官
- 중장 Earle E. Partridge
- 소장 Edward J. Timberlake, Jr.
  (5월 21일이후 司令官代理)

美 極東空軍 爆擊 司令官
- 준장 Jams E. Briggs
- 준장 Robert H. Terrill
  (5월 23일 이후)

美 極東空軍 전투물자 空輸司令官
第315飛行團長
- 준장 John P. Henebry

나. 中共軍의 제5차 공세에 對한 UN軍의 反擊作戰

5월 1일 : 美 제8군의 西쪽 측면은 敵의 공격으로 최후 防禦線까지 밀리는 勢不利를 보였으나 損失을 입은 바는 比較的 적었으며 空地立體의 妙로써 敵의 空中勢力에 많은 打擊을 주어 擊滅과 破壞의 効果가 매우 컸다.

5월 初에 UN空軍에서는 며칠 동안에 걸친 空中 偵察로 도합 125,000명으로 推算되는 敵이 全戰線에 걸쳐 南侵 공격을 敢行하려고 春川쪽으로 機動 集結하는 事實을 밝혀내고 이 敵의 集中隊列을 分散시키고 彼我의 勢力均衡을 維持코자 모든 機甲部隊는 UN空軍의 근접지원을 받으면서 敵陣을 突破分斷하여 進擊의 앞장을 서게 되었다.

5월 15일과 16일 : 밤 사이에 비와 안개로 말미암아 비행 활동을 계속 할 수가 없었는데

敵은 이것을 奇貨로 삼고 逆이용하여 東쪽에서 西쪽으로 襄陽一路洞一麟蹄一內坪一加平을 沿한 各戰線에서 공격을 斷行하여 마침내 서울을 包圍하려는 이른바 제2차 春季攻勢를 恣行하게 되었다.

이 당시의 敵의 主力은 中共軍 21個사단으로 美 제10군단의 正面을 強壓함으로써 韓國軍은 寒溪里 근처에서 敵의 공격을 받았고 이로 말미암아 美 제2보병 사단의 右側面이 露出되어 一大 危機를 招來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美 제2보병 사단은 右側面을 補強하기 위하여 移動하였으며 서울 東北 쪽에서 待機中에 있던 美8군 豫備였던 美 제3보병사단이 急遽 寒溪里로 出動하였다.

戰線 狀況이 이와같이 急變하자 UN空軍은 또 다시 彈力性있는 空地協同작전을 展開한 결과 5월 10일에서 5월 末까지에 걸쳐 美 제10군단에 2,380回에 達하는 근접지원을 提供하였으며 전투 폭격기들은 最高速의 飛行으로 爆擊작전을 展開하여 每 시간마다 3 乃至 4回에 걸친 폭격을 敢行하였다. 기간중 敵의 兵力은 이러한 전투폭격기의 好餌가 되었으며 조종사들은 每日 Napalm 彈과 그밖의 여러가지 폭탄으로 到處의 敵陣을 強打粉碎하였다고 報告 하고 있었다.

5월 17일 : 하루에 UN空軍의 근접지원으로 최소한 5,000명 以上의 敵兵이 屠戮되었다는 事實을 美 제2보병 사단에서 報告 하고 있으며 美 제10군단에서는 도합 16,693명이 수次의 空中 공격으로 腐肉이 되었다고 推算하고 있으니 그 效果의 一班을 能히 推測 할 수 있을 것이다.

UN 지상군은 敵의 春季 공세중 최초의 南侵으로 20 mile에 達하는 戰線의 後方整理를 하였는데 敵은 이 突破點을 據點으로 삼고 계속 그 人海세력을 培養할만한 능력을 확보하지도 못하면서도 5월 16일 春季 2차 侵攻을 再演하였다.

이 作戰의 결과로 中共은 友軍 地上勢力의 綜合的인 一大反擊을 받기에 적당한 것이 되었다. 즉 反擊기회를 재빨리 捕捉한 美 8군사령관 Van Fleet 대장은 5월 19일에 『美 제1, 제9兩군단은 西北部 前線으로 北進하라』는 명령을 下達하게 되었다.

UN軍의 이 反擊으로 크게 壓迫을 받게 되었는데 敵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B—26과 B—29 폭격기群이 그들의 集結地 兵站集積所 機動路上의 교량등을 餘地없이 強打 하였으므로 하는 수 없이 다시 敗退치 않으면 아니 되었다.

5월 27일 : 이날 Van Fleet 대장은 『Piledriver 작전』을 下命 하였는데 이것은 美제10군단과 韓國 제1군단으로 하여금 서서히 제한된 進擊을 하고 美 제1군단은 美 제9군단의 左翼과

連繫하여 敵의 手中에 있는 鐵原과 金化를 奪還하려는 것이다.

이 작전에서 UN地上軍은 降雨속의 不良한 機動路와 洪水 등으로 많은 機動上의 制限을 받으면서 敵의 執拗한 抵抗에 부닥친 결과 이 攻防戰은 6월 2일에야 그의 頂點을 넘어서게 되고 10일에 비로소 美 제1군단이 이른바 鐵의 三角地帶를 擊碎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美 제8군은 제1, 제2次에 걸친 敵의 春季攻勢로 一時 喪失한 戰域을 되찾게 되었는데 기간中 UN空軍의 果敢한 遮斷作戰은 이러한 地上軍의 進擊을 聲援하는 決定的인 伴侶者가 되었다.

이와같이 UN空軍의 活動으로 말미암아 地上軍은 38°線 北쪽에서 敵의 強力한 複廓地帶를 계속 攻擊하려는 餘力을 備蓄함은 勿論 주요한 北進大路를 미리 制壓할 수 있는 戰略上의 優位를 享有하게 되었다.

이때까지 敵은 四通八達한 作戰 및 補給路를 이용하여 東西에 걸쳐 部隊와 補給品의 自在로운 移動이 可能하였으나, 이로부터 以後에는 豫定한대로 實踐을 볼 수 없게 되어 그들의 事前計劃이 한낮 紙上 空論化되는 커다란 蹉跌을 밟게되었다. 이로써 미루어 보건데 空中支援없는 地上戰이 얼마나 虛無한 것이며 海空戰略과 遊離된 陸上만의 單獨戰略이 얼마나 孤獨한 것인가를 如實히 立證할 수 있는 것이다.

다. 春季 제1, 제2차 攻防戰에 對한 UN空軍의 活動

UN空軍은 豫期한 敵의 제5차 공세期間中의 惡天候로 실지運用上에 많은 逆境을 겪었다.

美 제5공군의 전투 폭격은 氣象의 不調와 適合한 離着陸場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작전上 많은 제한을 받았으나 F—51(Mustang) 전투 폭격기들은 前進 基地에서의 出擊을 위하여 4월 8일에 2個 大隊가 主力으로써 서울 汝矣島비행장(K—16)으로 進出하여 不利한 條件下의 작전을 敢行키로 하였다. 이리하여 4월중에 제35비행단은 100回의 전투出擊을 敢行하였는데 이중 75%가 근접지원이었다.

이때 敵의 前線은 서울 北쪽에서 3mile에 不過하였기 때문에 커다란 위험 要素가 隨伴되었지만 또한편으로는 友軍戰線이 가까운 利點도 있어서 汝矣島에 進駐한 제39, 제40의 兩大隊는 4월末 4일 동안에 도합 400回에 達하는 出擊을 記錄 하였으니 1日 平均 100回에 걸친 活躍相은 實로 刮目할만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바 커다란 2개의 惡條件을 무릅쓰고 敢行된 높은 出擊率을 올렸기 때문에 F—51 전투폭격기들은 繼戰능력의 急速한 低調을 免치 못하였다. 또한 期間中 제35전투 비행단은 日本의 空中防衛力을 勘案한 政治的인 配慮때문에 5월 1일을 期하여 日本의 Johnson 基地로 復歸하였으며 이를 補完하기 위하여 제18전투 폭격비행단이 鎭海(K—10)에서 汝矣島로 進駐하여 作戰을 遂行하였다. 또한 4월과 5월 中旬까지 日本에서 韓國戰線으로 出擊하던 2個 F—80 전투 비행단은 出擊歸還中 大

邱(K—2)에 주둔한 제49비행단 基地에 임시 着陸하여 연료를 공급받지 않으면 아니되었다.

이와 같이 Jet 전투폭격기들의 離着陸度가 輻輳하게 되자 5월 14일에 이르러 大邱 비행장(K—2)의 P.S.P板 滑走路의 設置문제가 時急하게 되어 工事가 進行되었는바 그 까닭은 Jet 補助離着陸(J.A.T.O)으로 滑走路가 많이 파괴되어 작전에 支障을 招來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와같이 敵의 제5차 공세중 再反擊을 加하기 전 며칠 동안 大邱(K—2)비행장의 滑走路 보수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작전에 다소 차질을 가져왔으나 F—80 전투폭격기들은 各 비행장에 임시로 離着陸하여 연료공급의 對應策을 마련하게 된것이니 窮則通의 不可避한 實例라 할것이다.

5월 16일 C—119 空輸 비행전대는 敵의 春季 제2차 공세를 격파할 수 있도록 탄약과 軍 裝備들을 前方비행장으로 空輸하는데 盡力하였다. 이에 대하여 Van Fleet 대장은 回顧하기를『당시 美 제8군에 對한 탄약 보급은 위험선을 넘어 섰으며 日本으로 부터 極東空軍의 空輸가 없었던들 작전을 계속하기에 힘들었을 것이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제315비행단에서는 비행이 可能한 모든 輸送機를 總動員하여 10일동안에 걸쳐 每日 1,000ton 이상에 達하는 보급품을 定期的으로 空輸하였다.

또한 5월 16일부터 23일까지 極東空軍은 美 제10군단 前面에 每日 밤 B—25과 B—29폭격기를 出擊시키고 16일과 17일 밤 사이에는 B—26 경폭격기 8臺와 B—29폭격기 2臺로서 근접지원을 斷行하였으며, 22일과 23일 밤에는 B—29폭격기 22臺로써 戰線에까지 動員되었다.

이 폭격기들은 敵의 豫備部隊와 集結한 主力部隊를 二次 主目標로하여 며칠 밤 사이에 걸쳐 계속 폭격을 加함으로써 敵을 막다른 窮地에 몰아넣게 되자 Almond 소장은 말하기를『성공적인 MPQ—2 Radar에 의한 出擊으로 말미암아 敵의 企圖하는 바가 완전히 挫折 되었다』라고 當時의 支援相을 披瀝하였다.

이와 같이 敵의 제2차 春季 공세중 UN空軍의 MPQ—2 Radar管制 出擊은 每日 밤 2回에서 4回로 上廻되었고 5월 18일에는 다시 11回로 急昇하였다가 19일부터 22일까지는 8回를 維持하게 되었다.

폭격 司令部에서는 MPQ—2 Radar를 使用하여 期間中 208回에 達하는 出擊으로 도합 2,042ton의 폭탄을 集中投下하였는데 이 出擊 回數는 폭격 司令部에서 실시한 모든 출격 회수의 33%가 넘는 것이었다.

MPQ—2 Redar 管制方法은 簡便하기 때문에 B—29의 各 폭격기는 每 30分마다 管制장교에게 연락하여 航路를 따라 出擊한 다음 管制장교의 指示대로 폭탄을 投下하는 方式이다.

이때의 비행 高度는 一般的으로 目標 지역의 上空에서 17,000 ft 정도였으며 두꺼운 雲層도 이러한 MPQ—2 管制 출격에는 아무런 支障을 주지 않았다.

또한 使用 폭탄으로서는 대체로 感應信管과 時限 폭탄장치 또는 連發尾部信管(Nondelay tail fuze)이 장치된 500 Lb 一般用 폭탄을 선정하게 되었으며 B—26과 B—29 폭격기는 이와같은 방법으로 많은 戰果를 거두었는데 특히 B—29 폭격기는 500 Lb感應信管에 依한 殺傷폭탄을 大量으로 積載할 수 있는 能力과 정확한 MPQ—2의 管制力을 바탕으로 600,000個의 高速破片彈을 마치 白晝의 우박과도 恰似하게 퍼부어 可驚 할만한 效果를 거두었다.

5월 20일과 21일밤 사이에 B—29폭격기는 敵 1個연대와 1個 대대로 推算되는 集結地에 폭격洗禮

를 加하여 推定 4,000명의 敵을 殺戮 하였는데 이와 같은 夜間 폭격은 極東空軍에 의하여 순조로이 진행되었고 모든 보고서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으나 이러한 爆擊方式(Bombing System)은 地上軍에서 적절한 目標를 제공받았을 때만 그 성공을 期待할 수 있었다.

5월 23일 제315비행단에서는 수송기 222臺로서 409回에 達하는 出擊으로 도합 1,534.ton의 화물을 空輸하였고 이 空輸의 대부분은 탄약과 POL(油脂)및 軍裝備등이 包含되었으며 거이 金浦와 橫城에 直送되었다.

이때에 美 제10군단 指揮本部가 橫城 北쪽 6mile에 자리잡고 있었으며 熾烈한 전투가 계속되는 며칠 동안 輸送機에서 急送된 탄약을 前線 砲台로 실어 나르는 트럭(Truck)은 平均 50에서 100臺가 줄지었으니 이것은 空地協同의 極致를 보여주는 一場面이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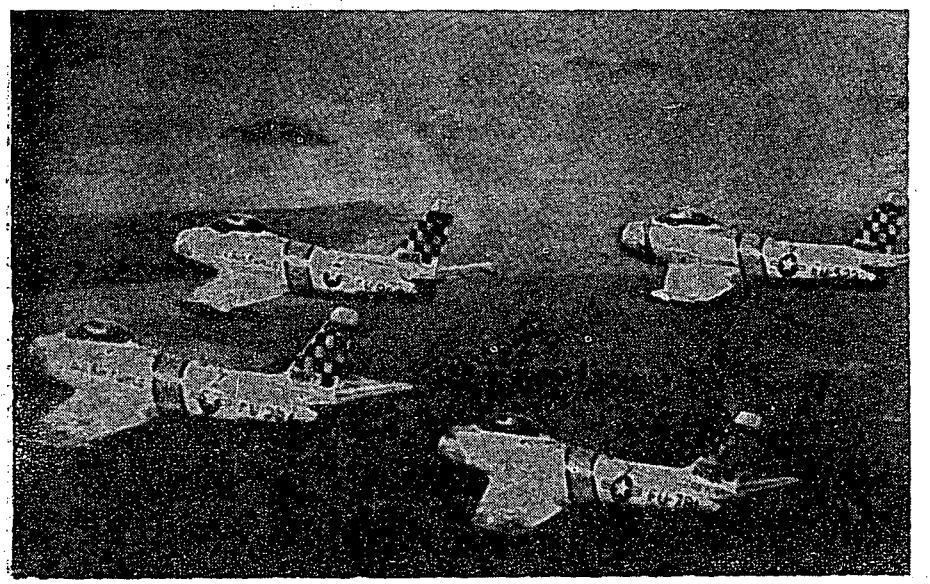
또한 5월末에는 春川 비행장(K—47)이 完工되어 空輸작전을 실시하였으나 高地帶로 둘러 쌓인 이 비행장의 滑走路의 길이는 3,000ft 밖에 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이와같이 여러 가지 作戰上의 난관에도 불구하고 제315비행단에서는 空中에서의 輸送과 投下의 兩者를 通하여 5월 중에 도합 21,300. ton의 화물을 수송하였는데 그중 탄약은 美제8군의 火力을 증강하는 原動力이 되었으며 그로 因하여 敵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痛擊과 衝動을 주었던 것이다.

5월 25일 제8전대 F—80 전투기 4臺로 編成된 1個編隊가 華川에서 機動路를 따라 보급품을 운반하는 軍트럭 9臺와 牛馬車 隊列을 발견하자 100ft의 低高度에서 Napalm 彈으로써 삽시간에 불바다를 만들었으니 人海戰術을 자랑하던 그들이 可恐할 火攻新戰法의 보복을 받게된 것이다.

5월 25일에 美 제5공군 司令官代理 Edward J. Timberlake, Jr. 소장은 命令하기를 『全 비행단은 敵이 들끓고 軍裝備가 集結되어 있는 麟蹄지역을 中心目標로 폭격을 加하라』하였다.

그러나 당시 氣象의 不順을 憂慮하면서도 團長의 직접 指揮下에 出擊이 敢行되었는데 제27비행



<北韓 上空으로 出擊하는 Sabre Jet機편대>

단만이 F—84전투기 16臺로써 氣象의 大障碍를 무릅쓰고 目標地域에 폭탄을 投下하는데 成功함으로써 敵 700명을 一網打盡하였다.

이와같이 極東空軍에서는 제1, 제2차 春季의 兩 攻防戰이 끝난 6월 2일까지 도합 16,130回에 達하는 전투폭격기를 出擊시켰는데 그 중 輕爆擊機는 2,408回, 重爆擊機는 589回의 出擊을 記錄하였다.

또한 제5공군에서는 4월과 5월 동안에 敵 21,536명을 殺傷한 것으로 그 戰果를 報告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제5공군의 推算이 信憑性이 있는 까닭은 이 당시 前方 空中 통제장교로 美 第1機甲師團과 함께 근무하던 조종사들의 陳述書에서 明白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敵의 死傷者에관한 우리의 推算은 정확하지 않으나 이 方面에 정통한 陸軍 당사자들은 敵을 殺傷하는데 있어서 점차적으로 空軍力을 신임하고 있다』라고 言明하고 있다.

空軍活動의 능력을 適時에 적절히 運用하기 위하여 極東空軍 司令官代理 Earle E.Partridge중장은 友軍 地上軍이 敵의 侵攻을 받을 때에는 근접지원을 증가하고 敵이 다시 集結하고 再補給을 받는동안에는 武裝偵察과 遮斷作戰으로 즉각 轉換하도록 指導하였음은 特記할 事實이라 할 것이다.

또한 合同作戰本部에서는 空軍力의 融通性을 發揮하여 제1차공격에 있어서는 美 제1, 제9의 兩군단을 근접지원한 美 제5공군의 主力으로써 제2차 攻擊에 있어서 美 제10군단을 重點的으로 지원 할 수 있게 變更하는 바 있었다. 그리하여 美 제5공군의 조종사들은 地上 戰況의 趨移에 따라 그 主力을 武裝偵察에서 근접지원으로 轉換하는 妙를 發揮한 것이다.

즉 4월中의 3週 동안에 걸쳐 제18비행단의 F—51(Mustang) 전투 폭격기의 出擊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武裝偵察에 2臺로써 編隊를 만들어 敵軍과 보급품을 수송하는 軍트럭을 重點的으로 捕捉하는 즉시로 파괴하고 500IB폭탄을 사용하여 水害에 잠긴 敵의 機動路와 鐵路를 파괴하였다.

敵의 春季攻勢의 劈頭에 있어서 제18비행단은 즉각 2臺가 1個編隊였던 隊型을 4臺로 바꾸어 地上管制장교와 協同하면서 근접지원을 敢行하였으며 제49비행단의 F—80전투기들은 大邱(K—2)비행장에서 Napalm彈과 500lb 感應信管 폭탄을 裝備하고 出擊하였는데 目標上空에서 좀더 오래 滯空하면서 戰果를 擧揚하기 위하여 265gal을 날개 끝 補助탱크(Tip Tank)에 超過로 積載하고 最大限度로 爆擊을 함으로써 敵陣을 震動시키고 敵兵의 肝膽을 서늘케 하는 效果가 至大하였다.

이 春季 제1, 제2차攻防戰에서 활약한 UN空軍의 日日作戰狀況의 概要는 다음과 같다.

5월 1일 : UN空軍은 東部 및 中部戰線에서 熾烈한 攻防戰을 展開하고 있는 地上軍에 對한 근접지원으로 敵陣을 強打하였으며 華川 貯水池에 對한 水雷로써 貯水池를 건너는 615명의 敵兵員을 殺傷하였다.

5월 2일 : 폭격 司令部에서는 B—29 重爆擊機로써 平壤 北쪽 16km에 있는 橋梁을 폭파하고 補給品을 輸送하는 軍트럭 60臺를 全破하였으며 작전 進路를 방해하려는 敵의 單發機1臺를 擊墜하였다.

5월 3일 : UN空軍의 B—29 重爆擊機는 平壤과 沙里院의 兩 補給品 集積所에 도합 70ton의 폭탄을 集中投下하여 화염으로 뒤덮게 하였으며 美 제5공군에서는 敵의 補給路上에서

軍트럭 隊列을 捕捉하는 즉시로 도합 638臺를 燒却하는 한편 敵 前線으로 通하는 機動路上에서 敵의 戰車 40臺를 擊破하였다.

5월 4일 : 極東空軍 폭격 司令部에서는 B—29 重爆擊機로써 敵후방에 대한 遮斷 작전을 계속 하였는데 目標 上空에서의 짙은 雲層으로 말미암아 많은 支障을 받기도 하였으나 敵의 군용 건물 200棟을 破壞 하였으며 敵 機動路上에서 敵軍트럭을 180台를 大破하였다.

5월 5일 : 美 제5공군에서는 前線으로 줄지어 移動하고 있는 敵軍트럭 257臺를 捕捉하자 그 중 半數 以上인 140臺를 全破하였다.

5월 6일 : 폭격 司令部의 B—29 重爆擊機는 北韓의 주요 補給路上에서 南下中인 4,000臺로 推算되는 敵의 대량 수송대열을 捕捉하는 즉시로 多量의 폭탄을 集中하여 粉碎하였으며 鎭南浦港口의 보급품集積所에 對하여서는 高性能폭탄으로 蒼空 높이까지 焰煙으로 뒤덮게 하였다.

이와 같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과감한 遮斷작전을 展開하고 있을 당시 이날밤 敵의 夜間 Jet機 3臺가 美 제5공군의 B—26輕爆機 1臺를 目標로 挑戰하였으나 B—26機는 이를 擊退한 다음 悠悠히 基地로 歸還하였다.

5월 7일 : UN空軍의 전투 폭격기는 低層雲과 降雨속의 不利한 氣象條件에도 不拘하고 出擊을 敢行하여 敵兵 225명을 殺傷하는 동시에 敵 후방 補給路上에서 前線으로 急進中인 3,7000臺의 軍트럭을 捕捉하자 爆彈을集中하여 그 중 239臺의 파괴를 確認하였다.

5월 8일 : UN空軍은 전날에 이어 계속되는 惡氣象에도 불구하고 友軍第一線에 대한 근접지원을 敢行하여 敵 300명을 殺傷하였다.

5월 9일 : 極東空軍의 전투폭격기는 312臺의 大編成으로 新義州 비행장을 不時에 폭격하였으며 그 上空에서 迎擊을 試圖하는 38臺의 敵機와의 空中戰을 展開하였는데 이 一戰에서 美 海軍 소속 Jet 전투기 2臺가 敵의 對空砲彈幕속에서 擊墜된 것으로 確認되었으니 참으로 百勝中의 一失이 아닐 수 없었다.

5월 10일 : 美 제5공군에서는 이날도 비바람 치는 惡氣象을 무릅쓰고 근접지원을 斷行하는 한편 極東空軍 폭격 司令部의 B—29 重爆擊機는 咸興—淸津—平壤 비행장에 대한 電擊的인 奇襲爆擊을 敢行하였다.

5월 11일 : 美 제5공군에서는 敵의 空中 跳梁에 爆擊을 加하기 위하여 平壤—興南비행장을 同時에 強打하였다.

5월 12일 : 美 제5공군에서는 友軍地上軍이 加平 西方戰線에서 熾烈한 接戰을 展開中인

現地에 出擊하여 敵 400명을 殺傷하고 極東空軍의 B—29 重爆擊機는 198臺의 敵軍트럭을 全破 또는 半破하였으며, 보급품을 滿載한 화물차를 捕捉하자 곧 低空비행으로 強打함으로써 도합 253輛을 燒却하였다.

5월 13일 : UN空軍의 武裝偵察機는 平壤 北쪽 6km 에서 敵의 항공기지를 捕捉하고 B—29 重爆擊機와 함께 도합 130ton의 폭탄洗禮를 加하였고 美 제5공군에서는 加平 西南쪽 13km에서 集中的 폭격으로써 敵 300명중 155명의 殺傷을 確認하였다.

5월 14일 : UN空軍은 春川 北쪽에 있는 敵兵團의 集結地를 急襲爆擊하여 敵 175명을 殺傷하였으며, 전투물자 空輸司令部에서는 友軍支配下에 있는 前線 비행장으로 보급품 35ton을 空輸하였다.

이날 美 제5공군 司令官代理 Earle E Partridge 중장은 말하기를 『전날 新義州 비행장에 對한 大규모의 奇襲폭격은 敵의 空中勢力을 強打하였으나 敵은 비교적 빠른 時日內에 회복 할 수 있는 能力이 있는 것으로 判斷된다』라고 前提한 다음 이에 대한 策案을 參謀들과 相議하는 동시에 再 爆擊문제에까지 言及한 바 있었다.

5월 15일 : 이날은 심한 비바람으로 모든 비행활동이 중지되었으며 敵은 이 好機를 이용하여 이른바 제2차 春季 南侵을 敢行 하였으므로 彼我의 戰線은 삽시간에 休火山이 폭발한듯 不時에 戰火로 뒤덮히고 一進一退의 熾烈한 攻防戰이 展開되었다.

5월 16일 : 極東空軍에서는 敵의 이 제2차 春季攻勢의 機先을 制壓하기 위하여 空中勢力의 同時集中策을 確立한 결과 敵의 主攻戰線을 우선적으로 근접지원키로 하였으며 敵의 보급 活動力을 剝奪하기 위하여 B—29 重爆擊機의 大量 出擊으로써 沙里院—咸興을 中心으로하는 보급품 集積所에 大鐵槌를 加하기도 하였다.

5월 17일 : 美 제5공군에서는 地上戰이 熾烈한 東部戰線에 대하여 도합 717回에 達하는 전투 폭격기의 出擊으로써 敵 850명을 殺傷한 것으로 確認되었다.

5월 18일 : 爆擊司令部에서는 敵의 보급로와 機動路를 遮斷하기 위하여 B—29 重爆擊機 등 전투폭격기를 880回에 걸쳐 出擊시켜 平壤—南川—開城—高浪浦—鐵原—金化—華川 등 一連의 兵站基地와 激戰地를 強打하였다.

5월 19일 : 美 제5공군은 Van Fleet 대장의 要請에 따라 美 제1, 제9兩군단이 西北部前線을 向하여 進擊하는 地上作戰에 呼應하여 이날 하루 동안에 도합 892回에 達하는 出擊을 敢行하여 地上軍의 突破分斷을 위하여 寄與한 바가 컸었다.

5월 20일 : UN空軍의 Jet 전투 邀擊機 28臺는 鴨綠江 上空에서 敵의 MIG 50臺와 壯烈

한 空中戰을 展開한 끝에 3臺를 擊墜하고 5臺를 破損케 하였으며 美 제5공군에서는 電波探知 照準器로써 美 제2사단과 接戰中인 敵集結地를 직접 爆擊하여 敵陣 높이 불기둥을 치솟게 함으로써 友軍地上軍의 戰意를 크게 鼓舞하였다.

5월 21일 : 極東空軍에서는 夜間에 B—29 重爆擊機를 出擊시켜 兵力이 集結中인 1個 연대 규모의 敵陣을 폭격하여 推算 4,000명을 殺傷하는 戰果를 記錄하였다.

5월 22일 : UN 空軍에서는 夜間에 MPQ—2 Radar의 통제를 받는 B—26輕爆擊機와 B—29 重爆擊機를 美 제10군단 正面으로 集結中인 敵의 主力部隊를 폭격함으로써 友軍의 士氣를 昂揚시킨 바가 많았다.

5월 23일 : 極東空軍에서는 전날에 이어 이날 夜間에 B—29 重爆擊機 22臺를 出擊시켜 美 제10군단 正面을 強壓하려는 敵의 主力部隊와 예비부대에 폭격을 加함으로써 集結地를 완전히 崩潰토록 하였고 아울러 이 지역에서의 敵의 南侵 계획은 挫折 되기에 이르렀다.

5월 24일 : 美 제5공군의 輸送機들은 友軍地上軍에 對하여 탄약과 POL(油脂)및 裝備 등을 前方 비행장으로 空輸 하였는데 敵의 前線으로부터 熾烈한 對空砲火로 그 中의 3臺가 擊墜되었으니 이 當時 敵의 對空威力의 急增을 判斷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熾烈한 對空砲火속에서 斷行되는 탄약의 보급으로써 友軍地上軍은 敵陣에 超重量級의 火力을 發揮함으로써 一大反擊을 加 할 수 있었으니 捨身敢鬪하는 空地協同의 極致의 効驗이 至大하였다.

5월 25일 : 美 제5공군에서는 美 空軍참모총장 Vandenberg 대장의 命令에 따라 제35전투邀擊비행단을 日本에 再配置하고 日本에서 防衛作戰임무를 맡고 있는 제314비행단과 그 作戰을 遂行토록 하였다.

즉 제35전투 邀擊 비행단의 제40비행대대는 Misawa基地로 가서 F—84邀擊機대대로 轉換되었고 제39대대는 F—51(Mustang)機 編成部隊로 계속 韓國線戰에 남아서 제18전투폭격비행단에 배속 되었다.

이러한 변경으로 F—51 전폭기 1個대대가 解體되었으며, 그 대대의 비행기들은 아직도 F—51 전폭기를 使用하는 韓國內의 各 大隊에 分屬되었다.

5월 26일 : 美 空軍에서는 少數의 新型 B—45 Jet 輕爆擊機와 F—94 複座 Jet 機를 韓國의 各 戰線에 出擊시켜 空地作戰의 展開로써 地上軍의 士氣를 드높였을 뿐만 아니라 實戰的인 寄與度가 적지 않았다.

5월 27일 : 極東空軍의 B—29 重爆擊機들은 平壤 東쪽 兼二浦—咸興 등 敵의 주요보급품 集積所를 強打 하였으며 美 제5공군의 전투폭격기들은 華川 貯水池 北쪽에서 敵의 수송縱隊를 폭격하였는데 이 隊列들은 自動車化보다도 牛馬에 依한 僞裝輸送手段으로 轉用된 것을 推斷케 되었다.

5월 28일 : 極東空軍의 重爆擊機와 전투 邀擊機들은 新義州 비행장과 그 부근을 中心으로 하는 敵의 주요보급품 集積所를 폭격하였는데 敵의 MIG—15전투기가 新義州 上空에서 邀擊을 敢行함으로써 一部는 目標로 突進하여 豫定대로 폭격하고 나머지 一部는 空中戰에 參加 하였는 바 이는 敵 空中勢力의 策源地인 南滿洲 大平野에 대하여 空軍이 一指도 加 할 수 없는 美行政部의 固陋性에 基因하는 必然的인 結果라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空中戰에서는 敵의 MIG—15전투기 1臺만을 擊墜시켰다.

5월 28일 : 美 제5공군의 전투 폭격기들이 地上軍의 反擊 戰線을 따라 과감한 근접지원을 斷行함으로써 敵前線의 一角은 무너지고 또한 敵의 退路를 遮斷한 결과 地上軍은 正面에서의 強壓과 側後方에서의 退路遮斷이라는 二重效果를 거두는 데 있어서 空軍의 많은 協力을 받게 되었다.

5월 30일 : UN空軍은 전날에 이어 反擊으로 北進하는 地上軍의 戰線에 과감한 근접지원을 반복하고 敵前線에 대한 主要補給源인 金化北쪽에 있는 補給品 大集積所를 奇襲폭격하여 이를 焚滅하는 成果를 보였다.

5월 31일 : 極東空軍의 전투 邀擊機들은 敵의 MIG—15전투기와 新安州 上空에서 空中戰을 演出하여 敵의 MIG—15전투기 2臺를 擊破 하였으며 다른 1臺를 半破하는 戰果를 거두었는 바 UN空軍이 完全히 一方的으로 制空權을 掌握하는 版圖에 變化가 惹起되어 가는 一證左로 볼 수 있었다.

美 제5공군의 綜合戰果

MIG機 全破—26臺	機關車大破—54輛
野砲擊破—387門	鐵道車輛大破—1,194輛
橋梁폭파—25個所	軍트럭全破—3,581臺
戰車폭파—32臺	敵 殺傷—21,563名

第 44 章

第二次 春季 攻防戰

要　旨

1. 縣里地區 撤收戰
2. 陰陽里—豊岩里地區 戰鬪
   (一名, 昭陽江 및 九萬里地區 戰鬪)
3. 龍門山—華川 進擊戰
   (芝岩里地區 進擊戰 包含)
4. 大關嶺 防禦戰
5. 奉日川地區 戰鬪
6. 美 제10군단의 KANSAS線 進擊戰
7. 美 제9군단의 加平—華川 進擊戰
8. 空軍의 部隊整備 및 基地展開
9. UN空軍의 活動

第44章 第二次 春季 攻防戰

要 旨

本章에는 1951년 5월의, 그야말로 進退와 榮辱이 無常한 激動期의 戰況을 收錄하였으니, 이른바 敵의 「5월攻勢」를 擊碎하는 것이 그 經過의 大要이다.

西部戰線에 主力을 두어, 서울 攻略을 企圖하였던 敵의 「4월攻勢」가 烏有化되자, 그 狼狽를 塗糊하기 위하여 다시 攻勢를 再擧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에 제8군은 敵이 中東部戰線의 山岳地帶로 主攻을 指向한 또 한차례의 攻勢를 준비하고 있다고 判斷한 결과, 5월11일부터 全戰線에서 防禦態勢로 轉換토록 하였다.

이때 제8군사령관 Van Fleet중장은 종래의 MaArthur-Ridgway戰略인 「最少限의 損失로써 最大限의 打擊을 加한다」라는 機動遲延戰을 止揚하고, 現防禦線에서 砲兵火力을 最大限 發揮하여, 決戰防禦키로 方針을 세웠다.

이와같이 我軍이 Golden-No Name線에서 戰線을 整理하여 敵의 攻勢를 扼腕 待機하던 中, 中共8개군과 北共 3개군단을 中東部戰線에 集中한 敵이 5월16일에 冠岱里 부근 昭陽江 南岸의 美제10군단 右翼陣地에 第一擊을 加함으로써 「5월攻勢」의 幕이 오르게 되었다.

이리하여 我軍은, 突破와 迂回를 配合한 敵의 物量戰法에 휘말려 일시 苦戰을 겪게 되었는데, 제10군단 右翼의 潰散으로 左側腰部가 暴露된 韓제3군단이 撤收를 強要당하였고, 그 餘波는 다시 東쪽의 韓제1군단에까지 波及되어 兩군단이 마침내 六關嶺一下珍富里線으로 撤收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六關嶺에서 韓제1군단의 首都사단이, 洪川正面에서 美제10군단의 美제2사단이, 그리고 龍門山에서 美제9군단의 韓제6사단이 各己 當面한 敵의 進路에 쐐기를 박아 그 衝鋒을 꺾음으로써 戰勢가 逆轉되어, 5월20일부터 美제9, 제1兩 군단이, 그리고 23일에는 韓제1, 美제10兩 군단이 攻勢로 移轉케 되었다.

이렇듯 敵의 攻勢 1週日만에 版圖가 뒤바뀌어 또한 雙方의 喜悲가 엇갈리게 되었는데, 제6사단의 龍門山戰鬪는 可謂 防禦戰의 白眉編이라 할 수 있거니와, 24일부터 Kansas線으로 反擊하는 過程은 이 期間以後로는 다시 볼 수 없는, 참으로 壯快한 局面이었다.

그러나, 이 期間中에 我軍도 뼈아픈 쓰라림을 맛 보았으니, 제3군단의 解編이 바로 그것인데, 여기에는 尙今도 석연치 못한 많은 問題點이 남아 있다.

本章의 期間을 통털어 彼我의 損益計定을 端的으로 表現한다면, 여기 당시에 UN軍司令官 Ridgway대장이 5월30일에 東京에서 가진 記者會見 內容中의 한구절로 集約될 수 있을 것이다.

『敵은 이제 戰場에서 勝利할 可望이 없게 되었으니, 外交的인 解決의 價値를 考慮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1. 縣里地區 撤收戰 (1951년 5월 16일부터 / 1951년 5월 22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10호
상 황 도 제 9 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제 3 군단	장	소장	劉 載 興
제 3 사단	장	준장	金 鐘 五
제18연대	장	대령	柳 陽 洙
제22연대	장	대령	張 春 權
제23연대	장	대령	金 淙 舜
제 9 사단	장	준장	崔 錫
제28연대	장	대령	李 昌 禎
제29연대	장	대령	車 甲 俊

제30연대 장 대령 孫 熙 善
배속부대
제11포병대대 장 소령 宋 贊 鎬
제30포병대대 장 소령 張 庚 石
병력 · 23,000명 (98%)
장비 : T/E에 70%보유
105mm 곡사포 36문
4.2″ 중박격포 24문

敵 軍

北共 제 2 군단	제 2 사단	장	소장	李喆用
제 5 군단	제 6 사단	장	소장	洪 林
제 5 군단	제12사단	장	소장	崔忠國
제 5 군단	제32사단	장	소장	金大弘

中共 제12군 제31사단 장 趙藍田
제27군 제81사단 장 孫端夫
병력 · 40,000명

나. 전투전의 개황

縣里(麟蹄郡麒麟面)를 중심으로 한 작전지역은 東部의 太白山脈에서 西쪽으로 흘러내린 香爐·雪岳·五臺山脈 등의 分水嶺이 형성된 萬壑千峯 地帶로서 標高는 600~1,500m에 이르며 山岳은 60°의 심한 傾斜때문에 깊은 溪谷과 山봉우리를 이루고 있다.

지역내에서 西南쪽으로 흐르는 昭陽江은 江幅이 50~100m, 水深이 2~5m로서 徒涉이 困難하며, 또한 支流인 內麟川은 上南—龍沚—縣里를 거쳐서 北쪽으로 흘러 麟蹄에서 昭陽江으로 合流되는데 河幅은 20~100m로서 부분적으로 徒涉이 가능하였다.

地帶內에는 東西間의 道路(杆城—元通里—麟蹄—洪川)가 彼我間에 對峙한 공간지대에 끼어있어 서로가 利用하지 못하였으며 제 3 군단이 可用한 道路는 군단사령부가 위치한 下珍富里에서 東沙里—三

巨里一蒼村里一下梨峴一上南里一下南里一縣里一麟蹄에 이르는 南北의 縱路뿐으로서 이나마도 單車路의 險道였다. 따라서 제 3, 제 9 兩사단의 唯一한 補給路는 이 道路에 의존하게 되고 더구나 軍團補給根據地는 東海岸의 江陵에 있었기 때문에 작전지원에 있어서 적지 않은 支障을 주고 있었다.

그리고 地帶內에는 소나무와 雜木 등이 우거진 곳이 많고 그외는 싸리나무와 칡덩굴이 무성하였다. 또한 稜線의 起伏이 심하여 觀測과 射界가 좋지 못한 反面 敵側에게는 隱蔽와 掩蔽를 제공 함으로써 攻者에게 有利하였다.

氣候는 5월 중순이지만 高地帶에 殘雪이 남아 있었고 夜間에는 氣溫이 급히 降下함으로써 晝夜間의 氣溫변동이 심하였다. 또한 起伏관계로 無線通信은 그 通達効果가 많이 감소되어 指揮通信에 영향을 주었다.

敵軍의 狀況 · 北共 제 3 군단은 제 1 차春季攻勢(51.4.22)에 있어서 元通里一麟蹄北方에서 제 3 군단 및 美 제10군단에 대하여 攻勢를 취한바 있었다.

이 攻勢는 地形上으로 有利한 美 제10군단정면에 主攻을 두고 제 3 군단정면에 助攻으로 壓力을 加하다가 縣里 北쪽 8km線에서 제 3, 제 7 兩사단에 의하여 그 進出이 阻止되고 말았으나 敵은 1주간에 10~17km를 前進할 수 있었다. 본시 敵 제 3 군단은 戰鬪力이 弱하여 前進이 不振하였는데 我 제 3 군단의 反擊을 받고 매봉一加里峰등지에서 必死的인 저항을 하였으나 아군의 猛攻擊에 굴복하고 5월 9일 이후에는 主力부대가 昭陽江을 다시 건너서 麟蹄一元通里北方線으로 退却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敵은 제 1 차공세시의 彼我對峙狀況으로 還元되고 말았다.

退却한 北共 제 3 군단은 재정비를 위하여 상황이 조용한 東海岸으로 轉進하고 대신 北共 제 2 제 5 兩군단이 我 제 3 군단정면에 對陣하게 되고 一部가 美 10군단정면에도 展開하였다. 그리고 새 攻勢를 위하여 西部方面에서 中共 제12, 제27兩군이 轉進하여 美 제10군단정면에 展開하기에 이르렀다

5월 12일부터 中共의 偵察部隊는 美 제10군단의 각 사단정면에 出現하여 前進陣地에 대한 威力搜索을 하였고 특히 同 군단의 右翼에 배치된 제 7 사단정면에는 현저한 兵力增強이 관측 또는 偵察報告되었다. 또한 군단정면인 元通里一麟蹄間 道路上에는 5월 14일밤과 15일밤 兩日間에 걸쳐서 70餘臺의 車輛이 南下하는 것을 관측하였으며 이는 탄약 및 보급품의 수송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모든 徵候는 敵의 공세가 임박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와같이 敵이 제 2 차 공세준비를 분망하게 하고 있을 때 北共의 일부병력은 제 3 사단이 確保하고 있는 加里峰(△1,519)에 대하여 5월 15일부터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捕虜의 말에 의하면 北共 제 6, 제12兩사단은 加里峰을 16일안으로 점령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하였으며 同高地 점령후에는 中共과 合同으로 六攻勢를 취하기로 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敵情을 분석할 때에 敵의 作戰企圖는 제 3 군단을 攻圍코자 加里峰一縣里一下珍富里線과 麟蹄 西南쪽으로 二個의 突破口를 마련하고 지난 一月攻勢와 같은 戰局을 만들려고 하였음이 분명하다고 볼 수 있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民族保衛相이며 人民軍副司令官인 崔鏞健을 작전지도차 前線에 파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에 敵이 제 2 차공세에 있어서 어떠한 轉換點을 찾으려고 한 것이 역역히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轉換點이란 6월에 敵側에서 休戰會談을 제의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제 2 차공세에서 戰略的

인 유리한 입장을 획득함으로써 政治協商의 미끼로 삼으려한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中共軍의 戰術·中共의 侵略이래 그들이 사용한 戰法은 대략 다음과 같다.

① 人海戰術로서 그들이 企圖하는 정면에 대하여 突破口를 만드는 集中攻擊을 감행하되 특히 UN軍과 韓國군과의 연결점을 포착하여 취약점을 최대한으로 이용한다.

② UN공군의 공격을 회피키 위하여 총공격은 日沒직전에 시작하여 夜間攻擊으로 突破口를 만들어 깊숙히 침투하고 다음날 黎明에는 1단계의 공격을 종결하고 다음 速攻을 준비한다.

③ 돌파구를 확장한 부대는 縱深 깊이 침투하면서 敵(아군)의 후방지휘소를 습격 교란하거나 또한 退路를 차단하는데 이러한 차단은 여러곳을 중첩시키고 포위섬멸전을 기도한다.

④ 총공격에 先行하여 遊擊 침투부대(소규모)를 敵(아군) 戰線後方에 침투시켜 후방교란을 감행하였는데 이들은 通信手段으로서 특히 피리를 사용하였다. 深夜에 후방이나 측방에서 이 피리소리를 내어 包圍된 것으로 誤斷하도록 欺瞞하여 攪亂시켰다. 그 밖에 나팔, 꽹과리 등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것이 아군에게는 心理的으로 큰 영향을 주었다.

⑤ 야간전투훈련이 잘 되어 은밀하게 행동하며 공격간의 補給은 個人휴대식량으로 의존하였는데 이 補給量에 따라서 공격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

我軍의 狀況·敵의 제1차 春季攻勢가 4월 22일을 期하여 全戰線에서 開始되었을 때 제3군단은 제3사단을 右翼, 제7사단을 左翼으로 하여 그 前線은 元通里 北쪽 3km線에서 寒溪里—龍岱里 南쪽 線까지 진출하고 있었다.

敵의 공격은 麟蹄에서 洪川으로 主攻을 지향하였지만 이로 말미암아 左翼의 제7사단 제5, 제3兩연대는 그 餘波로 戰線이 무너져 冠岱里로 南下하여 제5연대는 迂回한 끝에 原隊로 복귀중에 있었고, 제3연대는 美 제10군단에 배속됨으로써 제7사단은 제8연대만이 孤軍奮戰하게 되었다.

그러나 右翼인 제3사단은 加里峰(△1519)을 연하는 橫隔室地帶를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敵의 공격을 陣前에서 견제하고 그 左측은 寒石山(△1119)까지도 도맡아 防禦正面은 무려 20km에 이르고 있었다. 이와같은 廣正面의 防禦로 因하여 4월 27일에는 더以上 戰線을 維持하기가 어려워 3~8km 뒤로 이동하여 縣里를 中心으로 8km北쪽에 戰線을 再형성하고 이 線에서 再反擊을 위한 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陸軍本部에서는 제3군단 左翼인 제7사단이 弱化되었으므로 제1군단에 예속되어 있는 제9사단(장 李成佳준장)을 4월 25일부로 제3군단에 예속변경하여 增援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조치와 함께 敵의 攻勢도 쇠퇴되었으므로 5월 1일 제7사단은 군단에서 예속해제와 동시 左측의 美 제10군단으로 배속이 변경 되었다.

5월 1일 현재 군단은 지휘소를 下珍富里에 두고 劉載興소장 지휘下에 제3사단(장 金鐘五준장)을 右翼에 그대로, 그리고 제7사단자리에 左翼으로 제9사단(장 崔 錫준장, 4월 27일부)을 새로이 配置하고 反擊을 준비하였다.

제3사단은 軍糧田—泊水岱—下畓을 연하는 線에 제18, 제23兩연대를 一線에 배치하고 제22연대를 예비로 二線에 확보하였다. 그리고 제9사단의 제28연대는 제7사단의 제8연대 左측인 院岱里—백봉산(△984) 길에, 제30연대는 5월 2일 제8연대의 陣地를 引受하여 제9사단의 右一線으로서

제 3 사단과 인접하였다. 이날 현재 제29연대는 蒼村으로 이동 집결중이었다.

이와같이 제 9 사단의 戰線 進攻과 더불어 左右戰線의 정리가 완료되고 再反擊을 위한 준비가 갖추어지자 군단은 原進出線을 目標로 다시금 北上進擊을 斷行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5월 7일 黎明에는 군단장 劉載興소장의 진두지휘로 전면적인 攻擊을 시작하여 逐次的으로 山岳지대의 잇점을 이용하여 北共군을 격파하면서 高地와 稜線하나 하나를 탈환하고 9일에는 제 3 사단이 加里峰(△ 1,519)에서 左로 △1,225—△1,226—△688를 연하는 重要地帶를 겁령확보하고, 左翼인 제 9 사단도 같은날 昭陽江南쪽 瞰制高地일대에서 右로 높이 솟은 寒石山(△1,119)을 탈취하고 이어서 西北쪽 4km에 있는 △631까지 진출함으로써 군단은 麟蹄—元通里—寒溪里間 道路를 제압하게 되었다.

이로써 군단은 진출목표선인 No Name 線에 進出하고 攻勢防禦로 전환하여 主抵抗線을 구축하였다. 즉 군단의 右측은 韓 제 1 군단(장 白善燁소장)의 首都사단 제 1 연대(장 韓 信대령)와 左측은 美 제10군단에 배속된 제 7 사단 제 5 연대 (장 趙成華대령)와 인접하게 되었다.

군단의 右翼인 제 3 사단은 지휘소를 縣里에 두고 제22연대(장 張春權대령)를 右一線에, 제18연대(장 柳陽洙대령)를 左一線에, 그리고 제23연대(장 金淙舜대령)를 예비대로 확보하고, 그 左翼인 제 9 사단은 지휘소를 龍浦(縣里 南쪽 5km)에 두고 右一線에 제30연대(장 孫熙善대령)를, 左一線에 제28연대(장 李昌禎대령)를, 그리고 예비대로 제29연대(장 車甲俊대령)를 控置하였다.

군단 防禦정면은 26km에 달하였는데 海拔 1,000m가 넘는 地勢를 고려한다면 廣正面이며 더구나 군단豫備가 없는데다가 作戰機動路가 없고 2개사단의 生命線인 主補給路는 內麟川을 따라 形成된 上南—縣里—麟蹄間의 험한 單車道路外는 없었으므로 작전자체보다도 地形을 制壓하고 補給을 추진하는 것이 더욱 큰 問題가 되었다.

당시 各師團은 自體에서 軍團補給所(江陵, 下珍富里)로 부터 補給品을 수령하는 大隊—聯隊, 聯隊—師團의 上向式方法을 썼는데, 大隊에서는 狀況에 따라 주먹밥을 만들어 大隊에 배속된 勞務者를 이용하여 中隊別로 할당하여 이를 推進하기도 하고 또한 大隊의 실정에 따라서 個人炊事를 하도록하여 各個士兵들이 반합에다 個人炊事를 하였으니 이는 防禦時에 많이 이용하였다. 結局 補給, 炊事문제는 作戰速度를 저하시키는 큰 原因이었다.

將兵들의 士氣는 大體的으로 良好하였는데 특히 제 3 사단은 5월 1일부터 15일까지에 다음과 같은 戰果를 올려 士氣가 비교적 높았다.

戰 果 : 사살 1,760명, 포로 58명, 소총류 567정, 다발총 87정, 기관총 39정

損 失 : 전사 42명, 부상 216명

한편 제 9 사단도 매봉전투에서 제30연대가 사살 895명, 포로 42명, 소총 245정, 다발총 60정, 기관총 30정, 반전차포 4문, 직사포 3문등의 戰果를 올렸고 損失은 전사 72명, 부상 319명이었다.

本 작전에 있어서 군단은 군단자체의 예비대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 5월 9일부터 제 9 사단 제29연대를 군단예비로써 확보하고 있었으나 5월 13일 방어태세로 들어가면서 同 연대는 사단예비대로 환원되었다.

그리고 각 사단은 사단지휘소 경계부대로서 對戰車攻擊大隊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 以外에는 지휘소 사단후방을 경계할 수 있는 장비와 병력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5월 16일 현재의 각 지휘소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제 3 군단 — 下珍富里
제 3 사단 — 縣 里
제18연대 — 下楸里
제22연대 — 하우고개
제23연대 — 中 雀
제 9 사단 — 龍 浦
제28연대 — 다락구미
제29연대 — 下 雀
제30연대 — 黑石里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작전 계획

군단은 美8軍의 작전계획에 따라 5월 9일에는 No Name 線으로 突進하여 主抵抗線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이 방어선은 敵의 제1차공세 때인 4월 22일 현재 線보다는 약간 뒤로 처진 線이었다.

실상 군단은 퇴각하는 敵을 계속 추격하였다면 더 이상 진격할 수 있는 상황하에 놓여 있었으나 東部戰線의 제1 및 제3 兩군단은 이미 中西部戰線보다도 먼저 38°線을 突破 함으로써 戰線이 突出하고 있어, 앞으로 中部戰線과 連繫하면서 作戰段階線인 Kansas線으로 공격진출코자 공세적 방어태세에 들어간 것이다.

이러한 作戰上의 전환은 육본작명 제267호(51. 5. 13)에 의하여 실시되었는데, 한편으로는 敵의 攻勢에 대비한 방어태세라고 보는 것이 陸軍本部의 意圖라고 볼 수 있다. 즉 군단은 左측에 있는 美 제10군단 보다도 약 15km나 戰線이 北上하고 있었음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美第8軍은 종합적인 정보판단에 의하여, 中共이 4월의 제1차공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하여 대대적으로 제2차공세준비에 拍車를 가하고 있음을 看破하고 捕虜들의 진술에 의하여 그 攻勢時機를 5월 中旬으로 判斷하고 있었다.

이러한 敵情을 감안하게 된 제3, 제9 兩사단은 진출선에서 1~2km를 反轉하여 高地頂上에 主抵抗線을 설치하기에 이르렀고 前方에 경계진지를 운영하였다.

군단 右翼인 제3사단 제22연대가 占有中인 加里峰 前面에서는 攻防戰이 계속되었으나 그 밖의 정면은 평온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2) 작전 실시

5월 16일 : 1. 제3사단은 제18, 제22 兩연대의 主力으로 主抵抗線을 계속 확보중이며 警戒陣地일대에서는 전면적으로 敵과 交戰中에 있었는데 연대별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가) 제22연대(장 張春權 대령)는 사단의 右一線으로 軍團 右측인 제1군단의 首都사단 제1연대와 인접하고 5월 9일 加里峰(△1,519)과 △1,226를 점령확보한 이래 매일 北共군과의 交戰이 警戒진지에서 계속되고 있었다.

加里峰을 연하는 稜線은 지대내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서 我軍으로서는 이것을 확보함으로써 앞으로의 공격작전에 중요한 발판을 삼아야 하는 要地였다. 이와같은 加里峰의 重要性은 北共측에서도 더욱 강조될 것으로서 同地帶를 확보하게 되면 縣里지구로 南下하는 攻勢 작전의 主導權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敵側은 여하한 희생을 치루더라도 加里峰을 점령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었는 듯한데 이러한 정보는 제22연대에서 청취한 敵측의 無電내용이나 14일에 捕虜로 잡은 李泰根戰士의 진술에서도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공격력으로서는 이미 이 要地를 점령확보中인 아군의 堅陣을 奪取하기란 그렇게 容易한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晝夜間을 막론하고 공격을 계속하였는데 야간전투에서는 敵을 陣前에서 격파하여 밤새도록 聯豕歌를 부르면서 戰場의 士氣를 높이고 敵의 집요한 공격을 격퇴하고 있었다.

이날도 연대는 제2대대(장 金德海 소령)가 加里峰에서 제3대대(장 鄭淳珉 소령)가 左一線으로서 △1,226의 主陣地에서 敵 2개중대 병력과 교전중이었다.

한편 예비대인 제1대대(장 崔章學 소령)는 지휘소를 加里山里에 두고 17.00에 제1중대는 加里峰에 제2중대는 △1,226에, 증원되어 敵에 대한 反擊을 加하고 있었다.

나) 제18연대(장 柳湯沫 대령)의 제3대대(장 趙東三 중령)는 15일에 점령한 △1,044를 警戒진지로서 계속 확보중이며, 제2대대(장 鄭昇和 중령)는 △1,226~△1,145에, 그리고 제1대대(장대리 孫榮鎭 소령)는 △638에 배치되었는데, 제3중대는 덕적에 推進하여 경계중이었다. 同연대의 正面에서는 警戒부대인 제3대대에서 경미한 交戰이 벌어졌으며 主抵抗線부대인 제1, 제2대대는 接敵이 없었다.

다) 제23연대(장 金淙舜 대령)는 5월 14일 제18연대에 主陣地를 인계하고 下楸里와 上畓으로 轉進한 다음, 연대본부를 中畓에, 제1, 제3 兩대대를 下楸里에 각각 집결토록 하였다. 敵의 공격준비사격이 시작되자 사단장 명에 의하여 제1대대(장 姜啓三 소령)는 軍糧田 東쪽으로 전진하여 19.30 현재 배치를 완료하고 제3대대(장 印禮根 소령)는 제22연대 지휘소가 있는 檜田洞으로 前進하여 南北小道路의 左右에서 19.30현재 진지를 점령하였으며, 제2대대(장 金斗業 소령)는 上畓에서 後方警戒에 임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 연대지휘소는

계속 中畓에 位置하였다.

2. 제9사단은 5월 10일에 현 主抵抗線을 점령확보한 다음 이날까지 接敵이 없는 가운데 麟蹄地區 및 前方地域에 대한 수색정찰을 계속하였는데, 敵은 15일부터 砲兵의 諸元記錄射擊을 실시하였다.

가) 제30연대(장 孫熙善 대령)는 5월 7일부터 매봉 (△1,066)을 공격하여 9일에 이를 奪取하고 10일에는 餘勢를 몰아 寒石山(△1,119)을 점령함으로써 敵을 麟蹄北쪽으로 驅逐한 다음 이날에 이르기까지 主抵抗線을 確保하면서 昭陽江北쪽에 대한 수색과 경계를 계속하고 있었다.

이날 검은석(黑石里)의 연대지휘소에서는 軍團長을 대리한 참모장 沈彦俸准將이 有功將兵들에 勳章을 수여하였는데, 특히 매봉占領에 혁혁한 戰功을 세운 제3대대(장 金鎭東 중령)의 全士兵에 대하여서는 1계급 특진의 영예가 주어졌다.

나) 제28연대(장 李昌禎 대령)는 군단의 左翼인 사단의 左一線연대로서 바로 麟蹄正面의 昭陽江의 凹部에 있는 稜線지대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5월 10일에 昭陽江 南쪽기슭까지 진출하여 진지를 점령하였으나 14일에는 1km를 뒤로 물러나 高地上에 主抵抗線을 구축하였다.

연대는 최초 제1, 제2 兩대대를 主陣地에 배치하고 제3대대를 豫備로 確保하고 있었으나 이날 제3대대는 제1 및 제2대대의 中央인 △770로 推進 배치되었다.

다) 제29연대(장 車甲俊 대령)는 공격개시 이래 군단예비연대로서 兩공격연대를 後續하여 15일 현재 연대지휘소를 下畓에 두고 麟蹄一縣里間의 道路를 中心으로 左側 院垈里에 제3대대(장 李聖鎬 소령)를, 右側 下畓線에 제1대대(장 張泰煥 소령)를 배치하였다. 제2대대(장대리 李奎判 대위)는 12일부로 제30연대에 배속되어 사단경계부대로서 麟蹄 東側方의 昭陽江과 內麟川이 合流하는 三角洲일대를 감제하는 △548에 배치되었다.

그리고 12일부로 연대는 군단예비에서 해제되어 사단예비가 되었으나 이 예비대를 사용할 때에는 군단장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었다.

3. 敵의 제2차 春季攻勢가 5월 15일~16사이에 있을것이라는 것은 군단이나 예하 제3, 제9사단의 末端 사병에 이르기까지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예상은 적중하여 敵의 攻勢는 5월 16일 17.00를 기하여 全戰線에 걸쳐 開始되었는데 中東部에 있어서 敵의 主攻은 美 10제군단지역의 韓 제7사단정면에 지향되었다. 敵은 前例에 없었던 猛烈하고 정확한 砲擊을 美 제10군단의 右翼 사단인 韓 제7사단(장 金炯一준

장) 정면에 加하였다.

제9사단의 제28연대와 제7사단의 제5연대(장 趙成華 대령)가 연결되어 있었는데 敵은 제7사단정면의 제5연대와 제8연대에 砲擊을 集中하여 一線大隊와 연대지휘소의 有線網을 杜絶시켰다. 이때 제8연대 지휘소와 제16포병대대의 陣地가 있는 新豊里(새재골)일대에 砲彈이 집중낙하함으로써 제16포병대대는 19.00에 獨斷으로 4km南쪽에 있는 於論里로 이동하여 陣地를 占領하였으나 有無線이 杜絶되어 제5연대에 대한 支援射擊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같은 敵의 砲擊이 2시간에 걸쳐 실시 됨으로써 마침내 제5, 제8兩연대의 각 대대의 指揮體制가 마비되고 말았다.

2개연대 규모의 中共軍이 19.20부터 제5연대의 右第一線인 제3대대 正面의 藍田里로, 다른 1개연대는 舊 三八橋가 있는 제2대대정면에서 昭陽江을 渡河하여 공격하였다. 또한 제8연대 정면에도 1개 사단병력이 全面 공격을 동시에 加하였다.

날이 어두워질때까지 제5연대는 필사적으로 敵의 공격을 저지하였으나 砲支援을 받지못하였을 뿐 아니라 敵의 砲擊이 점차적으로 射程을 延伸하면서 아군의 豫備隊사용이나 增援부대의 행동을 妨害하였다.

제5연대장 趙成華대령은 一線大隊의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으므로 豫備隊를 사용할 수 없었고 또한 사단사령부와도 通信이 杜絶되었으므로 16일 22.00에 右인접인 제9사단 제28연대를 通하여 현재의 상황을 제7사단 지휘소에 긴급연락토록 요청하였다. 이리하여 제3연대지휘소를 경유하여 제5연대의 상황을 보고받은 제7사단장은 제5연대로 하여금 陣地를 固守토록하는 명령을 제28聯隊를 通하여 전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 각 一線陣地는 이미 돌파되어 분산되었고 따라서 제5연대장으로서도 指揮에 있어서 束手無策이었다. 이런 가운데 23.45에는 所峙里에 位置한 제5연대지휘소가 侵攻한 敵의 공격을 받아 분산됨으로써 결국 제5연대는 각개 분산하여 철수하게까지 되었다.

한편 제8연대(장 李賢進대령)도 敵의 공격으로 제6, 제10兩중대가 전멸상태가 되어 예비대를 投入하여 主陣地를 支撐 하였으나 인접 제5연대 제2대대가 通告없이 철수하여 제8연대도 主抵抗線이 무너지게 되었다.

이로써 美 제10군단의 右側이 突破됨으로써 제3군단이 苦境에 빠지게 되었다.

4 敵 攻勢後의 군단정면의 상황을 살펴본다면 敵의 공격준비사격은 군단정면에도 加하여 졌으나 左인접인 제7사단정면에 더욱 熾烈한 砲擊이 集中되었다. 이 당시 北共군은

상당히 많은 量의 砲彈을 備蓄한 듯 하며 迫擊砲에서 曲射砲에 이르는 온갖 火力을 제3, 제9사단에 加하였으나 그 實效에 있어서는 그리 크지 못하였다.

敵이 점령하려고 노리는 加里峰도 여전히 제22연대가 굳게 방어하고 있었고 다른 연대 정면에서도 敵의 공격은 輕微하였다.

한편 下珍富里의 군단사령부에서는 敵의 總攻擊이 시작되었다는 제3, 제9 兩사단의 報告에 접하는 동시에 그 主攻이 美 제10군단배속인 韓 제7사단정면이라는 것을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군단의 작전참모인 李周一대령은 22.00에 敵의 人海戰法에 대하여서는 戰線의 支撐이 힘들 것이라는 過去의 경험에 비추어 군단장 劉載興소장에게 「차라리 陣地가 突破되어 혼란을 초래하기 보다는 지연전을 펴면서 上南線까지 一旦反轉하는 것이 無難할 것입니다」라고 건의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군단장도 이에 동의함으로써 江陵에 있는 陸軍本部前方指揮所를 경유하여 陸本과 美軍에 건의하였으나 「如何한 일이 있더라도 撤收할 수는 없다」라는 回信을 接하였다.

이리하여 군단장으로서는 戰況의 進展에 따라 臨機로 적절하게 指揮하는 길 밖에는 없었는데 一線의 狀況을 파악하는데 뒤늦은 不正確한 報告만으로서는 綜合判斷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이니 例컨대 美 제10군단에서는 제7사단이 健在善鬪하는 것으로 狀況連絡이 있기도 하였다.

이날 22.00에 제9사단에서는 左인접인 제7사단(장 金炯一준장) 제5연대(장 趙成華대령)가 돌파된 狀況을 알게되었는데 前述한 바와 같이 大隊와 聯隊間의 有無線의 杜絶로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었지만 主抵抗線이 돌파되어 敵이 후방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狀況이 제23연대(장 李昌禎대령)로 부터 報告되었는데, 이러한 敵情은 군단장에게도 우선 보고되었다. 그리고 제9사단장 崔 錫준장은 인접 제3사단장 金鐘五준장에게 전화로 협조연락을 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제7사단의 제5연대진지가 무너져 그 兵力들이 우리 9사단쪽으로 몰리고 있으며 敵은 계속 後方으로 南下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上南고개가 위험하니 제3사단에서 五馬峙를 막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제3사단장으로서도 선듯 그렇게 하자고는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제22연대정면에서 敵의 壓力을 받고 있었으므로 예비인 제23연대의 제3대대(장 印禮根 소령)를 檜田洞에, 제1대대(장 姜啓三 소령)를 軍糧田에, 그리고 제2대대(장 金斗業 소령)를 上畓에 배치

하여 豫想되는 敵의 侵透路에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9사단으로서도 예비인 제29연대(장, 車甲俊대령)가 제2선 진지를 점령하고 미리 突破에 대하여 對備中이었으므로 兵力을 抽出할 수 없는 形便이었다. 따라서 五馬峙는 兩個 사단장이 그 緊迫性을 認識하면서도 使用兵力의 餘裕가 없었으므로 深夜에 이에 대비하지 못하였다. 또 狀況의 急變에 따라 軍團長은 17일 02.00에 全車輛을 五馬峙로 부터 그 以南으로 撤收할 것을 제3, 제9兩사단장에 命令하였으나 結局 砲 車輛은 그 一部 밖에는 撤收하지 못하였다.

5월 17일 : 1. 제3사단(장 金鍾五준장)은 北共 제32, 제12 兩사단의 공격을 이날 零時부터 받게되어 본격적인 공방전을 전개하게 되었으며 04.00에 이르러서는 加里峰의 主抵抗線이 돌파 됨으로써 2개중대규모의 敵이 사단의 後方地區로 침투하기 시작하였다.

사단장은 이 時刻에 上南里의 五馬峙가 敵에게 차단되었다는 보고를 듣게 되자 敵의 包圍網이 이미 形成된 것을 직감하고 우선 前方연대로 하여금 敵의 突破口의 擴大를 妨害케 하면서 天明을 기다려 사단 全般 상황을 점검하는 즉시로 적절히 措置키로 결심하였다.

가) 제22연대(장, 張春權 대령) 正面에서의 敵의 공격은 探索的인 것이었으나 이날 零時 이후부터는 우세한 兵力이 增強되어 공방전은 漸次로 苛烈의 度를 높여갔다.

有利한 地形과 때마침 보름달의 月光은 防者에게 힘을 주어 敵의 攻擊梯隊를 陣前에서 數次에 걸쳐 격퇴하였으나 04.00부터 제2대대의 左側 一角을 敵에게 喪失함으로써 돌파구가 형성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敵은 제22연대본부가 있는 檜田洞 쪽으로 南侵하게 되었다. 그러나 同연대 제2대대(장, 金德海 소령)는 敵 후속부대를 차단하면서 돌파된 陣地에 대한 恢復攻擊에 주력하고 있었다.

나) 제18연대(장, 柳陽洙 대령)는 이날 零時를 期하여 제2대대(장, 鄭昇和 중령) 左側 정면에서 2개중대 규모의 敵과 교전하여 陣前에서 이를 격퇴한 다음 계속 主抵抗線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제1, 제3兩대대 정면에는 接敵狀況이 없었다.

다) 제23연대(장, 金弥舜 대령)의 제1대대(장, 姜啓三 소령)는 01.00에 軍糧田 東北쪽1km에 4명의 敵이 나타났으므로 계속 監視를 강화하였는데, 06,00에는 제3대대(장, 印禮根 소령)가 배치된 檜田洞에 敵 2개중대가 침공하므로 이를 邀擊하자 1개중대 병력은 제2대대(장, 金斗業 소령)가 배치되어 있는 上畓쪽으로 그 방향을 돌렸다.

그런데 이 敵은 제22연대의 정면을 돌파한 선두부대로 판명되었다.

2. 제3사단장 金鍾五준장은 美 제10군단의 韓 제7사단의 상황을 새로이 접수하지 못

한 가운데 一線의 戰況을 주시한 바, 다소 敵의 공격으로 압력을 받고 있으나 능히 主抵抗線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01.00에 제23연대 제1대대에 의하여 軍糧田 東北쪽 1km에 敵兵 4명이 出現하였다는 보고에 不吉한 예측을 하게 되었다.

04.00에는 제22연대의 중앙부가 돌파되고 또한 처음부터 관심을 둔 上南里의 五馬峙가 敵에 의하여 차단되었다는 事實을 제9사단으로 부터 통보받았다.

06.00에는 敵 2개중대규모가 이미 제22연대지휘소가 있는 檜田洞에 侵透함으로써 제3사단으로서는 더 이상 主抵抗線을 유지할 수 없는 戰況에 부닥쳤다.

이리하여 사단장 金鍾五준장은 작전참모 金德俊중령의 조언을 받아 左인접 제9사단의 제28연대(장, 李昌禎대령)도 철수중이라는 종합판단에 따라 사단을 철수하기로 결심하고 08.00에 段階的으로 철수명령을 내렸다.

이 命令의 要旨는 제23연대가 제18, 제22 兩연대의 철수를 掩護하고 제18연대가 먼저 제3, 제2, 제1대대순으로, 제22연대가 제1, 제3, 제2대대순으로 縣里의 사단지역으로 철수하라는 것인데, 마지막으로 철수를 시작한 대대가 대체로 09.00부터였다.

이리하여 제18, 제22兩연대병력은 제23연대의 엄호下에 上畓—진다리(泥橋)를 거쳐 縣里로 철수하여 13,00에는 사단지역에 제18연대가 집결 완료하였다.

한편 제23연대의 제1, 제3대대(장, 姜啓三 소령)는 南下하는 敵을 저지하고 13.00에 각각 철수하여 上畓으로 집결한 다음 이곳에서 제2대대의 엄호下에 俗稱진다리로 이동하고 제2대대(장, 金斗業 소령)는 上畓의 엄호진지에서 18.00부터 反轉하여 역시 진다리로 이동하였다.

이리하여 제23연대는 18.50에 진다리를 출발하여 縣里로 南下한 끝에 사령부지역에 집결하게 되었다.

3. 제9사단정면에서는 敵의 공격이 개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異常하리만큼 接敵이 없었다. 그러나 反面에 左인접 제7사단의 제5연대의 正面이 突破됨으로써 左측방이 노출되어 제9사단은 主抵抗線을 유지하면서도 後方을 차단당하는 事態에 直面하게 되었다.

가) 제30연대(장, 孫熙善 대령) 當面의 敵은 이날 01.00부터 數未詳의 병력으로 제2대대의 진지인 △970에 공격을 加하여 我軍과의 교전끝에 02.00에 同高地를 점령하고 말았다. 이 敵은 北共군과 中共군이 혼합되어 있었으며 그 일부가 정면에서 견제하는 동안 主力이 我軍의 배치間隙으로 침투하여 후방을 교란함으로써 연대는 抵抗다운 抵抗도 못한채로 맥없이 陣地가 무너지는 결과를 招來하였다.

이리하여 제2대대(장 朴京虎 소령)는 제1대대(장 金相義 소령)가 占領中인 寒石山(△1,119)쪽으로 몰리게되어 이곳에서 兵力을 收拾하였는데 여기에는 아무런 接敵狀況이 없었다.

04.00에 연대는 사단의 철수명령을 받고 축차적으로 철수를 시작하여 龍浦里로 이동하게 되었으나 北共과 中共의 혼합된 敵은 要所에서 사격을 集中하면서 추들라고 크게 외치는 心理戰을 併用하여 대대장병들의 脫出에는 많은 苦楚가 뒤따랐다.

나) 제28연대(장. 李昌禎 대령)는 사단의 左一線으로 연대 正面에는 아무런 敵情이 없으므로 一抹의 不安이 있었는데 그 까닭은 左側後方이 이미 제7사단 제5연대의 철수로 開放되고 또한 右인접 제30연대의 제2대대가 무너짐으로써 左右가 突破된 가운데 고립상황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2대대(장, 金寅文 소령)의 重火器中隊는 박격포로써 側後方에 대한 擾亂사격을 集中하여 敵의 突破氣勢를 粉碎코자 하였다.

左인접인 제5연대(장, 趙成華대령)가 後退한지도 이미 時間이 經過하였고 02.00에는 警戒小隊에 박격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敵의 地上공격이 멀지 않은 것을 暗示하는 듯 하였다. 그러나 後方으로 侵襲하는 敵이 있을 것을 직감하게 된 연대는 04.00부터 철수를 명령함으로써 제1대대(장, 金祥鈺 소령)와 제2대대는 제3대대의 掩護下에 後退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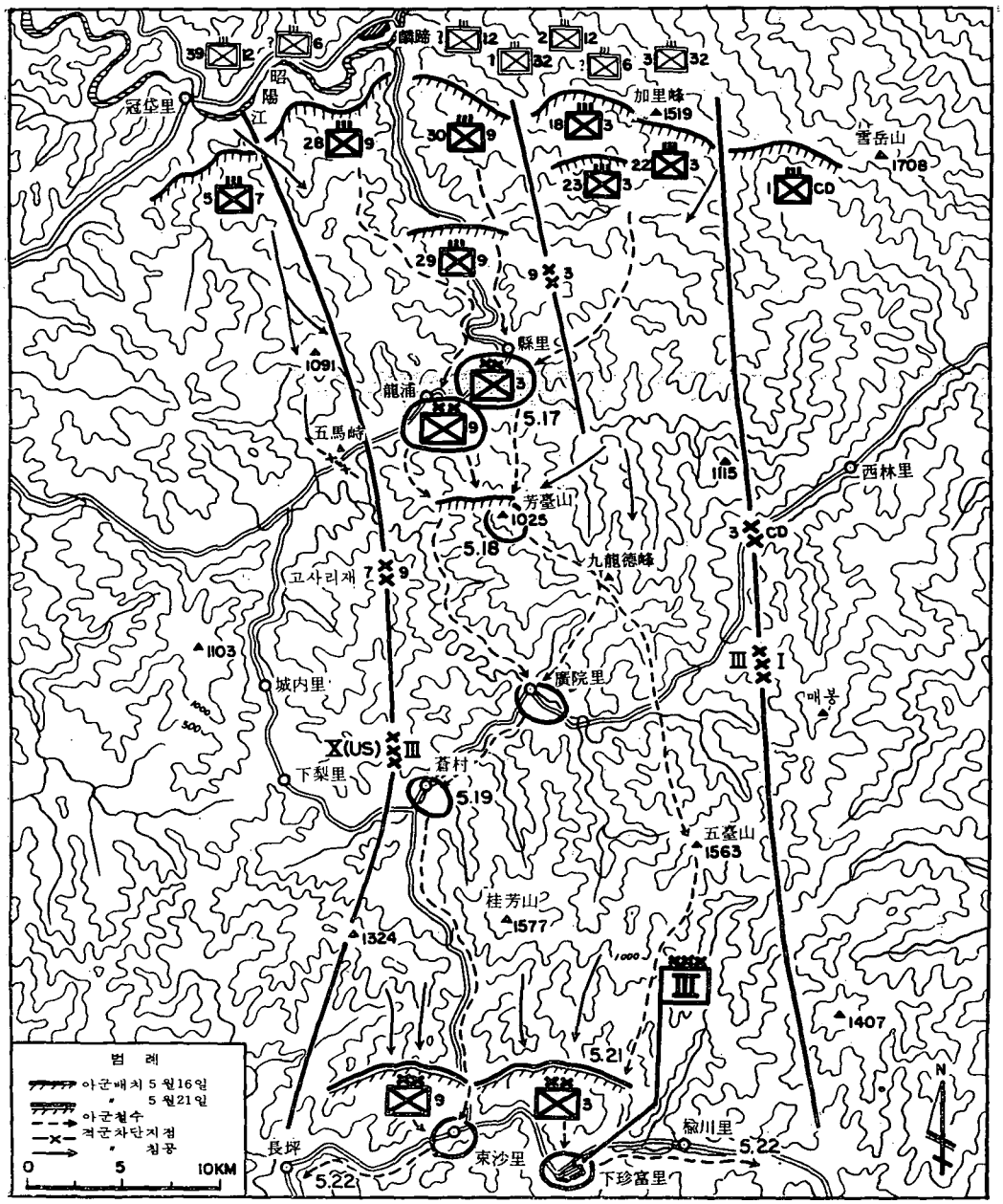
제3대대(장 孫德均소령)는 제10중대를 主抵抗線의 後方에 있는 △675에 배치하고 있었는데 敵 1개대대 규모의 병력이 溪谷을 따라 侵襲하는 것을 포착하자 즉시 대대의 지원화력을 얻어 河川을 건너는 敵을 일제히 集中射擊하여 치명적인 타격을 加하고 그 뒤에 06.00에 이르러 마지막으로 철수한 다음, 龍浦를 目標로 直行하였다.

한편 먼저 철수한 제2대대는 이미 후방에서의 敵의 교란사격으로 各 中隊가 분산하여 各個로 철수하게 되었으나 그 대부분이 龍浦로 集結하였다.

다) 제29연대(장, 車甲俊대령)는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01.00부터 제1대대(장, 張泰煥 소령)는 매봉, 제3대대(장, 李聖鎬 소령)는 院垈里에서 제7사단의 돌파지역으로 각각 前進케 하였다. 그러나 각 대대는 前進하는 途中에 側後方에서 敵의 急襲을 받고 다시 原位置까지 反轉하였으니 必是 戰況이 豫想外로 推移하는 까닭이었을 것이다.

한편 제30연대(장, 孫熙善대령)에 배속된 제2대대(장, 대리 李判奎대위)는 前進陣地를 占領하고 徹夜로 侵襲하는 敵을 四周防禦로써 격퇴하면서 陣地를 固守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대와 左右인접대대와도 통신이 이미 두절되어 최전방에서 孤立된 상태로 通信유지에 노

◇ 상황도 제9호 縣里地區 撤收戰



력하던 중 09.00에 無電철수명령을 받았다. 즉 부연대장 朴應奎중령이 직접 제2대대에 철수명령을 전달하고자 찝車로 北上하면서 呼出하였는데 장수터(제2대대 진지에서 南쪽8km)에서 交信에 성공함으로써 同 대대는 逐次로 지연전을 펴면서 龍浦까지 철수하였다.

한편 제1대대는 下碧의 연대지휘소에서 05.30에 행동을 개시하여 縣里 西側方 8km에 있는 매봉산(△694)으로 前進하여, 敵이 縣里쪽으로 侵透하는 것을 阻止하면서 제28연대(장, 李昌禎대령)의 철수를 엄호하는 任務를 받고 08.00에 現地에 도착하는 즉시로 防守態勢로 들어갔다. 이때에 敵의 大규모 兵力이 大岩山(△1.091)의 稜線을 타고 上南里를 目標로 南進하는 것을 目擊할 수 있었다.

대대는 夕陽에 연대장 車甲後대령으로 부터 無電으로 命令을 받게 되었는데 그 要旨에 이르기를 『全般的으로 戰況이 不利하니 즉각 撤收한 다음 下珍富里로 集結하라』하였으므로 축차적으로 철수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途中 路上의 要所에는 이미 中共군이 배치되어 있어 到處에서 사격을 받았으므로 대대는 분산되어 個別的으로 集結目標을 向하여 後退하였다.

4. 이 당시에 제9사단장 崔 錫준장으로서도 左인접인 제7사단의 狀況을 파악할 方途가 없었는데 제5연대(장, 趙成華대령)가 무너지기전까지는 同 연대의 부연대장인 金相奎중령과 자주 연락을 維持하였기 때문에 상황을 검토할 수 있었으나 그뒤로는 通信이 杜絶되어 제5사단(장, 閔機植준장) 사령부를 통하여 제7사단이 전면적으로 突破되었다는 事實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부사단장 李龍文대령에게 全車輛을 지휘하여 上南里 南쪽으로 철수할 것을 決心하고 指示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조치로 補給車輛과 사단 工兵大隊의 일부 車輛이 가장 먼저 上南里의 五馬峙를 넘어 철수하게 되었는데, 나머지 主力車輛은 李龍文대령의 先頭 지휘아래 五馬峙까지 이르렀으나 數未詳의 敵이 頂上일대를 점령하고 사격을 集中함으로써 長蛇陣을 이룬 車輛隊列은 철수를 일단 中止하고 말았으니 이때가 03.00에서 03.30사이였다.

이렇게 되자 일부의 工兵중대병력을 제30연대 부연대장인 李根陽중령이 직접 지휘하면서 遮斷地域의 敵을 공격하였으나 敵에게 압도되어 無爲로 돌아갔고 부사단장은 砲兵으로 하여금 遮斷地域에 대한 制壓사격을 요청하고자 急히 지휘소로 되돌아갔다.

부사단장의 보고를 통하여 上南里의 五馬峙가 이미 차단된 것을 확인하게 된 사단장은 비로소 一線 연대에 대하여 04.00에 철수명령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예하 각 연대병력은 철수명령에 接하자 분산된 채로 지휘소가 있는 龍浦로 계속 南下하게 되었는데 午前中에는 主力이 거이 집결하였다.

이무렵 中共의 일부 정찰병력이 12.00에 龍浦 西쪽 稜線에 나타나 위협사격을 加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제29연대(장 車甲俊대령)의 제3대대가 이를 공격하여 阻止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威脅에서 벗어나고자 사단장은 全 병력을 縣里로 北上移動케 하여 13.40에 집결을 완료하였다.

사단장 崔 錫준장은 제3사단장 金鐘五준장을 만나서 上南의 五馬峙를 突破하려고 부사단장 李龍文대령 지휘下에 제29연대 제3대대가 1개 砲隊의 砲兵支援으로 再次 敵의 차단점을 향하여 공격하였으나 그 打開가 안된다고 하면서 狀況의 不利를 한탄하기도 하였다

5. 金, 崔 兩사단장의 作戰協議에 대하여 살펴본다면 縣里지구로 제9사단이 北上 집결하고 있을 때에 제3사단은 예하 제18연대가 집결하고 있을 뿐 그나머지는 모두 철수중이었다.

따라서 兩 사단장은 美고문관들과 같이 협의하여, 각 사단에서 1개연대를 차출하여 2개연대로 하여금 上南里일대의 敵의 차단진지를 공격 突破하기로 1차적인 합의를 보았으나, 구체적인 공격계획은 세우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제3사단의 병력이 집결중에 있었기 때문에 공격개시 시간을 미리 결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어서 제3사단장 金鐘五준장은 군단장에게 현재의 상황을 보고한 바 군단장은 兩개 사단의 협동으로 차단線을 돌파한 다음 撤收할 것을 命令하였다.

한편 이 地域에 집결한 병력들은 徹夜전투와 철수로 말미암아 모두 疲勞하였고 더구나 後方이 차단되었다는 事實 하나만으로써 上下의 士氣가 극도로 動搖된 바 있었다. 이러한 현상을 看破한 金鐘五사단장은 內心으로 이와같은 士氣로서는 突破작전이 성공할 수 없다고 우려하였다.

제9사단장 崔 錫준장의 말대로 제29연대의 1개대대가 敵을 공격中이지만 戰況의 커다란 진전이 없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고 더구나 五馬峙일대에는 敵의 兵力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敵은 我側 2개사단을 殲滅하려고 包圍網을 압축하고 있는 時點에서 군단장의 지시대로 敵의 차단진지를 돌파하기란 모든 與件이 不利한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던 것이다.

6. 군단장의 措置에 대하여 살펴본다면, 이날 下珍富里의 군단장 劉載興소장은 美제10군단 右翼인 제7사단의 防禦陣이 무너졌다는 事實을 알게 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戰勢가 이와같이 急轉直下하리라고는 판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同 사단은 제3연대(장, 鄭震대령)를 예비로 保有中이었고 설사 主抵抗線의 一角을 喪失하더라도 예비대의 投入과 逐次的인 遲延戰으로써 能히 敵의 進出를 막아 5~6km의 讓步로써 이날 17일 아침을 맞이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五馬峙의 要衝은 군단에서도 가장 關心의 焦點인 까닭으로 비록 美 제10군단의 담당 地境線內에 포함되었다 할지라도 17일 아침의 상황을 검토하여 適切한 對應策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날 04.00에 이르러 五馬峙가 이미 遮斷되었다는 보고를 받게 되니 大驚失色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昭湯江에서 五馬峙까지는 圖上距離로 18km(實地距離 29km)인데 23.00에서 24.00사이에 제7사단의 戰線을 돌파한 敵이 어찌하여 3~4시간내에 夜半중 地理에 未熟한 가운데 五馬峙까지 突進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니 여기에는 必有曲折이요 또한 敵의 突破時機가 情報以上으로 훨씬 빨랐다는 것을 疑心케 하기도 하였다.

당초 군단장은 如上한 戰術的인 判斷밑에서 決心하고 있었던 것인데 意外의 敵情變化는 隸下 2個師團에 대한 兵力運用의 自由를 剝奪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으며 이야 말로 千萬뜻밖의 比隣延燒의 兇災가 아닐 수 없었다.

이리하여 제3, 제9 兩사단장은 敵의 遮斷陣地를 突破할 수 없는 어려움을 呼訴하였으나 군단장으로서 아직도 2개 사단이 健在하고 또한 砲兵火力도 2개 대대가 있어서 能히 敵의 包圍網의 一角을 突破할 수 있을 것으로 判斷하였다. 然이나 군단으로서는 單 1개대대의 예비도 保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萬難을 克服하고 遮斷을 스스로 突破할 것을 嚴命하였다.

이와같이 作戰을 指揮하면서도 그대로 坐視할 수 없어, 군단장은 首席고문관을 대동하고 輕飛行機로 제3사단사령부를 방문하여 現地에서 어떠한 打開策을 마련하고자 14.00에 上南里 上空에 이르렀는데 五馬峙일대의 敵兵들은 小銃으로써 對空사격을 集中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無事히 縣里에 있는 제3사단 輕飛行場에 도착한 군단장은 제3, 제9 兩사단장을 만나 狀況을 聽取하는 즉시로 要旨 다음과 같은 口頭命令을 下達하였다.

『① 군단은 當面한 敵의 遮斷陣地를 突破한 다음 主力으로써 蒼村里 東西地區로 集結케 하여 後圖를 策하려 한다.

② 제9사단장은 주력부대를 重點的으로 使用하여 五馬峙를 突破하고 退路를 개척하라.

③ 제3사단장은 阻止진지를 점령하고 四周防禦을 實施하면서 철수준비를 갖추라. 제9사단이 돌파하면 축차로 지연전을 펴면서 철수하라.

④ 撤收目標는 우선 蒼村里를 東西로 連하는 線으로 한다.

⑤ 撤收間의 統制權을 제3사단장에게 附與한다.

⑥ 余는 下珍富里에 있는 군단지휘소로 急還하는 즉시로 可能한 砲兵 및 航空支援과 空輸에 依한 補給支援을 要請할 것이다. 』

이와같은 突破斷行에 關한 口頭命令을 下達한 군단장은 15.00에 下珍富里에 있는 지휘소로 歸着하자 곧 突破부대에 必要한 105mm 砲彈과 補給品을 空輸하도록 措置하였다.

7. 陸軍本部에서는 제3군단의 상황과 美 제10군단의 상황을 綜合검토한 다음 美 제8군사령부와 協議한 결과 육본작명을 下達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제1, 제3 兩군단장은 5월 18일 黎明을 期하여 Waco線으로 철수하라.

② 제3군단장은 輸送기관과 裝備 및 補給品등을 Waco線 南쪽地區로 이동할 수 있도록 機動路上의 敵을 剿滅하고 機動의 安全을 保障하라.

③ Waco線을 占領하면 각 군단간의 連繫를 유지하라. 』

이와같은 육본작명을 수령한 군단은 17.30에 철수명령을 경비행기편으로 縣里로 急送케 하여 通信筒으로 投下하였는데 그 명령의 내용은 군단장이 縣里비행장에서 口頭로 명령한 내용과 같았다.

8. 군단장의 作戰槪念에 따르는 임무를 부여받은 제3사단장 金鍾五준장과 제9사단장 崔錫준장은 군단장이 떠난 다음 서로 구체적인 作戰을 협의하였는데 그 結論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제9사단의 돌파부대는 사단내에서 전투력이 強한 제30연대(장 孫熙善대령)를 선정하고 최초 五馬峙를 공격하여 돌파한다.

② 제3사단의 제18연대(장 柳陽洙대령)는 제30연대의 공격에 呼應하여 그 側方을 엄호하면서 敵의 반격을 破碎하고 철수부대의 掩護진지를 점령한다.

③ 철수부대의 우선순위는 제28, 제29연대 그리고 제22, 제23, 제18연대의 順序로한다.

④ 砲兵부대는 突破口가 마련되면 우선적으로 철수한다.

⑤ 돌파부대의 공격개시는 21.00로 한다』

以上과 같은 作戰計劃이 兩 사단장에 의하여 合議되자 각 사단장은 각 연대장과 참모를 모아놓고 구체적인 작전지시를 下達하였는데, 그 시간은 17.00였다.

한편 이 무렵에 군단장이 조치한 砲彈과 긴급 보급품이 美輸送機에 의하여 縣里飛行場에 投下되었다. 그러나 그 일부는 敵手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西湖에 위치한 제9사단 제30포병대대(장, 張庚石 소령)의 B포대는 敵陣에 대하여 集中포격을 加하였으며 때로는 直射로써 敵을 強打하기도 하였다.

9. 제9사단장은 突破를 위하여 龍浦 南쪽에 있는 △736를 제29연대 제3대대(장, 李聖鎬 소령)로, 그리고 △766를 제2대대(장, 대리 李判奎 대위)로 하여금 각각 점령케 하여 敵의 侵攻에 대비토록 하였다.

突破의 직접 責任을 맡은 제30연대(장 孫熙善대령)는 主攻을 西側方에 두고 우선 제3대대(장, 金鎭東중령)를 俗稱 다리골과 구만동線에 배치하여 19.00에 陣地를 점령케 하고 제1, 제2 兩대대로 하여금 五馬峙에 이르는 敵을 공격하기로 部署를 정하였다.

한편 21.00로 예정된 제3사단의 공격개시에 앞서 제18연대(장, 柳陽洙대령)는 龍浦의 河川線을 공격개시선으로 하여 제2대대(장, 鄭昇和중령)와 제3대대(장, 趙東三중령)가 공격준비를 완료하였고 제1대대(장, 대리 孫榮鎭소령)는 예비로 뒤에 控置되어 있었다.

제29연대 제3대대(장, 李聖鎬소령)는 △1,016의 공격임무를 받고서 20.00에 △736를 점령하여 공격을 준비하였다. 이때에 敵이 西側斜面에서 반격코자 壕를 구축하고 있는 것을 제9중대가 먼저 발견하게되어, 대대는 急編防禦로 전환하여 우선 敵을 격퇴하고 目標에 대한 공격을 企圖하였다. 이 때에 敵은 박격포로써 我軍地域을 요란하였다.

제3대대는 부연대장 朴應奎중령이 직접통제하고 있었는데 연대장 車甲俊대령은 제3대대가 敵과 交戰中이라는 보고를 받고 제18연대(장, 柳陽洙대령)가 공격할 것이니 현 陣地를 방어하라고 命令하였다.

이와같이 我軍의 공격개시가 전개되기도 전에 제29연대 제3대대의 陣地에서 交戰이 벌어지게 되자 後方에서 철수를 대기중인 부대들은 突破공격이 시작된 것으로 믿고 그의 成功을 빌었다.

그러나 敵이 사격하는 박격포탄이 龍浦—縣里間의 道路邊에 雨注하자 갑자기 混亂이 惹起되었는데, 어떤 영문인지 제30연대의 제1대대(장, 金相義 소령)와 제2대대(장, 朴京虎 소령)가 공격을 하지 않고 芳臺山쪽으로 철수 하기 시작하였다.

(突破攻擊을 중지하고 芳臺山으로 철수하게된 經緯에 대하여 現時點에서는 관계자들의 證言이 엇갈려 사실을 규명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나 제9사단장이 철수를 명령한 것은 아니다. 여하간 敵의 포탄이 떨어지면서 모두가 당황하여 芳臺山쪽으로 발을 옮기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같은 상황도 모르고 제30연대 제3대대(장, 金鎭東 중령)는 그대로 陣地를 固守하면서 主力의 攻擊을苦待하고 있었는데 攻擊開始시간이 지났는데도 何等의 행동이 없고 그후에도 上部의 指示가 없어서 그대로 陣地를 固守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면서 戰場은 너무나 고요하였다. 제3대대의 정보장교인 李載熙소위는 24.00에 右側方高地에 배치된 제10중대를 無電으로 呼出한 바 전혀 응답이 없어서 정보선임하사관 以下 3명을 파견하였으나 배치지역에는 병력이 없다고 되돌아 왔다. 그는 연대본부를 호출하였으나 역시 응답이 없었다. 李소위는 不吉한 예감이 들어가 연대지휘부가 있는 곳을 찾아가니 그대로 空虛뿐이었다

18일 02.00에 대대지휘소로 돌아간 李소위는 이미 연대가 철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날이 밝기전에 대대主力의 철수를 결심하여 제12중대장 趙徹權대위와 협의한 끝에 대대장에게는 사후에 결과보고키로 하고 대대주력의 철수를 단행한 끝에 1km 北上하여 외나무다리로 內麟川을 渡河하고 나니 날이 밝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 제10중대는 연락이 不通하고 제11중대는 芳臺山쪽에 배치되어 있었다

이때 제10중대가 배치되었던 장소에서 銃聲이 요란하였다. 뒤에 탈출한 병사들의 말에 의하면 제10중대는 저녁에 진지를 占領하여 個人壕를 파고서 초저녁까지는 공격행동 때문에 긴장狀態下에 있었으나 그후 攻擊도 없고 敵情도 없어서 모두가 疲困하여 경계병조차 없는 가운데 壕內에서 잠에 취하고 말았는데 새벽에 요란한 銃聲에 눈을 떠보니 中共軍이 完全包圍하여 攻擊하는 터인지라 모두가 捕虜가 되고 10여명만이 九死一生으로 死地를 벗어나왔다는 것이다.

한편 芳臺山쪽 구만동의 無名高地에 배치된 제11중대도 새벽에 敵의 포위공격을 받았으나 중대장 孫중위가 침착하게 敵의 기관총진지에 은밀히 접근하여 M2칼빈으로 敵을 사살하고 突破口를 개척하여 탈출한 다음 분산철수를 하였다.

이 무렵 제29연대 제2대대(장, 대리 李判奎대위)는 △766에 배치된 다음, 밤새 接敵이 없어서 새벽무렵에는 경계병들도 잠들었다가 다행히도 위에서 아래로 敵 중대병력이 散開接近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공격하여 驅逐한 然後 연대장의 無電철수명령을 받고 芳臺山으로 向하였는데 敵이 추적하면서 사격을 계속하고 또한 일부 병력이 앞질러 進路를 차단하므로 분산되어 中腹으로 빠져서 퇴로를 개척하였다.

한편 제3대대(장, 李聖鎬 소령)도 초저녁에 敵과 接戰하면서 밤새 陣地를 固守하였는데 날이 밝으면서 周圍가 異常하여 후방에 임시로 있던 연대지휘소로 가 보니 아무도 없어 無電으로 芳臺山쪽에 있는 연대장을 呼出한 결과 철수명령을 받게되었다. 이에 대대는 축차적으로 內麟川을 건너서 芳臺山으로 向하였는데 이때 敵이 이미 進路를 막고 있었서 3次에 걸쳐 突擊戰을 감행한 끝에 血路를 打開한 다음 中腹을 타고 廣院里쪽으로 分散된 채

로 철수하였다.

한편 제3사단 제18연대(장, 柳陽洙 대령)는 제30연대의 공격에 呼應하여 西側方에 있는 阻止陣地를 점령코자 待機상태에 있었으며 연대 수색중대를 제30연대에 후속시켜 진전상황을 보고토록 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30연대(장, 孫熙善 대령)가 공격을 하지 않고 撤收하게 되자 연대장은 이를 사단장에게 보고하였다.

이때에 사단장 金鍾五준장은 공격준비를 확인하고자 龍浦에 와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는 兩個사단의 철수부대들이 道路를 메운채로 混亂을 極하고 있었을뿐 아니라 제30연대가 뒤로 돌아서 철수하고 있다는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판단한 結果 현재의 與件으로서는 到底히 突破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따라서 사단도 芳臺山으로 단계적으로 後退할 것을 결심하게 되었다. 이때에 美顧問官은 사단장에게 芳臺山—龍浦地帶에서 四周防禦를 실시하면서 友軍의 反擊이있을 때까지 支撐하여 보자고 提議하였다. 사단장도 四周防禦의 必要性에는 동감하였으나 芳臺山은 標高가 1,436m나 되는 高峰으로서 機動의 제한을 받을뿐 아니라 敵의 大兵力이 包圍壓縮하면 물한방울 없고 食糧補給조차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 모두 敗亡할 것이 分明한 만큼 따라서 砲와 數많은 車輛裝備를 어차피 破壞 遺棄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차라리 軍團命令대로 Waco線으로 철수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現時點에서 혼란된 제9사단과도 협동할 수 없는 이유도 있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사단장은 제23연대(장, 金淙舜대령)로 하여금 芳臺山頂을 먼저 점령케 하여 철수부대를 엄호토록하고 제18연대는 △1130—수리봉(△945)—東沙洞을 점령 엄호하라고 명령하였다. 同時에 車輛과 砲는 敵이 利用하지 못하도록 破壞 또는 燒却할 것을 命令하였다. 이와 同時에 最初의 사단 集結地는 廣院里 Waco線北쪽 5km로 지정하였다.

그런데 이 당시 破壞命令이 내리기 以前에 이미 車輛타이어의 바람을 빼거나 불을 지르는 形便이었다.

5월 18일 : 芳臺山으로의 철수는 이미 作戰이 아니라 無秩序한 潰退의 樣相을 들어내고 있었다.

2개사단의 兵力이 縣里—龍浦間에서 오로지 제30, 제18兩연대의 突破口의 形成만을 苦待中이었는데 別名이 白骨部隊로서 戰鬪力이 第一級에 속하는 제18연대가 突破를 敢行한다는 것이므로 비록 重圍속에 陷入되었다고는 할지라도 撤收作戰의 始終에는 아무런 危懼가 없을 것으로 判斷되었다. 그런데 相互間이 서로 激突하고 서로 接戰한 끝에 地軸

을 흔드는 銃砲聲이 漸次로 가까워지더니, 車輛들이 줄지어 있는 龍浦—縣里사이의 道路兩側에 연하여 砲彈이 集中하기 시작하자 戰況이 分明치 않은 夜暗中에 進退疑懼로 命令이나 指示도 없이 各者 제마음대로 砲, 車輛 등을 파괴하는 自虐行動이 벌어지게 되었으며 결국 이러한 妄動이 芳臺山으로의 무질서한 潰退까지 誘發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제9사단의 3개대대를 제외하고는 17일 24.00이전에 모두 철수를 단행하였는데 철수명령을 24.00경에 받은 單位隊, 例컨대 제9사단의 통신대 등은 西湖國民校를 中共軍이 包圍하고 사격을 集中할 때에야 비로소 車輛等을 소각하고 離脫하기도 하였다.

이 당시에 北共과 中共軍은 北, 西, 南의 三面에서 이미 包圍를 형성한 다음 我軍이 芳臺山으로 철수방향을 돌리자 일부병력으로 追擊한 끝에 이날 未明부터 제30연대 제3대대와 제29연대 제2, 제3兩대대의 撤收路를 挾攻하여 병력을 분산시키기도 하였는데 縣里飛行場을 경비中인 제22연대의 제11중대도 이날 새벽에 敵의 攻擊을 받고 뒤늦게 철수하였다.

芳臺山은 제23연대가 先占하고 철수부대를 엄호하였는데 제18연대는 芳臺山—수리봉—東沙洞을 점령한 다음 군단主力의 철수를 엄호하였다.

芳臺山에 集結한 兵力은 서로 혼합되어 大隊長들은 自己의 所屬隊員을 파악할 수가 없었으며 이들 無秩序한 병력을 統制하려는 指揮官도 또한 없었고 또 統制할 수도 없었다. 大部分의 指揮官들은 階級章 등의 모든 標識을 떼어버리고 있어서 누가 指揮官인지 알 수도 없었고 各個行動으로 小單位隊를 形成하면서 主德峰(△1,444)—九龍德峰 (△1,388)을 넘어 廣院里로 退却群의 移動을 보게되었으니 어제까지의 堂堂하였던 陣形과 正正하였던 威容을 다시 찾을 길이 없었다.

이 芳臺山에서 제23연대도 엄호부대의 임무를 벗어나 自由로운 철수행동을 하였고 南쪽에서 엄호하던 제18연대의 제2, 제3兩대대는 연대의 지휘를 받을 수 없어 東沙洞으로 南下하여 河川을 따라 廣院里로 向하였다. 그러나 漆田洞부근에서 夜半에 敵의 차단부대와 不時에 衝突한 결과 각 대대는 分散된 채 각개로 重圍를 脫出하는 凄慘한 形便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芳臺山의 제1대대(장, 대리 孫榮鎭 소령)도 마지막까지 제9사단의 철수부대를 通過시키고 敵의 추격부대를 牽制抑留하면서 九龍德峯으로 主力을 따라 反轉하였다.

한편 이날 10.20 縣里道路上에서 我軍이 遺棄한 車輛과 砲車등을 끌고 北上하는 敵縱隊를 포착하자 곧 美戰爆機隊가 出擊하여 이를 擊破하고 道路上에 있던 모든 車輛에 대하여도 네이팜彈과 機銃掃射로 모두 破壞 또는 燒却하고 말았다.

철수兵力들은 17일 以後부터 一食도 하지 못한 부대가 있는가 하면 非常食糧을 휴대

한 어떤 單位隊는 2~3일을 지탱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은 主副食의 補給이 中斷된 탓으로 飢餓와도 싸워야만 하였다.

이날 夕頃에 각사단의 主力은 廣院里의 三巨里一帶에 집결하게 되었는데 여기는 內麟川과 桂芳川이 서로 합류하는 三角洲를 형성하고 蒼村에 이르는 道路의 始發點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桂芳川에는 교량이 없고 약한 외나무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를 먼저 건너려고 아우성을 치다가 그나마 나무다리 조차 崩壞된 까닭으로 各自가 있는 재간을 다하여 앞을 다투어 건너게 되었지만 누구하나 나서서 지휘하는 자가 없었다. 후속병력은 急히 追擊하는 敵과 且戰且退하면서 五臺山쪽으로 向하였는데 이 때에 敵은 上南里에서 군단 補給路를 따라 南下하여 18.00 현재 1개중대 병력으로 蒼村에 侵入하였으며 三巨里 南쪽 高地에도 그 一部가 나타나 철수부대의 動態를 감시하였으나 그들은 군단 병력에 압도되었음인지 敢히 공격하지 못하는듯 하였다.

5월 19일 : 제3사단 제18연대의 일부와 낙오자들은 밤새도록 行軍한 끝에 蒼村 三巨里에 당도하여 이날 새벽에 桂芳川을 渡河하는 刹那에 奇襲사격을 받아 2,000餘名 병력이 一時에 분산되고 말았는데 이 대열속에는 각 부대의 낙오병들이 서로 混合되어 指揮하려는 者도 없고 또 指揮를 받으려는 者도 없는 敗殘群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곳 三巨里에서의 撤收는 3개방향으로 크게 나누어졌는데, 그 第一群은 主力부대가 蒼村一下珍富里線을 通過하였으며 그 第二群은 三巨里一五臺山一月精寺一下珍富里線을 指向하였고 그 第三群은 三巨里一小桂芳山一桂芳山一下珍富里線을 따라 後退하게 되었다.

이때 軍團 前方指揮所가 三巨里에 추진되었는데, 蒼村에서 철수하는 第一群의 主力부대는 副군단장 姜英勳준장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군단 指揮部에 의하여 우선 蒼村으로 南下하였으나 여기도 이미 敵이 차단하였으므로 더욱 四分五裂상태가 되어 血路를 개척하는데 氣盡脈盡 하였다.

더구나 먹을 식량이 없어서 물만을 찾았으나 稜線上으로 나오게 되니 물조차 얻기 힘들었고 따라서 산나물 풀잎 등을 먹게까지 되었는데 개중에는 毒草까지 먹은 탓으로 二重苦를 맛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山間에 火田民들이 간혹 살고 있었으나 워낙 많은 병력이고 보니 얻어 먹기가 힘들었고 다행히도 얻을 수 있었다면 강냉이 밥 정도였다.

이날 17.00 현재 철수主力은 桂芳山과 △1,359(제23연대 각대대)線을 南下中에 있었으며

제9사단 공병대대와 제7사단 제5연대 제1대대의 병력이 蒼村 南쪽 10km의 雲頭嶺에서 敵 1개연대와 交戰끝에 이를 阻止中에 있었다.

그리고 17.00 현재 東沙里에 집결된 각 사단의 병력현황은 다음과 같다.

3 사 단		9 사 단	
본부 및 직할대	149명	본부 및 직할대	236 명
18 R	400 명	28 R	181 명
22 R	94 명	29 R	426 명
23 R	69 명	30 R	500 명
제 11 포병대대	15 명	제30포병대대	80 명
計	727 명	計	1,323 명

5월 20일 : 雲頭嶺의 敵은 夜暗을 이용, 移動을 시작하여 未明에는 東沙里 北쪽에 진출하게 됨으로써 군단지휘소는 이날 04.30에 下珍富里에서 江陵쪽에 있는 橫溪里로 이동하였다.

이에 따라 제3사단도 05.00에 東沙里의 지휘소에서 江陵쪽의 楡川里로 이동하여 철수병력의 수습과 재편성에 착수하였다.

同 사단의 제23연대(장, 金泳舜대령)는 △1,359에서 지연전을 전개하면서 이날 18,00 현재 下珍富里 北쪽 4km에서 東山里間에 배치되어 左側方과 北方에서 南下하는 敵을 저지하고 있었다.

제9사단 제28연대 제2대대(장, 金寅文소령)는 13.30에 △970(속사리재)의 敵을 공격하여 1개소대의 병력을 격퇴함으로써 下珍富里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였다.

이날 16.00 현재의 각 연대의 지휘소와 집결된 수습병력은 別表와 같다.

5월 21일 : 北共과 中共으로 混成된 4개연대규모의 敵은 이날 군단의 阻止線을 돌파한 다음 江陵—下珍富里—長坪道를 차단하려는 듯이 공격을 계속하였다.

이에 따라 제3사단은 지휘소를 楡川里에 두고 北에서 南으로 제23, 제18, 제22연대 順으로 梯次로 배치하고 계속 兵力을 수습중에 있었다.

제9사단도 군단의 左翼을 담당하여 제28연대는 △970(속사리재)의 左右稜線지대에, 제

30연대는 그 左側 蒼村에 이르는 道路를 中心으로 東沙里 北쪽 2km에 阻止線을 형성하고 제29연대는 사단예비로서 東沙里—下珍富里 道路 南쪽地帶에 제2선진지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당시의 각 연대는 그 지휘소를 모두 東沙里에 두고 있었다.

敵의 壓力은 右側의 突出地帶인 제3사단의 제23연대 正面에 1개연대 병력이 17.00부터 공격하였으므로 이를 저지하면서 제3대대(장, 印禮根 소령)는 18.00에, 제2대대(장, 金斗業 소령)는 19.00에, 제1대대(장, 姜啓三 소령)는 21.00에 각각 철수한 결과 俗稱 억두동의 연대 지역에 집결하여 23.00에 사단지시에 따라 南으로 철수를 하여 旌善쪽으로 向하였다.

한편 제9사단의 각 연대도 敵의 侵攻으로 大和쪽으로 逐次철수를 함으로써 東沙里—下珍富里의 군단저지선이 무너지고 말았다. 이때에 군단지휘소는 橫溪里에 위치하고 있었다.

3 사 단			9 사 단		
연 대	지 휘 소	병 력	연 대	지 휘 소	병 력
본 부	楡 川 里	90명	본 부	東 沙 里	185명
직 할 대	〃	860 〃	직 할 대	〃	1.167 〃
18R	皮 木 亭	1.052 〃	28R	〃	1.350 〃
22R	척 천 리	719 〃	29R	〃	990 〃
23R	역 두 동	900 〃	30R	〃	890 〃
계		3.621 명	계		4.582명

5월 22일 : 이날 현재 제3사단의 예하 연대들은 旌善郡 臨溪로 南下 移動中이었으며 사단 지휘소는 松溪里에 위치하고 있었다.

제9사단은 지휘소를 大和 北쪽 阿彌洞에 두고 예하 각 연대는 東北쪽인 小斤洞에 있는 自作亭에서 부대를 수습중에 있었다.

이날 군단사령부도 橫溪里에서 이동하여 18.50에 寧越에 도착한 다음 제3 및 제9 兩사단의 現況 파악에 최선을 다하였다.

한편 군단正面으로 南下中인 敵은 그 先頭로서 下珍富里 南쪽 5km선까지 진출하고 中共 제12군소속의 약 2개대대병력은 橫溪里로 東進하여 제1군단의 左側面을 위협하였다. 敵

은 계속 군단의 뒤를 추적하였는데 민간인의 첩보에 의하면 敵 2개대대 병력이 下珍富里 東南쪽 18km에 있는 水甲里에 진출하는 것을 目擊하였다는 것이다.

라. 전투후의 개황

敵의 이른바 제2차 춘계공세는 5월 16일 저녁부터 시작하여 21일로써 공세의 終末點에 이르고 말았다.

北共과 中共混成부대는 美 제10군단배속인 제7사단정면을 突破하고 일부병력으로 제7사단과 군단의 後方主據點인 上南里의 五馬峙를 차단함으로써 군단은 사실상 철수를 強要당하였던 것이다.

敵은 5일간에 걸쳐서 군단 主力인 제3, 제9 兩사단을 包圍殲滅코자 하였으나 군단은 芳臺山—廣院里—蒼村—東沙里—下珍富里線으로 철수함으로써 65km에 걸친 行程속에서 갖은 苦難과 飢渴을 극복하고 21일부터 東沙里—下珍富里線에서 군단저지선을 形成한 결과 敵의 戰果擴大에 쐐기를 박게된 것이다.

敵의 일부는 下珍富里線에서 6km를 더 南進하기는 하였으나 美 제3사단과 韓 제8사단의 反擊으로 그 氣勢를 挫折당한 끝에 南侵하였던 山野를 다시 찾아 北으로 退却하게 됨으로써 侵攻과 後退의 無常함을 다시금 느끼게 하여 侵略者로 하여금 暴師는 必敗한다는 萎縮感을 느끼게하였을 것이다.

特히 中共은 제1차공세의 失敗에 이어 제2차공세에서는 大大的인 準備로써 모든 力量을 集中한 人海戰法으로 決定的인 싸움을 벌였던 것인데 5일만에 勢窮力盡하여 그들 特有의 재빠른 退却으로 潰滅의 危機를 間免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兩次공세의 失敗는 결과적으로 敵側이 休戰會談을 提議하는데 커다란 原因이 되었다고 보아서 큰 잘못이 아닐 것이다.

我軍은 비록 戰術的으로 正面에서의 失敗를 보지 않았더라도 後方地域 美 군10단에 대한 警戒疎忽로 말미암아 18일부터 20일까지의 不戰而退에 있어서 前後의 兇敵을 물리치면서 建制를 充分히 유지하지 못하고 各個分散으로 反轉하였지만 20일 현재 收拾된 兵力은 다음과 같았다.(東沙里 및 下珍富里)

제 3 사단——3,621명——34.3%

제 9 사단——4,582명——40.0%

기타 兵力들은 그 뒤에 계속하여 原所屬으로 복귀하고 1개월 뒤에 비로소 復歸하는 兵士도 있었으니 分散된 병력의 再수습은 振幅이 그만큼 크기도 하였다.

美8軍當局에서는 5월 22일에 군단이 下珍富里線에서 다시금 南으로 철수하자 이날짜로 제3사단을 韓 제1군단에 예속, 그리고 제9사단을 美 제10군단의 美 제3사단에 作戰上 配屬하는 작전조치를 취하였다.

이와같은 措置로 군단정면의 突破口를 封鎖하는데 있어 美 제3사단이 5월 20일 20.00부로 제7 및 제9사단 正面에 戰鬪展開하고 제3사단 정면에는 제8사단이 5월 22일 11.00부로 美 제10군단에 배속 24일에 進攻하여 敵의 南下를 阻止하기에 이르러 戰線은 回復期에 들어갔다.

제3사단 主力은 下珍富里線에서 21일 夜半과 22일 未明에 철수한 다음 松溪里로 南下하여 23일부

터 26일까지 부대를 再編成하고 27일에는 江陵쪽으로 轉進하여 首都師團과 제11사단을 후속하여 6월에는 東海岸戰區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23일부로 사단장 金鐘五준장이 해임되고 수도사단 부사단장인 白南權준장이 부임하여 부대수습에 임하였다.

제9사단은 六和北쪽 阿彌洞에 지휘소를 두고 그 東北쪽 自作亭地域에서 부대를 수습 再編成하고 5월 25일에는 美 제3사단에 作戰上配屬되어 楡川里—下珍富里線으로 전진하였다. 이어서 退却하는 敵을 일방적으로 추격하면서 이를 섬멸하고 29일에는 五聖山 지구를 석권하면서 廣院里北쪽 私峯峠(△1,107)까지 進出하였다.

그러나 同 사단은 5월 31일부로 美 제1군단으로 배속이 변경되어 下珍富里로 집결한 다음 議政府地區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제3, 제9 兩사단의 예배속변경에 따라 제3군단도 5월 26일 國一命제93호에 의하여 解體되었는데 同 군단은 1950년 10월 16일 서울에서 創設된 以來로 8個月에 걸친 苦戰의 連續이었고 빛나는 戰勝의 記錄을 남기기도 하였으나 美 제10군단 正面의 破綻으로 마침내 五月 殘雪의 悲情을 맛보게 되었으니 六廈將倒를 어찌 한 사람의 힘으로 能히 막을 수 있었으랴.

5월 27일 현재 兵力收拾現況

사단별 / 구분	兵	力	裝	備
	장 교	사 병	총 포	차 량
제 3 사 단	85%(91)	76%(92)	33%(92)	27%(80)
제 9 사 단	74%(102)	65%(104)	18%(96)	30%(61)

※ 괄호내 숫자는 5월 15일 현재의 %임

§. 參戰者의 證言

◇ 제9사단장 崔 錫준장

(1964.12.24 종로구 청운동 자택 예,충장)

제7사단이 突破되었다는 상황을 5사단을 통해서 알았다. 나는 군단장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砲兵部隊만을 上南里 南쪽으로 철수시키자고 건의하였으나 군단장은 後退하는 인상을 준다고 이를 拒否, 受諾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부사단장 李龍文대령에게 全車輛만을 지휘해서 철수시키라고 하였는데 이를 지휘하여 나가다가 五馬峙에 벌써 敵이 와서 占領하고 있어서 나가지를 못했다. 工兵大隊의 일부 車輛과 補給車輛이 약간 빠져 나갔을 뿐이다.

당시 裝備만 없었으면 후퇴를 하지 않고 싸울 수가 있는데 이런 때는 裝備가 장애가 된다. 그때는 大隊別로 據點防禦를 했다.

山岳地帶에 있어서는 補給路와 補給이 가장 重要한데 보급은 사단이 담당할 것이 아니라 上級單位에서 책임질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전투연대는 輕裝備로써 싸울 수 있게하고 戰鬪部隊는 이로써 機動性을 발휘할 수 있다. 전투부대가 補給부담을 가진다는 것은 큰 부담이다.

전투지경선의 劃定에 있어서 큰 잘못이 있다 上級司令部에서 어떤 地圖를 놓고서 美 제10군단과 제3군단의 地境線을 그었는지는 몰라도 제3군단의 補給路를 中間인 上南里 以南地域을 제10군단에 준 것은 美8軍의 잘못이다. 重要地形地

物을 分割하지 않는다는 것은 戰術의 初步常識인데 그후 이를 建議나 協調로서 調整하는 것이 賢策이 아니겠는가.

17일 午後에 군단장이 縣里에 와서 作戰을 검토하고 指示하였는데 9사단에 突破임무를 준것에 대하여는 잘 記憶이 안난다.(이 證言은 72. 7.30. 電話面接) 그러나 突破하라는 것은 常識에 속하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3군단의 戰線崩壞는 不可抗力인데 전투간에는 인접부대간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重要하다.

◇ 제3사단장 金 鍾 五준장

(1965.3.4~6 합동참모회의의장실 예 대장)

군단의 補給路가 單一路인데다가 單車道路로서 疎通上에 지장이 많았는데 여기에 제3, 제7, 제9의 3개사단이 들어가 있어 補給路가 위협을 받았다. 따라서 機動上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

美 제10군단하고 협조가 안되었다. 즉 우리군단장의 말을 잘 안듣고 五馬峙에도 兵力을 배치하지 않았다.

9사단장 崔 錫 장군한테서 上南고개가 危險하게 되었으니 이를 막아달라고 要請받았으나 나도 豫備隊가 없고 사단을 경비하는 戰車攻擊六隊밖에 없었으니 五馬峙에 대비할 수가 없었다 군단장이 午後에 비행기로 왔었다. 나는 五馬峙를 突破하는 계획을 설명하였는데 그렇게 해보라고 했다. 그것은 9사단과 3사단에서 1개연대씩 차출하여 突破부대를 편성하여 突破를 強行하는 案이었다.

21.00에 突破공격하기로 했는데 攻擊出發地인 龍浦에 가보니 억망이 되고 공격도 안되었다. 제9사단과 협조도 안되고 해서 芳臺山으로 철수하기로 결정하고 제23연대로 하여금 先占케하고 제18연대를 철수엄호부대로 하였다.

美顧問官은 芳臺山에서 四周防禦를 해보자고 하였으나 自信이 없어서 그만두었다. 지금은 四周防禦 안해본 것이 후회가 되는데 당시는 四周防禦하면 全滅될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를 拒否한 것이다.

돌파명령을 받고도 이를 實踐못한 것은 將兵들의 士氣가 이미 後方이 遮斷되고 包圍되어 있다는 現實앞에 勇氣를 잃고 있었고 더구나 一線에서 敵을 이탈하여 철수하느라고 氣盡脈盡해가지고 突破에 自信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山岳戰에 있어서는 輕裝備로써 무장하고 휴대용 식량으로 급식을 개선해야 되겠다. 우리는 당시 약간의 건빵이 비상식량 역할을 하였는데 3~4일간을 건빵 한봉다리로 지탱할 수는 없으며 인간에는 체력에 한도가 있다. 따라서 수많은 장병들이 飢餓로 희생되기도 하였다.

인접 군단이 돌파되어 결과적으로 우리도 포위되어 많은 生命과 裝備를 잃게 되었고 또한 인접 首都사단에 철수를 통보치 못한데 대하여 지휘관으로서 할 말이 없다. 작전상의 책임을 지고 나는 處罰을 받았다. 이러한 失敗가 韓國軍戰史上에 다시 없기를 비는 바이다.

◇ 제3군단장 劉 載 興소장

(1973.7.26 국방부장관실에서 예 중장)

4월 30일 나의 指揮下에 있던 제7사단이 左측 美 제10군단에 예속이 변경되는 동시에 제9사단이 대신 예속이 되어 군단의 左一線에 전개하여 麟蹄를 목표로 전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軍戰鬪地境線이 決定되어 내려왔는데 左側地境線을 검토해 보니 下南里에서 上南里—고사리재—城內洞—蒼村 南方 3km에 이르는 軍團唯一의 主補給路가 美 제10군단의 管轄에 들어가 있는데 놀랐다. 그러니까 龍浦에서 麟蹄에 이르는 사단전후방지역 道路만이 우리 군단에 속해있고 下半部以下는 美 제10군단에 속하는 劃定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韓 제7사단

의 補給路와도 共用되므로 그런대로 理解를 하였다. 原則的으로 單一補給路를 兩개 군단으로 分割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失敗의 原因이 되었다.

그런데 나는 제9사단을 左一線으로 投入하면서 軍團豫備인 제29연대를 5월 4일 上南里 北方의 大岩山(△1.091)과 五馬峙고개에 배치하여 補給路上의 要害이며 重要地形인 大岩山을 확보하게 되었는데 이는 山岳戰에서 敵은 항상 迂回를 하여 후방을 공격하거나 차단하는 戰術에 대비한 것이다.

그런데 美 제10군단장 Almond소장이 고문관을 통하여 항의를 해 오기를, 『어찌하여 美10군단 지역에 부대를 배치하였는가』라는 문제였다. 그러나 나는 『補給路의 腹部部分인 五馬峙는 사실상에 있어 우리 군단의 가장 重要한 要地이므로 自體에서 경비하는데 이것이 당신 군단에 어떻한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믿지 않는다. 제7사단에서라도 이곳에 병력을 배치하면 우리는 철수할 用意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수차 항의하므로 大岩山의 병력만 철수시키고 제29연대제2대대는 계속 五馬峙를 확보케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美8군에서 五馬峙의 兵力도 철수시키라고 강력히 지시가 있어서 5월 11일에야 철수시키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내가 豫想했던대로 五馬峙가 敵에 의하여 遮斷되어 우리 軍團은 主抵抗線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철수를 강요당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美 제10군단장의 (쓸데없는) 고집과 統制의 결함으로써 함께 무너지는 結果를 초래하고 말았다.

제7사단의 戰線이 무너졌다는 상황보고를 나는 예하 9사단한테서 받았는데도 10군단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상황을 否認하는 바람에 내가 決心을 하는데 時間을 놓치고 말았다. 즉 제9사단장이 예비인 제29연대를 敵이 突破한 側方에 사용하겠다고 해서 이를 承認하였는데 제7사단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다면 나는 1개대대만이라도 五馬峙에 배치하여 예상되는 철수에 대비하였을 것이다. 나는 제7사단이 돌파되었다 하여도 그들 先鋒隊가 五馬峙에 到達하려면 17일 正午 以後라고 판단하였다. 여하간 군단예비대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五馬峙를 敵에게 先占케 한 것은 씻지못할 유감이 아닐수 없다. 군단장은 꼭 예비대를 가져야 한다는 敎訓을 받았다.

나는 17일 午後 2時頃 제3 및 제9사단이 집결하고 있는 縣里에 輕飛行機로 도착하여 현지 상황을 판단한 다음 제9사단장에게 五馬峙를 突破해서 나오고 제3사단장한테는 阻止陣地를 점령하고 四周防禦를 하면서 9사단에 이어 축차적인 지연전으로써 蒼村線까지 철수하라고 명령하고 나는 떠나왔다. 그러나 隷下사단장들이 이를 實踐치 못하였다. 기억이 분명치 않으나 先任인 제3사단장에게 蒼村線까지의 지휘권을 이양한것 같기도 하다.

山岳戰에서는 攻者가 迂回戰을 누구나 企圖하게 된다. 따라서 側方과 後方의 경계가 가장 重要視되기 때문에 어떻게 던지 豫備隊를 꼭 가져 後方 20~30km에 걸쳐 경계대책을 세워야 한다.

§. 戰 訓

(1) 戰鬪地境線의 劃定 : 重要地形地物은 原則的으로 戰鬪地境線으로 分割하지 않고 線上은 某부대에 屬한다는 式으로 한쪽으로 몰아서 주는 것이 軍事上 通例이다. 그런데 下南里—上南里—城內洞—蒼村間의 主要한 主補給路를 美 제10군단 管轄內에 包含토록 함으로써 군단에서는 唯一한 補給線을 獨自的으로 保有하지 못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이곳의 要扼點인 五馬峙가 遮斷됨으로써 군단이 무너지고마는 直接的인 原因

이 되기에 이르렀다.

美제10군단장이 어떠한 意圖下에서 境界線上인 五馬峙에 제29연대의 1개대대를 配置한데 대하여 抗議하였는지 또 그의 抗議가 마침내 美 제8軍을 通하여 이 대대를 撤收하라는 嚴命으로 나타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뒤 철수한 다음에도 美10軍團에서 이에 對處할 수 있는 何等의 措置가 없었다는 것은 戰術上 全혀 理解할 수 없는 駭怪한 處事라고 아니할 수 없다.

군단이 不意의 逢變을 당하게 된 根本的인 責任은 全혀 美10군단과 美8軍이저야 할 것이다.

군단장은 自歎하기를 『五馬峙가 나의 管轄下에 있었다면 始初 배치한 대로 1개대대로써 後方警戒에 對備하였을 것인데 그 뜻과 行動이 美제10군단장에 의하여 좌절된 것을 오늘날까지 씻지 못할 遺恨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였으니 作戰에 있어서 戰鬪地境線의 劃定如何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의 좋은 敎訓이라고 할 것이다.

(2) 連絡提携의 중요성 : 連絡에는 縱的과 橫的의 두가지가 있을 것인데 本 戰鬪에 있어서는 종적인 上下連絡은 비교적 유지되었다고 보나 橫的에 있어서 특히 군단과 군단 相互間에 있어서의 연락은 충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美제10군단은 故意건 過失이건 간에 결과적으로 허위보고로써 자기 군단의 敗戰사실을 隱蔽하고 두절된 통신연락의 복구에는 아랑곳없이 突破口로부터 敵을 끌어들여 그 威力을 五馬峙에 직접 파급케 함으로써 3개사단이 공동으로 보유하는 유일한 補給路를 遮斷케 하는 可恐할 誤謬를 犯하고 말았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책임소재를 云謂하기에 앞서 戰況이 위급할 수록 連絡과 提携는 더욱 긴요하고 이로 말미암아 某 一點의 破綻이 全戰線의 비운을 招來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교훈받을 것이다.

§. 研 究

(1) 군단장의 突破決心에 대하여

隣接군단의 一角에 破綻이 생긴 탓으로 退路가 遮斷된 本戰鬪와 같은 狀況에서 군단장이 斷乎하게 突破를 決心한 것은 戰理上으로 보아 妥當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消極策으로 芳巖山을 占領하고 四周防禦를 피한다면 다음과 같은 不利點이 있기 때문이다.

(가) 새로운 戰線에서 戰勢의 挽回를 策할 수 있는 時間的 餘裕를 期待할 아무런 根據가 없다

(나) 戰線이 어디까지 南下할지 未知數인 此際에 受動態勢로서 2개사단의 被包圍부대에 대한 補給繼續의 方途가 서지 않는다.

(다) 군단장의 手中에는 豫備兵力이나 支援할 수 있는 砲兵 戰車 등이 全無하니 被包圍사단을 持久孤立化함으로써 自滅的 打擊을 줄 수도 있을 것이므로 死中에서 活路를 찾기만 못할 것이다.

위와같은 몇가지 點을 指摘할 수 있는데 군단장의 決心은 妥當하였으나 突破하는 兩사단의 衝擊威力과 끝까지 突破하고야 말겠다는 意志가 薄弱하였으니 어찌 결과만으로써 決心의 適否如何까지 論及할 수 있겠는가? 第1次 世界大戰 初年인 1914년 11월 10일에 獨 제9군(사령관 Von Mackensen 대장)은 LODZ會戰에서 逆包圍를 당하면서도 오히려 包圍圈을 突破하고 포로로 하여금 砲車와 補給品 一切를 가지고 悠悠히 빠져 나왔으니 勇將과 強兵은 彼此 不可分인 것이 마치 水魚之交와 같은 것이다.

(2) 군단 解體에 대하여

建設은 힘들지만 破壞는 손쉬운 것인데 前者의 困難을 避하기 위하여 後者의 姑息을 取한다는 것은 그 庸劣과 그 低能, 참으로 驚愕을 禁

할길 없다. 당시의 군단장은 永川會戰을 快勝으로 이끈 智勇兼備의 將星이요, 당시의 제3사단장은 뒤에 白馬高地 激戰에서 英名을 떨친 將材였는데 美 제10군단과 美 제8군의 不適切한 措置로 말미암아 입은 奇想天外의 災難을 同情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를 奇貨로 하여 韓國軍의 威信에 먹칠을 하고 스스로 泰然自若하였으니 어찌 仰不愧於天이라고 自慰할 수 있겠는가. 하물며 제9사단을 美 제3사단에 作戰上 配屬하고 제3사단장의 責任을 추궁하여 更迭하는 등 韓國군의 士氣昂揚에는 秋毫의 配慮도 없었으니 만일 史倉里 싸움에서 敗하는 바 되었던 제6사단을 이와같이 解體하였더라면 그 뒷날 龍門山의 勝戰을 어찌 얻을 수 있었겠는가. 이 당시 美제8군의 군단 解體措置가 과연 時宜에 알맞은 것이 었는가의 與否는 硏究의 對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地名의 表記에 대하여

本文中의 五馬峙는 陸軍測地部隊가 69年 9月에 발행한 1 : 50,000 軍事地圖에는 「오미재」로 그리고 「한국지명총람(江原道)」(67.12.20 학글학회편)에는 「五味峙」로 表記하고 있는 바 本節에서는 當時의 戰鬪詳報, 作命, 陸軍戰史, 參戰者의 證言대로 「五馬峙」로 記述하였다.

2. 陰陽里—豊岩里地區 戰鬪 (1951년 5월 16일부터 1951년 5월 18일까지)

(一名, 昭陽江 및 九萬里地區 戰鬪)

참조 : 별책부도 제11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제10군단	장	중장 Edward M. Almond	제 8 연대	장	대령 李 賢 進
제 7 사단	장	준장 金 炯 一	제 1 대대	장	소령 裵 炳 演
제 3 연대	장	대령 鄭 震	제 2 대대	장	소령 金 弼 虎
제 1 대대	장	소령 李 鍾 宅	제 3 대대	장	대위 李 大 哲
제 2 대대	장	대위 崔 基 宗	대전차공격대대	장	소령 高 學 龍
제 3 대대	장	소령 李 永 吉	제 7 포병단	장	중령 李 喜 泰
제 5 연대	장	대령 趙 成 華	제 7 야전공병대대	장	소령 金 利 德
제 1 대대	장	소령 羅 薰 日	병력 : 12,471명		
제 2 대대	장	소령 朴 珠 東	장비 : T/E상 완전편제		
제 3 대대	장	소령 趙 在 俊			

敵 軍

中共 제12군	장	曾 紹 山	제79사단	장	蕭 鏡 海
제31사단	장	趙 藍 田	제81사단	장	孫 端 夫
제27군	장	彭 德 淸			

나. 전투 전의 개황

本節은, 4월 末에 縣里線에서 敵의 4월 攻勢를 破碎하고, 5월 初에는 美 제10군단(장, Edward M. Almond 중장)의 右翼部隊로서, 昭陽江南岸(藍田里—陰陽里—玉水洞)으로 勇躍進擊하여, 將次 楊口—華川 要域의 敵을 剿抉코자 하였던 제7사단(장, 金炯一준장)이, 5월 16일 밤에 이른바 5월 攻勢로 昭陽江을 피로 물들인 熾烈한 防守戰을 벌이게 된 것으로 부터, 下珍富里—寒溪線(梨峴—豊岩)

으로 한 걸음 물러서 戰線을 다시 整理하여 反擊의 기틀을 마련하기까지의 전투 經過를 取扱한 것이다.

따라서 제7사단의 이 戰鬪는, 全 戰線을 槪括하는 觀點에서 본다면, 敵의 5월攻勢를 擊碎하는 過程의 一斷面이라 할 것이요, 또한 사단의 立場으로는 東部戰線의 我軍이 모두 그러하였듯이 4월攻勢에 연이은 試練의 한 局面이라 할 것이다.

敵軍의 狀況 : 5월 초에 사단이 昭陽江線으로 進擊하고 있을 무렵, 사단 正面의 敵은 北共 제3군단으로 判斷되었는데, 이들은 3월하순에 下珍富里에서 38°線을 넘어 醜錄을 감추고 만 敵 제2군단과 交代하여 4월 攻勢에 加擔하였으나, 極甚한 打擊을 입고, 그예하의 제1, 제15, 제45사단으로 小排村峴(楊口 東南쪽 7km) 및 馬山(楊口 東南쪽 4km) 일대에 布陣하여 부대를 재편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5월 중순에 들어서면서 사단이 昭陽江 南岸으로 迫頭하자, 敵은 사단의 渡江을 牽制하면서, 그들 後方의 可用兵力과 中西部戰線의 中共軍을 대거 麟蹄—楊口地區에 集結시켰는데, 敵의 이러한 움직임은 곧 東部戰線에 主攻을 둔 大攻勢를 준비하고 있음을 示唆하였다.

즉, 我軍으로서는 重裝備의 機動制限이라는 脆弱點을 지닌 山岳지대를 노리고, 그들이 自負하는 山岳機動力과 物量으로 東部戰線을 돌파하려는 試圖로 새로운 打擊集團을 편성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敵의 攻勢計劃에 대한 구체적인 實行은 5월 10일을 前後하여 表面化되었는데, 東海岸쪽의 龍垈里(雪嶽山 西北쪽 10km)—元通里(麟蹄 東北쪽 6km)間에는 北共이, 그리고 麟蹄—楊口間에는 中共이 蝟集되고 있었던 바, 그 規模는 北共 9개사단, 中共 21개사단으로 推斷되었다.

5월 중순의 全般的인 敵情은 대략 이와 같았거니와, 이때 사단 正面에서는, 內坪里(春川 東北쪽 10km)에서 半場里(小排村峴 南쪽 1km)로 이동한 中共 제12군과 제27군으로 混成된 3개사단 규모의 敵이 5월 15일에, 北共 제3군단의 戰域을 引受하여, 楊口 東쪽 3km에 제27군(장, 彭德淸)의 前線指揮所를 두고, 그 산하 제79, 제81의 兩사단으로 昭陽江 北岸 丘稜線에 戰術展開한 다음, 南岸을 노리고자 하였다.

我軍의 狀況 : 사단은 3월 중순에 下珍富里에서 敵 제2군단(장, 중장 崔 仁)을 38°線 北쪽으로 潰退시키고, 일시 제3군단(장, 劉載興소장)의 예비로서 군단 후방지역의 殘敵을 격멸하다가 蒼村里(下珍富里 西北쪽 24km)로 前進하고 戰線 參加에 對備하던 중, 敵의 4월공세(4월 22일~28일)에 따라 前線으로 奔驅하여 元通—麟蹄地區에서 耀兵케 되었다.

이리하여 사단본부는 4월 22일에 古沙里로 躍進하였으나, 그 이튿날(23일) 戰勢의 全般的인 退潮로 말미암아 사단 또한 逐次退陣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므로, 縣里—自隱里線으로 轉進케 되었다.

이에 4월 24일, 사단본부는 다시 上南里(縣里 西南쪽 12km)로 이동하고, 그 主力은 縣里부근에서 阻止線을 形成하였다.

4월 25일에는 제3연대(장, 鄭震대령)를 依命 군단 左側부대인 美 제10군단의 제5사단(장, 閔機植준장)에 配屬하고 대신 제9사단 제28연대(장, 李昌禎대령)를 配屬받아 縣里線의 防禦陣地를 계속 확보하였는데, 4월 28 부터 反擊을 斷行하게 되었다.

사단은 이날, 坊內里(上南里 東南쪽 5km)로 轉進하는 한편, 主力을 嚴達洞(上南里 西南쪽 1km)에

集結하여 戰列을 戰備케 하였는바, 4월 30일에 陸本作戰指示(電文 제1232호)에 따라 5월 1일부로 제3군단에서 美 제10군단으로 配屬이 變更되어, 제10군단장 Almond중장의 작전지휘를 받게 되었다.

이리하여 5월 1일에 제5사단의 戰線을 인수하여 군단 右翼을 담당케 된 사단은 그 본부를 계속 坊內里에 두고, 上南里부근에 있는 主力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였는데, 이날 제5연대장 金仁哲대령이 陸本으로 轉出하고, 그 후임으로 趙成華대령이 赴任하였다.

5월 4일에 군단으로부터 『Missouri線으로 進擊하라』는 命令이 下達되어 사단은 6일을 期하여, 제5, 제8연대로 하여금 공격개시선인 No Name線(上南里 西北쪽 7km : △975—△930—△952)에서 栢子洞—所峙里—陰陽里를 連하는 軸線을 따라 昭陽江畔(藍田里—上水內里)으로 併進케 하였다.

5월 9일에, 사단본부를 驛內里(寒溪 東北쪽 4km)로 移轉한 다음 本格的인 作戰指導아래, 5월11일에 兩個 연대가 昭陽江 南岸까지 進擊하였는데, 이때부터 中東部戰線에는 敵의 大攻勢 徵候가 보이기 시작하였으므로, 5월 13일에 사단은 昭陽江 南岸의 旣設陣地를 改築強化하여 防禦力을 補強하였다

이때 사단의 左右에는 제5사단 제27연대(장, 俞義濬대령)와 제9사단 제28연대(장, 李昌禎 대령)가 各各 隣接하였으며, 사단의 각급 指揮所의 位置는 다음과 같았다.

사단본부—驛內里

제 3 연대—亭子里

제 5 연대—所峙里

제 8 연대—新豊里

사단포병단—新豊里

공병대대 및 대전차공격대대—驛內里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5월 4일, 사단이 鷹峰山(縣里 西쪽 7km)—△952(鷹峰山 西南쪽 8km)間의 No Name線上에서 본격적인 北進態勢를 갖추게 되자, 군단으로부터 『右隣接 제3군단과의 協調아래 Missouri 線으로 進擊하라』는 작전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이 作命上의 Missouri 線은 東海岸의 大浦里(東草 南쪽 3km)—△1,037(龍垈里 東쪽 3km)—△849(麟蹄 西北쪽 5km)—△915(△849 西南쪽 3km)—新月里(陰陽里 西北쪽 3km)—加里山(自隱里 西北쪽 4km)을 연하는 線으로서, △915를 基點으로 하여 그 東쪽의 제1, 제3군단 正面은 緩曲線을 이루고 있으나, 그 西쪽 美 제10군단 正面은 東北에서 西南으로의 急傾斜가 거의 絶壁線을 形成하고 있었다.

때문에 美 제10군단은 제1, 제3군단의 左側背를 防護하는 位置에서, 西北으로 戰域을 擴大하는 결과가 된것인데, 이 作命은 西部戰線에 注力하였던 敵의 4월攻勢가 빚어 낸 前線의 不均衡을 이용하여, 군단으로 하여금 麟蹄—洪川間 戰略要衝의 確保와 함께 敵의 集結地로 예상되는 華川을 脅威케 함으로써, 中·西部戰線의 我軍 進擊을 容易케 하려는 제8군의 全面進擊計劃의 一環으로 發想된 것이다.

사단장 金炯一 준장은, 이러한 군단의 任務分析과 함께 사단의 當面 目標를 銳意 檢討한 결과, 사단 正面의 Missouri 線(△667—新月里—上水內里)이 麟蹄—楊口를 가로 질러 이를 兩斷하면서 敵의 東部地區 前線基地인 楊口의 턱밑으로 성큼 닥아서서, 그 東南쪽 麟蹄와 下珍富里 및 洪川間의 要線을 絶斷케 되는 것이므로, 그 Missouri 線 확보과정에 있어서 敵의 頑強한 抵抗을 必然的으로 예상케 되었다.

그리고 또 Missouri線 가까이 굽이 진 昭陽江이 마치 障壁과 같이 가로 놓여 있어, 敵前渡河라는 二重부담도 勘考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사단의 左側端에 있는 制限點인 上水內里는 昭陽江 南岸이자 Missouri線上이었으므로 그 南岸을 확보하는 것이 곧 Missouri線을 占領하는 것이었으나, 右一線은 昭陽江을 건너 3km以上이나 西北쪽으로 躍進하여야만 되었다.

이에, 사단장은 제5연대(장, 趙成華대령)를 右一線으로, 제8연대(장, 李賢進대령)를 左一線으로 하여 逐次로 前進케 하되, 제8연대로 하여금 먼저 昭陽江線의 사단左肩을 확보토록 한 다음, 이의 掩護아래 제5연대가 단숨에 昭陽江을 넘어 Missouri線을 占領케 하는 작전계획을 樹立하여, 5월 5일 23.00에 坊內里의 사단본부에서 作命 제109호로 下達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사단은 1951.5.7. 08.00를 期하여 Missouri線으로 進擊하려 한다.

② 제5연대는 右一線, 제8연대는 左一線이 되어 相互 緊密한 協調아래, Missouri線으로 進擊하되, 目標線에 進出하면 堅固한 防禦陣地를 構築한 다음, 強力한 兵力으로 하여금 遠距離에 걸친 威力搜索으로 敵情을 看破토록 하라.

③ 제3연대는 亭子里에서 우선 豫備隊로 待命하라.

④ 제7포병단은 제5, 제8연대를 직접지원하라.

⑤ 제7야전공병대대는 古石坪—瓦野里間의 사단 後方 主補給路를 補修하는 동시에, 사단 主力이 Missouri線에 進出하는 즉시로 陣前에 堅固한 障碍物을 設置하라.』

이러한 사단의 進擊計劃아래, 곧 제5, 제8연대는 각각 No Name線에서 戰列을 갖추어

5월 7일부터 진격하였는바, 5월 11일 까지 一躍又一躍으로 昭陽江 南岸을 確保하였다.

이렇게 하여, 彼我가 昭陽江을 사이에 두고 對峙狀態를 벌이게 되자, 對岸의 敵警戒線의 強度가 눈에 보이게 急增되어는데, 이때 敵의 제2선에서는 15개 사단 규모의 中共과 北共이 제3군단(장, 劉載興소장)과 美 제10군단(장, Edward M. Almond 중장) 正面인 麟蹄一楊口에 充滿된 것으로 觀測되었다.

이에, 『敵이 5월 중순에 東部戰線의 山嶽地帶로 主攻을 指向하는 大攻勢를 준비하고 있다』고 判斷한 제8군이, 이날(5월 11일)밤에 『全 戰線의 我軍은 攻勢를 중지하고 防禦態勢로 轉換하라(陸本作命 제267호 참조)』는 命令을 下達함으로써, 戰局은 새로운 樣相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리하여 사단은 『現 前線에 防禦陣地를 強化하여, 敵의 攻勢를 陣前에서 擊退할 萬全의 준비를 갖추라』는 군단의 命令에 따라, 5월 13일부터 前哨線에 鐵條網을 架設하고 地雷를 增設하는 한편 江 南쪽 丘稜上의 主陣地를 補強하였다.

이때, 金炯一사단장은 警戒陣地와 主陣地間에 縱深이 없다는 河川陣地의 硬直性을 勘案하여, 主陣地 前面의 河床에 強力한 彈幕을 構成토록 指導하였다.

즉, 제7포병단(105mm 曲射砲 16門)으로 하여금 新豊里에 陣地를 占領케 하여, 제5, 제8의 兩연대의 正面을 火力으로 集中토록 하고, 特히 河床條件이나 水深등으로 미루어보아, 敵의 主渡河地點으로 예상되는 제5연대 前面의 彈幕을 補強하기 위하여 제103重迫擊砲중대(4.2″迫擊砲 12門)를 道水岩(陰陽里 東南쪽 2.5km)으로 推進시켜 同연대를 支援케 하였다.

(2) 작전실시

5월 16일 : 전날, 사단 正面의 檜谷(冠岱里 西北쪽 4.5km)과 半場里(檜谷 西北쪽 3.5 km) 등지에서, 離合集散에 분주하였던 敵의 動態로 미루어 보아, 攻勢가 시간을 다투어 臨迫하고 있음을 直感한 사단장 金炯一준장은, 對岸으로 파견하였던 搜索隊를 收容시키고 이날 아침에 다시 한번 火網구성 狀況과 步砲통신網을 再點檢하는 등, 臨戰態勢를 가다듬었다.

낮 동안 사단 前面 12km(直線距離 8km)의 昭陽江에는, 안개가 짙었으며 진눈개비와 凉雨가 그 雲霧를 더욱 짙게하고 있었는데, 昭陽江畔을 뒤흔드는 砲擊이 滔滔한 碧水에 殺氣의 波紋을 일게 하였다.

午後가 되자, 敵의 偵察要員들이 對岸에 머리를 내 밀기 시작하더니, 16.00에 江건너

△490(冠垈里 뒷산)에서 信號彈과 동시에 敵의 攻擊準備射擊이 集中되었다.

이에 사단砲가 即刻對應하여 熾烈한 砲擊戰이 展開되었는데, 이렇게 하여 昭陽江 一帶에 때아닌 狂風이 일기 시작 하였다.

敵砲는, 사단 前線兵力의 機動路이자 主補給路인 麟蹄—洪川道上의 陰陽里—新豊里와 楊口—下珍富里間의 陰陽里—所峙里에 第一擊을 加한 다음, 제8연대(장, 李賢進대령)의 CP와 제7포병단의 放列陣地인 新豊里일대, 그리고 제8연대 제2대대(장, 金弼虎소령)본부가 있는 橋洞(新豊里 東北 1km)일대에 集中打를 퍼부었다.

敵砲의 이러한 企圖는 사단의 補給路를 먼저 寸斷함으로써 通信網을 杜絶케 하여, 指揮및 支援體制를 마비토록 하는 한편, 사단 前面의 砲火를 制壓하려는데 그 主眼을 두고 있는듯 하였는데 그 火力은 前例없이 熾盛한 것으로서, 2시간에 걸친 各樣砲火의 展示相을 보여주었다.

이와 맞선 사단砲의 成果與否는 확인할바 없었으나 特히 對砲兵戰에 置重한 듯한 敵彈의 命中率은 輕視할수 없어서 砲隊의 損失이 漸次로 累增되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19.00에 포병단장 李喜泰중령은 砲兵陣地가 이미 標定圈內에 捕捉된 것으로 推斷한 결과 곧 砲陣地를 左側에 隣接한 제5사단(장, 閔機植준장) 지역인 於論里(新豊里 南쪽 3.5km) 南쪽 1km로 옮기기에 이르렀는데, 이때부터 前後方의 通信杜絶로 말미암아 사단장이 戰況을 把握하는 것 조차도 如意치 못할 정도로 事態는 惡化 一路를 보이게 되었다.

1. 제5연대(장, 趙成華대령)는 이날, 제3대대(장, 趙在俊소령)를 右側인 藍田里—靑邱洞間의 △415上에서, 제2대대(장, 朴珠東소령)를 左側인 靑邱洞—陰陽里間 盆地의 要地에서 각각 그 防禦陣地를 強化케 하고, 제1대대(장, 羅鎭日소령)는 △863(亭子里 西北 3km)의 豫備陣地에서 前線의 推移에 即應할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17.00부터 계속된 敵의 集中砲擊으로 말미암아 제7포병단(장, 李喜泰중령)이 19.00에 新豊里에서 於論里 南쪽으로 이동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放列陣地로 부터 13km 이상이나 離隔케 된 연대 右側前面에는 彈着이 미치지못하게 되었고, 따라서 연대 全前線에 대한 砲兵支援은 그 威力을 發揮할수 없게 되었다.

敵은 이를 奇貨로 砲門을 연대 後方에서 제1선으로 指向함으로써 警戒陣地의 鐵條網破壞와 地雷地帶의 誘發을 目途로 한 듯, 연대의 陣前을 掃射하여 沿岸을 無力化 한 다음, 드디어 19.30에 日暮를 틈 타고 직접 渡河攻擊으로 移行하였다.

이에 연대장 趙成華대령은 예비대인 제1대대(장, 羅灘日소령)를 △863로부터 그 2km를 西北進케 하여, △873—△719線에 재 배치케 함으로써, 前線 參加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하는 同時에, 道水岩의 제103重迫擊砲중대로 하여금 연대 左側 제3대대(장, 趙在俊소령)前面의 火網間隙을 補塡케 하였다.

이때, 연대 正面을 가로 질러 흐르는 昭陽江의 水幅은 100~200m이었으며, 水深은 平均 1m 內外로서, 대체적으로 徒涉이 可能하였는데, 敵의 第一波는 冠垈里에서 연대 最右尖端인 藍田里로 指向하는듯 하였다.

이를 기다리던 연대는 一時에 迫擊砲와 自動火器의 세례를 퍼부어 일거에 그 敵을 渡江半途에서 擊破하고, 渡河企圖를 粉碎하였으나, 잠시 후에 江을 가득 메웠던 敵屍가 떠내려가자, 다시금 그와 같은 徒涉이 연대 全 前線에 걸쳐 數梯波로 反復되었는데, 마치 夜光을 보고 뛰어드는 蛾群과도 같아서 시간이 흐를수록 그 氣勢가 끝이지 않고, 종내에는 藍田里와 靑邱洞일대를 殺戮場으로 化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彼我의 攻守血戰이 昭陽江水를 피로 물들이기를 2시간, 敵의 兵力損失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으나, 마침내 연대의 戰力도 그 限界點에 이르게 되었으니, 重火器를 비롯하여 散兵線의 彈藥마저 補給中絶을 보게되었다.

敵은 兵力과 火力의 優位에 힘입어 執拗하게 大量消耗戰을 서슴치 않던 바, 처음의 數梯波는 犧牲祭物로서 示威의 效果를 노리는 동시에 可能하면 연대의 火力을 壓伏시킨 다음, 重武裝한 騎馬機動隊로 하여금 연대의 警戒線을 突破하여 後方을 攪亂토록 꾀하면서 본격적인 物量攻擊으로 연대 全正面을 一蹴코자 하였다.

21.30에 이르러 제1선의 火網이 거의 疎散하게 된 연대는 陣內로 육박 하는 敵과 白兵戰까지 벌인 끝에, 더 이상의 支撐이 어렵게 되어, 제2, 제3대대를 각각 그 南쪽 1km인 線 (제2대대를 △394上, 제3대대를 △576上)에서 阻止陣地를 急編케 하였다.

연대의 이러한 難境은, 그때까지 비교적 接敵이 가벼웠던 右隣接 제9사단 제28연대(장, 李昌禎대령)를 經由하여, 亭子里의 제3연대(장, 鄭 震대령)에 中繼되는 過程을 거쳐서 22.00에야 사단장에게 보고되었는데, 23.00에 다음과 같은 要旨의 사단 作戰指示 제43호가 간신히 疎通된 無線網으로 下達되었다.

『① 제5연대는 現 防禦陣地를 固守하라.

② 제8연대는 楡木里(△682 東南쪽 2.5km)—△557(上水內里 東南쪽 2.5km)線으로 逐

次 撤收하여, 제5연대와의 戰線의 均衡을 유지하고, 그 線上에서 敵을 擊退하라.

③ 제3연대는 24.00까지 亭子里에서 所峙里로 前進하여 제5, 제8연대를 支援할 機動態勢를 갖추라.』

그러나 이때, 道水岩에서 연대에 대한 火力支援으로 奮迅하던 제103重迫擊砲중대마저 敵의 騎馬機動隊의 攪亂과 砲擊으로 말미암아 後退케 됨으로써, 연대는 新編陣地의 確保마저 危殆롭게 되었는데, 그위에 通信의 杜絶로 부대장악에 腐心하던 所峙里所在의 연대본부가, 道水岩에서 △663으로 迂回侵襲한 敵의 일부 機動兵力에 의하여 攪亂을 당하는 바 되어, 이로부터 연대 前線이 混亂의 渦中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이리하여 연대본부는 23.40에 亭子里로 轉進하였으며, 제1대대(장, 羅熹日소령)는 19.00에 연대장 命에 따라 △863의 陣地를 移動하여 21.00에 △873—△719線의 예비진지를 確保하였으나, 戰況이 時時刻刻으로 惡化됨으로써 前線增強을 斷念하고 23.20부터 逐次로 撤收한 제3대대와 함께 亭子里쪽으로 後退하게 되었다.

또한 △394를 占有中인 제2대대(장, 朴珠東소령)도 사단 左一線인 제8연대와의 接際部로 殺到한 敵에게 陰陽里—道水岩道가 開放됨에 따라 退路의 遮斷을 느끼게되어 所峙里쪽으로 移動하였으며, 제3대대(장, 趙在俊소령)도 또한 △573에서 사단 右隣接 제9사단과의 間隙으로 侵襲한 敵의 側背攻擊을 받아 예비진지인 △873으로 撤收하였다가 同地의 제1대대와 함께 亭子里쪽으로 向하게 되었다.

2. 이날 제8연대(장, 李賢進대령)는 연대 前線 全面을 瞰制할 수 있는 △632 東北 斜面의 제3대대(장, 李大哲대위)와 西北 斜面의 제2대대(장, 金弼虎소령)로 하여금 決戰態勢를 強化케 하고, 연대본부와 함께 新豊里에 控置된 제1대대(장, 裵炳演소령)는 戰況의 推移에 따라 곧 策應토록 하였는데, 16.00부터 시작된 敵의 砲擊으로 사단의 通信軸線인 麟蹄—洪川道路(陰陽里—新豊里)가 三分五裂하는 바 되었다.

특히 橋洞—新豊里 사이는 砲火의 集中打로 말미암아, 爆聲이 震天하고 焰煙이 滿野하였는데, 이 때문에 연대는 通信網을 喪失하게 되고, 급기야는 砲陣地를 於論里쪽으로 轉進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9.30이 되자, 江北의 蓮花峰(上水內里 東北 3km)으로부터 밀어닥친 敵의 大群에 휩싸이게 되었으니, 그들의 主力은 流線을 막을 정도인 그들의 積屍를 踏破하면서 上水內里를 目標로 殺到한 것이다.

이에 연대장 李賢進대령은 隣接部隊와의 協調機能과 指揮體制가 흩어진 難境에도 屈하

지 않고 예비대인 제1대대로 하여금 敵의 主力이 指向한 연대 左側을 支援케 하여, 더욱 強靭한 堅守를 꾀하였으나, 21.30에 이르러 右隣接 제5연대 제2대대가 敵의 強襲으로 한 걸음 물러서게 됨에 따라, 연대의 右側腰部가 露出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연대 右側方의 敵이 이를 突破口로 삼아 九萬里(陰陽里 西北쪽 1.7km)에서 新豊里로 直衝할 氣勢를 보이게 되었다.

한편, 이때 연대 左正面 역시 제5사단 제27연대와의 制限點에 연락차 파견하였던 제2대대(장, 金弼虎소령)의 1개 소대가 戰車6臺를 앞세워 上水內里로 渡河한 2개 대대 규모인 敵의 一擊으로 또 左接境線에도 間隙이 생기게 되었으니, 이로써 연대는 兩側方과 正面에서 三面強壓을 받는 동시에 敵의 일부 侵透兵力에 의한 後方攪亂까지 받게 되었다.

이렇듯 四面楚歌의 形勢속에서도, 연대는 제7포병단의 長距離支援아래, 全力을 기우려 主陣地를 固守 중, 23.00에 右一線의 제5연대와 戰線의 均衡을 圖謀하라는 사단 作戰指示(제42호)에 따라, 楡木里一△557線으로 逐次撤收케 되었다.

3. 한편 亭子里에 사단 예비대로 控置되어 있던 제3연대(장, 鄭 震대령)도, 이날 저녁에 휘몰아치는 敵의 奇襲으로 前線의 各陣地가 鐵火와 爆焰속에 잠기게 되자, 곧 戰線投入에 對備하여 銃劍을 뽑아 들었다.

22.00에 사단 右一線인 제5연대(장, 趙成華대령)의 一次 後退가 不可避하다는 報告를 接한 사단장 金炯一준장이 예비대의 適時運用으로 前線의 混亂을 挽回코자, 23.00에 작전지시 제42호를 내림으로써, 제3연대 全力을 所峙里로 急進할 계획아래 곧 機動梯隊를 편성 토록하였다.

그러나, 연대 主力이 所峙里로 前進移動을 完了하기 前인 23.40에 所峙里의 제5연대본부가 이미 敵의 攪亂을 당하는 事態가 突發하여 建制를 유지할 수 없는 混迷에 陷入함으로써, 제3연대는 所峙里線까지의 進出을 斷念하고, 사단장의 修正지시에 따라 제5연대의 撤收兵力을 收容하면서 새로운 抵抗線의 確保를 摸索케 되었다.

5월 17일 : 전날 밤부터 이날 未明에 이르기까지, 彼我의 분간이 어려운 漆黑속에 混戰으로 연속된 遲延戰끝에 날이 밝자, 雙方間의 血鬪는 南쪽으로 移行하면서 一擊又一擊으로 그 熾烈度를 倍加하기만 하였다.

사단장 金炯一준장은, 前述한 바와 같이 전날 밤 23.00에 제3연대(장, 鄭 震대령)로써 所峙里線에서 戰線을 再整理키로 하였으나, 제5연대(장, 趙成華대령)의 撤退로 말미암아 所峙里線의 確保를 斷念케 되었던 바, 이에 全部隊를 No Name線으로 逐次轉進시켜 이 線에

서 全力으로 醜敵을 擊破키로 決心하고 01.10에 要旨 다음과 같은 作戰指示(제43호)를 嚴達하였다.

『① 제3연대는 No Name線上의 全 戰鬪地域을 담당 確保하면서 제8연대의 增派를 掩護하라.

② 제 5연대는 逐次遲延戰을 敢行하면서 直洞(亭子里 東南쪽 6km)에서 部隊를 再編成하라.

③ 제8연대는 모든 方策을 併用하여 遲延戰을 斷行하면서 No Nome線을 確保하라.

④ 제7야전공병대대는 坊內里로 移動하는 동시에 일부병력으로 No Nome線上의 地雷地帶를 掩護함과 아울러 機動兵力의 安全을 保障하라.

⑤ 제7포병단은 主陣地를 古石坪으로 移動시키는 즉시로 제3, 제8연대를 直接支援하라.

⑥ 대전차공격대대는 坊內里를 確保하면서 사단지휘소 正面의 敵을 抑留하라.

⑦ 사단 지휘소는 07.00까지 坊內里로 移動한다.』

이리하여, 사단은 이날 아침에 사단 CP를 坊內里로 移轉하여 撤收兵力을 收拾하는 하편, 공병대를 戰鬪部隊로 轉用하여 前哨線의 진지를 점령케하는 등, 非常措置로써 遲延戰과 抑留로 時間餘裕를 얻도록 指導하였다.

1. 제3연대(장, 鄭 震대령)는 이날 새벽 01.10에, 다시 『No Name線上의 陣地를 확보하라』는 사단장의 재 지시(作戰指示 제43호)를 받고, No Name線으로 轉進하여, 04.00에 새로운 阻止線을 占領하였는데, 이때부터 사단防守의 主力部隊가 되었다.

그러나 연대가 No Name線上에서 決戰態勢를 채 갖추기 전에, 제5연대 後尾를 追躡한 敵을 邀擊하게 되었는 바, 彼我의 識別도 困難하였거니와, 全般的인 困境속에서 能히 사단 全正面을 감당하기에는 力不及을 免치못하였다.

따라서 연대의 敢鬪만으로는 戰力의 隔差를 挽回할 수 없어, 연대는 전날 저녁에 一線兩연대가 이미 치렀던 惡戰苦鬪를 이날 未明에 다시 再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06.00가 되자, 제 8연대(장, 李賢進대령)는 그 撤收의 眞相조차 파악되지 못하여 同연대의 No Name線 來着에 큰 期待를 걸수 없는 반면, 敵勢는 一路加增하여 연대의 阻止線을 左右로 迂回하게 되었다. 즉 東쪽에서는 △975부근에서 △1091(△975 東南쪽 1.5km)로, 西쪽에는 △952에서 △1191(△952 東南쪽 3km)로 그 銳鋒으로써 兩翼包圍를 企圖하려는 것이었다.

敵의 이러한 跳梁은, 사단을 左右 挾擊할 수도 있을 것이니, 그 한편은 孟峴峯(△1214:

坊內里 東北쪽 5km)을 거쳐 蒼村—下珍富里로, 그리고 다른 한편은 瓦野里(寒溪 東쪽 15km)—△1009(瓦野里 東南쪽 10km)—豊岩里—横城으로 侵襲할 수 있는 것으로 推斷되었다.

이리하여, 右隣接 제3군단(장, 劉載興소장)의 唯一한 機動路上에 있는 縣里가 遮斷되려는 威脅을 받는 가운데, 제8연대는 이미 敵對能力을 상실한 채로 分散되어 各個撤收中에 있는 것으로 判斷한 사단장 金炯一준장은, 제3군단과의 接境線上의 要地인 上南里부근에서 最大限의 遲延效果를 얻기 위하여, 全力을 集中키로 決心하고, 곧 작전지시 제44호를 嚴達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제3연대는 縣里—寒溪間의 嚴達洞—△675—砧橋(방아다리)에서 陣地를 占領하여, 五馬峙(上南里 東北쪽 1.5km)에 侵襲한 敵을 擊滅하고 我軍의 撤收路를 啓開하라

② 제5연대는 坊內里에 集結하는 즉시로 부대를 再編하라.

③ 제7야전공병대대는 09.00까지 縣里—寒溪間의 방아다리—美達洞 陣地를 確保하고 敵의 南下를 阻止하라.

④ 제7포병단은 10.00까지 坊內里로 이동하여 사단 正面을 火力 支援하라.』

이에, 연대장 鄭 震대령은 No Name線으로 부터 轉進하여, 15.00에 嚴達洞 西쪽 △675에 據點式 防禦陣地를 急編하는 한편, 제2대대(장, 崔基宗 대위)로 하여금, 五馬峙부근에서 敵의 先遣部隊가 차단한 道路를 啓開하기 위하여, 五馬峙를 공격키로 하였다.

그러나 이때, No Name線의 陣地를 撤收한 제3대대(장, 李永吉소령)는 金富里(亭子里 南쪽 4.5km)에서 敵의 包圍圈內에 들어 敢鬪 3시간 만에 포위망의 一角을 돌파하였는가 하면, 五馬峙를 공격하던 제2대대는 16.00에 美山里(五馬峙 東南쪽 2.5km)로 迂回한 1개대대 규모의 敵으로부터 側背攻擊을 받아, 不得已 五馬峙에 대한 攻勢를 中斷하고 △675上의 연대주력과 함께 嚴達洞—砧橋間의 阻止線을 占領하는 동시에 이를 強化하였다.

연대가 終日 이렇듯 東奔西走하였을 뿐만아니라, 제7포병단이 전날밤부터 이날 낮에 걸쳐 保有彈 3,100餘發을 모두 射耗하였음에도 不拘하고 戰勢는 계속 好轉의 兆를 보지못하였으며, 이제 上南里의 一線마저 끝까지 堅守할 目途가 서지 않게 되었던 바, 이때 사단장이 命令하되 『연대는 20.00까지 坊內里—梨峴(坊內里 南쪽 8.5km)間의 道路 右側인 新興洞——松亭에 陣地를 固守하고 驕醜의 南侵을 制扼하라. 사단 CP는 20.00까지 蒼村里로 移動한다』하였다.

이리하여, 이날 저녁에 연대는 徹夜의 強行軍과 接戰의 互用으로 梨峴을 向하여 戰線을

移動하게 되었다.

2. 한편 제5연대(장, 趙成華대령)는, 전날 子正에 △873의 예비진지에 前後로 集結케 된 연대主力을 所峙里의 연대본부와 함께 다시 亭子里로 轉進케 한 바 있거니와, 이날 새벽 01.10에 目的地까지 到達하자, 그 北쪽 戰線上에는 이미 敵이 侵透하여 피리와 꽹과리 그리고 喊聲과 銃砲聲의 合奏로써 攪亂行動을 展開하는 것이었으니 臟腑를 가진 壯夫라면 어찌 忿痛치 않았으랴.

이에 主力將兵들은 切齒扼腕하면서 縣里 西南쪽 4km인 龍浦里쪽으로 다시 後退하고, 연대본부는 이때 下達된 사단작전지시 제43호에 따라, 直洞(金富里 東南쪽 3km)으로 向하다가, 04.30에 栢子洞(直洞 南쪽 1km)에 落伍者收容所를 設置하여, 各個別로 分散南下하는 兵力을 수습하였다.

05.10에 이미 收容된 일부병력으로써 同地에서 防禦陣地를 急編코자 하였으나, 醜敵은 또다시 栢子洞 西쪽 △812로 殺到하였으므로, 다시 下達된 사단작전지시 제44호에 따라 06.00에 栢子洞을 떠나 上南里一嚴達洞을 경유하여 사단본부가 位置한 坊內里로 撤收하여 연대 兵力을 再集結토록 하였다.

이와같이 하여, 연대가 사단장의 指示에 따라 兵力收拾에 奔忙케 된 이날 낮에 이르러 제3연대(장, 鄭 震대령)와 공병대대(장, 金利德소령)의 獨力으로서는 上南里의 阻止線이 支撐하기 어렵게 됨으로써, 16.00에 다시 蒼村里線으로 逐次로 撤收하라는 要旨 다음과 같은 사단 命令을 받게 되었다.

『연대는 20.00까지 坊內里—梨峴洞道 左側에 있는 加眞浦里—轎洞(가마소)線을 확보하여, 右側의 제3연대와 協調아래 敵의 南進을 擊退하라.』

이리하여 연대는 坊內里에서 수습한 병력 2개중대와 공병대대를 梨峴쪽으로 轉進시켜, 18.30에 右翼 新興洞(梨峴 東北쪽 2.5km)—松亭(新興洞 西南쪽 2km)間의 제3연대와 連繫하여 加眞浦里(梨峴 西南쪽 2.5km)—轎洞(加眞浦里 西쪽 1.5km)에 防禦陣地를 占領하였다.

3. 제8연대(장, 李賢進대령)는 전날 밤에, 사단작전지시 제42호에 따라, 楡木里—△557線으로 後退하던 중, 右一線인 제5연대(장, 趙成華대령)의 後方이 露出되어, 敵으로부터 腹背挾擊의 威脅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를 勘案한 사단장이 다시 작전지시 제43호로 No Name線까지 전면 撤收케 하여 연대 全兵力이 No Name線으로 轉進케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사단작전지시 제43호가 下達될 무렵인 전날 밤 23.00에는 사단과 연대간에

通信이 杜絶된 까닭으로, 사단 作戰將校가 직접 이를 傳令케 된 것인바, 그때는 이미 左隣接인 제5사단과의 接境線과 右側 제5연대와의 間隙으로 侵襲한 敵에 의하여 退路를 閉塞당한 다음이었다.

때문에 연대는 目標線(No Name線)까지 13km를, 夜暗을 타서 突破키로 된 것인데, 그때까지 前線陣地의 確保에만 注力하였던 까닭으로 撤收兵力을 掩護할 예비부대도 없었거니와, 山間의 險路를 따라 機動하는 터인지라 部隊의 節度있는 行動統一을 期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累次에 걸친 敵과의 不期 激突로 말미암아, 부대가 各個分散을 免치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연대는 결국 사단장이 指定한 No Name線으로의 整齊있는 機動을 할수 없었고 나아가서 사단작전지시 제43호에 따른 연대의 No Name線 防禦計劃도 그 實效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던 것은 理所當然인 結果였다.

이리하여 연대 主力은 이날 새벽에 제5사단 지역으로 各個躍進케 되고, 연대본부는 06.30에 坊內里로 集結한 사단본부를 後衛하면서 且戰且退하였다.

5월 18일 : 전날 저녁에 제3, 제5연대로 하여금 新興洞一轎洞陣地를 확보케 하여, 敵의 南侵에 痛擊을 加하고자 하였던 사단은 이날 02.00에 그 兵力配備를 완료하였는데, 이때 군단으로부터 다시 梨峴 西南쪽 12km인 豊岩里로 轉進하라는 命令을 받았다.

그런데 이轉進命令은, 전날 밤 子正에 美 제8군으로부터 『제10군단은 韓國軍(제1, 제3군단)과의 協調아래 現 戰線과 Waco線 사이의 敵을 剔抉하면서 Waco線으로 撤收하라. (陸本作命 제268호 참조』는 作戰命令을 受領함으로써, 東部戰線은 全面的으로 東海岸 南涯里—△1,422(五臺山 東北쪽 5km)—△1,009(豊岩里 東北쪽 5km)를 沿하는 Waco線으로 南下하게 되었는데, 이에따라 군단장 Almond중장이 군단 戰力의 漸減狀態를 勘案한 나머지 全面防禦를 止揚하고 要地要部를 集中防禦코자 취하여진 措置였다.

즉, 敵의 侵攻은 그 主力이, 군단지휘소가 위치한 洪川과 橫城으로 指向하였으므로, 사단으로 하여금 左隣接 제5사단과 함께 이 正面의 防禦에 注力케 한 것이었다. 이때, 右隣接 제3군단(장, 劉載興소장)과의 間隙은, 사단 右接境線上의 五馬峙에서 杆城一洪川間의 單一機動路가 차단됨으로써, 重裝備의 機動路를 잃게된 同군단의 戰力喪失로 말미암아, 거의 空白狀態가 되었던 바, 이 間隙의 無戰力化를 補強키 위하여 제8군 예비로 利川一京安里에 主力을 두고 있던 美 제3사단(장, Robert H. Soule소장)이, 이날 平昌 北쪽 芳林里로 推進되고 있었다.

이리하여 사단장 金炯一준장은 05.20에 제3, 제5연대를 新興里—輸洞線에서 豊岩里로 轉進케 하고, 07.00에 蒼村里의 사단 CP를 東沙里로 移轉하였다가, 다시 23.00에 豊岩里 南쪽 15km인 柳洞里에 開設하였다.

한편 사단장의 命令에 따라, 午前에 豊岩里로 移動한 사단 主力은, 互野里에서 △1009를 거쳐 峨眉山(△961 : 豊岩里 東北쪽 4km) 일대에 까지 侵透한 敵이 豊岩里—柳洞里 道를 따라 橫城으로 南下 直衝할 氣勢를 보이므로, 이 豊岩里線을 拒止하게 되었다.

제3연대(장, 鄭 震대령)는 豊岩里에서 일단 戰列을 再整備하여 14.50에 新屯里(豊岩里 南쪽 2km)와 甘杜里일대의 高地를 占領하여 豊岩里—橫城道의 拒守陣地를 새로이 占領하였으며, 한편 제5연대(장, 趙成華대령)는 10.30에, 鳥歌洞(豊岩里 東南쪽 1.5km)에 연대 收容陣地를 設置하여, 收容된 4개 소대규모의 병력으로 겨우 戰力을 再補強한 다음, 사단으로 부터 대전차공격대대(장, 高學龍소령)를 配屬받아, 공병대대(장, 金利德소령)와 協同下에 제3연대의 右側 瞰制高地인 △581(新屯里 東쪽 2km)를 確保하여, 제3연대의 側方을 掩護하면서, 前面의 敵을 勇躍 擊退하였다.

또 한편, 제8연대(장, 李賢進대령)는 사단 CP와 함께 蒼村里에서 柳洞里로 移動하여, 同地에서 연대복귀병력을 收容하는 즉시로 부대를 再編하였다.

이리하여 이날 밤, 豊岩里 南쪽을 감고 도는 洪川江지류인, 乃村川을 사이에 두고, 또 한번 對決陣容을 強化한 사단은, 23.00에 橫城에서 急遽 北上한 美 제3사단의 先遣部隊인 제15연대(장, Dennis M. Moore대령) 砲兵의 長距離 支援을 받아, 2개연대 규모의 敵의 攻擊을 네차례나 물리치고, 新屯里線에서 橫城要衝을 끝까지 扼守하는데 奏效하였다.

이로써, 사단은 16일 밤에 敵의 攻勢가 시작된지 이틀만인 이날에, 昭陽江 南岸으로부터 50km에 걸친 逐次的인 遲延作戰에 終止符를 찍게 되었으며, 군단은 그 이튿날인 19일부터 反擊態勢로써 다시금 鐵槌를 加하게 되었다.

다. 전투 후의 개황

當初에 Missouri線으로 진격코자 하였던, 사단의 堂堂한 陣勢는 醜虜의 反擊과 正面으로 激突한 결과 一時는 彼我 數的의 優劣로 戰局의 版圖가 뒤바뀌는 듯 하였으나, 재빨리 그 銳鋒을 피하고 豊岩里線에서 敵의 一瀉南侵을 阻止함으로써, 我軍의 反擊기틀을 마련케 되었고, 이로 因하여 4월 攻勢에 이어 두차례에 걸친 敵의 大出擊企圖는 마침내 畫餠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이 一戰으로 말미암은 사단의 損失도 결코 적지않았으니, 다음과 같은 損失對比를 보아 裝備

의 得失도 그러하거니와, 昭陽江畔에서의 撤收를 強要당함으로써, 右隣接 제3군단(장, 劉載興소장)의 左側背를 폭로하게 되어, 同군단의 機動路를 잃게한 결과가 끼친 惡影響은 大局的見地에서 많은 問題點을 남기게되었다. 數個兵團의 併列作戰에 있어서는 進退防守의 妙用도 必要하거니와 이로 말미암아 隣接兵團이 받게될 影響의 如何를 愼重檢討하여야 될것이고, 自兵團만의 獨生은 他兵團의 橫死를 招來할 수도 있는 것이니 大를 爲하여 小를 犧牲하는 崇高한 精神이것이 곧 軍의 基本精神이요 戰爭哲學의 第一章이 될 것이다. 太平洋戰爭에 있어서 敗軍日兵이 寡弱의 兵力으로 硫黃島 冲繩등 여러 島嶼에서 決死固守하다가 陷沒을 不辭한 史實은 大를 살리기 위하여 時間的 여유를 얻으려는 用兵上의 一大敎訓이 아닐 수 없다.

綜合戰果(51.5.16~51.5.23)

射殺 1,109명, 捕虜 9명,

鹵獲 M1 4정, 蘇式소총 3정, 多發銃 4정, BAR 1정, SMG 5정, M—8 유탄발사기 10정, 手榴彈 20發

綜合損失

戰死 36명 負傷 223명 失踪 3,394명

亡失 M1 2,064정, CAR 1,013정, LMG 25정, HMG 35정, BAR 133정, 2.36″ 로켙砲 11 문, 3.5″로켙砲 23문 60mm迫擊砲 30문, 81mm迫擊砲 16문, 4.2″ 迫擊砲 5문, SMG 9정, 권총 52정, M—7 유탄발사기 215정, M—8 유탄발사기 54정.

(51년 5월분 제7사단 戰鬪詳報에서)

敵軍의 動向：5월 18일, 당초 사단 正面의 北共 제3군단(제1, 제15, 제45제사단)은 雪岳山脈의 加里峰(△1,519)과 鞍山(△1,430：加里峰 西北쪽 6km) 일대에 그 指揮所를 두고 있었는데, 主力은 敵 제5군단(제6, 제12, 제32사단)과 合流하여 사단의 右隣接인 韓國軍 제3군단을 攻擊하였던 것이며, 사단 正面에는 中共 제27군의 제79, 제81사단이 梨峴—豊岩里로 直衝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사단 左隣接인 제5사단과 美제2사단 正面은 中共 제12군(제31, 제35사단)과 제15군의 일부 병력이 兩 사단을 寒溪線으로 強壓하였는바, 이 가운데 敵 제31사단이 제27군에 呼應하여, 사단의 左接際部를 突破한 것으로 判斷되었다.

따라서 18일까지 사단을 중심으로 한 敵의 움직임은, 이와같이 要約할 수 있거니와, 이 동안 敵은 사단이 5월 初에 確保한 麟蹄—洪川 道를 다시 蹂躙하고, 縣里地區에서는 제3군단(장, 劉載興소장)을 攻圍하는 등, 가진 橫暴가 甚하였으나, 사단의 豊岩里線 支撑과 함께 제10군단 右翼으로 美제3사단이 增援된 이날(18일)을 고비로 하여 敵勢가 기울기 시작하더니, 攻勢 1週가 지난 5월 22일에 이르러서는 急轉直下로 衰退一路를 보이게 되었다.

이는, 戰線이 下珍富里—寒溪線으로 南下함에따라, 敵의 補給路가 연장되었을 뿐만아니라 이 攻勢에 있어서 敵이 그들 後方의 戰略豫備隊까지 動員하였을 정도로 全力을 傾注하였던 만큼 그 兵員의 後續과 補給品의 推進이 戰線의 趨勢에 따르지 못하게 됨으로써, 스스로 繼戰能力을 잃게 되었던 것에 原因이 있는 것으로 分析되었는데, 이러한 轉機를 捕捉한 제8군이 5월23일에 即刻 反擊을 加하게 되자, 敵은 하는수 없이 潰走하기에 이르렀다고 判斷되었다.

이리하여, 北共은 楊口 北方으로 潰退하고 中共 제24군은 제12군과 함께 鐵의 三再地로 退散하던 중, 24일부터 進擊을 개시한 제9군단(장 William M. Hoge소장)에 의하여, 28일을 前後하여 華川 쪽에서 退路를 遮斷당하여, 再起不能의 強打를 받게 되었으니, (제6사단의 龍門山 —華川 進擊戰 참조)이로써 敵은 華川要域마저 抛棄하게 되고, 鐵의 三角地帶에서 겨우 戰線을 確保하는데만 汲汲하게 된 것으로 分析되었다.

我軍의 動向：5월 19일 아침에 新屯里 南쪽으로 北進한 美 제3사단 제15연대와 合同하여, 사단이 新屯里—甘杜里線을 確保하자, 21일에는 제15연대를 配屬한 美 제2사단(장, Clark L.Ruffner소장)이 左隣接이었던 제5사단(장, 閔機植준장)을 編入하고, 戰域을 東쪽으로 擴大케 되어, 23일에 사단은 군단命令에 따라 군단예비가 되었는데, 이때 군단 戰線은 일제히 攻勢로 移轉케 되었다.

이에 사단은 現 戰線을 美제15연대(美제2사단에 配屬중)에 引繼한 다음, 主力을 楸洞으로 集結시켰다가, 28일에 사단 CP를 下安味里(下珍富里 西南쪽 24km)로 轉進함과 동시에, 제3연대는 蒼里로, 제5연대는 藥水里로 그리고 제8연대는 大和里로 각각 機動하였다.

이날(28일) 사단장 金炯一준장이 離任하고, 金容培대령이 사단장으로 就任하였으며, 그 이튿날인 29일에는 제5연대장 趙成華대령이 陸軍本部로 轉出하고, 그날부로 副연대장 金相峯중령이 연대의 指揮를 맡게 되었다.

§ 參戰者 證言

◇제5연대 副연대장 金相峰중령(豫, 대령)

73.3.14 戰編委에서

5월초에 우리연대가 昭陽江線으로 進擊할 무렵에 趙成華대령이 연대장으로 赴任해 왔는데, 그 분은 그때, 指揮官經歷이 별로 없었을 뿐 아니라, 부대를 파악할 겨를도 없었으므로, 사단장이 나를 前方 OP로 같이 올려 보냈다.

당시에는, 연대장이 S—2, S—3와 함께 前方을 지휘하고, 부연대장은 S—1, S—4와 더불어 後方지휘를 하는 것이 通例였는데, 내가 연대장과 함께 前方부대를 지휘하게 된 것이다.

5월 16일 밤, 接戰이 시작되면서, 敵의 맹렬한 砲擊을 받아, 通信이 杜絶된 가운데, 中共軍이 밀어닥쳐 亂戰이 벌어졌는데, 머리를 쥐어보고 깍은 사람은 敵이고, 머리카락이 긴 사람은 我軍으로 판단할 지경이었다. 이래서 결국 前線대대가 물러나게 되었는데 이때 예비대 運用문제로 연대장과 다툰적이 있다.

제1선의 제2, 제3양개 대대가 逆境에 陷入하였으므로, 나는 예비대인 제1대대를 投入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연대장은 그것을 듣지 않았다. 결과적으로는 그때 예비대가 投入되지 않아 예비대인 제1대대는 비교적 損失이 적었으므로 나중에 사단 主力으로 크게 기여하였지만…. 사실 그와같은 形勢下에서, 1개대대 정도의 예비대를 投入한다는 것은 「以卵擊石」의 희생만 낼 뿐이었다. 연대장도 그 때문에 망서린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당시의 狀況으로 보아서는, 결과는 如何간에 우선 예비대를 投入하고 보는 것이 마땅한 戰術原則이요, 戰場心理였다.

◇제5연대 제3대대장 趙在俊 소령(少將)

73.2.21 國防部 企劃局長室에서

당시에 우리 대대(제3대대)가 연대 右側, 제2대대가 左側으로 昭陽江 南岸의 主抵抗線을 構築하고 있었고, 제1대대는 예비로 控置되어 있었다. 제2대대 正面에는 機動路가 있었고, 우리 대대는 험준한 高地에 配置되었는데, 前面의 江

은 徒涉이 可能할 정도였다.…… 5월 16일 저녁 무렵부터, 敵의 砲擊이 1시간 이상이나 加해 진다음, 敵이 떼를 지어 몰려 들었는데, 수많은 희생을 무릅쓰면서, 波狀攻擊을 감행하여 왔었다. 그야말로 말할 수 없이 치열한 격전이 몇시간 계속되다가, 開闊地와 機動路가 良好한 제2대대 正面이 먼저 突破되었다. 그러자 그쪽으로 侵入한 敵이 대대 左側方을 공격하였으므로 戰線均衡上 대대도 逐次撤收가 불가피하였다. 이래서 연대 예비대를 投入해 보지 못한 채, 연대의 全 前線이 瓦解되었다.……이 전투로 因하여 연대장이 交替되었는데, 사실 이 경우를 당하고 보면, 어떠한 부대라 하더라도 이와같은 길을 밟았을 것이다.

◇제9사단 제28연대장 李昌禎대령 (豫, 少將)

66.12.29. 國際技能 오림픽 協會에서

당시 五馬峙는 東沙里에서 上南里를 지나 제9사단과 제3사단, 그리고 수도사단을 연결하는 補給路의 要衝이었기때문에, 이곳이 敵의 手中에 들어감으로써, 제3군단의 補給路가 차단되었다. ……中共軍이 冠垈里에서 南下할때, 五馬峙 北쪽에는 제7사단 제3연대가 防禦하고 있었다. 제7사단은 예비대인 제3연대로 하여금 五馬峙고개로 내려가는 敵을 阻止하도록 作命을 내렸는데, 이것이 잘 이행되지 않았다. 제3연대가 作命대로 防禦만 하였어도, 敵이 五馬峙를 占領하기 어려웠고, 또 점령한다고 하여도,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제7사단 제3연대장 鄭 震대령(豫, 대령)

73.4.2 韓國日報社 出版局에서

내가 5.16밤 前線撤收의 渦中에 휩쓸려 그이튿날 五馬峙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敵이 이미 五馬峙를 占領하고 있었다.

그래서 제3군단 補給路를 打開하기 위하여 제2대대로 공격을 試圖하였으나, 제9사단에서 要請한 것인지는 몰라도 航空近接支援이 五馬峙일대에 무차별하게 加해지고 있었고, 또 주변상황이 如意치 못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다시 하배치(下梨峴)쪽으로 撤收하였는데, 그때 五馬峙를 넘어 縣里에 이르는 道路에 제3군단의 車輛과 重裝備들이 길을 메우고 늘어 서 있었다. 지금생각하여도 내가 당시에 五馬峙을 뚫치 못한데에 대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제7사단 副사단장 朴重潤대령(豫, 少將)

72.12.20. 自宅에서

中共軍의 5월攻勢때 제3군단이 큰 피해를 본 것이, 隣接 제7사단의 잘못 때문이라고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고 본다. 그때 상황으로 보아 어쩔수 없었다. 中共軍은 대병력으로 어느 防禦陣地를 돌파할 것인가를 떠칠두고 탐색하였다. 그러다가 火力이 강한 美軍陣地를 피하여 제10군단 右翼인 제7사단陣地를 택한것 같다. 사단지역을 뚫으면 제3군단의 후방보급로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敵이 대부대를 사단正面에 投入하였던 것이다. ……당시 제3연대는 전선연대(제5, 제8연대)진지가 돌파되자, 阻止부대로 나서게 된 것인데……제3연대가 作命을 어기고 후퇴하였기 때문에, 上南里와 五馬峙등의 제3군단 후방보급로가 敵에게 占領되었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제3연대장 鄭 震대령은 戰鬪에 있어서는 유능한 지휘관이었다. 야간전투시에 늘 四周防禦를 하여 가끔 인접부대와 間隙이 생기는 일이 있기는 하였으나……이 戰鬪에서는 한번도 사단의 命令없이 撤收한 일이 없다.

◇제8연대장 邊應梧중령(豫, 대령)

73.3.7 自宅에서

나는 당시 特務部隊副隊長으로 있었는데 陸軍本部로부터 51.5.15 부로 제8연대장 補職命令을

받았다. 그래서 제7사단으로 가기는 갔으나, 당시 여러가지 政治的인 事情때문에 다시 특무부대로 복귀하라고 하여, 실제로 연대장직은 引受하지 않았다. 命令上으로는 5월 15일부터 2~3週間 연대장직을 맡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때 부대지휘는 李賢進대령이 계속하였다.

◇제7포병단장 李喜泰중령(豫, 대령)

73.4.2 金寶産業에서

中共軍의 2월 攻勢 以後에 내가 제3군단(제3, 제7, 제9사단)의 全 砲兵대대(제11, 제16, 제30대대)를 統合運用한 적이 있다.

즉, 내가 제7사단의 제16포병을 맡고 있었는데, 제3사단 제11포병대대(장, 宋贊鎬소령)와 제9사단 제30포병대대(장, 張庚石소령) 및 각사단에 配屬中인 4.2″重박격포(3개중대), 그리고 제3, 제9사단의 75㎜山砲(2개중대)를 統合하여 FSCC(Fire Support Coordination Center) System을 試圖한 것이다.

이것은 포병전술원칙인 火力의 通信(Fire-Communication), 火力의 機動(Fire-Mobilization) 火力의 集中(Fire-Centralization) 가운데, 機動과 集中效果를 極大化하기 위하여 내가 案出한 것인데, 當時 이를 火力支援本部 또는 砲兵合同指揮所라 불렀다.

내가 단장이고, 張庚石소령과 宋贊鎬소령이 각각 副단장이 되어 3개사단의 火力을 集中的으로 運用하였는데, 당시에 1개연대별로 1개 포대(105m 6門)가 各個支援함으로써 期하지 못하였던 破壞力을 발휘할 수 있었고, 또 신속하게 射向束의 회전만으로 필요한 곳을 適時에 支援할 수 있다는 利點이 있었다.

이것은 그 뒤, 美 砲兵學校의 敎材로 채택되어, 오늘 날에는 FSCC System으로서 美 砲兵戰術條典에 까지 실려 있는 것으로 안다.

그때는 임시변통으로 案出한 것이나, 그 後 개발된 이 System이, 美軍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韓國軍에 의하여 먼저 試圖되었다는 點에서 自負心을 갖는다.

그러다가, 부대가 進擊하면서 3개사단이 각각 各個躍進케 되어, 合同指揮所는 해체되었지만, 나는 그 뒤에도 계속 포병을 集中的으로 運用하였다.

5월攻勢 當時, 특히 5월 16일 밤에는 포병전술상 夜間에는 1호 장약사격을 거의 禁忌로 되어 있으나 그날 밤은 밤새도록, 포탄추진력이 1,000m에도 미치지 못하는 1호장약으로 支援하였는데, 따지고 보면, 불과 몇백m 前方의 我軍을 支援한 것이다.

그때 포사격이 얼마나 치열했는가 하면, 砲身이 닳아 비누물을 부어 식혀가면서 사격하였을 정도였다.

◇제7사단 軍需參謀 辛大善중령(豫, 대령)

73.3.27. 戰編委에서

5월 16일 當時 사단 CP가 驛內里에 있었는데, 그날 밤 前方의 狀況이 惡化되어, 6시간만에 CP를 蒼村里로 完全히 移動하였다. 圖上의 直線距離만도 30km가 넘는 거리를 사단의 車輛과 全 補給品을 불과 6시간에 모두 옮긴다는것은 그야말로 超人的인 일이었다.

그리고 記憶에 남는 일은 5월초에 Missouri線으로 進擊할 때, 별 接敵이 없었으므로, 砲彈이 남아 돌아 갔다. 그래서 남는 포탄을 군단에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機動路부근에 備蓄해 두고 前進하였는데, 그後에 이것이 하마트면 크게 문제가 될뻔 하였다. 昭陽江까지 진격했다가 부대가 다시 撤收케 됨으로써 자칫, 포탄이 모두 敵의 手中에 들어 갈뻔 한 것이다.

다행히 사단의 撤收路가 進擊路와 일치하여, 오히려 철수하는 과정에서 곳곳에 備蓄된 포탄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意外로 큰 효

과를 본 셈이 되었다.

§. 研究

◇사단의 戰況과 제3군단이 縣里에서 被圍된 문제

當時 陸本 作戰敎育局은 제7사단의 「陰陽里地區戰鬪」를 통한 「戰例」分析에서, 『昭陽江線 防禦陣地의 早期崩壞와 제3연대의 補給路 拋棄가 全軍에 重大한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고 지적하고, 昭陽江防禦線의 早期撤收에 대한 몇가지 原因중에서 다음과 같은 두가지를 가장 크게 指摘하고 있다.

『① 通信網의 杜絶과 夜間機動에 있어서의 부대장악의 不充分

② 指揮官의 지휘능력의 缺如』

이 가운데, 제3연대가 拋棄하였다는 補給路는 五馬峙(5월 18일分 本文參照)를 일컫는 것이며, 全軍에 미친 重大한 영향이라 함은, 제3군단 左側 機動路를 차단당하게 함으로써, 이른바 「縣里包圍」事態를 誘發하여 同군단의 戰力(重裝備)을 잃게 하였다는 것을 가리킨 것이고, 指揮官의 지휘능력의 缺如란, 제5연대장의 지휘능력을 評價한 것으로 볼수 있다.

따라서 위와같은 陸軍本部의 見解도 그러하거니와, 5월 28일과 29일에 걸쳐 실행되었던 사단장과 제5연대장의 更迭도 이에 관련된 措置結果로 看做되고 보면, 제3군단의 「縣里包圍」에 대한 直接的인 責任이 제7사단에 있다고 하였음이 當時의 通說인 것 같다.

그러나 上記 두가지 原因가운데, 前者에 대한 責任이 사단장에게 있다고 한다면, 後者는 연대장의 補職權을 行使한 육군본부에 제1차적인 責任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

그리고 제3연대의 補給路 拋棄와 제3군단의 「縣里包圍」문제의 函數關係는, 記錄이 明確하게 남아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參戰者의 證言이 또한 區區하여 그 是是非非를 가릴 수가 없는 實情이다.

그러므로, 제7사단이 제3군단과 隣接하였던만큼, 橫的인 相關性은 必然的이라고 하겠으나, 「縣里包圍」문제에 대한 責任所在가 모두 제7사단에 歸着되어야 할것인가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더 硏究하여 糾明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指揮官名의 記述問題

1951년 5월 15일자 陸本定期作戰報告 人事事項에 의하면 陸本特甲 제377호에 의거, 51.5.15부로 陸軍中領 邊應梧를 제7사단 제8연대장에 補職한 것으로 記錄되어 있다.

그러나 「七星略史」(70.5.30. 제7사단 사령부 발행)에만 邊應梧중령이 51.5.15부터 5.5.27 까지 제8연대장으로 在任하였다고 밝힌 것 이외에는 當時의 戰鬪詳報나 기타 資料上에는, 이 戰鬪기간중에 연대를 지휘하였다는 記錄이 전연 비치지 않는다.

따라서 本人의 證言에 따라, 當時의 情況을 推斷하여, 本節에서는 제8연대장을 李賢進대령으로 記述하였다.

3. 龍門山—華川 進擊戰 (1951년 5월 17일부터 1951년 5월 28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12, 13, 14호
상 황 도 제10, 11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軍

美제9군단장	소장	William M. Hoge
제6사단 장	준장	張 都 暎
제2연대 장 대리	중령	宋 大 厚
※5월 25일부로 제10代연대장 就任과 同時에 大領昇進		
제1대대 장	대위	洪 載 翊
제2대대 장	소령	金 德 福
제3대대 장	대위	金 斗 逸
제7연대 장	대령	梁 仲 鎬
제1대대 장	소령	印 聖 勳
제2대대 장	소령	閔 邦 穆
제3대대 장	소령	宋 廣 保
제19연대 장	대령	林 益 淳
제1대대 장	소령	金 俊 敎
제2대대 장	중령	朴 杜 根
제3대대 장	소령	朴 鍾 吉
제27포병대대 장	소령	朴 晶 浩
공병대대 장	중령	朴 正 采
사단교육대 장	소령	田 東 植

병력 : 10,000명
중요장비 : 105mm野砲 15문
81mm迫擊砲 52문
60mm迫擊砲 84문
2.36″ Rocket砲 38문
3.5″ Rocket砲 133문 等

敵軍

中 共

제63군	장	鄭 維 山
제187사단	장	徐 信
제188사단	장	張 立 輝
제189사단	장	許 誠

병력 : 25,000명
(芝岩里—華川으로 進擊當時에는 中共 제12, 제15, 제27, 제60군의 敗殘兵 15,000명이 追加됨)

나. 전투전의 개황

1951년 4월 22일부터 시작된 제1차 春季 攻防戰은 대체로 同月 末까지 一旦 매듭을 짓고, 5월에 접어들면서 國軍 및 UN軍은 戰線整理와 동시에 再反擊을 준비하였다.

이무렵 제6사단(장, 張都暎 준장)은 中部戰線의 西半部를 擔當한 美제9군단(장, William M. Hoge 소장)에 配屬되어 指揮所를 楊平 東쪽 7km인 下陣에 開設하고 主力은 龍門山 一帶를 占領한 가운데 부대를 정비하고 戰力을 補強하면서 다음 전투를 준비하였는데 이달 10일을 前後하여 敵의 攻勢 徵候가 나타나게 되자 군단에서는 計劃을 바꾸어 現戰線인 龍門山((△1,157)--淸溪山(△658)--禮峰(△683)을 連하는 線에서 敵의 攻勢를 粉碎한 다음 反擊키로 決定함으로써 사단은 그 作戰의 一環으로 12일부터 現占陣地에서 防守態勢를 더욱 強化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敵은 지난 戰鬪에서 38°線을 奪取하자 必是 我軍의 一次 反擊戰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先制進攻의 利를 노리고자 그 準備에 狂奔하는듯 하더니 果然 16, 17 兩日 사이에 全戰線에서 出擊을 敢行하였다. 즉, 中東部에서는 昭陽江 上流에서 제5, 제7사단과 16일밤부터 벌써 격전을 전개하였으며, 當 군단의 正面으로는 中共 제63, 제64군이 侵襲하여 17일부터 彼我가 서로 激突하게 되었는데 특히 제63군은 사단이 占有中인 龍門山으로 그 主攻을 指向하여 集中攻勢를 취함으로써 여기에 龍虎相搏을 보게 되었다.

元來 이 龍門山은 楊平 東北쪽에 우뚝 솟은 標高 1,157m의 主峰을 비롯하여 그 一圓에는 700高地 이상이 서로 競立하듯 鬱蒼한 森林과 함께 據點을 形成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北漢江水와 南漢江水가 圍繞하여 自然堅壁을 이루고 있는 까닭으로 앞으로는 春川—加平—淸平을 連하는 京春街道를 制하고 뒤에는 楊平과 下陣을 감싸는 동시에 京江道路를 擁하여 北으로 向한 進擊要線이자 南으로는 防守를 위한 基地로서 作戰上 서로 讓步할 수 없는 彼我間의 爭奪焦點이 된 것도 모두 까닭이 있기 때문이다.

敵軍의 狀況 : 當初 사단의 正面에는 中共 제40군이 華岳山(△1,287) 一帶를 掌握하고 그 경계부대가 加平 부근까지 躍出하여 자못 그 氣勢가 騰騰하였으나 5월 初旬부터 戰線은 小康상태가 維持되고 敵主力의 動向을 能히 헤아리기 어려웠다.

이는 그들이 새로운 攻擊集團을 形成키 위하여 部隊의 分合移動을 策하는데 基因하였으니 곧, 高城—楊口—麟蹄間과 金化—華川 사이에는 行軍縱隊가 잇달았고 各種 車輛의 往復이 急增하여 그 樣相이 尋常치 않았거니와, 그 동안에 當面의 敵 제40군은 華川 貯水池 南岸에서 旣成陣地를 引受하는 동시에 이번에는 中共 제63군 隷下의 3個사단이 投入되더니 12일부터는 사단의 偵察隊와 散發的으로 衝突을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새로운 團隊號로 나타난 中共 제63군은 鄭維山이 지휘하여 議政府 北쪽에서 當사단의 正面으로 移動하자 곧 指揮所를 加平 東北쪽 19km인 芝岩里에 設置하고 麾下의 제189사단(장, 許誠)을 加平 北쪽의 修德山 一帶에 配置하는 한편 제 187사단(장, 徐 信)과 제188사단(장, 張立輝)은 北培山과 芝岩里 부근에 각각 集結하여 공격준비에 着手한 것으로 判斷되었으며 그 支援부대는 新浦里와 華川에 위치하는 것으로 確認(空中偵察)되었다.

병력규모는 제187사단의 8,000명과 제188사단의 9,000명 그리고 제189사단의 8,000명 규모로 都合 17,000명에 達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團隊號 未詳의 砲兵부대가 지원할 것으로 推測되었고 例의 말(馬)을 使用하는 補給推進으로 出岳戰을 能히 감당할 것이 豫見되었다.

특히 華川 東쪽 5km의 九萬里 發電所 近處에는 空爆에도 支撑할수있는 堅固한 보급시설을 갖추고 콩가루, 수수粉, 깨粉 等의 携帶用 식량을 備蓄하였으며 또한 그 一圓에 砲彈과 火藥을 隱蔽貯藏하는 것으로 推斷되었다.

이상과 같이 전투준비를 서두루던 敵은 14일부터 積極的인 태세를 취하여 強力한 搜索隊가 北漢江을 넘나들었고 加平東便의 北쪽 江岸에는 渡河用 資材까지 준비하더니 16일 夜半을 利用하여 그 先頭부대가 江村里와 西川里에서 江을 건넌다음 17일부터 全面에 걸친 攻勢를 取하였다.

當時 敵은 山岳機動의 特異한 手法으로 主로 部隊間의 戰鬪地境線을 뚫고 집중공격을 감행하였으며 迂回와 包圍의 판에박은 人海攻擊을 互用하였고 팽과리, 북, 피리 등으로 三國誌의 戰法을 併用한것도 如前하였다.

我軍의 狀況 : 사단은 史倉里戰鬪에서 失利한 뒤, 4월 27일에 指揮所를 下陣에 이동 開設하고 主力은 29일까지 逐次로 轉進하여 龍門山 一帶에서 새로운 戰線을 형성하였다. 즉 梁仲鎬대령이 지휘하는 제7연대는 龍門山 東側에서 右一線 陣地를, 林益淳대령이 지휘하는 제19연대는 그에 連한 左一線 陣地를 各各 점령하고 제2연대는 예비대로서 사단 지휘소 부근의 龍門에 集結한 가운데 각 연대 모두가 兵力과 裝備를 補充하고 교육훈련을 併行 실시하면서 부대를 再整備하였다.

이는 지난戰鬪의 損失을 하루속히 補完하여 군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反擊戰을 準備키 위한 當然한 措置였는바 이 때에 제2연대는 5월 1일부로 연대장 金鳳喆대령이 轉出되고 부연대장 宋大厚중령이 그 職務를 代理하였다.

이 당시 사단은 全般的으로 士氣가 低下되어 戰力의 弱化가 憂慮되기도 하였으나 內實은 지난 전투의 困辱과 軍上部의 紛紛한 擧論이 이 부대로 하여금 도리어 捲土重來를 期必하려는 사단장이하 全將兵의 雪辱念願을 불타게하고 一戰必勝을 위하여 心血을 기우리게 하였다고 본다.

이러는동안 戰線은 잠시 小康상태가 유지되다가 前述한바와 같은 敵의 攻勢樣相이 드러나자 사단은 군단의 계획에 따라 龍門山 一帶에서 堅守不動의 방어 陣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사단장 張都暎준장은 現 陣地를 埋骨聖地의 主抵抗線으로 定한 다음 강력한 방어공사를 직접 감독하는 한편 예비이던 제2연대를 戰鬪前哨로서 洪川江 南岸을 先占케 하였으며 사단 一般前哨를 加平부근까지 躍進시켜 敵情을 探索케 하였다. 또한 그는 13일부터 19일까지 1週日 동안을 『民族意識 高揚週間』으로 設定하여 將兵들의 精神武裝을 강화 하였으며 제2연대가 龍門에서 出動時에는 직접 訓示하기를 『本戰鬪의 成敗如何는 各 將兵들의 報國一念에만 달려 있다. 끝까지 陣地를 固守하고 突入하는 敵을 撲滅하여 父祖의 期待에 副應하고 兒孫萬代의 幸福을 찾아 靑星의 傳統을 세우도록 하라』 하니 모든 將兵들의 眉間에는 必死無敗의 決意가 가득하였다.

이무렵 사단의 右翼에는 美제7사단(장, Claude B. Ferrenbaugh 소장)이 龍門山 以東의 丹月面에서 陣地를 確保하였으며 左翼에는 제2사단(장, 咸炳善준장)이 淸溪山(△658) 一帶에서 主抵抗線을 形成하고 동시에 방어태세를 갖추었다.

當時 사단의 兵力은 10,000명에 達하였으며 主要 裝備는 포병 제27대대의 105mm 野砲 15문과 81mm 박격포 52문 그리고 60mm 박격포 84문에 3.5″ Rocket砲 138문 및 2.36″ Rocket砲 38문을 保有하였고 그밖에도 군단의 제92自走砲대대를 비롯하여 제937, 제987野砲대대의 支援과 또한 制空權을 가지고 있는 UN空軍의 副次的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龍門山 防禦戰(5월 17일~21일)

(가) 작전계획

敵은 이 作戰을 그들의 제5차 제2단계작전이라고 하여 이른바 『東西 兩 海岸에서 上陸企圖를 併吞하는 새로운 攻勢를 사전에 排除하는한편 主力으로써 中, 東部의 山岳地帶를 攻破하여 兵力과 物資에 打擊을 加한 다음 進擊基地를 構築한다』는 要旨의 計劃을 세우고 그 準備를 서둘렀다.

이때 美제8군에서는 이와같은 敵의 動向을 銳意檢討한 끝에 그 企圖를 看破하여 一旦軍의 進擊計劃을 留保하는 동시에 No Name線上에서 地域防禦를 실시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美제9군단장 Hoge소장은 새로운 狀況에 對處한 작전계획을 수립하여 5월 12일에 군단作命 제20호로서 下達하였는데 그 大要를 보면 군단은 龍門山—淸溪山—禮峰을 連하는 線(No Name선)上에서 地域방어를 실시하되, 機甲부대를 隨伴하는 美제7, 제24兩 사단은 機動路가 양호한 군단의 兩翼에 전개하고 그 內陸 山岳地帶에는 제6, 제2 兩 사단으로 하여금 固守策을 堅持토록 하여 敵의 攻勢를 물리친 다음 適時에 攻勢로 轉移키로 하는 構想의 一班이었다. 그런데 이번 작전에서는 사용가능한 모든 重裝備를 동원하여 無制限의 火力支援으로 敵의 波狀攻勢를 逐次로 撃砕하려는 方針이래 一貫된 것이 그 特質이라고 볼 수 있었다.

이와같이 군단에서 設定한 방어선은 군단當面의 地形을 考慮하여 隣接부대와의 有機的인 戰線形成을 圖謀하기 위한 戰術展開였으나, 사단으로서는 主抵抗線이 龍門山의 主峰(△1157) 一帶에 策定됨으로서 天然地勢의 効用이 可能한 洪川江과 淸平江이 멀리 12~17km 北方에 있게 되어 萬一 敵이 容易하게 渡江하여 橋頭堡를 確保한다면 綠陰이 짙은 森林 사이에서 混戰亂鬪가 心然코 예상되었으므로 사단장 張都暎 준장은 이를 留念하면서 指導方案을 樹立하였다. 곧 2個연대를 主抵抗線에 전개하되 각각 1個대대 규모의 兵力으로써 自隊正面의 主要稜線을 確保케 하여 충분한 縱深을 유지토록 하는 한편 增強된 1個

연대 규모로써 洪川江과 淸平江의 合流點 南岸으로 進出시켜 그 一帶에서 橋頭堡진지를 占領케하고 堅固한 陣地構築과 障碍物을 設置하여 비록 前哨부대일지라도 命令 없이 後退함이 없이 敵을 邀擊牽制케 한 다음 장차 機會를 捕捉하여 出擊을 斷行키로 하였다.

이와같이 사단이 前哨부대의 運用을 特殊하게 策한 것은 예비대가 없이 全面展開한만큼 이곳에서 決戰방어를 斷行하려는데 基因한바도 있었으나, 當사단은 1950년 10월以後 줄곧 中共과의 接戰에서 엄은 體驗으로서 그들의 迂回機動 手法을 看破하였기 때문에 비록 敵의 一部가 陣內까지 侵襲하는 경우라도 끝까지 이 據點을 지켜 敵의 진출을 牽制하지 않으면 所期의 성과를 걷우기 어려울 것으로 믿고 不退轉의 決意로써 四周防禦에 專念하여 이 一隅에서 期心코 兇敵을 擊滅키로 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決心을 굳힌 사단장은 5월 13일에 要旨 다음과 같은 사단作命 제159호를 下達하였다.

『① 사단은 龍門山 一帶를 固守하면서 敵을 捕捉擊滅하려 한다.

② 제7연대는 龍門山 東側의 陣地를 占領 방어하되 1個대대를 鳳尾山(△856)으로 진출시켜 방어縱深을 擴大하라.

③ 제19연대는 龍門山 西北側 陣地를 占領하고 특히 左隣接 제2사단과의 地境上에 대한 警戒부대의 運營을 期하라.

④ 제2연대는 洪川江 南岸으로 躍進하여 長樂山脈에 連하는 橋頭堡陣地를 占領하되 1個대대를 △353에 配備하여 사단 主力과의 縱深을 維持하고 洪川江 北方에 一般前哨를 配置하라.

⑤ 砲兵 제27대대는 龍川里부근에 砲陣地를 放列 選定하고 사단 全正面을 一般支援하되 火力의 優先權을 제2연대에 두라.

⑥ 工兵대대는 各연대에 대하여 1個中隊규모의 兵力을 支援하여 可能한 모든 障碍物을 設置하는 한편 主力은 龍門山 主峰一帶에서 사단 前方指揮所를 警備하라.

⑦ 捜索中隊는 淸平江 北方으로 進出하여 一般前哨에 任하라.

⑧ 各隊는 15일까지 陣地에 必要한 모든 工事를 完了하고 그뒤 逐次로 이를 補強하라.

⑨ 各연대는 自體 경계부대로서 戰鬪地境間의 脆弱點을 補完하고 局地 警戒組를 編成하라.

⑩ 군단 지휘소는 驪州에 있으며 사단 前方指揮所는 △1157에 위치한다.』

(나) 작전실시

5월 17일 : 사단에서 入手한 情報에 의하면 敵은 전날밤에 全戰線에서 攻勢를 取하여 美제10군단의 右翼인 제7사단(장, 金炯一준장)은 昭陽江 上流에서 전날밤 20.00부터 벌써 激戰을 展開하고 있었으며 美제1군단의 前哨부대는 汶山 南쪽 2km의 一帶에서 前哨가 서로 衝突하였고 當군단의 正面에서도 加平과 淸平 北쪽 여러 地點에서 敵影의 出沒을 確認하였다.

또한 사단 偵察隊의 보고에 依하면 전날 下午에 玉女峯(加平北쪽 2km) 골짜기에서 6~7,000명으로 推算되는 敵의 무리가 100餘匹의 말(馬)을 牽引中이었으며 중대규모인 그들의 先遣隊는 加平 南쪽의 達田里까지 進出하였다는 偵察報告가 있었다.

이렇듯 輕視할 수 없는 敵의 徵候를 看破하게 되자 사단장 張都暎준장은 이날 麾下의 各부대장에게 特命하여 臨戰態勢의 萬全을 期하도록 하는 한편 사단 一般前哨線를 더욱 補強하여 接敵狀況과 偵察결과를 速報토록 하였던바, 예상대로 敵은 中共 제187사단(장, 徐信)의 先頭부대가 전날밤에 이미 北漢江을 건너 橋頭堡를 確保코자 함으로써 이날 彼我 前哨가 激突한 결과 그 先鋒을 潰滅하였다.

1. 제2연대(장, 宋大厚중령)의 前哨중대인 제6중대는 제1중대의 1個소대를 追加로 補強한 중대로서 중대장 李佐均대위가 지휘하여 北漢江(春川과 加平間) 南쪽에서 사단正面의 東側을 맡아 前哨임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날은 主力을 △463와 △467 一帶에 散開, 待機시키고 輕裝備를 갖춘 偵察組를 渡江 예상지점인 江村里와 川西里로 각각 진출시켜 부근 一帶를 探索하였다.

그런데 11.00에 이르러 西川里 附近에서 활동하던 偵察組의 보고에 의하여, 중대규모의 敵이 이미 渡江을 마친뒤 중대의 配置線 西南쪽인 文義谷 부근에서 南으로의 行軍縱隊를 이루고 있는 것을 確認하자 이 사실을 즉각 연대에 報告하는 한편 중대를 追擊隊形으로 變形하였다. 이때에 연대장으로부터 命令하기를 『귀 중대는 迅速히 이 敵을 공격하여 최대한의 打擊을 加한 다음 계속 接敵을 유지하면서 철수하라』 하였다.

이리하여 중대장 李佐均대위는 機動을 서둘러 敵의 行軍路로 豫見되는 寒德山(△410)을 넘은 다음 그 動態를 계속 살폈더니 敵은 北漢江 沿岸에 橋頭堡를 확보키 위함인지 芳河里 溪谷에서 集結하고 있었으므로 이 好機를 노칠세라 즉각 芳河里 뒷산인 △274와 △205가 連하는 一帶로 옮겨 공격대형을 취하는 즉시로 敵의 右側背를 強打하였다.

이와같이 不意에 急襲을 받은 敵은 魂飛魄散하여 四散상태에 이르렀으며 중대는 더욱

直衝과 急擊으로 突進 又突進한 끝에 射殺 163명, 捕虜 6명에 多發銃 28정과 各種소총 54정, 수류탄 2230발 等의 푸짐한 戰果를 거둠으로써 兼하여 敵의 企圖를 初動에 粉碎하였다.

그 뒤에 중대는 계속하여 부근 一帶를 수색하면서 敵의 動向을 探索하였는데 日沒이 가까워지자 敵은 大群으로써 到處에서 北漢江을 건너 南進을 재촉하므로 이 敵情을 곧 報告하는 동시에 함께 서서히 撤收하여 19.30에는 博岩里에서 洪川江을 건너 本隊와 合勢하였다.

2. 사단 搜索중대는 4個소대로서 朴魯榮대위가 지휘하여 사단 正面의 西側을 맡아 前哨임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地域은 加平으로부터 淸平으로 흐르는 北漢江 北쪽의 彎曲形을 이룬 곳으로 淸平江 北岸으로 直行할 수 있는 捷路였다.

이리하여 중대장은 當初 사단 情報參謀 崔澤元중령으로부터 『威力搜索과 早期警報』의 임무를 부여받고 淸平江을 건널때 20人用 船舶 2隻과 3~4人用 小型선박 10隻을 대기시킨 연후에 加平으로 搜索進出 하였는데, 이날은 사단의 指示에 따라 加平 南쪽 3~4km의 부근 一帶에서, 2個소대는 △262 및 △237에 散開하고 나머지 2個소대는 그 後方에 配備하는 한편 수색조를 加平 南端의 下色里까지 진출시켜 敵情을 探索하였다.

그런데 이날 晝間에는 一部의 敵이 加平 邑內에서 流動할뿐 特別한 徵候가 보이지 않더니 날이 어두워지자 20.00부터 數未詳의 兵力群이 正面으로부터 接近하기 시작하여 22.00에는 前方소대의 陣前에까지 出沒하였다.

이렇듯 敵勢가 狂波와 같이 밀려들게 되자 중대장은 이 狀況을 사단에 急報하는 동시에 敵의 先頭梯隊에 衝擊을 주어 一時 그 進出을 抑止하였으나 중대로서는 敢히 雌雄을 決할 수 없는 兵力差인 까닭에 豫定한대로 一止一退로 중대를 隨意 철수케 하였으니 곧 後方소대의 掩護下에 轉進한 前方 兩소대는 淸平江 北岸으로 移動하여 渡船場부근을 確保하였으며 이 새로운 阻止線에서 敵과의 接觸을 維持하였다.

그뒤 子正이 넘어도 戰線에 아무런 變動이 없고 間或 砲聲이 들리더니 다음날 02.00에 敵은 一時에 大擧侵襲으로 突變하였으므로 중대는 계속接敵을 維持하면서 철수하여 05.00에는 제2연대 제2대대의 陣地正面으로 渡江을 완료하였다.

3. 한편 제2연대의 主力은 洪川江과 北漢江이 合流하는 三角洲의 南岸에서 사단의 前哨陣地를 占領하였는데, 右一線인 제1대대(장, 洪載翊대위)는 彌沙里부근의 △559를 中心으로 長樂山脈 一帶를 점령하고, 左一線인 제2대대(장, 金德福소령)는 新川里 北쪽의

△381를 중심으로 新川里와 高城里間의 渡江 豫想地點에서 南岸을 確保하였으며, 예비대대인 제3대대(장, 金斗逸대위)는 倉宜里(主陣地로부터 3.5km 後方) 부근에서 △353에 位置하였다.

이와 같이 연대는 橋頭堡진지를 확보하여 渡江地點에 警戒의 重點을 두고 있던바, 이날 一般前哨線에서의 接戰이 시작되자 敵情이 飛報되어 全將兵은 더욱 경계를 강화하면서 邀擊態勢를 갖추었다.

4. 사단의 主力은 龍門山(△1157)을 中心으로 主陣地帶를 形成하였으니 곧 梁仲鎬대령이 지휘하는 제7연대는 △729(主峰 東北쪽 2km) 一帶를 점령하고, 林益淳대령이 지휘하는 제19연대는 이에 連하여 西北쪽으로 △677와 △481를 점령한 가운데 방어縱深을 補強하고 局地警戒組를 強化하였다. 또 포병 제27대대(장, 朴晶浩소령)는 前方의 戰況에 따라 敵陣에 대한 破壞射擊의 砲門을 열었다.

이와같이 사단 當面의 戰況이 流動하는 동안 右翼인 美제7사단의 제31연대와 左翼인 제2사단(장, 咸炳善준장)의 제31연대 역시 이날 前哨戰을 展開한 바 있었으니 敵은 군단의 全戰線에서 大規模의 攻勢를 敢行한 것이 事實化되었다.

5월 18일 : 一般前哨가 撤收한 뒤 사단의 戰鬪前哨線인 제2연대의 陣疊에 妖雲이 감돌고 各 將兵마다 超緊張裡에 邀擊태세를 갖추었는데, 전날 攻勢를 취한 中共 제63군은 洪川江과 淸平江 北쪽에서 戰列을 가다듬는듯 하더니 이날 晝間에는 중대 또는 대대규모의 兵力으로 연대의 陣地正面에서 波狀的인 衝擊행동을 恣行하다가 日沒과 함께 대대적인 夜間攻擊을 감행하였다. 즉 中共 제187사단(장, 徐信)과 제188사단(장, 張立輝)은 左右隣接사단의 前哨부대가 예비陣地로 이동함과 때를 같이하여 연대의 陣前으로 集中侵攻함으로써 熾烈한 激戰이 展開되었으나 宋大厚중령이 지휘하는 제2연대는 끝까지 陣地를 固守하고 이 敵을 擊退하였다.



<龍門山 戰鬪에서의 제2연대 병사들>

1. 제1대대(장, 洪載翊대위)의 正面으로는 10.30에 中共 제187사단의 先遣隊인 중대규모의 敵이 陣地 東北쪽 3km 지점의 柯亭里

부근에서 洪川江을 건너려하므로 이를 發見한 제1중대가 중대장 金圭炳대위의 지휘下에 一齊히 同時集中 사격을 加하여 이 敵을 擊退하였는데 이무렵 제2중대도 上博岩里에서 彌沙里로 渡江코자 하는 100餘名의 敵을 대대의 西側陣地에서 모두 擊退하여 버렸다. 그 뒤에 敵은 散發的인 挑戰만으로 일단 물러선 듯 하더니 날이 어두어지자 이번에는 연대규모 이상으로 推算되는 兵力群이 全面에서 侵襲하였다. 즉 右隣接인 美제7사단과 接境하고 있는 牟谷里 부근에서는 20.30에 대대규모의 敵이 渡江을 마치고 陣地 東側으로 侵襲하였으며 柯亭里와 上博岩里에서도 각각 대대규모의 敵이 夜暗을 타고 강을 건너 侵攻하였으니 대대는 三面의 攻勢속에 21.00부터 熾烈한 攻防戰을 전개케 되었다.

이때 대대의 全將兵은 사단의 照明支援下에 각기 擔當正面에서 全火力을 集中하면서 勇戰敢鬪하였으며 포병 제27대대(장, 朴晶浩소령)의 支援火力은 이미 彈幕射擊을 시작 하였다. 특히 美제7, 제24 兩사단의 포병과 군단의 自走砲대대까지 合勢한 5個 砲兵대대의 지원射擊은 天地를 震動하는 威力으로 연대의 全 正面에까지 미치게 함으로써 대대는 勇氣百倍하여 敵의 第一梯波를 粉碎하였다. 그러나 敵은 계속 增援부대를 投入함으로써 23.00에는 陣地後方의 長樂山脈을 타고 潛入하여 四面에서 侵攻하기에 이르렀으니 四面楚歌란 과연 이를 두고 하는 말이리라.

이러한 狀況 속에서 대대장 洪載翊대위는 끝까지 陣地를 固守하여 敵의 進出을 阻止키로 決心을 굳히고 대대를 △559를 中心으로 한 四周防禦의 陣形으로 強化하는 一方 肉薄血戰으로 渾身의 勇을 다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끝내 이 陣地를 지키고 敵에게 巨大한 損傷을 주었으니 腥風血雨가 山野를 덮고 將兵들의 氣概는 九天에 솟구쳤다.

2. 제2대대(장, 金德福소령)는 淸平江 南岸에서 제7중대를 右로하여 江岸에 沿한 진지를 점령케 하고 제5중대는 新川부락이 바라보이는 西便陣地를 占領토록 하였으며 제6중대를 예비로 控置하여 邀擊태세를 갖추었는데 이날 새벽에 사단 搜索중대가 一般前哨任務를 完遂하고 복귀한 뒤부터 더욱 警戒를 강화하였다.

그런데 이날 上午에는 特別한 敵情이 없더니 下午에 이르러 中共 제188사단의 先攻隊가 高成里에서 淸平江을 건너기 위하여 掩護射擊을 감행하자 제7중대장 尹熙敏중위의 陣頭지휘로 그 企圖를 破碎하였으나 이때부터는 계속적으로 敵의 衝擊力이 거세어졌다.

그러나 淸平부근에서 前哨戰을 전개하고 있던 제2사단의 제31연대(장, 趙原英대령)가 禾也山(△755)에 있는 豫備陣地로 移動하자(참조 : 육군 정기작전보고 제5권 및 제6사단

전투상보 龍門山 戰鬪級) 淸平땜을 건넌 敵의 主力이 제2사단과의 戰鬪地境을 따라 侵襲하여 22.0C에는 대대규모의 敵이 제5중대의 正面으로 侵攻하였으며 또한 이와같은 激動을 틈타 高成里 부근에서 跳梁하던 敵의 一部도 砲兵부대의 지원을 받으면서 渡江하게 되었으니 대대는 前方과 左側方의 兩面 挾擊 속에 激戰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대대장 金德福소령은 예비대인 제6중대로 하여금 主陣地 後方에서 倉村부락에 沿한 四周防禦진지를 占領케 하는 동시에 熾烈한 擊滅戰을 전개하였는데 이때 사단에서는 照明支援射擊을 비롯하여 各種 砲兵의 制壓射擊으로 敵隊列을 攪亂分潰토록 하였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무리의 힘만을 믿는 醜敵은 一波又一波로 攻襲을 強行하여 제5중대의 正面에서는 肉薄戰으로 變貌하는 바 있었으나 대대는 있는 힘을 다하여 四周방어 陣地를 固守하였으며 敵은 遺棄屍體를 버리고 呻吟하는 同類를 刺殺하면서 물러나고야 말았으니 必是 捕虜의 입을 막으려는 惡鬼와도 같은 心算이었으리라.

3. 한편 제3대대(장, 金斗逸대위)는 倉宜里 부근에서 阻止陣地를 점령하고 있던 바 이날 敵이 제2대대의 側後方까지 侵襲함에 따라 스스로 開放케 된 倉宜里와 新川里間의 間隙을 補強하기 위하여 제10중대로 하여금 倉宜里 北端의 △224까지 陣地를 延伸토록 措置하는 한편 重火器중대의 砲擊으로 제2대대를 지원하였다.
또한 羅山에 자리잡은 연대본부에서도 復歸中인 사단수색중대를 增援받아 右翼인 美제7사단과의 接境上에 露出된 脆弱點을 補強키 위하여 東幕里 一帶까지 兵力을 配置토록 하는 한편 一線대대를 지원키 위하여 總蹶起하였다.

4. 主抵抗線에서는 如前히 제7, 제19의 兩연대가 陣地를 굳게 掌握하면서 全般의 戰況趨移를 注視하였으며, 사단장은 군단에 戰況을 報告하는 한편 계속 砲兵과 空中의 立體지원을 要請하고 戰勢의 大局을 觀察하면서 各級參謀들을 第一線으로 隨時分派하였다.

이상과 같이 이날 左右隣接사단의 전초부대가 豫備진지로 移動함으로 말미암아 突出部位의 要地를 점령케 된 제2연대가 孤軍血鬪를 反復하면서도 끝까지 陣地를 固守한 것은 空地兩面에서의 砲爆兩面支援이 奏効한 理由도 컸지만, 지난 史倉里 戰鬪에서 겪었던 痛憤을 되씹지 않기 위하여 期必코 決勝코자 四周防禦를 실시한 것이 커다란 動因이었으니 將兵 저마다의 鐵帽에 빛나는 決死라는 盟誓標가 이를 雄辯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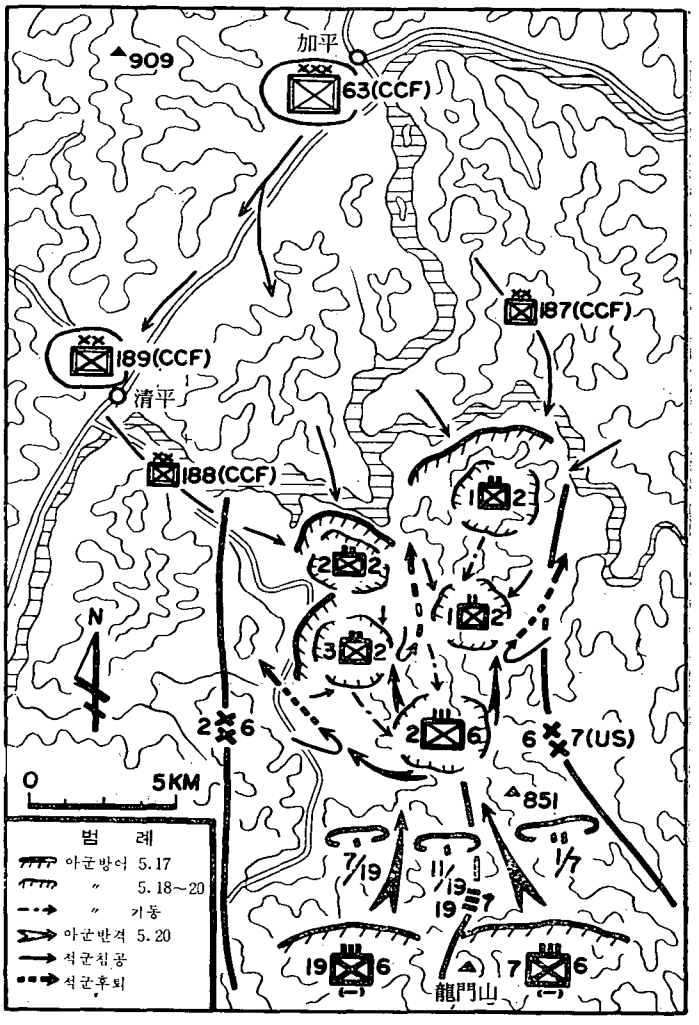
5월 19일 : 제2연대(장, 宋大厚중령)는 數的으로 優勢한 敵과 對戰하여 가진 危局을 당하면서도 頑強히 陣地를 固守하고 물러 설 줄을 모르자 敵은 여기를 必是 主抵抗線으로만

誤認한 탓인지 이날 06.00부터 다시 中共 제187, 제188 兩사단의 主力으로써 集中攻略을 企圖하였다.

이리하여 終日토록 紛戰과 混戰이 계속되었으나 마치 不死神과도 같은 陣地는 변함없이 버티어 내었고 오히려 步砲空의 三者協同의 打擊力이 漸增하는 가운데 一方的인 損失만을 強要당하게 되었으니 그들로서는 實로 打算이 맞지 않는 完敗의 一場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敵은 이날밤에 그들의 마지막 예비대인 제189사단(장, 許誠)까지 投入하여 惡夢中의 狂波를 이르킴으로써 熾烈한 攻防樣相은 그 極에 達하였다.

1. 제1대대(장, 洪載翊대위)는 전날의 陣地에서 연대규모의 敵과 또다시 對決케 되었는데 敵은 그들의 常用手法으로 全대대를 包圍壓縮하면서 一陣 또 一陣의 狂波로서 固守戰線을 휩쓸고자 發惡하였다.

◇ 상황도 제10호 龍門山 防禦戰



그러나 △559를 中心으로 하여 四周의 방어진지를 굳게 점령한 대대는 雨注하는 彈幕속에서도 動搖없이 소화기를 비롯한 自動火器와 迫擊砲 등의 全火力을 동원하여 決戰防禦의 極致를 보였으며 사단에서 支援하는 砲火는 敵兵群을 烏有化하였고 08.00부터는 UN空軍의 空爆까지 얻게 되었으니 步砲空의 立體作戰이야말로 우선 敵 督戰隊의 肝膽부터 서늘케 하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敵도 또한 人海勢

力을 더하여 09.30에는 다시 2個대대 규모의 敵이 長樂山脈 溪谷을 따라 陣地後方으로 潛入하더니 退路를 막기 위하여 遮斷陣地를 마련하고 寡軍으로써 奮鬪하는 대대의 弱小一陣을 한 입에 삼켜보고자 하였으니 대개 그들의 面子(멘쯔)가 容恕치 않았을 까닭이리라.

이와 같은 戰況報告를 받은 사단장 張都暎준장은 판단하기를 현재 대대의 陣地가 연대主力과 6km나 떨어진 東北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장차 敵이 이 陣地를 迂回하여 연대의 指揮所부근으로 侵攻한다면 有機的인 戰線形成이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이미 固守의 本然的인 目的을 充分히 達成하였다는 事實을 검토한 끝에 09.50에 要旨 다음과 같은 隨意退却 명령을 하달하였다. 즉『제2연대장은 제1대대를 羅山으로 迅速히 隨意 철수하여 現地 與件에 合當한 遲延陣地를 占領하고 敵의 진출을 牽制抑留하라』

이상과 같은 명령을 받은 연대장 宋大厚중령은 곧 사단에 退路의 啓開를 위한 掩護사격을 要請한 다음 제1대대장 洪載翊대위에게 명령하기를『제1대대는 신속히 羅山으로 隨意撤收하여 △581 및 △628를 점령하고 敵을 捕捉 擊滅하라』하였다.

이렇듯 戰況이 展開되는 동안 벌써 長樂山脈 一帶의 敵陣에 대하여서는 支援砲擊이 불을 吐하고 그 뒤를 이어 航空爆擊까지 地軸을 흔들었는데 이때 대대장은 제1중대로 하여금 長樂山(△616) 西便으로 進出케 하여 敵勢를 牽制토록 하는 동시에 主力의 機動을 悠然히 指揮하였다. 이리하여 △559를 출발한 제1중대는 金圭炳중위의 지휘하에 一齊히 敵의 包圍網을 突破한 다음 계속 松山里로 내달아 長樂山 西便陣地에서 敵을 견제하면서 3시간에 걸친 치열한 격전을 전개한 끝에 敵射殺 300명과 各種武器 30餘點을 鹵獲하는 副次收을 兼하면서 主力의 隨意撤收를 掩護하였다. 그동안 대대의 主力은 徐徐히 羅山으로 前進하여 이미 指示된 陣地를 점령한 터이라 중대는 15.30에 羅山으로 移動하여 本隊와 合勢하였으니 火力支援의 도움도 컸지만 실로 將兵들의 不動如山과 動如雷霆의 眞骨髓에는 醜敵마저 啞然히 大驚失色하였을 것이다.

2. 제2대대(장, 金德福소령) 역시 전날의 陣地에서 연대규모의 敵과 對決하여 且戰且退의 紛戰을 展開하였는데 이날 08.50에는 다시 제5중대의 陣前으로 대대규모가 強襲하여 激突케 되었다.

이때 중대장 池錫佑대위는 거듭되는 攻防戰에서 얻은 體驗으로 미리 肉薄特攻隊를 編成하여 △148 부근에 潛伏 待機시켰다가 敵이 陣前의 至近距離까지 近迫하자 一齊히 喊聲을 올리고 수류탄을 던지면서 急速突進으로 敵線을 擾亂케하는 刹那에 全중대원이 집중사격을 加하여 이를 무찌른 결과 200餘명을 射殺하고 6명을 사로 잡아 그 銳氣를 꺾어 놓았다

이렇게 되자 敵은 方向을 바꾸어 이번에는 대대의 後方陣地를 確保中인 제6중대의 正面으로 強侵하였다. 즉 새로운 병력을 督戰으로 投入하여 2個대대의 규모로서 倉村부락을 지나 중대의 正面으로 殺到하는 한편 09.30에는 대대규모의 增援부대가 △192 南쪽 溪谷을 따라 중대의 右側 陣地를 挾攻함으로써 중대는 10倍나 되는 敵과의 對決속에서 亂戰과 亂鬪의 連續끝에 一時 超危機상태에 놓여지게 되었다.

이에 중대장은 곧 豫備陣地인 △255를 占領토록 명령하는 동시에 중대散兵의 收拾과 緊縮陣地를 점령키 위한 總力을 다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사단砲兵의 支援火力이 炸裂하고 또한 제5중대의 掩護사격과 제11중대의 增援을 얻어 끝내 이 敵을 △255에 있는 예비陣地에서 四周의 방어로 固守하였다.

이와같이 連續 不斷하는 激烈無雙한 戰火속에서도 물러설줄 모르고 極力버티어 내자 敵은 여기를 사단 主抵抗線의 中心部로 錯覺한듯하여 그들의 예비대인 제189사단까지 모조리 投入하기에 이르렀으니 奇正虛實의 妙가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즉 이곳을 最後의 決戰場으로 내다본 敵은 淸平부근에 집결하고 있던 제189사단을 즉시 진출시켜 제188사단과 함께 一個대대 兵力인 제2대대를 攻圍하는 한편 全연대를 威脅하면서 狂瀾과도 같이 밀려닥쳤으니 이야말로 敵은 鷄頭를 짜르는데 牛刀를 使用하는 愚를 犯하게 된것이오 我는 一夫當關으로 萬兵을 牽制하는 利를 얻게 된 것이다.

이상과 같은 戰況보고를 받은 사단장은 제2연대장에게 嚴命하기를 『迅速히 제2대대를 철수하여 全연대로서 四周방어진을 형성하고 極大限으로 敵의 진격을 抑留하라』 하였으니 이는 敵의 全面공격에 對備키 위하여 우선 제2연대로 하여금 敵의 進出을 견제토록 한 다음 장차 사단의 全力으로서 一擧에 撲滅코자 하는 壯快無比한 布石이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대대장 金德福소령은 이 명령에 따라 空中爆擊의 掩護威力下에 19.00부터 機動하기 시작하였는데 제7중대를 先攻隊로 하여 우선 包圍網의 一角을 突破한 다음 位谷里부근에서 다시 300명의 敵을 擊退하고 제3대대의 陣地를 整然히 通過하여 21.40에 大隊全兵力으로 △427(연대 지휘소 後方)에 진입하여 여기에서 다시 四周방어 陣地를 確保하기에 이르렀다.

3. 제3대대(장, 金斗逸대위)는 如前히 △353를 中心으로 한 阻止陣地를 占領한 가운데 前方의 제2대대를 지원하고 있던바, 20.00에 2個대대 규모의 敵이 左側 제10중대의 正面으로 侵襲하여 邀擊戰을 펴고 있었는데 21.30에 다시 2個연대 규모의 兵力이 제2대대의 철수와 함께 四面에서 侵攻하여 彼我間에 熾烈한 격전을 전개하였다.

이때에 敵은 피리를 불고 꽹과리를 치면서 倉村과 新川里 및 岩沼里에서 대대를 包圍하고 侵攻 殺到하였으나 대대의 全將兵은 이러한 激浪 속에서도 巨巖과 같이 陣地를 굳게 지키면서 死鬪를 不辭하였다. 이로말미암아 到處에서 肉薄戰이 反復되고 彼我銃砲와 照明彈의 閃光은 暗黑天地를 대낮과 같이 밝혔으며 눈이 부시게 된 敵은 虛空을 대고 盲射를 거듭하는지라 敵의 數가 많으면 많을수록 我方의 命中確度만을 더하게 하는 珍風景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攻防血戰이 계속되는 가운데 敵은 사단砲兵의 火力洗禮까지 받게 되니 마침내 쥐구멍만을 찾게 되다가 子正을 넘어면서부터 재빠르게 물러남으로써 대대는 끝내 이 陣地를 完守하고야 말았다. 當時 제2연대를 지원하던 사단 搜索중대장 朴魯榮대위는 後에 面談에서 말하기를 『나의 平生에 그렇게 熾烈하고 勇敢하게 싸우는 戰鬪를 본 것은 前無後無하다』라고 證言하였으니 當時 激戰相의 一班을 可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4. 이상과 같이 제2연대가 격전을 펴는 동안에 主抵抗線에서는 變함없이 제7, 제19 兩연대가 그 守地를 強化하고 있었는데, 사단장 張都暎준장은 바로 이때가 攻勢移轉으로 敵을 陣前에서 擊破할수 있는 好機라고 判斷한 결과 이를 美제9군단장 Hoge소장에게 建議하는 한편 사단 主力으로 하여금 攻勢移轉을 준비토록 命令하였으며, 이무렵 군단에서도 攻勢로 移轉키 위한 作戰方略을 熟議하였다.

5월 20일 : 攻勢移轉을 決心하여 군단의 同意를 얻게 된 사단장은 이날 05.00를 期하여 사단主力으로써 一大反擊을 가하는 陣頭에 나섰다. 이 反擊을 위한 部署로서는 제2연대로서 如前히 △427를 中心으로 한 前方據點을 確保케 함으로써 敵을 牽制토록 하였으며 그동안 제7, 제19 兩연대는 龍門山의 主抵抗線을 박차고 怒濤의 氣勢로 總突進하였는데 空中爆擊과 地上砲擊의 合同支援을 받는 가운데 兩연대는 火力으로서 敵을 制壓하면서 계속 진격하여 제2연대와 同一戰線上에서 合勢하게 되니 이 氣勢에 몰리게 된 敵의 大群은 이날 子正을 넘으면서부터 繼戰意思를 抛棄하고 앞을 다투어 退却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의 反擊氣勢야말로 千길되는 絶壁위에서 一時에 巨岩大石을 내려뜨리는 格이었다.

1. 제2연대 (장, 宋大厚중령)는 2晝夜에 걸친 激戰을 反復하는 동안 補給이 杜絶되어 食糧과 彈藥을 아껴야하는 切迫한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不拘하고 계속 陣地를 固守하였는데 이날 拂曉에 敵은 다시 攻勢를 취하여 3個연대 규모가 제3대대(장, 金斗逸대위)의 陣前 가까이까지 侵襲하였다.

이리하여 연대장은 제3대대로 하여금 敵을 牽制토록 하는 한편 2.5km 東쪽에서 羅山—

帶를 占領 防禦中인 제1대대로 하여금 逆襲을 敢行토록 하였다. 07.30에 羅山에서 出動한 제1대대는 位育골 溪谷을 따라 迂回하여 제11중대의 陣地 東쪽으로 突出하자 곧 敵의 背後를 強打하였으니 敵으로서는 마치 前門의 猛虎요, 後門의 豹狼格이 되어 進退維谷에 빠지고 말았다.

이리하여 10.30에 兩대대가 完全히 合勢하였는바 사단 主力이 攻勢로 移轉함에 따라 연대로서는 當面의 敵을 牽制하는 것이 더욱 効果的이라고 判斷한 결과 서서히 陣地를 옮기게 되어 이 敵과 接觸을 維持하면서 연대 지휘소 부근인 △427로 移動한 다음 여기에서 연대의 全兵力으로 四周방어陣地를 確保하였다.

이때에 마침 空輸로 補給되어 將兵들의 士氣는 더욱 冲天하였으며 굳게 점령한 陣地는 不退轉의 化身같이 되었는데 18.00에 이르러 다시 2個연대 규모의 敵이 △427를 攻圍하자 연대는 莫大한 損傷을 이 醜敵에게 가하여 이를 一蹴하고 말았다.

2. 제7연대(장, 梁仲鎬대령)는 사단 作命 제160호에 依한 攻勢移轉 명령을 받고 이날 05.00를 期하여 出擊을 斷行하였다. 즉 제2대대(장, 閔邦儆소령)를 右一線에, 제3대대(장 宋賡保소령)를 左一線에 展開하는 한편 제1대대(장, 印聖勳소령)를 예비로 控置하여 龍門山 右翼의 占據陣地를 떠나자 突風과도 比할만한 氣勢로 前方 4km에 있는 鳳尾山(△365)을 넘은 다음 제2연대 陣地의 東側으로 계속 突進하여 敵의 東側背를 不時에 強打하였다 이때에 敵線에서는 이 새로운 一團의 出現에 미리 對備할 겨를조차 없어 混亂의 極을 이루게 되었으며 이 기회를 捕捉한 연대는 계속 直衝突破를 加한 끝에 22.00에는 吉谷里 一帶를 奪取하고 따라서 차지하게 된 戰果도 해아릴 수 없을 程度였으니 古兵家가 말한 「兵은 勢也」라는 警句가 果然 眞理였다.

3. 제19연대(장, 林益淳대령)도 또한 05.00부터 攻勢移轉을 斷行하여 제1, 제3 兩대대를 左右 第一線으로 삼고 제2대대를 예비로 한 隊形으로 無人之境을 휩쓸듯이 可逸里를 단숨에 攻略하자 계속 岩沼里로 進擊하다가 이곳에서 敵의 主力과 對決케 되었다.

이때 敵은 제2연대의 堅陣에 부딪혀 進退의 自由를 얻지 못하자 左隣接인 제2사단과의 戰鬪地境上에서 突破口를 찾기 위하여 彷徨하다가 이번에는 雪上加霜으로 연대의 銳鋒에 激突함으로써 14.00부터 血戰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이때에 제1대대장 金俊敎소령은 陣頭指揮하였는데 그 勇猛無雙한 모습은 花郎의 再來와도 같았으며 發惡하는 敵을 守勢로 몰아넣고야 말았다. 또한 제3대대(장, 朴鍾吉소령)의 挾擊과 사단의 砲擊支援이 二重으로 奏効하여 4시간동안에 걸친 激戰끝에 이 敵을 擊滅하고 18.00부터 殘敵에 대한 追擊을 敢

行하였다.

그뒤 연대는 岩沼里까지 急進하여 19.00에는 제3중대가 우선 △328에서 제2연대 제2대대의 戰友들과 서로 連繫를 이루었으니 그 感懷가 어떠하였으랴! 이날은 이 線에서 追擊陣容을 整備한 다음 劍尖의 血痕을 딱고 銃身의 哨煙을 씻으면서 北쪽 敵線을 凝視警戒하였는데 果然 싸움이란 이기고 보아야 한다는 一場面이었다.

4. 이상과 같이 사단의 主力으로써 攻勢로 移轉하는 동안 主抵抗線에서는 工兵대대(장, 朴正采중령)와 사단敎育隊(장, 田東植소령)가 陣地를 占有하고 萬一을 對備하였으며 兩攻勢연대는 이날 제2연대와 완전히 戰線을 連結하고 前進據點을 確保하여 많은 戰果를 올렸는데 19일 07.00부터 이날 18.00까지의 사단 綜合戰果는 敵射殺 4,912명을 비롯하여 捕虜 9명과 機關銃 1정 그리고 各種小銃 312정 및 수류탄 1,390발을 얻었다. 그러나 우리의 5명의 勇士도 護國의 防牌로 散華하고 200명이 負傷하는 損失을 보았으니 勝利의 기쁨속에는 哀悼의 눈물이 뒤따르는 법, 이것이 戰爭의 縮圖이기도 한 것이다.

5월 21일 : 中部의 要衝인 龍門山을 侵奪키 위하여 血眼이 된 中共 제63군은 사단의 正面에서 致命的인 一大 打擊을 받아 그 主力의 殆半을 상실하고 공격개시 5일째 되는 이날 03:00부터 北上退却하기 시작하였으며 또한 이 潰退를 掩護하기 위하여 陣前에는 2個연대 규모의 殘置부대가 遲延戰을 펴려하였다.

이와같은 敵의 企圖를 미리 看破한 사단장 張都暎준장은 즉시 제2연대로 하여금 現占領陣地를 確保하면서 戰場整理를 促進토록 하는 한편 제7, 제19 兩연대로 하여금 이 殘置部隊를 攻擊토록 하였으니 이날 사단은 洪川江과 淸平江 以南의 담당지역 全域을 席捲하고 龍門山 방어전을 勝捷으로서 매듭짓게 되었다.

1. 이날 새로이 右一線이 된 제7연대(장, 梁仲鎬대령)는 06.00에 吉谷里 一帶의 占有線을 出發하여 長樂山脈을 東側으로 迂回한 다음 洪川江 南岸으로 急進하다가 △519(長樂골 뒷산) 능선에서 敵의 收容부대로 推測되는 대대규모의 兵力과 相衝케 되었으나 곧 이를 一擊하고 潰走하는 殘敵을 追擊하면서 擊滅戰을 편 끝에 110명을 射殺하고 2명을 사로잡았다.

그뒤 연대는 牟谷里와 彌沙里까지 진출하여 江 南岸一帶를 완전히 점령하고 彼岸의 敵情을 探索키 위하여 수색전을 전개하였다.

2. 제19연대(장, 林益淳대령)는 △328에서 攻擊을 개시하여 전날 제2연대 제3대대의 激戰場이었던 △353로 進擊하였는데 이곳에서 2個대대 규모의 敵과 정면으로 激突케 되었다.

敵은 그들 主力의 退却을 收容키 위함인지 執拗하게 抵抗하였으나 연대의 果敢한 突擊力과 火力支援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14.00부터 三分五裂되어 또다시 潰退하기 시작하였으며 연대는 이 好機를 捕捉하여 全面 突進으로 19.00까지 追擊戰을 展開한 끝에 827명을 사살하고 14명을 사로잡았다.

그 뒤에도 연대는 계속 追擊을 敢行하여 20.30에는 淸平江 南岸까지 진출한 다음△255-△192을 連하는 線上을 점령하여 제7연대와 戰線을 連繫하였다.

3. 한편 제2연대(장, 宋大厚중령)는 △427 一帶에서 전날의 陣地를 여전히 確保하면서 부대를 정비하는 동시에 尹熙徹중위가 지휘하는 제7중대를 羅山부근으로 躍進시켜 前方兩연대 사이의 虛隙을 消滅토록 措置하였는데 △353에서 제19연대로부터 痛擊을 받고 潰退중인 敵을 位谷里 一帶에서 邀擊하여 367명을 사살하고 9명을 사로잡았다. 이로써 미루어 보건대 當面의 敵은 完全히 潰滅狀態에서 九死一生의 血路를 찾아 彷徨하게 된 것을 能히 推測할 수 있었다.

이날 연대 指揮所에는 사단장이 巡視하여 그동안의 戰功을 致賀하고 激勵하였으며 특히 제6중대장 李佐均대위에게는 지난 17일에 있었던 寒德山戰鬪를 높이 讚揚하여 四等武功勳章과 함께 그 指揮下인 중대를 團體表彰하였다.

이상과 같이 사단은 17일부터 이날까지 5일동안에 걸친 勇戰敢鬪끝에 『龍門山戰鬪의 大勝』이라는 光彩 있는 記錄을 세우고 全國軍의 威容을 內外에 誇示하였다. 壯하도다. 六角靑星의 健兒들이여!

(2) 芝岩里—華川 進擊戰(5월 24일~28일)

(가) 작전계획

龍門山 敗戰에서 潰滅的 打擊을 받은 中共 제63군(장, 鄭維山)은 21일부터 戰線을 離脫하여 그들의 當初 집결지인 芝岩里부근으로 潰退하였으며 右翼 美제10군단 正面에서 退却中인 제12, 제15, 제27, 제60의 4個군의 敗殘兵은 春川을 거쳐 西北쪽으로 北上 退却하는 동안 新浦里와 芝岩里 부근을 彷徨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대체로 退散兵과 落伍兵등을 再糾合한 混成부대일 뿐만 아니라 到處에서 打擊을 받은 나머지 士氣如何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며, 또한 UN空軍의 機動路에 대한 集中破壞로 計劃的인 作戰指導와 補給支援을 받지 못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必要한 戰鬪力을 維持하지 못하면서 다만 損亡의 困厄만을 당하면서도 간신히 살아남은 무리들은 오직 救命圖生하기에만 汲汲하였을 것이다.

이에 反하여 사단의 全將兵들은 大勝의 결과로 洪川江 以南의 全域을 확보한 다음 功勞를 표창하고 각종 보급물자가 追送되었으므로 次期의 擊滅戰을 위하여 出動態勢를 갖추면서 공격명령의 一下만을 기다렸다.

이무렵 군단에서는 美 제8군의 計劃에 따라 Kansas線까지 進出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군단 作戰命令 제21호(5. 22. 18.00부)로써 下達하였는데 그 大要를 보면 군단은 敵에게 再編成과 再補給의 시간적 餘裕를 주지 않고 速攻으로써 決定打를 加하여 物心兩面에서의 戰意를 剝奪함으로써 一擊에 Kansas線까지 進出하려는 것이다. 特히 別紙 透明圖에 明示한 사단의 前進軸線과 공격목표는 春川과 加平間의 北漢江에 沿하여 設定된 中間目標 Mississippi線을 점령하고 계속 鷄冠山—北培山—加德山을 奪取하여 目標 Topeka線(사단 當面에서는 加德山과 修德山을 連하는 線)을 攻略한 然後에 그 北쪽 3km의 蒙德山과 芝岩里 一帶(目擊 "D")를 奪取하여 當面한 Kansas線을 확보토록 하고 공격 開始時間은 24일 07.00로 豫定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사단장 張都暎준장은 사단當面의 進出計劃을 검토하였는데, 中間目標에 이르기까지는 敵의 커다란 抵抗이 우선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Topeka線上의 加德山과 北培山 一帶에는 敵의 掩護부대가 旣設陣地에서의 頑強한 자항을 試圖할 것으로 推斷하고 于先 중간목표를 점령할때까지는 2個연대를 공격梯隊로 展開하는 동시에 1個연대의 예비로 하여금 이에 後續케 하다가 主力이 Mississippi線을 확보하게 되면 예비대를 곧 敵의 背後로 迂回케 함으로써 그 退路를 遮斷토록 하는 計劃밑에 끝내 全연대로써 包圍網을 形成케 하는 즉시로 이를 壓縮하면서 殲滅의 目的을 達成코자 決心한 결과 要旨 다음과 같은 사단 작전명령 제161호를 下達하였다.

『① 사단은 當面의 敵을 攻擊하여 Mississippi線을 점령한 다음 계속 擊滅戰을 전개하면서 Kansas線까지 진출하려 한다.

② 제7연대는 右一線으로 진격하여 北漢江 南岸의 江村里를 점령한 다음 계속 北培山 東側의 Topeka線을 目標로 공격을 준비하라.

③ 제2연대는 左一線으로 진출하여 白楊里와 西川里 一帶를 점령한 다음 계속 北培山 西側의 Topeka線을 目標로 공격을 준비하라.

④ 제19연대는 당초 豫備隊로서 第一線聯隊를 後續하다가 Mississippi線을 확보하는 즉시로 加平으로 躍進하여 別命에 따라 敵의 退路를 遮斷토록 준비하라.

⑤ 사단 지휘소는 중간목표를 奪取하면 位育里로 推進開設할 豫定이다.』

(나) 작전실시

5월 24일 : 사단은 전날까지 전투준비를 마치고 이날 07.00를 期하여 군단에서 指定한 中間目標인 Mississppi線(春川과 加平間의 北漢江線)을 向하여 攻擊前進을 시작하였다. 즉 제7연대를 右一線으로 제2연대를 左一線으로 各各 展開하는 한편 제19연대를 예비대로서 後續토록 하다가 第一線兩聯隊가 目標를 確保하면 곧 加平으로 躍進하여 다음 명령을 待機토록 하였는데 각 연대 모두가 命令한대로 進出하여 다음전투를 위한 前進基地를 占領하였다.

1. 제7연대는 연대장 梁仲鎬대령이 陣頭指揮하여 07.00부터 馬谷里에서 洪川江을 건너기 시작하여 10.00까지 全兵力의 渡江을 완료한 다음 제2, 제3대대를 左右梯隊로 한 攻擊隊形을 갖추고 담당地域內에 있는 山岳一帶를 넘어 공격을 재촉하였다.

그런데 제2대대(장, 閔邦穆소령)가 枷亭里 北쪽에 있는 △489로 進擊中 1개중대 규모의 敵의 저항을 一蹴한 다음 계속하여 追擊하였으며, 제3대대(장, 宋廣保소령) 역시 이에 呼應하면서 竝行공격하다가 江村里(北漢江 南岸) 부근에서 소대규모의 殘敵을 一擊한 뒤로 20.00부터 연대의 全主力은 江村里를 중심으로 한 △266 및 △275 一帶를 占有한 가운데 다음 전투를 준비하였다.

이와같이 연대는 敵의 큰 抵抗없이 一躍 11km를 北上하여 前進據點을 확보 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대지휘소는 長壽里에서 12.00까지 彌沙里로 前進開設하였다.

2. 제2연대(장, 宋大厚중령)는 加平 東側의 北漢江線을 目標로 이날 07.00에 공격前進하여 上博岩里에서 洪川江을 渡江한 다음 그 北쪽 1km인 △445를 經由 11.30에는 寒德고개(加平 東南쪽 8km)로 계속 進攻하였다.

그런데 敵은 대대규모의 掩護부대가 이 고개 左右의 △410 및△439 一帶에서 森林사이에 潛伏待機하고 있다가 突然 연대의 進路를 막고 遲延戰을 펴고자 企圖하였다. 그러나 急編混成으로 判斷되는 이 敵을 즉시 直衝突破하여 不過 한시간도 못되는 사이에 四散潰滅 하였다.

이리하여 연대는 계속 追擊끝에 18.00에는 加平 東쪽 3km의 西川里와 白楊里가 連하는 線까지 進出하여 擔當 全지역을 확보하였다.

3. 제19연대(장, 林益淳대령)는 當初 사단의 計劃대로 第一線 兩연대가 Mississippi線까지 進出하면 곧 加平으로 躍進키 위하여 08.00부터 洪川江 南岸에 集結하고 있다가 第一線이 渡江에 成功하자 그 뒤를 이어 機動하기 시작하였다.

그 뒤에 연대는 芳河里(加平 東南쪽 3km)까지 進出하는 즉시로 渡江을 준비하다가 18.00에 제2연대가 목표선을 確保함과 동시에 北漢江을 건너기 시작하여 19.30에는 垈谷里(加平邑 南端)에 집결하여 自體警備를 強化하였다.

4. 한편 사단에서는 隷下의 各연대가 이날의 목표線까지 豫定 計劃대로 진출하자 前方指揮所를 龍門山으로부터 10km 北쪽인 位育里로 前進開設하는 한편 砲兵제27대대(장, 朴晶浩소령)를 加平으로 躍進시켰으며 사단 各直轄隊는 洪川江岸으로 移動하였다.

이날 사단의 綜合戰果는 敵 314명을 사살하고 35명을 사로잡았으며 소총 3정과 수류탄 60발을 노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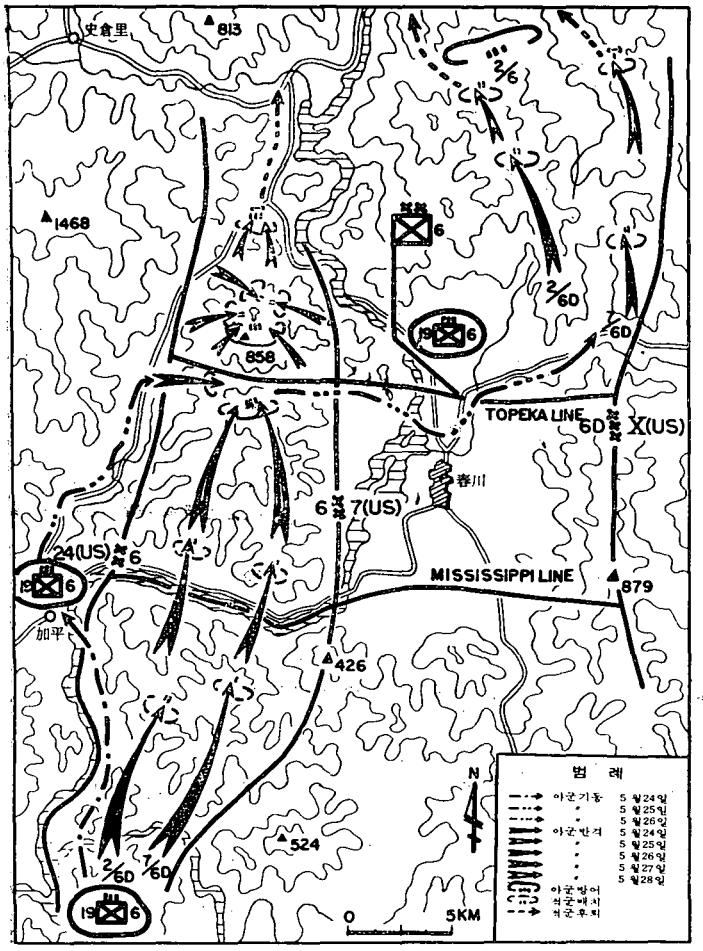
이렇듯 사단이 中間目標를 점령하고 계속 北進態勢를 갖추고 있을 때 右翼 美제7사단은 그 先頭부대가 春川 西南쪽 7km의 衣岩里까지 진출하였으며 左翼에는 美제24사단이 제2사단과 戰鬪正面을 交代한 뒤 加平부근까지 진출하여 계속 공격을 준비中에 있었다.

5월 25일 : 이날은 西南風이 불고 가랑비가 내렸으나 사단은 當初의 計劃대로 Topeka線(當面에는 加德山과 修德山이 連하는 線)을 目標로 한 進擊戰을 계속하였다.

이때 敵은 北漢江을 건너 北으로 潰退中인 中共 제63군단과 美제10군단 正面에서 後退中인 제60군의 殘敵이 加平 東北쪽 19km의 芝岩里를 中心으로 收容陣地를 占領하고 있는 것으로 推測되었으며 그 殘置부대는 芝岩里 南쪽 7km에 있는 北培山(△867) 부근의 旣設陣地에서 遲延戰을 展開함으로써 彼我間에 接戰을 惹起케 되었다. 사단은 이 敵에게 時間餘裕를 주지 않기 위하여 3個연대를 一線에 併立展開하여 北培山을 包圍한 다음 이 敵을 擊破한 끝에 目標線을 奪取하는 즉시로 前進據點을 확보하였다.

1. 제19연대(장, 林益淳대령)는 『北培山 後麓으로 躍進하여 敵의 退路를 遮斷하라』는 임무를 받고 이날 04.30부터 加平에서 山間小路를 따라 3시간 동안의 強行軍으로 北培山西側을 迂回한 다음 07.30에는 이미 華岳里 부근까지 進出하였다. 이윽고 제3대대(장 朴鍾吉소령)는 右一線에서, 제1대대(장, 金俊敎소령)는 中央에서 그리고 제2대대(장, 朴柱根중령)는 左一線에서 各各 北培山과 加德山(△858)을 連하는 線上에 全兵力을 展開하였다. 이때에 敵은 연대규모로 推算되는 兵力이 北培山의 嶮을 등지고 急造陣地를 점령하고 있었으나 正面과 背後의 兩側에서 殺到하는 제2, 제7연대의 同時 挾擊을 막아낼 도리가 없고 또한 사단 砲擊의 支援威力이 苛烈하여 마침내 一大 混亂을 演出케 되었으며 이 好機를 看破한 연대는 一齊히 突擊을 감행하여 守兵 714명을 사살하고 投降兵 22명을

◇ 상황도 제11호 芝岩里—華川 진격전



捕虜로 잡았으며 各種소총 27정과 수류탄 39발 및 砲彈 70발을 노획하였다.

그뒤 연대는 北培山을 中心으로 이날의 목표선을 확보하였으며 그동안 연대本部는 11.00부터 芳河里에서 躍進을 시작하여 16.00까지 玉女峯(加平 北쪽) 부근에 指揮所를 開設 하였다.

2. 제7연대(장, 梁仲鎬대령)는 이날 07.00부터 江村里에서 北漢江을 건너 △308를 經由하여 鷄冠山(△665)의 右側으로 進擊하였는데 11.00에 이르러 德斗院里 부근에서 2個중대 규모의 敵을 一擊으로 驅逐한 다음 北培山을 直衝하여 그 右麓에서 제2, 제19연대와 協同으로 敵의 收容陣地를 擊破한 결과 退却하는 敵 472명을 모조리 射殺하고 投降하는 敵42명을 捕虜로 잡았으며 각종 소총 40정과 各種실탄 1,939발을 노획하였다. 그뒤 17.30부터 芳洞里 부근에서 圓形陣地를 점령하고 다음 전투를 준비하였다.

3. 제2연대(장, 宋大厚대령)도 또한 07.00부터 北漢江을 건너 鷄冠山 西側을 따라 진격하였는데 △422에서 중대규모의 敵을 一蹴하고 계속 北培山으로 진출하여 左右의 第一線 兩연대와 挾擊戰을 편 끝에 189명을 사살하고 49명을 捕虜로 잡았으며 60mm 迫擊砲 3문을 비롯한 각종 소총 18정과 各種實彈 30,000餘발을 노획한 다음 沐洞里 부근의 據點을 確保하면서 다음 전투를 준비하였다.

한편 연대의 예비대인 제3대대(장, 金斗逸대위)는 연대 主力이 진출하는 동안 北漢江

南岸의 西川里에서 戰勢의 推移를 待機하다가 이날 15.30에 江 北岸의 △454 부근에서 중대규모의 敗殘兵이 退路를 찾아 發惡한다는 諜報를 入手하자 즉각 出擊하였다.

그런데 이 敵은 茂盛한 樹林과 가파른 絶壁 사이에 潛伏하면서 執拗하게 抵抗하므로 대대는 △454을 中心으로 한 包圍圈을 壓縮하자 이때에 제10중대에서 敵의 喇叭手 2명을 사로잡아 押送하였으므로 대대장 金斗逸大尉은 이 喇叭手로 하여금 제9중대 正面에 있는 溪谷에서 集合信號 나팔을 불도록 하니 一部의 敗敵이 喇叭手 위치로 集合하는가 하면 또 一部에서는 混亂을 惹起케 되었으며 이를 奇貨로 대대는 全面공격을 감행하여 敵 104명을 사살하고 44명을 사로 잡았다. 이러한 一瞬의 奇智에는 비록 兵術의 大家라도 嗟嘆을 아끼지 않으리라.

또 이날 연대장의 職務를 代理하던 宋大厚중령이 陸特甲 제392호로서 연대장에 임명과 동시에 임시계급 대령으로 昇進하였다.

4. 이상과 같이 사단의 全연대가 破竹之勢로 진출하자 이날 13.00에 사단指揮所를 加平으로 推進開設하는 한편 사단 수색중대를 敵主力의 集結地로 判斷되는 芝岩里 부근에까지 挺進케 하여 그 活動을 促進토록 하였다.

이무렵 右翼 美 제7사단은 春川을 奪還하고 左翼 美 제24사단은 修德山 (加平 北쪽 8km)을 確保함으로써 全군단이 대체로 等齊線에서 併進하였다.

5월 26일 : 사단은 이날 敵의 本據로 예상되는 蒙德山(△635)과 芝岩里를 직접 攻略키 위하여 3個연대를 併立하여 全面 同時공격을 斷行키로 하였는데 11.00에 이르러 美 제9군단장 Hoge소장은 要旨 다음과 같은 作戰命令을 下達하였다.

『① 군단은 一部의 戰鬪地境線을 조정한 다음 當面의 敵을 擊破하고 Kansas線을 占領하려한다.

② 제6사단은 現 進出正面을 1個연대로써 擔當케하되 目標 "D"(蒙德山과 芝岩里 一圓)를 奪取하면 美 제24사단에 戰鬪正面을 引繼하라.

사단主力은 春川 東北方의 새로운 戰鬪地境으로 이동한 다음 계속하여 華川 東側의 Kansas線을 目標로 진격하라.

③ 이동 완료시간은 26일 22.00로 豫定하며 美 제7사단장과 機動路의 使用을 협조하라

④ 以下省略』

이 命令에 따르면 군단은 當初에 設定한 Topeka線을 점령함으로써 사실상 美 제8군에서 計劃하고 있는 Kansas線을 確保케 되었으나, 右翼 美제10군단 正面의 Kansas線은 華

川貯水池에 沿하여 設定된 까닭에 右翼군단의 進出遲延으로 全戰線의 即應態勢를 完成치 못하게 되자 이를 調整하기 위하여 군단의 戰鬪正面을 東北쪽으로 擴張하기에 이른것이다. 이에 따라 사단은 목표 "D"를 奪取하는 것으로 當面의 전투를 終結짓고 새로이 擴張된 전투正面인 군단 右一線方面으로 兵力을 轉用하여 春川 東北쪽에서 華川貯水池 南岸의 Kansas線을 目標로 진격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사단장 張都暎준장은 現 正面을 제19연대로 하여금 擔當케 하되 제2연대의 제2대대와 사단교육대를 이에 增援케 하여 增強된 연대로서 목표 "D"를 攻略토록 하는 동시에 제7, 제2연대(一)로써 새로 指定된 正面으로 急轉하여 공격을 준비토록 명령하였다.

1. 제19연대(장, 林益淳대령)는 이날 蒙德山을 목표로 05.30에 공격을 개시하였는데 제3대대(장, 朴鍾吉소령)로서 北培山 後麓으로부터 梧月里쪽으로, 제2대대(장, 朴柱根중령)로서 "납실고개"를 넘어 蒙德山의 西側을 各各 포위토록 하고, 제1대대(장, 金俊敎소령)로서는 敵의 退路를 遮斷할 目的으로 華岳里에서 三巨里쪽으로 機動토록 措置하였다.

그런데 12.00에 사단장으로부터 목표 "D"를 연대 單獨으로 공격 점령하라는 命令과 동시에 제2연대의 제2대대와 사단교육대의 增援을 받게되자 연대장은 攻擊隊形을 調整하였다. 즉 제3대대로서 梧月里에서 敵의 東側背를 공격토록 하고 正面에서는 增援된 2個대대로써 同時에 包圍網을 形成케 하였으며 제2, 제1대대는 當初의 計劃대로 敵의 西側과 背後에서 策應토록 한 다음 사단의 砲兵支援으로써 包圍圈의 壓縮을 容易토록 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敵은 이미 退路를 잃고 五里霧中에서 混迷하는 潰滅直前의 場面을 露呈하게 되고 見敵必滅에 불타는 연대의 殲殺戰法 앞에 敵은 고스란히 무릎을 꿇게 되어 여기에서 도합 1,585명을 사살하고 79명을 사로잡았으며 60mm迫擊砲 1문과 自動小銃 4정 그리고 각종 소총과 탄약 1,000餘點을 노획함으로써 蒙德山의 主人이 되었으니 由來로 皇天은 正義에 불타고 果敢無雙한 軍兵에게만 蒙德의 特惠를 베푸신다는 것을 實證한 것이리라.

이무렵 一部의 敵은 제1, 제2 兩대대의 間隙을 따라 左前方으로 三十六計를 꾀하였으나 左翼 美 제24사단의 正面에 부딪치는바 되어 그 生命을 부지하지 못하거나 또는 投降하고 말았다.

2. 제7연대(장, 梁仲鎬대령)는 芳洞里(鷄冠山 後麓)에서 07.00에 공격을 개시하여 10.00에는 北培山을 東側으로 迂回한 다음 계속 蒙德山으로 向한 攻勢를 취하였는데 前述한 바와 같은 사단장의 명령으로 13.10에 다시 芳洞里로 集結하여 車輛機動으로 美 제7사단의 戰鬪區域을 通過한 然後에 20.00에는 淸平里(春川 東北쪽9km)에 進出하는 즉시로 △563 南麓을 確保하면서 다음 전투를 준비하였다.

3. 제2연대(장, 宋大厚대령) 역시 07.00에 공격을 개시하여 加德山(蒙德山 南쪽 2km)을 목표로 進擊하다가 사단장으로부터 『1個대대로써 現 進出正面을 擔當케 하여 제19연대에 배속함과 동시에 主力은 새로운 戰鬪正面인 左一線으로 躍進하여 계속 진격할 준비를 하라』는 要旨의 명령을 받게 되자 연대장은 제2대대(장, 金德福소령)로 하여금 現 攻擊正面을 引受토록 하여 제19연대를 增援케 하는 동시에 연대 主力의 機動준비에 着手하였다.

이리하여 13.00에 沐洞里로 집결한 연대(一)는 車輛機動으로 春川을 通過하여 22.00에 鉢山里(春川 北쪽 8km) 부근을 確保하는 즉시로 다음 전투에 對備 하였다.

4. 이렇듯 一面 공격 一面 戰線整理의 상황속에서도 포병 제27대대(장, 朴晶浩소령)는 如前히 石場(加平 北쪽 5km) 부근에 陣地를 放列하고 제19연대의 進出을 支援하였으며 工兵대대는 加平에서 사단지휘소를 직접 경비하였다.

5월 27일 : 사단은 이날 前方指揮所를 春川 北쪽 5km의 泉田里에 開設하고 진격을 계속하여 主力은 38°線을 넘어섰으며 제19연대는 目標 "D"를 점령하였다.

1. 제19연대(장, 林益淳대령)는 이날 02.00에 增援된 2個대대를 原隊로 復歸시킨 다음 07.00부터 當面의 최종목표인 芝岩里로 向한 진격을 계속하였다.

그런데 圓坪里 부근에서 대대규모의 敵이 發惡的으로 저항하였으나 제1대대(장, 金俊敎소령)의 突擊으로 이를 縱橫으로 擊滅하였으며, 그 뒤부터는 소대 또는 중대규모의 一群을 形成한 敗殘兵이 包圍網을 脫出코자 芝岩里를 中心으로 하는 一帶에서 彼我의 相互衝突이 있었지만 연대의 旣成된 包圍圈을 끝내 벗어나지 못하고 死境을 헤매다가 결국 사살 또는 投降으로써 終末짓고 말았다.

이리하여 연대는 504명을 사살하고 879명을 捕虜로 잡았는데 이 捕虜中에는 분대규모의 通信架設兵이 自進投降하는가 하면 심지어 우리쪽의 徒手勞務者가 執銃한 敵을 捕虜로 잡아내기도 하였으니 士氣의 高下如何는 이같은 現象을 빚어내는 것이 戰爭터의 實相이기도 한 것이다. 그리고 제6중대(장, 裵漢圭중위)가 加德山 北麓에서 2個小隊 규모의 敵을 포

위하자 그들은 처음부터 對戰을 포기하고 『밥을 달라』고 哀乞하기도 하였으니 우리 將兵들은 도리어 그들을 優先的으로 取食케 하였다.

이로써 그들의 魁首들은 스스로 侵襲하면서도 그들 兵士들에게 『補給없는 鬪爭』을 서슴치 않고 強要하였다는 實證을 보여주었다. 이것이 共産主義者들의 正體인 것이다.

연대는 이날 그밖에도 말(馬) 114匹을 비롯한 각종의 무기와 탄약 도합 10,254點 以上을 노획하였다. 이리하여 목표 "D"를 완전히 점령하였으니 可謂 所向無敵이라 할 것이다.

2. 한편 제7연대(장, 梁仲鎬대령)는 전날의 準備陣地에서 이날 07.00부터 공격을 개시하여 華川貯水地 南岸의 Kansas線을 목표로 진격하였는데 12.00에 春川 東北쪽 16km의 芙蓉山(△785)에서 2個중대규모의 敵을 擊破하고 뒤이어 38°線을 넘어 乘勝長驅로 追擊을 계속하다가 18.00에는 右翼 美제10군단 隸下의 美제1해병사단 正面에서 西北쪽으로 退却中인 2個대대 규모의 敵을 楡村里 부근에서 捕捉하자 그中 310명을 사살하고 34명을 사로잡았다. 그 뒤에 將兵들은 서로 앞을 다투는 格으로 進擊을 재촉하여 △352—△402의 峻嶺을 차례로 奪取하자 비로소 新綠이 우거진 大自然 속에서 小憩하면서 다음 전투를 준비하였다.

3. 제2연대(장, 宋大厚대령)는 華川發電所를 목표로 07.00에 공격을 개시한 다음 接敵없이 진출하여 春川 北쪽 12km의 古城里 부근에서 38°線을 넘어 15.30에는 華川 東南쪽 8km의 龍華山(△878)을 목표로 勇躍進攻하였다.

그런데 敵은 退散하는 殘兵을 收容키 위한 것으로 判斷되는 대대규모의 掩護부대로써 이 龍華山高地를 據點삼아 執拗하게 저항하여 한동안 熾烈한 火力戰을 展開하였으나 제3대대의 과감한 正面공격과 제1대대의 左側面 挾擊으로 敵은 兩面에서 同時에 決定打을 당하여 90분동안의 抗戰이 오히려 死傷者만을 더하게 되었으니 연대는 여기에서 386명을 射殺하고 22명을 捕虜로 잡은 다음 3.5"Rocket砲 1문과 60mm 박격포 1문, 그리고 각종 소총 46정과 각종탄약 3,351발을 노획하였다. 이어서 연대는 계속 殘敵을 追擊하다가 22.00부터 이 高地를 確保하면서 멀리 後洞 近處에까지 探索隊를 파견하고 다음날의 決戰을 준비하였다.

4. 포병 제27대대는 步兵 一線 各연대가 破竹之勢로 Kansas線 南쪽 5~9km 지점 까지 躍進하자 加平과 春川을 경유하여 鉢山里(春川 北쪽 8km)에 砲兵陣地를 이동하는 즉시로 계속 支援火力을 發揮하였다.

또한 제19연대에 配屬된 2個대대는 이날 13.00에 各各 原隊로 復歸하였는데 勝戰의 밤은 고요하였지만 戰友를 잃은 將兵들의 心懷는 반드시 歡喜一途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더구나 同族相殘과 同人種相戮에 있어서랴.

5월 28일 : 사단은 이날 本戰鬪의 최종목표인 Kansas線으로 向한 追擊戰을 계속하였는데 제2연대가 一敗塗地하는 殘敵을 擊滅하고 華川 發電所를 점령한데 이어 17.00에는 兩연대의 全主力이 華川貯水地 以南의 全域을 확보하였으며 제19연대는 아직 芝岩里에 머물러 附近 一帶의 수색전을 마치고 主力과 合勢키 위한 이동을 준비하였다.

1. 제7연대(장, 梁仲鎬대령)는 06.00부터 공격을 시작하여 華川貯水池 南端의 楡村里로 急進하였으나 廢墟化된 江村에서는 敵影을 찾을 수 없었다. 연대는 계속 그 東北쪽의 屛風山(△796)으로 突進하자 退路를 잃은 50명 규모의 敵이 저항없이 投降하였는데 그들의 顔色은 憔悴하고 服裝은 襤褸하기 짝이 없었다. 묻노라, 이들의 公敵이 과연 누구였을까~ 연대는 그 뒤에 계속 진출하여 當面의 Kansas線을 確保한 연후에 華川貯水池의 江岸에 沿한 진지를 점령하였다.

그런데 이날 예비대이던 제1대대(장, 印聖勳소령)는 主力이 진출하는 동안 芙蓉山 一帶의 陣地를 점령하고 있던 바, 右翼 美제10군단의 正面에서 北上退却중인 500名 以上을 헤아리는 敗殘兵들이 대대의 陣地 東南쪽 3.5km인 烽火山(△741)에 집결中이라는 諜報를 入手하고 연대장의 命令으로 急遽 突擊戰을 감행한 끝에 218명을 사살하고 50명을 捕虜로 하였다. 共産軍의 特性의 하나로서 『相對가 弱하다면 實力以上으로 強하여지고 相對가 強하다면 實力以下로 弱하여진다』는 것이 果然 사실이다.

2. 제2연대(장, 宋大厚대령)는 이날 06.00에 龍華山 부근의 진지를 박차고 九萬里 發電所를 목표로 追擊戰을 계속하였는데 2個중대 규모의 敵이 成佛嶺(△807) 一圓을 점령하고 遲延戰을 試圖하자 연대장은 3個대대를 全力展開하여 포위망을 형성케 하고, 이를 壓縮공격한 끝에 300명을 사살하고 58명을 사로 잡았다. 또한 연대는 이 전투에서 車輛 2台와 野砲 2문, 그리고 被服과 醫藥品 등을 노획하는 한편 追擊을 재촉하여 17.00에는 九萬里 發電所를 점령하였으니 이로써 사단은 龍門山에서 反擊以來 다시 38°線을 넘고 一擧에 Kansas線까지 진출함으로써 華川貯水池 以南의 全域을 掌握하게 되었다.

3. 한편 제19연대(장, 林益淳대령)는 蒙德山과 芝岩里를 奪還한 뒤 이날은 그 北쪽 一圓의 山岳地帶를 수색하였는데 圓坪里—新浦里—梧灘里線에서 도합 786명의 投降兵을 捕虜로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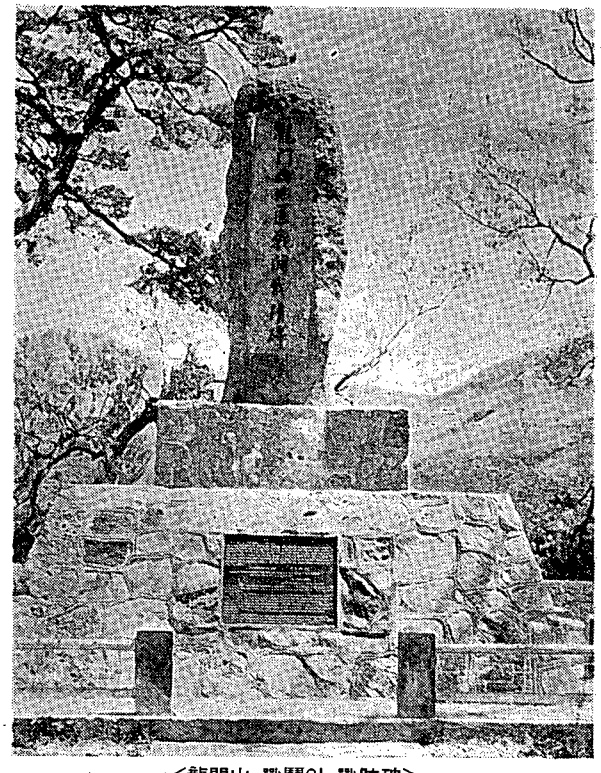
이는 左右의 隣接사단이 分進合擊으로 退路를 遮斷하자 深山幽谷中을 彷徨하다가 萬策이 다하므로 저항없이 投降한 것으로 推斷되며 소대의 병력으로써 能히 대대병력의 捕虜를 押送하는 珍風景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그뒤 연대는 전투正面을 美제24사단에 引繼하고 本隊와 合勢키 위한 機動을 준비하였다.

4. 이상과 같이 사단은 本戰鬪의 최종목표인 Kansas線까지 진출한 다음부터는 곧 次期 作戰에 對備한 부대整理에 着手하였는데 이날 지휘소에는 UN군사령관 Ridgway대장이 직접 訪問하여 사단의 戰況을 聽取하고 그간의 戰功에 대한 致賀를 아끼지 않았다.

라. 전투 후의 개황

敵의 動向: 軍의 反擊으로 全戰線에서 北上退却한 敵은 대체로 華川貯水池와 臨津江을 東西로 連結하는 kansas線 北쪽에서 새로운 一戰을 企圖하였거니와, 사단의 戰術地域 內에서는 當初 龍門山으로 侵攻하였던 中共 제63군(장, 鄭維山)의 敗殘兵이 加平과 芝岩里를 거쳐 史倉里 北쪽으로 潰走한 뒤 金化一史倉里를 連하는 山岳據點을 利用하여 부대를 再編하는듯 하였으며, 그동안 사단이 새로운 戰鬪地境을 引受하여 華川貯水池 南岸까지 進攻하게 되자 中共 제20군이 正面에 새로이 나타나 華川貯水池와 北漢江 上流의 天然 障碍를 끼고 새로운 陣地를 構築하기 시작하였다.



<龍門山 戰鬪의 戰跡碑>

이 中共 제20군(장, 廖政國)은 隷下인 제58, 제60의 兩個사단으로 江北岸에 點綴하는 山岳地帶를 半永久化陣地로 補強하는 한편 補給을 위한 시설까지 마련하고 有蓋壕와 個人 散兵壕 및 交通壕로 連結되는 工事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장차 地域방어로서 그 北方의 金化와 金城을 連하는 要域을 確保하는 동시에 中, 東部에서 退却中인 부대를 掩護키 위한 當然한 戰術的 措置로 判斷되었다.

이와같이 그들은 白岩山(△1,179)을 基點으로 한 山岳要地에 占據함으로써 사단의 進出을 極力 막고자 꾀하였으나 UN空軍의 補給線

破壞와 사단의 強壓으로 所期의 뜻을 能히 이루지 못하였다.

我軍의 動向: 이에 反하여 사단은 龍門山에서의 攻勢移轉 以來로 戰必勝과 攻必取의 연속으로 北塔山과 芝岩里를 奪還하고 다시 38°線을 넘어 Kansas線까지 60km 이상이나 北進한 터이라 將兵들의 士氣는 드높고 補給 또한 圓滑하여 비록 前進 統制線인 現戰線上에 一旦 머물기는 하였으나 계속 攻勢를 준비하기 위하여 부대의 精銳化를 促進하였다.

이무렵 군단에서는 28일 15.30附로 군단 작전명령 제22호를 下達하였는데, 그 要旨에 依하면 군단은 다시 北進을 계속하여 白岩山—金化를 連하여 設定한 目標 Ermine線을 奪取함으로써 敵의 作戰策源의 中心地인 鐵의 三角地(金化—平康—鐵原)를 無力化하려는 것이 었으며, 이에 따라 사단은 北漢江 上流에 沿한 군단의 右翼사단으로서 白岩山 東側一帶의 要域을 強占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사단장은 제2, 제7 兩연대로 하여금 陣地前方의 敵情探索과 陣內部의 殘敵索出을 併行토록 하는 한편 제19연대의 機動을 서둘러 本隊와의 合勢를 보게 되자 6월 初부터의 本格的인 공격개시를 豫期하면서 새로운 一戰을 준비하였다.

龍門山 방어전과 進擊戰을 通한 사단의 종합 戰果 및 損失은 다음과 같다.

戰 果

敵射殺 : 17,177명
捕虜 : 2,183명
鹵獲 各種砲 : 19문
Rocket砲 : 9문
81mm迫擊砲 : 10문
60mm迫擊砲 : 8문
기관총 : 54정
각종소총 : 851정
수류탄 : 2,293 발
각종실탄 : 1추럭(Truck) 15箱子
포탄 : 39상자, 4,042발
말(馬) : 137匹
被服 : 1추럭분
Truck : 2臺

損 失

전사—장교 : 9명
병 : 98명
전상—장교 : 26명
병 : 468명
실종—장교 : 6명
병 : 27명

§ 參戰者의 證言

◇ 제6사단 제2연대 제1대대 제1중대 제2소대 소대장 全濟鉉 중위(1966. 3 .2. 陸本 秘書室 대령)

이 戰鬪는 指揮官으로부터 末端 兵士에 이르기까지 實로 勇敢하게 싸운 戰鬪이다.

當時에 사단에서는 主抵抗線을 龍門山 一帶에 選定하여 제7, 제19 兩연대를 配置하고 宋大厚 중령(연대장 代理勤務)이 指揮하는 제2연대를 洪川江 南岸의 前進陣地로 推進한 가운데 防守態勢를 取하였는데, 우리연대가 前進陣地로 出發하기에 앞서 사단장(張都暎 준장)의 至嚴한 訓示가 있었으며, 연대의 將兵들도 또한 史倉里 戰鬪의 汚辱을 씻기전에는 살아서 돌아올 생각을 버리자고 다짐하년서 各者 鐵帽에 "決死"라고 써붙이고 日産 트럭 5臺에 實彈과 食糧을 滿載하였으며 심지어는 소대장과 중대장까지도 뒷축없는 양말에다 食糧을 넣어서 목에걸고 出動하였다.

이때 나는 제1중대의 제2소대장으로서 중대장 金圭炳대위의 指示에따라 彌沙里附近에서 중대의 右第一線陣地를 擔當하여 主陣地와 豫備陣地 및 補助陣地까지 構築하고 鐵條網을 架設하여 萬般의 臨戰態勢를 갖추었다. 그런데 막상 17일부터 交戰이 시작되고 보니 워낙 數的으로 優勢한 中共兵勢가 물밀듯이 波狀攻勢를 取하여, 初動에 그 銳氣를 꺾어 놓았으나 1個사단이 우리 대대를 全面包圍함으로써 不眠不休의 晝夜激戰을 展開케 되었다.

이리하여 우리는 彌沙里 뒷산에서 四周防禦陣을 形成하고 10倍가 넘는 敵과 對決케 되었는데 只今도 기억에 生生한 것은 대대장(洪載瑞대위)이 直接 陣頭에 나서서 手榴彈을 5個나 던지다가 破片으로 負傷을 입은것과 政訓兵(姓名未詳)이라는 어떤 兵士는 "6.25當時 避難民의 隊列을 보지못하였느냐?"고 밤새도록 喊聲을 지르면서 勇戰奮鬪하던 모습이다.

이와같이 우리는 渾然一體가 되어 屠戮戰을 展開하다가 연대장의 命令에따라 羅山으로 隨意撤收하였을 때에는 實彈이 不足하고 食糧이 바닥이나서 나무껍질을 벗겨먹는 情況까지 惹起되었으나 연대의 主力이 合勢하여 끝까지 前進陣地를 固守하였는데, 激戰 이틀뒤에 주먹밥과 레이숀 및 實彈等이 空輸補給되자 陣地마다 歡聲이 터지고 士氣가 冲天하였으며, 또한 航空支援이 奏効하였고 거기에 사단장이 L—19를 타고 戰線을 直接 巡視하면서 激勵할 정도로 모든지원을 集中하여 龍門山의 大勝을 걷우었다.

이戰鬪에서 將兵들의 鬪魂은 길이 빛날것이며 그 戰功으로 나도 金星花郎勳章을 받았다.

§ 戰　訓

1. 四周防禦陣의 效用

中共軍의 攻擊方式은 機動進攻法과 尖刀突進法을 비롯하여 侵透分割法이니 中心開花法이니 라와戰法(참조 : 旣刊 제5권 中共軍의 編成과 戰法)등 許多한 手法을 헤아릴 수 있으나 대체로 그들이 韓國戰에서 즐겨 쓰기는 火力보다도 兵力에 依存하는 人海戰法과 相對方의 戰鬪地境이나 配置線사이의 間隙이나 局部外를 突破 또는 包圍한 다음 戰果를 擴大하는 迂回機動手法 및 夜間攻擊이나 山岳侵透 등을 主로하였다.

이들은 1950년 10월 韓國에 侵入한 以來 이러한 手法으로 계속 侵攻하여 그때마다 苦戰한 例가 있었으니 溫井里戰鬪나 雲山—寧邊戰鬪, 또는 德川 附近戰鬪가 그러했고 38°線上의 攻防에서도 여러모로 體驗한 바 있다.

이러한 經驗을 거울삼아 사단은 本戰鬪에서 敵의 多方面攻擊에 對應할 수 있는 四周방어陣을 採擇하였는데 이것은 主抵抗線 前方에 있는 重要據點을 確保하고 이리 據點四面에 主陣地와 補助진지 및 예비진지 등의 충분한 陣地構築과 障碍物을 設置하여 360°의 圓形陣으로 對應하는 것으로서, 敵이 前哨線을 突破하고 據點 後方에까지 侵襲하였을 때에도 退陣함이 없이 敵의 進出을 牽制하고 衝擊을 加하면 必然的으로 攻圍케 될 것이며 이때 四周방어 진지에서는 指揮官이 예비대를 이끌고 中央에서 陣頭指揮하여 突破口가 생길 때마다 예비대로써 塡塞하면서 계속 牽制하게 되니 이러한 동안 主抵抗線에서의 砲兵支援과 空中에서의 爆擊 및 主力의 攻勢移轉 또는 陣前出擊으로 이 敵을 擊破하는 것이다

當사단의 제2연대가 18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四周방어가 그 좋은 例이며 이 방어의 성공이 本戰鬪를 勝利로 이끈 契機가 되었다.

2. 鬪魂

精神武裝이 戰術에 앞서는 것은 古今의 戰史가 證明하는 바이지만 이 戰鬪에서 제6사단의 將兵들이 다시 한번 立證하였다.

사단은 史倉里 一戰의 雪辱을 위하여 이 戰鬪에 앞서 『民族意識 高揚週間』을 設定하여 必勝無敗의 最後決戰을 다짐하였으며 특히 제2연대는 저마다 鐵帽에 決死라는 標識까지 붙이고 臨戰하여 不死神의 鬪魂을 유감없이 발휘하였으니 이 전투의 大勝은 『必死를 覺悟한 鬪魂』이 그 根基가 된 것이다.

§ 研 究

1. 綜合戰果

기간중 사단의 종합전과는 推定射殺이 많기때문인지 그 統計가 文獻에 따라 서로 差異가 있는데 이것을 綜合分析한 결과 比較的 信憑度가 높은 陸本定期作戰報告 제6권(1951년 5월分)에 收錄된 統計를 많이 採擇하였다.

그 相異한 內容을 보면

①1957년 7월 28일에 刊行한 陸軍戰史 제6권 제63面에는 敵射殺 29,156명에 捕虜가 3,252명으로 되었으며, ② 1951년 6월 5일에 陸軍本部에 보고한 사단의 戰鬪詳報에는 사살 21,552명에 捕虜가 2,617명이다. ③ 1968년에 編纂한 제6사단의 師團史에는 사살 21,428명과 포로 2,543명으로, ④ 또한 1951년 6월 5일자 國際新聞에는 사단장 證言이라 하면서 사살 21,386과 포로 2,328명을 얻어 敵 2個군단을 殲滅하였다고 하였고 ⑤ 1964년 6월에 "思想界" 誌上에 發表한 統計에는 사살 29,156명과 포로 3,253명으로 發表되었다.

이상의 여러 統計를 分析한 결과 時間과 場所가 明記되고 그 狀況이 收錄된 公開書類인 定期作戰 報告分을 擇한 것이다.

2. 戰術研究資料

今般 戰鬪에서 捕虜로 얻은 中共 제27군 사령부 政治要員의 陳述에 依하면, 敵이 보통 韓國軍의 戰鬪正面을 擇하여 그 主力을 侵攻하는 理由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첫째 : 韓國軍은 UN軍에 比하여 裝備가 劣勢하고 山岳地帶를 擔當하므로 侵透하기가 容易하다.

둘째 : 韓國軍은 山岳戰鬪에서의 防守力이 弱한 反面에 中共은 山岳機動을 함으로써 航空被害를 減少시킬 수 있다(韓國軍이 UN軍보다 山岳戰에 弱하다는 見解는 믿을 수 없는 獨斷이고 錯覺이다)

세째 : 集中的으로 韓國軍 正面을 突破하여 그 退路를 遮斷하면 UN軍의 優秀한 裝備를 入手할 수 있다.

네째 : 韓國軍에게만 敗戰을 強要함으로써 UN軍과의 離間을 劃策할 수 있다.

以上의 內容을 吟味하여 본다면 一笑에 부칠만한 것이 있지만 어떠한 參考資料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大關嶺 防禦戰 (1951년 5월 22일 부터 1951년 5월 25일 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15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제1군단	장	소장	白	善	燁	제2대대 장	소령 朴 基 淳
수도사단	장	준장	宋	堯	讚	제3대대 장	소령 具 泰 益
제1연대	장	대령	韓		信	제10포병대대장	중령 房 景 源
제1대대	장	소령	咸	溶	翼		
제2대대	장	중령	丁	世	鎭	지원부대	
제3대대	장	소령	李	聖	鳳	제20포병대대 장	중령 沈 鶴 仁
제1기갑연대장		대령	李		龍	美제7함대 사령관	중장 A.D.Struble
제1대대	장	소령	車	文	錫		
제2대대	장	소령	朴	翊	均	인접부대	
제3대대	장	소령	林	觀	默	右인접 제11사단 장	준장 崔 德 新
제26연대	장	대령	徐	延	哲	左인접 제9사단 장	준장 崔 錫
제1대대	장	소령	權	用	性		

敵 軍

中共	제3야전군		陳		毅	北共	제5군단	중장 方 虎 山
	제9병단		宋	時	輪		제12사단	소장 崔 忠 國
	제27군		彭	德	淸			

나. 전투전의 개황

我軍이 5월 7일 부터 展開한 Missouri線 進擊戰에 있어서의 수도사단은 제1군단의 左翼으로 Green線(襄陽—長承里—寒溪里를 連하는 線)으로부터 躍進하여 敵의 前進據點으로 判明된 加里峯—鞍山—路洞(雪嶽山 西北쪽 8~10km 一圓)을 확보한 然後, 北共 제5군단 예하 제6 및 제12사단의 主力을 擊破하면서 계속 Missouri 線으로 進出하고 있었는데 5월 16일을 期한 소위 敵의 제2次 春季攻勢로 말

미암아 全 戰線에서 彼我間의 激突을 보게되었다.

이리하여 사단은 一旦 공격을 멈추고 決戰防禦로 전환한 다음 總勢를 몰아 侵攻하는 敵에 對한 血戰을 反復하였다.

그러나 中東部戰線의 友軍 陣地의 一角이 무너져 戰況이 不利하게 되자 사단은 육군본부의 戰線整理 계획에 따른 군단 命令으로 Waco線(東海岸 南涯里에서 西南向하여 頭老峯—五台山—피앗골을 連하는 線)으로 隨意撤收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사단은 襄陽에 集結하여 戰力을 整備한 다음 5월 18일 14.00에 Waco線으로 機動하였는데, 다음날인 19일 오후에는 제1기갑연대가 右一線으로 鐵甲嶺(△1,013)에, 제26연대가 左一線으로 頭老峯(△1,422)—東台山에 각각 진지를 占領하고 決戰태세에 들어갔으며, 한편 제1연대는 이날附로 군단 直轄부대가 되어 江陵으로 直行하여 제11사단 제20연대(장, 朴元根 대령)가 遂行하던 군단 左側背에 對한 防備임무를 引受하였다.

이와 함께 제20연대는 군단 警戒부대로서 제1 및 제3군단의 間隙을 뚫고 東進을 試圖하는 敵에 對備하는 일방, 제3군단의 撤收兵力을 收容키 위한 收容부대의 임무를 附與받고, 急遽 橫溪里—楡川里로 轉進하였다.

한편 제11사단의 제9 및 제13兩연대는 一線梯隊로서 當 사단 右翼과 連繫하여 注文津 西北일대에서 해안선을 끼고 防禦線을 形成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東部戰線으로 侵攻한 北共 제5군단과 增援된 제2군단의 主力은 我軍의 隨意撤收에 따라 수도 및 제11 兩 사단의 主抵抗線을 目標로, 主攻을 수도사단에 指向하면서 集中 殺到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 北共 제12사단은 北共 제2군단의 예하 1개연대와 合流하여 그들의 常套的인 戰法의 하나인 中央突破를 敢行한 結果 5월 20일 오전에 그 先頭대대가 제26연대 正面인 頭老峯부근에 出沒함으로써 彼我間에 激突을 보게 되었다. 특히 中東部戰線으로 侵攻한 中共 제3야전군의 제9병단 소속 제27및 제32兩군과 北共 제3군단의 主力은 我 제3군단의 방어線을 突破하면서 계속 南下하더니 이날 오후에는 廣院里 일대에서 迂回하여 月精寺를 경유 楡川里—下珍富里線까지 進出하였다. 다음날인 21일 午後에 이르러서는 이들 가운데 中共 2개사단 규모의 兵力이 그 餘勢를 몰아 京江道路를 遮斷하고 東進을 企圖하면서 壓迫을 加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문에 이곳을 防備하던 제20연대(장, 朴元根대령)는 兵力의 劣勢를 무릅쓰고 百日坪—高橋—六基里 線에서 血戰을 展開하게 되었거니와 이를 迂回突破한 中共군의 先鋒은 六關嶺을 넘어 江陵을 攻略코자 企圖하였다.

이와 같이 正面에서 侵攻을 加하는 北共군과 左側背를 威脅하는 中共軍의 兩面공세를 받게 됨에 따라 군단장 白善燁소장은 우선 군단 直轄부대로 江陵에서 警戒임무를 遂行하던 제1연대(장, 韓 信대령)를 5월 21일 14.00附로 수도 사단에 復歸시킴과 동시에 主力을 六關嶺으로 急派하여 敵의 攻勢를 牽制, 阻止토록 하는 한편 1개대대 兵力으로서 제20연대를 增援케 하였다.

이로부터 제1연대는 곧 江陵에서 躍進하여 21.00에 그 主力은 六關嶺—草幕谷일대에서 急編방어를 실시하고 30分 뒤인 21.30에 中共의 先頭部隊와 激突하여 彼我가 서로 血戰을 展開하였다. 한편 제20연대와 協同作戰을 위하여 投入한 제2대대(장, 丁世鎭중령)는 제20연대 右端인 百日坪—黃柄山을 連하는 線에 陣地를 占領하여 相互 連繫한 다음 侵攻하는 敵에게 큰 打擊을 加하여 勇戰奮鬪하였으

나, 이때의 敵은 그들의 常用手法으로 我軍을 包圍 壓縮하면서 急襲을 기도하였는데 그 狂暴가 絶頂에 達하여 제20연대와 동시에 惡戰苦鬪를 免치 못하게 되었다.

더욱이 이무렵에 中東部 戰線으로 侵攻한 中共 集團은 下珍富里—東沙里線을 넘어 旌善—平昌線까지 肉迫하였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군단 左側背는 완전히 露出되어 군단 後方이 遮斷될 危機에 놓여지게 되었다. 이렇듯 時時刻刻으로 加重一路의 敵의 威勢에 점차 不利한 狀況에 陷入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寸刻을 다투는 危急한 戰況을 看破한 군단장은 이 時點에서 戰局을 수습하는 一大 斷案이 切感되었기에 곧 作戰會議를 召集하고 狂風에 휩쌓인 全般的인 戰勢를 分析, 檢討한 끝에 다음과 같이 이에 對處하는 作戰構想을 밝혔다.

『군단은 現戰線을 江陵—六關嶺線으로 調整한 다음 六關嶺을 中心으로 固守하면서 敵과의 決戰을 斷行하려 한다. 이를 위하여 Waco線에 配備한 수도 및 제11사단을 A線(江陵 東쪽 4km에 있는 松汀에서 西向하여 鳥峯一車項里一月精里를 連하는 線)으로 轉進시킨 다음, 이 線上에서 四周방어를 실시한다. 따라서 六關嶺의 防守는 수도사단이 담당토록 하고, 제11사단은 수도사단 戰鬪正面의 일부를 引受하여 그 右翼과 連繫 한 다음, 美 제7艦隊의 강력한 함포사격 아래 해안선을 따라 군단 正面을 防備토록 한다』

이상과 같은 內容으로 미루어보아 군단장은 期必코 六關嶺을 固守하면서 當面의 敵을 粉碎하고야 말겠다는 決意를 엿볼수 있었다. 그런데 군단장이 이와 같은 決心을 하게된것은 다음의 與件을 고려한 때문이었다.

첫째 : 地形的인 條件을 들 수 있는바 元來 이 六關嶺은 江陵 西北쪽 12km에 있는 標高 934m의 一六關門으로써 그 東北쪽에 大弓山(△975)—間嶺(△1,157)—鳥峯(△1,048)과 그 西南쪽에 淩項峯(△1,123)—花郎峯(△1,069)—玉女峯(△1,146)등의 峻嶺이 치솟아 斷崖와 峽谷을 이루었고 이러한 地勢는 地域內의 울창한 森林과 함께 그 一圓에 據點形成을 有利하게 하였으며, 특히 이곳은 東西로 뻗은 京江道路邊에 突出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江陵을 뒤로는 下珍富里—東砂里를 한눈에 瞰制할 수 있을 뿐더러, 北으로는 北進을 위한 橋頭堡이자 南으로는 防守를 위한 基地로서 東部戰線의 유일한 要衝이다.

그러므로 여기를 敵이 掌握한다면 군단은 包圍상태에 陷入될 뿐 아니라 瞰制下에 있는 東部의 交通 및 補給의 要衝인 江陵을 비롯하여 그곳에 있는 飛行場과 前進基地를 모두 잃어버리는 結果가 될 것이다.

더욱이 이 당시 平昌—旌善線에서 戰線을 整理中인 中東部의 我軍에겐 決定的인 破局을 초래케할 것이며 또한 攻勢移轉을 준비하던 中西部의 UN군의 壯圖도 無爲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듯이 六關嶺은 地勢의 여건을 감안할 때에 期必코 固守하여야만 되었다.

둘째 : 수도 사단의 戰力을 評價할때, 비록 期間中에 70km에 達하는 撤收를 하였지만 이는 인접과의 戰線유지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實戰經驗이 풍부하고 乘勝長驅하였던 수도사단 將兵들의 士氣는 계속 높은 水準을 維持하고 사단이 保有한 裝備 또한 T/E대로 確保하고 있다는 點,

세째 : 作戰期間中 美 제7함대와 江陵에 자리잡은 美 戰術空軍의 支援爆擊을 적극 받을수 있다는 點등이었다. 作戰中의 氣象은 東海의 暖氣流가 이곳 六關嶺에 부닥쳐 짙은 안개와 雨天으로 變化되는

氣象的造化를 초래하여 視界를 制限함으로써 作戰遂行上 많은 影響이 있었다.

다. 전투경과의개요

(1) 작전 계획

京江道路를 遮斷하면서 東進하는 中共 제27군 主力은 正面에 있는 北共 제12사단과 呼應하면서 5월 21일 오후 부터 間坪里—楡川里—呼鳴里(楡川里를 中心으로 南北으로 잇는 線)의 三方面에서 大關嶺을 攻破한 다음 一路 江陵을 奪取코자 總力을 集中하였다.

이무렵 제1군단장 白善燁소장은 江陵에 있는 수도사단 지휘소를 직접 巡視中이었는데 이자리에서 前述한바와 같은 自身의 作戰方案(전투전의 개황 참조)을 再確認하고, 當面의 敵에 對處하는 다음과 같은 要旨의 口頭命令을 下達하였다.

『수도사단은 大關嶺—橫溪里線에 主抵抗線을 形成하여 決戰防禦에 突入함과 동시에 이를 固守하면서 當面의 敵을 擊滅하라』

이와 같은 군단장의 命令에 따라 수도사단장 宋堯讚준장은 天嶮의 利를 살릴 수 있는 大關嶺을 中心으로 南北을 連하는 線의 要地要部에서 一戰을 決行키로 하였다. 즉, 鳥峯—곤신峯—大關嶺—淩頂峯—玉女峯을 連하는線에서 相互 連繫할수 있도록 陣地를 중심으로 占領하되 2개연대는 一線梯隊로서 主抵抗線(大關嶺—橫溪里를 連하는 線)에 配置하여 敵을 邀擊케 하다가 攻擊의 轉機를 捕捉하는 즉시로 出擊을 斷行키로 하고 1개연대는 사단側後方을 警戒하면서 일부 兵力으로써 一線연대 後方에 阻止陣地를 占領 掩護토록 한다는 方針을 굳혔다.

이와 같이 사단이 最初에 豫備隊없이 사단 全 兵力을 投入한 것은 이 線에서 決戰방어를 決行하려는데 基因된 것이나, 한편으로는 左인접 제3군단의 戰線이 平昌—旌善線까지 밀린데에 對한 側後方 防護도 겸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方策을 굳힌 사단장은 要旨 다음과 같은 사단作命을 下達하였다.

『①제1연대는 이미 占有中인 大關嶺일대의 陣地를 強化하면서 東進中인 敵을 牽制하다가 제26연대가 A線上에 轉進하여 진지를 占領한 다음 사단 左一線부대가 되어 방어중심을 擴大하고 當面의 敵을 擊滅하라.

② 제26연대는 Waco線에서 轉進하여 A線上의 鳥峯—間嶺일대의 진지를 占領한 다음에 사단 右一線부대가 되어 제1연대와 連繫하면서 正面에서 侵攻하는 敵을 阻止 擊滅하라.

③ 제1기갑연대는 Waco線에서 제26연대와 併行 轉進하여 碧石洞—飛鳥峙—玉女峯 일대에 중심방어진을 形成하고, 사단側後方 경계에 臨하되, 1개중대 兵力으로써 一線梯隊 後方에 阻止陣地를 占領토록 하라.

④ 제10포병대대는 각 연대에 포대單位로 直接支援하되, 作戰初日에는 主力을 大關嶺으로 推進한 다음 砲火力의 集中으로 敵의 侵攻을 粉碎하라.

⑤ 수도 야전공병대대는 각연대에 대하여 중대單位로 派遣하여 敵의 豫想接近路上에 可用한 모든 障壁을 설치하라.

⑥ 作戰期間中 美 제7함대 및 戰術空軍의 支援이 요청에 따라 實施 될 것이다.

⑦ 作戰當日 사단 전방지휘소는 邱山里에 位置한다.』

(2) 작전실시

5월 22일 : 수도사단의 제1연대(장, 韓 信대령)가 大關嶺 西斜面일대에서 激戰을 展開하는 동안 제26연대(장, 徐廷哲대령)와 제1기갑연대(장, 李 龍대령)는 전날 下達된 사단 作命에 따라 이날 05.00부터 Waco線上의 진지에서 逐次的인 轉進을 시작하였는데 午後에는 각각 계획된 陣地를 占 領하였다.

이로써 사단은 大關嶺을 中心으로 한 南北一圓에서 決戰防守를 위한 戰線을 形成하게 되었고, 또한 장차 이 線에서 敵의 侵攻威勢를 制壓한 다음 適時에 攻勢로 轉移할 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그런데 이날 未明에 中共 제27군 예하의 2개연대등 都合 3개연대 규모의 兵力은 百日坪—車項里—將軍巖(大關嶺 西北쪽 8km) 부근과 盧洞—劍山(大關嶺 西南쪽 5km)일대에서 서로 呼應하면서 제1연대의 戰線을 突破分斷한 다음 大關嶺을 奪取코자 侵攻하므로 여기에서 防守하던 제1연대는 激突을 보게되어 奮戰끝에 이들을 潰滅하였다. 한편 正面의 北共 제12사단의 先鋒대대는 이날 04.00에 東合山((Waco線上)에 侵透함으로써 A線으로 轉進準備中이던 제26연대도 血戰끝에 이를 潰退하였으니 作戰初日부터 彼我間에는 激戰이 展開된 것이다.

1. 제1연대(장, 韓 信대령)는 전날 군단장의 命令에 따라 江陵에서 大關嶺으로 躍進하여 제1대대를 大關嶺 前斜面에, 제3대대를 凌項峯—橫溪峙(大關嶺西南쪽 2km)에 展開하고 急編진지를 占領토록 하였으며, 제2대대를 사단命令에 따라 제20연대(장, 朴元根대령)와의 協同作戰을 위해 百日坪—黃柄山 부근으로 進出토록 措置한 바 있었다.

이에따라 제1 및 제3 兩대대는 迅速한 機動으로 21.00에 각각 계획된 陣地를 확보하여

부대를 配置한 다음 防守태세에 들어갔는데, 이로부터 30분 뒤인 21.30에 이르러 제20연대의 일부 戰線을 迂回하여 侵透한 數未詳의 中共 先鋒부대와 激突하여 이를 擊滅하고 大關嶺을 固守하였거니와, 이날 拂曉에 새로이 侵攻한 1개 연대 규모의 兵力과 또다시 血鬪를 展開하게 되었다.

이날 右一線인 제1대대(장, 咸溶翼소령)와 左一線인 제3대대(장, 李聖鳳소령)는 연대의 指示에 따라 이날 새벽부터 전날의 陣地를 強化하며 四周방어 태세를 取한 다음, 兩 대대는 敵情탐지를 위하여 1개 중대의 兵力으로서 前進부대의 임무를 遂行토록 하여 相互連結 아래 偵察活動을 감행토록 하였다.

이에따라 제1대대의 제2중대는 △1,084(大關嶺 西北쪽 2km) 부근으로, 제3대대의 제10중대는 △935 (大關嶺 西쪽 入口, 橫溪里 東쪽 4km) 부근까지 進出하여 敵의 動向을 探索하였는데, 이때에 제10중대장은 劍山(橫溪里 西쪽 3km) 橫溪里쪽으로 부터 集中殺到하는 1개 대대규모의 敵을 발견하고 즉각 대대에 急報하였다.

그런데 이 때에 인접된 △935 後斜面부근에서는 제20연대의 제3대대(장, 崔亨祿소령)가 血路를 打開하면서 撤收中이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砲兵 및 追擊砲에 依한 制壓사격의 制限을 받게되어, 다만 中隊의 自隊火力과 肉彈만으로서 對戰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狀況報告를 받은 연대장 韓 信대령은 이무렵 大關嶺 頂上에서 作戰을 指導하고 있었는데, 이때에 判斷하기를 中隊兵力과 火力만으로 對決케 함은 힘에 겨울 뿐더러 지금까지의 敵의 手法으로 미루어 보아 필시 또다른 集團의 敵이 後續할 것이므로 이러한 兇敵을 陣前 가까히 主動的으로 誘引한 다음 步砲의 協同으로 一擧에 破碎키로 決心하였다.

그리하여 兩 중대로 하여금 接敵을 유지하면서 서서히 隨意退却토록 命令한 다음 사단에 火力支援을 要請하고 연대의 모든 可用火力을 集中할 태세를 갖추게 하였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자 果然 豫想한 대로 1개 연대규모로 急增한 敵은 兩 대대의 陣前 至近거리까지 肉迫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연대는 機先을 制하는 사격을 일제히 集中한 結果 敵의 銳鋒은 무너지기에 이르렀으나 後續한 무리들은 그들의 屍山을 넘어 人海攻勢로써 強襲을 企圖하므로 彼我間에 苛烈한 血鬪가 展開되었다.

그러나 四周방어 陣地를 끝까지 固守하려는 全 將兵은 亂舞하는 彈雨속에서도, 각 指揮官을 中心으로 渾然一體가 되어 必勝을 다짐하니, 醜敵은 무모한 突進만을 反復하다가 끝내 繼戰意志를 상실한채로 潰退하였다.

무려 3시간餘의 血戰이 스쳐간 陣前에는 火炎과 硝煙이 자욱하였으며, 아침햇살이 비쳐주는 周邊일대에는 中共軍의 死體가 累累하고 哭鬼가 啾啾하였다.

이와 같은 激戰을 치른 兩 대대는 UN空軍의 空爆과 砲火의 支援아래 진지를 더욱 強化하는 한편 戰力을 整備하면서 敵의 侵襲에 대비하였다.

이런中에 敵은 四散된 兵力을 再收拾하더니 새로이 增援된 2개 대대규모의 兵力과 合流하여 이번에는 正面突破를 피하고 迂回奇襲을 꾀하는 듯 △935 溪谷을 따라 제3대대 西側方으로 攻勢를 取하였는데, 이때의 敵은 대대의 左側背를 突破한 다음, 東南쪽으로 迂回하여 背後에서 大關嶺을 急襲코자 하였다.

그러나 대대장 李聖鳳소령은 새벽의 血戰을 끝마친뒤, 敵의 再攻擊에 對備하여 이미 豫備隊인 제9중대로써 敵의 豫想 接近路를 壓制하는 △810(△935 東北쪽 500m) 부근을 占領토록 하였다.

이때 중대장은 1개소대를 特攻隊로 하여 △810 前斜面 稜線에 배치하고 있었는데, 12.00에 이르러 敵의 隊列이 소대의 至近距離까지 接近하였으므로 이에 소대장은 중대장의 突擊命令에 따라 『突進앞으로』라는 號令과 함께 先頭에서 내달으니, 全 소대원은 일제히 함성을 울리고, 수류탄을 던지면서 敵陣으로 突進하자 이 刹那에 全 중대원도 또한 側背에서 急進과 急射를 反復하니 그 狂亂의 氣勢도 一角이 무너지기에 이르렀다.

이와 때를 맞추어 대대의 自動火器와 迫擊砲는, 火力洗禮를 集中하는 제10포병 대대(장, 房景源 중령)의 支援射擊과 더불어 敵線을 猛打하기 시작하였으니, 發惡하던 人海의 敵勢도 드디어 潰退하게 되었고, 이로써 대대는 陣地를 끝까지 固守하였다.

그뒤 대대는 日沒과 함께 陣地를 가일층 強化하고 있었는데, 20.00에 이르러 또 다시 敵은 夜暗을 이용하여 2개 대대규모 以上의 兵力으로 대대의 兩翼을 包圍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대는 미리 構成한 火網에서 敵을 捕捉하는 동시에 侵襲하는 敵에게 集中射擊을 加하였으나 督戰으로 살길이 막힌 敵은 陣前에 殺到하여 狂亂하므로 彼我間에 苛烈한 白兵戰이 演出되었다.

대대는 2시간에 걸친 血鬪로 드디어 敵을 擊退하였으나 또다시 增援된 兇敵은 三面에서 包圍하고 그 包圍圈을 壓縮하기 시작하고 이 때문에 대대는 危機에 直面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狀況을 지켜보던 연대장 韓 信대령은 照明支援사격을 비롯하여 각종 砲兵의 制壓사격으로 敵을 集中強打토록 하는 한편 제1대대(장, 咸溶翼소령)로 하여금 東側方에서 敵의 腹背를 急襲토록 하였는데, 이것이 비로소 奏効하여 敵의 先鋒이 흩어지기에

이르렀다.

이에 反擊의 轉機를 捕捉한 兩대대 將兵들은 불 같은 鬪魂으로 肉迫戰을 거듭하여 敵의 主力을 마침내 兩斷擊退 하였다.

이와 같이 兩대대는 이날 終日 激戰을 敢行한 끝에 陣地를 固守함으로써 決戰防禦의 極致를 이루었고 特히 大關嶺을 堅守하는데 決定的인 공헌을 하였다.

한편 제2대대(장, 丁世鎭중령)는 전날 연대장의 지시에 따라 百日坪—黃柄山 부근으로 進出하여 제20연대와 連繫한 다음, 集中殺到하는 敵의 兵團을 맞아, 血戰 끝에 이를 물리친바 있었거니와 이날도 05.00부터 將軍峯—△992(月精寺 東쪽 4km)線에서 侵攻하는 中共 1개연대 규모와 계속 奮戰타가 제20연대가 계획에 따라 隨意撤收하자, 대대도 依命 11.0부터 轉進하였다.

그뒤 대대는 연대 CP가 있는 釜洞으로 集結한 다음, 戰列을 整備하면서 決戰隊列에 뛰어들 태세를 갖추었다.

이상과 같이 제1연대가 이틀간에 걸쳐 中共 大集團을 맞아 孤軍血鬪를 反復하면서도 끝까지 大關嶺을 固守한 것은 步砲空의 有機的인 立體戰과 決戰방어를 실시한 것이 主因이라 하겠지만, 이에는 勝戰을 다짐한 연대장 韓 信대령의 作戰指導와 全 將兵이 必勝의 信念을 堅持하고 善戰한 소위라 하겠다.

2. 한편 제26연대(장, 徐廷哲 대령)는 이날 사단作命에 따라 Waco線에서의 攻防戰을 멈추고 예하 대대로 하여금 05.00를 期하여 同線에서 A線으로 轉進토록 하였는데, 이에 따라 제1대대(장, 權用性소령)는 頭老峯 진지에서 烏峯(△855, 大關嶺北쪽 4km) 부근으로 轉進함과 동시에 연대 右一線부대가 되었으며, 제2대대(장, 朴基淳소령)는 東臺山 北斜面 진지에서 間嶺—보현寺(烏峯 東北쪽 3km) 일대로 轉進하는 즉시로 左一線부대가 되어 相互連繫하는 急編방수진을 形成하고 敵과의 一戰을 決할 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제3대대(장, 具泰益소령)는 東臺山 南麓 진지에서 邱山里로 移動하여 연대 豫備隊가 되어 戰列을 整備하면서 側後方 경계에 임하였다.

이와 같이 각 대대가 陣地를 占領하고 사단 右一線부대로서 正面의 敵과 決戰태세에 들어가자 연대도 그 CP를 邱山里로 轉進開設하였다.

그런데 이무렵 연대와 Waco上線에서 對峙하던 北共 제12사단의 1개연대는 當연대의 轉進에 따라, 이를 奇貨로 南侵을 계속하더니 子正頃에는 연대 戰鬪正面인 靑蓮庵—곤신峯 (大關嶺 西北쪽 5~7km 일대)線을 連하여 부대를 配置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彼我間에

특별한 接戰은 없었다.

3. 제1기갑연대(장, 李 龍대령)도 이날 사단 作命에 따라 05.00부터 연대 主力으로 속칭 "닭목이"(△719)—大花實山(△1,019)—飛鳥峙(△874)을 連하는 線 (主抵抗線 後方 9~14km—圓)에 종심방어진을 形成하였는데, 이러한 부대배치는 平昌—旌善線까지 侵透한 中共軍으로 말미암아, 사단 側後方이 露出됨으로써 이에 對備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리하여 제3대대(장, 林觀默소령)는 Waco線에서 속칭 "닭목이"(△712)부근으로, 제2대대(장, 朴翊均소령)는 飛鳥峙(△874)일대로 각각 轉進하고, 相互 連繫하여 방어선을 확보한 다음 사단 側後方에 대한 경계를 強化하는 동시에 敵情을 探知키 위한 偵察活動을 展開하였다.

한편 제1대대(장, 車文錫소령)는 Waco線에서 연대 CP가 開設된 碧石洞으로 轉進後 연대 豫備隊가 되어 부근 일대를 搜索하면서 戰列을 갖추었다.

4. 제10포병대대(장, 房景源중령)는 이날 사단의 指示에 따라 제1연대를 集中支援하기 위하여 全 포대로 하여금 邱山里 砲陣地에서 大關嶺으로 推進시킨 다음 劍山—盧洞—車項里—靑蓮岩일대에 射擊을 集中하여 제1연대의 大關嶺防守에 寄與하였다.

이상과 같이 제1연대가 血戰을 펴는 동안 제1기갑 및 제26兩 연대가 A線에서 각각 計劃된 堅陣을 확보하고 決戰 태세에 突入하게 되자, 사단장은 深夜에 CP를 江陵에서 邱山里로 前進開設한 다음 곧 참모들을 召集하고 그동안 入手된 敵情과, 이날 中共軍과의 一戰에서 體驗한 그들의 戰力을 分析 檢討한 結果,

敵은 5월 16일을 期한 攻勢以來 이날까지 7일동안에 걸친 山岳戰鬪에서, 戰傷者의 속출과 食糧 및 彈藥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戰鬪力量은 半減되었을 것이고, 더욱이 이날 제1연대와의 決戰에서는 致命的인 打擊을 입었으므로 그 戰力은 이미 限界點에 도달한 것으로 判斷하였다.

이와 같은 判斷의 心證을 굳힌 사단장 宋堯讚준장은 바로 이때가 攻勢로 轉換하여 敵을 陣前에서 擊砕할 수 있는 好機라고 보고 이를 곧 군단장에게 建議하는 한편 主力으로써 攻勢移轉을 준비토록 命令하였다.

이무렵 군단에서도 攻勢로 移轉키 위한 作戰計劃을 熟議한 뒤인지라 사단장의 決心을 承認하였거니와, 군단은 이날 18.00附로 美 제8군사령관의 指示로 제3사단(장, 金鐘五준장)을 예속받고 이를 統合指揮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군단장 白善燁소장은 제3사단으로 하여금 松溪里부근에서 戰力을 整備케 하

면서 平昌—旌善線까지 壓迫하는 敵에 對하여 四周防禦로써 對處케 하면서 일부 兵力으로 三陟부근의 敵 유격대를 警戒토록하는 한편 海岸線의 補給基地를 방비토록 措置하였다.

그런데 이와같은 제3사단의 예속命令은 이날附로 제3군단이 解編되었기 때문이며, 同日附로 江陵에 位置하던 陸本 前方지휘소도 閉所되었다. 따라서 군단은 美제8군사령관의 指揮下에 들어가게 되었다.

5월 23일 : 사단의 攻勢移轉을 承認한 군단장 白善燁소장은 이날 06.00에 命令하기를 『수도사단은 5월 23일 10.00를 期하여 現戰線으로 부터 일제히 攻擊을 개시하여 當面의 敵을 擊滅하고 京江道路를 확보하라』 하였다.

한편, 이와같은 命令에 接한 사단장은 이미 전날밤에 攻勢移轉에 따른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으므로 즉각 예하 연대로 하여금 反擊을 斷行토록 命令하였다.

이때에 사단에서 이 反擊戰을 위하여 각 연대에 附與한 임무를 보면, 제1연대는 現線에서 橫溪里—車項里를 目標로 進擊하면서 東進하는 敵을 擊滅한 다음, 계속해서 楡川里—下珍富里線으로 進出하여 京江道路를 確保토록 하였으며, 제26연대는 現 陣地에서 제1연대와 併行 進擊하면서 靑蓮庵—곤신峯을 확보한 다음, 사단 正面으로 侵攻하는 敵을 擊破하고 계속 西北方으로 進出하여 黃柄山 일대에서 敵의 退路를 遮斷토록 하는 한편, 제1기갑연대는 이날 10.00附로 豫備隊가 되어 現陣地에서 계속 사단 側後方 警戒에 임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一線연대인 제1, 제26 兩연대는 10.00를 期하여 大關嶺—烏峯間의 主抵抗線을 박차고 怒濤의 氣勢로 突進하였는데, 이와 때를 맞춘 美제7함대의 함포사격과 사단 砲兵의 集中支援 아래 敵陣으로 肉迫하였다. 이로부터 士氣冲天한 將兵들은 敵을 急襲하며 強打한 끝에 제1연대는 16.00에 橫溪里를 占領하고 제26연대는 靑蓮庵—곤신峯까지 進出하였다.

1. 제1연대(장, 韓 信대령)는 사단장의 攻勢移轉 命令을 받고 이날 10.00에 出擊을 斷行하였는데 즉, 제3대대를 右一線으로, 제2대대를 左一線으로 展開하는 한편 제1대대는 豫備隊로 控置하여 大關嶺 부근 陣地에서 연대의 側後方경계에 임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때에 연대正面인 橫溪里—盧洞—車項里 일대에는 1개연대 규모의 中共軍이 배치되여 再侵의 機會를 엿보며 戰力을 補強하고 있었다.

이러한 狀況아래 제2, 제3 兩대대는 연대장으로부터 『當面의 敵을 一擊에 무찌르라』라는 命令에 따라 각각 占有中인 陣地로 부터 躍進하였는데 右一線인 제3대대(장, 李聖鳳소령)는 소규모의 敵을 一蹴하면서 △776—△829 (橫溪里 北쪽 3km)를 連하는 線에 進出한 다

음 盧洞一車項里를 攻擊할 태세를 갖추었다.

한편 제2대대(장, 丁世鎭중령)도 △751—△764(橫溪里 南쪽 2~3km) 陣地에서 橫溪里를 占領하기 위하여 제3대대와 併行進擊하였는데, 이때에 대대 主力은 京江道路를 橫斷하여 그 前方 1km에 있는 △775 (橫溪里 西쪽 500m)를 넘어 左右로, 分進하면서 橫溪里를 目標로 계속 突進하여 兩面에서 敵의 側後背를 일시에 急襲하였다.

이 당시 敵은 이 奇襲的인 攻擊에 對備할 方途 조차없이 混亂을 이루게 되었으며 이 機會를 捕捉한 대대는 일제히 突進하자 敵은 血路를 찾아 北쪽을 向하여 敗退하기 시작하였다.

이때에 대대 先鋒인 제6중대(장, 李鍾錄대위)는 마지막까지 發惡하는 1개중대 규모의 兵力을 白兵戰으로 覆滅하고 大關嶺의 關門인 橫溪里를 奪取하여 京江道路를 確保하였다

그뒤 대대는 戰意를 잃고 앞을 다투어 潰退하는 敵을 追擊하면서 △868—△795(橫溪里 西北쪽 3km, 蘆洞 東南쪽 1km)를 連結하는 線에 진지를 占領한 다음, 右인접인 제3대대와 連繫하였다.

2. 제26연대(장, 徐廷哲대령)는 전날 占領한 大關嶺前斜面 진지를 強化하던 中 사단장의 攻勢移轉命令에 따라 제1연대와 併進하여 攻擊을 개시하였다. 이때에 연대장은 제1, 제2 兩대대를 左右一線으로 展開한 다음 제3대대를 豫備隊로 하여 進擊하면서 靑蓮庵일대를 占領한 北共 제12사단의 1개연대규모를 擊破키로 하였다.

이리하여 제2대대(장, 朴基淳소령)는 곤신峯(靑蓮庵 東北쪽 2km)을, 제1대대(장, 禪用性소령)는 靑蓮庵을 각각 분담하여, 攻略할 目的으로 躍進하였는데, 제1대대가 靑蓮庵 東斜面 △1,010에 進出하였을때, 이곳에서 侵攻의 突破口를 찾기위하여 △1,010西麓의 溪谷을 따라 潛入하는 敵의 主力과 激突함으로써 彼我間에 血戰을 展開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대장은 즉각 包圍隊形으로 轉換토록 指示하는 동시에 대대 先鋒인 제2중대로 하여금 敵線을 攪亂토록 하였다.

이러한 命令을 받은 중대장은 우선 敵의 火力을 分散키 위하여 兵力을 分隊單位로 展開하고 일제히 射擊케 하니 敵의 火力이 分散되고 唐慌하는 기색이 짙어지는 것을 看破한 대대장은 先頭에 나서서 突進을 命하였다. 이로부터 全 將兵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突擊戰을 감행하니 敵의 先頭가 무너지며 右往左往하기에 이르렀다.

이때에 併進하던 제2대대의 挾擊과 사단의 砲兵火力이 奏效하여 敵은 退路를 잃고 대대 銃劍에 無數히 쓸어졌다.

이렇듯 2시간 동안에 걸친 激戰끝에 이 敵을 潰滅하고, 대대는 계속 進出하여 靑蓮庵을 占領한 다음 제1연대 제2대대와 相互 連繫하면서 계속 敗敵을 쫓아 追擊하였다. 한편, 연대는 예하 主力이 이날의 攻擊目標를 占領하자, CP를 邱山里에서 釜洞으로 推進開設하였다.

3. 제1기갑연대(장, 李 龍대령)는 사단 豫備隊로서 전날 확보한 진지를 더욱 強化하며, 사단 側後方 경계에 임하던 中, 사단장으로 부터 『1개 대대를 差出하여 大關嶺 西側方에 對한 경계를 담당케 하라』는 口頭指示를 받고, 연대 豫備隊인 제1대대(장, 車文錫소령)로 하여금 出擊토록 命令하였다.

이에 따라 대대는 碧石洞 陣地를 떠나 俗稱 "임래골"(大關嶺 東南쪽 3km)로 진출하여 陣地를 占領하고 경계태세에 들어갔다.

이상과 같이 사단이 攻勢로 移轉하여 敵을 擊破하고 있을 때 右인접 제11사단(장, 崔德新 준장)의 一線梯隊인 제9, 제13 兩연대도 敵을 追擊하면서 鏡浦臺—賓光里를 連하는 線까지 進出하여 當사단과 連繫하였다.

5월 24일 : 사단은 전날 敗退한 敵에게 再收拾할 시간 여유를 주지않기 위하여 이날 未明을 期하여 主力으로서 攻擊을 再開하였다. 이에 따라 제1, 제26연대는 步砲와 空地의 協同作戰으로 勇戰끝에 敵線을 突破하고 敵에게 決定的인 打擊을 주었고 大關嶺을 노리던 敵의 企圖는 완전히 水泡로 돌아가게 되자 敵은 마침내 三分五裂되어 또다시 北쪽으로 潰退하게 되었다.

1. 제1연대(장, 韓 信대령)는 攻擊에 앞서 이날 入手한 敵情을 檢討한 바 中共 敗殘兵이 싸리峙(橫溪里 西北쪽 5km)를 넘어 左인접 美제10군단과의 間隙을 이용하여 北上潰退하고 있다는 判斷을 얻게되었다. 이에 연대장은 當初의 計劃을 바꾸기로 決心하였으니, 즉 右一線인 제3대대의 攻擊目標인 盧洞—車項里에 對한 攻擊임무를 제2대대에 附與하고 제3대대는 現陣地에서 西進하여 싸리峙 부근으로 進出한 다음, 敵의 退路를 遮斷하고 北上하는 敵을 潰滅토록 하였다.

이에따라 兩 대대는 攻擊軸線이 서로 바뀌게 되었거니와, 이러한 연대장의 措置는, 비록 제2대대가 美제10군단과의 接境, 가까이 位置하고 있지만, 제3대대가 盧洞—車項里를 攻擊하기 보다도 作戰의 効果과 더욱 컸기 때문이니. 이는 제3대대의 進擊路앞에 南漢江의 支流가 흐르고 있으므로 迅速한 機動戰에 장애가 될 까닭이다.

제2대대(장, 丁世鎭중령)는 이와같은 연대장의 決心에 따라 盧洞—車項里를 占領키 위하

여 공격을 개시하였는데 이로부터 1시간뒤인 07.00에 대대가 盧洞 西側方 △841 부근에 進出하였을 때에 1개대대 규모의 敵과 激突하였다. 이때의 敵은 그들 主力의 退却을 收容키 위함인지 死力을 다하여 頑強하게 저항함으로써 彼我間에 熾烈한 戰鬪가 展開되었다. 이러한 戰況을 打開코자 대대장 丁世鎭중령은 제6중대로 하여금 敵陣東側으로 迂回케하여 背後에서 強打토록 命令하였다.

이에 중대장 李鍾錄대위는 중대를 指揮하여 △841 東麓을 따라 재빨리 迂回, 前進한 다음, 敵陣 가까이 이르자 陣頭에 나서 『突擊 앞으로』라는 號令과 함께 白兵을 휘몰와 火炎과 硝煙이 자욱한 敵陣속으로 突入하니, 敵은 血路를 찾아 四散潰退하기 시작하였으며, 대대는 이 好機를 捕捉하여 全面突進으로써 드디어 이 敵을 潰滅하고 盧洞—車項里를 奪取하였다.

그뒤에도 대대는 계속 進擊을 敢行하여 日沒前까지 百日坪—東역골을 連하는 線上을 掌握하고 제26연대와 連繫하였다.

한편 제3대대(장, 李聖鳳소령)도 연대장의 命令에 따라 美제10군단과의 虛隙을 따라 北上潰走하는 敵의 退路를 遮斷하고 捕捉擊滅코자 이날 06.00를 期해 일제히 싸리峙 부근으로 躍進하였다.

이로부터 2시간 뒤인 08.00에 대대장은 싸리峙—春頭目(싸리峙 北쪽 1km)을 連하는 線上에 展開 함으로써 一連의 火網을 構成하게 되었다. 그뒤 일부 兵力으로 地域內에서 捜索活動을 展開토록 하였는데, 09.00에 싸리峙와 連한 △842 부근을 捜索하던 제2중대장으로부터 楡川里—月精里 부근에서 美 제10군단의 痛擊을 받고 潰退中인 中共 敗殘兵으로 判斷되는 2개중대 규모의 兵力이 接境인 將軍巖(△1,140 : 春頭目 西쪽 1.5km)쪽으로 退却한다는 急報를 받았다.

이에 대대장은 이 敵을 粉碎키로 決心하고 부대를 現線에서 500m 前方으로 進出시킨 다음 可用한 모든 火力을 集中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敵이 射程거리내에 接近하자, 일제히 急進과 急射로서 敵을 強打하여 擊滅하였다.

그뒤에 대대는 殘敵을 捕捉코자 계속 부단한 捜索活動을 展開하는 한편 다음 攻擊에 對備하였다.

한편 연대는 一線梯隊인 兩대대가 快勝을 거두며 進擊하자 그 CP를 釜洞에서 橫溪里로 躍進, 開設하였다.

2. 제26연대(장, 徐廷哲대령)는 전날에 확보한 靑蓮庵—곤식峯線에서 이날 06.00에 연대 主力으로 하여금 當面의 敵을 쫓아 일제히 進擊을 斷行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右一線인 제2대대(장, 朴基淳소령)와 左一線인 제1대대(장, 權用性소령)는 併進하여 소대규모의 敵을 무찌르면서 3km 西北進한 다음 東역골—△1,016을 連하는 線上에 陣地를 확보하고 搜索活動을 敢行하였으나 이미 敵은 繼戰意志를 포기한 듯 특별한 接敵이 없는 가운데 日沒과 더불어 夜間警戒에 들어갔다.

그런데 21,00에 이르러 △1,016 右側계곡에서 潛伏하고 있던 제5중대의 제2소대는 夜暗을 이용하여 北上을 꾀하는 敗殘兵을 발견하자 즉각 包圍網을 形成하여 은밀히 接近한다음 急進과 急射로서 17명을 사살하고 1명을 사로잡았다.

3. 한편 제1기갑연대(장, 李 龍대령)는 一線연대의 進擊에 따른 사단側後方露出에 대비한 사단장의 命令으로 이날 08.00를 期하여 主力으로 頭九峯(△909)—골폭山(△1,238)—달판峙를 連하는 線(橫溪里 西쪽 2km 부근을 中心으로 하여 東西 4km를 連하는 線)으로 躍進한 다음 一線梯隊와 相互連繫하면서 사단 側後方경계에 임하였다. 즉, 제1대대(장, 車文錫소령)로 하여금 正面의 제1연대 제3대대(장, 李聖鳳소령)와의 間隙를 閉鎖케하는 한편 군단 西側背를 掩護토록 하였으며, 제2대대(장, 朴翊均소령)는 제1대대와 戰線을 유지하면서 사단 側後方 警戒를 強化토록 措置하였다.

그리고 제3대대(장, 林觀默소령)는 玉女峰(△1,145 : 橫溪里 南쪽 7km) 前斜面일대에 陣地를 확보케하고 연대 豫備隊로서 戰力을 整備하면서 다음 命令을 대기토록 하였다.

4. 제10포병대대(장, 房景源중령)는 이날 07.00부터 1시간 동안에 걸쳐 俗稱 가사머리(袈裟頭 : 大關嶺西쪽 入口, 橫溪里 東쪽 4km)에 砲陣地를 占領하고 全砲隊로 하여금 一線梯隊의 攻擊에 呼應하여 步砲의 有機的인 協同으로 敵陣에 砲擊을 加하게 하였으며 그뒤 대대는 敵의 退路로 豫想되는 將軍巖—廣川—間坪里일대에 砲火를 集中하였다.

5. 이무렵 右인접인 제11사단(장, 崔德新준장)도 계속적인 攻擊을 斷行하여 大月里(江陵北쪽 6km)—大弓山(△975 : 大關嶺 北쪽 7km)를 連하는 線까지 進擊하고, 左인접인 美제10군단(장, Almond중장)의 제9사단(장, 崔 錫소장)도 또한 敵線을 突破分斷하면서 進擊戰을 敢行한 끝에, 楡川里—東沙里 線을 확보함으로써, 東部와 中東部의 戰線均衡이 相互 유지되었다.

이날 사단사령부에서는 그동안 副師團長으로 在任한 白南權 대령이 제3사단장으로 轉出하고 참모장인 文龍彩 대령이 그 後任으로, 한편 참모장에는 군단 인사참모인 朴南杓대령

이 각각 任命되었다.

5월 25일 : 이날 美제8군의 作戰方針에 따른 군단장 白善燁소장의 決心으로, 사단은 大關嶺一圓에서의 作戰을 終結하고 다음날인 5월 26일 부터 展開되는 進擊戰에 參加하여 躍進케 되었다.

이러한 사단의 새로운 임무에 따라 사단장 宋堯讚준장은 이날 05.00에 사단 전방지휘소에서 다음과 같은 內容의 口頭命令을 下達하였다.

『① 제1연대는 東역골에 進出中인 제2대대로서 △995(속칭 "젖띠기" : 黃柄山 西南쪽 3km)를 攻擊 占領토록 하고, 싸리峙를 占有中인 제3대대를 楡川里—月精里까지 進出시켜 지역내를 搜索케하면서 제9사단의 進出을 掩護토록 하라.

② 제26연대는 現線에서 進擊하여 黃柄山을 確保한 다음 지역내를 精密탐색 하면서 敵을 捕捉 擊滅하고 제1연대와 連繫하라 .

③ 제1기갑연대는 現線에서 東進하여 大基里—間洞線(橫溪里 西南쪽 5km)을 占領한 다음 殘敵을 索出 殲滅하라.

④ 제10포병대대는 砲陣地를 車項里로 推進한 다음 一線연대를 直接支援하라.

⑤ 각 부대는 作命에 의한 任務를 遂行하면, 進出線에서 다음 命令이 있을때까지 부대정비에 임하라.』

이상과 같은 內容으로 미루어 볼때에 사단장은 地域內를 精密探索케 하는 一方 다음날부터 斷行될 進擊戰에 對備하여 미리 前進據點을 확보키 위함이다.

1. 제1연대(장, 韓 信대령)는 사단장의 命令에 따라 이날 06.00를 期하여 제2, 제3 兩대대로 하여금 攻擊을 再開토록 하는 한편 大關嶺 前斜面에서 豫備隊의 임무를 遂行하던 제1대대를 車項里 부근으로 躍進케 하였다.

제2대대(장, 丁世鎭중령)는 이날 06.00에 東역골 陣地를 떠나 敵의 潛伏地로 豫想되는 西역골 부근을 搜索하면서 進出하여 12.00에 俗稱 "젖띠기"를 확보하였다.

그뒤에 대대는 계속하여 敵을 찾아 地域內를 搜索하면서 다음 戰鬪에 대비할 戰力을 強化하였다.

제3대대(장, 李聖鳳소령)도 이날 06.00에 전날의 陣地인 "싸리峙"에서 左인접 제9사단의 進出을 掩護할 目的으로 楡川里北쪽 月精里를 向하여 일제히 躍進하였다. 이때에 대대 先鋒인 제11중대가 △967 (月精里 東北쪽 1km) 부근에 이르렀을 때에 그北쪽 將軍巖 (△1,140) 西斜面 中腹으로 부터 奇襲射擊을 받았다.

이에 중대장은 곧 兵力을 散開시키고, 제1소대로 하여금 敵情을 탐지토록 指示하는 동시에 全 중대원으로서는 包圍網을 形成케한 다음 점차 이를 壓縮하였다. 잠시후에 제1소대장으로 부터, 『2개중대 규모로 推算되는 敵이 機關銃陣地를 구축하고 배치되어 있다』는 報告에 接하자 이를 대대에 急報하는 동시에 중대를 突擊隊形으로 한 다음 砲兵의 火力支援을 要請하였다.

이리하여 誘導된 砲兵의 制壓사격이 끝나자, 중대장의 陣頭指揮아래 砲煙이 자욱한 敵陣을 向해 突進하였는데, 豫想外로 敵勢는 頑強하여 彼我間에 激戰이 惹起되었다.

그런데 이때의 敵은 斷崖와 狹谷으로 이루어진 將軍巖에서, 隱蔽地形을 이용한 다음 이곳을 最後抵抗線으로 삼고 모든 火力을 集中하면서 중대의 進出을 極力 阻止하려 하였다. 敵의 이와 같은 發惡은 最大의 지연전을 감행하면서, 北上 潰走하는 敗走兵을 掩護할 目的이었기 때문에 氣勢는 마치 發狂한 듯 하였다.

이러한 狀況을 看破한 대대장은 後續하던 제9, 제10 兩중대로 하여금 將軍巖 左右兩側으로 깊숙이 迂回토록 하여 三面으로 包圍한 다음 側背에서 急襲토록 하니 그 一角이 무너지게 되고, 이때를 놓칠세라 敵陣으로 突入한 대대將兵은 白兵戰 끝에 敵을 覆滅하였다.

그뒤에 대대는 연대장의 指示에 따라 原隊로 복귀한 다음, 부대를 정비하였는데, 이날 대대作戰으로 제9사단의 楡川里一下珍富里線에 對한 進擊을 돕는 効果가 있었다.

이무렵 대대 OP에서 作戰을 指揮하던 연대장 韓 信대령은 대대 將兵들의 勇戰을 높이 致賀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뒤 연대장은 대대 OP를 떠나기에 앞서 연대 CP를 珍古介(黃柄山 西北쪽 5km)로 前進토록 하였다.

2. 제26연대(장, 徐廷哲대령)는 사단장의 命令에 따라 이날 06.30을 期하여 일제히 進擊을 敢行하면서, 血路를 찾아 방황하는 1개소대 규모의 敗走兵을 驅逐하고, 黃柄山一梅峯(△1,173)을 連하는 線上에 부대를 展開하였으며, 그뒤에 地域內를 搜索하면서 부대 整備에 全力하였다.

3. 한편 제1기갑연대(장, 李 龍대령)는 이날 제1, 제2 兩 대대로서 間洞一大基里를 掌握한 다음, 北上 潰走하는 敵을 捕捉擊滅코자 06.00에 일제히 出擊을 斷行하였다.

이에 따라 兩대대는 전날의 陣地를 박차고, 進擊한지 3시간 뒤인 09.00에는 間洞一大基里를 확보하고 地域內의 精密搜索을 실시하였다.

이때에 제1대대(장, 車文錫소령)의 제2중대가 龍山(△1,028 : 間洞 西北쪽 2km) 南麓에 있는 溪谷을 搜索하던 中 退路를 찾아 右往左往하는 敵을 목격하자 중대장은 즉각 機先을 制하여 射擊을 集中케 한 결과 捕虜 4명을 제외한 22명의 殘餘兵을 모두 射殺하고 다발총 19정과 장총 4정 및 실탄 600발을 노획하였다.

그뒤에도 兩 대대는 계속적인 搜索活動을 展開하다가 日沒과 함께 부대에 復歸한 다음 戰力을 정비하였다.

한편 연대는 CP를 18.00에 橫溪里로 躍進開設하고 다음날 부터 斷行되는 進擊戰에 對備하였다.

4. 이날 사단장 宋堯讚준장은 사단을 巡視中인 군단장 白善燁소장과 함께 각 연대 CP를 찾아, 그동안의 戰功을 致賀하고 격려하였으며, 특히 作戰期間中에 武勳을세운 將兵들에게는 그 戰功을 높이 찬양하여 훈장을 수여하였다.

이상과 같이 사단은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4일 동안에 걸친 勇戰奮鬪끝에 敵의 突破口의 右肩部를 堅持하여 UN군 反擊의 支撑이 되었을 뿐 아니라 스스로 敵의 突破中心部를 擊碎하여 大關嶺에서의 大勝을 남김으로써 國軍의 威容을 드높였다.

라. 전투후의 개황

5월 22일 부터 同月 25일까지의 激戰끝에 『大關嶺에서 大勝』이란 記錄을 남긴 수도사단은 이날 밤 美 제8군사령관 Van Fleet 대장의 命令에 따라 군단장 白善燁 소장으로 부터 要旨 다음과 같은 命令을 받았다. 『수도사단은 5월 26일 06.00을 期하여 現戰線에서 攻擊을 개시하여 Waco線을 奪還한 다음 X線까지 進擊하면서 지역내의 敵을 粉碎하라』

이에 사단은 군단 左翼으로 躍進케 되었으며 곧 進擊戰에 따른 준비태세를 點檢하는 한편 大關嶺에서 快勝을 거둔 제1연대를 이날附로 사단 豫備隊로 轉換케 하여 "진고개"(珍古介)에서 戰力을 정비토록 하고, 제1기갑연대로 하여금 主戰部隊로서 제1연대의 戰鬪正面을 引受케한 다음, 제26연대와 같이 一線梯隊로 併進 攻擊토록 措置하였다.

그리하여 사단은 5월 26일 06.00부터 右인접 제11사단(장, 吳德俊준장 : 5월 26일附로 崔德新준장과 交代)과 左인접 美 제10군단(장, Almond중장)의 攻擊과 呼應하여 일제히 進擊을 斷行하였는데, 이때의 사단은 天險의 太白山脈 中腹인 鐵甲嶺—頭老峰—五台山을 踏破하면서 1개중대 규모의 中共敗走兵을 驅逐한 다음 18.00에 Waco線을 장악하고, 계속 進擊끝에 20.00에는 X線〔東海岸 仁邱里에서 西南向하여 바다峠—梅伏山(△1,360)을 連하는 線(Waco線에서 4~5km 前方)〕까지 進出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大關嶺에서 決定的인 打擊을 받은 中共 제3야전군 제9병단 소속의 제27 군과 北共 제12사단은 완전히 戰意를 상실한 채로 계속 北쪽을 向하여 分散 潰走하더니, 사단이 X線을 확보

할 무렵에는 그 西北쪽 藥水山(△1,306)—加七峰(△1,240)의 험준한 山岳을 타고 방황하다가 我軍의 追擊을 견제할 目的으로 새로이 戰線에 投入된 北共 제2군단 소속의 제13사단과 군단 直轄부대로 보이는 1개연대 규모의 掩護아래 麟蹄 西北쪽으로 退却하였다. 그러나 이 敵은 潰滅상태에 빠져 있었으므로, 再編까지에는 상당한 時日이 所要할 것으로 判斷되었다.

한편 새로이 投入된 北共 제13사단은 我軍과의 決戰을 피하면서 寒溪里—元通里線에 布陣하고 이 일대에서의 地利를 살려 방어진을 形成하는 듯 보였으며 1개연대의 군단 直轄부대는 雪嶽山 西北쪽인 馬等嶺—미실嶺—龍岱里線에서 據點 확보를 꾀하는 것으로 判斷되었다.

이러한 狀況을 看破한 군단장 白善燁소장은 東部戰線에서 機先을 制하기 위한 새로운 戰線整理를 斷行하기에 이르렀는데, 즉 當 사단으로 하여금 襄陽부근으로 躍進케 한 다음 降仙里(襄陽 北쪽8km) 일대에 進出한 제11사단을 초월하여 杆城을 攻略토록 하였다.

이와 함께 제11사단은 現線에서 西北進하여 馬等嶺—雪嶽山 北麓 일대를 장악한 다음, 제44번 道路 (東草—元通에 이르는 道路)를 확보토록 하였으며, 한편 제3사단(장, 白南權대령)의 제18연대(장, 柳陽洙대령)는 長承里(襄陽 西北쪽 4km) 부근의 제11사단 제20연대(장, 朴元根대령)와 陣地를 交代한 다음 海岸線 防備에 임하도록 하고 사단 主力은 雪嶽山南麓일대 즉, 加羅皮里—馬山里—藥水里를 連하는 線에서 殘敵을 소탕토록 措置하였다.

이에 따라 사단은 襄陽일대에서 戰力을 갖춘다음 5월 29일 04.00에 일제히 攻擊을 斷行하였는데, 이날 09.30에는 李 龍대령이 指揮하는 右一線인 제1기갑연대는 杆城을 占領하고, 일부 수색대는 北進을 계속하여 高城에 進出하기에 이르렀고, 豫備隊에서 主戰部隊로 轉換한 韓 信대령이 指揮하는 제1연대는 左一線으로 躍進하여 杆城 西南쪽 北川江을 따라 魚川里—新坪線을 확보하였다.

한편 제26연대(장, 徐廷哲대령)는 사단 豫備隊로 控置되어 東草부근에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사단은 東部에서 빠른 速度로 進出케 되었으나, 이當時 美제187空輸團(장, Bowen, Jr 소장)이 美제10군단의 右翼부대로서 寒溪(洪川 東北쪽 14km)로 부터 洪川—麟蹄—杆城道路를 따라 東北進하여 杆城北方에서 敵의 退路를 遮斷코자 하였으나 때마침 暴雨로 말미암아 그 進擊이 如意치 못하여 當初에 계획한 當 군단과의 戰線均衡에 차질을 보게 되었다. 이에 Van Fleet중장은 5월 30일을 期하여 當 군단과 美제10군단間의 間隙을 補塡키 위하여 兩 군단간의 戰鬪地境線을 調整하였다.

그리하여 군단은 現線에서 西쪽으로 10km 가까이 戰鬪正面이 擴張된, 沙泉里(杆城 西北쪽 16km : 香爐峰 北쪽 10km)—梅峰山(△1,271)—堂亭谷—鞍山(△1,430)—加里峰(△1,519 : 元通 東쪽 10km)線으로 變更되었다.

이리하여 사단은 군단의 指示에 의하여 一旦 進擊을 멈추고, 이날附로 제11사단의 제13연대(장, 吳益慶대령)를 配屬받아, 이를 제1기갑연대의 陣地를 引受토록 한 다음 5월 31일 06.00를 期하여 군단 西側背의 露出에 대비한 戰線整理를 새로이 하였는데, 이때에 사단은 豫備隊없이 全 연대를 香爐峰을 中心으로, 南北으로 連하는 線上에 配備하였다.

즉, 제1기갑연대를 香爐峰—圓峰일대에, 제26연대를 그北쪽 3~5km 일대에, 그리고 제1연대를 그 南쪽 七鐵峰(△1,172)--梅峰山(△1,271)—龍岱一里 일대에 각각 配備하여 이를 主抵抗線으로 하였다.

한편 제11사단 및 제3사단 또한 戰鬪正面의 擴張에 따라 現戰線에서 5~6km 西進하여, 부대配備

를 再調整하였다.

이상과 같이 戰線을 整理함으로써, 군단은 美 제10군단과 堂亭谷을 協調點으로 하여, 巨津里(杅城北쪽 7km)—乾鳳寺—香爐峰—堂亭谷—△981—大岩山(△1,304·元通 西北쪽11km)을 維持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사단은 全 戰線에서 最先端에 位置하여 제1군단의 右一線 부대로 다음 戰鬪를 준비하였다.



〈杅城에 突入한 首都사단의 案內板〉

綜合戰果 및 損失

구분 / 내용 / 부대명	戰果 사살	포로	소총	다발총	기관총	박격포	수류탄	실탄	損失 전사	부상	계
제 1 연 대	1,189	10	107	26	2	1	1,000	8叭	12	16	28
제 26 연 대	164	3		3				15상자	1	2	3
기 갑 연 대	22	4	7	19							
계	1,375	17	114	48	2	1	1,000	8叭 15상자	13	18	31

§ 參戰者의 證言

제1군단 작전참모 孔國鎭대령

(1972년10월5일 洋都産業社에서 예, 준장)

5월 16일을 期한 소위 敵의 제2次春季攻勢로 말미암아 中東部戰線의 一角이 무너지자 군단은 戰線整理를 위한 육군본부 계획에 의거하여 다음날인 17일 부터 東草—雪嶽山—加里峰線에서 江陵—下珍富里線으로 隨意撤收를 하여 決戰防禦線을 形成하였다.

즉, 제11사단과 제1101野工團으로서 美 제7함대의 艦砲支援을 받아 海岸線을 끼고 군단 右正面을 막게하고 首都사단은 군단 左翼으로서 露出된 西側背을 방어키로 하였는데 이때의 戰勢는 六關嶺을 지키느냐의 如否가 열쇠였다.

왜냐하면 元來 이 六關嶺은 江陵 西北쪽 12km에 있는 標高 934m의 巨嶺으로서 東西로 뻗은 京江道路邊에 突出되어 있으므로 東쪽으로는 江陵을, 西쪽으로로는 楡川里—下珍富里을 한눈에 瞰制할 수있는 地形的인 條件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敵이 掌握한다면 군단은 包圍상태에 陷入될뿐 아니라 瞰制下에 있는 江陵을 비롯하여 그곳에 있는 飛行場과 前進基地를 모두 잃어버리는 結果를 갖어올 것이고, 더욱이 이무렵에 攻勢移轉을 준비하던 UN軍의 壯圖도 無爲로 돌아가고 總後退를 하여야 할 形便에 直面하게 된다.

이래서 군단장은 군단 直轄부대로 江陵에 있던 韓 信대령이 指揮하는 제1연대를 六關嶺에 急遽 出動시켜 配置하였는데, 지금 생각해도 이 配置는 아슬아슬 했다.

이때에 제1연대가 부대 展開를 마치자 30분 뒤부터 西側背로 侵透한 敵과 激戰이 벌어졌는데, 조금만 늦었어도 敵에게 先取당할뻔 했다.

참으로 寸刻을 다투는 時間과 機動의 作戰이었다.

우리가 六關嶺 일대를 발판으로 끝까지 奮戰하여 지켰기 때문에 그후 UN軍이 부대를 再整備해서 現休戰線까지 反擊, 北進할수 있는 契機가 되었다고 본다.

또, 한국군이 獨自的으로 군단 규모의 作戰을 展開할수 있는 高級司令部를 存續시킬수 있었다.

이때에 한국군 군단을 解體한다느니 또는 한국군을 모두 美軍사단에 編入한다느니 別의 別이야기가 다 있었다.

5. 奉日川地區 戰鬪 (1951年 5月 20日부터 1951年 5月 22日까지)

참조 : 별책 부도 제16호
상황도 제12, 13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제1사단 장 소장 姜 文 奉	사단 공병대대 장 중령 金 永 錫
제11연대 장 대령 文 亨 泰	배속부대
제1대대장 중령 柳 重 秀	포병 제17대대 장 중령 黃 鐘 甲
제2대대 장 소령 裵 斗 龍	지원부대
제3대대 장 소령 高 林 鉉	美 제73戰車대대
제12연대 장(대리)중령 金 漢 柱	美 제999野砲대대
제1대대 장 소령 柳 文 鎬	美 제936野砲대대
제2대대 장 소령 全 勉 植	美 제176野砲대대
제3대대 장 소령 金 斗 烈	인접부대
제15연대 장 대령 金 安 一	(右隣接)
제1대대 장 소령 金 明 中	美 제1기갑사단장 소장 Charles D. Palmer
제2대대 장 소령 張 時 雨	제5기갑연대장 대령 Irving Lehrfeld
제3대대 장 소령 金 國 柱	

敵 軍

北共 제1군단 장 중장 이 한 목	제19사단
제8사단 장 소장 김 봉 문	제47사단 장 소장 백 낙 칠

나. 전투 전의 개황

사단이 高陽郡 일대와 坡州 南쪽 東巨里一金村里 일대에서 北共 제1군단에 대한 擊滅戰을 끝내고 主陣地로 復歸한 다음 다시 臨津江線으로의 진격을 준비할 무렵 敵의 再攻勢를 예상한 美 제8군은 各軍團에 대하여 主抵抗線의 防禦態勢를 強化토록 지시하였다. 그런데 5월 16일에 시작된 이른바 敵의 제2차 春季攻勢는 그 主攻을 美 제10군단 右翼으로 指向하고 西部戰線의 美 제1군단 正面에서는 接敵狀況이 없는 가운데 局部的인 搜索만이 展開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사단은 계속 美 제1군단의 左翼으로 서울 西北쪽의 主陣地와 前進陣地를 確保하면서 各級 搜索隊가 대체로 중대규모 以下인 敵과 接觸하고 있었다. 즉 15일에 사단 수색중대는 一山에 搜索據點을 設定하였으며, 제11연대의 수색대들은 場基里와 金村里 및 東巨里等地에서 각각 중대~대대규모의 敵과 接觸하였다. 16일 午前에 제15연대의 제5중대는 奉日川里 西北쪽으로 진출하여 1개 소대규모의 敵을 擊破하고, 午後에는 사단 수색중대가 曲陵川을 건너 檢山里까지 수색하자 그 일대에서 敵이 機關銃 사격을 加하기도 하였다. 또한 前進陣地의 제15연대는 當面의 敵을 剔抉코자 17일에 제2대대가 戰車中隊와 協同으로 奉日川里일대에서, 그리고 18일에 제3대대가 東巨里—登院里 일대에서 각각 活動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中·東部戰線에서의 敵의 攻勢가 점차로 鈍化됨을 看破한 제8군 사령관 Van Fleet중장은 곧 攻勢로 移轉할 것을 決心하고 먼저 美 제1·제9 兩군단으로 하여금 攻勢을 取하도록 19일에 命令을 下達하니, 美 제1군단(장, Frank W. Milburn중장)은 右隣接인 美 제9군단과 함께 20일부터 先制的으로 進擊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에 사단은 공격에 앞서 19일 16.00附의 作戰指示 제55호로서 前進陣地를 占據中인 제15연대로 하여금 元堂里부근을 계속 確保케 하는 한편, 主陣地의 제11, 제12 兩연대로써 제15연대 左右側에 각각 前進陣地를 占領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제11연대는 예비인 제1대대를 五龍洞일대에, 제12연대는 역시 예비인 제3대대를 三松里 北쪽으로 前進시키고 나머지 연대의 主力은 佛光洞—龍頭里—花田里 일대의 主抵抗線에서 공격을 준비하였다. 이제 사단은 그 지휘소를 서울 西大門 金華國民學校에, 제15연대는 그 본부를 國祀峰 東南쪽 屋羅山에, 제11, 제12 兩연대는 新村에 각각 본부를 둔 가운데 三松里 北쪽—元堂里—五龍洞 北쪽의 攻擊開始線에서 제12연대가 右一線攻擊梯隊로, 제15연대가 中央第一線, 제11연대가 左一線攻擊梯隊로서의 태세를 갖추고 다음 진격을 待機하였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當初 사단장 姜文奉소장은 北共 제1군단에 대한 擊滅戰을 끝내자 곧 군단명령에 따르는 反擊計劃을 樹立하였다. 즉 主陣地의 제11, 제12 兩 연대를 각각 左·右一線으로 하여 前進陣地의 北쪽인 奈遊里—竹院里—雲井線을 우선 確保한 다음 제15연대는 예비대로 사단 右側方을 掩護케 하면서 제1차目標인 Topeka線을 奪取하고 다시 Kansas線까지 攻進하려는 것이었다. 이 계획은 곧 命令化되어 5월 11일 08.30附의 사단 作戰命令 제58호로 下達되었다. 그런데 敵의 再攻勢가 近迫한 것으로 판단한 美 제8군에서는 이날 『Golden—No Name線上에서의 防禦態勢를 強化하고 前進陣地線에서 接敵을 維持하면서 敵의 攻擊을 粉碎 또는 遲延시킬 것』을 각 군단에 명령하니 이에 따라 사단은 反擊을 保留한 채로 擔當 正面에서의 뚜렷한 接敵이 없는 가운데 다만 小規模의 敗敵을 擊破하면서 수색을 계속 中이었다.

그러다가 中東部戰線에서 敵의 攻勢가 弱化되자 攻勢移轉을 결심한 제8군 사령관 Van Fleet 중장은 19일에 우선 美 제1·제9 兩군단에 대하여 Topeka線으로의 공격을 명령하니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美 제1·제9·제10의 各 군단은 即刻 各 담당 戰鬪正面에서의 捜索活動을 最大限으로 強化하면서 Topeka線으로의 調整된 進擊을 준비하라. 이 線은 楓川里 南쪽 No Name 線上의 白樺峴—甘井里(春川 東北쪽) 부근의 △639—北倍山(△867) 北쪽 가덕山—抱川 東南쪽 水源山—汶山을 直結한다.

② Topeka線을 掌握한 다음 威力捜索을 계속하고 敵의 補給路를 遮斷할 目的으로 다음 地域을 占領토록 계속 진격할 태세를 갖출 것이며 美 제1군단은 제9군단의 左側方을, 제9군단은 제10군단의 左側方을 掩護하라.

抱川 機山里—萬世橋里—楡亭 南쪽 上三巨里—機山里 西쪽의 各 道路交叉點을 連結하는 일대 및 龍華山(△878)—啓星里—華川—楡村里 일대.

③ Topeka線으로의 攻擊開始日은 5월 20일이다. 當該 군단장은 H時를 選定報告하라.

④ 美 제1·제9 兩군단 間의 戰鬪地境線을 下記와 같이 變更한다.

楊州郡 眞乾面 梧南里 北쪽—德岩山(△814)—上烽燧里 北쪽 △742—△567—二東 場岩里 南東』

이에 군단은 20일 05.00를 期하여 공격을 發起하게 되고 따라서 사단은 군단 左翼으로 進擊케 되었다. 그리하여 사단장 姜文奉소장은 Topeka線 奪取의 첫단계로 우선 汶山川 南쪽에서 敵을 捕捉 擊滅하고 同 地域을 確保할 계획으로 要旨 다음과 같은 作戰 指示 제56호를 19일 18.00附로 下達하였다.

『① 사단은 透明圖와 같이 當面의 敵을 捕捉擊滅함과 아울러 Topeka線에 대한 攻擊을 준비하려 한다.

② 제12연대는 右一線이 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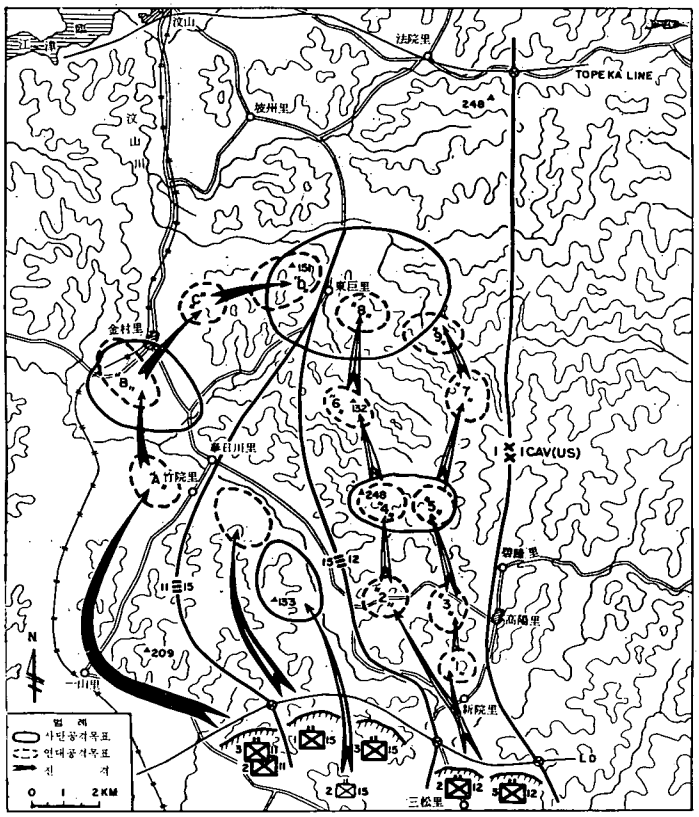
透明圖와 같이 공격을 시작하여 午前中에 第一目標(龍尾里 △218—鳴鳳山 △248일대)를 占領하고 계속 다음 目標를 奪取하라.

제11연대와 協力하여 殘敵을 剔抉한 다음 朴達山(△369)—東巨里일대에 陣地를 確保하라.

③ 제11연대는 左一線이 되어

透明圖와 같이 공격을 開始하여 午前中에 第一目標(衙洞里—金村里일대)를 占領하고 계속 다음 目標를 奪取하라.

◇ 상황도 제12호 作指 제56호 및 각 연대공격 계획



제12연대와 協力하여 殘敵을 剔抉한 다음 東巨里—龍池里 道路 西쪽의 내화山(△151)—金村里 일대에 陣地를 確保하라.

④ 제15연대는 豫備隊가 되어 우선 1個 大隊로서 透明圖와 같이 攻擊 占領케 함으로써 제12연대의 공격을 支援하는 동시에 연대 主力은 何時라도 師團命에 따라 공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제11, 제12 兩연대가 最終目標(東巨里를 中心으로 馬場里—萬丈山—都內里에 이르는 일대)를 占領하면, 大慈里 北쪽—鳴鳳山—獐谷里 일대에 진출하여 공격준비를 完了하고 右側面에 대한 警戒를 擔當하라.

⑤ 砲兵은 別途 指示한다.

⑥ 工兵은 각 연대에 各 1個 中隊씩 分割하여 支援하라.

但 豫備聯隊 支援 工兵은 그 一部로서 砲陣地의 移動 및 戰車예비중대의 機動을 위하여 協力케 하라.

現防禦線(Golden線)의 各 一線中隊 正面에 士兵 若干名을 殘留시켜 障碍物을 監視케 하라.

⑦ 其他 指示事項

㉠ 각 연대는 隣接部隊와의 連絡을 緊密히 維持하라

㉡ 陣地를 占領하면 補完施設을 強化하면서 次後 공격을 준비하라.

㉢ 각 연대는 現防禦線上에 당장 필요치 않은 彈藥과 補給品을 殘置하고 必要한 監視兵을 配置하라.

㉣ 제11, 제12 兩 연대는 現防禦 各一線중대 正面에 士兵 若干名을 殘留시켜 障碍物을 監視케 하라.』

㉤ 殘留 工兵을 포함한 統轄 指揮를 위하여 對戰車공격 대대에서 所要의 將校를 任命하라.』

(透明圖 : 상황도 제12호 參照)

이 계획이 당초의 作戰命令 제58호와 특히 差異나는 것은 攻擊開始線의 設定이니, 作命 제58호에서는 20日 正午의 進出豫定線 부근으로 設定한 것을 더욱 南쪽으로 變更하여 三松里 北쪽一元堂里—五龍洞 北쪽線으로부터 공격을 시작토록 한 것이다.

여하간 각 연대는 다시 自體의 中間目標를 設定하고 공격계획을 마련하였다. 먼저 右一線인 제12연대는 제1 내지 제9 目標를 設定하였는데, 사단 指示의 第一目標를 연대의 第4第5目標로, 最終目標를 第8·第9目標로 分割하여 隷下部隊에 攻擊任務를 賦與하였으니 연대장 代理 金漢柱중령이 下達한 19日 20.00附의 연대 作戰命令 제62호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연대는 透明圖와 같이 目標를 공격하고 最終目標를 奪取한 다음 계속 공격을 준비하려 한다.

연대가 第4·第5 目標를 占領할 때까지 제15연대는 曲陵川 南岸의 芝英里—竹院里일대에서 當연대를 掩護한다.

② 제3대대는 右一線으로 20일 05.00 LD를 突破하고 各 目標를 공격하라. 最終目標를 奪取하면 防禦施設을 強化하면서 계속 공격을 준비하라.

攻擊間에 특히 右側方을 警戒하라.

③ 제2대대는 左一線으로 各 目標를 공격하라. 最終目標를 奪取하면 防禦施設을 強化하고 계속 공격을 준비하라. 攻擊間 특히 左側方을 警戒하라.

④ 제1대대는 연대 예비대로 後方掩護에 任하라.

⑤ 支援 戰車 1개 중대는 연대에서 統轄한다.

⑥ 砲兵 제17대대는 연대를 直接 支援하고 美 第999 野砲대대는 연대를 增援한다.

⑦ 제2·제3대대 및 戰車중대에 工兵 各 1개 소대를 配屬한다.

⑧ ㉠ 對戰車砲中隊는 戰車中隊와 같이 行動하라.

㉡ Golden線에는 중대 正面에 士兵 若干名을 殘留시켜 사단 監督將校의 指示를 받게하라.

⑨ 要請에 따라 航空支援을 期待할 수 있다.

⑩ ㉠ 後方補給所는 舊把撥里 道路 東쪽에, 연대 救護所는 碧蹄驛 부근에 設置한다.

㉡ 彈藥은 연대에서 推進補給하나 食糧은 自隊에서 擔當하라.

㉢ 각 대대는 우선 필요한 彈藥만 携帶하고 其外는 現陣地에 殘置하라.

㉣ 第4·第5 目標를 占領할 때까지 서울—高陽道는 當 연대에서 使用한다.

⑪ 通信軸線은 奉日川—俗稱 양지말(汾水里 南쪽 1km)—東巨里를 連하는 線으로 한다』

(透明圖 및 공격목표 : 상황도 제12호 參照)

한편 左一線인 제11연대는 사단의 第一目標를, 연대목표 B로, 最終目標를 D로 하고 中間에 연대 목표 A·C를 각각 設定한 다음 第一線에서는 1개 대대만이 공격을 하는 方式을 擇하였으니 연대장 文亨泰대령이 作戰主任 崔一嶸소령으로 하여금 下達케 한 19일 19.00附의 作戰指示 제16호는 要旨 다음과 같다.

『① 제1대대는 第一線, 제3대대는 第二線으로 당초 공격에 任하고 제2대대는 豫備隊가 되라.

② 제1대대는 목표 A를 占領한 다음 제3대대의 목표 B에 대한 超越攻擊을 支援하라. 제3대대가 목표 B를 占領하고 목표 C에 前進을 시작하면, 목표 B까지 躍進하여 左側方을 警戒하라.

③ 제3대대는 제1대대가 목표 A에 진출하면 이를 超越하여 목표 B—C—D에 대하여 계속 공격하라.

④ 제2대대는 제1·제3 兩 대대가 목표 B에 前進하면 목표 A에서 待機하고 命에 따라 前進하라.』

(공격목표 : 상황도 제12호 參照)

그리고 제15연대는 그동안 前進陣地를 確保한 가운데 搜索과 散發的인 戰鬪를 계속하던 중, 이제 예비대가 되었는데 그대로 待機態勢에 머무는 것은 아니었다. 즉 연대는 제11·제12 兩 연대가 前進하는 中間地域에 진출하여 兩연대의 공격을 支援함과 아울러 사단의 명령에 따라 攻擊隊列에 參加토록 되었다. 따라서 연대장 金安一대령은 作戰主任 全九百 소령으로 하여금 19일 24.00附로 要旨 다음과 같은 作戰指示 제35호를 下達케 하였다.

『① 사단은 透明圖와 같이 當面의 敵을 攻擊하여 捕捉 擊滅함과 아울러 Topeka線에 대

한 진격을 준비한다.

② 연대는 1개 대대로서 透明圖와 같이 敵을 공격하여 陣地를 占領한 다음 제11연대의 공격을 支援하려 한다.

사단 명령이 있을 경우 鳴鳳山—官山里 일대에 진출하여 공격준비를 完了하고 사단 右側方 警戒에 任한다.

③ 제2대대는 明 20日 05.00에 공격을 시작하여 透明圖에 表示된 地域(芝英里 南쪽)을 確保하고 제11연대의 공격을 支援하라.

대대의 공격에 戰車 6臺가 支援하며 工兵 1개 소대가 따른다.

④ 제1대대는 明 20日 05.00 以後 何時라도 出動할 수 있도록 待機함과 아울러 제2대대의 공격을 支援하라.

⑤ 제3대대는 2개 소대 兵力으로서 明 20日 04.00를 期하여 제5중대의 陣地를 交代 占領케 하고 대대 主力은 05.00 以後 何時라도 出動할 수 있도록 待機하라.

⑥ 砲兵 제17대대와 美 第999野砲隊가 一般支援한다.

⑦ 工兵은 우선 砲兵대대 및 戰車豫備中隊와 같이 行動하라.』

(2) 작전실시

5일 20월 : 이날 05.00부터 사단은 Topeka線 奪取를 위한 첫 단계의 진격을 시작하였다.

1. 사단 右一線인 제12연대(장 대리, 金漢柱중령)는 제3대대를 右一線, 제2대대를 左一線으로 三松里 일대로부터 前進하였는데 龍伏院—官山里線의 高地에서 急襲으로 맞서는 敵과 對決하여 苦戰을 치루었다.

즉 제3대대(장, 金斗烈소령)는 09.00 以前에 目標1인 龍伏院일대에 진출하자 곧 2개 중대 규모의 敵과 激突하였는데 右 第一線인 제10중대(장, 嚴秉吉대위)는 畓地帶一△133를 질러 △122 南麓에 진출하고 左 第一線인 제9중대(장, 白潤基대위)는 道路를 따라 急進하여 그 西쪽 高地(140m)를 占領함으로써 兩중대는 馬蹄形의 南쪽 兩端에서 北쪽 高地의 敵을 공격케 되었다. 그런데 敵은 迫擊砲와 直射砲의 火力을 集中하면서 제9중대가 占領한 高地의 東斜面으로 迂回한 다음 不意에 急襲하니, 중대는 09.30에 일단 碧蹄 西쪽의 交叉路 부근으로 물러나 다시 공격할 채비를 차리게 되었으며 이어 제10중대도 仰射하여야 되는 地形의 不利까지 겹쳐 碧蹄 東쪽으로 물러서야 하였다. 兩 중대는 11.00에 再次 공격을 시작하여 支援砲兵의 火力으로 敵을 制壓한 다음, 제9중대가 12.30에 중대규모의 敵을 擊破하고 다시 西쪽 高地를 奪取하였으며 제10중대도 14.00에 北쪽 高地로 진출하였다.

그러나 일부의 敵이 下大慈里 南쪽인 同 高地 北麓으로부터 反擊하므로 제10중대는 이를 阻止하게 되었는데 이미 △122 공격에서 중대의 銳氣가 鈍化된 것을 焦慮한 대대장 金斗烈 소령은 예비대인 제11중대와의 交代를 명령하였다. 이에 중대는 龍伏院 마을北쪽으로 물러나 後續하던 제11중대와 交代하고 17.00에는 西쪽 高地에 兵力을 配置한 가운데 待機態勢에 들어갔다. 한편 새로이 대대 右 第一線이 된 제11중대(장, 金炳坤대위)는 敵의 抵抗을 물리치고 16.00에 東쪽으로 迂回攻擊을 시작하여 北쪽 高地의 頂上 東쪽 200m 地點에서 10餘名의 敵을 捕虜로 잡은 다음, 제9중대의 正面攻擊을 支援함으로써 18.00까지는 대대가 下大慈里 南쪽인 目標1의 高地를 確保케 되었다. 이와같이 하여 午後 늦게야 첫 공격목표를 奪取한 대대는 쉴새없이 目標 3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였는데 목표인 下大慈里 北쪽의 △188에는 龍伏院일대의 敵을 몰아세우는 대대 지휘소가 있는듯 하였고, 이때의 △188—△200 일대에서는 중대 규모의 敵이 抵抗하였다. 대대는 20.00 以前에 兩 중대가 각각 △188의 東南 및 西南端으로부터 공격을 시작하여, 제11중대가 △188에, 제9중대가 그 西쪽으로 △200 中麓까지 肉迫하였으나 敵의 發惡은 執拗하게 계속되었다. 이에 제11중대가 高陽里 西쪽 山의 東麓으로부터 △188 北쪽에 걸쳐 拍車를 加하여 공격하는 가운데 제9중대는 一齊突擊으로 敵을 潰滅하고 이로서 대대는 子正까지에 일대를 掌握함과 아울러 山 東麓에 제11중대, 北麓에 제9중대, 그리고 西麓에 제10중대를 展開하여 敵陣을 睥睨하게 되었다.

한편 연대 左一線인 제2대대(장, 全勉植소령)는 제6, 제7 兩중대를 각각 左右 第一線, 제5중대를 예비대로하고 目標 2를 향하여 突進하였는데 途中에서 敵이 上大慈里一斗浦洞 일대로부터 迫擊砲 直射砲 등으로 射擊을 加하기도 하였으나, 대대는 제8중대(장, 鄭元燁대위)의 迫擊砲 射擊으로 그 一部를 制壓하는 한편 障碍物을 헤치면서 午前中에 曲陵川을 건너 官山里 南쪽에 진출하는 즉시로 北쪽 山의 敵을 공격하였다. 거기에는 △148와 西峰을 中心으로 하여 도합 1개 대대 규모가 砲兵支援下에 抵抗하였는데 제6중대(장, 趙基栢대위)는 14.30에 제5 중대가 高地 西쪽의 交叉路부근에서 補助攻擊을 하는 가운데 敵陣 200m 前方까지 肉迫하여 航空機 및 野砲의 支援으로 敵의 氣勢를 꺾은 다음 18.00에 敵陣에 突入하였다. 제7중대(장, 崔春影대위)는 △148의 稜線이 南쪽으로 길게 뻗쳐 있고 그 중간에서 일부의 敵이 抵抗하므로, 西쪽으로 迂回하여 15.30에 時期洞 東北쪽으로 진출한 제5중대(장, 金永俊대위)의 掩護下에 敵의 特火點을 공격함으로써 最後 阻止射擊을 加하던 그들의 重火器를 沈默케 한 다음 突擊을 敢行하니 督戰隊의 威脅으로 決死 抵抗하

는듯 하던 敵은 潰滅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제6, 제7 兩중대는 潰走하는 일부의 敵을 追擊하면서 上大慈里—酒幕거리를 中心으로 펼쳐진 開豁地를 지나 21.30에 그 北쪽 高地에 진출하였으며 이로서 대대는 目標 2를 確保케 되었다.

그런데 연대가 敵의 執拗한 抵抗과 地形의 不利 등으로 一時 苦戰을 겪어 이와같이 前進이 遲滯되자 사단장 姜文奉 소장은 午后에 계획의 일부를 變更하여 제12연대가 공격키로 된 第一目標를 제15연대로 하여금 공격토록 명령하였다.

2. 이에 제15연대장 金安一대령은 제1, 제2 兩 대대에 東北進하도록 任務를 賦與하니 연대는 4月末 以來로 계속 第一線에서 戰鬪를 감당하고 이번에 豫備隊가 되었다가 공격初日부터 다시 第一線에서의 戰鬪에 參加케 된 것이다. 여하간 연대는 이날 午后 늦게 曲陵川 南岸으로부터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이에 앞서 兩 대대는 當初에 계획(연대 작전지시 제35호)되었던 任務를 遂行하였다. 즉 제2대대(장, 張時雨소령)는 05.00에 청대동 일대의 攻擊開始線에 진출하여 제1대대와 交代한 다음 06.30에 前進을 시작하여 甄達山(△135)일대의 敵을 擊破하고 일부는 △133를 거쳐 14.30에 全 대대가 芝英里—君子洞 南쪽에 진출하여 待機中이었으며 제1대대(장, 金明中소령)는 12.40에 上舟橋里—馬上洞일대로부터 前進하여 15.15에 馬洞에 이르렀는데 이 때에 새로운 공격명령을 받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제2대대는 17.00에 竹院里 일대로 西北進한 다음, 曲陵川 南岸에서 東北쪽으로 方向을 轉換하여 공격을 시작하였으며, 뒤이어 芝英里일대에 진출한 제1대대는 17.50에 官山里 西北方—芝英里—君子洞 東北쪽으로부터 공격을 加하였다.

제1대대는 제1, 제2, 제3중대를 각각 右·中央·左 第一線으로 展開하고 △209—嘯鳳山(△248) 일대를 目標로 공격하였는데 兩 高地에서는 각각 2개 중대규모의 敵이 火力을 雨注하면서 물러나지 않았다. 이러한 敵의 瞰射로 대대는 古谷 北쪽의 △209 南麓으로부터 遊山 北쪽인 △248西麓에 이르는 線에서 頓挫된 채로 日暮를 맞이하게 되었다. 대대는 夜間攻擊을 續行키로 하고 21.15에 제2중대(장, 田炳瑞대위)가 △248東南 稜線에 진출하여 左第一線을 支援함으로써 제3중대(장, 鄭亨澤대위)는 22.40에 △248를 奪取할 수 있었다. 右第一線인 제1중대(장, 崔永植대위)는 △209 西쪽으로 迂回하여 敵을 공격한 결과 熾烈한 敵의 鐵火 속에서 24.00까지 버티고 있었다.

연대 左一線이 된 제2대대는 제6중대를 右 第一線, 제7중대를 中央 第一線, 제5중대를 左 第一線으로 前進하였는데 곧 奉日川里 北쪽 高地에서 集中射擊을 加하는 중대규모의 敵과 부딪치게 되었다. 각 중대는 逐次로 道路를 가로질러 山麓으로 진출한 다음, 高

地 南쪽에서 西쪽에 이르는 三方向으로 공격한 끝에 敵을 擊退하고 이어 俗稱 조산말로 향하여 1km를 急追하였다. 그리하여 22.00에 제6중대(장, 朴貴善대위)는 △248 北쪽에, 제7중대(장, 白南恒대위)는 隱谷 東쪽 高地(鎭山 東쪽)에, 제5중대(장, 姜東遠대위)는 그 西쪽인 樟谷里 北쪽 高地에 각각 진출하여 24.00까지는 兵力配置를 完了하고 警戒態勢에 들어갔다.

3. 한편 사단 左一線인 제11연대(장, 文亨泰대령)는 비교적 敵의 큰 抵抗이 없는 가운데 順調롭게 前進을 시작하였다.

第一線인 제1대대(장, 柳重秀 중령)는 05.00에 攻擊開始線인 五龍洞 일대로부터 先發하였는데 右 第一線인 제1중대(장, 朴春光대위)는 途中에 出沒하는 일부의 敵을 驅逐하면서 06.30에 峰山高(△209)을 占領하고, 이어 左 第一線인 제2중대(장, 金日哲중위)는 戰車小隊와 協同으로 一山으로 突進하였으며 제3중대(장, 孫炳俊대위)는 右側方을 警戒하면서 제1중대에 後續하였다. 이와같이 快調의 前進을 계속한 대대는 08.00에 A目標를 占領한 다음, 제2중대는 馬場洞, 제3중대는 陵內洞 일대 그리고 제1중대는 그 西쪽에 있는 高地에서 제3대대의 超越攻擊을 掩護하였다.

제3대대(장, 高休鉉소령)는 이날 아침 自動車便으로 花田里에서 陵谷—五龍洞——山을 거쳐 雪門里에 진출한 다음 제1대대를 超越하여 제9중대를 右 第一線, 제10중대를 左 第一線으로 공격을 시작하였다. 敵은 奉日川里 일대와 衙洞里 △107를 中心으로 한 일대에서 각각 대대규모로서 抵抗하였는데 대대는 △107일대를 集中攻擊하여 예비대인 제11중대와 協同하는 戰車 2개 소대 및 제1대대가 掩護하는 가운데 敵을 擊破하고 11.00에 B目標를 占領하였다. 대대는 계속 C目標 공격에 나섰던 바, 前方인 弩造里 北쪽—杜門洞 일대에서 중대규모의 敵이 抵抗할 뿐만 아니라 右側方인 奉日川里 일대의 敵이 아직도 물러나지 않고 挑戰하는 듯 하였다.

이에 後續하던 제1대대가 B 目標에 진출하고, 특히 제2중대가 陰村里 交叉路 西南쪽 高地에서 東쪽으로 道路건너 奉日川里를 目標로 공격함으로써 그 일대의 敵을 牽制하니 後顧의 念慮를 놓게 된 제3대대는 接戰끝에 進退維谷이 된 敵을 擊滅하고 16.50에는 C目標를 奪取할 수 있었다.

이어 제3대대는 D目標를 占領코자 △151(내화山)—都內里를 거쳐 汶山川 南岸까지 直衝하였는데, 일대에는 東南方으로부터 右往하고 左往하는 彷徨의 一群이 集結하기 시작하고 외화山—내화山의 北麓에서 대대규모의 敵이 一時에 反擊하므로 대대는 곧 그 일부

를 屠戮한 다음, 제9중대(장, 金衡祿대위)가 梧山里 北쪽 高地(△151 西南쪽)에, 제10중대(장, 曺正哲대위)가 都內里 南西쪽 高地에서 일단 陣地를 占領하여 東巨里를 거쳐 北上하려는 敵의 退路를 遮斷하였다.

이로서 연대는 이날 射殺450명, 捕虜 30명의 戰果를 올린 가운데 대체로 계획대로 진격하여 날이 저문 뒤에는 潰走하는 일부의 敵을 剔抉할 따름이었으니 사단 右一線에서의 進擊이 遲滯됨에 따라 窮寇勿追로 突進速度를 늦추게 되었다.

그런데 사단 右隣接인 美 제1기갑사단(장, Charles D. Palmer 소장)은 사단에 비하여 그 진출이 훨씬 뒤쳐지고 있어서 그 左一線인 제5기갑연대(장, Irving Lehrfeld 대령)가 이날 紙粗里—新院里 線에 이르고 있었다. 따라서 사단은 空間을 露出하게 된 右側方을 自力으로 掩護하여야만 되었으니 이날 20.00附로 下達된 作戰指示 제57호는 要旨 다음과 같다.

『① 사단은 5월20일 占領한 陣地를 21일 攻擊開始時까지 確保 固守하려 한다.

② 제11연대는 汾水里—東巨里 南쪽—梧山里 일대에 陣地를 占領하여 北쪽과 東北쪽으로부터의 敵의 逆襲에 對備하는 동시에 東巨里周邊을 確保하라.

사단 수색중대에 대한 作戰上의 區處權을 明21일 攻擊開始時까지 附與한다.

③ 제12연대는 碧蹄—官山里 線을 境界로 南쪽에 陣地를 占領하고 사단 예비대로서 제11, 제15 兩 연대 區域에 대한 逆襲을 준비하라.

對戰車攻擊대대 1개 중대의 作戰指揮權을 掌握하고 步兵 및 工兵 각 1개 중대를 統合하여 제17 및 제999野砲대대의 陣地를 掩護하라.

(透明圖上 野砲陣地 : 元興里 宮洞 南쪽)

④ 제15연대는 제12연대 1개대대(제3대대)에 대한 作戰上의 區處權을 明日 攻擊開始時까지 掌握하여 東北 및 北方으로부터의 敵의 逆襲에 對備하는 陣地를 占領하는 동시에 1개대대로서 제176 및 제936 野砲대대 陣地를 掩護하라.』

(透明圖上의 陣地 : 제12연대 1개대대는 東쪽으로 高陽에 面하여 大慈里 △188일대, 제15연대는 △218—龍尾里—隱谷 南쪽, 제 176 및 936대대는 연대 제3대대와 함께 黃龍山 東쪽과 一山 東쪽.)

각 연대는 명령대로 陣地를 占領한 가운데 右側方에 대한 警戒網을 폈는데, 이어 사단에서는 다음날의 진격을 계획하니, 사단장의 命令에 따라 作戰參謀 代理인 崔大明중령은 이날 22.00附의 作戰指示 제58호를 下達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사단은 北進을 계속하여 北共 제1군단의 主力을 捕捉 殲滅하려 한다.

② 제11연대는 透明圖와 같이 공격, 前進하여 目標 第3을 奪取한 다음, 強力한 步·戰協同部隊로서 急速히 目標 第8을 占領하여 敵의 退路를 遮斷함으로써 包圍網을 完成하라.

③ 제15연대는 透明圖와 같이 공격 前進하여 目標 第4를 奪取한 다음 急速히目標 第6을 占領하여 敵의 退路를 遮斷하고 包圍擊滅하라.

④ 제12연대는 透明圖와 같이 공격 前進하여 目標 第7을 占領한 다음 사단 예비대가 되라

⑤ 각 연대는 항상 1개 대대의 예비대를 保有하라.』

(透明圖 : 攻擊開始線, 東巨里—梧山里—杜門洞. 但 제12연대는 惠陰嶺—隱谷 東쪽의 陽地洞.

H時 ; 21일 05.00. 但 제15연대는 06.00.

攻擊目標 ; 제11연대 ; 第1, 坡州 西쪽 烽岩里—防築洞. 第3, 汶山 東北쪽 臨津里—梨川里. 第 8, 積城.

제15연대 ; 第2, 坡州 南쪽 俗稱 대추벌—釜谷里. 第4, 鳴鶴山—梨川里 南쪽. 第6, 法院里—서원洞.

제12연대 ; 第5, 錦屛山(△293)—대추벌 東쪽. 第7, 法院里 南쪽 大爲里—鳴鶴山 東쪽.)

5월 21일 : 사단은 主力으로 하여금 東北方으로 迂回케 하고 1개 연대로서 東南쪽에서 北으로 直衝함으로써 敵을 包圍 擊滅코자 하니 각 연대는 밤새 自體의 계획을 마련하여 이날 아침 공격을 再開하였다.

1. 제15연대는 이날 01.00附로 作戰指示 제36호를 下達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연대는 사단 명령에 따라 北으로 공격하여 正面 北共 제1군단 主力의 退路를 遮斷하고 이를 包圍擊滅하려 한다.

② 제1대대는 右一線으로 공격 前進, 目標 I (鳴鶴山)를 奪取한 다음 急速히 目標M(서원동)을 占領하여 敵의 退路를 遮斷하고 이를 包圍 擊滅하라.

③ 제2대대는 左一線으로 공격 前進, 目標C (釜谷里)를 奪取한 다음 제3대대가 超越攻擊하면 연대 예비대가 되어 제1, 제3 兩 대대에 後續하라.

④ 제3대대는 今 21일 04.00를 期하여 野砲陣地에 대한 警戒任務를 完了하고 06.00까지 연대에 復歸한 다음 예비대로 待機하다가 제2대대가 目標 C를 奪取하면 超越 攻擊하고, 目標H(南陽里—外陵)를 奪取한 다음 急速히 目標 L(永平山 南쪽 龍山洞 일대)을

占領하여 敵의 退路를 遮斷하고 이를 包圍 擊滅하라.』

그런데 제1대대의 目標 I 까지에는 目標B(新灘幕 일대)·D(대추벌)·G(加野里 일대)가, I와 M 사이에는 K(가좌里)가 각각 設定되었으며, 제2, 제3 兩 대대의 目標로서는 A(내화산 일대)와 E(釜谷里 北쪽—坡州里 南쪽)·F(坡州里—向陽里 南쪽) 및 T(池村 北쪽일대)가 中間目標로 設定되었다.

이에따라 연대는 右一線인 제1대대와 左一線인 제2대대가 먼저 전날의 陣地인 奈遊里—鳴鳳山 일대로부터 前進을 시작하였는데, 제1대대(장, 金明中소령)는 제1중대(장, 崔永植대위)가 지난 밤부터의 激鬪끝에 이날 02.00에 △209를 占領한 다음, 제3중대를 先頭로 08.30에는 汾水里 西南쪽에 진출하였다. 여기에서 대대는 汾水里 北쪽 高地의 敵을 驅逐하고 東巨里를 거쳐 14.00에 目標B인 新灘幕 北쪽으로 진출하였는데, 이때에 汶山川 건너 檢田里 北쪽 高地와 俗稱 가자미고개 일대로부터 敵의 迫擊砲, 重輕機의 火力이 빗발쳤다. 이에 대대는 제1중대를 右 第一線, 제2중대(장, 田炳瑞대위)를 中央 第一線, 제3중대(장, 鄭亨澤대위)를 左 第一線으로 하여 兩 高地의 각각 1개 중대 규모인 敵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彼我 사이를 가로 지르는 汶山川 沿邊은 幅 1km 以上의 開豁地가 펼쳐져 있고, 敵은 全火力을 대대正面에 集中하니 공격은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다. 더욱 이날따라 終日 내린 비는 機動에 많은 支障을 주어, 어두어진 다음, 대대가 川邊까지 진출한 22.00에는 이미 增水된 河川을 건널 수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되돌아 서게된 대대는 新灘幕을 中心으로 그 北쪽에서 東쪽高地 일대에 걸쳐 각 중대를 配置하고 四周警戒에 任함으로써 目標B에 머물게 되었다.

또한 左一線인 제2대대(장, 張時雨소령)는 천지山 東北 高地에서 抵抗하는 중대규모의 敵을 一蹴한 다음, 11.00에 目標A인 梧山里—내화山 일대에 진출하였으나 12.00에 연대장의 명령으로 東巨里 南쪽으로 撤收하였다가 22.00에는 野砲隊의 警戒를 위하여 제5중대(장, 姜東遠대위)가 遊山, 제6중대(장, 朴貴善대위)가 官山里 西쪽 交叉路부근으로 각각 移動하였다. 따라서 目標C의 공격은 제3대대가 대신케 되었다.

제3대대(장, 金國柱소령)는 이날 午前中에 내화산으로 진출하여 13.00에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마침 檢田里 일대를 占據中인 敵이 연대 右一線인 제1대대의 진격을 阻止코자 汲汲하는 사이에 汶山川을 건넜다. 그리하여 左第一線으로 坡州里 南쪽 畓地帶까지 진출한 제9중대(장, 李昌浩대위)는 다시 南東쪽으로 方向을 돌리고, 右第一線인 제10중대(장, 崔文榮대위)는 西南쪽에서 치달아 15.30에 △148의 2개 중대 규모인 敵을 공격하였다. 이러한

兩面 공격에 그 火力據點이 擊破된 敵은 결국 退路를 찾아 敗走할 수 밖에 없었고, 대대는 17.00에 同 高地를 占領하였다. 다시 제9중대는 北쪽으로 진출하여 20.30에는 向陽里 南쪽인 城隍堂峙 일대를 占領하고, 제10중대는 西進하여 21.00에 釜谷里 北쪽 高地를 占領하니 이로서 대대는 目標E와 F를 確保하였으며, 연대는 이날 射殺 140명, 捕虜 17명의 戰果를 거두었다.

2. 사단 左一線인 제11연대(장, 文亨泰대령)는 전날 23.00附 作戰指示 제17호를 下達하였는데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제1대대는 5월 21일 05.00를 期하여 攻擊을 시작, 目標"가"(俗稱 도짓골일대)"나"(防築洞 北쪽, 鳳棲山 일대)를 奪取하고 "다"(新谷峴一臨津里 일대)에 進出하라.

② 제3대대는 제1대대의 右側으로 後續하여 "가"를 經由, 제1대대가 目標 "나"에 前進하면 이를 超越하여 目標"라"(汶山 東쪽一內陵 西쪽 일대)에 진출하라.

③ 제2대대는 예비대로서 金村一汶山 國道를 따라 제1대대의 左側으로 後續하라.

1개 중대로서 始終 戰車를 隨伴케 하라.

제1, 제3 兩대대가 目標"다"에 진출하면 戰車 2개 중대와 步戰協同부대를 편성하여 積城으로 진출, 敵의 退路를 遮斷하라.

④ 細部 事項은 隨時 別途로 下達한다.

⑤ 對戰車砲隊는 제936野砲대대와 함께 行動하며 그 警戒에 任하라.』

그런데 연대는 이 命令에 따르는 공격을 시작하기 前에 敵의 反擊을 먼저 粉碎하여야만 되었다.

즉 00.30에 외화산 일대로부터 대대 규모의 敵이 제3대대 正面에 夜襲을 加하여 04.00에는 陣前까지 肉迫한 것이다. 그러나 곧 第一線인 제1대대(장, 柳重秀중령)가 登院里 北쪽一杜門洞 일대로부터 공격을 시작하고 이어 날이 밝자 敵은 汶山川을 건너 龍池里쪽으로 後退하고 말았다.

제1대대는 제2중대(장, 金日哲중위)를 右 第一線, 제1중대(장, 朴春光대위)를 左 第一線으로 계속 前進케 하여 08.00에 目標"가"를 奪取한 다음 目標"나"로 向한 진격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6.00에는 제6중대(장, 安昌健대위)와 協同으로 金村一汶山 道를 따라 前進한 戰車 중대의 支援을 받으면서 鳳棲山을 占領하였다. 이에 梧山里一都內里일대의 陣地를 堅持하던 제3대대(장, 高林鉉소령)는 俗稱 도짓골을 거쳐 鳳棲山 西北方으로 迂回하여 제1대대와 汶山一梨川里 南쪽으로 진출한 제6 및 戰車중대의 支援下에 目標"라"인 內陵 일대

를 占領하니 이 때가 16.30이었다. 다시 제1대대는 그 西南쪽 鳳棲里일대에 陣地를 占領함으로써 연대는 이날 目標"라"까지를 確保하게 되었다.

3. 이제 사단은 대체로 Topeka線에 진출하였으나 제15연대의 右一線이 아직 汶山川 南岸에 머문 관계로 法院里 南쪽까지 진출키로 된 제12연대도 步調를 맞추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제12연대(장, 대리 金漢柱중령)는 제1대대를 右一線, 제2대대를 左一線으로 06.30에 前進을 시작하였는데, 제1대대(장, 柳文鎬소령)는 13.00에 朴達山 西麓에 이르러 基山里로부터 南下하는 중대 규모의 敵을 支援砲擊으로 擊退하고 汶山川 南쪽으로 진출하였다. 그리하여 22.00에는 각 중대가 馬場洞—泉谷 東쪽 高地—汶山川 南岸일대에서 특히 東北方에 대한 警戒에 들어갔는데 그 西쪽 俗稱 검바우—內洞일대에는 제2대대(장, 全勉植소령)가 △209에 我軍이 埋設한 障碍物을 除去하면서 前進하여 15.30에 이미 兵力配置를 끝내고 있었다. 그리고 예비대인 제3대대(장, 金斗烈소령)는 前進途中 09.30에 △218 北쪽—고읍에서 敵 1명을 捕虜로 잡고 直射砲 3門을 鹵獲하면서 20.00에 龍尾里 일대로 진출한 다음, 德坡嶺(△368) 西麓—朴達山 南쪽 봉우리에 主力을 配置하였다.

4. 이날 사단은 처음의 계획대로는 진격하지 못하였는데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일부 敵의 執拗한 抵抗이나 雨天으로 因한 航空과 砲兵의 支援이 不如意한 까닭도 있었다. 그러나 사단으로서는 군단 全般의 진격상황을 考慮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 右隣接인 美 제1기갑사단은 이날 議政府—高陽線에 진출하고 있었다. 따라서 군단 左翼으로 北方에 突出한 사단은 東側方에 대한 警戒에 보다 힘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날 18.00 附 作戰指示 제59호로서 각 연대에 命令하기를 『Topeka線 및 美 제1기갑사단과의 戰鬪地境線에 沿하여 각 대대를 配置하고 北—東方으로부터의 敵襲에 對備하라.』 하였다.

여하간 사단에서는 다시 臨津江 南岸에서 敵을 擊砕하고 Topeka線에서 決戰 防禦를 策하여 다음날의 공격계획을 樹立하였으니, 이날 21.00附의 사단 作戰指示 제60호는 要旨 다음과 같다.

『① 사단은 地域內의 敵을 擊砕한 다음 Topeka線上에서 決戰防禦하려 한다.

② 제11연대 ;

㉠ 步兵 1개 대대 및 戰車 1개 중대로서 透明圖와 같이 공격 前進하여 22日 21.00까지 目標 "가"에서 隨意撤收한 다음 目標"나"를 경유하여 主抵抗線上까지 撤收하라.

㉡ 步兵 1개 대대 以內의 兵力으로서 目標 ①, ②, ③을 占領한 다음 美 제1기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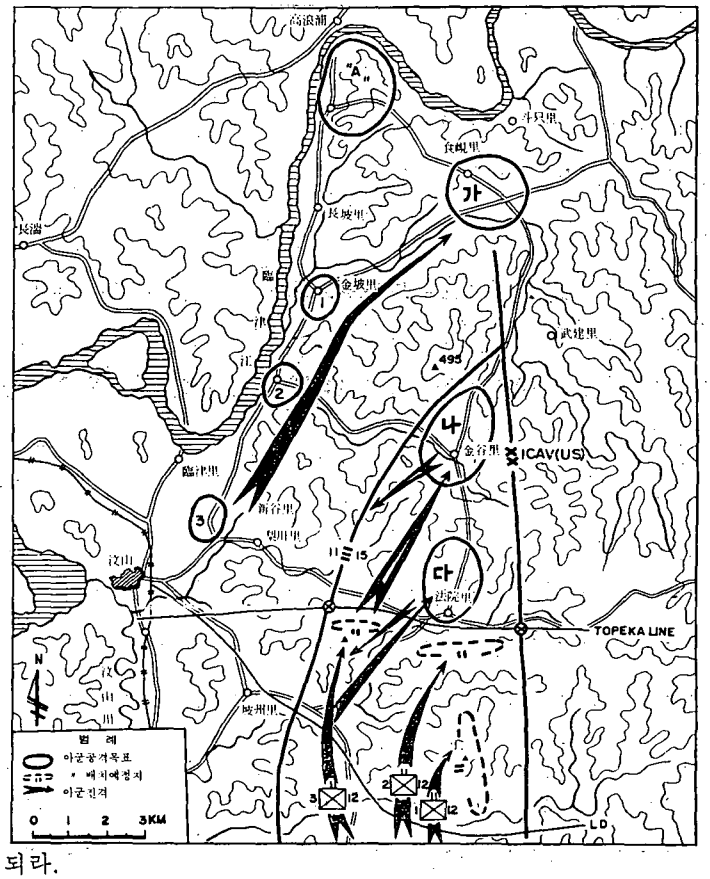
단 地域으로의 敵 後退路를 遮斷하고 上記 步戰協同部隊가 "나"를 通過한 다음 主抵抗線으로 撤收하라.

㉢ 汶山半島일대를 22일 日沒時까지 剿討한 다음 臨津江線에 監視哨를 設置하라.

㉣ Topeka 線上에 主抵抗陣地를 構築하고 警戒線을 確保하라.

㉤ 步戰協同部隊가 撤收한 다음 汶山 南쪽의 城隍堂峙—鳳棲山—內浦里일대에 防禦陣地를 占領하라.

◇ 상황도 제13호 作指 제60호부록



제11연대의 步戰協同部隊가 "나"를 通過한 다음 主抵抗線에 撤收하고, 연대 主力은 奉日川里부근에 집결하여 사단 예비대가 되라.

④ 제12연대 ;

㉠ 1개 대대로 하여금 急速히 前進케 하여 雌雄山(△258)—五陵里 일대에 陣地를 占領토록 하라.

㉡ 1개 대대로 하여금 右隣接인 美 제5기갑연대의 前進에 併行하여 發郎里—錦屛山 일대에 陣地를 占領하고 사단 右一線을 掩護케 하라.

㉢ 1개 대대로 하여금 車輛으로 急速 移動케 하여 연대 左一線대대로서 鳴鶴山 일대에 陣地를 占領케 하라.

㉣ Topeka線에 진출하는 即時 主抵抗陣地를 構築하고 警戒線을 確保하라.

㉤ 제15연대가 主抵抗線을 通過함과 同時에 사단 右一線연대가 되라.

⑤ 사단 수색중대는 目標 "A"를 占領한 다음 臨津江 南北岸에 대한 威力搜索에 任하라.

⑥ 사단 CP는 22日 H時에 斗浦洞으로 移動한다.』

(透明圖 및 공격목표 : 상황도 제13호 參照)

그런데 北共 제1군단은 일부 掩護부대를 남긴채로 主力이 이날밤에 斗只里一高浪浦一紫下里 등에서 臨津江을 건너 退走하고 있었다.

5월 22일 : 날이 밝자 사단은 敵의 主力이 모두 退走하기 前에 이를 捕捉, 擊滅하기 위하여 제11, 제15 兩 연대로서 공격에 나섰는데, 兩 연대는 이에 앞서 사단 명령에 依據하여 공격 계획을 세웠다.

1. 즉 제15연대(장, 金安一대령)는 02.40附의 作戰指示 제38호로서 공격명령을 下達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연대는 사단 명령에 依하여 正面의 敵을 공격 擊滅한 다음 사단 예비대가 되려 한다.

② 제1대대는 防築里一五陵里를 目標로 前進하여 法院里 일대를 占領하고 연대 명령에 따라 主抵抗線으로 撤收한 다음 奉日川里 부근에 集結하라.

③ 제3대대는 鳴鶴山 일대를 거쳐 공격 前進하여 永平山一金谷里 일대를 占領한 다음 제11연대의 步·戰協同부대가 通過하면 主抵抗線으로 撤收하여 奉日川里 부근에 集結하라.』

이리하여 연대는 제1대대를 右一線, 제3대대를 左一線으로 05.00부터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전날의 不振을 挽回하려는 듯 一氣에 目標를 占領할 氣勢였다.

그리하여 제1대대(장, 金明中소령)는 제3중대(장, 鄭亨澤대위)를 右 第一線, 제2중대(장, 田炳瑞대위)를 中央 第一線, 제1중대(장, 崔永植대위)를 左 第一線으로 汶山川沿邊의 新基洞一檢田里 일대로부터 前進하여, 10.00 以前에 五陵里 일대에 진출한 다음 11.30까지 法院里 東西 및 北쪽 高地를 占領함으로써 目標"다"를 確保하였다.

제3대대(장, 金國柱소령)도 敵의 隻影을 찾아 볼 수 없는 가운데 06.30에 延豊里 일대로부터 공격을 시작하여 08.30에 이미 鳴鶴山을 占領하고 11.00에는 目標"나"에 진출하였다. 즉 右 第一線인 제10중대(장, 崔文榮대위)와 예비대인 제11중대(장, 金麗珍대위)가 東文里 △228를, 左 第一線인 제 9중대(장, 李昌浩대위)가 永平山을 占領하고 11.30에는

제9·제10 兩 중대에서 各 1개분대를 金谷里 東쪽과 東南쪽 高地에 配置하였다.

2. 또한 제11연대(장, 文亨泰대령)는 이날 새벽에 要旨 다음과 같은 作戰指示 제18호를 隷下 各隊에 下達하였다.

『① 當面의 敵은 潰散北走할 形勢에 있다. 연대는 이 敵을 捕捉하는대로 擊滅하려 한다.

② 제2대대는 戰車 1개 중대에 分乘하여 鳳棲里—金坡里—德泉里 道를 거쳐 敵의 退路를 遮斷하고 殘敵을 蹂躙한 다음 反轉하여 烽岩里로 復歸하라.

③ 제1대대는 梨川里—臨津里 南쪽 일대를 掌握하고 계속 前進하여 目標 ①, ②, ③에서 退散中인 敵을 捕捉 擊滅한 다음 日沒前에 反轉하여 汶山 東南쪽—鳳棲山일대에 陣地를 占領하라.

④ 제3대대는 向陽里—內陵일대를 占領하여 別命이 있을 때까지 이를 確保하라.

⑤ 對戰車砲중대는 07.00까지 汶山 南쪽에 陣地를 占領하라.

⑥ 수색대는 05.00에 汶山 西南쪽 高地로부터 堂洞里를 거쳐 汶山半島일대를 搜索하라.』

이에따라 연대는 目標①을 占領하고 "가"를 向하여 前進하였는데 11.00 현재로 제3대대(장, 高林鉉소령)는 向陽里 일대를 確保하고 제1대대(장, 柳重秀중령)는 目標③인 新谷里·梨川里間의 삼거리를 제3중대(장, 孫炳俊대위)가, 그리고 目標②인 長浦里 일대를 제 중대(장, 朴春光대위)가, 또 ①인 金坡里일대를 제1중대(장, 金日哲중위)가 각각 占領한 가운데 제2대대는 戰車중대와 함께 新谷里에 진출하고 있었다.

그런데 敵은 이날 아침까지도 계속 越江하여 北으로 退却하였으며 臨津江 南쪽에는 그 掩護部隊와 미처 退却하지 못한 일부만이 남아 제1대대가 金坡里에 진출하였을 때에는 杜門里 東北쪽과 金坡里 東南쪽 高地에서 각각 1개 중대규모로써 抵抗하였으나 이미 如蛾赴火일 따름이었다.

제2대대(장, 裵斗龍소령)는 곧 제1대대를 超越하여 13.00에 제7중대(장, 高寅植대위)는 介石里 南쪽에 진출하고 13.30에 제6중대(장, 安昌健대위)는 德泉里 △100를 占領한 다음 彷徨하는 殘敵을 追擊하였으며 15.30에는 제5중대(장, 金鍾九대위)가 戰車중대와 함께 目標"가"에 진출하여 馬智里 일대에서 1개 대대 규모의 敗敵을 一擧에 擊破하였다. 이어 대대는 17.30 에 反轉을 시작하였는데 敵이 이미 退却하였고 戰車의 燃料와 彈藥關係도 있으므로 대대장은 연대장에게 예정된 反轉經路를 變更할 것을 意見具申한 결과 허락을 얻어 前進經路를 逆으로 다시 밟아 烽岩里로 向하였다. 또한 이를 掩護하던 제1대대도 곧 反轉하였는데 이날 연대는 射殺 1,111명의 戰果를 얻었다.

3. 뒤이어 目標"나""다"를 確保中인 제15연대도 反轉하였는데 제3대대는 18.30에서 20.30 사이에 法院里에 집결하였으며 제1대대는 21.00에 역시 法院里에 집결하여 각각 車輛으로 上支石里를 向하여 出發하였다. 또한 연대 예비대인 제2대대는 이 때에 芝英里—竹院里 일대에서 陣地를 占領中이었다.

4. 한편 제12연대(장 대리, 金漢柱중령)는 06.30에 前進을 시작하여 예정된 陣地를 占領하였다.

즉 제1대대(장, 柳文鎬소령)는 11.00에 五陵里일대로 진출한 다음 13.00까지는 雌雄山(△253)—五陵里일대에 主力을 配置하였으며, 제2대대(장, 全勉植소령)는 12.00까지 鳴鶴山 일대에 각 중대를 配置하였다. 그리고 제3대대(장, 金斗烈소령)는 午后에 朴達山—馬場里 부근을 거쳐 17.00까지는 각 중대를 汶山川 南쪽에 있는 靈場里 北쪽 高地로부터 俗稱 높은골—發郎里 東쪽 高地에 配置하고 東側方에 대한 警戒에 任하였다.

5. 또 사단 수색중대(장, 崔熙燮대위)는 目標A에 진출하여 16.00까지 아직 渡江하지 못한 일부의 敵을 奇襲擊滅한 다음 1개 소대는 訥老里, 主力은 麻山里에서 捜索과 警戒에 任하였다,

이로서 사단은 19.00에 사령부를 斗浦洞 北쪽인 下古谷에 옮긴 가운데 臨津江南岸의 殘敵을 거의 剔抉하고 제12연대를 右一線, 제11연대를 左一線으로 Topeka線에 主陣地를 占領한 것이다. 그리하여 제12연대는 제1대대를 右一線, 그리고 제2대대를 左一線으로 하여 雌雄山—鳴鶴山일대를 確保하였으며, 제11연대는 右一線인 제3대대가 內陵—汶山 東쪽, 左一線인 제1대대가 鳳棲里 일대를 占領하는 동시에 제2대대는 예비대로서 主力을 烽岩里에 두고 제6중대를 西海岸 閑山里에 配置하여 對岸의 敵에 對備하였다. 또 사단 예비대인 제15연대는 24.00 現在 奉日川里—上支石里일대를 確保中에 있었다.

라. 전투후의 개황

5월22일로서 臨津江南岸을 실질적으로 回復한 사단은 法院里—汶山 일대의 陣地를 그대로 確保한 가운데 23일에는 海兵 제5獨立대대(장, 吳命福소령)를 다시 配屬받아 金浦半島의 警戒任務도 맡았다. 그런데 右隣接인 美 제1기갑사단이 아직 뒤처져, 사단은 그 北上을 기다리면서 各級 捜索隊가 江岸에 대한 수색활동만을 벌이고 특히 23일에는 제15연대의 제2대대가 訥老里일대로 出擊하여 殘敵10餘名을 捕虜하기도 하였다.

24일에 이르자 美 제1기갑사단도 Topeka線에 진출함에 사단은 午后에 먼저 警戒線을 擴張하고 이날 23.00에는 作戰指示 제62호로서 Kansas線의 確保를 各聯隊에 命令하였다. 그러나 Kansas線은 대

체로 臨津江에 沿하는 線으로서 이미 사단이 實質的으로 掌握中이었으므로 部分的인 진출이 필요할 뿐이었다.

이로서 사단은 臨津江南岸에 다시 布陣 한가운데 夏季에 들어서면서는 江北岸에 對한 搜索 乃至 奇襲戰을 間歇的으로 벌이고 있었는데, 그 사이 5월 28일에는 제12, 제15 兩연대장이 交替되었으니 제12연대장 金點坤대령 後任으로 사단 공병대대장인 金永錫중령이, 제15연대장에는 金安一대령의 後任으로 前 副聯隊長인 金振暐대령이 각각 任命되었다.

戰	果		
射殺	2,490명	各種小銃實彈	20箱子
捕虜	186명	各種砲彈	120箱子
(鹵	獲)	(破	壞)
小銃	242정	戰車	1대
機關銃	38정	直射砲	5문
自動小銃	8정	自動車	7대
直射砲	9문	**損**	**失**
野砲	4문	戰死	40명
自動車	4대	負傷	211명
手榴彈	20箱子	失踪	7명

§ 研 究

◇ 指揮官의 實際 交替와 發令上의 交替

제12연대는 연대장 金點坤대령이 4月末에 過勞로 入院하여 今般의 戰鬪는 代理로 副聯隊長인 金漢柱중령이 指揮하였다는 事實이 戰鬪詳報에 記錄되어 있다. 일부 證言에 依하면 5月初에는 연대를 사단 공병대대장인 金永錫중령이 지휘하였다고 하는데 戰鬪詳報나 部隊歷史資料 등 記錄上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연대 指揮官名을 高陽一奉日川里一東巨里附近 戰鬪의 경우에는 그대로 金點坤대령으로 하고 本節에 있어서는 金漢柱중령으로 하였다.

6. 美제10군단의 KANSAS線 進擊戰 (1951년 5월 16일부터 1951년 5월 24일까지)

참조 : 상황도 제14, 15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제10군단 장 중장 Edward M. Almond
제 2 사단 장 소장 Clark L. Ruffner
제 9 연대 장 대령 John M. Lynch
제23연대 장 대령 James Y. Adams
제38연대 장 대령 John C. Coughlin
배속부대
France대대 장 중령 Ralph Monclar
Netherland대대장중령 W.D.H Eekhout
제 1 해병사단 장 소장 Gerald C. Thomas
제 1 해병연대 장 대령
Francis M. McAlister
Wilburt S. Brown
(5월 19일부터)
제 5 해병연대 장 대령
Richard W. Hayward
제 7 해병연대 장 대령
Herman Nickerson, Jr.
배속부대
韓제 1 해병연대 장 대령 金 大 植
제 3 사단 장 소장 Robert H. Soule
제 7 연대 장 대령 James Boswell
제15연대 장 대령 Dennis M. Moore
제65연대 장 대령 William W. Harris

제187공수연대전투단
장 준장 Frank S. Bowen, Jr.
韓제 5 사단 장 준장 閔 機 植
제27연대 장 대령 兪 義 濬
제35연대 장(대리)중령 許 亨 淳
제36연대 장(대리)중령 金 且 先
韓제 7 사단 장 준장 金 炯 一
제 3 연대 장 대령 鄭 震
제 5 연대 장 대령 趙 成 華
제 8 연대 장 대령 李 賢 進
韓제 8 사단 장 준장 崔 榮 喜
제10연대 장 대령 李 春 景
제16연대 장 대령 李 錫 鳳
제21연대 장 대령 金 華 山
韓제 9 사단 장 준장 崔 錫
제28연대 장 대령 李 昌 禎
제29연대 장 대령 車 甲 俊
제30연대 장 대령 孫 熙 善
右隣接
韓제 3 군단 장 소장 劉 載 興
左隣接
제 9 군단 장 소장 William M. Hoge

병력 및 장비 : T/O 및 T/E 充足

敵 軍

中共 제12군	장 曾 紹 山	제20군	장 廖 政 國
제31사단	장 趙 藍 田	제58사단	
(제91, 제92, 제93연대)		(제172, 제173, 제174연대)	
제34사단	장 尤 太 忠	제59사단	
(제100, 제101, 제102연대)		(제175, 제176, 제177연대)	
제35사단	장 李 德 生	제60사단	장 劉 亨 雲
(제103, 제104, 제105연대)		(제178, 제179, 제180연대)	
제15군	장 秦 基 偉	제27군	장 彭 德 淸
제29사단	장 張 顯 楊	제79사단	
(제85, 제86, 제87연대)		(제235, 제236, 제237연대	
제44사단	장 向 守 志	제80사단	
(제130, 제131, 제132연대)		(제238, 제239, 제240연대)	
제45사단	장 崔 建 功	제81사단	
(제133, 제134, 제135연대)		(제241, 제242, 제243연대)	

나. 전투 전의 개황

3월 말에 長南里—春川線에서 韓제5, 美제7, 美제2의 3개사단으로써 北進을 시작한 제10군단(장, Edward M. Almond중장)은 4월 중순에 Kansas線에 進出하였으나, 4월22일에 이르러 敵의 4월 攻勢로 말미암아 다시 No Name線으로 且戰且退하였다.

5월 1일에, 左인접인 제9군단(장, William M. Hoge소장)으로 부터 제1해병사단(장, Gerald C. Thomas소장)을 군단 左翼으로 編入하면서 隷下의 제7사단(장, Claude B. Ferenbaugh소장)이 同군단으로 隷屬이 變更되고 右隣接 韓제3군단(장, 劉載興소장)으로부터 韓제7사단(장, 金炯一준장)을 右翼으로 編入하여, 戰域을 擴大하였다.

이리하여 上南里(縣里 西南쪽 10km)—垈谷里(陽德院里 西北쪽 10km)線에서 右로부터 韓제7, 韓제5, 美제2, 美제1해병사단의 順으로 戰線을 다시 整理한 군단은, 北進態勢를 가다듬었는데, 5월 5일에 제8군으로 부터 「Missouri線으로의 進擊命令」이 下達되어, 군단 右半部의 韓제5, 제7兩사단으로 하여금 군단 正面의 Missouri線(麟蹄—洪川 路 北쪽 4~7km 平行線)을 점령케 하여, 5월10일에 麟蹄—洪川道를 다시 확보하였다.

이때에 敵은 4월공세의 頹勢를 挽回코자, 東部戰線의 山岳地帶로 攻勢의 再擧를 圖謀한 듯 하였으며, 군단 正面의 昭陽江 北쪽에서 「打擊集團」을 編成中인 것이 밝혀 졌다.

航空偵察에 의하면, 駄馬의 行列과 車輛의 縱隊가 日夜로 華川地區에 몰려 들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實際로 그들은 鐵原地區의 中共 제12군(장, 曾紹山)과 漣川地區의 제15군(장, 秦基偉), 그리고 咸

興地區의 제27군(장, 彭德淸)을 華川地區의 제20군(장, 廖耿國)과 함께 麟蹄—楊口間에 集結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군단은 8군의 命令에 따라, 現戰線에서 防守態勢로 轉換하여, 春川—洪川과 麟蹄—洪川軸線의 방어에 注力케 되었는데, 이와같이 군단이 洪川에 방어의 重點을 둔 것은, 다음과 같은 理由에서였다.

즉, 當時에 군단이 그 指揮部를 洪川에 두었던 것을 비롯하여 東海岸의 韓제1군단(장, 白善燁소장)은 注文津에, 韓제3군단(장, 劉載興소장)은 下珍富里에, 그리고 제9군단(장, Willam M. Hoge소장)은 驪州에 각각 指揮部를 두어, 京江道路를 戰線의 橫軸으로 삼았는 바, 이때 洪川은 麟蹄—驪州와 春川—原州間을 잇는 交通上의 要衝임은 물론, 이에서 京江道路上의 橫城이 멀지 않으므로 (東南쪽22km), 이의 장악은 곧 戰線의 橫軸을 制壓함을 뜻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當時의 情況으로 보아, 이 洪川이 中東部戰線의 鎖鑰이라고 할 수 있었으니, 이런 까닭으로 敵의 攻勢가 中東部戰線으로 指向되는 한, 기필코 이를 略取코자 할 것임이, 戰理上으로도 當然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5월 初부터, 東海岸 降仙里에서 서울北方 外廓線에 이르는 No Name線에서의 我軍의 戰線이 安定된 以來로, 敵의 4월공세 主攻이 指向된 中西部戰線에서는 敵과의 接觸이 끊어진 탓으로 그 動向의 把握은 五里霧中속에서 憶測의 範圍를 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제8군사령관 Van Fleet중장은, 敵이 새로운 攻勢를 준비중에 있다고 判斷한 결과 中西部戰線의 제1, 제9兩군단으로 하여금 果敢한 威力搜索으로써 敵情을 蒐集케 하는 한편, 5월 5일에 中東部戰線의 韓國軍(제1, 제3군단)과 제10군단에 要旨 다음과 같은 命令을 下達하였다.

『① 군은 東部戰線의 韓國軍正面에서 支離滅裂상태에 빠진 北共 제3, 제5, 兩군단을 격멸하고, Missouri線으로 進擊하려 한다.

② 韓國軍(제1, 제3군단)은 地域內의 敵을 격멸하고 Missouri線을 점령하라.

공격간 系統을 따라 艦砲지원(NGF)을 要請하라.

현재 進行中인 後方地區에서의 對遊擊作戰은 이를 계속한다.

③ 제10군단은 韓國軍과 協同하여 Missouri線을 점령하라.

공격간에 系統을 따라 航空支援을 要請하라.

韓제3군단의 左側方을 掩護함을 要한다.

④ Missouri線은 大浦里(東草 南쪽 3km)— △1037(龍垈里 東쪽 3km)—△849(麟蹄 西北쪽 5km)—△915(△ 849 西南쪽 3km) —新月里(陰陽里 西北쪽 3km)—加里山(自隱里 西北쪽 4km)이다.

⑤ 韓國軍(제3군단)과 美제10군단의 現戰鬪地境線을 △986(縣里 西쪽 9km)—冠垈里—華川貯水池 東端으로 延伸한다.

⑥ 공격개시일은 5월 7일이다.』

이와같이 제8군에서 東部戰線을 西北으로 推進케 한 것은, 單純히 攻勢로 移轉하여 失地를 回復한다는 目的 以外에 다음과 같은 多角的인 意圖를 內包한 것이었다. 즉, 4월 攻勢 當時에 敵에 加한 衝擊効果를 擴大한다는 것이 그 첫째요, 敵의 反應을 살펴, 豫想되는 攻勢企圖를 確認한다는 것이 그 둘째이며, 麟蹄—洪川間의 戰略要線을 확보하는 同時에 防禦에 有利한 地形을 先制로 占取한다는 것이 그 세째이고, 새로운 敵의 策源地로 판단되는 華川要域을 脅威하는 것이 그 네째이다.

이에 군단장 Almond중장은 이날로 麾下의 각 사단장에게 要旨 다음과 같이 命令하였다.

『① 군단은 일부 병력으로Missouri線을 確保하는 同時, 現 防禦線을 強化하려 한다.

② 제1 해병사단은 5.6.08.00를 期하여, 1개 연대전투단(RCT)으로써 목표 Ⓐ(△473 : 春川 東南쪽 7km)를 점령하여, 同高地를 사단 前進陣地로 확보하라.

③ 제2사단은 5.6.08.00를 期하여 1개 연대전투단(RCT)으로써 목표Ⓑ(△507 : △473東北쪽 6.5km)를 점령하여, 이를 사단 前進陣地로 확보하라.

同陣地의 확보에 사단의 현 예비병력을 사용하여도 可하나, 洪川 東北쪽에 최소한 증강된 1개대대 규모의 兵力을 예비로 控置하라.

④ 韓제5사단은 右側 제7사단과의 協同下에, 5.7.08.00를 期하여 地域內의 Missouri線을 점령하라.

공격間 제7사단의 左側背를 掩護하라.

⑤ 韓제7사단은 右隣接 韓제3군단과의 協調下에 Missouri線을 공격하여 점령하라.』

이리하여, 군단 左半部의 제2사단과 제1해병사단은 그 主力으로써 No Name線을 계속 확보하면서 1개연대전투단으로 하여금 그 前方에 前進陣地를 마련토록 하는 가운데, 右半部에서 공격을 시작한 韓제5사단과 제7사단은 5월 10일을 前後하여 昭陽江 南岸의 陰陽

里에서 鷹峰 (△800 : 於論里 西쪽 6.5km)에 이르기까지 麟蹄—洪川路를 장악하는 Missouri線을 점령케 되었다.

이때에, 中共은 비교적 큰 規模의 行軍縱隊로써 西部 地域으로 부터 東部地域으로 移動中이고, 또 제10군단 正面의 楊口부근에서는 敵의 離合集散이 빈번하였으므로 제8군 사령관은 이로서 미루어 보건대, 敵의 攻勢가 東部地域에 臨迫하였다고 판단한 결과 5월 11일에 다음과 같은 要旨의 命令을 하달하였다.

『① 軍 當面의 敵은 中東部戰線에서 數日內로 攻勢를 企圖할 것으로 判斷한다.

② 軍은 현 Golden—No Name線에서 豫想하는 敵의 侵攻을 擊砕한 다음, 攻勢로 移轉하려 한다.

③ 제1군단은 右翼 제9군단의 作戰에 協力하라.

④ 제9군단은 北漢江 回廊에서의 決戰방어에 任하라.

⑤ 제10군단은 春川—洪川과 麟蹄—洪川回廊에서의 決戰방어에 任하라.

⑥ 韓國軍 제1, 제3兩군단은 雪岳山—加里峰—麟蹄線으로 隨意撤收하여 同線上에서 防禦陣地를 占領하라. (陸本作命 제267호 : 5. 11부 참조)』

이에 군단장 Almond중장은, 군단의 예비병력이 없음을 勘考하여, 各 사단장에게 現防禦線의 固守를 強調하는 동시에 군단 砲兵으로 하여금 昭陽江 南岸의 陰陽里 橋頭堡를 확보중인 韓제7사단과, 春川—洪川軸線上의 前進陣地를 占領하고 있는 제1해병사단의 제7해병연대를 重點的으로 支援케 하였다.

(2) 작전실시

5월 16일 : 이날 16.00에 冠垈里(麟蹄 西南쪽 7.5km) 부근의 昭陽江上에서 信號彈 一發이 爆竹과 같이 飛散하자, 一陣狂風이 流血을 몰아 陰陽里(冠垈里 西南쪽 2.5km 江南岸) 江畔을 휩쓸었으니, 이른바 敵의 「5월 攻勢」가 시작된 것이다.

1. 中共 3개사단과 一戰을 決한 군단 右翼인 韓제7사단(장, 金炯一준장)은, 始終 數的인 劣勢속에서 奮鬪하여, 藍田里—陰陽里—上水內里間의 江 南岸陣地(Missouri線)에서 敵의 渡河를 阻止하였으나, 밤이 깊어지면서 敵의 壓力이 加重되어, 24.00에 이르러 損失을 돌보지 않는 波狀攻擊으로 말미암아, 끝내 陣地를 支撐치 못하게 됨으로써, No Name線으로 隨意撤收하였다. (제7사단의 陰陽里—豊岩里 부근 戰鬪 참조).

이에 突破口를 마련한 中共이 進路를 擴張키 위하여 決堤奔流의 氣勢로 左衝右突함으로써, 同사단 左側의 군단 中央右翼인 韓제5사단(장, 閔機植준장)도 더 이상 支撐하지 못하

고 陣地를 물러나게 되었으니, 그 衝擊의 餘勢는 이날 밤 사이에 自隱里(洪川 東北쪽 22 km)에 있는 제2사단의 右一線陣地까지 波及되었다.

2. 이날 제2사단(장, Clark L.Ruffner소장)은 제23연대를 右一線으로, 제33연대를 中央一線으로 그리고 제9연대를 左一線으로, 終日 별다른 接敵없이 內後洞(自隱里 東北쪽 2.5 km)—北方里(洪川 北쪽 12.5km)間의 洪川正面(20km)을 防禦中이었는데, 子正을 넘어서면서 부터 右一線에서 紛戰이 惹起되었다.

가) 右一線인 제23연대(장, James Y. Adams대령)는 主力인 제1, 제3兩대대를 瓦村里(洪川 東北쪽 5.5km)에 있는 사단 CP부근에서 사단 예비대로 控置하는 가운데, 제2대대를 비롯하여 제1空輸중대와 제72戰車대대(M—4A3E8 : Sherman號) 1개소대로 편성한 Zebra특수임무 부대로써 自隱里 北쪽 麟蹄—洪川道를 가로 질러 內後洞—△883(內後洞 西쪽 4.8km)間의 主抵抗線을 방어케 하고, 韓제5사단 제36연대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 : 5.11 12.00부로 配屬中임)로 하여금 同부대 前面의 鷹峰(△800 : 內後洞 西北쪽 7.5km)—△834(△883 西北 2.5km)間에 前進陣地를 확보케 하여 右隣接 韓제5사단과 連繫토록 하였는데, 敵의 急擊으로 말미암아 이날 밤에 同사단의 戰列이 흩어짐에 따라 同대대도 그 渦中에 휩쓸리게 되었다.

따라서 이와같이 前進部隊가 敵의 攻擊을 牽制抑留치 못함으로써, 主抵抗線의 Zebra부대는 前進陣地의 動搖와 동시에 接敵케 되었다. 이에 同 부대는 敵이, 常套的인 物量戰法으로 防禦正面에 강압을 加하는 一方, 左右의 虛隙을 타고 迂回하여 後方 機動路인 洪川街道를 차단코자 하므로 戰車와 重火器를 우선 撤收시키고, 步兵獨力으로 계속 진지를 固守하였다.

그러나 그 이튿날인 17일 天明과 더불어 군단 右翼의 韓제7, 제5 兩사단 地域을 縱橫으로 席捲한 中共의 일부가 洪川街道 突破에 加勢함으로써 同부대도 自隱里 南쪽으로 逐次撤收케 되었다.

나) 中央一線인 제38연대(장, John C. Coughlin대령)는 제1대대를 右第一線으로 삼아 Zebra부대 左側에 連繫하면서 No Name線上의 △933(△883 西北쪽 1.5km)—加里山(△1,051 : △933 西南쪽 2km)—△743(加里山 西南쪽 3.5km) 陣地를 담당케 하고, 제3대대를 左第一線으로 하여 △739(△743 西南쪽 1.5km)—△778(△739 西北쪽 1.7km)—△592(△778 西南쪽 3.5km)間의 방어를 담당케 하는 한편, 제2대대로 하여금 決雲里(洪川 東北쪽 3.5km)의 군단 CP를 경계토록 하였는데, 이날 中 연대 正面에는 아직 敵勢가 미치

지 않아 제1, 제3兩대대로써 陣地를 굳게 지키는 가운데, 敵의 陣前 追到를 扼腕 待機하였다.

다) 한편 左一線인 제9연대(장, John M. Lynch대령)는 1개대대로써 제38연대 左側에 있는 No Name線上의 主抵抗線(△732—△649)을 확보케 하고, 2개대대로 하여금 △755(△778 西北쪽 3km)—△507(△755 西쪽 4km)間의 사단 前進陣地를 占領케 하였다.

그리고 연대수색중대로 하여금 △669(△507 北쪽 5km)일대를 수색케 하였으나, 終日토록 敵影을 볼 수 없었으며 밤에도 계속 狂風前의 고요를 維持하였다.

라) 제23연대에 配屬中인 France대대(장, Ralph Monclar중령)는 5월 초순 부터 Zebra부대의 主力으로 活躍하다가, 12일에 同연대 제2대대에 主抵抗線방어 임무를 인계한 다음 寒溪에 集結하여 戰列을 整備하였는데, 이날 밤 戰線一角에 龜裂이 생기기 시작함에 따라 Zebra부대와 제38연대 제1대대의 間隙을 補塡키 위하여 加里山 東南麓으로 急遽 挺進하였다.

마) 또한 제38연대에 配屬中인 Netherland대대(장, W.D.H. Eekhout중령)는 同연대 제1대대 戰線 後方의 △710(加里山 南쪽 4km)를 占領하여 이를 同대대의 예비진지로 확보 하면서 일부병력으로 하여금 △782(加里山 西北쪽 2.5km)일대를 수색케 하였는데, 이날 12.00에 수색대가 加里山 西北斜面에서 中共정찰대와 激突케 되었다. 이에 대대는 敵의 攻勢가 追頭하였음을 看破한 연대장의 緊急措置에 따라, 수색대를 收容하여 加里山 南쪽 稜線上의 △787(△710 東北쪽 1.5km)로 驀進한 다음, 연대의 右側方를 掩護하기 시작하였다.

3. 군단 右翼인 제1해병사단(장, Gerald C. Thomas소장)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제1해병연대(장, Francis M. McAlister대령)로써 右一線을 삼아 火禁峯(△499 : 洪川 西北쪽 7km)—△257(火禁峯 西쪽 4km)間 陣地를 占領케 하여 春川—洪川道의 차단에 注力케 하고, 配屬中인 韓제1해병연대(장, 金大植대령)로써 中央一線으로 하여 △306(△257 西南쪽 2km)—金鶴山(△655 : △306 西南쪽 4km)—△330(△306 西南쪽 3.2km)間을 堅守케 하는 한편, 제5해병연대(장, Richard W. Hayward대령) 1개대대로써 左一線을 삼아 △338(△ 330 西쪽 1km)—△509(△338 西南쪽 4km) 진지를 담당케 하고 同연대 主力 2개대대를 吉谷(陽德院里 西南쪽 2km)에 사단예비로 控置하였다.

그리고 제7해병연대(장, Herman Nickerson, Jr.대령)로써 △473(春川 東南쪽 7km)일대에 사단 前進陣地를 확보케 하는 동시에 戰車捜索隊로 하여금 春川 東北쪽을 威力捜索케 하였으나, 終日토록 敵影을 볼 수 없었다.

5월 17일 : 敵은 이날 군단 右半部를 계속 強壓한 결과 右接境線上의 要衝인 五馬峙(縣里 西南쪽 9km)를 차단하여, 右隣接인 韓제3군단(장, 劉載興소장) 管內의 縣里—下珍富里間에서 機動路를 威脅하는 한편, 左半部의 洪川正面에도 攻擊威力을 誇示함으로써, 군단의 全戰線에 걸쳐 紛戰과 亂鬪가 苛烈化하였다.

1. 군단 右翼 兵團인 韓제7, 제5兩사단은 이날 No Name線上의 金富里—掛石里線에서 敵을 抑留코자 하였으나, 전날 밤에 錯雜化한 戰列을 미쳐 가다듬지 못하여, 다시 芳內里—瓦野里線을 向하여 且戰且退하였다.

2. 이날 제2사단(장, Clark L. Ruffner소장)은 그 右一線陣地인 加里山을 基點으로 하여 군단戰線이 急激히 東南쪽으로 기울어 지게 됨에 따라, 사단 右側腰部가 暴露되었으나, 陣地를 固守함으로써, 當面한 麟蹄—洪川軸線의 차단에 注力하였다.

가) 이날 아침, 제23연대(장, James Y. Adams대령)의 Zebra특수임무부대가 진지를 물러남에 따라, 그 진지를 모두 蠶蝕한 1개사단 규모의 敵이 제38연대 右第一線인 제1대대 陣地의 一部를 略取하였다.

이에 연대는 Zebra부대를 수습하여 France대대(장, Ralph Monclar중령)와 함께 제38연대 제1대대를 增援케 하고 瓦村의 연대主力을 急遽 哲亭里(寒溪 東北쪽 3km)로 推進케 하여 麟蹄—洪川道 東쪽에 있는 △588에 遮斷陣地를 占領하였다.

그런데 전날 밤 Missouri線의 前進陣地에서 分散된 韓제36연대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는 이날 10.00에 掛石里부근에서 兵力 308명을 수습하여 韓제5사단 主力과 合勢함으로써 原隊에 復歸하였으며, Zebra부대 역시 그 機能을 喪失함으로써 17.00에 이를 解編하였다.

나) 제38연대(장, John C. Coughlin대령) 右第一線인 제1대대는 右側端의 陣地一部가 敵手에 들어 갔으나, France대대와 Netherland대대의 側方掩護下에 加里山의 主陣地를 계속 堅守하였다.

한편 左第一線인 제3대대는, 終日토록 별다른 接敵狀況은 없었으나, 제1대대의 긴박한 戰況에 비추어 이날 밤에는 그 正面에도 必是 敵의 攻擊이 있을 것으로 내다 보고, 陣地를 修築補強하는 한편 火網과 通信網을 再點檢하는 等 決戰態勢를 더욱 強化하였다.

그런데, 이 대대는 5월초에 陣地를 占領한 以來로, 대대장(Wallace M. Hanes중령)의 陣頭指揮下에 1주일동안에 걸쳐, 不眠不休로 陣地工事를 실시한 결과, 이 무렵에는 陣地의 彈力性과 強度에 있어서 鐵瓮에 다를 바 없다고 自負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특히 대대의 主陣地인 △778는 「Bunker高地」라고 까지 命名할 정도였다. 이 △778는 陣地施設

에 所要된 資材만도 鐵柱 6,000個와 砂囊 237,000袋 및 鐵條網 385束에 達하였으며, 또한 各種 照明과 對人地雷는 물론 55gallon drum桶에 油類와 爆藥을 混入한 大型 手製地雷(fougasse) 38개가 陣前에 埋設되었다. 따라서 이와같이 堅固한 방어진지를 마련한 대대원은 이때 內心 敵의 挑發만을 기다렸는데, K중대(장, George R. Brownell대위)가 △778를 專擔하고, L중대가 그 右側 △739진지를, 그리고 I중대가 左側 △587—楓川間을 각각 담당하는 中 21.30에 마침내 敵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916(△778 北쪽 1.3km)로 부터 그 南쪽으로 뻗은 稜線을 따라, 數爻를 헤아릴 수 없는 中共이 例의 胡笛과 喇叭 소리로 虛張聲勢하면서 △778를 目標로 集中 공격을 加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이 陣前의 障碍物지대에 突入하자 fougasse地雷가 一時에 觸發하여, 地軸을 震動케 하는 爆音과 3,000°F의 火焰이 그 突進路를 가로 막았다. 이에 그들은 啞然失色하여 正面突破를 躊躇한 듯이 박격포사격만을 퍼부으면서 30분동안이나 突破口를 찾아 陣前을 徘徊하더니, 22.30에 高地 左側에, 傾斜가 急하여 地雷를 매설치 못한 絶壁지대로 부터 殺到하였다. 이때까지 沈默을 지키고 있던 K중대는 중대장의 號令一下 비로소 射擊을 개시하였는데 이때 중대장 Brownell대위가 砲兵의 彈幕射擊을 要請하려 하였으나, 高地 南斜面쪽에 露出된 有線이 모두 敵砲에 切斷되고, 雪上加霜으로 無電機마저 破損되어 通信手段을 잃고 말았다.

이리하여 敵이 이 砲兵支援의 蹉跌로 말미암은 虛隙을 突破하여, 高地 左側端을 強壓함으로써 第一線陣地 一角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는데, 子正에 이르러 중대의 일부 병력이 陣地에서 抵抗을 계속하는 가운데 頂上이 敵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다.

이에 중대는 일단 △778 東南麓 500m로 隨意撤收한 다음 대대 예비병력 35명으로써 突擊隊를 편성하여, 제38야전포병대가 △778前面의 △916과의 鞍部에 彈幕을 펴, 敵의 第二第三波를 차단하는 가운데, 이튿날(18일) 01.00에 突擊支援射擊도 없이 白兵으로 奇襲을 감행하였다. 이리하여 중대는 漆黑속에 白燐수류탄의 閃光으로 突擊路를 開拓하면서 一氣에 頂上으로 突進하여 01.30에 기어코 이를 다시 차지하였는데, 이때 高地 南斜面의 中腹에는 아직도 敵이 남아 있었다. 중대는 곧 이를 屠戮하고 진지를 再編成하는 즉시로 敵의 逆襲에 대비하였다.

중대가 同진지를 탈환하는 過程에서 입은 損失은 戰死 1명과 負傷 8명이었는데 날이 밝은 다음에 戰場을 整理한 결과, 陣內에서 敵 28명이 사살되고, 陣前의 障碍物地帶에는 40~50명의 敵屍가 遺棄되었는데 手足이 散亂한 慘酷相을 보였다.

다) 제9연대(장, John M. Lynch대령)는 이날 △705—△507의 前進陣地에서 撤收하여

제38연대 左側 No Name線 防禦에 注力하였는데, 이날 밤 敵이 △778공격에 併行하여 일부 병력으로써 右接境의 間隙突破를 試圖하였으나, 이를 격퇴하고 戰線을 堅守하였다.

라) France대대(장, Ralph Monclar중령)는 이날 아침에 寒溪에서 加里山麓으로 挺進하여 새벽에 敵의 手中에 든 제38연대 제1대대의 右第一線陣地를 다시 탈취코자 逆襲을 敢行하였으나, 그 進展이 如意치 못하여 平川(驛內里 西北쪽 3.5km) 부근에 차단진지를 占領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終日 左側에 있는 제38연대 右側方을 掩護하는 同時에 右側 제28연대와 함께 洪川街道를 扼守하였다.

마) Netherland대대(장, W.D.H. Eekhout중령)는 제38연대 제1대대의 加里山 東쪽 陣地가 危急함에 따라, 전날의 △787陣地에서 加里山 南쪽 稜線上의 △958—△995(加里山 南쪽 1km)로 다시 前進하여, 右側 France대대와 함께 一連의 방어선을 편성하였다.

3. 한편 군단 右翼으로서 春川—洪川軸線의 방어에 重點을 둔 제1해병사단(장, Gerald C. Thomas소장)은 이날 밤 前進陣地線에서 激戰한 바 있으나, 主抵抗線은 별다른 危害없이 이를 계속 확보하였다.

즉, 春川—洪川道 東南쪽의 △478(春川 東南쪽 7km)일대에 사단 前進陣地를 점령한 제7해병연대(장, Herman Nickerson, Jr.대령)는 이날도 이 軸線을 장악하였는데, 午後에 사단 左正面에서 北漢江을 渡河한 中共 1개연대 규모가 그 衝鋒을 東南쪽으로 指向하여, 同연대 後方의 機動路(春川—洪川路)를 차단코자 하였으므로, 연대장은 제3대대(장, Bernard T. Kelly중령)로 하여금 朝陽里(△472 西南쪽 7km)일대에 收容陣地를 점령케 함으로써 연대의 機動路를 확보하는 한편, 主力의 撤收時에 이를 掩護토록 措置하였다.

이리하여 同 대대는 21.CC에 朝陽里부근의 沙峴으로 轉進하여 陣地工事에 着手하자 곧 敵의 急襲을 받게 되었다.

이에 대대는 해병 제1戰車대대(장, Holly H. Evans중령) 1개중대와 함께 圓形陣地를 急編하여 步戰協同으로 그 敵에 鐵火를 加하였다.

이와같이 하여 대대는 紛戰中에 하루 밤을 지새우게 되었는데, 종래에는 敵이 戰車陣地까지 近迫하여 肉彈攻擊으로써 數臺의 戰車를 破損하기도 하였으나 대대는 제11해병 연대(장, Joseph L. Wincoff대령) 砲兵主力의 掩護아래 끝까지 陣地를 固守하여 그 이튿날(18일)東天이 밝을 무렵, 기어코 그 兇敵을 격퇴하고야 말았다.

그런데 이 戰鬪에서, 대대는 敵 112명을 射殺하고 82명을 사로잡는 戰果를 거둔 반면 戰死 7명과 負傷 16명의 損失을 입었다.

5월 18일 : 이날도 군단 右半部에 대한 敵의 壓力이 계속되어, 右隣接 韓제3군단(장, 劉載興소장)과의 接境線에는 防備없는 虛弱部를 露呈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제8군사령관 Van Fleet중장은 이날 12, 00부로 當初 主抵抗線인 No Name線을, 제2사단 제38연대의 △778(Bunker Hill)를 左軸心으로 하여, 寒溪—△1, 009(豊岩里 東北쪽 5.5km)線으로 修正하고, 이 線(東部의 韓제1, 3군단은 Waco線)을 軍의 最終 防禦地帶를 決定하였다.

그리고 이어 군사령관은 제10군단장 Almond중장에게 命令하기를 『修正된 No Name線에서 戰線을 整理한 다음, 期必코 敵의 侵攻力을 破摧하라』고 다짐하는 한편, 8군예비인 제3사단(장, Robert H. Soule소장)을 利川—京安里부근에서, 제9군단 예비인 제187공수연대전투단(장, Frank S. Bowen, Jr.준장)을 楊平 부근에서, 그리고 韓제8사단(장, 崔榮喜준장)을 全州地區에서 각각 急遽 제10군단 地域으로 機動케 하여, 同군단을 赴援토록 하였다.

이에 군단장 Almond중장은 군단의 戰鬪地境線을 일부 變更하여, 左翼 제1해병사단으로 하여금 그 右側의 제2사단 일부 地域을담당케 하고, 제2사단은 戰域을 東쪽으로 擴大케 함으로써, 韓제5사단 地域을 包含하여 豊岩里—寒溪線의 방어에 專力케 하였으며, 사단 右翼인 韓제7, 제5兩사단은 豊岩里부근에서 火急히 戰列을 整備하면서 군단의 右側을 防護토록 措置하였다.

1. 군단 右翼인 韓제7, 제5 兩사단은 이날 군단장의 修正된 No Name線 防禦명령에 따라, 豊岩里—寒溪線으로 逐次撤收하였다.

즉, 韓 제7사단(장, 金炯一준장)은 CP와 제8연대(장, 李賢進대령)를 豊岩里—横城間



<山岳地帶로 機動하는 美海兵隊>

의 柳洞(豊岩里 南쪽 15km)에 集結하고 主力인 제3연대(장, 鄭 震대령)와 제5연대(장, 趙成華대령)로써 豊岩里 南쪽의 有利한 高地를 장악케 하여 豊岩里—横城道를 扼止토록 하였다. 그리고 韓제5사단(장, 閔機植준장)은 CP와 제27연대(장, 俞義濬대령)를 寒溪—洪川間의 城山里(寒溪 西南쪽 6km)에 집결토록 하고, 제35연대(장, 대리 許亨淳중령)와 제36연대(장, 대리 金且先중령)로써 제7사단 左側에 連繫하여 豊岩里—寒溪間의 道路 北쪽에 방어 진지를 占領케 하였다.

2. 제2사단(장, Clark L. Ruffner소장)은 左一線 제9연대 戰線을 左側의 제1해병사단에 인계하고, 修正 No Name線에서 戰線을 調整하였다.

가) 제23연대(장, James Y. Adams대령)는 이날 낮 사단이 修正 No Name線上에서 새로운 防禦線을 再編하는 동안, 寒溪 北쪽에 있는 △588에서 遮斷陣地를 계속 확보하면서 敵을 抑留하다가 午後에 寒溪로 轉進하여 No Name線(△412—△371)에 방어진지를 다시 占領하였다.

나) 제38연대(장, John C. Coughlin대령)의 右第一線인 제1대대는 이날, 사단의 戰線調整에 따라, 제23연대와 France대대의 掩護아래 加里山陣地에서 물러나, 제3대대 K중대(△778)右側에 連繫하여 No Name(修正)線을 점령하였다.

한편 제3대대(장, Wallace M. Hanes중령)는, 當初 사단의 主抵抗線上의 일개 방어진지에 지나지 않던 △778가 이날 No Name線 修正의 基點이 됨으로써, 하루 밤 사이에 8군의 戰略要衝으로 脚光을 받게 되어 이를 固守하는데에 더욱 勇奮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대대는 終日토록 戰爆機가 高地 北쪽의 △917일대를 制壓하는 가운데 진지의 掩蓋와 鐵條網을 補修하고 有線網을 다시 架設하는 한편 高地 正面에 半圓形으로 빈틈없는 火力 集中點을 構成하여 見敵必滅을 다짐하였다.

날이 저물자, △917南斜面으로 부터 果然 敵의 공격이 시작되었는데 이에 대대는 陣前의 障碍物지대에 接近하는 第一波를 彈幕射擊으로써 痛擊을 加하였다. 잠시 뒤에 第2波가 밀어 닥쳤으나 또 한번 彈幕으로 이를 剿滅하였으며 이와같은 屠戮自願이 子正에 이르기까지 執拗하게 反復되었다. 이에 高地의 K중대는 始終 沈默을 지킨 채로 다만 砲擊으로써 모조리 격퇴하였는데, 이때 중대장 Brownell대위는, 彈幕에 의한 차단만으로는 敵에게 致命的인 打擊을 加할 수 없으므로, 敵의 공격이 밤을 세워 反復될 것으로 判斷하고, 敵을 陣內로 끌어 들인 다음 火力과 白兵으로서 一擧에 鏖滅키로 決心하였다.

이리하여 중대장은 대대장에게 陣內에서의 制壓射擊을 要請한 다음, 중대 掩壕의 銃眼

과 出入口를 閉鎖하여 陣內사격에 대한 防護준비를 갖추어, 敵이 공격을 再開하기를 기다리던 次에 오래지 않아 예측한 바와 같이 敵의 공격이 再開되었다.

그들은 陣前의 障碍物 지대에 이르러 한동안 머뭇거리다가 及其也 조심스럽게 障碍物지대를 突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障碍物을 모두 돌파하기 까지 아무런 抵抗이 없자, 비로소 「美軍이 撤退하였다」라고 速斷한 나머지, 意氣 揚揚하게 앞을 다투어 陣內로 殺到하였다. 그리하여, 斧鉞이 當前하였음을 알 까닭이 없는 그들은, 마치 主人이라도 된 듯이, 擂鼓吶喊하면서 山頂으로 蟻集하였으니 그 愚昧 참으로 可憐하였다.

이때에 중대장 Brownell대위의 『이때다!』하는 射擊要請으로 제38포병대대는 敵의 頭上에 會心의 同時集中射擊을 퍼부었다.

이리하여, 近接信管에 의한 陣內射擊이 개시됨으로써, 山頂은 爆焰과 硝煙속에 肉片과 骨塊가 紛飛하는 阿修羅場으로 突變하였다.

20여분이 지난 다음, 이번에는 高地 北쪽의 △917로부터 敵砲兵의 誤着彈이 雨注하여 또 한번 山頂을 搖動케 함으로써, 그들 傷兵의 殘命마저 그들 손으로 스스로 끊어 놓고 말았으니 慘도 又慘이오 酷도 又酷이었다.

敵의 砲擊이 끝나자 敵의 一波가 다시 陣內를 向하여 猪突하였으므로 또 한번 陣內射擊으로써 假借없이 膺懲하였는데, 중대장은 이때의 狀況을 대대장에게 報告하기를 『地上은 射幕으로 뒤덮혔으며 生物이라고는 하나도 살아 남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와같은 砲兵의 怒嗥가 그 이튿날 04.400까지 계속되어, 날이 밝자 陣地는 瘴霧가 서린 荒涼한 砂丘로 化하고 말았으니 屍體와 兵伏마저 그 모습과 흔적을 볼 수 없었다.

뒷날 사단 G—3와 포병사령부가 밝힌 바에 의하면, 이날 밤에 대대를 직접 지원한 제38야전 포병대대를 비롯한 군단 지원포병단은 18일 18.00부터 19일 18.00까지에 105mm 彈 11,891發을 직접 支援하였는데, 그 가운데 대부분이 18일 22.00부터 19일 04.00사이에 發射된 것이며, 最初의 陣內射擊 8분간에 2,000發을 高地 頂上峰에 總集中하였다고 하니, 이로 미루어 陣地는 戰果조차 헤아릴 수 없이 焦土化하였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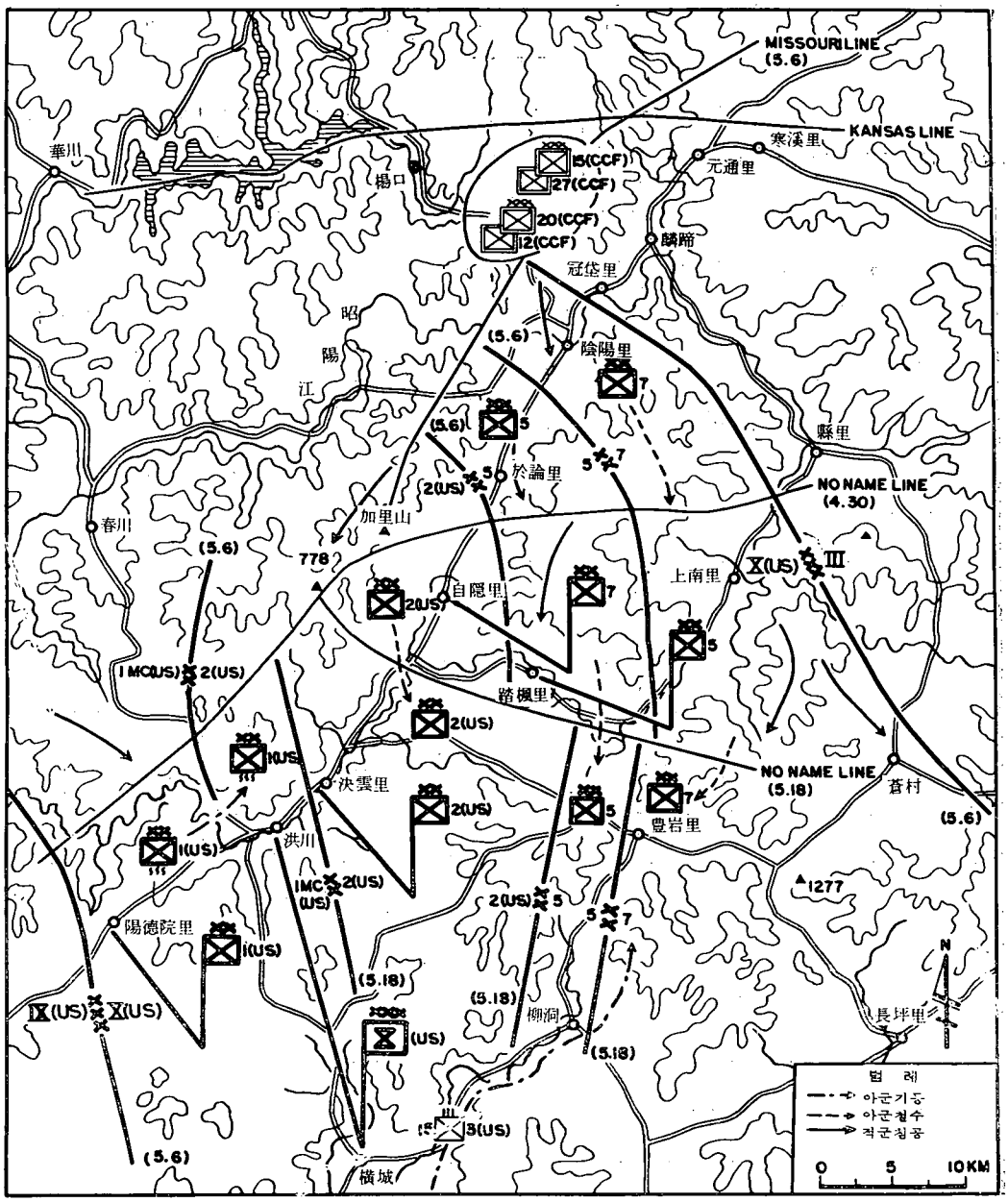
다) 제9연대(장, John M. Lynch대령)는 左隣接 제1해병연대에 陣地를 인계하고, 이날 午後에 大坪里에 集結한 다음, 豊岩里—大坪里道 南쪽 △795—△537로 前進하여 제5사단(장, 閔機植준장)과 함께 No Name(修正)線陣地를 점령하였다.

라) France대대(장, Ralph Monclar중령)는 전날밤 加里山 東南麓에서 通信網이 杜絶된 가운데 徹夜로 陣地를 固守하였는데, 이날 戰線調整에 따라 사단 全主力이 6km後方인 寒溪

線으로 물러나게 됨으로써, 敵中에 孤立無援의 狀態에 陷入하였으나, 砲兵의 掩護下에 終日 陣地를 堅守하다가 17.00에 제23연대의 撤收를 掩護한 다음, 대대 獨力으로 敵中을 突破하고 寒溪 東쪽 △648로 血路를 開拓하면서 前進하여 제23연대의 中央一線陣地를 점령하였다.

마) Netherland대대(장, W.D.H. Eekhout중령)는 加里山陣地에서 제38연대 제1대대와

◇ 상황도 제14호 美제10군단의 No Name線 철수전(5.16~18)



함께 同연대 제3대대(△778) 東南쪽으로 隨意撤收하여 △423—△301間에 새로운 방어 진지를 確保하였다.

3. 제1해병사단(장, Gerald C. Thomas소장)은 전날 밤 제7해병연대(장, Herman Nickerson, Jr. 대령)로써 敵의 銳氣를 꺾은 다음, 군단 命令에 따라, 제1해병연대(장, Francis M. McAlister대령)로 하여금 제2사단 제9연대의 陣地를 인수케 하였다. 또 예비로 吉谷에 控置된 제5 해병연대(장, Richard W. Hayward대령)를 제2사단 地域으로 機動케 하는 동시에 제7해병연대를 前進陣地로 부터 收容한 다음 제1해병연대의 陣地를 인수케 하였다.

4. 한편 군단 戰線에서 耀兵케 된 제3사단(장, Robert H. Soule소장)은, 이날 밤 그 先遣隊인 제15연대(장, Dennis M. Moore대령)로 하여금 橫城을 經由하여 豊岩里로 轉進하는 즉시로 韓제7사단(장, 金炯一준장)을 支援케 하였으며, 그 主力도 原州로 機動케 하였다.

그리고 韓제8사단(장, 崔榮喜준장)은 對 遊擊戰의 聲威를 떨치면서 全州에서 堤川을 向하여 急히 集結中이었다.

5월 19일 : 敵은, 企圖한 △778攻略이 無爲로 돌아 가자, 이제 그들이 傳家의 寶刀로 삼아 왔던 物量手法도 我軍의 空地에서의 打擊力과 不退轉의 鬪志앞에는 한낮 螳螂之斧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았음인지 이날부터 군단 正面의 敵勢에는 凋色이 들어나기 시작하였다.

군단장 Almond중장은 제3사단으로 하여금 제38연대(△778)가 形成한 戰線의 銳角突出部를 修正케 하여, 同 연대를 군단 예비로 확보하는 한편, 제3사단 제15연대를 12.00부로 제2사단에 配屬하였다.

1. 제2사단(장, Clark L. Ruffner소장)은 17~18兩日間에 △778를 堅守함으로써, 敵의 2月 攻勢 當時에 砥平里 圓陣을 攻圍한 中共 3개 사단을 격파한 以來(제5권, 長湖院—砥平里—38°線進擊戰 참조) 또 한번 그 武名을 크게 떨쳐, 敵으로 하여금 사단과의 正面衝突을 畏避토록한 것으로 推斷케 하였다.

이에 사단은 寒溪以西를 美해병사단에 인계하고, 豊岩里—寒溪間의 방어에 注力하면서 21.00에 CP를 豊岩里 南쪽의 柳洞으로 推進하였다.

따라서, 이날 새로이 사단 右一線으로 參加한 제3사단 제15연대(장, Dennis M. Moore대령)는 豊岩里 南쪽 △581 —△468에서 韓제7사단(장, 金炯一준장)의 제3, 제5兩연대와 함께 豊岩里—橫城 三巨里를 扼守하였으며, 中央一線인 제9연대(장, John M. Lynch대령)는 제15연대 左側陣地를 계속 확보하였다. 그리고 左一線인 제23연대(장, James Y.

Adams대령)는 이날 제38연대가 군단예비로 轉換함에 따라, 새로이 Netherland대대(장, W.D.H. Eekhout중령)를 통합지휘케 되어, 이를 France대대(장, Ralph Monclar중령) 左側 先端인 △451에 配備함으로써 洪川正面의 防禦力을 增強하였다.

한편 제38연대(장, John C. Coughlin대령)는 담당 戰線을 제5해병연대에 인계하고, 橫城부근으로 轉進하였다.

2. 제1해병사단(장, Gerald C. Thomas소장)은 이날 제5해병연대로써 제2사단 제28연대의 戰鬪地域을 인수케 하여 △778 南쪽 6.5km線에 陣地를 점령함으로써 寒溪線의 제2사단과의 戰線 相互均衡을 圖謀하였다.

이리하여 사단은 제5, 제1, 제7연대와 韓國해병연대 順으로 戰線을 再調整하였는데, 이날 Wilburt S. Brown대령이 새로이 제1해병연대장으로 任命되었다.

5월 20일 : 今次攻勢에 있어서 敵은 이미 그 繼戰能力의 極限線에 이르렀다고 判斷하게 된 제8군사령관 Van Fleet중장은 이날 제9, 제1兩군단으로 하여금 中西部戰線에서 Topeka(春川—修德山—汶山)線까지 突進케 하였다.

군단은 이에 呼應하여, 現戰線(修正 No Name線)을 굳게 지키는 가운데, 防守에서 攻勢로 轉換할 수 있는 態勢를 굳히기 시작하였다.

이날 09.30부로, 鶴潭里(洪川 東南쪽 15km)에 集結한 제187공수연대전투단(장, Frank S. Bowen, Jr.준장)을 군단에 配屬한 결과 이를 군단예비로 확보하고, 韓제5사단(장, 閔機植준장)을 下安興里(橫城 東南쪽 15km)에 集結케 하여 再整備토록 하였다.

1. 제2사단(장, Clark L. Ruffer소장)은 이날 12.00부로 戰鬪力을 점차로 回復한 韓제7사단(장, 金炯一준장)의 제3, 제5兩연대를 配屬 받게 되어 砲兵과 航空支援아래 전날의 陣地를 계속 확보하였다.

2. 제1해병사단(장, Gerald C. Thomas소장)은 이날 04.45에 右一線 제5 해병연대의 제3대대(장, Morse L. Holliday소령) 正面을 기습한 中共 1개연대 규모와 激戰을 벌린 끝에 09.30에 이를 격퇴하였는데, 射殺 152명과 捕虜 15명의 戰果를 거두었다.

그밖의 사단戰線은 이날 대체로 靜穩하였다.

3. 제3사단(제15연대缺)(장, Robert H. Soule소장)은 09.00에 CP를 下安興里에 開設하고 20.00부로 군단에 配屬되었는데, 제7연대(장, James Boswell대령)는 전날 19.00에 長坪里(下珍富里 西南쪽 13km) 부근에 집결하여, 下珍富里쪽으로 진격中이며, 제65연대(장, William W. Harris대령)는 16일 12.50부로 제1군단의 제25사단(장, J. Sladen Br-

adley소장)에 配屬되었다가 그 任務를 Canada 제25여단(장, J. M. Rockigham준장)에 인계하고 사단에 復歸하여, 24.00에 長坪里 東南쪽에 集結하였다

5월 21일 : 敵은 이날도 縣里—豊岩里線의 下梨峴과 縣里—下珍富里線의 蒼村要衝을 占領하여, 下珍富里—豊岩里를 계속 強壓하였다. 그러나 東海岸의 韓제1군단(장, 白善燁소장)과 當군단이 江陵과 洪川의 兩肩을 堅守하는 가운데, 제3사단이 適時에 赴援함으로써 敵의 進路를 차단한 까닭으로 그 부근의 敵도 下珍富里線에서 釘着되고 말았다.

이에 군단은 決雲里(洪川 東北쪽 4km)의 CP를 新村(橫城 東南쪽 9km)으로 移轉하는 한편, 제3사단으로 하여금 계속 韓제3군단(장, 劉載興소장)의 擴張된 戰線을 補強케 한 결과 下珍富里線에서의 堅守不動을 保障하고, 10.00부로 예비인 제38연대를 다시 제2사단에 復歸시켜 戰線에 投入함으로써 攻擊移轉의 준비에 더욱 拍車를 加하였다.

1. 새로이 군단 右翼이 된 제3사단(장, Robert H. Soule소장)(—)은 제7연대를 右一線으로, 제65연대를 左一線으로 展開하여, 長坪里에서 進擊을 시작하였는데, 제7연대(장, James Boswell대령)는 이날, 東沙里(下珍富里 西쪽 5km) 西쪽 2km의 △953를 확보하였으며, 제65연대(장, William W. Harris대령)는 長坪里 西北쪽의 △924—△817間에 진지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사단수색중대는 豊岩里線의 제2사단과 連繫키 위하여, △1,055(長坪里 西北쪽 8km)일대에 까지 進出하였다.

2. 제2사단(장, Clark L. Ruffner소장)은 이날 제38연대(장, John C. Coughlin대령)의 原復과 同時에 同연대를 橫城부근에서 豊岩里 南쪽으로 推進케 하여, 戰列을 整備토록 하였는데, 사단 戰線은 전날과 다름없이 豊岩里—寒溪線에 膠着되었다.

3. 제1해병사단(장, Gerald C. Thomas소장)은 전날의 戰線을 계속 확보하는 가운데 각연대의 수색중대로 하여금 前方의 敵情을 蒐集케 하였는데, 이 당시 主抵抗線 3~4km 以內에는 敵의 隻影을 볼 수 없었다.

5월 22일 : 20일에 Topeka線에 대한 反擊을 斷行한 中西部戰線의 제9, 제1 兩군단은 戰況進展에 快調를 보여, 이날 그 銳鋒으로써 洪川江 南岸—金谷里—議政府—臨津江 南岸까지 突進하기에 이르렀다.

제8군사령관 Van Fleet중장은 中東部戰線에서도 이에 따라 攻勢에 加擔케하기로 決心하고 이날 韓제1, 제10兩군단에 要旨 다음과 같은 反擊 命令을 下達하였다.

『① 軍은 杆城—洪川道 以南의 北共과 中共을 包圍擊滅하려 한다.

② 제10군단은 5.23.08.00를 期하여 昭陽江線으로 進擊하여, 敵의 退路를 차단함과 아울러 그 增援兵力과 收容陣地를 同時에 粉碎하라.

③ 韓제1군단은 제10군단과의 協同下에 西北進하면서 地域內의 敵을 격멸하라.』

이와 同時에 군사령관은 韓제3군단(장, 劉載興소장)을 解編하고, 그 戰域 일부를 제10군단에 그리고 다른 일부를 韓제1군단에 分割編入케 하는 한편, 제10군단의 左側인 美해병사단 地域일부를 제9군단에 編入하는 措置를 斷行하였다.

이에 따라 군단장 Almond중장은, 군단예비로 鶴潭里에 控置된, 新銳의 精兵 제187공수연대전투단(장, Frank S. Bowen Jr.준장)을 寒溪로 挺進시켜, 洪川街道의 제23연대 地域을 담당케 함으로써 麟蹄를 軸線으로 하는 進擊方向을 規制하고 모든 준비를 갖추게 하였다.

1. 제3사단(장, Robert H. Soule소장)(一)은 전날에 이어 東沙里一長坪里間의 陣地를 확보하였는데, 제7연대(장, James Boswell대령)는 東沙里 西쪽 △953를 장악하면서, 그 일부로써 18.20에 頑強한 敵의 抵抗을 물리치고 雲頭嶺(東沙里 西北쪽 8km)을 점령하여 東沙里부근에서 退路를 차단하였다. 그리고 제65연대(장, William W. Harris대령)는 長坪里부근의 陣地에서 그 일대의 敵을 剔抉한 다음, 東沙里로 進擊할 준비를 가다듬었다.

2. 제2사단(장, Clark L. Ruffener소장)은, 전날 제3사단이 본격적으로 戰線에 參加함에 따라, 이와 提携키 위하여 蒼村一豊岩里間의 本道확보가 時急하게 되었으므로, 이날 08.00에 豊岩里에서 Yoke특수임무부대(Task Force)를 編成하여 蒼村一豊岩里間의 下梨峴(豊岩里 東北쪽 10km)을 占領케 하였는데 이 부대의 編組는 다음과 같다.

제38연대 제2대대
韓제7사단 제3연대 일부
제72 戰車대대 1개중대
제15연대 戰車 1개소대
제300포병대대 1개포대
제5공군戰術航空統制班

이리하여 同부대는 下梨峴一豊岩里 道를 따라 東北進하여, 下大月(下梨峴 西南쪽 4km) 부근에서 中共 2개 중대규모의 抵抗을 一蹴하였는데, 이에 군단장이 사단으로 하여금 다음날의 攻擊을 준비케 하였으므로 11.00에 사단장 Ruffner소장은 제38연대 제2대대를 原隊에 復歸토록 함으로써 Yoke부대를 解編하고, 그 대신 제15연대 제3대대를 主軸으로 A특수임무부대(Task Force)를 再編成하여, Yoke부대의 下梨峴道에 대한 先制主動의 任務를

承繼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제33연대(장, John C. Coughlin대령)는 11.30부로 Netherland대대(장, W D.H. Eskhout중령)를 다시 統合指揮하여, 豊岩里 西쪽 瓦屯地의 제15연대(장, Dennis M. Moore대령) 陣地를 인수한 다음 그 左側에 있는 제9연대(장, John M. Lynch대령)와 함께 다음날의 공격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제23연대(장, James Y. Adams대령)는 담당 戰線을 제187공수연대전투단(장, Frank S. Bowen, Jr. 준장)에 인계하고, 配屬中인 France. 대대(장, Ralph Monclar중령)와 함께 11.00에 東草里(洪川 東쪽 4km)에 集結하는 同時에 사단예비로 轉換하였다. 한편 同 연대에 配屬된 Netherland대대는 11.30에 제38연대로 配屬이 變更되어 高陽山(△675 : 瓦屯地 東北쪽 1km)로 轉進하는 즉시로 同연대의 공격 대열에 참가할 態勢를 갖추게 되었다.

그런데 이날 제15연대는 戰線을 제38연대에 인계함으로써 原隊인 제3사단으로 復歸할 채비를 하게 되었다.

3. 제1해병사단(장, Gerald C. Thomas소장)은 군단 戰鬪地境線의 變更에 따라, 그 陣地일부를 左隣接인 제7사단(장, Claude B. Ferenbaugh소장)에 인계하고, 洪川부근으로 集結하였다.

4. 한편 韓제8사단(장, 崔榮喜준장)은 이날 11.00에 全州에서 堤川으로 集結을 完了하는 즉시 군단에 配屬되어 제3사단의 作戰區處를 받게 되었으며, 韓제3군단의 解編으로 말미암아 同군단隷下인 제9사단(장, 崔 錫준장)(大和부근에 集結中)이 18.00부로 군단에 配屬되었는데, (同군단의 韓제3사단은 韓제1군단에 配屬) 제8, 제9의 兩사단은 이날 各己 集結地에서 戰列整備에 拍車를 加하였다.

그리고 군단예비인 韓제5사단(장, 閔幾植준장)은 下安興里에서 계속 부대를 整備하였으며, 柳洞의 韓제7사단(장, 金炯一준장)은 主力인 제3, 제5 兩연대를 제2사단에 配屬하고 제8연대만으로써 部隊를 整備中이었다.

이 당시 韓國軍은 訓練이 未熟한 新兵을 主軸으로 하고 低弱한 裝備와 補給의 隘路中에서도 不撓不屈의 鬪魂만을 唯一한 힘으로 싸워 나갔으나 美軍側에서는 軍의 傳統을 尊重하는 雅量과 大度를 보이지 못한 채로 朝令暮改의 配屬과 解編등을 茶飯事로 일삼았으니 이는 史家의 冷靜한 評價를 받아야 할 것이다. 3개연대의 사단에서 2개연대를 配屬으로 떼어 버린다면 어찌 사단 本然의 구실을 할 수 있는가? 또 軍團이 一戰에서 利를 보지 못하였다고 당장 解編하여 一朝에 無로 만들어 버린다면 軍 全體의 士氣는 어찌할 것인가?

解編은 一片 命令으로 容易할 것이라도 再建은 決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兵戰은 一場의 遊戲가 될 수 없다. 借問하노니 『兵者는 國之大事요 死生之地요 存亡之道이니 不可不察也라』고 古人의 說破한 바가 無色치 않은가?

5월 23일 : 이날 08.00에 군단은 드디어 攻勢로 移轉하였는데 이에 앞서, 군단장 Almond중장은 08.00부로 제187공수연대전투단(장, Frank S. Bowen, Jr. 준장)을 제2사단에, 韓제8사단(장, 崔榮喜준장)과 제9사단(장, 崔 錫준장)을 제3사단에 각각 配屬하는 한편 韓제7사단(장, 金炯一준장)을 군단예비로 控置케 한 다음, 各사단에 공격 命令을 下達하였는데, 그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군단은 當面의 敵을 격멸하고, Kansas線으로 進擊하려 한다.

② 제2사단(제187RCT配屬)은 麟蹄一寒溪路 以東을 담당(縣里包含)하여, 麟蹄를 目標로 진격하라.

③ 제1해병사단(韓제1해병연대 配屬)은 麟蹄一寒溪路 以西를 담당(春川 包含)하여, 楊口를 目標로 진격하라.

④ 제3사단(韓제8, 제9사단 配屬)은 蒼村을 目標로 진격하라.

⑤ A특수임무부대는 현 임무(下梨峴의 機動路 開啓)를 계속 담당하라.

⑥ 韓제5, 제7 兩사단은 부대를 정비한면서 別命을 기다리라.

⑦ 麟蹄一洪川路의 使用에 대한 優先權을 제2사단에 附與한다.』

1. 제3사단(장, Robert H. Soule소장)은 08.00에 전날의 진지에서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제65연대(장, William W. Harris대령)를 右一線으로 삼아 東沙里로, 그리고 제7연대(장, James Boswell대령)를 左一線으로 하여 雲頭嶺에서 下梨峴쪽으로 각각 진격케 하였다.

이에 兩연대는 이날 午後 東沙里와 △1,112(下梨峴 南쪽 7km)을 점령하고, 계속 그 北쪽으로 攻擊의 威力을 伸張하였다.

한편 제2사단에 配屬된 제15연대(一)는 제3대대가 A특수임무부대로 活動하는 가운데, 長坪里로 轉進하여 사단에 復歸하였다.

配屬中인 韓제8사단(장, 崔榮喜준장)은 이날 CP를 平昌에 開設하였는데, 그 主力은 大和 부근을 經由하여 밤늦게 東沙里까지 躍進하였다.

그리고 韓제9사단(장, 崔 錫준장)은 阿彌洞(長坪里 東南쪽 6km)에서 戰列을 整備하는 한편, 일부병력으로써 兄弟峯(△822 : 下珍富里 南쪽 3.5km)一白積山(△1,141 : 兄弟峯 西南쪽 4.5km)間에 진지를 占領하여 下珍富里를 攻略할 태세를 가다듬었다.

2. 제2사단(장, Clark L. Ruffner소장)은 右一線인 제38연대(장, John C. Coughlin대령)로 하여금 豊岩里一瓦野里一縣里一麟蹄로, 中央一線인 제9연대(장, John M, Lynch대령)로 하여금 松峙에서 掛石里一陰陽里로, 그리고 左一線인 제187공수연대 전투단(장, Frank S. Bowen, Jr.준장)으로 하여금 麟蹄一洪川道路로 각각 진격케 하고, 제23연대(장, James Y. Adams대령)는 France대대와 함께 계속 束草里에서 待機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제38연대(Netherland대대 配屬)는 豊岩里一瓦野里間의 乃村川을 따라 瓦野里로 西北進하여, 이날 修正 No Name線上의 △1,009—△548를 점령하였으며, 제9연대는 그 左側인 △463—△592間을 掌中에 넣었다. 그리고 제187공수연대전투단은 敵의 頑強한 抵抗을 무찌르면서 麟蹄軸線으로 진격하여 驛內里(寒溪 東北쪽 4km)를 占領하였다.

한편 A특수임무부대는 이날 瑞光(下梨峴 西南쪽 6km)부근에서 下梨峴으로 공격을 再開하여, 午後 늦게 下梨峴 西南쪽 2km인 △855—△954에서 敵 2개중대 규모와 激突하였는데, 戰車砲의 支援아래 250명을 射殺하고 同 高地를 점령함으로써, 下梨峴을 눈앞에 굽어보게 되었다.

3. 제1해병사단(장, Gerald C. Thomas소장)은 전날부터 左隣接 제7사단(장, Claude B. Frenbaugh소장)에 진지를 인계中인, 사단主力을 洪川에 集結하여 各己 隊伍를 整頓토록 하는 가운데, 右一線인 제5해병연대(장, Richard W. Hayward대령)만으로 右隣接인 제2사단에 呼應하면서 그 左側地區로 진격케 하였다.

이에 제5해병연대는 제187공수연대전투단의 左側에 展開하여 同전투단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麟蹄一洪川路 西쪽으로 併進한 끝에, 驛內里 西쪽에 있는 野是岱里線을 점령하였는데, 그 제1해병연대와 韓國해병연대는 제7사단 제31연대에 진지를 인계하고 12.30에 각기 瓦村과 決雲里에 集結하였으며, 제7해병연대는 이날 17.30에 洪川에 집결을 完了하였다.

이리하여 군단 全戰線에 風雲이 急하여, 모든 銃砲는 烈火를 吐하려하고, 모든 戰爆機는 五月 蒼天을 덮으려 하였다.

5월 24일 : 군단장 Almond중장은, 전날 4~5km에 지나지 않은 군단 全面의 進擊速度를 면밀히 分析한 결과, 이와같은 趨勢로서는, 『杆城一麟蹄 以南에서 敵을 包圍 擊滅한다』는 8군의 目標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判斷하고, 09.40에 제2사단장 Ruffner소장에게 다음과 같은 要旨의 緊急命令을 下達하였다.

『제2사단은 寒溪부근에서 1개보병대대를 비롯하여 戰車 2개중대와 공병 일부병력으로써 특수임무부대를 急編한 다음, 今日 12.00를 期하여 同부대를 寒溪一陰陽里軸線으로 진

격케 하여 陰陽里 부근에서 橋頭堡를 확보하는 한편 敵의 退路를 차단케 하라.』

1. 제2사단(장, Clark L. Ruffner소장)은 이와같은 군단장의 命令에 따라, 제187공수연대 전투단 副단장인 William Gerhardt대령을 대장으로 하는 Gerhardt 특수 임무부대(Task Force)의 編成에 着手하였는데, 그 構成員은 同전투단 步兵 1개대대를 비롯하여 제72戰車대대 2개중대와 제1 空輸野戰포병대대 1개砲隊, 그리고 1개 工兵중대와 1개 수색소대로 하였다.

그러나 이때에 同 Task Force의 核心을 이룰 제72戰車대대(장, Elbridge Brubaker중령)는 B중대(장, William E. Rose대위)만이 寒溪源에서 제187전투단을 支援하였을 뿐, 그 主力은 30km 東南쪽인 豊岩里戰線을 支援하고 있었으므로, 戰車부대의 編成이 容易치 않았다.

이에 부대장 Gerhardt대령은, 우선 B중대의 戰車 1개소대(M—4A3 4대 : 76mm砲를 비롯 CAL 50과 CAL 30을 裝備)와 工兵 1개 소대(2½ton truck 2대) 및 수색소대 1개조(¼ ton jeep 3대 : CAL 30裝備)로써 先遣隊(장, Charles A. Newman소령 : 제72戰車대대副대대장)를 편성하고, 이로 하여금 昭陽江畔의 陰陽里로 突進하여 橋頭堡를 확보케 하였다.

이리하여 同先遣隊는, 이날 午前에 제187전투단 主力이 점령한 自隱里(寒溪 東北쪽 6km) 北쪽 2km線에서 12.30에 縱隊編成(戰車 2대—jeep 1대—戰車 2대—jeep 1대—truck 2대—jeep 1대順)을 完了하여 13.30에 陰陽里를 目標로 出發하였는데, 發進에 앞서 군단장 Almond중장이 自隱里의 上空까지 헬機로 飛來하여 隊長 Newman소령에게 『如何한 難關이 있더라도 遲滯하지 말고 目標까지 驀進하라.』고 嚴命하였다.

이에 2번째 戰車에 탑승한 Newman소령의 指揮下에, 先頭戰車의 Douglas L. Gardiner중위(B중대 제3소대장)가 縱隊를 先導하는 가운데, 工兵소대는 truck에, 수색소대(11명)는 jeep에 각각 分乘하여 1.5km를 北進한 다음, 院巨里(自隱里 北쪽 3.5km)에 이르자 파괴된 橋畔에서 敵 2명이 3.5″ bazooka砲로써 縱隊의 前進을 阻止코자 하였다. 그러나 戰車는 그대로 突進하여 戰車自動火器(CAL 30)로 그 敵을 射殺하고 一氣에 洪川江堤防까지 挺進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8~10명의 敵이 肉彈攻擊을 敢行코자 爆藥을 안고 戰車 가까이 接近하였다. 이에 先頭戰車가 그중 5~6명을 사살하면서 그 敵中으로 突進하니, 나머지 敵은 潰散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縱隊는 道路 兩側 稜線을 自動火器로 掃射하면서 前進하여 建伊峴(院巨里 北쪽 2km)의 峽谷 於口까지 突出하였는데, 이때 20여명의 敵이 縱隊를 그들의 友軍으로 알

았던지 손을 흔들며 接近하였다. 이에 縱隊는 일거에 그 敵을 擊滅하고 峽谷을 突破하였다.

이때에 連絡機가 上空을 旋回하더니 通信筒을 投下하였는데 그 要旨에 이르기를 『많은 敵이 前方의 道路 東쪽에 埋伏하고 있다. 空中攻擊을 할 것이니 黃燐彈으로써 標的을 提示하기 바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縱隊는 空中攻擊을 기다리지 않고 進擊을 強行하여, 於論里(自隱里 北쪽 8km)를 거쳐 下多物里(於論里 北쪽 1km) 溪谷 入口에 이르러, 敵의 掩蓋機關銃座를 擊破하였다. 이에 道路 右側의 建物뒤에 潛伏하였던 소대규모의 敵이 東南쪽의 洞谷으로 潰走하려 하므로, 수색소대가 BAR을 亂射하면서 洞谷을 目標로 突進한 결과 敵 37명을 사로 잡았다.

縱隊는 나머지 敵의 덜미에 30여발의 戰車砲 洗禮를 퍼부어 모조리 覆滅하고 捕虜를 工兵車輛에 收容한 다음 隊伍를 整頓하면서 또다시 進擊을 재촉하였다.

이리하여 沙峙里(下多物里 北쪽 1.5km)에 이르니 敵 200여명이 道路 兩側의 稜線에서 自動火器로써 進路를 威脅하였으므로 이에 縱隊는 戰車砲를 前後左右로 旋廻砲擊하여 그 敵을 制壓한 다음, 마을을 急衝하였는데, 그곳에서 다시 30여명의 敵을 俘虜로 잡았다.

그런데 이제 俘虜의 수효가 모두 80여명이나 되니, 그 收容이 容易치 않게 되었다.

이에, 2시간 以內에 主力이 來着할 것으로 판단한 隊長 Newman소령은 그들을 沙峙里 一隅에 殘置키로 決心하고, 工兵 4명으로 하여금 主力이 到着할 때까지 그들을 警護토록 하였는데 이 당시 Gerhardt Task Force의 主力은 12~13km後方에서 追及中이었다.

부대는 다시 北進하여 橋洞(沙峙里 北쪽 1.5km)에 다다르자, 重火器부대인 듯한 敵 80~100명이 20여마리의 駄馬를 이끌고 東西로 道路를 橫斷하였는데, 縱隊가 敵前200m까지 接近하도록 彼我를 분간하지 못하여 모두 길 가운데 멈추어 서서 바라만 보았다. 이에 戰車의 全火力을 集中함으로써, 人馬를 함께 空中曲藝를 演出케 한 다음, 流血이 狼藉한 本道上을 突破하여 다시 1km 北進한 결과 楡木亭(橋洞 北쪽 1km) 西北쪽 稜線에서, 道路에 進入中인 200여명의 敵과 激突하였으나, 역시 戰車砲의 威力으로써 潰滅하고 進擊을 계속하였다.

이리하여 陰陽里盆地 入口(昭陽江 南쪽 2km)에 進出한 縱隊는, 800m 前方에서 道路와 그 西쪽의 河川을 따라 騾驢群과 함께 南下中인 敵 一團과 마주치게 되었다.

이에 縱隊는 道路 兩쪽으로 展開하여 공격 태세를 갖추었는데 이때에 또 連絡機가 通信

筒을 投下하여 警告하되 『北쪽 1.5km 昭陽江畔에 4,000여명의 敵이 蝟集하였으며 Zet 2機 編隊가 出擊中이다. 空中攻擊이 끝날때까지 進擊을 中止하고 待機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도 進擊을 계속키로 決心한 Newman소령은 敵이 400m前方까지 접근하였을 때에 일제히 공격하여 敵의 隊伍를 支離滅裂케 한다음, 戰車를 蘢進케 하여 16.30에 마침내 靑邱洞(陰陽里 東北쪽 1km) 南쪽 고개에 이르러, 눈 아래로 昭陽江을 굽어 보게 되었다.

이때에, 靑邱洞 渡河點에는 Zet機의 空中攻擊으로 말미암아, 補給品과 車輛들을 放置한채로 江邊에 몰린 人馬가 네이팜彈의 爆焰에 휩싸여 阿鼻叫喚속에 있었다.

이에 縱隊는 戰車砲를 加勢하여 敵을 屠戮하고 江畔을 席捲하였으니 이때가 17.00正刻이었다.

이리하여, 縱隊는 18.30에 縱隊와 같이 血路를 뚫고 到着한 Task Force의 主力과 合勢한 다음 昭陽江을 渡涉하여 北岸에 橋頭堡를 확보하였다.

한편 제38연대(장, John C. Coughlin대령)(Netherland대대 配屬)는 이날 縣里一寒溪間의 互野里를, 제9연대(장, John M. Lynch대령)는 그 左側 瑞谷里를 各各 占領하였으며 제23연대(장, James Y. Adams대령,) (France대대 配屬)는 계속 束草里에서 戰列을 整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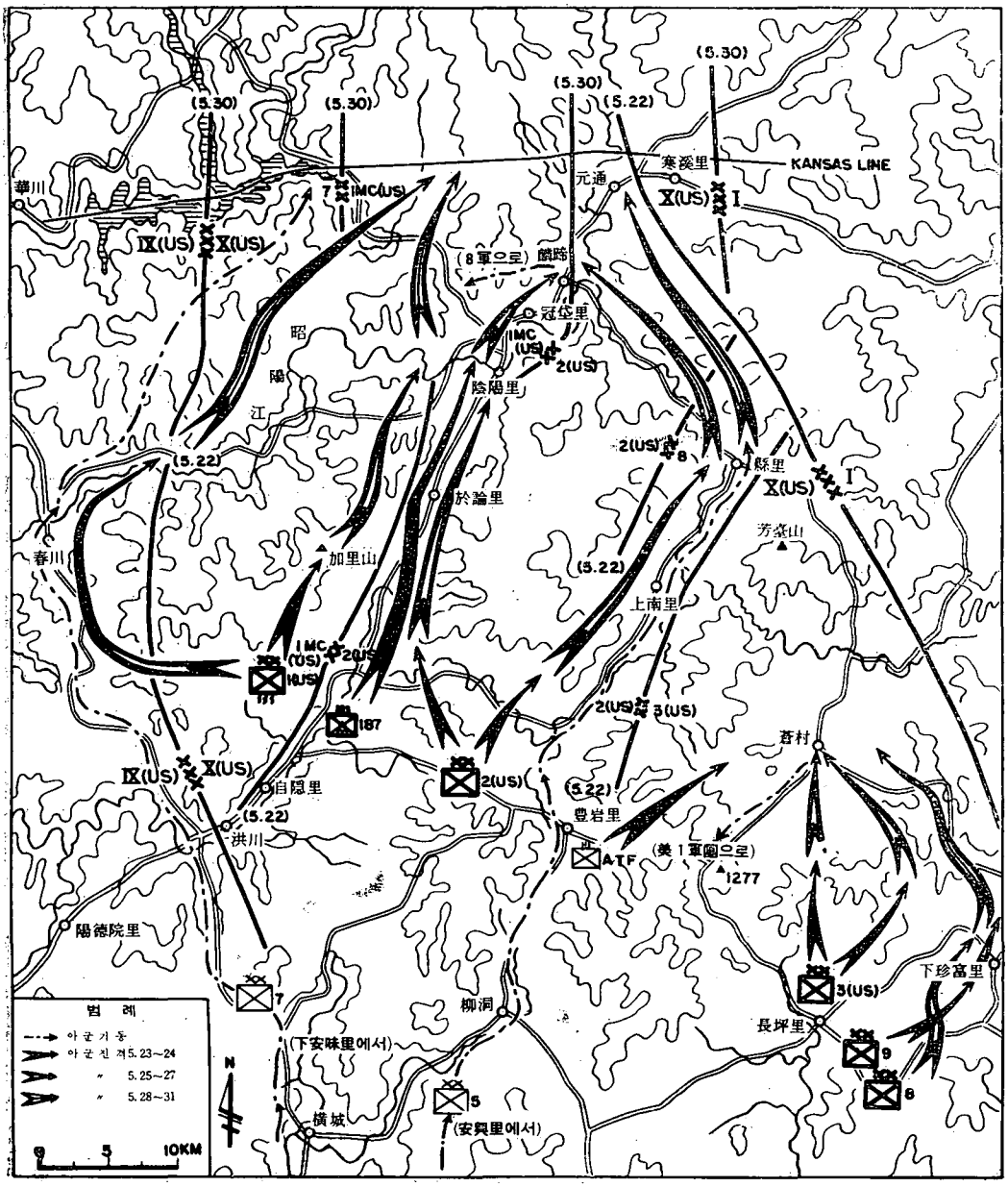
그리고 A특수임무부대(Task Force)는 이날도 계속 下梨峴을 공격하여, 敵의 頑強한 抵抗을 물리치고 이를 점령함으로써, 右隣接인 美제3사단과 連繫를 圖謀하였다.

2. 한편 제1해병사단(장, Gerald C. Thomas소장)은 전날에 공격을 시작한 제5해병연대로 하여금 해병제1비행단(장, Christian F. Schilt소장)과 제11해병연대(포병)(장, Joseph L. Winecoff대령)의 支援아래 공격을 再開토록 하고, 나머지 연대는 洪川부근의 集結地에서 別命을 기다리게 하였다.

이날, 제5해병연대(장, Richard W. Hayward대령)는 驛內里 西쪽 陣地에서 제2대대를 右第一線으로, 제3대대를 左第一線으로 삼아(제1대대는 예비) 麟蹄一洪川道의 左側으로, 右隣接인 美제2사단(제187공수연대전투단)과 併進케 하였는데, 斗村川(寒溪 以北의 洪川江 일부) 左岸 △883(白隱里 西北쪽 3km) 일대에서 敵의 發惡的인 抵抗에 부딪쳐 午前中에 右第一線의 前進이 如意치 않았다.

이에 左第一線인 제3대대(장, Morse L. Holliday소령)가 먼저 加里山(△883 西쪽 3km)을 攻略하여 10.30에 이를 奪取한 다음, I중대(장 John A. Pearson대위)로 하여금 東北

◇ 상황도 제15호 美제10군단의 **Kansas線** 진격전(5. 23~31)



쪽 稜線을 따라 迂回하여 △883 西北背를 挾擊케 함으로써 同高地의 防禦力을 剝奪하였다. 이때에 제2대대(장, Glen E. Martin중령)가 高地 南쪽 正面을 直衝하여 頂上으로 진격하였는데, 해병 제1戰車대대(장, Holly H. Evans중령)의 支援下에 D중대(장, Samuel S. Smith대위)가 突擊을 敢行하여, 熾烈한 白兵戰끝에 同高地를 점령하였는데, 이때가 13.00였다.

이리하여 해병사단의 戰線은 이날, 제2사단과 함께 自隱里線으로 北進케 되었다.

3. 제3사단(장, Robert H. Soule소장)은 이날 下珍富里—東沙里線을 확보하였다.

右一線인 제65연대(장, William W. Harris대령)는 이날 午前에 가벼운 敵의 저항을 一蹴하고 東沙里를 점령한 다음 곧 東沙里峙(東沙里 東北쪽 2km)—路洞里(東沙里 西北쪽 5km)의 外廓線으로 戰果를 擴大하였으며, 左一線인 제7연대(장, James Boswell대령)는 그 主力이 長坪里 北쪽에서 下珍富里—橫城路를 확보하는 가운데, 일부 병력으로써 蒼村 南쪽 3km까지 진격하였다.

그리고 전날 제2사단에서 復歸한 제15연대(장, Dennis M. Moore대령)는 A특수임무부대와 連繫하기 위하여 下梨峴쪽으로 挺進하였다.

同사단에 配屬中인 韓제8사단(장, 崔榮喜준장)은 이날, CP를 平昌에서 大和里로 推進하고 主力을 外立石里(東沙里 西南쪽 4km)에 集結하였으며, 韓제9사단(장, 崔 錫준장)은 08.30에 下珍富里를 奪還하고 일부병력으로 계속 그 北쪽으로 退敵을 追擊케 하였다.

그리고 韓제5사단(장, 閔機植준장)은 下安興里에, 韓제7사단(장, 金炯一준장)은 柳洞에서 계속 군단예비로 控置되어, 戰列을 整備하였다.

라. 전투후의 개황

제187공수연대전투단(장, Frank S. Bower, Jr 준장)이 陰陽里 橋頭堡를 확보한 24일에, 제10군단장 Almond중장은, 同전투단을 제2사단(장, Clark L. Ruffner소장)에서의 配屬을 解除하여 군단장 手裡에 넣고, 이로 하여금 橋頭堡를 제2사단에 인계토록한 다음, 계속하여 麟蹄를 目標로 진격케하였다.

이리하여 군단의 全戰線은 그 이튿날 全面進擊을 再開하였다.

25일에 CP를 柳洞에서 麻隱洞으로 推進한 제2사단은, 26일에 陰陽里橋頭堡를 引受하여 M—2步板橋를 架設한 다음, 29일에 제187전투단에 이어 麟蹄를 점령하였는데, 韓제5사단(장, 閔機植준장)도 26일에 同사단에 配屬되어 北進隊列에 參加하였으니 사단을 사단에 配屬한다는 珍無類의 一場面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제1해병사단(장, Gerald C. Thomas소장)은 27일에 CP를 陽德院里로 부터 廣灘里(寒溪 東北쪽 9km)로 推進하였는데, 27~28兩日間에 全主力이 昭陽江 南岸에 進出하여, 5월末에는 楊口를 점령하였다.

이때에 제3사단(장, Robert H. Soule소장)은 束沙里를 거쳐 27일에 蒼村으로 前進하였다가, 28일부터 제1군단(장, Frank W. Milburn소장)地域으로 轉進하여, 31일에 萬世橋里에 集結과 同時에 同군단으로 配屬이 變更되었는데, 이에 配屬中인 韓제9사단(장, 崔 錫준장)도 26일에 九石洞(下珍富里 東北쪽 4.5km)까지 前進하였다가, 同사단과 함께 6월 2일에 議政府로 向發하였다.

또한 韓제8사단(장, 崔榮喜준장)은 26일에 下珍富里로 前進하였는데, 30일부로 제3사단에서 配屬이 解除되어, 31일에 蒼村으로 進出하여 縣里부근의 殘敵을 격멸하였으며, 군단예비로 下安味里에 控置된 韓 제7사단(장, 金炯一준장)은 30일에 다시 제1해병사단의 뒤를 따라 戰線으로 躍進하여 內坪里에서 同사단의 華川貯水池 南岸陣地를 인수하였다.

한편, 陰陽里에서 麟蹄로 진격한 제187전투단은 멀리 杆城까지 挺進하여 東部戰線을 橫斷할 氣勢였으나, 27일에 麟蹄를 점령할 무렵, 日氣不順으로 진격이 잠시 鈍化된 사이에 韓제1군단 首都사단(장, 宋堯讚준장)이 29일에 杆城을 점령함으로써 그 企圖가 無爲로 되고 말았다.

따라서 군단은, 當初 8군이 目的한 바와 같이 杆城—洪川線에서 敵을 차단하지는 못하였으나 이와 같은 銳氣로 그 企圖를 誇示함으로써, 敵을 潰走케 하여 제9군단으로 하여금 華川 貯水池 일대에서 殲滅的인 打擊을 加하는 偉功을 세우게 하였다.

이 무렵 敵은, 中共을 金城쪽으로 撤退시키는 한편, 東海岸의 北共 제5군단을 楊口부근으로 急遽 投入하여 이로 하여금 華川貯水池 東端에 收容陣地를 마련케 하여, 中共의 退却을 掩護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北共과 다시 對決케 된 군단은, 6월 4일에 麟蹄부근에서 韓제5사단을 제2사단으로 부터 配屬을 解除하여, 군단 右翼을 맡게하고, (제2사단은 洪川 부근에서 부대를 整備케 함) 제1해병사단으로써 中央을 담당케 하는 한편, 韓제7사단으로 새로이 左翼을 담당케하여 寒溪里(麟蹄 東北쪽 10km)—楊口間의 Kansas線에서 戰線을 再整理한 다음, 다시 Punchbowl로 진격케 되었다. (제187전투단은 6월 8일에 8군예비로 復歸하였음)

§ 研 究

◇ 高地의 標高問題

本文中의 △778(一名 Bunker Hill)는 當時에 △800로 알려졌던 것 같다.

이는 美제2사단 제38연대의 Bunker Hill戰鬪를 詳述한 「Cambat Actions in Korea」 (Russell A. Gugeler, 1954)와 「This Kind of War」(T.R Fehrenbach, 1964)에서도 △800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現用 군사지도 1 : 50,000에는 △778로 表記되어 있으므로, 이를 따라 本篇에서는 △778로 記述하였다.

7. 美제9軍團의 加平—華川 進擊戰 (1951년 5월 24일부터 1951년 5월 28일까지)

참조 : 상황도 제16. 17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軍		敵軍	
美제8군사령관 중장 James A. Van Fleet		제21연대 장 대령 Richard W. Stephens	
美제9군단 장 소장 William M. Hoge		英제28여단 장 준장G. Taylor, D.S.O.	
美제7사단 장 소장 Claude B. Ferenbaugh		제187공수단 장 소장 Frank S. Bowen, Jr.	
제17연대 장 대령 Royal Reynolds,Jr.		韓제2사단 장 준장 咸 炳 善	
제31연대 장 대령 Lloyed R. Moses		제17연대 장 대령 李 貞 錫	
제32연대 장 대령 Charles M. Mount, Jr.		제31연대 장 대령 趙 原 英	
美제24사단 장 소장 Blackshear M. Bryan		제32연대 장 대령 趙 在 美	
제5연대 장 대령 John L. Throckmorton		韓제6사단 장 준장 張 都 暎	
제19연대 장 대령 Ned D. Moore		제2연대 장 대령 宋 大 厚	
		제7연대 장 대령 梁 仲 鎬	
		제19연대 장 대령 林 益 淳	

敵軍				敵軍			
中共제63군	장	鄭	維 山	제191사단	장	陳	新 中
제187사단	장	蕭	思 明	제192사단	장	何	友 發
제188사단	장	張	英 輝	中共제12군	장	曾	紹 山
제189사단	장	易	耀 彩	제31사단	장	趙	藍 田
中共제64군	장	曾	思 玉	제34사단	장	尤	太 忠
제190사단	장	唐	子 安	제35사단	장	李	德 生

나. 전투 전의 개황

1951년 4월 下旬 美제9군단 (장, William M. Hoge소장)은 華川—史倉里 線에서 敵의 이른바 5次

제1段階 攻勢로 이들과 激突끝에 많은 損害를 加하면서 戰略上 後退하여 同月 末에는 대체로 龍門山—淸溪山—禮峰을 連하는 No Name線에서 主陣地를 形成하고 反擊戰을 준비하였다.

즉, 군단의 右翼을 擔當한 美제1해병사단은 戰鬪地境線의 調整에 따라 제10군단으로 轉用되고 새로이 韓 제2사단과 제24사단 그리고 제187空輸團이 補強되어 제7사단 및 韓제6사단과 함께 主戰線을 占領한 가운데 각각 陣地 前方 10~12km에 偵察據點을 設定하여 연대규모 以上의 偵察戰을 展開하면서 攻勢移轉을 준비하였다.

이무렵 敵은 38°線을 넘어 春川—加平線까지 이른 다음 戰列을 가다듬는 듯 하다가 我軍의 反擊에 앞서 再侵攻을 敢行하였으니, 16~17兩日 사이에 昭陽江 上流에서 韓國제5, 제7兩사단의 正面을 突破하고 東部戰線에서는 首都사단을, 그리고 西部戰線에서는 韓國제1사단의 前線을 突破함으로써 全戰線은 200km에 걸쳐 激戰을 展開케되었다.

當時 군단의 正面으로는 中共제21, 제63, 제64의 3個군이 侵攻하여 제12군은 右翼 제10군단과의 地境線을 突破코자 春川—洪川의 軸線을 따라 侵攻하였으며 제63군은 韓國제6사단의 正面인 龍門山 地域으로 集中攻勢를 취하고, 제64군은 제24사단의 正面인 淸平以西의 山岳地帶를 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군단은 이미 그企圖를 看破하고 5월 初부터 陣地를 強化하면서 戰列을 整備한 터이라 이敵을 強打하여 韓제6사단의 龍門山 戰鬪를 비롯한 군단 全戰線에서 이를 大破 격퇴하였다.

이리하여 中部戰線에서 主導權을 掌握한 군단은 5월 20일에 攻勢로 移轉하자 곧 洪川—淸平을 連하는 線까지 진격하였으니, 侵略 企圖가 粉碎된 敵은 廣州山脈의 嶮峻한 地勢를 利用하여 38°線 부근에서 牽制하면서 새로운 방어선을 形成코자 企圖하였다.

이때에 군단은 이 敵에게 再編成의 시간 餘裕를 주지않은채로 捕捉 격멸하고 華川—史倉里 地域을 占領한 다음 장차 敵의 策源地인 鐵의 三角地帶(平康—金化—鐵原)를 掌握키 위한 前進基地를 確保하려 한것이다.

敵軍의 狀況 : 敵은 극심한 打擊을 받게되자 22일부터 戰線을 離脫하여 退却北上하다가, 24일 부터는 春川—加平 北쪽에서 持久牽制를 꾀하여 急編방어 態勢를 취하였다. 즉 中共제12군(장, 曾紹山)은 洪川과 春川間의 錦屛山 一帶에서 分散兵力을 再糾合하여 제7사단의 진격을 막고자 하였으며 제63군(장, 鄭維山)은 加平 北쪽의 山岳地帶에서 旣成陣地를 利用하여 據點防禦를 劃策하였고 제64군(장, 曾思玉)은 抱川 方面으로 後退하여 그 예하의 제191사단(장, 陳新中)이 抱川 南쪽 11km의 錦錦山(△814) 一帶에서 兵力을 수습하는 것으로 判斷되었다.

특히 이들은 加平과 史倉里間의 山岳地帶인 修德山(△794)—北培山(△869)—蒙德山(△526)—鷹峰(△1,436)—華岳山(△1,287)—圓에서 阻止陣地를 形成키 위하여 血眼이 되었으며 芝岩里 부근에는 收容線을 設置하여 彷徨하는 敗殘兵을 수습하고 있는것으로 推測되었다.

또한 右翼, 제10군단 正面에서 四散 退却中인 中共제15, 제20, 제27군 등의 混成 殘敵이 北쪽으로 退路를 찾다가 芝岩里 부근에서 合流하여 그 兵數를 더하였으나, 대체로 士氣는 저하되고 補給狀態는 不良하여 戰意가 微弱한 것으로 判斷되었다.

我軍의 狀況 : No Name線上에서의 방어 당시에 군단은 右翼인 제7사단(장, Claude B. Ferenbaugh 소장)으로하여금 洪川 西南쪽 14km의 鷹峰山(△605)—明里間의 陣地를 占領케하고, 左翼인 제24사

단(장, Blackshear M. Bryan 소장)으로 하여금 北漢江을 中心으로하여 鷹谷山(八堂 北쪽 10km)—文案山間의 陣地를 占領케하였으며 또한 제24사단에 配屬된 英제28여단(장, G. Taylor D S O 준장)은 金谷 東南쪽을 擔當케하여 이 兩사단을 군단 戰術地域의 左右에 展開하여 步戰協同으로써 主要 機動路를 遮斷케하였다.

한편 中央地域은 合同作戰을 遂行하던 韓제6사단(장, 張都暎 준장)과 제2사단(장, 咸炳善 준장)이 맡아 제6사단은 龍門山 一帶에서, 제2사단은 仲美山(△834) 부근에서 각각 主陣地를 形成하였다.

그리고 主陣地 前方의 北漢江 및 洪川江 南岸과 天摩山(△812)一帶에 前進陣地를 編成한다음 攻勢移轉을 준비하고 있다가 敵의 二次攻勢을 격퇴한 然後에 反擊을 加하여 23일 洪川—淸平을 連하는 線에 진출하였다.

이리하여 군단은 北上退却하는 敵을 捕捉 격멸하고 華川—史倉里 地域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戰線配列의 일부를 調整한 다음 총진격을 展開하기에 이르렀다. 이때에 군단의 戰線狀況은 다음과 같다.

軍團戰線은 洪川—淸平을 連하였는데 右翼인 美제7사단(장, Claude B. Ferenbaugh소장)은 鷹峰山一帶陣地에서 방어작전을 하던 美제1해병사단(장, Gerald C. Thomas소장)의 戰鬪區域을 引受하여 사단 C P를 洪川 東쪽의 "포공리"에 移設하는 동시에 제32연대(장, Charles M. Mount, Jr대령)는 朝陽里(洪川 西北쪽 6km) 부근으로 진출케하고 그 西側에는 제31연대(장, Lloyed R Moses대령)가 光板里—遠所里間으로 진격하였으며 제17연대(장, Royal Reynolds, Jr대령)은 上花溪里에 集結하였다.

한편 제24사단은 韓제2사단의 戰鬪正面을 引受하여 加平으로 진격키로 하였는데, 이때 제5연대(장, John L. Throckmorton 대령)는 淸平 西北쪽의 佛岐山(△610)과 靑雨山(△619)을 連하는 線에서 當面의 敵과 對峙하고 있었고 제19연대(장, Ned D. Moore대령)는 磨石隅里—外坊里一連下里에 集結하여 加平 地域으로 진출할 機動을 準備하고 있었으며 제21연대(장, Richard W. Stephens대령)는 淸平에 集結하여 步戰部隊로 하여금 加平 地域에 對한 威力偵察을 實施하고 있었다.

그리고 擔當 正面을 引繼한 韓제2사단은 군단의 左翼으로써 天摩山(△812)—金谷間을 連하는 線까지 진출한 英제28여단의 진지를 引受키로 하였다.

한편 군단 中央第一線인 韓제6사단은 제2, 제7兩연대를 左右梯隊로 하여 洪川江 南岸에서 進擊態勢를 갖추었으며 各級 支援部隊도 主力의 進出에 따라 前方으로 移動하였는데, 이때에 軍團 C P는 驪州에 位置하고 있었다.

이무렵 全戰線을 살펴 보면 韓제1군단(장, 白善燁 소장)은 注文津, 美제10군단(장, Edward M. Almond중장)은 豊岩里—寒溪間에서 그리고 美제1군단(장, Frank W. Milburn소장)은 議政府—金坡를 連하는 線上에서 當面의 敵을 격파하면서 部分的으로 激戰을 展開中이었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美제8군은 No Name線(大浦里—洪川—龍門山—金谷을 連하는 線)에서 敵의 제2차春季

공세를 阻止 強打하고 5월 23일 攻勢로 移轉하여 江陵—洪川—淸平—議政府를 連하는 線을 目標로 진격하였다.

이때 美제8군사령관 Van Fleet 中將은 公表하기를 『38°線은 戰術的인 價値에 있어서는 아무런 意義도 없다. 軍은 必要가 있을 경우에는 어디까지라도 敵에대한 추격을 계속한다』라고 그 所信을 밝힌다음 戰線을 Kansas 線을 目標로 진격토록 要旨 다음과 같은 命令을 下達하였다.

『① 美제1군단은 雲川—漣川 地域을 占領하라.

② 美제9군단은 華川—史倉里 地域를 占領하라.

③ 美제10군단은 楊口—元通里 地域을 占領하라 』

이와같은 命令에 따라 美제9군단장 Hoge소장은 새로운 군단 임무를 분석하기를

첫째 : 春川—華川 地域을 占領함으로써 中東部戰線에서 金化—鐵原—平康 地域으로 退却코자 하는 敵의 退路를 遮斷한다.

둘째 : 華川—史倉里 地域을 占領함으로써 敵의 策源地인 鐵의 三角地帶를 攻略하는 前進基地를 確保한다.

세째 : 東部戰線의 北進을 容易하게 한다.

네째 : 敵은 그간 격심한 타격을 받아 전투력을 상실한 것으로 判斷하므로 速戰即決을 強要한다.

다섯째 : 機動力과 火力이 優勢한 UN군은 良好한 機動路를 利用토록하는 한편 韓國軍은 山岳으로 진격하면서 殘敵을 擊滅토록 한다.

따라서 군단은 基本方針에 따르는 機動計劃을 다음과 같이 세웠다.

『제7사단은 右翼으로서 春川—華川으로, 韓제6사단과 제24사단은 군단 中央에서, 그리고 韓제2사단은 군단 左翼으로서 當面의 敵을 격멸하면서 Kansas線으로 진격토록 한다 』

이와같이 하여 군단장은 要旨 다음과 같은 命令을 下達하였다.

『① 군단은 5월 24일 07.00을 期하여 洪川—淸平 北쪽의 線에서 攻擊을 開始하여 當面의 敵을 捕捉 擊破하면서 華川—史倉里를 連하는 Kansas線을 占領하려 한다.

② 제7사단(제17野砲大隊배속)은 春川—華川線을 奪還하라.

군단 右翼을 掩護하는 동시에 해병제1사단과 連繫를 유지하라.

③ 韓제6사단은 當面의 敵을 격멸하면서 Topeka線(春川—修德山을 連하는 線)을 占領하라.

④ 제24사단은 步戰特殊任務部隊로 하여금 加平을 奪還토록하고 Topeka線을 占領한 다음 계속 진격하여 史倉里 地域을 確保하라.

⑤ 韓제2사단은 當面의 敵을 격멸하고 Topeka線을 占領하라.

군단 左側方을 掩護하는 同時에 左隣接인 제25사단과의 連繫를 유지하라.

⑥ 英제28여단은 攻擊開始와 동시에 현진지에서 군단 예비대가 되어 左側 後方을 掩護한 다음 제24사단, 韓제2사단, 韓제6사단 戰區에 隨時로 參加할 準備를 갖추라.

⑦ 군단포병 :

가) 제92機甲野砲大隊, 一般支援

(ㄱ) 제2야포로켙중대와 제937야포대대(제2중대 제외)를 配屬한다.

(ㄴ) 제1중대로서 제18야포대대를 증원하라.

나) 제17野砲大隊(제1, 제2중대 제외)는 제7사단에 配屬한다.

다) 제987機甲砲兵大隊, 一般支援.

(ㄱ) 제955야포대대를 配屬한다.

(ㄴ) 제24사단 야포대대와 제18야포대대를 증원하라.

라) 제1야포관측대대 제2중대 一般支援.

⑧ 行政事項 : 行政命令 제10호에 依함.

⑨ 通信事項 : 現行 SOI에 依함』

(2) 작전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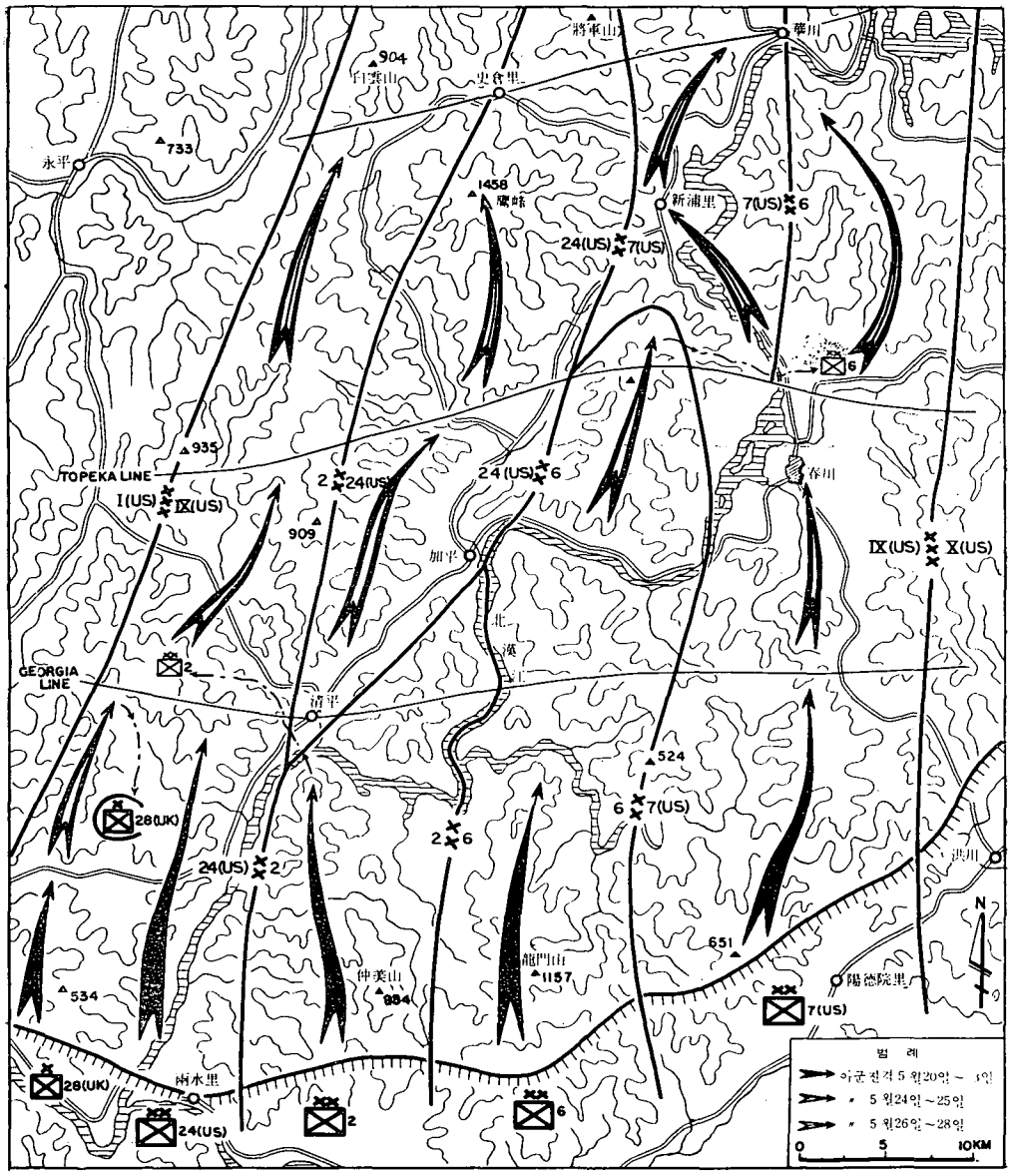
5월 24일 : 군단은 이날 제7사단을 右翼으로 제24사단을 左翼으로 展開하여 現 接觸線인 洪川一淸平을 連하는 北쪽線에서 一齊히 攻擊을 開始하였다.

1. 제7사단(장, Claude B. Ferenbaugh소장)은 제32연대와 제31연대를 攻擊梯隊로 하고 제17연대는 예비대로 控置하는 가운데 朝陽里一光板里를 連하는 線에서 春川을 向하여 追擊 하였다.

右一線인 제32연대(장, Charles M. Mount, Jr. 대령)는 朝陽里(洪川 西北쪽 6km) 一帶에서 春川一洪川間 道路를 中心으로 左右에 각 1개대대를 展開하고 15 00에 春川 東쪽 6km의 原昌고개 까지 進出하였다.

여기에서 左一線인 제2대대는 2개중대 규모의 中共軍이 稜線에 急編陣地를 마련하고 抵抗하므로 激突케 되었는데 敵은 迫擊砲와 各種 自動火器를 亂射하면서 執拗하게 固守하였으나 대대장은 道路 右쪽 稜線을 따라 진격하던 "F"중대를 修理峰으로 迂回시켜 敵의 後

◇ 상황도 제16호 加平—華川 進擊戰(5. 24—28)



側背를 威脅케하는 한편 火力을 集中하고 正面으로 부터 突破를 敢行하였으므로 敵은 稜線을 따라 北上 敗走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이를 추격하면서 포격으로써 격멸하고 19.00에 그곳에 진출한 다음 西쪽에 있는 錦屛山(△652)까지 占領하였다.

한편 左一線인 제31연대(장, Lloyed R. Moses대령)는 光板里—遠所里間의 陣地에서 17.00에 공격을 개시하여 小規模의 敵을 격파하면서 계속 진격하였는데 君子里 一帶의△

456 —△362 부근에서 1개중대 규모의 敵을 一蹴하고 17 00에 이를 占領하였으나 19.00에 兵力을 增強한 敵은 左一線 제1대대에 역습을 加하였다. 이리하여 대대장은 A중대를 右쪽 △348로 迂回시켜 包圍토록 하자 激戰 끝에 敵은 격파되고 殘餘兵力은 夜暗을 利用하여 四散 潰走하였다. 그뒤 연대는 夜間에 對備할 急編 방어진지를 마련하면서 敵情 搜索을 계속하였다.

예비대인 제17연대(장, Royal Reynolds, Jr, 대령)는 上花溪里에서 사단 後方地域을 警戒하면서 戰勢變動에 대비하고 있었으며 사단 搜索隊는 10.15에 新店里(春川 南쪽 9km)까지 진출한 다음 接敵 없이 계속 春川을 向하여 前進하였다.

2. 美제24사단(장, Blackshear M. Bryan소장)은 戰鬪地境線 變更에 따라 戰線配列을 一部 調整한 다음 地形分析과 可用한 機動路를 檢討하고 火力支援과 예비대 운영문제들을 포함한 與件및 敵情을 勘案하여 진격계획을 세웠다.

즉 제1단계는 右翼인 美제7사단의 春川 奪還作戰에 呼應하는 措置의 一環으로 加平을 奪還하고 修德山(△794)—劒峰山(△900)을 連하는 線을 占領하여 前進基地를 確保하는 것이고 제2단계는 38°線을 넘어 一擧에 Kansas線으로 진격을 斷行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단은 要旨 다음과 같은 命令을 下達하였다.

『① 사단은 Topeka線(修德山—劒峰山을 連하는 線)을 奪取하고 Kansas線으로 진격하려 한다.

② 제21연대는 加平을 奪還한 然後 연대 進出線인 寶納山—下馬場—鏡盤里를 連하는 線에서 제19연대의 超越攻擊을 掩護하라.

③ 제5연대는 太金山(△704)—劒峰山(△900)을 따라 진격하여 Topeka線을 占領하라.

④ 제19연대는 제21연대의 戰鬪正面에서 超越攻擊하여 梨谷里—馬場洞 一帶에 進出하여 Topeka線을 占領하라.

⑤ 火力의 우선권은 제21연대 正面에 둔다.』

이와같은 命令에 따라 攻擊準備를 完了한 각연대는 07.00에 공격을 開始하여 目標를 向하여 진격하였다.

제21연대(장 Richard W. Stephens대령)는 전날부터 加平 地域에 對한 威力偵察을 실시하던 步戰部隊를 10.00에 加平으로 진격시켜 殘敵을 격멸케하고 연대主力은 一齊히 공격을 개시하였는데 제1대대는 加平 西쪽 高地一帶를 공격하고 제3대대는 加平—華川間 道路 右側의 寶納山 一帶로 진격하였다.

이리하여 연대는 敵의 掩護부대를 격파하고 加平 外郭半徑 3km의 地域인 鷲納山—下馬場—鏡盤里 一圓을 占領하였으며 17.00에는 加平을 奪還하였다. 그리고 步戰부대는 加平—華川間 道路를 따라 敵을 추격하면서 加平 北쪽 5km의 梨谷里 부근으로 진출하였다.

이무렵 磨石隅里—外坊里—連下里에 集結하고있던 제19연대(장, Ned D. Moore대령)는 제21연대의 뒤를 따라 加平 西南쪽 3km의 下色里 一帶에 진출한 다음 계속 進擊態勢를 갖추고 있다가 加平을 奪還하자 鷲納山—下馬場—鏡盤里를 連하는 線에서 제21연대의 戰線을 초월공격하여 梨谷里—玉女峰(△505)을 連하는 線을 目標로 진격하였다. 그런데 19.20에 玉女峰 北쪽 稜線에서 中共 2개중대 규모가 反擊하였으나, 砲兵火力의 支援으로 격퇴하고 射殺 30名과 捕虜 9名의 戰果를 올렸는데 이 敵은 中共제61군(장, 曾思玉) 예하의 제191사단(장, 陳新中) 제575연대의 所屬임이 判明되었다.

左一線 제5연대(장, John L. Throckmorton대령)는 佛岐山(△601)—靑頭山(△619)間 陣地를 07.00에 출발하여 太金山(△704 淸平 北쪽 9km)을 目標로 진격하던中 14.30에 太金山 東麓에서 左一線대대는 中共 1개중대 규모를 격파하고 北쪽으로 뻗은 稜線을 따라 △910로 퇴각하는 敵을 계속 추격하였으며 右一線대대는 △803를 迂回 진격하면서 小規模의 中共군을 격멸하고 16 30에 劍峰山 東쪽 無名高地群인 △803—△910—△500를 連하는 線에 진출하였다.

이리하여 사단은 이날 加平을 奪還하고 玉女峰—太金山을 連하는 線에 進出한 然後에 다음 날 계속될 진격을 위한 戰線을 整理하였다.

3. 英제28여단(장, G. Taylor, D.S.O 준장)은 戰鬪正面을 韓제2사단(장, 咸炳善준장)에게 引繼하고 內坊里—芝屯里間 陣地를 占領하여 군단 左側方을 掩護하고 있었다.

4. 한편 군단 中央地域에서 作戰中인 韓제6사단(장, 張都暎 준장)의 제7연대(장, 梁仲鎬 대령)는 10.00에 馬谷里에서 洪川江을 渡河하여 20.00에는 江村里를 中心으로한 △266—△275 一帶에 진출하고 上博里에서 洪川江을 渡河한 제2연대(장, 宋大厚 대령)는 18.00現在 西上里—白揚里를 連하는 線에 진출하고 있었다.

또한 새로이 군단 左翼에서 진격한 韓제2사단(장, 咸炳善 준장)은 17 00에 縣里—元興里—介胄山(△675)을 連하는 線에 진출하였다.

이와같이 이날 군단의 右翼인 제7사단은 春川 6km에 肉迫하고 있었고 左로는 太金山—介胄山을 連하는 線에 進擊하였으며 군단 右隣接인 제1해병사단은 楓川里 一帶에, 左隣接인 美제25사단은 加山里—麻田里(抱川 東쪽 5km)을 連하는 線에 各各 進擊中이었다

5월 25일 : 군단은 이날 역시 Topeka線(春川—修德山)을 占領키 위한 攻擊을 계속하였다.

1. 제7사단(장, Claude B. Ferenbaugh소장)의 "HAZEL"特殊任務部隊는 이날 05 00에 新店里(春川 南쪽 9km)를 출발하여 08.00에 春川에 突入함으로써 殘敵을 격멸하고 있었다.

이때 사단장 Ferenbaugh소장은 戰況을 檢討 끝에 上花溪里에서 待機中인 제17연대(장, Royal Reynolds, Jr. 대령)를 春川으로 反轉케하여 北漢江과 昭陽江 兩岸에 各各 橋頭堡를 確保하도록 命令하였다.

이 命令를 받은 연대는 즉시 上花溪里에서 14.15까지 春川에 進出한 다음 제1대대는 昭陽江 渡河地點에, 제2대대는 池內里 一帶 (春川 北쪽 7km)에 그리고 제3대대는 北漢江 東岸 新銅里 一帶에 각각 橋頭堡를 占領하였다.

또한 사단 수색중대는 春川—楊口間의 泉田里에 진출하여 敵情을 탐색하고 步戰部隊는 北漢江岸을 따라 潰走하는 中共軍을 추격하면서 古吞里(春川 北쪽 9km)부근 까지 躍進하여 戰果를 擴大中에 있었다. 이때 美제10군단 正面에서 華川—金化 方面으로 潰走하는 1개 대대 규모의 中共軍를 발견하자 이를 急襲強打하고 더우기 砲擊과 空軍支援까지 얻어 격멸전을 展開한 끝에 推算 射殺 100名과 騾馬 20匹를 노획하였다.

한편 右一線에서 洪川—春川間 機動路를 中心으로 進擊中이던 제32연대(장, Charles M. Mount, Jr 대령)는 07.00에 修理峰(△472)—△897間의 陣地에서 전날 밤 侵透하였던 敵을 主力으로 추격하면서 大龍山(△899)—九鳳山(△309)을 넘어 이날 16.00에 月谷里(春川 東北쪽 7km) 一帶를 占領하고 前面에 가로놓인 昭陽江을 사이에 두고 敵과 對峙하였으며 일부병력으로 大龍山—九鳳山間을 占領한 결과 사단 東側方을 掩護하면서 隣接하여 北上中인 제1해병사단과 連繫하였다.

左一線인 제31연대(장, Lloyed R. Moses 대령)는 君子里 一帶陣地에서 06.00에 攻擊을 開始하여 진격을 계속하였는데 연대 正面에서 固守하던 敵은 右一線에서 제32연대가 追擊하자 春川 地域이 遮斷될 것을 憂慮한 나머지 交戰없이 退却하였기 때문에 연대는 衣岩里 一帶에 진출하여 다음 戰鬪를 준비하던중 春川으로 機動할 準備를 하라는 命令을 받았다.

이와같이 사단은 中部의 要衝인 春川을 奪還함으로써 前進基地를 確保하고 계속 進擊하여 華川을 奪還하기 위한 速戰態勢를 갖추었다.

2. 제24사단(장, Blackshear M. Bryan 소장)은 이날 加平 北쪽으로의 進擊을 계속하

였다.

제21연대(장, Richard W. Stephens 대령)는 새로이 月坪里(華川 西南쪽 13km)附近에 진출하여 18.30에 春川에서 進擊中인 제7사단 步戰部隊와 戰線을 連繫하고 사단 右側에서 作戰을 遂行中인 韓제6사단(장, 張都暎 준장)의 戰鬪正面을 引受할 준비를 갖추는 가운데 捜索中隊는 燭坮峰(△1,125) 一帶에 對한 수색을 실시하였다.

제19연대(장, Ned D. Moore 대령)는 06 00에 梨谷里 부근의 陣地에서 躍進한 다음 敵의 抵抗없이 修德山(△794)을 占領하고 그 北斜面까지 계속 진출하여 △548—△684間 一帶를 確保함으로써 當面의 敵과 對峙하였다.

한편 제5연대(장, John L. Throckmorton 대령)는 △910 一帶의 連級된 高地에서 출발하여 抵抗하는 小規模의 中共軍을 驅逐하고 16.30에 劍峰山(△900) 일대를 占領하였는데 사단은 北쪽에 있는 明智山(△1,125) 一帶에서 敵이 韓제2사단과의 戰鬪地境線을 따라 逆襲할 可能性이 있음에 비추어 이날의 전선을 固守하고 다음 날의 作戰을 準備하였다.

3. 英제28여단(장, G. Taylor D.S O. 준장)은 군단 예비대로서 內坊里—芝屯里 間의 陣地를 占領하고 군단 左側方에 對한 掩護任務를 遂行하였다.

4 군단 中央에서 진격중인 韓제6사단(장, 張都暎 준장)의 제19연대(장, 林益淳 대령)와 제7연대(장, 梁仲鎬 대령)는 蒙德山(△526 加平 東北쪽 14km) 一帶의 敵을 包圍하고 격멸전을 展開하는 한편 제2연대(장, 宋大厚 대령)는 加德山(△858)을 占據하고 執拗하게 抵抗하는 敵과 熾烈한 戰鬪를 계속하였다.

한편 군단 左翼부대로서 進擊을 계속한 韓제2사단(장, 咸炳善 준장)은 縣里—介嶺山(△675)을 連하는 線에서 06.00에 출발하여 上板里—峴德山(△936, 抱川西쪽 9km) 線으로 진출하였는데 제17연대(장, 李貞錫 대령)는 劍峰山 北쪽에서 14 20에 2개중대 규모의 中共軍을 捕捉 격멸하고 射殺 23名 捕虜 12名의 戰果를 거두었고 제32연대(장, 趙在美 대령)는 23.00에 縣里 西北쪽 3km의 △416 一帶에서 2개중대 규모의 中共軍과 交戰 끝에 이를 격멸하고 射殺 49名과 8名의 捕虜를 얻었다. 이리하여 23일 총진격작전을 展開한 군단은 要衝地인 加平과 春川를 차례로 奪還하고 군단의 中間目標 Topeka線(春川—修德山)을 占領하였다.

이때에 8軍 戰線은 東으로부터 注文津—麟蹄—春川—抱川을 連하는 線으로 形成되었고 軍團 右翼과 隣接한 美제1해병사단은 加里山一帶에, 左翼과 隣接한 美제25사단은 抱川 부근에 각각 進擊하여 當面의 敵을 공격 중이었다.

5월 26일 · 美제9군단(장, William M. Hoge 소장)은 Topeka線(春川—修德山)을 占領한

다음 右翼接인 美제10군단(장, Edward M. Almond 중장)의 Kansas線 진출에 呼應하기 위하여 戰線配備를 一部 調整하였다.

즉, 군단 中央에서 作戰中인 韓제6사단은 春川 東北方으로 진출시켜 군단 右翼으로써 敵을 擊破토록하고 제7, 제24의 兩個사단은 군단 中央에서 左右 隣接하면서 機動路를 따라 신속히 前進토록하는 한편 左右兩翼에는 韓國軍으로 하여금 山岳地帶를 踏破하여 分進合擊으로 華川—史倉里 地域(Kansas線)을 占領토록 하였다.

이러한 構想아래 군단장은 要旨 다음과 같은 命令를 下達하였다.

『① 군단은 계속 진격하여 華川—史倉里 地域을 占領하려한다.

② 韓제6사단은 군단 右翼으로써 계속 진격하여 Kansas線을 占領하라. 蒙德山 一帶에 對한 作戰을 終結하면 戰鬪正面을 제24사단에 引繼하라. 사단의 機動路는 제7사단과 協議하여 결정할것이며 제1해병사단과 連繫를 유지하라.

③ 제7사단은 사단 左側에 主力을 指向하고 계속 進擊하여 華川을 奪還하라. 韓제6사단이 진출 完了時 까지 군단 右側方을 掩護할 것이며 北漢江 東岸 일대의 殘敵 격멸에 注力하라.

④ 제24사단은 主力을 右側方에 展開하고 계속 진격하여 史倉里 일대를 占領하라.

⑤ 韓제2사단은 계속 左側方을 掩護하면서 진격하여 Kansas線을 占領하라. 그리고 左隣接인 제25사단과 連繫를 유지하라.

⑥ 英제28여단은 군단 左側 後方을 掩護하면서 제24사단과 韓제2사단 正面에 加入할 준비를 갖추라.』

이와같이 戰線配列을 調整한 군단은 進出線(春川—修德山)에서 華川—史倉里 地域을 向하여 진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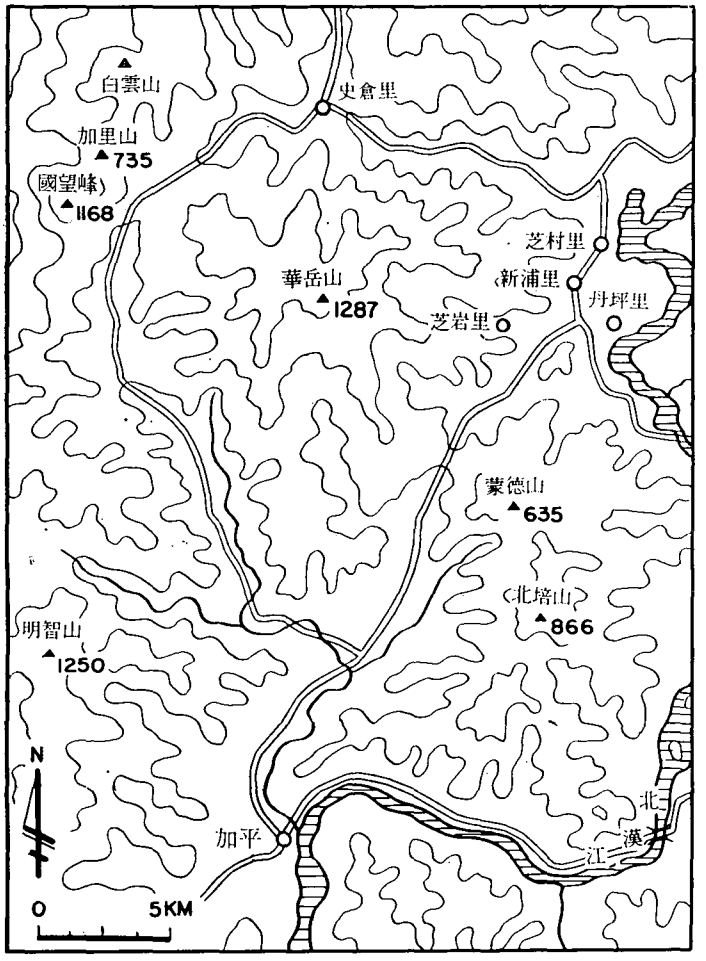
1 제7사단(장, Claude B. Ferenbaugh 소장)은 이날 군단 命令으로 華川 地域을 占領하기 위한 機動計劃을 세웠다.

北漢江과 昭陽江 西岸에서 橋頭堡를 確保한 제17연대를 華川—春川間 軸線을 따라 진격케하여 華川 奪還에 主役을 담당토록 하고 春川—衣岩里間에서 北上中인 제31연대를 春川 北方으로 진출시켜 제17연대에 後續케 하는 한편 제32연대는 계속 南春川에 待機시켜 戰勢變動에 即應토록 하였다.

제17연대(장, Royal Reynolds, Jr 대령)는 전날 진출한 池內里—新銅里間 陣地에서 08.00에 출발하여 19 30에 佳日里—新浦里間의 새로운 陣地에 진출하였는데 이곳에서 左隣接인

제24사단의 제21연대와 連繫하였다.

◇상황도 제17호 芝岩里부근 地形



이날 北漢江을 渡河하고 新浦里로 진격하던 연대의 先頭 兵力은 西岸의 △447에 潛伏中이던 중대 규모의 中共軍으로 부터 自動火器와 小銃射擊을 받았으나 이를 驅逐하고 渡河作戰을 順調로이 實施하였다.

作戰이 急進展함에 따라 春川—衣岩里間에서 진격중인 제31연대는 이날 車輛機動으로 古呑里一帶까지 北上하여 左一線으로 진출할 준비를 갖추었고 제32연대는 계속 南春川에서 次後命令을 待機하였다.

이날 사단은 指揮所를 鶴谷(春川南쪽 5km)에 移動開設하였다.

2. 美제24사단(장, Blackshear M. Bryan 소장)은 이날 제7사단 및 韓제6사단이 中共제63군(장, 鄭維山)의 主力과 中共제12군(장, 曾紹山)의 일부 敗走 兵力들을 芝岩里 一圓에서 包圍하여 擊滅戰을 展開한 끝에 再起不能의 痛擊를 加하고 赫赫한 戰果를 거두었는데 이때 제7사단의 제17연대는 北漢江 西岸 新浦里 一帶에, 제31연대는 東岸 古呑里 一帶에 각각 進出하고 中央에서는 韓제6사단의 제19연대가 蒙德山(△835) 一帶의 敵을 包圍하고 격멸전을 전개中이었다. 當사단 제21연대는 芝岩里 東北側 梧灘里(華川 西南쪽 8km) 一帶의 △722—△902를 連하는 線을 占領하여 敵의 西北方 退路를 遮斷하고 제19연대는 天然的 要地인 鷹峰(△1,436)을 確保하여 史倉里 地域를 制壓하였다. 제5연대는 연대의 當面

作戰을 終了하고 所法里一沐洞里 일대에 진출하여 縱深깊게 陣地를 占領하고 戰勢變動에 即應할 諸般態勢를 갖추었다.

이와같이 사단은 東, 西, 南의 三面에서 馬蹄形으로 敵을 깊숙히 包圍하니, 이로 말미암아 敵은 進退維谷에 빠지게 되었는데, 5월 中旬부터 10일 동안에 걸친 速攻으로 계속적인 痛擊을 받았으며 雪上加霜으로 낮에는 空軍의 爆擊을 받아 潰走에 潰走를 거듭함으로써 이들이 疲勞와 飢餓에 지쳐 戰意를 상실한데다 지휘계통이 또한 亂麻와 같아 격멸 직전에 놓여 있는것으로 推斷되었다.

이와같은 상황속에 兩翼으로 包圍網을 壓縮한 사단은 戰車部隊로 하여금 疾風과도 같이 종횡무진으로 敵陣을 衝擊케 하였다.

이로써 敵陣은 阿鼻叫喚의 生地獄을 免치 못하고 野山은 積屍가 累累하였는데 1개군 규모의 中共軍은 거의 포위 격멸된것으로 推測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황급한 나머지 死傷者의 收容도하지 못하고 탄약과 의무 보급품 및 식량을 비롯한 많은 장비를 遺棄한채로 敗退하였으며 이로써 사단은 2,000명의 敵兵을 捕虜로 하였다.

이와같이 一大包圍作戰을 끝마친 제24사단은 戰線을 整理하자 계속 진격을 준비하였다.

3. 한편 韓제6사단의 제19연대(장, 林益淳 대령)는 전날에 이어 蒙德山(△526) 一帶의 敵을 包圍격멸한 끝에 赫赫한 戰果를 거두고 春川 東北方으로 새로 진출한 사단 主力과 合勢하였다.

이무렵 군단 左翼인 韓제2사단은 抵抗하는 敵을 격파하고 乘勝一路 石龍山(△1,103)南쪽 一帶高地에 進出하여 제24사단과 連繫하면서 白雲山(△1,904)을 目標로 계속 진격하였다.

5월 27일 : 이날 38°線을 固守하던 敵은 極甚한 타격을 받았을뿐아니라, 제7사단이 華川에 肉迫하고 제24사단이 鷹峰을 中心으로한 一帶要地를 占領하여 史倉里 地域을 制壓하게되자 殘置部隊로서 계속 지연전을 펴면서 北上退却하고 있었다.

군단은 右翼에 韓제6사단을, 左翼에 韓제2사단을 展開하여 敵을 擊砕토록하고 美제7사단과 제24사단을 中央에서 前進토록하여 一擧에 Kansas線을 넘어 계속 진격토록하였다.

1. 제7사단(장, Claude B. Ferenbaugh 소장)은 이날 제17연대를 계속 華川으로 진격케 하고 佳曰里에 진격한 제31연대를 新浦里 一帶로 전진할 것을 命令하고 06.00를 期하여 一齊히 攻擊을 開始토록 하였다.

제17연대(장, Royal Reynolds, Jr. 대령)는 新浦里 부근에서 공격준비를 갖춘다음 이날 06.00를 期하여 華川을 目標로 진격하였다.

10.30에 연대가 論味里 附近에 진출하자 城山 北쪽 △348 稜線上에 陣地를 占領하고 있던 2개중대 규모의 中共軍이 박격포와 自動火器를 亂射하면서 右一線 제2대대 정면에서 抵抗하므로 彼我間에 격전에 展開되었다. 이들 敵은 敗殘兵의 混成隊인 것으로 推測되었으나 督戰의 탓인지 그 抵抗이 執拗하였다.

이때에 △390의 O P에서 戰鬪를 指揮하고있던 대대장은 北漢江 西岸 機動路를 따라 高地 東端으로 步戰부대를 突進케 하는 동시에 高地 西쪽에서는 "F"중대를 前進시켜 敵을 挾攻케하였다. 이리하여 銃砲火力이 集中되는 한시간 동안의 熾烈한 戰鬪에서 敵은 거의 潰滅되고 일부병력만이 九雲里 方向으로 北上 潰走하였다.

연대는 敵의 抵抗을 물리치면서 華川 東北方 一帶高地의 敵陣에 對하여 포격과 爆擊으로 계속 強打하면서 速攻을 계속하였다. 步戰協同部隊는 13.30에 華川 邑內에 突入하여 殘敵을 격멸하면서 그 北쪽까지 진출하여 華川—金化間 道路를 確保하고 연대의 主力은 華川 周圍의 無名高地인 △303—△497 一帶로 진격하여 最後 發惡으로 抵抗하는 敵을 격퇴하고 이를 占領하였다.

이로써 연대는 이른바 敵의 一次攻勢 以後 35日만에 要衝地 華川을 奪還하였으며 한편 佳臼里 一帶에서 진격 中이던 제31연대는 左一線으로서 原川里 부근까지 前進하고 예비대인 제32연대는 南春川에서 後方警戒에 임하였으며 그 제2대대는 泉田里에서 春川 東北方을 경계하였다.

2. 제24사단(장, Blackshear M. Bryan 소장)은 右翼인 제7사단의 華川 奪還作戰에 呼應하여 일부병력은 진격을 계속하고 一部兵力은 현진지에서 다음 戰鬪準備를 갖추었다

제21연대(장, Richard W. Stephens 대령)는 梧灘里 南쪽 △722—△902를 連하는 線에서 部分的으로 抵抗하는 소규모의 敵을 격파하면서 鳴流里 부근에 진출하여 新浦里—史倉里間 道路를 確保한 다음 左一線 제19연대의 進出을 지원키 위하여 捜索隊를 전방 △813 부근에 진출시켜 側方을 掩護하였다.

제19연대(장, Ned D. Moore 대령)는 鷹峰山—△1,426를 連하는 陣地에서 史倉里 地域으로 진격할 준비를 갖추고 攻擊命令을 待機하였다. 그리고 제5연대는 이날 제1대대를 華岳里에, 제2대대를 所法里에, 제3대대를 沐洞里 一帶에 展開하고 加平—華川間 道路를 確保하면서 殘敵을 撲滅하였다.

3. 英제28여단(장, G. Taylor, D.S.O준장)은 군단 예비대로서 內坊里—芝屯里間 陣地에서 계속 군단 左側方에 對한 掩護와 後方 警戒任務를 遂行하고 있던 중 美제1군단 戰鬪區

域으로 진출하라는 準備命令을 受領하였다.

4. 군단 中央에서 作戰中인 韓제6사단은 군단 右翼으로서 이날 春川 東北方의 새로운 지역으로 진출하여 지휘소를 泉田里에 開設하고 계속 Kansas線으로 진격하였다.

제7연대(장, 梁仲鎬 대령)는 春川 東北쪽 16km의 芙蓉山(△785) 一帶로 躍進하고 제2연대(장, 宋大厚 대령)는 華川 發電所 南쪽 8km에 肉迫하였다. 또 제19연대(장, 林益淳 대령)는 이날 命令에 따라 戰鬪正面을 美제24사단에 引繼하고 사단 主力과 合勢하였다.

또한 군단 左翼인 韓제2사단(장, 咸炳善 준장)은 계속 抵抗하는 敵의 掩護部隊를 격파하면서 赤木里一水入里를 連하는 線上에 진출하였는데 右側으로는 제24사단 제19연대, 左側으로는 제25사단과 連繫하면서 Kansas線을 向하여 진격하였다.

5월 28일 : 군단은 當面의 敵을 계속 추격하면서 敵에게 再編成의 時間 여유를 주지않기 위하여 부대를 山岳地域으로 急進토록 하였다.

1. 제7사단(장, Claude B. Ferenbaugh 소장)은 華川을 奪還하자 左一線인 제31연대를 原川里 부근으로 진출시키고 南春川에서 待機中이던 제32연대를 戰鬪에 加入시켜 北漢江 東岸에 配備함으로써 攻擊態勢를 더욱 強化하는 한편 지휘소를 新浦里에 推進 開設하였다.

이무렵 廖政國이 지휘하는 中共제20군 예하의 제59사단(장, 차이거린)은 鷲峰을 中心으로 하는 △922—△643를 固守하면서 대대규모의 警戒部隊를 그 南쪽 △395—△487에 종심으로 配置하여 持久와 牽制를 꾀하고 있었다.

敵이 占領한 이 一帶는 華川貯水池를 南쪽에 두어 自然障碍物을 이루고 周圍의 嶮山峻嶺이 聳立하여 防者에게는 有利한 要地를 이루었는데 그들은 二次攻勢 때에 이미 준비한 陣地를 散兵壕로 連結하여 砲擊에도 能히 支撐할 수 있는 強度를 附與한 듯 하였다.

이날 제17연대(장, Royal Reynolds, Jr. 대령)는 제1대대를 右一線, 제3대대를 左一線으로 展開한 다음 進擊을 계속하였는데 강력한 砲兵火力의 지원을 加함으로써 敵의 據點을 覆滅키로 하였다.

제1대대는 07.00에 攻擊을 開始하자 중대규모의 敵을 격파하면서 中里(華川 東北쪽 3km) 一帶高地에 진출하였는데 이때 전방 △487에서 陣地를 占領하면서 대대의 진격을 막으려는 1개대대 규모의 中共軍은 砲火를 集中하더니 역습마저 試圖하여 彼我間에 一進一退의 激戰이 反復되었다. 이 싸움에서 대대는 火力의 集中과 대대 全將兵의 勇戰으로 敵을 물리쳤으나 일단 後退한 敵이 한시간후에 다시 二波, 三波의 波狀 侵攻을 敢行하므로 말

미암아 戰勢는 한때 不利하게 되었다.

이때에 연대장 Reynolds 대령은 敵의 根據陣地를 一擧에 擊砕하기 위하여 步戰混成 1개 중대를 抽出하여 高地 西쪽의 道路를 따라 進入시켜 敵의 右側背 깊숙히 急襲하여 迂回 挾攻케하는 한편 대대 主力으로 全面攻勢를 取하여 敵을 압축한 결과 敵陣은 一大混亂에 빠져 끝내 潰滅됨으로써 대대는 20.00에 敵 100名을 射殺하고 17名을 사로잡은 끝에 이 高地를 占領하였다.

또한 제3대대는 △296에서 중대규모의 敵으로부터 熾烈한 사격을 받아 15.00에 이르기까지 격전이 展開되었다.

이때에 대대장은 K중대를 右側의 △400로 迂回시켜 敵의 左側背를 攻擊토록하여 包圍網을 形成하고 압축하자 敵은 危機에 直面한것을 깨닫고 퇴각하려 하였다. 이 戰機를 捕捉한 대대장은 全面攻擊을 敢行하여 거의 격멸적인 戰果를 거둔 다음 華川 北쪽 4km의 新大里 일대로 進出하였다.

한편 제2대대는 華川에 集結하고 待機하는 가운데 步戰中隊는 新大里 北쪽으로 진격하여 敵을 추격하였다.

이무렵 右隣接인 韓제2연대(장, 宋大厚 대령)가 17 00에 九萬里發電所를 奪取하고 계속 北上中인 까닭인지 敵의 抵抗은 점차로 弱化하여 散發的인 射擊만이 있을뿐 戰線은 차츰 小康狀態로 移行하였으며 이로써 연대는 中里—新大里를 連하는 線을 確保하였다.

한편 제31연대(장, Lloyed R. Moses 대령)는 이날 論味里 일대에 진출하고 제32연대(장, Charles M. Mount, Jr. 대령)는 南春川에서 北上하여 그 제2대대는 華川 南쪽 3km의 仁嵐里 일대에, 제1대대는 佳日里 부근에서 각각 陣地를 占領하였고 또한 제3대대는 泉田里에서 계속 後方 警戒任務를 遂行하였다.

이리하여 사단은 朝陽里—光板里를 連하는 線에서 進擊을 開始한 以來 春川—華川을 奪還하기 까지 45km의 進擊끝에 Kansas線 北쪽으로 進出하게 되었다.

2. 제24사단(장, Blackshear M. Bryan 소장)은 이날 역시 躍進을 거듭하여 사단 目標인 龍潭里—史倉里間 地域을 占領하였다.

제21연대(장, Richard W. Stephens 대령)는 鋤梧芝里의 △813를 目標로 07.00에 鴨流洞 一帶의 陣地를 출발하여 敵의 抵抗없이 新浦里—史倉里間 道路를 橫斷진격하였다.

11.30에 左一線 대대는 △546에 잠복하고있던 1개중대 규모의 中共軍의 저항을 받았으나 交戰끝에 곧 이를 격퇴하였으며 左一線 대대는 15.00에 △634 부근에서 저항하는 敵을 擊

破하였다. 이리하여 연대는 이날 17.00에 △813을 中心으로한 鋤梧芝里 一帶를 占領하여 右側 제31연대와 連繫하였다.

한편 제19연대(장, Ned D. Moore 대령)는 加平—史倉里를 連하는 道路의 左右兩側에 부대를 展開하고 06 00에 鷹峰山(△1,436) 一帶에서 攻擊을 開始하여 龍潭里—史倉里를 連하는 線으로 진격하였다.

이리하여 연대는 15.30에 史倉里 東쪽 無名高地群인 △774—△485—△569를 連하는 線에서 저항하는 1개대대 규모의 中共軍과 交戰하였다.

이 高地群은 新浦里—史倉里와 加平—史倉里間으로 通하는 道路를 左右에 끼고 據點을 形成하고 있었는데 敵은 開濶地를 사이에 두고 박격포와 自動火器를 集中하였으므로 敵勢는 예상외로 強力하였다.

이때에 연대장 Moore 대령은 敵의 據點을 一擧에 突破하기 위하여 제1대대로 △569의 稜線을 따라 敵의 左側背를 공격케하고 제3대대로는 增強된 兵力으로 하여금 △485—△774의 正面에서 全面攻勢를 敢行토록 하였다.

砲擊과 空中支援으로 敵陣을 強打한 다음 戰車中隊가 良好한 道路網을 利用하여 종횡무진으로 直衝의 威力을 加하니 敵陣은 逐次로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山間幽谷을 震動하는 支援砲擊과 함께 두시간 동안이나 계속된 전투 끝에 敵이 마침내 孤立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됨으로써 연대는 19.30에 史倉里—龍潭里間 地域을 占領하게 되었다.

한편 제5연대(장, John L. Thockmorton 대령)는 前線의 進擊에 따라 鷹峰山 一帶陣地로 진출하여 天然的 要地를 確保하였는데, 이로써 사단은 史倉里 以南地域을 掌握하게되고 지휘소를 清平으로부터 濟察里로 前進 開設하였다.

3. 英제28여단(장, G. Taylor, D.S.O. 준장)은 4월 24일 군단에 配屬되어 敵의 二次攻勢가 시작되자 金谷—天摩山 (△812) 一帶에서 敵의 侵攻을 격퇴하였고 5월 24일 부터는 戰鬪正面을 韓제2사단에 引繼한 다음 군단 예비대로 군단 左側後方 경계임무를 遂行하다가 5월 27일 軍의 작명에 依하여 美제1군단(장, Frank W. Milburn 소장)으로 配屬이 變更되어 새로운 作戰地域인 湘水里로 進出하였다.

4. 韓제6사단은 그 제7연대(장, 梁仲鎬 대령)가 屛鳳山—烽火山 一帶의 敵을 격멸하면서 華川貯水池 東端으로 躍進하고 제2연대(장, 宋大厚 대령)은 이날 17.00에 九萬里發電所를 占領한 다음 계속 北進中에 있었으며 사단 指揮所는 下文廷里에 位置하였다.

또한 韓제2사단은 그 제17연대(장, 李貞錫 대령)가 石龍山(△1,103) 一帶에서 06.00에

攻擊을 開始하여 白雲山(史倉里 西쪽 4km)을 目標로 進擊하다가 △795—△641間에서 대대규모의 中共軍을 격멸하고 射殺 100名의 戰果를 올렸으며 左一線인 제32연대(장, 趙在美대령)는 國望峰(△1,168)을 넘어 그 北쪽의 △824로 進擊하였다.

이와같이 韓美合同의 進擊作戰을 展開한 軍團은 躍進에 躍進을 거듭한 끝에 加平—春川—華川을 차례로 奪還하고 乘勝長驅, 38°線을 넘어 최종 目標인 華川—史倉里 地域을 占領하였으니, 이로써 中共제12군(장, 曾紹山), 제63군(장, 鄭維山) 제64군(장, 曾思玉)은 격멸되기에 이르렀으며 군단은 계속 北進할 수 있는 前進基地를 마련하게 되었다.

라. 전투 후의 개황

敵의 動向 軍團의 急速한 攻擊으로 말미암아 38°線 부근에서 타격을 받은 中共제63, 제64兩군은 一部의 殘兵이 鐵原쪽으로 퇴각하여 그들 戰線의 後方에서 부대를 再編成하는 듯 하였으며 제12군은 5월 말에 伊川 까지 北上한 것으로 判明되었다.

그러나 右翼 美제10군단 正面인 楊口—麟蹄間으로 侵攻한 바 있던 제20군은 비교적 建制를 유지하면서 後退하다가 華川 北方에 이르러서는 鷲峰을 中心으로하는 一圓의 要域을 占領하고 據點防禦를 企圖하였으며 또한 中共제60군은 金化 東南쪽의 六成山(△1174) 부근에 據點을 두고 將軍山(△847)—頭流山(△993)—白雲山(△690)을 連하는 線에서 새로운 防守線을 形成하고 군단 左一線의 진출을 막고자 劃策하였다.

더우기 金城—金化—鐵原—平康 一帶에서는 中共이 集結하여 장차 白嵓山—赤根山—六成山을 連하는 漢州山脈의 要線에서 一戰을 決하고자하는 것으로 豫測되었다.

我軍의 動向 이와같이 敵이 새로운 阻止線을 形成하고 防守機勢를 갖추자 군단은 華川—史倉里線에서 一旦 戰勢을 가다듬어 次期作戰에 對備키로 하였다.

즉, 제7사단은 前方指揮所를 新浦里에 開設하고 제17연대는 華川—新豊里간에서, 제31연대는 論味里 一帶에서 그리고 예비대인 제32연대는 北漢江 東岸의 仁嵐里—佳臼里 一帶에서 戰列을 整備케 하였으며, 제24사단은 指揮所를 濟寧里에 두고 제21연대는 鋤梧芝里 一帶에서, 제19연대는 龍潭里—史倉里간에서 예비대인 제5연대는 鷹峰山 一帶에서 各各 戰鬪態勢을 가다듬었다.

한편 韓제6사단은 前方指揮所를 六利里에 두고 九萬里發電所부근을 占領하였으며 左翼인 韓제2사단은 白雲山(△904) 一帶에 進出하여 지휘소를 三浦坪에 두고 있었다.

이리하여 군단은 軍의 새로운 作戰計劃에 따라 6월 初旬에 다시 金化—山陽里 地域으로 進擊戰을 계속하게 되었다.

이때의 全戰線狀況은 東으로부터 韓제1군단이 杆城을, 美제10군단이 麟蹄—楊口를, 美제1군단이 雲川—全谷을 連하는 線을 각각 確保하고 있었다.

8. 空軍의 部隊整備 및 基地展開 (1951년 5월 1일부터 1951일10일31월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17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총참모장		소장	金貞烈
비행단	장	대령 준장	張德昌
		(51. 7. 1부)	
정찰비행전대	장	중령 준장	吳占石
항공기지사령부사령관		준장	崔用德
공군사관학교	장		同上
제101기지전대	장	중령 대령	金信
		(51. 7. 1부)	
공군헌병대대	장	대위 소령	金寬敏
		(51. 7. 1부)	
공군통신대	장	소령	李福鉉
공군기상대	장	소령	金錫祐
공군특무대	장	대위 소령	尹鎰均
		(51. 7. 1부)	
공군병원	장	대령	朴乾源
공군보급창	장	소령	徐鉉圭

나. 部隊정비 및 基地전개

韓國戰에 中共軍의 侵略으로 北韓의 各 基地에 前進하였던 空軍의 그 예하부대들은 進擊前의 後方기지로 일단 撤收하였으나 다시 中共軍의 春季 第1, 第2次 攻勢에 의하여 戰線이 변동됨에 따라 基地를 정비하여 다음의 作戰을 미리 計劃하게 되었다.

총참모장 金貞烈 소장은 開戰 初期부터 戰鬪機와 充分히 훈련된 조종사의 확보등 空軍力 增強을 위하여 美空軍과 協議끝에 1951년 6월末 20臺의 戰鬪機도 보유하게 되었고 따라서 조종사 양성을 위한 비행훈련 기지로 泗川기지(K—4)를 決定하였다.

이 당시 韓國의 主要기지는 UN空軍이 韓國戰에 參戰時부터 作戰基地로 使用中이었고 그 基地들이 훈련기지로는 不適合하여 泗川기지로 결정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51년 4월末부터 시작하여 永久基地로 韓國 空軍부대들을 再전개하게 되었는데 開戰 以後 美 空軍과의 지원체제가 확립되지 않았던 까닭으로 車輛을 비롯한 各種 이

동장비가 不足되어 基地展開에 적지않은 隘路가 있었다.

이 부대이동은 空軍士官學校부터 시작하였는데, 士官學校는 空本作命 第25號에 의거하여 濟州道 慕瑟浦의 大靜國民學校에 주둔하고 있는 本部 兵力을 鎭海 分校에 통합하게 되어 우선 先發隊로 敎育施設 課長인 鄭漢斗 대위 지휘로 兵力 23명이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船舶便으로 4월 21일 鎭海에 到着하였다 그리고 主力은 敎育隊長 朴元錫중령을 총 지휘관으로 하여 轉進하게 되었는데 4월 23일부터 轉進을 서둘러 장교 46명과 사병 138명 및 후보생 362명이 4월 25일 15.00에 LST便으로 濟州港을 出航하여 4월 26일 12.00에 鎭海港에 上陸하여 分校와 合勢함으로써 單一기지에서 軍幹部 양성에 한층 精進하게 되었다.

1951년 6월 12일에 총참모장 金貞烈 소장은 各 기지에 전개된 戰鬪부대와 支援부대를 泗川기지로 집결시켜 다음 作戰에 대비하기 위하여 空本 作命 第31號를 하달 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第101基地 戰隊長은 1951년 6월 20일 24.00까지 泗川기지에 이동을 완료하라.

② 偵察飛行 戰隊長은 作戰上 필요한 일부 병력을 東明기지에 殘置하고 主力을 1951년 6월 20일 24.00까지 泗川기지에 이동을 완료하라.

③ 飛行團長은 第11戰鬪飛行 中隊를 1951년 6월 20일 24 00까지, 團主力은 6월 23일 24 00까지 泗川기지에 이동완료하라.』

이리하여 汝矣島 기지(K—16)에 前進하였던 第11戰鬪 飛行中隊부터 기지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6월 14일 제11戰鬪 飛行中隊는 第101基地 戰隊와 合勢한 다음 기지 전개를 서둘러 地上部隊를 永登浦—大田—大邱—三浪津—馬山—晋州등을 經由하는 列車便으로 6월 20일 泗川기지에 도착하였다.

또한 이날 비행부대는 C—47항공기便으로 全 航空機와 같이 空輸이동으로 轉進하였고 濟州基地(K—39)에 주둔하고 있던 飛行團 主力은 6월 22일부터 泗川으로 이동을 개시하여 3次에 걸쳐 地上부대와 飛行부대의 수송을 완료하였다.

地上부대는 整備隊長인 徐武甲중령을 지휘관으로 하여 3個梯團으로 편성하였는데 先發隊와 本隊 兵力 336명이 1次로 LST便으로 濟州港을 出航하여 6월 24일 09 00 馬山港에 도착한 다음 이날 12 00에는 馬山 第一劇場에 一時에 주둔하여 後發隊와의 合勢를 기다렸다.

그리하여 6월 25일 11.00 馬山港에 도착한 洪性杓대위 이하 113명등의 後發隊와 같이 一泊한 다음 6월 26일 13.00에 李慶春대위 이하 95명을 陸路로 출발시키고 6월 28일 12 00에 殘

餘병력이 列車便으로 晋州를 經由 泗川기지에 도착함으로써 地上부대의 前進을 완료하였다. 그런데 이 地上부대 이동에는 먼저 汝矣島기지에서 泗川기지로 이동한 將兵들의 협조가 있었다.

또한 비행부대는 6월 29일 참모장 金英煥중령 지휘하에 全 航空機와 함께 空輸함으로써 飛行團의 轉進을 완료하였다.

이 以前에 偵察비행戰隊는 6월 24일 泗川기지에 도착 됨으로써 전투부대의 主力이 集結을 完了하고 다음 作戰準備를 위한 훈련에 專力하였다.

이와같이 서울을 비롯한 韓國 各 기지에 배치하였던 各 부대들은 中共軍의 春季 第1, 第2次공세에 의하여 戰線이 이동함에 따라 다시 基地를 정비하고 進擊을 위한 戰力培養의 기틀을 굳건히 하는데 盡力하였다.

다. 主要部隊의 活動

(1) 航空基地 司令部

航空基地 司令部는 空本作命 第29號에 의거 1951년 5월 15일 第5航空管區의 東明기지(K—37)에 파견된 10명과 美第5空軍 司令部의 警備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大邱 東村기지(K—2)에 파견되었던 朴炳植대위 등 33名을 大邱市 慶北産業株式會社에 위치한 航空基地 司令部 本部에 各各 복귀 合勢하여 本部의 지원능력을 강화하였다.

한편 6월 15일에는 空本 一般 命令 第47號에 의거 獨立 第101基地戰隊 소속 水原기지(K—13)에 파견된 李興世중위 등 22명을 第4航空管區에서 管掌토록 하고 第5航空管區의 泗川기지에 파견된 鄭文永소위 등 14명을 獨立 第101基地 戰隊에 배속시킴으로써 航空基地 司令部에 對한 기지전개를 완료하였다.

(2) 飛行部隊

(가) 飛行團

濟州기지에 주둔한 飛行團의 主力부대는 조종사 양성을 위한 비행훈련과 既成조종사의 練成훈련에 全力을 다하고 서울 기지에 前進한 一部 부대는 中部 戰線에 對한 近接 航空支援 作戰을 수행 하였다.

그러나 2次撤收後 次期 作戰을 위한 各 기지의 再전개 및 교육훈련에 置重하면서 敵의 空軍力과 對等한 戰力을 具備하고자 총참모장 金貞烈 소장이 美極東 空軍司令 George E.

Stratemeyer 중장 등과 추가 지원하기로 合議된 F—51戰鬪爆擊機(Mustang)가 도입됨에 따라 5월 1일 비행단장은 이 수송임무를 부여받았다.

이 항공기를 수송하기 위하여 비행단장 張德昌 대령은 수송요원을 日本에 있는 美 空軍기지에 파견하였는데, 즉 5월 1일 비행단 참모장인 金英煥중령은 35號機를, 李康和대위는 28號機를 各各 조종하여 日本 立川(다지가와)기지를 離陸하여 이날 濟州기지에 安着하였다.

또한 5월 13일과 5월 23일 金英煥중령은 38號機와 39號機를 조종하여 各各 濟州기지에 도착하니 空軍의 전투기 대수는 51년 6월末에 20대를 保有하게 됨으로써 전투훈련에 加一層의 效果를 걷우게 되었고 6월 8일에는 비행단장 張德昌대령이 10,000시간 飛行기록을 수립함으로써 韓國 空軍操縱士의 優秀性을 內外에 誇示하였다.

(나) 偵察飛行戰隊

戰線 偵察과 作戰 連絡 임무를 美 제5공군 傘下 第6147戰術空軍統制戰隊(TACG)와 陸軍 航空隊에 인계하고 大邱 東村기지에 집결한 偵察飛行戰隊는 空本作命 第28號에 의거 1951년 5월 14일 戰隊本部는 東明기지에 轉進하고 戰隊主力은 5월 15일부로 空軍의 永久훈련기지로 결정된 泗川기지로 옮겨 第1期 士官후보생의 飛行훈련에 任하였다.

6월 20일 이 偵察飛行隊는 作戰上 필요한 兵力 8명을 除外한 143명을 3個梯團으로 편성하고 第1梯團은 6월 15일 大邱—三浪津—馬山—晋州를 經由하는 列車便으로, 第2梯團은 自動車 便으로 出發하여 高靈—陜川—晋州를 經由하여 이날 14.00에 泗川기지에 到着 함으로써 地上 부대의 轉進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第3梯團인 비행부대도 이날 戰隊長 吳占石중령 直接지휘하에 空輸로 泗川기지에 도착하여 全 부대의 轉進을 완료한 다음 6월 29일 陸軍에 항공대가 창설됨에 따라 國防部長官과 陸軍 總參謀長의 專用機로 사용하던 L—17 輕飛行機 1臺를 陸軍本部 作戰局 航空課에 인계하여 再정비 강화하였다.

그리고 7월 23일부터는 大邱地區 空軍부대와 泗川기지間의 定期 連絡飛行을 실시하여 作戰連絡 업무의 迅速을 期하였다.

(3) 空軍本部

空軍本部는 大邱에 轉進한 다음 參謀機能과 支援부대의 機能別 擴張강화등을 위한 개편을 단행하면서 大邱市 桂山洞 曉星女子中學校에 위치하여 各 부대를 指揮하였다.

1951년 5월 15일에 空本作戰命令 第27號에 의거 서울 先遣隊는 그의 長인 韓基天대위

등 8명만을 남기고 서울 기지를 撤收하였다가 戰線이 北上함에 따라 6월 7일 사병 7명을 증원하게 되었다.

6월 29일 총참모장 金貞烈소장은 國防部와 관계기관과의 緊密한 연락을 取하고자 臨時首都인 釜山에 空軍本部 釜山 分室을 설치하고 徐王壽대위 등 9명을 파견하여 釜山市 佐川洞에 주둔하면서 7월 1일부터 업무를 수행하다가 7월 18일 空本作命 第33號에 의거 다시 釜山市 水晶國民學校 國防部 廳舍內로 이동하였다.

한편 7월 6일 單一參謀副長制에서 兩副長制로 개편됨에 따라 作戰參謀副長에 崔用德준장을, 行政參謀副長에는 대령에서 이날부로 昇進된 金昌圭준장이 각각 任命되어 參謀機能이 一層 강화되었다.

또한 9월 10일에는 本部에 대한 지원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空軍本部 本部司令室을 해편하여 空軍 第106基地戰隊를 창설하게 되었는데 戰隊長에 高級副官인 申東雨중령이 겸직되었다.

뿐만 아니라 第66通信大隊(장, 李德祚대위)와 第76警備大隊(장, 柳義烈대위) 그리고 第86施設大隊(대리 李相萬중위) 및 第96給養大隊(대리 趙弼鎬소위)와 第36自動車大隊(장, 徐昌錫대위) 등을 비롯하여 第216醫務大隊(장, 桂麟敎소령) 등 6個大隊로 개편 강화하면서 第36自動車 大隊는 補給廠 예하 自動車 修理工場의 해편된 인원과 장비를, 第216醫務大隊는 空軍 病院 第2分院의 해편된 인원과 장비를, 各各 인수하여 支援機能을 강화하였다.

이 以外에 機能別 지원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때까지 各 參謀가 直接 관장하던 업무를 그 기능에 따라 專門分野別로 管掌키 위한 獨立된 단위부대가 편성되었는데 5월 15일에는 情報局 산하 特務隊를 空軍特務隊로, 10월 20일에는 氣象隊를 第50氣象隊로, 憲兵隊를 第70憲兵隊로, 10월 30일에는 통신대를 第60通信戰隊로 各各 擴張강화 함으로써 期間中 부대의 정비를 완료하였다.

(4) 其他 支援部隊

(가) 通信隊

서울 기지를 비롯하여 韓國 各 기지에 전개되어 通信지원 업무를 수행하던 通信隊 兵力은 飛行團과 偵察飛行戰隊의 泗川기지 집결과 空軍士官學校의 鎭海기지 집결에 따라 各 기지에 그 兵力을 再배치 하기에 이르렀다.

1951년 5월 1일 趙英一대위 등 장교 4명과 사병 15명을 美 第5空軍소속 通信諜報부대에 파견하여 各種 通信諜報의 蒐集과 敵性電波의 受信, 解讀 및 妨害工作등의 업무를 專擔케

하고 敵의 機動을 事前에 探知하는 등 本格的인 對美 協調活動을 전개하였다.

한편 5월 6일에는 飛行부대들이 7월末로 泗川기지에 집결하게 되어 서울에 주둔하였던 第1通信 파견대를 泗川기지로 轉進시켜 有線通信網을 구성하여 7일 12.00부터 連絡通信을 실시하였고, 6월 13일 第3通信 파견대는 美 第52空軍과 함께 서울 기지로 前進함에 따라 6월 20일 서울 通信所를 서울市內에 있는 前 空軍本部 廳舍로 이동하였다.

大邱市 七星國民學校에 위치한 通信隊內에 電話交換臺를 설치하여 在邱부대의 通信지원과 부대간의 作戰連絡通信網을 강화하고 通信隊의 전개를 매듭지었으나 空軍의 各부대가 증편되고 通信지원 업무의 增大와 高度의 技術이 要求됨에 따라 通信隊의 개편을 단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6월 17일 空軍 一般命令 第47號에 의거하여 空本通信隊 第1通信 파견대 요원 申順南상사 등 5명을 獨立 第101基地戰隊 第61通信 中隊에, 獨立 第101基地戰隊 第61通信中隊 無線通信班 崔相根중위 등 6명을 空軍本部通信隊에 各各 배속하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10월 1일에는 空本 一般命令 第63號에 의거 第7通信所를 해체하여 文泰成소위 등 7명을 공군사관학교 第107通信中隊에 배속함으로써 파견부대들의 정비를 완료하였고 10월 30일에는 空軍本部 通信隊를 第60通信戰隊로 개편강화하는 한편 戰隊長에 李禧鉉소령을 임명하고 第161通信大隊(장, 金東培대위)와 第162通信整備大隊(장, 金敎侃대위) 그리고 第163通信架設大隊(장, 金敎侃대위 겸직)등 3個大隊와 通信敎育隊(장, 金正基대위)로 증편하였다.

또한 第105基地 大隊에 第63通信中隊가 創設됨에 따라 第1通信 파견대의 南基定중위 등 11명을 배속시킴으로써 通信지원부대의 개편 및 부대전개를 완료하였다.

(나) 氣象隊

大邱로 轉進하여 비행단의 氣象지원과 美 第5空軍과의 氣象情報 交換업무를 수행하던 氣象隊는 各 기지파견 兵力의 再조정과 再배치를 하였다.

51년 5월 4일 空本作命 第27號에 의거 서울기지(K—16)에 파견되어 白鷗부대를 지원하던 金英一소위 등 12名을 本隊에 복귀시켜 氣象支援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10월 20일 空本一般命令 第70號에 의거 공군본부 기상대를 개편하여 第50기상대로 발족을 보게 되었다. 이리하여 대장에 金錫祐소령이 임명되어 그 예하에 第51氣象中隊(장, 金東昌대위)와 甲級 기상파견대(2개) 그리고 乙級 기상파견대(2개)와 氣象敎育隊를 두었다. 그후 乙級 기상파견대(2개)는 해편되어 비행단과 제106기지전대의 기상반으로 각각 개편되었다.

특히 期間中에는 新型氣象器機로서 最高 溫度計等 7種을 日本으로부터 구입하여 氣象지원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8월 18일에는 『8월 22일경 日本 沖繩(오끼나와)를 경유하는 폭풍우는 麗水 海上을 中心으로 泗川기지를 통과하여 北上한다』는 颱風豫報를 發하여 各種 航空機의 早期대피 지상건물에 대한 安全조치를 事前에 실시하여 被害를 未然에 防止하는 等 활발한 氣象지원활동을 하면서 기상대의 개편과 再배치를 매듭지었다.

(다) 特務隊

開戰以來로 軍 情報업무를 空軍本部의 情報局에서 專擔하여 情報활동을 전개하다가 軍情報활동의 重要性이 高度로 요구되어 獨自的인 情報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空軍特務隊를 창설하기에 이르렀다.

51년 5월 4일 空本 一般命令 第35號에 의거 情報局을 개편한 다음 장교 12명과 사병 98명을 基幹으로하여 情報局 直轄特務隊를 창설하였다가 다시 5월 15일 空軍本部 直轄로 空軍 特務隊로 大邱에서 發足을 보아 대장에 當時戰線地區 총파견대장인 尹鎰均대위를 임명하여 情報활동을 강화하였다.

7월 9일 當時 最戰線의 激戰地인 鐵原—平康—金化等 鐵의 三角地帶에 隊員을 落下傘으로 投入하여 중요한 敵의 諜報를 入手 傳播하여 地上軍의 敵 粉碎作戰에 寄與토록 하였다.

또한 8월 18일에는 東部戰線에 배치된 陸軍의 各師團에 朱明德중위 등 83명을 파견하여 날로 增加하는 空地協同 作戰에 實效를 거두는 등 활발한 情報활동을 전개하였다.

(라) 其他部隊

空軍士官學校는 濟州道 慕瑟浦에서 鎭海로 轉進함에 따라 本校와 分校를 통합하여 軍의 基幹將校를 양성하였다.

9월 14일 空本 一般命令 第63號에 의거 敎授部(장, 金得龍대령)와 敎育隊(장, 朴元錫중령) 그리고 第107基地大隊(장, 南相旭대위) 및 第217醫務大隊(장, 朱權源대위)로 개편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였다.

5월 1일 憲兵隊는 空本 一般命令 第40號에 의거하여 汝矣島 헌병파견대소속 金昌宇중위 등 22명을 獨立101基地戰隊로, 6월 1일에는 濟州 헌병파견대의 張壽星소위 등 10명을 飛行團으로 각각 배속하였으며 10월 20일에는 空本 一般命令 第72號에 의거하여 憲兵隊를 第70憲兵隊(장, 金寬敏소령)로 개편하고 第171헌병중대(장, 李相台대위)와 第172헌병중대(장, 金昌宇대위) 그리고 第173헌병중대(장, 李炳泰중위)등 3個中隊로 편성강화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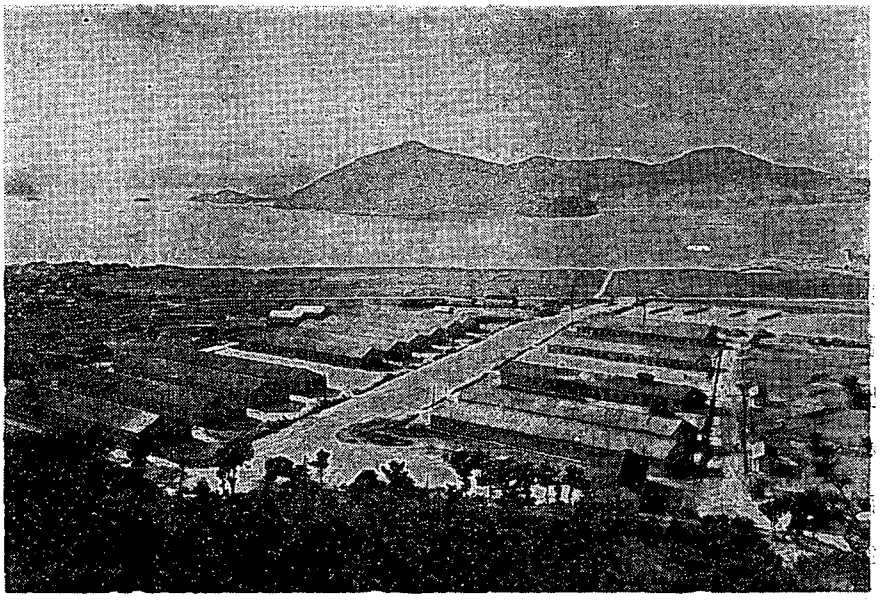
10월 1일 공군병원은 空本 일반명령 제71호에 의거하여 大邱의 第2分院을 해체하여 이를 第106基地戰隊 第216醫務大隊에 이양하고 本院과 分院을 통합함으로써 分院制度를 폐지하게 되었다.

한편 6월 21일 大邱에 주둔하여 各部隊에 대한 補給을 지원하던 補給廠은 空本 일반명령 第48號에 의거하여 第1補給分廠을 泗川기지에 창설하여 分廠長에 공군본부 군수국차장인 李圭昱소령을 임명하고 항공기 운용에 소요되는 各種 油脂와 附屬品 그리고 彈藥 및 工具등의 지원업무를 처음으로 美 空軍에서 시행되는 補給制度로 전환하여 航空機소요物資를 신속정확하게 지원하게 되었다.

라. 敎育訓練

空軍은 韓國戰爭 勃發 以來로 2次에 걸친 撤收作戰을 수행하면서 『一面 戰鬪 一面 敎育』이라는 目標아래 병력과 장비 그리고 교육기지의 확보등 空軍 單獨 出擊의 宿願을 달성하기 위하여 連日 교육훈련을 통한 戰力培養에 全力하면서 賦與된 임무를 완수하였다.

50년 7월 2일 처음으로 F—51戰鬪爆擊機가 導入되면서 操縱교육을 비롯한 整備通信등



<鎭海空軍사관학교 전경>

의 各種 교육이 金浦—大田—大邱—金海—鎭海—泗川—濟州등 各 기지를 轉轉하면서 美空軍의 協調에 의한 職務교육의 形式으로 실시되었다. 그 뒤에 永久교육기지로서 操縱과 整備등 航空機 운영을 위한 교육을 泗川기지(K—4)에서 실시하고 軍의 幹部양성은 鎭海 將川洞으로 결정되어 轉進하였으며 기타 新兵양성과 技術교육은 慶北 慈仁에 있는 第1航空敎育隊가 창설됨으로써 本格的인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濟州기지(K—39)에 轉進한 飛行團은 旣成輕飛行機 조종사(L—型 및 T—型)를 戰鬪機 조정사로서의 양성과 戰鬪 조종사의 練成훈련에 重點을 두고 空中操作을 비롯하여 對地射擊과 航法 그리고 計器飛行과 戰鬪機動등 特殊훈련을 실시하다가 泗川기지에 비행부대들이 집결함으로써 開戰以來 처음 體系化된 조종사 양성체제를 갖추게 되어 第1期士官후보생 金重寶등 42명을 비롯하여 第3期 및 第4期 조종하사관 후보생 96명 등 조종사 양성에 拍車를 加하여 緊急히 요청되는 戰鬪 조종사를 大量으로 양성 할 수 있는 一大 轉換期를 마련하였다.

4월 26일에 空軍士官學校는 第1期士官후보생의 操縱敎育과 術科敎育을 위하여 설치되었던 泗川分校를 해체하면서 7월 2일부로 高永輔대위 등 99명을 鎭海本校에 복귀시키게 되었다.

第1期 士官후보생들은 空軍의 初創期인 1950년 6월 25일 北共軍의 南侵으로 大田을 비롯하여 一時 大邱에서 敎育을 받았고 그후 다시 UN軍의 北進에 따라 永登浦에 있는 城南中學校에서, 2次撤收時에는 濟州島 慕瑟浦에서 各各 교육을 받다가 泗川을 거쳐 鎭海에서 1951년 7월 10일 安洙恩 以下 83名의 任官을 보게 되었는데 이는 空軍에서 처음으로 배출되는 正規將校로서 2個年間의 교육중 여러가지의 惡條件下에서 값있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

8월 5일 이들의 卒業式은 李大統領과 李起鵬 國防部長官 및 John J. Muccio 駐韓美大使를 비롯하여 政府閣僚와 國內外 高級將星등 內外 貴賓이 참석하였는데, F—51航空機 16台의 祝賀飛行 등이 있어 이들의 壯途를 祝賀하였다.

이와같이 空軍力의 擴張에 따라 조종사 이외에도 많은 병력이 소요 되었는데 그 兵力補充을 위하여 1951년 初부터 실시한 바 있던 學者와 技術者등 社會 各界의 專門 分野 元老들을 各自의 經歷에 따라 初任 계급을 소령까지 부여한데 (韓國戰爭史 제5권 206p 참조) 이어서 空本특명 제161호에 의거 51년 8월 6일부로 한글학자인 韓甲洙와 刀圭界의 李仁奎를 소령으로 太學基, 吳寬用, 李用炅, 南相旭, 玄勝鍾등 13명을 대위로 朴良淑등 14명을

중위로 李命在등 16명을 소위로 各各 初任 계급을 부여하였다.

또한 7월 1일에는 第3期 技術將校 후보생으로 6個月間의 교육을 마친 羅浦國등 184명을 비롯한 항공기정비 통신등 후방요원의 將校充員을 마치었다.

이외에 그간 軍擴充에 따라 緊急히 소요되는 장교를 充當하기 위하여 일부고급하사관 중에서 선발하여 現地부대에서 任官시킨 바 있으나 韓國戰이 長期化되고 武器體系가 점차 高度로 발전함에 따라 총참모장 金貞烈소장은 이 現地 任官制度를 廢止하고 任官前 充分한 事前 교육을 통하여 科學化된 軍運營 體制에 適應할 수 있도록 하고자 6個月間의 召集將校學生 교육과정을 설치하였으며 旣成將校를 위한 1個月間의 單期교육과정도 併設하여 補充교육을 強化하게 되었다.

이 교육은 그간 확보된 學者와 技術者를 敎官으로 배치하여 실시하였는데 3次 召集將校學生으로 選拔된 許廷鳳등 22명을 士官學校에 入校시키고 旣成將校中 79명을 選拔하여 5월부터 8월까지 3次에 걸쳐 4주간의 短期교육도 실시하여 將校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5期 조종하사관 80명에 대한 기초 교육도 아울러 실시하였다.

期間中 下士官 345명과 技術兵 및 一般兵 1,292명을 選拔하여 基本軍事 훈련과 通信 氣象 憲兵등을 비롯하여 自動車 運轉兵과 行政兵등 特技교육을 第1航空 敎育隊에서, 항공기정비와 항공사진 및 낙하산반 요원등 66명을 비행단에서 실시하는 등 軍敎育에 비약적인 발전과 學校교육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軍內교육이 困難한 敎官과 實務要員 양성은 美제5空軍이나 陸軍의 各 兵科學校에 파견하여 실시함으로써 軍運營의 혁신을 가져왔다.

이리하여 51년末에는 인가병력 5,800명에 실운영 병력이 5,474명으로 增加되어 開戰初期 1,897명에 比하여 3倍의 兵力으로 증강하게 되었다.

9. UN 空軍의 活動 (1951년 6월 1일부터 1951년 7월 31일까지)

참조 상황도 제18, 19호

要 旨

UN空軍은 제1·제2의 兩次 春季攻防戰에서 UN地上軍에 對하여 과감한 근접지원과 敵의 勢力을 弱化시키기 위한 작전으로 敵의 補給路와 機動路를 遮斷하는 한편 敵陣 깊숙히 進入하여, 橋梁과 鐵路에 遮斷 폭격을 敢行하는 한편 敵의 空軍力을 瓦解粉碎하고 계속 制空權을 掌握하기 위하여 北韓에 있는 敵의 주요 비행장을 猛爆하였다.

極東空軍 전투물자 空輸司令部에서는 敵과 接戰하고 있는 前線으로 많은 탄약과 POL(油脂)과 軍裝備를 空輸하여 地上軍作戰을 支援함으로써 戰勢는 好轉되고 反擊한 UN軍은 다시 鐵의 三角地帶를 掌握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敵은 6월 中旬까지 UN軍을 南韓에서 擊滅하려는 이때까지의 모든 노력이 虛事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고 더구나 前後·2次에 걸친 春季攻勢가 挫折되자, 마침내 進退維谷인 難局에 陷入하게 되었다.

마침내 共産側은 6월 23일 休戰會談을 提議하게 되었고 드디어 7월 1일 그 會談 場所를 開城으로 定함으로써 이때부터 韓國戰은 새로운 局面에 들어 갔으나, 空軍의 活動은 조금도 늦추지 않았으니, 極東空軍 司令官 Otto P Weyland 중장이 命令하되 『UN空軍의 모든 作戰은 別途의 指示가 없는 限 旣定計劃대로 계속 斷行하라』 하였다.

이어 Weyland 중장은 強調하기를 『韓國戰에 中共軍이 侵略한 以來 이미 7個月이 넘었는데 이 기간동안 UN軍은 그들에게 비참한 패배의 맛을 보였기 때문에 敵은 그들의 人力이 UN軍을 휩씬 능가한다는 事實에도 不拘하고 더 이상攻勢를 취하는 것이 무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勿論 滿제8군의 火力과, 機動力이 UN의 승리에 寄與한 바 컸으며 그 打擊의 威力이 敵 戰線에 大量으로 殺戮을 強要하였고 機動과衝擊의 能力이 敵을 壓倒하였으므로 UN軍의 승리가 優越性을 證明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地上戰 보다, 더 큰 UN軍의 승리는 1950년 6월 25일 以來의 空軍의 作戰이 敵의 공격을 阻止하고 그 繼戰 능력을 抹殺하는데 가장 강력하고도 절대적인 힘이 되었다는 것을 明白히 立證하였다』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UN空軍이 制空權을 완전히 掌握하므로 말미암아 有利한 狀況下에서 조종사와 各種비행기의 커다란 損失없이 파괴력과 殺傷力을 集中發揮 하였다.

또한 美空軍에서 發表하되 『UN空軍이 韓國戰에 參戰하여 作戰 展開日로부터 4個月 동안에 걸쳐 도합 39,000명의 武裝軍을 殺傷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戰線에 投入된 敵의 유효전투병력 100,000명의 33%를 넘는 數字이다.

그뿐 아니라, 1950년 11월에서, 1951년 1월까지 사이에 中共軍이 侵略한 이후 UN空軍은 敵 74.

446명을 殺傷하였으며, 敵이 다시 集結하여 제5차 攻勢로 南侵을 꾀한 6월까지 極東空軍에서는 戰果로 『敵 43,105명을 殺傷하였다』라고 發表하였다.

이와 같이 UN空軍에서는 1년 동안에 도합 156,551명의 敵을 殺傷한 것으로 統計하고 있는데, 이러한 空軍의 算出根據는 敵軍側에서 是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敵의 捕虜들로 부터 수집한 여러가지의 訊問調書를 土臺로 하여 極東軍 總司令部의 연구서에서 뒷 바침하는 計數인 것이다.

또한 UN空軍의 活動으로 敵의 전투물자를 大量 파괴하였는데 極東空軍이 參戰 以來 6월 30일까지의 綜合戰果는 다음과 같다.

戰車 ———	868臺	野砲 ———	1,655門
機關車 ———	393臺	貨物車輛 ———	4,650輛
軍트럭 ———	15,522臺		

한편 極東空軍의 損失은 戰爭 1년 동안에 死傷者가 631명(死亡者와 行方不明된 495명의 士兵도 포함)이고 운영상의 事故로 파괴된 비행기가 481臺에 達하였으나 敵의 攻擊으로 파괴된 것은 246臺에 不過하였다.

이와 같이 UN軍 司令部에서 置重한 地上戰略에 언제든지 空軍力이 最大機能으로 參與할 수 있게 끔 구성되지 않았음에도 不拘하고 UN空軍力은 변함없이 결정적인 세력으로써, 활약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UN軍은 對空의 配慮없이 地上에서의 獨自的인 作戰을 有利하게 遂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UN空軍이 계속 制空權을 掌握함으로써 地上에서 자유로운 機動力을 발휘 할 수 있었고 그반대로 敵은 行動에 많은 제한을 받아 오직 夜暗에만 潛行 할 수 있었으며, 몇몇 비행활동도 밤중에만 局限하는 신세를 免치못하였다.

따라서 UN空軍의 制空權의 掌握은 UN軍을 敵의 空中攻擊으로부터 解放하였을 뿐만 아니라, 敵의 前線과 그 後方 補給線間의 輸送路를 斷絶하여 敵軍과 군수물자의 自由로운 移動을 크게 制限하였다.

이러한 UN空軍의 遮斷作戰으로 말미암아 敵의 모든 裝備와 補給品은 前線에 도착 하기도 전에 이미 대부분이 消滅 되었으며, 또한 오랜 시간에 걸쳐, 여기 저기에 分散된 보급품들을 간신히 前線가까히 推進하여 地上 공격을 敢行할 준비가 거의 갖추어 질 때마다, 敵의 兵力과 군수품은 UN軍의 空, 地 協同作戰으로 많은 損失을 입었기 때문에 中共軍은 地上 공격을 시도 하기도 전에 兵力과 보급품의 부족 現狀을 자아내게 되었다.

이와같은 가운데 敵은 休戰會談을 提議하여 그들 地上活動에 最大의 장애인 UN空軍의 威壓에서 벗어나 有利한 작전을 試圖하려고 企圖하게 되었다.

즉 前線 바로 北쪽이고 平壤에서 南쪽으로 이어진 주요한 機動路上에 있는 開城을 休戰會談 장소로 要求하여, UN空軍 활동에 새로운 直接的 制限을 加하려고 꾀하였던 것이다.

軍事委員團들이 활동하는 開城一板門店間의 협곡과 開城 주위를 中立地域으로 만듬으로써, UN空軍의 威力을 白紙化하려고 노렸던 것이며, 이 制限地域을 빛좋게도 所謂「Holy Land」라고 불리워지게 함으로써 美 제5공군 작전에는 다시 없는 커다란 障壁地區로 化하게 된 것이다.

6月中 UN空軍에서는 도합 21,395回에 達하는 出擊을 記錄 하였는데 이 중 근접지원에 2,030回,

遮斷 작전이 7,037回에 達하여 7,432 ton의 폭탄과 2,228 ton의 Napalm彈을 퍼붓는 한편 모두 7,136回의 空輸 지원을 提供하였다.

7月中에는 美 제5공군사령부를 韓國 基地로 推進하여 空軍活動을 보다 強化하는 가운데 Mosquito機에 SCR—300無線機를 裝置함으로써 地上軍과의 緊密한 協同을 期 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前方空中統制官(FAC)은 AN/TRC—7 移動用 無線機를 가지고 遠隔한 位置에서, 爆擊을 指示 할 수 있게 되어 위력 있는 근접 지원을 敢行 하였으며 敵의 後方 戰略要衝地에 正確한 爆擊性能을 發揮하였던 것이다.

期間中 UN空軍은 15,914回에 達하는 出擊을 記錄하였는데 그 중 근접지원에 1,084回를 실시하여 1,588ton의 폭탄과 276ton의 Napalm彈을 各各 投下하고 遮斷 작전에 도합 5,939回를 出擊하여 폭탄 7,576ton과 Napalm彈 238ton을 投下하였으며 空輸 지원은 모두 4,904回를 記錄하였다.



<極東空軍 司令官 중장 Otto P. Weyland>

가. 參加部隊 및 主要 指揮官

美 極東空軍 司令官 代理
중장 Earle E. Partridge

美 極東空軍 司令官 중장 Otto P. Weyland
(1951. 6. 10 이후)

美 제5공군 司令官 중장 Frank F. Everest

美 極東空軍 爆擊 司令官 代理
준장 Robert H. Terrill

美 極東空軍 전투물자 空輸司令官
준장 John P. Henebry

나. 6月中 夏期 攻防戰에 있어서의 UN空軍의 活動

UN空軍은 地上軍이 敵의 제5차 攻勢를 擊退한 6월 2일까지 敵 空軍의 活動을 制壓하기 위하여, 北韓에 있는 敵의 주요 비행장을 強打하였으나, 6월에 中共의 空軍力은 航空機만도 1,050臺로 증가되고 그 가운데 Jet機만 445臺를 保有하고 있는 것으로 推算되어 새로운 威脅要素로 登場하게 되었다.

期間中 敵의 MIG-15 전투기들은 新安州 上空에 頻繁히 나타났으며, 平壤까지도 가끔 그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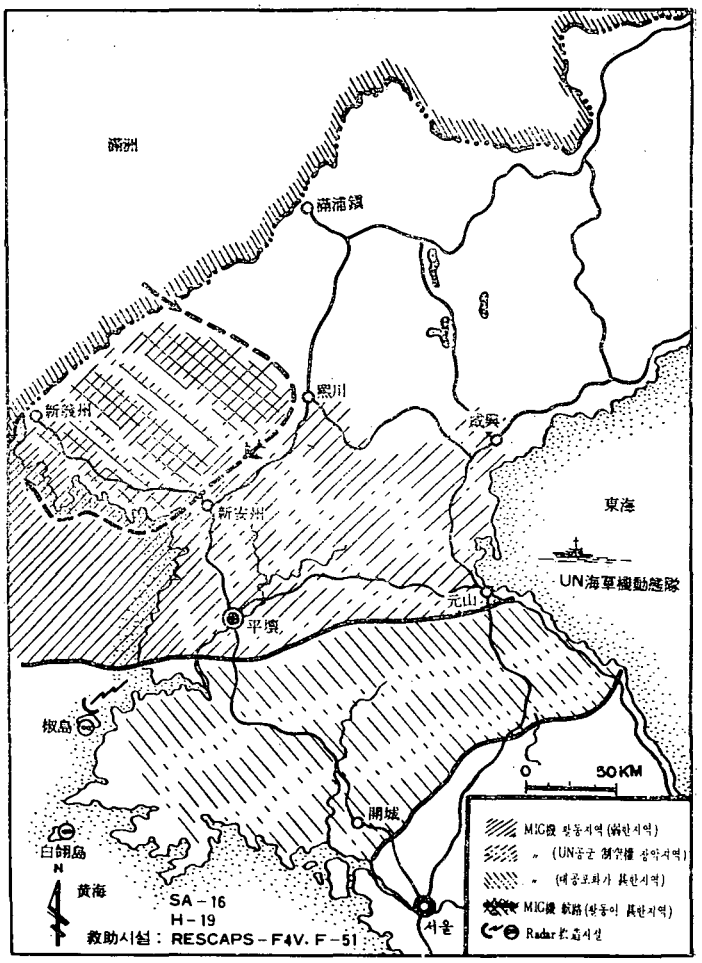
이 당시의 MIG機는 "YO-YO"라는 戰法을 採擇하였는데 이것은 20臺 이상의 MIG機가 UN

空軍機의 編隊보다도 有利한 高度에서, 旋回 비행하다가 太陽쪽에서부터 MIG 2機가 編隊를 離脫하여 急降下 한 다음 UN空軍의 Sabre를 뒷 쪽에서 공격한 다음 急上昇하여 旋回中인 다른 MIG機들과 合勢하는 戰術인데 敵은 늦은 여름과 가을동안 이와 같은 戰法으로 UN空軍을 압도하여 보려고 꾀하였다.

이 때부터 敵機들은 平壤 上空에 정기적으로 한 무리가 되어 出現 하였으며, 元山—鎭南浦—新安州을 連結하는 三角地帶도 여러번 出沒 하였다.

그리하여 6월 1일 極東空軍에서는 戰鬪기의 掩護없이 出擊하는 爆擊기들의 安全을 위해 한때 MIG通路 (MIG Alley)를 폭격 범위에서 除外하여 任務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상황도 제18호. 敵 MIG—15의 作戰地域



또한 美 제5공군에서는 모든 爆擊機型 偵察機를 엄호하기 위하여, 8乃至 16機의 전투기를 出擊시키고 있었는데 엄호出擊에 과중한 戰力의 소모를 막기 위하여 平壤 北쪽의 모든 정찰임무를 極東空軍의 RF-80武裝 偵察機로 하여금 담당케 함으로써 이 偵察機들이 敵機를 擊退하면서 능히 偵察임무를 遂行하게 되었다.

제67전술정찰비행단의 RF-80武裝 偵察機는 金浦(K-14)에 基地를 두고 鴨綠江에 이르는 모든 目標를 정찰 하였는데 폭격 司令部에서 요청하는 平壤 北方에 對한 目標 선정계획과 폭격 피해 사진 지원을 다음과 같이 3個 順位로 수립하였다.

1) 폭격사령부 評價家의 폭격 被害 판단을 우선 順位 제1로 하기 위하여 촬영된 사진을 될수록 신속히 合同作戰 본부(JOC)로 보고하며, 폭격 司令部의 전령이 배달 할 수 있도록 每日 아침 04.00까지 준비 완료한다.

2) 폭격 司令部의 指示에 따라 수시 撮影은 제2位로 취급 한다.

3) 폭격임무 遂行의 보고와 함께 촬영계획 보고를 제3의 順位로 한다.

이와 같이 우선 順位대로 作戰을 展開하게 됨으로써 정찰 出擊日의 다음 날 아침 04.00가 되면 폭격 司令部의 전령이 이를 接受하여 곧 그 目標에 出擊을 斷行 할 수 있었다.

6월 10일 極東空軍 司令官 Otto P. Weyland중장은 美 空軍 本部에 요청 하기를 『長期戰에 대비한 작전계획으로 2個 輕爆擊 비행단을 戰時兵力(War Strength)으로 保有할 것』이라 하였다.

뿐만 아니라 Weyland중장은 提議하기를 『美 空軍이 長期戰에 대비하는 모든 計劃을 樹立하여야 한다』라고 強調함으로써 戰局이 長期持久化 할 경우의 方策을 指摘하였다. 그러나 美 空軍에서는 이에 대답하되 『極東空軍의 현재 兵力 配置는 이미 聯合참모본부에서 할당한 空軍力의 規模를 훨씬 超過하였으며, 美空軍에서 140個 전투 비행단 兵力으로 擴大하기로 이미 計劃한 割當規模와 동등한 것이다』라고 消極的인 反應을 보이기만 하였으니 그 視野가 매우 狹少하고 그 度量이 극히 작았다는 것을 指摘 할 수 있었다.

한편 6월 中旬에 敵空軍은 北韓內의 비행장 복구에 注力하고 있었는데, 이에 비추어 Weyland중장은 斷乎하게 命令하기를 『복구중인 敵 비행장 13個所를 우선적으로 爆擊하라』라고 極東空軍 폭격 司令部에 下達하였으니 그는 武將中의 武將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이 任務는 즉시 B-29 重爆擊機에 의하여 遂行 되었는데 敵의 비행장은 山으로 둘러 싸여 있기 때문에 韓國 山河를 처음으로 찾게 된 승무원들은 目標를 확인하는데 다소의 혼란이 있었으나 全般的으로 볼 때에는 만족스러운 폭격이 斷行되었다.

또한 전투물자 空輸司令部에서는 前線의 各 비행장으로 補給品을 신속히 空輸支援에 全力을 다하였는데 6月中 제315 비행단에서는 여러가지 作戰上의 난관에도 不拘하고 各 前線으로 空輸한 彈藥等 各種補給品이 도합 22,472ton에 達하였다.

이러한 탄약 空輸와 군수품 수송으로 美 제8군의 戰力은 증강되어 敵陣에 火力을 集中함으로써 敵의 士氣를 크게 低下시킬 수 있었다.

期間中 美 戰術機는 1日 평균 355回의 出擊을 敢行 하였는데 이 가운데 1일 平均의 근접지원은 68回였으며, 遮斷作戰은 126回에 達하였다.

또한 1日 무장 정찰에는 108回의 出擊을 斷行하였으며 엄호 출격은 35回, 敵機를 擊退시킨 空中邀擊은 35回로 도합 10,668回에 達하는 出擊記錄을 세웠다.

6月中 夏期 攻防戰에서 활약한 UN空軍의 日日作戰 狀況은 다음과 같다.

6월 1일 : UN空軍의 전투邀擊機들은 敵 MIG-15전투기와 平壤 上空에서 空中戰을 展開하여 3臺를 擊墜하고 다른 2臺를 一部 破損하였으나, 敵 비행장을 폭격하던 B-29 重爆擊機 1台가 敵의 對空砲火로 추락하였으며, 2台가 一部 피해를 입었다.

이날 UN空軍에서는 도합 879回의 출격으로 敵의 軍 建物 530棟과 軍트럭 253台를 擊破하고 牛馬車 120台를 燒却하였다.

6월 2일 : 제606 大隊는 보다 긴밀한 근접지원을 위하여 自隊의 戰術 航空 지시본부(TADC)를 金浦(K-14) 東北쪽 山頂으로 移動하였다.

6월 3일 : 極東空軍 폭격 司令部의 B-29 重爆擊機들은 元山—咸興間의 橋梁을 폭격하여, 徑間(Span) 여러개를 全破하였다.

이날 空輸司令部의 C-119 輸送機 2台가, 地上軍에 補給品을 空輸하기 위하여 我前線을 비행하고 있었는데 UN地上軍의 誤發로 추락하는 事故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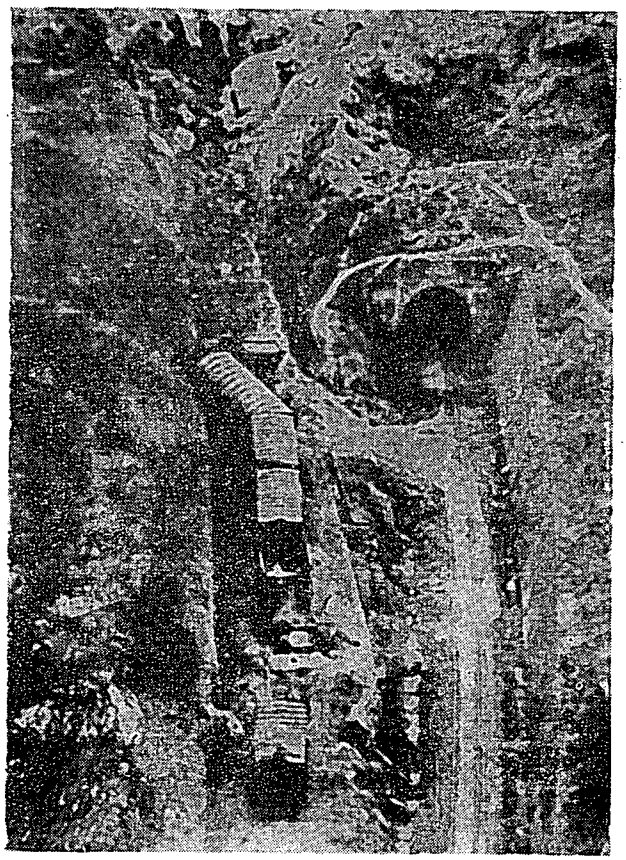
6월 4일 : UN空軍의 B-29 重爆擊機들은 敵의 補給所를 爆擊하기 위하여, 永興上空으로 出擊하여 2,000 lb의 폭탄을 集中投下하였다.

敵機 2台가 楊口近方에 있는 UN軍 陣地에 폭격을 加하였으나, UN空軍의 反擊으로 격퇴하였으며 이날, 도합 850回에 達하는 出擊으로 敵陣을 뒤흔들어 놓았다.

6월 5일 : UN空軍은 敵의 前線과, 주요 보급로를 遮斷하기 위하여, 美 제5공군에서 出擊한 661回를 비롯하여, 도합 845回에 達하는 出擊을 記錄하였는데, 이 날, 美 제5공군에서는 敵의 화물차량 47輛과 軍트럭 25台를 擊破하였다.

6월 6일 : UN空軍에서는 B-29 重爆擊機를 出擊시켜 金川一市邊里를 爆擊하니 天地를 진동하며, 삽시간에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

極東空軍에서는 도합 970回에 達하는 출격으로 敵의 軍트럭 134台와 砲陣地 6個所 그리고 戰車 1台를 격파 하였으며, 敵 500명을 殺傷하였다.



<UN 전투폭격기에 의해 파괴된 敵의 화물차량>

6월 7일 : 極東空軍 폭격 司令部에서는 B-26輕爆擊機와 B-29 重爆擊機 도합 23台로 鐵의 三角地帶에 9,000,000個의 破片으로 分裂하는 500 lb의 폭탄을 集中 投下하였으며 鐵原—金化周邊의 敵 集結所는 Napalm탄과 機銃掃射로 焰煙이 그 周邊 山河를 덮었다.

한편 敵의 機動路와 주요 補給路를 遮斷하기 위하여 沙里院—海州부근의 鐵路를 強打하였다.

이날 極東空軍에서 發表하기를 『中部戰線에서 大量의 새로운 武器를 使用하여 敵의 集結部隊를 潰滅分散케하였다』라고 하였으며, 모두 763回에 達하는 出擊으로 軍트럭 147台와 화물차 65輛을 격파하고 軍用 건물 520棟을 焚燒하였다.

6월 8일 : UN空軍의 B-26輕爆擊機 17台와 B-29 重爆擊機 13台가 鐵의 三角地帶에 200ton의 폭탄을 集中 投下하였으며 이날의 出擊回數는 도합 489回에 達하였다.

UN空軍에서는 6월 2일부터 8일까지 사이에 도합 4,229回에 達하는 出擊으로 敵의 트럭 800台와 화물차 300輛 그리고 軍用 건물 3,000棟과 戰車 7台를 파괴하였으며, 敵兵 1,400명을 殺傷 하였다.

6월 9일 : UN空軍機는 晝夜를 가리지 않고 679回에 達하는 出擊을 敢行하여 軍用建物 701棟과 트럭 125台 그리고 砲陣地 8個所와 연료 및 보급품 集積所 7個所를 全破하였다.

그 밖에도 追加로 이날 敵의 주요 보급품 集積所와 橋梁 6個所를 파괴 하고 화물차량 88輛을 全破하는 동시에 敵 100명을 殺傷하였다.

6월 10일 : UN空軍機들은 鐵의 三角地帶에 500 lb의 破片彈 200個를 集中投下하고 沙里院—平壤間에 130ton의 폭탄을 投下하여 目標物을 화염으로 뒤 덮었으며, 夜間에는 Radar 裝置를 한 輕爆擊機들에 의하여 順天—平康--平壤—沙里院 등 敵의 주요 비행장 7個所를 強打하였다.

이날 707回의 出擊으로 UN空軍이 거둔 戰果는 건물 390棟과 트럭 128台를 격파하고 砲陣地 13個所와 연료 및 탄약 集積所 4個所를 爆破하였다. 또한 보급품을 가득 싣고 前線으로 移動중인 화물차량 59輛과 牛馬車 40台를 擊破하고 敵 200명을 殺傷하였다.

6월 11일 : UN空軍은 이날 雨天임에도 不拘하고 377回의 出擊을 記錄하였는데 主로 宣川의 敵 보급품 集積所에 指向된 이날의 爆擊으로 軍用 건물 400棟을 파괴하였다.

이날의 特記 사항으로는 敵 對空砲火로 추락한 F-51(Mustang)기의 조종사를 구출하기 위하여 SA-16 水陸兩用機가 大同江에 着水하여 무사히 이를 구조 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

6월 12일 : UN空軍은 이날 鐵의 三角地帶에서 마지막 據點인 平康을 포기하고 退却中인 敵을 追擊하고 있는 地上軍에 對한 엄호와 근접지원을 提供하였다.

6월 13일 : UN空軍의 전투 邀擊機들은 敵機가 元山 上空에 出現하자, 즉각 空中反擊戰

으로 이를 擊退한 다음 敵의 機動路와 산길을 따라 退却하는 敵 地上軍을 急降下로 공격하여 大混亂에 빠지도록 하였다.

6월 14일 : 極東空軍 폭격 司令部에서는 B-26 輕爆擊機와 B-29 重爆擊機를 出擊시켜 沙里院—順天 비행장을 強打하고 이곳에서의 敵空軍의 활동을 阻止하였다.

한편 水原 비행장(K-13)과 永登浦에 敵機 各 1台가 나타났으나 美 제5공군의 전투 邀擊機의 出擊으로 즉각 擊退되었다.

6월 15일 : UN空軍機들은 이날 目標 上空에 雲霧가 짙은 까닭으로 몇 차례에 걸친 對地上軍 근접지원을 하였을 뿐이며 그 밖의 모든 空中活動은 計劃대로 遂行할 수 없었다.

이날 駐韓 美 空軍 基地를 視察하기 위하여 來韓한 美 空軍長官 Thomas K. Finletter는 言明하기를 『韓國과 日本에 駐屯하고 있는 UN空軍機들은 中共의 空軍이 韓國戰에 參加한다 하여도 能히 擊退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6월 16일 : UN空軍의 爆擊機들은 敵의 軍트럭 75台가 平康地區로 南下中인 것을 捕捉하자 즉각 爆擊을 가하여 大破하였다.

6월 17일 : 極東空軍 폭격 司令部의 B-29 重爆擊機들은 沙里院과 平壤 비행장에 100ton 以上의 폭탄을 集中投下하여 비행활동 根源을 뿌리 뽑았으며, F-86 Jet 邀擊機 20台는 新義州 上空에서 MIG-15 Jet機 25台와 空中戰을 展開한 끝에 MIG機 1台를 擊墜하고 6台를 大破한 다음 悠悠히 基地로 復歸하였다.

이날 夜間에 水原 비행장(K-13)에는 敵의 PO-2 輕複葉機(Biplane) 1台가 나타나 폭탄 4個를 投下한 결과 제335 전투 邀擊大隊의 전투기 駐機場(Parking Ramp)의 一部가 破損되었으며 Sabre 1台가 全破되고 4台가 大破되었다.

6월 18일 : 이날 UN空軍의 전투 邀擊機 33台는 MIG-15機 40台와 新義州 上空에서 空中戰을 展開한 끝에 敵機 5台를 擊墜하고 2台를 大破하였다.

所屬未詳의 敵機 1台가 仁川 上空에 나타났으나 UN空軍機의 反擊을 받자 海中에 폭탄 4個를 投下한 다음 北으로 機首를 돌려 退避하였다.

6월 19일 : UN空軍의 F-86 Jet 邀擊機 27台는 成川 上空에서 MIG-15機 30台와 空中戰을 벌여 MIG 4台를 半破하였다.

또 美 제5空軍의 전투폭격기들은 계곡을 따라 南下중인 1개 대대 규모의 敵地上軍을 공격하여 많은 殺傷을 주었다.

6월 20일 : 이날 UN空軍에서는 氣象이 고르지 않아 도합 486回의 出擊 밖에는 못하였

으나, 두 차례에 걸쳐 大空中戰이 展開되었다.

첫번째는 宣川 上空에서 UN空軍의 전폭기 100台와 MIG-15機 6台의 攻防戰 MIG-15機 4臺를 擊破하였으나 UN空軍의 전폭기는 아무런 損失이 없었다.

두번째는 韓國戰에서 처음 있는 二重 空中戰으로 UN空軍의 F-51(Mustang) 24台와 蘇製 "푸로페라"機 6台가 攻防戰을 展開하고 F-86 Jet 邀擊機 32台는 MIG-15機 36台와 空中戰을 展開한 끝에 敵機 3台를 격추하고 1台를 全破하였으며 다른 6台를 大破하였다.

또한 이날 敵機 1台가 議政府 北쪽 UN地上軍 集結地에 機銃 掃射를 加하였는데 이와 같이 敵 空軍의 活動이 漸次로 活潑化하는 것으로 判斷되었다.

6월 21일 : 이날은 많은 비가 내리고 검은 구름이 낮게 깔렸기 때문에 空軍의 活動을 中止하였다.

이날 UN空軍에서 發表하기를 『지난주 4日間의 空中戰에서 敵機 24台를 격추하였으며 UN空軍은 3台를 喪失하였다』라고 하였다.

6월 22일 : 이날 北韓 上空에서 2回에 걸쳐 空中戰이 展開되었는데, UN空軍의 F-86 Jet機 87台는 敵 MIG-15 Jet機 87臺와의 空中戰에서 MIG機 2臺를 격추하고 3臺를 大破하였다.

한편 이날 새벽에 敵機 1臺가 서울 上空에 나타나 폭탄 3個을 投下하고 재빨리 北上한 것을 비롯하여 敵機 2臺는 鐵原의 UN軍 陣地를 2時間에 걸쳐 攻擊하였으며 또 小型複葉 폭격기 1臺가 金浦(K-14) 비행장에 機銃攻擊을 加하였으나 큰 損失은 없었다.

6월 23일 : 美 제5空軍의 제49전투폭격전대 제8대대의 B-26輕爆擊機 1臺는 90° 偏着射擊(Defelection Shoot)으로써 敵의 蘇製 PO-2 爆擊機 1臺가 低空으로 攻擊하자 곧 이를 擊墜하였는데 이것이 PO-2機에 대한 第一 最初의 一擊이었다.

美 空軍에서는 6月初부터 韓國內의 各 비행장 滑走路 工事를 시작하였는데 제802대대가 담당한 水原 비행장(K-13) 工事를 筆頭로 하여 이날 滑走路 南端에 PSP 연장 工事를 竣工한 결과 많은 Jet 전투기들이 同時 작전을 遂行 할 수 있게 되었다.

6월 24일 : 美 제5공군의 F-80 Jet機 4臺는 北韓 上空에서 MIG-15機 4臺와 空中戰 끝에 4臺를 大破하였다.

또한 Jet 전투 邀擊機 4臺는 成川上空에서 MIG-15機 4臺와 空中戰을 展開하여 2臺를 半破하였으나, UN空軍의 Jet機 1臺도 擊墜되었다.

한편 이날 泰國 空軍의 派遣隊가 韓國에 도착하여 美 제5공군 제21대대에 배속되었다.

6월 25일 : UN空軍에서는 근접지원과 遮斷 작전에 도합 624回에 達하는 出擊으로 機關車 5臺와 화물차량 100輛, 그리고 戰車 3臺를 爆破하였으며 軍用建物 450棟을 破壞하였다.

또한 이날 極東空軍 司令部에서 發表하기를 『지난 9일間에 8回에 걸친 空中戰에서 敵機 13臺를 격추하고 27臺를 半破 또는 一部 破損의 損失을 입히는 戰果를 거두었다』라고 하였다.

6월 26일 : UN空軍에서는 도합 556回에 達하는 出擊을 記錄 하였는데 이날 敵의 前線으로 通하는 機動路를 따라, 탄약과 기타 군수품을 滿載하고 南下中인 軍트럭을 捕捉하자 250臺를 爆破하고 또 補給品 集積所로 往來하는 화물차량 80輛을 擊破하였다.

한편 이날 B-26輕爆擊機들은 夜間에 敵 戰線을 爆擊하여 敵 陣地를 破壞하였으며 敵兵들에게도 많은 人命上의 손해를 強要하였다.

6월 27일 : 極東空軍에서는 敵의 空軍力이 漸次로 強大化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폭격司令部의 B-29 重爆擊機로 하여금 元山, 平壤, 新義州 등 비행장을 爆擊토록 하였으며, 補給品을 싣고 前線으로 來往하는 軍트럭 75臺를 全破하였다.

주요 機動路上의 橋梁 12個所, 터널 12個所를 爆破하였으며 敵 前線에 散在한 軍用 건물 490棟을 破壞하였다.

6월 28일 : UN空軍은 이날 562回에 達하는 出擊으로 軍트럭 220臺와 화물차량 90輛을 破壞하였다.

또한 B-26輕爆機는 夜間에 出擊하여 軍트럭 60臺와 비행장 3個所를 破壞하였다.

UN空軍은 이날 한 차례의 空中戰에서 敵 Jet機 1臺를 全破하였으나 UN空軍의 Jet전투기 2臺도 敵의 對空砲火로 擊墜되는 損失이 있었다.

6월 29일 : 極東空軍의 전투물자 空輸司令官 John P. Henebry준장은 極東空軍 司令部의 제315공수 비행단이 空中投下 보급품의 포장과 積載 및 空中投下에 對한 一切의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을 美 공군본부에 建議한 바 있었다.

이것은 제315空輸 비행단에 이러한 권한과 책임이 附與된다면 兵力의 절약과 大規模의 空中投下 보급에 소요되는 노력을 능률적으로 통제 하는데 유리하다고 判斷하였기 때문이었으나 美 空軍本部의 승인을 얻지 못 하였다.

그러나, 제315空輸 비행단은 그 책임 범위가 空中補給 投下에 관한 「積載 및 『Kicking

(投下)작전』이었기 때문에 낙하산 준비 및 보급품의 포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갖추어지고 있었다.

6월 30일 : UN空軍은 金城 南쪽에 있는 2個 대대 규모의 敵陣地를 爆擊하여 UN軍의 地上軍이 3km 進擊 할 수 있도록 協力하였으며 B-29重爆擊機들은 沙里院—平壤—新義州 등 비행장에 對하여 폭탄을 集中 投下하여, 滑走路와 비행장 시설들을 爆破하였다.

이날 極東空軍 司令官 Otto P. Weyland중장이 말하기를 『西北韓의 敵 비행장 15個所는 지난 2週 동안에 UN空軍의 爆擊으로 作戰이 不能한 狀態가 되었다』라고 하였다.

期間中 UN空軍의 綜合戰果

MIG機 全破 또는 半破——53臺

蘇製 PO-2機 全破——1臺

野砲 파괴——6門

橋梁 폭파——12個所

戰車 파괴——11臺

機關車 大破——5輛

鐵道車輛 大破——629輛

軍트럭 全破——1,786臺

터널 大破——12個所

牛馬車 全破——160臺

敵軍用 건물 全燒——5,640棟

敵 殺傷——1,700명

다. 7月中 夏期 攻防戰에 있어서의 UN空軍의 活動

UN空軍은 7월에 休戰會談이 시작되어, 戰況이 多少 緩化됨으로써 美 제5공군 司令部를 韓國으로 進駐시키기 위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그 준비를 서둘렀으나, 事實上 비행단들을 移動시키는 問題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美 제5空軍 司令部를 韓國으로 進駐시키려면 格納庫와 수리창과 Parking Ramp(駐機場)가 부족한 前方 비행장에 1個 戰鬪戰隊 以上의 兵力을 주둔 시켜야만 하였고 敵 空軍의 위협을 받는 地域에 까지 兵力을 集結시키는 등 美 제5공군의 신축성 있고 효율적인 部隊 配置가 要求되었다.

또한 日本의 領空防衛까지 맡고 있던 美 제5空軍이 韓國으로 進駐함에 따라 極東空軍은 임시로

제314비행전대로 하여금 日本 領空 防衛를 담당토록 하고 極東空軍 司令官 Otto P. Weyland중장은 美 空軍本部에 要請하되 『日本의 航空駐屯隊(Air Garrison)로써 작전에 임할 2個의 전투비행단을 早速히 보내 달라』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美 空軍에서는 2個 전투비행단을 派遣함으로써 이 비행단이 日本領空防衛를 담당하게 되었고 제314비행전대는 本來의 任務로 복귀되었다.

한편 美 제5공군 司令官 Frank F. Everest중장은 命令하기를 『7월 4일 제5공군이 사용할 大邱(K-2)—群山(K-8)—水原(K-13) 비행장에, 9,000ft의 滑走路를 건설하라』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7월 8일 大邱(K-2) 비행장에 始動 Apron(格納庫앞 광장)이 完工되고 7월末에는 Parking Ramp(駐機場)가 竣工을 보게 되어 F-86 Jet 전투기 2個 大隊가 使用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UN空軍에서는 美 제5공군司令部를 韓國으로 進駐키 위한 前進 作戰을 展開하면서, 무엇보다도 과감한 遮斷作戰에 全力을 다 하였다. 그 까닭은 期間中 敵이 前線에서 軍糧 不足으로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는 많은 報告書에 接하였는바 開城에서 休戰會談이 始作되자 地上前線이 膠着된 틈을 타서 每日 800ton의 補給品을 敵의 前線 가까이 備蓄하고 있다는 정보를 入手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敵의 補給品의 備蓄 활동을 阻止할 수 있는 唯一한 手段은 空軍力의 發揮뿐이므로 이러한 見地에서 『Strangle 作戰』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 作戰의 目的은 敵의 輸送路를 파괴하여, 推進活動을 마비시키고 UN軍이 앞으로 敢行할 決定的인 攻擊에 미리 對備하지 못 하도록 하면서 敵의 繼戰能力을 剝奪하려는데 있었다.

美 제5공군에서는 이 『Strangle作戰』으로 鐵道 파괴를 가장 효과적으로 敢行 할 수 있는 空中攻擊目標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橋梁

(2) 機關車

(3) 鐵道와 철도軌道(Rail Bed)

이리하여 7월에 戰爆機들이 鐵道를 遮斷하게 되었는데 전투폭격기들이 遮斷作戰을 遂行 할 때에 直面한 最大의 난점은 敵이 파괴 부분을 수리하기 위하여 철도 수리용 중장비를 北쪽에서 南下시킨 다음 복구 공사를 끝내자 다시 北쪽으로 回送한다는 事實이었다.

이러한 障碍를 克服하기 위하여 『Strangle작전』 計劃의 樹立當事者들은 몇몇 주요 橋梁을 파괴하여, 그 修理用 重裝備를 자유로 轉用하지 못하도록 着眼하였으나, 美 제5공군에서는 어느 정도 鐵道 遮斷계획을 완수 할만한 戰力을 보유하지 못한 까닭으로 極東空軍 폭격司令部와 海軍함재기들이 分擔하여 철도 遮斷 작전을 斷行키로 決定하였다.

海軍의 함재기들은 東海岸의 元山—平康間의 철도는 이미 甚하게 파괴 되었기 때문에 東海岸의 沿岸 철도의 軌道를 遮斷하고 平康—吉州間의 철도를 遮斷하는 임무를 담당하였으며, 美 제5공군은 平壤—順川—宣川—新安州—熙川의 鐵橋를 파괴하는 임무가 부여 되었다.

한편 7월 12일 極東空軍 司令官 Otto P. Weyland 중장은 休戰會談이 遲遲 不振하고 敵의 空軍力이 增強一路의 趨勢를 보이게 되자 制空權의 掌握에 對한 關心을 傾注하게 되었으므로 그의 所信을 말하기를 『만약 이 戰爭이 그대로 계속 된다면 UN軍의 승리 如何는 中共의 空軍과 極東空軍의 爭覇

結果에 따라 左右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地上戰이 38°線에 沿하여 거이 停滯되어 가는 豫感이 있게 되자 極東空軍은 Weyland중장이 表明한 것과 마찬가지로 敵의 전투기를 擊破하기 위하여서는 UN空軍의 가장 特出한 武器의 새로운 위력을 實地로 보여 주는 것이 捷徑이며 또 이 때가 그 絶好의 機會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極東空軍의 指揮官들과 作戰 計劃 樹立者들은 北韓에 있는 敵을 물리칠 航空戰域을 決定하는 戰略問題를 論議하게 되었는데 敵은 空軍의 戰力源을 韓滿과 韓蘇의 兩國境 밖에 두고 여기에서 계속 그 戰力을 自由로 投入 할 수 있었으나 이 地域은 政治的인 이유 때문에 聖域化되어 버리고 UN空軍機가 한치라도 들어가서 직접 攻擊 할 수 없는 것이 當面한 가장 큰 難問題였다.

이와 같이 韓 滿 蘇國境과 인접한 攻擊目標들이 北韓內에 남아 있었는데 그 大部分이 鴨綠江 水力발전소와 같이 政治的으로 많은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었다.

極東空軍에서는 聯合參謀本部(JCS)에 대하여 空中위협의 表示로써, 事前에 市民들에게 豫備 경고를 한 다음 平壤에 大大的인 爆擊을 斷行 할 것을 認可토록 요청하는바 있었으나, 聯合參謀本部(JCS)에서는 우선 認可하면서도 攻擊 目標를 平壤으로 指向함으로써, 休戰協定의 성립 如何에 惡影響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極東空軍에서는 주요한 軍事目標가 많은 平壤에 局限하여 集中爆擊키로 決定하고 7월 13일 全部隊의 전투폭격기와 B-26과 B-29폭격기를 이미 계획된 目標上空으로 出擊케하여 敵軍의 集結地와 補給品 集積所 등에 대한 猛爆을 斷行하였다.

뿐만 아니라 7월 中旬에는 폭격司令部의 攻擊 계획에 들어 있었던 敵의 비행장 13個所가 美 제5공군의 連日 계속된 폭격으로 모두 使用이 不能하게 되자, 폭격 司令部에서는 敵의 輸送網을 공격 目標 順位 제1位로 選定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계획은 7월 30일 도합 354台의 戰爆機가 不順한 日氣를 무릅쓰고 平壤을 猛打한 것을 信號로 하여, 그 뒤에도 大大的인 爆擊은 얼마동안 계속 되었다.

한편 UN地上軍은 空軍의 主力을 근접지원에 集中使用하기를 希望하였고 地上部隊들이 敵과 熾烈한 교전을 하고 있을 때에는 더욱 더 그러하였다. 極東空軍 司令官 Otto P. Weyland 중장은 이에 反對하는 意見을 表示하되 「空軍의 主力을 砲兵의 代身으로 참호속 깊이 엄폐하고 있는 敵 戰線上에 직접 使用한다는 것은 다시 볼 수 없는 愚昧한 짓이다」라고 反駁하기도 하였다.

또한 UN空軍이 制空權을 계속 掌握 할 수 있었던 것은 MIG通路(MIG Alley) 上空에서의 空中戰과 北韓內의 敵 비행장 폭파로 敵의 空軍力을 위축시켰기 때문이었다.

그뿐 아니라 戰術空軍力의 3大任務中의 하나인 遮斷作戰에 있어서는 敵의 集結地와 敵의 補給品 集積所를 파괴하여 敵에게 致命的인 打擊을 줌으로써 休戰會談을 UN軍에게 有利하게 展開 하도록 하는 것이 要請되었다.

期間中 美 戰術機는 1일 평균 259回의 出擊을 敢行하였으며, 이중 근접지원은 35回, 遮斷作戰은 127回에 이르렀다.

武裝偵察은 1일 平均 65回의 출격을 記錄하고 엄호 출격은 14回, 空中反擊은 35回로 도합 10,668

回에 達하는 統計數字를 보이고 있다.

7月中 夏季 攻防戰에서 활약한 UN空軍의 日日 作戰狀況은 다음과 같다.

7월 1일 : UN空軍의 B-29重爆擊機와 그 外의 모든 戰鬪爆擊機들은 順安—新幕등 北韓 西北에 있는 비행장을 目標로 出擊하여 爆擊을 斷行하였다. 6월末부터 9일間에 걸쳐 UN공군기들은 14차의 出擊으로 敵의 주요 비행장 15個所를 強打함으로써 敵은 감히 접근하여 파괴된 비행장을 복구 할 생각 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다.

한편 美 제5空軍의 제67 정찰 비행단장 Karl L. Polifka대령이 部隊의 一員으로 出擊하였다가 이날 敵의 對空砲火로 擊墜됨으로써, 장열한 최후를 마친 悲報가 있었다.

7월 2일 : 極東空軍 爆擊司令部의 B-29重爆擊機와 B-26輕爆擊機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敵의 前線으로 通하는 주요 機動路를 폭격하는 한편 敵의 補給品 集積所로 연결된 鐵道를 破壞하는 活動을 전개하였다.

이날 UN空軍은 근접지원과 遮斷 작전에 도합 475回에 達하는 出擊을 敢行하고 敵陣 곳곳에 多量의 爆彈을 集中投下 함으로써 爆音이 山河를 震動하고 焰煙이 蒼空을 縋 놓았다.

7월 3일 : 이날 UN空軍에서는 氣象이 고르지 않았으나 出擊을 敢行하여 鎭南浦, 兼二浦 등의 補給品 集積所를 폭격하는 한편 그 곳으로 연결된 鐵道를 破壞하고 또 敵의 補給輸送의 能力을 마비 시키기 위하여 주요 操車場까지 覆滅하고 말았다.

7월 4일 : UN空軍에서는 도합 625回에 達하는 出擊으로 주요 補給路와 機動路로 이어지는 橋梁 16個所를 파괴하였다.

이날 UN空軍機 1臺가 敵의 對空 砲火로 墜落하였다. 美 제5공군의 전투 爆擊機들은 敵의 機動路를 폭격하여 敵 地上軍은 한 때 후방과의 通信마저 ; 두절되는 곤경으로 몰아 넣었다.

7월 5일 : 極東空軍은 惡天候에도 不拘하고 B-26輕爆擊機와 B-29重爆擊機를 北韓 깊숙히 出擊시켜, 新義州—順安—溫井里비행장을 強襲하는 등 328回의 出擊를 記錄하였다.

7월 6일 : UN空軍의 戰爆機들은 이날 出擊回數 635回를 記錄하는 活動으로 敵 補給品 集積所를 비롯하여 많은 橋梁들을 爆破하였다.

또한 B-26 夜間 爆擊機들은 新義州—新安州間의 機動路에서 南下中인 敵軍트럭 100臺에 多量의 爆彈과 Napalm彈을 퍼부어 이를 모조리 破壞하였다.

이날 美 極東空軍 司令官 Otto P. Weyland 중장은 命令하기를 『7일 16.00 이후에 敵의

代表들이 休戰會談에 參加하기 위하여 開城으로 向하는 通路와, 敵의 代表가 도착한 다음 開城 주변 2km 以內에서의 爆擊을 中止하라』고 하였다.

7월 7일 : UN空軍의 전투 爆擊機 50臺는 韓, 滿國境 上空에서 敵의 MIG-15전투기 50臺와 空中戰을 展開하였으며 UN空軍機와 極東海軍의 함재기들은 元山灣을 폭격하고 B-29重爆擊機들은 赴戰高原一帶를 強打하였다.

또한 이날 12 00 開城一平壤間의 機動路를 따라 南下中인 兵團行列에 對하여 掃射을 퍼부었다.

7월 8일 : 極東空軍의 F-86 Jet 邀擊機들은 北韓의 西北 上空에서 敵 MIG-15 전투기와 空中戰을 展開하여, MIG機 3臺를 擊破하였다.

또 B-26 夜間 爆擊機들은 機動路를 따라 南下中인 軍트럭 1,000臺 以上을 捕捉하자 곧 爆彈과 Napalm 攻擊을 加하였다.

7월 9일 : 爆擊司令部의 B-29 重爆擊機들은 며칠 계속되는 惡氣象을 무릅쓰고 新安州 비행장에 폭탄을 集中 投下하여, 검은 연기를 치솟게 하였으며, 그 上空에서 UN空軍의 F-86 Jet 전투 邀擊機들은 MIG-Jet機와 空中戰을 展開하여 MIG機 1臺를 擊墜하였다.

7월 10일 : UN空軍은 계속되는 惡天候로 말미암아 77回의 制限된 出擊 밖에는 實施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4월 28일 以來 가장 적은 空中活動이었다.

그러나 極東空軍의 B-29 重爆擊機들은 검은 구름을 뚫고 目標인 東海岸의 高原地區의 敵 補給中心地에 Radar 조준을 이용하여 70 ton의 爆彈을 投下하여 그 一帶를 검은 연기로 휘 감아 놓았다.

또한 夜間에 B-26輕爆機와 B-29重爆機들이 北韓의 各 비행장을 目標로 出擊하여, 平壤一順川一新安州 등 5個 비행장에 爆擊을 敢行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검은 구름이 낮게 뒤덮인 하늘로 불 기둥이 솟아 올랐고 점점 불길이 퍼져, 이윽고 근처에 있는 彈藥庫에 점화되자, 그 폭음이 天地를 진동하는 듯 비행장 一帶를 뒤 흔들어 놓았다.

7월 11일 : 極東空軍의 제98폭격 비행단의 B-29 重爆擊機 6臺는 안개가 자욱하게 낀 氣象下에서도 2,000 ft까지 降下하여, 黃州 조차장에 對한 目視폭격을 斷行하였다.

또한 B-26夜間 爆擊機들은 平壤基地 4個所와 敵 비행장을 急襲폭격하였다.

또한 이날 西北 韓國 上空에서, UN空軍의 F-86 Jet 邀擊機는 敵의 MIG-15 Jet機들과 20分間에 걷친 空中戰에서 MIG機 3臺를 擊墜하고 1臺를 擊破하였다.

7월 12일 : 極東空軍의 전투폭격기들은 兼二浦近方에 있는 補給品 集積所를 爆破하고,

新幕—黃州—順川—平壤—新安川 등의 各 비행장을 반복하여 폭격하고 中東部 戰線의 軍用建物을 破壞하였다.

이와 같이 休戰會談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攻防戰은 계속 되었고 敵의 勢力을 弱化시키는데 절대적인 힘이 되는 空軍力을 強化하기 위하여, 極東空軍 司令官 Otto P. Weyland 중장은 美 空軍本部에 要請하기를 『이미 韓國에 派遣中인 5個 戰爆擊大隊 外에도 5個 大隊가 더욱 必要하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美 공군참모총장 Vandenberg 대장은 대답하되 『最近에 이미 997명의 증강 兵力이 極東空軍에 充員되었으며, 이 兵力은 在來의 戰時 7個 大隊編成에 相當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7월 13일 : UN空軍의 B-26夜間 폭격기들은 黃州—順川—新安州 등의 敵 비행장을 前後 2次에 걸쳐 爆擊하였다.

7월 14일 : UN空軍은 惡天候로 말미암아 그 活動의 制限을 받았으나, 敵의 補給路와 輸送 시설에 대한 폭격을 敢行하였고 또 이날 UN空軍의 F-80 Jet 전폭기 1臺가 敵의 對空砲火로 墜落하였다.

7월 15일 : 이날 비 바람이 심하게 몰아치는 惡天候를 무릅쓰고 UN空軍에서는 B-26夜間 爆擊機들을 出擊케하여 沙里院—黃州—順安의 비행장을 爆擊토록 하였으며 또 新安州에 있는 補給品 集積所를 爆破케 하였다.

極東空軍 司令部에서는 심한 비가 계속 내리는 7일間에 3,600回 以上에 達하는 出擊으로 敵의 MIG-15 Jet 전투기 7臺를 포함하여 도합 9臺를 擊墜하고 2臺를 半破하였는데 UN空軍에서는 F-80 Jet 전투 폭격기 2臺와 다른 2臺가 被擊되는 損失이 있었다.

7월 16일 : 美 제5공군의 전투폭격기들은 敵의 補給路에 對하여, 集中爆擊을 加함으로써 前線으로 投入되는 補給品을 半減케 하였다.

또한 夜間에는 開城 부근의 敵 戰略要地를 爆擊하는 한편 北韓內의 各 비행장과 敵兵力 集結地 및 補給中心地에 Radar를 使用하여 大大的인 爆擊을 敢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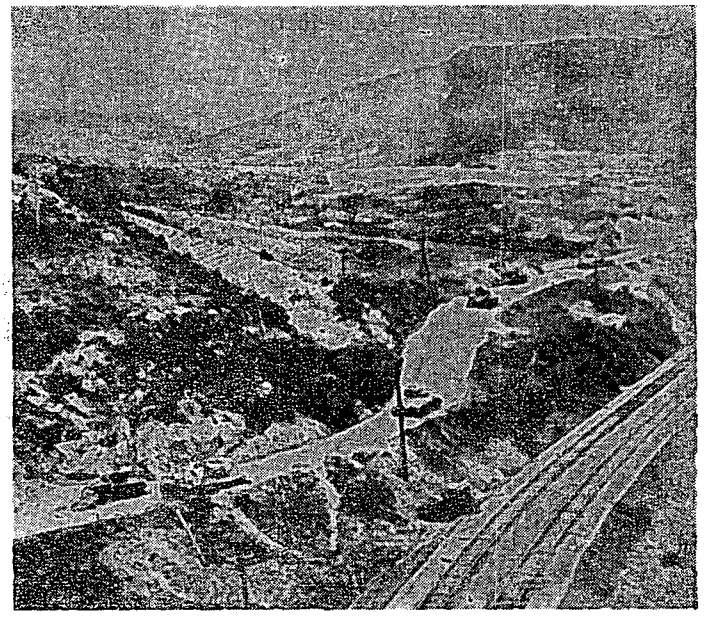
7월 17일 : 極東空軍은 遮斷 作戰을 비롯하여 근접지원에 도합 800回에 達하는 出擊을 記錄하였는데 이 중 夜間에만도 118回에 達하는 出擊으로 新幕—沙里院—黃州—順安 등 비행장을 폭격하고, 또한 前線으로 移動하는 軍트럭 부대를 捕捉하자 곧 이를 强打함으로써 삽시간에 불 바다를 만들었다.

7월 18일 : UN空軍의 B-26夜間 爆擊機들은 108回의 出擊으로 兼二浦의 補給中心地를

爆擊하였으며, 沙里院 비행장 등 敵의 주요 비행장을 空襲하여 이로 말미암아 敵機에 불이 붙고 폭음과 함께 불길은 하늘로 치솟아 滑走路의 여러 곳을 大破하였다.

7월 19일 : 이날 極東空軍에서는 惡天候를 무릅쓰고 470回에 걸쳐 出擊하여, 敵의 補給品 集積所를 爆擊하였으며, 補給品 集積所와 연결된 橋梁들을 大破하였다.

7월 20일 : UN空軍은 이날 降雨와 低雲으로 活動에 많은 制限을 받았으나, 夜間에 沙里院과 黃州비행장을 폭격하는 한편 B-29 重爆擊機는 長津湖와 赴戰湖를 中心으로 하는 高原의 鐵道 시설과 咸興의 補給中心地 등에 Radar를 使用하여 多量의 폭탄과 Napalm彈을 集中 投下하였다.



<UN전폭기에 의해 파괴된 敵의 戰車>

極東空軍에서는 14일부터 20일까지 도합 2,377回에 達하는 出擊을 敢行하여, 敵의 軍用 건물 1,100棟과 軍트럭 772臺를 焚燒하고 橋梁 32個所와 砲陣地 62個所를 폭파하였으며 아울러 戰車 6臺와 鐵道車輛 189輛을 大破하였다.

7월 21일 : 심한 降雨로 이날의 各 戰線은 大體로 平穩하였으며, UN空軍의 活動도 몇 차례의 근접지원을 하였을 뿐이었다.

7월 22일 : 極東空軍 폭격 司令部의 B-29 重爆擊機들은 沙里院과 黃州의 비행장에 2,000ton 以上에 達하는 폭탄을 投下하여 이들 비행장을 焰煙으로 휘 감아 놓았다.

7월 23일 : UN空軍의 夜間 전폭기들은 黃州—永柔 兩 비행장을 爆擊하고 載寧—安州 등의 敵 補給品 集積所를 強打하고 敵에게 많은 損失을 주었다.

7월 24일 : 極東空軍의 B-29 重爆擊機와 美 제5공군의 Jet 전투 爆擊機들은 平壤周邊의 集結地와 補給品 集積所를 強打하였으며, 沙里院 비행장에 폭탄을 集中投下하여, 滑走路 여러곳을 破壞하였다.

7월 25일 : 이날 UN空軍의 B-29 重爆擊機 編隊들은 平壤—鎭南浦—新安州 등의 操車場을 強打하였다.

이 당시에 敵은 極東空軍機와 美 제5空軍機들이 滿洲 領空을 侵犯하였다고 非難하였으나 極東空軍 司令部에서는 이를 正式으로 否認하였다.

그러나 美 제5공군에서는 UN空軍의 모든 전폭기들이 敵의 領空을 進入 할 때에 좀 더 정확한 識別을 위하여 2個의 空中回廊(Air Corrider)을 設定하고, 비행 狀況을 報告토록 하였는데, 南韓을 4個 空中防衛區域으로 나누어 全般的인 統制와 地域 統制(Local Control)는 戰術空軍 統制본부에서 兼任하였다.

그리고 北部의 3個 區域은 제5C2전대의 전술 공군 統制本部에서 관장토록 하였으며, 南部區域은 美 海兵 제1비행단의 兵力으로 補充될 戰術空軍 統制本部에서 관장토록 하였다.

7월 26일 : UN空軍의 전투 폭격기들은 江東—平壤—順川—元山 비행장을 強打하였으며 敵의 高射砲 陣地 8個所를 폭파하였다.

뿐만 아니라, 夜間에 元山—平壤 附近에서 트럭轉進部隊를 捕捉하자 즉시 猛爆擊을 加하여 大破하고, 또 제98전투폭격비행단의 B-29 重爆擊機 11台는 29,000ft 上空에서 平壤操車場에 폭탄을 集中 投下하여, 完破하였다.

7월 27일 : 極東空軍의 폭격 司令部의 B-29 重爆擊機와 B-26 夜間 폭격기들은 敵의 機動路를 따라 南下中인 軍트럭轉進部隊에 폭탄과 Napalm彈을 投下하여 擊破하고 嶺美洞과 陽德의 補給所를 大破하였다.

7월 28일 : 極東空軍의 폭격 司令部에서는 敵의 機動路를 따라, 前線으로 南下中인 트럭轉進部隊를 捕捉하자 곧 이를 強打하니, 敵의 트럭들은 불에 휩싸여 溪谷으로 굴러 떨어져 山河에서 솟아 오르는 연기가 그치지 않았다.

또한 B-26 夜間 폭격기들은 敵의 集結地에 폭탄과 Napalm彈을 投下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삽시간에 目標物들이 焰煙으로 휩싸였고 溪谷으로 흩어져 敗走하는 敵部隊를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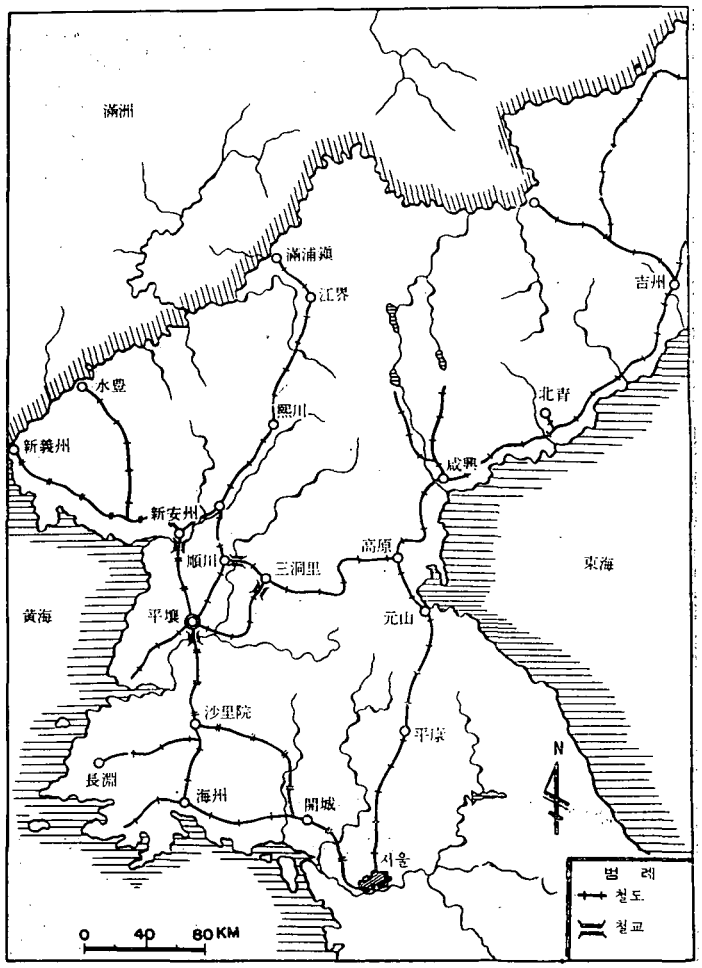
이어 B-26 輕爆擊機들은 계속 低空 비행으로 이들 地上軍을 強打하였다.

7월 29일 : 極東空軍의 B-29 重爆擊機들은 敵의 補給品 集積所를 爆擊하여 하루 종일 검은 연기가 솟아 오르도록 하였으며, 夜間 폭격기들은 平壤과 元山 등의 機動路를 따라 前線으로 南下中인 敵의 軍트럭 轉進部隊에 對하여, 急降下와 超低空으로 多量의 폭탄과 Napalm彈을 集中, 全破하였다.

7월 30일 : UN空軍은 B-26 輕爆擊機와 B-29 重爆擊機로 平壤을 目標로 出擊케하여 大補給品集積所를 猛打하였다.

또한 夜間爆機는 Radar를 利用하여 咸南一鎭南浦一兼二浦 등의 補給基地를 폭격하였는데 目標 上空에 큰 불 기둥이 솟아 오른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 戰果가 컸음을 推斷케 하였다.

◇ 상황도 제19호 極東空軍의 鐵道遮斷地域



한편 B-29 重爆擊機들은 沙里院一黃州一平壤一興南 등의 비행장을 두 차례에 걸쳐 強襲하여 이들 비행장의 기능을 마비케 하였다.

7월 31일 : 極東空軍은 이날 北韓內에 있는 주요 機動路와 補給路, 特히 橋梁과 鐵橋 등을 目標로 B-29 重爆擊機와 F-51(Mustang) 戰鬪爆擊機를 同時에 出擊시켜 大大的인 遮斷 작전을 敢行하여, 곳곳에 검은 연기와 불길을 치솟게 하였으며, 특히 平康의 敵 補給品 集積所를 완전히 灰燼케 하였다.

또한 夜間 爆擊機들은 30일에 이어 平壤의 補給品集積所를 두 차례에 걸쳐 強打하였다.

UN空軍의 綜合戰果

MIG機 全破 또는 半破——11臺　機關車——11輛　비행장 全破——18個所
野砲陣地——18個所　鐵道車輛——750輛　補給品 集積所 폭파——45個所
橋梁——171個所　戰車——6臺　軍트럭——3,637臺　軍用建物 全燒——5,800棟

第 45 章

夏季 攻防戰

要 旨

1. 寒溪里—瑞和里地區 戰鬪
2. 軍糧峴附近 戰鬪
   (一名, 磨石峰—757高地 戰鬪)
3. 鷲峯附近 戰鬪
4. 寶蓋山—高臺山地區 戰鬪
5. 九化里—開城附近 戰鬪
6. 734高地 攻防戰
7. 第1次 蘆田坪地區 戰鬪
8. 924高地 戰鬪
9. 884高地 戰鬪
10. 第2次 蘆田坪地區 戰鬪
11. 피의 稜線 戰鬪
   (一名, 杜密嶺地區 戰鬪)
12. 松峴里—松亭洞附近 戰鬪
   (一名, 楊口北方 登梅里—松峴里地區 戰鬪)
13. 石柱院里 附近 搜索戰
14. 海兵隊의 兜率山地區 戰鬪
15. 海兵隊의 924高地 및 1,026高地 戰鬪
16. 美 제9군단의 華川—金化 進擊戰
17. 海軍의 活動
18. UN海軍의 活動
19. 空軍의 單獨作戰 準備와 智異山地區의 第1次 支援作戰
20. UN空軍의 活動

第45章 夏季 攻防戰

要 旨

本章에서는 所謂 敵의 「5월攻勢」를 擊碎한 다음, Kansas—Wyoming線으로 逆擊케 되는 6월 初부터 休戰會談의 擧論으로 말미암아 戰線이 膠着된 가운데 高地爭奪戰으로 移行되는 8월 末까지의 戰況을 網羅하였다.

6월 初의 時點에서 戰線을 一瞥하면, 東部戰線의 제1군단은 벌써 그 先鋒인 首都사단 기갑연대로써 杆城을 奪還한데 이어 6월에 접어들면서는 西進하여 새로운 Kansas線을 確保하였다. 그리고 中東部의 美 제10군단은 元通—楊口線에서 攻擊을 再開하여 中旬에 제1군단과 連繫하여 새로운 Kansas線을 確保한 다음, 亥乞盆地(Punch bowl)를 中心으로 防禦據點을 形成한 敵과 對峙한 채, 威力搜索을 계속하였다. 한편 中西部의 美제9군단은 5월 末에 Kansas線을 이미 占領하고, 그 前進陣地를 確保키 위하여, Wyoming線을 거쳐 Ermine線으로 進擊하였다. 이때 西部의 美제1군단 역시 5월 末에 Kansas線을 占領하고 中旬에 鐵의 三角地 底邊에 이르러 搜索戰을 펴게 되었다.

이때부터 美國의 不擴戰主義에 立脚한 政戰兩略上의 制限으로 말미암아 戰線이 Kansas—Wyoming線에서 固着化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제8군은 現戰線에서 砲兵火力圈內에 前進陣地를 確保하고 威力搜索을 敢行케 하는 한편, 各군단에 勞務사단을 配屬하여 Kansas線上에 강력한 陣地工事를 實施토록 하였다.

이 무렵인 6월23일에 蘇聯의 UN代表 Malik가 休戰을 提議함으로써, 戰況은 더욱 小康狀態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我軍은 豫備工事만 실시하였던 Wyoming 線에도 Kansas線과 同一한 陣地工事를 실시하였으니, 이로써 Kansas線을 保護하는데 目的을 두었던 Wyoming線이 主抵抗線으로 看做되는 戰略概念의 變更을 가져 오게 되었다.

이때 敵도 또한 戰況의 沈滯에 便乘하여 補給裝備 및 兵力을 補充하는 한편, 陣地의 築城工事에 狂奔하였는데, 그들은 兩次 春季攻勢에서의 敗戰經驗을 土臺로 對砲兵線와 據點防禦陣地에 重點을 두었던 것으로 判斷되었다.

이리하여 戰線이 膠着 된채로 커다란 激戰없이 彼我의 陣地工事가 一段落되었을 무렵인 7월 中旬에 접어들자, UN군사령부는 長期間에 걸친 戰況의 沈滯로 因하여 低下된 將兵들의 士氣를 振作시킴과 同時에 敵의 防禦能力을 試驗하여 계속적인 衝擊으로 敵의 攻勢企圖를 粉碎한다는 戰略的인 目的아래 제8군으로 하여금 主抵抗線 前方의 瞰制點을 奪取키 위한 制限攻擊으로 移行토록 하였으니, 여기에는 軍事的인 壓力을 加함으로써 敵에게 休戰會談의 早期妥結을 強要한다는 政略的인 意圖가 內包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로부터, 敵側의 作爲的인 不誠實로 말미암아 會談도 遲遲不振하게 되고, 戰況도 踏步狀態만 거듭하게 되어, 西部戰線이 臨津江南岸에서 釘着된 가운데 中東部 山岳地帶와 金城一帶에서는 流血로 點綴되는 高地爭奪戰이 本格化되는 것이다.

1. 寒溪里—瑞和里地區 戰鬪 (1951년 6월 3일부터 1951년 6월 17일까지)

(一名, 麟蹄—明塘山—松巨里 戰鬪)

참조 별책부도 제18, 19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제5사단	장 준장	閔 機 植
제27연대	장 대령	兪 義 濬
제1대대	장 소령	李 南 周
제2대대	장 소령	成 泳 煥
제3대대	장 소령	朴 元 寬
	대위	金 椿 集
		(51. 6. 15附)
제35연대	장 대령	高 白 圭
제1대대	장 소령	金 順 喆
제2대대	장 소령	金 沼
제3대대	장 소령	李 昌 得
제36연대	장(대리) 중령	李 承 雨
	대령	黃 燁
		(51. 6. 15附)
제1대대	장 대위	孫 介 同
제2대대	장 중령	趙 始 衡

제3대대	장 소령 李 圭 昇
배속부대	
제26포병대대	장 소령 洪 昌 杓
제5야전공병대대	장 소령 洪 錫 疇
지원부대	
美 제1해병사단 포병단	
인접부대	
右隣接부대 수도사단	장 준장 宋 堯 讚
左隣接부대 美제1해병사단	장 소장 Gerald C. Thomas
병력 : 장교	T/O의 92%
사병	T/O의 93%
장비 : 총포	T/E의 82%
차량	T/E의 69%

敵 軍

北共 제2군단	장 중장	崔 賢
제2사단	장 소장	李 喆 用

제4연대
제6연대

제17연대		제32연대	
제13사단	정 소장 鄭 炳 甲	병력 : 12.900	
제19연대		장비 : 122mm 軍團砲	2門
제21연대		105mm 榴彈砲	9門
제23연대		76mm 榴彈砲	12門
제27사단	장 소장 조 관	82mm 追擊砲	6門(각연대)
제 7 연대		HMG	12挺(각연대)
제14연대		LMG	24挺(각연대)

나. 전투전의 개황

敵軍의 狀況 : 北共과 中共의 攻擊集團은 主攻을 東部, 助攻을 西部에 指向하고 5월 16일을 期하여 全戰線에 걸쳐 攻勢를 取하였는데 美 제10군단 右翼正面에 대한 力攻으로 蘇里부근에서 退路를 遮斷하고 18일에는 제3군단에 대한 包圍圈을 壓縮한 다음, 20일에는 下珍富里 부근까지 侵攻하여 한때는 그 氣勢가 자못 騰騰 하였으나 江陵과 洪川의 兩肩部를 확보하면서 隋行한 我軍의 反擊으로 말미암아 23일부터 그 銳氣가 急速히 鈍化되어 北共 제2군단의 掩護밑에 崩退하기에 이르렀다.

北共 제2군단은 主攻인 北共 제3, 제5군단을 後續하여 我軍의 側後方 깊숙히 파고들어 挾擊과 攪亂을 企圖한듯 하였으나 主攻集團의 撤退와 熾烈한 砲兵火力을 隨伴하는 我軍의 反擊으로 後方侵透를 抛棄한채로 제3, 제5 兩군단의 收容에 汲汲한 것으로 判斷되었다. 군단은 그 CP를 豊田洞에 두고 隷下 제13사단을 東翼, 제2사단을 西翼으로 展開하여 我 제1군단(장 白善燁소장)과 美 제10군단(장, Edward M. Almond 중장)의 進擊을 막아보려고 하였으나 我 제1군단의 強打로 杆城을 奪還당하고 Kansas線을 喪失하게 되자 군단 CP를 加田里로 撤退하는 한편 그 主據點을 我 제5사단(장 閔機植 준장)이 담당하게 된 香爐峯山脈 西쪽 一帶에 두고 제46, 제453번 兩作戰路를 遮斷하면서 그들이 苦待하는 제7군단이 南下할 때까지 持久戰을 試圖코자 하는 것으로 推斷되었다.

敵은 제13사단의 제23연대가 △835(瑞和里 東쪽 5 5km)—蓮花里—△630—山頭谷山 一帶에 據點을 確保하면서 이미 Kansas線으로 進擊한 제1군단(장 白善燁소장)으로부터의 東側背에 대한 威脅을 排除코자 하는 한편 一部兵力으로 △1,122(龍垈一里 北쪽 4km)에 前進陣地를 마련한 것으로 推斷되었다. 한편 제2사단의 제17연대는 △962(論章里 東南쪽 4.5km)에 前進陣地를, 그리고 △1,246(龍垈里 西北쪽 3km)—△994(△1,246 西南쪽 2km) —△1,122(瑞和里 東南쪽 5km)에 主抵抗線을 形成하였으며 제4연대는 제46, 제453번 作戰路를 同時에 瞰制할 수 있는 要衝인 明塘山(△765) 一帶를 確保하고 그 砲兵의 火力支援이 이곳으로 集中된 것으로 미루어보아 여기를 끝까지 固守하고자 重點을 指向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제6연대는 豊田洞一帶를 占領하고 明塘山(△765) 西側背를 掩護하면서 제453번 作戰路를 遮斷하여 美 機甲部隊의 突破와 美 제1해병사단의 右一線인 제5해병연대(장, Richard W-Hayward 대령)의 進擊을 阻止할 것으로 判斷되었다.

또 北共 제13사단의 제19연대는 香爐峯一山頭谷山 一帶를 占據하고 수도사단 기갑연대(장, 李 龍 대령)와 對峙하여 反擊을 試圖하였으며 그 제21연대는 사단예비로서 六谷里에 位置하고 군단 예비인 제27사단은 군단CP의 撤退에 따라 加田里附近으로 北上한 것으로 推斷되었다.

我軍의 狀況 : 제 5 사단은 美 제10군단作指 제169호에 의거한 사단作命 제41호(51.5.6.18.00)에 따라 51.5.7.08.00를 期하여 제36연대(장 金旦先 중령) 陣地를 超越공격하는 제35연대(장, 高白圭 대령)를 先攻梯隊로 Missouri 線을 目標로 進擊한 다음, 美 제10군단(장, Edward M. Almond 중장)의 右中間사단으로서 제27연대(장, 俞義濬대령)를 右一線, 제35연대(장, 高白圭대령)를 左一線으로 展開하여 俗稱보래골(於論里 西北쪽 6km)—△509(於論里 西北쪽 5.5km)—俗稱 무학골—鷹峯에 이르는 一帶를 占領하였다. 각 연대는 중대규모의 搜索隊를 昭陽江南岸으로 推進시켜 威力搜索을 계속하였으나 輕微한 接觸만을 되풀이하는 小康狀態를 維持 하였는데 이때에 사단正面과 右隣接인 제7사단(장, 金炯一준장) 正面에 集結한 中共 제12, 제27군 隸下 3개사단규모의 敵은 5.16.18.00를 期하여 그들의 所謂 제2차 春季攻勢를 敢行하기에 이르렀다.

사단은 1개연대 규모의 敵이 昭陽江을 건너 下水內里를 거쳐 南侵하는 것을 맞아 激戰을 계속하였으나 右隣接인 제7사단 主陣地를 突破한 敵이 제44번 作戰路를 따라 사단後方으로 殺到하는 한편 上水內里一玉山洞溪谷을 거쳐 사단 東側背를 直衝하여 被包圍態勢에 陷入함으로써 군단計劃에 의거한 사단장 閔機植준장의 口頭명령으로 이날 20.00를 期하여 Green線으로 隨意撤收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사단예비대인 제36연대主力(제3대대는 美 제2사단에 배속중)은 △1076(掛石里二區 西北쪽1km)로 緊急出動하여 敵의 突破와 分斷을 阻止하면서 제27, 제35 兩연대의 隨意撤收를 掩護하였다.

17일20.00에 제35연대(장 高白圭 대령)는 水下里一瓦野里 一帶를, 제27연대(장 俞義濬 대령)는 △879—632(瑞谷里 北쪽 5km)를 각각 占領하고, 사단主力을 掩護한 제36연대는 △560(掛石一里 西北쪽)로 逐次轉進하여 敵의 계속적인 侵襲을 阻止하였다. 그러나 18 03.00를 期하여 1개연대규모의 中共軍이 俗稱 영와대(瑞谷里 北쪽 4km)로 潛侵하여 사단 後方을 遮斷하면서 包圍挾擊하므로 사단은 또다시 分散된 채로 육본 作戰計劃 제24호(51.4.29, 12.00)에 의거한 Waco線으로 撤收를 斷行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군단예비로 控置된 사단은 20일에 사단CP가 下安興里(橫城郡 安興)로 轉進하고 다음날에는 제27연대(장, 俞義濬대령)가 下安興里로, 제35, 제36 兩연대가 市場垈(橫城 屯方內里 南쪽)로 각각 轉進한 다음 再編成에 着手하였다.

5월 24일에 제35연대(장, 대리 許亨澤중령)는 美 제2사단(장, Clark L. Ruffner 소장)에 배속되어 豊岩里로 進出하고 26일에는 사단主力도 美 제2사단에 배속됨으로써 사단은 道寬里로 躍進하기에 이르렀다.

이무렵 美 제10군단은 5월 23일을 期하여 美 제3, 제2사단이 東北方으로 反擊을 開始하여 제1군단(장 白善燁 소장)과의 協同으로 潰退하는 敵을 挾擊하고 美 제187공수연대전투단(장, Frank S. Bowen 준장)은 美제72전차 대대와의 協同으로 洪川—麟蹄를 連하는 作戰路를 따라 敵線을 突破하여 24일에는 昭陽江北岸에 橋頭堡를 編成하고 27일에 麟蹄을 奪還하였다. 한편 군단 右翼인 美 제1해병사단(장, Gerald C Thomas 소장)은 24일에 反擊을 開始하여 26일에 楊口 南쪽의 昭陽江岸으로 進擊 하였으며,

美 제187공수연대를 後續한 美 제2사단은 戰果를 擴大하면서 麟蹄 南쪽으로 突進하였다.

이때 군단장 Almond 중장은 美 제8군사령관 Van Fleet중장의 명령에 따라 麟蹄를 奪還한 美 제187공수연대와 美 제72전차대대로 하여금 京杆道路를 따라 杆城으로 계속 突進케하여 敵의 退路를 遮斷토록 하고 제1군단(장, 白善燁 소장)과의 挾擊으로 潰退하는 北共 제3군단을 捕捉擊滅코자 杆城으로의 急進을 명령하였으나, 수도사단 기갑연대(장, 李 龍 대령)가 5 29.09.30에 이미 杆城을 奪還함으로써 이 계획은 白紙化되었다.

이와같이 中東部戰線에서의 反擊이 順調로운 進捗을 보이자 Van Fleet 중장은 敵의 所謂 제 2 차 春季攻擊에 對應하기 위하여 美 제10군단을 增援한 美 제3사단(장, Robert H. Soule소장)과 제9사단(장, 崔 錫 준장)을 美 제1군단(장, Frank W. Milburn 중장)으로 배속을 변경시키는 동시에 議政府로 轉進토록 명령하고 제1군단(장, 白善燁소장)과 美 제10군단(장, Edward M. Almond 중장)의 戰鬪 地境線을 調整하여 美 제10군단의 Kansas線 進擊을 督勵하였다.

이리하여 Almond 중장은 제8사단(장, 崔榮喜준장)으로 하여금 美 제3사단과 제9사단의 作戰任務를 引受케 하고 美 제2사단(장, Clark L. Ruffner 소장)으로 하여금 美제1해병사단에 戰線을 引繼하는 即時로 군단예비로 控置토록 하는 한편 제5사단(장, 閔機植 준장)을 美 제2사단배속에서 해제하고 군단 右翼을 담당케 하였으며 군단예비로서 再編成중인 제7사단(장, 金容培 준장)을 군단左翼으로 投入하여 이미 華川貯水池에 연한 Kansas 線으로 進擊한 美제1해병사단(장, Gerald C. Thomas 소장)의 陣地를 引受케 함으로써 군단은 새로운 Kansas線進擊을 위한 戰列을 가다듬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美제2사단의 右翼으로서 內麟川 北岸으로 進擊한 제5사단은 사단作命 제44호(51 6.1.19.00 0)에 따라 6.2.06.00를 期하여 제36연대(장, 李承雨 중령)를 右一線, 제27연대(장, 俞義濬대령)를 左一線으로 展開하여 △873(加里山부근)—寒石山(△1,119)과 △779—△748—△834 一帶의 敗殘兵을 擊滅하면서 進擊을 재촉하게 되고 사단CP는 俗稱 검우석(縣里 西北쪽 8km)에서 古沙里로 躍進하였다.

다음날 제36, 제35연대는 寒溪里(麟蹄 東北쪽 12km), 그리고 제27연대는 冠坪(麟蹄 東北쪽 10km)으로 각각 進擊한 다음 美 제2사단으로부터의 配屬解除와 同時에 사단作命 제45호(51.6.3.19 00)에 의거하여 6.4.08.00를 期해서 새로운 Kansas線을 目標로 進擊을 開始하기에 이르렀다.

사단이 담당한 戰鬪地域은 右로는 山頭谷山—連花里—龍岱里를, 左로는 加田里—論章里—元通六里를 각각 南北으로 連한 地域이며 後方地境線은 元通—襄陽에 이르는 제46번 作戰路로서 右側은 이미 Kansas線으로 進擊한 다음 杆城—Kansas線—군단戰鬪地境을 따라 西斜面陣地를 編成完了한 제 1 군단의 수도사단(장 宋堯讚 준장)이 그리고 左側은 美 제 1 해병사단(장, Gerald C Thomas소장)이 각각 담당하였다.

사단正面은 香爐峰山脈의 西側으로서 右側의 제465번 作戰路와 左側의 제453번 作戰路로 서로 斷絶되나 700m—1200m의 山嶺이 聳立하고 斷崖와 狹谷을 이룬 連峯峻嶺으로 敵에게는 中東部地域에서의 主要接近路인 제453번 作戰路의 확보와 戰術的 要衝인 麟蹄一帶의 攻略을 위하여 重要한 地域이었으며 地形的條件과 마침 茂盛期에 접어든 樹林은 敵의 遲延戰에 有利할 것이다.

제46, 제453번 作戰路를 除外한 地域에서의 車輛과 機甲部隊의 機動에 支障이 컸음은 勿論이려니와 步兵部隊의 공격과 推進補給에도 어려움을 줄것이며 觀測과 視界마저 制限되어 다만 近接戰에 局

限되는 戰法만이 強要될 것이 分明하였다.

掩蔽와 逆蔽는 彼我 서로 良好하나 防者인 敵에게 더욱 有利하였을 것이며 이러한 地形條件은 敵의 逐次的인 據點形成에 큰 도움을 줌으로써 高地에서의 爭奪戰이 熾烈할 것이다.

期間中 比較的 맑은 날씨가 계속될것이나 高山地帶의 짙은 안개는 企圖의 秘匿에 도움을 주는 反面에 敵에게 逆襲의 機會를 줄 것이며 航空과 砲兵支援에 미치는 影響이 클 것으로 判斷되었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敵의 所謂 제2차 春季攻勢를 擊破함으로써 UN軍과 韓國軍의 反擊作戰이 順調로운 進展을 보이고 있을 무렵에 美 제8군사령관 Van Fleet 중장이 構想한 戰略槪念은

① UN參戰國 大多數의 北進反對

② 美行政府의 政策上의 牽制

㉮ 新生 中共政權의 自體面子를 爲한 無限定 增援으로 招來될 持久戰으로서의 膠着化

㉯ 蘇聯介入으로 因한 제3차 世界大戰의 誘發

③ 戰略的 制限

㉮ 北進으로 因하여 敵의 兵站線이 短縮되는 反面에 我軍側의 兵站線의 延伸

㉯ 收復地區의 破壞된 道路 및 橋梁의 復舊와 이에 隨伴되는 民事業務의 過重한 負擔

㉰ 敵을 包圍殲滅하기 爲한 兵力의 不足

㉱ 最少限 100,000名에 達하는 人的損失

等의 制限要素로 因하여 鴨綠江線으로의 北進을 留保하고 38°線 北쪽의 가장 가까운 險制高地에 防禦線을 設定하고 그곳에서 UN軍과 韓國軍에 最少限의 危險을 주고 敵에게 最大限의 損失을 주기 위하여 制限된 前進을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Van Fleet 중장은 將次 있을수 있는 休戰에서 緩衝地帶의 設定을 위하여 彼我間에 서로 16km(10miles)씩을 撤收할 境遇를 豫想하여 6월로 접어들면서 Ridgway UN군 총사령관의 承認을 받아 中東部戰線에서는 旣設 Kansas線을 6~15km 北上시키는 同時에 敵의 攻勢移轉을 위한 主要據點으로 判斷되는 Punch bowl(亥安盆地)을 비롯한 主要地域의 險制를 위하여 美 제10군단 正面에 捜索限界線으로서 Badger線(俗稱소라지一水

於口：北漢江)를 새로이 設定하고, 西部戰線에서는 이미 設定한 Wyoming線으로 進擊하여 Kansas線을 保證하면서 亦是 敵의 攻勢를 위한 基地인 鐵의 三角地帶를 瞰制케 하고, 中部戰線의 美 제9군단 正面에서는 戰術的 補完을 위하여 Ermine線을 設定하여 白岩山一赤根山을 확보코자 하였다. 이리하여 그는 이미 Kansas線으로 進擊한 美 제1군단을 Wyoming線을 向하여 계속 進擊토록 하는 한편 美 제9군단은 Wyoming線을 거쳐 Ermine 線으로, 그리고 美 제10군단은 새로운 Kansas線을 急速히 確保하도록 指導하였다.

이에 美 제10군단장 Almond 중장은 이미 寒溪里一冠坪 線으로 進擊한 山岳戰의 精銳인 제5사단(장 閔機植 준장)을 主軸으로 하여, 敵의 收容兵團으로 보이는 北共 제2군단主力이 抵抗線을 設定하고 持久牽制를 策하고자 하는 香爐峯山脈 西側 連脈一帶의 敵을 擊破하고 Kansas線(山頭谷山一△981一俗稱 개고개一後德里)으로 進擊케 하는 한편, 美 제2사단의 陣地를 引受한 美 제1해병사단을 後德里一1,304(深積里 北쪽 4km)一支石里一華川貯水池에 이르는 23km의 廣正面의 Kansas線 地域으로 進擊케 하는 동시에, 공격의 進展에 따라 군단 左翼인 제7사단(장 金容培 준장)을 華川貯水池 東側方으로 迂回 공격케 한 다음 楊口 西北쪽으로 進擊케 하여 Badger 線부근에 捜索據點을 확보케 하기로 決心한 결과 要旨 다음과 같은 군단 作指 제195호를 下達하였다.

『① 韓 제5사단은 D日 H時를 期하여 地境內의 敵을 擊滅하고 早速한 時日內에 Kansas線(山頭谷山一△981一俗稱개고개一後德里)으로 進擊하여 이를 확보하라.

② 攻擊間 要請에 따라 美 제1해병사단의 155mm 포병대대의 一般支援과 美 제5空軍의 航空支援을 받을수 있다.』

이에 따라 사단장 閔機植준장은 敵情과 地形을 評價分析한 다음, 寒溪里로 進出한 제36연대(장 李承雨 중령)를 右一線으로 하여 北共 제13사단 제23연대와 제2사단 제17연대 主力이 據點을 形成한 △1,122(龍岱一里 北쪽 4km)一△1,246(龍岱一里 西北쪽 3km)과 △1122(瑞和里 東南쪽 5km)一△835(瑞和里 東쪽 5km)一連花里 一帶를 逐次로 奪取하고 山頭谷山一△981(瑞和里 東北쪽 4km)를 連한 Kansas線으로 急速進擊케 한 다음 제1군단(장 白善燁 소장)隷下의 수도사단(장, 宋堯讚 준장)과 連繫키로 하였다. 또 冠坪으로 進擊한 제27연대(장 兪義濬대령)를 사단 左一線으로 하여 北共 제2사단 제4연대主力이 主據點을 形成하고 砲兵火力의 集中으로 固守를 企圖하는 明塘山(△765)一俗稱 피양골一瑞和里를 逐次로 奪取하여 Kansas線인 △981一俗稱 개고개一後德里로 進擊케 하되, 제453번 作

戰路를 瞰制할 수 있는 沿線의 高地群으로 進擊하는 연대에 主攻을 두고 火力의 優先權을 賦與하기로 決心하였다. 이리하여 6.3 19.00에 要旨 다음과 같은 사단作令 제45호를 下達하였다.

『① 사단은 51 6 4 08 00를 期하여 攻擊을 開行한 다음 Kansas線을 目標로 一擧에 進擊하려 한다.

② 제36연대대는 공격目標 ③ (△1,122—△1,246) ④ (△1,122—△835—連花里)를 奪還하고 Kansas線으로 進擊하라.

③ 제27연대는 明塘山(△765)을 奪還한 다음, 目標 ① (俗稱 피양골—帶高地群) ② (瑞和里—帶高地群)을 逐次로 奪還하고 Kansas線으로 進擊하라.

④ 제35연대는 寒溪里에 集結하여 사단예비로서 다음 명령을 받으라.

⑤ 제26포병대대는 51.6.3.24.00까지 冠坪으로 躍進하여 사단을 一般支援하라. 但 火力의 優先權은 제27연대에 賦與하라.

⑥ 제5야전공병대는 51.6.3.24.00까지 西湖洞(元通里 南쪽)으로 移動한 다음 俗稱성황곡(寒溪里 東北쪽 5km)에 이르는 제46번 作戰路를 補修확보 하라.

⑦ 대전차공격대대는 51.6.3.24.00까지 元通으로 移動한 다음, 차후 指示를 받으라.

⑧ 사단 指揮所는 51 6.3.24.00 以後 松巨里에 位置한다.』

(2) 작전실시

6월 4일 : 이날 사단은 제36연대(장, 李承雨 중령)을 右一線으로, 제27연대(장, 兪義濬대령)를 左一線으로 하여 08.00부터 一齊히 공격을 開始하였는데, 제36연대는 輕微한 敵의 抵抗을 擊破하고 △1,122(龍垈一里北쪽 4km)—無名高地(△1,246 北쪽 2km)로 進擊하였으며 제27연대는 敵의 主據點인 明塘山(△765)을 激戰끝에 奪還하였으나 △753를 공격한 제2대대(장, 成泳煥소령)의 戰況이 膠着되었다.

사단은 이날 CP를 古沙里에서 松巨里로 躍進 開設하였다.

1 제36연대장 李承雨중령은 이날 사단 作命 제45호(51.6 3.19 00)에 따라 Kansas線으로 進擊하기에 앞서 敵情과 地形을 檢討한 다음, 要旨 다음과 같은 연대作命 제28호를 示達하였다.

『① 제3대대는 연대右一線으로서 目標 A(△837)—B(△1,122)—C(△835)를 각각 奪取한 다음 Kansas線으로 進擊하라.

② 제2대대는 연대 左一線으로서 目標 1(△1,246)—2(無名△)—3(△1,122)을 각각 奪取

하고 Kansas線으로 進擊하라.

③ 제1대대는 연대예비로서 다음 명령을 待機하라.

④ 제23포병대대는 공격間 연대를 一般支援할 것이다.

⑤ D日 H時는 51.6.4. 08 00이다.

⑥ 연대指揮所는 寒溪里에 位置한다.』

이에 따라 07.00에 연대集結地인 寒溪里(麟蹄 東北쪽 12km)에서 機動을 시작한 제3, 제2兩대대는 제26포병대대(장, 洪昌杓소령)의 攻擊準備射擊의 延伸과 同時에 08 00를 期하여 공격개시線인 제46번 作戰路에서 一齊히 躍進하였다. 右一線인 제3대대(장, 李圭昇 소령)는 散發的인 敵의 抵抗을 一蹴하고 13.30에 目標 A(△837)를 占領한 다음 계속하여 1개중대 규모의 敵(北共제13사단 제23연대소속)을 擊退하고 目標 B地域인 △1,122(龍垈一里 北쪽 4km)를 奪還확보하였다. 또 左一線인 제2대대(장, 趙始衡중령)는 16.30에 接敵없이 目標 1 地域인 △1,246(龍垈一里 西北쪽 3km)를 占有한 다음 目標 2地域인 無名高地(△1,246 北쪽 2km)를 계속 掌握하여 俗稱응골(論章里 東北쪽 4km)溪谷을 瞰制하였다.

연대장 李承雨중령은 激戰의 豫想을 뒤엎고 이와같이 兩面 공격梯隊가 공격目標 A, B 및 1,2를 奪還하자 연대戰鬪地境이 北共 제13, 제2 兩사단의 戰鬪地境線을 包括하고 北共 제23연대(제13사단)와 제17연대(제2사단)의 兩 正面임을 勘案할때에 敵의 誘引作戰일 수도 있음을 想定하고, 연대예비인 제1대대(장, 孫介同대위)를 제2대대(장, 趙始衡중령)가 奪還한 △1,246로 急進시켜 支援態勢를 갖추게 하는 一方, 공격梯隊의 後方을 경계하도록 하였으며 一線梯隊는 夜間에 四周防禦陣地를 強化하고 공격間 敵의 不意의 逆襲에 對備하도록 指示하였다.

이에 따라 亭子門里(寒溪里 東北쪽 3km)에 集結 待機中이던 제1대대(장, 孫介同대위)는 △1.246(龍垈一里 西北쪽 3km)로 機動하여 그 西南쪽 稜線一帶에 陣地를 占領하였다. 한편 연대 CP는 공격梯隊의 進擊에 따라 亭子門里로 躍進하고 그 警戒는 연대 수색중대가 담당 하였다.

2 제27연대(장, 兪義濬대령)는 이날 05.00에 集結地인 冠坪(元通六里 南쪽 1km)에서 機動을 시작하여 제2대대(장, 成泳煥소령)를 右一線, 제3대대(장, 朴元寬소령)를 左一線으로 하여 08.00에 LD線을 通過하면서 一齊히 공격을 開始하였다. 제2대대는 △677(亭子門里 西北쪽 2km)를 占領한 다음 △753(明塘山 東北쪽 1 5km)를 공격하였으나 1개대대 규모의 敵(北共 제2사단 제4연대소속)의 頑強한 抵抗으로 공격의 勢威가 不振하자 대대장

成泳煥소령은 제5중대(장, 辭景鎬중위)로 하여금 이 高地 南쪽 稜線을 確保토록 하여 熾烈한 集中火力으로 敵을 牽制케 하는 一方 제6, 제7 兩중대를 東쪽으로 迂回시켜 一齊히 包圍 공격을 敢行토록 하였으나 敵의 抵抗은 執拗하여 一進一退의 攻防을 계속하였다. 한편 제3대대(장, 朴元寬소령)는 제10중대(장, 吳承鎬중위)를 右一線, 제9중대(장, 權辰成중위)를 中央, 그리고 제11중대(장, 金炳烈중위)를 左一線으로 展開하여 北共 제2사단 제4연대 主力이 據點으로 掌握中인 明塘山(△765)을 공격하였다. 대대는 冠坪으로 躍進한 제26포병대대 主力의 集中된 支援射擊밑에 △478(明塘山 東南쪽 1.5km)의 敵의 前進陣地를 擊破하고 明塘山으로 肉迫하였다. 그러나 122mm 榴彈砲와 82mm迫擊砲의 支援을 받는 增強된 1개대대 규모의 敵의 熾烈한 射擊으로 공격의 계속을 斷念하고 砲兵의 掩護射擊下에 그 南쪽으로 一旦 轉進하였다가 또 다시 공격을 敢行하여 頂上에 肉迫하였으나 이미 特火點을 形成하고 斷末魔的인 督戰下에 限死코 抵抗하는 敵의 集中火網을 뚫치 못하였다. 이에 각중대는 대대장 朴元寬소령의 명령에 따라 手榴彈만을 携帶한 特攻組의 先導下에 特火點을 하나 하나 覆滅하면서 一齊히 突擊을 敢行하여 16.30에 이르러 5시간에 걸친 凄絶한 肉迫戰 끝에 頂上을 占領하였는데, 대대는 이날의 激戰에서 敵兵 136名을 射殺하였다.

이때 예비대인 제1대대(장, 李南周소령)는 冠坪에서 연대 CP를 경계하면서 出動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와 反面에 明塘山(△765)에서 潰退한 北共 제2사단의 제4연대 主力은 △752—△649—△851를 連한 線에 새로운 阻止線을 形成하고 제6연대 主力은 豊田里一帶에서 제453번 作戰路를 遮斷한 다음 美 제5해병연대(장, Richard W. Hayward 대령)의 進擊을 阻止하다가 美 제1해병사단의 主力의 壓力을 받은 나머지 論章里 附近으로 潰退하여 前記한 제4연대와 合流함으로써 새로운 抵抗이 豫測되었다.

3 제35연대(장, 高白圭대령)는 이때에 사단예비로서 寒溪里에 그 主力을 集結하고 部隊를 整備하는 一方 사단 後方경계를 담당하였다.

4 제26포병대대(장, 洪昌杓소령)는 이날 04.00에 冠坪으로 躍進하여 07.30부터 30분간에 걸친 攻擊準備射擊에 뒤이어 제1중대가 제36연대(장, 李承雨중령)를, 제2, 제3중대가 제27연대(장, 俞義濬대령)를 각각 支援하였다.

5 제5야전공병대대(장, 洪錫疇소령)는 西湖洞으로 進出한 다음 사단主力의 공격 개시와 同時에 元通里에서 俗稱 성황곡(寒溪里 東北쪽 5km)에 이르는 제46번 作戰路의 補修에 着手하였다.

6월 5일 : 제27연대(장, 俞載浩대령)가 전날에 奪還한 要衝인 明塘山(△765)에 對하여 敵이 逆襲을 敢行하고, 豊田里一帶에서 美 제5해병연대(장, Richard W. Hayward대령)의 進擊을 阻止中이던 北共 제2사단 제6연대主力이 제27연대正面의 北共 제4연대를 增援하여 論章里一天桃里一帶의 高地群에서 最大의 遲延戰을 試圖하고자 하는 徵候를 보이자, 사단장 閔機植준장은 제27연대(장, 俞載浩대령) 正面의 敵 後方要地인 瑞和里 一帶를 奇襲공격하여 退路와 增援을 遮斷하고 挾擊하고자 要旨 다음과 같은 作命을 下達하였다.

『① 제36연대는 6.5.06 00를 期하여 一部兵力으로서 瑞和里를 공격, 확보하라.

② 제35연대는 6 5.09 00附로 1개대대를 제27연대에 派遣하라.

主力은 명령에 따라 △1,246(제36연대正面)로 進出한 다음, 제27연대 正面의 敵을 挾擊할 준비를 갖추라.

③ 제27연대는 6.5.09.00를 期하여 제35연대의 1개대대를 統合指揮하라.』

1. 제36연대(장, 李承雨중령)의 右一線인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는 鄭昌鎬 소위가 指揮하는 제9중대를 突擊梯隊로 하여 目標C(△835)에 대한 공격을 敢行하였다. 중대는 전날의 陣地인 △1,122(龍垈一里 北쪽 4km) 北쪽 稜線을 따라 △835 南쪽 稜線에 이른 다음 一齊히 突擊을 敢行하여 1개중대 규모의 敵을 擊碎하고 17.00에 頂上을 奪還하였다. 중대를 後續하면서 공격을 支援한 대대主力은 제5중대(장, 金鍾德소위)의 目標 3 (△1,122 : 瑞和里 東南쪽 5km)에 대한 공격을 側方支援한 다음 △835—△1,122를 連한 線으로 進擊하여 제9중대(장, 鄭昌鎬소위)와 連繫하였다. 한편 左一線인 제2대대(장, 趙始衡중령)는 前述한바 사단장의 作戰計劃에 따른 연대장의 명령에 의거하여 그 主力으로써 瑞和里를 目標로 進擊하고 제5중대(장, 金鍾德소위)는 目標 3(△1,122)을 공격하여 隣接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의 支援下에 이를 奪還하고 그 西쪽 稜線에 陣地를 占領하였다. 제6, 제7중대는 06.00를 期하여 香爐峯山脈의 險峻한 地形과 우거진 숲을 헤치며 進擊하여, 俗稱응골(天桃里 東쪽 1km) 東北쪽의 無名高地를 奇襲공격해서 이를 一擧에 무찌른 다음, 제6중대(장, 金仁德중위)는 1개중대규모의 敵을 白兵戰으로 奇襲 공격하여 17.00에 瑞和里一帶의 戰制點인 △811(瑞和里 東南쪽 1.5km)를 奪還, 확보 하였으며 이를 後續한 제7중대(장, 高熙植소위)가 계속하여 △703(瑞和里 東쪽 1km)를 占領함으로써 敵의 後方基地이자 機動路上의 要衝인 瑞和里一帶를 掌握하고 계속적인 追擊砲와 機關銃射擊으로 敵의 逆襲을 牽制하면서 敵後方을 攪亂하였다. 한편 △1,122(瑞和里 東南쪽 5km)를 奪還하고 그 西쪽 稜線을 占領한 제5중대(장, 金鍾德소위)와 제8중대(장, 朴榮洙대위)는 제6, 제7중대의 瑞

和里一帶 占領과 同時, 대대장 趙始衡중령의 명령에 따라 △811(瑞和里 東南쪽 1.5km) 東쪽의 無名高地로 進擊하여 대대主力의 增援態勢를 갖추었다.

이때 연대예비인 제1대대(장, 孫介同대위)는 연대主力의 進擊에 따라 △1,246(龍垈一里 西北쪽 3km) 北쪽 稜線으로 그 配置線을 넓혀 後方경계와 支援態勢를 強化하였다.

反面에 연대正面의 敵 제13사단 제23연대隷下의 2개중대 규모의 敵은 連花里(瑞和里 東쪽 5 5km) 一帶로 潰退하여 增援된 敵과 더불어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에 대하여 逆襲을 企圖하는 徵候를 보였으며, 北共 제2사단 제17연대 主力은 △867—△706(連花里 西쪽 2.5km)를 連한 線에 據點을 形成하고 反擊의 機會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判斷되었다. 한편 제2대대(장, 趙始衡중령)가 敵의 後方 깊숙히 奇襲공격하여 要衝인 瑞和里一帶를 掌握함으로써 唐慌한 敵은 加田里附近에 集結中이던 北共 제2군단 예비인 제27사단의 一部兵力을 急遽 南下시켜 熾烈한 砲擊을 加하면서 瑞和里 一帶를 遠隔包圍하기 시작하였다.

2 제27연대장 俞義濬대령은 이날 새벽 04.00부터 제3대대(장, 朴元寬소령) 正面에 對한 敵의 逆襲이 敢行되고 △752—△649(論章里 東南쪽 2km) 一帶에 敵의 增援부대가 계속 集結하는 徵候를 보이자 연대예비인 제1대대(장, 李南周소령)에게 要旨 다음과 같이 命令하였다.

『貴大隊는 △753(明塘山 東北쪽 1.5km)를 奪取한 다음 △752—△649를 逐次로 奪還함으로써 敵의 據點을 粉碎하고 增援을 遮斷하라』

右一線인 제2대대(장, 成泳煥소령)는 △753 공격任務를 제1대대(장, 李南周소령)에 引繼한 다음 06.00를 期하여 전날의 陣地인 俗稱 말고개 부근에서 △962(亭子門 北쪽 2km)에 대한 공격을 敢行하였는데 이때에 敵을 兩翼으로 포위하면서 一齊히 突擊하여 2개중대 규모의 敵을 擊破하고 13.00에 이 高地를 奪還하였다. 이 一戰에서 대대는 敵 32名을 射殺하고 2名을 사로잡았다.

한편 제1대대(장, 李南周소령)는 연대예비로서 冠坪에 集結待機中에 있었는데 연대장 俞義濬대령의 口頭명령으로 △753(明塘山 東北쪽 1.5km)를 공격 하였다. 即 07.00에 冠坪에서 △677 東쪽 稜線으로 進出한 다음, 제5중대(장, 薛景鎬중위)의 支援下에 1개중대 규모의 敵을 擊碎하고 △753를 奪還하는 즉시로 退却하는 敵을 追擊하여 △752(論章里 東南쪽 2.5km)의 東南쪽 稜線을 따라 突進하였으나 有利한 地形을 特火點化한 陣地에서 頑強하게 抵抗하는 敵의 熾烈한 射擊으로 攻擊의 進展을 보지 못하고, 제3대대(장, 朴元寬소령)의 掩護下에 明塘山 (△765) 北쪽의 無名高地로 逐次로 轉進하여 陣地를 占領하였다.

左一線인 제3대대(장, 朴元寬소령)는 전날에 敵의 主要據點인 明塘山(△765)을 激戰끝에 奪還하고 확보 中, 이날 새벽 04.00에 敢行된 增強된 1개대대규모의 敵의 逆襲을 받게 되었는데, 제26포병대대(장, 洪昌杓소령)의 近接支援射擊下에 一進一退의 攻防戰을 展開한 끝에 06.00에 이르러 이 敵을 擊退하고 제1대대(장, 李南周 소령)의 △752 공격과 轉進을 支援하였으며, △397(冠坪 西北쪽 4km)로 迂回侵透한 敵을 공격한 제10중대(장, 吳承鎬중위)는 18.00에 이 敵을 完全히 捕捉殲滅함으로써 연대 西側背에 대한 威脅을 排除하였다.

대대의 이날의 戰果는 다음과 같다.

射殺 77名　　노획 LMG—2挺
捕虜 10名　　AK小銃—12挺
多發銃— 3挺
SCR—536無電機— 1台

3. 제35연대(장, 高白圭대령)의 제1, 제2 兩대대는 계속 사단예비로서 寒溪里에서 사단 後方경계를 담당하였으며,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는 이날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제27연대(장, 兪義濬대령)에 배속과 동시에 寒溪里에서 機動하여 제27연대 예비가 되어 明塘山(△765) 西南쪽 稜線에 병력을 배치하고 敵의 迂回侵襲에 대비하였다.

4. 사단의 隣接 各部隊의 戰況을 概觀한다면 大略 다음과 같다.

가) 右隣接인 수도사단(장, 宋堯讚준장)은 CP를 杆城에 두고 前方指揮所를 廣山里에 推進開設한 다음, 제26연대(장, 徐進哲대령)가 Kansas線에 沿하여 香爐峯(△1,293) 東北쪽 高地를 占領하고 그 제1대대를 上院里附近으로 推進하여 威力搜索을 계속하였으며, 기갑연대(장, 李 龍대령)는 香爐峯(△1 293) 西南쪽 高地에서 北共 제12사단 제19연대의 強力한 反擊을 맞아 熾烈한 戰鬪를 展開하였다. 또 제1연대(장, 韓 信대령)는 美제10군단과의 군단戰鬪地境線에 沿하여 俗稱 둥굴峯(香爐峯 南쪽 3km)—七節峯에 이르는 一帶에 西面한 陣地를 占領하고 제5사단의 進擊을 待機하면서 敵의 浸侵을 阻止하였다. 수도사단에 배속中인 제11사단 제20연대(장, 朴元根대령)의 제2대대는 제1연대와 陣地를 連繫하여 鷹峯山(寒溪里 東北쪽 10km)를 占領하고 그 主力은 珍富嶺에서 제465번 作戰路를 警備하였다.

나) 한편 左隣接인 美 제1해병사단은 CP를 新村 (楊口 東南쪽 12km)에 두고 右一線인 제5해병연대로써 美 제2사단 제9, 제23연대 陣地를 引受토록 하고 俗稱 새재(元通里 北쪽 4 km)—月鶴二里—俗稱 용수골(楊口 東北쪽 13km)을 連한 線으로 進擊케 하였다.

韓 제1해병연대(장, 金大植대령)는 美 제5해병연대의 進出에 따라 그 陣地를 引受한 다음, 이날 後谷里(楊口 東北쪽 10km)로 進擊하였으며, 左一線인 美 제1해병연대는 高堡里(楊口 北쪽 5km)를 계속 확보하였다. 한편 사단예비인 美 제7해병연대는 松亭里(楊口 南쪽 5 km) 一帶에서 제31, 제46번 作戰路를 확보하면서 사단 후방경계를 담당하고 있었다.

6월 6일 : 敵은 이날 새벽 02.00를 期하여 전날에 瑞和里一帶를 占領한 제36연대 제 2 대대(장, 趙始衡중령)를 包圍 공격한 것을 비롯하여 △835—△1, 122(瑞和里 東南쪽 5km)를 連한 線을 확보중인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 正面의 敵도 一齊히 攻勢로 移轉함으로써, 제36연대主力은 제 1 대대(장, 孫介同대위)의 掩護下에 逐次로 轉進하여 △1, 122(龍堡一里 北쪽 4km) 北쪽의 無名高地를 占領하고 敵의 侵襲을 阻止하였다.

한편 제27연대(장, 兪義濬대령)의 제1 대대(장, 李南周소령)는 1개중대로써 △752(明塘山 北쪽 1.5km)의 敵을 奇襲공격한 결과 한때 그 頂上을 奪取하였으나 곧 敵의 逆襲을 받아 이를 支撐하지 못하고 主陣地로 後退하고 말았으며, 제2, 제3 兩대대의 正面에서도 敵의 反擊이 있었으나 近接戰으로 이를 擊退하였다.

1 제36연대 제2대대(장, 趙始衡중령)는 전날 瑞和里一帶를 瞰制할 수 있는 △811—△703를 占領함으로써 敵의 主補給路를 遮斷하고 後方을 攪亂하던 중, 이날 02.00를 期하여 增強된 1개대대규모의 敵은 野砲의 支援射擊下에 包圍공격을 敢行하므로 대대는 四周防禦陣地에서 手榴彈과 銃劍으로 熾烈한 肉迫戰을 벌여 一進一退의 激戰을 반복 하였다. 그러나 계속 增強되는 敵의 波狀攻勢와 사단砲兵의 射擊圈을 벗어난 孤立된 狀況下에 衆寡不敵으로 제5, 제8 兩중대의 掩護밑에 △1, 122(瑞和里 東南쪽 5km)로 逐次로 撤退하였으나 계속 追擊하는 敵과 北共 제2사단의 제17연대 主力이 正面에서 反擊에 加勢함으로써 이를 阻止하면서 또다시 無名高地(△1, 122 南쪽 1.5km)로 後退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右一線인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는 △835—△1, 122(瑞和里 東南쪽 5 km)를 連한 線을 확보중이었는데 제2대대(장, 趙始衡중령)에 대한 敵의 逆襲에 뒤이어 北共 제23연대(제13사단)의 일부와 제17연대 (제2사단) 主力이 同時에 反擊함으로써 △1, 122로 轉進한 제 2 대대와 協同하여 熾烈한 攻防戰을 展開하였다. 그러나 優勢한 敵의 迂回 공격으로 後方遮斷의 威脅을 느끼기에 이르러 急遽 出動한 제1대대(장, 孫介同대위)의 掩護下에 △1, 122 (龍堡—里 北쪽 4km) 北쪽의 無名高地를 占領하고 敵의 계속적인 迂回侵襲에 대비하였다

이때 연대예비인 제1대대(장 孫介同대위)는 제3, 제2 兩대대의 撤收를 掩護한 다음 제3중대(장, 朴石基중위)를 △1, 122(龍堡一里 北쪽 4km) 西南쪽 稜線에, 제2중대(장, 金元俊

중위)를 △1,246(龍垈一里西北쪽 3km) 西南쪽 無名高地에, 그리고 제1중대(장, 車東一 중위)를 △883(龍垈一里 西쪽2km)에 각각 배치하여 險峻한 山岳地帶를 利用한 敵의 後方 侵透를 막기로 하였다.

2 제27연대(장, 兪載濬대령)의 右一線인 제2대대(장, 成泳煥소령)는 제1대대의 △752(論章里 東南쪽 25km) 공격이 그 進展을 보지 못하므로 계속 전날의 陣地인 △962—753를 連한 線을 확보하면서 散發的인 敵의 威力搜索을 擊退하였으며, 제1대대(장, 李南周소령)는 제2중대(장, 金鍾淑대위)로 하여금 次擊梯隊로써 짙은 안개속을 隱密히 機動하여 △752(論章里 東南쪽 2 5km)에 肉迫케 한 다음 奇襲을 敢行케 한 결과 凄絶한 白兵戰을 벌였다 그리하여 19.00에 이르러 비로소 頂上을 奪取하였으나 卽刻 決行된 敵의 逆襲으로 逐次로 撤收하여 主力과 合勢한 다음 계속 追擊하는 敵을 阻止하였다. 이에 앞서 明塘山(△765)을 확보중인 제3대대(장, 朴元寬소령) 正面에서는 이날 未明을 期하여 北共 제 4 연대 소속의 1개 대대규모의 敵이 西翼을 包圍하면서 攻勢를 取하였으나 제26포병대대(장, 洪昌杓소령)의 彈幕射擊과 果敢한 肉迫戰으로 이를 擊退하였으며 退却하는 敵을 追擊하면서 搜索戰을 展開한 제10중대(장, 吳承鎬중위)는 松鶴洞(明塘山 西쪽 2km) 溪谷에서 隱蔽한 武器庫를 發見하고 이를 경계중인 敵을 包圍殲滅하고 많은 兵器와 彈藥을 鹵獲하였다.

이로써, 敵의 明塘山(△765)에 대한 執拗한 反擊의 原因이 要地奪取에도 그 目的이 있었지만 이 兵器와 彈藥을 再奪還하기 위한 것으로 推斷되었다. 대대는 이날의 戰鬪에서 敵兵 198명을 射殺하였다.

한편 연대에 배속중인 제35연대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는 연대예비로써 明塘山 西南쪽의 稜線을 占領하고, 이날 새벽 제27연대 제3대대(장, 朴元寬소령)의 激戰을 支援하는 한편 迂回侵襲하는 敵을 逆襲으로 擊退하고 계속 西斜面陣地를 占領하여 연대의 西側背를 防護하였다.

3 사단예비인 제35연대(장, 高白圭대령)는 瑞和里로 進擊하던 제36연대 제 2 대대(장, 趙始衡중령)가 이날 새벽에 敵의 強壓으로 撤收함으로써 제36연대 地境으로 進擊한 다음 제27연대(장, 兪載濬대령) 正面의 敵을 挾擊하려는 計劃을 留保한채 瓦村(寒溪里 南쪽 1 5 km)에 계속 集結하여 進擊을 준비하는 동시에 사단後方 경계를 담당하였다.

6월 7일 : 이날 사단은 戰線의 調整을 위하여 右一線인 제36연대(장, 李承雨중령)가 전날의 陣地를 계속 확보하면서 부근一帶를 搜索한 反面, 左一線인 제27연대(장, 兪載濬 대령)는 제1, 제3 兩대대를 공격梯隊로 하여 △851(明塘山 東北쪽 3.5km)와 △752에 대한 공

격을 斷行한 결과 제1대대(장, 李南周소령)는 △752를 奪取하였으나 제3대대(장, 朴元寬소령)는 △851를 공격中 頑強한 敵의 抵抗으로 공격 進展이 如意치 못하게 되었다. 이에 사단장 閔機植준장은 增強一路인 제27연대(장, 兪義濬대령) 正面의 敵을 一擧에 擊碎하고 Kansas線을 向한 進擊을 재촉하기 爲하여 當初에 계획된 瑞和里에서의 遮斷을 變更하고 敵主力의 要部를 직접 挾擊하기로 決心하고 이날 16 30에 제35연대장 高白圭 대령에게 要旨 다음과 같은 命令을 下達하였다.

『제35연대는 제36연대가 확보하고 있는 △1,246(龍垈一里 西北쪽 3km)—無名高地(1,246 西北쪽 1.5km)를 向하여 進擊한 다음 目標A(天桃里一帶의 高地群)를 奪取하라.』

1 제36연대(장, 李承雨중령)는 이날 사단장의 口頭命令에 따라 進擊을 中止하고 전날의 陣地를 계속 확보하면서 左隣接인 제27연대(장, 兪義濬대령)의 進出을 待機하였다. 이날 04.00에 前進陣地를 占領中인 제9중대(장, 鄭昌鎬소위)는 潛侵하는 개1중대 규모의 敵을 捕捉하자 2시간에 걸친 交戰끝에 이를 擊退하였으며 主陣地前方을 搜索中이던 제7중대(장, 高熙植소위)는 18.00에 1개소대규모의 敵을 捕捉하고 交戰끝에 擊退하였다.

2 제27연대(장, 兪義濬대령)의 右一線인 제2대대(장, 成泳煥소령)는 △962(龍垈一里西쪽 3.5km)西北쪽 稜線을 따라 進擊하면서 제1대대(장, 李南周소령)의 △752에 대한 공격을 火力으로 支援하는 한편 대대를 超越하여 △851(論章里 東쪽 2km)공격을 敢行하는 제3대대(장, 朴元寬소령)를 계속支援하였다. 그런데 제1대대는 06.00에 공격을 開始하여 敵의 強化된 前進陣地를 奪取하자 곧 △752(明塘山 北쪽 1.5km) 東南쪽의 無名高地로 進擊한 다음, 전날에 이어 제2중대(장, 金鍾淑대위)를 突擊梯隊로 하여 △752에 대한 공격을 敢行토록 하였다. 중대는 짙은 안개와 險峻한 地形을 逆利用하면서 敵陣地에 肉迫한다음, 一齊히 手榴彈을 投擲하면서 喊聲도 우렁차게 突擊을 敢行하여 北共 제4연대의 2개중대규모의 敵을 一擧에 무찌르고 △752 頂上을 占領하였다. 뒤이어 後續한 대대主力과 合勢하자 이때에 即刻 敢行된 敵의 逆襲을 곧 擊退함으로써 敵은 또다시 이 要地를 잃은채로 그 西北쪽에 있는 △649에 새로운 據點을 마련하여 執拗한 抵抗을 계속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제3대대(장, 朴元寬소령)는 제2대대를 超越하여 △851(論章里 東쪽 2km)로 肉迫하였으나 敵의 頑強한 抵抗으로 공격의 進捗을 보지 못하자 砲兵의 掩護射擊을 받으면서 그 東南쪽 稜線에 제9, 제10, 제11의 3개중대를 모두 一線에 배치한 다음, 急編陣地를 占領하고 熾烈한 射擊戰을 交換하였다.

연대에 배속중인 제35연대 제2대대(장, 李昌得소령)는 연대主力의 進擊에 따라 明塘山(△765)으로 進出하였는데 △649(論章里 東南쪽 2km)로부터 西側方으로 迂回하여 侵襲하는 敵을 맞아 熾烈한 交戰을 벌인끝에 이를 擊退하였다.

3 제35연대(장, 高白圭대령)는 이날 16.30에 示達된 사단장 閔機植준장의 명령에 따라 17.00에 제1대대(장, 金順喆소령)를 先鋒으로 하여 제36연대 地境內의 △1,246를 目標로 進擊하기 시작하였다.

6월 8일 : 이날 각 연대는 일부병력으로 各各 當面의 敵을 공격하였으나 그 進展을 보지 못하였으며, 전날에 △752를 奪還하여 확보중인 제27연대 제1대대(장, 李南周소령)는 敵의 반복된 逆襲으로 한때 高地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反擊을 加하여 이를 再奪還하고야 말았다.

1 제36연대 제2대대(장, 趙始衡중령)는 지난 6일에 빼앗긴 바 있는 △1,122(瑞和里 東南쪽 5km)를 다시 奪還코자 이날 07.00부터 △1,122南쪽 稜線에 確保된 陣地에서 一齊히 攻勢를 取하였으나, 增強된 1개대대 규모의 敵의 熾烈한 射擊으로 말미암아 攻擊開始線까지 進出하지 못한채로 제7중대(장, 高熙植소위)의 掩護下에 다시 原陣地로 隨意撤收하였다. 한편 제1대대(장, 孫介同대위)는 △1,246一帶를 확보중 이날 10.00에 제35연대(장, 高白圭대령)主力의 進出에 따라 이 陣地를 引繼한 다음 그 東北쪽 稜線으로 進出하였으며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는 전날의 陣地를 계속 확보하면서 부근 一帶를 捜索하는 동시에 全面공격을 준비하였다.

2 제35연대(장, 高白圭대령)主力은 10.00에 △1,246로 進出한 다음, 제2대대 (장, 金沼소령)를 연대예비로 控置하고 제1대대(장, 金順喆소령)는 12.40에 제3중대 (장, 崔忠吉중위)를 先鋒으로 前進케 하여 無名高地(論章里 東北쪽 3.5km)를 공격토록 하였으나 2개중대규모의 敵은 野砲의 火力支援을 받으면서 熾烈한 機關銃射擊으로 끝까지 抵抗하여 공격의 進展을 보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대대장 金順喆소령은 18.40에 砲兵의 支援射擊을 要請한 결과 19.00부터 美 제1해병사단포병 155mm대대의 集中射擊이 시작되었으나 이때 마침 짙은 안개로 射擊의 觀測誘導가 어려워 큰 効果를 보지 못하였으므로 공격을 斷念하고 △994(論章里 東北쪽 4km)로 轉進한 다음, 次期 공격을 준비 하였다. 한편 연대 CP는 主力의 進擊에 따라 俗稱성황터(龍垈一里 南쪽)에 躍進開設하였다.

3 제27연대 제3대대(장 朴元寬소령)는 제26포병대대(장, 洪昌杓소령)의 攻擊準備射擊의 延伸에 隨伴하여 06.00부터 △851(論章里 東쪽 2km)에 대한 2일째의 공격을 계속하였

으나 掩體壕속에서 頑強하게 抵抗하는 敵의 火網을 뚫지 못하고 또한 接近路가 敵의 瞰制를 받는 不利한 地形인 까닭으로 그 進展을 보지 못한채로 다시 전날의 陣地로 後退하여 射擊戰만을 거듭하였다. 이때에 제2대대(장, 成泳煥소령)는 전날의 陣地를 계속 확보하면서 제3대대(장, 朴元寬소령)의 공격과 後退를 掩護하였다.

한편, 전날 이미 △752(論章里 東南쪽 2.5km)를 奪還확보한 제1대대(장, 李南周소령)는 11.00에 1개대대 규모의 敵의 逆襲을 받아, 手榴彈戰을 반복하는 동시에 銃列이 灼熱하도록 集中射擊을 加하는 한편 陣內에 突入하는 敵을 白兵으로 刺殺하는 混戰과 亂鬪를 거듭하였으나, 짙은 안개로 咫尺을 분간할 수 없는 好機를 틈타 一波又一波의 波狀 공격을 계속하는 敵의 壓力에 밀리는 바 되어 一旦 그 東南쪽 無名高地로 撤收하였다가 12.30에 다시 反擊을 斷行한 결과 2시간에 걸친 白兵戰끝에 이 敵을 擊碎하고 △752頂上을 再奪還하였다.

特히 이날의 奪還戰에서 제3중대(장, 黃德晟중위)의 申光守일등병은 중대가 八部稜線에서 敵의 熾烈한 機關銃射擊으로 공격이 停滯되자 手榴彈만을 携帶하고 單身으로 敵機關銃陣地로 突入하여 手榴彈 2發을 계속 던져 敵을 沈默시킨 다음 그대로 先鋒에 서서 手榴彈을 던지면서 △752 頂上으로 肉迫함으로써 중대로 하여금, 高地頂上을 一擧에 奪取케하는 動機를 만들었다. 이 赫赫한 武功으로 申光守일등병에게는 뒷날 美銀星勳章이 授與되었다.

한편 연대에 배속중인 제35연대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는 이날 明塘山(△765)—△537—松鶴洞을 連한 線으로 그 占領地域을 擴大하고 西斜面陣地에서 後方攪亂을 目的으로 △649부터 迂回侵襲하는 敵과 熾烈한 交戰을 展開하여 이를 擊退하였다.

6월 9일 : 이날 사단의 右一線인 제36연대(장, 李承雨중령)는 小康狀態를 維持하고 제35연대 제1대대(장, 金順喆소령)는 전날에 이어 無名高地(論章里 東北쪽 3.5km)를 공격하여 이를 奪還함으로써 제27연대(장, 兪義濬대령) 正面의 敵을 挾擊하기 위한 據點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左一線인 제27연대는 제3대대(장, 朴元寬소령)가 △851(論章里 東쪽 2km)를 공격하였으나 그 進展을 보지못한 反面에 제1대대(장, 李南周 소령)가 論章里一帶의 敵의 主要據點인 △649(論章里 東南쪽 2km)를 奪還한 결과 敵에게 致命的인 打擊을 주게 되었다.

1 제36연대(장, 李承雨중령)의 제3, 제1 兩대대는 계속 전날의 陣地를 확보하면서 공격을 준비하였으며, 高熙植소위가 지휘하는 제7중대는 이날 새벽에 △1,122(瑞和里 東南쪽 5km)를 奇襲하였으나 兵力의 不足으로 敵의 執拗한 抵抗을 물리치지 못한채로 그 南쪽 無

名高地로 隨意撤收하여 대대主力과 合勢하였다.

2 제35연대 제1대대(장, 金順鎭소령)는 07.50부터 30분간에 걸친 美 제1해병사단 155mm포병대대의 공격準備射擊의 延伸에 肩接하여 無名高地(論章里 東北쪽 3.5km)에 突入하였는데, 이때에 突擊先鋒인 제3중대(장, 崔忠吉중위)는 5m 앞을 볼 수 없는 짙은 안개속을 뚫고 隱密히 接近한 다음 11.00를 期하여 一齊히 手榴彈을 集中投擲하면서 突進하였으나 敵의 熾烈한 火力과 險峻한 地形으로 계속 突進力을 잃고 말았으니, 이는 뒤따르는 突擊威力이 弱한 까닭이었다. 이리하여 중대는 △994로 隨意轉進하여 兵力을 再收拾한 然後에 砲兵의 効力에 뒤이어 또다시 突擊을 敢行하여 頂上 가까이 肉迫하였으나, 敵예비대의 陣前出擊에 밀리는 바 되어 그 東南쪽 稜線으로 隨意撤收하여 後續한 대대主力과 合勢한 다음 熾烈한 射擊戰을 展開하였다. 그뒤 16 00를 期하여 第三次의 突擊을 斷行하여 一進又一進하는 白兵戰 끝에 16 45에 드디어 頂上을 奪還하고야 말았으니 結局에는 鬪魂이 勝利한 것이다. 중대는 後續한 대대主力(제7중대 배속중)에 陣地를 引繼하고 대대예비가 되어 20. 20에 대대 OP가 있는 無名高地(△1,246 西北쪽 1.5km)로 集結하였다.

그뒤 20.45에 이르러 夜間出擊한 UN空軍機로부터 誤認되어 機銃掃射를 받아 많은 대대 OP要員이 負傷을 當하였다. 한편 연대예비인 제2대대(—제7중대)는 △1,246를 固守하면서 제27연대(장, 俞義濬대령) 正面의 敵이 迂回하는 것을 事前에 대비하였으며 제3대대(장, 李昌俓소령)는 계속 제27연대에 배속중에 있었다.

3 제27연대 제2대대(장, 成泳煥소령)는 이날 새벽에 △851東南쪽의 無名高地로 進擊하여 제3대대(장, 朴元寬소령)의 △851공격을 支援하였으며 제3대대는 제26포병대대(장, 洪昌杓소령)의 공격準備射擊에 뒤이어 06.00를 期하여 제9중대(장, 權辰成중위)가 東側으로 迂回하여 奇襲공격을 加하는 一方, 제11중대(장, 金炳烈중위)는 제10중대(장, 吳承鎬중위)의 側方牽制射擊下에 △851正面으로 突進하였다 그러나 野砲와 追擊砲의 支援을 받는 北共 제2사단 제6연대예하의 增強된 1개대대 규모의 敵이 끝까지 버티면서 抵抗하므로 공격의 進展을 보지 못한채로 다만 熾烈한 火力戰을 반복하였으며 이것을 알게 된 제26포병대대는 即刻 制壓射擊을 集中하였다.

한편 左一線인 제1대대(장, 李南周소령)는 전날에 敵의 逆襲으로 奪取된 바 있는 △752를 反擊하여 再奪還하고 이 陣地를 強化한 다음 이날 06.00부터 또다시 공격을 시작하여 △752 西北쪽에 있는 要地인 △649로 突擊하였으나 頑強한 敵의 抵抗으로 세 차례에 걸친 突擊끝에 20.45에 이르러 비로소 이 高地를 奪還, 확보함으로써 제453번 作戰路에 沿한 論

章里一帶를 畿制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사로 잡은 捕虜의 陳述에 의하면 北共 제2군단은 제7군단이 이 地域으로 南下예정인 6월 17일까지 이 一帶에서의 持久牽制를 策하여 無慈悲한 督戰을 強行하고 있다고 하였고 제2군단 指揮所는 6월 4일에 豊田里에서 加田里로 退却한 다음, 7일에 군단예비인 제27사단과 더불어 伊布里로 移動하였다는 것이다.

6월 10일 : 이날 사단右一線인 제36연대(장, 李承雨중령)는 △1,122를 期必코 奪還코자 제1대대(장, 孫介同대위)를 超越 공격케하여 激戰을 되풀이 하였으나 兵力과 火力의 總集中으로 最後까지 抵抗하려는 敵勢를 擊碎하지 못하였다. 한편 제27연대(장, 俞義濬대령) 正面의 敵을 挾擊할 目的으로 △828(論章里 東北쪽 3km)를 中心으로 공격을 시작한 제35연대 제1대대(장, 金順喆소령)도 또한 攻擊의 進展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제27연대의 제3대대(장, 朴元寬소령)는 지난 3일동안에 걸쳐 공격의 進展을 보지 못한 △851에 대한 공격을 또다시 斷行하여 激戰끝에 이를 奪還, 확보함으로써 戰局의 大勢는 이미 판가름나기 시작하였다.

1 제36연대 제1대대(장, 孫介同대위)는 이날 제35연대 제2대대(장, 金 沼소령)에 그 占領陣地를 引繼하고 제2대대(장, 趙始衡중령)를 超越하여 △1,122(端和里 東南쪽5km) 공격을 敢行하였는데, 짙은 안개로 航空支援과 砲兵의 觀測射擊이 어려워 無支援下의 單獨作戰으로 세차례에 걸친 突擊戰을 決行하였으나 地利에 便乘한 敵이 頑強한 抵抗으로 버티므로 火力의 發揮를 기다리기 위하여 東南쪽 稜線으로 逐次로 隨意撤收하여 急編陣地를 占領하고 敵의 逆襲에 대비하는 한편 再攻擊을 준비하였다. 한편 제2, 제3 兩대대는 전날의 陣地를 확보하면서 부근一帶를 搜索하였다

이때 敵은 제2사단 指揮所를 大谷里(瑞和里 東쪽 3km)에 두고 예하 제17연대 主力으로써 △1,122一無名 高地(1,122西쪽 2km)의 陣地를 強化하는 한편 제13사단 제23연대의 일부는 連花里(瑞和里 東쪽 5.5km)—△1,122 부근에 陣地를 構築한 다음 연대의 進擊을 끝까지 막아 보고자 企圖하는 듯 하므로 연대는 一大 爭奪戰을 目前에 두고 더욱 戰力을 整備키로 하였다.

2 제35연대 제1대대(장, 金順喆소령)는 전날에 無名高地(論章里 東쪽 3.5km)를 奪還, 확보한데 뒤이어 이날 07.00를 期하여 대대에 배속중인 제7중대(장, 李楊洙소위)를 攻擊先鋒으로 삼고 제27연대(장, 俞義濬대령) 正面의 敵을 挾擊하고자 △828(論章里 東北쪽 3km)에 對한 공격을 敢行하였다. 중대는 짙은 안개속을 隱密히 機動하여 △828 北쪽稜線으

로 肉迫한 다음, 手榴彈을 一齊히 던지면서 喊聲도 우렁차게 頂上으로 突進하였으나 敵 예비대의 陣前出擊으로 激戰을 벌이면서 그 北쪽의 無名高地로 逐次 轉進하였다. 사단砲兵은 14 00부터 要請에 따라 2시간에 걸쳐 制壓射擊을 加하고 중대는 射擊의 延伸에 肩接하여 後續한 대대主力의 支援下에 또다시 突擊戰을 반복하였으나 我제27연대의 공격으로 △851(論章里 東쪽2km)에서 退却한 敵과 合勢한 敵의 發惡的인 陣前出擊으로 말미암아 20.00에 대대主力의 掩護下에 射擊戰을 계속하면서 전날의 陣地인 無名高地로 逐次로 後退하였다.

한편 제2대대(장, 金 沼소령)는 이날 새벽에 △1,246東北쪽의 無名高地로 進擊하여 제36연대 제1대대(장, 孫介同대위)의 陣地를 引受한 다음, 제36연대(장, 李承雨 중령) 地境內의 後方경계를 담당하였다.

3 제27연대 제3대대(장, 朴元寬소령)는 3일間에 걸친 △851공격의 失敗를 雪辱코자 全장병이 굳게 다짐하고 이날 09.00부터 △851(論章里 東쪽 2km)에 대한 4일째 공격을 決行하였다.

대대는 제11중대(장, 金炳烈중위)를 右 第一線, 제10중대(장, 吳承鎬중위)를 中央 第一線 그리고 제9중대(장, 權辰成중위)를 左第一線으로 展開하여 우거진 숲과 險峻한 地形을 活用한 敵의 主要據點인 △851를 目標로 包圍網을 壓縮하면서 肉迫하였다. 이 △851는 俗稱피양골(論章里 東北쪽 2km)에 設置한 敵의 補給所 확보를 위한 最後據點으로써 제35연대 제1대대(장, 金順喆소령)가 挾擊中인 △828(論章里 東北쪽 3km)와 더불어 敵은 神人이 共怒할 督戰밑에 限死코 固守하였으며 이 據點의 崩壞는 곧 이 地域에서 敵의 殘存能力喪失을 뜻하기 때문에 彼我間에는 悽絶한 激突이 展開되었다. 名譽를 건 각 중대는 앞을 다투어 죽음을 무릅쓴 突擊戰을 敢行하기 數三次에, 5시간에 걸친 惡戰苦鬪끝에 마침내 이 醜敵을 무찌르고 드디어 頂上의 主人公이 되어 陣地를 확보, 強化하였다.

特히 이날의 戰鬪에서 제9중대(장, 權辰成중위) 소속의 小銃手 元桂喜 이등병은 중대가 敵의 熾烈한 機關銃射擊으로 공격이 不振하고 계속된 彈幕射擊으로 死傷者가 續出하는 狀況에 빠지자 手榴彈 12發을 携帶하고 單身으로 몸을 날려 敵의 特火點에 포복接近한 다음 銃眼으로 手榴彈을 投入하여 爆破함으로써 守敵을 沈默시키고 계속적으로 3個所의 特火點을 爆破한 결과 중대의 危機를 冒免케하는 한편 頂上奪還의 기틀을 마련하는 뛰어난 武勳을 세웠다. 이로써 뒷날 美銀星勳章이 授與되었다.

이때에 제2대대(장, 成泳煥소령)는 제3대대의 △851 공격을 支援한 다음, △851西쪽 稜

線으로 進擊하여 제3대대와 陣地를 連繫하고 제5, 제6 兩중대에서 3개분대의 警戒組를 뽑아 俗稱 피앙골溪谷부근에 埋伏토록하여 敵의 逆襲에 대비케 하였다. 한편 전날에 △649를 奪還하여 확보중인 제1대대(장, 李南周소령)는 제3대대(장 朴元寬소령)의 △851占領과 동시에 論章里 南쪽 無名高地를 無血占領한 다음, 論章里—俗稱 무쇠점(論章里 南쪽 1km)에 이르는 西斜面陣地를 掌握하고 제453번 作戰路를 瞰制하는 一方, 敵의 迂回浸襲에 대비하였으며 연대에 배속중인 제35연대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는 제1대대의 進擊에 따라 △649로 일부 병력을 機動시켜 △649—明塘山 (△765)線에 陣地를 占領하고 연대의 後方 경계를 담당하였다.

特히 이날 美 제10군단장 Almond중장은 전날에 있은 제1대대(장, 李南周소령)의△649 攻略에 대한 武功을 致賀하는 戰功表彰狀을 연대에 傳達하였으며 사단特乙제107호에 의거하여 사병 117명이 補充됨으로써 연대의 士氣는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6월 11일 :이날 사단 右一線인 제36연대(장, 李承雨중령)는 짙은 안개로 공격을 發起하지 못하고 전날의 陣地를 확보하면서 부근一帶를 搜索하여 敵의 奇襲을 豫防하였으며, 제35연대 제1대대(장, 金順喆소령)는 未明에 敢行된 敵의 逆襲을 擊退하였다. 한편 제27연대(장, 兪濬義대령)에 배속중이던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가 이날, 原隊復歸와 同時오 △1,246로 進出함으로써 연대는 비로소 建制를 維持하고 공격준비에 더욱 拍車를 加하기에 이르렀다.

左一線인 제27연대(장, 兪義濬대령)는 전날밤에 俗稱 비둑고개(論章里 北쪽 1km)로 迂回하여 無名高地(論章里北쪽)를 固守中인 敵을 擊破하고 俗稱 비둑고개를 目標로 進擊한 결과 △851—俗稱 비둑고개線을 확보하고 △828—俗稱 피앙골—△539를 連한 線에서 主抵抗線을 固守中인 敵을 壓迫하기에 이르렀다.

1 제36연대(장, 李承雨중령)는 이날 高山地帶의 짙은 안개로 공격을 發起하지 못하고 제27연대(장, 兪義濬대령) 正面에서의 공격의 進展을 待機하였는데, 제 1 대대(장, 孫介同대위)는 △1,122(瑞和里 東쪽 5km) 西南쪽 稜線을 占領하여 頂上의 敵과 對峙하면서 계속적인 迫擊砲射擊으로 敵의 奇襲을 壓制하였고,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는 △1,122(龍垈一里 北쪽 4km) 稜線을 占領하여 敵의 迂回에 대비하였으며 제2대대(장, 趙始衡중령)는 △1,122(龍垈一里 北쪽 4km)北쪽의 無名高地를 占領하고 부근一帶를 搜索하면서 부대를 再編中에 있었다.

2 제35연대(장, 高白圭대령)는 이날 04.40에 제1대대(장, 金順喆소령) 正面에 대한

敵의 逆襲을 擊砕하였으나 짙은 안개로 追擊을 斷行하지 못한채로 전날의 陣地를 계속 확보하면서 戰意를 鼓舞하였으며 그동안 제27연대(장, 兪義濬대령)에 배속중이던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가 배속해제와 동시에 △1,246로 進出하였다.

즉 제1대대(장, 金順喆소령)는 04.40에 2개중대규모로 推定되는 敵의 逆襲을 받아 한때 제2중대(장, 玄弘燮중위)陣地의 一角이 무너졌었으나 玄중위의 果敢한 陣頭指揮下에 反擊을 斷行하여 2시간에 걸친 紛戰亂鬪끝에 이를 擊退하였으며 無名高地(△1,246西北쪽 1.5 km)에 位置한 대대 OP와 대대예비인 제3중대(장, 宣忠吉중위)는 10.00에 無名高地(論章里 東北쪽3.5km)로 躍進하여 主力과 合勢하였다. 한편 제2대대(장 金 沼소령)는 △1,246東北쪽 稜線을 계속 확보하면서 부근一帶를 搜索하였으며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는 제27연대(장, 兪義濬대령)로부터 배속해제와 동시에 △1,246로 進出하여 다음날의 공격을 준비하였다.

3 제27연대 제3대대(장 朴元寬소령)는 이날 △851東쪽 無名高地로 陣地線을 넓히고 각 중대에서 抽出한 3개분대의 聽音哨를 俗稱 피양골(論章里 東北쪽 2km)溪谷에 配置하여 敵의 奇襲에 대비하면서 부대를 再編하였다. 제2대대(장, 成泳煥소령)는 연대장 兪義濬대령의 명령에 따라 전날밤에 論章里 北쪽의 無名高地를 奇襲占領한 2개중대 규모의 敵을 공격하여 16 00에 이 敵을 一蹴하고 그 北쪽의 稜線으로 進擊한 다음 俗稱 피양골溪谷을 瞰制하는 한편, 피양골 一帶의 高地群을 固守하는 敵의 據點에 대하여 追擊砲射擊을 集中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제1대대(장, 李南周소령)는 제2대대(장, 成泳煥소령)를 後續하여 俗稱 비둑 고개(論章里 北쪽 1km)로 進出하는 즉시로 論章里에 이르는 西斜面陣地를 占領하고 俗稱 陰地村一帶의 開闊地를 瞰制하는 한편 제453번 作戰路를 掌握하였다.

이때에 敵은 △828(論章里 東北쪽3 km)一俗稱 피양골一△529(論章里 北쪽 2km)에 主據點을 確保한 다음 △749(論章里 東北쪽 4km)一△557(論章里 東北쪽 3km)에 豫備陣地를 占領하여 다시금, 持久와 牽制를 策하려 하였으나 제35연대(장, 高白圭대령)의 挾擊과 더불어 正面과 東側背가 包圍된 채로 督戰의 銃뿌리를 그들 兵士들에게 겨누는 頻度가 더욱 甚하여 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6월 12일 : 이날 사단은 一齊히 공격을 敢行하였다. 右一線인 제26연대(장, 李承雨 중령)는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로 하여금 右隣接인 수도사단(장, 宋堯讚준장)에 配屬中인 제3사단 제22연대 地境을 거쳐 △1,122(瑞和里 東南쪽 5km)를 東側方에서 공격케 하는 하

편 제1대대(장, 孫介同대위)로 하여금 正面에서 突進하면서 挾擊토록 하였으나 增援된 敵의 頑強한 抵抗으로 그 進展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제27연대 正面에 있는 敵의 主要據點인 △749(論章里 東北쪽 4km)—△557—△828(論章里 東北쪽 3km)를 공격한 제35연대 제2대대(장, 金 沼소령)는 敵의 抵抗을 一擊에 무찌르고 각 據點을 차례로 奪還함으로써 제27연대(장, 俞義濬대령)의 正面공격과 아울러 挾擊을 받게 된 北共 제4, 제6 兩연대의 主力은 俗稱 피양골—연예골—天桃里(論章里 北쪽 3 5km)를 連하는 高地群에 特設한 據點을 抛棄한 채로 △811(瑞和里 東南쪽 1.5km) —△441 (瑞和里 西南쪽 .2.5km)를 連하는 線으로 潰退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사단은 공격개시 以來 8日間에 걸친 沈滯에서 脫皮하고 Kansas線 進擊을 위한 巨步를 내딛게 되었다.

1 제36연대장 李承雨중령은 사단장 閔機植 준장의 命令에 따라 이날 △1, 122(瑞和里東北쪽 5km)를 固守中인 敵을 強打하며 이를 단숨에 奪還하고자 右隣接인 수도사단에 配屬中인 제3사단 제22연대와 의 事前協調下에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로써 제22연대地境으로 迂回시켜 △1, 122東側方을 制壓케 하는 한편 제1대대(장, 孫介同대위)로써 △1, 122正面에서 突進토록 하였으나 北共 제2 군단 예비인 제27사단 일부의 增援을 받은 제2 사단 제17연대 主力과 제13사단 제23연대 일부의 混合兵群이 險峻한 要地를 扼守하면서 寸步를 不退하고 發惡함으로써 戰況의 好轉을 보지 못하였다.

즉, 右一線인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는 이날 09 00에 제22연대地境內의 △990를 거쳐 제10중대(장, 白基淳중위)로서 △730(△1, 112 東北쪽 2km)를, 제11중대(장, 車喜寧중위)로서 連花里一帶를 그리고 鄭昌鎬소위가 指揮하는 제9중대로서 △835(瑞和里 東쪽 5.5km)를 各各 目標로 하여 一齊히 공격을 發起하였으나 增強된 1개대대 규모의 敵의 抵抗으로 進展을 보지 못하고 18.00에 △835(瑞和里 東쪽 5.5km) 東南쪽 無名高地로 逐次로 隨意撤收한 다음 陣地를 急編하였다.

한편 제3대대의 迂回공격과 때를 같이 하여 △1, 122 正面으로 突進한 제1대대(장, 孫介同대위)는 八部稜線까지 肉迫하였으나 敵陣에서의 手榴彈과 銃砲火力의 集中으로 또 다시 銳氣를 잃고 전날의 陣地로 逐次로 撤收하였으며, 제2대대(장, 趙始衡중령)는 계속 전날의 陣地를 확보하면서 부근一帶를 搜索하였다.

2 제35연대장 高白圭대령은 연대예비인 제2대대(장, 金 沼소령)로 하여금 제1대대(장, 金順喆소령)를 超越하여 제27연대(장, 俞義濬대령)正面에 있는 敵의 據點인 △749—△557

—△828(論章里 東北쪽 3km)를 逐次로 攻略하고 제27연대와 더불어 當面의 敵을 挾擊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제2대대(장, 金 沼 소령)는 08.20에 △1,246 東北쪽 稜線에 占領한 陣地에서 躍進하여 제5중대(장, 金甲得중위)로써 △749(論章里 東北쪽3km)를, 제 6 중대(장, 金東浩중위)로서 △557(論章里 東北쪽 3km)를 각각 공격키로 하고 제1대대(장, 金順喆소령)에 배속중인 제7중대(장, 李陽洙소위)는 原隊復歸와 同時에 전날에 이어 △828에 대한 공격을 담당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제5중대는 敵의 熾烈한 火力으로 한때 공격이 不振하다가 때마침 出擊한 UN 空軍機의 對地攻擊에 뒤이어 一齊히 突擊을 敢行한 끝에 2개중대 규모의 敵을 擊砕하고 17.40에는 △749頂上을 奪還하였으며 金東浩중위가 指揮하는 제6중대는 △557 東쪽 稜線을 타고 敵陣 깊숙히 突進하여 제27연대(장, 兪義濬대령)의 進擊에 따라 包圍圈이 壓縮되면서부터 戰意를 喪失한 듯한 2개중대규모의 敵을 攻破하고 △557頂上을 掌握하는 즉시로 敵의 退路를 遮斷하여 戰果를 擴大하였다. 한편 △828(論章里 東北쪽 3 km)를 공격한 제7중대는 제27연대의 進擊에 따라 俗稱 피양골—△539에서 敗敵이 새로운 增援兵을 얻은 다음 有利한 地形을 固守하면서 砲火를 集中하므로 공격의 進展을 보지 못하다가 急히 增援된 제2중대(장, 玄弘燮중위)와의 協同으로 紛戰과 混戰을 계속한 끝에 마침내 頂上을 奪還함으로써, 사단의 進擊을 執拗하게 牽制하고 抑留하던 敵의 要部를 完全히 掌握하기에 이르렀다. 特히 이날의 戰鬪에서는 20.00에 彈藥과 食糧의 空中補給을 받게되어 공격하는 장병들의 士氣를 크게 도왔다.

한편 제 1 대대(장, 金順喆소령)는 전날의 陣地인 △994—無名高地(論章里 東北쪽 3.5km)를 連한 線을 계속 확보하던 중 제2중대(장, 玄弘燮중위)가 緊急出動하여 제7중대(장, 李陽洙소위)의 공격을 增援하고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는 전날에 進出한 △1,246를 계속 확보하면서 부근一帶를 搜索하였다.

3. 제27연대 제1대대(장, 李南周소령)는 05 00를 期하여 제35연대(장, 高白圭 대령)의 西向進擊에 앞서 우선 △539(論章里 北쪽 2㎞)를 攻略키로 하였다. 俗稱 비둑고개에 沿하여 橫隔室을 이룬 이 △539는 能히 제453 作戰路와 俗稱 피양골 溪谷의 入口를 瞰制할 수 있고 그 南面은 可히 天然的 障壁을 이루고 있었다.

이리하여 대대는 제 3 중대(장, 黃德晟중령)로 하여금 先鋒梯隊로서 俗稱 피양골을 공격토록 하여 피양골과 △539의 兩敵을 遮斷케 하는 한편 後續한 제1중대(장, 金恒一중위)로 하여금 無名高地의 稜線을 따라 △539를 迂回공격토록 하였다. 또 金鍾淑대위가 指揮

하는 제2중대로 하여금 砲兵의 煙幕彈射擊에 連繫하면서 開闊地를 躍進하여 △539 西쪽稜線을 타고 突進토록 하였다. 그러나 이미 堅固한 據點을 構築한 2개중대 규모의 敵은 122 mm 榴彈砲 2門의 支援下에 10餘挺으로 推算되는 機關銃의 集中사격으로 제2중대의 세차례에 걸친 突擊을 無爲로 만들기도 하였으니 類例없는 毒種의 마지막 發惡으로 보였다. 이때 마침 無名高地(△539 東北쪽)를 占領한 제1중대(장, 金性一중위)가 △539 東側背를 直衝함으로써 挾擊을 당하게된 敵은 드디어 그 據點의 一角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서로 앞을 다투어 潰散하기에 이르렀다. 제1, 제2 兩중대는 17.00에 △539頂上을 확보하고 제35연대 제2대대(장, 金 沼소령)의 △828—△557 공격을 支援하였다. 한편 제3대대(장, 朴元寬소령)는 제1대대(장, 李南周소령)의 進擊에 따라 제3중대(장, 黃德晟중위)가 奪還한 無名高地 (俗稱 피양골 北쪽)를 無抵抗으로 掌握한 다음 제1대대와 陣地를 連繫하였으며 제2대대(장, 成泳煥소령)는 제1대대의 공격을 支援한 다음 계속 전날의 陣地를 확보 強化하였다. 이로써 연대는, 難攻의 要衝을 自負하면서 北共 제7군단의 南下增援까지 固守할 것을 自畵自讚하던 敵에게 一大強打를 加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그 間의 激戰으로 많은 兵力의 損失을 보게된 연대는 이날 對戰車攻擊대대로부터 장교 6명과 사병 189명을 補充받아 戰力을 더욱 強化하였다.

6월 13일 : 사단장 閔機植준장은 이날 공격開始以來 거듭된 激戰을 치룬 제27연대(장 俞義濬대령)를 사단예비로 再編成토록 하는 한편 제35연대(장, 高白圭대령)를 左一線에 展開케하여 敗敵을 계속 追擊하면서 Kansas線으로 突進키로 決心하였으며 제36연대(장, 李承雨중령)는 더욱 果敢한 공격으로 우선 △1,122의 敵陣을 奪取하도록 激勵하였다.

1. 제36연대장, 李承雨중령은 이날 09.00를 期하여 제1대대(장, 孫介同대위)로 하여금 △1,122를 正面에서 牽制토록 하는 한편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로 하여금 △835 (△1,122東北쪽 1km)를 그리고 제2대대(장, 趙始衡중령)로 하여금 수도사단에 배속중인 제3사단 제22연대地境으로 迂回케 하여 △730(蓮花里 東北쪽)를 각각 一齊히 攻略토록 措置하였다.

이리하여 제2대대는 △1.246 東北쪽 無名高地를 占領하고 威力搜索으로 연대後方을 掌握하는 한편 再編成中에 있던 바 이날 未明을 期하여 제3사단 제22연대 地境으로 迂回하여 △730(瑞和里 東쪽 6km) 東南쪽 稜線을 確保하게 되었다. 이때에 俗稱 뒷골(論章里 西南쪽 1km)로 躍進한 제26포병대대(장, 洪昌杓소령)는 30분間에 걸친 攻擊準備射擊을 실시하였는데, 그 射程의 延伸과 同時에 제2대대는 제5중대(장, 金鐘德소위)

를 第一突擊隊로써 △730를 目標로 突進케 하였으나 敵의 執拗한 抵抗으로 一進 又一進의 激戰끝에 17 CC에 그 東南쪽의 無名高地를 占領하였다. 중대를 後續하면서 공격을 지원한 대대主力은 중대와 合勢하여 △730를 占領한 敵과 熾烈한 射擊戰을 벌여 好機를 捕捉하는대로 一擧에 突進코자 노리고 있었다 .한편 △835東南쪽 無名高地를 占領하면서 △835의 敵과 對峙하던 제3대대(장, 李圭昇 소령)는 제2대대의 △730공격에 呼應하여 제9중대(장, 鄭昌鎬소위)를 突擊隊로 하여 △835를 攻略키로 하였다. 중대장 鄭昌鎬소위는 陣頭에서 직접 指揮하여 特攻組의 手榴彈으로 敵의 據點을 逐次로 爆破하면서 八部稜線까지 肉迫한 다음, 一齊히 突擊케하여 白兵戰끝에 18.00에 △835 頂上을 奪還하였다. 이로써 △1,122의 東側背를 遮斷하게 되어 北共 제13사단 제23연대의 增援을 豫防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때에 UN空軍機가 △1,122 一帶에 대한 對地攻擊중 敵陣 깊숙히 突入한 제9중대를 敵으로 誤認한 나머지 공격을 목적으로 急降下하려는 듯 하였다. 중대장 鄭昌鎬소위는 곧 對空布板을 펌으로써 誤認被爆을 免하는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기기도 하였다. 중대는 △835頂上에서 四周防禦陣地를 編成하고 敵의 逆襲에 대비하였으며 중대의 공격을 支援한 대대主力은 △1,122 東南쪽 稜線을 따라 進擊하여 △1,122에 火力을 集中하였다. 그런데 이날 연대장 李承雨중령은 『鄭昌鎬소위가 指揮하는 1개중대가 敵의 主要據點인 △835를 奪還, 확보중』이라고 보고하였으나 閔機植준장은 처음에 그 事實을 믿으려 하지 않았으나 나중에야 비로소 확인하고 激讚하였으니 제9중대의 突擊精神이야 말로 壯烈할만하였다.

제1대대(장, 孫介同대위)는 10일과 12일의 두차례에 걸쳐 △1,122를 공격 하였으나 그 進展을 보지 못하고 그 南쪽 無名高地를 占領하면서 敵과 對峙하던 중 이날 09.00에 연대主力의 △1,122 東側背공격에 呼應하여 제1중대(장, 車東一중위)를 正面으로 제3중대(장, 朴石基중위)를 西南쪽 稜線으로 迂回시켜 一齊히 공격을 敢行하였으나 敵의 發惡은 如前하고 陣前出擊까지 敢行하므로 또다시 攻擊의 進展을 보지 못하게 되어 急編陣地에서 기관총과 迫擊砲의 火力을 集中하여 △835에 대한 敵의 增援을 妨害한 다음 제1중대(장, 車東一중위)의 掩護下에 그 西南쪽 無名高地로 逐次로 後退하였으며 제3중대(장, 朴石基중위)에서 抽出한 1개소대로써 俗稱 응골谷谷에 埋伏케하여 敵의 後方潛入을 경계토록하였다.

2. 제35연대(장, 高白圭대령)는 이날 사단장 閔機植준장의 명령에 따라 제27연대(장, 俞載濬대령)와 任務를 交代하고 사단左一線으로서 敗敵을 擊破하면서 Kansas線을 目標로 進出하기 시작하였다.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는 연대예비로써 △1,246 부근을 확보하

고 제36연대(장, 李承雨중령)의 後方경계를 담당하던중 이날 연대의 一線으로 躍進하게 되었으므로 04.00부터 機動을 시작하여 제2대대(장, 金 沼소령)를 超越한 다음 △811(瑞和里 東南쪽 1 5km)에 대한 공격을 敢行하였는데 여기에는 北共 제2사단 제6연대主力이 據點을 形成한 것으로 推定되었다. 제9, 제10兩중대는 제11, 제12兩중대의 掩護를 받으면서 俗稱 응골溪谷을 橫斷한 다음, 手榴彈攻擊의 先導下에 激戰을 展開한 결과 제10중대(장, 高衡玄소위)가 19.00에 無名高地(△811 西南쪽)를 奪還하는데 成功하였다. 이때 後續한 제9중대(장, 成宗鎬중위)는 제10중대의 掩護下에 △811頂上을 向해 突進하였으나 敵 2개중대규모가 迫擊砲를 主軸으로 하는 全自動火力을 중대에 集中하였으므로 세차례에 걸친 突擊戰도 그 進展을 보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無名高地로 逐次로 轉進한 중대는 제10중대와 合勢하여 熾烈한 射擊戰을 交換하였으며 대대主力은 제1대대의△441 (瑞和里 西南쪽3km) 占領과 동시에 金水洞으로 進擊하였다. 한편 제1대대(장, 金順喆소령)는 05.10에 전날의 陣地인 △994—無名高地에서 機動하여 (△441鳳凰村 南쪽)에 대한 공격을 敢行하였는데 이곳은 北共 제2사단 제4연대의 主力이 지키고 있는 것으로 判斷 되었다. △441공격 梯隊인 제1, 제3兩중대는 煙幕의 展張과 同時에 天挑里 西쪽의 開闊地를 躍進한 다음 敵의 兩翼을 包圍하면서 突進하여 繼戰意志를 喪失한 2개중대 규모의 敵을 一擧에 무찌르고 △441頂上을 奪還하여 四周防禦陣地를 占領하고 敵의 逆襲에 대비하였다. 전날 공격의 殊勳대대인 제2대대(장, 金 沼소령)는 이날 연대예비로 控置되어 △536(論章里 北쪽 2km)에서 再編中이었으며 연대CP는 主力의 進擊에 따라 俗稱 성황곡(龍垈一里 南쪽 1km)에서 論章里로 躍進하였다.

3. 제27연대(장, 俞載濬대령)는 이날 사단 左一線으로서의 공격任務를 제35연대(장, 高白圭대령)에 引繼하고 사단예비가 되어 연대 CP를 冠坪에서 俗稱 무쇠점(論章里 南쪽 1km)으로 推進開設하는 한편 主力은 △851—論章里一帶의 高地를 占領하여 사단後方경계를 담당하였다.

6월 14일 : 이날 사단은 右一線인 제36연대(장, 李承雨중령)가 이달 8일 以來, 연대의 進擊을 遲延시킨 △1,122의 敵을 擊砕하고 이를 奪還, 확보하는 一方 △630(連花里 北쪽 1 5km)를 占領하여 敵의 退路와 增援을 遮斷하였으며 左一線인 제35연대(장, 高白圭대령)는 △811—△730를 차례로 奪還하고 瑞花里 一帶를 확보함으로써 進擊目標인 Kansas線을 目睫에 두기에 이르렀다.

1. 제36연대 제2대대(장, 趙始衡중령)는 전날에 △730(瑞和里 東쪽 6km) 東南쪽의 無名高地를 占領하고 △730의 敵과 熾烈한 射擊戰을 展開하던중 이날 未明을 期하여 攻襲공격을 敢行하여 肉迫戰으로 一擧에 粉碎하고 이를 奪還한 다음, UN空軍機의 對地공격에 뒤이어 △630(瑞和里 東北쪽 6km)로 攻進하여 空中攻擊으로 陣地가 破壞, 露出된 2개중대 규모의 敵을 또다시 무찌르고 14.00에 頂上을 奪還함으로써 敵의 退路와 北共 제13사단 主力의 增援路를 遮斷하였다. 한편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는 전날에 △835를 奪還한 제9중대(장, 鄭昌鎬소위)를 이날도 攻擊隊로 삼아 UN軍戰爆機編隊의 공격에 뒤이어 △1,122後面을 目標로 直衝케 하였다. 중대는 △1,122東北쪽 稜線을 따라 攻進하자 1개중대규모의 敵이 陣前出擊으로 抵抗하였으나 중대는 곧 이를 一擊한 다음 13.00에 △1,122北쪽의 無名高地를 奪還하였다. 이어서 중대는 喊聲도 우렁차게 △1,122頂上을 目標로 攻進하기 시작하자 이때에 △1,122東南쪽 稜線에서 敵을 牽制하던 대대主力이 이에 呼應하여 공격을 개시함으로써 兩面에서 同時에 挾擊을 당하게 된 敵은 드디어 潰滅하기에 이르렀다. 頂上에 肉迫한 鄭昌鎬소위 陣頭指揮下의 제9중대는 一齊히 攻擊射擊을 加하여 戰意를 喪失한 敵을 擊滅하였다. 그런데 敵은 나이 어린 北共병사의 발목에 鐵鎖를 매어 죽는 瞬間까지 陣地를 固守케 하는 天人共怒할 督戰을 하고 있음이 드러나 將兵들을 더욱 義憤케 하였다.

뒤이어 △1,122頂上으로 進擊한 대대主力은 그 西北쪽 稜線으로 追擊하여 戰果를 擴大하였다.

한편 제1대대(장, 孫介同대위)는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의 공격 進展과 同時에 연대장 李承雨중령의 명령에 따라 △1,122 西쪽 稜線으로 進擊하면서 敵의 退路를 遮斷하고, 戰果를 擴大한 다음, 제3대대와 陣地를 連繫하고 敵의 反擊에 대비하였다. 이날 연대는 111명의 敵을 射殺하고 小銃 9挺, 多發銃 1挺, 手榴彈 50發과 若干의 實彈을 鹵獲하였다.

2 사단 左--線인 제35연대(장, 高白圭대령)는 이날 敵이 限死코 固守하려는 △811(瑞和里 東南쪽 1.5km)를 奪取하고 계속하여 △730(瑞和里 東쪽 1km)를 占領한 결과 敵의 主要後方基地인 瑞和里一帶를 完全히 掌握하게 됨으로써 右隣接인 제36연대(장, 李承雨중령)와의 戰線을 調整하고 Kansas線으로의 攻進態勢를 갖추기에 이르렀다.

즉,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는 전날 △811 西南쪽 無名高地를 占領하고 △811의 敵과 射擊戰을 展開하던 중, 이날 08.00부터 敢行된 UN空軍機의 對地공격에 뒤이어 제9중대(장, 成宗鎬중위)를 先攻隊로 하여 攻擊을 敢行케하였다. 敵은 空中攻擊에도 不拘하고 오히려 機關銃射擊과 방망이 手榴彈으로 執拗하게 抵抗하였으나 중대의 果敢한 近接戰으로

敵의 陣地를 爆破하고 敵의 手榴彈을 되 던지는 混戰끝에 10.00에 드디어 △811頂上을 奪還하니, 마침내 그 敵은 그 北쪽 △703로 潰退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대장 李昌得 소령은 제10중대장 高衡玄소위에게 潰散하는 敵을 急追하여 △703를 占領하여 戰果를 擴大토록 하였다. 중대는 곧 △703공격으로 移行, 81mm 迫擊砲의 遮斷射擊아래 敵에게 時間的 餘裕를 주지 않고 急進하여 敵의 收容부대를 擊碎하고 △703를 一擧에 占領하였다.

한편 제1대대(장, 金順喆소령)는 전날에 △441(鳳凰村南쪽)를 奪還하고 이를 확보하던 중,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의 공격이 進展되자 제2중대(장, 玄弘燮중위)를 先鋒隊로 삼아 散發的인 敵의 收容부대의 射擊을 迫擊砲射擊으로 制壓하면서 金水洞을 거쳐 瑞和里를 目標로 進擊토록 하였다.

이와같이 연대가 △703—瑞和里를 連한 線으로 同時에 進擊하자 敵은 據點을 喪失하고 昭陽江上流를 건너 △840—△653(瑞和里 北쪽 1km) 一帶에서 敗殘兵을 再糾合한 다음 最後의 據點을 確保하고 江畔에서 연대의 Kansas線進擊을 阻止코자 企圖하는듯이 보였다.

이때에 연대예비인 제2대대(장, 金 沼소령)는 연대主力의 突進에 따라 俗稱 응골一天桃里를 連하는 一帶로 進出하여 연대後方을 경계하였다. 이날 연대는 敵兵 118명을 射殺하고 7명을 捕虜로 하였으며 機關銃 2挺, 對戰車砲 1門, 多發銃 7挺, 小銃 3挺, 그리고 手榴彈 648發을 鹵獲하였다.

3. 사단예비인 제27제연대(장, 俞萬濬대령)는 계속 CP를 俗稱 무쇄점에 두고 △851(論章里 東쪽 2km)—論章里를 連한 線에 陣地를 占領한 다음, 부근一帶를 搜索하였다.

6월 15일 : 이날 사단은 Kansas線 부근에 最後 據點을 確保中인 敵을 각 연대가 동시에 공격하여 제36연대(장, 李承雨중령)의 右一線인 제2대대(장, 趙始衡중령)는 10.00에 最終目標인 山頭谷山—△893을 奪還한 다음 Kansas線을 目標로 進擊하였으나 左一線인 제1대대(장, 孫介同대위)와 사단 左一線인 제35연대(장, 高白圭대령)는 敵의 頑強한 抵抗으로 激戰만을 반복하였다.

1. 제36연대 제2대대(장, 趙始衡중령)는 이날 未明을 期하여 전날의 陣地인 △630(連花里 北쪽 1.5km)에서 공격을 發起하여 △839(連花里 西北쪽 3km)의 1개중대규모의 收容부대로 推定되는 敵을 奇襲한 다음 一路 Kansas線으로 突進하여 10.00에 山頭谷山—△893(釜淵洞 東南쪽 1km)線을 占領함으로써 第1着으로 Kansas線으로 進擊한 榮譽를 차지하였다.

이때에 잠시 고요를 되찾은 山岳地帶의 6월의 薰風은 士氣된 장병들의 얼굴을 어루만져 주었다. 暫時의 고요는 또다시 炸裂하는 砲擊소리에 깨졌고 兵士들의 눈초리는 다시 빛나기 시작하였다.

한편 제1대대(장, 孫介同대위)는 제2대대(장, 趙始衡중령)의 進擊과 때를 같이하여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의 支援下에 △867—706(瑞和里 東쪽 3km)의 敵의 阻止線을 突破하고 大谷里로 進擊하여 △981(瑞和里 東北쪽 4km) 東南쪽 稜線을 타고 一齊히 突進하였으나, 1개대대규모의 敵의 抵抗으로 공격이 如意치 못하였다. 대대는 天桃里(論章里 北쪽 4km)로 躍進한 제26포병대대(장, 洪昌杓소령)의 熾烈한 掩護射擊下에 그 南쪽 無名高地로 轉進하여 再編한 다음 再공격을 敢行하였으나 如前한 敵의 抵抗으로 進出線에서 急編陣地를 占領하고 熾烈한 射擊戰만을 交換하였다.

전날에 △1,122를 奪還한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는 제1대대(장, 孫介同대위)의 進擊에 後續하면서 △867—△706에 대한 공격을 支援한 다음 大谷里 南쪽 高地를 占領하여 釜淵洞에서 大谷里에 이르는 溪谷을 瞰制하고 제1대대의 △931공격을 火力支援하였다. 그런데, 이날 제2차 麟蹄地區戰鬪가 한참이던 51.4.25에 陸軍病院에 入院하였던 黃 燁 대령이 또다시 연대장으로 復歸하였다.

2 제35연대(장, 高白圭대령)의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는 제26포병대대(장, 洪昌杓소령)의 30분간에 걸친 攻擊準備射擊의 射程延伸에 뒤따라 06.00를 期하여 제10, 제11 兩중대를 第一線으로 하여 제9, 제12兩중대의 掩護下에 昭陽江上流를 徒涉한 다음, △981(瑞和里 東北쪽 4km) 西南쪽 稜線으로 迂回하여 無名高地(△840東南쪽 1km)를 占領한 다음 제11중대(장, 金正梓소위)는 △840正面으로 그리고 제10중대(장, 高衡玄소위)는 △653(瑞和里 北쪽 1km)의 東北쪽 稜線으로부터 後方으로 각각 공격을 敢行하였다. 이때 사단계획에 따라 出擊한 UN空軍機 編隊는 對空布板을 境界로 △840—△653—△535의 敵陣地를 猛打하였다. 이에 뒤이어 제11, 제10 兩중대는 一齊히 突進하였으나 險峻한 地形을 利用한 敵의 陣地는 熾烈한 空中攻擊에도 不拘하고 打擊을 받지 않고, 加田里부근에 그 陣地가 있는 것으로 推定되는 敵野砲의 支援下에 頑強하게 抵抗하여 激戰이 展開되었다. 제26포병대대(장, 洪昌杓소령)는 制壓射擊을 加하고 공격梯隊인 제11, 제10 兩중대는 手榴彈攻擊組의 先導下에 敵의 陣地를 擊破하면서 一進又一進의 激戰을 거듭 展開한결과 제10중대(장, 高衡玄소위)는 19.30에 드디어 △653頂上을 奪還, 확보하였으나 金成梓소위가 指揮하는 제11중대는 △840 八部稜線에서 공격의 進展을 보지 못하게 되어 그 南쪽 無名高地로

逐次轉進하였으며 後續한 제9중대(장, 成宗鎬중위)는 제11중대를 增援하기 위하여 無名高地(△840南쪽)로 進擊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제1대대(장, 金順喆소령)는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의 공격開始와 同時에 제2중대(장, 玄弘燮중위)와 제3중대(장 崔忠吉중위)를 공격梯隊로 하여 砲兵掩護射擊과 煙幕遮障下에 昭陽江을 건너 △447(瑞和里 西北쪽 2km)의 敵의 前進陣地를 一擊에 突破하고 △535(瑞和里 西北쪽 2.5km)로 突進하였다. 제2중대(장, 玄弘燮중위)는 △447를 占領한 제3중대(장, 崔忠吉중위)의 支援下에 △553頂上으로 肉迫하였으나 敵의 熾烈한 機關銃 射擊으로 세 차례에 걸친 突擊戰도 그 進展을 보지 못하고 南쪽 無名高地로 轉進하여 後續支援중인 제3중대와 合同으로 熾烈한 射擊戰을 展開하다가 다시 夜間攻擊을 敢行하여 肉迫戰 끝에 다음날 01.30에 드디어 敵을 擊破하고 △535頂上을 奪還하고 後續한 제3중대와 더불어 四周防禦陣地를 編成하여 敵의 逆襲에 對備하였다. 이때에 연대예비인 제2대대(장, 金 沼소령)는 공격梯隊인 제3, 제1兩대대가 激戰을 展開하자 연대장 高白圭대령의 명령에 따라 △441(鳳凰村 南쪽)로 機動하여 공격梯隊에 대한 增援態勢를 갖추고 待機하였다.

3. 사단예비인 제27연대(장, 俞義濬대령)는 이날 제35연대(장, 高白圭 대령)의 進擊에 따라 전날의 陣地인 △851—論章里를 連한 線에서 俗稱 연예골(論章里東北쪽 2.5km)로 機動하여 사단後方경계를 담당하였다.

한편 朴元寬소령은 제3대대장에 補任된 以來 楡城地區戰鬪를 비롯하여 泰岐山과 麟蹄의 兩地區戰鬪 그리고 제2차 麟蹄地區戰鬪와 今般의 作戰에서 赫赫한 武功을 세웠으나, 이날 연대特甲 제44호에 의거, 연대 군수주임장교로 轉補되고 後任에는 연대 작전주임장교 金椿集대위가 補任되었다.

6월 16일 : 제36연대 제1대대(장, 孫介同대위)는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일부의 增援下에 △981에 대한 공격을 再起하였으나 依然한 敵의 抵抗으로 큰 進展을 보지 못하였는데, 제35연대 제1대대(장, 金順喆소령)는 01.30에 △535를 奪還한 다음, 10.30에 또다시 進擊을 시작하여 俗稱 개고개西쪽 高地를 掌握함으로써 Kansas線으로의 進擊任務를 完遂한 反面에 연대 右一線인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는 제2대대(장, 金 沼소령)의 增援을 받아 △840를 계속 공격하여 激戰을 거듭하였다.

1 제36연대 제1대대(장, 孫介同대위)는 전날에 △981(瑞和里 東北쪽 4km)를 공격 하였으나 1개대대 규모의 敵의 抵抗으로 공격의 進展을 보지 못한 채로 對峙中 이날 제11중대(장, 車喜寧중위)의 增援을 얻어 공격을 再起하였다. 제26포병대대(장, 洪昌杓소령)의 攻

擊準備射擊에 뒤이어 제1, 제2兩중대는 △981 正面으로 攻進하고 增援된 제11중대(장, 車喜寧중위)는 西쪽으로 迂回하여 側方으로부터 공격하였으나 敵의 陣前出擊으로 큰 進展을 보지 못한채로 激戰만을 거듭하였다. 한편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는 제11중대를 제1대대(장, 孫介同대위)에 增援하고 △981공격을 火力으로 支援하면서 계속 전날의 陣地를 확보하였으며 Kansas線으로 進擊한 제2대대(장, 趙始衡중령)는 散發的인 敵의 威力探索을 擊退하고 防禦陣地를 補強하였다.

2 제35연대 제1대대(장, 金順喆소령)는 전날밤에 夜間攻擊을 敢行하였는데 突擊隊인 제2중대(장, 玄弘燮중위)는 제3중대(장, 崔忠吉중위)의 掩護下에 △535頂上으로 肉迫한 다음 手榴彈을 一齊히 던져서 敵의 機關銃陣地를 破壞하고 白兵戰끝에 이날 01 30에 그 頂上을 奪還한 다음 10.30에 또다시 攻進을 시작하여 散發的인 敵 收容부대의 抵抗을 물리치고 俗稱개고개(瑞和里 北쪽 3km)西쪽의 △606를 占領함으로써 Kansas線으로의 進擊을 完了하였다. 이에 後續한 대대主力도 18 50에 Kansas線으로 進擊하여 19.40에 俗稱종배양(瑞和里 西北쪽 3.5km)부근에서 陣地를 編成하였다.

한편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는 전날에 △840에 대한 제11중대(장 金成梓 소위)의 공격이 進展을 보지 못하자 제9중대(장, 成宗鎬중위)의 增援밑에 夜間공격을 계속 斷行하였으나 또다시 激戰만을 거듭하였으므로 이날 末期를 期하여 砲兵의 支援射擊을 받으면서 대대장 李昌得소령의 陣頭指揮下에 頂上을 向하여 攻進하였다 그러나 增援을 받은 敵의 頑強한 抵抗으로 말미암아 一旦 南쪽 無名高地로 撤收하였다.

이에 연대장 高白圭대령은 연대예비인 제2대대(장, 金 沼소령)에게 即刻 일부 병력으로서 俗稱개고개로 進擊케 하여,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를 增援하되 特히 △840를 西쪽으로부터 包圍 공격하도록 命令하였다.

이에 따라 俗稱 개고개부근으로 進擊한 제6중대(장, 金東浩중위)는 사단장 閔機植준장의 緊急要請으로 出擊한 美空軍機編隊의 熾烈한 對地攻擊에 뒤이어 18.40을 期하여 △840 西쪽 稜線을 타고 攻進한 다음, 세차례에 걸쳐 攻擊戰을 敢行하였으나 亦是 큰 進捗을 보지 못하고 그 西쪽의 無名高地를 占領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3 사단예비인 제27연대(장, 俞載濬대령)는 전날에 이어 CP를 俗稱 무쇠점(論章里 南쪽 1km)에 두고 主力은 俗稱연에골(論章里 東北쪽 2.5km) 부근의 高地를 확보하면서 威力捜索을 계속하였다. 그뒤에 제36연대 제1대대(장, 孫介同대위)와 제35연대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가 △981—△840를 連한 線上에서 激戰끝에 그 進展을 보지 못하자 사단장의 명령

에 따라 超越攻擊態勢를 갖추게 되었다.

6월 17일 : 이날 사단은 제36연대 제1대대(장, 孫介同대위)가 △981를, 그리고 제35연대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가 △840를 각각 奪還함으로써 공격開始 以來 14일간에 걸친 激戰끝에 사단作命 제45호(51.6.4)에 의거한 Kansas 線進擊의 作戰任務를 完遂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사단예비인 제27연대(장, 俞義濬대령)는 Kansas線 北쪽에 搜索基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35연대(장, 高白圭대령)를 超越한 다음 釜淵口—水谷里에 대한 공격을 開始하였다.

1. 제36연대 제1대대(장, 孫介同대위)는 전날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 일부병력의 增援下에 △931에 대한 공격을 거듭하였으나 督戰으로 一貫하는 敵의 發惡的인 抵抗으로 밤새도록 激戰중, 이날 未明을 期하여 제2중대(장, 金元俊중위)가 제3중대(장, 朴石基중위)의 掩護下에 △981正面으로 突進하는 한편 增援된 제11중대(장, 車喜寧중위)는 전날에 이어 西側方에서 包圍공격을 敢行하였다.

각 공격梯隊는 敵의 射擊陣地를 集中射擊하여 逐次로 擊破하면서 一躍又一躍의 激戰을 展開하고 16.00에는 제2, 제11兩중대가 同時에 突擊하여 白兵戰끝에 頑敵을 擊破하고 드디어 頂上을 奪還하였다.

이때 제10중대(장, 白基淳중위)는 연대계획에 따른 대대장 李圭昇소령의 명령에 의거하여 大谷里에서 釜淵洞에 이르는 作戰路를 따라 潰退하는 敵의 散發的인 抵抗을 물리치면서 △774(瑞和里 東北쪽 5.5km)를 占領한 결과 Kansas線 北쪽要地를 掌握하게 되었다. 제11중대(장, 車喜寧중위)는 제10중대와 같이 △981를 奪還하고 계속 進擊하여 Badger線一帶를 瞰制하기 爲한 搜索基地를 編成하고 대대殘餘중대는 제10, 제11兩중대와 合勢키 위하여 △774를 向하여 進擊을 준비하였다.

한편 제2대대(장, 趙始衡중령)는 15일에 이미 Kansas 線으로 進擊하여 山頭谷山—△893에 이르는 線을 확보하고 防禦陣地를 補強하는 한편 △940(山頭谷山 西北쪽 1.5km)부근에서 威力搜索을 실시하였다.

2. 제35연대(장, 高白圭대령)는 이날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가 激戰끝에 △840를 奪還함으로써 Kansas線으로의 進擊任務를 完遂하였다.

즉 제3대대(장, 李昌得소령)는 전날에 제2대대(장, 金 沼소령)의 일부병력의 增援을 받아 正面과 西側方의 兩面에서 同時突擊을 敢行하였으나 그 進展을 보지 못하고 熾烈한 射擊戰만을 거듭하던 중, 이날 대대장 李昌得소령의 陣頭指揮下에 또 다시 △840의 正面에서

突擊을 敢行하여 頂上 20m前方까지 肉迫하였을 무렵, 제5중대(장, 金甲得중위)는 제6중대(장, 金東浩 중위)의 掩護下에 △840西쪽 稜線을 타고 後方으로 迂回挾擊하여 前後 5시간에 걸친 一進一退의 激戰끝에 敵을 擊破하고 14.00에 頂上을 奪還함으로써 Kansas線으로의 進擊任務를 完遂하게 되었다.

대대는 연대장 高白圭대령의 명령에 따라 15.00에 제2대대(장, 金 沼소령)에 △840의 陣地를 引繼하고 △653(瑞和里 北쪽)로 轉進한 다음 再編하였다. 한편 전날에 Kansas線으로 進擊한 제1대대(장, 金順品소령)는 이날 12.00에 제2중대(장, 玄弘燮중위)가 占領한 俗稱 개고개正面으로 侵襲하는 2개 소대 규모의 敵을 擊退하고 계속 陣地를 확보하면서 제27연대(장, 俞義濬대령)의 超越攻擊을 支援하였다.

3. 사단예비인 제27연대(장, 俞義濬대령)는 사단主力이 Kansas線을 完全히 확보하자 사단장 閔機植준장의 명령에 따라 그 CP를 天桃里 (論章里 北쪽 3.5km)로 躍進하는 한편 제2, 제3兩대대는 제453번作戰路를 따라서 俗稱 개고개에 이른 다음, Kansas線 北方의 要地를 확보하기 위하여 17.00부터 제35연대(장, 高白圭대령)를 超越하여 釜淵口 一水谷里를 目標로 공격을 開始하였으며 제1대대(장, 李南周소령)는 연대예비로서 연대 CP경계를 담당 하였다.

라. 전투후의 개황

사단은 6월 17일에 Kansas線으로 進擊完了한 다음 사단作命 제46호에 따라 CP를 계속 松巨里에 두고 제36연대(장, 黃 煒대령)를 右一線, 제35연대(장, 高白圭대령)를 左一線, 그리고 加田里一帶로 超越進擊한 제27연대(장, 俞義濬대령)로 하여금 搜索基地를 확보케 하여 Kansas線上의 主陣地를 強化하면서 Badger線(俗稱소라지 : 加田里 東北쪽 8km—松盧坪—泥峴里)에 이르는 威力搜索을 敢行하던중, 美 제10군단作命 제46호(51.6.24)에 따라 군단예비인 제8사단 제16연대(장, 李錫鳳 중령)가 6.25.20.00附로 사단에 配屬됨으로써 사단은 戰鬪地境線을 調整하여 央戰防禦態勢를 갖추면서 Badger線에 대한 威力搜索을 더욱 強化하기에 이르렀다. 사단장 閔機植 준장은 사단作命 제47호(51.6.25.06.00)를 下達하여 새로이 配屬된 제16연대로 하여금 제36연대의 一部陣地를 引受케 하여 사단 右一線으로서 山頭谷山—△774(瑞和里 東北쪽 5.5km)를 담당케하는 한편 제36연대(장, 黃 煒대령)는 △774—俗稱 상배양(瑞和里 東北쪽 3.5km)—俗稱 개고개를 連하는 線을, 그리고 제35연대(장, 高白圭대령)는 계속 사단 左一線으로서 俗稱 개고개—俗稱 사지목이(瑞和里 西北쪽 3km)를 連하는線에 各各 陣地를 占領케 하고 Badger線에 대한 威力搜索을 계속토록 하였다.

한편 제27연대(장, 俞義濬대령)는 加田里—水曲里 一帶의 前哨線上에서 陣地를 계속 확보하고 제

453번 作戰路와 敵의 主要接近路로 判斷되는 蘆田坪一帶를 完全히 掌握케하는 一方, 敵의 偵察隊의 出沒과 捜索活動을 制壓케 하였으며, 제26포병대대(장, 洪昌杓소령)는 계속 天挑里에 陣地를 占領하면서 사단正面에 대한 一般支援을 준비하였다.

이무렵, 敵은 사단主力의 Kansas線 逆擊과 제27연대(장, 俞養濬대령)의 敵의 後方據點인 加田里一帶에 대한 超越공격으로 北共 제7군단의 南下, 增援의 企圖도 水泡로 돌아간채로 潰退를 거듭하였으며 北共 제2군단 指揮所는 加田里에서 伊布里로 撤退하고 殲滅的打擊을 입은 제2사단은 군단예비인 제27사단에 그 任務를 引繼하고 俗稱 求禮골(加田里 西北쪽 14km)에 集結하여 再編成中에 있었다 또 北共 제13사단의 제23연대는 제19, 제21兩연대에 그 陣地를 引繼하고 제13사단 指揮所가 있는 것으로 推斷되는 新灘里(加田里 東北쪽 10km)부근에서 再編成中에 있는 것으로 判斷되었다.

이로써 敵은 제13사단을 군단東翼으로 하여 俗稱소라지(加田里 東北쪽 8km)—△1,031(加田里 東北쪽 6km)—松蘆坪(加田里 北쪽 3km) 一帶에, 그리고 제27사단이 군단 西翼으로서 松蘆坪—△1026(加田里西北쪽 6.5km) 一帶에 각각 據點을 形成하여 사단과 對峙하였다. 東部戰線에서는 北共 제3군단이 제15사단을 一線으로 하여 我 제1군단(장, 白善燁소장)과 對峙하고 제1, 제45兩사단은 我軍의 反擊에서 입은 損失을 挽回하지 못한채로 後方에서 再編成中에 있었다. 또 北共 제5군단 隸下 제32사단은 決定的인 打擊을 받은 제12사단과 交代하여 美 제1해병사단과 對峙하고 제6사단은 我 제7사단(장, 金容培준장) 正面에 據點을 形成하고 偵察戰을 반복하면서 增援부대의 南下를 얻은 다음 兩編成이 끝나는 대로 다시 攻勢로 轉移하고자 企圖하는 것으로 判斷되었다. 本作戰期間中 사단의 戰果와 損失은 大要 다음과 같다.

戰 果

구분 / 부대별	射殺	捕虜	多發銃	小銃	輕機	重機	BAR	SMG	60mm 迫擊砲	手榴彈
제 27 연 대	1,140	58	67	245	13	11			3	
제 35 연 대	345	34	27	43	8	6				1,148
제 36 연 대	263	113	14	69	1	1	7	2	1	50
계	1,748	205	108	357	22	18	7	2	4	1,198

損 失

구분 / 부대별	戰死	戰傷	失踪
제 27 연 대	5/43	21/434	/36
제 35 연 대	4/62	17/350	/8
계 36 연 대	2/44	5/122	/6
계	11/149	43/906	/50

§參戰者의 證言

◇제27연대 제1대대장 李南周소령

(1973년 6월 11일 제2군사령부참모장실, 소장)

寒溪里—瑞和里地區戰鬪에서 내가 指揮한 제1대대는 最初 연대예비로서 集結 待機하였는데 右一線인 제2대대가 공격의 進展을 보지 못하자 이를 增援하여 △753를 奪取한 다음, 攻擊方向을 바꾸어 明鼎山 北쪽의 敵의 要衝인 △752—△649를 血戰끝에 거듭 奪取하였다. 이로서 대대는 연대 左一線이 되어 元通—瑞和里道路右側高地群을 攻擊하면서 進擊하였는데 左隣接인 美 제1해병사단과 사단砲兵의 有効適切한 支援이 큰 도움이 되었다. 그 後, 연대는 사단예비로 轉換되었다가 제36, 제35兩연대가 Kansas線을 확보하는 即時로 제35연대를 超越하여 美 제8군 作戰概念에 따라 捜索據點을 확보키 위하여 進擊하였다.

우리 제1대대는 砲兵射程圈을 벗어나 대대 81mm 迫擊砲만의 支援下에 黎明을 期하여 無名高地를 공격하였는데 敵에게 瞰制當하는 不利한 地形이어서 激戰끝에 첫봉우리만을 奪取하고 敵과 熾烈한 防戰을 계속하였다. 나는 3개중대를 全部投入하여 突擊을 敢行하였는데 敵이 9部陵線에서 手榴彈의 彈幕을 펌으로써 공격이 頓挫되었다 그래서 特攻隊를 編成하여 突進케 하였는데 이때 대대通信將校 千소위가 쏘製拳銃을 鹵獲키 위하여 나의 명령없이 通信兵 몇명을 데리고 先頭에서 突進하여 敢鬪끝에 奇蹟的으로 頂上을 奪取하였다. 勿論 千소위는 쏘製拳銃을 鹵獲하는 所願을 풀었다. 나는 대대장병에게 千소위의 勇猛을 激讚하고 본받도록 精神訓話를 하였지만 千소위 本人에게는 基本任務를 忘却하고 獨斷行動을 한 事實을 指摘하고 注意를 喚起시켰다.

◇제36연대 제7중대 제1소대장 李周馥소위

(1973년 7월 6일, 제27사단참모장, 대령)

寒溪里에서 瑞和里로 進擊할 때인데 어느날 제2대대는 제6, 제7중대를 공격梯隊로 하여 어느 高地를 공격하였다. 이때 제6중대는 傾斜가 緩慢한 右側陵線으로 공격하고 우리중대는 傾斜가 가파른 正面으로 공격하였는데 내가 指揮하는 제1소대가 先頭에서 突進 하였다. 이때 進出이 容易한 제6중대는 敵線에 近迫하여 激突하기 始作하였는데 우리소대가 機動하는 正面에는 樹木이 우거져 若干 遲延되었으나 덕분에 8部陵線까지 隱密하게 接近할 수 있었다. 敵情을 살펴보았더니 敵은 제6중대 正面으로 增援次移動하는 한편 機關銃도 그쪽으로 射擊方向을 轉換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때가 바로 突擊의 時機라고 判斷하고 一齊히 突擊을 敢行하였다. 그리하여 頂上을 一擧에 奪取하였는데 이때 제1분대장 文奉健중사가 先頭에서 突進하여 敵의 機關銃射手를 射殺하고 그 機關銃으로 제6중대의 突擊을 阻止하는 敵後面에 射擊하여 敵을 擊滅한 武勳을 세웠다. 이 戰鬪에서 우리 소대는 한명의 損失도 없이 任務를 完遂하였는데 이는 突擊線까지 隱密하게 接近하여 奇襲的인 突擊을 敢行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2. 軍糧峴附近 戰鬪 (1951년 6월 7일부터 1951년 6월 12일까지)

(一名, 磨石峰—757高地戰鬪)

참조 · 별책부도 제20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제 7 사단	장	준장	金	容	培
제 3 연대	장	대령	鄭		震
제 1 대대	장	소령	李	鍾	宅
제 2 대대	장	대위	崔	基	宗
제 3 대대	장	소령	李	永	吉
제 5 연대	장	중령	金	相	峯
		(6월 7일까지)			
		중령	金	龍	培
		(6월 8일부터)			
제 1 대대	장	소령	羅	聲	日
제 2 대대	장	소령	朴	珠	東
제 3 대대	장	소령	尹	在	善

제 8 연대	장	대령	李	賢	進
제 1 대대	장	소령	咸	炯	甲
제 2 대대	장	소령	金	弼	虎
제 3 대대	장	대위	李	大	哲
대전차공격대대	장	소령	高	學	龍
제 7 포병단	장	중령	李	喜	泰

병력 : 9,600명

장비 : 105mm曲射砲 16문
4.2″ 重追擊砲 7문
81mm 追擊砲 52문
60mm 追擊砲 53문
3.5″ Rocket 10문

敵 軍

北共 제 5 군단	장	중장	方	虎	山
제 6 사단	장	소장	洪		林

(제1, 제13, 제15연대)

병력 · 5,800명

나. 전투전의 개황

이 戰鬪는 敵의 5월공세로 말미암아 昭陽江畔에서 豊岩里로 逐次撤收하여 잠시 그 銳鋒을 피하였던 제7사단(장, 金容培준장)이 5월 末에 다시 戰線에 參加하여, 楊口要衝을 扼守코자하는 北共제6사단을 擊破함으로써, 進擊의 突破口를 마련하는 第一擊인 동시에 昭陽江畔에서 雪辱의 緖戰이기도 한 것이다.

敵軍의 狀況 : 5월 16일에 美 제10군단(장, Edward M. Almond 중장)의 右翼인 제7사단을 強壓하여 昭陽江邊을 휩쓸었던 中共 제12, 제27兩군은, 5월 23일부터 斷行한 我軍의 反擊으로 鐵의 三角地와 金城쪽으로 潰走케 되었는데, 이때에 이들은 美 제9군단(장, Willian M. Hoge소장)의 退路遮斷으로 말미암아 많은 打擊을 받은 나머지 다른 戰線을 돌볼 겨를도 없이 後方 깊숙히 그 醜鋒을 감추고 말았다. 이때에 楊口에서 九萬里에 이르는 20km의 天然障碍物인 華川貯水池가 제9군단의 遮斷作戰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여기를 「破壞湖」라 불리게 된 緣由가 되기도 한 것이다.

한편, 이 中共軍과 合勢하여 제3군단(장, 劉載興소장) 正面에서 跳梁한 北共 제3군단과 그 東쪽 제1군단(장, 白善燁소장) 正面에서 出沒한 北共 제5군단은, 豫備隊로 後續하던 北共제2군단의 掩護아래, 麟蹄地區로 퇴각하였는데, 그 中에서 北共 제3군단은 再編次 木輝里(高城 西쪽 30km) 부근으로, 그리고 北共 제5군단(제6, 제12, 제32사단)은 華川저수지 東端의 退路를 확보하기 위하여, 楊口 부근으로 各各 撤收한 것으로 判斷되었다.

5월 31일, 捕虜의 陳述에 의하면, 北共제5군단의 제6사단은 楊口를 중심으로 그 南北 3km에 걸쳐 主力을 配置하여 楊口를 防守하고 있었으며, 제12, 제32兩사단은 그 東쪽 西川邊의 機動路를 瞰制하는 高地를 占領하면서 收容에 專力하는 것으로 分析되었는데, 이때 北共제군5단의 병력은 18.800명 규모로 推定되었다.

바로 이 무렵, 美 제1해병사단(장, Gerald C. Thomas소장)이 洪川沼에서 敵을 驅逐하면서, 華川저수지 南쪽으로 進出하자, 北共제5군단은 보다 방어에 有利한 地區로 後退한 다음 防守態勢로 轉換하였다. 그런데 제6사단은 華川저수지 東端의 迂回路(楊口—下午望)를 감제하는 △757(楊口 北쪽 7 5 km) 일대를 占據하면서 저수지 北쪽으로의 進出을 牽制하는 가운데 北共제12, 제32兩사단은 兜率山(△1,148 楊口 東北쪽 18km)에서 △731(△757 東北쪽 2.8km)에 이르는 要線의 縱深陣地에서 增援部隊의 來援을 기다리는 것으로 보였다.

이에, 美 해병사단은 계속 北共제12사단의 阻止線을 향하여 東北進하게 되고, 저수지 南쪽은 새로이 제7사단(장, 金容培준장)이 담당케 됨으로써, 저수지를 사이에 두고 北共제6사단과 對峙케 된 것이다.

△757일대를 扼守中인 北共제6사단(제1, 제13, 제15연대)의 保有兵力은 5,500명을 헤아리는 것으로 推定되었으나, 補給狀態가 如意치 못한 만큼 低下된 士氣를 고려한다면, 실제 戰鬪兵力은 1개 중대규모의 敗殘中共軍이 合流된 제1연대의 1,500명이 中樞勢力인 것으로 推斷되었다. 그러나 指揮所와 砲陣地를 △757 後斜面에 두고, 砲兵觀測所와 主力을 △757頂上에 配置한 北共제1연대는 數門의 122mm曲射砲와 120mm重迫擊砲등 상당한 火力을 지닌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地形의 利를 얻고 있는터이므로, 全般的인 形勢가 輕視를 不許하는 것으로 보였다.

我軍의 狀況 : 5월 30일에 戰線을 視察하고 東京으로 歸着한 UN軍司令官 Ridgway 대장이, 記者會見席上에서 말하기를 『4월 22일 敵의 제1차 春季攻勢以後,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中共軍 10,000餘名을 捕虜로 잡았다. 이와같은 現狀은 그들의 指揮官을 저버리는 戰士가 續出하고 있다는 證左인 즉, 補給과 增援力이 如意치 못함에 따라, 그 指揮官들은 戰士로부터 不信을 받게되었고, 나아가 그들 戰士 自身이 參戰의 動機나 繼戰의 意義에 대하여서도 차츰 의혹을 품게되고 있음을 明白하게 들

어낸 것이므로 敵으로서는 이 문제를 重大視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敵이 장차 언제, 어디에서 다시 攻勢를 취할 것인지 分明치 않으나, 우리는 어떠한 공세에도 充分히 對應할 수 있는 능력을 保有하고 있다. 敵은 이 싸움터의 勝者가될 可望이 없으니만큼, 이제 外交的인 解決의 가치를 考慮하게끔 되었다』라고 그의 所信을 披瀝하였는데, 이 會見內容은 當時의 戰況을 端的으로 代辯하는 동시에 政略的인 示唆를 內包하기도 한 것이었다.

즉, 이 聲明에서 言及된 바와 같이 바야흐로 全面北進을 위한 絶好의 局面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斷乎한 決意는 一言半句도 하지 않고, 오히려 休戰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였음을 示唆한 것으로 注目을 끌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날 中東部戰線의 제1, 美 제10兩군단에는 大邱의 8軍사령부로부터 要旨 다음과 같은 進擊命令이 下達되었다.

『제1, 美제10군단은 相互 有機的인 協調 아래, 杆城—春川—楊口에 이르는 一般線으로 진격하여, 同線上의 有利한 防禦地點을 확보하라. 그러나 別命이 없는한 그 線을 超越하여 進擊하는 것을 禁한다』

이 命令은 결과적으로, 襄陽—楊口—華川—昭川을 거쳐 臨津江口에 이르는 Kansas 線 가운데, 華川貯水池 東端의 楊口를 基點으로하여 그 東部를 杆城(襄陽 北쪽 35km)으로 까지 旋回 東北進하게 한 것인데, 이로써 中東部戰線의 이 새로운 Kansas線에는, 防禦에 유리한 地形의 확보라는 戰略的인 概念以外에 그 線에서의 進擊을 禁斷한다는 政略的인 伏線을 多分히 內包하고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判斷한 敵의 능력으로 미루어 보아도 그렇거니와, 作戰地域의 地形과 작전개념상의 이러한 制限要素에 따라, 장차 戰線은 大攻勢라고 불리우는 機動戰에서 이 Kansas線을 圍繞한 局地制限戰으로 그 樣相이 變貌되어 질 것은 自明한 노릇이었다.

이와같이, 戰局이 새로운 轉換點에 놓이게 된 무렵, 제10군단의 戰況을 살펴본다면, 右翼인 美 제3사단은 縣里地區로, 中央인 美 제2사단(제5사단을 配屬中)은 麟蹄地區로, 그리고 左翼인 美제1해병사단은 楊口地區로 향하여, 각각 진격 中이며, 제7사단은 5월 23일이래 군단예비로 下安味里에서 待機中에 있었다.

또한 군단의 隣接狀況으로는 東쪽에 加里峯—春川峯線을 따라 제1군단(장, 白善燁소장)이, 西쪽에는 北漢江을 사이에 두고 美 제9군단이 있었다 5월 30일 現在로 군단장 Almond중장은 橫城 東南쪽에 있는 군단 CP를 洪川 東北쪽으로 推進하고, 前線을 재조정하여, 군단예비인 제7사단으로 하여금 군단左翼인 美 해병사단의 戰線을 引受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사단장 金容培준장은 다음날인 5월 31일에 군단의 진격에 策應하여 사단 主力을 華川저수지 南岸으로 前進토록 하는, 作命 제113호를 下達하고 內坪里(楊口 西南쪽 20km) 北쪽 2.5km인 龍沼項에 前方指揮所를 開設하였다.

이에따라 春里에 있던 제3연대(장, 鄭震 대령)가 先遣부대로서 이날 17.00에 內坪里로 進出하고, 그 이튿날(6월 1일)에는 제5연대(장, 金相峯중령)가 또한 藥水里에서 內坪里로, 그리고 제8연대(장, 李賢進대령)가 大和里에서 富倉里(內坪里 西쪽 3m)로 각각 併進하였다.

6월 2일에 제3연대는 楸陽(內坪里 東北쪽 7km)으로 다시 躍進하여 제1대대를 예비대로 控置하고 제2, 제3兩대대를 저수지 南쪽인 月明里(楊口 西쪽 6km)에 推進시켜, 美제1해병사단의 陣地를 引受케 하였다. 이리하여 3일 12.00에 사단 戰攻대대(장, 高學龍소령)와 함께 美제1해병사단에 配屬中인

韓國 제1해병연대(장, 金大植대령)로부터, 저수지 南岸의 △470(楊口 西北 2.5km)—△596(△470 西쪽 3km)—△439(△536 西南 5km)陣地를 인수하였으며 이와 歩調를 같이하여 사단 後方(補給所)도 또한 內坪里로 追及함으로써, 사단 前線의 構成을 끝내고 군단 左翼으로서의 作戰態勢를 갖추게 되었다.

따라서 사단은, 큰 接戰없이 美 해병사단이 占據한 陣地를 引受하는 것만으로, Kansas線(사단 正面의 華川저수지가 곧 Kansas線이 었음)上의 진지를 확보케 되어, 8軍의 意圖에 副應하게 되었다. 이때의 楊口 一圓은 颱風一過 直後의 慘相 그대로 였으니 곳곳에 私屍가 累累하고 腸 Typhus등 傳染病의 蔓延으로 戰禍와 病魔에 시달린 罹災民들은 참으로 目不忍見이었다. 이에 사단은, 각급 醫務部隊와 民事要員을 收復地區에 긴급 派遣하여 防疫과 救恤에 從事토록 하였는데, 6월 4일에는 군단장 Almond중장이 다시 戰鬪地境線을 調整하여, 이날 08.00부로 제5사단(장, 閔機植준장)을 美 제2사단에서 配屬解除하는 동시에 軍團右翼師團으로 轉用, 中央의 美제1해병사단과 함께 寒溪(麟蹄 東北쪽 11km)—佳佰作里(寒溪 西쪽 16km)線에서 새로운 Kansas線으로 진격토록 함으로써, 군단前線에 戰雲이 짙어지게 되었다.

이에 사단도 未久에 반드시 저수지를 渡河進擊케 될 것으로 豫測하면서 劍光帽影이 燦然하였던 바, 이 당시 사단 右側은 楊口부근에서 美 해병사단 제1해병연대(장, Wilburt S. Brown대령) 제1대대와 連繫되고, 左側은 北漢江을 사이에 두고 제6사단 제19연대(장, 林益淳대령) 제3대대와 隣接하였는데, 사단의 각급 指揮所의 位置는 다음과 같았다.

사단 제 5 연대 포 병 단 공병대대	—內坪里	제 3 연대—楸陽 제 8 연대—富倉里 對戰車攻擊 대대—楸谷里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6월 4일에 군단 前線의 東半部에서 進擊을 시작하자 左側 美 제9군단도 또한 이에 呼應하여 白岩山—赤根山의 Ermine 線으로 前進함으로써, 全前線의 均衡維持와 右翼 美 해병사단 左一線의 進路啓開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方策의 一環으로서 이미 5월 30일에 下達된 제8軍의 進擊禁止命令에 따라 Kansas線(華川貯水池線)上에 釘着된, 제7사단의 前線을 北上시킬 수 밖에는 없으므로, 사단의 攻擊發起는 이미 旣定事實化 하게되고 다만 그 時期만을 기다릴 따름이었다.

이에 사단장 金容培준장은 곧 進擊命令이 있을 것으로 判斷한 결과 이를 即刻 實踐할 수 있도록 作戰計劃을 미리 樹立하였는데 사단正面의 地形과 敵情 및 隣接狀況을 勘案한 결과, 제1차 진격목표를 △757로 想定키로 하였다.

그런데 사단의 當面目標를 △757로 豫定하게 된 것에는 戰略上의 要點확보와 隣接부대와의 協調關係를 考慮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分析할수 있었던 것이다.

첫째 : △757는 華川저수지 北쪽으로 通하는 補給路를 壓制하는 右接境線上의 要衝이며 더구나 이곳에는 堅固한 敵의 據點이 形成되어 있음으로써, 美해병사단 左一線인 美제1해병연대(강, Wilburt S. Brown대령)의 側面을 威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의 排除가 不可避하다는 것이고,

둘째 : 이때 美해병사단은, 그 當面한 目標인 Kansas線이, 地形上의 與件으로 보아, 防禦에 不適合하다는 점을 看破한 美제1해병연대장 Brown 대령의 着想에 따라, Kansas線보다 3~4km 더 北쪽에 形成된 Kansas線 壓制高地群, 즉 兜率山에서 △757에 이르는 橫隔室稜線(이 일련의 稜線은 Brown 線이라는 非公式的인 名稱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뒤에 6월 14일에 戰線의 全面的인 再調整과 더불어 「New Kansas線」이라고 公式的으로 命名되었음)을 확보하는데 主眼을 둠에 따라 사단 正面의 △757—城谷嶺(△504) —磨石峯(△506)이 Brown線의 연장이므로, 이의 占領은 戰略的인 見地에서도 當爲性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線도 6월 14일에, New Kansas線으로 命名되었음)

이와같은 攻擊目標아래, 前線을 一瞥하면, 太白山脈의 支脈이 東北에서 西南으로 뻗어내려, 標高 700m以上의 連峯이 屹立 함으로써 楊口쪽에서 보면 可謂 城壁을 無色케 하는 疊疊 峻嶺을 이루고 있었다. 機動路로서는 東北쪽 멀리 加七峯에서 흘러내려 楊口로 돌아드는 西川과, 文登里에서 古方山里—長坪里를 거쳐 西南向으로 華川저수지에 合流되는 水入川에 沿한 道路뿐이므로 進擊過程에 있어서, 그야말로 一峯에서 一嶺으로의 飛躍을 前提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저수지 北岸의 地勢를 勘考한다면, 마땅히 西南쪽으로부터 縱隔室을 따라 공격하여야 할 것이나, 敵의 西·南쪽이 각각 北漢江과 華川저수지로, 이것이 障碍가 되어 제9군단의 側面支援이나 對岸의 橋頭堡 확보가 容易하지 않았다.

이에 사단장 金容培준장은 橫隔室을 넘어서 敵의 主抵抗線을 力攻한다는 負擔을 一掃하고, 저수지 東端으로 迂回하여 △757 東南쪽(美 해병사단 지역)에서 敵의 東側方을 공격하기로 決心한 것이다. 그리하여 6. 5. 20. CC에 作戰計劃 제5호에 따라 攻擊命令을 下達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사단은 現 防禦陣地를 계속 확보하면서, 일부 兵力으로 貯水池 東端을 迂回하여, 저수지 北쪽으로 進擊하려 한다.

② D일 H시(행동개시)와 K시(LD線 도착)및 K+X시(공격개시)는 後達한다. LD線(공격개시線)은 竹谷里(△757 東南쪽 5.5km)—下牛望(竹谷里 西南 1km)—含春里(下牛望 西南쪽 1km이며, 楊口 北쪽 2km)를 連하는 道路線上이다.

③ 제3연대는 「D일 K시」까지 연대본부와 1개대대를 小雄津里(秋陽 北쪽 5km)부근으로 前進시키고, 계속 Kansas線 방어임무를 遂行하라.

④ 제5연대는 「D일 H시」에 行動을 개시하여, 「D일 K시」까지 LD線에 進入한 다음, 「D일 K+X시」에 공격을 개시하여, △757—△5C4—△6C8線上의 陣地를 占領하라.

⑤ 제8연대는 「D일 H시」附로 제5연대의 담당지역을 引受하여, 사단指揮所와 後方을 警戒하라.

⑥ 대전차공격대대는 現 Kansas線 방어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⑦ 제7포병단은 全兵力을 統合하여, 제5연대의 進擊을 직접 支援하라.』

이 命令에 따라, 사단은 각급 捜索隊로 하여금 敵情蒐集을 강화토록 하면서, 8軍의 進擊命令만을 待機하고 있었는데, 6월 6일에 이르러 이미 豫期한 대로 8軍으로부터 군단에 대하여 要旨 다음과 같은 命令이 下達되었다. 『제7사단으로 하여금 군단前線에 併進케 하여, △917—△731間에 捜索據點을 確保토록 하라』

이에 군단장 Almond중장은 다음과 같은 命令을 내렸다.

『貴사단은 6.8. 08.00를 期하여 美해병사단 제1해병연대와 함께 攻擊을 併行하여 △757일대의 高地를 占領하고, Badger線(香爐峯 西北쪽 7km △772—漢江邊의 水於口에 이르는, Kansas線 防護를 위한 前哨線)上의 △917—△731間에 強力한 捜索據點을 확보하라』

이로써 사단은 『Badger線上의 捜索據點 확보』라는 任務를 追加케되는 가운데, 이미 마련된 計劃대로 進擊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단은 우선, △757의 占領에 注力하게 되어, 이날 15.00에 作戰指示 제50호를 다음과 같이 下達하였다.

『各級部隊는 이미 下達된 命令대로 作戰行動을 開始하라.

D일은 6월 7일이고

H시는 10.00

K시는 24.00

K+X시는 6 8.08.00이다』

(2) 작전실시

6월 7일 : 사단은 이날 공격준비를 完了하고, 사단장 金容培준장의 陣頭指揮아래, 공격部隊인 제5연대를 攻擊開始線으로 前進케 하는 한편, 제3, 제8兩연대와 對戰車攻擊大隊로 하여금 방어태세를 強化케하여 공격을 支撐토록 하였다.

1. 제5연대(장, 金相峯중령)는 이날 10.00에 연대본부를 內坪里로부터 佳蒼村(楊口 南쪽 1km)으로 推進하고, 제1대대(장, 羅龍日소령)와 제3대대(장, 尹在善소령)로써 연대의 攻擊目標인 △757과 磨石峯(△536)을 공격케 할 目的으로 LD線을 占領케 하였다. 이에따라 제1대대는 11.15에 LD線上의 含春里(楊口 北쪽 1km)에, 제2대대(장, 朴珠東소령)는17.00에 內坪里一楊口道路上의 松靑里(楊口 南쪽 2km)에, 그리고 제3대대는 14.00에 佳蒼村에 각각 進出하였다.

이리하여 제1대대는 正午에 含春里(貯水池 東端을 끼고도는 湖岸의 道路邊)에서 다음날의 공격을 준비하게 하였는데, 이날 10.00에 연대장 金相峯중령은 右隣接인 美 제1해병연대로부터 戰況을 連絡받자 곧 同地(含春里)에 進出한 다음 參謀들과 함께 西北쪽으로 트인, 湖岸의 開闊地를 通하여 敵陣을 觀望하였다.

그러자 敵은 마치 이를 노리기나 한 듯이 갑자기 20여발의 砲火力을 集中함으로써, 뜻하지 않게도 연대장이 右下肢切斷傷을 입게 되었는가 하면, 隨行하던 將校 2명과 士兵 16명이 함께 重輕傷을 입게되었다.

연대장은 곧 헬機便으로 後送케 됨으로써 연대는 공격 開始전에, 指揮官의 交代를 보게 되었다.

연대장 金相峯중령은 지난해 8월 20일에 洛東江戰線의 激戰이 그 고비를 이루었을 무렵에 大邱에서 창설된 제5연대 제3대대장으로 挺身하여, 永川戰鬪를 거쳐 德川戰鬪에 이르기까지 南과 北의 戰場을 縱橫으로 누빈 바 있었으며, 이 해 1월 20일부터는 副연대장으로서 두차례의 春季攻勢를 치루었고, 다시 5월 29일에는 연대장으로 취임 되었던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사단 참모장 李哲熙대령이 臨時로 연대장을 代理하게 되었는데, 제1대대는 일단 楊口로 轉進하고 이날 밤중으로 다시 戰列을 整備하게 되었다.

2. 제3연대(장, 鄭 震 대령)는 이날도 Kansas線 防禦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15.00에 전날 下達된 사단 命令에 따라, 연대본부와 예비대인 제1대대(장, 李鍾宅소령)를 楸陽으로부터 小雄津里로 挺進케하고, 제2, 제3兩대대로 하여금 6월 5일에 構築한 Kansas線上의 貯水池 南岸陣地를 계속 확보 토록 하였다.

이에 제3대대는 연대 右第一線으로 △470에서 東水里—柊子坪—公須里를 占領하고, 제2대대는 그 左第一線으로 △596을 中心으로 公須里—於口里間에 兵力을 配置하였다.

그리고 연대搜索隊는 工兵短艇을 利用하여 貯水池를 渡河한 다음 對岸의 酒幕거리 일대의 敵情을 수집함으로써, 제5연대의 攻擊에 協力하였다.

3. 한편 富倉里의 제8연대(장, 李賢進대령)는 전날과 다름없이 사단 豫備로서, 正午에 제3대대(장, 李大哲대위)를 內坪里로 轉進시켜 사단CP를 경계토록 하였다.

대전차공격대대(장, 高學龍소령)는 이날도 대대본부를 秋谷里에 두고, 사단 左一線으로서, 제3연대와 連繫하여, 水於口—化洞—골방천間의 Kansas線上陣地를 強化하였다.

제7포병단(장, 李喜泰중령)은 秋谷里에서 대전차공격대대를 支援하고 있던. 砲兵 1개砲隊를 統合하여, 이날 16.00에 佳蒼村에 陣地를 占領하고, 全砲隊로써 제5연대를 直接支援할 태세를 갖추었다.

6월 8일 (攻擊開始日) : 사단은 제5연대의 睡手奪發로 攻擊을 시작하였으나, 敵의 抵抗이 意外로 頑強하여 一次 占領한 高地에서의 爭奪을 演出하는 등, 紛戰을 反復하였으나 全般的인 戰況에는 별다른 進展을 보지 못하였다.

1. 제5연대(장, 金龍培중령)는 전날, 攻擊初頭에서 지휘관의 交代를 보게 됨으로써, 多少의 蹉跌도 있었으나, 이날 16.00에 金龍培중령(제6사단 제7연대 副연대장)을 새로이 연대장으로 맞이하여 心氣一轉하고 전날의 雪憤을 다짐하였다.

攻擊一線인 제1, 제3兩대대는, LD線의 進入路인 楊口—下牛望間의 機動路가 敵砲火에 露出됨을 勘案하여, 夜半 02.00부터 각각 楊口와 佳蒼村에서 行動을 개시하여 05.00에 竹谷里—下牛望間의 LD線에 進出하였는데 연대에서는 수색중대를 挺進케하여 進擊路를 探索케 하였으며 各 一線부대는 08.00부터 LD線에서의 前進을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연대 右第一線인 제3대대(장, 尹在善소령)는 軍糧峴(△757 東南 2km)—德巨里(軍糧峴 西쪽 1.2km)사이의 稜線을 따라 進擊하였는데 이때에 사단砲兵과 美 해병사단의 155mm曲射砲 1개중대가 火力을 集中하여 進出을 掩護하는 가운데 10.00부터 △757에 대한 攻略에 着手하였다.

그러나, 대대의 공격은 高地의 有利한 地形을 占한 敵의 阻止陣地가 豫想外로 堅固한 까닭으로 正午에 이르기까지 공격의 진전이 부진하였다. 따라서 挺進活動中인 연대수색중대도 敵 主抵抗線에 대한 수색 成果가 如意치 못하여, 1개소대로 分割하여 대대의 공격을 掩護하게 되었으나. 敵의 抵抗은 發惡에 가까울이만큼 執拗하여, 山腹에서 그 攻擊이 膠

着되었다.

이에 대대장 尹在善소령은 軍糧峴을 거쳐 都沙里(軍糧峴 東北쪽 1.5km)로 대대主力을 迂回시킨 다음 △757의 東南쪽으로부터 側面을 攻擊코자, 제10중대를 예비로 하고, 제11중대를 右로, 제9중대를 左로 竝攻케 하였다.

그러나, 敵은 이 △757의 固守에 특히 注力한 듯, 高地로부터 흘러내린 稜線의 要地要部를 縱深깊은 陣地帶로 編成하고 있었으며, 또 그 陣地線은 斜射와 側射로서의 火網을 構成하고 있었다.

이러한 敵의 據點은 岩壁으로 掩護되고 自然林으로 僞裝되었으므로, 支援砲兵力으로도 이를 充分히 制壓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狀況 아래에서 進擊을 強行한 대대는 萬難끝에 8部後線까지 占領하게 되었으나, 日沒로 말미암아 그 이상의 前進을 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地形上 急編陣地의 強化도 困難하므로 德巨里 北쪽 1km의 丘陵地帶에 兵力을 集結시켜, 敵의 夜襲에 대비한 태세로 전환케 되었다. 따라서 終日토록 계속한 대대의 強襲도, 다만 80여명의 방어 兵力損失을 보기만 하였으나, 이 공격으로 말미암은 敵의 損失도 결코 적지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제1대대(장, 羅熹日소령)는, 貯水池 北岸을 따라 間村(磨石峯 東쪽 2km)으로 前進하여, 역시 10.00부터 연대 左側目標인 磨石峯을 공격하였는데, 이때 대대戰線에서는 異變이 일어났다.

즉, 전날 酒幕거리(間村 南쪽 1.8km의 貯水池 北岸)일대로 進出하였던, 제3연대(장, 鄭震대령) 수색대가 磨石峯을 南쪽으로 迂回하여, 별다른 接敵없이 그 頂上을 먼저 占領한 것이었다.

이에 제1중대가 15.00에 이를 引受完了함으로써, 대대는 意外로 순조롭게 연대의 左肩部이자, 貯水池 北岸의 瞰制要點인 磨石峯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날 正午에 磨石峯의 陣地를 引受次 頂上으로 向하던 제1중대는, 高地 東側山腹에 構築된 塹壕속에서 대대의 진격을 阻止코자 하는 一團의 敵에게 奇襲的인 先制攻擊을 加한 다음 將校 2명을 包含한 6명을 捕虜로 잡고 LMG 1정과 多發銃 4정을 鹵獲하였다. 이때 敵은 그 頂上에 堅固한 防禦陣地를 마련하였으나, 兵力配置를 疏忽히 하였던 것으로 判明되었는데, 이로 보아 敵이 △757일대에 偏重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대대장 羅熹日소령은 이날밤에 敵의 逆襲이 必然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제1중대

로써 磨石峯을 계속 확보케 하는 한편 제2, 제3兩중대를 磨石峯에서 △602(磨石峯 北쪽 2km)에 이르는 稜線의 中腹을 占領케하여 夜間防禦태세를 갖추기로 하였다.

夜暗이 짙어지자, 과연 豫測한 바와 같이, 敵의 常套的인 夜襲이 敢行되었다. 이는 必是 제3대대(장, 尹在善소령)의 △757 공격氣勢에 눌려, 磨石峯을 점령당하게 됨으로써, 磨石峯이 연대의 攻勢延伸을 위한 발판으로 되어 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의 奪取를 서두르게 된 까닭이었으리라.

敵은, 西山에 기운 초나흘의 眉月을 後光삼아, 烟霧속에 虛張聲勢한 일부병력으로 하여금 △757南麓一帶에 配備된 연대前線을 牽制케 하고 1개대대규모로 城谷嶺一磨石峯間에서 그들이 익혀두었던 接近路를 이용하여, 磨石峯으로 侵襲하였다.

이리하여 21.40에 敵의 砲擊이 磨石峯에 集中되어 1km 南쪽 貯水池의 水面에, 때 아닌 烽火가 어리기 시작하였다.

이때, 敵은 磨石峯 東南쪽 稜線을 차단하여 頂上을 포위코자, 高地 右側에 배치된 제3중대를 集中공격 하여 이의 突破를 企圖 하였는데, 이 때문에 接戰과 동시에 高地의 제1중대와 제3중대 사이의 通信이 杜絶되었으며, 종내에는 9일 01.00에 제3중대가 敵의 強壓으로 陣地를 물러서게 되었다.

이에 대대장 羅鎭日소령은 대대의 前線이 潰亂된 가운데 頂上의 제1중대가 側背包圍의 威脅을 받게 되었음을 看破하고, 9일 01.30에 同중대를 下山케 하여 前線을 整備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대대는 俗稱"흑지독골"(間村 西쪽 1km)北쪽 700m에서 "용진터"(흑지독골 西南 500m)에 이르는 磨石峯 東側下麓에 兵力을 梯次로 配置하여, 支援砲擊과 더불어, 敵의 계속적인 侵襲을 阻止하였다.

이렇게 됨으로써, 敵은 다시 磨石峯을 장악하고 彼我의 態勢는 공격初頭의 陣容으로 還元되었는데, 이 激戰으로 말미암아 대대는 戰死1명과 負傷21명의 損失을 보았다.

이날, 연대예비인 제2대대(장, 朴珠東소령)는 전날의 松靑里陣地에 主力을 두고, 1개중대를 11.30에 "흑지독골"에 推進시켜, 戰況의 推移에 대비케 하였으나, 이날 밤 제1, 제3兩대대가 德巨里一間村線에서 夜間防禦陣地를 占領함에따라, 연대수색중대와 合同으로 제1, 제3兩대대의 間隙에 一據點을 形成하게되었다.

2. 제3연대(장, 鄭 震대령)와 대전차공격대대(장, 高學龍소령)는 전날에 이어 각각 Kansas 線上의 陣地를 확보하면서, 제5연대의 戰況을 銳意 注視하고 있었고, 제8연대(장,

李賢進대령)역시 富倉里에서 사단 外廓을 경계하면서 戰力을 補強하였다.

6월 9일 ; 이날 사단은 제2일째의 공격을 再開하였다. 그러나 이날도 頑強한 敵勢로 말미암아 戰況의 不振을 免치못하였으나 磨石峯을 再奪還 하는데 成功하였다.

이에 사단장 金容培준장은, 제3연대로 하여금 제5연대를 超越攻擊케 하여, 戰線의 活氣를 다시 찾도록한 다음 6일에 下達된 군단명령대로, Badger線上에 捜索據點을 확보코자 이날 20.00에 要旨 다음과 같은 作命제115호를 새로이 下達하였다.

『① 사단은 6.10. 09.00를 期하여 Badger線을 目標로 進擊 하려한다.

② 제3연대는 6.10. 09.00附로 現陣地를 제8연대에 인계함과 동시에, 1개대대를 제8연대에 配屬토록 하고, 나머지 主力을 楊口로 推進시켜, 제5연대를 超越攻擊하여 目標Ⓐ(△757)를 占領한 다음, 제5연대로 부터 目標Ⓑ(城谷嶺)를 인수하여, 계속 △568—花峯(△502)—△674를 거쳐 Badger線上의 △616—△917을 占領確保하라.

③ 제5연대는 제3연대가 목표Ⓐ를 공격하는데 呼應하여 일부병력으로 목표Ⓑ를 공격 확보하여 이를 제3연대에 인계한 다음 同연대의 左側으로 前進하여 Badger線上의 △632—△731을 占領하라. 作戰間 제103重迫擊砲中隊를 配屬한다.

④ 제8연대는 제3연대에서 配屬되는 1개대대를 併合指揮하는 한편, 예하 1개대대로써 사단指揮所를 경계토록 하고, 6.10. 07.00에 행동을 개시하여, 同日 18.00까지 제3연대로부터 引受한 Kansas線 陣地에 進入하여, 同 陣地를 強化하라.

⑤ 대전차공격대대는 사단 左一線담당의 現任務를 계속 遂行하라.

⑥ 제7포병단은 2개포대로 제3연대를, 1개포대로 제5연대를 직접 支援하라.

⑦ 제103重迫擊砲중대는 제5연대장의 指揮아래, 同연대를 직접 支援하라.

⑧ 공병대대는 사단 主補給路를 補修하고, 일부 병력으로 제8연대의 Kansas 線의 地雷地帶進入을 誘導하라.』

1. 제5연대(장, 金龍培중령)는 이날, 曇天으로 말미암아 航空支援을 받지 못하였으나' 사단 砲兵을 비롯하여 이미 △517(軍糧峴 東南쪽 3.5km)로 進出한 美해병사단 제1해병연대(장, Wilburt S. Brown대령)의 火力支援을 받는 가운데 전날과 같은 攻擊을 反復하였다. 새로이 陣頭에 나서게 된 新任 金龍培연대장은 전날 △757공격에서 苦戰한 제3대대(장, 尹在善소령)를 연대예비인 제2대대(장, 朴珠東소령)와 공격 第一線을 交代케 하였다.

이리하여 이날 아침에 集結地에서 德巨里로 兵力을 推進한 제2대대는 11.40에 제3대대와 交代하자 곧 △757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대대는 敵의 組織的인 抵抗으로 말미암아, 전날 제3대대와 같은 前轍을 밟게 됨으로써, 그도 역시 高地 中腹에 膠着되기에 이르러 별다른 進展을 보지 못하고, 16.00에 △757(德巨里 北쪽 500m) 下麓에 撤收하여 夜間防禦陣地를 占領하게 되었다.

한편 제1대대(장, 羅燾日소령)는 전날 밤에 敵의 強襲으로 戰列이 흩어졌던 제3중대를 다시 收拾한 다음, 그 右側에 제2중대를, 그리고 그 左側에 제1중대를 併進케 하여 磨石峯을 奪還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3개중대는, 밤사이에 陣地를 強化한 敵이 이를 固守코자 執拗하게 抵抗함에 따라 激戰을 展開한 끝에 마침내 이 敵을 물리치고, 15.00에 磨石峯을 다시 奪還하였다.

이에 대대장 羅燾日소령은 제3중대로 하여금 戰場 整理와 아울러 陣地를 補強토록 하고 제1, 제2兩중대는 곧 餘勢를 몰아 北쪽으로 屛風과 같이 이어진 稜線을 따라 退却하는 敵을 추격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兩 중대는 16.00에 磨石峯 北쪽 1.3km 無名高地(標高 420m정도)를 占領한 다음 18.00에 防禦陣地를 急編하였는데, 18.20에 그 東北쪽의 城谷嶺(△504)으로부터 侵襲한 1개중대규모의 敵을 맞아, 3시간동안 치열한 交戰끝에 이를 擊退하였다. 이로써 대대는 이날 밤 磨石峯과 그 北쪽 無名高地를 確保함으로써, 敵 前線의 一翼을 奪取하게 된 것이다.

한편 제3대대(장, 尹在善소령)는 戰線을 제2대대(장, 朴珠東소령)에 인계하는 동시에 右側 美 해병제1연대 제1대대(장, Robley E. West중령)와 連繫하여, 軍糧峴에서 酒幕거리에 이르는 稜線上의 △486에 연대예비진지를 占領 하였다.

이날 △757과 磨石峯戰鬪에서 거둔 연대의 戰果와 損失은 다음과 같다.

戰 果			
射 殺	92명	60m박격포	1문
捕 虜	22명	다발총	7정
鹵獲 · HMG	1정	EE 8 전화기	1대
LMG	1정	**損 失**	
BAR	8정	戰 死	3명
		負 傷	83명

2. 제3연대(장, 鄭 震대령)는 이날도 華川 貯水池 南岸의 Kansas線 陣地를 확보하면서 敵情을 수집하였는데, 20.00에 下達된 사단作命(제115호)에 따라, 20.30에 小雄津里의 연대본부 및 제1대대(장, 李鍾宅소령)를 22.00까지 楊口를 目標로 車輛機動케 한 다음 次期 공격을 준비토록 하였다. 그리고 제2대대(장, 崔基宗대위)를 제8연대에 配屬하기 위하여 계속 Kansas線을 방어케 하는 한편, 제3대대(장, 李永吉소령)로 하여금 戰

線參加에 대비하여, 現地에서 제1대대에 追隨할 機動을 준비토록 하였다.

3. 제8연대(장, 李賢進대령)는 전날에 이어 사단豫備隊로 있던 中, 사단作命에 따라 Kansas線의 一翼을 담당할 준비를 갖추었다.

대전차공격대대(장, 高學龍소령)는 계속 사단 左一線 防禦任務를 遂行하는 가운데, 제1중대로 하여금 貯水池를 건너 對岸의 瞰制高地인, 水入川 於口 左側의 △556(磨石峯 西南쪽 4.2km)를 占領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이날 낮에 工兵短艇으로 渡河한 중대는 接敵없이 目標를 占領하고, 同高地에 방어진지를 構築함으로써, 장차 사단의 全面進擊에 따른 橋頭堡를 확보하게 되었다.

6월 10일 : 사단은 이날 제3, 제5兩연대를 同時에 攻擊第一線으로 내세워, △757와 城谷嶺을 奪取토록 한 결과, 終日 反復된 熾烈한 격전끝에 이를 占領하고, 많은 戰果를 거두었는데, 13 00에는 Almond군단장이 戰線을 視察하면서 사단의 勇戰을 격려한 바 있었다.

1. 제3연대(장, 鄭 震대령)는 08.00에 연대 OP를 軍糧峴으로 推進하고, 전날 밤에 楊口로 躍進한 제1대대(장, 李鍾宅소령)로 하여금 △757를 공격케 하는 한편, 제2대대(장, 崔基宗대위)는 Kansas線에서 제8연대장의 作戰區處를 받도록 하고, 제3대대(장, 李永吉소령)를 제1대대와 함께 戰線에 參加토록 하였다.

제1대대는 06 00에 楊口를 出發하여 徒步行軍으로 下牛望一高垈里(下牛望 西쪽 2km)를 거쳐, 03 00에 연대 LD線인 △757 東南쪽 都沙里一軍糧峴에 進出한 다음, 德巨里 北쪽의 제5연대 제2대대(장, 朴珠東소령)를 超越하여, 08.40부터 20분 동안 제7포병단(장, 李薑泰중령) 2개砲隊의 공격준비포격이 끝나자 곧 09.00에 공격을 開始하였다. 이에 대대장 李鍾宅소령은 『이날 중으로 △757을 占領하라』는 연대장의 嚴命아래, 제2중대를 中心으로 제1, 제3兩중대를 각각 그 左右에 併列하여 △757 東南斜面의 稜線을 따라 頂上으로 步一步로 進擊케 하였다.

그러나, 대대 戰況 역시 전날 제5연대 제2대대와 마찬가지인 苦戰을 免치 못하였다.

이날 대대는 橫城에서 出擊한 美 海兵제214戰爆대대의 空中近接支援과 佳蒼村에서 長距離支援된 美海兵 155m曲射砲중대의 火力支援을 받았으며, 13.30부터는 戰線을 視察케 된 Almond군단장의 指導로 美海兵제1연대의 對戰車砲와 戰車自動火器 등의 協力을 얻었으나 아직도 敵線을 擊碎하기에는 充分치 못하였다.

砲兵觀測所와 直射砲陣地까지 갖추고 있는 敵의 防禦陣地는 岩盤과 木材등으로 마련되

어 그 規模나 強度에 있어서 鐵瓮과도 같았는데, 이의 僞裝과 待避施設이 또한 完璧한 까닭으로 航空爆擊이나 砲兵火力의 破壞力만으로는 이 陣地의 爆碎와 殺傷에 큰 期待를 걸 수 없을 程度였다.

따라서 敵이 自動火器와 迫擊砲의 威力을 발휘하여 대대의 前進을 妨害하므로 대대원 스스로가 手榴彈과 銃劍의 힘 만으로 制壓하면서 突進路를 開拓하여야만 되었다.

이리하여, △757 西南斜面의 岩壁地帶로 進擊한 제1중대는 두시간에 걸쳐 敵火속에서 斷崖를 기어오른 다음 11.00에 △757 西南쪽 無名高地(標高 650m정도)를 占領함으로써 △757 南쪽 제2중대의 突進을 掩護하였다.

이에 제2중대는 午後에 山頂으로 肉迫할 수 있었으나, 敵의 組織있는 火網으로 突擊直前에 戰勢가 膠着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대대 右一線으로 敵의 東側背를 攻擊하던 제3중대도 역시 敵의 執拗한 抵抗을 물리치면서 頂上을 向하여 肉薄한 결과 日沒무렵에 일부兵力으로써 敵 陣內에 突入하여 白兵戰까지 벌인끝에 敵前 至近距離에서 對峙하게 되었다.

이때에 대대장 李鍾宅소령은, 夜間에도 攻擊을 계속할 것을 決心하고, 제2, 제3兩중대로 하여금 敵 正面에서 牽制케 하는 가운데, 제1중대로써 敵陣을 突破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夜暗이 짙어지자, 제1중대(장, 裵秉魯중위)는 예비소대였던 제3소대로 2개조의 特攻隊를 編成하여, 敵의 後側背로 迂回케 한 다음, △757頂上을 向하여 不意에 奇襲케 하였다.

이리하여 21.00에 이르러 特攻隊가 敵陣으로 挺身 突入하는 즉시로 火力과 白兵力을 一時에 發揮하자 敵은 一瞬 당황하게 되었는데 이때를 노칠세라 戰機를 捕捉한 제2, 제3兩중대가 이 奇襲에 即應하여, 일제히 突擊을 敢行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한동안 漆黑속의 高地에서 刺突과 撲殺 그리고 腥風과 血雨의 凄絶한 白兵戰을 벌인 끝에 마침내 17일 02.45에 敵을 潰滅하고야 말았다. 이로써 3일간에 걸친 步砲空의 三者協同에도 堅守不動을 自負하던 敵陣이 불과 2개분대의 特攻隊 威力앞에 破碎된 것인데, 대대가 이 △757의 戰鬪에서 얻은 戰果와 損失은 다음과 같다.

戰　果

射　殺	301명
捕　虜	14명
鹵　獲 : BAR	1정
60mm박격포	1문
多發銃	7정
蘇式소총	15정
HMG실탄	500발

損　失

戰　死	5명

負 傷 47명 失 踪 1명

한편 이날 제2대대(장, 宣基宗대위)는 사단作命 제115호에 따라 제8연대(장, 李賢進대령)에 임시 配屬되어 계속 Kansas線上의 陣地를 확보하였으며, 제3대대(장, 李永吉소령)는 08.00에 陣地를 제8연대 제2대대(장, 金弼虎소령)에 引繼한 다음 10.00까지 下牛望에 進出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17.00에 이르러 다시 德巨里로 前進하고 城谷嶺(△504)을 攻擊中인 제5연대 제2대대(장, 朴珠東소령)의 陣地를 인수한 다음, 제1대대의 △757攻擊進展에 策應할 태세를 갖추었다.

2. 제5연대(장, 金龍培중령)는 이날 제3연대의 超越攻擊에 따라, 그 左側에서 敵의 主抵抗線 左半部를 剔抉하고, 目標인 △504를 占領함으로써, 一擧에 Badger線까지 躍進할 태세를 가다듬었다.

제1대대(장, 羅鎭日소령)는 일부병력으로써 磨石峯을 계속 확보케 하고, 主力으로써 09.00에 전날 占領한 無名高地로부터 그 東北쪽 1km에 있는 △602를 공격케하여 14.00에 占領함으로써, 磨石峯에서 △602에 이르는 稜線을 掌握하게 됨과 아울러 城谷嶺(△504)의 側方을 脅威하면서 다음 目標를 노리는 공격據點을 마련케 되었다.

한편 제2대대(장, 朴珠東소령)는 이날 아침, 제3연대 제1대대(장, 李鍾宅소령)에 △757 공격임무를 引繼하고, △757에서 西쪽으로 뻗어나간 無名高地(△757 西쪽 1.3km)와 그 西南쪽 1km의 城谷嶺(△504)을 공격케 되었다.

그런데 △757는 楊口에서 Brown線에 連하는 機動路를 瞰制할수 있으므로 이것을 제1關門이라고 한다면, 城谷嶺은 敵의 主抵抗線을 넘어 사단 目標인 Badger線으로 進擊하는 機動路인 동시에 主補給路인, 德巨里—金岳里를 連하는 제2의 關門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敵의 抵抗이 尋常치않을 것을 豫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대의 공격이 시작되자 敵의 抵抗은 △757에 못지않게 執拗하여, 이 城谷嶺의 공격에서 대대는 또 한차례의 激戰을 치루게 되었다.

처음에는 城谷嶺 고개마루로 向하는 死角을 利用하면서 前進하였으나, 頂上에 가까워지면서 漸次로 露出되어, 그 進擊이 如意치 않았는데, 이에 계속 공격을 強行한 제6중대(장, 尹甲炳중위)는 10餘時間에 걸친 激突끝에 18.00에 同高地를 期於코 占領하고야 말았다. 이때에 대대의 右一線 중대가 그 東쪽 無名高地(標高 620m정도)를 아울러 確保하게 됨으로써, 이날 사단의 右一線인 제3연대가 △757에서 激突하고 있을 20.00에 연대는 無名高地—城谷嶺—△602—無名高地—磨石峯에 이르는 敵陣을 모두 占領하여, 곧 Badger

線上의 연대 目標線으로 蕩進할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제3대대(장, 尹在善소령)는 전날의 예비진지를 계속 확보하고 있었는데, 이날 연대가 △602와 城谷嶺일대를 占領하는 過程에서 거둔 戰果와 損失은 다음과 같았다.

戰 果		多 發 銃	7정
射 殺	103명	蘇式小銃	12정
捕 虜	3명	損 失	
鹵 獲		戰 死	9명
LMG	1정	負 傷	81명
BAR	2정		

3. 제8연대(장, 李賢進대령)는 이날 제3연대(장, 鄭 震대령)의 戰線參加로 말미암아 Kansas線上의 사단 右一線을 담당케 되었다. 제1대대(장, 咸炯甲소령)는 內坪里에서 계속 사단 指揮所를 경계하고, 제2대대(장, 金弼虎소령)는 08.00부터 제3연대 제3대대(장 李永吉소령)의 Kansas線陣地를 引受하여 16.00에 貯水池 南岸陣地를 占領하였으며, 제3대대(장, 李大哲대위)는 연대예비로서 10.00에 연대본부와 함께 富倉里에서 水仁里로 躍進하였다.

4. 대전차공격대대(장, 高學龍소령) 主力은 계속 사단 左一線을 담당하였으며, 제1중대는 전날에 이어 △557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런데 11.00에 重迫擊砲등 重火器의 支援밑에 1개중대규모의 敵이 이를 奪取코자, 그 西北쪽 2km △702로부터 △557을 目標로 逆襲해 오자 중대는 砲兵의 火力支援도 없는 孤立無援의 상태에서 이 敵을 물리치는데 成功하였다.

6월 11일 : 전날 徹夜 계속된 △757의 激戰으로 말미암아 硝煙이 채 가시지 않은 戰線에 날이 밝자, 사단은 곧 追擊戰으로 移行하였다.

이때에 敵은, △757—城谷嶺 堅陣이 무너지게 되자 救命圖生에 汲汲한 나머지, 그 일부가 美海兵사단 正面인 △734(△757 東北쪽 3km)로 脫出하고, 그 나머지는 督戰속에 逐次로 抵抗하면서 持久와 牽制를 꾀하였다.

이에 사단장 金容培준장은 중대단위로 進擊키로 하여, 機動力을 발휘케 하는 동시에 反襲에도 신축성있게 對處하도록 하고, 主力으로써 敵의 主抵抗線인 Brown線上에 陣地를 占領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사흘동안에 걸친 一進一退에서 突破口를 擴開하게 된 사단의 第一線 各部隊는 새로운 活力으로 長坪里—金岳里線으로 突出함으로써 이날 낮중으로 각각 그 中間目標

를 確保하기에 이르렀다.

1. 제3연대(장, 鄭 震대령)는 전날 제1대대의 勇戰으로 △757을 占領한 다음 사단 作命 제115호에 따라, 제5연대 제2대대가 確保한 城谷嶺을 인수하여, 연대 OP와 제1대대본부를 同高地에 開設하고, 제3대대(장, 李永吉소령)로 하여금 제1대대(장, 李鍾宅소령)를 超越하여 敗敵을 追擊케 하였다.

제3대대는 黎明의 짙은 안개속에서 제9중대를 間村에, 제10중대는 墻內里에, 제11중대는 德巨里에 各各 展開토록 한 다음 05.20을 期하여 진격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대대 右一線인 제11중대는 德巨里에서 城谷嶺 아랫재를 지나 北쪽 2.5km △568로 진격하여 10.30에 이를 占領하였으며, 제10중대는 中央一線으로 接敵없이 城谷嶺을 넘어 11.00에 그 西北쪽 3.5km인 花峯山(△562)을 確保케 되었다.

그리고 제9중대는 대대 左一線으로서 間村에서 城谷嶺 西北 1.5km인 △674를 공격하여 06.00에 이를 占領하였다.

이로써 대대는 이날 11.30까지 연대의 目標線을 모두 占領한 다음 四周防禦를 위한 陣地를 構築하여 敵의 反擊에 대비하는 한편, 이날 午後에 각 중대에서 1개소대규모의 偵察隊를 前方 깊숙히 挺進케 하여, 水入川에 沿한 古方山里一金岳里間의 機動路(方山路)와 그 주변의 村落(長坪里一坪村一浪龍尾 等地)과 地形을 偵察토록 하였는데, 敵은 이미 △917(金岳里 北쪽 4.2km)쪽으로 멀리 退却한 듯 하였다.

이로써 미루어 보건대 △757一城谷嶺에서 一敗塗地한 敵은, 四散된 殘兵을 收拾한 다음 Badger線上의 △917일대에서 새로운 防禦를 꾀할 것으로 推斷되었다.

그런데 이날 대대는 07.45부터 08.00까지 追擊에 專力한 나머지 我軍側의 砲擊을 받아 捕虜로 한 北共將校(少佐) 1명이 橫死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대대의 追擊이 너무 빨랐기 때문에 我軍의 觀測機가 潰走하는 敵으로 誤認하고, 砲擊을 誘導하였던 까닭이었다.

한편, 이날 제1대대(장, 李鍾宅소령)는 지난밤에 占領한 △757에서 제5연대 제2대대(장 朴珠東소령)가 確保한 城谷嶺陣地를 인수하여 同線上에 陣地를 새로이 構築하면서 부대를 整備하였으며, 제2대대(장, 崔基宗대위)는 전날과 다름없이 Kansas 線陣地를 확보하였다.

2. 이날 제5연대(장, 金龍培중령) 역시, 제3연대(장, 鄭 震대령)의 追擊에 呼應하여, 10.30부터 진격을 개시하였다.

제1대대(장, 羅臻日소령)는 △602一磨石峯線에서 城主峯(磨石峯 南쪽 2km)을 거쳐 靑

松崖(城主峯 西쪽 1.5km) 부근에서부터 水入川 東岸을 따라 北進하였는데, 16.30에 藍田里(靑松崖 北쪽 1.8km)에서 水入川을 건너 그 西南쪽 700m의 安盆를 掌握한 다음, 대대 主力으로써 △619(安盆 西南 1.2km)—△703(△619 西南 2.2km)間을 占領케 하였다. 그리고 제2중대로써 △807 (△619 西北쪽 2km)를 確保케 하였는바 이는 전날 △556에서 사단 대전차공격대대(장, 高學龍소령)에 擊退되어 北上潰走中인 것으로 判斷되는, 敵 敗兵을 擊滅하기 위하여, 左側 北漢江邊의 水下里까지 遮斷線을 設置하는 措置의 一環이었다.

제2대대(장, 朴珠東소령)는 06.00에 城谷嶺陣地를 제3연대 제1대대(장, 李鍾宅소령)에 인계하고, 同연대 제3대대 제9중대가 이날 아침에 占領한 △674를 거쳐 12.00에 五味嶺(△674 西北쪽 1.5km)에 進出하였다가 다시 北進하여 18.00에 水入川邊의 中間村(五味嶺 西北쪽 1.8km)에 集結하여 夜間防禦態勢를 취하였다.

한편 제3대대(장, 尹在善소령)는 △486일대의 예비진지에서 攻擊一線인 제1, 제2兩대대의 前進에 따라, △608(五味嶺 西南쪽 1km) 南쪽 400m인 △615로 躍進하여 연대 第2線陣地를 確保하였다.

3. 제8연대(장, 李賢進대령)는 이날도 Kansas 線陣地를 接敵없이 확보하였으며, 대전차공격대대(장, 高學龍소령)는 그 主力으로써 제8연대와 呼應하면서 Kansas 線을 掌握하는 가운데, 제1중대로 하여금 △556에서 전날 擊退한 敵情을 蒐集토록 하였다. 이날 午後의 敵情에 의하면 제5연대 제1대대(장, 羅鎭日소령)가 敵의 背後깊이 遮斷을 敢行하자, 敵은 더욱 唐惶하여 그 遮斷線을 脫出한 다음 계속 北上退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대대는 21.00에 제1중대로 하여금 제5연대의 遮斷線을 目標로 敵을 壓縮케하고, 1개 소대를 工兵短艇을 利用하여 北漢江을 따라 北航케하여 水下里(△807 西南쪽 1.5km 北漢江邊)에서 △807의 제5연대 제2중대와 連繫하면서 이 退敵을 擊滅코자 하였다. 그러나 소대가 水下里에 도착하기 直前인 이날 밤 子正에 敵은 제5연대 제1대대의 遮斷線을 피하고 北漢江邊을 따라 그 跡跡을 감추고 말았으니 敵으로서는 九死一生의 幸運을 얻게 된 것이다

6월 12일 : 사단장 金容培준장은 當面의 敵情과 공격의 進展狀況을 檢討한 결과 이날 중에 目標 Badger線의 占領이 可能할 것으로 判斷하고, 사단의 主抵抗線인 Kansas線과 △757陣地를 強化하기 위하여 6.11. 18.00附로 要旨 다음과 같은 作命제116호를 下達하였다.

『① 제3연대는 Babger 線上의 目標「가」(△616—△617)를 占領한다음 제5연대에 인계

하고, Kansas線上의 右一線陣地로 復歸하라.

② 제5연대는 6.12. 07.00附로 대전차공격대대를 統合指揮하여 目標「나」(△633—△731)를 점령한 다음, 제3연대가 確保한 「가」陣地를 인수하는 동시에 登梅洞—天尾里間에 捜索據點을 設置하고 계속 敵情을 探索하라.

③ 제8연대는 6.12. 07.00附로 現陣地를 제3연대에 引繼하고 대전차공격대대가 占領한 Kansas線上 左一線陣地를 인수하라.

④ 제8연대에 配屬된 제3연대 제2대대는 6.12. 16.00附로 原隊에 復歸하라.

⑤ 대전차공격대대는 現陣地를 제8연대에 인계하고 제5연대장의 作戰區處를 받으라.』

이 作命은 제3, 제5兩연대로 하여금 이날중으로 目標線을 占領토록 하기 위한 走馬加鞭의 効를 얻고자 한 것인데, 이에 더욱 분발한 제3연대가 敵의 最後據點인 △917에서 또한번 熾烈한 激戰을 치룬 끝에 同高地를 占領함과 아울러 제5연대 역시 接敵없이 一瀉千里로 目標線에 進出케 됨으로써, 5일간에 걸쳤던 作戰을 終結케 되었다.

1. 제3연대(장, 鄭 震대령)는, 사단作命 제116호에 따라 연대가 Badger線을 占領한 다음 Kansas線上 右一線陣地로 復歸하는 것은, 사실상 제8연대(장, 李賢進대령)에 배속된 예하 제2대대(장, 崔基宗대위)가 原復되는 이날 16.00까지의 時限附임을 勘案하고, 제3대대(장, 李永吉소령)로 하여금 目標를 早期에 占領토록 厳命하였다.

이에 제3대대(장, 李永吉소령)는 方山路를 LD線으로 정하고, 05.00에 △567의 제11중대와 花峯山의 제10중대, 및 △676의 제9중대를 각각 LD線(長坪里—縣里—坪村)으로 기동케 한 다음, 제11중대는 長坪里—△513(長坪里 北쪽 1km)—△616(△513 西北쪽 2.2km)—△917(△616 西쪽 1.8km)로, 제10중대는 縣里—△616—△917로, 그리고 제9중대는 坪村—△561(坪村 北쪽 2.5km)—△917로 逐次進撃토록 할 目的아래 이날 07.00를 期하여 일제히 진격을 시작케 하였다.

이리하여 대대右第一線인 제11중대는, 長坪里에서 그 北쪽의 △513를 공격하여 同高地에서 收容部隊로 看做되는 微弱한 敵을 一蹴하고 09.20에 이 高地를 占領하였다. 이때 연대 目標의 右側 일부인 △616로 진격한 제10중대도, 縣里에서 △513를 左側으로 超越하여, 09.30에 接敵없이 同高地를 손에 넣어 △917에 連한 稜線上의 要地를 확보하게 되었는데, 이어 제11중대가 △513로부터 △616로 다시 前進함으로써, 이날 午前中으로 제10, 제11兩중대가 合同으로 △917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게 되었다.

한편, 左第一線으로 前進中인 제9중대는 坪村盆地 左側稜線을 따라 山岳險路를 踏破한

다음 10.20에 △516를 占領하자 곧 그 攻勢를 △917까지 계속하였다.

대대의 當面目標이자 사단의 最終目標 이기도 한, △917는 敵의 예비진지로 판단되는 白石山(△1,142 : △917 東北 5km)에 대한 制高點으로서의 重要性을 지니고 있는 바, 이때 1개대대規模의 敵이 同高地에 急編防禦陣地를 마련하고 여기서 死生을 決하려는 듯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리하여 正午에 제10, 제11兩중대가 △917로 부터 그 西쪽으로 완만하게 뻗은 稜線을 따라 敵의 東南쪽을 공격하였다.

敵은 곧 이를 阻止코자 안간힘을 쓰는 듯 하였으나, 이미 대대의 果敢한 追擊餘勢로 말미암아 組織的인 抵抗力을 잃은 탓인지 兩중대의 怒濤와 같은 공격 銳氣앞에 分散狀態를 露呈하고 말았다.

兩중대는 一擊에 △917 東南山腹에 形成된 敵의 抵抗線을 擊破한 다음, 그 氣勢를 늦추지 않고 頂上으로 躍進하였다. 이때에 頂上의 敵은 形勢가 不利한 가운데에서도 督戰隊의 銃뿌리 앞에서 執拗한 抵抗을 試圖한 듯 하였다.

이에 陣內로 突入한 兩중대가 과감한 白兵戰을 벌여, 한동안 敵陣에 腥風이 휘몰아치게 되었다. 이때에 제9중대가 △561로부터 北쪽 稜線으로 前進하여 敵의 西南쪽을 挾擊함으로써, 마침내 敵은 15.00에 勢窮力盡하여 많은 屍體를 遺棄한채 潰散되고 말았다.

이리하여 △917를 占領한 대대는 곧 戰場을 整理한 다음, 19.00에 同陣地를 제5연대(장 金龍培중령)에 인계하고, 22.00에 當初의 Kansas線陣地로 復歸하였다. 그런데 대대는 △917 戰鬪에서 失踪 5명이라는 가벼운 損失만으로 다음과 같은 戰果를 거두었다.

射　殺　105명
捕　虜　3명
鹵　獲　LMG 1정, HMG 2정, 다발총 9정, BAR 1정.
　　蘇式小銃　12정, 82mm 박격포탄 158발
　　60mm박격포탄 36발.

한편, 이날 제1대대(장, 李鍾宅소령)는 18.00에 △757—△504線의 陣地를 제5연대 제3대대(장, 尹在善소령)에 인계하고, 前線의 제3대대(장, 李永吉소령)와 步調를 맞추어 20.30에 車輛機動으로, 出擊前의 연대진지였던 小雄津里에 연대본부와 함께 集結하였으며, 제2대대(장, 崔基宗대위)는 16.00에 現陣地에서 제8연대(장, 李賢進대령)로부터 配屬解除되어 계속 Kansas線陣地를 확보하였다.

2. 제5연대(장, 金龍培중령) 역시 이날 07.00에 Badger線으로 向하여 進擊을 개시하였는데, 이에 따라 戰線이 점차 北進함으로써, 연대본부를 佳蒼村에서 間村(城谷嶺 東南쪽 1.5km)으로 推進하였다.

제1대대(장, 羅鑫日소령)는, 제1중대로 △703(△556 北쪽 2km) 부근의 殘敵 出沒을 制壓케 하고, 전날 밤에 △807에서 遮斷線을 설치한 제2중대와 △619의 제3중대로 하여금 대대공격목표인 △731(△807 東北쪽 2.7km)을 合同攻擊케 하여 12.00에 同高地를 奪取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연대공격목표의 일부를 일찍 확보하고, 제3연대 제3대대(장, 李永吉소령)와의 陣地交代를 待機하였는데, 15.00에 △917도 제3연대의 손에 들게 됨으로써, 19.00에 이를 引受하여, 兵力을 △917를 中心으로 그 左右에 配置하여 △616(△917 東쪽 2km)—天尾里(△917 西쪽 2km)間의 稜線에 搜索據點을 확보하였다.

한편, 이날 제2대대(장, 朴珠東소령)는 中間村에서 夜營中 戰列을 다시 整備하여, 黎明攻擊을 敢行키로 하였는데, 1개중대를 中間村과 藍田里(中間村 西南쪽 1km) 사이에서 수색 活動을 展開토록 하고, 나머지 2개중대로써 攻擊에 參加케 하였다.

이에 따라 대대主力은 10.00에 中間村 西北 2km에 있는 △596를 接敵없이 占領하고, 다시 그 北쪽으로 進擊을 계속하였다. 이들은 12.00에 제1대대(장, 羅鑫日소령)가 △731를 확보하였으므로, 이를 超越하여 12.30에는 연대의 最終目標인 △633(△731 北쪽 1.5km)를 占領할 수가 있었다.

이리하여 Badger線上에 進出하게 된 대대는, 제1대대와 함께 제3연대(장, 鄭 震대령)의 △917陣地를 인수한 다음 22.00에 제1대대 右側에서 사단 右接境線上의 方山路를 瞰制하는 登梅洞(△616 東쪽 1.5km)—△616間에 搜索據點을 確保케 되었다.

그리고 전날 △608(五味嶺 西南쪽 1km) 부근에 예비진지를 마련한 제3대대(장, 尹在善소령)는, 이날 아침 연대에 配屬된 대전차공격대대(장, 高學龍소령)에 陣地를 인계한 다음, 德巨里로 轉進하여 18.00에 제3연대 제1대대(장, 李鍾宅소령)의 △757—△504 陣地를 인수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19.00에 同陣地에 兵力配置를 끝내고 사단 前進陣地의 任務를 맡게 되었다.

3. 한편, 지난 10일에 제3연대(장, 鄭 震대령)의 陣地를 인수하고 Kansas線上의 사단 右一線을 담당케 된 제8연대(장, 李賢進대령)는 이날 사단 대전차공격대대(장, 高學龍소령)가 前進陣地의 任務를 맡고 華川貯水地를 渡北함에 따라, 다시 연대본부를 水仁里에

서 楸谷里로 移轉하여 사단左一線이 되었다.

이에 제1대대(장, 咸炯甲소령)는 계속 內坪里에서 사단指揮所를 경계하고, 제2대대(장 金弼虎소령)는 Kansas線陣地를 Badger에서 復歸한 제3연대 제3대대(장, 李永吉소령) 에 인계한 다음 雲水洞(楸谷里 北쪽 1km)으로 集結하였다. 또한 제3대대(장, 李大哲대위)는 대전차공격대대가 담당하였던 Kansas線의 △439—於口里陣地를 새로이 引受하였다.

4. 대전차공격대대(장, 高學龍소령)는 이날 07.00에 제5연대(장, 金龍培중령)에 配屬과 동시에 연대장으로부터 제3대대와 함께 前進陣地를 占領하라는 命令을 받고, 14.00에 부대를 間村으로 推進하여 17.00에 五味嶺—△608間에 兵力을 配置하는 즉시로 陣地를 強化하였다.

이로써 사단의 作戰發起 당시에 敵의 主抵抗線이었던 △757—△504—△608에 사단의 前進陣地를 設置하게 된 것이다.

라. 전투 후의 개황

제7사단(장, 金容培준장)은 이 戰鬪로써 Badger線을 向하여 進擊하면서, 다음과 같은 戰果로써, 바야흐로 시작된 山地에서의 攻防戰의 序幕을 裝飾하게 되었다.

戰　　果 (6.5~6.12 綜合)

射　殺	622명
捕　虜	50명
鹵　獲	60mm迫擊砲　2문
	LMG　4정, HMG 3정
	BAR　12정, 多發銃　34정
	小銃48정, 82mm迫擊砲彈158발
	60mm迫擊砲彈　36발,
	HMG實彈 500발, EE-8 1대
	地圖　31매

損　　失

戰　死	128명
負　傷	325명
失　踪	22명

(陸本定期作戰報告1951년 5월 분에서)

이 戰鬪以後로는, 敵이 대대적인 出擊을 斷念하고 縱深깊은 陣地強化에만 專力함으로써 사단 前面의 戰線은 7월의 무더위와 함께 小康狀態를 이루게 되었다.

敵의 動向 · 敵의 戰略的 要衝인 △757—磨石峯間의 防禦據點이 粉碎되고, 이어 그들의 예비진지에 대한 瞰制點마저 Badger線으로 진격한 사단의 手中에 떨어지게 되자, 이에 당황한 敵은 Badger線의 搜索據點을 執拗하게 攪亂하여 사단의 수색활동을 妨害하는 한편, 再攻勢를 위한 부대재편과 戰力補強에 血眼이 되어, 우선 前線維持에 안간힘을 쓰는 듯 하였다.

6월 중순, 北共 제6사단은 松峴里(長坪里 北쪽 3.5km)—仙儀堡(△917 北쪽 2km) 부근으로 退却하여 逐次陣地를 急編中에 있었고, 北共 제12사단은 美 제1해병사단(장, Gerald C. Thomas소장)의 連打로 潰走를 거듭한 끝에 Brown線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으며, 北共 제32사단은 사단正面의 六德谷

(白石山 西北 2.5km) 일대로 移動하여 제6사단과 合流함으로써 白石山 부근에서 固守할 뜻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北共 제6사단은, 그들의 第2線을 永久陣地化하려는 企圖를 隱蔽코자, 不斷히 사단 수색 據點에 대한 攪亂을 策動하여, 登梅洞—天尾里間에서는 彼我의 搜索隊가 서로 左衝右突하는 狀況을 보이게 되었다.

我軍의 動向 : 사단이 Badger線을 확보한 다음인 6월 14일에, 사단 右側의 美제1해병사단이 Brown線을 占領하자, 군단장 Almond중장이 이를 New Kansas線으로 命名하고 이 線을 군단 主抵抗線으로 設定함으로써, 이 一連의 陣地와 Badger線 수색據點의 強化를 다시 한번 촉구하였다.

이리하여 사단은 14일 18.00에 作命 제117호를 下達하여, 제3연대(장, 鄭 震대령)로 하여금 New Kansas線(△757—城谷嶺—磨石峯) 陣地를 제5연대 제3대대와 대전차공격대대로부터 인수토록하여, 연대규모로 New Kansas線를 強化케 하였다. 그리고 제5연대(장, 金龍培중령)로는 Badger線上의 搜索據點 確保에만 專念케 하는 한편, 제8연대(장, 李賢進대령)는 全兵力으로 華川貯水池 南岸을 담당케 하였으며 또 대전차공격대대(장, 高擧龍소령)로써 사단指揮所를 경비토록 하여, 各級部隊의 임무분담을 再調整하였다.

이에 따라, 6월 16일부터 제3연대는 그지휘소를 小雄津里에서 下牛望으로 推進하고, 제1대대를 德巨里에, 제2대대를 間村에, 그리고 제3대대를 연대예비로 竹谷里부근에 控置하여 △757—△504—△674에 配備하고, 長平里—金岳里—述元里 일대로 수색대를 派遣하여 제5연대 後方의 敵情을 수집토록 하였다.

한편 Badger線 확보에만 全力을 기우리게 된 제5연대는 CP를 계속 間村에 두고, 연대 全兵力으로 △616—△917—△933—△807에서 그 前方의 仙義峙부근에 있는 敵의 偵察據點을 制壓하는데 注力하였다.

또한 제8연대는 CP를 楸谷里에서 楸陽으로 移轉하고, 제1대대를 예비로 楸陽에 控置하는 가운데, 제2, 제3兩대대로써 貯水池南岸陣地를 확보 하였다. 이때 사단 사령부에서는 6월 16일 군단의 指示에 따라 각 연대에 1개중대씩 夜間遊擊隊를 編成케 하여, 作戰參謀 趙秉洪중령의 管掌下에 遊擊敎育을 실시함으로써, 山岳戰에 對備하는 等, 次期作戰을 준비하였다.

그런데 이 무렵인 6월 18일에 제3연대장 李賢進대령이 轉出하고 그 後任에는 제3연대 副연대장인 崔周鍾중령이 임명되었다. 7월 2일에는 또 제5연대장 金龍培대령(6월 15일進級)이 坪村부근에서 敵情蒐集과 前線警戒를 陣頭指揮하던 중, 13.40에 敵砲의 直擊彈으로 戰歿하였으므로 이에 사단장 金容培준장은 7월 7일에 同연대원의 士氣를 勘考하여 사단作指 제56호로, 연대戰線을 제8연대(장, 崔周鍾중령)와 交代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제5연대는 副연대장 蔡命新중령(6월 11일 赴任, 前 陸本直轄遊擊대대장)이 연대장 職務를 代理하는 가운데, 7월11일에 제8연대와 陣地를 교대하고 CP를 水仁里로 移轉하면서, 다시 貯水池南岸陣地로 復歸하였다.

따라서 제8연대는 楸陽에서 松靑里로 前進하여 제5연대의 搜索 및 警戒任務를 이어 받게 되었거니와, 이로써 본다면 지난 6월 7일 金相案연대장의 負傷에 이어서 또 한번 指揮官을 잃고 제2선으로 물러나게 된 제5연대는 이 期間中 실로 波瀾이 重疊되었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7월 14일, 仁川上陸 以來 美 제10군단을 指揮하던 Almond중장이 離任하고 그 後任에 Colvis E. Byers소장이 취임하였으며, 7월 15일에 河田烈대령(步兵學校)이 제5연대장으로 임명되어, 사단도 다시금 戰列을 가다듬어 戰機의 成熟을 기다리게 되었다.

§ 參戰者의 證言

◇ 제3연대 제1중대장 裵炳魯중위

(66.3.31 陸本 管理參謀部에서, 大領,)

華川貯水池 北쪽의 △757를 공격할 때인데, 제5연대가 먼저 공격하다가 如意치 못하여, 제3연대가 超越공격하게 되었다. 그때 연대장은 戰鬪지휘를 잘하였지만 굉장한 분이었다. 제1대대를 공격부대로 하여 高地를 공격케 하였는데 理由如何를 불문하고 高地를 꼭 占領하라는 것이었다.

낮에 종일 力攻을 거듭하였으나, 우리 중대가 담당한 正面의 地形이 절벽이어서 도저히 前進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연대장의 嚴命도 있고 해서, 내려갈수도 없게 되어 밤에 夜間奇襲을 계획하였다. 그래서 1개분대로 敵의 후방을 돌게하여 밤중에 밀고 올라갔는데, 敵은 등뒤에서 1개분대가 돌이치자 高地를 점령당한 줄 알았던지, 우왕좌왕 흩어지고 말았다.

高地에 올라가 보니까 砲彈이 많이 있었다.

아주 힘든 戰鬪였다.

◇ 제5연대 제대대장 尹在萬소령

(73.3.14 自宅에서, 豫, 대령)

6월 초, 사단이 楊口부근에 進出했을 때, 나는 연대 S—3를 趙仁俊소령과 交代하고 제3내대를 맡게 되었다.

사단으로부터 △757 공격명령을 받고, D-day 전날에 부대를 공격개시線(華川저수지 東쪽 含春里)으로 推進케 하였다. 그날 아침 연대장 金相峯중령과 나는 美 제1해병사단 제1연대 CP에 가서 상황을 청취하였는데 그때 美 해병제1연대側에서 이르기를 含春里일대는 敵砲에 露出된 지역이므로 車輛 通行을 조심하라는 것이었다.

연대장과 나는 다시 楊口를 거쳐 含春里까지 갔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마침 사단장 金容培준장이 道路변에 차를 세워놓고 敵情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래서 연대장도 사단장과 같이 쌍안경으로 저수지 건너 △757 일대를 살피게 되었는데 그때, 敵의 120mm 박격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平素에 겁이 없는 연대장은 포탄이 막떨어지는데도 당황하지 않고 계속 敵을 지켜보았다. 그러다가 바로 연대장 옆에 포탄이 떨어져, 그곳에서 연대장이 크게 부상을 당하고 후송되었다.

그래서 우리연대는 다시 楊口로 내려가 그날 밤을 새고 그 이튿날 새벽에 機動하여 △757를 공격하게 되었다.

△757공격에서 우리 대대는 피를 많이 흘렸다. 敵의 陣地가 굉장히 견고했을 뿐만 아니라 공격초동에 연대장이 부상당함으로써, 士氣가 크게 저하된데 원인이 있었다고 보는데 戰鬪에 있었서 지휘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참으로 크다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느꼈다.

3. 鷲峯附近 戰鬪 (1951년 6월 6일부터 1951년 6월 10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21호
상 황 도 제20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제6사단 장 준장 張 都 暎
제7연대 장 대령 梁 仲 鎬
제1대대 장 소령 印 聖 勳
제1중대 장 중위 金 德 出
제2중대 장 대위 高 在 權
제3중대 장 중위 安 鍾 贊
제4중대 장 대위 崔 鍾 奭
제2대대 장 소령 閔 邦 穆
제5중대 장 대위 金 奎 燦
제6중대 장 중위 金 建 六
제7중대 장 중위 柳 榮 濟
제8중대 장 대위 金 容 漢
제3대대 장 소령 宋 廣 保
제9중대 장 대위 金 禎 奎
제10중대 장 대위 鄭 有 軍
제11중대 장 중위 鄭 星 泳
제12중대 장 중위 蘇 炳 烈

支援부대
砲兵 제27대대 장 소령 朴 晶 浩
사단 工兵대대 장 중령 朴 正 采

隣接부대
右隣接 제19연대 장 대령 林 益 淳
左隣接 美제31연대 장 대령 Allen D Maclean

병 력 : 장교—139명
병—2,587명

주요장비 : 81mm迫擊砲—13문
60mm迫擊砲—26문
3.5″Rocket砲—23문
2.36″Rocket砲—4문
그밖에 105mm野砲 20문이 支援

敵 軍

中 共 제20군 장 廖 政 國
제58사단(장, 왕쯔우링)의 1個戰鬪團(연대)
제60사단(장, 劉亨雲)의 1個戰鬪團(연대)
제20군 特務團

병 력 : 3個연대 규모

주요장비 : 82mm迫擊砲 6문
60mm迫擊砲 7문
機關砲 12문
3.5″Rocket砲 9문
기타 自動火器 手榴彈 등을 保有

나. 전투 전의 개황

1951년 5월 中旬에 展開된 제2차 春季攻防戰 當時에 제6사단(장, 張都暎준장)은 龍門山(楊平 東北쪽 10km)에서 大捷한 다음, 다시 金城戰線에서 反擊을 개시하자 中西部의 山岳地帶에서 追擊戰을 펴면서 北上進出하였다.

즉, 24일에 洪川江을 건너 攻勢로 移轉하자 곧 加平 北쪽으로 突進하여 鷄冠山—北漢山—蒙德山을 차례로 踏破한 然後에, 26일부터는 春川 東北方으로 躍進하여 芙蓉山(△882)을 奪還함으로써 다시 38°線을 넘게 되었으며 攻擊開始 5일째인 28일 17.00에는 華川貯水池 南岸의 Kansas線까지 突進하였다.

이와같이 乘勝하여 一路 北上함에 따라 將兵들의 士氣는 더욱 冲天하고 戰況은 好調를 이루어 비록 前進統制線(Kansas線)에 머물기는 하였으나 바야흐로 統一의 好機라고 判斷하여 戰列을 整備하였으니, 29일에는 華川貯水池 北岸에 橋頭堡陣地를 確保하는 한편 사단 前方 指揮所를 大利里(九萬里 發電所 부근) 로 移設하고 兵力과 裝備의 補充에 힘을 기우렸다.

그러나 當時 사단이 배속된 美제9군단(장, William M. Hoge중장)의 사정은 결코 그러하지는 아니하였다. 主力이 38°線을 넘어서면서부터 例의 "無制限 北進論"이 다시 擧論되어 이 문제를 圍繞하고 國際政局은 38°線 부근의 適當한 戰線을 擇하여 戰爭을 매듭지어 보려는 微妙한 反應을 보였으며 이로 因하여 UN軍 當局에서는 情勢의 推移를 愼重히 검토하다가 어느듯 5월을 넘기고 6월에 접어들었다.

이리하여 6월 初旬에 美제8군 사령관 Van Fleet중장은 다음과 같은 結論을 짓고 이를 UN軍 사령관 Ridgway대장에게 건의하여 그 承認을 얻었다.

『38°線은 戰術的으로 何等의 價値가 없으며 南韓의 安全을 圖謀키 위하여서는 38°線 北쪽의 瞰制高地上에 방어선을 形成하여야 한다. 또한 休戰이 成立될 경우 緩衝地帶의 設定을 考慮하여 軍은 現 Kansas線으로부터 적어도 10mile 이상을 前進하여 敵에게 最大限의 損失을 줄 수 있는 陣地를 確保하여야 한다.』

이는 終戰을 예상한 要地 確保의 事前 對策으로서, 韓國軍으로서는 痛憤하기 그지 없었으나 군단의 作戰計劃은 局限된 攻擊만으로 消極化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러는 동안에 敵은 我軍의 企圖를 看破한 듯이 예비대를 投入하고 退却하던 分散兵力을 再糾合하여 Kansas線 北쪽에서 저항하기 시작함으로써 戰勢는 새로운 樣相을 띠게 되었다.

이무렵 군단은 제6사단이 華川貯水池 沿岸에 待機中인 것을 비롯하여 華川에는 美제7사단(장, Claude B. Ferenbaugh 소장)이, 華川과 史倉里 사이의 山岳地帶에는 美제24사단(장, Blackshear M. Bryan 소장)이, 그리고 史倉里 西쪽의 白雲山(△904) 一帶에는 제2사단(장, 咸炳善준장)이 各各 진출하여 攻擊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以上과 같이 美제8군사령부의 作戰 基本方針이 결정됨에 따라 군단은 6월 初에 Ermine線(白岩山—赤根山—金化의 線)을 目標로 進擊을 再開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단은 6월 6일부터 군단의 右翼을 맡아 白岩山(△1179)을 공격키로 하였다.

그런데 이 白岩山은 中西部 戰線을 가로 지른 鳳州山脈의 起點으로써, 北쪽으로는 金化—金城—昌

道에 이르기까지 敵의 戰術 策源地를 制高할 수 있고 南쪽으로는 △1,057—鷲峰—△922—△889—△643가 疊疊히 이어지면서 華川으로 뻗어 縱隔室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敵은 이곳을 固守코자 中共 제20군(장, 廖政國) 傘下의 精銳부대로 일러진 特務團과 제58사단(장, 왕쯔우링) 隷下의 1個 전투단 및 제60사단(장, 劉亨雲)의 1個 전투단이 合流한 3個연대 규모의 병력을 5월 末부터 金化에서 白岩山 南쪽으로 移動시켜 鷲峰을 中心으로 한 그 一帶의 主要高地를 占據케 하는 한편 그 一部兵力을 華川 北쪽 7km의 △643에까지 配置하여 固守防禦를 企圖하는 듯 하였다.

특히 이들은 高地마다 天然地勢를 利用하여 堅固한 有蓋陣地까지 構築하고, 個人 散兵壕는 交通壕로써 연결하여 相互 支援을 容易케 하였으며 심지어는 機關統 射手를 쇠사슬로 陣地에 묶어놓고 끝까지 抵抗케 하는 惡辣한 手法을 驅使하였다.

그러나 그 兵力규모에 比하여 火力은 보잘것 없는 것으로, 82mm 6문, 60mm 7문 및 3.5′Rocket砲 9문에 기관포 12문 정도를 갖추는 反面에 主로 手榴彈을 많이 携帶하였다.

이와 같이 敵이 陣地를 계속 強化하게 되자 사단은 早速히 이를 爭取한 다음 白岩山을 占領키로 하였는데, 사단 正面의 東側部인 日山과 在安山(△1,071)은 華川貯水池에 臨하여 突出部를 形成하고 있기 때문에 三面이 江岸에 沿함으로써 敵情이 別로 없어서 제19연대(장, 林益淳대령)가 이를 맡아 搜索戰을 펴는 程度에 지나지 않았으며 本戰鬪는 左一線으로 進出한 제7연대(장, 梁仲鎬대령)가 擔當하여 거의 單獨으로 展開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本節에서는 제7연대의 進擊상황을 中心으로 左右에서 進展된 戰況을 同時에 취급할 것이다. 當時 연대의 兵力은 장교 139명에 兵은 2,587명이었으며 重要裝備는 81mm 13문을 비롯하여 60mm 26문과 3.5″Rocket砲 23문 및 2.36″Rocket砲 4문 외에도 攻擊用 수류탄을 充分히 保有하고 포병 제27대대(장, 朴晶浩소령)가 연대를 直接支援하였다.

그밖에도 狀況에 따라 군단 自走砲의 支援이 可能하였으며 장병들의 士氣는 旺盛하였다.

연대의 右翼에는 제19연대가 掩護하였고 左翼에는 美제7사단의 제31연대(장, Allen D. Maclean대령)가 併行 공격하였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美제9군단의 제2단계 進擊作戰은 군단 작전명령 제22호로서 비롯되는 바, 그 大要에 依하면 『군단은 現 接觸線으로부터 攻擊을 再開하여 目標 Wolf(華川 北쪽 一圓)와 Fox(大成山 부근)를 점령한 다음 Ermine線(白岩山—赤根山—金化의 線)으로 進出하려 한다』 『제6사단은 現 進出線에서 공격을 개시하여 군단의 右翼을 掩護하면서 白岩山(△1179)으로 進出하라』고 하였는데 D일 H시를 6월 6일 13.00로 下達하였다.

이와같은 명령을 받은 사단장은 擔當 戰術地域과 사단의 임무를 確認한 다음 곧 作戰會議를 開催하여 熟議한 끝에 概要 다음과 같은 作戰指導方案을 마련하였다.

『本戰鬪를 2段階로 區分하여, 제1단계작전은 白岩山 以南의 重要高地를 逐次로 攻略하여 鷲峰 一帶의 敵의 本據地를 擊破키로 하고, 中間 統制線을 堂巨里(華川 東北쪽 13km)와 △1,057(華川 北쪽 13km)를 連하여 設定하며, 제2단계작전은 제1단계 작전이 끝난뒤 戰況에 따른 새로운 對策을 樹立하여 最終目標인 白岩山을 攻擊 占領키로 한다.

제1단계 작전의 指導方案은, 제7연대를 主攻으로 하여 美제17연대가 占領中인 △643의 南쪽陣地를 引受한 다음 △643—△887—△922—鷲峰의 軸線으로 逐次 攻擊케 하되 제19연를 그 東側으로 진출시켜 北漢江 上流(美제10군단과의 戰鬪地境線)의 沿岸을 따라 搜索戰을 펴면서 이를 掩護, 支援케 하며 砲兵 제27대대는 이를 直接支援하여 陣地戰으로 移行한 敵의 據點을 破壞하는데 충분한 火力을 제공케 하고 기타 工兵, 通信 및 軍需支援의 모든 힘을 제7연대에 기우리도록 한다.

제2연대는 사단의 占領陣地인 華川貯水池 北岸의 橋頭堡陣地를 引受하여 主力이 中間目標를 탈취할 때까지 이를 계속 固守, 維持케 한다.

특히 이번 戰鬪에서는 사단 工兵대대의 1個중대를 支援시켜 高地를 奪還할 때마다 즉각 鐵條網의 架設과 地雷埋設 등의 作業을 專擔케 한다.』

以上과 같이 사단의 方針이 決定되자 主攻연대를 指揮케 된 제7연대장 梁仲鎬대령은 麾下의 대대장과 참모를 帶同하고 地形偵察을 직접 실시하는 동시에 美제17연대장 Powell대령과 陣地交代를 事前에 협조하고 포병대대장 朴晶浩소령과 火力支援관계를 協議한 다음 要旨 다음과 같은 연대 작전명령 제50호(6. 5. 23.00)를 下達하였다.

『① 연대는 目標 "1" "2" "3"을 탈취한 다음 鷲峰으로 進出하려한다.

② 제1대대는 祐長洞으로 躍出하여 목표 "1"의東側背를 強襲하는 동시에 1個중대 규모의 兵力으로써 목표 "2"를 공격하여 敵의 增援을 遮斷하라.

③ 제2대대는 美제17연대의 陣地를 引受하여 목표 "1"을 正面에서 공격하되, 공격간 特攻隊를 編成 運用 하라.

④ 제3대대는 1個중대 규모의 兵力을 공격梯隊의 左端으로 진출시켜 左側方을 掩護케하고 主力은 △483에서 待機하면서 목표를 탈취하면 곧 引受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⑤ 搜索중대는 名勝洞과 堂巨里間의 道路邊을 수색하라. 특히 祐長洞 東北쪽의 敵情探索에 注力하라.

⑥ 各대대는 공격간 緊密한 協調를 유지하고, 對空標板을 規定에 따라 使用하라.

⑦ 공격개시 시간은 6월 6일 13.00로 한다.

⑧ 연대 補給所는 九萬里에 있으며 OP는 △601에 設置한다.』

(2) 작전실시

6월 6일 : 연대의 이날 攻擊目標는 △643(華川 北쪽 7km)인바 이 高地는 當初 사단에서 設定한 제1번 목표로서, 地勢가 嶮하고 樹木이 鬱蒼할 뿐만 아니라 華川에 이르는 大小稜線을 制扼하기 때문에 敵은 이곳에 前進陣地를 마련하고 我軍의 動靜을 살폈으며, 더우기 이러한 山勢를 利用하여 堅固한 有蓋陣地를 構築하고 執拗하게 저항함으로써 左隣接인 美제7사단(장, Claude B. Ferenbaugh소장)이 華川을 奪還한 다음 戰線을 整理하는 동안에 제17연대(장, Herbert B. Powell대령)로 하여금 이 敵陣을 擊碎케 하였으나 6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동안에 걸쳐 航空支援과 火焰放射器까지 動員한 擊滅戰을 폈음에도 不拘하고 아직 攻陷치 못한 癌的인 據點을 이루고 있었다.

이리하여 연대장 梁仲鎬대령은 이 高地를 攻擊함에 있어 正面突擊만으로서는 도저히 擊破키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背後에 대한 強打와 正面突破를 配合한 包圍를 企圖할 方針아래 우선 제1대대를 敵陣의 東北쪽으로 躍進시켜 △508에서 待機토록 하는 한편 제2, 제3 兩대대로 하여금 12.30까지 美제17연대의 陣地를 引受完了케 하였다.

이리하여 各대대는 蹉跌없이 擔當正面으로 진출한 다음, 공격 待機線에서 進擊態勢를 갖추었는데 이무렵 砲兵 제27대대(장, 朴晶浩소령)는 12.50부터 攻擊準備射擊을 개시하여 △643는 勿論이려니와 그 北쪽 2.5km의 △887와 그에 連한 敵陣의 要部에 集中砲擊을 加하였으며 연대는 이에 呼應하여 13.00에 一齊히 공격개시선에서 躍出하였다.

1. 제2대대(장, 閔邦穆소령)는 正面突擊대대로서 △332(華川 東北쪽 4.5km)에서 12.00까지 陣地를 引受한 다음 제5, 제6 兩중대를 左右 공격梯隊로 전개하고 제7중대를 예비로 하여 各己 前進 機動路와 目標를 選定한 뒤 13.00부터 敵의 正面을 向하여 突進하였다.

이리하여 △458에서 敵의 警戒組를 一蹴한 대대는 계속 이날의 目標인 △643로 進擊하였는데, 여기서는 대대규모의 敵이 砲擊에도 支撐이 可能한 有蓋壕에서 迫擊砲와 各種 自動火器 및 手榴彈 等으로 頑強히 저항 함으로써 두차례에 걸친 突擊을 감행하였음에도 不拘하고 熾烈한 격전만이 反復되자 대대장은 예비대인 제7중대(장, 柳榮潾중위)를 左側方으로 進出시켜 稜線이 가파른 敵의 西側背에서 挾擊토록 하는 동시에 다시 正面突破를 敢行하였다.

이때에 敵陣에서는 이와 같은 兩面공격과 제1대대 제1중대(장, 金德出중위)의 腹背強襲

으로 말미암아 一大 混亂이 惹起된 듯 하였다. 이 好機를 捕捉한 대대는 銳意突破와 分斷을 계속한 끝에 敵 射殺 200명과 捕虜 25명, 그리고 機關銃 11정과 自動火器 20정을 노획하고 20.35에 △643를 완전히 점령하였다.

그뒤 대대는 分散潰走하는 敵을 追擊하여 芝阿隅 北쪽으로 擊退시킨 다음 △643에서 四周방어陣地를 점령하고 다음 전투를 준비하였다.

2. 제2대대(장, 印聖勳소령)는 이날 下好音洞을 출발하여 敵陣(△643)의 東北쪽 3km인 △508까지 躍進한 뒤 그 南麓의 祐長洞 一帶에서 공격준비를 마치고 進擊命令이 下達되기를 待機하고 있던 바, 이날 13.00에 全面공격이 시작되자 대대장은 제1중대로 하여금 △643의 東側背를 攻擊하여 제2대대의 進出을 支援케 하는 한편 安鍾贊중위가 지휘하는 제3중대로써 그 北쪽 2.5km의 △887를 攻擊케 하여 敵陣 相互間의 增援을 遮斷하고 그 戰力을 分散케 하였다.

이리하여 祐長洞을 출발한 제1중대는 直路로 海安洞(華川 東北쪽 8km)을 넘어선 다음 △643의 東北稜線을 따라 그 腹背를 急襲하였는데, 이때 敵陣에서는 3個소대 규모의 兵力이 미처 抵抗線을 固守할 겨를도 없이 스스로 混亂상태에 빠졌으며 중대는 이를 向하여 계속 進擊하여 八部稜線까지 突擊하였으니, 이와 같은 背後의 強襲이 이날의 勝勢를 굳힌바 되었다.

이무렵 제3중대는 △887를 공격하다가 15.45부터 그 中腹에서 2個대대규모의 中共 醜虜와 熾烈한 激戰을 전개하였다. 이때 敵은 堅固한 陣地에 依據하여 火力을 集中함으로써 攻者로서는 不利하기 그지 없었으나 중대는 匍匐과 躍進을 연결한 공격으로 一步 一步 前進하여 18.00에 同 高地의 前方 300m 지점까지 肉迫하였다. 以後 戰況은 突變하여 △643에서 潰走하던 敵이 중대의 左側을 威脅하게 되고 갑자기 山野를 덮은 濃霧로 말미암아 視界가 不良한데다가 더욱이 砲擊支援이 的確치 못하여 중대는 더 이상 進出이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중대는 이날의 牽制攻擊 任務를 完遂한 터이라 대대장은 곧 △508로 隨意撤收를 命令하였거니와, 중대가 轉進할 무렵에는 日暮에 가까운데다 濃霧까지 겹쳐 機動路上의 敵情把握이 어려웠으므로 중대장은 落伍兵이 나지 않도록 鼓舞하면서 山路를 따라 急行軍을 재촉하였다.

그런데 20.40에 대대규모의 敵이 이를 利用하여 逆襲을 試圖함으로써 一時 紛戰을 빚은 바 있었으나 중대장의 沈着한 수습으로 損失없이 △508로 철수하여 24.00에는 대대의 主

力과 함께 여기에서 四周방어陣地를 점령하고 경계태세를 취하였다.

3. 제3대대(장, 宋廣保소령)는 예비대로서 華川 北쪽 3.5km의 △488에서 이날 12.00까지 陣地를 引受한 다음 제11중대(장, 鄭星泳중위)를 攻擊梯隊의 左端으로 진출시켜 제2대대를 掩護케 하는 한편 主力은 攻擊間 이 高地에서 待機하다가, 제2대대가 목표를 탈취하자 大新德부락으로 前進하여 自體警戒를 強化하였다.

4. 한편 제19연대(장, 林益淳대령)는 北漢江 沿岸을 搜索하였으나 特別한 接敵이 없이 計劃대로 진출하여 속칭 "절골"과 △1190를 連하는 線上에서 陣地를 점령하였으며, 左翼에서는 美제7사단의 제31연대(장, Allen D. Maclean대령)가 제17연대와 攻擊임무를 交代한 다음 蘆洞里까지 진출하여 제3대대의 제11중대와 戰線을 連繫하였다.

또한 사단에서 支援된 工兵중대는 이날 점령한 △643에 障碍物을 設置하고 道路를 補修하였다.

이날 연대의 綜合戰果는 推定計數까지 포함하여 365명을 射殺하고 30명을 사로 잡았으며 機關銃 13정과 각종소총 107정을 노획하고 反面에 7명이 戰死하고 31명이 負傷하였다.

6월 7일 : 전날 △643에서 痛擊을 받은 敵은 北上하여 그 一部는 △992와 鷲峰(△987)쪽으로 遁入하였으나 나머지 大部分은 △887(華川 北쪽 9km)에서 그들의 增援부대와 合勢하여 연대규모의 兵力으로 增強되자 여기에 새로운 阻止線을 形成하고 연대의 進出을 막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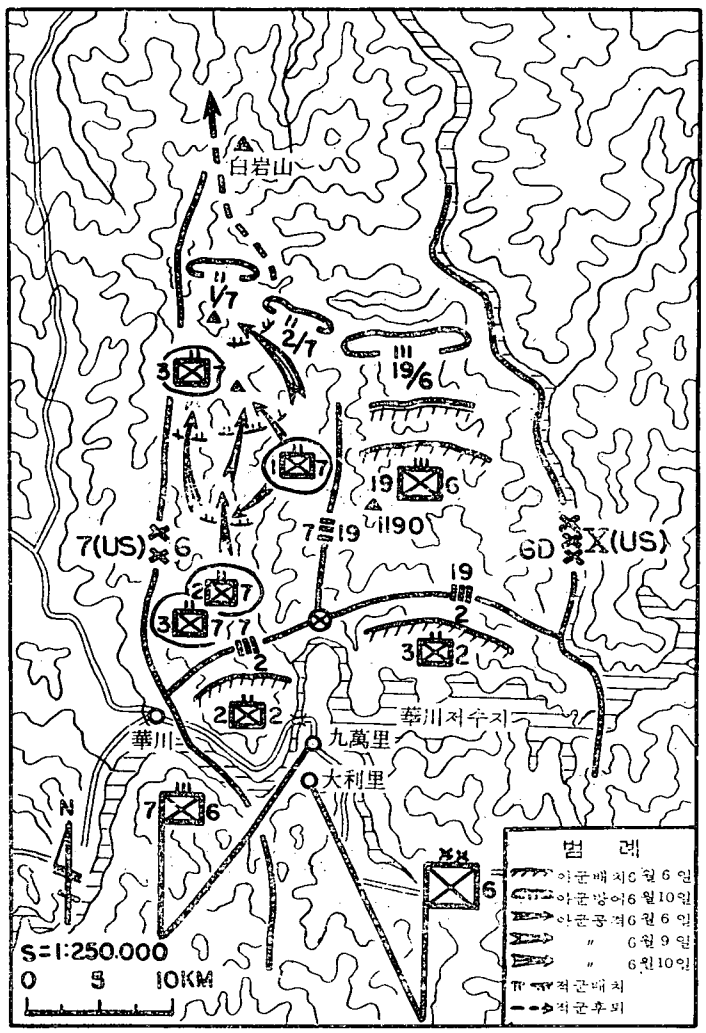
그러나 이미 前進據點을 確保한 연대는 進擊速度를 늦추지 않고 이날은 △887를 目標로 突進을 계속하였는데 如前히 제1대대를 右一線으로 하여 敵陣의 東側背를 圖謀케 하고 제2대대는 正面을 擔當토록 하였으며 제3대대는 예비로 控置하면서 繼戰케 하였다.

그런데 이 △887는 前斜面이 急傾斜를 이루어 攻擊부대로서는 不利한 反面에 後方稜線은 緩漫하여 敵의 行動이 自由로울 뿐더러 交通壕로 連結된 有蓋陣地는 抵抗力이 頑強하여 이날의 戰鬪는 一進 一退의 激戰만이 反復되었다.

1. 제1대대(장, 印聖勳소령)는 △508에서 05.00에 공격을 개시하여 松谷으로 通하는 山間小路를 따라 敵陣의 東北쪽으로 닥아선 다음, 제1중대(장, 金德出중위)를 右第一線, 제3중대(장, 安鍾贊중위)를 左第一線으로 展開하는 동시에 제2중대의 1個소대를 제3중대의 左端에 投入 補強한 다음 包圍網을 壓縮하였다.

이리하여 兩중대는 敵의 哨陣을 가볍게 물리치면서 一意進擊하다가 사단 砲兵의 火力支援이 增加됨에 따라 이에 肩接하여 急速히 前進하였는데, 09.30에는 제1중대의 突擊으로

◇ 상황도 제20호 鎭峰부근 전투



敵陣 背後의 一角을 무너뜨리고 彈雨가 빗발치는 火網을 헤치면서 계속白兵突進하였으며 특히 제1소대는 △887의 頂上까지 肉迫하였다.

이에 대대는 이 전과를 더욱 擴大하기 위하여 제3중대까지 呼應한 全面 突擊을 斷行하였는데 敵도 또한 이에 對應하면서 頑強히 저항함으로써 八部稜線上에서 彼我가 激突케 되어 攻防血鬪가 2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그런데 11.40에 이르러 敵은 새로이 대대규모의 병력을 投入하여 逆襲코자 하였으며 이로 因하여 대대는 제1중대의 先攻소대가 分散상태에 이르고 混戰亂鬪가 거듭되어 全般的인 戰況은 漸次로 不利하여져가만 하였다.

이와같이 危機에 直面하게 되자 대대장은 곧 이 急變된 戰況을 연대장에게 報告하는 동시에 그 承認을 얻어 제1, 제3 兩중대로 하여금 敵을 抑留 牽制 하면서 △508로 撤收토록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兩중대는 제2중대의 掩護下에 無名高地(△508 西北쪽 1km) 부근으로 撤收한 다음 戰列을 가다듬고 있었는데 18.30에 2個중대 규모의 敵이 오히려 逆襲을 試圖하자 대대의 全將兵은 一時에 怒濤처럼 내달아 擊滅戰을 편 끝에 65명을 射殺하고 機關銃 6정과 小銃 6정을 노획하는 한편 殘敵을 △887쪽으로 擊退하였다.

그 뒤에 대대는 日沒과 함께 △508로 復歸하여 四周陣地를 점령하고 경계태세를 더욱 強化하였다.

2. 제2대대(장, 閔邦穆소령)는 △643에서 04.00부터 機動을 시작하여 계속 진출하다가 △887 南쪽 1km지점에 이르러서는 敵의 阻制를 받게 되자 一旦 멈추어 攻擊隊形을 갖춘 다음 徐徐前進하였다. 즉 제6중대를 右第一線으로 하고 제7중대는 中央第一線으로, 그리고 제5중대는 左第一線으로 한 全力展開로써 계속 前進하였다.

이리하여 11.30에 제6, 제7중대가 敵陣에 대한 突擊距離까지 肉迫한 다음 增強된 대대규모의 敵과 熾烈한 爭奪戰을 전개하였는데 12.30에 이르러 다시 제5중대가 左端으로 進出하게 되자 대대는 全面에서 동시에 突破를 감행하였다.

그러나 有利한 陣地에 依據한 敵은 苛烈한 砲擊에도 不拘하고 執拗하게 저항하여 끝내 이 敵陣을 突破하지 못하고 數次에 걸친 白兵相衝만이 反復되었으며 더욱이 제1대대가 撤收한 뒤부터는 敵의 모든 火力이 대대 正面으로 集中함으로써 18.00까지 進退가 없는 激戰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戰況報告를 받은 연대장 梁仲鎬대령은 이날의 目標奪取가 어려울 것으로 判斷하고 現地에서 適當한 地形을 擇하여 固守토록 명령하였으니, 爾後 대대는 서서히 退陣하여 海安洞과 꼳阿隅를 連하는 稜線에서 逆襲에 對備한 四周방어陣地를 점령하고 明日의 戰鬪를 준비하였다.

3. 제3대대(장, 宋廣保소령)는 △643에서 제2대대의 陣地를 引受한 다음 主攻의 正面進出을 支援하다가 15.00부터 防守態勢를 굳게 하고 다음명령을 待機하였다.

4. 이와 같이 연대가 敵과의 指呼之間에서 對峙하면서 다음作戰을 熟議할 무렵에 제19연대는 如前히 接敵狀況이 없이 進出하여 在安山(△1,074) 南麓에서 제1대대와 戰線을 連繫하였으며, 左翼에서는 美제31연대의 進出이 遲延되어 그 右端인 "E"중대가 제3대대의 陣地 西南쪽 2km 지점에 머물었다.

6월 8일 : 이날은 日氣가 不順하여 때때로 비가 내리고 終日토록 濃霧가 山谷을 메워 敵情把握이 不確實할뿐만 아니라 的確한 砲擊支援을 期待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敵은 이러한 氣象條件을 逆用하여 그간에 破壞된 陣地를 補修하고 自由로이 增援부대를 機動케 하였으니, 연대 搜索隊의 報告에 依하면 當面의 敵情은 변함이 없으나 △922와 鷲峰一帶의 여러곳에서 대대규모 以上으로 推定되는 兵力이 陣地작업을 하는 한편 堂巨里(華川 東北쪽 15km)에서 翰墨嶺을 넘어 400~500명으로 推算되는 병력이 戰線에

投入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연대는 이날도 제2대대를 主攻으로 한 進擊을 계속하여 △887에서 抵抗하는 敵勢를 早速히 剔抉키로 하였다.

1. 제1대대(장, 印聖勳소령)는 如前히 △887의 東側背를 공격하였는데, 06.00에 △580를 出發한 대대는 西北쪽 溪谷을 따라 機動한 끝에 該 高地의 北麓에 이르자 제1, 제3 兩중대를 左右에 展開하고 제2중대를 예비로 控置하면서 進擊態勢를 갖추었다.

이때에 갑자기 짙은 안개가 溪谷을 메워 咫尺을 分辨키 어렵더니 突然 敵이 背後에 나타났는데 이는 △922(△887 北쪽 1.8km)에 潛伏하고 있던 一部가 이 안개속을 利用하여 奇襲한 것이었으며 대대로서는 그 兵力이나 공격방향을 파악키 어려워 한동안 文字 그대로 五里霧中에서 亂鬪를 전개케 되었다.

이에 대대장은 곧, 背後에서 奇襲을 노린 敵의 企圖를 看破하고 여기에서 守勢로 轉換하여 △887로 增援코자 하는 敵의 後續부대를 遮斷하는 동시에, 예비대인 제2중대(장, 高在權대위)를 投入하여 제2대대와 함께 △887를 공격토록 措置하였다.

그러나 이날의 공격은 끝내 決定的인 戰機를 잡지 못하고 相互 一進 一退를 거듭하다가 연대의 계획에 따라 18.00에 △508로 撤收하여 次後전투를 對備하였다.

2. 제2대대(장, 閔邦鎔소령)는 제3대대의 제10중대(장, 鄭有軍대위)를 增援받아 06.00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즉, 예비대가 없이 自隊의 3個 小銃中隊를 全面에 전개하는 한편 增援된 제10중대를 左端으로 迂回시켜 攪亂토록 하였으며 각 중대마다 特攻隊를 編成하여 手榴彈으로 抵抗據點을 爆破하면서 突進케 하였다.

이리하여 先鋒인 제5중대가 11.50에 特攻隊를 先頭로 突擊을 敢行하여 △887의 頂上을 奪取하자 그 뒤를 이어 제6, 제7, 제10의 3개중대가 계속 進出과 동시에 擊滅戰을 폈는데 안개속에서 不意에 急襲을 받은 敵은 潰走하는듯 하였으나 13 50에는 다시 2個대대의 규모로 增強된 中共軍이 反擊을 加하였다.

이에 대대는 모든 火力을 同時에 集中하여 이를 阻止하는 한편 포병 제27대대(장, 朴晶浩소령)에 要請하여 熾烈한 制壓사격을 加하였음에도 不拘하고 殺到하는 敵勢의 漸增과 惡天候로 因함인지 砲兵의 火力 지원이 또한 如意치 못하여 100m쯤 뒤로 一旦 물러서게 되었다.

그 뒤에도 대대는 격전을 반복하다가 16.00에 支援사격이 奏効하여 敵陣을 強打하자 이번에는 제6중대가 先鋒이 되어 突擊을 감행한 끝에 다시 該高地를 占領하였으나 더욱 증

가된 敵勢로 因하여 1시간 동안의 白兵對決도 無爲로 돌아가 할 수 없이 17.00에 철수케 되었으니 頂上의 主人이 몇차례 바뀌는 사이에 어느듯 日沒이 가까워졌다. 이때 연대장으로부터 이날의 공격을 중지하고 다음 전투를 준비하라는 要旨의 명령을 받은 대대장은 敵을 牽制하면서 서서히 대대를 撤收 하여 전날의 陣地에서 四周진지를 점령하였다.

3. 제3대대(장, 宋廣保소령)는 △643에서 전날의 陣地를 계속 確保하고 제2대대를 지원하였으며 특히 右翼의 제19연대(장, 林益淳대령)는 在安山(△1,074)을 완전히 掌握함으로써 敵陣을 威壓하였다.

6월 9일 : 연대는 이날 날씨가 개이자 05.00부터 공격을 개시하여, 제2대대는 △887의 正面에서 直衝하고 제1대대는 敵陣의 東側에서 挾擊하였으며 제3대대는 크게 左側으로 迂回하여 西側背를 攻圍하는 三面공격 隊形으로 爭奪戰을 展開한 끝에 제2의 目標인 △887를 占領함은 勿論 많은 戰果를 올리고 本戰鬪의 最終목표인 鷲峰으로 向한 공격基地를 確保하였다.

1. 제1대대(장, 印聖勳소령)는 포병 제27대대에 依한 攻擊準備射擊이 실시되고 있을 무렵에 △508에서 西北쪽 溪谷으로 機動하다가 전날 混戰을 벌인 바 있던 △887의 東北쪽 後斜面에서 공격隊形을 취하여, 제1, 제2중대가 前面에서 進攻하고 제3중대는 그 北쪽의 △922 南麓에서 主力의 進出을 掩護하였다.

이리하여 左右의 兩 進擊중대가 包圍網을 壓縮하면서 △887의 八部稜線에까지 到達하였을때 2個중대 규모의 敵이 執拗하게 저항하였으나 곧 特攻隊를 先頭로 突擊하여 이 敵陣을 擊破한 다음 계속 進擊할 무렵, 어느듯 제2대대의 제5중대가 △887의 頂上을 奪取함으로써 12.30부터 敵陣은 三面에서 同時 挾擊속에 一大 修羅場이 되었으며 더우기 제2대대의 主力이 頂上을 넘어서서 痛擊을 加하자 四散하게 된 敵의 一部가 松谷과 鷲峰 方面으로 潰退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제2대대를 도와 敵陣을 粉碎한 다음 계속進擊中, 연대장으로부터 『제1대대는 공격正面을 제2대대에 인계하고 즉시 鷲峰의 東北쪽으로 躍進하여 敵의 退路를 遮斷하고 계속 공격할 준비를 하라』는 要旨의 명령을 받게 되었다.

이에 대대장 印聖勳소령은 進出正面을 引繼하는 동시에 兵力을 收拾하여 다시 △508의 北쪽으로 돌아 翰墨嶺에 이른 다음 18.00에는 鷲峰 東쪽 2.5km에 있는 無名高地 頂上에 대대 OP를 設置하고 여기에서 四周방어 陣地를 점령하여 경계태세에 들어갔다.

2. 제2대대(장, 閔邦儆소령)는 이날 05.00에 공격을 개시하여 2個중대를 全面에 展開

한 대형으로 進攻하였는데 敵陣으로부터 瞰制되는 稜線을 따라 機動하는만큼 대대규모의 敵으로부터 熾烈한 銃, 砲擊을 받았으나 匍匐과 躍進을 互用하면서 肉迫하여 △887 南麓에서 突擊態勢를 갖추었다.

그런데 이때 마침 포병 제27대대의 支援火力으로써 이 敵陣을 強打하자 제5중대(장, 金奎燦대위)를 先頭로 一齊히 突進함으로써 12.30에 先鋒인 제5중대가 該 高地의 頂上을 奪取한데 이어 대대의 全主力이 一時에 그 一圓에 뛰어올라 敵線을 大破하였다.

여기에서 대대는 큰 戰果를 올리고 13.30에는 각 중대별로 곧 追擊에 나섰는데 이번에는 제1대대의 進出正面까지 引受하여 本戰鬪의 최종目標인 鷲峰을 目標로 突進하였다.

이렇듯 士氣冲天한 將兵들은 潰走하는 殘敵을 撲滅하면서 계속 진출하여 17.00에는 鷲峰 南쪽 1km의 △922를 攻圍하으나 敵은 그들의 中心據點을 確保키 위하여 그 前哨線에서 執拗하게 저항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대대는 日沒과 더불어 이날의 공격을 멈추고 그 進出線에서 戰備를 強化하였다.

3. 제3대대(장, 宋保廣소령)는 이날 04.00에 △643를 출발하여 芝阿隅와 龍水谷을 지나 敵陣의 西側으로 迂回, 松谷부근에서 敵을 脅威하면서 包圍코자 하였는데 제2대대가 目標를 점령하자 北上 退却하는 殘敵을 격멸하는 즉시로 △887로 進出한 다음 陣地를 引受하고 다시 예비대가 되어 待機하였다.

4. 이상과 같이 연대는 難攻의 要地인 △887를 攻略함으로써 敵의 前線腰部를 꺾어 놓았으며 이 전투에서 敵 사살 1,619명과 捕虜 5명 그리고 迫擊砲 1문에 Rocket포 7문 및 自動小銃 4정을 비롯한 各種小銃 399정과 手榴彈 2상자를 노획하였다.

이날 主力의 진출에 따라 연대 指揮所는 九萬里에서 18.00에 全連洞(華川 東北쪽 5km)으로 前進開設하였으며, 또한 右翼인 제19연대는 在安山 北쪽의 △799까지 진출하여 제1대대와 連繫 함으로써 戰線形成에 도움이 컸으나 左翼의 美제31연대는 아직 進出線이 蘆洞里 부근에 머물러 연대 左側의 地境線上에는 敵襲의 脅威가 가시지 않았다.

6월 10일 : 공격개시 5일째 되는 이날 06.00에 연대는 鷲峰(△937)을 목표로 總 進擊을 斷行하였다.

이에 앞서 포병 제27대대에서는 05.00부터 06.00까지 1시간 동안에 걸쳐 鷲峰을 비롯하여 그 前進陣地인 △922와 △768 및 그 北쪽 2km의 △1057에 이르기까지의 要部에 集中砲擊을 加하였으며, 제19연대의 제2대대(장, 朴柱根중령)는 鷲峰 東北쪽 4km의 堂巨里를 攻略하여 進攻부대를 掩護하였다. 이와 같이 步砲協同과 右翼의 支援을 받은 연대는

地形上의 不利를 克服하고 3個대대가 共히 連戰連擊으로 勇躍진출하여 연대규모의 敵을 大破하는 동시에 本戰鬪를 勝利로 매듭짓고 제2단계 작전을 위한 前進基地를 確保하였다.

1. 제1대대(장, 印聖勳소령)는 敵陣의 東側으로 迂回하여 腹背를 공격하였는데 鷲峰 北쪽 1.5km의 溪谷에서 2個중대 규모의 敵이 兩稜線을 점령하고 執拗하게 저항하여 한동안 彼我間에 熾烈한 공방전이 展開되었다. 이때 제2중대(장, 高在權대위)가 과감한 突進으로 敵陣의 一隅를 무너뜨리자 대대主力은 一時에 直衝을 加한 끝에 140명을 射殺하고 10명을 사로잡았다.

그뒤 대대장은 제2중대로 하여금 계속 鷲峰의 後斜面을 目標로 進擊하여 연대의 主力과 함께 該高地를 確保케하는 한편 제1, 제3 兩중대는 다시 戰列을 가다듬어 潰走하는 殘敵을 追擊하면서 △1,057을 目標로 躍進하였다.

이리하여 17.30에는 제1중대가 敵의 輕微한 저항을 擊破하고 △1,057의 東南쪽 無名高地를 점령한데 이어 19.20에는 제3중대가 도리어 △1,057를 점령하였다. 이때 殘敵은 圖生하기에 餘念이 없이 멀리 白岩山(△1,179) 方面으로 潰走하였으며, 대대는 여기에서 虎溪洞까지 追擊한 제3대대의 제9중대를 增援받아 防守의 隊形으로 陣地를 選定한뒤 各중대를 전개하여 진지공사에 착수하였다.

2. 제2대대(장, 閔邦穆소령)는 06.00에 공격을 시작하여 鷲峰을 目標로 突進하였는데 그 前進陣地인 △922에서 一進一退의 紛戰이 전개된 바 있었으나 13.30에 제6중대(장, 金建六중위)가 該高地를 奪取함으로써 敵을 鷲峰으로 壓縮하였으며, 여기에서 대대규모 이상으로 推算되는 敵이 最後의 發惡的인 저항을 하여 치열한 격전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제1대대에 依한 背後 挾攻이 決定打가 되어 敵은 四面으로부터 包圍攻擊을 받고 드디어 動搖의 빛이 보이게 되자 14.30에 제7중대(장, 柳榮濟중위)를 先鋒으로 一時에 突擊한 다음 계속 격멸전을 편 끝에 373명을 사살하고 9명을 사로잡았으며 그 밖에도 機關銃 7정과 각종소총 107정 및 各種實彈 5.500발을 노획하였다. 여기에서 대대는 20명의 戰歿者와 13명의 負傷者를 내었으나 士氣는 旺盛하였다.

이와같이 하여 대대는 공격개시 以來로 항상 主攻으로서 진격하는 동안 때로는 快勝을, 때로는 苦戰을 전개한바 있었으나 本戰鬪의 최종目標인 鷲峰을 점령함으로써 疲勞를 잊고 次期作戰에 對備하는 戰力補充과 陣地強化에 힘썼다.

3. 제3대대는 이날 부대대장 吳允石대위가 대대를 지휘하여 △887에서 松谷을 지나 左一線으로 迂回케 되었는데, 이는 左隣接인 美제31연대의 진출이 遲延됨으로써 惹起되는

左端의 脆弱點을 補強하고 主力의 진출을 掩護하는 한편 敵의 左側 腹背를 直衝코자 함이었다.

이리하여 대대는, 제10중대로서 松谷에서 △768(鷲峰西 南쪽 1.5km)를 正面공격케 하고 제11중대로서 松谷과 虎溪洞 間의 小路를 따라 附近 一帶를 搜索하면서 漸進北上케 하였는데 12.00에 이르러 △768에서 중대규모의 敵이 反擊하자 兩중대는 同時에 協擊 끝에 該高地를 점령한 다음 제10중대는 계속 鷲峰을 攻圍하였으며, 제11중대는 다시 虎溪洞으로 進攻하였다.

이무렵 제9중대는 主力에 後續하면서 左側方을 警戒하다가 연대主力이 목표를 탈취하고 또한 제1대대가 △1,057까지 진출함에 따라 연대장의 口頭命令으로 現地에서 △1,057로 躍進하여 제1대대에 配屬되었으며 爾後 대대主力은 虎溪洞에 集結하여 다시 연대의 예비가 되었다.

4. 이상과 같이 연대는 本戰鬪를 勝利로 매듭짓고 鷲峰을 中心으로 △802와 △1,057를 連하는 線에서 진지공사에 착수하였을 무렵, 右一線인 제19연대도 또한 併進하여 堂巨里 부근에서 戰線을 連繫함으로써 사단은 美제9군단의 右翼을 擔當하여 先導的인 進出로서 前進基地를 確保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左隣接인 美제7사단 正面의 敵을 크게 威壓하기에 이르렀다.

라. 전투 후의 개황

이 戰鬪가 끝난 뒤 當面의 中共 제20군은 抵抗據點을 상실한데다 致命的인 打擊을 받아 北上潰走하였거니와 그中에서도 損傷이 제일 컸던 제58사단은 멀리 栗沙里(金城 東쪽 7km)로 退却하여 分散兵力을 收拾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劉亨雲이 지휘하는 제60사단은 새로이 兵力을 補強하여 그 指揮所를 後洞里(金城 東南쪽 13km) 부근에 設置하는 한편 主力은 當사단의 現 進出線 5~7km 北쪽인 白岩山(△1,179) 一帶에서 새로운 阻止線을 형성하고 또 다시 固守코자 試圖하는듯 하였다.

그런데 이 高地는 군단에서 設定한 Ermine線(白岩山—赤根山—金化의 線)上의 據點일 뿐만 아니라 當사단의 제2단계 進擊目標로서 北으로는 金化—平康—金城에 이르기까지 瞰制하는 制高點이며 南으로는 赤根山(△1,073)과 함께 군단 全面을 防護하는 要地인 까닭으로 彼我間에 서로 양보할 수 없는 爭奪點이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이곳에 塹壕와 有蓋壕 등의 施設을 累加하는 동시에 交通壕를 연결하고 障害物을 설치하면서 固守態勢를 취하였으며 中共 제12, 제15, 제26, 제27, 제60군등이 金化—平康—金城—昌道를 連하는 線上에서 再編을 서둘러 重點的으로 이 中部의 要衝을 지키고자 하였다.

이무렵 美제9군단에서는 비록 政戰兩略의 配慮가 隨伴되기는 하였으나 一旦 現戰線의 安全을 圖謀

키 위하여 當初의 計劃대로 Er.mine線까지 계속 進出키로 하였으며, 더우기 當사단으로서는 政治的 動向과는 관계없이 北進을 계속키로 하였다.

이리하여 제7, 제19연대는 現占領陣地를 強化하는 동시에 繼戰態勢를 갖추었으며, 예비대이던 제2연대는 主力을 따라 祐長洞과 △837를 連하는 예비진지로 前進한 다음 各연대 모두가 戰力을 補強하는데 힘을 기우렸다.

특히 제7연대는 이 전투가 끝난 다음 곧 11일 12.30에 연대 指揮所를 祐長洞으로 前進開設하고 연대 작전명령 제53호를 下達하여 捜索據點의 確保와 敵情의 探索을 시작하였는데 제2대대의 제3, 제兩중대가 當日로서 堂巨里 西北쪽 2km인 △782까지 進出하였으며 다른 대대도 또한 陣地작업과 偵察活動을 계속하였다.

本戰鬪를 通한 연대의 綜合戰果는 다음과 같다.

戰 果

射殺 : 2,562명

捕虜 : 74명

鹵獲 : 82mm박격포—1문

3.5″Rocket砲—7문

機關銃—26정

各種小銃—617정

60mm박격폭탄—1,740발

수류탄—2상자 4.405발

소총탄—5.500발

損 失

戰死 : 45명

負傷 · 173명

§ 參戰者의 證言

◇ **제6사단 제7연대 제2대대 제8중대장, 金容漢대위**(1972. 5. 22. 제1군사령부 참모부장 准將)

사단의 主力이 九萬里 發電所 부근까지 進出한 뒤로, 우리 대대는 연대의 豫備가 되어 豊山里에서 部隊를 整備하다가 △887를 攻擊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이 高地는 華川에서 白岩山에 이르는 中間에 자리잡은 主要據點으로서 地勢가 峻嶮하고 陣地가 堅固한 까닭으로 美제7사단이 華川을 奪還한 直後에 이를 攻擊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연대에서 引受하여 攻擊케 되었으며, 대대는 연대의 主攻으로 正面突破를 敢行키로 하였다.

當時에 나는 重火器 중대장으로서 機關銃 1個소대를 一線 兩중대에 配屬시키고 남은 機關銃 1個소대와 迫擊砲소대로 대대를 一般支援하였는데 敵의 陣地가 워낙 堅固하여 2日間의 強打에도 不拘하고 이를 擊破하지 못하자 3일째 되는 날은 豫備中隊까지 投入하여 初攻에 同 高地를 占領하였으나 敵의 抵抗이 頑強한데다 日氣까지 不順하여 一進一退을 反復하게 되었다.

이에 사단에서는 主力을 6部稜線以下로 撤收시킨 다음 군단에 要請하여 △887에 集中砲擊을 加하였으며 이때에 우리 81mm迫擊砲 小隊에서도 1門當 무려 800餘發의 協同射擊으로 敵陣을 破壞한 然後에 4일째 되는날 이를 奪取하였다.

그뒤로 연대는 계속 攻勢를 取하여 鷲峰과 △1057에서 敵勢를 一網打盡하고 白岩山 南쪽의

要域을 確保하여 前進基地를 마련하였는데 期間中에 대대는 70~80명의 損失을 보았으나 敵 2,000餘名을 射殺하는 큰 戰果를 세웠다.

◇ 제6사단 제7연대 제7중대 제1소대장 任仁宰소위(1973. 6. 15. 제2군사령부 인력계획과장 대령)

九萬里 發電所에서 9km 北쪽에 있는 △887를 攻擊할 當時에 우리 중대는 最初 豫備로 後續하다가 戰鬪가 熾烈하여지자 攻擊에 加擔케 되었는데, 첫날에는 數次의 突擊을 감행하였으나 이를 突破하지 못하고, 다음날에 중대장이 直接 陣頭指揮하여 全面突擊끝에 目標를 奪取하였다.

그런데 이날 戰鬪에서 중대장은 負傷으로 後送되었으나 중대는 先任소대장이 지휘하여 제6중대와 함께 계속 突進끝에 最終目標인 鷲峰까지 奪還하여 많은 戰果를 세웠다.

이 戰鬪에서 特異한 것은, △887를 占領하고 보니 散在된 敵屍中에는 팔과 다리를 쇠사슬로 묵인채로 쓰러져 있어, 慘酷하고도 非人道的인 그들의 蠻惡相을 推察할 수 있었다.

4. 寶蓋山—高臺山地區 戰鬪 (1951년 6월 5일부터 1951년 6월 11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22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軍		敵軍	
제 9 사단	장 준장 崔 錫	제 3 대대	장 소령 李 聖 鎬
제28연대	장 대령 李 昌 禎	제30연대	장 대령 金 煌 穆
제 1 대대	장 소령 金 祥 鈺	제 1 대대	장 소령 金 榮 俊
제 2 대대	장 소령 金 寅 文	제 2 대대	장 소령 朴 京 虎
제 3 대대	장 소령 孫 德 均	제 3 대대	장 중령 金 鎭 東
제29연대	장 대령 趙 成 來 (51. 6. 1—6. 11)	인접부대	
	대령 朴 應 奎 (51. 6. 12—11. 20)	右인접 : 美제3사단	장 준장 Thomas J. Cross
제 1 대대	장 소령 張 奭 均	左인접 : 美제1기갑사단	장 소장 Charles D. Palmer
제 2 대대	장 소령 李 判 奎		

敵軍	
中共 제165사단	裝備 : 俄式小銃, 多發銃
兵力 : 12,000	輕機, 重機, 直射砲

나. 전투전의 황개

제 9 사단은 5月 16日에 시작된 敵의 제 2 차 春季攻勢로 後方의 單一보급로가 遮斷되고 더구나 正面으로부터의 強襲으로 말미암아 많은 損失을 입고 下珍富里로 撤收한바 있었다.

그러나 이곳에서 부대를 再編成하고 美제10군단 配屬으로 反擊戰에 參加케 된 사단은 東門里—蒼村—麟蹄南쪽으로 進擊하다가 5月 29日 同군단에 下達된 美제 8 군의 作命에 따라 美제 3 사단과 같이 中西部 戰線으로 移動하고 美제 1 군단장 지휘下에 鐵原을 目標로하는 寶蓋山및 高臺山地區戰鬪에 參

加하게 되었다.

당시의 戰況은 我軍이 敵의 5月攻勢를 물리치고 全戰線에서 總反擊戰을 敢行하여 目標인 Kansas線에 進出하였으나 休戰을 構想한 政戰兩略으로 戰線은 점차 小康狀態에 빠지고 彼我는 방어선을 強化하기 위한 制限된 作戰을 전개하면서 對陣狀態로 移行케 되었다.

敵軍의 상황 : 5月攻勢가 早期에 挫折되고 더구나 我軍의 反擊에 逢着한 敵은 戰列을 維持할 수가 없어 全面的인 後退을 개시하였는데, 그들은 主力部隊의 撤收를 위하여 一部兵力으로서 극력 遲延戰을 劃策하는 한편 제2방어선의 確保를 위한 시간여유를 얻으려 하였다.

이들은 鐵原 南쪽에 있는 寶蓋山과 高臺山을 連하는 嶮峻한 山岳地帶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사단의 進出을 阻止하려고 發惡하였다.

捕虜진술에 따르면 當面의 敵은 中共 제55군 隷下의 제165사단으로 그 兵力은 推定 12,000명이며 이곳에 侵透하기에 앞서 『抗美援朝』라는 口號밑에 2~3개월간의 思想및 政治敎育을 받았고 個人表彰등으로 士氣는 旺盛한 便이었으나 火力및 裝備의 劣勢와 補給品의 不足으로 점차 萎縮하게 되자 無慈悲한 處刑으로써 督戰한다는 것이었다.

我軍의 상황 : Kansas線 방어선上의 威脅을 除去하고 이른바 鐵의 三角地帶의 底邊을 確保하기 위한 計劃으로 美제8군은 제9사단과 美제3사단을 美제10군단으로부터 轉用하여 美제1군단을 增強한 다음 同군단으로 하여금 當面의 目標 Wyoming線을 奪取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제9사단은 6月 1日附로 美제3사단에 作戰上 배속되어 6月 2日 珍富面 九石洞과 下珍富里에서 車輛便으로 橫城—利川—서울—議政府를 경유 3日에 金水亭里로 移動한 다음 4日에는 제28연대를 일단 樓垈에 集結케 하였다가 陣地를 占領토록 하여 이 戰鬪에 對備케 하였다.

期間中 사단右翼에는 美제3사단이, 左翼에는 美제1기갑사단이 各各 配備되어 金化鐵原을 指向코 北進하였으며 地形은 南쪽으로 漢灘江이 羊腸같이 東에서 西로 흐르고 北쪽으로 뻗은 山脈은 東西 11km의 幅을 가지고 18km나 北쪽으로 延伸되어 그 東北端에 鐵原이 있었는데 標高700m~900m의 峻嶺이 散在하여 機動上에 制限을 주었다. 또한 氣象은 6月初부터 連10여일에 걸쳐 降雨가 每日같이 계속되는 가운데 朝夕으로 짙은 안개가 溪谷을 덮어 補給수송과 航空支援, 그리고 搜索活動의 어려움 등 作戰에 많은 制限을 주었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休戰의 成熟기운과 더불어 Ridgway 대장은 『以後의 作戰은 Kansas線을 방어하기 위한 局部的인 作戰으로 限定한다』라고 公言하였는데 이러한 制限된 與件밑에서 Van Fleet중장은 6月初에 말하기를 『敵을 계속 追擊한다는 것은 現情勢로 미루어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軍은 Kansas線 北쪽에 있는 戰制高地를 占領하여 방어선을 이곳에 推進 설정하여야 하며, 따라서 이를 補強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前方 10km線에 前進基地를 確保하여

야 한다』라고 하였다.

특히 中西部 戰線의 경우 金化—鐵原—平康地帶는 敵攻勢의 策源地였음에 비추어 여기가 健在하는 限 Kansas線에 주는 威脅은 매우 클 것이 豫想되었다. 따라서 敵의 이러한 威脅을 제거하고 방어상의 利點을 確保하기 위하여는 이 지대 底邊을 奪取하기 위한 制限공격이 不可避하였다.

이리하여 Van Fleet중장은 中部戰線에서의 그 前進 目標를 華川貯水池—金城南쪽—金化—鐵原—臨津江口線으로 하여 美제 1 군단으로 하여금 이를 占領토록하였다.

美제1군단장 Milburn중장은 이와같은 一連의 軍 基本계획에 따라 美제10군단에서 抽出된 제 9 사단을 作戰上 美제 3 사단에 配屬하고 6月 2日 『각 사단은 前面의 敵을 擊退하고 계속 前進하여 目標 Wyoming 線으로 進出하라』는 要旨의 命令을 下達하였다.

이에 따라 中東部전선에서 서울을 경유 中西部 戰線으로 이동과 더불어 곧 美 3 사단과 같이 戰線을 담당하고 北쪽으로 進擊케 된 제 9 사단장은 美제 3 사단 작전지시에 依據하여 當面의 敵情을 分析한 다음 參謀들과 熟議한 끝에 要旨 다음과 같은 命令을 下達하였다.

『① 사단은 敗退하는 敵을 追擊하여 賓蓋山 및 高臺山지구를 占領한 다음 Wyoming 線으로 進出하여 이를 確保하려 한다.

② 제28연대는 D일 H시에 공격을 개시하여 香爐峰—△713—賓蓋山—地藏峰을 占領한다음 사단 右側 제一線으로 계속 高臺山을 占領確保하여 그 北麓에서 右隣接 제 3 사단과 連繫한 방어진지를 구축하라.

③ 제30연대는 D일에 行動을 개시, 樓坮로 進出하여 제28연대에 後續한 다음 同연대가 地藏峰에 進出하면 사단 左側 제一線으로 賓蓋山西麓—△402—△628를 占領하여 제28연대와 左인접 美제 1 기갑사단과 연계하여 방어진지를 구축하라.

④ 제29연대는 사단예비대로서 樓坮에 位置하여 次後命令을 待機하라.

⑤ 사단通信中隊는 사단—연대間의 有線網을 5일까지 架設하라.

⑥ D일 H시는 6월 5일 06.00이다.

⑦ 사단 CP는 金水亭里에 位置한다.』

(2) 작전실시

6월 5일 : 사단은 이날 06.00를 期하여 樓坮에 集結완료한 제28연대로 하여금 1개대대규모의 敵이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推測되는 香爐峰—△713 一帶에 대한 공격을 敢行토록 하고 제30연대를 樓坮에 前進토록 함으로써 當面의 敵을 潰滅하여 Wyoming 線으로의 進

出을 다짐하였다.

1. 제28연대(장, 李昌禎대령)는 攻擊에 앞서 전날 15.00에 연대 CP를 金水亭里에서 樓垈로 推進하고 제 1 대대(장, 金祥鈺소령)를 △261(樓垈 北쪽 1km) 東쪽능선 一帶에, 제 3 대대(장, 孫德均소령)를 漢灘江 西岸 △95와 東岸高地 南麓一帶에서 各己 陣地를 占領케 한 다음 제 2 대대(장, 金寅文소령)를 예비로 鋒垈에 控置하면서 이날의 전투를 準備하였다.

연대장은 이날 사단장 命令에 따라 제 1 대대를 연대右제一線에 제 3 대대를 左제一線에 展開하고 目標 香爐峰一△713를 攻擊토록하였는데 이에따라 제 1 대대는 06.00에 △261 를 떠나 10.00에 砂器幕(△261東北 2km)東쪽 능선으로 躍進하였다. 이리하여 敵의 抵抗없이 進出한 대대는 제1, 제2 兩중대로 하여금 △432를 攻擊케하고, 제 3 중대는 目標 香爐峰을 우회하면서 進擊케 하였다.

대대 右一線인 제 3 중대는 11.00에 香爐峰南麓에 突入하여 警戒兵力으로 看做되는 1개 중대규모의 敵을 驅逐한 다음 11.30에는 高地정상을 占領하였다.

한편 제1, 제2 兩중대는 目標南쪽 500m 능선에서 敵의 가벽운 抵抗에 부딪쳤으나 交戰끝에 5명의 敵兵을 射殺하고 계속 殘敵을 追擊하여 11.00에 △432를 占領한 다음 이어서 香爐峰西麓으로 進擊하였다.

또한 연대 左一線인 제 3 대대는 06.00에 行動을 개시하여 10.00에 △713 南麓에 躍進한 다음 제11중대를 대대 右제一線에, 제10중대를 左제一線에 配備하였다. 兩中隊는 進擊하는 제 1 대대에 呼應하여 제11중대는 △713를 제10중대는 속칭 『다라미』고개를 目標로 제 9, 제12兩中隊의 掩護裡에 공격을 계속하였다.

제11중대는 능선을 따라 前進하다가 △713의 8部능선에서 대대의 前進을 遲延코자 發惡하는 中共軍 1개중대 규모로부터 阻止射擊을 받아 한때 그 進擊이 교착된 바 있으나 激戰끝에 이를 擊退하고 肉迫으로 15.00까지 目標頂上에 突入하였으며, 제10중대는 제11중대 左側에서 溪谷을 따라 은밀히 『다라미』고개로 一步一步 前進하여 15.00에는 一時에 △695에 突入하여 無難히 占領하였다.

이로서 대대는 CP를 △485에 推進 개설하였으며 각중대는 占領한 目標지역에서 陣地를 急編하여 다음날 전투에 대비하였는데 이날 연대가 거둔 戰果는 敵射殺 74명, 多發銃 및 俄式소총 노획 22정이었다.

2. 제30연대(장, 金煌穆대령)는 전날 16.00에 제 3 대대(장, 金鎭東중령)가 金水亭里에 이동완료함으로써 사단 및 연대 CP주위에 陣地를 占領하고 自體경계에 任하고 있었으나 야

날 제28연대가 當面의 敵을 구축하고 進擊케됨에 따라 07.00에 金水亭里를 떠나 徒步強行軍으로 樓垈에 集結하여 다음날의 전투를 準備하였다.

3. 제29연대(장, 趙成來대령)는 사단예비로서 이날 07.00에 사단 CP를 樓垈에 開設함에 따라 △261 左側능선에서부터 西쪽 漢灘江에 이르는 선에 제1, 제3, 제2대대를 配置하고 11일 이 전투가 終了되기까지 사단 CP를 警戒하였다.

6월 6일 : 이날 사단장은 제28연대의 進擊이 순조로움에 비추어 전날에 이어 同연대로하여금 계속 當面의 目標 地藏峰을 攻擊토록 하였으며 제30연대로써 『다라미』고개 右側능선에서부터 行動하여 寶蓋山을 占領한 後 그 前方 △400로 進出케 하여 Wyoming線으로 躍進하려는 군단의 先鋒사단이 되기를 다짐하였다.

1. 제28연대(장, 李昌禎대령)는 右側에 隣接하여 併進하는 美제3사단 제7연대와 提携하면서 地藏峰을 攻擊하였으며 연대 CP 역시 이날 20.10에 砂器幕里로 推進개설하여 北進하는 第一線부대를 뒤따르도록 하였다.

제1대대(장, 金祥鈺소령)는 전날 제3중대가 占領한 香爐峰에서 06.00를 期하여 右로부터 제3, 제2, 제1중대를 併立展開하고 一齊히 最初目標인 三兄弟岩을 向하여 攻擊하였다.

縱隔室을 따라 左右 능선에서 躍進한 대대는 左側에서 "東마네미"고개를 攻擊하는 제30연대 제2대대를 側方에서 掩護하면서 險峻한 山脈를 踏破하였는데 목표 西麓에서 堅固한 陣地를 構築하고 射擊으로 대대의 進出을 阻止하려는 敵의 집요한 抵抗으로 말미암아 豫想外로 難航을 거듭하게 되었다.

이에 대대장은 敵의 경비가 疎忽한 北台를 제3중대로서 占領케하고 그 南麓에 있는 陣地를 3個方面에서 分進合擊하기로 결심하여 제3중대가 三兄弟岩을 우회 공격하는 동안 제2, 제1兩중대가 이를 支援하면서 서서히 目標로 接近하였다. 12.00에 이르러 敵의 射擊은 彈藥이 消盡하였음인지 그 威勢를 잃게 됨으로써 드디어 突擊의 好機를 捕捉한 대대장은 이에앞서 北台를 占領한 제3중대로 하여금 東側에서 支援케 한 다음 제2, 제1兩개중대로써 목표에 突進케 하였다.

이미 그들 陣地를 瞰制하는 北台가 失陷되고 北쪽으로 뻗은 능선상의 退路가 遮斷됨을 憂慮한 敵은 이와같은 대대의 공격으로 더이상 陣地를 固守하지 못한 채 潰退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背射와 側射의 掩護로 敵陣에 突入한 제2중대는 敵 15명을 射殺하고 마침내 三兄弟岩 一帶를 占領한 다음 계속 華印峰으로 追擊하였다.

한편 대대左側에서 進擊한 제3대대(장, 孫德均소령)는 제30연대 제2대대의 공격에 呼應하여 09.30에 제10중대는 潰走하는 敵을 強壓하여 △395 東쪽 능선에 進出하였으며, 10.00에 中央제一線인 제11중대는 輕微한 敵의 抵抗을 물리치고 "다라미"고개 北쪽능선에, 그리고 같은 시간에 右側제一線인 제9중대와 같이 이를 支援하여 뒤따른 제12중대는 南岩北쪽 능선에 각각 進出하였다.

이리하여 제10중대는 13.30에 소대규모의 敵을 火力의 集中으로 擊滅하고 △400를 占領함에 이르러 18.30에 대대 OP도 南岩 北쪽高地로 移動개설하였으나 제30연대가 대대의 戰鬪正面을 專擔케됨에 따라 依命 제1대대 戰鬪正面으로 轉進키 위한 準備로서 같은 시간에 제9, 제10兩중대를 南岩 北쪽 1 km 능선상에 陣地를 占領케 한 다음 제11, 제12양중대를 대대 OP부근에 集結케 하여 다음날의 전투를 준비하였다.

또한 연대 豫備인 제2대대(장, 金寅文소령)는 第一線 양대대의 進出에 힘입어 08.50에 樓垈을 出發하여 2시간 後에 徒步기동으로 砂器幕里에 進入한 다음 1개중대로서 연대 CP 개설에 따르는 작업을 支援하였으며 연대CP 개설後에는 3개중대를 東西北 三面稜線에 配置하여 연대CP와 後方警戒에 任하였다.

2. 제30연대(장, 金煌穆대령)은 이날 06.00에 제2대대(장, 朴京虎소령)를 △713에 進入시켜 依命 제28연대가 進擊하는 中央軸線을 따라 축차 前進토록 하였으며 제3대대(장, 金鎭東중령)를 樓垈로 부터 左인접 美제1기갑사단 戰鬪지경선을 거쳐 草幕으로 推進하는 즉시로 제28연대 제3대대의 정면을 引受토록 하였는데 △713에서 躍進한 제2대대는 10.00에 "東마네미"고개에서 일단의 敵과 遭遇하여 交戰끝에 10명을 射殺하고 1명의 捕虜와 2정의 소총을 노획하는 전과를 거두고 中峰下麓 으로 進出하였는데 한편, 16.00에 草幕에 進入한 제3대대는 右側제一線 제2대대와 連繫토록 하고 제10중대를 左側 전투지경 선에 進出시켜 左인접사단인 美제1기갑사단과 連結토록 하였다.

그後 연대본부는 17.00에 『사단左제一線을 담당하여 Wyoming線으로 進出하라』는 사단작전지시 제174호에 의거 제一線대대의 指揮上 연대예비인 제1대대(장, 金榮俊 소령)와 같이 그 CP를 釜谷里로 移動개설하였다.

3. 제29연대(장, 趙成來대령)는 사단예비로서 계속 金水亭里의 사단 CP를 警戒하면서 부대整備를 實施하였는데 이날 연대장병들은 제一線연대의 進擊 소식을 귀담아 들으면서 이에 參與치 못함을 憤히 여겼다.

6월 7일 : 地藏峰을 奪取하고 高臺山—Wyoming線으로 進擊中인 사단은 右側 제一線인

제28연대로 하여금 地藏峰을 完全 占領케 한 다음 계속 "北마네미"고개 東麓을 공격토록 하였으며 左側제一線에 새로이 제30연대를 展開하여 "北마네미"고개 西麓에 있는 A.B 兩高地를 攻略토록 함으로써 이날의 전투가 再開되었는데 東西로 通하는 이곳 要衝을 防禦하는 1개대대의 敵으로 말미암아 彼我는 서로 激烈한 攻防戰을 전개한 끝에 이를 격멸하고 當日의 目標에 進出할 수가 있었다.

1. 제28연대(장, 李昌禎대령)는 전날에 이어 제1, 제3兩대대를 제一線에 제2대대를 備豫로 控置하면서 地藏峰 "北마네미"고개로 계속 進擊하였는데 右제一線부대인 제1대대(장, 金祥鈺소령)는 제1, 제3兩중대로 하여금 當面의 目標인 地藏峰을 제2, 제4兩중대 掩護下에 06.00부터 공격토록 하였다. 그러나 高地 9부능선 前斜面 陣地에서 대대의 進出을 極力 阻止하려는 소대 규모의 敵으로 말미암아 공격이 膠着됨에 이르러 대대장은 제2중대를 高地 東쪽으로 迂回케 하여 三面에서 合擊케 함으로써 敵은 드디어 35具의 死體를 버리고 潰走하기에 이르렀는데 이에 敵을 追擊하여 마침내 10.00에 地藏峰을 完全 占領하였다.

이어서 敗退하는 敵에게 時間의 여유를 주지않기 위하여 依命 "北마네미"고개 東쪽능선으로 계속 進擊한 대대는 數個處에서 分隊규모의 敵을 擊滅하고 18.00에 豫定線에 進出하였다.

한편 전날의 陣地에서 06.30에 東北쪽으로 連結된 능선을 따라 中峰을 공격한 제3대대(장, 孫德均소령)는 右側에서 地藏峰을 공격하는 제1대대와 呼應하여 東進하였는데 공격개시 1시간後에 능선上에서 徘徊하는 2개소대규모의 敵에게 急射를 加함으로써 3명의 병사가 가벼운 銃傷을 입은 끝에 敵 40명을 射殺하는 戰果를 거둔다음 10.00에 中峰을 掌握하였다. 이로서 대대는 계속 潰走하는 敵을 追擊하면서 下麓을 따라 "北마네미" 고개로 躍進하였다.

그러나 18.00에 이르러 제9, 제10, 제11의 3個중대를 제一線에 展開하여 要衝 "北마네미"고개를 一擊에 占領코자 하였으나 督戰을 받아 이곳을 장시간 支撐하면서 主力部隊의 撤收를 圖謀하려는 중대규모의 敵으로 말미암아 30분간에 걸친 불꽃튀기는 激戰을 전개하였다. 대대는 敵을 壓制하는 有利한 地形을 占領하고 全火力을 集中하여 敵을 끝내 沈默케 하였으나 掩蔽된 진지에서 手榴彈을 投擲하며 發惡하기에 이르러 제9중대를 迂回케 하고 제10, 제11兩중대를 右에서 左로 散開시켜 2개方向에서 波狀攻擊을 敢行끝에 마침내 이 敵을 潰滅하여 日沒까지 이날의 進出線에 進入할 수 있었는데 同대대가 거둔 戰果는 敵射殺

20명이었다.

또한 연대예비인 제2대대(장, 金寅文소령)는 제一線 대대의 공격개시와 同時에 제6중대로서 北臺를 占領케 하여 연대본부에 대한 警戒의 萬全을 期하였다.

2. 제30연대(장, 金煌鏞대령)는 이날 전날에 草幕에 進出한 제3대대(장, 金鎭東중령)를 제一線으로 展開케 하여 正面의 A B高地를 제2대대 支援下에 占領케 하고 제2대대(장, 朴京虎소령)는 한때 中峰을 공격하는 제28연대 제3대대를 支援케하고 草幕으로 集結함에 이르러 이날 연대의 공격은 事實上 1개대대에 지나지 않았다.

제3대대(장, 金鎭東중령)는 이날 연대의 공격제一선 대대로서 指定된 目標 A.B 高地를 奪取하기 위하여 未明에 부대를 草幕北쪽 능선에 推進한 다음 이를 中心으로 右제一선에 제11중대를, 左제一선에 제10중대를 전개하고 제9, 제12兩중대를 그 後方에 控置하여 제一선중대를 火力으로 支援토록 하였다. 03.30에 공격개시선을 一齊히 突破한 제11중대는 제9중대의 火力支援밑에 縱隔室의 지형上의 不利를 克服하면서 A高地로 步一步 前進하였으나 右側능선에 潛伏하고 있던 중대규모의 敵으로부터 側方射擊을 받았으므로 이에 중대는 全火力을 集中하여 殲滅한 다음 11.25에 目標 A高地를 奪還하였다.

이로부터 중대는 B高地를 공격하는 左側의 제10중대를 火力으로 支援하여 同高地를 占領케 하였으며 이 後 A高地上에 陣地를 急編하여 다음날의 전투를 준비하였다.

한편 사단 左제一선에서 B高地를 공격하기 위하여 제11중대와 같은 시간에 目標로 突進한 제10중대는 潰走하는 대대규모의 敵으로부터 저돌적인 反擊에 부딪쳐 중대의 前進은 完全 膠着상태에 빠졌으나 제12중대의 背射에 의한 火力지원및 A高地를 공격하는 제11중대의 側方支援으로 간신히 敵을 擊退케하여 13.00에 이르러 B高地를 占領하였는데 이날 중대의 전과는 敵사살 51명에 達하였다.

이와같이 대대가 善戰敢鬪한 까닭으로 연대장은 無電으로 대대를 激讚하고 장병들의 勞苦를 慰勞하였다.

또한 전날 中峰 西麓에 進出한 제2대대(장, 朴京虎소령)는 연대장의 命令으로 이날 未明에 제3대대의 공격을 支援한 다음 계속 같은 陣地에서 左右側方을 警戒하다가 21.00에 草幕北쪽 高地로 轉進하자 대대OP를 △425에 설치한 然後에 제7중대를 抽出하여 右側의 제28연대와 連繫케 하고 제1대대(장, 金榮俊소령)는 연대예비로서 釜谷里에서 연대본부를 警戒토록 하였다.

3. 제29연대(장, 趙成來대령)는 전날과 다름없이 金水亭里에서 부대를 整備하면서 사단

예비연대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6월 8일 : 이날도 역시 사단은 2개연대를 제一선에 전개하고 右인접 美제3사단 및 左인접 美제1기갑사단과 서로 連繫하면서 敵의 逆襲에 對備하여 "北마네미"고개를 東西로 橫斷하는 道路 北쪽 高地를 堅守하는 한편 전날에 潰退한 敵을 目標로 北上하였다.

1. 제28연대(장, 李昌禎대령)는 이날 未明에 逆襲을 기도한 대대규모의 敵을 邀擊하여 10.00까지 一進一退의 공방전을 전개한 끝에 마침내 이를 擊滅하였으나 연대의 進出은 이로 말미암아 遲延되었다.

제1대대는 전날에 이어 계속 연대 右一선으로서 이날 前半夜까지 占領한 陣地에서 連續되는 공격을 準備하고 있었으나 拂曉에 逆襲을 試圖한 敵으로 말미암아 激戰이 전개되었다.

이 전투는 10.00까지 계속되었으나 대대의 奮戰으로 54명을 射殺하고 소총 25정을 노획하는 전과를 거둔다음 敵을 追擊하였다. 18.00에 대대OP를 가장洞에 제3대대와 같이 推進하고 제一선중대를 指揮하였다.

제3대대(장, 孫德均소령)는 "北마네미"고개에서 06.30에 機動하여 前面으로 進出하려다가 側方射擊으로 그 前進이 頓挫되어 日沒까지 겨우 직선거리 300m에 不過한 苦戰을 치루어야 하였다.

예비대인 제2대대는 계속 砂器幕에 陣地를 占領하고 연대 CP를 警戒하였는데 이날에 연대가 거둔 綜合전과는 敵射殺 87명, 소총노획 27정이었다.

2. 제30연대(장, 金煌穆대령)는 最後의 發惡하는 것으로 推斷되는 △638—△402 當面의 敵에 對하여 2개대대로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연대 右一선으로 △638를 공격한 제2대대(장, 朴京虎소령)는 제3대대와 같은 시간에 제7중대를 右一선에, 제6중대를 左一선에, 제5중대를 예비로 控置하여 제7중대에는 右인접 제28연대와 連繫케 하면서 △638를 공격하는 제6중대를 側方에서 支援토록 하였다.

대대는 공격을 시작하여 損失없이 同高地를 占領하리라 믿었던 當初의 豫測과는 달리 1개중대 규모의 敵의 執拗한 抵抗에 부딪쳐 제6중대는 10시간동안에 걸친 苦戰을 反復한 끝에 드디어 이를 占領하였으며 제7중대는 같은 시간에 △434를 탈환함으로써 연대는 이날 80명의 敵을 射殺하고 2명의 捕虜와 1정의 多發銃을 鹵獲하였는데 14.00에 聯隊 CP는 예비인 제1대대와 같이 釜谷里에서 草幕으로 推進하여 前進하는 제一선대대와 步調를

같이하였다.

또한 이날 左一선으로 △402를 10.00부터 공격하기 시작한 제3대대(장, 金鎭東중령)는 最初에 제9, 제11兩중대로서 相互支援下에 併進케 하고 目標 突入時에는 제9중대를 挺進케 하는 한편, 제11중대는 이를 火力으로 支援토록 하였다. 공격 最終段階에서 제9중대는 D高地의 1개중대규모의 敵으로부터 強力한 側方사격을 받았음에도 不拘하고 奮戰敢鬪 끝에 14.00에 同高地를 占領하였으나 잠시후 高地로부터의 계속적인 敵의 사격과 이에 接應하여 逆襲한 대대규모의 敵으로 말미암아 제9. 제11 兩중대는 一時 分散 상태에 陷入하여 △402를 隨意撤收하고 17.00에 대대 OP가 있는 A高地로 復歸하였다.

6월 9일 1. 제28연대(장, 李昌禎대령)는 이날 依命目標 34, 37을 奪取하기위하여 계속 右로부터 제1, 제3대대를 제一선에 전개하고 제2대대를 예비로 控置하여 不振하였던 전날의 進出速度를 挽回하려는듯 果敢한 進擊을 계속하였다.

제1대대(장, 金祥鈺소령)는 연대目標 34를 제3대대와 協同으로 奪取하기 위하여 06.50에 機動하여 제2, 제3兩중대가 제一선에서 목표를 공격하는 동안 제1, 제4兩중대는 火力으로 이를 支援하였다. 소수의 敵을 擊退하고 目標에 肉迫한 兩중대는 23명의 敵을 射殺하고 目標 東쪽을 공격하는 제3대대의 제一선중대와 協同으로 이를 占領한 다음 계속 右側능선을 따라 前進하였으며 대대 OP와 行動을 같이한 제1, 제4兩중대는 이를 뒤따라 지원하면서 北進하였다.

연대左一선인 제3대대(장, 孫德均소령)는 이날 제9, 제10兩중대를 제一선에 併列하여 연대목표 34인 左側능선을 공격하였다. 12.30에 제11, 제12兩중대의 火力支援下에 目標로 突進한 공격대대는 接敵없이 이를 占領하고 대오를 整備한 다음 左인접 제30연대와의 地境선 左側을 沿하여 日沒까지 500m를 前進하고 陣地를 急編한 다음 自體방어에 注力하였다.

한편 연대 CP와 예비대인 제2대대(장, 金寅文소령)은 北進하는 제一선부대를 能動的으로 支援하기 위하여 15.00에 제6중대를 계속 北臺에 殘留시켜 警戒토록 하고 主力은 砂器幕里에서 大谷(俗稱 큰골)으로 옮겼으며 따라서 제2대대(—)는 大谷 左右능선에 陣地를 占領하고 대대경계와 동시에 부근一帶를 探索하였다.

2. 제30연대(장, 金煌穆대령)는 전날 敵의 逆襲으로 끝내 支撐하지 못한 △402를 계속 제3대대로 하여금 反擊키로 作定하여 이를 夜間공격토록 하고 Wyoming선으로의 早期進出을 企圖하였다.

연대 右一선을 擔當하여 전날의 陣地에서 躍進한 제2대대(장, 朴京虎소령)는 04.00에 제7, 제5兩중대를 제一선으로 하여 제28연대와의 地境에 인접한 峻嶺을 踏破토록 하였던 바 이들은 殘敵 40명을 세곳에서 殲滅하고 07.30에 그 先鋒은 제28연대 目標34 西쪽 능선까지 進出하였다.

이리하여 左側에서 △402를 奪還하고 潰走하는 敵을 追擊하는 제3대대와 協同으로 高地와 능선을 따라 速攻을 期하였으나 제28연대의 進擊이 지연됨으로써 東쪽 高地에서 日沒까지 殘敵을 探索하였다.

또한 제3대대(장, 金鎭東 중령)는 전날의 失敗를 挽回코자 제9, 제11兩중대를 제一선으로 하여 01.00부터 砲兵의 火力支援下에 △402에 對한 奇襲공격을 決行하였다. 目標을 強打하는 공격준비 사격이 실시되는 동안 은밀히 目標左右능선까지 進出한 兩 중대는 砲兵火力의 延伸과 더불어 一步一步 목표에 접근하여 突擊의 好機만을 기다렸다. 그런데 갑짝스러운 砲火의 雨注에 騷然하기 시작한 敵은 發作하듯 下麓을 向하여 盲射을 集中함에 이르렀는데 이에 또한 企圖가 暴露된것으로 잘못 判斷한 제9중대장은 즉시 제11중대장에게 約定된 發光信號로 突擊을 알리고 소대장들에게 『目標에 肉迫하여 敵을 殲滅하라』고 怒號하였다. 左側에서 併進한 제11중대 역시 같은 시간에 突擊을 敢行하였던바, 敵陣은 이에 啞然失色하여 한때 당황하는 빛이 歷然하다가 手榴彈과 掃射로서 應戰하는 敵의 火網에 부딪쳐 중대는 잠시 이를 避하여 물러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이를 早期에 占領하고 대대의 進路을 開拓하려는 信念으로 굳게 무장한 兩중대는 또 다시 支援된 砲火力을 目標에 誘導하고 砲사격의 延伸과 同時에 제2次의 突擊을 決行하였다.

이리하여 07.00에 白兵과 肉彈으로 △402의 敵을 潰滅하고 同 高地를 占領하였는데 이에 勇氣百倍한 제3대대는 제2대대의 進出不振에도 不拘하고 日沒까지 그 先鋒은 進出目標인 天光谷까지 跳躍하는 눈부신 進擊速度을 보였다.

이날 사단의 종합전과는 敵 120명을 사살하고 많은 장비를 노획하여 D+5일의 전투를 매듭지었다.

6월 10일 : 전날 제30연대 제3대대가 目標線에 進出하였음에 反하여 右인접인 美제3사단의 進擊이 지연됨에 이르러 제28연대의 진격을 促進할 수 없었던 事實을 감안한 사단장 崔 錫 준장은 美제3사단장과 協議하여 제28연대가 高臺山을 공격하는 동안 美제7연대와 併攻토록 하였다.

1. 제28연대(장, 李昌禎대령)는 이날 『高臺山을 占領하고 豫定된 目標선에 早期에 進出

하라』는 사단장의 命令에 따라 04.00에 제1대대를 右側에, 제3대대를 左側에 전날과 같이 전개하여 △752—高臺山에 對한 공격을 시작하였다.

제1대대는 공격개시와 동시에 接敵없이 △752로 躍進하고 07.30에 이를 占領한 다음 一時 최종目標인 高臺山을 指向하여 공격을 계속하였다.

능선을 沿하여 西北쪽으로 공격한 대대는 13.50에 이르러 側方으로부터 落伍된 듯 한 일단의 敵의 射擊을 받았으나 이를 곧 潰滅하고 15.00에 高臺山을 占領하였으며 18 00에는 兵力을 그 北쪽 능선에 東西로 전개하여 陣地를 急編하였다.

또한 高臺山을 공격하는 제1대대를 支援하면서 高臺山 西麓으로 공격 軸線을 따라 進擊을 계속한 제 3 대대(장, 孫德均소령)는 제30연대 제 2 대대와 連繫하면서 16.00에 高臺山 西麓에 進入하고, 左右대대와 協力하여 나란히 陣地를 占領하였다.

이날 연대 CP와 예비인 제2대대(一)는 大谷에서 新興洞으로 前進하였는데 北臺에서 後方을 警戒하던 제6중대는 高臺山 南쪽 3km 능선上에서 陣地를 占領한 다음 전날과 同一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2. 한편 사단 左一線으로 目標선에 진출한 제30연대(장, 金煌陽대령)는 依命 Wyoming선을 따라 제3 대대로 하여금 陣地를 占領토록하여 그 強化공사를 실시케하는 한편 제2 대대로 하여금 제28연대와 連繫하여 戰線의 均衡을 維持케 함으로써 이날의 연대正面은 東西 4.5km에 達하였다.

6월 11일 : 이날 사단은 右인접 美제3사단과의 戰線의 均衡上 그 進出이 遲延된 제28연대가 12.00에 目標선을 占領함으로써 兩연대로써 예정된 主抵抗線을 占領하고 陣地 공사를 실시하는 한편 鐵原北쪽으로 潰走하는 敵情을 捜索키 위하여 捜索活動을 強化하였다.

1. 제28연대(장, 李昌禎 대령)는 이날 제1, 제3兩대대로써 一齊 躍進케하여 目標선을 占領케 하였는데, 06 00에 전날의 진지를 박차고 능선을 따라 突進한 제1대대(장, 金祥鈺 소령)는 高臺山 北쪽 1km 地域에서 1개중대 규모의 敵과 激突끝에 이를 殲滅하고 계속 前進하여 드디어 12.00에 Wyoming線에 到達한 다음 곧 防禦진지 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제2대대와 임무를 교대하고 예비대가 되어 主抵抗線後方에 陣地를 占領하고 待命하라』는 연대장 命令에 따라 연대예비가 되었다.

또한 연대左一線인 제3대대(장, 孫德均소령)는 이날 제1대대와 連繫하여 接敵없이 12.00에 目標선을 占領하고 제9중대를 主抵抗선을 따라 능선 最尖端에, 제10중대를 그後方 100m 능선에 配置하여 각기 陣地를 占領케하고 陣地공사를 실시하는 한편 前方의 敵情을 銳意檢

討하였다.

2. 제30연대(장, 金煌穆대령)는 이날 제28연대의 공격이 順調로움에 힘입어 11.00에 右一線인 제 2 대대가 Wyoming선에 進入하였는데, 進擊途中 소대규모의 敵을 高臺山北쪽 峽谷에서 發見하여 交戰끝에 25명을 射殺하였다.

이들은 目標進出과 더불어 인접부대와 協同으로 主抵抗선을 強化하였다.

그리고 연대左側제一線인 제 3 대대는 계속 전날의 진지를 固守하면서 防禦 陣地를 준비하였다.

3. 이로써 사단은 공격개시 7日만에 『Wyoming 線을 奪取하고 이를 確保하라』는 부과된 作戰任務을 完遂하였으며, 사단예비인 제29연대장을 12日부 更迭하여 朴應奎 대령으로하여금 同연대를 指揮케 하였는데 이날 연대는 『제30연대와 임무를 교대하라』는 準備命令을 사단으로부터 受領하였다.

라. 전투후의 개황

전투가 끝난 12日에 사단은 제30연대를 제29연대(장, 朴應奎대령)와 主抵抗線방어임무를 交代하고 砂器幕에 연대兵力을 集結케하여 未備한 戰鬪훈련을 精到케하면서 兩개연대로써 사단正面을 계속 堅守하였다.

그러나 北쪽으로 敗退한 敵은 戰勢을 挽回하려고 새로이 中共제20, 제26군의 隷下사단을 金化北쪽 平康선에 投入 增援하여 極力 我軍의 進擊을 阻止하기 위한 防禦진지를 구축하는 한편 이른바 鐵의 三角地帶로 알려진 要衝을 되찾으려 企圖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그 進擊을 一時 멈추고 있던 美제1군단은 金化를 制壓하기 위하여 戰線을 再編하게됨에 따라 18일 07.00에 제30연대는 作指 제183호로 砂器幕을 出發, 사단 先發隊로서 支援된 車輛便으로 일단 中里에 再集結하였다가 갈미洞을 經由하여 수무정(雲川 東北 21km)으로 移動하였다.

또한 제一線연대인 제28, 제29兩연대는 19일 사단作命 제73호로 戰鬪正面을 Canada 제25여단에 引繼하고 車輛으로 3개제대로 나누어 陰地村으로 機動하였다. 이윽고 사단은 그 CP를 陰地村에 開設하고 美제25사단과 任務을 교대하여 제一線에 赴援케 되었는데, 이리하여 사단은 24일 Turkey 여단을 초월 공격하여 28일에는 △603를 占領하였다.

그뒤 사단은 UTC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抱川으로 이동하였는데 寶蓋山—高臺山전투에서 거둔 綜合전과는 다음과 같다.

戰果		損失	
射殺	923명	戰死	31명
捕虜	26명	戰傷	127명

裝備노획

馬 匹	2頭
추 럭	3臺
소 총	70정
多發銃	11정
機關銃	25정
수류탄	521발

失 踪 2명

§參戰者의 證言

◇제9사단 제28연대장 李昌禎 대령

(1973.8.20. 기능오림픽 사무총장실에서 豫, 소장)

우리 사단은 縣里地區 撤收作戰에서 失敗한 다음 下珍富里에서 부대를 再編하고 6월초에 美제3사단 배속으로 中西部 戰線의 寶蓋山 및 高臺山地區戰鬪에 參加하였다.

이 때의 敵은 中共軍으로 이들은 寶蓋山 및 高臺山 地區에서 退却하는 主力部隊의 撤收를 엄호하면서 제2의 방어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획득하려는 지연작전을 획책하고 있었다. 이 高臺山은 鐵原地域을 瞰制할 수 있는 要地여서 敵의 督戰隊가 이를 占領하고 執拗한 抵抗을 일 삼았다.

우리 연대는 主로 험악한 山岳地帶로 進擊하라는 命令을 받고 高臺山을 目標로 攻擊하였는데 당시의 계획은 각 대대를 逐次的으로 進攻토록하여 연대는 目標를 占領한 다음 그 능선을 따라 鐵原 南端까지 進出하였다.

이 戰鬪에서 特異한 것은 어느 대대인지 기억은 나지않으나 이 대대가 敵陣에 突入하고 보니 17~18才의 어린 敵兵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철사와 쇠사슬로 발이 묶어져 있었다고 한다. 이는 戰意를 상실한 兵士들을 督戰하는 그들의 잔인한 하나의 手法이었다고 본다.

이 전투에서 우리 사단은 縣里地區 撤收作戰에서의 失敗를 挽回하였다.

◇제28연대 제3대대장 孫德均 소령

(1966.8 20 제1군단 참모장실에서 豫, 대령)

우리 연대는 縣里地區 戰鬪에서 제일 피해를 적게 입어 제1착으로 사단 先發隊로서 鐵原地區에 投入되었다. 金水亭里를 걸쳐 樓岳로 進出하여 이곳에서 攻擊을 개시하였는데 敵은 지연작전을 전개하면서 퇴각하는 主力部隊의 撤收를 엄호하였다.

主要 山岳地帶에는 中共軍의 掩護部隊가 殘留하고 있었는데 美軍은 山岳戰鬪를 잘 하지 못하여 우리 사단이 美제3사단을 초월 공격하였으며 당시 美제3사단은 左側에서 鐵原으로 通하는 道路를 따라 기계화부대가 併進하고 있었다.

최종 目標인 高臺山을 제일 먼저 占領한 것은 제9중대(장, 金三曾대위)로 기억나는데 이때 通信은 무전기 SCR—609를 使用하였으나 소통이 잘되지 않아 連絡兵을 通하여 대대 OP와 連絡을 취하느라 그 애로가 많았다.

이 戰鬪가 끝난 다음 사단은 金化地區로 이동하였다.

◇제28연대 제3대대 제9중대장 金三曾대위

(1973.8.20 국정교과서 주식회사에서 豫, 대령)

이 寶蓋山 및 高臺山 地區 戰鬪에 대하여서는 기억이 잘나지 않는데 우리 중대는 이 戰鬪에서 地藏峰을 공격하였다. 이 山峰은 매우 험악하여 1개중대 이상 기동하기가 곤란하였다.

당초 제1대대가 攻擊하다가 失敗하자 우리 대대가 공격하였는데, 제11중대가 主攻이 되어 頂上을 占領하였다. 이 공격전에서 중대는 8명의 戰死者와 12명의 부상자를 내었다. 그후 우리연대는 鐵原까지 進出하였다가 金化로 이동하여 △603戰鬪를 치르고 抱川에서 UTC교육을 끝낸 다음 다시 白馬高地戰鬪에 참가하였다.

◇ 제28연대 제3대대 제10중대 제1소대장
李 得 春 소위
(1966.5 17 육본 장군식당에서 증령)

이 戰鬪에서 우리 대대는 敵情을 탐색하면서 高臺山 南端까지 進出하였는데 이때에 제10중대는 高臺山에서 南쪽으로 뻗은 主稜線을 따라 공격하였다. 敵은 증강된 1개분대병력으로 兩쪽에 잠복하고 있다가 不意의 기습공격을 加하여 왔다. 이 능선은 가파른데다가 機動空間이 北쪽으로만 뻗어있어 중대는 능선 右側面에서 小隊縱隊의 攻擊隊形으로 前進하다가 기습한 敵兵 10여명을 잡고 계속 진격하여 一步一步 전진한 것이 9부 능선에 도달하여 이곳에서 突擊을 敢行한 끝에 頂上을 占領하였다.

이때 나는 後方에서 날라오는 敵의 기관총탄을 맞고 부상당하여 後送되었다.

그후 대대는 계속 前進하여 鐵原 南端까지 進出한 것으로 안다.

5. 九化里—開城附近 搜索戰 (1951년 6월 21일부터 1951년 6월 23일까지)

참조 . 상황도 제 21 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軍		我軍	
제 1 사단	장 소장 姜 文 奉	제 1 대대	장 소령 金 明 中
제11연대	장 대령 文 亨 泰	제 2 대대	장 소령 張 時 雨
제 1 대대	장 소령 李 畯 仁	제 3 대대	장 소령 金 國 柱
제 2 대대	장 소령 裵 斗 龍	배속 부대	
제 3 대대	장 소령 高 林 鉉	포병 제17대대	장 중령 黃 鐘 甲
제12연대	장 대령 金 永 錫	海兵 제5獨立대대	장 소령 吳 命 福
제 1 대대	장 소령 柳 文 鎬	인접 부대	
제 2 대대	장 소령 全 勉 植	(右隣接)	
제 3 대대	장 중령 金 瀅 裁	英 제29여단	장 준장
제15연대	장 대령 金 振 暐		T. Brodie, C.B.E

敵軍		敵軍	
中共 제64군	장 曾 思 玉	제191사단	장 陳 新 中
제190사단	장 唐 子 安	(各 일부)	

나. 전투전의 개황

사단은 5月末까지 臨津江岸으로 진출하여 Kansas線을 確保하자 그 以上의 진격을 中止하고 계속 江北岸인 九化里—長湍—開城일대에 대하여 威力搜索을 되풀이 하고 있었다.

그것은 全般的으로 UN軍司令部가 政·戰兩略의 관계에서 Kansas 線 確保 以上의 北進을 企圖하지 않았다는 點과 局部的으로는 臨津江 沿岸의 地形的 條件 및 이를 掌握하는데 뒤따르는 兵力問題때문인 것으로 判斷되었다.

즉 6月中旬에는 UN에서 이미 休戰問題가 公式的으로 擧論되었으며, 이에 副應하여 UN軍의 作戰

指導에는 制限된 性格이 濃厚化하여서 美 第8軍이 6月들어 Piledriver 作戰을 展開한 것도 Wyoming 線의 奪取, 그 自體보다 Kansas 線의 防禦를 強化하려는 것으로 풀이되었다. 이때에 美 제1군단의 右翼은 金化—鐵原일대에 진출하였으나 左翼인 사단은 正面이 Wyoming線에 該當되지도 않았다.

또한 38°線으로의 진격문제도 실행할 경우에 延白平野를 차지하는 利益은 있으나 反面에 戰線이 現 사단 正面보다 數倍나 擴張되고 그에 따르는 兵力의 增加 配置가 困難한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臨津江—38°線일대는 地形上으로 防禦에 不利하고 오히려 그 北方의 山岳地帶로부터 敵이 攻擊하기에 有利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春季攻勢에서 潰滅된 北共 제1군단은 金川부근으로 물러나 再編成中, 6月初에 中共 제64군의 일부가 그 掩護에 任하였으며 高浪浦—開城일대에 警戒網을 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사단은 사령부를 官山里(斗浦洞)에 둔 가운데, 主力은 江南岸에서 右一線인 제12연대가 高土洞—金坡里일대, 左一線인 제11연대가 栗谷里—汶山일대의 主陣地를 確保하면서 主로 예비대로서 江北岸에 대한 搜索과 小規模의 奇襲을 계속하고 있었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 계획

6월 17일 午後에 美 제8군은 朔寧—市邊里—金川—開城地域의 敵情을 把握할 目的으로 美 제1군단에 대하여 正面의 敵에 대한 戰鬪搜索隊의 派遣과 아울러 增強된 特別部隊를 開城일대로 보내어서 敵의 施設을 破壞하고 捕虜를 獲得케 할 것을 命令하였다.

이에 군단장 Milburn 중장은 제1사단을 공격부대로 選定하여 18일 午後에 要旨 다음과 같은 內容의 命令을 下達하였다.

『6월 21일을 期하여 開城부근을 目標로 하는 威力搜索을 敢行하라. 敵의 施設과 物資를 破壞하고 捕虜를 捕獲하며, 敵의 部隊·兵力 및 配置狀態를 偵探하라. 이 任務를 遂行中 敵의 反擊으로 危殆로울 경우에는 隨意撤收하라.』

이와 같은 命令을 받은 사단장 姜文奉소장은 제11, 제12兩연대로 하여금 계속 主陣地를 確保하는 가운데 搜索活動을 強化토록 하는 한편, 사단 예비인 제15연대로써 任務를 遂行케 하기로 決心하여, 각 연대에 要旨 다음과 같이 명령하였다.

『① 사단은 6월 21일을 期하여 開城일대에 대한 機動搜索을 展開하여 敵情을 把握하고 일대의 敵을 擊滅하려 한다.

② 제11연대는 現 任務를 계속하라. 特히 예비대로서 高浪浦 北쪽에 對한 搜索을 強化하라.

③ 제12연대는 現 任務를 계속하라. 特히 예비대로서 九化里일대에 진출케하여 敵情을 把握토록 하라.

④ 제15연대는 臨津江 北岸으로 진출하여 長湍一開城일대에 威力搜索을 敢行하라. 일부로서 開城에 진출하여 敵情을 搜索하라.

⑤ 사단 수색중대는 現 搜索任務를 계속 遂行하되 特히 開城일대에 대한 敵情蒐集에 着眼하라.

⑥ 主抵抗線으로의 復歸時期는 別命한다.』

(2) 작전실시

6월 21일 : 사단은 전날에 이미 臨津江을 건는 제15연대를 비롯하여 제11, 제12兩연대의 예비대대가 모두 江 北岸 깊숙히 挺進하였는데, 사단 수색중대(장, 崔熙燮 대위)는 이에 앞서 04.00에 開城 南端에 突入하였다가 07.00에 反轉하여 炭洞里 西쪽 高地를 占領하고 있었다.

1. 이날 아침 제12연대(장, 金永錫대령)는 主力이 江南岸의 主陣地를 지키는 가운데 제3대대(장, 金瀅裁중령)가 接敵없이 板浮里 北쪽으로 진출하고, 搜索隊는 더욱 挺進하여 10.40에 △207東쪽에서 소대 규모의 敵과 交戰하다가 12.30에 隨意撤收하였다.

2. 제11연대(장, 文亨泰대령)는 제1, 제3兩대대가 主陣地를 지키고 예비대인 제2대대(장, 裵斗龍소령)는 제12연대 제3대대의 西側으로 杜梅里일대에 진출함으로써 제15연대의 北方을 防護하였는데, 11.40에는 沙是里 北쪽 栗木洞에서 중대 규모의 敵과 부딪쳐 16.30까지 이를 牽制하고 있었다.

3. 이와같이 兩연대가 東北側에서 掩護하는 가운데 제15연대(장, 金振璋대령)는 江北岸인 東坡里 西北일대로부터 開城을 向한 前進을 시작하였으니, 제3, 제2兩대대는 각각 大德山一景陵里 南쪽으로 威力搜索을 敢行하는 가운데 제1대대는 長湍一開城 道路를 따라 進出中이었다.

제3대대(장, 金國柱소령)는 02.00에 防築洞으로부터 西進하여 06.30에 白鶴山 北쪽 △159를 占領한 다음, 正午에는 제9중대(장, 李昌浩대위)가 北쪽으로 方向을 돌려 大德山(△237)을 공격하였는데, 同 高地에서 抵抗하던 중대 규모의 敵은 일단 물러났다가 14.30에 다시 北斜面에서 逆襲하였으나, 중대는 西쪽으로 迂回하는 敵에게 手榴彈공격을 加하여 潰滅하고 16.00까지 高地를 確保中이었다. 日沒以後에 대대는 제9중대가 도장洞 東南쪽 高地로, △159를 占領中이던 제10, 제11兩중대는 각각 제9중대의 東北및 南쪽 高地로

反轉함으로써 20.30에는 郭村 西北方일대에 弧形의 曲陣을 펼치고 있었다.

제2대대(장, 張時雨소령)는 제3대대의 西쪽에서 白鶴山 北麓을 거쳐 제5, 제6兩중대를 각각 左·右 第一線으로 하여 09.30에 遠洞 西南쪽의 砂川沿邊에 진출하였는데 10.00를 前後하여 옥십동 南東쪽 高地와 그 西쪽에 있는 △154에서 각각 少數의 敵이 射擊을 加하였다. 이에 제5중대(장, 姜東遠대위)가 먼저 重火器中隊(장, 崔鳳道대위)의 박격포 支援으로 敵을 制壓하고 同 高地(△154)를 奪取하니, 제6중대(장, 朴貴善 대위)가 攻擊中인 東쪽의 敵도 이에 따라 물러났다. 薄暮에 대대는 長湍으로 되돌아 22.00에는 제3대대에 隣接하여 白鶴山일대에 각 중대를 配置하였다.

이렇게 兩대대가 長湍—開城 道路 北쪽에 진출하는 사이에 제1대대(장, 金明中소령)는 03.30에 日月峰(△191) 西쪽의 殘洞으로부터 北으로 進擊을 시작하여 06.00에는 阿谷洞에 진출하였는데, 여기에서 西쪽으로 方向을 轉換하였다. 대대는 제3중대(장, 鄭亨澤대위)를 先鋒中隊로 하여 08.30부터 長湍을 거쳐 急速히 西進하여 午前中에 제3중대가 板門店 東南쪽 高地에, 그리고 대대 主力은 大成洞 東쪽에 진출하였다. 대대는 이날 중으로 開城을 占領하여 威力搜索할 目的으로 진격에 더욱 拍車를 加하니, 午後에는 제3중대가 少數의 敵을 물리치고 法堂坊의 △70를 占領하고 대대 主力은 高頭山里의 砂川 北岸으로 진출함으로써 開城 東南端을 掌握하게 되었는데, 主力의 일부는 거의 驅步의 速度로 前進하는 형편이었다. 이제 長湍郡과 開城市의 境界線부근까지 진출하자 대대는 다시 戰列을 가다듬고, 제3중대는 市內로 突入하였는데 敵影은 보이지 않았으며 중대는 16.30에 市西部로 西興洞—滿月洞 일대까지 진출한 다음 敵情을 探索하던 中 연대의 隨意撤收에 따라 먼저 제1중대(장, 崔永植대위)로서 19.30에 大成洞 北쪽 高地를 占領케하고 그 掩護下에 각 중대는 23.30에 殘洞으로 反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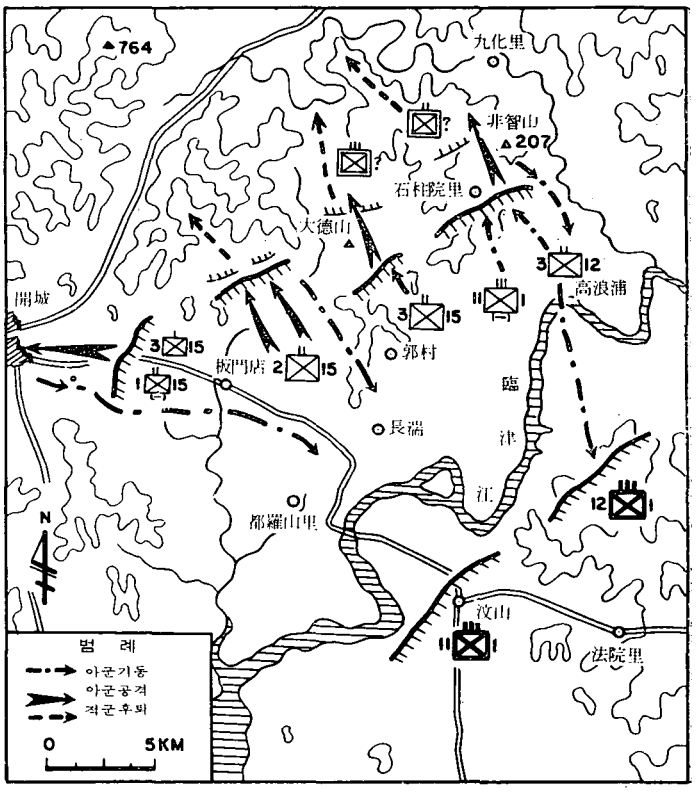
이로서 연대는 東坡里—大德山—開城에 걸치는 長距離의 機動搜索任務를 完遂하였으며 이날 射殺 80명, 捕虜 3명의 戰果를 올렸다.

6월 22일 : 이날 사단은 대체로 전날밤에 確保한 陣地에서 그 附近에 대한 搜索과 警戒를 계속하고 있었다.

右一線인 제12연대는 搜索隊가 九化里쪽으로 진출하였다가 그 일부는 10.00를 前後하여 소룬里 △190 東麓에서 소대 규모의 敵과 交戰하고, 일부는 敵이 九化里 東北方으로부터 加하는 박격포 射擊으로 反轉하였다.

제11연대는 이날 별다른 接敵狀況이 없었다.

◇상황도 제21호 九化里—開城 부근 수색전



제15연대는 전날의 陣地에 머물면서 過度한 長距離 機動으로 말미암아 몹시 疲勞한 將兵들에게 되도록 休息을 取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제3대대만은 敵의 夜襲으로 戰鬪를 계속하게 되었다.

즉 01.40에 2개중대 규모의 敵이 郭村里 西北方의 제3대대를 공격하여, 먼저 도장洞 東南쪽 高地의 제9중대 前面으로 接近하자 중대는 前方의 일부를 곧 뒤로 물렸으나, 뒤이어 重火器중대(장安哲元대위)가 박격포의 火力을 加하고 중대의 모든 銃火도 集注하니 敵은 夜襲企圖가 暴露된 채로 물러서고 말았다. 날이 밝아오자 이번에는 대대右 第一線인 제10중대(장, 崔文榮 대위)가 索敵追擊하여 大德山(△237)을 공격하였다. 밤 사이에 同 高地를 다시 차지한 敵은 我軍 野砲의 射擊에 制壓되어 중대가 東麓으로 부터 西端으로 迂回 攻擊하자 退走하고 중대는 이 高地를 確保하였다. 敵은 17.00에 박격포 射擊과 함께 逆襲을 試圖하였으나 대대의 砲擊과 중대의 공격에 결국 盤龍洞쪽으로 敗走하고 말았으며, 계속 일대를 確保하던 중대는 19.30에 反轉하여 主力과 合勢하였다.

한편 제2대대는 계속 白鶴山일대에서 부근 各處에 分隊級의 搜索隊를 派遣中 이었으며 제1대대는 밤사이 제1중대가 2km 東進하여 金陵里 東北쪽 高地를 占領하고 대대主力은 日月峰 北쪽으로부터 西端에 이르기 까지 제3, 제2兩중대 및 重火器중대가 曲陣을 이루어 警戒에 任하고 있었다.

6월 23일 : 1. 長湍—開城일대에 대한 威力搜索을 실질적으로 끝낸 사단은 이번에는 九

化里 南쪽 非智山일대를 공격하였다.

즉 이때 敵은 그 主力이 아직 南下하지는 않았으나 中共 제190사단, 제191사단의 각 일부가 九化里를 中心으로 堅固한 陣地를 構築하는 한편 非智山일대에 警戒網을 形成하고 있었던 바, 사단은 이를 공격하여 敵陣을 攪亂시키고 打擊을 加하려 한 것이다.

2. 그리하여 右一線인 제12연대(장, 金永錫대령)는 연대 예비대로서 高浪浦 東쪽의 橋頭堡를 確保하고 있는 제3대대(장, 金瀅裁 중령)로 하여금 공격을 遂行케 하였다. 대대는 이날 03.00에 제9, 제11兩중대를 각각 左右 第一線으로 板浮里—新基일대로부터 공격을 시작하였다. 제11중대(장, 金炳坤대위)는 梧陰里로 前進하여 △163에서 少數의 敵을 擊破한 다음 별다른 敵의 抵抗없이 진출을 계속하였는데, 제9중대(장, 白潤基대위)는 비록 小規模의 敵일지라도 계속 戰鬪를 벌여야만 하였으니 05.00에는 연대 搜索隊와함께 소룬里 △190 東麓에서 일부의 敵을 擊退하였으며 09.00를 지나자 다시 少數의 敵을 剔抉하고 石柱院里 東쪽 高地를 占領한 다음 非智山으로 前進하였다. 중대는 13.00에 非智山 南麓에 진출하였는데, 이때에 同山 西쪽에 있는 草峴일대에서 60餘名의 地方民이 散兵壕 안에서 우물거리고 있는 것을 發見하였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러한 곳에서 彷徨하는 지는 疑心스러운 일이었으나 아무런 敵對行動도 하지 않으므로, 중대는 일단 山頂上일대를 占領한 다음 그부근에 대한 수색을 시작하였다. 그러자 그 地方民들은 중대 左側方으로 공격을 加하니 民間人 服裝으로 假裝하였던 敵이 그 本色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중대는 1개소대를 西南쪽으로 迂回케 함으로써 近 30分間의 交戰끝에 이 狡賊을 擊退하였다. 이렇게 중대의 前進이 遲延되므로 대대는 17.20에 제11중대의 1개 소대로 제9중대의 西側을 增援한 가운데 前進을 계속하고, 예비대로 後續한 제10중대(장, 嚴秉吉 대위)는 非智山 北麓에 진출하였다 그리하여 18.30에 제11중대가 △207南쪽에, 제9중대가 篤正里 北쪽 高地에 이르자 △207의 1개대대 규모인 敵과, 제9중대 正面인 △188의 일부 敵이 각종 銃砲火를 集注하며 抵抗하니, 대대는 다시 이 敵을 공격케 되었는데 19.15에 연대로부터 撤收命令이 下達되었다. 이에 대대는 射殺 10餘名의 戰果를 거둔 가운데 主力은 19.30에 제10중대의 掩護下에 江岸으로 隨意撤收한 다음, 다시 제9중대만이 北岸에 殘留하여 高浪浦부근의 橋頭堡를 確保하고 모두 江을 건너 主陣地로 復歸하였다.

3. 또한 제11연대(장, 文亨泰대령)는 이날 새벽에 제3대대마저 加擔하여 主陣地의 제1대대를 남기고 主力은 石柱院里—沙是里일대에 대한 搜索을 敢行하였는데, 初頭에는 接敵이 별로 없이 04.30에 博陵洞 西南 高地에서 일부의 敵을 擊退하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11.20에 계속 鄕校洞으로 前進하자 연대 규모의 敵이 抵抗하였으며, 연대가 공격을 敢行하여 望海山(△272)으로 진출한 18.00에는 대대 규모의 敵이 그 일대에서 抵抗하였다. 20.00에 연대는 敵과의 接觸을 끊고 江岸으로 反轉한 다음 主陣地를 向하여 江을 건넜다.

4. 한편 제15연대(장, 金振璋대령)는 主力으로서 東坡里 西北쪽을 中心으로 防築洞一部 羅山里일대에 陣地를 確保하면서, 제3대대는 07 30에 大德山 南쪽에 진출하여 일대를 搜索하였으나 별다른 接敵狀況은 없었다.

라. 전투후의 개황

사단은 九化里 및 開城일대에 대한 搜索을 일단 끝낸 다음에 사단및 각 연대의 搜索中隊로서 長湍郡일대에 대한 수색을 계속하였으며, 제15연대의 主力이 臨津江 南岸으로 復歸한 것도 6월 26일에 이르러서였다. 또한 그 以後에도 主로 大隊級의 각 예비대로서 江 北岸에 대하여 間斷없이 威力搜索을 展開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사단은 官山里 北쪽 下古谷에 사령부를 두고, 제12연대를 右一線, 제11연대를 左一線으로 江 南岸의 主陣地를 堅持하는 가운데, 江 北岸인 九化里 南쪽一開城일대를 사실상 掌握하였던 것이다.

그런에 7월에 들어서면서 開城에서 休戰會談이 시작되었으며 7月中旬以後 사단의 작전도 九化里 南쪽으로 集中되어 夏季에 있어서의 搜索및 小規模 奇襲이 거의 非智山一石柱院里 일대에서 벌어졌고 西쪽으로는 長湍一大德山일대에 미칠 따름이었다.

이제 사단은 警戒網을 臨津江 北岸으로 推進하여 九化里 南쪽으로부터 西쪽으로 長湍과 西海岸에서 海兵제5獨立대대가 警戒中인 金浦半島까지를 掌握하고 있는 셈이었다.

戰 果		損 失	
射 殺	478명	機關銃	6정
捕 虜	13명		
(鹵獲)		戰 死	10명
小 銃	6정	戰 傷	7명

註 ① 戰果와 損失은 陸軍定期作戰報告와 當該部隊의 報告(戰例)를 綜合한 사단 全體의 것임.
② 제15연대의 戰例에 依하면 연대 戰果는 射殺 82명, 捕虜 3명이고 損失은 戰死 1/8명, 戰傷 4명으로 記錄되고 있는데, 定期作戰報告에는 6월 21일에 연대가 射殺 200명의 戰果를 올린 것으로 記錄되고 23일의 戰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參戰者의 證言

◇제15연대 제2대대장 張 時 雨 소령
(1973.2.19 裕信高速에서, 예 대령)

우리 대대는 臨津江線에 진격한 다음 6월에 GOP대대로 江을 건너서 舊長湍부근에서 소극적으로 작은 규모의 전투를 하였다. 사단 全般의 渡河作戰이라 할것은 없었으며, 主力은 역시 江

을 건느지 않은채 일부 警戒부대만이 江 北岸에 나가 있었다.

◇제15연대 제3대대장 金 國 柱 소령

(1973. 7. 5. 2군단사령부에서, 소장)

연대는 臨津江線에서 小康狀態의 戰線을 維持하며 捜索戰을 遂行하였다. 우리 대대는 高浪浦를 前面에 두고 臨津江南岸에 陣地를 占領한 다음 北岸에는 警戒部隊로 1개 중대만 배치하였다 그러면서 攻勢的인 防禦戰鬪를 하여 많은 戰果를 올리기도 하였다.

◇砲兵 제17대대장 黃 鍾 甲 중령

(1973. 5. 25. 1군사령부에서, 소장)

反擊時에는 대대의 3개 포대가 각 연대를 1개 포대씩 직접 지원하였는데, 보병부대가 臨津江을 건넌 다음에는 高浪浦 南쪽인 江 南岸의 한 지역에 陣地를 점령하고 대대를 統轄 운영하여 前線부대를 지원하였다.

탄약보급은 작전에 영향이 미칠 정도는 아니나 충분치는 못하였다.

◇제15연대 제1중대장 崔 永 植 대위

(1973. 7. 6. 제27사단사령부에서, 소장)

51년 5월, 臨津江線으로 反擊할 때에 우리 대대는 예비대로서 별로 전투를 하지 않고 後續부대로 진격하였다. 그 뒤에 江을 건너 日月峰일대를 占領하였는데, 戰線은 이미 小康狀態에 들어가 捜索戰만을 실시하였으며, 따라서 치열한 전투는 없었다.

◇제11연대 제5중대 화기소대장

李 相 根 소위

(1973. 8. 22. 제3군사령부에서, 대령)

反擊할 때, 우리 제2대대는 步戰砲협동으로 退却하는 敵을 坡平山까지 追擊하여 많은 捕虜를 잡은 다음 奉日川지역으로 機動하였다. 그곳에서 2日間 防禦를 위한 陣地를 점령하고 있다가 다음날 臨津江을 건너 長湍線까지 進攻하였는데, 제6, 제7 兩중대가 각각 右 및 左第一線이었고, 제5중대는 예비대로 있었다. 그 뒤 休戰會談이 本格化하였을 때, 대대 主力은 南岸으로 철수하고 北岸에는 일부만이 殘留, 警戒하였고 우리 중대는 攻山 西쪽의 臨津江 南岸을 경계하였다.

6. 734 高地 攻防戰

제 1 차전 (1951년 8월 2일부터 8일까지)
제 2 차전 (1951년 9월 1일부터 3일까지)

참조 별책부도 제 23 호
상 황 도 제 22.23 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제1차전>

我 軍

제2사단 장 준장 咸 炳 善
제17연대 장 대령 孫 熙 善
제1대대 장 소령 馮 鉉
제1중대 장 대위 金 完 泰
제2중대 장 중위 朴 再 洙
제3중대 장 중위 崔 泰 炯
제4중대 장 중위 吳 昌 輔
遊擊대대 장 소령 權 正 龍
제1중대 장 중위 李 基 範
제2중대 장 중위 李 貞 雨
제3중대 장 중위 金 在 永
支援部隊
포병제18대대 장 중령 崔 哲
제1302工兵대대 장 소령 黃 元 會

隣接部隊
右隣接
美제24사단 제5연대 장
대령 John L. Throckmorton
左隣接
제31연대 장 대령 趙 原 英

병력 : 장교—50명
병—973명
주요장비 : 81mm迫擊砲—6문
60mm迫擊砲—8문
2.36″Rocket砲—11문
57mm無反動銃—1문
機關銃—22정
自動小銃—43정

敵 軍

中共
제27군 장 彭 德 淸
제80사단 장 吳 蘭 亭
제238團(연대)

병력 : 增強된 대대규모
確認된 주요장비 : 野砲—4문
82mm迫擊砲—3문
機關銃—6정

<제2차전>

我 軍

제32연대 장 대령 金 容 珣
제2대대 장 소령 朴 東 錫
제5중대 장 중위 田 奉 順
제6중대 장 대위 柳 凡 洙
제7중대 장 중위 金 榮 國
제8중대 장 대위 黃 烈
제9중대 장 중위 金 昊 榮
(작전중배속)

支援部隊
포병제18대대 장 중령 崔 哲
隣接部隊
右隣接
美제7사단 제32연대 장 대령 John M. Hightoner
左隣接
제31연대 장 대령 趙 原 英

병력 및 주요장비
대체로 편제상의 인원과 裝備를 갖춤

敵 軍

中 共
제80사단 장 吳 蘭 亭
제239團(연대)

병력 : 2個대대규모

확인된 주요장비 : 野砲—3문
迫擊砲—7문
機關銃—9정等

나. 전투 전의 개황

1951년 5월 中旬에 展開된 제2차 春季攻防戰을 契機로 하여 국군 및 UN군이 全戰線에서 다시 北進을 시작하자, 제2사단(장, 咸炳善준장)은 美 제9군단(장, William M. Hoge소장)의 左翼을 맡아 楊平北쪽의 淸溪山(△658)에서 躍進하여 淸平—明智山(△1,250)—白雲山(△904)—廣德山(△1,046)—水皮嶺(大成山 西쪽고개)을 차례로 攻略한 다음 6월 16일에는 金化 東쪽의 Ermine線까지 北上하였다

그런데 이 Ermine線은 白岩山(△1,179)—赤根山(△1,073)—金化를 連하여 設定된 군단의 前進統制線으로서 앞으로는 이른바 鐵의 三角地(金化—鐵原—平康)와 金城을 眼下에 制하고 뒤로는 防波堤格이 된 中部戰線의 要域이었으며, 이 가운데 사단이 擔當한 戰鬪正面은 東西로 連結되는 要路를 낀 赤根山과 金化間의 山岳地帶였다.

사단은 여기에서 제17연대(장, 孫熙善대령)를 右一線으로 하고 제32연대(장, 趙在美대령)를 左一線으로 하여 赤根山—承岩峴—通洞峴—陽地里를 連하는 主要稜線上에 兵力을 전개하는 한편 예비대인 제31연대(장, 趙原英대령)를 六月里(金化 東南쪽 6km)에 控置케 하는 가운데 次期 進擊戰에 對備하는 態勢를 갖추었다.

그러나 군단은 主力이 Ermine線에 이르면서부터, 現戰線에서 終戰으로 매듭지어 보려는 UN군 當局의 基本方針에 따라 攻勢를 中止하고 守勢를 취하여 隸下의 4個사단(제2, 제6, 美제7, 美24제사단)으로써 現 進出線上에 陣地를 構築하는 한편 兵力과 火力을 防守態勢로 轉換하였으며 군단장의 承認없이 兵力을 使用하지 못하도록 統制하였다.

이러다가 同月 下旬에 主抵抗線 前方의 主要高地에 對한 威力搜索을 시작하였는데, 當時 사단에 대하여서는 대대규모를 超過하지 않는 兵力으로 目標 Cat(榛峴里 左右側에 있는 △633와 △434)를 搜索토록 한 결과 제17연대의 제3대대(장, 梁成植소령)가 26일 05.00부터 4일동안에 걸쳐 威力搜索을 展開한 끝에 指示된 目標와 아울러 主陣地 前方의 主要據點을 搜索踏破하였으나 군단의 계획에 따라 29일 18.00에 다시 本陣地로 撤還하여 陣地工事를 계속하였다.

이와같이 군단은 優勢한 戰鬪力을 保有하면서도 守勢를 取하여 主陣地를 強化하는 동시에 30일부터는 Kansas線上의 예비진지까지 補強키 위하여 勞務사단과 一線兵力의 一部로써 陣地工事를 進行하였으며 더우기 7월 10일에 休戰 本會談이 시작되기에 이르러서는 군단 隷下의 全사단이 現陣地를 確保維持하는 消極姿勢로 一貫하였다.

이에 反하여 當面의 敵 中共 제20군(장, 鏖政國)은 Ermine線上의 防禦에 失敗한 뒤로부터 戰勢를 挽回하여 보려고 戰戰兢兢하다가 敗亡을 深憂한 그들 上典의 政略布石으로 協商을 提議함으로써 시간을 얻게되자 金城地區에서 부대를 再編하면서 據點防禦를 劃策하는듯 하더니 7월 15일을 前後하여 新高山(元山 南쪽)으로 물러서고 이번에는 中共 제27군이 그 戰鬪地域을 引受하여 군단과 對陣케 되었다.

이 中共 제27군(장, 彭德凩)은 淮陽부근의 鐵馬山(△1,047)으로부터 金城에 到達하자 곧 제81사단(장, 林風靑)을 右翼 제6사단(장, 張都暎준장) 正面의 登大里 부근으로, 그리고 제80사단(장, 吳蘭亭)은 當 사단의 正面으로 各各 投入하는 동시에 金化로부터 金城에 이르는 要路에 重點的으로 火力을 配置하였다. 特히 이들은 군단이 有利한 制高地域을 掌握함으로써 戰線을 維持키 위하여 主陣地 前方의 至近距離에서 有蓋陣地를 構築하고 大小稜線을 交通壕로 연결하는 등 갖가지 手法을 다하여 地下 貯藏施設까지 갖추면서 陣地固守 태세를 취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제1차 世界大戰 當時에 對陣을 彷彿케 하는 特殊한 戰線으로 移行케 되었는데 이에 따라 彼我 모두가 主陣地 前方의 主要據點을 確保하려 함으로써 戰鬪樣相은 高地에 대한 爭奪戰으로 變貌하게 되었다.

이때에 사단 正面에 있는 中共 제80사단은 榛峴里—芳通里—△433를 連하는 線에서 主陣地를 形成하여 1~3km의 거리에서 對陣케 되었는데, 특히 제17연대의 陣地에서 正面으로 2km 北쪽에 있는 △734에는 그들 제238연대 소속으로 알려진 增強된 대대규모의 병력이 配置되어 前進據點을 마련하고 항상 사단의 動靜을 살필 뿐만 아니라 不時로 陣前에 나타나 衝擊行動을 恣行함으로써 사단으로서는 癌的인 存在로 되었다.

이리하여 사단장은 屢次 이 高地의 공격을 군단에 建議한 바 있었으나 月餘나 留保되다가 7월 末에야 군단장 Hoge소장의 承認을 얻게 됨으로써 그 實行을 보게 되었는데 當時 사단은 陣地戰에 對備키 위하여 遊擊隊를 創設한 뒤였으므로 곧 그 任務를 權正龍소령이 지휘하는 유격대대에 賦與하였다.

그런데 이 遊擊대대는 6월 17일에 사단 指揮所가 있는 白雲洞(抱川郡—東面)에서 3個중대(21/306명)로 發足한 뒤로 美제24사단에서 7명의 敎官과 助敎(장교 1명, 사병 6명)를 招聘하여 1個月동안 遊擊戰과 山岳戰 및 夜間訓練을 마친 다음 野地訓練中 사단장의 명령을 받게 되자 承岩里로 移動하

여 8월 2일 06.00에 공격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734의 敵勢가 豫想外로 強力하여 공격 初動에 이를 擊破하지 못하자 사단장은 유격대대를 제17연대에 配屬시키는 동시에 연대장 孫熙善대령에게 攻擊占領토록 명령함으로써 유격대대와 제17연대의 제1대대(장, 禹 鉉소령)가 合勢하여 이를 攻擊케 되었다.

이 兩대대는 將校 50명에 士兵 973명이었으며 主要裝備는 81mm迫擊砲 6문을 비롯하여 60mm박격포 8문과 2.36″Rocket砲 11문 및 機關銃 22정 等이고 그 밖에도 砲兵 제18대대와 UN空軍이 支援하였다.

연대의 右側에는 美제24사단의 제5연대(장, John L. Throckmorton대령)가, 그리고 左側에는 제31연대(장, 趙原英대령 : 제32연대와 7월 29일 18.00에 交代)가 各各 主陣地를 유지하면서 支援하였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734 攻擊戰(8월 2일~8일)

(가) 작전계획

8월 1일 15.00에 高飛木(金化 東쪽 10km)에 있는 제17연대의 前方 指揮所에서 사단 作戰參謀 李寬植중령의 說明이 끝나자 사단 작전명령 제74호(1951. 8. 1. 08.00)가 下達되었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사단은 局部的으로 反擊을 企圖하는 敵勢를 覆滅키 위하여 目標 "A"(△734)를 攻擊占領하려 한다.

② 유격대대는 2일 06.00에 공격을 개시하여 20.00까지 目標 "A"를 奪取하라. 目標를 奪取하면 즉각 陣地를 構築하는 동시에 目標 "D"(無名高地)를 공격할 수 있도록 準備하라.

③ 제17연대는 1個중대로써 承岩里 北쪽에서 陽攻으로 掩護하라.

目標를 占領하면 原陣地로 復歸하라.

④ 제32연대는 現陣地를 維持하면서 威力搜索을 실시하라.

⑤ 제31연대는 別命이 있을때까지 現任務를 계속 遂行하라.

⑥ 砲兵 제18대대는 유격대대를 直接支援하고 공격개시 30分前에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하라.

⑦ 其他 各隊는 現在의 任務를 계속 遂行하라.』

以上의 要旨命令으로 미루어보면 사단은 現在의 主抵抗線을 그대로 掌握하면서 제17연

대의 掩護아래 遊擊대대로써 △734를 攻擊占領키로 하였는데, 이는 前述한 바와 같은 군단의 方針에 따라 敵의 前進據點을 粉碎하는 것으로 局限되었으며 더우기 可用兵力도 군단의 統制를 받았다.

이리하여 사단장은 火力으로써 敵의 有蓋陣地를 破壞한 다음 一擧에 이를 擊破키로 하였으니 이와 같은 명령을 받은 유격대대장 朴正龍소령은 要旨 다음과 같은 대대 작전명령 제2호(1951. 8 1. 20.00)를 下達하였다.

『① 대대는 2일 06 00를 期하여 공격을 개시, △734를 奪取하려한다.

② 제3중대는 鳳堂德里를 經由하여 목표의 東側背를 공격하라.

③ 제1중대는 목표의 正面으로 攻擊하라.

④ 제2중대는 목표의 左側을 공격하라.

⑤ 通信隊長은 2일 05.00까지 대대 OP와 CP間에 有線을 架設하고 목표를 탈취하면 各 中隊에까지 직접 延伸하라.

⑥ 醫務隊長은 △400에 救護所를 設置하라.

⑦ 各 중대장은 攻擊間에 各 分隊에 이르기까지 進路와 目標를 明確히 指示하라.

⑧ 各중대는 목표를 奪取하면 즉각 진지공사에 착수하라.

⑨ 要請에 따라 砲擊支援이 可能하며 空中支援이 있을 것이다. 規定대로 對空布板의 標識을 실시하라.

⑩ 목표 占領完了 시간은 20.00로 豫定한다.』

(나) 작전실시

8월 2일 · 드디어 이날 05 30을 期하여 공격準備射擊을 시작한 砲兵 제18대대(장, 崔哲중령)는 △734를 비롯하여 그 北쪽 2km의 △633에 이르기까지 敵陣의 要部에 60餘발의 集中砲擊을 加하고 이에 呼應한 步兵部隊는 06.00에 공격을 시작하였다.

즉, 主攻인 사단 유격대대는 △734를 集中的으로 包圍攻擊하고 제17연대의 제1대대는 이를 陽攻으로 牽制하였는데 그동안 屢次의 砲擊으로 말미암아 赤山禿丘가 되어버린 이 高地에서 豫想以上으로 強力한 敵勢에 부딪혀 終日토록 熾烈한 攻防戰을 展開하였다.

1. 遊擊대대(장, 朴正龍소령)는 이날 04 00에 杜木洞(△734 南쪽 1.5km)을 出發하여 △400에서 潛伏待機하고 있다가 06 00에 砲擊이 멈추자 一齊히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제3중대(장, 金在永중위)는 右 第一線을 擔當하여 鳳堂德里의 溪谷을 건넌 다음 東部稜線으로 進攻하였으며 제2중대(장, 李貞雨중위)는 左 第一線을 맡아 承岩里 北쪽으로 迂回하여

그 西側을 攻圍하는 동시에 제1중대(장, 李基範중위)는 正面에서 直衝 突進하였다.

이무렵 제17연대의 제1중대는 벌써 同 高地의 西北쪽으로 깊숙히 進出하여 敵陣 背後에서 威脅사격으로 敵을 陽攻抑留하였으며, 이러한 掩護아래 대대는 敵의 埋伏組를 물리치고 三個중대로 同時에 包圍網을 壓縮하다가 11.30에 그 中腹에서 左側의 제2중대가 처음으로 소대규모의 敵과 激突케 되었다.

이때에 敵은 岩石사이에 構築된 個人壕에 依支하면서 手榴彈을 投擲하고 자동화기를 亂射하는 등 執拗하게 저항하였으나 중대는 과감한 突擊으로 一擧에 이를 突破한 다음 계속 頂上을 目標로 突進하였다. 한편 右側의 제1, 제2 兩중대도 이에 呼應前進하여 12.30에는 該高地 主峰의 50m 앞까지 肉迫하였으니 이로써 대대는 목표 "A"의 奪取를 目前에 바라보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부터 敵의 最後阻止火網에 부딪혀 進展없는 激戰을 展開케 되었으니 本是 이 高地는 岩石이 嶮하고 八部稜線으로 부터는 70° 以上의 急傾斜를 이룬데다 稜線에는 砲擊으로 쓰러버린 樹木의 骸殘만이 남아 射界가 白日下에 露出됨으로써 攻者로서는 不利하기 그지 없었다. 이에 反하여 이러한 地勢를 利用한 中共의 방어는 2個중대 以上의 규모로 推算되는 병력이 要所마다 堅固한 陣地를 占據하고 固守태세를 취할 뿐 아니라 곳곳에 機關銃과 自動小銃 등의 特火點을 마련하여 頑強히 저항함으로써 세차례에 걸친 全面突擊을 敢行하였음에도 不拘하고 이를 擊破하지는 못하였다.

더욱이 下午에 이르러서는 兵力과 火力을 더욱 增強하여 그 勢力이 漸增되었으니, 대대는 UN空軍의 空爆支援(F—51, 3臺)까지 얻었으나 끝내 이를 突破하지 못하고 激戰만을 反復하다가 日沒이 가까워지자 △400 稜線으로 撤收하여 다음전투를 준비하였다.

2. 제17연대의 제1대대장 禹 鉉소령은 『유격대대가 △734를 공격하는동안 陽攻牽制하라』는 指示를 받고 이날 05.00에 제1중대를 出動시켜 이 任務를 遂行케 하는 한편 △358(承岩里 北쪽 1km)에 대대觀測所를 開設하여 支援態勢를 갖추었다.

이에 제1중대(장, 金完泰대위)는 承岩里를 거쳐 △358에서 待機하고 있다가 主攻대대의 공격이 시작되자 敵陣의 西北쪽으로 直行하여 抑留攻勢를 폈는데, 09.40에 敵의 60mm와 82mm 砲擊으로 몇명의 負傷者를 내었으나 이를 무릅쓰면서 繼續前進하여 12.40에는 該高地의 西北側 中腹에까지 나아가 支援射擊을 계속하였다.

그런데 이날 下午에 遊擊대대가 突擊線에서 進擊이 膠着되어 激戰을 反復하자 중대는 사단장의 口頭命令에 따른 대대장의 指示로 14.10에 突擊隊列에 加擔케 되었다. 즉 同 高

地의 西斜面 稜線을 따라 主攻梯隊의 左端으로 直衝한 중대는 유격대대의 제2중대와 合勢하여 15.30부터 協同攻擊을 시작한 것이다.

이무렵 포병 제18대대(장, 崔 哲중령)에서는 다시 砲擊을 시작하여 30分間에 걸친 集中射擊으로 敵陣에 鐵槌를 加하였으며 또한 敵陣에서도 약간의 對應砲擊이 있어서 一時 공격을 中止하였다가 16.00에 彼我의 砲擊이 멈추자 兩중대는 다시 突進하였다.

그러나 砲擊에도 무너지지 않는 陣地를 固守한 敵은 다시 고개를 들고 執拗하게 저항함으로써 一進 一退를 거듭하다가 사단의 계획에 따라 17.30에 攻擊을 中止하고 △400 西쪽에서 防守態勢를 갖추었다.

3. 이와 같이 終日토록 激戰이 展開되는 동안 사단의 主抵抗線에서는 제17연대(장, 孫熙善대령)가 右一線을 맡아 承岩峴으로부터 通洞峴까지의 陣地를 堅守하였으며, 제31연대(장, 趙原英대령)는 그에 連한 左一線을 擔當하여 通洞峴과 陽地里間의 陣地를 確保한 가운데 威力搜索을 전개하고 제32연대(장, 趙在美대령)는 土玉洞(金化 東南쪽 6km) 부근에 集結하여 華川—金化間의 道路沿邊을 警備하였다.

한편 사단사령부에서는 이날밤 作戰會議를 開催하여 戰況을 檢討하고 다음 對策을 熟議한 結果, 사단장 咸炳善준장은 유격대대 單獨으로서는 △734의 奪取가 어려울 것으로 判斷하고 유격대대를 제17연대에 配屬시키는 동시에 연대장 孫熙善대령에게 『明日 17.00까지 目標 "A"를 占領하라』고 指示하였다(제2사단 작전지시 제35호로써 文書命令後達).

8월 3일 : 새로이 命令을 받은 제17연대장은 유격대대와 自隊의 제1대대를 左右 攻擊梯隊로 하여 一擧에 이를 擊破할 것을 決心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연대 작전명령 제76호 1951, 8 2, 24.00)를 口頭로 下達하였다(文書命令 後達).

『① 연대는 現在의 主陣地를 계속 確保하면서 목표 "A"를 攻擊占領하려 한다.

② 제1대대장은 유격대대의 제2중대를 統合指揮하여 목표 "A" 西側의 敵을 공격하라

③ 유격대대장은 1개중대를 제1대대에 配屬하고 殘餘 主力으로써 목표 "A" 東側의 敵을 공격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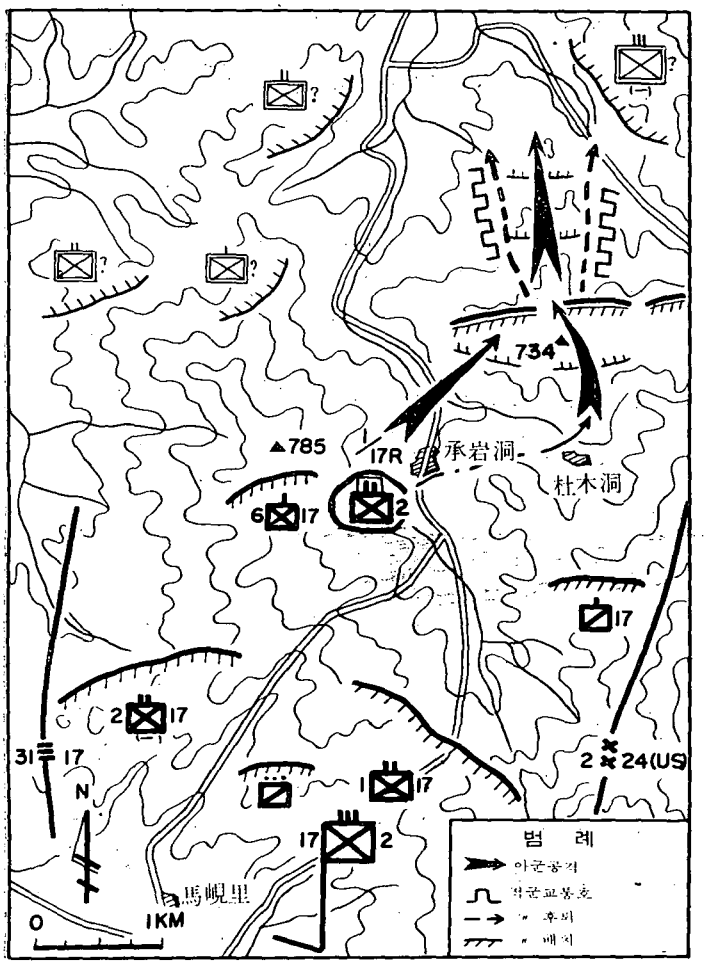
④ 제2, 제3 兩대대는 別命이 있을때까지 現在의 任務를 계속 수행하라.

⑤ 醫務隊長은 3일 06.00 以前에 前方救護所를 承岩里에 設置하라.

⑥ 通信隊長은 3일 06.00까지 前方 OP에 有線을 架設하고 SCR—300으로 유격대대를 支援하라.

⑦ 目標를 奪取하면 유격대대는 즉각 3個중대를 統轄하여 △734에 陣地를 構築하고,

상황도 제22호 734高地 진격전



제1대대는 命에 依하여 原陣地로 復歸할 수 있도록 準備하라.

⑧ 날씨가 좋으면 航空支援이 있을 것이다. 規定에 依한 對空布板을 標識하라.

⑨ 공격 개시시간은 3일 06.00이며 공격개시 30分前에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명령을 下達한 연대장은 이날 17.00까지 목표를 占領토록 強調하고 進擊을 斷行하였는데, 敵은 野砲火力을 發揮하면서 頑強히 저항하여 激戰을 전개한바 있었으나 步砲空이 協同한 果敢한 突擊으로 끝내 이 高地를 占領 確保하였다.

1. 遊擊대대는 30分間의 공격준비사격이 끝나자 대대장 權五龍소령의 陣頭指揮로 06.0에 一齊히 △734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中共 제238연대는 전날보다도 더욱 兵力과 火力을 增強하고 陣前에 煙幕을 遮障하면서 執拗하게 저항한 까닭으로 대대(一)는 東斜面에서 두차례에 걸친 突擊을 감행하였음에도 不拘하고 敵의 最後阻止 火網을 突破하지 못하고 전날과 같은 突擊線에서 激戰을 再演케 되었으며 더우기 同 高地 東北稜線에서 敵의 重機關銃이 進出全面을 威脅하고 亂射하기에 이르러서는 一時 공격을 中止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대대장은 곧 特攻隊를 突進시켜 이 기관총 陣地를 爆破토록 하는 동시에 다시 突擊態勢를 갖추었는데 13.00에 마침 UN空軍의 1個編隊 (F—51, 4臺)의 20分間에 걸친 空

中爆擊으로 △734 主峰의 敵陣과 그 左右 稜線에 構築된 銃座에 이르기까지 壯快한 集中爆擊을 加함으로써 敵陣은 亂麻와 같이 엉키어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대대는 이에 肉接하여 全面 攻擊을 감행함으로써, 한동안 高地頂上에서 手榴彈과 白兵과의 肉薄混戰이 전개되었으나 將兵들의 勇戰으로 대대규모의 敵을 擊破하고 14.5C에 드디어 主峰을 完全히 占領하였다

여기에서 대대는 左側으로 進出한 제1대대와 戰線을 連繫한 다음 戰列을 가다듬어 다시 無名高地로 追擊하였는데 17 3C부터 제3중대(제1대대)와 協調하여 擊滅戰을 편 끝에 18 3C에는 無名高地까지 점령한 다음 △734로 돌아와 진지공사에 착수하였다.

이날 대대의 종합전과는 敵 사살 50명에 기관총 2정과 小銃 2정 및 수류탄 30발을 노획하였으며, 損失은 戰死 1C명과 負傷 29명이었다.

2. 제1대대(장, 禹 鉉소령)는 이날 공격에 앞서 梯隊를 編成하기를, 제2중대(장, 朴再洙중위)는 전날 激戰을 치룬바 있던 제1중대의 陣地를 引受하여 유격대대의 제2중대(장, 李貞雨중위)와 함께 목표 "A"의 西側을 공격케 하였으며, 제3중대(장, 崔泰炯중위)는 이를 超越하여 無名高地를 공격케 하고 重火器중대는 承岩里로 砲陣을 移設하여 支援態勢를 갖추게 하였다.

이에 따라 제2중대는 C5.4C에 承岩里를 出發하여 △4CC 西쪽에서 제1중대의 陣地를 引受한 다음 곧 제2중대(유격대대)와 併行하여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C7.4C에 벌써 △734의 中腹에 이르러 熾烈한 激戰을 전개케 되었다. 중대는 射界가 露出된 西斜面에서 敵의 火網에 부딪혀 一瞬 混線을 빚고 약간의 死傷者를 내었으나 이를 克服하고 步一步 前進하여 10.15에는 敵의 抵抗據點 2C~3Cm 앞까지 肉迫하였다.

이때부터 攻防戰은 高調에 達하여 彼我를 分別키 어려운 砲擊이 山野를 메우고 硝煙을 뚫는 銃砲聲가운데 肉薄戰과 紛戰, 그리고 亂鬪와 亂擊을 2시간 동안에 걸쳐 보이게 되었다.

13 0C에 이르러 友軍의 空中支援을 얻게 되자 步砲空의 立體的인 協同으로 擊滅戰을 펴게 되어 敵陣의 壞滅은 時刻을 다투게 되었다.

이리하여 好機를 捕捉한 兩중대는 14.3C에 다시 全面攻擊을 감행한 끝에 이를 擊破하고 15.CC에는 △734의 西半 一角을 占領하여 여기서 유격대대와 戰線整理를 마친 다음 左前方의 無名高地로 공격方向을 돌렸다.

한편 제4중대는 承岩里에서 支援射擊을 계속하였으며, 제3중대는 12.00에 承岩里를 出發하여 急遽 無名高地로 進攻하였는데, 이때 難攻의 要地를 擊破한 主力이 大擧 支援함으로써 18.30까지 該 高地를 完全히 점령하였다.

그뒤 중대는 無名高地를 確保하고 대대 主力은 19.00에 △734와 無名高地 中間에서 陣地를 占領하였다.

8월 4일 : 전날 △734에서 痛擊을 받은 敵은 分散되어 그 一部가 △600 稜線을 타고 北方으로 潰走하였으나, 그들의 本陣인 △633(△734 東北쪽 2.5km)에서 兵力未詳의 새로운 一群이 逆襲을 취하여 이날 02.00에 無名高地로 集中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리하여 여기를 지키고 있던 제1대대의 제3중대는 1시간동안의 暗中激突을 전개하였으나 끝내 이를 阻止하지 못하고 △734로 철수하게 됨으로써 이때부터 攻守가 바뀐 激戰이 시작되어 이날은 終日토록 進退가 無常한 攻防戰을 전개케 되었다.

1. 遊擊대대(장, 權正龍소령)는 제3중대가 撤收한 뒤로 △734까지 侵攻을 노리는 敵을 陣前에서 擊破한 다음 進攻態勢를 갖추고 있다가 05.30에 대대장 陣頭指揮下에 失陷된 無名高地로 진격하였다.

이때에 2個중대규모의 敵이 이를 지키고자 집요하게 저항하였으나 陣地를 編成할 겨를도 없이 怒濤와 같이 突進한 대대의 衝擊으로 支離滅裂되어 退却함으로써 대대는 07.30에 이를 再奪還하였다.

그러나 敵은 西北쪽 稜線을 타고 潰走하다가도 다시 分散兵力을 糾合하여 계속적으로 저항하였으며, 또한 地勢로 보아 △734를 完全히 確保하려면 △600 稜線의 敵勢를 驅逐하여야 되기 때문에 연대장은 이를 完全히 制壓할 必要性을 直感하고 유격대대장으로 하여금 계속 △600 北端까지 進擊戰을 펴도록 명령하는 동시에 제1대대에 配屬된 제3중대를 原隊로 復歸토록 措置하였다.

이에 따라 대대장은 現陣地를 제1대대의 제3중대에 引繼하는 한편 自隊의 3個중대를 統合指揮하여 10.30부터 追擊戰을 再開하였는데, 제3중대를 右追擊隊로 하고 제1중대를 中央追擊隊, 그리고 제2중대를 左追擊隊로 하여 △600를 目標로 突進하였다.

이리하여 全火力이 集中支援하는 가운데 계속 追擊한 대대는 11.50에 橫座標 41°線을 넘었으며 15.40에는 西北稜線의 北端인 榛峴里 부근에까지 突進하였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戰況은 突變하였으니 중대규모의 敵이 陣前에서 發惡的인 저항을 하

고 左, 右 兩側方에서는 重火器火力이 激增하였으며 더우기 17.20부터 暴雨가 쏟아져 敵情을 把握키 어렵게 된 것이다.

이에 대대장은 一旦 공격을 中止하고 有利한 地形을 擇하여 300m쯤 물러선 다음 陣地를 編成하였는데, 金在永중위가 지휘하는 제3중대는 △633와 對峙하는 東斜面의 陣地를 점령하고, 제1중대(장, 李基範중위)는 榛峴里 고개를, 그리고 제2중대(장, 李貞雨중위)는 그에 連한 西斜面 陣地를 점령하였다. 한편 增援중대인 제1대대의 제2중대는 대대의 左端으로 進出하여 側方警戒陣地를 점령하였다.

이와같이 대대가 急編陣地를 選定하여 防守態勢를 갖추고 있을 때, 中共 제238연대는 暴雨와 夜暗을 利用하여 逆襲을 감행하였다. 즉 제1, 제2 兩중대가 防禦中인 △600 稜線의 中腹으로 接近한 增強된 대대규모의 敵은 23.30에 不時로 侵攻하여 正面突破를 企圖하는가 하면 鳳堂德里쪽에서 東側方을 뚫고 背後로 侵襲한 數 未詳의 兵力은 退路를 遮斷코자 함으로써 子正이 넘도록 到處에서 手榴彈戰과 肉薄血戰이 전개되었다.

이리하여 대대는 渾身의 力鬪를 다하였으나 수류탄의 不足과 暴雨로 말미암아 混戰을 거듭하다가 다음날 01.00에는 제2중대의 防守陣이 무너지고 一部의 兵力이 分散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戰況報告를 받은 연대장은 無電으로 命令하되 『유격대대는 즉시 △734로 撤收하여 阻止陣地를 占領하라』는 要旨의 緊急指示를 下達하였다.

이에 대대장은 夜暗속의 暴雨를 무릅쓰고 分散兵力을 최대한으로 수습하면서 △734로 철수하여 제1대대의 제3중대와 合勢한 다음 阻止陣地를 形成하기에 總力을 다하였으나 敵의 追擊이 急迫하여 彼我를 識別키 어려운데다 82mm 敵彈이 60餘發이나 集中함으로써 混亂이 거듭되자 △734의 後麓으로 集結토록 명령하는 동시에 연대에 戰況을 報告하였다.

그뒤 대대장은 02.30부터 兵力을 再收拾하기에 힘써 戰列을 整理한 다음 05.00에 雪辱의 反擊을 시작하였는데 憤怒에 찬 將兵들은 다만 突進에 突進을 계속하여 1시간동안의 激戰 끝에 △734를 再 奪還하였으며 이어서 08.30에는 無名高地까지 다시 奪取하고야 말았다.

대대는 이날 敵사살 34명에 수류탄 130발을 노획하는 反面 16명이 戰死하고 11명이 負傷하였다.

2. 제2대대(장, 禹 鉉소령)는 제3중대가 이날 02.00에 無名高地에서 苦戰끝에 △734로

철수하게 되자 04.00에 중대규모의 敵이 제2중대의 陣前으로 侵攻한 바 있었으나 곧 이를 擊退하고 계속 陣地를 固守中이었는데, 유격대대가 無名高地를 다시 奪還하고 △600로 指向한 追擊戰을 展開하게 됨으로써 대대는 연대의 計劃에 따라 △734의 陣地를 引受케 되었다.

즉 유격대대의 제2중대를 原隊로 復歸시키고 自隊의 兵力만으로 防守陣을 形成케 된바, 제3중대는 △734에서, 제2중대는 同 高地 以西의 稜線에서, 그리고 대대 수색대는 無名高地에서 各各 진지공사에 着手하였다.

이리하여 하루의 작업을 마치고 17.20부터 暴雨가 쏟아지자 現地에서 防守態勢를 取하였는데, 이무렵 유격대대는 西北쪽으로 敵陣 깊이 進出하여 雨中苦戰을 겪고 있었으므로 연대장의 口頭命令에 依하여 이를 支援케 되었다. 즉 제2중대(장, 朴再洙중위)를 유격대대의 右端으로 進出시켜 楸峴里 西便의 敵勢를 驅逐하고 유격대대와 함께 西部高地에서 固守陣地를 確保케 하였던바, 중대는 19.00에 無名高地를 넘어 西部高峰을 차례로 踏破한 연후에 20.30에는 유격대대와 戰線을 連繫한 다음 楸峴里 溪谷의 南쪽에 陣地를 確保하였다.

그런데 深夜에 이르러 유격대대가 敵의 奇襲으로 말미암아 分散하게 되자 중대는 承岩里로 通하는 接近路를 굳게 지키고 一戰을 決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으나, 아직 陣前에는 敵影을 볼 수 없었으며 다만 彼我의 砲擊만이 徹夜 계속되었다.

한편 제3중대와 수색대는 △734—無名高地의 線에서 유격대대의 철수를 掩護하고 敵의 攻勢를 阻止하다가 유격대대와 步調를 같이 하여 △734 後麓에서 戰列을 再整備한 다음 05.00에 再 進擊戰에 나섰는데 특히 無名高地 奪還時에 搜索隊의 徐德奉 一兵은 單身으로 手榴彈을 兩손에 들고 敵陣으로 突入하여 中共醜虜 1명을 사로잡는 勇猛을 떨쳤다.

3. 이상과 같이 하루밤 사이에 △734의 主人이 두 차례나 바뀌는 동안 砲兵 제18대대(장, 宣哲중령)는 無慮 300餘발의 砲擊으로 敵陣에 鐵火를 퍼부었으며, 사단 主抵抗線에서는 더욱 警戒를 強化하고 기타 모든 支援의 重點을 제17연대에 集中키로 하였다.

8월 5일 이날 上午에 △734와 그 一帶의 要域을 다시 確保한 연대(一)는 날씨가 개이면서부터 陣地作業에 착수하였는데 이날은 散發的인 挑發이 있을 뿐으로 小康상태가 유지되는 가운데 戰線을 再整理하였다.

1. 유격대대(장, 權正龍 소령)는 제1대대의 제3중대까지 統合指揮하여 陣地를 形成케

된바, △734의 主峰은 배속된 제3중대가 擔當하고 自隊의 3個중대는 그 北쪽의 鳳堂德里와 △600 稜線에서 陣地를 擇하여 工事에 着手하였다.

그런데 12.00에 중대규모의 敵이 △600 西斜面에서 挑發하자 대대는 사단의 砲擊支援을 얻어 가볍게 이를 擊退하였으며 17 50부터는 敵의 82mm砲彈이 △734에 10餘발이 集中하였으나 別다른 이상이 없었고, 22.00에는 無名高地 北쪽에서 다시 소대규모가 나타났으나 이를 一蹴한 다음 계속 陣地를 確保하였다.

2. 제1대대(장, 禹 鉉소령)는 제2중대와 搜索隊가 合勢하여 無名高地로부터 楸峴里 고개에 이르는 西部稜線을 占領한 가운데 陣地를 補強하였는데, 이날 晝間에는 特別한 狀況이 없더니 20.00에 소대규모의 敵이 楸峴里에서 承岩里로 通하는 小路를 利用하여 迂回奇襲을 試圖하자 제2중대가 逆攻으로 거의 殲滅的인 打擊을 加하였다.

8월 6일 · 연대는 이날 08.00에 연대 作戰指示 제3호를 下達하여 當初의 計劃대로 戰線을 再調整하였다.

즉 유격대대에 연대 搜索중대와 제1대대의 수색대를 配屬시켜 이미 確保한 △734 및 그 一帶를 專擔케 하는 동시에, 제1대대를 原陣地로 復歸시켜 연대 主陣地의 右一線을 擔當케 하였다. 이로써 연대는 Ermine線上의 主陣地를 계속 掌握하면서 △734의 前進據點을 防禦하는 任務를 追加케 된 셈이었다.

1. 遊擊대대(장, 楠正龍소령)는 10 30에 제1대대의 搜索隊가 到着하자 △734에서 제3중대(제1대대)의 陣地를 引受케 하는 한편 연대 수색중대가 進入하기를 기다리면서 陣地作業을 계속하였는데, 14.00에 소대규모의 敵이 連絡線를 利用하여 無名高地의 西斜面에서 挑發함으로써 一時 交戰한 바 있었으나 가볍게 이를 擊退하였다.

이윽고 16 30에 연대 수색중대를 맞이한 대대장은 戰線을 調整하여, 搜索중대와 제1대대의 수색대로 하여금 △734와 그에 連한 東部稜線을 점령케 하고 유격대대는 無名高地를 中心으로 그 左, 右의 稜線에 兵力을 配置하였다.

이와같이 대대는 戰線을 再整備한 다음 日暮와 함께 警戒에 들어갔는데 이날밤 20.00에 다시 敵의 砲擊이 시작되더니 22.20에 2個중대 규모의 敵이 無名高地의 東西 兩斜面에서 夜襲을 敢行하였다.

이리하여 左端陣地에서는 混戰을 惹起케 되었으나 대대는 照明支援을 받으면서 이를 擊退하였으며, 24.00에는 一部의 敵이 대대 OP부근까지 侵襲한 바 있었으나 또다시 痛擊을 加하여 이를 擊退하였다.

2. 한편 제1대대(장, 禹 鉉소령)는 陣地를 引繼하고, 이날 10.00에 承岩里로 集結하여 各중대별로 人員과 裝備를 點檢한 다음 原陣地로 復歸하였다.

8월 7일 : 中共 제238연대는 △734를 빼앗긴 뒤로 몇차례에 걸친 反擊을 試圖하다가 失敗하자 이날은 연대규모의 병력을 動員하여 大擧 夜襲을 감행함으로써 彼我 서로 激突케 되었다.

1. 遊擊대대(장, 權正龍소령)는 그동안 數次에 걸쳐 激戰을 치르는 사이에 當初 327명(장교 21명, 사병 306명)이던 兵力이 이날 01.00에는 211명(장고 12명, 사병199명)으로 줄었으나 殘餘兵力을 統合하고 搜索중대의 支援을 얻어 △734의 前進據點을 固守中이었는데, 이날 晝間에는 小康상태가 維持되더니 날이 저물면서 敵의 反擊이 또 다시 시작되어 激戰을 再演케 되었다.

즉, 中共 제238연대는 16.00부터 砲擊을 시작하여 대대陣地의 全域에 50餘발을 集中하더니 增強된 대대규모의 병력이 無名高地로 侵攻하여 三面에서 攻圍하는 한편 △734에서 西南쪽으로 3.5km 떨어진 제17연대 제2대대(장, 金成珏소령)의 陣前으로 2個중대규모의 병력이 또한 侵襲하였다.

이리하여 19.00부터 攻防戰이 시작되었는데 제2대대 正面의 敵은 陽攻程度에 그쳤기 때문에 20.30까지 完全히 擊退하였으나 유격대대는 無名高地에서 1對 4의 敵勢속에 激戰을 展開케 되었으니, 무려 5시간 동안이나 間斷없는 血鬪를 계속하였음에도 不拘하고 敵은 계속적으로 波狀攻勢를 取하여 겹겹히 밀려들었으며 더우기 子正을 넘으면서부터는 1個중대규모의 敵이 突然 背後로 侵襲하여 四面에서 侵攻함으로써 대대는 어둠과 混亂속에 苦戰을 겪게 되었다.

이에 대대장은 無名高地의 線을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判斷하여 全兵力을 △734의 主峰으로 集結토록 命令하였으니 유격대대는 다음날 01.00부터 各중대별로 敵의 包圍網을 뚫고 △734로 철수하여 搜索중대와 함께 阻止線을 形成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때에는 同 高地도 이미 敵의 手中에서 混戰을 거듭하게 되었으며 더우기 鳳堂德里 쪽에서 侵襲한 數未詳의 敵이 東側 背斜面에서 대대 OP부근까지 肉迫하기에 이르러서는 四面楚歌 속에서 肉薄血戰을 계속하게 되었다.

이러한 渦中에서도 將兵들은 挺身과 獻命을 다하였으며 特히 支援班의 60mm迫擊砲手인 金鍾西下士(所屬不明)는 계속 敵陣을 強打하다가 敵이 대대 OP부근까지 육박하자 單身으로 수류탄을 들고 喊聲을 지르면서 突入하여 一時에 6명의 敵을 爆殺시키는 等, 勇戰

奮鬪 하였으나 衆寡不敵으로 끝내 이를 擊滅치 못하고 分散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리하여 대대장은 03.00에 杜木洞에서 殘餘兵力을 收拾한 다음 제1대대의 搜索隊와 合勢하여 다시 △734를 공격하려 할 무렵, 연대장으로부터 『유격대대는 戰鬪正面을 연대의 제1중대에 引繼하고 杜木洞에서 다음 命令을 待機하라』는 要旨의 명령을 받았다.

그 뒤로 대대는 계속 兵力을 收拾하면서 杜木洞에서 阻止陣地를 점령하고 제1중대의 到着을 기다렸다.

2. 한편 제1대대(장, 禹 鉉소령)는 原陣地로 復歸한 다음 暴雨로 말미암아 破損된 陣地를 補強하고 있었는데 第一線의 戰況이 突變하여 △734를 다시 敵에게 넘겨주게 되자 연대장의 急命에 따라 제1중대를 杜木洞으로 진출시키는 동시에 全대대가 非常으로 突入하여 出動態勢를 갖추었다.

3. 이상과 같이 敵의 大擧攻勢로 因한 急變 戰勢을 보게 되자 연대장 孫熙善대령은 그동안 損失이 컸던 유격대대를 豫備로 돌리는 한편 제1대대장에게 『明日 12.00까지 △734를 再奪還하라』는 명령을 下達하였으며 또한 사단에 戰況報告와 함께 火力支援을 요청하하였다.

8월 8일 : 이날은 새벽부터 強風이 불고 暴雨가 휘몰아치는 不順한 날씨였으나 計劃대로 04.30부터 攻擊 準備射擊이 시작되었다.

이윽고 30分間의 砲擊이 끝나자 제1대대 제1중대(장, 金完泰대위)와 搜索隊는 05.00에 杜木洞을 出發하여 △734로 突進하였는데, 폭우를 무릅쓰고 계속 진출한 兩 攻擊中隊는 06.00에 該 高地 南麓에 이르러서 수색대는 東部稜線으로, 그리고 제1중대는 左側稜線으로 전개하여 包圍網을 壓縮하였다.

그런데 敵은 어느틈에 追擊砲 陣地까지 마련하고 82mm와 60mm의 砲擊으로 對應할 뿐만 아니라 수류탄을 집중하면서 執拗하게 抵抗함으로써 雨中에서 激突케 되었으나 怒濤와 같은 將兵들의 突進으로 3시간 동안의 激戰 끝에 09.00에는 다시 △734를 奪還하였으며, 潰走하는 殘敵을 계속 追擊하여 △600 稜線으로 擊退시킨 다음 無名高地까지 마저 占領하였다.

그 뒤에 중대는 제1소대로 하여금 부근 一帶의 殘敵을 撲滅케 하는 동시에 遲滯없이 陣地工事에 着手하였는데 이번에는 사단 工兵중대에서 支援나와 陣前에 地雷를 埋設하고 鐵條網을 架設하였으며 勞務隊의 支援으로 堅固한 陣地를 構築하였다.

한편 연대에서는 사단의 計劃에 따라 제1대대장에게 이 前進據點을 確保維持토록 하는

한편 제1대대의 主陣地를 2km 더 北上시켜 杜木洞—承岩里—△785를 連하는 線으로 前進키로 하고 그 準備에 着手하였다.

이로써 연대는 進退가 無常한 一週日間의 격전 끝에 及其也는 이 據點을 占領確保하였는데 以後에도 散發的인 挑發이 그치지 않았으나 그때마다 이를 擊退하고 陣地를 固守하였다

一週日間의 攻擊戰을 通한 연대의 綜合戰果와 損失은 다음과 같다.

綜合戰果 및 損失

戰果			損失		
區分 \ 대대別	제1대대	유격대대	區分 \ 대대別	제1대대	유격대대
射殺	57명	137명	戰死	23명	34명
捕虜	2명		負傷	80명	100명
機關銃		2정	失踪	1명	9명
各種小銃	5정	1정			
手榴彈	63발				

(2) △734 防禦戰

(가) 작전계획

제17연대(장, 孫熙善대령)는 △734를 占領確保하자 제1대대의 제1중대와 연대 수색중대로 하여금 이 前進據點을 固守케 하는 한편 제1대대의 主陣地를 杜木洞—承岩里—△785를 連하는 線으로 推進하여 戰線을 調整한 다음 陣地를 補強하면서 捜索活動을 展開하였다.

그런데 當面의 中共 제238연대는 여기서 물러난 뒤로부터 反擊을 계속하여 11일에는 소대규모, 13일 23 40과 15일에는 各各 중대규모의 병력으로서 同高地의 陣前에서 挑發하더니 16일 以後부터서는 捜索으로 轉換하여 彼我의 捜索隊가 서로 衝突할 뿐으로 戰線은 다시 小康狀態가 유지되었다.

이때에도 군단의 方針은 변함이 없이, 現陣地를 堅守하면서 威力捜索을 전개토록 함으로써 사단은 다시 陣地防禦에만 置重하게 되었다.

이에 사단장 咸炳善준장은 戰線을 더욱 補強키 위하여 지난 戰鬪에서 激戰을 치룬바 있던 제17연대를 交代키로 決定하고 예비연대인 제32연대(장, 趙在美대령)로 하여금 22일

18.00까지 陣地를 引受케 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이 사단의 右一線이 된 제32연대는 22일부터 承岩峴과 通洞峴間의 陣地를 맡아 防守態勢를 갖추었는데, 當時 연대의 防禦陣 編成을 概觀하면 右一線에는 제2대대(장, 朴東錫소령), 中央에는 제3대대(장, 金鼎德소령), 그리고 左一線에는 제1대대(장 禹 鉉소령 : 제17연대에서 제32연대로 轉入됨)로서 3個대대를 同時에 一線에 展開하여 防禦縱深을 깊게 하였다. 동시에 제6, 제10 兩중대를 연대 예비대로 控置하였으며 各 대대마다 主陣地 前方에 強力한 捜索據點을 設定케 하였다.

특히 제2대대에는 연대의 捜索중대를 배속시켜 自隊의 제7중대와 합께 △734의 前進據點을 專擔케 하는 동시에 威力있는 捜索戰을 전개하여 局部的인 攻擊企圖를 粉碎케 하였다.

이러다가 8월 27일附로 新任연대장 金容甸대령이 趙在美대령의 後任으로 赴任하였으나 연대의 基本方針에는 변함이 없이 陣地防禦와 捜索戰을 전개하고 있다가 9월 1일에 中共 제239연대와 激突케 되었다.

(나) 작전실시

9월 1일 : 中共 제80사단(장, 吳蘭亭)은 그간의 靜寂을 깨뜨리고 그들의 예비대인 제239연대를 投入하여 이날밤 大擧攻勢를 취함으로써 △734에서 一大激戰을 再演케 되었다.

즉, 이날 20.00 正刻에 제7중대 分遣隊의 200m 앞에서 赤色 信號彈 4발이 오르자 곧 이어 중대觀測所(△734 頂上) 부근에 煙幕彈 4발이 떨어져 視界를 遮障하였으며 이를 契機로 하여 敵의 砲擊이 시작되더니 △734와 그 一圓에 200餘발이 集中되었다.

이윽고 20.30부터 各隊에서 敵의 出現狀況이 飛報되었는데, 右端인 捜索隊의 陣前으로는 鳳堂德里쪽에서 중대규모의 병력이 接近하고 있었으며 △734의 主峰을 맡은 제7중대 正面으로는 楸峴里쪽에서 대대규모의 병력이 侵攻하고, 제3대대의 正面인 承岩里 西쪽에서는 2個중대 규모가, 그리고 연대의 左一線인 제1대대의 戰鬪地境線 부근으로도 중대규모의 兵力이 各各 陣前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와같이 敵이 反擊으로 나가자 砲兵 제18대대(장, 崔 哲중령)는 즉각 이에 對應하여 制壓射擊을 시작하여 楸峴里 부근에 位置하는 것으로 알려진 敵의 砲陣地에 對한 對砲兵射擊과 追接하는 集團에 對한 彈幕사격을 실시하였으며 군단의 제92 및 제987 自走砲대

대도 이에 合勢하여 砲擊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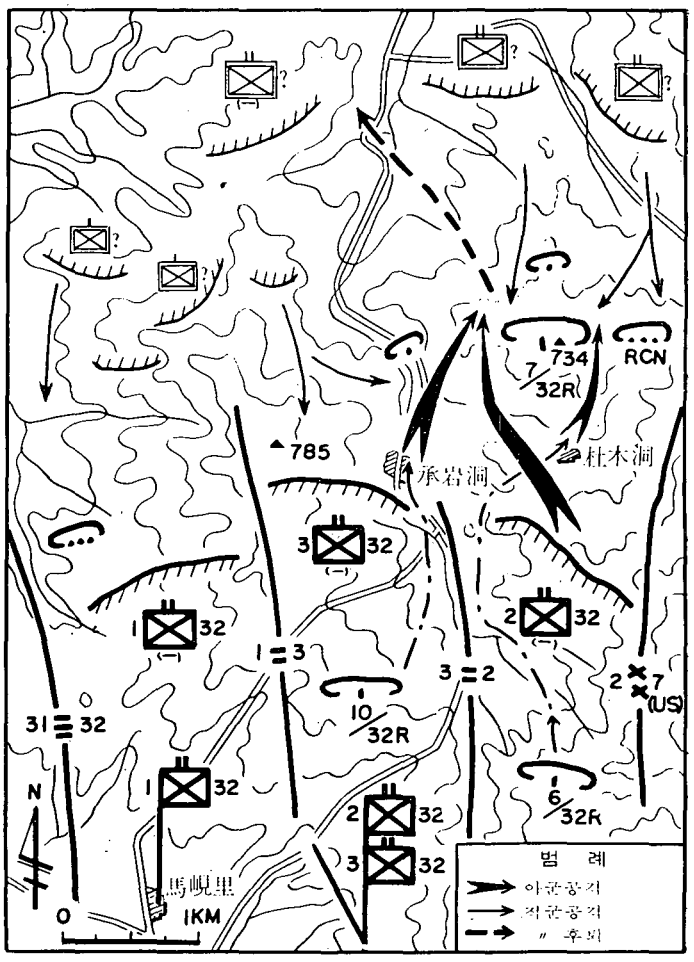
이때에 연대장 金容珣대령은 즉각 非常을 發令하여 戰鬪態勢에 突入하는 동시에 激變하는 狀況을 검토한 끝에 要旨 다음과 같은 緊急命令을 下達하였다.

『① 敵은 △734를 攻擊하여 掠奪하려 할 것이다. 제1, 제3 兩대대 正面의 敵은 陽攻하는 것으로 判斷되며 그 主攻은 제2대대 正面의 前進據點으로 集中할 것이다.

② 연대는 現 陣地를 固守하여 이 敵을 捕捉 擊滅하려한다.

③ 各대대는 現陣地에서 敵을 捕捉擊滅하라.

상황도 제23호 734高地 防禦戰



④ 제2대대는 現 主陣地를 계속 確保하는 동시에 △734의 前進陣地에 대한 萬般의 支援태세를 갖추라.

⑤ 제6, 제10 兩중대는 命에 依하여 出動할 수 있는 態勢를 갖추라.

⑥ 各대대는 戰況報告를 迅速히 하고 緊密한 協調를 維持하라.』

제2대대장 朴東錫소령이 이와같은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各 中隊는 이미 交戰 태세를 갖추고 있는 터이라 現 陣地의 固守를 再強調하는 동시에 特히 前進陣地를 專擔하고 있는 제7중대장에게는 연대에서 下達된 命令의 要旨와 아울러 『대대는 예비대가 없다. 如何한 狀況이 전개되더라도 期必코 △734를 固守하라』고 特別히 強調하였다.



<명령을 下達하는 연대장 金容珣대령>

이때에 제7중대장 金榮國 중위는 이미 決意를 굳게하고 21.00에 各소대장들에게 『射擊統制를 철저히 하여 이 敵을 陣前에서 阻止殲滅하라』고 다시 한번 大號하였다.

이와 같이 狀況이 急展되는 동안 어느듯 △600 北斜面에 潛伏하고 있던 중대의 警戒線에서는 21.30부터 交戰이 시작되었는데 榛峴里쪽에서 △600 北쪽 稜線을 타고 侵攻한 2個중대 규모의 敵이 分遣隊를 兩側에서 攻圍하자 20分間의 交戰끝에 그 侵攻樣相을 報告한 다음 無名高地로 철수하였으며 이어서 左側 제5중대의 警戒組도 本隊로 復歸하였다.

이리하여 22.00부터 敵의 全面공격이 시작되었는데 피리와 喇叭을 불면서 陣前으로 다가선 敵은 중대의 左 第一線인 제3소대의 正面으로 侵攻하는 한편 無名高地 東側으로 侵襲한 一部가 中央 제2소대의 陣前으로 밀려들어 集中的으로 중대의 左側陣地를 突破코자 하였다.

그러나 兩소대는 微動함이 없이 陣地를 固守하고 있다가 敵이 수류탄 投擲거리에 肉迫하자 모든 火力을 同時에 集中하여 鐵火를 加하였는데, 이때에 중대장은 現地까지 달려와 將兵들의 勇戰을 鼓舞하였다.

이무렵 前進陣地의 右端인 搜索隊의 正面으로도 중대규모의 兵力이 侵攻하여 鐵條網을 切斷하면서 接近하려하자 手榴彈 洗禮를 加하여 이를 擊退하고 말았다.

그런데 中共은 常套的인 人海戰法으로 極甚한 打擊에도 아랑곳 없이 狂瀾과도 같이 밀려들어 22.20부터서는 제2, 제3 兩소대의 陣前에서 紛戰케 되고 到處에서는 悲鳴소리가 夜暗을 찢고 銃劍이 부딪치는 白兵戰으로 化하였다.

또한 搜索隊 正面에서 挑發하던 一部의 敵은 方向을 돌려 △734의 東斜面으로 侵襲하다

니 死角의 通路를 利用하여 제1소대의 東側背를 奇襲코자 하였다. 이리하여 제1소대는 한때 이를 擊退하였으나 이때부터 중대는 三面에서 集中공격을 받게 되었으며 彼我間의 混戰亂鬪가 高調에 達하고 山野는 온통 屠戮相殘의 慘景을 露呈하고 말았다.

이와같이 제7중대가 危機에 直面하자 연대장은 22 30에 사단장에게 연대 예비대의 急派를 보고하는 동시에 제2대대장에게 제6중대의 補強投入을 承認하였다. 그런데 이때에 연대 예비대는 제6, 제10 兩個중대밖에 없었으니 이는 3個대대가 同時에 主陣地上에 展開됨으로써 제2, 제3대대에서 1個중대씩을 控置하여 연대의 예비대이자 곧 대대의 예비대인 실정이었으며 이 兩중대도 △734의 後方에 3 5km 떨어져 있었다.

이리하여 대대장 朴東錫소령은 제6중대장에게 『24.00까지 △734로 急進하라』고 緊急히 指示하였으며 이로써 出動待機하고 있던 제6중대(장, 柳凡洙대위)는 22.40에 急遽 向發하였다.

이 瞬間에도 △734의 血戰은 계속되었으며 더우기 제 1, 제3대대의 陣前에서 陽攻하던 무리까지 合流하여 同 高地로 集中함으로써 중대는 2個대대 규모의 兵力과 對決케 되었으니 孤軍奮鬪하는 將兵들의 勇戰相은 實로 筆舌을 絶하였다.

이러한 渦中에서도 중대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陣地를 固守하였으나 무찌르고 또 무찔러도 限없이 밀리는 敵勢로 말미암아 兵力도 半以下로 줄었으며 23.00부터는 수류탄과 실탄이 不足하여 중대장이 실탄을 要請하려 할 때에는 砲擊으로 因하여 有線마저 杜絶되고 戰況은 時時刻刻으로 急變하여 마침내 제3소대의 陣地가 무너지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중대장은 △734의 主峰을 中心으로 한 四周防禦 태세를 갖추기에 힘쓰면서 계속 死力을 다하였는데 敵의 砲擊은 同 高地로 集中하고 또한 사단의 支援砲擊도 이미 陣內射擊을 시작함으로써 周圍를 덮는 硝煙은 彼我를 分別키 어렵게 되었다. 이윽고 敵은 右第一線인 제1소대의 陣地를 侵襲한 後에 중대OP까지 威脅하기에 이르렀다.

이 때에 중대장 金榮國중위는 제3소대의 殘餘兵力과 제2소대의 병력을 合한 소대규모의 混成兵力을 直接指揮하여 이 敵을 擊退코자 하였는데, SCR—609의 無電兵인 趙命煥一兵은 戰況을 대대에 報告하기를 『대대장님! 지금 敵이 중대 OP까지 侵攻하여 중대장님은 나가 싸우고 있읍니다. 저도 사나이답게 죽겠읍니다. 그럼 安寧히 계십시요.』라고 하였다 이로써 대대와의 交信은 끊어지고 最後의 一刻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때가 23.30으로 아직도 제6중대의 赴援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頂上의 血鬪는 계속되어 24 00에 △734의 九部稜線에서 중대는 殘餘兵力으로 四周陣地를 점령하고 血戰을 계속하면서 예비隊의 來到를 苦待하였다.

이무렵 제6중대는 承岩里를 지나 強行軍을 계속하고 있었다.

9월 2일 : 子正을 넘어서도 敵의 攻勢는 그치지 않았는데 01.00에 제1소대장은 分散兵力을 再收拾하여 2~3명씩 組를 編成한 다음 東斜面으로 侵攻한 敵과 肉薄戰을 反復하였으며 제2, 제3 兩소대의 殘餘兵力도 西斜面陣地를 지키기에 힘썼으나 오래지 않아 이 兩陣地마저 무너지고 중대 OP의 危急이 頃刻에 處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대장은 끝까지 중대 OP를 지키면서 이를 死守하기에 總力을 傾注하였는데 이때에 제2소대의 金英濟下士가 戰死한 分隊長을 代理하여 陣頭에서 敵陣에 突入하다가 混戰 속에 쓰러졌으며 이로부터 敵이 물밀듯이 밀리자 중대장 金榮國중위는 憤然히 敵陣中에 뛰어들어 醜敵 5명을 사살하고 機關銃 1정을 빼앗았으나 끝내 이 狂波를 물리치지 못하고 兇彈에 맞아 壯烈히 戰死하였다. 이 光景을 지켜 본 將兵들은 죽음으로써 이 高地를 지키기로 다짐하고 挺身奮鬪하였다.

이때부터 無名高地와 △734는 사실상 敵中에 들게 되었으나 아직도 중대의 殘餘兵力은 곳곳에서 據點을 지키고 있었으며 右端의 搜索隊는 계속 陣地를 굳게 지키는 가운데 不斷한 擊滅戰을 펴고 있었다.

이무렵 支援次 出動한 제6중대(장, 柳凡株대위)는 02.30부터 反擊을 시작하였는데, 제2소대를 右 第一線으로 하고 제3소대를 左第一線으로 하는 한편 제1소대를 예비로 控置하면서 急히 突進하여 03.30에는 △734의 南麓에 이르렀다.

한편 이 무렵 연대장은 제10중대(장, 金昊榮중위)까지 投入키로 決心하고 『05.00까지 △734에 急進하여 제2대대장의 指示를 받으라』고 명령하는 동시에 제2대대장에게는 『제6, 제10의 兩중대와 主陣地上에 展開된 제5중대의 사용을 許可하니 速히 △734로 進出하여 제7중대를 救援하고 敵을 阻止 擊滅하라』는 要旨의 緊急命令을 下達하였다.

이에 따라 제10중대는 03.30에 急遽 出戰하였으며 제5중대는 03 50에 主陣地를 出發하고 제6중대는 이미 △734의 中腹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제6중대는 04.00부터 이미 激戰을 전개케 되었는데, 敵은 다시 砲擊을 시작하여 제6중대에 200餘발을 集中하였으며 특히 同 高地의 西斜面에는 重點的으로 自動火器를

配置하고 頑強히 저항함으로써 左 第一線이던 제3소대는 04.20부터 苦戰을 치루게 되었다. 여기에서 소대장 裵秉錫소위가 散華하고 이어서 제1분대장까지 戰死하자 一瞬 混線을 惹起케 되었다.

이에 중대장은 즉각 제1소대를 投入하여 攻擊正面을 引受케 하는 한편 제3소대를 收拾하면서 계속적인 突進을 명령하였는데 이때 마침 제5중대가 04.40에 到着함으로써 대대장의 명에 依하여 05.00부터서는 제6중대(一)가 右側을 맡고 제5중대와 제6중대의 제1소대는 合勢하여 左側을 맡아 疾風과 같은 突擊을 감행하였다.

아직도 제7중대의 殘餘兵力과 搜索隊는 渾身力鬪를 계속하고 있었으며, 反擊에 나선 兩중대는 彈雨가 빗발치는 속을 헤치면서 突進한 끝에 05.40에는 △734 主峰을 三面에서 攻圍하였다.

이때에 敵은 自動小銃과 機關銃을 亂射하면서 發惡的으로 저항하였으나 제6중대의 제2소대가 東側에서 腹背를 強打하고 제3소대가 連發命中으로 敵火를 制壓하자 一齊히 突擊하여 06.00에 △734의 第一峰을 奪還하였으니 중대는 여기에서 제7중대와 感激的인 連繫를 이루었으며 이때에 비로소 趙命煥一兵은 땅에 묻었던 無電機를 파내어 대대본부에 중대장의 戰死를 비롯한 그간의 戰況을 報告하였다.

한편 左側의 제5중대는 제3소대를 先鋒으로 △734의 第3峰까지 突進하여 潰走하는 敵에게 一擊 又一擊을 加함으로써 07.00에는 同 高地를 完全히 奪還하였다.

이와같이 目標를 奪取한 兩 중대는 제6중대의 제3소대로 하여금 無名高地로 潰走하는 殘敵을 追擊케 하는 한편 主力은 곧 戰場整理와 陣地補修에 着手하였는데 어떤 壕에서는 양팔에 敵을 끼고 수류탄 안전핀을 입에 문채 爆死한 兵士가 있는가 하면 銃 개머리판이 부서진 앞에 쓰러진 敵의 屍體를 볼 수가 있었으니 白兵戰 당시 제7중대 將兵들의 勇戰相을 推察할 수 있었다(참조 : 제2사단 戰鬪詳報 △734 戰鬪綴 및 The Stars and Stripes紙 1951년 10월 9일字 所載)

한편 제10중대(장, 金昊榮중위)는 07.30에 無名高地를 目標로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여기에서는 2個중대 규모의 敵이 △734에서 退却하는 그들의 主力을 掩護키 위하여 執拗하게 저항하였다. 중대는 果敢한 突擊으로 08.00부터 1시간 동안의 激戰끝에 이를 奪還하였으며 09.00 以後부터서는 그토록 發惡的인 저항을 하던 中共의 무리도 이제 勢窮力盡하여 그들의 原據點인 △633를 目標로 四散潰走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搜索隊도 寡兵으로 27시간 동안이나 固守하던 鳳堂德里 南쪽의 陣地에서 增援隊와

到着과 함께 逆攻勢를 취하여 11.00에는 陣前의 敵을 멀리 △633쪽으로 擊退하였으며, 제10중대는 12.00에 △600 一帶에 對한 威力 搜索을 전개하여 부근 一圓을 완전히 整理한 다음 警戒組를 남기고 無名高地로 철수하였다.

이에 대대장은 15.00부터 △734와 무명고지를 主軸으로 하는 陣地를 確保하고 補強作業에 착수하는 한편 韓美 合同救護所에서 支援된 헤리콥타便에 負傷者를 後送하였다. 그後 대대는 18.00에 下達된 연대의 계획에 따라 제6, 제7 兩 중대를 예비陣地로 移動케 하고 제5, 제10중대와 수색대로써 防守態勢를 갖추었다.

9월 3일 : 執拗한 공세를 반복하다가 致命的인 打擊으로 물러서게 된 敵은 이날 拂曉에 다시 2個중대 규모의 병력으로 挑發하였으나 다만 損傷만을 더하는 結果를 自招하고 말았다.

즉, 이날 03.30에 無名高地 前方 200m 地點에서 赤色 信號彈 2발이 夜暗을 밝히게 되자 이를 信號로 하듯이 攻勢를 취하게 된 敵은 04.00까지 82mm迫擊砲 20餘발과 野砲 2발을 集中한 然後에 04.20에는 증강된 중대규모가 無名高地를 目標로 侵襲하여 제10중대와 交戰이 시작되었으며 04.40에는 소대규모의 敵이 無名高地 右側의 제5중대 陣前에서 挑發하였다.

이리하여 제5중대는 火力의 集中으로 이를 가볍게 격퇴하였으나 제10중대 正面의 敵은 그 兵力을 더욱 增強하면서 陣前으로 肉迫하여 05.00에는 熾烈한 手榴彈의 混戰으로 變하였으며 중대의 左端에서는 一部가 陣內에까지 뛰어들어 彼我間에는 刺殺과 撲殺 그리고 怒號와 叱咤 속에서 숨막히는 屠戮을 보다가 날이 밝으면서부터 중대는 殺傷의 効率을 높이면서 이醜虜를 擊滅하는 즉시로 10.00부터는 다시 △600을 目標로 追擊을 전개하였다.

이리하여 13.00까지 △600 一帶의 敵을 완전히 擊破한 다음 다시 無名高地로 歸還하여 사단에서 支援된 工兵중대와 함께 陣地 補強作業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연대는 中共 제239연대의 侵攻企圖를 餘地없이 粉碎하고 △734의 前進陣地를 確保하는 동시에 命令一下, 언제든지 北進할 수 있는 萬般의 決戰態勢를 갖추었다.

라. 전투후의 개황

이 戰鬪가 끝난 뒤에 當面의 中共 제80사단(장, 吳蘭亭)은 두차례의 큰 損傷으로 말미암아 戰鬪力의 弱化를 免할길이 없었으며 또한 군단의 右翼을 擔當한 제6사단(장, 張都暎준장)의 正面에서 抵抗하던 제81사단(장, 林風淸)도 登大里 부근에서 많은 人員과 裝備의 損失을 보게 됨으로써 金城地區에 根據를 둔 中共 제27군(장, 彭德淸)은 그 兩翼을 折傷한 格이 되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이 劣勢를 糊塗키 위한 術策으로 不斷한 威力搜索을 펴다가 9월 10일을 前後하여 제67군(장, 馬 襲)과 交代한 다음, 淮陽을 거쳐 陽德으로 撤退하여 부대를 再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로이 金城地區에 出現한 제67군은 6월 下旬에 鴨綠江을 건는 다음 南으로 機動하는 사이에 UN空軍의 爆擊으로 커다란 打擊을 입기는 하였으나 建制를 유지하면서 陽德으로 南下하여 山岳訓練을 마친 부대로서 金城地區를 引受하자 곧 제200사단(장, 李 靜)을 제80사단과 交代케 하였으니 사단은 다시 이 새로운 敵과 對決하게 되었다.

이 中共 제200사단은 金城의 關門을 지키기 위하여 金化로부터 金城에 이르는 一帶의 要域에 兵力을 展開함으로써 自然이 金城 直南方으로 11km 밖에 떠러지지 않은 사단의 主抵抗線과 至近距離에서 接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사단이 有利한 制高陣地를 占領하고 있는 터이라 主陣地 前方의 大小稜線에 이르기까지 堅固한 有蓋陣地를 構築하고 火力配置에 重點을 둔듯 하였다.

즉 △633—溱峴里—△462—△533의 線에 그들의 據點을 形成하고 竹垈里와 南屯里 부근에 砲陣을 設定한듯 하였으며 鳳堂惠里와 承岩里 北쪽에까지 不時로 搜索隊가 넘나들면서 散發的인 挑發을 反復하였다.

한편 사단에서는 本戰鬪가 끝나자 主戰隊이던 제2대대(장, 朴東湯소령)를 예비로 控置하는 한편 사단의 예비인 제17연대의 제3대대(장, 梁成植소령)를 제32연대에 配屬시켜 主抵抗線의 右端陣地를 強化토록 하면서 △734의 前進據點까지 確保케 하였으며 또한 제17연대의 主力을 六丹里(金化東南쪽 6km) 부근에서 赤根山(△1,073) 後麓으로 移動케 하는 동시에 연대 指揮所도 9월 3일에 主力을 따라 長坪洞으로 移設하였으니 사단은 예비대의 主力을 金城 直南方으로 移動調整한 셈이었으며 如前히 主저항선은 제32, 제31 兩연대가 擔當하였다.

이와같이 戰線을 調整한 사단은 北進을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으나 군단의 方針은 前과 다름없이 優勢한 戰鬪力을 保有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守勢만을 固執하게 되니 이로써 不必要한 損失만을 보게되고 將兵들의 戰意를 沮喪시킬 憂慮가 많게 되었으며 相對的으로 敵의 陣地는 굳어지기만 하였다.

이리하여 사단에서는 主陣地를 유지하는 한편 敎育訓練을 巡回的으로 실시하였는데, 山岳訓練과 小部隊 戰術을 硏磨 하였으며 특히 美제7사단과 協調하여 步戰協同訓練을 실시하는 等 此後作戰에 對備한 精兵育成에 힘썼다.

또한 各級 指揮官들은 不斷히 隷下隊를 巡訪하면서 새로운 戰術戰技의 練磨에 힘쓰도록 하는 한편 有功者를 表彰하여 士氣를 높였는데 特히 本戰鬪에서 殊勳을 세운 故 金榮國중위와 그가 지휘하던 제7중대에는, 大統領의 表彰狀과 美國 大統領의 表彰狀, 그리고 UN군 사령관 Ridgway대장의 표창 및 군단장 Hoge중장의 표창이 뒤를 이어 수여되고 國內 主要 日刊紙와 星條紙(The Stars and Stripes)에 그 戰功이 紹介되었다.

이 表彰狀 가운데 大統領의 表彰狀은 原本이 없어서 紹介하지 못하고 美國大統領의 表彰狀을 참고로 다음에 싣는다.

『韓國軍 第二師團 第三十二聯隊 第二大隊 第七中隊 中隊長 故 陸軍中尉 金榮國以下 中隊員一同

貴中隊는 서기 1951년 9월 1일 夜間에 金城을 制壓하는 △734 防禦戰에 있어서 中共軍 五個中隊가

無數한 支援砲擊을 받으면서 發狂的으로 包圍 肉迫하여 왔을때 全 中隊員은 8시간에 걸친 激戰에 依하여 死傷者의 續出로 不過 1個分隊에 이르기까지 勇戰奮鬪, 寸步도 물러섬이 없이 寡兵奮戰하여 이 高地를 死守 確保하였을 뿐만 아니라 翌日 本隊의 支援을 받아 敵에게 致命的인 打擊을 加하는 威名을 擧揚하였읍니다.

그 勇敢한 行動은 널리 外國軍에 알려졌으며 赫赫한 功勳은 韓國戰史上에 길이 빛날 것이므로 이 戰功에 對하여 滿腔의 敬意와 讚意를 表하며 여기 表彰狀을 授與합니다.

1951년 10월 7일

美國大統領 Truman』

本戰鬪 제2차전의 綜合戰果와 損失은 다음과 같다.

戰 果	損 失
敵射殺 : 197명	戰死 . 장교—3명
捕虜 · 6명	병—28명
노획 · 自動小銃—1정	負傷 · 장교—9명
各種小銃—31정	병—130명
수류탄—375발	失踪 3명

§ 參戰者의 證言

◇ 제2사단 제32연대장 金容珉대령

(1973년 2월22일 5.16장학회 이사장, 예 중장)

이 △734는 赤根山과 金化間에서 제일 높이 솟은 高地로서 彼我의 主抵抗線을 瞰制할 수 있었기 때문에 相互 爭點이 되는 戰術的인 要地였다

여기에다 우리는 제2대대의 제7중대를 配置하고 그 右側의 無名高地에는 捜索중대로써 補強하여 前進陣地를 마련하는 한편 연대의 主力은 그 南쪽 1~3km의 有利한 地形을 擇하여 主抵抗線을 形成한 가운데 사단의 方針에 따라 防禦에 任하고 있었는데 항상 敵의 挑發行爲가 그치지 않더니 9월 초에 一 大 攻勢를 取하여 激戰을 展開하였다.

當時에 敵은 연대규모 以上으로 推算되는 中共軍이 △734를 集中的으로 攻擊하여 이를 掠奪코자 하였으나 金榮國중위가 지휘하는 제7중대는 끝까지 陣地를 固守하여 중대장 이하 各 소대장이 全員 戰死하고 單 6명이 남을때까지 全 中隊員이 決死的인 勇戰을 다한끝에 1個대대 병력 이상의 敵을 射殺하여 이를 擊退하였으니 이 勇戰相은 再見에 길이 빛날 것이다.

지금도 記憶에 生生한 것은 남아 있던 6명 가운데 1명의 通信兵이 있어서, 계속적인 砲擊支援을 받으면서 싸운 것과 增援부대의 逆襲을 容易케하여 30餘名이나 敵을 사로잡은 것이다.

이 戰功은 널리 紹介되어 星條紙에서는 10일간이나 계속 揭載하였으며 大統領으로부터 제7중대에 中隊表彰이 수여된 바 있었다.

◇ 제2사단 제17연대 제1대대장 禹 鉉소령

(1973. 2. 8 在鄕軍人會 別館에서 예, 중령)

사단 遊擊대대가 △734를 공격하다 失敗한 直後에 사단 G—3가 우리대대의 陣地인 △400에 와서 地形偵察을 하면서 該 高地의 攻擊문제로 苦心하기에 나의 腹案을 說明하였더니, 그날 開催된 연대장급 이상의 사단 作戰會議에서 사단장의 지시에 依하여 그 方案을 發表하게 되었다

즉, 나는 圖上과 現地를 硏究한 內譯을 說明한 다음 結論的으로 "△734는 대대兵力을 同時에 投入하기에는 狹小한 地域이므로 1個중대를 主攻으로 하여 正面공격토록 하고 1個중대는 그 背後의 據點인 △633를 공격케 하여 增援手段을 遮斷하면서 速戰擊破하면 可能하리라"고 建議하였다.

그랬더니 사단에서는 이를 修正하여 1個중대로써 側面공격을 감행하고 다른 1個중대로써 △633의 敵을 牽制하는 동시에 火力支援과 예비대의 운용문제까지 포함한 補完對策을 마련하여 當 연대로 하여금 目標를 奪取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대대가 그 任務를 맡았다.

이리하여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他隊와 마찬가지로 △734 頂上의 50m 前方까지는 無難히 進擊하였으나 最後의 突擊線에서 激戰을 反復하게 되자, 이를 지켜보던 연대장과 사단장은 10.00까지 目標를 奪取하라고 命令이 至嚴하고 敵의 手榴彈과 各種 砲火는 雨注하여 한동안 苦戰을 겪게 되었다.

이에 나는 斷呼한 決心을 하고 陣頭에 나아가 全중대원으로 하여금 喊聲을 높이면서 全面 突進케 하는 한편 各소대장들에게 수류탄 4발씩을 휴대한 特攻隊를 직접 指揮하여 敵의 特火點을 爆破케 하였다. 이같이 하여 5~6회의 突擊을 거듭한 끝에 이 高地를 占領하고 보니 12.05이었다.

그뒤로 敵은 夜暗을 利用하여 몇차례 反擊을 加해왔으나 그때마다 將兵들의 勇戰으로 이를 擊退하고, 사단 工兵대의 支援을 얻어 2重 3重으로 障碍物을 敷設하여 사단의 前進據點을 確保하였다.

§ 연 구

△734 標高의 記錄

現在 軍에서 사용하고 있는 50,000分之 1 軍事地圖上에는 本戰鬪의 標題인 △734가 없고 同一地點(CT773406)의 標高를 △735로 表示하고 있다.

이는 戰爭當時에 사용한 舊地圖와 新地圖 間의 測定差異에서 온 結果로서, 舊地圖는 1914년에 朝鮮總督府 陸地部에서 發行한 원판을 1950년에 圖色分離하여 사용하다가 다시 1951년에 美제64工兵測地隊에서 航空寫眞 測量法으로 編輯修正하여 사용하였으며 新地圖는 1966년부터 71년까지 5個年計劃으로 陸軍測地隊에서 現地를 直接 測量하여 圖刻配布 하였으니 이 兩次의 測量時에 差異가 생긴듯하며 그 正確度는 新地圖가 더 높을 것이다.

그러나 本節에서는 舊圖에 表示된 △734를 그대로 표기 한바 그 理由는, 지금까지 蒐集된 모든 資料에 △734로 統一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旣 刊行된 戰史文獻에 同一名稱이 賦與되었고 그 밖에도 寫眞集이나 參考圖書 및 面談錄 등에 △734로 收錄됨으로써 이와 混線을 避하고 一貫된 統一性을 期하려는 뜻이다.

그렇지만 後日 關係官을 위하여 △734와 △735가 同一地點이라는 것을 分明히 밝혀둔다.

7. 第1次 蘆田坪地區 戰鬪 (1951년 8월 9일부터 / 1951년 8월 14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24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軍		我軍	
제8사단	장 준장 崔 榮 喜	제3대대	장 소령 鄭 順 基
제10연대	장 대령 李 春 景	제21연대	장 대령 全 富 一
제1대대	장 중령 朴 致 玉	제1대대	장 소령 林 彰 模
제2대대	장 소령 金 光	제2대대	장 소령 金 徹
제3대대	장 소령 崔 明 道	제3대대	장 소령 孟 賓 永
제16연대	장 대령 李 存 一	대전차공격대대	장 소령 朴 瑞 權
제1대대	장 소령 朴 海 軾	제26포병단	장 중령 洪 昌 杓
제2대대	장 소령 韓 炳 甲		

敵軍		敵軍	
北共제2군단	장 중장 崔 賢	제17연대	장 중좌 金 寬 大
제2사단	장 소장 李 喆 用	제13사단	장 소장 鄭 炳 甲
제6연대	장 중좌 金 益 鉉	제19연대	장 중좌 金 炳 喆

나. 전투전의 개황

三南地區에서 공비를 토벌하던 제8사단(장, 崔榮喜준장)은 敵의 제2차 春季攻勢에 對備한 美8군의 要請에 따라, 1951년 5월 19일 육군본부 作命 제269호에 의거 一線에 投入되었다. 그 후 平昌—洪川—麟蹄 등 各 지구에서 美 제10군단 豫備로 地域警戒 및 훈련에 專念하다가 7월 20일 松巨里로 이동하여 제5사단과 그 任務를 交代하고 中東部戰線 Kansas 線上의 戰區를 引受받아 진지의 補強과 次期作戰을 준비하였다.

이 지역은 加田里 北쪽 6~8km 지점인 蘆田坪부근의 △445—△562—△785—無名高地를 連하는 산악지대로서 地勢가 險峻하고 산림이 무성하였는데, 사단은 이곳에 일단 防禦陣을 구성하고 戰列을 정비하였다.

당시의 全戰線은 休戰會談 개시로 高城—瑞和里—長坪里(楊口北쪽 10km)—山陽里(華川北쪽 12km)—金化—鐵原—漣川—臨津江河口를 連結하는 현 전선에서 膠着되어 있었다. 따라서 戰線은 彼我間 次期작전에 對備하여 堅固한 陣地 構築과 막대한 兵力 및 군수품을 要地要所에 집결하고 휴전회담에서 提議된 停戰線을 보다 유리한 地點에서 確保하려는 치열한 高地쟁탈전으로 점차 變貌하기 시작하였다.

어느 편이 보다 깊고 堅固한 塹壕를 더 많이 構築 하고, 또한 이들 塹壕를 破壞하기 위하여 어느편이 보다 強力하고 多量의 砲彈을 소비하는냐 하는 이른바 韓國戰의 特性인 塹壕戰과 消耗戰이 이로부터 惹起하게 되었다.

敵軍의 상황. 이러한 戰勢推移에 따라 敵은 사단 관할 前面에 北共 제2군단(장, 중장 崔 賢)예하 제13사단(장, 소장 鄭炳甲) 제19연대(장, 중좌 金炳喆)와 제2사단(장, 소장李喆用) 제17연대(장, 중좌 金寬大)및 제6연대(장, 중좌 金益鉉) 일부 兵力을 Kansas 線上의 要地要部에 展開하고, 견고한 塹壕를 구축 하면서 소수 병력을 침투케하여 後方의 攪亂을 책동하는 한편 我軍의 進出을 극력阻止하며 유리한 地形과 전략적인 優位를 차지하려는 것으로 推斷되었다.

이러한 陣地는 주로 砲彈을 피할 수 있는 地形을 이용한 V字, L字, T字등의 各形과 一字形의 壕로 구축되었다. 즉, 제16연대 前面의 無名高地와 △445에는 山峰 5~6m 距離를 두고 V字形으로된 長壕를 구축하고 左右에 彈藥의 저장과 火網의 構成에 알맞도록 橫穴을 附設하였다. 對戰車攻擊대대 前面인 △562—△785에는 山腹의 岩石과 急傾斜를 이용하여 壕를 구축하였는데 그 入口는 겨우 한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협소하나 內部는 점차 넓어져 3~4명이 待機할 수 있는 一字形과 ㄱ字形으로 되어 있었다. 제10연대 前面인 △1031에는 稜線을 따라 6~10m 간격으로 散兵壕를 구축하고 山腹에는 "L"字形의 警戒壕가 있었다. 散兵壕는 대체로 아군의 個人壕와 흡사하며 地雷는 地形에 따라 埋設方法이 相違하되 主로 壕에서 30~40m 距離를 두었으며 이 地雷들은 아군이 地雷 매설지역에 들어서면 壕안에서 끈을 잡아당겨 爆發시키도록 裝置되어 있었다.

兵力配置는 主攻部隊인 제17연대 OP를 △812에, 同 제1대대 OP를 徹尾洞 北쪽 2km 에 두고 各 중대 병력과 重火器(82mm 迫擊砲 13문 122mm 野砲 8문)를 蘆田坪 西北쪽 6km 에서 부터 △445—△985—無名高地—△1031 東쪽 5km를 連하는 능선일대에 配置하고 있었다.

兵의 構成은 滿洲地方에서 훈련을 받은 新兵과 強徵한 義勇軍으로 편성되어 있어 戰鬪經驗도 다소 있고 훈련도 대체로 좋은 편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捕虜진술에 의하면 無識層이 殆半이고 黨員을 除外한 의용군과 新兵들은 전쟁에 厭症을 느끼고 停戰會談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이다. 인접부대로는 東側에 北共軍 제13사단 제19연대, 西側에 제2사단 제6연대가 각각 방어陣地를 強化中에 있었다.

裝備는 蘇式小銃과 다발총 그리고 "체코"式 BAR등으로 무장하고 個人當 棒狀 수류탄 10~20개씩을 携帶하고 있었다. 보급에 있어서는 長安寺(內金剛)에 군단 보급소를 두고 △1,031 후면을 따라 徹尾洞까지 夜間에 차량을 이용하여 수송할 수 있었기 때문에 食糧과 被服 및 彈藥 등의 보급이 다소 圓滑하여 敵의 士氣는 비교적 왕성한 편으로 判斷되었다.

我軍의 상황 : 이와같이 我軍의 北進을 極力 阻止하며 계속 유리한 지형 및 전략적 要地를 확보하

려는 敵의 기도를 看破하게되자, 사단은 戰線의 방어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機先을 制하기 위하여 △445—△985—△1,031—無名高地 등을 先占하여 敵 기도를 완전 粉碎코자 하였다. 이리하여 사단은 攻勢로 전환하여 8월 8일, 目標를 향한 進擊을 斷行하고 이날 14.20에 제10연대를 大谷里 西쪽 2km 地點에서 △1,056로, 제16연대 제3대대를 同日 23.30에 현 위치인 瑞和里에서 加田里로, 또한 대전차공격대대를 同日 20.00에 역시 瑞和里에서 사단 지원차량편으로 富虛洞에 집결시킨 다음, 右側으로 부터 공격지점 A目標인 無名高地에 제10연대(장, 李春景대령) 2개 중대와 重火器 2개 소대 및 제26砲兵團을, B목표인 △785에 대전차공격대대 3개 中隊와 중화기 2개 小隊를, 그리고 C목표인 △445에 제16연대 2개 대대와 重火器 중대를 각각 展開하고 8월 9일로 豫定하는 攻擊에 대비하였다.



<出動中인 제8사단 兵士들>

당시 부대병력은 完全TO & E를 갖추었고 또한 지난 3월 以來로 계속 교육 훈련을 실시하며 三陟地區 共匪 擊滅작전을 爲始한 많은 遊擊戰을 통하여 戰鬪經驗도 쌓아 兵士들의 士氣는 왕성한 편이었으나 사단 으로서 正規作戰에 참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공격 당시 인접부대로는 右側에 首都師團 제1연대가 津北里에, 그리고 左側에 美 제23연대가 陽地村(麟蹄郡 南面)에서 각각 방어진지를 強化中에 있었다.

補給은 B, C목표지점에는 "개고개"까지 차량으로 수송하고 이곳에서 부터는 道路가 敵視野에 노출되는 관계로 各隊현장까지 兵力을 파견하여 운반하였다. A目標에는 通路가 불량하여 차량으로 補給品을 수송하지 못하고 제1, 제2兩대대에서 각 1개 중대규모의 作業要員을 내어 제3대대 作業小隊와 함께 △1051와 無名高地 사이를 하루 3회에 걸쳐 운반하였다. 기간중 暴雨와 洪水로 말미암아 補給에 미친 影響이 적지 않았는데, 7月 下旬부터 시작된 장마는 8월 中旬까지 계속되어 보급뿐만 아니라 항공지원과 敵情파악, 特히 先遣수색정찰이 곤란하여 戰鬪에 支障이 적지 않았다.

戰鬪지역의 地形을 살펴보면 제10연대 前面인 無名高地 一帶는 삼림이 무성하고 岩石이 별로 없는 土山인데 南北으로 稜線이 뻗어 있어 여기를 이용한다면 피아간의 補給上에 편리하고 방어에도 유리한 地形을 이루고 있다. △1,031는 △1,056 다음가는 高地로서 四面을 瞰制할 수 있는 要部이며 無

名高地는 이 △1,031와 連結되어, 山勢는 △1,031과 대체로 흡사하다. 제16연대 前面인 △445 一帶의 地形은 △785의 餘脈이 서서히 西쪽으로 뻗어 내려 500m 앞에서 兄弟 無名高地를 이르고 다시 솟아 △445를 이룬 다음 徹尾洞에서 흐르는 江邊에 도달한다. 이 無名高地와 △445는 徹尾洞 南쪽을 가로막는 野山으로서 岩石도 별로 없고 傾斜도 과히 급하지 않으나 松林이 무성하였다. 이 山脈은 瑞和里에서 內金剛으로 通하는 作戰路를 가로막는 要地였다. 對戰車攻擊大隊 前面인 △785는 北쪽에 삼림이 무성한 緩斜面의 능선이 뻗어 있고 南쪽은 奇岩絶壁을 이루고 있어, 방어에는 容易하나 攻擊에는 불리한 지형이었으며 南쪽의 △562도 △785와 대체로 흡사한 지형이었다.

나. 전투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사단장 崔榮喜준장은, 戰略的으로 유리한 高地를 占有하면서 계속 일부 兵力을 침투시켜 我 後方攪亂을 책동하려는, 敵의 기도를 粉碎하기 위하여 8월 8일에, 敵의 手中에 있는 △445—△785—無名高地를 奪取하여 次期攻擊를 推進하기로 決心하고, 예하 각 부대를 다음과 같이 展開하려는 構想을 하였다.

즉 △1,031 및 無名高地를 A目標로 定하고 이곳에 제10연대 1개 대대를 配定하여 81mm 迫擊砲 4문과 50mm 機關銃 3정의 增援下에 同 目標를 攻略토록 하였다.

한편 B目標를 △785와 △562로 定하고 對戰車攻擊대대로써 81mm 迫擊砲 11문의 增援下에 이를 攻略토록 하였다.

그리고 蘆田坪 西北쪽에 位置한 △445—"ㄱ"高地—"ㄴ"高地—"송곳"高地를 C目標로 定하고 이곳에는 제16연대 1개 대대로써 81mm 迫擊砲 4문과 60mm 迫擊砲 8문을 增強하여 攻略토록 하였다. 이러한 構想아래 同日 12.00에 下達한 사단 作戰命令 제131호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사단은 A.B.C. 目標地點 一帶를 공격하여 이를 占領 확보하고 次期作戰을 容易하게 하며 MY線을 계속 유지 強化하려 한다.

② 제10연대는 1개 대대 병력으로 8월 9일 15.00까지 A目標를 공격 占領하고 인접부대 攻擊을 支援하여 敵의 右側方 기능을 制壓하라.

③ 제16연대는 1개 대대 병력을 8월 8일 20.00까지 加田里 北쪽 1km에 推進시켜, 8월 9일 15.00까지 目標 C를 略取하라.

2개 대대는 C目標 공격부대에 대한 掩護射擊을 실시토록 하라.

④ 제21연대는 사단 豫備로서 主抵抗線을 계속 방어하라. 그리고 8월 8일 12.00까지

81mm 迫擊砲 1개 소대를 對戰車攻擊대대에 배속시키라.

⑤ 對戰車攻擊대대는 8월 8일 20.00까지 "개고개"를 경유 富虛洞에 集結하고 8월 9일 15.00까지 B目標를 攻擊하여 이를 占領 확보하라.

⑥ 제26포병단은 攻擊部隊를 直接支援하라. 81mm 및 60mm 迫擊砲 各 1문에 500발이상의 砲彈을 확보토록 하고 그 結果를 사단에 보고하라.

⑦ 通信中隊는 제16연대 제2대대 제5, 제6중대에 사단 中繼臺로부터 각각 1回線을 設置하고 제16연대 CP에는 사단 임시 中繼臺를 設置하라.

⑧ 각 부대는 SOP에 의거한 對空布板 標識 등 通信信號 규정을 엄수하며 陣地 점령후에는 再編 및 四周방어를 조속히 실시하고 可及的 많은 捕虜를 획득하라.』

(2) 작전실시

8월 9일 : 사단 각 연대는 이날 새벽 濃霧를 이용하여 목표지점을 향해 일제히 攻擊을 개시하였다. 敵의 頑強한 저항을 물리치면서 A목표를 攻取하기 위하여 躍進한 제10연대는 無名高地 前方 2km 까지 진출하고, B목표를 향한 對戰車攻擊大隊는 △562에 進出하여 이를 점령 確保하는 한편 C목표를 공격한 제16연대는 "ㄱ"고지를 점령하고 계속 진격하여 同 고지 400m 까지 進出하였다.

1. 제10연대 제3대대(장, 崔明道소령)는 目標인 無名高地 및 △1,031를 向하여 이날 새벽 06 00에 공격을 개시하였는데, 제11中隊(장, 趙東演중위)를 右第一線으로, 제9중대(장, 權世成중위)와 제10중대(장, 朴鍾烈대위)를 左第一線으로 하여 제26포병단의 砲支援下에 無名高地를 目標로 일제히 突進하였다. 그러나 공격개시 20분뒤인 06.00 제11중대가 1km 前方에 進出하자 아군 砲兵射擊의 錯誤로 말미암아 장교 1명과 사병 3명의 死傷者가 發生하였기 때문에 즉시 砲兵 支援사격의 중지를 要求하고 계속 진격 하였다.

각 중대가 進擊하는 前面에는 敵의 地雷源이 있어 그 進出이 容易치 않았다. 左側으로 진격한 제9, 제10兩중대는 13.00 현재 無名高地 前方 2km 에서 1개 小隊 규모의 敵의 頑強한 抵抗을 받았다. 이리하여 중대는 30여분간 제12중대(장, 鄭晋化대위)의 支援사격下에 치열한 接戰끝에 敵을 격퇴하고 계속 前進하여 17.00에 無名高地 右側 1km 전방을 占領할 수가 있었는데 이 전투에서 敵은 대부분이 殺傷되었으며 數名의 殘敵만이 △1,031 쪽으로 退散하였다.

이에 앞서 右側으로 공격한 제11중대는 09.00에 無名高地 右側 4km 지점에서 敵 1개小隊 병력의 저항을 물리치고 15.30에 △1,031 4km 前方까지 進出하였다. 이어서 각 중대

는 계속 진출을 企圖하였으나 △1,031의 敵 1개 대대 병력의 강경한 저항으로 말미암아 苦戰끝에 그 지점에서 四周防禦에 들어갔다.

2. 제16연대의 제9중대(장, 李彰宇중위)와 제10중대(장, 孫昌吉중위)는 목표인 송곳高地—만두高地—"ㄱ"高地—445高地를 奪還하기 위하여 새벽 05.30에 공격을 開始하였다 제11중대(장, 李政泰중위)는 대대 관측소 부근에, 그리고 제12중대(장, 朴在東중위)는 加田里 北쪽에 各各 위치하여 공격일선을 支援하였다.

공격목표 지점 一帶의 敵을 擊破할 목적으로 "ㄱ"高地를 右側으로 공격하던 제10중대는 側面으로부터 敵의 集中射擊을 받아 다시 攻擊方向을 變更하지 않을수 없어 "ㄱ"高地 능선을 向하여 進擊하였다. 중대가 전진하는 前面은 敵의 지뢰地帶였으며, 또한 敵의 박격포탄의 集中射擊으로 攻擊이 頓挫되고 死傷者가 속출하였다. 그러나 중대는 切齒扼腕하여 계속 突進하여 급기야 10.00에 "ㄱ"高地를 占領하였다. 한편 △445를 向해 진격중인 제9중대는 이 시각에 송곳高地 山麓에 進出中 이었다.

이렇게 지뢰地帶를 除去하면서 제9, 제10兩中隊는 左·右측에서 △445와 송곳高地를 向해 各各 진격을 계속하였으나 敵 迫擊砲의 집중사격으로 진격을 일단 中止하고 20.00 현재 확보지점에서 四周防禦진지를 점령하였다.

3. 對戰車攻擊大隊(장, 朴瑞權소령)는 목표 △562와 △785를 향해 새벽 05.30부터 進擊을 시작 하였는데 제1중대(장, 李技南중위)는 △785를 右側으로 迂回하여 後斜面으로 진격하여 無名高地를 占領하고 여기에서 1개 소대규모의 敵과 敵의 激戰끝에 이를 격퇴한 다음 14.30에 無名高地를 再占領하였다. 중대는 계속 전진하여 18.00에는 △785 後面 中腹까지 진출하였으나 敵의 저항으로 戰況이 일시 膠着狀態에 빠져 結局 21.00부터 확보지점에서 四周防禦에 들어 갔다.

제5중대(장, 鄭雲福중위)와 제6중대(장, 吳成玉중위)는 敵의 輕微한 저항을 一蹴하면서 △562를 향해 진격하여 07.30에 目標인 △562에 접근하였다. 그러나 이 高地에 미리 潛伏하고 있던 敵이 突然 집중사격으로 對抗하였으므로 兩個중대는 彈雨之間을 뚫고 敵陣에 돌입하여 敵 1개 小隊兵力과 치열한 白兵戰을 展開한 끝에 이를 殲滅하고 同 고지를 占領하였다.

중대는 계속 전진하기 위하여 점령 확보한 △562의 방어임무를 제5중대의 제1, 제3兩小隊에 引繼하고 제6중대와 제 5중대의 제2, 제4兩小隊병력으로 계속 △785를 향해 진격한 결과 11.00에 同 고지의 中腹까지 進出하였다. 이 지점 에서 兩 중대는 또 抵抗하는 敵

1개 소대병력을 물리치는 즉시로 敵 主陣地로 육박하였으나 降雨直後의 視界의 不良과 地形의 험악, 그리고 殘敵의 發惡的인 抵抗으로 말미암아 戰死傷者가 속출하였으므로 일단 進擊을 멈추고 兵力을 山麓에 집결시킨 다음 再攻擊을 준비하였다.

이에 따라 △562를 점령 확보하고 있던 제5중대의 제1, 제3兩小隊도 한때 山麓에 連鎖的으로 集結하였다가 17 30에 美 戰鬪機 4臺의 항공지원과 포병의 집중強打下에 再 攻擊을 敢行하여 제5중대는 △562를 다시 점령하고 제6중대는 19.00에 △785 突擊線까지 肉薄하였다.

한편 제7중대는 △785 前面을 右側으로 橫斷하여 17.00에 △1,052 西쪽 4km 에서 受任된 공격 一線에 對한 推進 補給을 擔當하였으며 重火器중대는 △1,052 西南쪽 4km 일대를 점령하여 攻擊一線에 火力을 支援하였다.

4. 제26포병단은 이날 04.00부터 05.00에 걸쳐 공격 목표에 대하여 도합 812發의 支援火力을 集中하고 23.00부터는 主로 攪亂사격으로 移行하였다.

8월 10일 : 이날 각연대는 前日에 이어 目標를 향해 계속 공격하여 제10연대는 드디어 無名高地를, 그리고 제16연대는 △445를 各各 점령한 다음 계속 만두高地를 향해 진격하였으며 對戰車攻擊大隊는 目標인 △785를 奪取하였다.

1. 제10연대 제3대대(장, 崔明道소령)는 새벽 04.40에 연대作命 제26호에 따르는 作戰行動을 再開하고 제9중대(장, 權世成중위)를 無名高地 左側에서 그리고 제10중대(장, 朴鍾烈대위)를 正面에서 各各 攻擊케 하여 高地中腹까지 進出하였으나 이 一帶에 前進陣地를 구축하고 있던 敵 1개 대대규모의 強力한 저항에 부딪쳤다. 이리하여 대대는 肉迫戰을 反復하기를 數十次, 마침내 敵의 阻止線을 돌파하고 敵陣에 突入하였는데 敵은 魂飛魄散이 되어 △1,031 쪽으로 潰退하여 15.00에 대대는 드디어 無名高地의 主人이 되었다. 특히 이 一戰에서 搜索小隊 선임하사관인 鄭翼基 이등상사는 5회에 걸친 肉彈突擊戰을 敢行하는 동안 매회마다 最先頭에서 돌입하여 수류탄으로 敵의 塹壕를 파괴하는 등 많은 戰功을 세웠다.

제11중대(장, 趙東演중위)는 이날 10 40 目標前方 4km까지 進出한 다음 계속 돌진코자 힘썼으나 敵의 頑強한 저항으로 그 進出이 一旦 停鈍狀態에 빠졌다.

2. 제16연대 제3대대(장, 鄭順基소령)는 이날 06 00에 攻擊을 재개하고 제9중대는 △445를, 제10중대는 만두高地로 각각 진격케하였다. 제10중대는 만두高地 中腹까지 掌握하자 敵 1개 小隊규모의 執拗한 저항을 받았고 제9중대는 같은 시간에 松老坪을 경유 16 40

에 목표인 △445에 突入하여 敵 1개 小隊 병력과 치열한 交戰끝에 이 敵을 모조리 섬멸하고 同高地後斜面에 對空布板을 鮮明하게 깔았다.

이어 제9중대는 만두高地를 향하여 돌격을 反復하는 제10중대를 지원하기위하여 만두高地로 진출하였는데 이 高地는 원래 地形上 공격에 불리한 뿐만아니라 지뢰가 到處에 매몰되어 빠른 時間內의 占領이 쉽지 않았다. 여기에 제10중대는 數次에 걸쳐 돌격전을 敢行하였으나 敵의 阻止線을 끝내 돌파하지 못하고 많은 병력의 損失만을 보게 되었다. 이리하여 제10중대는 21.30에 대대장의 命令으로 대대 예비로 있던 제11중대와 作戰上 임무를 交替하고 대대 OP附近으로 복귀하였다.

제11중대(장, 李政泰중위)는 이날 2개 小隊 및 제5중대의 제1, 제2兩小隊와 함께 攻擊一線의 前進을 방해하는 敵을 제압하기 위하여 만두高地 2km 前方까지 진출하여 공격一線를 支援하다가 제10중대와 그 임무를 交替하고 21.30 부터 交替地點에서 四周방어에 들어 갔다. (제5중대의 제1, 제2兩小隊의 上記地點 진출은 연대장 命에 의한 것이며 小隊는 이 地點에서 이날 18.00 철수하였다.)

또 제12중대는 이날 加田里 北쪽 3km 지점에서 공격一線를 支援하였다.

3. 對戰車攻擊大隊는 06.00를 기하여 공격을 재개하였는데 제1중대(장, 朴技南중위)와 제7중대(장, 池康益중위)는 目標인 △785를 右側으로 迂回 進攻하였다. 前날 後半夜부터 줄기차게 내리기 시작한 비도 멈추고 高地를 中心으로한 부근일대에는 짙은 안개로 뒤덮혀 있어 奇襲攻擊의 좋은 機會였으므로 △785를 目前에 둔 중대는 이 好機를 놓치지 않고 곧 敵陣을 向해 突進하였으나 敵도 이 짙은 안개를 利用하여 또한 후방기습을 꾀하고 1개 소대규모의 병력으로 제6중대의 側面을 迂回 공격하였다.

후속부대로서 제1, 제7중대의 攻擊을 지원하고 있던 제6중대(장, 吳成玉중위)는 不時에 敵의 側面攻擊을 받고 應戰할 사이도 없이 動搖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중대장은 재빠르게 臨機應變으로 20餘名의 突擊隊를 躍進시켜 몸소 그 先頭에서 敵을 향하여 돌격하였다. 불의의 기습에 당황하던 中隊兵士들도 그제야 정신을 차려 중대장의 뒤를 따라 일제히 白兵으로 突擊함으로써 敵으로 하여금 7具의 屍體를 남긴채 안개속으로 潰退케하고 말았다. 그러나 敗走하는 이 敵을 추격하여 급진하는 中隊前面의 嶮峻한 산등에는 敵이 이미 事前에 塹壕를 마련하여 놓고 아군의 進擊을 狙擊하였다. 중대장은 곧 전 대원을 掩蔽시키고 5명의 偵察組를 편성하여 右側에 있는 森林안으로 敵의 注意力을 誘引하였다. 偵察組가 출발

한지 불과 20분도 못되어 敵의 火力은 이곳으로 集中하게 되어 이 好機를 利用하여 중대는 一齊히 敵陣에 돌입하는대로 모조리 섬멸하였으며 이와 때를 같이하여 攻擊梯隊인 제7, 제1의 兩중대도 敵의 背後로 突進하여 18.40에 激戰끝에 敵 1個 中隊 병력을 殲滅하고 △785를 完全히 掌握하였다.

제5중대(장, 鄭雲福중위)는, 제1, 제7兩중대가 △785에 돌격을 敢行하는 동안, △562의 頂上부근에서 전날 前半夜에 敵의 逆襲으로 말미암아 迂退組谷으로 兵力을 再收拾中에 있었다. 敵은 이날 02.00 부터 04.00 사이에 1개 중대규모의 병력으로 제5중대와 제6중대 正面에, 그리고 또 다른 1개 중대 규모의 병력으로 제1중대 正面에 各各 砲兵의 集中射擊을 퍼붓고 數次에 걸쳐 發惡的인 역습을 斷行하여 각 중대는 白兵戰으로 混戰亂鬪中이었고, 일부 병력은 夜暗으로 因하여 戰列에서 離脫되는 결과를 招來하였다.

중화기 중대(장, 朴洪緖중위)는 전날 位置에서 계속 공격제대를 지원하였으며 이와같이 惡戰苦鬪끝에 豫定된 목표인 △785를 入手한 대대는 02.00 현재도 入手된 陣地를 계속 強化하면서 四周防禦로써 陣地를 固守하였다.

4. 제26砲兵團은 전날과 같은 陣地에서 계속 攪亂 및 制壓射擊을 반복하였는데 攪亂사격으로는 제1砲隊에서 30발, 제2포대에서 40발, 제3포대에서 30발을 消耗하고 制壓射擊은 12.00와 17.00 2차에 걸쳐 도합 97발을 使用하였다.

8월 11일 : 사단은 이날 역시 敵의 逆襲을 물리치면서 前日 확보한 無名高地와 △784를 계속 固守하는 한편 송곳高地와 만두高地에 대한 최종공격을 敢行하였다.

1. 제10연대 제3대대(장, 崔明道소령)는 無名高地를 抛棄하게된 敵이 △1,031에 依支하면서 이날 밤 夜陰을 이용하여 02.00와 07.00의 2차에 걸쳐 無名高地 一帶에 砲兵의 집중的인 火力支援아래 2개 小隊규모의 兵力으로 제10中隊 제2小隊 正面에 역습을 敢行하였으므로, 여기서 熾烈한 攻防戰을 展開하였다. 제10중대는 侵攻한 敵과 20分에 걸친 交戰끝에 敵을 격퇴한 다음 계속 陣地를 확보하다가 16.00에 그 陣地確保의 임무를 제1중대와 交代하고 대대 OP 地點으로 復歸하였다.

제9, 제11兩중대는 전날부터 확보한 陣地에서 敵의 반격에 대비하여 四周防禦에 專念하였다.

2. 제16연대는 전날에 이어 이날 07.00에 攻擊을 재개함으로써 제9중대(장, 李彰宇중위)는 송곳高地를, 그리고 제11중대(장, 李政泰중위)는 만두高地를 향하여 각각 進擊하였으며 第12중대(장, 朴在東중위)는 前日의 陣地에서 계속 攻擊梯隊를 지원 하였다.

송곳 高地를 향한 제9중대는 同 高地 50m 前方까지 진격하여 16.00부터 數次에 걸쳐 돌격을 반복하였으나 敵의 저항에 부딪쳐 그 목적을 쉽게 달성하지 못하였다. 한편 제11중대는 16.00에 만두高地를 右側으로 迂回하여 敵의 背後를 遮斷할 목적으로 高地 右側 前方 1km 지점까지 潛進하였으나 敵 1개 중대규모의 集中사격을 받아 그 공격을 中斷하고 말았다. 이렇게 제9, 제11 兩중대는 모든 手段을 다하여 突進을 기도하였으나 戰況의 好轉은 如意치 못하여서 18 00에는 다시 아침의 攻擊開始線으로 後退하기에 이르렀다.

3. 對戰車攻擊대대는 △785를 확보중이 었으나 이 고지를 奪還코자하는 敵의 2次에 걸친 끈질긴 夜襲에 부딪쳐 苦戰을 거듭하면서도 끝까지 高地를 固守하였다. 敵은 2次에 걸친이 夜襲에서 많은 兵力을 상실하고 致命的인 打擊을 받았음에 不拘하고 이날 09 00에 또 다시 夜陰을 틈타 執拗하게 反擊을 가하였으나, 각 중대는 이를 맞아 끝까지 勇戰敢鬪하여 敵을 擊退하고 高地를 固守하는데 成功하였다.

4. 제26포병단(장, 洪昌杓중령)는 이날 역시 攻擊梯隊를 支援하여 아침 08 30부터 19.00까지 敵 박격포 陣地에 95발의 制壓사격을 加하였는데 이날 하루동안에 4차에 걸친 연 消耗彈은 210발에 不過하였으니 당시 美軍砲兵의 使用彈量을 勘案한다면 참으로 大海의 一粟格이었다.

8월 12일 : 각 연대는 이미 확보한 陣地에서 敵의 역습에 對備하여 계속 四周방어에 임하면서 다음 攻擊을 위한 彈藥補充과 陣地強化 및 次期戰鬪를 위한 部隊의 再整備를 실시하였다.

1. 제10연대 제3대대(장, 崔明道소령)는 계속 無名高地를 점령확보하면서 △1,031前方에 대한 敵情 수색과 地形정찰에 힘썼는데 敵은 이날도 22.40에 △785 夜暗을 利用하여 東北쪽에서 2개 小隊규모의 兵力으로 제9중대(장, 李彰宇중위) 正面에 대한 반격을 企圖하였으므로 중대는 즉각 이에 응전하여 20분간에 걸친 交戰끝에 이를 격퇴하였다,

2. 제16연대 제3대대(장, 鄭順基소령)는 "ㄱ"高地와 △445를 固守하면서 다음 목표의 공격을 위한 준비에 專念하여 탄약보충과 陣地強化 등에 분망하였다. 이와같이 대대가 부대정비를 실시하는 사이에도 敵의 박격포탄은 間斷없이 집중되었고 야간에는 小規模의 기습도 數次 있었으나 제9, 제11 兩중대의 威力 앞에 敵은 많은 피해만을 입고 퇴각하였다

3. 對戰車攻擊大隊는 △785를 계속 점령 確保하던 중 이날 16 00에 △965 쪽에서 敵 1개 대대규모의 병력이 強力한 砲支援下에 제7중대(장, 池康益중위) 正面을 目標로 반격을 加함에 즉각 이에 應戰하여 피아간에 激突相을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戰勢의 推移가 如

置치 않아 死傷者가 속출함으로써 대대는 작전상 일단 同高地에서 철수하였다가 다음날인 13일 06.00에 이를 재탈환하였다.

4 제26포병단(장, 洪昌杓중령)은 10.30부터 11.00사이에 37발의 지원사격을 加하고 14.00부터 20분간 敵 直射砲 陣地에 制壓사격을 集中하였다.

8월 13일 : 사단의 각 연대는 이날 最終目標를 향한 총 공격을 斷行하여 송곳高地 및 만두高地를 掌握하고 전날인 12일에 작전상 일시 後退한 △785를 재 탈환하였으나 無名高地만은 執拗한 敵의 공격으로 一時 그 占領을 斷念하지 않으면 아니되었다.

1. 제10연대의 제3대대(장, 宣明道소령)는 無名高地를 점령 확보 中 연대작명 제28호에 따라 이날 14.00에 제1대대와 그 任務를 交代하고 Kansas 선상의 방어진지로 이동하였다 제1대대는 제3대대와 交替하는 同時에 敵의 強力한 反擊에 부딪쳤다. 敵은 이러한 부대 交替의 틈을 타서 이날 15.30에 △1,031와 △965 一帶에 兵力을 증강하는 동시에 無名高地 一帶에 各種砲兵의 집중사격밑에 일대 반격을 劃策하였으므로 대대는 즉각 이에 對應하여 피아간 치열한 攻防戰을 전개하였으나 戰勢가 점차로 불리하여짐에 따라 23.00에 작전상 병력을 일단 대대 OP로 随意撤收하게 되었다.

2. 제16연대 제3대대(장, 鄭順基소령)는 전날부터 이날의 공격에 對備하여 戰線을 정돈하면서 공격을 준비하던중 이날 아침 08 30에 強力한 砲兵支援에 呼應하면서 마지막 총공격을 敢行하였다. 제9중대(장, 李彰宇중위)는 △445를 경유하여 송곳高地로 향하고 제10중대(장, 孫昌吉중위)는 중앙으로 전진하여 만두高地 정면으로 진격하였다. 제11중대(장, 李政泰중위)와 대대 수색소대 및 제2대대 제5중대의 2개 소대는 "ㄱ"高地를 경유하여 만두高地 左측으로 각각 진격하였다. 제12중대 중화기 소대는 蘆田坪一帶에서 각 공격제대를 지원하였다.

각 중대가 공격개시선상에 進出하였을 때를 같이하여 지원소대의 사격이 開始되었으며 野砲隊는 敵의 側方火器와 지뢰지대를 目標로 火力을 集中發揮하였다. 同高地의 中腹一帶에 매몰되어 있는 地雷源을 헤치면서 각 중대는 一進又一進 敵陣에 육박하였다. 송곳高地를 향한 제9중대는 突擊戰을 반복한 끝에 끝까지 버티는 1개 중대규모의 敵을 격멸한 다음 13.40에 同高地의 頂上을 점령하였다 이어 중대는 만두高地로 進出하여 이 高地를 돌격중인 제10, 제11 兩중대를 側方으로부터 지원하여 그 進出을 용이하게 協同하였다. 이리하여 제9제, 제10 兩중대는 高地 300m 前方까지 진출하였으나 敵의 강력한 集中火力으로 戰線은 잠시 膠着狀態에 빠졌다. 敵陣을 目前에 둔 마지막 순간인지라 이를 注視하던

대대장 鄭順基소령은 즉각 대대 OP를 떠나 솔선 1개 小隊를 陣頭지휘하여 敵陣을 향해 白兵돌격을 敢行하였다. 이리하여 마침내 敵의 固守前線을 돌파하고 陣內部로 돌입하여 凄慘한 紛戰을 반복한 끝에 敵을 大破하고 마침내 血痕과 肉片으로 뒤덮힌 만두高地 第一峯에 점령 信號를 높이 올리게 되었다.

이것으로 제16연대 제3대대는 "ㄱ" 高地—△445—송곳高地—만두高地 頂上으로 逐次 목표를 완전히 점령하여 사단作命 제131호에 의거한 제1차 作戰에 부가된 所任을 완수하고, 각 중대는 19.00 次後부터 四周방어를 強化하였다.

3. 對戰車攻擊大隊는 敵의 반격으로 전날 △785에서 작전상 일시 후퇴하였다가 이날 黎明을 期하여 포병의 火力 支援下에 재 반격을 敢行하여 08.00에를 △785 다시 탈환하였다 이로써 대대도 사단작명 제131호에 의거하여 부가된 作戰任務를 완수하고 이날 22.00에 師團作指 제2호에 따라 제21연대 제3대대와 그 임무를 交代하였다.

4. 제26포병단(장, 洪昌杓중령)은 이날 05.00부터 전차공격대대의 공격에 앞서 △785를 中心으로 하는 山野에 340발의 지원사격을 加하고 계속 09.00와 23.00에 2차에 걸쳐 100여발의 攪亂사격을 실시 함으로써 步砲協同의 威勢를 다시한번 보여주었다.

8월 14일 : 제10연대 제1대대는 전날 제3대대와의 陣地交代와 同時에 敵의 역습으로 일시 無名高地에서 물러섰다가 다시 戰列을 가다듬어 이날 黎明을 기하여 제2대대(장, 金光소령)와 제3대대(장, 崔明道소령)가 08.00에 △1,058로 부터 無名高地를 向해 지원공세를 취하는 가운데 再奪還戰을 敢行하였다. 敵은 이때에 △765 방면으로 부터 122mm 野砲의 集中사격으로 아군의 進出을 극력 阻止하려고 壓力을 다하였으나 대대는 돌격과 火力制壓의 相互發揮로써 끝내 이 醜敵을 격퇴하고 이날 19.20에 同 高地를 다시 占領하는데 成功하였다.

라. 전투후의 개황

諸般 戰略上 유리한 高地를 先占하고 以後의 進擊을 꾀하려던 敵은 이 전투에서 先點의 巨利를 포기하고 다시 萎縮態勢로 移行하게 되었다. 北共 제19연대 제1대대와 제17연대는 督戰밑에서의 強襲의 반복에도 불구하고 많은 人的 物的 손실의 補強方途가 없었음인지 退潮와도 같이 徹尼洞 東쪽인 △771—965를 目標로 퇴각하고 말았다.

그러나 敵은 그 뒤에 계속하여 △1,031를 중심으로 兵力 및 장비를 再補充하여 부대를 재 정비하면서 不斷히 수색과 정찰에 狂奔相을 보였다.

즉, 北共 제2군단(장, 중장 崔 賢)은 이번 戰鬪에서 潰退한 제19연대 제1대대를 제4연대 제1대대와 代替하는 동시에 제19연대의 제2, 제3 兩대대를 제4연대의 제2, 제3 兩대대와 交代한 다음 제19연대를 군단예비로 돌려 兵力을 補充하며 부대를 再編보강하였다. 또한 제4연대의 제1대대와 제17연대의 제1, 제2 兩대대및 제6연대의 1대대로 하여금 △1,031—△965—△771—△569—△673을 連하는 稜線上을 固守토록 하면서 前進警戒線을 確保하는 것으로 判斷되었다.

이와같이 敵은 △1,031을 중심으로 하는 一連의 防禦陣地를 구축하면서 戰列을 재 정비하고 점령당한 △445—△785 및 無名高地를 再탈환코자 奇襲的인 反擊의 기회를 노리는 것으로 推斷되었다.

한편 師團은 이러한 敵의 반격에 대비하여 △445—△785—無名高地를 連하는 능선일대에 지뢰를 매설하고 陣地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단 正面의 Kansas 선을 계속 確保하면서 △1,031 일대에서 增強一路에 있는 敵의 動情을 감시하면서 萬般의 對應態勢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긴박한 戰況은 불과 一週日도 못가서 급기야 제2차 作戰을 誘發하게되었다. 즉, 그간 敵이 부단히 我方에 침투하여 한때 無名高地가 피탈 당하는 사태에 까지 놓이게 되자 師團은 8월 18일 다시 盆田坪地區 제2차 作戰을 개시하여 敵이 最後據點으로 믿고 있던 △1,031—△965를 점령하고 敵의 企圖를 완전 粉碎하였던 것이다. (參照·盆田坪地區 제2차 戰鬪)

이번 戰鬪(제1차 작전)의 綜合 戰果 및 損失은 다음과 같다.

戰 果

射殺 1,229명
捕虜 32명
投降 4명

<노획>

重機 3정
輕機 9정
S.M.G 1정
BAR : 2정
多發銃 : 63정
小 銃 152정
手榴彈 1,336發

損 失

戰死 5/123명
負傷 23/462명
失踪 2명

§. 戰 訓

1. 事前準備의 必要性

본 戰鬪에 참가한 대부분의 장병들이 공격前에 敵의 兵力배치를 비롯하여 陣地의 強度 및 공격目標에 이르는 地形地物의 特異性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탓으로 그 結果 作戰上의 支障이 적지 않은 것으로 判斷된다

즉, 敵의 地雷源과 側方火器의 六略的인 배치 豫想등에 未汲한 탓으로 공격이 때때로 좌절되었던 사실과 地形연구의 未備로 한때 敵의 逆襲으로 分散되었던 부대 集結이 如意치 않아 長時間의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사실을 미루어 볼때에 戰場터에 있어서의 파란은 不可避하다 할지라도 우선 싸우기전에 準備에 있어서 먼저 이겨놓고 보아야 한다는 敎訓을 주고 있다.

또한 이로 말미암아 目標地點을 完全占領하기까지 豫期하였던 시간이 3배나 걸렸고 死傷者도 意外로 많이 속출하였으니 輕敵思潮의 惡弊와 周到緻密한 사전계획의 必要性을 다시한번 느끼게 한다.

元是 長久한 시간을 두고 방어陣地를 強化한 敵陣을 공격하기 위하여서는 사전에 일정시간(48시간 이상)을 두고 攻擊梯隊에 다음과 같은 一例의 準備事項을 철저히 시켜야 할것이라는 것을 이 作戰을 통하여 切感케 되었다.

가. 圖上 및 現地검토

나 예상되는 敵의 側方火器의 制壓方途(포병만이 아니라 必要한 空中支援 및 再攻擊方案 등)

다. 敵의 장애물에 대한 制壓方法.

라. 失踪者의 근절을 期하기 위한 事前對備策(例컨데, 夜間識別法, 暗號, 非常警備裝置, 가능하면 照明線의 준비 등)

2. 步砲協同의 緊密性

8월 9일 제10연대 제11중대가 無名高地에 進擊時 아군 砲彈으로 인해 2명의 戰死者와 2명의 重傷者를 發生케 함으로써 緖戰에서 부터 兵士들의 士氣를 저하시키는 要因이 되었다.

步砲協同의 圓滑은 勝利의 要諦이므로 作戰개시전에 一線지휘관과 砲兵지휘관 사이에는 事前에 충분한 火力協調가 이루어져야 될것으로 要望된다.

§. 參戰者의 證言

◇ 제16연대 제3대대 중포중대장 具麗會대위

(1971.5.3 육본관리참모부 기획처장, 준장)

우리 대대는 嶺南地區 공비 토벌작전을 하다가 5월중순에 경남 山淸에서 기차를 타고 堤川으로 올라와 차량편으로 六關嶺으로 이동하여 이곳에서 행군으로 下珍富里로 진격하였다. 여기서 부터 퇴각하는 敵을 추격하여 敗殘兵들을 격멸하면서 縣里—元通里—瑞和里로 진출하였다.

蘆田坪地區 戰鬪는 바로 瑞和里 北쪽 Kansas 선상의 戰線으로서 당시 제5사단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우리 사단이 초월공격을 하였다. 이 때의 연대장은 李存一대령이고 제1대대장이 朴海軾소령 제2대대장이 韓炳甲소령 제3대대장이 鄭順基소령이었으며 이 전투의 목적은 바로 이 蘆田坪地區를 확보하는 것이었는데 우리 연대의 攻擊目標는 蘆田坪 南쪽에 있는 △445와 一連의 無名高地였다.

이 無名高地는 당시 중요한 位置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 高地를 점령하여야만 左右 北쪽에 있는 高地들을 공격할 수 있으며 나가서는 蘆田坪平野를 支配할 수가 있었다. 우리 연대는 사단 砲兵의 지원하에 최초에는 제1대대와 제2대대가 공격하였는데 기간중에 제3대대가 投入되어 결국 이 無名高地를 점령하고 계속 전진하여 △445—만두高地 등 一連의 高地群을 占領하였다.

그런데 이 無名高地를 점령하고 보니 地圖上으로는 頂上이 하나로 되어 있으나 北쪽으로 조금 낮은 봉우리가 여러개 있었다 그래서 우리 대대는 즉각 占領한 頂上을 중심으로 四周방어에 들어 갔으나 밤마다 敵의 逆襲을 받아 頂上을 빼앗기고 8부능선에서 敵과 대치하였다.이리하여 낮에는 우리가 占領하고 밤에는 敵이 장악하는 爭奪戰이 며칠간 계속되었다. 이 高地를 完全 점령한 우리 대대는 그 공로로 대대장이 美 동성훈장을 받았고 나는 화랑훈장을 받았다.

8. 924高地 戰鬪 (1951년 8월 18일부터 / 1951년 8월 23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25호
상 황 도 제24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제 1 군단	장	소장	白 善 燁
수도사단	장	준장	宋 堯 讚
제26연대	장	대령	徐 廷 哲
제 1 대대	장	소령	尹 炳 埈
제 2 대대	장	소령	朴 基 淳
제 3 대대	장	소령	朴 魯 權
		소령	韓 榮 助 (8.21부터)
제 1 연대	장	중령	高 光 道
제 3 대대	장	소령	朴 贇 兢
제10포병대대	장	중령	房 景 源

병력 및 장비 : 대체로 연대 T/O및 T/E를 유지함

지원부대
美 제 7 함대 사령관 중장 A.D Struble

인접부대
右인접 제11사단장 준장 吳 德 俊
左인접 제 8 사단장 준장 崔 榮 喜

敵 軍

北共 제 2 군단	장	중장	崔 賢
제13사단	장	소장	鄭 炳 甲

나. 전투 전의 개황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大關嶺—橫溪里線에서 攻勢移轉을 斷行하여 大關嶺에서의 勝戰記錄을 남긴 수도사단은 다음날인 5월 26일에 美 제8군계획에 따른 군단의 命令으로 Kansas線 進擊戰에 東部戰線의 左肩部位로 躍進하여 潰走하는 敵을 擊破하면서 追擊한 끝에 同月 末日에는 杜城—香爐峯線을 확보하였다.

이로부터 사단은 中東部와의 戰線均衡을 위한 군단의계획에 따라 一旦 進擊戰을 멈춘 다음 香爐

峯을 中心으로 그 南北線上에 主力을 配備하였는데, 즉 제1기갑연대로서 香爐峯一圓峯일대를, 제26연대로서 그 北쪽 3~5km 일대를, 제1연대로서 그 南쪽 七鐵峯一梅峯 일대를 각각 占領케하여 相互連繫하는 主抵抗線을 형성케 한다음 威力搜索을 실시하면서 戰力을 정비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北共 제2군단은 第2次 春季攻勢에 決定的인 打擊을 입고 豫備隊로서 戰力을 再整備한 다음, 그 예하 제13사단과 군단 直轄인 團豫號미상의 1개연대규모의 兵力을 山頭谷山(△1,019)一瑞和里一六谷里線(香爐峯 西南쪽 3~7km)에 布陣하여 中東部戰線에서 潰走하는 中共 및 北共軍의 主力을 掩護하는 일방 當사단의 急進出로 말미암은 左인접 美 제10군단과의 露出된 空間으로 當사단主抵抗線上의 要衝인 香爐峯 및 圓峯을 攻略코자 企圖하였다.

이와같은 敵의 兇計를 간파한 사단장 宋堯讚준장은 곧 이 敵을 무찌를 것을 決心하고 군단의 承認을 얻는 동시에 이미 공격준비를 끝마친 제1기갑연대(장, 李 龍대령)로 하여금 6월 4일 06 00를 期하여 機先을 制한 공격을 斷行키로 하였다. 그리하여 연대는 勇戰끝에 敵의 銳鋒을 擊破하고, 6월 12일에 敵의 據點인 山頭谷山一△940(香爐峯 西쪽 4km)를 占領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사단은 西側背에 對한 威脅을 제거하였는데 이무렵 美 제10군단(장, Byers소장)에 배속된 제5사단(장, 閔機植준장)이 六谷里一瑞和里線에 進出하게 되어 그 右一線으로 進擊한 제36연대(장, 李承雨중령)와 山頭谷山을 制限點으로 連繫하였다.

그런데 이 무렵에 公式擧論된 休戰문제가 7月에 들어서면서 開城會談의 개최로 進展됨에 따라, 여기에서 어떤 打開의 가능성을 기대한 美 제8군當局의 作戰概念에 依據하여 사단은 6月 下旬부터 7月 中旬에 이르기까지 Kansas線에서 威力搜索을 展開하면서 同線에 沿하여 陣地를 補強하는 以外에는 別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이에 反하여 敵은 戰線이 休戰會談으로 말미암아 小康상태를 유지하자 이것을 奇貨로 하여 空地兩面의 戰力補強에만 狂奔하더니 7월 20일을 前後하여서는 探索공격을 강화하면서 빈번한 부대이동과 함께 補給品 및 각종 裝備를 前方으로 推進하여 集積하는 것이 觀測되었고, 더욱이 敵은 期間中에 堅固한 據點工事를 서둘러 끝마쳤는데, 이들은 我軍의 砲火에 대비하여 모든 壕를 完全有蓋壕로 구축하였을뿐 아니라 陣前에는 각종 장애물을 設置함으로써 攻守兩面에서의 戰力을 상당히 갖춘것으로 判斷되었다.

특히 그 中에서도 東部戰線의 敵은 Kansas 線을 瞰制하는 高地群인 Punch Bowl 一圓에 6개 사단의 兵力과 野砲, 迫擊砲등의 砲 火力을 急增하면서 여기를 據點化한 다음, 我軍의 進擊을 阻止코자 하는 한편 將次 또다른 南侵의 발판을 삼으려고 企圖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와같은 戰線의 動向을 銳意注視하던 Van Fleet 대장은 敵이 장악한 制高點을 先制攻擊으로 擊破하여 그들의 攻擊企圖를 사전에 粉碎함으로써 그間의 침체된 將兵들의 士氣를 높이는 한편 戰線을 보다더 堅固한 要線으로 形成하여 Punch Bowl에 對한 包圍태세를 갖추고자 決心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敵이 장악한 Punch Bowl 東西壁일대의 制高點에 對한 攻擊준비를 제1군단과 美 제10군단에 각각 命令하기에 이르렀다.

이에따라 군단장代理 張昌國준장(이 當時 군단장 白善燁소장은 休戰會談에 韓國側代表로 參席中)은 Punch Bowl東壁에 對한 攻擊준비를 끝마친 다음 攻擊命令을 下達하였는데 즉 △924一△751를 目標 "C"로하여 當사단에, △884一△591를 目標 "B"로 하여 제11사단에, 각각 附與하고 7월 27일 08 00

를 期하여 攻擊을 斷行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사단은 제1및 제1기갑 兩연대로서 攻擊을 發起하였으나 때마침 큰 장마로 말미암아 다만 目標前方의 搜索據點을 확보하는데 그친채 군단의 指示로 進擊을 保留하였다.

그런데 사단의 攻擊目標인 △924—△751는 Punch Bowl 攻略의 橋頭堡이자, 敵에게는 防守를 위한 天然的인 要衝이며 더구나 그 主峯인 △921는 이곳에서 我軍의 陣地 깊숙히까지 觀測할 수 있기 때문에 Kansas 線을 瞰制하는 觀測所로도 큰 役割을 하였으므로 勿必코 攻略하여야만 될 要線으로 浮刻된 것이다.

8月 中旬에 접어들면서 장마가 개이고 進擊의 戰雲이 일기 시작함에 따라 사단장 宋堯讚 준장은 Kansas 線上의 搜索據點을 前進據點으로 轉換키로 한 다음 攻擊준비를 위한 事前布石으로서 그 間 珍富嶺일대의 第2線에서 豫備隊로서 戰力을 補強한 제26연대를 8월 16일 이곳에 躍進시키는 동시에 이를 擔當케 하고 戰線의 움직임을 注視하였다.

그러던中 군단으로부터 目標 "C"에 對한 攻擊을 再開하라는 命令이 下達됨으로써 보다 더 決定的인 攻略을 위해서 제1연대의 일부 兵力으로써 攻擊第1線인 제26연대의 支援태세를 갖추게하여 8월 18일 06.00를 期하여 攻擊을 敢行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狀況아래에서 攻擊을 준비한 사단 右側에서는 제11사단(장, 吳德俊준장)이 目標 "B"(△884—△591)를, 左側에서는 제8사단(장, 崔榮喜준장)이 目標 "Z"(△1031일대)를 각각 同時에 攻擊키로 하였다.

이 當時 사단 當面의 敵은 그 CP를 伊布里에 둔 北共 제2군단의 제13사단으로서 그 예하의 제19연대가 △924를, 제21연대가 △751를 占據中이었고 그 西北쪽 인 無名高地에 있는 豫備隊는 언제라도 增援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 것으로 보였으며 이들은 好機를 捕捉하는 대로 攻勢로 轉換할 能力이 있는 것으로 判斷되었다.

사단에 영향력을 미칠수 있는 敵은 右인접 제11사단 正面의 北共 제3군단예하 제45사단과 左인접 제8사단과 對峙中인 北共 제2사단의 兩個사단이었다. 이 中에서도 北共 제2사단의 제17연대는 그 主力을 當사단과 제8사단과의 接境인 △1,031부근에 配置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戰鬪地境線間의 틈을 노려서 侵透한 다음, 側方遮斷을 꾀하면서 正面의 敵과 呼應할 것으로 判斷되었다.

사단과 對決할 北共 제13사단은 지난 5月攻勢때에 군단 豫備隊로서, 我군에 의한 打擊을 크게 입지 않은 탓으로 비교적 良好한 戰力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戰鬪兵力은 5,500名 내외로 推斷되었고 한편 이들의 裝備는 각 연대에 追擊砲 8문 重, 輕기관총 24정을 保有하였으며 野砲 1개대대가 直接支援할 것으로 推測되었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군단장대리 張昌國 준장은 8월 17일 彼我 攻守兩面의 據點인 Punch Bowl에 對한 包圍

태세를 갖추기 위하여 그 東西壁 일대의 敵이 장악한 制高點을 奪取하려는 Van Fleet대장의 作戰槪念에 따라 要旨 다음과 같은 命令을 下達하였다.

『수도사단은 8월 18일 06.00를 期하여 攻擊을 개시한 다음 目標 "C"를 占領하고 敵後方을 搜索하면서 그 補給施設을 파괴하라』

이 命令으로 附與된 사단의 임무는 군단의 左翼으로 進擊하면서 當面의 敵을 擊滅하고 敵의 Kansas線 瞰制要衝인 △924—△751 일대를 奪取하여 同線의 威脅을 제거한 다음 나아가서는 그 北쪽에 있는 北共軍의 主補給路인 453番道路(高城—沙泉里—麟蹄에 이르는 道路)를 확보함으로써 敵線의 北上을 強要함과 동시에 Punch Bowl의 包圍태세를 容易케 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戰鬪正面은 60~70度의 急傾斜로 된 山岳地帶인 反面에 樹木이라고는 볼 수 없는 禿山들로서 手足을 같이 使用하지 않고는 한걸음도 前進할 수 없었거니와 期間中에 계속된 降雨로 말미암아 지역일대는 泥濘化하여 機動에 장애를 주었다.

이와 反面에 敵은 이 일대에 相當한 時日을 두고 要地要部에 堅固한 진지를 구축하여 據點化하고 더욱이 我군의 進擊을 瞰制하는 制高點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단장은 이와 같은 地勢의 不利를 무릅쓰고 단숨에 敵線을 突破, 分斷하여 目標를 奪取할 決心아래 徐廷哲대령이 指揮하는 제26연대를 사단攻擊梯隊로 展開하고 제1연대(장, 高光道중령)의 1개대대로서 支援케 하여 攻擊을 決行키 위한 사단作命 제141號 修正作戰指示 제9호를 下達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제26연대는 目標 "C"를 攻擊하여 이를 占領한 다음 右인접 제9연대와 連繫하면서 453道路까지 躍進하여 이를 확보하라.

② 제1연대는 1개대대를 8월 17일 24.00까지 △941에 集結, 待機케 하고 別命에 따라 △924 西北쪽을 沿하여 進擊함으로써 제26연대를 支援케하라.

③ 攻擊間, 사단 砲兵은 연대를 直接 支援할 것이다.

④ 作戰期間中 要請에 따라 艦砲및 空中支援을 받을 수 있다.

⑤ 攻擊開始는 8월 18일로 豫定한다. 』

이와같은 사단作命을 受領한 제26연대장 徐廷哲대령은 곧 作戰會議를 召集하여 이미 마련한 作戰計劃에 對한 마지막 손질을 加한다음 當面의 敵을 一擧에 擊碎키로 決心하고 곧 제3대대(장, 朴魯權소령)를 右一線으로, 제2대대(장, 朴基淳소령)를 左一線으로 展開하여

併進攻擊케 하는 한편, 제1대대(장, 尹炳峻소령)는 一線대대를 支援토록 하여, 一戰을 決行키 위한 연대作命 제20號를 下達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연대는 8월 18일 06.00를 期하여 目標 "C"를 攻擊, 이를 奪取한 다음 계속 進擊하여 敵의 主補給路를 확보하려 한다.

② 제3대대는 연대 右一線으로 △751일대의 敵을 擊破하고 이를 占領한 다음 敵의 補給및 施設을 파괴하라.

③ 제2대대는 연대 左一線으로 △924를 奪取한 다음, 그 北쪽 △935를 계속 攻擊하여 이를 占領하라.

④ 제1대대는 최초 연대 豫備隊로서 攻擊開始線 後方에 位置하면서 別命에 따라 一線대대의 攻擊을 支援하라.

⑤ 攻擊間 각 대대는 要請에 따라 砲兵 航空의 支援을 받을 수 있다.

⑥ 연대 CP는 최초 無名高地 (DT 395 453)에 位置하며, 攻擊開始와 동시에 △709로 推進開設할 豫定이다.』

(2) 작전실시

8월 18일 : 1. 제26연대(장, 徐廷哲대령)는 이날 06 00를 期하여 右인접 제9연대(장, 金安一대령)와 左인접 제8사단(장, 崔榮喜준장)의 攻擊과 呼應하면서 目標 "C"를 奪取할 目的으로 일제히 攻擊을 개시하였다.

이때에 연대는 제3대대를 右一線으로 제2대대를 左一線으로 展開하여 現陣地로부터 躍進케 하는 한편, 제1대대를 豫備隊로 控置하여 △709(△924 東쪽 2km) 일대에서 一線대대의 進出을 掩護케 하면서 일부 兵力으로 側後方경계에 임하도록 하였다.

오랜 期間의 장마로 말미암아 攻擊開始線을 沿하여 南北으로 흐르는 無名川의 범람으로 進擊에 장애를 주었으나 이를 克服하면서 渡河한 一線大隊는 敵의 鐵條網과 地雷를 제거하면서 目標를 向하여 進出하였다.

제3대대(장, 朴魯權소령)는 연대作命 제20號에 의거하여 目標 △751을 奪取할 目的으로 이날 06.00에 攻擊開始線을 박차고 일제히 突進하였다.

이때의 대대는 제11중대를 右一線으로 제9중대를 左一線으로 展開하고 제10중대를 豫備隊로 하여 後續토록 하였는데 11.00에 一線兩중대가 △751東南쪽 500m까지 進出하자 대대장 朴魯權소령은 兩중대로 하여금 突擊隊形으로 轉換토록 한다음 △751 左右 兩面으로

分進케 하여 包圍網을 形成토록 하였다.

이로부터 대대는 包圍網을 壓縮하였는데 이때에제11 중대는 果敢한 突進으로 △751 後斜面의 無名高地를 占領하였으나 제9중대는 △751 西麓으로 進出中 그 左側稜線의 突出部로부터 敵의 심한 기관총 사격을 받았다.

이에 중대장은 곧 兵力을 敵陣 東쪽 稜線에 散開시킨 다음 중대의 全火力을 集中하면서 제2소대로 하여금 敵陣을 迂回케하여 側面에서 急襲토록 하였다.

이와같은 不意의 側面攻擊을 받게된 敵은 한때 그 威勢에 눌려 沈默케 되었으나 이때를 맞추어 全중대가 敵前 50m까지 接近하자 敵은 또다시 發惡하기 시작하여 중대를 向하여 砲火를 集中하였다.

이렇듯 頑強한 敵의 抵抗으로 말미암아 自隊火力만으로는 이를 制壓할 수 없음을 간파한 중대장은 대대에 支援사격을 要請하여 敵陣을 強打케 하였으나 敵의 抵抗은 한결같이 계속되었다.

특히 이 △751 西斜面은 50度의 急傾斜로서 수류탄을 던져도 오히려 我軍쪽으로 落下하는 가파른 地形인 까닭으로 突進이 어려웠다.

이렇듯 地勢의 利를 살린 敵陣에 對한 攻擊은 점차 제9중대의 戰勢를 不利케 한 까닭으로 대대장은 후속하는 제10중대로서 攻擊을 계속케 하였으나 敵의 집요한 抵抗으로 進出을 못한채로 다만 血戰만을 거듭하게 되었다.

이에 대대장은 一旦 攻擊을 中止하고 戰力을 補強한 다음 再攻을 敢行키로 하고 陣地로 復歸케 하였다.

제2대대(장, 朴基彦소령)는 主峯인 △924를 攻擊키 위하여 이날 새벽부터 出擊 태세를 點檢한 다음 제5중대를 右一線으로 제7중대를 左一線으로 展開하고 06.00에 進擊을 敢行하였다.

兩중대는 그 間의 降雨로 因한 泥濘化된 山岳지대를 누비면서 進出을 阻止하려는 1개소대 규모의 敵을 擊破하고 前進한 끝에 10.30에 △924 前斜面에 이르러 △924 東斜面으로부터 出現한 2개중대규모의 敵과 激突하게 되였다.

이에 대대장은 즉각 후속하는 제6중대를 △924 東側 깊숙히 迂回케 한다음 三面으로 包圍攻擊을 敢行하였는데 敵은 이미 堅固한 陣地에서 重火器의 火力을 발휘하며 頑強히 抵抗함으로써 彼我間에는 불꽃튀는 치열한 攻防戰이 展開되었다.

이렇듯 敵의 抗拒力이 強하자, 손쉽게 占領할 수 없음을 直感한 대대장은 곧 제5중대로

하여금 正面으로 肉迫突擊토록 命令하고 대대의 全火力을 集中掩護케 하니 이에 唐惶하게 된 敵의 銳鋒은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일부는 潰走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捕捉한 대대 將兵들은 敵陣안으로 突入하여 銃劍을 휘두르며 最後까지 발악 하던 敵을 모조리 粉碎하고 마침내 그 頂上을 占領하였다.

이와같은 血戰끝에 △924를 占領하자 연대장은 제1대대의 2個중대를 제 2 대대에 配屬케 하여 同高地에서 四周경계에 임하도록 하는동시에 제2대대는 △924西側背에 있는 △765에 대한 攻擊을 續行토록 하였다.

이로부터 대대는 進擊의 餘勢를 몰아 △765 前斜面까지 進出하였는데 이때에 快晴하던 날씨가 突變하여 強風과 함께 暴雨가 몰아쳐 視界의 장애로 말미암아 進出이 制限되었다.

이런中에 대대는 △765 中腹으로부터 敵의 重火器의 集中사격을 받아 점차로 進出이 어렵게 되었고 이와같은 好機를 捕捉한 2개대대의 敵은 이때를 놓칠세라 대대를 目標로 逆襲을 加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이르러 대대장은 增強된 敵勢와 暴雨로 말미암은 狀況의 不利로 次後 攻擊에 대비코자 配屬된 제1대대의 제2, 제3중대와 함께 대대 O P가 있는 △709로 隨意退却하여 다음날의 攻擊을 준비하였다.

2. 제1연대(장, 高光道중령)는 사단作命 제141號에 따라 제26연대를 支援하기 위하여 제3대대로 하여금 연대 豫備隊인 제1대대에게 現陣地를 引繼토록 하고, 전날 밤부터 躍進케 하였는데, 이에 따라 제3대대(장, 朴貴燒 소령)는 이날 03 30에 △941에 集結한 다음 次後命令을 대기하게 되었다.

8월 19일 : 이날도 전날에 이어 暴雨가 계속되고 짙은 안개는 視界가 不良하여 砲觀側을 制限하였으며 진흙속의 進出路는 공격에 支障을 주었다.

이와 같은 狀況아래 北共 제13사단의 제19연대는 △924—△751을 連하여 防守태세를 더욱 強化하는 동시에 砲火를 集中發揮하고 있었다.

1. 제26연대(장, 徐廷哲대령)는 모든 難關을 무릅쓰고 攻擊을 再開키로 하였는데 이에 따라 제2, 제3 兩대대는 目標를 向하여 躍進을 시작하였다.

제3대대(장, 朴魯權소령)는 이날도 △751의 敵을 擊破할 目的으로 전날의 陣地에서 北斜面까지 急進하였을 때에 앞, 뒤 兩面의 敵으로부터 不意의 射擊을 받아 進出이 鈍化되고 敵은 期必코 同高地를 固守코자 하므로 彼我間에 激烈한 攻防戰이 거듭되었다.

이에 대대장은 戰況의 打開를 위하여 제9중대로 하여금 中央突破를 敢行토록 命令하고

제10중대는 敵의 左側背를 強打한 다음, 東側으로 迂回한 제11중대와 呼應하면서 兩面에서 挾擊토록 하였는데, 狂氣서린 敵의 抵抗은 極烈하여 勇戰奮鬪를 다 하였으나 日沒時까지 同高地를 占領치 못하고 進出地點에서 急編陣地를 마련하였다.

제2대대(장, 朴基淳소령)는 配屬된 제1대대의 제2, 제3兩중대와 함께 전날의 目標인 △924에 對한 攻擊을 再開하였다. 대대 全將兵은 必勝의 信念으로 渾然一體가 되어 血戰을 展開하였으나 계속 增援되는 敵勢의 狂暴가 絶頂에 達하여 惡戰苦鬪를 免치 못하게 되었다

이에 대대장은 無謀한 突擊은 희생만을 초래한다는 생각에서 연대장의 承認을 얻은 다음 一旦 復歸하여 戰力을 整備하였다.

2. 한편 제1연대(장, 高光道중령)의 제3대대(장, 朴贊兢소령)는 전날의 集結地인 △941 부근에서 待機中 연대장으로부터 『左인접 제8사단과의 接境에 있는 △1,031 下麓에 進出한 다음, 一戰을 決할 준비태세를 갖추라』는 要旨의 命令에 따라 이날 13.00에 出動하였다.

8월 20일 : 1. 제26연대(장, 徐廷哲대령)는 敵勢가 계속 增加하여 頑強히 抵抗하자 계획의 일부를 바꾸어 當面의 敵을 一擧에 擊碎키로 決心하고 3개대대를 전부 第一線에 參加시켜 攻擊을 斷行키로 하였다.

이리하여 그間 연대 豫備隊로서 연대 OP에서 側後方 경계에 任하던 제1대대로 하여금 △924를 攻擊토록 하였으며, 제2대대는 제1대대의 攻擊에 呼應하여 同高地 左側方으로 迂回하여 挾擊하다가 그 後方에서 強力히 掩護中인 △751의 敵을 急襲토록 하고 제3대대로서는 연대의 特攻隊를 配屬시켜 △751 北쪽에 있는 △1,000를 集中攻擊케 하였다.

제1대대(장, 尹炳埈소령)는 연대장의 命令에 따라 主力을 前方으로 推進하여 제2, 제3 兩중대로서 目標 △924를 向하여 일제히 突進하였는데 이때의 대대는 때를 마추어 支援하는 제2대대와 協同으로 1개중대 규모의 敵線을 突破하여 이를 一蹴한 다음 계속 進出中 急遽 增援된 敵 2개중대와 激突하게 되어 彼我間에 激戰을 惹起하였다.

그러나 대대將兵들은 무려 5回에 걸친 白兵戰을 反復한 끝에 이 敵을 覆滅하고 18.30에 드디어 이 高地를 再奪取하였다.

그 뒤 대대는 日沒과 함께 四周경계로써 敵의 逆襲에 대비하였다.

한편 제2대대(장, 朴基淳소령)는 △924側背에서 제1대대의 攻擊과 呼應하면서 協同作戰을 展開하다가 제1대대의 主力이 △924를 占領하자 대대 主力으로서 目標 △765를 擊破할

目的으로 그 西側背를 強打하고 豫備隊인 제6중대로 하여금 △924를 초월하는 즉시로 正面으로 突進케 하였다.

이로부터 2시간만인 19.30에 대대는 敵의 前進陣地로 推定되는 △765 前斜面에서 1개중대규모의 敵陣을 突破한 다음 그 中腹에 있는 敵의 特火點을 粉碎코자 계속 突進하였으나 이를 固守하는 敵의 執拗한 抵抗으로 一進一退의 攻防만을 반복하던 중 점차 어두움이 周圍를 뒤덮고 또한 地形의 不利마저 겹쳐 前進이 어렵게 되었다.

戰況이 이에 이르자 대대장은 연대에 照明사격과 砲兵의 火力支援을 要請하였는데, 곧이어 實施된 照明사격은 周圍를 晝間과 같이 밝혀주었고 또한 支援포대의 集中사격은 敵陣을 強打하였으므로 이때를 타서 敢行된 제6중대의 急進과 急射는 敵線을 攪亂하여 이로 말미암아 敵陣의 一角이 드디어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한 대대 主力은 일제히 突擊을 敢行하여 肉迫끝에 그 據點을 粉碎하는데 成功하여 頂上을 攻略하는데 한걸음 닥아서게 되었다.

그뒤 대대는 연대장의 指示에 따라 進出線에서 진지를 補強하면서 四周경계에 들어갔다

제3대대(장, 朴魯權소령)는 연대장의 計劃變更에 따라 △1,000를 擊破코자 제9중대로서 正面을 견제케 하고, 대대主力을 左右에 展開하여 直衝토록 하는 한편, 配屬된 特攻隊를 敵陣 西斜面으로 迂回케하여 腹背에서 敵을 強打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각중대는 目標를 向하여 勇躍進出하였는데 先鋒으로 突進하던 제10중대가 △1,000 西側背에 進出하자, 이와 동시에 敵은 증강된 1개중대규모의 兵力으로 砲火를 集中하면서 正面에서 出擊을 敢行함으로써 이들과 激突하게 되었다.

이때의 敵은 我軍을 壓制하는 有利한 陣地를 占據하였을뿐 아니라 계속 增援되는 威勢를 타고 發惡하였기 때문에 제10중대를 後續하던 제11중대 마저도 進路가 점차로 遮斷될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戰況을 알게된 대대장은 兵力을 즉시 突擊隊形으로 轉換케하고 직접중대 第一線에 나서서 陣頭에서 白兵을 휘몰아 血戰을 벌이며 進路를 打開하였다. 『突擊앞으로』라고 大號하면서 最先頭에서 奮迅하니 대대 將兵들은 一時에 士氣를 되찾고 一齊히 우렁찬 喊聲을 올리며 敵陣으로 肉彈突擊하게 되어 敵은 이에 드디어 繼戰意志를 상실한 채로 北上 潰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瞬間 대대장 朴魯權소령은 敵의 兇彈으로 下腹部에 貫通傷을 입고 後送되었다.

이날 목격한 將兵들은 憤함을 이기지 못하며 앞을 다투어 敵을 追擊하고 이를 끝내 覆滅하였으나 새로이 增強된 1개 대대규모의 敵勢로 말미암아 一旦 進擊을 中止하고 陣地로 復歸한 다음 戰力을 整備하였다. 한편 연대장은 제3대대장이 負傷으로 後送되자, 그 後任으로 副大隊長이던 韓榮助 대위를 任命하였다.

2 제1연대의 제3대대(장, 朴賛競소령)는 연대장으로부터 △1,C31를 초월하여 제26연대의 西側背를 壓迫하려는 敵을 擊破하고 제26연대의 攻擊을 側面에서 支援하라는 命令에 따라 이날 18.30에 전날에 확보한 △1,C31東側의 陣地를 박차고 躍進하였는데, 이때에 대대는 제10중대를 主攻으로, 제11중대를 助攻으로 하여 側方을 掩護토록 하였으며 또한 제9중대를 豫備隊로하여 대대 CP와 함께 出擊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경미한 敵의 抵抗을 驅逐하면서 21.00에 계획된 進出線인 △9C5(△924西南쪽 2km) 西斜面 부근에 進出하여 陣地를 占領한 다음 來日의 戰鬪를 위한 態勢를 갖추었다

8월 21일 : 北共 제13사단은 전날의 戰鬪에서 最後의 發惡을 다하였으나, 그들의 據點인 △924를 喪失하자 이날 未明에 예하 제21연대를 伊布里로부터 △924일대로 增援함으로써 彼我의 戰鬪는 더욱 苛烈化하였다.

1. 제26연대(장, 徐廷哲대령)는 이날도 전날에 이어 연대 主力으로써 頑強하게 抵抗하는 敵陣을 奪取키 위한 攻擊을 再開하였으며 각 대대는 步砲와 空地의 協同作戰으로 敵陣을 突破分斷하면서 突進하였다.

제1대대(장, 尹炳埈소령)는 전날밤에 奪取한 △924일대에서 △765頂上을 장악할 目的으로 제1, 제2 兩중대를 攻擊 第一線으로 하여 이날 08.00에 일제히 進擊케 하고 제3중대로서는 △924南麓에서 제1연대 제3대대의 進出을 掩護토록 하였다.

이에따라 제1, 제2 兩중대는 △765中腹에서 支援하는 제2대대의 掩護射擊下에 頂上을 향하여 突進하였으나 이때에 새로이 戰線에 投入한 北共 제21연대의 1개대대 규모로부터 集中射擊을 받아 進出이 어렵게 되었다.

戰況이 이에 이르자 右一線으로 進出하던 제2중대(장, 金判山중위)는 제3소대(장, 張泰玩소위)로 하여금 特攻隊로써 敵陣을 迂回하여 奇襲強打토록 하고 중대장 自身은 제1, 제2소대를 직접 指揮하여 敵陣의 突出部에 대한 正面突擊을 敢行함으로써 敵線의 一角을 손에 넣고 말았다.

이를 지켜본 대대장은 攻擊의 好機가 到來하였음을 看破하고 곧 제1중대(장, 金東應중

위)로 하여금 재빨리 제 2 중대를 迂回케하여 全火力을 集中發揮토록 하였는데 이에 敵의 銳鋒도 드디어 꺾이고 四分五裂로 潰退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敵陣으로 突入한 대대 將兵은 끝까지 抗戰하는 1개중대 규모의 敵을 覆滅하고 同高地의 主人이 되었는데 이로써 敵은 453道路를 보호하는데 絶對緊要한 最後의 據點만을 간신히 保有하게 되고 따라서 대대는 이의 併呑도 目前에 두게 되었다.

제2대대(장, 朴基淳소령)는 이날 연대장의 命令에 따라 전날 확보한 △765中腹일대에서 제 1 대대의 攻擊을 支援하던中, 제 2 중대의 特攻소대의 進出을 掩護키 위하여 제 6 중대로 하여금 側背에서 이를支援케 하였다.

이에 중대는 △765東側面稜線에 부대를 展開한 다음 敵의 기관총陣地에 對하여 制壓사격을 集中하는 한편 제2소대를 제2중대의 特攻소대와 合勢토록 하여 敵陣을 挾擊케 하고 3개의 기관총 陣地를 파괴함으로써 제1대대의 攻擊을 容易케 하였다.

한편 제 3 대대는 전날의 血戰에서 대대장 朴魯權소령의 負傷으로 士氣가 다소 침체되는 듯 하였으나 後任 대대장 韓榮助대위의 陣頭指揮아래 全將兵은 다시금 우렁찬 함성과 함께 이날도 08.00를 期해 目標 △1,000를 向하여 일제히 進擊하였다.

그런데 이때에 對峙中이던 北共 제19연대는 △924—△765일대에서 참패를 거듭하게 되자 그들은 그 北쪽의 主補給路의 위협을 除去할 目的으로 潰走한 일부 兵力을 再收拾하여 새로히 增援된 제21연대의 主力과 合流한 다음, △1,000를 固守하는 것만이 삶을 支撑하는 길이라 判斷한듯 그 抵抗이 極에 達하였다.

그리하여 彼我間에 온종일 血鬪를 거듭하고 대대는 시간의 흐름속에서 增強—路의 敵勢에 惡戰苦鬪를 免치 못하였다.

이렇듯 치열한 激戰을 지켜보던 연대장 徐廷哲대령은 이와같은 敵勢에 對應하는 새로운 方案이 要求되었기에 攻擊을 中止토록 指示한 다음 대대로 하여금 △924부근으로 隨意撤收를 命令하였다.

이에따라 대대는 18.00에 부대를 轉進하여 俗稱 "소라고개"를 經由 △924 東側溪谷으로 移動한 다음 次後命令을 대기하면서 戰力을 갖추었다.

한편 연대장은 이날밤 연대 CP에서 急增하는 △1,000의 敵勢에 對한 對應策을 마련하기 위하여 곧 관계參謀들을 召集하여 이에 따른 戰勢를 分析 檢討하고 다음과 같이 그의 所信을 밝혔다.

『現在 연대와 對決中인 北共제13사단은 全 主力을 △1,000일대에 投入하여 이를 期必코

固守코자 하고 있다.

따라서 연대는 明 22일 10.00를 期하여 全 대대로서 이를 擊碎할 目的으로 決戰을 強要하려 한다.

이를 위하여 제3대대는 中央第一線으로 進擊하여 그 正面을 突破하라. 제2대대는 右一線으로, 제1대대는 左一線으로 각각 進擊하면서 △1,000의 東西兩側背를 장악하고 敵의 退路를 遮斷하라.

각 대대는 如何한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敵線으로 이르는 이 關門을 奪取하여 빛나는 연대의 傳統을 계승케 하라.』

以上과 같은 연대장의 訓示는 곧 예하부대에 下達되고 각대대는 一戰을 決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다.

2. 제1연대의 제3대대(장, 朴贊兢소령)는 이날 연대장의 命令에 따라 전날 占領한 △905 西斜面稜線의 陣地를 박차고 이날 05.00에 左인접 제8사단과의 戰鬪地境線을 따라 일제히 進擊을 斷行하였다.

이로부터 대대는 威力搜索을 展開하면서 進出하였는데, 3시간뒤인 08.00에 대대 先鋒인 제10중대의 尖兵소대가 △924西南 稜線에 이르렀을때 △924를 迂回, 反擊을 企圖하는 1개 중대 규모의 敵을 발견하고 대대에 急報하였다.

때마침 이른 아침이라, 周圍는 온통 안개로 휩쌓여 있었는데, 대대장은 이를 利用하여 一擧에 敵을 擊滅코자 즉각 兵力을 包圍隊形으로 轉換토록 指示하는 한편 제10중대를 敵의 右側으로 은밀히 進出케하여 牽制토록 하고 대대 主力은 은밀히 접근하여 左側背를 急襲하였다. 不意의 兩面攻勢에 당황한 敵은 對抗할 시간 餘裕조차 없이 潰走하기에 바빴으나 대대의 集中火力은 이를 許容치 않고 掃射로써 모두 盡殺하고 말았다.

그뒤 대대는 계속 敵情을 探索하며 進擊하였는데, 11.30에 先鋒인 제10중대가 △924 西斜面 無名高地에 進出하였을때에 이곳에서 그 西北쪽 溪谷을 따라 潛入하는 2개소대 규모의 敵과 激突함으로써 1시간의 攻防戰끝에 이를 擊破하였으며 18.10에는 △924 東側稜線에 進出하여 제26연대 제3중대와 連繫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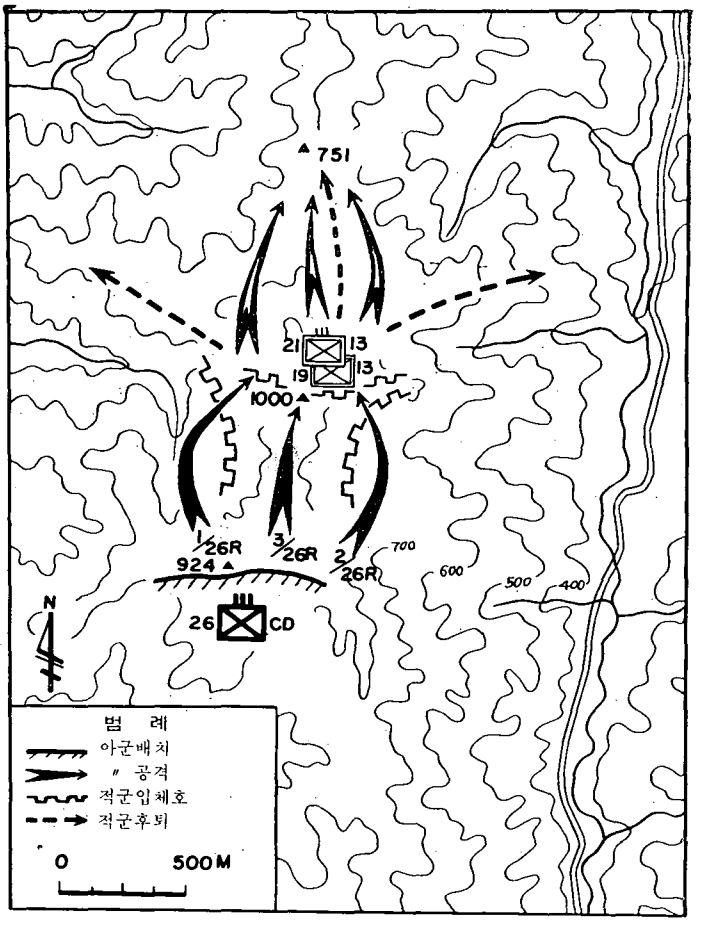
그뒤에 대대는 사단장의 指示에 따라 제26연대에 配屬되어 20.00에 제26연대의 제2대대와 陣地交代를 完了하고 △924일대에서 四周경계에 들어갔다.

8월 22일 : 1. 제26연대(장, 徐廷哲대령)는 이날 期必코 △1,000를 奪取할 目的으로 전날에 下達한 연대作命에 따른 攻擊을 敢行하였다.

이에따라 각 대대는 전날의 陣地에서 躍進하여 怒濤와 같은 氣勢로 突進하였는데 이와 때를 같이한 空地兩面의 集中支援 아래 敵陣으로 肉迫하였다.

제3대대(장, 韓榮助대위)는 이날 연대作命에따라 △1,000正面을 突破코자 연대의 中央 第一線을 담당하여 險峻한 山岳과 峽谷을 踏破하면서 躍進한 끝에 12.00에 이르러 대대의 第一線인 제9, 제11兩중대는 △1,000中腹까지 進出 하였으나 이를 완강히 阻止하려는 1개대대규모의 敵과 激突하여 彼我間에 全火力을 集中하는 치열한 戰鬪를 展開하였다.

◇ 상황도 제24호 1,000高地戰鬪



이로부터 대대는 彈雨속을 뚫고 奮戰하여 5回에 걸친 肉迫戰을 반복하였으나 原來 地勢의 不利와 점차로 增援되는 敵兵力의 優勢로 말미암아 損失이 加增되기에 이르러, 대대장은 연대 特攻중대의 1개소대와 각 중대에서 志願한 決死隊員 30名을 直接 指揮하여 陣頭에 나섰다.

이때에 대대장은 우선 敵의 기관총陣地부터 粉碎키로 決心하고 敵陣 至近거리까지 肉迫한 다음 突擊을 敢行하려는 刹那에 敵陣兩側方으로부터 強力한 集中 사격을 받았다. 이로 말미암아 特攻隊는 잠시 그 隊列이 흩어지기에 이르렀는데 이틈을 탄 敵은 包圍隊形으로서 挾攻함으로써 突擊부대는 위기에 直面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危急한 狀況아래, 生死를 초월한 대대장 韓榮助대위는 不屈의 鬪魂으로 『나를

따르라』고 大號한 다음 血路를 헤치면서 敵陣속에 뛰여드니 뒤따른 兵士들은 이때를 놓칠세라 수류탄을 던지면서 과감한 白兵戰을 展開하게 됨으로써 強力한 敵의 기관총 陣地를 차례로 파괴하는 데 成功할 수가 있었다.

이렇듯 特攻隊의 勇猛으로 攻擊의 轉機를 마련하게 됨에따라 士氣冲天한 대대將兵은 火焰이 치솟고 硝煙이 자욱한 敵陣속으로 一齊히 突入하였는데 이로써 發惡하던 敵의 戰列은 무너지고 北쪽을 向하여 潰散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대대는 무려 4시간 30분間에 걸친 死鬪끝에 敵이 難攻의 據點이라고 豪言하던 이 高地를 占領하고 그 일대에서 陣地를 補強하면서 敵의 逆襲에 대비한 四周경계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날 韓榮助대위가 지휘한 특공대는 敵사살 25명과 捕虜 3명을 비롯하여 기관총 5정및 다발총 6정과 소총 7정을 노획하는 戰果를 올렸다.

또한 제2대대(장, 朴基淳소령)는 이날 연대作命에 따라 △1,000東側背를 장악하기 위하여 연대의 右側 第一線으로 進出하였다,

11.30에 대대主力은 △1,000 東斜面 中腹에 進出하였으나 이때에 그 西北쪽 突出線에 있는 敵의 前進據點으로부터 集中사격을 加하는 敵과 一進一退의 攻防戰을 展開하였다.

이에 대대장은 곧 主攻인 제5중대로써 그 右側으로 迂回케하여 側背에서 敵陣을 急襲토록 하는 한편 제6, 제7兩개중대로 進出線에서 突擊態勢를 갖추게 하였다.

30분의 時間이 흐른뒤 敵陣 50m까지 接近한 제5중대가 急進과 急射로서 敵陣을 소란케하자 敵의 火力은 分散되고 敵의 당황하는 틈을 捕捉한 제6, 제7 兩중대는 一齊히 敵陣속으로 突入하여 發狂하는 1개중대규모의 敵을 覆滅하였다.

이리하여 快勝을 걷운 대대는 進出速度를 늦추지 않은채로 사단砲兵의 支援아래 8部稜線까지 단숨에 進出하였는데, 이때에 特攻隊로 轉換한 제5중대는 이미 △1,000 頂上과 連結된 東側稜線아래 까지 肉迫하고 있었다.

이로부터 중대는 頑強한 火力據點을 擊碎코자 血戰을 반복하였는데 敵은 完全 有蓋化된 掩體壕속에서 계속 發惡하는 한편 1개소대 兵力으로서는 중대의 進路를 遮斷코자 側方으로 侵透를 企圖하였다.

이리하여 彼我間에는 또다시 混戰亂鬪가 演出되었는데, 이때에 權五兢 소위가 指揮하는 제1소대는 각 분대별로 分進하여 亂舞하는 彈雨속을 포복으로 前進하여 敵陣에 다달으자 소대장의 『던져!』라는 口令과 함께 일제히 수류탄을 投擲하고 銃劍을 휘둘러 突入하니, 狂亂하던 敵도 드디어 그 威壓에 눌려 무릎을 꿇고야 말았다.

이와같은 激戰끝에 대대는 敵의 火力據點을 擊破하게 되었으나 아직도 頂上으로 가는 길은 險하여 그 일대에는 增強된 2개중대 규모의 敵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리하여 또다시 彼我間에는 一進一退의 攻防戰이 展開되었는데, 이무렵 제3대대장이 이끄는 特攻隊가 △1,000頂上에 突入하여 그 勇姿를 나타내게 됨으로써 대대는 이와 동시에 제3대대의 突擊에 呼應하여 敵을 擊滅하고 이날의 最終目標인 同 高地東端 일대를 占領하기에 이르렀다.

그뒤 대대는 再編成을 마친 다음 陣地를 強化하면서 戰力을 整備하였다.

또 제1대대(장, 尹炳俊소령)는 이날 △1,000의 左側背를 奪取할 目的으로 제2, 제3兩대대와 併行하여 10.00에 연대의 左側一線부대가 되어 攻擊을 개시하였다.

이때에 대대는 제2중대를 先鋒으로, 제1 및 제3중대를 左, 右로 展開하여 전날 장악한 △765의 西斜面을 따라 進擊하였는데 이로부터 대대는 1개소대 규모의 敵을 一蹴하면서 進出을 거듭한 끝에 13.00에는 突擊대기선까지 進出하였다. 그런데 이 때에 當面한 敵은 目標에 이르는 要線 곳곳에 소대규모의 兵力으로서 前進據點을 확보하고 대대의 進擊을 阻止코자 하였다.

그리하여 대대장은 곧 제2중대(장, 金判山중위)로 하여금 特攻隊로 轉換케 하여 이를 擊破토록 하였는데 중대장은 즉각 △1,000 中腹의 西北쪽 稜線을 타고 前進한 다음, 그 前方 100m에 있는 2개의 기관총 陣地를 발견하고 이에 對한 包圍網을 形成함과 동시에 可用한 모든 火力을 이에 集中하여 強打하면서 一時에 突進하였다. 그러나 敵도 또한 심한 사격으로 對應함으로써 彼我間에는 紛戰이展開되어 한때 중대의 進出이 鈍化되었으나 渾然一體가 된 중대는 一步 또 一步의 進擊으로 마침내 血路를 뚫고 3回에 걸친 白兵戰을 끝에 거듭한 드디어 敵을 擊砕하였다.

그리하여 活路를 개척한 대대는 계속 險地를 踏破하여 頂上으로 向하였는데 이때 反擊을 企圖하는 敵 1개중대 규모와 또 다시 激突하게 되었다. 여기에 이르러 대대는 1시간30분에 걸친 치열한 攻防戰끝에 이를 驅逐한 다음, 右인접 제3대대의 突進과 呼應하면서 敵陣 깊숙히 突入한 結果 頑強히 抵抗하던 敵의 主力은 마침내 擊退되고 繼戰意志를 상실한 殘餘兵力은 각기 分散되어 潰走하였다.

대대는 이와같이 奮戰을 거듭한 끝에 目標를 占領하자, 곧 敵의 反擊에 對備한 경계태세로 移行하면서 제3대대와 連繫하였다.

이무렵 연대 OP에서 作戰을 直接指導하던 연대장 徐廷哲대령은 3개대대 모두가 計劃

된 目標를 占領하자 연대에 配屬中인 工兵 제 2 중대로 하여금 地雷 및 鐵條網으로 장애물을 陣地一圓에 設置토록 指示하는 한편 敵의 反擊에 대비한 警戒組운용을 強化토록 하였다.

2. 제1연대 제3대대(장, 朴贊兢소령)는 이날 제26연대가 血戰을 敢行하는 동안 전날의 陣地인 △924일대에서 四周경계로 敵의 逆襲에 대비하는 한편 제26연대의 攻擊을 側方에서 火力으로 支援하였다.

3. 한편 사단장 宋堯讚준장은 제25연대가 惡戰苦鬪끝에 目標를 占領하자 全將兵의 勞苦를 慰撫하고 讚辭를 주었으며 특히 이날의 戰鬪에서 초인적인 勇敢性을 발휘한 제3대대장 韓榮助대위外 有功將兵에 대한 武功勳章을 授與하였다.

8월 23일 : 제25연대(장, 徐廷哲대령)는 전날 奪取한 △1,000일대에서 拂曉부터 陣地補強과 搜索活動을 展開하였는데 08.00에 사단장으로부터 要旨 다음과같은 命令을 받았다.

『제25연대는 13.00를 期하여 제 1 기갑연대와 陣地를 서로 交代하고 新地域으로 移動한 다음 戰力을 整備하는 즉시 제 1연대와 連繫하면서 威力搜索을 展開하라.』

이에 따라 연대는 곧 陣地交代에 따른 준비를 끝마친 다음 예하대에 다음과같은 要旨의 命令을 下達하였다.

『① 제1대대는 제1기갑연대의 제1대대와 陣地를 相互交代한 다음 연대의 右一線이 되어 右인접 제11사단과 連繫하라.

② 제2대대는 제1기갑연대의 제3대대와 陣地를 相互交代한 다음 연대의 中央 第一線이 되어 左右 인접부대간에 긴밀한 協調를 유지하라.

③ 제3대대는 제1기갑연대의 제2대대와 陣地를 交代한 다음 연대의 左一線이 되어 左인접 제1연대와 連繫하라.

④ 砲兵및 연대直轄隊는 연대와 行動을 같이하라.

⑤ 각 부대는 新地域으로 이동하는 즉시 陣地強化와 병행하여 威力搜索을 展開하라.』

이와같은 命令에 따라 각 대대는 自隊계획을 作成하여 移動준비를 갖추고 交代 부대의 到着을 대기하였는데 13.00에 제 1 기갑연대(장, 李龍대령)의 제 1 대대(장, 李鵬植소령)가 先頭부대로 進出함으로써 연대는 제 1 대대(장, 尹炳埈 소령)를 先發로 逐次 轉進하게 되었다.

사단은 제26연대가 계획대로 轉進하자 6일간에 걸쳐 血戰을 展開한 △924戰鬪를 終結키로 하였다.

라. 전투후의 개황

수도사단이 제26연대로 하여금 8월 18일부터 8월 23일까지 敵의 據點인 △924—△1,000—△751에 對한 攻擊을 敢行하여 이를 固守하는 北共 제2군단 제13사단의 主力을 破碎하고 이를 占領, 確保함으로써 Kansas線의 威脅을 除去한 결과 將次 北進을 위한 要線을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美 제8군當局이 計劃한 『敵이 장악한 制高點을 奪取하여 나아가서는 Punch Bowl 東壁에서의 包圍태세를 갖춘다』라는 作戰槪念을 完遂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戰鬪期間中, 香爐峯山脈의 中腹을 잇는 天險의 地勢와 作戰初期에 쏟아진 暴雨와 強風은 我軍의 戰鬪能力을 크게 制限케 하였으나 이에 屈하지 않고 勇戰奮鬪하여 마침내 勝戰으로 終結지었음은 오직 必勝의 鬪魂으로 뭉친 將兵들의 敢鬪精神의 結果라 하겠다.

8월 23일 18 00에 제1기갑연대와 陣地交代를 完了한 제26연대는 20.00에 계획된 부대配置를 끝내고, 사단의 右一線 연대로서 제1연대와 함께 香爐峯 東北쪽 2 km에서 山頭谷山(△1,019 : 香爐峯西南쪽 4km)을 連하는 線上에 主抵抗線을 形成함으로써 사단은 3개연대를 모두 一線에 展開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사단은 각 연대로 하여금 陣地前面에 堅固한 築城工事를 실시토록 하는 한편 捜索據點을 確保하면서 威力捜索을 展開하였다.

이무렵 右인접인 제11사단의 제20연대(장, 朴元根대령)는 △884를, 左인접 제8사단의 제10연대(장, 李春景대령)는 △1,031을 각각 占領하였는데, 이로써 美 제8군의 作戰계획에 따라 東部 戰線에서 展開한 8月攻勢는 그 目的을 達成하여 一段落을 보게 되고 사단은 兩사단과 連繫하는 戰線의 均衡을 維持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사단과 對峙하던 北共 제2군단의 제13사단은 期間中에 決定的인 打擊을 입은 까닭으로 8월 24—25 兩일 사이에 團隊號 미상의 제2군단의 直轄부대와 交代한 다음 伊布里부근으로 撤退하였는데 그들은 이미 그곳까지 敗走하여 收容된 일부 兵力을 再收拾한 것으로 判斷되었다.

한편 새로히 戰線에 投入하여 사단과 對峙하게 된 敵은 속칭 "노루메기"(△924西쪽 4km)부근에 布陣한 北共 제2군단 예하 제2, 제4연대의 支援아래 축성공사에 着手하였는데, 이들은 특히 對砲兵壕와 據點防禦陣地 그리고 각종 장애물 設置등에 力點을 두는 것으로 보였다.

이와같이 하여 8月末頃에 陣地工事를 서둘러 끝마친 當面의 敵은 探索攻擊을 強化하는듯이 보였으나, 現 能力으로서는 攻勢移轉이 어려울 것으로 分析되었다.

이러한 狀況은 9月에 접어들어서도 큰 變動이 없었으며, 다만 제1기갑연대가 △924 일대에서 소대 또는 중대규모의 兵力으로 逆襲을 企圖하는 敵을 몇차례에 걸쳐서 擊退한 것 以外에는 別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이 당시 사단CP는 新平里에 設置하고 있었으며 제1 기갑연대는 △924東南쪽 3km에 있는 無名高地에, 제1및 제26兩연대는 珍富里에 그 CP를 各各 開設하였는데 이 전투기간중 제26연대가 거둔 전과와 損失은 다음과 같다.

綜合戰果 및 損失

구분 / 내용 / 부대명	戰果							損失		
	사살	포로	소총	다발총	기관총	수류탄	실탄	전사	부상	계
제 1 대 대	231	2	21	12	7	2,600	2,100	/11	7/99	7/110
제 2 대 대	157	2	16	14		1,810	1,600	1/19	13/150	14/169
제 3 대 대	257	3	28	20	11	4,500	2,300	1/15	11/138	12/153
계	645	7	66	48	18	8,910	6,000	2/45	31/387	33/433

§ 參戰者의 證言

◇ 제26연대 제2중대장 金判山중위

(1966. 3. 11 육본작전참모부에서, 증령)

8월18일부터 敢行한 △924攻擊時에 제1대대는 최초, 연대 豫備隊로서 △709 (△924東쪽 2km) 일대에 陣地를 占領하여 一線대대의 進出을 掩護하면서 側後方경계에 임하고 있었는데, 이날 △924를 攻擊한 제2대대가 激戰끝에 이를 奪取하자, 연대장은 제1대대에서 2개중대를 빼서 △924에서 四周警戒에 임하게하고 제2대대는 그 前方에 있는 △765를 계속 攻擊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중대는 제2대대에 배속되어 △924에서 陣地를 補強한 다음 急編방어진을 形成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日氣가 突變하여 強風과 暴雨가 몰아쳤다.

이와같이 날씨가 急變하자 敵은 砲火를 集中하면서 逆襲을 加하기 시작하여 온 종일 치열한 攻防戰을 展開하다가 끝내는 △924를 내놓고 △709부근으로 撤收한 다음 부대를 整備하였다

다음날에 우리 중대는 제2대대장의 指揮下에 △924에 대한 攻擊을 再開하여 奮戰을 거듭하였으나 頑強한 敵勢로 말미암아 敵陣을 突破못한 채로 歸隊하여 戰力을 갖추고 있던中, 復歸命令에 따라 대대로 돌아와 다음날에 연대의 先鋒중대가 되어 △924를 攻擊하였다.

이때에 敵은 我軍의 進出을 瞰制하는 地勢의 利를 살린 要地要部에서 기관총과 수류탄으로 執拗하게 맞섬으로써 前進이 어렵게 되었고 희생자는 속출하여 惡戰苦鬪를 免치 못하였는데, 이 血戰에서 나도 敵의 수류탄으로 負傷 當하였다.

狀況이 이렇게 되자 제3소대장인 張泰玩소위가 흩어진 隊伍를 정돈한 다음 陣頭에 나서 血戰끝에 進路를 打開하고 肉彈突擊으로 敵陣속으로 뛰어들어 발악하던 敵을 모조리 擊碎함으로써 제2중대가 先頭로 △924를 占領하였다.

9. 884高地 戰鬪 (1951년 8월 18일부터 1951년 8월 27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 26 호
상 황 도 제25, 26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제1군단	장	소장	白 善 燁
제11사단	장	준장	吳 德 俊
제9연대	장	대령	金 安 一
제1대대	장	소령	鄭 庸 喆
		소령	金 用 琳
		(8월 21일附 交代)	
제2대대	장	소령	林 永 鎬
특공중대	장	중위	金 炯 南
제20연대	장	대령	朴 元 根
제1대대	장	소령	李 東 根
제2대대	장	소령	李 承 俊
제3대대	장	소령	崔 亨 祿
특공중대	장	중위	吳 世 湖
제20포병대대	장	중령	沈 鶴 仁

병력 및 장비 . 대체로 연대 T/O 및 T/E를 유지함

지원부대
美 제7함대 사령관 중장 A.D Struble
美 제196포병대대

인접부대
右인접 제3사단 장 준장 白 南 權
左인접 수도사단장 준장 宋 堯 讚

敵 軍

北共 제3군단	장	중장	柳 京 洙
제45사단	장	소장	池 炳 學
제2연대	장	대좌	崔 同 廣

나. 전투전의 개황

5월 16일을 期한 소위 敵의 제2次春季攻勢로 말미암아 江陵—大關嶺線으로 戰線을 南下 調整한 제11사단은 5월 22일부터 斷行한 Kansas線 까지의 進擊戰에 있어서 東部戰線의 右肩部位로 躍進하여 潰走하는 敵을 擊破하면서 北進한 끝에, 6月 初旬까지는 東海岸의 巨津里—乾鳳嶺線을 確保하였다.

이로부터 사단은 中東部와의 戰線均衡을 위한 군단의 계획에 따라 一旦 進擊戰을 멈춘채로 進出線上에 主力을 配置하였는데, 즉 제13연대로서 乾鳳山(△911) 일대를, 제9연대로서 乾鳳嶺일대를, 그리고 제13연대로서 舌爐峯 北쪽의 △1,079를 占領케 하여 相互 連繫하는 主抵抗線을 形成케한 다

음, 左인접인 수도사단(장, 宋堯讚준장)과 土器店을 制限點으로 하여 戰線을 維持하면서 威力搜索을 敢行하는 한편 陣地를 補強하였다.

이와 같은 狀況은, 7월에 들어서면서 公式으로 擧論된 休戰會談의 進展으로 어떠한 打開의 가능성을 모색한 8軍 當局의 作戰槪念에 依據하여 계속케 됨으로써 戰線에는 別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이와 反面에, 敵은 戰線이 小康狀態를 유지하자 이를 奇貨로 하여 空地兩面의 戰力補強에만 狂奔하더니, 7월 中旬을 前後하여서는 攻守兩面으로 상당한 戰力을 갖추므로써 戰爭準備를 一段 끝마친 것으로 判斷되었다.

이러한 敵勢속에서도 특히 東部戰線의 敵은 kansas線을 瞰制하는 高地群인 Punch Bowl 일대에 6개사단으로 推定되는 兵力과 각종 砲火를 急增하면서 이를 據點化한 다음 我軍의 進擊을 阻止코자 하는 한편 將次一戰을 決하고자 策謀하는 빛이 歷歷하였다.

이와 같은 敵의 動向에 비추어 敵이 장악한 制高點을 先制攻擊으로 擊破하고 이를 장악하여 그들의 攻擊企圖를 사전에 粉碎하는 問題는 戰線을 보다더 堅固한 要線으로 굳히고자하는 問題와 結付되어 時急히 要請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군단은 Punch Bowl 東壁 일대의, △884—△591을 目標 "B"로, △924—△751을 目標 "C"로 定한 다음 當 사단에게는 目標"B"를 수도사단에는 目標"C"를 각각 占領토록 임무를 부여하고 7월 27일 08.00를 期하여 攻擊을 敢行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사단은 豫定대로 攻擊을 發起하였으나 때마침 30年來의 큰 장마에 부딪쳐, 군단의 指示로 이 攻擊은 一旦 保留됨에 따라 目標前方에서의 搜索活動만을 強化하였다.

그런데 사단의 攻擊目標인 △884—△591은 南北으로 連한 連峯으로써 이 일대가 橫隔壁을 이루어 敵에게는 持久를 위한 天然的인 要衝이며 더구나 그 主峯인 △884는 이곳에서 我軍의 陣地 깊숙히까지 觀測할수 있기 때문에 Kansas線을 瞰制하는 觀測所로도 큰 役割을 할뿐 아니라 그 北쪽 2km의 453 道路(敵의 主力을 背後로 通하고 있는 主補給路로서 高城—元通에 이르는 道路)를 保護하는데 있어서도 그 地理的形勢에서 볼때에 敵으로서는 期必코 固守코자 할 것이고, 사단은 如何한 難關을 무릅쓰고 라도 奪取하여야만 할 要線으로 浮刻된 것이다.

8月 中旬에 접어들면서 장마가 개이고 進擊의 戰雲이 다시 일기 시작하자 이러한 動向을 注視하던 사단장 吳德俊 준장은 곧 戰線出動에 따른 제반 태세를 갖추고 있었는데, 드디어 8월 16일에 군단으로 부터 目標 "B"에 對한 攻擊을 再開하라는 命令이 下達됨으로써 이에 사단은 8월 18일 06.00를 期하여 攻擊을 敢行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狀況아래 에서 攻擊을 준비한 사단 右翼에서는 수도사단이 目標 "C"(△924—△751)에 對한 攻擊을 동시에 斷行키로 하였다.

이 當時 사단 正面의 敵은 그 CP를 伊布里에 둔 北共 제3군단의 제45사단인데, 그 예하의 제2연대로 하여금 △884—△591를 占據케하여 여기를 固守코자 이 일대에 相當한 時日을 두고 堅固한 陣地를 구축하여 據點化하였을 뿐만아니라 陣前에는 鐵條網과, 地雷등의 障碍物을 設置하고 있었다.

더욱이 入手한 諜報에 依하면 이들은 頂上部位의 要地要部에 2개 分隊규모를 收容可能한 掩體壕와 火力據點을 마련하고, 山腹에는 20~25m 間隔으로 3人乃至 5人用의 有蓋壕를 구축하여 相互 連絡하

는 防禦陣地를 形成하고 있었다.

또한 그 西北쪽 1.5km에 있는 沙泉里에는 그 예하 豫備隊가 언제라도 增援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 것으로 보였으며 이들은 好機를 捕捉하는 대로 攻勢로 轉換할 能力이 있는 것으로 判斷되었다.

이밖에 사단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敵은 左인접 수도사단 正面의 北共 제13사단의 제21연대로서, 그 主力을 當 사단과의 接境인 △751 부근에 配置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狀況에 따라 當面의 敵과 呼應하면서 挾擊을 企圖할 것으로 보였다.

사단과 對決할 北共 제45사단은 그동안에 戰力을 強化한 탓으로 비교적 良好한 편이 었으며, 戰鬪兵力은 6,500名 내외로 推斷되었고, 한편 이들의 裝備는 각 연대에 82mm 박격포 6문과 60mm 박격포 8문을 비롯하여 75mm 直射砲 8문과 重기관총 5정, 그리고 輕기관총 15정과 다발총등을 保有하고 122mm 野砲 1개대대가 直接支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戰鬪正面은 天險인 太白山脈 줄기의 일부를 占한 金剛山과 香爐峯의 中間에 位置하였는데 특히 △884—△591일대는 傾斜가 急한 聳壁地帶로서 부대機動과 補給推進에 많은 支障을 줄것이다.

뿐만아니라 目標前面에는 南江支流가 南北으로 가로막아 그 渡河가 容易치 않을 것인데 더욱이 期間中에 계속된 暴雨로 말이암아 地域一帶는 泥濘化하였으며 河川범람의 危險마저 안고있었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작전 계획

8월 16일 군단으로 부터 命令하기를 『제11사단은 8월 18일 06 00를 期하여 攻擊을 개시한 다음 目標 "B"(△884—△591)를 占領하고 敵 後方을 搜索하면서 그 補給 施設을 파괴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命令으로 부여된 사단의 임무는

첫째, 군단의 中央第一線으로 進擊하면서 當面의 敵을 擊滅하고 아울러 Kansas線上의 戰制要衝인 △884—△591 일대를 장악함으로써 同線에 對한 敵의 威脅을 제거하고

둘째, 目標 北쪽의 北共 主補給路인 453道路(高城—沙泉里—麟蹄에 이르는 道路)를 制壓하여 敵線의 北上을 強要하는 동시에 Punch Bowl의 包圍態勢를 容易케 하는데 있었다

이와 같은 命令에 따라 사단장 吳德俊준장은 當面의 敵을 一擧에 擊碎하여 이를 確保할 決心 아래 이날 17.00에 廣山里 사단 CP에서 要旨 다음과 같은 사단 作命 제26호 修正作指 제8호를 下達하였다.

『① 사단은 일부 兵力으로서 8월 18일 06 00를 期하여 目標 "B"를 攻擊하여 이를 奪取한 다음 계속 進擊하여 그 부근의 高地群을 確保하려 한다.

② 제9연대는 現陣地에서 躍進하여 目標 "B"를 奪取하라.

目標를 奪取하면 지체없이 進擊하여 △601을 確保하라.

③ 제13연대는 現임무를 계속 遂行하면서 제9연대의 進出을 掩護하라.

④ 제20연대는 右인접 제13연대와 連繫를 維持하면서 現임무를 계속 遂行하라.

⑤ 제20포병 대대는 攻擊間 제9연대를 직접지원 하라.

⑥ 공병대대는 期間中의 暴雨로 因하여 파손된 主補給路를 補修한 다음 敵의 豫想接近路上에 可用한 모든 障碍物을 設置하라.

⑦ 要請에 따라 艦砲 및 空中支援을 받을수 있다.

⑧ 作戰期間中 美 제10군단의 155mm砲 1개 중대가 火力增援할 것이다.

⑨ 協調指示

㉮ 각 연대는 인접부대와의 連絡을 긴밀히 維持하라.

특히 戰鬪地境線의 虛隙을 補塡하라.

㉯ 제13, 제20 兩 연대는 계속 부단히 搜索戰을 展開하여 敵의 動向에 따른 對應策을 마련하라.

⑩ 사단 CP는 廣山里에 位置한다.』

이와 같은 命令을 受領한 제9연대장 金安一대령은 곧 作戰會議를 召集하여 이미 마련한 作戰計劃에 對한 마지막 손질을 加한 다음, 단숨에 敵線을 突破分斷하여 目標를 奪取할 決心아래, 제1대대(장, 鄭庸喆소령)로 하여금 目標의 主峯인 △884를, 연대특공대(장, 金炯南중위)로 하여금 目標 "B"中의 △591을 각각 攻擊케 하여 一戰을 決行키 위한 연대作命을 下達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연대는 8월 18일 06.00를 期하여 目標 "B"를 攻擊하여 이를 奪取한 다음 계속 進擊하여 敵의 主補給路인 453道路를 確保하려 한다.

② 제1대대는 現陣地(△703)에서 躍進하는 즉시로 △884로 直衝하여 이를 奪取하라.

目標를 奪取하면 同 高地에서 陣地를 構築하고 일부 兵力으로서 그 前方의 △ 601를 攻擊케 하여 이를 확보하라.

③ 제2대대는 現陣地를 強化하면서 別命에 따라 제1대대의 攻擊을 支援하라.

④ 제3대대는 연대 豫備隊로서 側後方에 對한 警戒를 擔當 하되 主力이 目標를 奪取하면 즉각 이를 引受하라.

⑤ 특공대는 現陣地에서 △591로 直行하여 이를 奪取하라.

目標를 占領하는 즉시로 제1대대와 連繫하라.

⑥ 攻擊間 要請에 따라 砲兵, 艦砲의 支援을 받을 수 있다.

⑦ 연대 CP는 最初 渭川里에 位置하다가 攻擊開始와 동시에 乾鳳寺로 推進開設할 豫定이다.』

(2) 작전 실시

8월 18일 : 드디어 이날 黎明에 攻擊準備射擊을 시작하여 沙泉里 峽谷에는 砲聲이 山野를 덮고 △884—△591—△602에는 105mm 野砲와 8″艦砲의 砲擊이 炸裂하는 가운데 연대는 05.00를 期하여 △884를 目標로 進擊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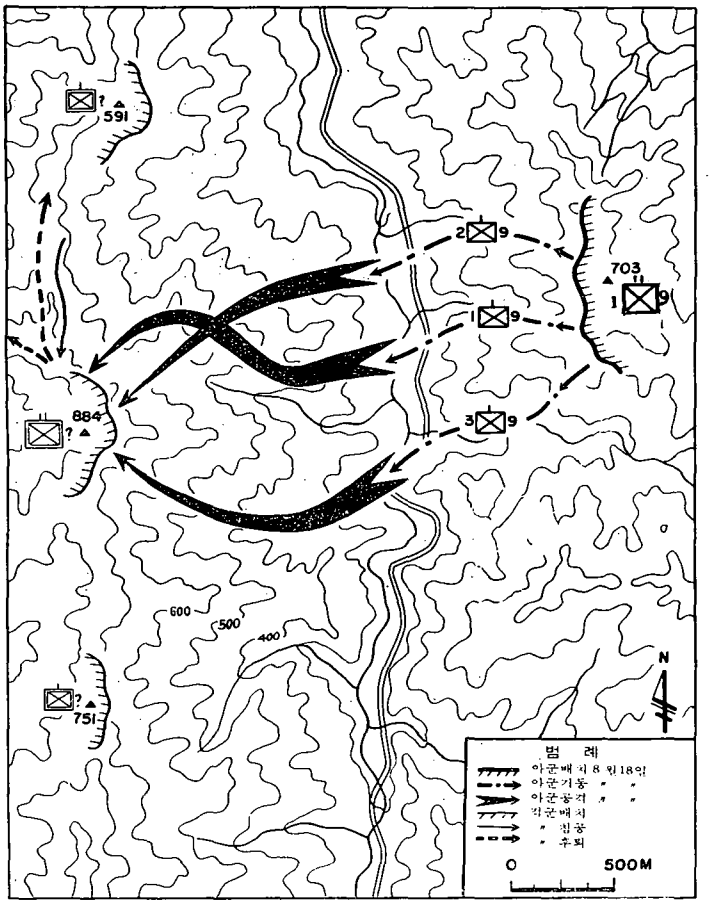
즉 제2 제3 兩대대는 乾鳳山(△911) 西麓의 現 前進陣地를 堅守確保 한채로 제1대대로써 △884를 集中攻擊케하고 연대의 特攻隊는 △591(△884北쪽 1.8km)에서 陽攻케하여 南江 以東의 敵의 據點을 一擧에 擊破키로 하였다.

1. 제1대대(장, 鄭庸喆소령)는 06.00에 LD(上院里와 沙泉里 峽谷을 連하여 設定됨)를 通過할 豫定으로 05.00에 △703(△884 東쪽 3km)를 出發하였는데, 제2중대를 右一線으로 제1중대를 中央에 그리고 제3중대를 左一線으로 二展開하여, 豫定時間에 LD를 넘어서자 곧 目標 "B"(△884)을 指向하여 躍進한 끝에 07.00에는 高地中腹에 進入하여 三面에서 包圍網을 壓縮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當面에는 北共 제45사단 예하의 제2연대로 判明된 연대규모의 敵이 △884를 비롯하여 △591—△602—△751등의 有利한 地勢를 利用하여 거의 2個月 동안에 걸쳐서 陣地를 堅固히 構築한 다음 각종 障碍物까지 設置하고 頑強히 저항 하면서 一戰을 決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대장은 敵陣의 主峯인 △884를 目標로 火力을 同時에 集中하여 이를 突破코자 하였으나 원시 이 高地는 대대의 攻擊正面인 東斜面이 急峻한 死角으로 形成되어 攻者의 機動이 露出되는 反面에, 敵陣은 相互 支援이 容易한 까닭으로 2시간 동안에 걸친 激戰에도 不拘하고 200m 정도 밖에는 進出하지 못하였다. 09.00에 대대는 隊伍를 정비하여 제2, 제3 兩 중대로 하여금 左右 側面에서 挾攻케하고 제1중대로서는 正面突破를 敢行케 하는 동시에 砲擊支援을 要請하여 敵火를 制壓分散시켰다. 이로부터 일제히 進擊을 계속한 대대는 執拗하게 抵抗하는 1개 중대 규모의 敵을 驅逐한 다음 이를 追擊한 끝에 그 中腹에 進出함에 이르렀는데, 이곳으로 부터 砲火를 集中하며 증강된 1개중대 규모의 敵과 또다시 激突하여 무려 3시간 동안이나 치열한 攻防戰을 展開하였다. 이와 같은 血戰속에 中央제一線의 제1중대는 포복과 躍進을 連結하면서 敵陣右側으로 迂回한 다음, 敵의 左側背

◇ 상황도 제25호 제9연대 제1대대의 공격(8. 18)



로肉迫하여 手榴彈突擊과 白兵戰의 互用으로 一時에 急襲하자 敵陣은 四散崩壞되어 潰走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捕捉한 대대는 敵陣內로 일제히 突入하여 最後까지 발악하는 敵을 모조리 射殺하고 드디어 同 高地를 占領하니 이때가 바로 12.00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再編成을 마치는 즉시로 陣地工事에 着手하였는데, 이 喜報에 接한 軍首腦部에서는 그 戰功을 높이 致賀하여 총참모장 李鍾贊 중장과 休戰會談 代表로 參席中인 군단장 白善燁 소장 그리고 美제8군사령관 Van Fleet대장으로부터 祝電이 遝至하였다.

그런데 이무렵 左翼인 首都사단(장, 宋堯讚준장)예하의 제26연대(장, 徐廷哲대령) 역시 △924(△884 南쪽 3km)를 奪取하여 兩연대가 一擧에 敵의 第一線 堅陣을 擊破 함으로써 연대나, 사단이나 군단에이르기까지 이날의 快勝에 만족하였으나 그러기에는 너무도 시기尙早인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었다.

첫째, 이날의 勝利는 제1대대의 勇戰이나 砲兵 제20대대의 砲擊支援이 奏效하기도 하였지만 그보다도 16km 밖에 떠러지지 않은 東海岸 海上에서 活動中인 美戰艦『New Jersey』호와 重巡洋艦『Taledo』호등의 重砲火力이 決定打가 되어 敵은 一時 이곳에서 물러선듯 하였으나 바로 至近距離인 △591—△601—△751 에서는 反擊의 機會를 노리고 있을뿐만

아니라, 南江건너 편에는 그들의 主力이 健在하고 있었으며,

둘째, 연대에서는 增援부대를 急派하여 同 高地 一帶의 殘敵을 驅逐하고 防禦陣을 더욱 堅固히 하고자 하였으나 擔當하고 있는 연대 및 사단의 방어 正面이 尨大하여 兵力의 抽出이 어려웠고

세째, 이날 下午부터 日氣가 急變하여 暴雨를 同伴한 強風이 휘몰아쳐 한치앞도 분별키 어려운 不利한 與件속에서 防守에 임하게 된 點 등이었다.

이리하여 대대는 單獨으로 △884를 中心으로하여 日沒과 함께 四周防禦 態勢를 갖추었는데 18 00에 이르러 敵의 砲擊이 시작되더니 △602—△591—△751에서 數未詳의 3個群이 暴雨와 濃霧를 利用하여 逆襲을 감행하였다.

이에 대대는 渾身의 力戰을 다하였으나 狂波와 같이 殺到하는 波狀侵襲으로 말미암아 混戰을 거듭하다가 끝내 이를 阻止하지 못한 채로 300m쯤 뒤로 물러서게 되었으니 대대장은 이 無名능선에서 兵力을 收拾하여 다시 阻止線을 形成한 다음 反擊準備에 총력을 傾注하였다.

2. 한편 연대 特攻隊(장, 金炯南중위)는 이날 05 00에 △600(△884東北쪽 4.5km)를 出發하여 △591(△884 北쪽 1.8km)를 目標로 突進하였는데, 將校 5명에 士兵 81명의 兵力과 75mm 無反動銃 및 81mm 迫擊砲의 重裝備까지 갖추고 제3대대 제10중대의 掩護아래 06 00에 沙泉里의 野地를 躍進橫斷하여 06.00에는 同 高地의 東北斜面까지 進出하였다.

이리하여 07.00부터 이 高地의 東北後線을 따라 突進하였는데, 07.35에 南江北便의 敵砲陣에서 82mm 敵彈이 進出正面으로 集中할 뿐만아니라 08.30에는 敵陣 東便에서 自動火器가 亂射하였으나, 將兵들은 集注하는 火網을 뚫고 계속 進出하여 09.00에는 同 高地의 300m 前方까지 近迫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敵의 最後阻止 火網에 부딪혀 苦戰케 되었으니 敵陣의 兩便에서 重機關銃 2정과 輕機關銃 5정의 側射 및 斜射 火力이 雨注할 뿐만 아니라 彈幕射擊과 各種小火器사격이 集中하여 1명이 戰死하고 6명이 負傷하였으며 戰勢는 不振하게 되었다.

이러한 激戰이 한동안 계속되다가 11.10에 제10중대의 제1소대가 沙泉里 東便에서 急遽躍進하여 合勢케 됨으로써, 兩面突擊을 감행하였으나 그 進展을 보지 못하고 激戰만을 反復하던中 12 20에 特攻隊 제1소대장 朴少尉가 戰死하는 등 死傷者가 續出하

였다.

그러나 特攻隊長은 火力支援을 要請하여 敵陣을 強打한 다음 13.00까지 前後 3次에 걸친 突擊을 감행하여 敵 2명을 사로잡는등 戰果를 거두며 계속 敵陣에 肉迫하였으나 계속 增援되는 敵勢로 말미암아 그 八部능선에서 16.00까지 血戰만을 反復하다가 연대장의 命에 依하여 16.20에 隨意退却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제10중대 제1소대의 掩護아래 제1대대의 陣地였던 △703로 철수하기 시작하였는데, 18.10에 沙泉里 溪谷을 넘어서자 前記 제1소대는 本隊로 復歸시키고 계속 雨中行軍을 強行한 끝에 △703에 다다라 그 後斜面에서 防守陣地를 占領하였다.

8월 19일 : 연대는 이날 제2, 제3 兩대대로 하여금 乾原山 西麓으로부터 △703에 이르는 前進陣地를 堅守케한 채로 제1대대로서 △884를 目標로 攻擊을 再擧토록 하였다.

즉 이날 未明에 제1대대(장, 鄭庸喆소령)를 間谷(△884 東南쪽 2km) 부근으로 撤收시킨 다음 05.00부터 포병 제20대대(장, 沈鶴仁 중령)를 비롯하여 戰艦과 重巡洋艦등의 美艦艇에 依한 艦砲射擊으로 △884와 그 一圓의 敵陣을 強打한 然後에 06.00를 期하여 再攻擊을 감행케 하였다.

제1대대는 間谷을 出發하자 곧 제2, 제3 兩중대를 左右 제一線으로 展開하고 제1중대를 豫備로 保有하면서 進攻하였는데, 各 중대는 特攻隊를 編成하여 期必코 目標를 奪還키로 다짐하고 계속진출 하다가 08.30에 전날 激戰을 치른바 있는 同高地의 8部稜線에서 다시 대대규모의 敵과 激突하게 되었다.

1시간 동안의 激戰끝에 右 第一線인 제2중대는 09.30에 先鋒으로 敵陣에 突入하였는데 이때에 特히 朱上士 以下 7명의 特攻組는 喊聲을 지르면서 이 高地의 頂上으로 뛰어올라 敵陣에 수류탄을 投擲하고 白兵戰을 敢行하였다. 이에 중대의 主力은 後續突擊으로 敵陣을 強打하였으며, 곧 이어서 제3중대가 頂上左側背로 突入하여 挾擊하자 敵陣은 風飛雹散이 되고 마침내 敵은 潰退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目標를 奪還한 대대는 그 뒤로 強風과 暴雨가 계속되는 가운데 防守태세를 갖추었는데, 제1중대는 同高地의 東斜面에, 제2중대는 中央에, 그리고 제3중대는 西斜面에서 각각 固守陣地를 占領하였다.

전날부터 이날 13.00까지 綜合된 戰果와 損失은 다음과 같다.

戰果		損失	
射殺	217 명	戰死	33 명
捕虜	12 명	負傷	76 명
機關銃	5 정		
小銃	60 정		
手榴彈	117 발		

8월 20일 : 目標 "B"를 奪還한 대대장 鄭庸喆소령은 이날 09.00에 대대 OP를 △703에서 △884로 推進하는 동시에 重火器 중대의 81mm 砲陣地를 同 高地의 東麓으로 選定한 다음 중대장들을 帶同하고 地形偵察에 나섰다.

즉 陣地를 巡視하면서 火力配置를 調整하고 陣內와 陣前의 地勢를 감안하여 防備策을 樹立하는등 敵의 豫想侵攻에 對處하였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發見할 수 가 있었다.

첫째 : 連日 계속되는 強風과 驟雨로 말미암아 急造 有蓋陣地의 構築이 어려울 뿐만아니라 各種火器가 본래의 機能을 다하기 어려웠으며,

둘째 : 原來 泥土로 形成된 山麓은 機動에 많은 制限을 주었으며,

세째 . 視界가 不良하여 敵情을 把握키 어려운데다가 敵은 기성陣地를 利用함으로써 相對的으로 防者가 不利한 位置에 놓이게 되었으며,

네째 · 보다 根本的인 문제는 補給難 이었는데 사단의 戰術地域內에는 香爐峰山脈이 東西를 가로막아 險山峻嶺으로 補給路가 貧弱하여 人力으로써 10~13km의 山岳을 넘어 推進하던 중 日氣가 不順하여 이것마저 如意치 못한 까닭에 彈藥과 食糧의 不足을 면키어려운 실정에 놓인 點등이었다.

이에 대대장은 戰線이 잠시 小康상태를 유지하는 동안에 空中支援을 要請하는 동시에 이에 對備키 위하여 萬般의 努力을 傾注하는 한편 不斷히 敵情을 搜索하였으나 이날은 特別한 接戰이없었다.

8월 21일 : 대대는 이날 戰線을 더욱 補強키 위하여 제2, 제3 兩중대로 하여금 陣地를 強化케 하는 한편 제1중대로서 △602의 敵을 驅逐케 하였다.

이리하여 右 第一線인 제1중대는 07.00에 공격을 시작하여 同高地의 西斜面까지 進攻하였으나, 09.00부터 다시 強風을 同伴한 暴雨가 휘몰아치자 대대장은 狀況의 不利함을 깨닫고 공격을 中止한 다음 중대를 原陣地로 復歸시켰는데, 이에 대대는 △884를 中心으로

四周警戒 태세로 移行하던 中 이날 13.00에 當面의 北共제45사단은 2個대대 규모의 병력으로 暴雨와 濃霧를 絶好의 機會삼아 逆襲을 감행하여 이를 掠取코자 함으로써 다시 激戰이 展開되었다.

즉, △602와 △751에서 各各 대규모의 병력이 陣前으로 肉迫하자 대대는 指揮官을 中心으로 渾然一體가되어 不屈의 鬪魂으로 무려 9시간 동안이나 奮戰하였다. 時間이 經過함에 따라 대대는 實彈이 떨어져서 石戰까지 展開하면서 肉彈對決을 거듭하는 동안에 대대장 鄭庸品소령과 제2중대장 鄭泰昊대위 및 제3중대장 白京奭대위가 負傷하는등 戰鬪兵力은 1/3이나 損傷을 입었다.

이와 같이 挺身力鬪를 다였음에도 不拘하고 계속적으로 殺到하는 狂波로 말미암아 孤軍奮鬪하던 대대는 20.20에 左第一線인 제3중대의 左端陣地가 무너지기에 이르렀으니, 同중대는 新兵으로 補充된데 緣由도 있었지만 끝내 增援을 얻지 못하고 反轉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대대 OP는 △703로 移動하고 主力은 間谷부근으로 撤收하여 兵力을 收拾한 다음 다시 收容 陣地를 占領하였다.

이상과 같이 戰況이 急變하자 연대장 金安一 대령은 現在 乾鳳嶺 西麓에서 前進陣地를 確保中인 제2대대를 增援키로 決心하고 사단장의 承認을 얻어, 대대장 林永鎬소령에게 急遽出動토록 命令하였다.

8월 22일 : 연대는 이날 제1대대로 하여금 現陣地에서 敵勢를 견제토록 하는 동시에 제2대대의 急遽增援을 催促하는 한편 제3대대로서 △600—△703線에서 前進陣地를 堅守케 하였으며, 負傷으로 後送된 제1대대장의 後任으로 金用琳소령을 發令하여 대대를 지휘케하였다

1. 이리하여 제1대대는 敵陣과 500m의 距離에서 對峙하는 가운데 계속 兵力을 收拾하였는데, 제1중대는 △437를 50명의 병력으로, 제2중대는 間谷부근의 △527를 80명의 兵力으로 相互 連繫하여 阻止線을 形成하였으며 제3, 제4 兩개중대는 그 後方에서 後續兵力을 收容하고 중대를 再編하면서 萬難中에도 敵勢를 阻止하기에 총력을 傾注하였다.

2. 한편 제2대대(장, 林永鎬소령)는 羊腸의 險路와 風雨를 克服하고 強行軍을 계속하여 이날 深夜에 △703까지 徒步機動하였으며 제3대대는 前進陣地上에서 부대의 配置를 調整하였다.

이와 같이 연대의 主力이 進攻태세를 갖추는 동안에 사단이나 연대는 補給推進에 盡力하였음에도 不拘하고 滿足한 充當에는 未洽하였으며 日氣는 계속 不順하여 作戰에 制限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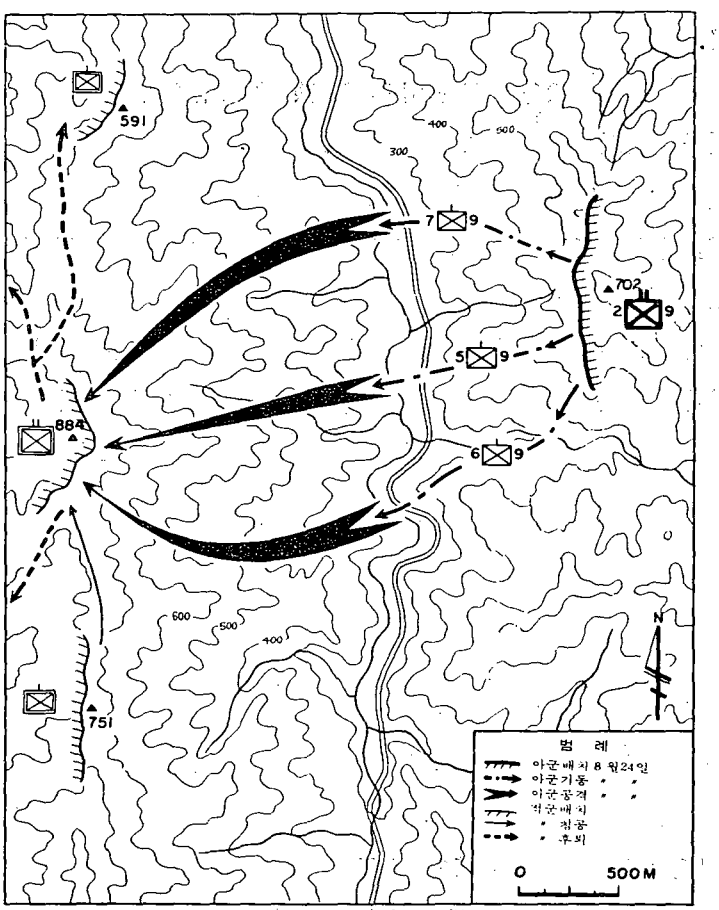
8월 23일 : 제1대대는 전날의 陣地에서 兵勢를 糾合하여 陣地를 強化하는 한편 제2대대의 赴援을 苦待하면서 雪辱의 反擊을 準備하였으며, 제2대대는 △703에서 隊伍를 整備하여 徹夜 強行軍으로 △884를 目標로 機動하였다.

그런데 戰線에는 彼我間 서로 探索에만 그쳤으나 間谷 東便까지 進出한 제2대대는 여기에서 발길을 멈추게 되었다.

즉 그 間의 豪雨로 因하여 平時에는 徒涉이 可能하던 上院里와 沙泉里間의 溪谷(南江支流)이 범람하여 河床을 急流로 메웠으니 渡河資材를 미리 마련치 못한 대대는 不眠不休의 疲勞를 이기고 假橋를 設置하기에 힘썼다.

이러던 中 工兵隊의 支援과 장병들의 創案으로 이날 22.00까지 架橋를 完成하고 渡河한 다음 西岸에 兵力을 展開하여 明日의 戰鬪를 準備하였으며 연대에서는 行政要員까지 動員하여 補給推進에 全力을 傾注하였다.

상황도 제26호 제9연대 제2대대의 공격



8월 24일 : 드디어 이날 拂曉에 제2대대(장, 林永鎬소령)는 攻擊을 시작하였는데, 主力이 渡江을 마치자 곧 제7중대를 右第一線으로, 제5중대를 中央 第一線으로 그리고 제6중대를 左 第一線에 展開하고 繼續 進出하다가 09.30에 제1대대와 合勢하여, 右側第一線은 제1대대가 맡고 左側第一線은 제2대대가 擔當하여 △884를 目標로 突進하였다.

이리하여 兩개 대대는 野砲의 支援과 航空支援

까지 받으면서 敵陣 50m前方까지 肉迫하였으나 증강된 대대규모의 敵이 可用한 모든 火力을 集中하면서 執拗하게 저항하므로 좀처럼 突破口를 찾지못한 채로 終日토록 一進一退의 激戰을 反復하였다.

20.50에 突擊隊를 自請한 제3중대장은 곧 제1소대를 右側으로 迂回케하여 側背에서敵陣을 急襲토록 함으로써 敵線을 攪亂케 하는 사이에 중대장 自身은 제2, 제3 兩소대를 指揮하여 낮은 포복으로 死角을 利用하면서 接近한 다음 果敢히 敵陣에 突入하였는데 이에 奮發한 대대는 일시에 突擊하여 敵 86명을 射殺하고 2명을 사로잡는 동시에 세번째로 △884를 奪取하였다.

여기에서 再編成을 마친 兩 대대는 연대장의 命에 依하여 22.00부터 다시 潰敵을 追擊케 되었는데, 제5중대는 △591로, 제7중대는 △602로, 각각 進出하여 殘敵을 追擊하였으며 그동안 제1대대와 제2대대의 제6중대는 △884에서 陣地를 強化하면서 逆襲에 대비하였다.

그런데 追擊戰을 展開한 兩중대는 豫想外로 敵勢가 頑強한데다 夜暗이 겹쳐서 23.00에 이를 中止하고 原陣地로 復歸하였다.

8월 25일 : 전날 目標를 奪還한 兩대대는 날이 밝기를 기다리면서 守勢를 取하고 있었는데, 이날 04.00에 敵은 2개 대대규모의 兵力으로 逆襲을 敢行하여 다시 頂上에서의 激突을 再演케 되었다.

이에 兩 대대는 계속된 激戰에서 겹친 피로와 限定된 補給의 惡條件 속에서도 善戰奮鬪하여 莫大한 損傷을 加하였으나 계속밀려든 敵勢로 말미암아 18명이 戰死하고 88명이 負傷하는 損失을 입는 등 紛戰亂擊을 거듭하고 마침내는 그 8部稜線으로 물러서서 血戰을 反復하였으니 이와같은 戰況에 當面하자 연대장은 부대를 一旦 撤收키로 決心하고 10.00에 전날의 陣地로 退却토록 命令하였다.

이리하여 兩대대는 間谷부근으로 隨意撤收하여 12.30부터 새로운 阻止線을 形成한 다음 부대를 再編 하면서 反擊을 準備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戰況을 注視하던 사단장은 이를 打開키위한 새로운 對應策을 마련코자 곧 參謀들을 召集하여 戰況를 分析, 檢討하였다. 이에 제9연대를 물러나게 하고 제20연대로서 目標를 奪還키로 決心한 다음 要旨 아래와 같은 口頭命令을 下達하였다

『① 제20연대는 8월 26일 15.00에 現陣地를 출발하여 間谷부근으로 躍進함과 동시에 戰力을 整備한 다음 8월 27일 06.00를 期하여 目標 "B"를 奪取하라.

② 제9연대는 제20연대가 攻擊대기지점에 進出함과 동시에 제20연대의 陣地로 轉進하여 이를 引受한 다음 부대整備에 專力하면서 左第一線인 제13연대와 連繫을 維持하라.

③ 제13연대는 現陣地에서 계속 임무를 遂行하면서 제20연대의 進出을 掩護하라.』

이리하여 朴元根대령이 指揮하는 제20연대는 새로운 一線부대가 되어 만반의 次戰 태세를 갖추었다.

8월 26일 : 새로운 攻擊命令을 받은 제20연대장 朴元根대령은 香爐峯山脈에서 사단 主陣地의 左半部를 占領中인 主力을 攻擊 待機線으로 進出시켜 潛伏待機케 하였다가, 右一線인 제3대대를 △884의 東側으로, 左一線인 제1대대를 同高地의 西斜面 後線을 따라 分進合擊케 하여 一擧에 이를 擊破키로 決心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命令을 下達하였다.

『① 연대는 現陣地에서 躍進하여 △884를 奪取한 다음 그 一圓의 敵을 驅逐하여 敵의 主補給路인 453道路를 掌握하려 한다.

② 제3대대는 乾鳳嶺을 출발하는 즉시로 △703의 西斜面으로 直衝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공격개시와 동시에 즉각 △884의 東側背를 強襲하라.

目標를 奪取하면 지체없이 目標 "D"(DT 355 497의 無名高地)를 계속 攻擊하여 이를 占領하라.

③ 제1대대는 現陣地에서 △751로 躍進하였다가 △884의 西斜面 後線으로 進攻하라. 目標를 奪取하면 즉시 同高地에서 陣地를 選定하여 이를 補強하라.

④ 제2대대는 △703로 進出하여 何時라도 出動할수 있도록 제반 태세를 갖추되, 主力이 目標를 奪取하면 △884를 초월하여 △602—△591를 攻擊하여 이를 占領하라.

⑤ 특공대는 △600(△884 東쪽 4.5km)로 進出하여 東側方을 掩護하되, 제2대대가 △591을 攻擊하면 同高地의 東北後線에서 陽攻에 任하라.

⑥ 攻擊間 사단 砲兵이 直接支援할 것이다.

⑦ 協調指示

㉮ 各隊는 27일 05.00 以前에 攻擊待機線까지 進出하여 모든 攻擊準備를 完了하라.

㉯ 機動時에 企圖秘匿을 철저히하고 暴雨에 대비한 사전대책을 강구하라.

㉰ 최종 目標를 奪取하면 각각 進出線에서 陣地를 구축하고 敵의 逆襲에 대비한 방어태세를 갖추라.

⑧ 攻擊開始시간은 明 27일 06.00로 豫定한다.

⑨ 最初 연대 전방 指揮所는 長新里에 位置하여 攻擊開始와 동시에 △1,079로 推進할 豫定이다.』

이상과 같은 命令을 받은 各隊는 이날 下午부터 夜間에 걸쳐 風雨를 무릅쓰고 險路를 踏破하면서 각각 擔當地域을 向하여 徒步로 機動하였다.

1. 右一線을 擔當한 제3대대(장, 崔亨祿소령)는 이날밤 20.00에 乾鳳嶺을 出發하여 夜間行軍으로 上院里 溪谷을 넘어 △703前斜面으로 機動하였는데, 先頭인 제9중대는 다음날 01 00에 盤項坪(△884 東쪽 2km)에 이르고 그 뒤를 이어서 제10중대가 間谷 東便으로 進出하여 兩개중대는 攻擊태세를 갖추었으며 그동안 제11, 제12 兩개중대와 대대본부는 △703에서 支援태세를 갖추었다.

2 제1대대(장, 李東根소령)는 左一線으로서 機動長程이 7km나 되기때문에 이날 15.00에 香爐峯山脈의 陣地를 떠나 △751를 目標로 躍進하였는데, 19 30에 俗稱 "사양재"(△834 東南쪽 3km)를 통과하여 強行軍을 계속한 끝에, 다음날 04.00를 前後하여 主力이 目標地域에 이르자, 제1, 제3 兩중대를 △751東麓에서 攻擊대기케 하고 제2, 제4 兩중대를 間谷西便에서 대대 CP를 營成케 하면서 支援태세를 갖추케 하여 만반의 攻擊준비를 끝마쳤다.

3. 한편 제2대대(장, 李承俊소령)는 연대의 豫備隊로서 △1,079 北斜面에서 主力의 뒤를 이어 △703로 機動하였는데 夜間行軍 끝에 다음날 05 00에 目的地에 進出하여 同高地前斜面에 兵力을 展開하고 支援태세를 갖추었으며, 特攻隊(장, 吳世湖중위)는 이보다 먼저 이날 前半夜에 △600로 진출하여 沙泉里 東便에서 主力의 東側을 掩護하면서 次後命令을 待機하였다.

이상과 같이 제20연대의 全兵力이 攻擊待機線으로 前進하는 동안에도 제9연대의 제1, 제2 兩개대대는 아직 間谷부근에서 阻止陣地를 堅守하였으며 제13연대(장, 崔錫鏞대령)는 사단 主抵抗線을 계속 固守하였다.

8월 27일 : 포병 제20대대(장, 沈鶴仁중령)의 105mm野砲와 美제10군단에서 支援된 155mm 榴彈砲에 依한 攻擊準備 사격이 끝나자, 06.00를 期하여 △884에 對한 제20연대(장, 朴元根대령)의 총공격이 시작되었다.

1 제3대대(장, 崔亨祿소령)는 제9, 제10 兩개중대를 左右 제一線에 전개하고 제11중대를 豫備로 保有하면서 △884의 東斜面으로 進攻하였는데, 濃霧가 山野를 메워 視界가 不良한데다 가랑비까지 내려 진흙으로 形成된 山비탈이 미끄러워 機動에 制限을 받았으나

盤頂嶺 계곡을 넘어선 대대는 09 CC에는 이미 그 中腹까지 進出하였다.

그런데 當面의 北共 제2연대는 진출 正面에 全火力을 集中함으로써 대대는 다시 激戰을 전개케 되었으니 敵의 彈幕射擊으로 死傷者가 續出하고 이로 말미암아 戰勢는 커다란 進展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惡戰苦鬪 속에서도 步一步 前進하고 과감한 接近으로 15.CC에는 敵陣의 50m 前方까지 육박하였는데 여기에서 左第一線인 제10중대(장, 朴圭泰대위)는 一齊 돌격을 감행하여 白兵對決끝에, 15.40에 同 高地의 北半部를 탈환하였으며, 右 第一線인 제9중대(장, 姜章憲대위)는 이에 呼應하여 東北쪽 稜線을 넘어선 다음 同 高地 西쪽의 無名高地(△884 西北쪽 500m)로 潰走하는 殘敵을 追擊하다가 日沒과 降雨로 말미암아 22.CO부터 現地에서 防守태세를 갖추었다. 특히 攻擊間에 제10중대의 姜昌周一兵은 敵의 重機陣地로 單身 突入하여 이를 파괴하는 수훈을 세웠다.

이무렵 제11중대(장, 俞龍善중위)는 主力이 △884를 넘어서자 18 CC까지 △703에서 一擧에 △884로 진출하여 합세한 다음 24 CC에 防守에 임하였으며, 제12중대(장, 金炳權대위)는 기관총 제1소대를 제9중대에, 제2소대를 제10중대에 각각 배속시키고, 81mm 소대는 대대를 一般支援하다가 제11중대와 함께 同 고지의 東麓으로 陣地를 移動하였으니 이제 敵으로 하여금 再擧를 思惟케 하리만큼 크게 戰勢를 振作하였다.

대대는 이날 전투에서 確認 사살 14명과 포로6명 및 기관총 13정에 各종 소총 23정등을 노획하였으며 손실은 전사 23명에 부상 64명이었다.

2 제1대대(장, 李東根소령)는 제1중대를 右一線으로 제3중대를 左一線으로 展開하고 제2중대는 豫備로 控置하면서 △751에서 進擊을 시작하여 △884의 西側背을 공격하였는데 地形上으로 보아 高山地帶로 迂回하여 背後에서 急襲하리라는 豫想을 뒤엎고, 側背를 強襲케 되니 대대의 進出은 비교적 順調로왔다.

그러나 본시 山勢가 急峻한데다 目標에 接近할수록 敵勢가 增加됨에 따라 그 8部稜線에서 치열한 激戰을 展開하게 되었는데, 이때에 急編빙어 태세를 갖춘 敵은 수류탄을 연속 投下하면서 固守코자 發惡함으로써 좀처럼 敵陣을 突破하지 못한채로 불꽃튀는 一進一退의 攻防戰을 계속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戰況을 打開키 위하여 대대장은 『계속 突進』을 下命하였으며 이에 제3중대는 敵火가 雨注하는 속을 뚫고 敵陣 30m 前方까지 肉迫하여 함성을 지르면서 銃劍을 휘둘으며 敵陣으로 突入한 결과 敵陣一角은 마침내 무너지고,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이瞬間을 看破한 대대 主力은 正面突擊으로 30分間의 激突끝에 敵 258명을 射殺하고 4명을 사로잡았으며, 그밖에 5정의 기관총, 61정의 소총, 547발의 수류탄을 노획하고 15 30에 △884를 네번째로 奪還하였다.

대대는 이날 血戰에서 21명이 戰死하고 73명이 負傷하는 損失을 보았으나 敵陣을 強打하여 戰機를 捕捉하는 決定的인 수훈을 세웠다.

그뒤 대대는 곧 戰列을 再整備하면서 △884에서 방어에 임하였다.

3. 한편 제2대대(장, 李承俊소령)는 제1대대가 目標를 奪取하자, 곧 이곳으로 進出코자 하였으나 연대장의 命令에 따라 △703陣地에서 待機하였다.

4. 연대 특공대(장, 吳世湖중위)는 △600 부근의 陣地에서 東側方을 掩護하면서 다음 命令을 대기하였다.

5. 제20포병대대(장, 沈鶴仁중령)는 이날 精密을 要하는 集中砲火의 誘導로서 効力射를 일시에 發揮하였으며, 夜間에는 敵 後方깊숙한 곳까지 擾亂射擊을 실시하였다.

이무렵 最前方까지 직접 進出하여 作戰을 指揮한 연대장 朴元根대령은 예하 主力이 目標를 奪取하자 이날의 戰鬪를 激勵한 다음 相互連繫하는 防禦陣을 더욱 強化케 하였다.

라. 전투후의 개황

제11사단이 8월 18일부터 同月 27일까지 激戰을 展開한 끝에 北共 제45사단의 主力을 破碎하고 敵의 據點인 △884—△591 일대를 확보함으로써 Kansas線의 威脅을 제거한 결과 군단이 目的한 『敵이 장악한 制高點을 奪取하여 Punch Bowl 東壁에서의 包圍態勢를 갖춘다』라는 임무를 完遂하게 되었다.

또한 이무렵 △884의 南端과 連한 目標"C"(△924—△751)를 左인접 수도사단(장, 宋堯讚준장)이 占領하게 됨에 따라 將次 北進을 위한 要線을 確固히 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사단은 △884—△591—△600—小鵲峯을 連하는 線을 前進陣地線으로 策定한 다음 제20연대로 하여금 이 線上에 防禦線을 形成케 하여 堅守토록 하는 한편 右一線인 제13연대와 左一線인 제9연대로서는 香爐峯山脈을 따라 乾鳳嶺—△1,079를 連하는 主抵抗線上에서 陣地補強에 專力케 하면서 계속부단한 威力搜索을 敢行토록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사단과 對峙하던 北共 제45사단은 戰力을 整備하자 8월 28, 29일 兩日間에 2개대대규모의 兵力을 △884일대에 投入하여 逆襲을 試圖하였으나, 또다시 甚한 打擊만을 입고 潰退되었다.

그뒤에도 9월 初旬에 이르기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反擊을 꾀하였으나 그때마다 所期의 目的을 이루지 못하자 드디어 攻擊을 斷念하고 搜索戰으로 轉換하기에 이르렀다.

이 當時 사단 C P는 廣山里에 계속 位置하였으며, 제9연대는 新坪里에, 제13연대는 胃川里에 그

C P를 각각 두고 있었다.

綜合戰果 및 損失

戰 果

구분 \ 대별	제 9 연대	제20연대	계
射殺	500 명	752 명	1,252 명
捕虜	17 명	14 명	31 명
小銃	61 정	101 정	161 정
多發銃	43 정	39 정	82 정
機關銃	10 정	12 정	22 정
手榴彈	617 발	1,047 발	1,664 발
實彈	5,000 발		5,000 발

損 失

구분 \ 대별	제 9 연대	제20연대	계
戰死	2/63 명	2/58 명	4/121 명
負傷	20/302명	8/170 명	28/472명
失踪	1/43 명		1/43 명

§戰 訓

◇ 指揮官의 狀況判斷

8월 21일, 제9연대의 제1대대는 暴雨와 濃霧로 말미암아 一旦 攻擊을 中止하고 警戒태세로 移行中 敵의 逆襲으로, 대대장을 비롯한 2명의 중대장이 負傷을 입었고, 戰鬪兵力은 1/3의 損失을 입는 가운데 884高地를 물러나게 되었다.

이와같은 狀況을 分析할때, 指揮官의 명철한 判斷力과 보다 積極的인 戰鬪指揮는 勝利의 要因이 될것이나, 反對로 이의 缺如는 豫期할수 없는 不利한 狀況과 損失을 갖어온다는 結果를 찾을 수 있다.

즉, 이날의 氣象條件은 彼我間에 同一條件으로서 그 支配的인 要素가 같았기 때문이다.

◇ 上級부대의 事前對策

8월 22일, 暴雨로 말미암아 戰鬪正面을 가로막은 南江의 支流가 범람한 까닭에 主戰부대인 제9연대의 제1대대는 補給 및 增援을 얻지못하여 孤立狀態에서 惡戰苦鬪를 免치 못하였다.

즉, 제1대대를 增援키 위하여 出動中이던 제2대대는 이 溪谷을 渡河하지 못한채로 뒤늦게 現場에 도착한 工兵中隊와의 協同으로 架橋工事에 하루를 消費하였는데 이와 같은 것은 一線부대의 出動에 앞서서, 上級부대가 氣象變化에 따른 戰鬪正面의 地形判斷을 再點檢하여 事前措置가 이루어 졌어야 할 것이다.

10. 第2次 蘆田坪地區 戰鬪 (1951년 8월 18일부터 1951년 8월 24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27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軍			我軍	
제8사단	장 준장 崔 榮 喜		제3대대	장 소령 鄭 順 基
제10연대	장 대령 李 春 景		제21연대	장 대령 全 富 一
제1대대	장 중령 朴 致 玉			(51년 6월 8일부터)
제2대대	장 소령 金 光		제1대대	장 소령 林 彰 模
	(51년 8월 12일부터)		제2대대	장 소령 金 徹
제3대대	장 소령 崔 明 道		제3대대	장 소령 孟 寬 永
제16연대	장 대령 李 存 一		對戰車攻擊대대	장 소령 朴 瑞 權
	(51년 6월 30일부터)		제5사단 제27연대(배속)	
제1대대	장 소령 朴 海 軾			장 대령 俞 義 濬
제2대대	장 소령 韓 炳 甲		제26포병단(배속)	장 중령 洪 昌 杓

敵軍			敵軍	
北共제2군단	장 중장 崔 賢		제17연대	장 중좌 金 寬 大
제2사단	장 소장 李 喆 用		제13사단	장 소장 鄭 炳 甲
제4연대	장 중좌 崔 守 顯		제19연대	장 중좌 金 炳 喆

나. 전투 전의 개황

敵軍의 상황 蘆田坪지구 제1차 전투에서 敗北한 北共제2군단 제2사단(장, 소장 李喆用)과 제13사단(장, 소장 鄭炳甲)은 徹尾洞 東南쪽 △1,131 및 △965 一帶에 방어陣地를 구축하고 再次 反擊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즉 이들은 △965—△771—△562—△673를 連하는 稜線에 前進陣地를 마련하고 新兵을 補充받아 그간 제1차 전투에서 殆半의 兵力을 상실하고 △771와 △965에 퇴각한 제17연대(장, 중좌 金寬大)와 제19연대(장, 중좌 金炳喆)를 再編 보강한 다음 前者를 △965 一帶에, 後者를 △1,031 一帶에 각각 배치

하고 제4연대(장, 중좌 崔守顯)를 豫備로 하여 △785—△445를 재탈환하고자 계속 부단한 수색 정찰을 실시하면서 反擊準備에 광분하고 있는 것으로 判斷되었다.

이 地帶는 徹尾洞 일대를 制壓할 수 있는 要地이며 그 中에서도 △1,031는 東部와 中西部 사이에 우뚝 솟아 能히 四面을 瞰制할 수 있었으며, 頂上으로부터 東西로 支脈이 뻗어 있었으나 急斜面이 별로 없고 地質은 대체적으로 土深이 厚하여 森林이 무성하였다. 때문에 敵은 이 △1,031를 我軍에 빼앗긴다면 地形上 부득이 10km이상 後退하지 않을수 없는 立場에 놓여, 이 高地는 그들 作戰上의 중요한 據點을 이루고 있었다

또 △965는 △1,031에서 西쪽으로 뻗어내린 稜線上에 솟아있는 하나의 山峰으로서 地形은 역시 △1.031과 비슷하나 9部 능선을 지나면서부터 急斜面을 이루고 있어 自然 장애물이 풍부하고 遮蔽가 良好하여 방어에는 有利하나 공격에는 不利하였다. 敵은 이 지대에 天然 장애물을 활용하여 堡壘를 구축하고 砲陣地를 半地下化하고 있었는데 砲口를 除外한 그 全面을 僞裝한 까닭으로 航空偵察로서도 이를 분간하기 힘들었다. 각종 壘는 散兵壘와 分哨壘및 小隊壘 등의 區別로 그 大小의 差異가 있을 뿐 그 形態는 모두 "ㄱ"字形이었다.

師團의 兵力配置는 제10연대 前面인 △1,031에 北共 제13사단 제19연대의 제2대대와 제2사단 제4연대의 제1대대의 2개대대가 있었고, 제21연대 前面인 △965에는 北共 제2사단 제17연대의 제1대대가 占據中이었는데 이들은 82mm 및 120mm 迫擊砲 各 6문과 76mm直射砲 8문을 △771—△812로 連하는 要地要部에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推斷되었다.

당시 捕虜의 진술에 의하면 敵은 食糧 및 彈藥추진보급소를 徹尾洞 7km 北쪽에 두고 각연대 CP까지 夜間에 차량으로 運搬하고 연대와 대대 사이에는 "지게"로 推進하였다는 것이다. 1회의 補給量은 10日分을 單位로 대대이하 小隊에 이르기까지 同一한 형식으로 補給하였다는 것이며, 各隊에서 受配한 탄약과 식량은 溪谷 또는 壘內에 隱匿하여두고 철저히 航空偵察에 對備하고 있었다.

이 戰鬪기간중에는 特히 오랜 장마로 敵의 補給狀態가 불량하여 高地에 있는 敵兵들은 몇일 굶주린데다가 我軍의 치열한 攻擊으로 士氣가 매우 저하되어 있었다고 한다.

我軍의 상황 : 제1차 作戰이 끝나자 사단은 敵의 逆襲에 대비하여 占領地域일대에 陣地를 구축하고 地雷를 매설하여 防禦態勢를 더욱 강화하였다. 즉 사단 地域內의 Kansas線을 확대 強化하여 右로부터 無名高地—△785—△445를 連하는 능선에 警戒線을 형성하고 無名高地 일대에 제10연대를, △445일대에 제21연대를 각각 配置하여 次期作戰에 대비하였다.

그러던 중 敵의 尋常치 않은 움직임이 점차로 表面化되자 사단은 機先을 制하여 그들의 근거지인 △1,031와 △965를 확보함으로써 事前에 그 침투를 阻止코자 攻勢로 전환하여 8월 17일 제5사단 제27연대(장, 俞載浩대령)를 配屬받아 제10연대의 Kansas線上 방어線(六谷里 西南方 8km—東北方 △1,019)을 제27연대에 引繼하고 제10연대를 △1,056附近에, 제21연대 제3대대를 △785東北쪽에 集結시킨 다음 8월 18일 未明을 기하여 제2차 作戰을 展開하였다.

당시 인접부대로는 右翼에 首都師團 제1연대(장, 高光道중령)가 香爐峰 7km西南쪽에서 Kansas線上의 방어陣地를 強化中이었고 제26연대(장, 徐廷哲 대령)가 제8사단과 呼應하여 8월 18일부터 △964—△751—無名高地를 攻擊中에 있었으며 또 左翼에는 美제2사단 제23연대(장, James Y.

Adams대령)가 陽地村에서 Kansas 線上의 陣地를 強化中에 있었다.

기간중의 氣象은 한달전부터 시작한 장마가 여전히 계속되어 連日 濃霧가 끼고 日氣가 不順한데다가 洪水까지 氾濫하고 교통이 杜絶되어 航空支援과 보급수송에 支障을 주었다. 이에 사단은 사령부 行政要員까지 동원하여 23, 24 兩日間에 걸쳐 겨우 所要의 彈藥과 食糧을 운반하였는데 兵士들의 士氣는 제 1 차 戰鬪에서 勝戰한 餘勢로 旺盛한 편이었다.

나.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北共제2, 제7兩師團이 사단 正面에 堅固한 陣地를 구축하고 제 1 차 戰鬪에서 喪失한 △445—△785—無名高地 등을 再奪還하려는 기세가 보이자 美제10군단장 Colvis E. Byers 소장은 戰況의 推移를 銳意 검토한 끝에 8월 6일 다음과 같은 要旨의 軍團作指 제217호를 下達하였다.

『① 제 8 사단은 △1,031와 △965를 攻擊하여 이를 占領하고 Kansas 線을 더욱 強化확보하면서 敵의 침투에 對備하라.

② 기간중 Kansas 線 방어에 있어서는 D—2 일에 사단에 配屬 豫定된 제 5 사단의 1 個 연대를 統合指揮하라.

③ D日 H時는 1951년 8월 18일 06.00이다.』

이에 따라 사단장 白榮喜 준장은 즉각 사단 作戰계획을 熟議한 다음 8월 16일 師團作命 제132호를 하달하고 攻勢로 移轉하였는데 그 作命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사단은 △1,031 및 △965를 攻擊 占領하려 한다.

② 제10연대는 8월 16일 24.00까지 Kansas 線上의 主陣地 방어임무를 제 5 사단 제27연대에 引繼하라.

8월 17일 08.00까지 연대 主力을 釜淵洞 4km北쪽에 集結한 다음 8월 18일 06.00에 攻擊을 개시하여 目標 △1,031를 占領 확보하라.

配屬된 제27연대 1개 대대를 統合指揮하되 이 연대를 戰鬪에 加入時에는 余의 事前承認을 要한다.

③ 제16연대는 現 戰線에서 사단 豫備로서 次後命令을 대기하라.

④ 제21연대는 現 戰線에서 1개대대 兵力으로 8월 18일 06.00부터 攻擊을 開始하여 目標를 占領하라.

⑤ 配屬부대인 제5사단 제27연대는 2개대대로써 8월 16일 24.00까지 제10대대의 主陣地 방어임무를 現地에서 引受하고 1개대대를 제10연대에 配屬하라.

⑥ 對戰車攻擊大隊는 8월 20일 08.00부터 行動을 개시하여 同日 16.00까지 中培養부근에 이동 集結한 다음 次後命令을 대기하라.

⑦ 工兵大隊는 目標高地를 占領과 동시에 장애물 設置作業에 任하라.

⑧ 제26砲兵團은 攻擊間 각 연대를 直接 支援하라.

⑨ 通信隊는 연대 CP에 사단 임시 中繼臺를 設置하고 사단 中繼臺間에 一回線을 增設하라.』

(2) 작전실시

8월 18일 : 사단은 제26포병단으로부터 480發에 達하는 直接支援사격밑에 제16연대를 사단 豫備로 △785에 控置하고 이날 06.00에 제10, 제21兩연대를 攻擊一線으로 하여 △1,031 및 △965를 目標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1. 제10연대(장, 李春景대령)는 攻擊에 앞서 Kansas線上의 主陣地를 제5사단 제27연대(장, 俞義濬대령)에 인계하고 17일 08.00에 연대兵力을 釜淵洞 4km 東北쪽에 集結시킨 다음 이날 06.00부터 △1,031를 目標로 攻擊을 開始하였다. 그런데 이 △1,031는 頂上으로부터 西南쪽으로 稜線이 쭉 뻗어있고 그 稜線上에 하나의 無名高地가 솟아있어 我方을 瞰制하고 있었다. 이 高地는 제1차 戰鬪에서 제10연대가 占領하였다가 다시 喪失한 것인데 여기는 作戰上 △1,031로 通하는 唯一한 攻擊軸線上에 있어 敵도 이 高地에서 我軍의 進擊을 극력 阻止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연대장 李春景대령은 이 高地를 사전에 占領 確保코자 제2대대로 하여금 직접 攻擊에 任하도록 하고 제3대대를 迂回케 하여 △1,031 右側을 直衝케 하는 한편 제1대대를 연대 豫備로 控置하였다.

그리하여 제2대대(장, 金 光소령)는 이 高地를 目標로 △1,056로부터 稜線을 따라 進擊을 개시하였는데 中央으로 前進한 제5중대(장, 金鍾煥중위)가 15.00에 同高地 200m 앞까지 進出하고 뒤이어 제6중대(장, 劉同烈 중위)와 제7중대(장, 金熙燦 중위)가 後續함으로써 각 중대는 여기에서 突擊을 敢行하였다. 敵은 自動火器를 亂射하면서 意外로 頑強히 저항하여 彼我間 치열한 攻防戰이 반복된 결과 점차로 戰勢가 如意치 않게 展開되자 제5중대 裵長煥이등중사(제3소대 제2분대)는 중대장에게 自請하여 特攻隊를 조직, 敵陣에 돌입하는 동시에 수류탄으로 敵主力을 분쇄하고 進路를 開拓하였다. 이에 각 중대

는 一齊히 돌격하여 激戰끝에 敵을 격멸하고 17.CC에 高地頂上을 占領하였는데 이 血戰에서 敵은 高地를 死守하던 北共 제19연대 제3대대의 1개 중대 兵力이 거이 全滅되고 我軍도 戰死 15명 戰傷 76名의 損失을 보았다. 한편 제8중대(장, 李泰榮대위)는 이날 대대 豫備로서 △1,C56 西쪽에 位置하고 있었다.

제3대대(장, 崔明道소령)는 △728로부터 공격목표 △1,C31를 右側으로 進擊하였는데, 主攻인 제9중대(장, 權世成중위)가 14.OC에 無名高地를 迂回하여 △1,C31 中腹에 進出하고 제10중대(장, 朴亨默중위)와 제11중대(장, 趙東演중위)가 뒤따라 躍進하여 각 중대는 이곳에서 부터 攻擊을 敢行하였으나 공격전면에는 敵의 地雷가 無數히 埋設되어 있었고, 敵의 저항도 頑強하였다.

元來 이 高地는 이미 말한대로 蘆田坪 平野를 瞰制하는 要地인 까닭으로 敵은 高地 全體를 陣地化하고 유탄포와 직사포 등으로 火力을 集中하여 發惡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각 중대는 日沒에 이르기까지 더 이상 戰況의 進展을 보지 못한채로 각기 進出線에서 急編방어에 들어갔다.

2. 제21연대(장, 全富一대령)는 제3대대를 一線으로 展開하여 △965를 목표로 C6.CC부터 공격을 시작하였다.

제3대대(장, 孟寶永소령)는 제9중대(장, 姜大煥 대위)를 主攻으로 하여 제26포병단의 火力支援下에 이날 11.CC에 高地 8部 능선까지 아무런 抵抗없이 躍進又 躍進하였으나 이로부터 敵의 熾烈한 集中火力에 부딪치게 되어 다시 山麓으로 随意 撤收하여 固守태세를 갖추면서 다음날의 공격을 준비하였다.

8월 19일 : 전날 無名高地에 대한 攻略에서 北共 제19연대는 1개 중대 규모의 兵力을 상실하자 이날부터 △1,C31 前方에 北共 제4연대 제1대대 제4중대를 增強 배치하고 사단의 進出을 극력 阻止하였다.

1. 제1C연대(장, 李春景대령)는 전날 占領한 無名高地에서 戰列을 재정비하고 이날 13CC에 攻擊을 再開하였는데 연대장은 제3대대를 高地 右側으로 그리고 제2대대를 그 左側으로 各各進出시켜 左右挾攻으로 高地頂上을 占領하려고 決心하였다.

이에 따라 제2대대(장, 金 光소령)는 제5, 제6, 제7의 3개중대를 第一線으로 展開하고 제8중대를 豫備로 하여 高地 左側面을 目標로 進擊하였는데 이로부터 대대는 敵의 熾烈한 저항을 물리치면서 15 CC에 이르러 돌격線까지 進出하였다.

또한 제3대대(장, 崔明道소령)는 제9, 제10, 제11의 3개중대와 이날부터 攻擊에 참가

한 연대 수색중대(장, 鮮于鎭明대위)까지 攻擊第一線에 가담시켜 高地 右側面으로 進擊한 다음 16.00에 頂上 200m 前方까지 進出하였으나 여러곳에 埋設된 對人地雷로 말미암아 苦戰하였다.

이와같이 하여 겨우 突擊線까지 確保하게 된 兩대대는 左右 挾攻으로 頂上을 向하여 돌격하였으나 不順한 日氣와 敵의 集中火力으로 말미암아 공격이 如意치 못하여 高地頂上을 目前에 두고 突擊線에서 敵과 對峙한채로 急編방어에 들어갔는데 이날 연대가 거둔 종합戰果는 敵 射殺 32명이었다.

2. 제21연대 제3대대(장, 孟寶永소령)는 전날의 主攻부대인 제9중대를 제11중대와 交代시켜 제11중대(장, 金漢龍대위)를 主攻으로 하고 제9, 제10 兩 중대를 後續部隊로 하여 △965를 攻擊토록 하였다.

제11중대는 06.00에 攻擊을 개시하여 敵의 輕微한 저항을 물리치면서 17.00에 高地 8部稜線까지 進出하였으나 여기서 부터는 地勢가 험악하고 또한 敵이 高地一帶의 要地要部에 陣地를 구축하고 集中火力으로 我軍의 진출을 阻止코자 頑強히 저항하였으므로 苦戰에 빠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는 계속 돌격을 敢行하였으나 敵의 阻止線을 돌파하지 못하고 8部 능선에서 敵과 對峙한채로 日沒과 더불어 急編방어에 들어갔다.

8월 20일 : 攻擊 3일째에 접어들자 사단은 美제196, 제936, 제937砲兵대대의 直接支援을 얻어 敵陣을 強打하면서 계속 頂上을 向한 돌격을 敢行하였다.

1. 제10연대(장, 李春景대령)은 이날 제3대대를 主攻으로 하여 目前에 둔 高地 頂上을 向하여 마지막 돌격을 敢行하는 한편 敵의 逆襲路를 遮斷할 目的으로 제2대대로 하여금 迂回케 하여 △1,031—△965를 連하는 稜線에 進出토록 하였다.

主攻부대인 제3대대(장, 崔明道소령)는 새벽 안개를 이용하여 제12중대 重火器의 支援下에 제11중대를 高地 正面으로 突擊케하고 제9중대와 연대 수색중대를 右側으로 제10중대를 左側에 各各 展開하여 一進一退의 攻防戰을 거듭하면서 敵陣에 육박하였다. 그러나 敵은 이 高地를 占領당한다면 훨씬 北쪽으로 後退하지 않을수 없는 立地的 여건 때문인지 그간 我軍의 강력한 集中砲火와 連日 계속되는 돌격으로 兵力에 큰 損失을 보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끝까지 高地를 固守하려고 發惡하였다.

마지막 돌격에서 敵의 이러한 저항으로 말미암아 공격은 數次에 걸쳐 挫折되었으나 各中隊는 중대장 陣頭指揮下에 突入하여 白兵戰으로 敵을 섬멸하고 11.00에 高地를 占領하였다.

特히 이 高地쟁탈전에서는 後斜面에 配置된 敵의 자동화기로 공격이 膠着되었을때 제 3 대대 제 4 중대 제 1 소대 金時雲일등병이 分隊長에게 單身돌격을 자원하고 敵陣에 最先鋒으로 突入하여 수류탄으로 塹壕를 파괴함으로써 중대의 進路를 打開하였으며 敵사살 6명 捕虜 3명 및 多發銃과 소총 각 3정을 노획하는 勇戰相을 보였다.

한편 대대와 呼應하여 敵의 逆襲路를 遮斷할 目的으로 △1,031—△965稜線으로 迂回前進한 제 2 대대(장, 金 光소령)는 이날 △1,031 西쪽 1km 稜線일대에서 敵의 逆襲에 對備하고 있다가 △1,031에서 潰走하는 敵을 擊滅하였는데 이날 대대가 거둔 종합戰果는 敵사살 83명, 다발총 노획 17정이었다.

2. 제21연대 제 3 대대(장, 孟寶永 소령)는 △965에 대한 攻擊을 再開하였는데 右第一線에 제 9 중대, 中央第一線에 제10중대, 左第一線에 제11중대를 展開하였으며 각 중대는 13.00에 8部 능선을 지나 敵의 頑強한 저항을 물리치고 드디어 高地 9部 능선까지 進出한 다음 돌격을 거듭하였으나 敵은 兵力을 增加하여 後斜面을 확보하고 있다가 陣前에 육박하자 一齊히 수류탄을 投擲하면서 發惡하여 損失만 격증되었다. 元來 여기는 地形이 험준하고 少數兵力만이 通過할 수 있는 隘路인 까닭으로 많은 兵力을 一時에 投入할 수 없어 공격이 다시 膠着되기에 이르렀다.

8월 21일 : △1,031를 喪失한 敵은 이날 豫備로 있던 北共 제4연대 제1대대를 投入하여 高地의 奪還을 企圖하고 前後3次에 걸쳐 逆襲하였으나 사단은 즉각 이에 應戰하여 이 敵을 擊退하고 △1,031—無名高地에 이르는 稜線에 鐵條網을 架設하는등 방어策을 強化하는 一方으로 계속 △965에 대한 突擊을 敢行하였다.

1 제10연대(장, 李春景대령)는 이미 이러한 敵의 逆襲에 對備하여 高地 2km北쪽에 제 2 대대를 配備하고 있었는데 敵은 1개중대규모의 兵力으로 이날 밤 03.00에 夜深을 틈타 제 6 중대 前面에 逆襲을 敢行하였다.

중대는 즉각 이에 對應하여 集中射擊으로 敵을 격퇴하자 이날 未明에 敵은 다시 그 方向을 바꾸어 제 3 대대 제 9 중대 前面에 1개小隊규모의 兵力으로 侵襲하였다. 그러나 중대의 反擊으로 그들은 역시 그 대부분의 兵力을 損失하게 되자 그 나머지 敗兵들은 高地 東北쪽을 向하여 潰走하였다.

이와같은 敵의 執拗한 逆襲을 물리치게 되자 대대는 無名高地로 連하는 稜線 一帶에 방어선을 구축하는 한편 一部兵力을 正面 OPL에 配置하고 捜索 偵察을 계속하여 이날 밤 19.00에 再次 逆襲을 企圖한 敵 2개 小隊규모를 陣前에서 擊退하였다.

2. 제21연대 제3대대(장, 孟賓永소령)는 전날의 固守線에서 이날 07.00부터 제10, 제11兩중대를 主攻으로 하여 △965頂上을 向하여 連4일째의 血戰을 거듭하였으나 敵의 集中火力에 부딪쳐 많은 損失만을 입고 14.00에 이르러 연대 作命에 따라 △785로 撤收하였는데 부상을 입고 後送되는 兵士들은 죽어가는 순간까지 高地 占領을 웨치면서 숨을 걷우었다.

18일부터 21일까지 사이에 展開한 △965 攻略에서의 제3대대의 綜合戰果 및 損失은 다음과 같다.

戰果 : 射殺 110명, 捕虜 3명

損失 : 戰死 3명, 負傷 O—3명, E—103명,

失踪 : 5명

(제21연대 부대역사보고에서)

8월 22일 : 사단은 △1,031를 完全 占領하자, 이날부터 △965 攻略에 全力을 集中하였다 連4日間의 돌격에서 많은 兵力을 消耗하고 過勞에 지친 제21연대 제3대대를 제16연대 제2대대와 交替케하여 제10연대 豫備로 있던 제1대대까지 攻擊에 參加시켜 △965에 對한 突擊을 再開하였다.

1. 제10연대 제2, 제3兩대대는 전날에 이어 계속 △1,031—無名高地로 連하는 능선에 방어陣地를 構築中에 있었고 연대 豫備인 제1대대(장, 朴致玉중령)는 △965를 目標로 이날 09.00에 △1,056를 出發하여 22.00에 高地中腹까지 一擧에 進出한 다음 제16연대 제2대대와 서로 呼應하면서 다음날 23일에 있을 作戰에 對備하였다.

2. 제16연대 제2대대(장, 韓炳甲소령)는 제21연대 제3대대의 공격任務를 引受하고 이날 09.00에 △965를 目標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대대장은 공격에 앞서 제21연대 제3대대의 失敗原因을 銳意 分析한 끝에 正面攻擊만으로는 攻略이 困難함을 깨닫고 敵의 背後를 強襲할 목적으로 제6중대를 高地 右側으로 迂回케하고 제7중대를 左側面으로 躍進시키는 한편 제5, 제8兩중대로 하여금 後續부대로서 공격一線을 支援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각 중대는 공격 正面에 매물된 無數한 地雷를 除去하면서 17.00에 돌격線까지 進出하여 突擊을 敢行하였으나 敵의 頑強한 저항으로 말미암아 끝내 防禦線을 돌파하지 못하고 21.00에 8部 능선으로 다시 철수하여 次期攻擊을 準備하였는데 이 血戰에서 대대는 敵 100명을 射殺하고 2명을 捕虜로 잡았으며 多發銃 및 長銃을 각각 14정을 노획하는 한편 戰死 12명 戰傷 45명의 損失을 입었다.

8월 23일 : 간밤부터 내리기 始作한 비는 이날도 계속되었으므로 航空支援과 補給輸送에

支障이 있었다. 이에 사단 참모장 李世鎬 대령은 사령부 및 直轄隊 行政要員까지 동원하여 장교 20명, 사병 409명, 계 429명으로 5개의 特別補給中隊를 편성하여 戰鬪부대의 補給을 지원토록 하였는데 2개중대가 제16연대의 補給을 3개 중대가 제10연대의 보급을 각각 전담하여 晝夜로 雨中을 무릅쓰고 推進補給所로부터 一線小隊에 이르기 까지의 補給을 담당케 하였다.

1. 제16연대 제 2 대대(장, 韓炳甲소령)는 전날에 이어 제 6 중대를 右第一線에 제 5 중대를 中央에 제 7 중대를 左第一線에 전개하고 砲兵의 火力支援下에 暴雨속에서 07 00에 돌격을 재개하였다.

高地 正面에는 奇岩絶壁이 가로 놓여있고 地勢가 험악하여 각 중대는 左右側方에서 포복으로 前進한 끝에 15 00에 제 6 중대가 먼저 右側高地一角을 占領하고 左側으로 進擊하는 제5, 제7 兩중대를 側面에서 支援하였다. 兩중대는 敵과 一進一退의 攻防戰을 전개하면서 敵陣 50m 前方까지 肉迫하여 "로켓트"砲로 堅壘를 파괴한 다음 敵陣에 돌입하여 치열한 白兵戰끝에 14.40에 △965를 占領하고 高地一帶에 방어 陣地를 구축하면서 四周방어에 임하였다. 그런데 이날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부대지휘는 主로 무전기를 使用하였는데 敵은 이를 盜聽하고 我軍의 기밀을 탐지하자 이날 밤 22.00에 夜陰을 이용하여 2개 중대 규모로써 다시 逆襲을 企圖하였다. 兩중대는 이에 應戰하여 集中射擊으로 그 殆半을 殺傷하였는데도 불구하고 執拗하게 反擊하는 敵의 物量手法으로 말미암아 다시 過多한 損失을 피하기 위하여 9部능선으로 隨意撤收하여 次期作戰에 대비하였다.

2 제10연대 제 1 대대(장, 朴致玉중령)는 이날 제16연대 제 2 대대와 呼應하여 右側面에서 공격을 개시하였는데 제 1 중대가 高地背後로 迂回進擊하고 제2, 제3兩중대는 右側面에서 공격하여 12.00에 △965 一角을 占領한 다음 左側面으로 돌진하는 제16연대의 主攻부대인 제5, 제7兩중대를 側面支援하여 高地占領을 容易케 하였다.

8월 24일 : 敵의 人海戰術에 말려 9部 능선으로 隨意撤收한 사단前線은 이날 06.00를 기하여 다시 反擊을 敢行한 끝에 △965를 재탈환하고 이번 作戰에 부과된 任務를 완수하였다. 그간 敵은 이 高地를 金日成 高地라 호칭할 程度로 戰略的으로 重視한 要地로서 이 高地만은 如何한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固守할 것이라고 豪言壯談하였던 것이다.

1. 제16연대 제 2 대대(장, 韓炳甲소령)는 간밤에 徹夜 敵의 逆襲으로 흩어진 戰列을 재정비하고 06.00에 右一線으로부터 左一線으로 제6, 제5, 제7 중대와 이날부터 공격에 참가한 사단 수색중대를 전개하고 마지막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날따라 비는 줄기차게내려 각

중대는 포복으로 敵陣에 肉迫하여 수류탄의 集中投擲에 肩接하여 11.30에 高地를 재 탈환하고 뒤이에 進出한 후속부대와 함께 高地一帶의 要地 要部를 安全 장악하였는데 이 血戰에서 대대는 敵 127명을 射殺하고 다발총 164정 蘇式小銃 44정을 노획하는 한편 戰死 1명의 손실을 보았다.

2. 제10연대 제1대대(장, 朴致玉중령)는 이날 △965高地 右側一角에서 제16연대 제2대대와 呼應하여 10.00에 頂上 50m 前方까지 육박하였으나 地勢가 험악한데다가 敵의 甚한 砲火로 말미암아 공격은 다시 膠着되었다. 이에 대대는 제1중대 제3소대 申均이등상사를 組長으로한 特攻隊를 편성하여 斷崖를 기어올라 前斜面에 구축하여 놓은 敵의 火器陣地를 수류탄으로 분쇄한 다음 一齊히 돌격하여 高地를 占領 확보하였다.

다. 전투후의 개황

敵의 상황 : 이 戰鬪에서 北共 제13사단 제19연대는 그 始半의 兵力을 상실하고 殘餘兵力은 △965로 퇴각하였다가 다시 同 高地를 喪失하자 北共 제2사단 제17연대 敗殘兵과 함께 △771로 潰走하였다. 이들은 이곳에 있는 敵과 合流한 다음 兵力補充과 보급조달에 급급하다가 급기야는 再起不能으로 北共 제15사단과 交替된 것으로 推斷되었다.

한편 제19연대와 交替된 北共 제3군단 제15사단(장, 朱燕)은 그간 外金剛에 位置하여 부대개편을 완료하고 8월말 伊布里를 經由하여 師團正面으로 이동하였는데 9월 2일에는 예하 제3연대를 戰線에 投入시켜 제1대대를 △771—△589로 連하는 線에 配置하고 제2대대를 제1대대 西쪽에 제3대대를 △528에 이르는 線에 進出시켜 前進陣地을 형성하는 한편 제1연대를 △802附近에 제2연대를 △854에 配置하면서 火網을 構成하고 地雷를 매설하는 등 次期作戰에 대비하는 것으로 判斷되었다.

戰鬪情報보고에 의하면 敵은 122mm 曲射砲 12문, 120mm 迫擊砲 6문, 82mm 迫擊砲 58문, 76mm 直射砲 16문, 重機 60정, 輕機 153정에다 分隊長級이상 全員이 다발총으로 裝備하고 △853를 據點으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推斷되었다.

我軍의 상황 : 金日成高地라 호칭하던 △965와 △1,031를 占領확보하고 Kansas 線을 더욱 強化한 사단은 占領地域一帶에 工兵隊를 동원하여 지뢰를 埋設하는 등 방어陣地를 強化하면서 次期作戰에 대비하였다. 이때 사단 右翼에는 首都사단이 新坪에서 △751와 △924를 占領중에 있었고 左翼에는 美제2사단 제23연대가 Kansas 線上의 방어陣地를 계속 維持하고 있었다.

그 뒤에 사단은 9월 5일 사단 CP를 松巨里에서 北쪽 8km에 있는 智禮村으로 推進하고 각 연대를 △445—△785—△965—△1,031로 連하는 線에 配備한 다음 계속 敵情수색과 정찰活動을 전개하다가 北共제3군단 제15사단이 사단 戰區正面에 投入되면서부터 새로운 對決을 보게 되었다. 이에 사단은 軍團 右翼의 위협을 除去하는 동시에 次期作戰에 있어 有利한 前進基地를 확보하기 위하여 9월 10일 다시 제3차 作戰을 계획하게 되었다.

이 戰鬪(2차)의 綜合戰果와 損失은 다음과 같다.

戰 果

區分 / 隊別	射殺	捕虜	重機	輕機	BAR	多發銃	長銃	手榴彈
제 10 연 대	453	16	8	23		85	198	10,785
제 16 연 대	346	31	3	14	3	34	97	108
제 21 연 대	110	3						
사단 수색중대	29	7		1		5	7	
計	938	57	11	38	3	124	302	10,893

損 失

區分 / 隊別	제10 연 대	제16 연 대	제21 연 대	사단 수색중대	計
戰死	E—46	E—32	E—12		E—90
戰傷	O—16 E—267	O— 7 E—122	E—109	E—15	O—23 E—513
失踪	E—11	E— 2	E—4		E—17

※(戰鬪詳報(80.)에 依함)

§參戰者의 證言

◇제10연대장 李 春 景 대령

(1973. 5.10 예. 춘장)

蘆田坪地區 戰鬪라면 △1,031戰鬪를 말한다. 이 전투의 目的은 한 마디로 말해서 戰線整理라고 볼 수 있다. 즉 이 高地를 占領하여야만 後方地域에 노출된 我 陣地들을 음폐 방어할수 있으며 또한 1개 師團 兵力을 節約하여 防禦線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聯隊는 艦砲와 砲兵支援下에 당초 제1, 제3兩대대가 攻擊하였는데 제1대대 공격이 不振하여 제2대대와 交替하였다. 이 高地는 지형이 아주 험악한데다가 기동공간이 좋은 곳은 敵이 對人地雷를 매설하고 있어 苦戰을 거듭하기를 1주일간, 급기야 제2대대에 의하여 占領되었다. 이 戰鬪에서 敵은 1개 聯隊이상의 兵力을 損失하였고 우리 연대도 戰死者가 150여명 부상자가 600여명이나 되며 이 중에는 敵 地雷에 의하여 重傷을 입은 兵士가 30여명이 되었다.

이 전투에서의 特異한 點은 初級 지휘관들의 부대 지휘능력이 탁월하였고 병사들의 戰鬪意識과 애국심이 고조되어 있었다고 본다.

◇제16연대장 李 存 一 대령

(1973.5.10 예. 소장)

이 戰鬪에서 우리 聯隊는△ 965를 공격하였는데 이 高地는 당초 제21연대가 공격하다가 敵의 頑強한 저항으로 進擊이 膠着되어 우리 연대와 交替되었다. 이때 연대의 제1, 제3 대대는 占領한 陣地를 확보하면서 助攻을 하고 공격에 強한 제2대대는 主攻으로 △965를 占領하였다.

高地를 점령하던 날은 비가 내려 부대지휘는 主로 무전기를 使用 하였는데 이것이 盜聽되어 그날밤 敵의 逆襲을 받아 一時 퇴각한 기억이난다. 戰鬪間에는 각별히 무전기保安에 대하여 세심한 注意가 필요한 것으로 思料된다.

11. 피의 稜線 戰鬪 (1951년 8월 18일부터 1951년 8월 22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제28호
상 황 도제27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제5사단 장 준장 閔 機 植
美제2사단 장 소장 Clark L. Ruffner
제36연대 장 대령 黃 煒
제1대대 장 소령 孫 介 同
제1중대 장 중위 李 承 源
제2중대 장 중위 金 元 俊
제3중대 장 중위 姜 斗 鉉
제4중대 장 중위 鄭 進 洙
제2대대 장 중령 趙 始 衡
제5중대 장 중위 崔 丙 吉
제6중대 장 중위 金 仁 德
제7중대 장 중위 高 熙 植
제8중대 장 중위 李 鳳 三
제3대대 장 소령 李 圭 昇
제9중대 장 중위 盧 在 萬
제10중대 장 중위 白 基 淳
제11중대 장 중위 鄭 昌 鎬
제12중대 장 대위 張 壽 相

병력 : 150/2.637
장비 : LMG, 27
HMG, 21
60mm MOT. 26
81mm MOT. 16

지원부대
美제300포병대대
美제311포병대대
美제503포병대대
美제15포병대대
美제37포병대대
美제38포병대대
美제82포병대대
美제72전차대대 B중대

인접부대
美제2사단 제38연대 장 대령 John C. Coughlin
제7사단 제3연대 장 대령 鄭 震

敵		軍
北共 제2군단 장 중장 崔 賢		병력 : 6,500명
제27사단 장 소장 조 관		장비 : 105mm野砲—25門
제5군단 장 중장 方 虎 山		82mm迫擊砲—6門(연대單位)
제12사단 장 소장 崔 忠 國		機關銃—24挺(연대單位)
제6사단 장 소장 洪 林		

나. 전투전의 개황

제5사단(장, 閔機植준장)은 6월 17일에 사단作命 제45호(6. 3)에 의거한 Kansas線 進擊作戰을 完了하고 제8사단(장, 崔榮喜준장) 一部兵力의 增援下에 山頭谷山—△774—俗稱 개고개—俗稱 사지목이를 連한 線에 主抵抗線을 設定하여 陣地工事를 實施하면서 Badger線에 이르는 一帶에 대한 威力搜索을 敢行하던 中, 7월21일에 新任 美제10군단장 Clovis E. Byers소장(7. 14附)의 作戰命令에 따라 作戰任務를 제8사단에 引繼하고 군단예비로 轉換되었다.

사단은 CP를 松巨里에서 縣里로 移動開設하는 한편 제27연대(장, 俞義濬대령)를 沙坪洞(縣里西南쪽 5km)으로, 제35연대(장, 高白圭대령)를 黑石里(縣里西北쪽 8km)로 그리고 제36연대(장, 黃燁대령)를 縣里附近으로 각각 移動集結케 하여 군단後方경계를 담당하면서 再編成과 陣中敎育에 着手하였다.

이무렵 Kansas—Wyoming線으로 進擊한 UN軍과 韓國軍은 美제 8군사령관 Van Fleet중장(51. 7. 11附 대장 進級)의 作戰指導에 따라 進擊의 발걸음을 멈추고 戰術單位부대로 하여금, 각 사단正面의 砲兵支援射擊圈內에서 最大限으로 推進시켜 據點을 확보케 하여 威力搜索을 敢行하면서 Kansas線을 沿하는 陣地工事에 着手하였는데 美 각 군단에 있어서는 배속된 1개의 勞務사단병력으로 Kansas線 前方에 鐵條網을 架設하고 地雷를 埋設하는 동시에 畏制고지 中腹에 掩體壕를 構築한 다음, 그 前方에 散兵壕와 各種射擊陣地를 編成하였으며 곳곳에는 戰車의 誘導路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陣地工事는 7월初旬에 접어들면서 이미 끝냈으나 戰術的인 補完作業이 계속되었다.

Wyoming線에 있어서는 最初 地雷地帶를 設定하여 미리 穿孔하여 놓고 이곳에서 後退할 때에 埋設할 수 있도록 地雷를 附近에 貯藏케 하였으나 休戰會談의 開催로 弛緩된 戰況은 Wyoming線에 있어서도 陣地工事를 實施할 수 있는 時間的餘裕를 갖게하여 Kansas線과 同一한 陣地工事를 實施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Van Fleet 대장은 Ridgway UN軍 총사령관의 承認을 얻어 Wyoming線을 美제9, 제1兩군단의 主抵抗線으로 確定하고 Kansas線上의 陣地를 豫備로 하는 措置를 取함으로써 이 地域에서의 戰略槪念을 달리하였다.

이와 反面에 敵은 戰況의 弛緩에 便乘하여 補給, 裝備 및 兵力을 補充하고 戰鬪準備에 狂奔하는 한편 築城工事에 着手하였는데 그들은 實戰經驗으로 미루어 對砲兵壕(反斜面에 構築하는 橫穴壕)와 據點防禦陣地, 그리고 對戰車장애물에 力點을 두는 것으로 判斷되었는데 그들이 이 陣地工事에 얼마

나 힘을 기울였는가 하는 것은 뒷날 當時의 北共 前線사령관 金雄과 군단장인 方虎山을 審訊하는데 있어서 이 時機의 築城工事를 怠慢히 하였음을 列擧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그 眞相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陣地工事를 끝낸 敵은 探索공격을 強化하면서 頻繁하게 부대를 이동하는 것이 觀測됨으로써 美제8군의 情報判斷은 敵의 7월攻勢를 警告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Ridgway 대장은 첫째 長期間에 걸친 戰況의 沈滯로 低下된 將兵들의 士氣를 높이고, 둘째 敵의 防禦力을 試驗하며 그 配置狀況을 探知하여 계속적인 衝擊으로 敵의 攻勢企圖를 事前에 粉碎하고, 세째 地形上의 瞰制點을 奪取하며, 넷째 이러한 軍事的 壓迫으로 北共側의 不誠實한 會談態度와 空然한 트집으로 空轉만 거듭하는 休戰會談을 打開코자 決心하고 Van Fleet 대장에게 制限공격을 명령하기에 이르렀다.

Van Fleet대장은 이에 따라 敵이 制高點을 掌握한 Punch Bowl(亥攻盆地) 東西壁一帶에 대한 공격준비를 제1군단(장, 白善燁소장)과 美제10군단에 각각 명령하기에 이르렀고 美제2사단 제38연대(장, John C. Coughlin대령)는 7월 27일에 공격을 發起하여 7월 31일에 Punchbowl 西쪽의 大禹山(△1,178)을 奪取하였으나 30年來의 큰 장마로 그 以上은 進擊치 못하고 다만 前方에 搜索據點을 확보하는데 그치고 있었다.

8월中旬으로 접어들면서 장마가 개이자 Van Fleet대장은 제1군단장 白善燁소장에게 Punch Bowl東壁의 要地인 △924—△884를, 美 제10군장에게는 그 右翼사단인 제8사단으로써 제1군단의 공격에 呼應하여 △1,031를 공격케 하는 한편 美제2사단이 占領한 Kansas線 陣地를 瞰制하며 威脅을 주는 △983를 비롯한 △940—△773 連峯을 각각 奪取토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今次의 공격作戰에 있어서는 『韓國軍에 自力으로써 戰鬪力을 開發케 하고 必勝의 信念을 갖게 하기 위하여 赫赫한 戰勝을 經驗케 하는 目的』으로 韓國軍만을 攻擊부대로 起用토록 아울러 指導하였다. 이 事實에 대하여 『休戰會談이 始作된으로써 Van Fleet는 美軍의 出血을 避하기 위하여 韓國軍만을 前面에 내세운다』고 批評한 美國의 軍事評論家도 있었으나 Van Fleet 대장이 이와같은 方針를 굳히기에는 이에 相當한 理由가 있었다 그것은 韓國軍正面에 對하여 敵의 第1, 第2 兩次 春季攻勢에 主攻이 指向되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韓國軍의 戰鬪力을 誇示할 必要가 있는 時點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美제10군단장 Clovis E Byers 소장은 군단 作指 제216호(51. 8. 14)로서 군단예비인 제5사단의 1개연대를 火力支援의 使命」, 美 제2사단(장, Clark L. Ruffner소장)에 配屬한 다음 美제2사단의 Kansas線上 主陣地線을 瞰制하는 要衝인 △983 一帶를 공격, 奪取토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서 제36연대(장, 黃燁대령)는 사단作命 제49호(8. 15. 08.00)에 의거하여 8월 16일08.00附로 美 제2사단에 配屬과 동시에 연대作命 제32호(51. 8. 16. 17.00)에 따라 뒷날 "피의 稜線"으로 불리우는 △983—△940—△773連峯에 대한 공격作戰을 敢行하기에 이르렀다.

敵軍의 狀況：航空偵察과 蒐集된 諜報分析에 의하면 6월 中旬에 UN軍과 韓國軍이 Kansas-Wyoming線으로 進擊하자 中東部戰線에서 크게 威脅을 받은 敵은 團隊號未詳의 一部부대를 東部戰線에 投入하여 防禦密度를 增加하면서 所謂 戰略豫備隊를 淮陽과 그 東南쪽에 集結시켜 깊은 縱深의 防守態勢를 갖추는 一方으로 休戰會談의 開催에 따른 戰勢의 沈滯를 奇貨로 하여, 補給品 및 裝備를 集積하고 無慈悲한 督戰下에 堅固한 據點工事를 서둘러 이미 그 工事는 一段落된 것으로 推

斷되었다. 이로써 敵은 我 제1군단(장, 白善燁소장) 正面에 遊擊부대로 推定되는 團隊號未詳의 부대와 北共 제3군단 제45사단의 및 제2군단 예하의 제13사단이 對峙하고 美 제10군단正面에는 北共 제2군단 제2, 제27사단과 제5군단 제12, 제32사단을 集結시켜 要衝인 Punch Bowl(亥安盆地) 一帶를 掌握토록 하면서 好機를 捕捉하는대로 攻勢로 轉換코자 하는 것으로 判斷되었다.

제36연대(장, 黃 燁대령)가 공격하게 된 △983 一帶의 敵은 제5군단 예하 제12사단 제1연대와 제2군단 제27사단 제14연대의 2개연대규모로서 제1연대가 主據點인 △983를 제14연대가 △940—△773를 각각 掌握하였으나 北共 제5군단 예비인 제6사단이 언제라도 增援할 수 있을 것으로 判斷되었으며 25門의 105mm野砲가 直接支援하고 각 연대는 6門의 82mm迫擊砲와 24挺의 각종 機關銃을 保有한 것으로 推測되었다.

特히 8월 2일에 撮影한 航空寫眞과 美제2사단에서 送付된 情報判斷에 의하면 敵은 陣前에 4,000~5,000個로 推定되는 箱子型地雷를 埋設하고 我軍의 砲擊에도 能히 支撑할 수 있는 僞裝陣地를 包含한 數百個의 掩體壕를 構築하여 이를 徹底히 僞裝하고 反斜面에는 橫穴壕를 판 다음 有蓋交通壕로서 連結하는 築城을 하였는데 이는 我軍의 砲擊과 同時에 이곳으로 待避하였다가 射擊의 延伸과 때를 같이하여 散兵壕와 掩體壕로 다시 進入하여 步兵부대의 突擊을 阻止키 위한 것으로 判斷됨으로서 砲兵에 의한 効果가 減小하는 反面 이를 奪取하기 위하여서는 突擊戰이 더욱 強要될 것으로 豫想되었다.

北共 제27사단은 所謂 5월攻勢에 있어서 主攻集團인 北共 제3, 제5군단에 後續하고 撤退와 同時에 이를 收容한 北共 제2군단의 예비로서 我軍의 反擊에 의한 打擊을 크게 입지 않아 比較的 좋은 戰鬪力을 保有하였으며, 또 北共 제12사단은 美제1해병사단에 의하여 큰 打擊을 입었으나 再編成을 서둘러 새로이 投入됨으로써 士氣와 그 戰鬪力은 平準線을 維持한 것으로 判斷되었다.

연대가 담당하게 된 戰鬪地域은 右로는 楊口—月雲里—比雅里를 連하는 作戰路와 左로는 楊口—長坪里—살애비(俗稱)—梨木亭에 이르는 제31번 作戰路로서 區劃되는데 右側은 大禹山(△1,178)을 掌握한 美 제38연대(장, John C. Coughlin 대령)가, 左側은 연대의 공격과 同時에 △554(△983 西쪽 3km) 공격을 敢行하게 된 제7사단 제3연대(장, 鄭 震대령)가 각각 담당하였으며 後方에는 美 제9연대(장, Charles C Sloane, Jr대령)가 林塘里—德谷里一帶에 主陣地를 확보하고 있었다.

공격目標인 △983—△940—△773는 東西로 連한 連峯으로서 一帶가 橫隔室을 이루어 敵에게는 持久를 위한 天然的인 要衝이었으며 더구나 그 主峯인 △983는 一帶를 瞰制하여 兩翼의 通路를 制壓하고 여기 設置된 敵의 觀測所는 美 제2사단의 主陣地와 砲兵陣地, 심지어는 後方에서 運行되는 補給車輛에 對하여까지 正確히 射擊을 誘導할 수 있어서 美제10군단 正面에서는 "눈위의 혹"과 같은 存在였다.

따라서 敵은 그 地理的 形勢와 立地的 條件으로 미루어 보아 期必코 固守코자 할 것이고 군단은 如何한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奪取하여야만 할 要衝으로 浮刻되었다.

공격目標의 兩翼은 前述한 通路로 遮斷되고, 杜密에서 살애비(俗稱)에 이르는 山間道路와 두타연(俗稱)에서 드렛골(俗稱)에 이르는 通路로 前後兩面이 遮斷되어 一見 孤立된 섬(島)과도 같은 地域였으며 이러한 良好한 通路는 敵에 있어서는 後方支援과 砲兵부대의 機動에 利로울 것이고 그들의 對戰車障碍物과 側方射擊陣地는 我機甲부대의 機動을 制限하였다.

△940—△773 南쪽 稜線은 比較的 緩慢한 傾斜를 이루었으나 △983 正面은 急傾斜와 斷崖를 이루어 地勢의 橫隔과 더불어 공격의 어려움을 더할 것으로 判斷되었으며 茂盛한 樹立과 장마後의 맑게 개이지않은 氣象條件은 觀測과 視界가 不良하여 砲兵과 航空支援을 制限할 것으로 判斷되었다.

我軍의 狀況 : 제36연대(장, 黃 煒대령)는 그 原所屬인 제5사단이 군단예비로 控置됨에 따라 7월21일에 Kansas線上의 主陣地를 제8사단 제21연대(장, 全富一대령)에 引繼하고 縣里附近으로 移動하여 再編成과 敎育을 實施하다가 사단作命 제49호(8. 15)에 의거하여 8월 15일 18.00에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를 先發隊로 하여 車輛機動으로 다음날 12.00에 德谷里로 集結完了하였다. 이리하여 연대 CP를 俗稱 아래덕골(德谷里 東南쪽 1km)에 開設하고 제2대대(장, 趙始衡중령)를 林塊里에 제3대대를 俗稱 학력골(德谷里 西南쪽 1km)에, 그리고 제1대대(장, 孫介同소령)를 文石里에 각각 展開하였다.

17일 04.00에 연대장 黃 煒대령은 연대作命 제32호를 下達하여 각 대내의 作戰任務를 賦與하고 0640에는 3個組 112명으로 編成된 搜索隊를 杜密(月雲里 北쪽1km)—古方山里—살애비(俗稱) 一帶에 대한 敵情搜索次 出動케 하고 공격梯隊인 제2대대는 月雲里, 제3대대는 淸水洞附近의 攻擊待機地點으로 각각 進入하기 始作하였다.

이무렵 제5사단(장, 閔機植준장)은 제36연대의 美 제2사단으로의 配屬과 동시에 제27연대(장, 俞義濬대령)는 Punch Bowl 東壁의 制高點인 △1,031 공격을 敢行하게 된 제8사단(장, 崔榮喜준장)에 配屬되어 瑞和里附近으로 進出하고 제35연대(장, 高白圭대령)는 樓口尼(縣里 西北쪽 7km)에 연대CP를 開設한 다음, 孕子洞 一帶에서 內麟川에 沿한 군단예비陣地工事를 담당하였으며 사단CP는 계속 縣里에 位置하였다.

이때에 제36연대의 右隣接인 美 제38연대는 제3대대가 大愚山(△1,178)에 搜索據點을 확보하고 八郎里一帶에 主陣地를 占領하였으며 左隣接인 제7사단 제3연대(장, 鄭 晟대령)는 松峴里—고양골(俗稱) 一帶에 展開하여 연대의 공격과 때를 같이하여 △554(△983 西쪽 3km)에 대한 牽制공격을 敢行키로 하였다

한편 연대後方에는 美 제9연대가 林塊里—德谷里—항용골(俗稱) 一帶의 Kansas線에 陣地를 占領하였으며 군단 포병 2개대대를 비롯한 都合 7개의 砲兵대대와 美 제72전차대대 B중대는 연대공격을 支援할 態勢를 갖추고 있었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美 제10군단장 Clovis E. Byers소장은 △983—△940—△773에 대한 공격의 중요성을 強調하기를 『Kansas線을 保障하고 防禦縱深을 賦與하는 동시에 文登里를 비롯한 敵後方攪亂을 위하여서도 그 關門格인 이 一帶를 期必코 奪取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美 제2사단장 Clark L. Ruffner 소장은 군단장 Beyers 소장의 指導에 따라 새로 配屬된 제36연대에 그 重責을 賦與하면서 要旨 다음과 같은 美 제2사 作命 제34호를 下達하였다.

『① 韓 제36연대는 D日 H時를 期하여 目標 T(△983)—U(△940)—V(△773)를 공격, 이를 奪取하라.

② 공격間 군단 포병 및 사단포병은 연대를 直接支援할 것이다.

③ 要請에 따라 美 제72전차대대 B중대는 연대를 支援할 것이다.

④ D日 H時는 8월 18일 06.30이다.』

이와 같은 Ruffner소장의 명령에 따라 연대장 黃燁대령은 判斷하기를 敵이 이미 堅固한 築城을 끝내고 對砲兵壕까지 마련하였으므로 7個의 美 포병대대가 支援하여도 敵에 대한 直接打擊은 크게 期待할 수 없으며, 左隣接인 제7사단 제3연대가 局部的인 공격을 敢行한다 할지라도 右隣接인 美 제38연대가 同時에 공격으로 呼應하지 않는限 敵은 要衝인 연대 正面에 대하여 集中的인 增援을 企圖할 것이므로 地雷 및 掩體壕(特火點)에 의한 損失이 클 것이지만 正面에서 敵을 急襲하여 增援의 時間的餘裕를 주지 않고 一擧에 目標 T—U—V를 奪取키로 決心하였다.

그리하여 연대장은 제2대대(장, 趙始衡중령)를 右一線으로 하여 目標 U(△940)—V(△773)를,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를 左一線으로 하여 目標 T(△983)를 각각 공격케하기로 작정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연대作命 제32호를 下達하였다.

『① 연대는 18일 06.30을 期하여 目標 T—U—V를 공격, 이를 奪取한 다음 目標 A—B—C를 계속 공격하려 한다.

② 제2대대는 目標 U—V를 奪取後 명령에 의하여 目標C(比雅里 西쪽 無名高地)를 공격하라.

③ 제3대대는 目標T를 奪取後, 명령에 의하여 目標A(梨木亭 東南쪽 高地 無名)와 B(△778)를 공격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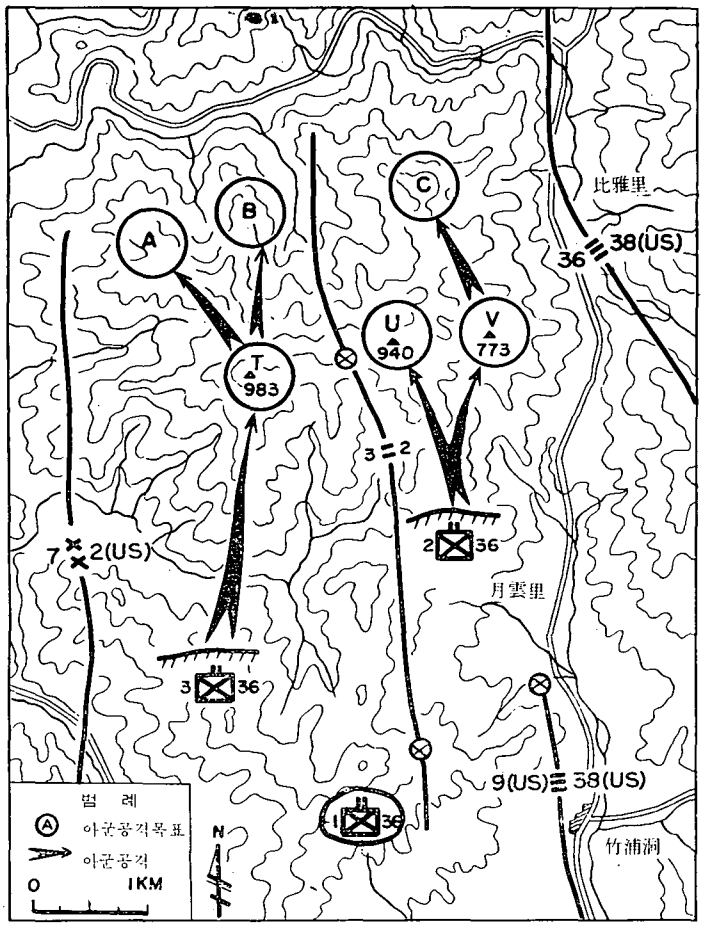
④ 제1대대는 最初 연대예비로서 杜密嶺에 位置하여 次後명령을 待機하라.

⑤ 통신대는 사단 및 美 제2사단과의 無線을 維持하고 연대CP와 각 대대CP間에 2回線의 有線을 架設하라.

⑥ 공격間 각 대대는 要請에 의하여 砲兵, 航空 및 機甲부대의 支援을 받을 수 있다.

⑦ 연대CP는 俗稱 아래덕골에, OP는 杜密嶺에 位置한다.』

◇ 상황도 제27호 피의稜線 戰鬪



(2) 작전실시

8월 18일 : 企圖秘匿을 위하여 散發的인 攪亂射擊만을 거듭하던 7개포병대대 126門의 野砲는 06.00를 期하여 一齊히 砲門을 열어 攻擊準備射擊을 始作하고 06.30에 이의 射程延伸과 同時에 공격梯隊인 제2, 제3 兩대대는 공격개시선(美제9연대 配置線)을 通過하여 一齊히 敵線을 指向하였다.

1. 右一線인 제2대대(장, 趙始衡중령)는 제7중대(장, 高熙植중위)를 대대예비로 控置하고 제5, 제6 兩중대를 左右一線으로 併行 공격하였다.

대대는 最初 대대에 賦與된 目標 U(△940)—V(△773)에 대한 공격에서 敵이 많은 地雷를 埋設하고 重點的으로 據點을 形成한 正面공격보다는 俗稱 비둑고개로 迂回하여 目標V를 集中공격하여 이를 奪還한 다음, 그 西쪽 稜線을 따라 目標 U를 공격하는 逐次공격方式을 採擇하였으나 急襲에 力點을 두는 연대장의 作戰方針에 따라 目標 U—V를 同時에 공격키로 되었다.

따라서 右一線인 제5중대(장, 崔丙吉중위)는 目標 V를, 左一線인 제6중대(장, 金仁德중위)는 目標U를 向하여 一齊를 躍進하였다.

제5중대는 △587(月雲里 東北쪽) 南斜面을 따라 俗稱 비둑고개로 迂回한 다음, 若干 急傾斜를 이루었으나 突進距離가 짧은 東南쪽 稜線을 따라서 一齊히 突進하였는데 5部稜線에서 頑強하게 抵抗하는 2개소대규모의 敵의 前進據點을 一擊으로 물리치고 7部稜線에 肉迫하였을 무렵, 地雷地帶에 陷入하고 말았다. 곳곳에서 連이어 地雷가 爆發하여 瞬息間에 破片과 石塊 그리고 土塵이 兵士들을 뒤 덮었으며 雪上加霜으로 敵의 掩體壕에서는 火力이 集中되었다.

중대장 崔丙吉중위는 即刻 砲兵掩護射擊을 要請하면서 예비소대인 제2소대(장, 金杜興소위)를 東쪽으로 迂回시켜 熾烈하게 射擊中인 敵의 掩體壕에 突擊을 敢行케 하고 敵의 射擊이 中絶되는 瞬間 제1, 제3 兩 소대는 각 소대장의 誘導下에 地雷地帶를 離脫토록 하였다.

제2소대는 2차에 걸쳐 手榴彈攻擊을 決行하였으나 地形이 不利하여 至近距離까지 接近하지 못함으로써 이를 擊破하지 못하고 主力과 合勢하여 遮蔽點에 急編陣地를 占領하고 熾烈한 射擊戰을 展開하였다.

20.00에 중대는 薄暮를 期하여 一齊히 突擊을 敢行하였으나 敵의 執拗한 抵抗으로 그 進展을 보지 못하자 崔중위는 特攻隊를 編成하여 夜間奇襲을 敢行키로 決心하고 一旦 急編陣地로 復歸하였다.

23.00에 金杜興소위가 指揮하는 20명의 特攻隊는 敵의 掩體壕背面으로 突進하였으나 또다시 地雷地帶에 빠져 3發의 地雷가 계속적으로 爆發하고 敵의 射擊이 集中되었다. 企圖가 暴露된 特攻隊는 手榴彈을 投擲하면서 應戰하였으나 即刻示達된 중대장의 無電명령으로 負傷한 金소위를 업고 復歸하였다.

한편 제6중대(장, 金仁德중위)는 杜密을 直衝하여 1개소대규모의 敵이 抵抗하는 前進據點을 擊破한 다음 그 北쪽 稜線을 따라 進擊을 거듭하면서 果敢한 手榴彈 공격으로 敵의 掩體壕를 破壞하였으나 11.00에 7部稜線으로 進擊하였을 때에 敵의 地雷地帶에 빠지면서 計劃된 火網속에 陷入하였다. 중대는 後續하던 예비소대의 掩護下에 비로소 離脫한 다음 死角진 그 南斜面에 急編陣地를 占領하는 즉시로 砲兵의 破壞射擊을 要請하였다. 중대는 射程의 延伸과 더불어 3개소대를 一線으로 展開시켜 突擊을 敢行하였으나 北共 제27사단 제14연대의 1개대대규모의 敵이 地勢의 利를 얻은 堅固한 陣地에서 頑強하게 抵抗하는 탓으로 큰 進展을 보지 못하고 進出線에 急編陣地를 占領하기에 이르렀다. 이때에 대대예비인 제7중대(장, 高熙植중위)는 공격梯隊의 進擊에 따라 杜密로 進出한 다음, 22.00에는

제6중대를 超越하여 夜間攻擊을 敢行하였으나 地雷의 爆發과 敵의 集中火力으로 成果를 거두지 못하고 제6중대의 掩護下에 杜密로 다시 復歸하였다.

2. 연대左一線인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는 05.00부터 機動하기 始作하여 俗稱 항령골(長坪里 北쪽 2km)에 이른 다음, 제11중대(장, 鄭昌鎬중위)를 대대예비로 控置하고 제9중대(장, 盧在萬중위)를 右, 제10중대(장, 白基淳중위)를 左一線으로 하여 主據點인 △983를 目標로 一齊히 공격을 시작하였다. 제9중대는 無名高地(항령골東北쪽 1km)로 進擊하여 1시간에 걸친 熾烈한 交戰끝에 1개중대규모의 敵이 占據한 前進據點을 擊破한 다음, 제11중대 2개소대의 增援下에 △933 西南쪽 稜線을 타고 突進을 거듭 하였다.

중대는 敵의 掩體壕와 地雷地帶에 부딪쳐 砲兵破壞射擊과 突擊, 그리고 引繼鐵線을 除去하면서 5部稜線에 이르렀을 무렵, 三面에 形成된 敵의 機銃交叉 射擊으로 一進一退의 激戰을 展開하였다.

이때 左側의 제10중대(장, 白基淳중위)는 美 제72전차대대 B중대의 掩護下에 俗稱 살애비附近으로 進出하여 △731(俗稱 공골 東쪽) 南쪽 稜線을 타고 一齊히 突進한 결과 11 00에 1개중대규모의 敵을 擊碎하고 △731頂上을 奪取한 다음, 그 東쪽 稜線을 따라 進擊을 거듭하였으나 有利한 地勢를 十分活用한 敵의 堅固한 據點과 地雷地帶로 말미암아 突擊의 보람도 없이 進出線에 急編陣地를 占領하고 射擊戰만을 展開하였다.

3. 연대예비인 제1대대(장, 孫介同소령)는 05 00에 전날의 陣地인 支石里에서 機動하여 연대 OP를 設置한 杜密嶺(△787)으로 進出한 다음 공격梯隊의 支援態勢를 갖추고 명령을 待機하였다.

4. 이날 연대는 敵 47名을 射殺하고 重機 4挺을 비롯한 13挺의 銃器를 鹵獲하였다. 그러나 공격梯隊의 공격이 큰 進展을 보지 못하자 연대장 黃 燁대령은 공격目標 T—U—V를 早速히 奪取하기 위하여서는 敵의 增援을 遮斷하고 地雷地帶의 破壞가 急先務라고 判斷한 결과 공격第一線에게 敵線에서 200m 離脫할 것을 명령한 다음, 砲兵의 遮斷射擊과 破壞射擊을 同時에 實施할 것을 美 제2사단장 Ruffner소장에게 強力하게 要請하였다.

23.00를 期하여 美 支援砲兵團 126門의 野砲와 美 제2사단의 全 重追擊砲는 一齊히 불을 뿜기 始作하였다. 산은 당장에 무너져 내릴 듯하고 火焰에 휩싸인 溪谷과 봉우리에는

개미 한마리도 살아 남지 못할듯한 壯觀을 이루었다.

이때 공격正面 4km에 動員된 野砲와 追擊砲는 都合 200門에 이르러 正面 1km當 50門이 支援하는 密集支援의 記錄이 바로 이 瞬間에 세워졌던 것이다.

8월 19일 : 밤새도록 계속된 砲兵의 破壞射擊은 공격梯隊의 進出線을 除外하고는 모든 地形을 크게 變貌시켰다. 茂盛하던 樹木의 가지는 잘려 나갔고 큰 바위는 削碎되고 높은 언덕은 平地가 되었다.

그러나 僞裝이 벗겨진 有蓋壕는 곳곳에 그대로 남아 있었으니 이것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이 地域에서의 敵의 2개월간에 걸친 陣地工事가 얼마나 徹底하였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었다.

第一線 공격梯隊는 期必코 目標를 奪取하고야 말겠다는 決意도 새롭게 砲兵射擊의 延伸에 間接하여 一齊히 黎明공격을 敢行하였다.

1. 右一線인 제2대대(장, 趙始衡중령)는 전날에 이어 U—V(△940—△773)를 目標로 突進을 거듭하였다.

밤새도록 계속된 破壞射擊으로 地雷地帶는 거의 그 자취를 감추었으나 그래도 곳곳에서는 대대의 進擊을 가로막았다. 대대는 露出된 敵의 警戒陣地를 果敢한 手榴彈공격으로 突破하면서 敵線으로 肉迫하였다. 敵은 手榴彈의 彈幕을 펴면서 全火力을 集中함으로써 彼我間에는 凄絶한 近接戰이 展開되었다.

제5중대(장, 崔炳吉중위)는 突擊支援射擊下에 敵火를 뚫고 △773 正面으로 突擊하였으나 急傾斜를 이른 地點에서 躍進이 鈍化되었는데 그 瞬間 敵은 一齊히 手榴彈을 던지면서 集中射擊을 加하기 시작하였다. 중대는 即刻 이에 手榴彈을 投擲하고 急射擊으로 應戰하면서 崔炳吉중위의 陣頭指揮下에 突擊을 敢行하여 敵線으로 肉薄하였으나 더욱 熾烈하여지는 交叉射擊으로 寸步의 突進마저 어렵게 되고 死傷者가 續出한 까닭으로 그 進展을 보지 못한 채로 南쪽 遮蔽點으로 離脫하면서 散兵을 收拾하였는데 이때 중대의 可用兵力은 不過 40명이었다.

그러나 중대는 進出線에서 後退치 않고 砲兵掩護射擊下에 急編陣地를 확보하고 突擊의 好機를 捕捉코자 하였다.

대대장 趙始衡중령은 이러한 戰況報告를 받고 地形과 頂上附近에 形成된 敵의 據點 그리고 反斜面에 橫穴壕를 構築하여 我軍의 砲擊이 시작되자 곧 여기로 待避하는 敵의 術法으

로 미루어 보아 砲擊에 의한 殲滅的 打擊과 砲兵의 延伸과 때를 같이한 急速攻擊도 敵이 이미 散兵壕에 進入한 다음에야 이루어짐으로써 決定的인 進展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判斷하고 敵陣背面으로 奇襲공격을 敢行하여 敵을 挾擊토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중대장 崔炳吉중위는 화기소대장 曺成煥소위 指揮下에 特攻隊를 編成하여 다음날 零時를 期하여 敵線背面을 目標로 近攻한 다음 奇襲과 동시에 이곳으로 增援된 제2중대(장, 金元俊중위)의 支援下에 挾擊, 一擧에 敵陣을 奪取코자 하였다. 兵士들은 特攻隊에 너도 나도 自願하였으나 12명만을 선발하여 이를 編成하였으며, 이들은 戰友들의 待望속에 出動準備에 着手하였다.

한편 대대 左一線인 제6중대(장, 金仁德중위)는 전날에 이어 △940로 攻進을 거듭하여 敵線 50m前方에 肉薄하였을 무렵, 熾烈한 敵火에 휩싸였다. 중대는 即刻 誘導된 攻擊支援射擊下에 攻擊을 敢行하였으나 有利한 地形에서 優勢한 병력으로 抵抗하는 敵勢를 擊破하지 못하고 遮蔽點에 急編陣地를 占領한 채로 熾烈한 射擊戰을 展開하면서 攻擊의 機會를 노렸다. 이때에 대대예비인 제7중대(장, 高熙植중위)는 제6중대의 공격을 支援하였으나 그 進展을 보지 못하자, 그 西쪽 稜線으로 進出하여 火力을 增援하면서 攻進態勢를 갖추고 待機하였다.

2. 연대 左一線인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는 전날에 이어 제9, 제10 兩중대를 공격 梯隊로 하여 黎明공격을 敢行하였는데 俗稱 살애비 附近까지 進出한 다음 △554의 敵을 牽制射擊하는 美 전차소대의 側方掩護下에 △933 西南쪽 稜線과 西쪽稜線을 타고 8部稜線으로 攻進하였을 때 天然的인 要衝인 一帶의 地勢를 利用하여 形成한 敵의 特火點에서의 熾烈한 射擊으로 세차례에 걸친 攻擊의 보람도 없이 急編陣地를 占領하기에 이르렀으며 대대예비인 제11중대(장, 鄭昌鎬중위)는 전날에 이어 無名高地를 占領하고 攻進態勢를 갖추었다.

杜峴嶺에 OP를 設定하고 밤을 새우며 作戰指揮에 熱中한 연대장 黃燁대령은 사단과 나아가서는 全體 韓國軍의 名譽를 건 이번 戰鬪에서 공격 2일째로 접어 들면서도 큰 進展을 보이지 않자 연대예비인 제1대대(장, 孫介同소령)를 제2대대에 增援하여 于先 目標 U—V를 集中공격키로 決心하고 命令하기를 『제1대대는 제2대대를 增援하되 제2대대장의 區處下에 △940—△773를 早速히 奪取하라.』고 하였다.

3. 이에 따라 제1대대장 孫介同소령은 제2대대장 趙始衡중령과의 協調後, 제2중대(장 金元俊중위)를 제5중대 右側으로 제1중대(장, 李承源중위)를 △747(杜峴 西쪽)로 각각

進出시켰다. 제2중대는 美 제72전차대대 B중대 1개소대와의 步戰協同으로 月雲里 東쪽 作戰路를 따라 △773 東南쪽 稜線(4時方向)으로 進出한 다음 제5중대의 支援下에 그 東쪽 無名高地로 進擊하여 急編陣地를 占領하였다. 한편 제1중대(장, 李承源중위)는 △774로 進出한 다음 趙始衡중령의 명령으로 △940 西南쪽稜線(7時方向)을 타고 공격을 開始하였는데 그 中腹에서 敵의 熾烈한 射擊으로 공격이 一時 鈍化되었으나 중대장의 陣頭指揮下에 一齊히 突擊을 敢行하여 血戰끝에 敵의 特火點을 破壞하고 그 一帶를 占領하였다. 이 戰鬪에서 중대장 李承源중위는 壯烈한 戰死를 하였는데 이 때에 제3중대(장, 姜斗鉉중위)는 제1중대를 後續하여 無名高地(△774 北쪽)에 急編陣地를 占領하고 제1중대의 支援態勢를 갖추었다.

8월 20일 : 1. 제5중대 화기소대장 曺成煥소위가 指揮한는 特攻隊는 이날 CO.C1을 期하여 一齊히 躍進, 제2중대 陣地線을 거쳐 △773 背面으로 迂回한 다음 敵의 警戒가 疎忽한 溪谷을 타고 頂上 30m 前方까지 隱密하게 接近한 다음 一齊히 手榴彈을 던지면서 喊聲도 우렁차게 突擊을 敢行하고 이를 信號로 主力(20餘名)과 제2중대(장, 金元俊중위)는 東側과 正面에서 一齊히 突進하였다. 意表를 찔려 三面으로 挾擊된 敵은 散發的으로 抵抗하였으나 이미 그 指揮體系가 무너진 敵은 烏合之卒에 지나지 않았고 士氣衝天하여 左衝右突하는 勇士앞에는 敵手가 되지 못하였다.

02.OO에 △773 頂上을 完全히 占領한 제5, 제2 兩 중대는 敵의 掩體壕와 橫穴壕를 쥐잡듯 搜索하여 戰果를 擴大하면서 모두 爆破한 다음, 제5중대가 右, 제2중대가 左側에 陣地를 占領하고 敵의 逆襲이 對備하였다.

이때에 砲兵은 그 北斜面과 敵主力이 潰退한 △940 東쪽 稜線을 目標로 熾烈한 遮斷射擊을 始作하고 이어서 照明을 계속하여 △773一帶를 대낮과 같이 밝혔다.

날이 새자 제2중대(장, 金元俊중위)의 1개소대는 趙始衡중령의 명령에 따라 目標C(比雅里 西쪽 無名高地)에 대한 공격을 開始하여 △773 北쪽 稜線에서 散發的인 抵抗을 試圖하는 1개소대규모의 敵을 擊破하고 俗稱 비둑고개 一帶를 확보하였으며 그 主力은 제6중대의 △940 공격을 側方支援타가 12.OO에 1개소대로써 △940 右端의 敵을 공격하였으나 敵의 熾烈한 射擊으로 進展을 보지 못하였다.

한편 대대장 趙始衡중령은 제5중대(장, 崔丙吉중위)가 제2중대의 支援下에 △773를 奪取하자 그 餘勢를 몰아 △940을 一擧에 奪取코자 제6중대로 하여금 제7중대의 支援下에 △940 東南쪽 稜線으로 공격케 하는 한편 제1중대(장, 金基鎬중위)는 제3중대의 支援下

에 西南쪽 稜線을 타고 兩翼으로 挾擊토록 措置하였다.

이에 따라 제6중대(장, 金仁德중위)는 後續하는 제7중대와 側方支援하는 제2중대의 掩護下에 黎明공격을 敢行하였다.

중대는 제2, 제5 兩중대가 掌握한 △773쪽으로 迂回하면서 側方으로 공격하였는데 敵은 이곳에도 堅固한 掩體壕를 形成하고 頑強하게 抵抗하였다. 중대는 先頭에서 怒號하는 金仁德중위의 指揮下에 敵線에 突入한 다음 이를 擊破하고 9部稜線으로 肉迫하였을 무렵 熾烈한 敵火에 휩싸여 一進一退의 激戰을 거듭하였으나 그 進展을 보지 못하고 死傷者가 續出하자 제7중대의 掩護下에 그 南쪽 遮蔽點에 急編陣地를 占領하였다.



〈彼我의 砲擊으로 焦土化된 「피의 稜線」上의 983高地〉

한편 제1중대(장, 金基鎬중위)는 後續하는 제3중대의 支援下에 △940 西南쪽 稜線을 따라 突擊을 거듭하면서 △940—△983 連峯의 一角인 無名高地를 奪取하였으나 敵의 集中砲火와 陣前出擊으로 熾烈한 戰鬪를 展開하면서 제3중대의 掩護下에 그 南쪽으로 隨意 後退하여 △983右端의 敵에 射擊을 集中하였다. 또한 제3중대(장, 姜斗鉉중위)는 2개소대로서 熾烈한 側方射擊을 하는 △983 右端의 敵을 공격하였으나 敵의 頑強한 抵抗으로 또한 그 進展을 보지 못하였다.

2. 연대 左一線인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는 이날 대대예비인 제11중대를 右側 第一線에 投入하여 3개중대를 一線에 展開시켜 一齊히 공격을 敢行하였다.

제11중대(장, 鄭昌鎬중위)는 險峻한 地形을 무릅쓰고 △983 南쪽 稜線을 따라 突進하여 頑強하게 抵抗하는 敵을 擊破하고 6部稜線의 無名高地를 奪取하였으나 이 때에 左右兩側과 前面의 敵陣地로부터 熾烈한 射擊을 받았다. 중대는 果敢하게 突擊을 敢行하였으나 그 進展을 보지 못하자 그 南斜面에 急編陣地를 占領하고 熾烈한 射擊戰을 展開하였다.

한편 제9, 제10 兩중대는 각각 전날의 陣地에서 躍進하였으나 밤사이에 더욱 增強된 敵의 頑強한 抵抗으로 突擊線에 이르지 못한 채로 砲兵掩護射擊下에 進出線에 急編陣地를 占領하였다.

공격梯隊인 각 중대는 突進이 鈍化되더라도 後退치 않고 그 進出線에 急編陣地를 占領하였으니 이것은 至近距離에서 突擊의 時期를 捕捉하여 一擧에 目標를 奪取코자 하는 高地爭奪戰 特有의 戰術的 理由도 있었지만 寸步의 進擊도 피의 點綴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將兵은 누구나 피로서 爭取한 一寸의 땅에서도 물러서기를 拒否하였기 때문인데 이와같은 敢鬪精神이 곧 이 攻略戰의 原動力이기도 하였거니와 이 戰鬪狀況을 銳意注視하던 外國從軍記者들은 異口同聲으로 韓國軍의 勇敢性에 驚嘆하였다.

8월 21일 : 1. 目標U 공격의 主攻인 제6중대(장, 金仁德중위)는 △940 東南쪽 稜線의 8部線에서 敵과 對峙하면서 突擊의 機會를 노리던 중 이날 黎明을 期하여 중대장 金仁德중위의 果敢한 陣頭指揮下에 決死的인 突擊을 敢行하였다.

중대는 砲兵의 突擊支援射擊下에 東쪽으로 迂回하면서 △940側方으로 突進하였으나 堅固한 據點을 占領한 敵의 機銃射擊과 手榴彈의 彈幕 그리고 이곳에 集中된 野砲射擊으로 混戰亂鬪의 보람도 없이 큰 進戰을 보지 못하였다.

이에 연대장 黃 燁대령은 期必코 이날중으로 目標U(△940)를 奪還키로 決心하고 제5중대를 除外한 제1, 제2 兩대대 全主力을 投入하여 공격을 再開토록 嚴命하였다.

18.00를 期하여 제2중대(장, 金元俊중위)는 △773 西쪽 稜線에서 側方으로, 제6, 제7 兩중대는 △940 東南쪽 稜線으로 제1, 제3 兩중대는 △940 西南쪽 稜線을 타고 三面으로 一齊히 공격을 敢行하였다.

主攻인 제6중대(장, 金仁德중위)는 제7중대의 支援下에 先頭에서 大號하는 중대장의 뒤를 따라 彈雨를 헤치면서 果敢하게 敵陣으로 突進하였다.

병력이 優勢한 敵은 그 上典의 督戰 속에서 頑強히 抵抗하므로 彼我間에는 凄絶한 血戰이 거듭되었다. 그러나 제7중대(장, 高熙植중위)가 白兵戰에 뛰어들고 助攻인 제2중대(장 金元俊중위)와 제1, 제3중대가 一時에 殺到하자 敵陣에 비로소 動搖의 氣色이 감돌게 되었다. 이에 계속 突進한 제6중대는 20.00에 드디어 △940頂上을 奪還하였는데 이때 중대의 병력은 20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리하여 後續한 각 중대는 敵의 據點을 하나 하나 搜索하면서 戰果를 擴大하고 戰場을 整理한 다음, 제6중대를 중심으로 據點防禦陣地를 占領하고 敵의 逆襲에 대비하였으며, 이날의 공격에 參加하지 않은 제5중대는 전날에 奪還

한 △773를 확보하면서 再編成을 계속하였다.

2. 연대 左一線인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의 3개중대는 敵과 對峙하여 熾烈한 射擊으로 敵을 牽制하면서 突擊의 機會만을 노리던 중, 左一線인 제10중대(장, 白基淳중위)는 이날 未明에 奇襲공격을 敢行키 위하여 △983 西쪽 稜線을 타고 背面으로 迂回하였으나 이때에 地雷가 爆發하여 企圖가 早期에 暴露됨으로써 그 成果를 거두지 못하자 대대장 李圭昇소령은 3개중대가 一齊히 공격할 것을 명령 하였다. 右一線인 제11중대(장, 鄭昌鎬중위)는 特攻組의 手榴彈 공격으로 중대의 進路를 가로막은 無名高地의 敵掩體壕 3개를 一時에 擊破하고 躍進을 거듭하였으나 8部稜線에 이르렀을 때에 또다시 敵의 抵抗에 부딪쳐 一進一退의 血戰을 展開하였다.

한편 제9, 제10 兩중대는 세차례에 걸쳐 突擊을 敢行하였으나 계속 增強된 敵의 抵抗으로 進展을 보지 못하고 각각 進出線에 急編陣地를 占領하고 射擊戰을 계속하였다.

이 △983는 前述한 바와 같이 一帶를 瞰制할 수 있는 高地일뿐만 아니라 그 地形이 橫隔室을 이루어 敵에게 持久의 利를 줌으로써 敵은 이곳을 限死코 防守코자 重點的인 築城과 火力을 集中하였거니와 △773—△940가 奪取된 상황하에서의 敵의 斷末魔的인 督戰은 대대의 進擊을 執拗하게 가로 막았고 많은 損失을 強要하였다.

그러나 全장병은 必勝의 信念으로 한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敵線을 계속 壓迫하고 있었으니 그들의 終末이 時時刻刻 目睫에 닥아오고 있었다.

8월 22일 : 1.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는 △983에 대한 4일간에 걸친 공격에서 큰 進展을 보지 못하고 8部稜線에서 熾烈한 射擊戰을 展開하면서 突擊의 好機를 捕捉코자 노리고 있던중, 이날 01 00를 期하여 각 중대에서의 選拔된 勇士 20명으로써 編成된 60명의 特攻隊는 奇襲공격의 先鋒으로 나섰으나 敵의 熾烈한 射擊으로 그 進展을 보지 못하였다.

이에 연대장 黃 煒대령은 대대의 명예를 걸고 공격을 再開하여 어떠한 難關이 있더라도 이를 克服하고 期於코 △983를 이날중으로 奪取토록 督勵하면서 敵線에 대한 砲兵의 TOT 射擊을 要請하였다.

대대장 李圭昇소령은 제11중대(장, 鄭昌鎬중위)를 右第一線 제10중대(장, 白基淳중위)를 中央第一線, 그리고 제9중대(장, 盧在萬중위)를 左第一線으로 展開하여 三面으로 包圍공격케 하되 전날 寒溪里—瑞和里 進擊戰에서 연대의 進擊을 8일간이나 遲延시킨 要衝인 △1,122를 果敢한 공격으로 奪取한 鄭昌鎬중위가 指揮하는 제11중대에 主攻任務를 賦與키로 하고 제9, 제10 兩중대는 각각 廣正面으로 展開하여 敵火를 分散시키면서 助攻토

록 명령하였으며 대대는 砲擊에 對備하여 進出線에서 一旦 若干 後退케 하였다.

이윽고 正確히 誘導된 砲火는 一齊히 敵線에 TOT射擊을 加하기 始作하고 炸裂하는 爆焰은 아직 밝지 않은 새벽 하늘을 마치 대낮과도 같이 밝혔으며 그 砲聲은 天地를 振動하고 破碎된 岩塊는 破片과 더불어 四方으로 飛散하였다.

射程의 延伸과 더불어 대대는 必勝의 決意도 새롭게 一齊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11중대는 △983 東쪽으로 迂回하면서 砲擊으로 露出된 敵據點을 手榴彈 공격으로 擊破하고 敵線 50m 前方까지 肉迫하였으나 敵의 熾烈한 射擊으로 寸步의 進擊도 어렵게 되었다. 이때에 중대장 鄭昌鎬중위는 從來의 突擊方式으로는 몇번을 거듭하여도 損失만 클뿐, 成功치 못할 것으로 判斷하고 喊聲을 지르면서 急射擊을 加한 다음, 중대를 即刻 그 자리에 遮蔽토록 하였다. 敵은 突擊이 始作된 것으로 錯覺하고 手榴彈의 彈幕을 펴면서 全 自動火器로써 미친듯이 最後阻止射擊을 集中하는듯 하였다. 이 瞬間 중대장은 死角을 찾아내고 火器의 位置를 確認한 다음, 09.30에 중대장 鄭昌鎬중위의 陣頭指揮下에 一齊히 突擊을 敢行하고 數個의 破壞組는 掩體壕로 달려들어 가면서 銃眼안으로 手榴彈을 投擲하여 하나 하나 이를 沈默시켰다.

敵은 無慈悲한 督戰으로 頑強하게 抵抗하였으나 士氣衝天한 중대의 敵手는 되지 못하였는데 중대장이 이끄는 一隊의 突擊組는 背面으로 迂回하여 頂上으로 突進하면서 敵의 待避壕인 洞窟壕入口를 爆破하고 11.50에 드디어 目標T(△983) 頂上을 奪取하였다.

이때에 제9, 제10 兩중대도 果敢한 肉彈공격으로 敵陣을 擊破하고 急速突進하여 제11중대와 合勢한 다음 戰果를 擴大하였으며 李贊植소위가 指揮하는 제11중대 제3소대는 敵을 계속 追擊하면서 △855(△983 北쪽 1km)를 또다시 奪還함으로써 대대 前進陣地를 확보하였다.

이때에 勝戰의 報告를 받은 연대장 黃 燁대령은 作戰開始以來 한번도 웃어본 적이 없었으나 滿面에 웃음을 띠고 마침 연대 OP를 訪問中인 美 제2사단장 Ruffner소장과 뜨거운 握手를 交換하였다.

2. 제1대대(장, 孫介同소령)는 전날 제2대대를 增援하여 △940를 奪取한 다음 제6, 제7중대와 協同하여 이를 확보하였으나 이날 제5중대와 任務를 交代하고 △773에 陣地를 占領하였으며 제3중대(장, 姜斗鉉중위)의 1개소대는 연대계획에 의거한 대대장의 명령으로 目標C(△773 北쪽 1.5km)에 대한 공격을 再開하였다.

3. 제2대대(장, 趙始衡중령)는 제1대대가 연대 右一線으로서 △773를 占領하게 됨에 따라 제5중대를 △940로 復歸시켜 제5, 제6, 제7중대 順으로 陣地를 占領하여 右로는 제1대

대와 左로는 제3대대와 각각 陣地를 連繫하고 補強하면서 敵의 逆襲에 對備하였다.

라. 전투후의 개황

제36연대作命 제32호(51. 6. 17)에 의거하여 6월 18일 06.30에 공격을 開始한 연대는 8월 20일에 △773를, 21일에 △940를, 그리고 22일에는 主目標인 △938를 奪還하여 "피의 稜線" 一帶를 확보하였으나 23일부터 逆襲의 氣勢를 보이기 始作한 敵은 이날 12.00에 △938를 三面으로 包圍하면서 侵襲하였다.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는 제2대대의 側方支援下에 이를 擊退하였으나 北共 제5군단예비인 제6사단 제13연대의 增援을 받은 敵은 계속 強力한 攻勢를 試圖하여 연대 全正面을 威脅하고, 16. 02.00에는 1개연대규모의 敵이 또다시 △983를 三面으로 包圍하면서 侵襲하였다.

제3대대(장, 李圭昇소령)는 即刻誘導된 砲兵支援射擊下에 果敢한 肉薄戰을 展開하여 이를 阻止하였으나 西側背로 侵襲한 敵의 挾擊으로 대대는 頂上附近으로 陣地를 縮少編成하고 四周防禦陣地를 占領하여 手榴彈을 投擲하면서 凄絶한 白兵戰을 벌여 이를 끝까지 死守하였으나, 계속되는 醜敵의 波狀攻勢로 말미암아 상황은 時時刻刻으로 危急하게 되었다. 이에 연대장 黃煒대령은 美제2사단장 Ruffner소장의 指示에 따라 대대의 後退를 명령하고 대대는 10.00에 急遽出動한 美 전차중대와 제2대대(장, 趙始衡중령)의 掩護下에 包圍網을 뚫고 月雲里로 逐次撤收하여 散兵을 收拾한 다음, 11.00를 期하여 古方山里附近으로 進出한 美제9연대(장, Charles C, Sloraе, Jr. 대령) 예하 1개대대의 支援下에 反擊을 敢行하였으나, 敵의 거센 抵抗으로 進展을 보지 못하자 △940로 進出하여 제2대대(장, 趙始衡중령)를 增援하였다.

27일 06.00, 짙은 안개속에 △773로 隱密하게 接近한 1개대대 규모의 敵이 제1대대(장, 孫介同소령) 正面을 強襲하면서 中央突破를 試圖하였다. 대대는 即刻 開始된 砲兵彈幕射擊下에 一進一退의 激戰을 展開하였으나 계속적인 敵의 波狀攻勢로 正面을 遂縮하자 敵은 제1, 제2대대의 間隙으로 侵透하면서 突破口를 擴大코자 하였다. 이에 대대는 제2대대(장, 趙始衡중령)와의 協同으로 突破口를 封鎖하면서 逆襲을 決行하여 陣地를 回復하고 熾烈한 攻防戰을 계속하였다. 14.00에 제2대대는 △940로 進出한 美 제9연대예하 2개중대에 陣地를 引繼하고 △773 西쪽 稜線으로 陣地를 遂縮하여 密集防禦態勢를 갖추었다. 또 增援中인 제3대대主力은 제1대대 右側으로 增援함으로써 연대는 △773를 中心으로 한 固守陣地를 확보하여 血戰에 血戰을 거듭하였으나 △940를 담당한 美 제9연대 一部의 陣地가 突破되면서 敵은 西側方으로 迂回하여 杜密을 威脅하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全正面의 敵은 一齊히 攻勢를 取하였다. 연대는 果敢한 近接戰으로 이를 阻止하였으나 後方으로 迂回한 敵이 그 侵攻氣勢를 더욱 넓혀 完全包圍의 危機에 陷入하자 연대장 黃煒대령은 Ruffner 소장의 명령에 따라 『각 대대는 23.00까지 △587(杜密 東南쪽)에 集結하라』고 명령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각 대대는 古方山里附近으로 進擊한 美제9연대의 掩護下에 包圍網을 突破하면서 △587로 撤收한 다음, 散兵을 收拾하고 그 北斜面에 陣地를 占領하여 敵의 계속적인 侵襲을 阻止하였다.

이때 사단장 閔機植준장은 군단장 Byers소장의 指導에 따라 사단作指 제42호를 下達하여 제35연대(장, 高白圭대령)를 8월 27일 24.00附로 美 제2사단에 配屬과 동시에 疲勞와 戰痕에 얼룩진 제36연대(장, 黃煒대령)의 作戰任務를 引受토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제35연대는 이날 17.00에 德谷里로

進出한 다음, 24.00에는 月運里로 進擊하여 제36연대(장, 黃燁대령)와 交代함으로써 제36연대는 8월 28일 10.00附로 美 제2사단으로부터 配屬해제와 동시에 倉里(楊口 東南쪽 5km)로 移動하여 再編成에 着手하였다. 한편 제35연대는 28일 09.00를 期하여 제3, 제2 兩대대를 공격梯隊로 △773에 대한 공격을 敢行하여 13.25에 頂上을 奪取, 확보하였으나, 이날 23.40에 敵의 逆襲으로 一旦 後退하였다가 29일 01.30에 再次 공격을 敢行, 이날 10.30에 △773 頂上을 再奪還하였다.

이때에 美 제9연대(장, Charles C, Sloane Jr 대령)는 제35연대의 △773 奪取와 同時에 △983—△940에 대한 공격을 決行하기 始作하고 30일 18.50에는 그 一部병력이 △773로 進擊함으로써 연대는 Ruffner소장의 명령에 따라 이에 陣地를 引繼하고 美 제2사단에서 配屬해제와 동시에 제5사단의 새로운 作戰任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竹浦洞附近으로 集結하기에 이르렀다.

이즈음, 美 제10군단장 Clovis E, Byers 소장은 "피의 稜線" 一帶를 비롯한 군단正面의 敵勢가 더욱 擴大하여 감에 따라 예하 全사단을 一線展開시켜 각 사단의 戰鬪正面을 調整하고 Hays線(加田里 西北쪽 4km의 城为洞 一五希嶺—加七峯—北雅里 北쪽 3km의 朴達고개)으로 一齊히 進擊시켜 敵의 侵勢를 擊破하고 Punch-bowl(亥安盆地), 一帶의 制高點을 完全히 掌握케 하여 敵의 威脅을 除去함은 勿論, 敵을 도리어 壓迫코자 決心하였다. 이리하여 군단예비인 美 제1해병사단(장, Gerald C. Thomas 소장)은 제8사단(장, 崔榮喜준장)과 美 제2사단 제23연대(장, James Y. Adams 대령)의 一部陣地를 引受하여 군단 中央右翼 사단으로서 Hays線上의 目標 Y(亥安盆地 北端 月嶺山)를, 제5사단(장, 閔機植준장)은 美 제23연대主力의 담당하던 兜率山(△1,148) 一帶의 陣地를 引受한 다음, 군단 中央사단으로써 目標W(加七峯 △1,242)를 美제2사단(장, Clark L. Raffner소장)은 계속 군단 中央左翼사단으로써 피의 稜線一帶 高地를 공격하는 一方 目標 Z(△1,169)를 각각 併行공격토록 명령하였다(註, 군단右翼은 제8사단, 左翼은 제7사단임).

이에 따라서 사단장 閔機植준장은 사단作命 제51호를 下達하여 8월 23일 18.30附로 제8사단(장 崔榮喜준장)으로부터 原隊復歸하는 제27연대(장, 俞義濬대령)를 右一線, 美 제2사단으로부터 原隊復歸하는 제35연대(장, 高白圭대령)를 左一線으로 하여 兜率山附近의 Kansas線上의 主陣地를 占領케 한 다음 사단作命 제52호(8. 30. 12 00)로써 제27연대를 공격梯隊로 하여 8월 31일 06.00를 期하여 目標W(加七峯)에 대한 공격을 敢行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사단 CP는 野村里(楊口東北쪽 5km)에 位置하였으며 제35연대(장, 黃燁대령)는 倉里에서 再編成을 계속하였다.

本作戰期間中 연대의 戰果와 損失은 다음과 같다.

戰 果	損 失
射殺—1,250명	戰死—8/131명
捕虜—63명	戰傷—44/850명
重機—10정	失踪—4/196명
輕機—14정	合計—56/1,177명
多發銃—50정	
小式長銃—106정	

§ 參戰者의 證言

◇ 제36연대장 黃 煒대령

(1973년 3월 7일, 전매협동조합 豫소장)

피의 枝線은 우리연대가 美 제2사단에 配屬되어 공격하였는데, 目標 △983—△940—△773를 t(△983). u(△940). v(△773)로 命名하였기 때문에 t u.v戰鬪라고도하였다.

이 피의 枝線은 敵이 2個月에 걸쳐 木材를 使用하여 要塞化한 다음 箱子로 된 對人地雷를 2,000發以上 埋設하고 北共 제2, 제5군단의 砲兵支援을 받고 있었다.

이때 연대는 美 전차대대를 배속받았으며 航空支援과 美 제10군단 및 美 제2사단砲兵의 支援下에 제2, 제3 兩 대대를 공격梯隊로 하여 공격타가 目標占領時에는 제1대대도 投入하였다.

美 砲兵부대의 熾烈한 射擊에도 敵의 據點이 破壞되지 않아서 兵士들의 肉彈공격에 依存하여야만 하였다.

이 戰鬪에서 1,000餘名의 死傷者가 發生하였는데 이는 樹木이 거의 없어질 程度로 加한 我軍의 熾烈한 砲擊에도 不拘하고 敵의 地雷와 近接戰으로 因한 損失이었으며, 골짜기는 피바다를 이룰 程度의 凄絶한 戰鬪가 계속되었던 것이다.

特히 이 戰鬪에서 제1대대의 一部兵力은 右側에서 步戰協同공격을 敢行하였는데 이 記錄映畵를 뒷날敎材로 使用하기도 하였으며, 분대장級以上에게는 火集點番號가 든 1/6CCC地圖를 支給하여 砲兵支援射擊을 要請할 수 있도록 하였다.

8월 20일에 △773를, 다음날에는 △940를, 그리고 22일에는 主峯인 △983를 逐次로 奪取하였는데 26일 새벽에 2개사단규모의 敵이 反擊하여옴으로써 血戰의 보람없이 失陷하고 美 제2사단에 引繼한 다음 사단에 복귀하여 再編成에 着手하였다.

◇ 제36연대 제2대대 작전장교 및 부대대장 申弘亮대위

(1973년 4월 26일, 육군본부 준장)

피의枝線 戰鬪에서 뼈아프게 느낀 것은 敵의 地雷로 발목이 잘린 戰傷者가 많이 난 것인데 이는 指揮官들의 責任도 一部 있다고 본다. 敵이 防守態勢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러한 것을 豫想하고 事前에 措置를 取한 다음 進路를 開拓하여 공격을 시켰어야 하는데 無條件 命令만 내리고 突進하라는 것이었다. 勿論 與件이 좋은 狀態는 아니었지만 보다 部下를 사랑하고 人命을 所重히 여겼다면 공격日守의 延期建議라도 하고 敵이 設置한 豫想障碍物을 可用한 모든 手段을 써서 除去한 다음 공격 했어야 할 것으로 본다.

12. 松峴里—松亭洞附近 戰鬪 (1951년 8월 16일부터 / 1951년 9월 2일까지)

참조 : 별책부도 제29, 30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제7사단	장	준장 金 容 培
		준장 李 成 佳 (9월 1일부터)
제3연대	장	대령 鄭 震
제1대대	장	소령 李 鍾 宅
제2대대	장	대위 崔 基 宗
제3대대	장	대위 曺 元 哉
제5연대	장대리	중령 蔡 命 新
제1대대	장	소령 羅 鎭 日
제2대대	장	소령 金 晶 煥
제3대대	장	대위 盧 沈 根
제8연대	장	대령 崔 周 鍾
		중령 金 基 東

(9월 1일부터)

제1대대	장	소령 咸 炯 甲
제2대대	장	소령 林 春 勃
제3대대	장	대위 宋 寅 奎
대전차공격대대	장	소령 朴 周 用
제7포병단	장	소령 文 在 駿
제7야전공병대대	장	소령 金 利 德

인접부대

美제2사단	장	소장 Clark L. Ruffner
韓제6사단	장	준장 張 都 暎

병 력 : 11,693명

장 비 : T/E상 완전편제

敵 軍

北共제5군단	장	중장 方 虎 山
제 6 사단	장	소장 洪 林
제12사단	장	소장 崔 忠 國
제32사단	장	소장 金 大 弘

병 력 : 15,800명

나. 전투전의 개황

6월중순에 楊口 北쪽의 Badger線에서 搜索據點을 확보한, 제7사단(장, 金容培준장)은 休戰會談과 장마로 말미암아 일시 膠着된 戰線을 박차고 8월중순에 다시금 北進을 시작하여 이 전투를 展開하였는데, 이로써 北共제5군단과의 激戰끝에 白石山(△ 1,142) 東南麓의 △ 554—△ 901 要線을 占領케 되었다.

6월末에 公式擧論된 休戰문제가 7월에 들어서면서 開城에서 회담의 개최를 보게되므로, 이에 妥結의 가능성을 바라게된 UN군사령관은 我軍의 過剩한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7월 한달 동안에 걸쳐 前線各部隊로 하여금 敵과의 衝突을 抑制토록 하였다. 이때에 敵은 이것을 奇貨로 하여 空地兩面의 戰力補強에만 狂奔함으로써 全 戰線은 表面上으로 小康狀態를 보이게 되었다.

7월중순 敵側의 트집으로 회담이 決裂되므로 제8군사령관 Van Fleet대장은 이에 대한 對應措處로 21일에 韓제1, 美제10兩군단으로 하여금 亥安盆地(Punch bowl)를 공격케 하였다.

그러나 때마침 30년래의 큰 장마로 美 제2사단(장, Clark L. Ruffner소장) 제38연대가 Punch-bowl 西壁의 瞰制高地인 大愚山(△ 1,178)을 점령한 것만으로 일단 作戰을 中止케 되었으니 戰線은 다시 現狀대로 固着되는 듯한 느낌마저 들게된 것이다.

Van Fleet대장은 이와같은 UN 戰線의 安逸한 惰性化와 韓國軍의 髀肉之嘆을 解消코자 戰機의 捕捉에 焦慮하게 된 결과 8월중순에 天候가 회복됨에 따라 곧 攻勢意慾을 鼓舞키로 決心하였다.

이리하여 그는 東海岸의 南江 南岸을 따라 北漢江 東岸에 이르는 東部戰線의 灣曲部를 수정함으로써 防禦正面을 최소한으로 축소시키는 한편 敵의 攻勢策源地인 Punch-bowl의 포위태세를 強化하여 이에 대한 次期攻略을 容易케 한다는 作戰概念아래, 제1군단(장, 白善燁소장)은 Punch-bowl 東北의 「J字稜線」을, 美 제10군단(장, Colvis E. Byers소장)은 大愚山 西쪽 沙汰里—文登里間의 H字稜線上 △ 983(一名 「피의 稜線」)를 각각 占領토록 하는 공격임무를 부여하였다.

이에 美 제10군단장 Byers소장이, 韓國軍의 士氣 昂揚을 念頭에 둔 Van Fleet대장의 配慮에 따라 제5사단(장, 閔機植준장) 제36연대를 美 제2사단(장, Clark L. Ruffner소장)에 배속시켜 이 연대로 하여금 △ 983를 공격케 하고, 군단 左翼 제7사단(장, 金容培준장)으로써 同高地 左側 文登里道路를 瞰制하는 △ 554—△ 901을 併攻토록 함으로써 이 戰鬪가 惹起된 것이다.

이攻勢의 動機는 이와 같거니와 다음과 같은 理由로 이 戰鬪는 必然 高地의 爭奪이 반복될 것이며 그 經過의 樂觀을 不許하는 것이었다.

첫째 : 敵이 2개월 동안 晝夜不斷으로 補強한 防禦陣地의 堅固性

둘째 : 敵의 1개 군단正面을 1개사단으로써 突破分斷코자 하는 戰線의 過廣性

세째 : 攻者인 사단이 Kansas線과 Badger線을 각각 계속 확보하여야 한다는 攻守兩面의 부담으로 말미암은 兵力使用의 分離性

敵軍의 狀況 : 6월중순에 中東部戰線의 北共제2, 제5兩군단이 美 제10군단에 의하여 New Kansas線 北쪽으로 潰退되자 北共軍은 후방에서 急編한 새로운 1개군단을 東海岸防守에 投入함으로써 前線군단(제5, 제2, 제3군단)의 戰鬪地境線을 縮少하여 東部地域의 防禦密度를 증가시키고 이와 아울러 「적극적인 對砲兵과 對戰車 및 夜間奇襲의 配合으로 寸土까지라도 死守한다」는 標榜아래 砲兵火力을 增強시키는 등 그야말로 前線維持에 안간힘을 다 하는듯 하였다.

美제8군 G—2는 敵砲兵의 대부분이 美제9, 제10 兩군단 正面에 집중되어 있으며 또한 急激한 數的 增加趨勢를 보이고 있다고 指摘하였는데 7월말에서 8월초에 걸친 情報報告中 「敵砲兵狀況分析」에 따르면 美제10군단 正面에는122mm, 105mm, 75~76mm等 各種砲 160餘門이 放列된 것으로 推算되었으며, 그 陣地는 水入川과 西川 및 昭陽江上流의 계곡에서 北共제5, 제2兩군단을 支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들 砲兵은 그간 我軍의 砲兵 및 戰車陣地에 대한 制壓砲擊을 주로 하였으나, 7월말 美 제2사단에 의하여 六愚山을 점령당한 뒤 부터는 我軍 前進陣地에 대한 牽制射擊으로 그 重點指向을 바꾼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이때에 特記할 사항은 敵 高地 稜線上에 單獨砲座를 설치함으로써 砲兵을 最前線으로 推進하는 듯하였는데 이는 「적극적인 對砲兵투쟁」과 山岳戰에서의 긴밀한 步砲協同을 試圖하기 위한 方便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그보다는 「寸土死守」의 決意를 誇示하여 萎縮된 戰意를 불러 일으키려는 煽動的인 展示效果를 노린 것으로 分析되었다.

이와같은 전반적인 敵의 움직임에 따라, 北共제5군단은 제1해병연대(장, 金六植대령 : 美해병사단 配屬)가 兜率山을 점령한 6월 18일을 前後하여 그 예하 北共 제12사단으로 하여금 北共 제2군단 제27사단과 戰線을 交代케 한 다음, 군단 全兵力을 白石山부근에 集結시키고, 北共 제6, 제32 兩사단으로써 제7사단 (장, 金容培준장)正面에서 방어진지를 強化케 하는한편 北共 제12사단으로써 戰列을 整備케 하였다.

同군단은 7월24일을 前後하여 다시 北共제6사단과 제12사단을 交代시켜 제6사단을 군단 예비로 돌리고, 제12, 제32兩사단을 각각 一線으로 하여 Badger線 北쪽의 △892—△ 621—△ 883—△ 901—△ 554에서 防禦線을 占領케하였는데 同군단의 兵力은 다음과 같이 推算되었다.

군단본부	1,500명	제12사단	3,950명
제 6 사단	3,150명	제32사단	5,400명
계	14,000명(육본 情報局 종합판단)		

이 가운데 前線부대인 北共제12, 제32兩사단의 裝備는 각각 10여문의 곡사포와 50여문의 박격포 및 100여정의 기관총 等으로서, 6월중순에 비하여 重火器가 補強된 듯 하였으나, 全般的인 士氣나 戰意는 대체로 저하된 상태였으니, 이는 敵의 補給推進이 如意치 않음에 基因된 것으로 풀이 되었다.

我軍의 狀況 美 제10군단(장, Colvis E, Byers소장)이 6월중순에 Kansas線을 확보한 뒤로 8월중순에 이르기까지, Badger線 搜索據點에서의 수색활동以外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으나, 7월 16~17兩日間에 걸쳐 美 제1해병사단(장, Gerald C, Thomas소장)이 美 제2사단(장, Clark L, Ruffner소장)과 그리고 21일에는 제5사단(장, 閔機植준장)이 제8사단(장, 崔榮喜준장)과 각각 戰線을 交代한 바 있었다.

이리하여 군단은 韓제7, 제8 및 美제2의 3개사단으로 새로운 陣容을 갖추게 되었는데 이때 제7사단(장, 金容培준장)은 제3연대(장, 鄭 震대령)로써 華川貯水池 北쪽의 New Kansas線을, 제5연대(장, 대리蔡命新중령)로써 貯水池 南쪽 Kansas線을, 그리고 제8연대(장, 崔周鍾대령)로써 Badger線을 각각 담당케 하여 陣地를 강화하면서 敵情을 蒐集하고 있었다.

8월에 들어서면서부터 逆擊의 戰雲이 일기 시작함에 따라 사단장 金容培준장은 Badger線의 搜索據點이 장차 前進陣地로 變換할 것으로 내다보고 제2선에서 戰力을 보강한 제3연대로 하여금 이를 맡당케 하였다.

이리하여 사단은 11일~13일 사이에 공격준비를 위한 布石으로 제3, 제8兩연대의 임무를 서로 交

代케 한 다음, 군단의 戰線動向을 銳意 注視하고 있었는데, 14일에 군단으로부터 △ 554—△ 901에 대한 攻擊命令이 下達됨으로써 15일에 指揮所를 內坪里에서 竹里(楊口 南쪽 3km)로 推進하는 동시에 제5연대 일부병력으로써 제일선인 제3연대의 支援態勢를 갖추기에 이른 것이다.

이때 사단의 兵力은 砲兵團과 직할대를 포함한 본부인원 3,645명과 제3연대 2,813명 및 제5연대 2,735명 그리고 제8연대 2,500명 等 모두 11,693명이었으나 그 가운데 실제로 공격에 參加할 수 있는 병력은 1개연대에 지나지 않아, 敵의 防禦兵力보다 오히려 數的인 劣勢를 免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단의 裝備는 T/E上으로 充足되었으며, 이에 군단 155mm 곡사포 1개砲隊(美 제96야포대대 A중대)와 戰車 1개소대가 支援될 것이고 美 제5空軍의 支援도 豫期되므로, 火力面에 있어서는 敵을 凌駕할 수 있었다.

이와같은 狀況아래, 出擊을 준비한 사단 右側에는 美 제2사단 제9연대(장, John M, Lynch대령)가 杜密嶺—△ 757의 New Kansas線을, 그리고 左側에는 제6사단 제19연대(장, 林益淳대령)가 北漢江 西岸의 Ermine線을 각각 확보하고 있었는데, 이때 사단의 각급 지휘소 위치는 다음과 같았다.

사단본부 및 대전차공격대대—竹里

제3연대—立石里　　제8연대—松峴里

제5연대—水仁里　　제7포병단—德巨里

이 戰鬪는 便宜上 다음의 3段階로 區分하여 叙述키로 한다.

(1) 登梅洞—松亭洞附近戰鬪(8. 18~8. 23)

(2) △ 536戰鬪(8. 25~8. 27)

(3) △ 554—△ 901戰鬪(8. 30~9. 2)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登梅洞—松亭洞부근 전투(8. 18~8. 23)

(가) 작전계획

6월말에 戰線이 膠着된 以來, 美 제10군단(장, Colvis E. Byers소장)의 Kansas線을 굽어보는 敵의 壓制要衝인 大愚山과 △ 983(피의 稜線) 가운데, 그 左肩인 大愚山을 美 제2사단(장, Clark L. Ruffner소장)이 占領하여 捜索據點을 占領하게 된 7월말, △ 983는 더욱 彼我 爭奪의 초점으로 浮刻되었다.

다시 말하면 美 제5공군의 制空權 장악에 따라 敵으로서는 地上觀測을 위하여 이의 確保 價値가 절대적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제8군에서는 이러한 敵의 意表를 찔러 이 △ 983를 奪取하는데 注力하게 된 것이니 이에는 彼我 攻守兩面의 據點인 玄安盆地(Punch-Bowl)에 대한 포위태세를 갖춘다는

것과 敵의 Kansas線 瞰制要衝을 粉碎함으로써 同線의 威脅을 除去하고, 나아가서는 北共軍의 前線 補給集積地인 文登里를 威脅하여 防禦線의 北上을 強要한다는 두가지의 企圖가 內包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美 제8군의 作戰槪念에 따라 美 제10군단장 Byers소장은 美 제2사단(韓國軍제36연대배속)으로 △ 983를 공격토록 계획하였는데 이때에 同高地 西쪽 3km에 있는 △ 554의 확보에 대한 必要性을 느끼게 되었다.

이는, △ 554가 △ 983 西麓을 협격하는 位置에 있을 뿐만 아니라 同高地를 확보함으로써 비로소 楊口—古方山里—文登里間의 補給路를 장악할 수 있다고 判斷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水入川이 文登里에서부터 △ 554東쪽을 감돌아 古方山里—長坪里로 西南 向하여 제7사단(장, 金容培준장)地域으로 흘러들고 있으므로, 이 河川의 장애로 말미암아 美 제2사단으로서는 同高地의 공격이 容易치 않을 것이 豫期되었다.

이에 군단장은 美제2, 제7兩사단의 戰鬪地境線 일부를 수정하여 同高地一帶를 제7사단의 戰鬪地域으로 編入시켜 同사단으로 하여금 이를 공격케 할 것을 決心하고 8월 14일에 兩사단의 전투지경선을 △ 757—古方山里—乾率里로 변경(8. 18. 12.00附)한 다음 作戰指示 제217호로 『제7사단은 Kansas線을 계속 확보하면서, 일부병력으로 8. 20. 06.00를 期하여 △ 554를 공격 점령하라』는 要旨를 下達하였다.

이리하여 사단은 새로운 接境線이 水入川으로 변경됨으로써 담당地域이 東쪽으로 3km 확대되는 同時에 △ 554공격임무를 부여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때에 사단의 情報分析으로서는 敵이 △ 554보다는 그 線上의 △ 901(△ 554西쪽 2.5km)—△ 883(△ 901西쪽 2.5km)에 主抵抗線을 形成하고 있는 것이 確實하므로, 사단장 金容培준장은 이△ 554공격에 앞서 △ 901—△ 883의 占領이 先行되어야 한다는 斷案아래 計劃을 樹立하여, 이를 8월 15일 05.00에 作命제118호로 下達하였으니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사단은 군단命에 의거 일부병력으로 當面의 敵을 격파하고 △ 554—△ 901—△ 883에 前進陣地를 확보하려 한다.

② 제3연대는 8. 15. 17.00까지 Badger線上의 陣地一部(△ 757—△ 731)를 제 5연대에 인계한 다음, 8. 16. 06.00를 期하여 목표 ① △ 883—② △ 901—③ △ 554를 8.22. 24.00까지 逐次的으로 공격 점령하라.

③ 제5연대는 1개대대로 華川貯水池 南岸의 Kansas線을 계속 확보케 하고 1개대대로서 8. 15. 17.00까지 제3연대의 △ 757—△ 731陣地를 인수하여 同연대의 공격을 掩護

케하는 동시에 나머지 연대主力은 8. 16. 18 00까지 五味里에 집결하여 次期作戰을 대비하라.

④ 제8연대는 華川貯水池 北쪽의 New Kansas線 확보임무를 계속 수행하되 8. 15. 17. 00까지 1개대대로 제5연대의 Kansas線 진지 일부를 인수토록 하고 1개소대로 하여금 坪里의 砲兵陣 前方砲陣地를 경계토록 하라.

⑤ 대전차공격대대는 사단지휘소를 계속 경계하라.

⑥ 제7포병단은 8. 16. 05.00까지 2개砲隊를 坪里에 推進케하여 제3연대를 직접지원하라.

⑦ 제7야전공병대대는 德巨里—坪村—長坪里—陽地村—登梅洞間의 보급로를 補修하여 제3연대를 지원하되, 1개소대로 하여금 地雷地帶를 通한 進路를 誘導케 하라.

⑧ 제103重迫擊砲중대는 제3연대를 직접 지원하라.

⑨ 指揮所는 竹里에 位置한다.』

(나) 작전실시

8월 18일 : 사단의 공격第一線인 제3연대는 15일 저녁에 연대 左一線인 제3대대가 占領한 △ 752—△ 731 陣地를 제5연대 제2대대(장, 金昌煥소령)에 인계한 다음 △ 513—△ 616—△ 917에 제1, 제3, 제2대대순으로 부대를 전개하여 16~17兩日에 걸쳐 제2대대로 하여금 △ 917에서 東北으로 뻗은 稜線을 따라 目標 ①인 △ 883를 공격토록 하였으나 이에 앞서 △ 917—△ 883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俗稱 양갈래高地(△ 917 北쪽 1km)에서 意外의 障壁에 부딪쳐 공격의 進展이 如意치 않았다.

이에 이날 사단장 金容培준장은 同연대로 하여금 逐次공격을 全面 同時 공격으로 變更케하여 敵의 支援火力을 分散시키는 同時에 特定한 防禦據點에 대한 敵의 兵力 集中을 妨害하도록 陽動케 하였다.

1. 제3연대(장, 鄭 震대령)는 06.00에 △ 901—△ 883—양갈래 高地에 대한 同時攻擊을 시작하였다.

연대 右一線인 제1대대(장, 李鍾宅소령)는 △ 513로부터 △ 901를, 中央의 제3대대(장, 曺元哉대위)는 △ 616에서 △ 883를, 그리고 左一線인 제2대대(장, 崔基宗대위)는 △ 917에서 양갈래高地를 目標로 각각 공격하였다.

그러나 敵 陣地 前面에는 地雷와 障碍物이 設置되고 陣內에는 砲擊과 空中爆擊에도 能히 支撐할 수 있는 掩蔽物이 構築되어, 敵은 여기에서 執拗하게 抵抗하므로 연대의 戰況은 전

날과 다름없는 難局을 보이게 되었다.

따라서 第1線 3個대대는 終日토록 山腹에서 激突만을 반복하고 있었는데 홀로 제3대대의 수색소대가 △901와 △883사이의 溪谷 左側에 있는 △550(△616 北쪽 1.5km)를 거쳐 △883 東北쪽으로 迂回하여 同高地의 敵 背後를 공격한 결과 14.25에 高地를 占領한 바 있었으나, 큰 損失을 입은 同小隊는 白石山에서 △883로 連하는 稜線을 따라 敢行되는 逆襲으로 20.40에 同高地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2. 제5연대(장, 蔡命新중령)는 제2대대(장, 金晶煥소령)가 제3연대 左一線의 제2대대 陣地를 인수함으로써, Badger線의 左側一部를 담당케 됨에 따라 제3대대(장, 盧沈根대위)를 연대예비로 五味里에 推進시켜 前線戰況의 推移에 대비케 하고 제1대대(장, 羅鎭日소령)를 華川貯水池 南쪽 Kansas線을 계속 확보케 하였다.

3. 한편 제8연대(장, 崔周鍾대령)는 貯水地北쪽의 New Kansas線을 확보하면서 戰勢의 推移를 注視中이었다.

8월 19일 : 이날 사단장은 제3연대의 공격이 3일간이나 膠着狀態에 빠지게 된 原因을 分析한 결과 同연대가 Badger線의 防禦부담으로 말미암아 攻擊力을 集中할 수 없음에 基因한다고 판단하게 되어 제3연대로 하여금 攻擊에만 專力케 하기 위하여 Badger線에 대한 防禦力을 增強시키기로 決心하고 08 00에 要旨 다음과 같은 作戰指示 제72호를 下達하였다.

『① 제3연대는 8. 19. 10.00부로 제5연대 1개대대를 統合指揮하라.

② 제5연대는 1개대대를 제3연대에 配屬시키고 Kansas線 陣地는 대전차공격대대에 인계하라.

③ 대전차공격대대는 2개 중대로 8. 19. 17.00까지 제5연대의 Kansas線陣地를 인수케 하고 1제중대로는 사단지휘소 경계를 계속토록 하라.』

1. 제3연대장 鄭 震대령은 이날 10.00부로 통합지휘케 된 제5연대 제3대대(장, 盧沈根대위)로 하여금 연대 左一線陣地이자 Badger線上의 突出部인 △917를 제3연대 제2대대(장, 崔基宗대위)와 交代引受케 하여 이를 확보토록한 다음, 예하 3개대대 全兵力으로 공격키로 決心하였다.

이리하여 전날과 같이 제1대대는 △901를, 제2대대는 양갈래高地를, 제3대대는 △883를 각각 공격하였으나 그 進展이 如意치 않아 支援火力으로 敵의 火力據點 擊破에 注力하게 되었다.

2. 제5연대(장, 蔡命新중령)는 사단 作戰指示 제72호에 따라 예비대인 제3대대(장, 盧沈根대위)를 제3연대에 配屬하고, 제2대대(장, 金晶煥소령)는 계속 Badger線 左端을 확보케 하는 한편 Kansas線의 제1대대(장, 羅鎭日소령)를 五味里에 推進시켜 연대예비로 控置하였다.

이리하여 2개대대를 Badger線에 投入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단 左一線을 담당케 된 연대는 右一線인 제3연대가 北共제12사단의 防禦前面을 공격하는 동안 이를 側方掩護하면서 北共제32사단의 反擊企圖를 牽制케 되었는데 이날 終日토록 敢行된 제3연대의 力攻에도 不拘하고 戰況의 進展을 보지 못하자 18 00에 사단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要旨의 修正作戰指示 제73호가 下達되었다.

『① 제3연대는 8. 19.20 00부로 제5연대 제3대대의 配屬을 해제하고 同대대 담당地域을 제5연대에 인계하라.

② 제5연대는 제3대대의 原復과 동시에 同대대의 戰鬪地域을 제3연대로부터 인수하여, 양갈래高地를 공격 점령하라.』

이에 따라 연대장 蔡命新중령은 제3대대로 하여금 양갈래高地를 夜間攻擊토록 명령하였는데 이때에 同대대는 제9중대(장, 姜八萬중위)를 △ 917에, 제10중대(장, 金鍾行중위)를 그 右側 △ 917—△ 616間의 稜線에, 그리고 제11중대(장, 徐載松중위)로써 左側 △917—△752間의 稜線을 각각 占領케하여 제3연대의 左側方을 防禦中이던 바 연대장으로부터 공격명령을 받은 대대장은 대대 左一線인 제10중대를 攻擊一線으로 選定하고, 19 30에 同중대의 陣地를 제11중대 1개소대에 인계토록 한 다음 20.00에 △ 917의 東北稜線을 따라 양갈래高地를 目標로 夜間奇襲케 하였다.

이리하여 제3연대의 공격임무의 일부를 承繼케 된 제10중대(장, 金鍾行중위)는 20.30에 △ 917—양갈래高地 中間의 稜線 鞍部에 進出한 다음, 1개소대로 하여금 양갈래 高地左側을 迂回하여 嶺嶺(양갈래高地 北쪽 1km)으로부터 目標의 背後를 急襲케 함으로써 敵의 戰力을 分散시키는 동시에 增援을 차단토록 한 다음, 중대 主力으로써 敵陣으로 突入하였다. 이리하여 중대는 다음날 00.30에 同高地 西南쪽의 敵 陣地까지 포복으로 肉迫한 다음 01.00에 중대장의 號令一下에 일제히 수류탄을 投擲하면서 敵陣으로 突擊을 敢行하였다.

그러나 敵의 頑強한 抵抗으로 말미암아 熾烈한 수류탄戰이 전개된 끝에 중대의 제1차突擊이 中折되었는데, 이에 굴하지 않고 날이 밝기까지 무려 여섯차례에 걸쳐 突擊을 反復하였다.

8월20일 : 1. 제3연대(장, 鄭震대령)는 연대 OP를 △ 616로 推進하여, 04.00에 공격을 재개하였다.

제1대대(장, 李鍾宅소령)는 이날 06.00에 △ 901의 敵의 前進陣地인 △ 556(△ 901 南쪽 1.8km)를 점령하고 이어 그 北쪽 稜線을 따라 △ 901를 공격하였으며 전날밤 양갈래高地 공격임무를 제5연대 제3대대(장, 盧沈根대위)에 인계한 제2대대도 이날 아침 제1대대 左側에서 △ 901를 併攻하였다.

이리하여 △ 901의 敵과 終日 激戰을 거듭한 끝에, 제2대대가 제1대대를 超越한 다음 △ 901를 西北으로 迂回하여 17.25에 △ 901—△1,024(△ 901 北쪽 1.8km) 中間의 稜線을 占領함으로써 敵陣을 分斷하기에 이르렀으며, 제1대대가 △ 901에 全力을 集中하여 敵을 격파함으로써 21.00에 마침내 同高地를 점령하였다.

兩個대대는 곧 四周防禦陣地를 急編하여 이날 밤중 數梯波로 續行되는 敵의 逆襲을 격퇴하고 同高地를 끝까지 堅守하였다.

제3대대(장, 曺元哉대위)도 07.30에 제9중대의 奇襲공격으로 △ 883을 점령하여 확보케 됨으로써 연대는 이날 공격목표인 ① (△ 883) ② (△ 901)를 모두 손에 넣고 최종목표인 △ 554에 대한 공격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2. 한편 제5연대(장, 蔡命新중령)도 이날 아침, 전날 밤에 이어 양갈래高地에 대한 공격을 續行하였는데 제3대대(장, 盧沈根대위)는 같은 目標인 敵陣地에 대한 不撓不屈의 突擊을 계속하였다.

대대장은 判斷하기를 終夜 거듭된 激戰으로 敵의 能力이 적지않게 소모되었을뿐 아니라 제10중대(장, 金鍾行중위)의 反復하는 突擊에 눌려 그 戰意가 또한 不振할 것으로 내다보았는데 이때 마침 △ 883의 敵이 제3대대(장, 曺元哉대위)와의 激突로 그 前進陣地인 양갈래高地를 돌볼 겨를이 없게 되었으므로, 同 중대로 하여금 決定的인 最後突擊을 加하기로 하였다.

이리하여 양갈래高地를 再突擊하게 된 제10중대는 同高地 北麓의 일부병력으로는 계속 敵 後方을 차단케 하고, 李榮南이등중사를 비롯하여 康成彦, 李萬祚, 鄭相泰일등병 및 金子根이등병이 捨身敢鬪로 突進하는 血路를 따라 頂上을 向하여 戰果를 擴大하였는데,

10.00에 중대장 金鍾行중위가 挺身指揮하는 全중대원이 일제히 山頂의 敵陣을 急衝하여 30여분 동안에 걸친 白兵戰끝에 敵을 모조리 殺傷한 다음 高地의 主人公이 되었다.

이에 대대장은 同중대의 일부병력으로 추격을 斷行케하여 高地 西北쪽 山腹일대를 剔抉

케하고 主力으로는 高地에 四周防禦陣地를 構築케 하는 한편, △ 917의 제9중대 1개소대를 頭嶺에 增援시켜 前進陣地를 確保토록하였는데 이 戰鬪에서 제10중대가 거둔 戰果와 損失은 다음과 같다.

戰 果			
射 殺	156명	손式小銃	13정
捕 虜	7명	手榴彈	700발
鹵 獲 輕機關銃	1정	**損 失**	
多發銃	3정	戰 死	7명
		負 傷	26명

연대의 나머지前線은 별다른 움직임 없이 Badger線을 堅守中이며 예비대로 五味里에 控置된 제1대대(장, 羅熹日소령)는 제3연대의 공격으로 말미암은 사단 左—線의 間隙을 補塡하기 위한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제1, 제2 兩個중대로써 연대右接境線의 △ 513—△ 616稜線을 確保케하였다.

8월 21일 : 이날 사단 戰線은 北共제12, 제32兩個사단의 全面出擊으로 戰勢가 激化되었다.

이에 사단장 金容培준장은 17.00에 華川貯水池 南쪽 Kansas線을 제8연대의 1개중대로 遊動警戒토록 하고 대전차공격대대를 제3연대에 配屬시켜 可用한 戰鬪兵員 모두를 Badger線으로 推進함으로써 前線의 戰力增強을 圖謀하였다.

1. 전날 △ 901를 점령한 제3연대(장, 鄭 震대령)의 제1, 제2兩대대는 새벽 02.00부터 同高地의 奪還을 目的하는 2개대대 규모의 敵과 激戰을 벌이는 가운데 밤을 지새우게 되었으나 兵力增援과 彈藥補給이 隨伴되지 못한 탓으로 天明과 더불어 人員의 激減과 彈藥의 缺乏을 보게되었다.

이리하여 더 이상 支撐할 수 없게 된 兩대대는 07.15에 同高地에서 隨意撤收하여 제1중대(장, 裵炳魯중위)로 그 南쪽 登梅洞의 △ 556를 확보케 하고 Badger線 △ 513—△ 616陣地로 復歸하였다.

한편 △ 883에 孤立된 제3대대(장, 曺元哉대위)는 砲兵의 直接支援아래 이날 06.00부터 波狀的인 敵의 逆襲을 격퇴하고, 陣地를 支撐하였으나 15.00에 이르러 增強된 대대규모의 敵이 同高地 東쪽으로 迂回하여 그 東南山腹을 차단함과 아울러 北쪽 稜線으로부터의 正面壓力이 加增되었다.

17.25에 대대 역시 戰力의 激減로 高地의 堅守가 困難케 되었으므로 그 東南쪽 敵의 遮斷線을 突破하고 △ 550(△ 883 東南쪽 1.7km)로 撤收한 다음 제11중대(장, 劉七福중위)

로 그곳을 확보케 하고 제9, 제10兩個중대를 Badger線의 대대陣地에 配備하였다.

2. 한편 이날 제5연대(장, 蔡命新중령)는 전날 제3대대(장, 盧沈根대위) 제10중대가 양갈래高地를 점령한 뒤로 사단 右一線인 제3연대(장, 鄭 震대령)의 공격에 刮目할 만한 進展을 보게되었으므로 이의 側方을 掩護하는데 注力케 되었다.

그런데 연대前面의 北共제32사단이 2개대대규모의 兵力으로 연대 左一線인 제2대대(장, 金晶煥소령)를 공격함으로써 연대 또한 아침 일찍부터 敵과 激突케 되었다.

敵의 일부는 高陽洞(水於口 東쪽 2.5km)—馬哥垈(高陽洞 東쪽 1.2km)를 거쳐 △ 772(△ 917 西南쪽 1.8km)의 제5중대(장, 文炯述중위)를, 그리고 다른 일부는 間垈(高陽洞 南쪽 1km)—松亭洞(間垈 東南쪽 1.5km)으로 侵襲하여 △ 743(△ 772 南쪽 1km)의 제6중대(장, 尹甲炳중위)와 △ 731(△ 743 西南쪽 800m)의 제7중대(장, 林成基중위)를 각각 공격한 것인데 이와같은 北共제32사단의 生死를 決斷하는 衝擊行動은 前例에 없었던 것으로서 곧 사단 右翼正面인 北共제12사단의 反擊에 策應하는 一連의 牽制攻擊으로 分析되었다.

이에 대대는 1시간에 걸친 激戰끝에 陣前에서 그 敵을 擊破, 潰退시킨 다음 06.20에 일제히 追擊戰으로 移行하여 이들을 高陽洞쪽으로 멀리 驅逐하고 말았다.

이때에 李昊宰일등상사가 指揮하는 제5중대 제1소대는 敵을 앞질러 高陽洞 東北쪽 △ 865로 挺進하여 敵의 退路를 遮斷함으로써 敵의 撤退秩序를 紛亂으로 陷入시킨 바 있었다.

이리하여 한차례에 걸친 反擊과 突破의 企圖가 烏有化된 敵은 正午에 攻擊을 再開하였는데 이번에는 松亭洞에서 五味里를 目標로 直衝하여 坪村으로 迂回함으로써 사단의 砲兵陣地와 主補給路를 威脅한 결과 제2대대(장, 金晶煥소령) 左一線의 제7중대(장, 林成基중위)와 △ 805(△ 731 西南쪽 1.5km)의 연대수색중대(장, 洪淳明중위)에 強壓을 加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연대장 蔡命新중령은 곧 예비대인 제1대대로 하여금 수색중대를 支援케 하여 그 敵을 격퇴토록 하였는데, 대대장 羅鎭日소령은 13.50에 五味里에 控置한 제3중대(장, 金石萬중위)로 △ 805의 수색중대를 增援케 하는 한편 제4중대(장, 崔光烈대위)의 81mm박격포 3문을 도중골(△ 805 東南쪽 1.5km)로 急遽 推進케하여 제7중대와 수색중대의 間隙을 填塞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제7중대 및 수색중대가 肩部를 固守하는 가운데 午後에 제2대대 右一線인 제5

중대(장, 文炯述중위) 2개소대가 그 敵의 東北側背를 威壓함으로써 또 한번 敵을 격퇴하고 말았다.

그러자 16 30에 2개중대규모의 敵이 제3대대(장, 盧沈根대위) 前面의 양갈래高地를 공격하여 여기에서 또 激戰이 벌어지게 되었으므로 이에 연대장은 전날 제3대대 右側에 投入한 제1대대의 제1중대를 제3대대에 配屬시켜 同대대의 △ 917의 固守力을 強化하는 한편 양갈래高地에 대한 支援態勢를 갖추게 하였다.

이러는 동안 同高地의 제10중대(장, 金鍾行중위)가 3시간에 걸치는 交戰끝에 敵을 격퇴함으로써 연대戰線은 日沒과 더불어 일시 平穩을 되찾게 되었다.

그러나 21.00가 되어 夜暗이 짙어지자 敵의 공격이 다시 시작되었는데 敵은 제2대대(장, 金晶煥소령) 防禦全面에 壓力을 加하면서 연대 左側方으로의 迂回企圖를 끝내 버리지 않은 듯 △ 805를 強襲하였다.

이에 대대는 激戰으로 밤을 지새워 陣地를 堅守하였으나 △ 805의 수색중대와 제1대대 제3중대는 敵의 執拗한 공격으로 말미암아 混戰끝에 高地를 喪失하게 되어 23.00에 도중골로 撤收케 되었다. 兩중대는 그곳에서 兵力을 수습하여 戰列을 다시 整備한 然後에 다음날인 22일 00.30에 △ 805로 逆襲을 감행함으로써 날이 밝을 무렵에 그 敵을 기어코 擊退하고 高地를 다시 奪還하고야 말았다.

이로써 연대는 18일 戰線에 參加한 뒤로 계속 Badger線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2) △536戰鬪(8. 25~8. 27)

(가) 작전계획

8월 21일, 제3연대(장, 鄭 震대령)가 △ 901—△ 883에서 △ 556—△ 550로 한걸음 물러서게 됨에 따라 사단은 Badger線에서 戰列을 다시 가다듬어 다음날의 공격을 준비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튿날인 22일에도 敵의 攻勢가 不絶함으로써 『22일 24 00까지 目標를 占領한다』는 作戰計劃에 蹉跌을 보게 되었으므로 사단장 金浴培준장은 이와같은 戰勢의 不振을 挽回코자 23일 10.00에 제3, 제8兩연대의 임무를 서로 交代케 하는 한편 대전차공격대대의 配屬을 變更하여 제8연대장이 이를 統合指揮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제5연대(장, 蔡命新중령)가 사단 左一線을 堅守하는 가운데 제3연대는 23일 낮에 Badger線陣地를 제8연대(장, 崔周鍾대령)에 인계하고 華川貯水池 北쪽의 New Kansas線陣地로 轉進케 되었다.

따라서 제1선으로 나선 제8연대는 이날 대전차공격대대(장, 朴周用소령)를 연대 右一線으로 古方山里一間村(△ 513 東쪽 1.2km)에 이르는 水入川 南쪽의 △ 607에, 예하 제1대대(장, 咸炯甲소령)를 中央一線으로 △ 513에, 그리고 제3대대(장, 宋寅奎대위)를 左一線으로 △ 616에 각각 配備하고 제2대대(장, 林春勃소령)를 예비로 坪村에 控置하였다.

그리고 Badger線 前面의 △ 556와 △ 550는 제1대대 수색소대와 연대수색중대로 하여금 확보케 하였다.

이와같이 하여 제8연대가 Badger線에서 戰列 整備를 끝낸 25일, 사단장 金容培준장은 同연대에 대하여 要旨 다음과 같은 命令을 下達하였다.

『제8연대는 26일 05.00를 期하여 일부병력으로 △ 536(松峴里 東쪽 1km)를 공격점령하라.』

그런데 사단장이 이와같이 공격一線부대로 하여금 當初目標였던 △ 554—△ 901—△ 883의 공격에 앞서 이△ 536를 먼저 점령토록 하게 된 것에는 다음과 같은 理由가 있었던 것이다.

지난 18일 사단과 함께 공격을 併行한 右隣接인 美 제2사단(장, Clark L. Ruffner소장)이 그 공격목표 △ 983(피의稜線)를 同사단에 配屬된 제5사단 제36연대(장, 黃 燁대령)로 하여금 22일 午前에 占領케함으로써 사단戰線과의 不均衡을 나타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또 △ 554(目標③)와 함께 古方山里一文登里道路를 감제하는 사단 右側接境線上의 要衝인 △ 536(△ 554 南쪽 2km)가 아직도 敵의 手中에 있는 까닭으로 사단과 美 제2사단의 戰線이 兩斷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사단은 右側背를, 그리고 美 제2사단은 左側背를 각각 同時에 威脅 받게 되었는데 특히 △ 536線보다 2km나 北進한 △ 983(韓제36연대占有)는 그 左側面이 完全히 敵에 露出되는 形勢였다.

그러므로 △ 983을 확보하고 있는 現時點에서 戰線의 相互連繫가 急先務인 사단으로서는 이△ 536를 先取할 必要가 切實하였던 것이다.

(나) 작전실시

8월 25일 : 이날 사단장으로부터 △ 536공격명령을 받은 제8연대장 崔周鍾대령은 연대 OP를 立石里(德巨里 西南쪽 1.8km)에서 제1대대(장, 咸炯甲소령)가 占領中인 △ 513로 推進한 다음, 14.00에 長坪里의 대전차공격대대(장, 朴周用소령)본부에서 연대作戰會議를 개최하였다.

이자리에서 분석된 敵情에 의하면 목표 △ 536에는 北共제12사단의 1개중대규모 兵力이 對人地雷와 彈幕으로 強化된 四周防禦陣地를 固守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런데 △ 536는 그 北쪽으로 뻗은 稜線을 따라 △ 490(△ 536 北쪽 1km)에 연하고 여기에서 稜線이 兩分하여 右側으로 △ 554(△ 490 東北쪽 1.7km)에, 左側으로 △ 901(△ 490 西北쪽 1.7km)에 각각 이르고 있어서 그 形態가 Y字形을 이루었다.

따라서 △ 536는 이 Y字의 下端部에 해당하였는데 이와같이 △ 490를 中心으로 交叉되는 △ 536—△ 554—△ 901의 三角據點은 서로 박격포射程內에 놓여 있으므로 相互間의 火力支援이 容易할 것으로 豫見되었다.

연대장은 이러한 地形과 敵情의 相關性을 검토한 다음 17.00에 作命 제39號를 下達하였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연대는 8 26. 05.00를 期하여 △ 536를 공격 점령하려 한다.

② 제1대대는 1개중대로 目標의 西南쪽을 공격하라.

目 標占領과 同時에 同中隊는 대전차공격대대에 配屬한다.

③ 제2, 제3兩대대는 現任務를 계속 遂行하라.

④ 대전차공격대대는 1개중대로 目標 東南쪽을 공격하되, 1개소대를 東北쪽으로 迂回케 하여 敵의 東北側背를 협격토록 하라.

目標占領과 同時에 대대 全兵力과 同공격에 參加한 제1대대兵力을 統合指揮하여 四周防禦陣地를 確保하라.』

그리고 坪村의 사단제7포병단 제2, 제3兩砲隊(105mm곡사포, 12門)로써 右一線 공격部隊인 대전차공격대대를 支援케하는 한편 그 東北쪽 △ 554의 敵 火力을 牽制토록 하고 登梅洞의 제103重박격포중대(4.2″박격포 4門)로써 左一線 공격部隊인 제1대대를 支援케하여 △ 536頂上을 制壓토록 하는 동시에 德巨里의 美제96野戰포병대대 A砲隊(155mm곡사포 6門)로써 △ 490—△ 901間의 敵 支援火力을 制壓토록 각각 協調를 要請하였다.

8월 26일 : 제8연대 제1대대(장, 咸炯甲소령)는 제1, 제3兩중대로 계속 △ 513陣地를 確保케 하는 가운데 제2중대를 攻擊一線으로 하여 03.00에 LD線(古方山里一松峴里間道路)으로 機動케 하였다.

이에 따라 제2중대(장, 金明烈중위)는 04.50에 松峴里에 進出하여 제1소대를 右側으로, 제3소대를 中央으로, 제2소대를 左側으로 竝列하여 05.00부터 △ 536 西南 稜線을 따라 頂上을 目標로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중대가 黎明속에 躍進을 거듭하여 高地 中腹에 이르자, 敵의 박격포 彈幕이 앞을 가로막기 시작하였다.

이에 중대장 金明烈중위는 中央의 제3소대를 그곳에서 예비대로 轉換케한 다음 제1, 제2兩個소대를 稜線 左右로 전개시켜 彈幕을 뚫고 前進을 계속토록 하였다.

06.30에 중대가 7部稜線에 近迫하자 敵의 塹壕로 부터 自動火器 射擊과 함께 △ 901부근에서 박격포의 사격이 集中하는 가운데 地雷의 爆發로 제1소대에서 8명, 제2소대에서 2명의 負傷者를 보게 되었다.

이와같은 報告를 받은 대대장 咸炯甲소령은 07.00에 중대를 일단 中腹의 제3소대쪽으로 물러나게 하고, 支援砲兵의 火力으로써 △ 901일대의 敵 火力을 制壓케 하여 중대前面의 敵 火集點을 除去하는 한편 4.2″重박격포로써 地雷를 除去케 한 다음에 다시 공격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03.40에 공격을 再開한 중대는 7部稜線의 地雷地帶를 돌파하여 頂上의 敵 防禦據點 40m 앞까지 肉迫하였다. 그러나 敵은 수류탄을 投擲하면서 火力을 集中하여 發惡함으로써 중대는 더 이상 接近치 못하고 그 자리에서 1시간 가까이 手榴彈戰만을 벌이게 되었다.

그런데 중대는 이때에 掩蔽가 容易치 않아 거의 露出되다시피 한 까닭으로 제1, 제2 兩공격소대장이 모두 負傷을 입는가 하면 重火器射手를 비롯한 兵力의 殆半을 잃게 되었다.

이에 중대장 金明烈중위는 10.20에 예비대인 제3소대를 稜線 左側으로 迂回시켜 敵의 西北쪽을 협격케 하는 同時에 陣頭에 나서서 輕機射手를 兼任하면서 소대장이 없는 兩個소대를 직접 지휘하게 되었는데, 5명의 特攻隊를 組織하여 이들로 하여금 수류탄으로 敵의 堅陣을 擊破케 함으로써 突進路를 開拓토록 한 다음 全중대에 突擊을 命令하였다.

이리하여 11.45에 일제히 돌격을 감행한 중대는 敵陣에 突入하는 즉시로 白兵戰으로 敵을 覆滅하고 12.05에 기어코 頂上을 점령하고야 말았는데 이로써 거둔 중대의 戰果와 損失은 다음과 같다.

戰 果

射殺	67名	多發銃	11挺
捕虜	17名	蘇式小銃	26挺
鹵獲 H M G	1挺	手榴彈	6,060發
M1	2挺	多發銃實彈	6叭
		蘇式小銃實彈	6叭

損 失

戰　　死　　5名　　負　　傷　　61名

한편 이날 제1대대와 攻擊을 併行케 된 대전차공격대대(장, 朴周用소령)는 △ 536 東南쪽 1km의 △ 391를 中間目標로 하고 제2중대(장, 尹永漢중위)로 하여금 이를 攻略케 하였다.

그런데 이에 앞서 대대장 朴周用소령은 제3중대(장, 吳炳柱대위)의 重機 2정으로 제2중대를 支援케 하는 한편 제1중대(장, 韓壹高중위)의 1개소대를 水入川 東쪽으로 迂回케 하여 △ 536 東北쪽을 협공토록 하는 동시에 이를 제2중대장이 統合指揮케 하였다.

이리하여 중대는 03.00에 水入川 南쪽의 △ 607陣地를 출발하여 水入川 北쪽의 △ 391 東南下麓에 진출한 다음 05.00에 同高地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여 同高地 北쪽 △ 554일대에서 敵을 支援하는 砲兵火力이 중대 突進路上에 集中하는 가운데 08.40에 高地의 一角을 奪取하였다. 이때에 중대는 戰死 2명과 負傷 6명의 損失을 입고, 敵 3명을 射殺하고 1명을 捕虜로 잡았는데 나머지 敵은 △ 536로 潰散하였다.

이 무렵 제1중대의 迂回兵力 1개소대는 水入川 東岸을 따라 俗稱살애비(△ 536 東北쪽 1km)로 進出하여 △ 536의 東北側背를 협공하였는데 그 北쪽 △ 554로부터 支援된 敵의 側斜火力이 同소대의 進擊을 막은 탓으로 高地 東北쪽 中腹에 固着된 채로 頂上攻擊에 參加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로 因하여 △ 554의 敵 火力을 分散시킴으로써 제2중대 主力의 공격에 기여할 수 있었다.

이와같이 △ 391를 掌中에 넣게된 제1, 제2중대는 同高地에서 다시금 戰列을 가다듬은 다음, 炸裂하는 敵의 수류탄과 地雷의 爆焰을 헤치고 步一步 頂上으로 攻迫하였다.

그리하여 11.45에 제2중대가 敵前 40~50m까지 近迫하자 敵의 防禦제1선이 動搖된 틈을 捕捉하여 全중대원이 一氣에 敵陣으로 突入함으로써 12.10에 제1대대 제2중대와 함께 頂上을 점령하였는데 이때의 戰果와 損失은 다음과 같다.

戰 果

射　　殺	14명	수 류 탄	20발
捕　　虜	5명	**損 失**	
鹵 獲 B A R	1정	戰　　死	6명
		負　　傷	18명

이리하여 殘敵을 그들의 逐次陣地인 △ 490(△ 536 北쪽 1km)로 潰退시키고 目標 高地를 확보한 대전차공격 대대는 연대 제2중대를 配屬받아, 이 중대로 하여금 高地 北쪽 稜線

에 방어진지를 急編케 함으로써 敵의 逆襲에 대비케 하는 한편 17.00에 대대 全兵力과 OP를 同高地에 推進하였다. 그리고는 제1, 제2兩個중대를 北쪽 稜線 左右側面에 배치하여 방어진지를 強化하고 제3중대로는 頂上의 OP를 경계토록 하였으며 또한 수색소대를 高地 東쪽 下麓의 水入川邊인 堂谷에 배치하여 右隣接인 美 제2사단과의 接境線上(水入川一帶)에대한 敵情蒐集과 아울러 警戒에 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대대는 △ 536에 前進陣地를 構築케 되었는데 이날 20.00에 연대장 崔周鍾대령으로부터 『27일 15.00까지 同陣地를 연대예비인 제2대대(장, 林春勃소령)에 인계하고 同日 20.00까지 坪村에 집결하라』는 命令이 下達되어 이에 대한 준비에 着手케 되었다.

8월 27일 : 이미 下達된 제8연대장의 陣地交代명령에 따라 이날 대전차공격대대(장, 朴周用소령)는 새벽부터 부대이동을 준비하였는데 05.30에 水入川 東쪽 無名高地(標高700m 정도 : △ 536 東쪽 2.5km) 下麓으로부터 1개중대규모의 北共軍이 堂谷의 수색소대를 공격하려는 듯이 水入川을 渡河하려 하였다.

그런데 敵이 이와같이 대대 右側인 사단接境線 間隙에 나타나게 된 것은 美 제2사단(韓 제36연대배속)이 확보中인 △ 983(피의 稜線 : △ 536 東北쪽 3.8km)를 전날 午後에 敵의 反擊으로 다시 잃게 되었는데 이로 因하여 敵이 그 稜線一帶를 다시 장악케 된 까닭이었다.

이에 대대는 제2중대(장, 尹永漢중위)의 自動火器로써 수색소대를 支援케하여 그 敵을 격퇴케 하였다.

그리하여 소대는 2시간동안에 걸친 激戰끝에 맞은편 산 기슭으로 敵을 격퇴하였는데 소대의 損失은 부상 3명과 실종 1명이었다.

이때에 대대장 朴周用소령은 敵이 致命的인 타격을 입지 않은채로 물러났으므로 쉽사리 逆襲을 斷念치 않고 반드시 때를 타서 再侵襲을 企圖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대대장은 이와같은 敵의 逆襲企圖를 粉碎한 다음에 陣地를 交代할 것을 연대장에게 建議하여 대대의 陣地交代 준비를 일단 中止하고 決戰態勢로 轉換케 하였다.

수색소대를 계속 堂谷일대에 매복케 하고 제2중대는 火力支援태세를 갖추어 狀況에 따라 신속하게 對處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氣勝을 부리기 시작하는 무더위 속에서 5시간이나 敵을 기다렸는데, 13.30에 偵察兵을 앞세운 중대규모의 敵이 다시 나타나 川邊의 개활지를 가로 질러 反擊을 試圖하였다.

이에 대대장은 수색소대로 하여금 『輕擧妄動치 말고 隱忍自重하여 敵을 射程圈內로 끌

어 들이도록 하라』고 한 다음에, 대대의 일제사격으로 이를 擊滅토록 하였다.

그렇게 하여 敵이 水入川을 徒涉코자 河床에 이르렀을 때인 13.50에 수색소대와 제2중대의 自動火器가 同時에 불을 吐하여, 일거에 衝擊을 加함으로써 敵主力의 대부분을 射殺하였다. 이때에 일부 殘敵은 산기슭으로 潰走하였으나 제2중대 主力이 계속 火力을 集中함으로써 그敵의 덜미를 누르는 사이에 수색소대와 중대일부병력이 이를 추격하여 15.00에 白兵戰으로 그 敵 또한 모조리 撲滅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敵의 逆襲企圖를 분쇄한 대대는 15.30에 예정대로 제8연대 제2대대(장, 林春勃소령)와 陣地를 交代하고 19.00에 坪村에 집결하였는데 이 戰鬪에서 대대는 負傷 2명의 損失을 입고 다음과 같은 戰果를 거두었다.

射	殺	85명(敵 中隊長을 비롯한 軍官(將校) 4명 포함)					
捕	虜	33명			다	발	총 9정
鹵	獲	H M G	1정			M 1	1정
		L M G	1정		C	A R	1정
		蘇式소총	90정				

(3) △ 554—△ 901戰鬪(8. 30～9. 2)

(가) 작전계획

8월 26일 제8연대(장, 崔周鍾대령)가 △ 536를 占領함으로써 右隣接인 美 제2사단(장, Clark L. Ruffner소장)과의 戰線의 均衡을 圖謀하였으나 이날 同사단이 △ 983(피의 稜線)를 다시 잃게 됨으로써 사단도 또한 더 이상의 進擊을 못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사단은 △ 536—△ 556—△ 550—양갈래高地線을 堅持하면서 새로운 戰機를 모색케 되었는데 이러한 戰況은 군단 全域에 걸쳐 示現되었다.

그러므로 군단장 Byers소장은 8월 28일에 군단戰域內에서 全面的인 진격을 再開키로 決心하고 이날 군단예비인 美 제1해병사단(장, Gerald C. Thomas소장)을 군단 右翼에서 韓제8사단(장, 崔榮喜준장)과 그 임무를 交代케 한 다음 제1선 각사단으로 하여금 8월 31일 06.00를 期하여 일제히 공격을 開始토록 命令하였다.

이리하여 右翼 美 제1해병사단은 亥安盆地(Punch Bowl)東壁을, 中央右翼 韓제5사단(장, 閔機植준장)은 同盆地 西壁을 따라 각각 進擊을 시작하고 中央左翼 美 제2사단은 △ 983(피의 稜線)를, 左翼인 當사단은 △ 554—△ 901에 대한 공격을 再開케 되었다.

이에 따라 사단장 金谷培준장은 제3, 제5兩연대로서 각각 New Kansas線과 Badger線左一線을 嚴重히 防守케 하는 가운데 제8연대로써 이를 超越공격케 할 계획을 세우고 8월 30일 07.00에 作戰指示 제77호를 下達하였는데 그 要旨에 이르기를『제8연대는 8.31 06.00를 期하여 目標"S"(△554—△901)를 공격 占領하라』하였다.

(나) 작전실시

8월 30일 : 이날 제8연대장 崔周鍾대령은 사단作戰指示 제77호에 따라 立石里연대지휘소에서 參謀陣과 더불어 그에 대한 공격계획을 熟議하였다.

그 자리에서 연대장은 當面한 공격목표 "S"(△ 554—△ 901)가 16일 사단作戰發起 당시의 目標 ② (△ 901) ③ (△ 554) 바로 그것인만큼 當初②—③順으로 逐次공격한다는 사단의 作戰計劃을 그대로 實踐키로 決心하였는데, 연대장이 이와같이 斷案하게 된 것은 이때 △ 554의 敵은 1개중대규모에 지나지 않았으나 △ 901일대의 稜線에는 1개연대규모의 敵이 蝟集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먼저 △ 901를 占領한다면 그 餘勢를 몰아 能히 △ 554를 奪取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 까닭이었다. 이는 銳氣로써 먼저 大를 친 然後에 小를 料理하려는 것이니 難에서 易로 戰果를 擴張하는 趣旨였으리라.

따라서 연대장은 目標 "S"(△ 554—△ 901) 가운데 제1차적으로 △ 901의 공격에 全戰力을 集中運用키로 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作戰指示 제40호를 下達하였다.

『① 연대는 사단作戰指示에 의거 8.31. 06.00를 期하여 △ 901를 공격 占領하려 한다.

② 제1대대(연대수색중대배속)는 目標 西南쪽의 敵陣을 攻略하라.

③ 제2대대는 △ 536의 陣地를 8. 30. 19.00까지 대전차공격대대에 인계한 다음 目標 東南쪽의 敵陣을 攻略하라.

④ 제3대대는 Badger線 防禦任務를 계속 遂行하는 한편 重火器중대로 하여금 공격부대를 支援토록 하라.

⑤ 대전차공격대대는 8. 30 19.00까지 △ 536를 제2대대로부터 인수하여 공격부대 右側方을 掩護하라.

⑥ 공병제3중대는 第一線攻擊 대대에 各 1개소대를 配屬시켜 공격進路上의 障碍物을 處理케하라.』

이에 따라 제1, 제2兩대대는 각각 △ 512와 △ 536에서 다음날의 공격을 준비하였으며 제3대대는 △ 616에서 Badger線을 계속 확보하였는데 대전차공격대대는 15.00에 坪村을 출발하여 19.00에 △ 536에 집결함으로써 제2대대의 陣地를 인수하였다.

8월 31일 : 이날 제8연대(장, 宣周鍾대령)는 제103重迫擊砲중대로 제1대대를, 제3대대 重火器중대로 제2대대를 각각 支援케 하는 가운데 05.00에 공격을 시작하여 終日에 걸친 激戰끝에 目標 △ 901를 占領하였다.

1. 目標高地 南쪽 正面을 공격키로 된 제1대대(장, 咸炳甲소령)는 제1중대(장, 金好奎중위)와 제3중대(장, 李元桂소위)를 攻擊一線으로 하여 04 00에 Badger線上의 △ 513陣地로부터 대대수색소대가 확보중인 △ 556(△ 901 南쪽 1.8km)로 躍進한 다음 同소대와 함께 指定된 陣地를 공격케 하였다.

이리하여 제1, 제3兩중대는 05 30에 △ 556에서 그 北쪽으로 뻗은 稜線을 따라 進擊을 시작하여 07.00에 目標高地 南쪽 1km의 無名高地(標高 620m 정도)下麓에 進出하자 곧 敵의 頑強한 抵抗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에 대대는 砲兵支援을 요청하여 同高地의 敵을 制壓한 다음 兩중대로 하여금 08.00에 공격을 敢行토록 하여 08.30에 高地의 一角을 奪取하게 되었으나 먼저 地歩를 強化하기 전에 敵의 박격포火力의 同時集中으로 적지 않는 兵力損失을 보게 되었다.

09 20에 대대장 咸炳甲소령은 우선 敵의 砲火를 피하기 위하여 兩중대를 그 南쪽 △ 556와의 鞍部로 撤收토록 하는 한편 그 左側 △ 550(△ 556 西北쪽 2km)를 확보하고 있던 연대수색중대(장, 金龍澤중위)로 하여금 그 無名高地의 西側面을 공격케 하였는데 15.30에 同중대는 勇躍하여 이를 다시 奪取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제1, 제3兩중대를 이에 合勢케 하여 3개중대로써 目標 △ 901 頂上을 向하여 突進을 거듭한 끝에 17.30에 敵의 猛惡的인 抵抗을 물리치고 수색중대를 先頭로 그 頂上을 掌握하게 되었다.

이에 대대는 곧 제3중대로써 頂上에 防禦陣地를 急編케 하고 제1, 수색兩중대는 제3중대와 連繫하여 高地 西南山腹에 一連의 방어선을 確保토록 하였다.

2. 한편 目標高地의 右側面을 공격키로 된 제2대대(장, 林春勃소령)는 이날 05.00에 공격을 개시하기에 앞서 陣前에서 한차례의 豫期치 않았던 激戰을 치루게 되었다. 이는 敵이 연대의 공격企圖를 看破하고 先制공격을 노린 결과 1개대대규모의 兵力으로 △ 490로부터 文章谷(△490—松峴里溪谷)을 目標로 突出하였던 것이다.

이때에 대대장 林春勃소령은 이 戰勢를 較量하되 『敵이 松峴里를 直衝하여 △ 536의 背後로 迂回함으로써 同高地에 대한 補給路를 遮斷하는 同時에 포위를 企圖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으므로 高地 西北斜面에서 공격을 待機中인 제7중대(장, 姜東秀중위) 陣前에 이

르기를 기다렸다가, 同중대로 하여금 奇襲토록 措置한 결과 豫期한 대로 同中隊火力의 集中發揮가 成功하여 敵을 陣前에서 擊滅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第一擊에서 快勝을 굳힌 대대는 그 餘勢를 몰아 △ 901 東南斜面 稜線을 向하여 突進을 계속하였는데, 대대장은 제6중대(장, 安載寧중위)를 右一線으로, 제7중대(장, 姜東秀중위)를 左一線으로 하고 제5중대(장, 崔漢朝중위)와 수색소대로 이를 支援케 하는 한편, 重火器중대(장, 金正鎭중위)로 하여금 대대에 支援된 제3대대(장, 宋寅奎대위) 重火器중대의 81mm박격포 4문과 중대 박격포소대(장, 金得成소위)의 火力(81mm박격포 4문)을 통합하여 突擊第一線을 掩護케 하였다.

그런데 이와같이 하여 Y字稜線 中央의 三角點인 △ 490를 공격한 제6, 제7兩중대가 午前中에 걸쳐 激戰을 반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同高地의 完全掌握은 如意치 못하였으니, 이는 당초 1개소대규모로 推算한 同高地의 敵兵力이 이날 새벽에 先制攻擊을 敢行하다가 潰散된 그 殘兵을 수습하여 2개중대규모로 增強된 까닭이었다.

이에 대대장이 航空支援을 요청한 결과, 戰爆機의 編隊群이 一波又一波의 急降下爆擊으로 敵陣을 強打하니 地軸을 震動하는 가운데 高地는 陣地構築物이 紛飛하고 銃砲와 人員이 空中曲藝하는 阿鼻境으로 化하였다.

이와같은 一連의 問罪가 끝나는 즉시로 突擊中隊의 白兵이 一時에 敵陣을 縱橫으로 席捲하니, 敵은 砲擊과 爆擊洗禮에 이어 刺擊과 撲殺의 宣告를 받게 되어 叱咤와 悲鳴의 도가니 속에서 潰亂을 免치 못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高地는 15.30에 我軍의 喊聲裡에 奪取되었다.

이로부터 1.7km에 달하는 그 西北 稜線의 縱深陣地帶를 逐次로 突破한 대대는 △ 901 頂上의 東南쪽 800m의 無名高地(標高 740m 정도)에서 또 한번 크게 激突케 되어 적지 않은 兵力의 損失로 공격이 一旦 鈍化되기에 이르렀으나, 16.30에 제5중대(장, 崔漢朝중위)와 수색소대가 增援한 결과 17.20에 수류탄의 同時使用으로 敵을 격파함으로써 17.40에 제1대대(장, 咸炯甲소령)의 뒤를 이어 △ 901頂上을 점령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대대는 제5중대를 頂上에, 제6중대를 그 東南쪽 無名高地에, 그리고 제7중대를 △ 490에 각각 配置하여 연대 左一線인 제1대대와 함께 △ 901를 中心으로 防禦陣容을 編成 強化하였다.

9월 1일 : 이날 사단에서는 사단장과 연대장의 人事異動이 있었다.

즉 사단장 金容培준장과 제8연대장 崔周鍾대령이 이날부로 轉出하고 그 後任에 李成佳준장(太白山地區戰鬪司令官)과 金基東중령을 각각 새로이 맞이하게 되었으며 空席中이던

제5연대장에는 그 職을 代理한 蔡命新중령이 任命되었다.

전날 目標 △ 901를 확보한 제8연대 前線은 終日 激烈한 攻防戰을 反復하였는데, 04.00부터 △ 901를 다시 奪取코자 反擊을 決行한 敵은 먼저 2개대대규모의 兵力으로 白石山 南쪽 △ 1,024(△ 901 北쪽 1.8km)로부터 稜線을 따라 南下하여 △ 901의 兩肩部를 防守中인 제3중대(장, 李元柱소위)와 제5중대(장, 崔漢朝중위)를 同時에 強壓하였으며, 이에 밀리는 바 된 兩個중대는 高地 後斜面으로 一時 물러 났다가 05.00에 逆襲을 敢行하여 頂上에서 40餘分동안 彼我의 混戰을 벌인 끝에 05.45에 그 敵을 격퇴하고 高地를 다시 장악하였다. 그러자 09.00에 敵이 戰力을 한층 더 補強하여 또 한번 反擊함으로써 激突이 再演되어 끝내 高地가 敵의 手中에 다시 넘어가고 말았다.

이에 제2대대장 林春勃소령이 11.00에 △ 901 東南쪽 稜線上의 제6중대(장, 安載寧중위)를 急遽 增援케 하여 제3, 제5兩個중대와 함께 同高地를 奪還토록 한 바 13.05에 同중대가 이를 成功하였는데, 이와같이 두차례나 一進一退가 反復된 이 한나절의 激戰으로 말미암아 敵屍가 山腹을 덮게된 가운데 대대박격포를 지휘하던 重火器중대장 金正鎭대위가 戰死하는 등 제3, 제5兩個중대의 戰力도 많은 減退를 보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연대장의 命令에 따라 17.00에 예비대인 제3대대(장, 宋寅奎대위) 제10중대와 제11중대가 각각 제3, 제5兩個중대와 戰線을 交代하였다.

이때에 제5중대의 陣地를 引受한 제11중대의 1개소대는 陣地 前面의 殘敵을 剔抉중 21.00에 다시 逆襲을 企圖한 一團의 敵과 衝突하여 白兵戰을 展開한 끝에 그 敵을 물리쳤는데 이로써 北共제12사단의 대대장 1명을 射殺하고 敵文書를 鹵獲하였다.

이에앞서 제3대대의 戰線參加로 △ 901에 대한 堅守不動의 態勢를 갖추게 되자, 연대장은 意中에 새겨두었던대로 目標 "S"의 右端部인 △ 554를 공격키로 決心하고 18.20에 作戰指示 제41호를 下達하였는데 그 要旨에 이르기를 『대전차공격대대는 2개중대로써 9. 2. 16.00까지 △ 554를 공격 占領하라』하였다.

9월 2일

1. 전날 午後에 제8연대장으로부터 △ 554에 대한 攻擊任務를 부여받은 대전차공격대대(장, 朴周用소령)는 제1중대(장, 韓壹壽중위)를 右第一線으로, 제2중대를 左第一線으로 삼아 제3중대(장, 吳炳柱대위)의 重火器 支援아래 05.00를 期하여 공격을 開始하였다.

제1, 제2兩중대는 △ 490에서 東北으로 뻗은 稜線을 따라 併攻하여, △ 554 西南下麓에

서 前進部隊인 듯한 1개소대규모의 敵을 一蹴하고 射殺 6명과 SMG 1정 및 소총 2정을 鹵獲한 다음, 躍進을 계속하였는데 09.30에 7部 稜線에 이르자 △ 582(△ 554 北쪽 800m)로 부터 延伸된 敵의 박격포彈幕으로 進擊의 停滯를 보게 되었다.

이에 대대는 곧 砲兵支援을 要請하여 △ 582와 △ 554頂上의 敵을 制壓한 다음 左側 △ 901 東南 稜線上의 제2대대(장, 林春勃소령)의 側射火力支援을 받으면서 공격을 계속하여 14.00에 頂上을 目標로 肉迫하였다.

그러나 이로부터는 敵의 수류탄과 自動火器의 斜射로 말미암아 대대는 더 이상의 接近이 困難한 탓으로 병력의 損失만을 累加하는 가운데 1시간동안이나 敵前 至近距離에서 膠着狀態에 빠지고 말았다.

이때에 高地 左側으로 進擊하던 제3중대 제3소대장 姜炯秀소위는 이 危局을 打開코자 수류탄을 集中的으로 投擲하면서 敵陣으로 突進中 敵의 狙擊으로 壯烈하게 戰歿하였는데, 이에 소대장 연락병인 印聖一일등병이 大怒하고 彈雨를 뚫고 突進하여 敵陣地의 銃眼속깊이 수류탄을 投入함으로써 이를 擊破하니, 崩土와 裝備 그리고 骨塊와 肉片이 煙焰속에 空中으로 솟아올랐다.

이리하여 印聖一일등병이 敵陣의 一角을 奪取함으로써 그 나머지 陣地까지 一時에 攪亂케 됨에 따라 勇氣百倍한 소대원인 앞을 다투어 突擊을 敢行하였다.

한편 이때를 맞추어 右第一線인 제1중대에서도 제1소대 白龍鉉하사가 挺身하여 직접 開拓한 突進路를 따라 全중대가 突擊을 斷行함으로써 15.20에 마침내 敵을 潰滅하고 目標 △ 554를 점령하게 되었다.

이에 곧 대대는 제2중대로 同高地 頂上에 방어진지를 構築케 하고 제1중대로는 그 西斜面에서 左側 제7중대와 連繫한 一連의 防禦線을 急編케 하였는데, 이 戰鬪에서 대대가 거둔 戰果와 損失은 다음과 같았다.

戰 果

射	殺	35명	소	총	1
捕	虜	2명	**損 失**		
鹵 獲	체코式輕機	1정	戰	死	4명
	다 발 총	3정	負	傷	19명

2. 한편 이날 △ 901에서는 새벽부터 熾烈한 攻防戰이 벌어졌는데, 04.00에 2개중대규모의 敵이 高地 左肩部의 제10중대(장, 金洙鎬소위)正面을 強壓하여 同중대를 한걸음 물러

나게 하였으나 中隊는 07.00부터 砲兵支援아래 逆襲을 敢行하여 12.45에 이를 다시 奪還하였다. 敵은 이로부터 直接衝擊을 敢히 試圖하지 못하고 다만 北쪽 △ 1,024로부터 全火力을 △ 901에 集中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사단포병단 관측장교 金恒林소위가 부상을 입어 觀側조차 如意치 못한 가운데에서도 공병소대가 陣前에 障碍物을 設置하였으니, 最後의 堅守는 火力占領이 아니라 白兵에 依한 強奪이기 때문이다.

敵은 終日에 걸친 火力占領의 企圖가 無爲로 돌아가자 20.30에 1개중대규모로써 다시 逆襲을 試圖하였는데 이도 또한 제3대대의 제10, 제11兩중대에 의하여 陣前에서 격퇴되고 말았다.

3. 따라서 이날 사단 右一線인 제8연대(장, 金基東중령)는 공격목표인 △ 554—△ 901를 점령하여 Badger線 搜索據點을 그 線으로 推進하고, 左一線인 제5연대(장, 蔡命新중령)와 主抵抗線(New Kansas)의 제3연대(장, 鄭震대령)는 각각 變動없이 담당線을 防禦하였다.

라. 전투 후의 개황

敵의 動向 : 사단이 9월 2일에 △ 554—△ 901를 점령함으로써 主抵抗線 일부를 잃게 된 北共제12사단은 이를 다시 손에 넣고자 數次에 걸쳐 反擊하였으나, 끝내 그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한채로 殺傷만을 累加하기에 이르자 9월 5일부터 이를 斷念하고 逐次陣地인 △ 1,024線으로 退却하여 그 北쪽의 白石山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 901 左側의 △ 883를 固守防禦하여 사단의 進出을 阻止하려는듯 하였다.

또한 美 제2사단(장, Clark L. Ruffner소장)이 △ 983(피의 稜線)의 敵을 潰退하고 이를 점령케 됨으로써 敵의 前線이 連鎖的으로 崩壞되기 시작하였으니 이에 北共제5군단은 제32사단의 일부병력을 제12사단地域으로 投入시켜 戰線의 龜裂을 彌縫하기에 餘念이 없는 것으로 分析되었다.

我軍의 動向 : 9월 2일에 사단이 目標를 점령하였으나 이때 美 제2사단의 △ 983에서는 激戰이 고비에 이르고 있었다. 이에 군단장 Byers소장은 同사단의 공격을 促進시키고자, 9월 4일에 제7사단(장, 李成佳준장)의 戰鬪地域 일부(△ 554)를 다시 美 제2사단에 編入시켜 同사단으로 하여금 古方山里—文登里道路를 장악토록 하였다.

이는 同사단의 일부병력으로 △ 983左側으로 迂回進擊케 함으로써 同高地의 西北背를 威脅케 하기 위함이었는데 이에 따라 同사단은 예비병력인 제23연대 제1, 제2兩대대를 △ 554부근에 推進하였다.

이리하여 제7사단은 9월 5일에 △ 554의 대전차공격대대로 하여금 同陣地를 美 제23연대 제1대대에 인계하고 金岳里(長坪里 西南쪽 2.5k.n)에 集結토록 하는 한편, 아울러 제8연대(장, 金基東중령)와 제3연대(장, 鄭 震대령)의 임무를 서로 交代케 하였다

이에 제8연대는 New Kansas線에서 부대를 整備케 되었으며, 그간 同線에서 整備가 完了된 제3연대는 다시 前線에 나서게 된 것이다.

右隣接부대 戰況의 好轉과 함께 이와같이 一線의 戰力을 補強한 사단은 8월 16일 以來 宿題로 남아있던 △ 883(作戰發起당시의 공격목표 ①)를 念頭에 두고 새로운 공격준비에 着手케 되었다. 이 戰鬪에서의 綜合的인 戰果와 損失은 다음과 같다.

戰 果

射	殺	3,185명
捕	虜	718명
投	降	144명
鹵 獲	60mm 迫擊砲	1문
	反戰車砲	5문
	L M G	4정
	H M G	13정
	S M G	2정
	B A R	9정
	蘇式소총	351정
	多發銃	92정
	M1	12정
	手榴彈	6,623발
	實彈	15叭
	나팔	2개
	삽	20개

損 失

戰死	328명
負傷	912명
失踪	38명

(計 : 사단戰鬪詳報에서)

§ 參戰者의 證言

◇ 제8연대 제2대대장 林春勃소령

(73. 3. 9 鄕軍別館에서, 豫 중령)

8월중순에 사단이 다시 공격을 개시하여 제3연대가 먼저 △ 901를 공격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제8연대와 交代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연대는 먼저 △ 901 南쪽의 △ 536를 점령한 다음 이를 발판으로 삼아 △ 901로 약진하기로 하여 제1대대가 대전차공격대대와 함께 △ 536을 점령하였다.

△ 536을 우리대대가 다시 引受하여 1주일인가 있다가 △ 901를 공격하게 되었는데 공격개시일 새벽에 대대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待機中 敵의 先制공격을 받았다.

그래서 대대는 地形의 利點을 이용하여 그 敵을 일거에 무찌르고 그 餘勢로써 △ 901를 향하여 진격하였다. 그런데 △ 901 敵의 저항이 굉장하였다. 高地 頂上을 뺏고 뺏기기를 數次에 反復하게 되어 彼我 損失이 말할 수 없이 많았다.

결국, 空中支援과 砲兵掩護로 高地를 점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측의 희생이 많아 각개 병사의 神經이 극도로 날카로워져서 敵을 보이는대로 사살하여 막바지에는 敵의 捕虜가 생기지 않을 지경이었다.

그런 中에 대대 S—2 李致福이가 부상한 포로 1명을 구한 것이 마침 내 연락병의 형이어서 치료를 하여 後送하였다.

◇ 대전차공격대대 제2중대 제3소대

金應杓 상병

(65. 8. 19 제76연대 醫務中隊에서, 中士)

『나는 學徒兵으로 51년 1월 1일부로 軍番을 받아 제7사단 대전차공격대대로 갔다. 그해 8월

인가 楊口 北쪽 △ 537, △ 584戰鬪에 참가하였는데 △ 554戰鬪때 일이다. 나는 그때 대전차공격대대 제2중대소속이었다. 우리 중대장은 권총보다는 日本刀를 더 잘 가지고 다녔는데 때로는 칼을 빼들고 지휘하기도 하였다.

중대가 △ 554를 공격하는데 敵의 저항이 굉장하였다. 그래도 그냥 밀고 올라가서 7部稜線에 이르렀을 때 마침 소대장 연락병인 印聖一일등병이 따라왔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내가한組가 되어 계속 공격을 하는데 敵의 수류탄 때문에 발을 붙일 수가 없었다.

印聖一 이하고 나는 가만히있다가 印聖一이가 먼저 수류탄을 모아가지고 그냥 포복으로 기었다. 그래서 나도 따라 기어 올라갔는데 敵의 火力이 집중되어 몸을 움직일 수 없었으나 내가 印聖一이를 떠밀어 印聖一이가 敵의 有蓋壕의 銃眼밑으로 바싹 붙었다. 그래가지고 印聖一이가 銃眼속으로 수류탄을 까 넣었다.

참으로 아슬아슬 하였다.

나중에 印聖一이는 銀星인가 뭔가 훈장을 하나 탔다.

§ 研 究

◇ 標高의 記錄方式

戰爭 當時의 軍事地圖와 현재 使用中인 그것과의 사이에 BM(水準標)이나 三角點 標高에 있어서 약간의 相差가 있는 듯하다.

그러므로 兩者間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은 後者(陸軍測地部隊 1969년판 1 : 50000)에 따랐으나, 差異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當時 것(前者)을 그대로 引用하였다.

例를 들면

① 사단의 공격목표 ③인△ 554는 戰鬪詳報(作命이나 戰鬪經過記述等)에 △ 618로 記錄되어 있으나 現地圖上에 △ 554로 表記하고 있으므로 이를 택하였으며,

② 目標②인 △ 901는 現地圖上에 標高 數値가 밝혀져 있지않을 뿐 아니라 等高線을 헤아려 보건데 880~900m未滿으로 推定되나 그 明確한 差異를 판단할 수 없는 만큼 이는 그대로 △ 901로 轉載 하였다.

2. 指揮官의 交替日時

제7사단『部隊歷史報告』와『七星略史』(1973. 5. 30 제7사단발행)에 의하면 1951년 9월 1일부로 사단장 金容培준장이 李成佳준장으로, (陸一命 제134호) 또 제8연대장 崔周鍾대령이 金基東중령으로 (陸特甲 제523호) 各各 交替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戰鬪詳報』에는 그에 關한 記錄이 전연 비치지 않으며 8. 16~9. 2까지 作戰期間中에는 金容培준장과 崔周鍾대령이 作戰을 遂行한 것으로 同典據上의「我軍 戰鬪序列」欄에서 밝히고 있다.

따라서『將帥가 江을 건널때 말(馬)을 바꾸어 타지 않는다』라는 銘句를 당시의 戰鬪雰圍氣에 비추어 생각하면 실제로는 이 戰鬪가 끝난 다음에 前述한 交替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本文에는 記錄에 따라 9월 1일부로 交替된 것으로 記述하였다.

13. 石柱院里 附近 搜索戰 (1951년 8월 26일)

참조: 상황도 제 28 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軍			
제 1 사단	장 준장 朴 林 恒	제 1 대대	장 소령 柳 文 鎬
제12연대	장 대령 金 永 錫	포병제17대대	장 소령 楊 貞 吉

敵軍			
中共 제46군	장 曾 思 玉	제190사단	장 唐 子 安

나. 전투 전의 개황

8월에 들어서 敵은 계속 中共 제64군의 일부가 九化里 南쪽에 主抵抗線을 構築하고 있었으며, 특히 非智山—石柱院里 北側 高地—望海山일대에서는 2개대대 규모가 사단의 搜索活動을 阻害하고 雨天등으로 空中에서의 威脅이 없을 때에는 사단警戒線에 까지 接近하여 跳梁하기도 하였다.

이무렵 사단은 역시 臨津江 南岸에 主陣地를 두고 제15연대를 비롯한 各級豫備隊로서 江 北岸에 대한 搜索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開城부근은 休戰會談으로 因하여 制約을 받게되니, 搜索의 限界는 非智山—石柱院里일대로부터 西쪽으로 大德山—長湍—都羅山里일대에 머무르게 되었다. 더욱 長霖등 잦은 降雨로 말미암아 사단은 不利한 條件下에 江를 건너 南·北岸을 往來하며 작전을 벌여야 하였고 따라서 企圖한 戰果를 올리기에 큰 支障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例컨데 8월 5일에 제12연대 제 2 대대는 제15연대와 함께 九化里 南쪽 △207에 대한 威力搜索을 敢行하였는데 전날 밤중에 高浪浦로 渡河中 갑작스런 暴雨와 強風으로 제 6 중대 1개 소대의 短艇이 顚覆되어 15명이 溺死하고 이로 말미암아 대대는 渡河한 兵力만으로 △207에 진출하였다가 그대로 主陣地로 復歸한 바 있다.

여하간 사단은 그 일부로서 항상 江北岸에서 搜索및 警戒에 任하도록 하면서 종종 대대규모로써 威力搜索을 敢行하였고, 이번에도 그 一環으로 제12연대의 예비대대가 出擊케 된 것이다. 제12연대는 그간 제 3 대대를 右一線, 제 1 대대를 左一線으로 主陣地를 堅持하였는데 8월 18일에 그 일부를 交代하여 예비대였던 제 2 대대를 左一線으로 主陣地를 지키게 하고, 제 1 대대는 새로이 예비대로 金谷里에 集結 待機케하니 이제 제 1 대대가 攻擊部隊로 나서게 되었다.

한편 사단에는 그동안 重要한 人事異動이 있었으니 7월 3일에는 陸本特命 제38호(51,7,1)에 依據하여 姜文奉 소장 뒤를 이어 9代 사단장으로 陸本 秘書室長이었던 朴林恒준장이 赴任하였으며, 7월 30일에는 육군본부 특별명령(甲) 제468호(51.7.23)에 依據하여 9代 參謀長에 李鍾國대령이 金東斌대령의 後任이 되었다. 그리고 8월 2일에는 육군본부 특별명령(甲) 제480호(51.8.1)에 依據하여 副師團長 劉興守대령이 解任되고 3代 副師團長으로 張昊珍대령이 就任하였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 계획

8월 中旬의 不順하던 日氣가 回復되자 사단은 敵陣을 攪亂하고 敵情을 把握하기 위하여 일부로서 非智山—石柱院里일대를 공격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사단장 朴林恒 준장은 右一線인 제12연대에 任務를 賦與하여 命令하기를 『8월 26일을 期하여 1개 대대로써 石柱院里일대의 敵陣을 공격하여 이를 攪亂하고 可能한 限 多數의 敵을 捕虜로 하라』고 하였다.

이에 제12연대장 金永錫대령은 예비대인 제1대대를 攻擊部隊로 抽出하고 要旨 다음과 같이 命令하였다.

『① 연대는 사단 명령에 依하여 石柱院里일대의 敵을 攪亂 공격하여 捕虜를 獲得하려 한다.

② 제1대대는 24일 18.00에 臨津里로 機動을 시작하여 渡河한 다음, 25일 04.00까지 高浪浦 西쪽에 集結 待機하라.

但 重火器中隊는 16 00에 長佐里로 機動하여 主力에 앞서 高浪浦로 渡河하라.

③ 제2·제3兩대대는 主陣地에서 現任務를 계속하라.

④ 제1대대의 攻擊間 砲兵 제17대대가 支援한다.

⑤ 攻擊開始日은 26日 03.00이며, 主陣地로의 撤收는 別命한다.』

명령을 받은 제1대대는 24일 16.00에 重火器中隊부터 金谷里에서 機動을 시작하여 23.30까지 모두 渡河를 끝내고, 25일은 공격준비를 갖춘 다음 다시 23.30에 攻擊開始線인 梧陰里 △163—소륜里 △190 일대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2) 작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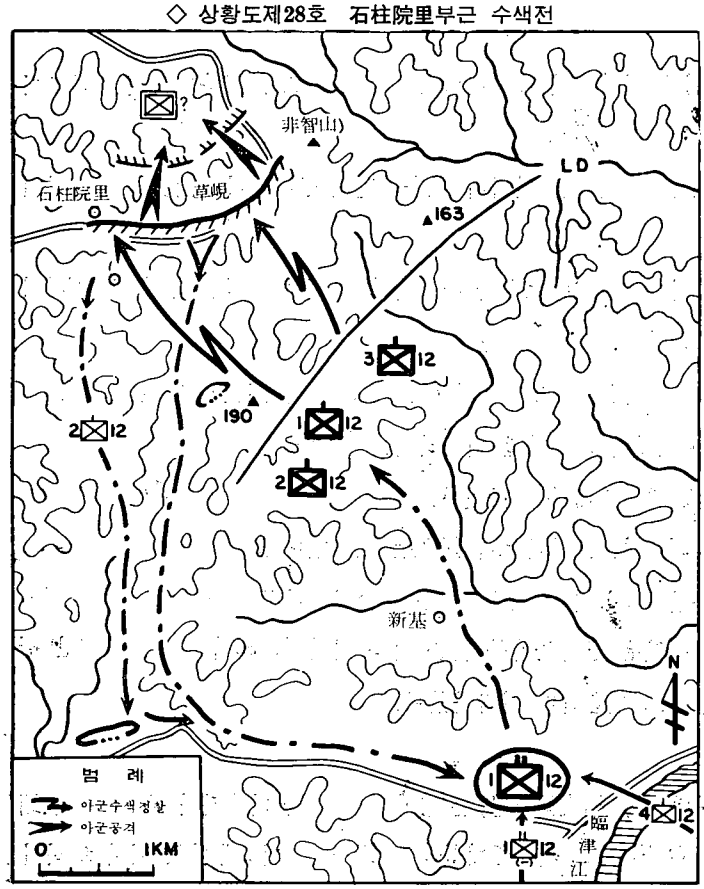
8월 26일 : 제12연대 제1대대(장, 柳文鎬소령)는 밤사이 前進을 계속하여 △190 東北端에 진출하자 곧 제3중대를 右 第一線, 제1중대를 左 第一線, 제2중대는 예비로 하여

03.00에 攻擊開始線을 通過하였다.

대대는 제2중대가 1개 소대를 博陵洞 南쪽 高地에 配置하여 대대 左側方을 警戒하는 가운데, 06.00에 主力이 上石柱院일대에 진출하였고, 重迫擊砲班은 △190 東南麓에, 重機關銃班은 下石柱院 東北 高地에 각각 銃砲를 据置한 다음 攻擊隊의 支援에 任하였다. 이때부터 敵彈이 亂飛하고, 일부의 敵은 上石柱院 東北쪽 高地—北쪽 高地에서 射擊을 集注하였다. 07.00에 제1중대가 上石柱院 西쪽인 괴정 北쪽 高地에 진출하고 제2중대가 上石柱院南쪽으로 後續하자 이번에는 上石柱院 北西쪽 高地와 草峴일대에 각각 2개소대 및 1개소대 규모의 敵이 增援하여 迫擊砲등의 집중 사격이 더욱 加熱化되었다.

그런데 敵이 占據한 上石柱院 北側 일대의 高地는 마을아래를 東西로 뻗은 道路를 瞰制할뿐만 아니라 標高 200m 以上으로 비교적 傾斜가 急하여, 대대가 道路를 질러 直衝하기에는 困難한 형편이었다. 따라서 제3중대는 09.30에 上石柱院 東端에서 北東쪽으로 진출하고, 同時에 제1중대도 下麓을 西쪽으로 迂回하였으나 尤甚한 敵射로 말미암아 공격力이 여기에서 鈍化되었다.

◇ 상황도제28호 石柱院里부근 수색전



대대는 09.45에 제2중대가 下石柱院 東쪽의 俗稱남성바우 일대에 1개 소대를 配置하여 左側方을 防守하는 가운데 攻擊續行을 위한 態勢를 가다듬고, 11.00에 草峴 東南쪽—上石柱院 北側高地일대를 目標로 공격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敵은 山中腹에 火力據點을 構築하고 122mm野砲와 迫擊砲 등의 支援下에 執拗하게 抵抗하여, 11.40까지도 제3중대는 100m를 前進하였을 따름이고 제1중대는 高地南麓에서 抑留되어 그 進

度가 遲遲不振한 局面을 보이게 되었다.

이에 대대장 柳文鎬소령은 직접 陣頭에 나서서 공격을 再開코자 下石柱院 北쪽 高地로 올랐는데; 敵은 이에 對應하는듯 제1중대 正面에 더욱 火力을 增加하였다. 12.30에 제1 제3兩중대는 다시 공격을 시작하여 砲兵 제17대대의 支援砲擊을 받으면서 熱戰을 벌인 끝에 제3중대는 草峴일대에, 제1중대는 敵陣 100m 前方까지 肉薄하였다. 그러나 敵은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逆襲을 試圖하는 등 戰勢가 打開되지 않고 있었는데, 마침 연대로부타 撤收命令이 下達되었다.

그리하여 대대는 제2중대의 일부를 △190北端에 配置하여 掩護케 하는 가운데 13.50에 제3중대부터 撤收를 시작하였다. 뒤이어 제1중대도 反轉하고 重火器中隊(장, 林憲九 대위)도 이에 따르기 시작하였는데, 이를 본 敵은 중대규모로써 高地로부터 逆襲하여 그 射擊이 雨注하니 대대는 一時 隊伍가 混亂되어 5명의 戰死者까지 내었다. 이렇게 한때 分散된채로 撤收하던 主力이 제2중대의 掩護裡에 隊列을 가다듬고 江岸에 이른것은 밤도 깊은 뒤였다.

대대는 오금里 交叉路 北쪽에서 다시 道路를 遮斷하던 제2중대가 17.30에 撤收를 시작하여 20.30에 江 南쪽으로 渡河를 完了한 것을 비롯하여 23.30까지는 모두 南岸으로 反轉하였는데, 제2중대만은 長佐里 北쪽 △54를 占領하여 江岸에 대한 警戒에 任하고 主力은 金谷里로 向하였다.

한편 대대 西側에서는 이날 제11, 제15兩연대의 각 일부가 沙是里 일대를 搜索하였으나 별다른 接敵狀況은 없었다.

라. 전투 후의 개황

사단은 9월 以後에도 主로 제15연대로서 必要에 따라 敵陣에 대한 搜索과 小規模의 奇襲을 되풀이 하였다.

한편 敵도 9月初에 中共 제64군과 제65군이 交代하여, 제65군이 九化里일대의 陣地를 引受하고 특히 △207—望海山—盤龍山일대에서 我軍을 瞰制하는 地의 利를 享有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사단은 警戒線을 臨津江 北岸으로 推進한 가운데 사령부를 官山里에 두고, 제12연대를 右一線, 제11연대를 左一線으로 江南岸의 主陣地를 堅持하였으며, 配屬 제5獨立海兵대대로서는 역시 金浦半島의 警戒에 任하고 있었다.

그런데 가을에는 休戰會談도 再開되었듯이 戰線은 더욱 膠着化되어 제15연대를 비롯한 사단의 일부는 九化里 南쪽—大德山—長湍일대를 사실상 前線部隊로서 擔當하여, 警戒線上에서 보다 堅固한 陣

地構築에 着手함과 아울러 이를 妨害하려는 敵과 局部的인 攻防戰을 벌이기도 하였다.

戰果		損失	
射殺	57명	戰死	5명
		戰傷	10명

(陸本定期作戰報告에 依據하되 損失은 戰死 4名으로 記錄된 것을 5名으로된 제12연대戰例에 따랐다)

§參戰者의 證言

◇제12연대 제1대대장 柳文鎬 소령

(1973. 2. 13 일흥빌딩에서, 예 대령)

臨津江까지 反擊할 때에는 큰 激戰을 치루지 않았고, 8~9월의 九化里 南쪽·非智山일대에서의 戰鬪는 기억에 남을만한 事項이 없는 정도이다. 小康상태로 본격적인 戰鬪라 할 만한 것이 없었던 것 같다.

◇제15연대장 金振暐 대령

(1973.3.13 한수물산에서, 예 소장)

내가 金安一대령으로부터 제15연대를 引受한 다음에는 臨津江을 渡河하여 威力搜索을 벌였다.

한번은 8월에 제12연대의 全勉植 대대를 配屬받아 九化里 南쪽일대의 高地를 공격하였는데, 江을 渡河할 때 갑자기 내린 暴雨로 江水가 急增하여 攻擊短艇이 전복되었다. 그리하여 제12연대의 1개소대를 잃었으나, 계획대로 진격하였다가 撤收한 일이 있다.

그뒤에 中共軍이 南下한다는 情報로 다시 渡河하여 江北岸을 確保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나는 金國柱대대에 1개 중대로써 橋頭堡를 確保토록 指示하였는데, 그 중대가 다음날 새벽에 中共軍의 奇襲으로 30명의 損失을 보았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그곳에 侵攻한 敵을 擊滅코자 제2대대로 하여금 高浪浦로 渡河케하여 敵의 退路를 遮斷하고 挾攻한 끝에 捕虜만도 60餘名을 잡았는데, 먼저 戰死한 我軍 30명의 屍體를 보니 기름으로 끄슬려 죽은 것이어서 대단히 분격한 일이 있다. 여하간 이때 敵을 擊滅한 뒤로는 큰 공격은 없었다.

◇제12연대 제5중대장 金永俊 대위

(1973.7.31 제26사단 사령부에서, 대령)

대대가 坡平山으로 진격한 다음, 우리 중대는 계속 진출하여 臨津江을 건너 △91를 占領하고 警戒부대의 임무를 遂行하였다. 그곳에서 敵의 夜襲을 받아 肉迫戰끝에 격퇴한바 있고, 그뒤에 대대가 모두 渡河하다가 갑자기 내린 비로 강물이 불어나 배가 엎어져서 제6중대의 1개소대가 溺死한 일도 있었다. 그리고 戰線은 대체로 小康狀態를 維持하며 彼我間에 搜索活動이 벌어지다가 斗梅里戰鬪를 하게되었다.

14. 海兵隊의 兜率山地區 戰鬪 (1951년 6월 4일부터 1951년 6월 19일까지)

참조·별책부도 제31호
상 황 도 제29, 30, 31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 軍			
해병제1연대	장 대령	金 大 植	
제1대대	장 소령	孔 正 植	
제1중대	장 중위	李 西 根	
제2중대	장 중위	李 應 德	
제3중대	장 중위	林 乘 允	
화기중대	장 중위	李 哄 均	
제2대대	장 소령	尹 永 俊	
제5중대	장 중위	趙 容 銀	
제6중대	장 중위	鄭 泰 翊	
제7중대	장 중위	朴 正 模	
화기중대	장 중위	李 元 坰	
제3대대	장 소령	金 潤 根	
제9중대	장 중위	姜 福 求	
제10중대	장 중위	朴 利 稷	
제11중대	장 중위	朴 建 燮	
화기중대	장 중위	林 東 根	
지원부대			
美포병제11연대			
제3대대	장 중령	William McReynolds	
美해병제1비행단	장 준장	Thomas J. Cushman	

敵 軍			
北共 제5군단장	중장	方 虎 山	
제12사단	장 소장	崔 忠 國	
병 력	약 4200명		

나. 전투 전의 개황

洪川부근에서 中共軍의 제5차 2단계 春季攻勢를 擊退한 해병제1연대(장, 金大植대령)는 美 해병제1사단의 總反擊計劃에 따라 5월 23일 부터 洪川東北方에서 攻擊을 개시하여 6월 1일에는 四明山(楊口 西南쪽 7km)일대에 躍進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때 美 해병제1사단은 그의 右一線部隊가 많은 損失을 입은 끝에 攻擊이 挫折됨으로써 戰線재조정을 斷行하였으니 이러한 師團계획에 따라 해병제1연대는 6월 3일 左一線에서 中央으로 轉進하여 美 해병제5연대로부터 兜率山지역을 인수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地域은 楊口와 麟蹄 사이에 太白山脈中에서도 가장 險峻한 곳으로 標高 1.290m의 鷲峰과 1 142m의 加七峰 그리고 1,178m의 大嵬山과 1,148m의 兜率山에 이어 1,314m의 大巖山이 南에서 北으로 一列로 뻗쳐 있었으며 平均 標高 1,000m 以上이었다.

더욱이 해병제1연대가 담당한 兜率山을 中心으로한 一帶는 奇岩絶壁과 峽谷으로 點綴되어 있었다. 또 左右로는 楊口와 麟蹄에서 北上하는 道路를 끼고 있으므로 萬一 여기를 確保하지 못한다면 兩翼에있는 友軍戰線의 逆擊이 힘들뿐 아니라 境遇에 따라서는 이 突出地域때문에 敵에게 被圍되는 우려마져 있는 戰術上의 要線이었다. 또한 이 一帶는 襄陽一鐵原을 三角의 底邊으로 하고 元山을 그 頂點으로 하는 中東部의 三角 山岳지구에서 가장 中心이 되므로 그 戰略上의 價値도 또한 큰 것이 있었다.

敵軍의 상황 : 敵은 이와같은 自然的인 地利를 最大로 이용하여 堅固한 陣地를 구축하고 我軍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는데 이때에 연대의 正面에 있던 敵은 北共軍에서 莫強을 자랑하는 부대로 1950년 南侵時에는 先頭의 精銳사단으로 安康—杞溪까지 侵入한바 있으며 이곳에서 打害를 받고 江界에서 再編成된 北共제5군단 예하의 제12사단이었다.

그런데 同사단은 제1, 제3兩연대를 大嵬山을 根據로하여 연대목표 2—4—9—13을 連하는 線에서 防禦陣地를 占領하고 있는 것으로 判斷되었다. (상황도 참조)

이때에 美 해병제1사단으로 부터 入手한 情報에 의하면 연대가 攻擊할 最初목표인 2—4에는 1개연대 규모의 敵이 配置되어 있으며 연대 右一線인 제3대대와 그 인접의 美 해병제5연대 正面에는 北共제5군단 예하의 제32사단이 配置되어 있는 것으로 判明되었다. 또 이 攻擊에 앞서 얻은 捕虜陳述에 의하면 공격목표 7과 9에 그리고 兩목표 中間에 各各 1개중대 규모의 兵力이 배치되어 있으며 그 後線 后方에는 1개연대의 예비대가 있다는 것이다.

敵의 補給상태는 비교적 良好하고 더구나 實彈은 充足되어 있으며 食糧은 야간을 이용하여 수송하고 있는듯 하였다.

我軍의 상황 : 最初에 兜率山 일대에 대한 공격은 美 해병제1사단이 담당하였으나 많은 損失만을 입고 成功하지 못하였다.

5월 마지막 주간부터 楊口를 공격하여 이를 占領한 美 해병제7연대(장, Herman Nickerson, Jr. 대령)는 계속 공격을 반복하면서 많은 損傷을 입었으며 6월 1일 兜率山지역으로 進擊하려던 美 해병제5연대(장, Richard W. Hayward 대령)는 △ 611 (楊口 東北쪽 7km)를 점령하는데 2일간의 격전끝에 前例없는 큰 打擊을 입었다. 즉 美 해병제1사단의 5월중의 損失은 전사 75명 부상 731명으로 平常時 比率보다 낮았던데 比하여 6월에 들어 兜率山지역의 一戰으로 死傷者수가 15 : 1의 비율로 급격히 增加하고 있었다.

이에 美 해병제1사단장 Gerard C. Thomas 소장은 마침내 戰線부대의 再調整을 斷行하기에 이르렀으니 즉 사단예비대로 控置한 美 해병제1연대(장, Wilburt S. Brown 대령)를 美 해병제7연대와 交替케하여 사단의 左一線에 展開토록 하는 한편, 韓國해병제1연대를 美 해병제5연대와 交替시켜 사단 中央에, 美 해병제5연대를 사단 東側方으로 轉進시켜 사단의 右一線에서 서로 竝進토록 措置하였다.

이에 楊口 西南方에서 進擊中인 해병제1연대는 그 지역을 제7사단 제3연대(장, 鄭 震 대령)에 인계하고 恭居 絲川峴(楊口 西南쪽 7km)에 集結하였다가 車輛便으로 松亭里를 경유 兜率山 지역으로 轉

進하여 6월 4일에 美 해병제5연대와 任務를 교대하기에 이르렀다.

이때에 지원부대로는 美 포병제11연대 제3대대(장, William McReynolds 중령)와 美 해병제1공병대대 제2중대 제3소대가 있었으며 航空支援으로는 미 해병제1비행단(장, Thomas J. Cushman 준장)의 航空機들이 數分內에 戰線에 參加할 수 있도록 橫城에 待機하고 있었고 한편 補給의 圓滑을 기하기 위하여 美해병대의 空輸支援이 뒤따르고 있었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6월 3일 해병제1연대장 金大植대령은 美 해병제1사단으로부터 兜率山지역에 대한 攻擊命令을 수령하고 참모들과 함께 當面의 敵情과 地形의 特性을 分析하고 전반적인 作戰계획을 熟議한 끝에 부여된 Kansas線內의 諸高地를 3개로 分割 擔當토록 하고 이날 24.00를 期하여 要旨 다음과 같은 攻擊命令을 하달 하였다.

『① 제1대대는 6월 4일 08.00 以前에 △ 680 및 △ 611부근에서 목표 1을 점령하고 계속 목표 2를 공격할 준비를 하라.

② 제2대대는 6월 4일 08.00 以前에 △ 1,058 및 △ 912부근에서 목표 8과 9를 점령할 준비를 하라.

③ 제3대대는 연대예비대로서 △ 854부근을 점령하고 1개소대로써 목표 3을 점령케하여 연대 右翼을 엄호하라.』

이때 연대 CP는 元洞知谷(楊口 東南쪽 6km)에 位置하고 中間補給所를 廣峙洞(楊口 東北쪽 6km)부근에 醫務隊를 竹里(楊口東南쪽 6.5km)에 設置하였다.

이리하여 연대는 6월 4일 08 00를 期하여 兜率山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이에 앞서 연대장 金大植대령은 大號하되 『如何한 難關이라도 이를 忍耐하고 克服하는 者만이 能히 最後의 勝利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하여 將兵들의 必勝을 鼓舞하였다.

(2) 작전실시

(가) Kansas線內 공격작전 (6월 4일~12일)

6월 4일(D+1일) : 이날 날이 밝자 지난밤까지 내리던 가랑비는 濃霧와 暗雲으로 變하고 날씨는 무더웠는데 이날 각대대는 이른 아침부터 攻擊待機地域으로 移動을 시작하여 各戰鬪區域內에서 美해병부대와 任務를 交代하고 공격을 준비 하였다.

1. 제1대대(장, 孔正植 소령)는 07.00에 美 해병제5연대 제1대대(장, John W. Hopki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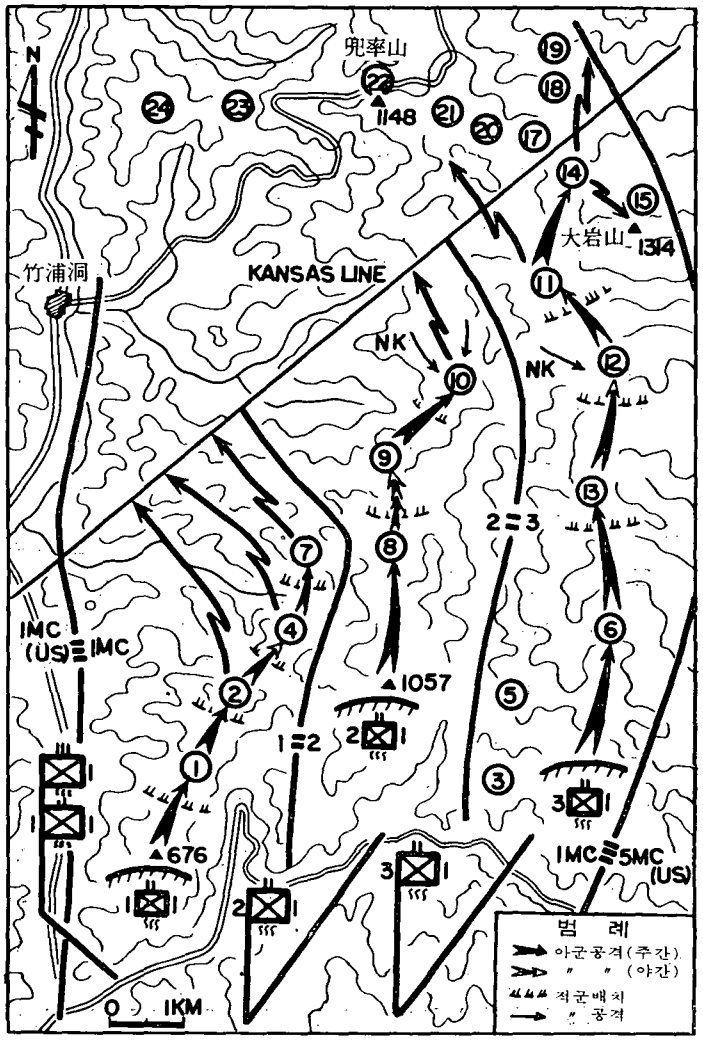
중령)와 임무를 교대하고 제1중대(장, 李西根 중위)를 최초의 공격중대로 選定하여 △ 676에서 목표 1 및 2를 공격토록 하였다.

이때 제2중대(장, 李應德중위)는 △ 676의 東北方 道路 건너편의 無名高地를 점령하고 공격중대를 사격으로 엄호케 하고 제3중대(장, 林秉允 중위)는 대대예비대로서 최초에 △ 611에서 대대의 側後方을 경계하다가 공격중대에 後續하여 躍進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최초의 공격임무를 맡은 제1중대장 李西根 중위는 목표지역의 敵情과 地形을 偵察하기 위하여 1개 분대를 뽑아 12.50에 前方으로 挺進토록 하였다.

偵察隊는 목표 1을 向하여 좁은 稜線을 따라 500—600m 前進하였을 때에 목표의 東南方 斜面에서 1개중대 규모의 敵으로부터 돌연한 집중사격을 받고 交戰을 벌였으나 地形의 不利와 數的劣勢로 進退兩難의 困境에 處하게 되었다.

상황도 제29호 兜率山지구 第1期戰鬪



이에 중대장 李西根 중위는 중대가 곧 공격으로 나갈 것을 결심하고 13.40에 野砲 및 迫擊砲의 支援하에 공격을 개시하여 偵察隊를 救出하고 突進을 계속하자 敵은 처음에는 散發的인 抵抗만을 試圖하는듯 하더니 얼마 후 潰走하기 始作하였다.

이에 중대는 17.30에 목표 1을 占領하고 계속 목표 2로 進擊한 끝에 前方 200m의 중간高地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이 高地를 瞰制하는 목표 2의 敵으로부터

集中射擊을 받게되어 21.30에 목표 1에 復歸하고 敵의 逆襲에 對備하였다.

2. 제2대대(장, 尹永俊 소령)는 이날 10.50에 △ 912부근에 進出하여 美 해병제5연대 제2대대(장, Glen E. Martin 중령)와 任務를 交代하고 제5중대(장, 趙容銀 중위)를 最初공격부대로 選定하여 14.00에 목표 8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런데 이때 목표 8을 固守하던 敵은 이미 이곳에 그 一部兵力만을 남기고 主力은 撤收한듯 하였다.

이에 중대는 14.30에 목표 8을 一蹴하고 退走하는 敵을 追擊하였는데 이 때에 1개소대 규모의 敵이 목표 9 前方高地에서 散兵壕를 構築中인 것을 알게되자 중대장 趙容銀 중위는 곧 1개소대를 抽出하여 이를 攻擊케하고 나머지 소대는 火力으로써 이를 支援토록 하였다.

그러나 이날 制限된 視界와 不利한 地形에서 敵陣으로 近接하자 敵은 手榴彈 및 自動火器를 驅使하여 頑強하게 抵抗하므로 중대는 一旦 공격을 中斷하고 19.30에 목표 8로 다시 復歸하였다.

이때 제7중대(장, 朴正模 중위)는 목표 8 후방의 △ 1.057 그리고 제6중대(장, 鄭泰翊 중위)는 제5중대와 제7중대의 中間稜線을 각각 占領하고 공격初日을 보냈다.

3. 제3대대(장, 金潤根 소령)는 이날 09 00에 佳悟作里(楊口 東北쪽 8km)에 進出하여 제10중대에서 1개소대를 뽑아 △ 854를 占領케 함으로써 연대의 主補給路를 確保하는 한편 연대右翼을 掩護하였다.

6월 5일(D+2일) : 1. 제1대대는 이날 07.00에 예비대인 제3중대를 제1중대와 任務交代케 하였다.

이어 제3중대(장, 林秉允 중위)는 이날 08.00에 제1소대를 右一線, 제2소대를 左一線으로 하여 목표 2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때에 敵은 前날 제1중대가 占領하였던 목표 2 前方 중간高地에 밤사이 增強된 1개소대 규모의 兵力과 機關銃을 배치하고 있었다.

중대는 各個 躍進으로 敵陣에 肉迫한 다음 火器陣地를 爆破하면서 突進하여 이날 12.00에 중간高地를 奪取하였다.

이때 제1대대장 孔正植 소령은 제1중대에서 1개소대를 抽出하여 공격중대를 增強하고 목표 2에 대한 공격을 促進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제3중대는 목표 2에 대한 接近戰을 再開하여 20 45에는 목표前方 50m까지 肉

薄하였으나 日沒과 地形의 不利로 말미암아 더 以上 前進하지 못하고 現進出線에 急編陣地를 占領하여 밤새도록 手榴彈戰과 彼我 서로간의 辱說과 입씨름으로 밤을 새웠다.

2. 제2대대는 前날에 이어 제5중대를 攻擊中隊로하여 이날 09.00에 목표 8의 前方 200m의 능선에서 左右로 나누어 목표 9에 대한 공격을 再開하였다.

그러나 敵은 여전히 有利한 地形에 隱蔽하여 重機와 迫擊砲 그리고 多發銃 및 手榴彈등으로 끝까지 버티는 것이었다.

중대는 이러한 狀況下에 數次에 걸친 突擊을 試圖하였으나 漸次로 不利하여지는 地形에서 敵의 抵抗은 加重되고 實彈의 補給마저 如意치 못한 탓으로 공격을 中斷하고 隨意撤收하여 戰列을 다시 정비하였다.

3. 한편 제3대대는『목표 6 및 13을 공격 점령하고 美 해병제5연대와 連繫하라』는 연대攻擊命令에 따라 이날 06.00에 佳悟作里를 출발하여 12.00에 △ 854로 前進한 다음 補給路를 경계중이던 소대를 原隊로 복귀케 하였다.

대대장 金潤根 소령은 최초에 제10, 제11 兩중대를 공격중대로 하여 14.30에 목표 6에 대한 공격을 開始하였다.

그러나 이때에 敵은 목표 6에서의 固守가 어려울 것으로 느꼈는지 목표 13에서 決戰을 꾀하려는듯 이미 목표 3 및 5를 포함하여 목표 6으로부터 撤收한 뒤였다.

따라서 대대는 15.00에 목표 6을 無血 점령하고 계속 목표 13을 향하여 躍進한 결과 20.00에는 목표前方 200m에 接近하였다. 이때에 敵의 集中射擊으로 激戰을 전개하였으나 日沒로 因하여 공격을 중지하고 대대進出線에서 敵의 反擊에 대비하여 急編방어에 들어갔다.

한편 이날 대대 CP는 목표 3으로부터 목표 6에 推進 開設함으로써 보다 圓滑한 戰鬪指揮를 圖謀하고 前進의 발판을 굳혔다.

6월 6일(D+3일) : 이날 연대에서는 그간의 戰況을 分析 검토한 결과 敵이 占領하고 있는 목표2—9—13을 連하는 防禦線을 突破하려면 제1대대 正面의 목표 2를 早期에 탈취하고 伸張된 연대正面을 縮少시켜 공격능력을 集中하여야 될 것이라는 結論에 도달 하였다.

이에 연대장 金大植 대령은 제1대대를 위한 火力의 集中支援을 꾀하는 한편 제1대대장에게 嚴達하기를『今日中으로 목표 2를 奪取한 다음 계속 목표 4를 占領하라』하였다.

1. 제1대대장 孔正植소령은 前날 목표 2의 50m 前方까지 進出한 제3중대로 하여금 果

敢한 肉薄戰을 敢行케하여 期必코 이 목표를 奪取토록하는 한편 제2중대는 그후에 목표 4를 超越攻擊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제3중대(장, 林秉允 중위)는 이날 08.00에 野砲 및 迫擊砲의 支援아래 목표2에 대한 공격을 再開하였다.

그러나 我軍의 집중포격에도 不拘하고 岩石과 樹林으로 엄폐된 敵의 화기진지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듯이 중대가 공격을 개시하자 기관총의 火力이 集中하고 수류탄이 炸裂하였다. 이러한 敵의 熾烈한 彈幕을 뚫고 목표 30m 前方까지 肉薄한 중대는 드디어 敵陣에 突擊을 敢行하여 이날 15.30에 목표 2를 占領하였다.

이때에 제2중대(장, 李應德 중위)는 退走하는 敵을 追擊한 다음 목표 4를 공격하였는데 중대는 敵의 저항을 물리치면서 前進하여 20.20에 목표 前方 500m의 無名고지를 점령하였다.

2. 제3대대는 前날 진출한 목표 13의 前方 200m 線에서 제10중대로써 계속 공격케하고 제11중대로써 사격으로 공격부대를 엄호토록 하였다.

그러나 목표 13은 標高 1,175m의 斷崖와 峽谷으로 形成된 험준한 高地이므로 敵은 이 天然的인 地形의 利點을 이용하여 고지의 頂上일대에 堅固한 진지를 구축하고 각종 자동화기와 수류탄을 效果的으로 驅使하여 我軍의 공격을 阻止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제10중대는 이 敵을 擊碎코자 끈질긴 接近戰을 試圖 하였으나 끝내 성공치 못하고 다시 原位置로 철수하여 前날과 같은 陣地를 占領하였다.

3. 한편 제2대대는 이날 제1, 제3 兩대대 공격에 이어 夜間攻擊을 계획하였기 때문에 제5중대는 21.00에 목표 9에 대한 공격을 敢行하였으나 熾烈한 交戰끝에 依命 撤收 하였다.

6월 7일(D+4일) : 1. 제1대대는 前날 점령한 無名高地로부터 제2중대가 계속 목표 4에 대한 공격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제2중대는 이날 06.30에 野砲지원하에 목표 4에 대한 공격을 再開하였으나 이들이 목표 前方 400m까지 進擊하였을 때 重機로 補強된 敵陣地에 부닥치게 되었다.

이때 중대장 李應德 중위는 1개特攻分隊로 하여금 右側능선으로 迂回토록하는 한편 正面에서 壓力을 加하였다. 이에 敵은 수류탄을 계속 던지면서 斷末魔的으로 抵抗하였으나 正面에서 突進한 제3소대장 李根植 소위는 敵이 던진 수류탄을 칼빈소총의 개머리판으로 쳐서 危機를 謀免하면서 소대를 指揮하여 계속 敵陣으로 肉迫하였다.

이때 迂回침투한 특공분대가 敵陣의 側後方에서 突入하자 敵이 左衝右突의 混戰을 치루는 순간에 正面으로부터 突擊소대가 陣內로 突入하여 銃劍을 휘두르니 敵은 드디어 潰走하게 되고 13.40에 이 無名高地를 占領하는데 成功하였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얻은 捕虜의 진술에 의하면 그동안 이 一帶를 固守하던 北共제12사단 제1연대 제2대대는 해병대의 鐵槌로 대부분이 殺傷을 당하고 현재 60여명만이 殘存하여 兵力의 增援을 기다리면서 陣地를 固守中이라 하였다.

그런데 이 高地上에 있는 四方 16尺의 넓은 有蓋壕속에는 敵의 死體가 가득히 累積되어 무더운 熱氣속에 지독한 惡臭를 풍기고 있었다.

중대가 점령한 이 高地는 목표 4로부터 400m의 거리내에서 瞰制되고 또한 右側方이 露出됨으로써 敵으로부터 소화기의 集中사격을 받았다.

이에 중대는 이날 20.30에 목표 4를 탈취할 목적으로 奇襲을 시도하여 100m 前方의 유리한 능선을 점령하고 계속 목표에 接近하려 하였으나 워낙 不利한 지형과 敵의 頑強한 저항에 부닥쳐 일단 進出線에서 急編防禦를 實施하였다.

2. 제2대대는 제5중대로 하여금 前날에 이어 목표 9를 공격토록 하고 이날 09.00에 美해병제1비행단 航空機의 近接支援아래 공격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稜線을 따라 前進하던 제5중대는 左右로 斷崖를 이룬 지형에서 敵의 저항을 받고 交戰끝에 17.00에 이 지역을 奪取하였다.

대대장 尹永俊소령은 여기서 공격初日부터 一線部隊로 奮戰한 제5중대를 제7중대와 임무를 교대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새로운 공격중대가 된 제7중대장 朴正模 중위는 敵情 및 地形探索을 위하여 1개 소대로써 21.00에 夜間偵察을 실시키로 하였다.

3. 한편 제3대대는 이날 제11중대로써 그간 激戰을 치룬 제10중대와 任務를 교대시키고 前線을 整備補強하였다.

그런데 이날 연대에서 入手한 情報에 의하면 목표 9의 敵은 隨時로 증원된 兵力으로 陣地를 복구하고 補強中에 있다고 하였다.

이날 10.00에 美 해병제1비행단 요격기와 野砲가 목표지역을 30분간에 걸쳐 強打하였다.

10.30에 제11중대는 煙火가 자욱한 목표 9를 向해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砲煙속에도 敵의 저항은 如前하였으며 敵의 사격으로 銃彈은 빗발치 듯 하였다.

이리하여 중대는 일단 隨意 철수하여 戰列을 整備하고 12 45에 다시 박격포의 지원사격

下에 接近을 시도하였으나 역시 成功치 못하고 原位置로 復歸하였다.

6월 8일(D+5일) : 1. 제1대대(장, 孔正植 소령)는 前날 목표 4의 前進진지를 奪取한 제2중대로 하여금 목표 4를 계속 攻擊토록 하였다.

제2중대는 이날 07.30에 중화기 및 자동화기의 支援射擊 밑에 목표 4에 對한 공격을 再開하였다.

그런데 이곳으로부터의 地形은 岩石과 叢林으로 덮힌 急傾斜였기 때문에 접근로는 東南쪽에서부터 비스듬이 위로 뻗은 좁은 稜線 밖에는 없으므로 敵은 이 豫想 接近路에 화기를 縱深配置하여 遮斷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중대의 進出이 매우 困難하였다.

그러나 중대는 各個躍進으로 敵의 火網을 뚫고 17.30에는 목표 전방 30m까지 肉薄하여 突進을 敢行하려는 순간, 百尺竿頭에 선 敵의 斷末魔的인 저항과 목표 7로부터의 側力 집중사격으로 말미암아 결국 목표를 占領하지 못하고 또 다시 攻擊線으로 隨意撤退하였다.

2. 제2대대(장, 尹永俊 소령)는 이날 午前중에 美 해병사단 野砲의 목표지역에 대한 破壞 및 공격준비 사격에 뒤이어 제7중대로 하여금 목표 9에 대한 공격을 재개토록 하였으나 敵의 저항은 여전히 頑強하였다. 그러나 一進一退를 거듭한 奮戰끝에 15.30에 목표前方에 있는 또 하나의 敵의 前進진지를 탈취하였다.

3. 제3대대장 金潤根 소령은 그간의 戰訓과 敵能力을 분석한 결과 1개중대만의 공격으로는 목표 13의 점령이 어려울 것으로 判斷하고 地形의 不利에도 불구하고 대대 全力으로 공격할 것을 決心하기에 이르러 제11중대는 正面으로 제9중대는 迂回케 하는 한편 제10중대는 제11중대를 뒤따라 이를 火力支援토록 하였다.

이날 09.00에 시작된 美해병사단의 야포의 공격지원 사격에 뒤이어 美 해병제1비행단의 戰爆機 편대는 목표에 네이팜彈을 集中 投下하고 機銃掃射를 加하여 대대 將兵들의 士氣를 鼓舞하였다.

이리하여 10.10에 제11중대는 正面의 稜線을 따라 공격하고 제9중대는 右側능선을 따라 迂回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런데 이때에 대대장 金潤根 소령은 敵에게 我軍의 부대규모를 欺瞞하기 위하여 攻擊소대를 중대로, 중대를 대대로 한單位씩 높여 呼稱하도록 事前에 指示하였으니 말하자면 이때에 대대는 연대가 된 셈이었다.

그러나 敵은 기어코 목표 13을 固守하려는듯 수시로 증원된 병력과 화력으로 더욱 陣地

를 補強하여 저항의 氣勢는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다.

이리하여 迂回접근하던 제9중대는 목표 200m 前方의 노출된 稜線에서 敵 자동화기의 集中攻擊을 받고 進退兩難의 위기에 當面하였다.

이때에 중대장 姜福求중위는 돌연 全隊員을 향하여 외치기를 『敵이 도망친다. 빨리 쫓아라!』라고 하면서 突進하였으며 『제1중대 앞으로!』라고 大喝一聲하였다. 이에 따라 勇氣百倍한 제1소대는 敵陣으로 躍進하여 순식간에 목표 前方 50m까지 肉薄하였다.

이와같이 敵의 火網을 突破하는데 성공한 중대장 姜福求중위는 제1소대를 제11중대의 右側소대와 連繫시키고 제2소대를 右側으로 迂回시켜 돌격대형을 調整하였다.

이 순간 부대지휘를 위하여 잠시 姿勢를 높였던 제2소대장 金文性소위가 敵彈으로 頭部에 貫通傷을 입고 장렬하게 戰死하였다.

이에 소대장을 잃은 제2소대원들은 悲憤蹶起하여 敵陣에 突入하니 마침 正面에서 突擊線에 당도한 제11중대가 또한 일제히 喊聲을 올리면서 手榴彈과 銃劍으로 突擊을 敢行함으로써 敵은 끝내 支離滅裂한 끝에 모두 潰散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대대는 滿 4일간에 걸친 奮戰끝에 무수한 戰友들의 피로 얼룩진 목표 13을 10.40에 占領하고야 말았다.

이날 戰鬪에서 敵은 무수한 死傷者를 遺棄한 채로 潰走하였는데 그中에는 敵의 중대장으로 인정되는 屍體도 있었다.

그리고 목표를 占領하였을 때에 그 後斜面 개인호속에 숨어 指揮官의 명령만을 대기하고 있던 1개소대의 敵을 모두 捕虜로 하였다.

이와같이 제3대대가 強力한 목표 13을 奪取함으로써 제1대대에 割當된 공격 목표 4와 제2대대의 공격목표 9는 그 占領이 容易하게 전개되었다.

6월 9일(D+6일) : 1. 제1대대(장, 孔正植 소령)는 前날에 이어 제2중대를 목표 4에 대한 공격을 계속케하고 제1중대는 목표 7을 超越공격토록 하였다.

이날 10.30에 제2중대는 前날의 노출된 稜線接近路를 避하고 左右兩翼으로 分進하여 15.45에 목표 前方의 有利한 稜線上의 高地를 占領하였으나 이 高地 역시 목표 4의 山頂으로부터 壓制되어 敵의 집중사격과 수류탄 공세의 標的이 되므로 兵力의 損失을 避하기 위하여 다시 공격선에 復歸치 않을 수 없었다.

2. 제2대대(장, 尹永俊 소령)는 이날 13.00부터 시작된 野砲의 공격준비 사격이 실시된

다음 제7중대로 하여금 17.20에 前날에 이어 공격을 再開토록 하였다.

제7중대장 朴正模중위는 공격正面을 後線에 따라 左右로 分割하고 2개소대로 하여금 各各 分散하여 前進토록 하였다.

그러나 右側소대가 敵의 甚한 抵抗에 부닥쳐 공격이 膠着되자 중대장 朴正模 중위는 1개분대만으로 敵을 계속 牽制토록 하고 2개분대를 隱密히 迂回시켜 右側소대에 合勢토록 하여 主攻을 補強함으로써 突破에 總力을 集中하였다.

이에 敵도 만만치 않게 저항하였으나 이미 決死突擊을 作心한 소대원들은 빗발치듯하는 敵의 彈雨를 뚫고 一進又一進으로 敵陣에 肉薄하여 熾烈한 手榴彈戰을 展開한 끝에 마침내 敵을 무찌르고 목표 9를 占領하는데 成功하였다

그런데 이때에 목표에 뛰어든 生存者는 불과 10명뿐이었으니 나머지 小隊兵力은 모두 목표탈취를 위한 最後의 血戰에서 散華한 것이다.

이리하여 生存者 10명만이 남은 소대는 곧 兵力의 증원을 要請하는 한편 敵의 逆襲에 對備한 急編防禦를 實施하였으나 이때 陣地의 右側능선으로부터 1개중대규모의 敵이 重기관총을 亂射하면서 狂波와도 같이 밀려닥치기 시작 하였다.

그러나 이토록 무수한 戰友들의 高貴한 피 땀으로 占領한 이 陣地를 어찌 拋棄하랴!

죽음을 覺悟한 이들은 一當百의 氣魄으로 最後의 一刻까지 勇戰에 勇戰을 거듭하여 全員이 散華할 때까지 醜敵의 陣內侵入을 결코 許容하지 않았다.

한편 突擊소대의 뒤를 追隨한 後續부대는 이와같은 逆境속에서도 再次 목표에 대한 突擊을 敢行하였으나 敵의 執拗한 저항과 地形의 不利로 말미암아 눈물을 머금고 19.00에 依命공격을 중지하고 進出線에서 戰列을 다시 정비하였다.

3. 제3대대(장, 金潤根 소령)는 이날 07.00에 제9중대의 分哨가 있는 목표 13의 左側斜面으로부터 1개대대규모의 敵의 逆襲을 받았다.

그러나 제9중대장 姜福求 중위는 이에 미리 對備하여 前날 대대作戰將校 朴東烈 중위와 함께 이 一帶를 地形偵察하고 要地에는 미리 기관총과 로켈砲를 配備하는 한편 警戒分哨를 設置하고 있었다.

이러한 狀況에서도 敵의 역습부대는 순식간에 중대 分哨線을 넘어 기관총 및 로켈砲陣地마저 破壞하면서 狂亂하기 시작 하였다.

이때 輕機소대장 吳定根 소위는 直接 기관총진지에 나가 이미 敵彈에 손잡이가 破損된 輕機關銃을 잡고 밀려 닥치는 敵兵을 向하여 集中掃射를 加하였다.

이때에 敵의 水冷式 重機가 我軍陣前 100m의 한 突出 지형을 占據하고 射擊中이었다. 이에 중대장 姜福求 중위는 60mm박격포班長 朴二曹에게 敵의 重機陣地에 대한 射擊을 命令하자 朴二曹는 60mm박격포의 砲列만으로 2발을 사격하여 敵의 重機의 銃聲을 마침내 沈默 시키는데 成功하였다.

이를 契機로 제9, 제11의 兩個중대가 協調된 反擊을 加하여 11.30에는 敵을 모조리 擊退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血痕과 敵의 遺棄屍體가 즐비한 戰場을 정리하던 중에 敵의 水冷式重機 陣地에서 朴二曹의 박격포탄으로 쓸어진 6명의 敵屍體와 산산조각이난 重機의 殘骸를 발견하였다.

이 戰鬪에서 제9중대 제1소대장 石泰鎭소위가 사로잡은 포로의 진술에 의하면 이날 逆襲한 敵은 대대규모로서 數週前에 滿洲의 通化에서 強募되었고 또한 前날 목표 13의 방어에서 失敗한 敵연대장은 사단장으로부터 크게 問責을 당하자 戰勢를 挽回코자 1개대대를 投入하여 逆襲을 敢行한 것이라고 하였다.

6월 10일(D+7일) : 1. 제1대대는 이날 그간 4晝夜에 걸쳐 공격중대로 激戰을 치룬 제2중대를 제1중대와 交代케 하고 공격을 계속하였다.

이날 제1중대(장, 李西根 중위)는 黎明에 美 해병항공기의 爆擊과 砲兵의 制壓사격이 한참동안 실시된 뒤를 이어 06.00에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敵의 저항은 계속 頑強하였다.

그리하여 중대는 一進一退의 激戰을 거듭한 끝에 이날 20.40에 목표 4의 前方 150m에 있는 稜線까지 進出한 다음 계속 接近戰을 試圖하였으나 斷崖와 急傾斜의 不利한 地形과 점차로 熾烈化하는 敵의 저항으로 말미암아 공격은 現進出線에 膠着되었다.

이때 대대장 孔正植 소령은 제2, 제3 兩個중대로부터 각각 1개소대의 병력을 차출케하여 제1중대의 戰力을 補強토록 하였다.

2. 제2대대는 이날 부대정비를 실시하는 한편 대대장 尹永俊 소령은 각중대장들과 參謀들을 CP에 召集하고 다음날 作戰에 대한 세부계획을 討議하였다.

3. 제3대대는 이날 06.30에 1개소대를 뽑아 목표 12에 대한 偵察을 실시하였는데 이들은 敵의 前進부대와 遭遇하여 20分間의 交戰을 벌인 다음 無事히 귀대하였다.

4. 한편 이날 14.00에 聯隊CP에서는 그동안 遲遲不振한 攻擊成果에 대한 原因을 分析하고 새로운 作戰計劃을 討議하기 위하여 대대장급 이상의 指揮官 및 참모들의 連席會

議가 있었다.

이 會議에서의 論點으로서는 그동안 공격부대들이 같은 地形에서 같은 方法으로 晝間攻擊만을 實施하였으므로 敵은 미리 이에 對處할 수 있었고 더구나 地形의 不利를 克服하기 어려웠다고 斷定한 결과 夜間攻擊을 斷行하기로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

또한 다음날인 11일은 음력으로 5월 7일로서 月沒시간은 00.20이며 日出시간은 05.12이었다.

이에 연대장 金大植 대령은 야간공격개시시간을 다음날 02.00로 豫定하고 이를 예하 대대장에게 시달하는 한편 企圖秘匿의 철저를 期하여 이 공격을 成功으로 이끌 것을 당부하였다.

이리하여 各부대는 이날 오후에 陣地를 補強하고 화기를 새로이 배치하는 등 防禦에 專念하는 樣 공격기도를 감추면서 그 實인즉 야간공격을 위한 必要한 준비를 갖추었다.

6월 11일(D+8일) : 이날 하루종일에 걸쳐 夜間攻擊을 위한 모든 준비를 끝낸 各대대는 공격개시시간만을 待機하고 있었으니 장차 兜率山 一帶에 血雨가 쏟아지려 하고 腥風이 滿樓하려 하였다.

1. 제1대대(장, 孔正植 소령)는 제1중대를 공격梯隊로 하여 목표를 향한 夜間機動을 개시하였는데 제1중대는 능선上의 접근로를 따라 戰鬪縱隊로 隱密히 敵陣을 향하여 前進하였다.

이때에 敵은 이러한 企圖를 看破하지 못한 듯이 敵陣으로 近接하여도 경계하는 듯한 敵兵의 그림자는 없었다. 마침내 突擊線에 당도한 중대는 『돌격 앞으로!』라는 중대장의 命令一下에 喊聲도 드높이 一齊히 敵陣에 뛰어들어 당황하는 敵을 刺殺하고 또 撲殺하기 數分을 지나자 陣內는 삽시간에 修羅場化하여 血煙이 山에 가득하고 喊聲이 들을 흔들었다.

이리하여 難攻不落이라고 그 聲勢가 드높던 목표 4는 공격을 시도한지 滿 6일만에 이 夜間一戰으로써 奪取하고 말았으며 드디어 이날 05.10에 목표점령을 알리는 信號彈은 하늘높이 올랐다.

대대장 孔正植 소령은 이에 제2중대로 하여금 潰走하는 敵을 追擊케하여 목표 7을 向해 계속 공격을 敢行하였다.

이에 氣勢가 높아진 제2중대는 일제히 목표에 突進하였는데 敵은 이에 이르러 戰意를 完全히 喪失하고 목표 7을 抛棄한 채로 退散함으로써 이날 06.00에 이것마저 無血로 占領하기에 이르렀다.

2. 제2대대(장, 尹永俊소령)는 이날 제7중대를 공격중대로 하여 02.30에 목표 9를 占領하기 위한 攻擊을 개시하였다.

이때 대대장은 제5중대장에게 1개소대를 抽出케 하여 공격중대의 後尾를 追隨토록 하면서 제7중대장의 지휘를 받도록 措置하는 한편 공격이 早期에 敵에게 阻止되거나 또는 敵의 逆襲이 있을 것에 미리 對備하여 제6중대를 목표 9의 東南쪽 능선으로부터 언제라도 正面공격할 수 있도록 事前 配備하였다.

제7중대장 朴正模 중위는 지형의 特性을 고려하여 중대를 2개의 突擊梯隊로 편성하였는데 그 하나는 중대의 右翼에서 목표 9를 직접 공격토록하고 또하나는 중대左翼에서 목표 9의 西南方에 연결된 △ 1,112를 공격하여 이를 奪取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중대는 一刻一刻 敵陣에 隱密히 接近하기에 이르렀다.

드디어 새벽의 寂寞을 깨뜨리는 수류탄의 爆音과 함께 중대가 敵陣에 突入하자 不意의 奇襲에 놀란 敵은 커다란 抵抗도 하지 못한채로 모두 潰走하였으며 이로써 대대는 滿 7晝夜의 激戰을 거듭한 끝에 드디어 이날 05.30에 敵兵들의 屍體가 累累한 목표 9를 完全히 掌握하게 되었다.

대대장은 제7중대로 하여금 목표 9를 急編防禦케 하는 한편 제5, 제6 兩중대와 화기중대를 推進시켜 그 四周에 各各 陣地를 占領토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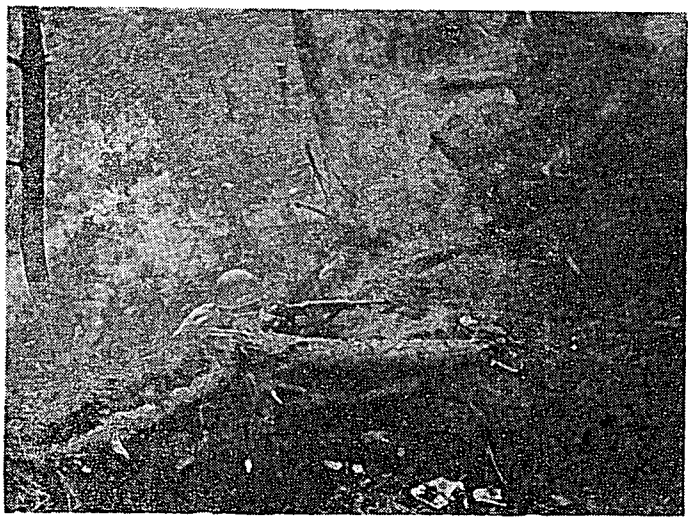
그리고 07.00에 제6중대에서 2개소대를 뽑아 목표 10을 威力搜索케 하였는바 원래 이 목표는 地勢上으로 보아 목표 9에서 600m에 있었고 더구나 瞰制를 당하기 때문에 敵은 我軍의 氣勢에 壓倒되어 이것마저 포기하고 退走함으로써 대대는 목표 10마저 無難히 占領하기에 이르렀으니 可謂 錦上添花라 할 것이다.

3. 한편 제3대대 역시 연대장의 命令으로 제11중대를 공격중대로 하여 이날 02.00에 목표 12에 대한 夜間攻擊을 展開하였다.

그런데 목표 12는 목표 13으로부터 稜線에 의해 連結된 좁은 通路上에 우뚝솟은 標高 1,145m의 高地였는데, 제11중대로서는 이날 夜深에 처음 機動하는 地形임에도 不拘하고 充分한 地形研究의 탓으로 識別이나 方向維持는 잘 되었다.

이 地域을 守備하는 敵은 목표 13을 빼앗긴 劣勢를 挽回코자 兵力을 增強하여 陣地를 強化하고 있는듯 하였다.

중대 將兵들은 前날 敵의 대부대 逆襲을 擊退시킨 이래 士氣가 자못 旺盛하였으며 이날의 야간공격에 있어서도 自信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敵陣에 突入하는 해병>

중대가 突擊線에 이르기까지 敵에게 발견되지 않았으며 마침내 목표 接近에 成功하고 敵陣에 一齊히 突入하여 白兵戰을 展開한 끝에 06.00에 이 敵은 潰滅하였다.

대대장 金潤根소령은 이날 14.00에 이르러 제11중대로 하여금 계속 목표11를 공격토록 하였으나 여기를 占據하고있는 敵은 목표 12로부터 退走한 敵과 合流하여 陣地를 補強하고 執拗하게 저항하였다.

이리하여 중대는 3시간에 걸쳐 一進一退의 苦戰을 벌렸으나 攻擊에 不利한 地形과 視界마저 不良하여 砲兵支援을 받기 어려웠으므로 命에 따라 일단 공격을 中止하고 목표 12로 복귀 하였다.

한편 이날 대대본부는 CP를 목표 6으로부터 목표 13으로 推進 開設하였다.

이리하여 해병제1연대는 6월 4일에 兜率山지역에서 공격을 개시한 이래 連日 敵을 무찔러 敵들이 難攻不落을 豪言하던 목표 4—9—12를 계속 奪還하고 마침내 Kansas 線을 目標로 躍進하게 되였다.

6월 12일(D+9일) : 夜間攻擊의 成功으로 戰線의 膠着狀態를 打開한 연대는 계속 餘勢를 몰아 Kansas 線內의 殘餘 목표점령에 拍車를 加하였다.

1. 제1대대는 야간공격으로 占領한 목표 4와 목표 7에 대한 探索을 계속하는 한편 敵의 逆襲에 대비하여 防禦態勢를 굳쳤다.

2. 제2대대 제6중대는 이날 04.00에 방어中인 목표 10의 正面에 敵 1개소대가 奇襲하였으나 미리 對備하고 있다가 交戰 10분만에 擊退하였다.

또 중대는 이날 09.00에 2개소대를 抽出하여 목표 11의 左端部를 공격케함으로써 제3대대의 목표 11에 대한 공격을 掩護하고 11.30에는 목표 11를 占領한 제3대대 제11중대와 連繫하였다.

3. 한편 제3대대장 金潤根소령은 殘餘 담당목표들을 이날 안으로 占領 確保하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은 作戰計劃을 세웠다.

『제11중대로써 제2대대 제6중대와 協調케 하여 목표 11에 대한 挾攻을 敢行케하고 이를 占領하면 제9중대로써 목표 14를 超越攻擊토록 하고 계속하여 목표 15에 進擊케하여 이들을 占領후에는 목표 11—14—15를 連하는 半月形의 陵線上에 방어진지를 占領한 다음 목표 16에서 美 해병제5연대와 連繫한다.』

이리하여 이날 09.30에 제11중대는 美 해병제1비행단요격기 및 野砲의 지원하에 공격을 개시하자 경미한 敵의 저항을 물리치고 11.00에 목표 11를 점령하였으며 제9중대는 超越공격으로 14.00에 목표 14를 점령하였다.

이때에 연대右側에서 美 해병제5연대(장, Richard W. Hayward 대령)가 목표 15(大岩山)에 進出하였으므로 제9중대장 姜福求 중위는 제1소대를 목표 15에 進出시켜 美 해병제5연대와 連繫토록 하였다.

이에 石泰鎭소위가 引率하는 소대는 목표 15에 대한 搜索을 실시하면서 轉進하다가 移動中인 敵1개분대와 交戰끝에 이들 全員을 사살하였는데 이들은 炊事도중에 我軍에 依해 쫓기던 중에 다시 全滅당한 모양이었다.

4. 이리하여 연대는 6월 4일 兜率山지역에서 공격을 개시한 이래 滿 9일간에 걸친 激戰끝에 Kansas線內의 15개 목표高地를 모두 占領하고 인접 美해병대와 連繫하였으며 이곳에서 다음 Badger線으로 轉進키 위한 躍進의 발판을 삼았다.

한편 이날 오후에 美 해병제1사단장 Gerald C. Thomas 소장은 해병제1연대장 金大植 대령에게 다음과 같은 勝戰祝賀電文을 보냈다.

『어려운 전투를 勝利로 이끈 大韓民國해병대에게 祝賀를 드립니다. 頑強하게 저항하는 敵軍들을 무찔러 Kansas線안에 있는 목표지점을 여러분들이 奪取하였다는 것은 곧 大韓民國해병대의 勇氣와 忍耐의 發效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의 勇敢한 攻擊的인 행동은 우리들이 韓國해병대를 激讚하는 것을 充分히 立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의 Kansas線內 공격작전에서의 연대綜合 戰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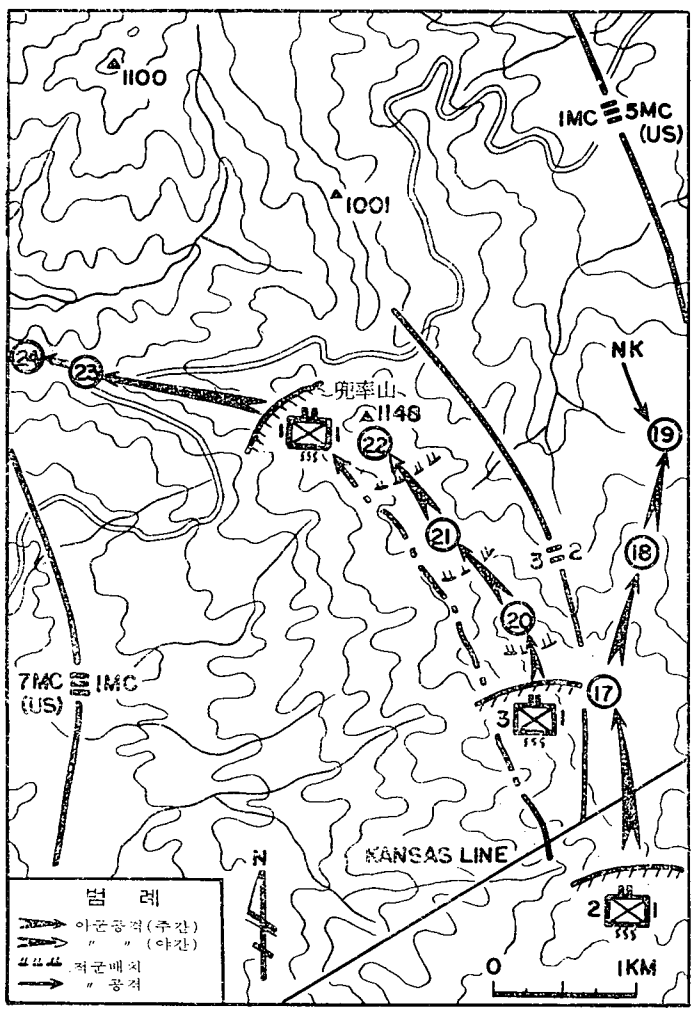
戰 果		鹵獲 :		
射 殺	482명		重 機	1정
			체코식輕機	2정
			多 發 銃	8정
捕 虜	31명		手 榴 彈	250발

損	失	
戰	死	89명(1대대 32명, 2대대 30명, 3대대 27명)
負	傷	459명(1대대 160명, 2대대 173명, 3대대 123명)
失	踪	8명(3대대 7명, 연대본부 1명)

(나) Badger線內 공격작전 (6月 13日~19日)

Kansas線內의 공격 작전에서 모든 목표를 占領한 해병제1연대는 계속 목표 17로부터 목표 24까지의 Badger線內의 8개 목표를 탈취하기 위한 제2기작전을 계획하였다.

◇ 상황도 제30호 兜率山地區 第2期 戰鬪



이 計劃에 의하면 最初에 제2 제3의 兩個대대를 공격부대로 하고 제1대대를 예비대로 하여 제2대대는 연대 右第一線으로 목표 17—18—19를 逐次로 공격하여 이를 점령한 다음 美 해병 제5연대와 連繫토록 하고 제3대대는 목표 20—21—22를 逐次 공격하여 兜率山一帶를 完全 確保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예비대인 제1대대를 戰鬪에 加入시켜 兜率山을 基點으로하여 연대 最終目標인 목표 23—24를 超越공격 하도록 하는 것인데 6월 13일부터 各 대대는 공격준비를 위한 敵情探索을

실시하게 되었다.

6월 13일(D+10일) : 1. 제1대대(장, 孔正植 소령)는 이날 목표 4와 7 一帶에서 敵의 逆襲에 대비하여 陣地를 계속 強化하는 한편 前後方에 대한 近距離 수색을 실시하였다.

2. 제2대대(장, 尹永俊 소령)는 목표 9와 10의 陣地를 強化하는 한편 소규모의 戰鬪偵察隊를 편성하여 △ 892(목표 10 北쪽 1km) 및 △ 432(목표 10 西北쪽 3km) 一帶에 대한 수색정찰을 실시하였다.

3. 제3대대(장, 金潤根 소령)는 목표 11과 14의 陣地를 補強하는 한편 CP를 목표 13으로부터 목표 12에 推進開設하고 前方에 대한 搜索偵察을 실시하였다.

6월 14일(D+11일) : 제1대대는 이날 계속 陣地를 補強하면서 近距離 수색정찰을 실시하였으며 제2대대는 前날 出動한 정찰대중에서 △ 892를 경유하여 △ 432 一帶를 수색한 정찰대는 美 해병제7연대(장, Herman Nickerson, Jr. 대령)와 連繫하고 舞鶴洞 (△ 432前方 1km)一帶에서 敵 1개중대의 兵力이 역습을 준비중임을 探知하였다.

또한 다른 偵察隊는 목표 11에서 제3대대 제11중대와 連繫하였다.

한편 제3대대는 제9중대에서 증강된 1개소대가 목표 11부근 小龍浦일대를 수색하다가 敵 1개集團이 集結中임을 발견하고 이들을 奇襲하여 2시간의 交戰끝에 敵에게 상당한 損害을 입히고 무사히 귀대하였다.

6월 15일(D+12일) : 1. 제1대대는 이날 確保中인 방어선을 계속 補強하면서 근거리 수색정찰을 실시하였다.

2 제2대대는 이날 목표 17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기 위하여 부대를 목표 14지역에 集結하고 09.00에 제6중대로 하여금 1개분대를 抽出케 하여 공격목표지역을 정찰토록 하는 한편 各중대를 목표 14의 1km前方에 推進한 다음 東西로 흐르는 稜線에서 제7중대를 右一線, 제5중대를 中央, 제6중대를 左一線을 점령토록 하고 목표 17에 대한 攻擊態勢를 갖추었다.

이때 제2대대장 尹永俊 소령은 出動中인 정찰대로부터 敵 2개소대 규모의 兵力이 목표 17에서 목표 20方向으로 移動中이라는 報告를 받고 이때가 攻擊의 好機라고 判斷한 결과 제6중대로 하여금 즉각 목표 17을 공격토록 하였다.

이에 제6중대장 鄭奉翊 중위는 14.35에 野砲의 지원 사격밑에 공격을 개시하여 16.45에 敵의 저항없이 목표 17의 右端部를 점령하였다.

또 제5중대는 17.30에 목표 17에서 목표 20에 이르는 稜線을 점령함으로써 목표 17의 左端部를 確保하였다.

3. 한편 제3대대는 이날 13.00에 목표 14에 集結하여 제2대대가 목표 17를 점령하면 목표 20을 超越攻擊하고자 하였으나 제2대대가 목표 17에 進出한 시간이 遲滯되었기 때문에 목표 14에서 待機하였다.

6월 16일(D+13일) : 이날 제1대대는 陣地를 계속 確保하면서 소규모의 근거리 偵察을 실시하였다.

제2대대는 이날 제5중대(장, 趙容銀중위)로써 15.15에 목표 18를 공격케 하였는데 16.00에 이를 점령하였다. 제6중대는 제11중대와 交代하여 목표 17 右側과 목표 18의 中間一帶에 방어진지를 占領하고 제7중대는 목표 14에서 방어진지를 계속 확보하였다.

6월 17일(D+14일) : 1. 제1대대(장, 孔正植 소령)는 제2 제3의 兩대대가 각각 漸進함에 따라 最終목표를 向하여 超越攻擊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써 이날 08.00에 목표 9지역을 출발하여 12.00에 목표 11과 14를 連하는 線에 進入한 다음 새로운 방어진지를 점령하였다.

2. 제2대대(장, 尹永俊 소령)는 제7중대에서 1개소대를 뽑아 이날 07.30에 목표 19를 공격케 하여 08.30에 이를 占領하고 11.30에 목표 19의 東北方 능선에 進擊한 美 해병제5연대와 連繫하였다.

이와같이 이날 最終목표인 목표 19까지 完全히 占領한 대대는 進出線에서 堅固한 방어진지를 構築하면서 부근일대에 대한 적극적인 搜索活動을 전개하는 한편 제1 제3兩대대의 공격을 支援하였다.

3. 한편 제3대대(장, 金潤根 소령)는 이날 연대 右第一線으로 前進하는 제2대대와 竝進하고자 대대 CP와 함께 부대主力이 목표 14에서 17로 躍進하여 이날 08.30에 제10중대는 美 해병제1비행단의 航空支援下에 목표 20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 목표는 兜率山 東南方 2km에 있는 標高 1,100m의 험준한 兜率山의 支脈으로 敵은 이런 地形을 교묘하게 利用하면서 固守코자 하였다.

그러나 중대는 목표지역에 迫擊砲 및 3.5″로켓砲의 집중적인 砲擊을 加하면서 突進을 敢行하여 마침내 敵을 退却케 하고 12.30에 목표를 점령하였다.

제9중대는 제10중대를 超越하여 潰走하는 敵을 追擊하였으나 목표 21로부터 執拗한 敵의 集中 射擊을 받아 依命 中間의 능선을 점령하고 陣地를 구축하였다.

이리하여 제3대대는 이날 Badger線에 進出키 위한 목표 20을 점령하는데 成功하였으나 이 戰鬪는 연대가 Badger 線內에서 敢行한 戰鬪中 가장 敵의 저항이 熾烈하였던 一戰으로 戰場정리결과 敵射殺 91명에 捕虜 11명을 획득하고 俄式소총 20정 多發銃 20정을 노획하였으며 我軍은 12명의 戰死者와 49명의 負傷者를 보았다.

6월 18일(D+15일) : 1. 제3대대는 이날 09.00에 美해병대의 航空지원과 砲兵의 火力지원을 얻는 가운데 제10, 제11 兩個중대로써 목표 21에 대한 竝行공격을 敢行케하여 頑強한 敵의 저항을 격퇴 하면서 과감한 肉薄戰을 전개한 끝에 11.30에 목표 21를 占領하였다.

이에 대대장 金潤根 소령은 餘勢를 계속몰아 退走하는 敵을 追擊하면서 목표 22(兜率山)에 대한 공격을 계속 실시하였으나 急傾斜인 地形과 日沒로 말미암아 공격을 일단 中止하고 제10중대를 右一線, 제11중대를 左一線에 배치하였다.

2. 한편 이날 제2대대는 14.30에 제6중대로 하여금 1개소대를 목표 17의 後方에서 正面으로 轉進配置케 하는 等 擔當陣地를 強化하였으며 제1대대는 계속 연대예비대로서 목표 11과 14지역에서 연대의 側後方을 경계하면서 공격명령을 待機하였다.

3. 그런데 事實上 연대 最終목표라고 할 수 있는 目標 22는 24개의 연대목표중에서 地形이 가장 험하고 大愚山을 背景에 두고 주위를 瞰制하는 標高 1.148m의 主峰으로 더욱이 通川—楊口 사이의 通路를 制御하는 戰術的 要地이므로 Badger 線內의 敵 防禦線의 據點을 이루고 있었다.

이리하여 연대장 金大植 대령은 제3대대장 金潤根소령 에게 攻擊의 強勢를 늦추지 말고 當日로 夜間공격을 敢行할 것을 命令하는 한편 『今般 공격작전의 전반적인 名稱을 兜率山作戰이라 한다.』라고 闡明함으로써 將兵들의 士氣를 한층 더 鼓舞하고 最終목표 占領에 연대 總力을 集中할 것을 決心하였다.

6월 19일(D+16일) : 1. 제3대대(장, 金潤根 소령)는 이날 零時를 期하여 兜率山에 대한 夜間공격을 敢行하였는데 제11중대(장, 朴建燮 중위)는 목표 21로부터 東側능선을 따라 迂回하여 목표의 右端部를 공격하고 제10중대는 03.30에 正面에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寂靜한 深夜에 岩壁과 樹林으로 감싸인 兜率山 골짜기에서 全海兵의 名譽를 건 一大決戰을 敢行하려는 將兵들의 雄心은 자못 勃勃하고 士氣는 高潮되었다.

이리하여 兜率山高峰을 向하여 一步一步 隱密히 接近한 제10중대는 드디어 喊聲과 함께

敵陣에 突入하여 肉彈과 肉彈이 서로 마주치는 血戰을 전개한 끝에 마침내 05.30에 兜率山의 頂上을 占領하였으니, 해병들의 感激에 넘친 "만세!"소리가 天地가 밝아오는 산골짜기 마다 메아리쳤다.

2. 한편 제1대대는 이날 08.00에 제3대대가 占領한 목표 22에 일단 集結하였다가 목표 23을 向하여 進擊하여 11.10에 이를 占領하고 제3중대를 목표 24에 推進시켜 이곳에 進入한 美 해병제7연대(장, Herman Nickerson, Jr. 대령)와 連繫하였다.

3. 제2대대는 이날 01.00에 제7중대 正面에 2개분대 가량의 敵兵力이 奇襲 하였으나 10分間의 交戰으로 이를 擊退하였다.

이리하여 제6중대를 목표 17에 제5중대를 목표 18에 제7중대를 목표 19에 各各 배치하여 協調된 火網으로 堅固한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4. 이리하여 연대는 지난 6월 4일에 兜率山지구에서 攻擊戰을 개시한 이래 만 16일간에 걸친 激戰을 거듭한 결과 高地마다 무수한 戰友들의 피로 얼룩진 24개의 目標를 모두 占領하고 敵의 역습에 대비하여 강력한 陣地를 구축하였으며 이로부터 적극적인 偵察과 捜索戰을 전개하였다.

라. 전투 후의 개황

(1) 전투 직후의 개황

그런데 이와같이 兜率山 一帶의 山岳戰에서 快勝을 거둔 해병제1연대의 武勳을 讃揚하여 國會는 해병대사령관 申鉉俊 준장에게 感謝文을 보내고 美國政府는 참모장 金聖恩 대령과 연대장 金大植 대령에게 各各 美銀星훈장을 그리고 제1대대장 孔正植 소령, 제2대대장 尹永俊소령, 제3대대장 金潤根 소령과 通信隊長 李判凱대위에게는 銅星훈장을 수여하였다. 이밖에도 목표 9 戰鬪에서 戰功을 세운 제5중대 선임장교 金益泰소위를 비롯하여 여러殊勳者들은 各種武功勳章과 美國政府가 授與하는 記章을 받았다.

그리고 6월 23일에 李承晩대통령은 女軍훈련소장 金賢淑중령을 通하여 붉은고추장 19상자를 보내 將兵들을 慰勞하였으며 6월 26일에는 대통령授章을 연대에 수여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해군총참모장 孫元一 소장은 해병대사령관 申鉉俊 준장과 함께 6월 28일 陸路로 출발하여 7월 1일에 연대 CP에 도착하여 美 해병제1사단장 Gerald C. Thomas 소장과 연대장 金大植 대령을 만나 歡喜의 굳은 악수를 나눈후 아직도 가시지 않은 砲煙 냄새 자욱한 戰線을 巡視하고 장병들을 일일히 위로 격려하였다.

이날 순시를 끝내고 彈皮로 만든 野戰의자에 둘러앉아 兜率山을 바라보며 陣中談話中이던 Gerald C. Thomas소장은 『한국해병대가 아니었던들 이 戰略的 要地를 우리手中에 넣지 못했을 것이다.』라

고 激讚하면서 『美軍이 韓國戰線에서 싸운 戰史가운데 이 한국해병대의 兜率山작전은 길이 記錄될 것』이라고 附言하였다.

한편 美 제10군단장 Edward M. Almond 중장은 韓美해병대의 戰勝을 讚揚하여 6월 25일에 美해병 제1사단장 Gerald C. Thomas소장에게 要旨 다음과 같은 讚辭를 보내왔다.

『친애하는 韓美해병대 장병여러분 나는 여러 해병대장병들이 천연적인 地勢의 利點을 얻어 堅固히 구축된 陣地에서 發惡하는 敵을 격멸하고 昭陽江 以北으로 進軍한 훌륭한 戰鬪行爲에 대하여 衷心으로 致賀를 보냅니다.』

그런데 兜率山지구 戰鬪총기간중 대대별 綜合戰果는 다음과 같다.

제1대대

戰 果	射 殺	1,125명
	捕 虜	23명
鹵 獲	체 코 식 輕 機	8정
	俄 式 소 총	25정
	多 發 銃	14정
	機 關 短 銃	2정
	B A R	2정
	蘇式수냉식重機	2정
損 失	戰 死	32명
	負 傷	161명
	56mm對戰車砲	1문
	手 榴 彈	1,344개

제2대대

戰 果	射 殺	1,357명
	捕 虜	5명
鹵 獲	俄 式 소 총	14정
	多 發 銃	7정
	輕 機	1정
	수 냉 식 重 機	2정
	手 榴 彈	300개
	105mm 野 砲	1문
損 失	戰 死	31명
	負 傷	193명

제3대대

戰 果	射 殺	781명
	捕 虜	14명
鹵 獲	俄 式 소 총	43정
	多 發 銃	42정
	칼 빈 소 총	15정
	M1 소 총	3정
	체 코 式 輕 機	3정
	蘇式수냉식重機	2정
	82mm 迫 擊 砲	1문
	手 榴 彈	784개
	기 타 實 彈	다수
損 失	戰 死	50명
	負 傷	249명
	失 踪	7명

연대수색소대

戰 果	捕 虜	2명
鹵 獲	重 機	3정
	美式수냉식重機	3정
	60mm 迫 擊 砲	1문
	바 스 카 砲	1문
損 失	戰 死	2명
	失 踪	1명

이 兜率山지구전투는 그후에 해병대 戰史審議會의 심의를 거쳐 해병대 五大作戰의 하나로 決定하였고 다음과 같은 軍歌를 제작하여 그날의 勇戰의 氣魄을 後進들에게 널리 普及토록 하였다.

<兜率山의 노래>

① 하늘에 우뢰소리 땅 위에 아우성 불바다 피투성이 새우기 몇밤, 이나라 해병들이 명예 걸메고 목숨 내건 싸움터 도솔산일세

〔후렴〕 오오 도솔산 높은봉 해병대 쌓올린 승리의 산 오늘도 젊은피 불길을 뿜는다.

② 아침 안개속으로 햇살을 받으며 돌가루 먼지속에 그리던 간밤 땀투성이 얼굴을 들어 볼때엔 도솔산 고지고지 발아래 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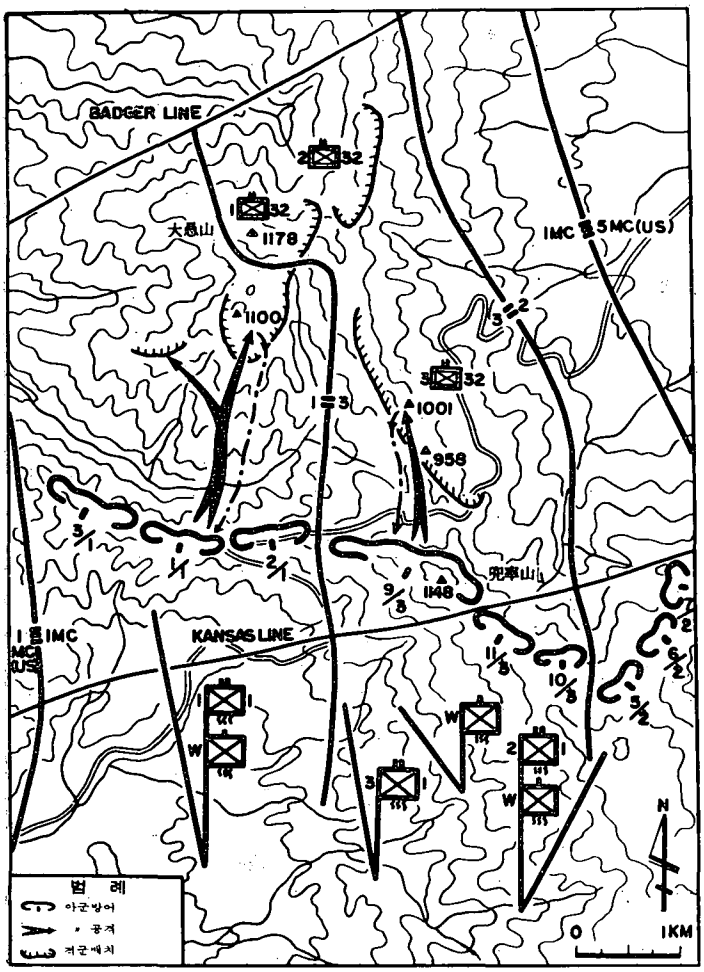
〔후렴〕 오오 도솔산 높은봉 해병대 쌓올린 승리의 산 오늘도 젊은피 불길을 뿜는다.

③ 돌바위 벼랑에도 골짝위에도 손발의 피땀으로 아로 새겨진 해병대의 그이름 가실리 없어 세상 사람 일러라 도솔산 싸움

〔후렴〕 오오 도솔산 높은봉 해병대 쌓올린 승리의 산 오늘도 젊은피 불길을 뿜는다.

(2) 大愚山 전투의 개황

◇ 상황도 제31호 大愚山 戰鬪



해병제1연대는 兜率山의 마지막 목표를 탈취하고 제2대대가 右一線(목표 17—19), 제3대대가 中央(목표 20—22), 제1대대가 左一線(목표 23—24)을 占領하고 防禦陣地를 구축하고 있을때 敵은 東部 海岸線에 北共 1개군단을 增援投入하고 一線部隊를 東側에서 西側方으로 逐次移動시켜 伸張된 正面을 調整하고 있는듯이 보였다.

그 例로 연대正面의 北共제5군단산하 제12사단은 6월 19일부터 西側方의 제7사단(장, 金容培준장)正面으로 移動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제5사단(장, 閔機植준장)正面에서 對峙中이던 北共제2군단산하 제27사단이 해병사단正面으로 移動하여 마침내 Badger線에서 대치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연대正面에는 同사단의 제32연대가 大愚山을 據

點으로 하여 그 一帶를 占領하면서 빈번히 박격포 및 야포사격을 실시하였으며 夜陰을 이용하여 不斷히 奇襲을 敢行하였다.

이러한 상황하에 해병제1연대는 제1대대 CP를 舞鶴里(목표 23 南쪽 500m), 제2대대 CP를 小龍洞(兜率山 南쪽 1km), 제3대대 CP를 深谷寺(목표 17)에 推進케하고 연대 CP를 元塘里(목표 7 北쪽 2km)에 開設하는 한편 右側으로 美 해병제5연대(장, Richard W. Hayward 대령), 左側으로 美해병제7연대(장, Herman Nickerson, Jr. 대령)와 連繫를 유지하면서 前方에 대한 꾸준한 捜索偵察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6월하순부터 停戰會談문제가 擧論되기 시작하자 美8군사령부는 全戰線에서의 作戰을 攻擊態勢에서 防禦態勢로 轉換하는 한편 戰線部隊들은 早速히 前方에 偵察基地를 確保하라는 訓令을 下達하였다.

이는 現防禦陣地에서 敵의 動向을 監視하고 統制할 수 있는 有利한 地制地形을 確保하지는 것이었지만 그러자면 대개의 一線부대들은 現방어선에서 2~4km 前方에 孤立된 高地를 占據하지 않으면 않되는 새로운 任務를 의미하고 있었으므로 野戰指揮官들은 이 訓令에 대하여 매우 당황하고 그 實踐에 苦心하였다.

그러나 美8군사령부의 이와같은 作戰은 계획대로 強行되었다.

이리하여 해병제1연대장 金大植 대령은 마침내 7월 7일에 美 해병제1사단장 Gerald C. Thomas소장으로부터 『해병제1연대는 7월 8일 08.00에 大愚山을 공격하여 이를 確保하라.』는 명령을 수령하고 다음 공격준비에 着手하였다.

이에 연대장 金大植 대령은 比較的 敵勢가 약한 제2대대에서 제5 및 제7 兩중대와 제3대대의 제10중대로써 1개공격梯隊를 편성하고 이를 제2대대장으로 하여금 指揮토록 하였다.

그런데 이때 그동안 부대를 지휘하던 前任 대대장 尹永俊 소령이 聯隊本部에 轉任됨에 따라 新任대대장 金秉鎬 소령이 공격부대를 지휘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 各부대 兵力수준은 거이 充員되어 있었으나 그 대부분이 數日前에 前線에 도착한 新兵들이었다.

그리고 大愚山은 해병제1연대의 現防禦線으로부터 3km 北方에 位置한 標高 1,178m의 高峰으로 東쪽으로 Punch Bowl(亥安盆地)을 俯瞰하고 四쪽으로는 "四川江" 계곡까지 瞰制하는 부근일대의 가장 높은 高地로 敵은 我軍의 공격에 對備하여 月雲里의 本道부근과 △1,001일대에 各種지뢰 및 부비추렐을 埋設하는 등 防禦陣을 補強하고 있었다.

이때에 敵의 補給상황은 무기 및 탄약은 充分히 備蓄하고 있는 것으로 推測되었고 食糧도 역시 70% 가량은 後方에서 供給받고 있는 모양이고 兵力도 即時의 充員은 어려우나 장차 充分히 補充될 것으로 내다보였다.

이러한 가운데 제1연대는 新編한 공격梯隊로 하여금 7월 8일에 大愚山공격을 敢行하였으나 마침 계속된 降雨로 인하여 땅은 질고 미끄러워 急傾斜인 山峰을 기어오르기가 어려웠으며 더욱이 接近路에 무수히 埋設한 부비추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상자가 續出하였다.

雪上加霜으로 7월 9일에는 美해병포병대대가 觀測착오를 이르켜 공격부대에 잘못 射擊함으로써 부대의 士氣가 低下되었다.

이에 이르자 연대장 金大植 대령은 제1대대로 하여금 任務를 交代케하고 공격을 再開토록 하였으나 역시 苦戰을 치루고 있던중 드디어 7월 10일 오후에 美 해병제1사단장 Gerald C. Thomas소장으로부터 『해병제1연대는 공격을 中止하고 즉시 現陣地로 復歸하라』는 명령이 하달됨으로써 이攻擊作戰은 滿 3일만에 終熄케되었다.

그런데 美 해병제1사단장이 이렇듯 연대공격작전을 중지시킨데는 그럴만한 理由가 있었다.

그는 隱退후에도 이때를 回顧하여 『그것은 災難을 招請하는 것과 같았다.』고 말하였지만 그는 당시 해병제1연대의 大愚山공격은 『가장 危險한 行爲』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작전은 군단전체의 作戰槪念에 따라 強行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결과가 신통치 않았고 無謀한 作戰인데다가 또한 연대의 首席연락장교 Gould D. Groves 대령의 數次에 걸친 建議에 따라 마침내 이作戰의 中斷을 결심하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연대는 다시 兜率山일대의 방어진지를 補強하면서 前方에 대한 수색정찰을 계속하던중 美 해병제1사단과 美 제2사단(장, Clark L. Ruffner 소장)의 部隊交替 계획에 의해 진지를 美 제2사단 제23연대(장, James Y. Adams 대령) 및 제38연대(장, John C. Coughlin 대령)에게 引繼하고 陽地村 一寒侯를 거쳐 7월 18일에 鵝湖洞 (洪川 東北쪽 15km)에 도착함으로써 洪川에 位置한 美 해병제1사단과 함께 美 제10군단의 예비대로서 이곳에서 1개월여에 걸쳐 激戰의 戰塵을 씻었다.

§ 研　究

1. 해병戰鬪詳報8卷의 日誌에 明示되어 있지 않은 아래사항은 同卷 別紙의 附圖를 參考하여 收錄하였음.

① 제3대대가 목표 13을 占領한 시간(12.30)

② 제2대대에서 6월 6일 23.00에 목표 9를 공격한 중대(8중대—화기중대)

③ 제3대대가 6월 11일 야간공격을 개시한 시간(03.50)

④ 제2대대가 6월 16일 15.55에 점령한 목표(목표 18)

⑤ 제2대대 제7중대가 목표 19를 공격개시한 시간(07.30)

⑥ 제3대대가 6월 19일에 목표 22(兜率山)를 점령한 시간(05.40)

2. 제3대대의 6월 7 및 8일의 전투경과.

해병전투상보에 의하면 兩日의 전투 경과의 內容이 同一하게 記錄되어 있어 이는 必是 編集時착오로 인한 重復일 것이나 期間中 作戰— 즉 5일부터 8일까지는 목표 13에 대한 같은 場所에서의 공격이 계속되었던 점으로 보아 전투경과내용에 큰 차이는 없었을 것임.

그러나 6일 공격부대는 5일에 공격하던 제10중대가 계속하였을 것이고 제11중대가 임무를 交代한 것은 6일이었을 公算이 크다.

3. 6월 7일에 제2대대 제5중대의 위치.

해병전투상보에 의하면 제5중대는 제7중대와 교대하고 前位置(DT 238, 257)에 그대로 있었다고 하는데 縱座標 238은 제3대대지역으로 이는 218의 誤記일 것임.

따라서 DT 218, 257은 목표 8을 가르키니 제5중대가 前日에 位置한 목표 8에 배치한 것이 確實視 됨.

4. 北共제5군단제12사단장에 대하여.

期間中 연대와 對決하던 北共제5군단제12사단의 사단장 姓名이 제7사단전투상보(1951년 8월분)에는 崔忠國, 美해병대전사(US Marine Ope-

ration in Korea)에는 최암린(choe Am Lin)으로 各各 相異하게 기록되어 있을뿐 其他자료속에는 明示된 것이 없으므로 本文에는 明記하지 않았음.

5. 연대正面의 敵部隊의 交替에 대하여 :

① 해병전투상보에는 敵部隊 交替에 관한 言及이 없으며 다만 6월 21일자 敵情에서 北共제2군단제27사단이 交替되어 나타나 있음.

② 陸軍정기정보 보고에 의하면 北共제2군단 제27사단소속 捕虜는 同부대가 6월 20일에 北共제5군단제12사단과 戰線을 교대하였다(6월 22일 보고서)고 하였으며 敵부대배치도에 의하면 6월 18일에 兩부대가 戰線을 교대한 것으로 나타나 있음.

③ 연대가 19일 새벽에 兜率山을 占領함으로써 敵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加한 以來 21일까지는 敵情이 없었던 點으로 보아 期間中에 敵部隊가 교체된 것으로 推測됨.

6. 大愚山 공격의 失敗원인 :

①大愚山을 根據로 배치된 敵은 새로 戰線을 交替한 北共제2군단 제27사단 제32연대로 이들은 大愚山의 有利한 地形을 利用하여 20餘日間에 걸쳐 견고한 방어진를 구축하고 陣前에 무수한 地雷 및 부비추렙을 매설하였다.

② 美해병사단으로부터 불과 하루前에 공격명령을 수령한 연대는 공격부대 편성을 매우 서둘었으며 防禦任務를 계속수행하기 위하여 各대대에서 중대를 抽出하여 혼합부대를 편성하였고 그 指揮는 新任 대대장이 맡았다.

③ 이와같이 混成된 공격부대의 構成兵員은 대부분 새로 補充받은 新兵들이었다.

④ 期間中 계속된 降雨와 濃霧로 인하여 항공 및 포병의 지원이 如意치 못하였고 7월 9일에는 美해병포병대대가 공격부대에 誤爆함으로써 많은 死傷者를 내었고 부대 士氣가 저하되었다.

§ 參戰者의 證言

◇ 제1대대 제1중대장 李西根 중위

(1966. 2. 23 해병교육기지사령부 대령)

우리중대가 兜率山지역에 투입될 당시에는 兵力이 200여명으로 거의 T/C수준이었는데 목표 7까지 점령하였을 때 불과 1/3병력밖에 남지 않았다.

이처럼 많은 死傷者를 내게된 것은 地形이 매우 險해서 우리가 공격하기는 난관이 많았지만 敵이 방어하기는 대단히 有利하였다는 것과 계속된 降雨와 濃霧로 말미암아 항공 및 야포지원이 如意치 못하였다는 點등을 들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難攻의 逆境을 克服하고 마침내 우리가 兜率山을 占領할 수 있었던 것은 끈질긴 해병들의 鬪志力 하나 때문이었다고 믿는다.

◇ 제1대대 제2중대장 李應德중위

(1966. 3. 18 해병대사령부 대령)

① 兜率山전투는 최초에 美해병대가 공격을 試圖하다가 失敗한 것을 우리가 引受한 것인데 과연 地形은 매우 험하고 接近路는 좁은 능선뿐이어서 우리는 거의 縱隊形으로 한사람 한사람씩 高地정상을 향해 肉薄해야 하는 곤란을 겪었다.

그러나 敵은 有利한 지형에서 多發銃이나 책코式경기등의 自動火器와 주로 手榴彈을 사용하여 완강하게 저항하였다.

反面에 主로 M1 소총을 사용하던 우리들은 많은 애로를 느꼈으며 장병모두가 山岳의 近接戰에서 必要한 좀 더 가볍고 有用한 自動小銃을 갖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들은 M1 소총 대신에 BAR이나 칼빈소총 그리고 노획한

多發銃 및 수류탄등을 사용해서 싸운 기억이 난다.

② 兜率山지구 激戰에서 彼我間에 무수한 死傷者를 내었는데 우리측 사상자중에는 敵이 埋設한 지뢰 및 부비추렙에 의한 損失이 대단히 많았다.

特히 六四山 공격시 △ 1,001는 그야말로 "지뢰밭"이 었는데 지뢰하나에 발목 하나를 바꿀정도로 그곳에서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 제2대대 제5중대장 趙容銀(性俊)중위

(해병제1여단 제3연대 대령)

兜率山지구는 平均 1,000m 이상의 高地群으로 形成된 매우 險하고 가파른 地形으로 機動하기조차 어려웠다.

敵은 이런 지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완강하게 저항하였으나 우리는 그야말로 끈질긴 肉薄戰을 계속하여 敵陣을 파괴하고 敵을 潰滅시키면서 24개의 목표를 모두 탈취하였다.

◇ 제3대대 제9중대장 姜福求중위

(1973. 6. 30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예 대령)

우리중대가 兜率山지역을 방어하고 있을때 山이 높고 險해서 여러가지 補給支援이 어려웠지만 특히 食水해결이 큰 문제였다.

결국 우리는 山下麓 계곡까지 내려가서 물을 길어 올려다 먹는 수 밖에 없어 전투에 시달리는 隊員들에게 勞苦가 加重되었다.

무더운 어느날 연대장 金六植대령이 前方陣地 순찰차 우리중대에 올라 오셨기에 방금 길어온 冷水 한그릇을 대접하였더니 『나야 내려가면 마실수 있으니 어서 제관들이나 들게』하며 끝내 拒絶하신 것을 보고 部下를 거느린 指揮官으로서의 重責感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았다.

◇ 제1대대 連絡將校 張大吉 준위

(1965. 2. 23 해병교육기지사령부 대령)

① 우리대대가 兜率山지역에 도착하여 美해병대로부터 지역을 인수할 때 그 지역 B중대장 James T. Cronin 대위는 『이 지역의 敵은 험한 지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완강히 저항하고 있어 도저히 前進할 수 없었다』고 敵情을 說明해 주었다.

② 우리대대가 兜率山공격작전중 가장 激戰을 전개한 高地는 목표 4였는데 各중대가 차례로 목표 4를 공격하였으나 성공치 못하자 대대장 孔正植 소령은 增強된 1개중대를 편성해서 夜間공격을 敢行하여 마침내 占領한 기억이 난다.

◇ 제3대대 제9중대 제3소대장 金學烈 소위

(1965. 5. 21 해병제1상륙사단 감찰참모실 중령)

나는 목표 21공격작전에서 敵의 박격포탄 파편을 顔面에 받고 대대 CP로 후송되었는데 심한 出血로 인하여 回生이 어려웠던 모양이다.

이때 同期生이며 火器小隊長이던 吳定根 소위가 意識을 잃은 나를 흔들며 『김소위 정신차려! 넌 馬山에 約婚者를 생각해서도 꼭 살아야 돼!』하며 굳은 意志를 갖도록 간곡하게 부탁했는데 나는 그후 實로 강인한 정신력으로 부상을 이겨내고 살아날 수 있었다.

◇ 제1대대 제3중대 위생병 1해 金仁洙)

(1965. 4. 14 해병제1상륙사단 제3연대 상사)

① 어느날 敵이 發射한 82mm砲彈이 우리隊員의 下腹部에 박힌채 不發된 사건이 發生하였다.

결국 여러전우들이 힘을 합하여 조심히 砲彈을 빼내고 즉각 후송조치를 하였지만 그후 심한 出血로 死亡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퍽 애석했었다.

② 공격중에 食事는 때때로 대대에서 가마니나 푸대속에 밥과 副食을 담아 前方중대에 추진해 주곤 하였는데 雨中에 가마니가 썩어 食事에서도 냄새가 났고 주위에 放棄된 敵死體에서도 惡臭가 풍겼지만 그래도 그때 식사는 꿀맛 같았

던 생각이 난다.

◇ **제1대대 제3중대 화기소대 부사수 1해 金裕燮**

(1965. 4. 14 해병제1상륙사단 제3연대 상사)

우리 화기소대에 濟州道出身의 4期生 AR사수가 있었는데 목표 4공격시에 敵彈이 오른손에 맞아 부상을 당하고도 自身이 압박붕대로 응급조치를 하고 계속해서 왼손을 사용하여 敵과 勇戰奮鬪하는 것을 당시 美연락장교가 發見하고 嘉賞하여 上部에 보고하였는데 後에 美國政府로부터 勳章이 수여된 것을 보았다.

◇ **제3대대 제9중대 화기소대 제3경기 분대장 3曹 安洙榮**

(1973. 7. 5 해병교육기지 본부대대 준위)

나는 6월 9일 새벽 우리중대가 前날 占領했던 목표 13의 左側능선으로부터 敵의 대규모 奇襲을 받았을 때 死鬪끝에 敵에게 捕虜가 되어 끌려갔다.

敵은 몇일동안은 患者후송 및 食糧推進等 運搬作業에 酷使시키더니 그後에는 文登里에 所在한 적공부에 수용하고 洗腦敎育을 시켰다.

그런데 이곳에서 完全의 洗腦되었다고 認定된 者는 선발되어 그들의 工作要員이나 補充兵으로 利用하였는데 나는 陸軍士兵 2명과 함께 선발된 것을 機會로 必死의 脫出을 敢行하여 7월 6일에 我軍陣營으로 復歸함으로써 滿 28일間의 地獄生活을 벗어나는데 成功하였다.

(註 : 적공부란 政工部(政治工作部)가 아닌가 하였는데 證言은 적공부임을 確認하고 있지만 그 任務가 捕虜를 洗腦하는 機關이니 政工部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으로 판단 됨)

15. 海兵隊의 924高地 및 1.026高地戰鬪 (1951년 8월 31일부터 1951년 9월 3일까지)

(一名, 金日成高地 및 毛澤東高地 戰鬪)

별책부도 제32호
상 황 도 제32,33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軍				我軍		
해병제1연대	장	대령	金 大 植	제7중대	장	중위 申 鉉 玉
			(1951.8.31후송)	화기중대	장	중위 朴 正 模
	장대리	중령	金 東 河	제3대대	장	소령 金 潤 根
제1대대	장	소령	金 鍾 植	제9중대	장	중위 姜 福 求
제1중대	장	중위	韓 禎 龍			(1951.9.2후송)
제2중대	장	중위	李 應 德			소위 桂 炳 道
제3중대	장	중위	李 永 虎	제10중대	장	중위 許 泓
화기중대	장	중위	李 基 德	제11중대	장	중위 陸 東 旭
제2대대	장	소령	金 秉 鎬			(1951.9.1후송)
제5중대	장	중위	李 東 用			소위 金 晋 卓
제6중대	장	중위	朴 鍾 武	화기중대	장	중위 朴 利 稷

敵軍				敵軍	
北共 제3군단	장	중장	柳 京 洙	제3연대	1,600명
제1사단	장	소장	韓 경	제14연대	1,100명

나. 전투전의 개황

開城에서 休戰會談이 進行되고 있는 동안 共産軍은 5,6月에 입은 그들의 損失을 補充하기에 狂奔

하는듯 하더니 8月하순에 접어들면서는 一時的으로 그들의 目的이 達成되자 故意로 會談을 妨害하기 始作하여 끝내는 당분간 決裂되는 사태까지 빚고 말았다.

美 해병제1사단은 지난 7월 18일이래 美제10군단의 예비대로 계속 洪川부근에 控置되어 있으며 해병제1연대는 寒溪(洪川 東北쪽 15km)에서 月餘에 걸쳐 兜率山의 戰塵을 씻으면서 自體敎育에 精進하고 있었는데 8월 26일에 美해병제1사단으로부터 『攻擊作戰을 수행할 준비를 하라』는 준비 명령을 받고 즉각 出動態勢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당시 연대는 대부분 새로운 兵員으로 再編되어있었지만 그간 實施된 訓練으로 戰鬪能力과 士氣가 高揚되어 있었다.

이리하여 연대는 8월 27일 23.00를 期하여 美해병제1사단과 함께 豪雨속에 洪川지역을 出發하였는데 그간 계속 내린 비로 沼陽江이 氾濫하여 道路는 浸水되고 橋梁은 流失된 곳이 많아 車輛機動에 많은 支障이 뒤따랐다.

이런 惡天候속에서 해병대는 冠岱里-麟蹄-元通을 잇는 70km의 險路를 徹夜機動끝에 28일아침에 坪村 (麟蹄 北쪽 21km)에 당도하였는데 그간 將兵들은 寢食을 제대로 못하고 밤새껏 行軍에 시달린 탓으로 몸은 매우 지친 狀態였으나 그럼에도 士氣만은 如前히 높았다.

敵軍의 상황 : 연대와 對峙하게 된 敵은 8월下旬부터 戰線에 나타나 北共 제2군단과 任務를 交代한 北共 제3군단 隷下의 제1사단 제3연대로서 도합 1,600명의 兵力으로 △924(月山嶺 西北쪽 2km)와 △1,026(△924 西쪽 1.7km)및 그 後方地區에 各 1개대대를 配置하였는데, 그 兵力은 대대 평균 500명이고 裝備는 82mm박격포 8문, 重機 6정, 輕機 20정, 對戰車銃 6정을 保有한 것으로 判斷되었다.

그런데 이들 敵은 休戰會談기간의 小康狀態를 利用하여 山岳의 地利를 巧妙하게 살려 火器陣地를 縱深깊게 配置하고 地雷를 매설하는등 二重三重의 堅固한 陣地를 구축하여 兜率山戰鬪에서 敗北한 汚名을 雪辱코자 하였다.

我軍의 상황 : 8월 28일 새로운 集結地인 坪村에 도착한 해병제1연대는 休息할 여유도없이 Kansas線의 防禦陣地를 引受하기 위하여 徒步機動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연대장 金大植대령은 要旨 다음과 같은 命令을 不述하였다.

『① 제2대대는 8월 29일 09.00까지 연대 右一線으로 美해병제5연대 및 美제23연대의 一部와 防禦任務를 교대하라.

② 제1대대는 8월 29일 09.00까지 연대 左一線으로 美해병제5연대의 一部와 防禦 임무를 교대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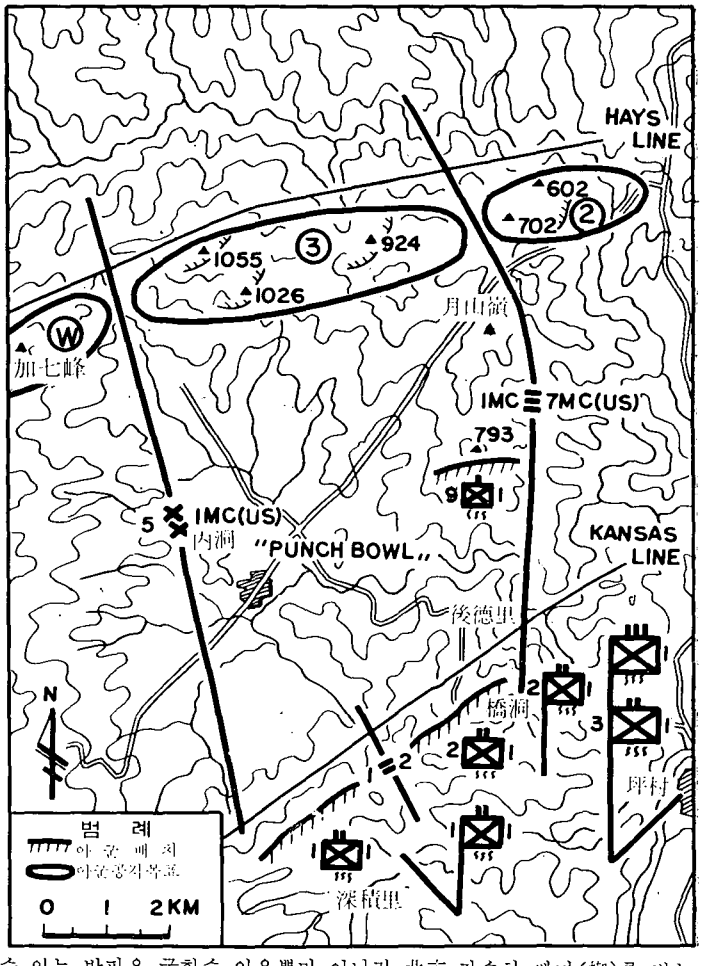
③ 제3대대는 연대 예비대로 △753에 移動하고 1개중대를 △793에 挺進시켜 前進부대 임무를 引受케하라.

④ 各대대는 임무교대후 즉시 보고하고 別命이 있으면 공격할 수 있도록 準備하라.』

이리하여 各대대는 28일 17.00에 豪雨속의 坪村을 出發하여 Kansas線을 目標로 徒步行軍을 始作하였는데 中途에 氾濫한 昭陽江 支流에 부닥쳐 그 附近에서 野宿하고 翌日 날이 밝으면서 Rope를 利用하여 渡河한 다음 Kansas線에 進出하여 陣地를 引受하기에 이르렀다.

이때에 제2대대는 연대 右一線으로 美제2사단 제23연대 一部와 任務를 交代하고 後德里(坪村 西北쪽 3km) 東側에서 역시 이날 陣地를 占領한 美해병제7연대의 제3대대(장, Bernard T. Kelly중령)와

◇ 상황도 제32호 金日成—毛澤東高地 戰鬪(8. 28)



連繫하고 제1대대는 연대 左一線으로 美해병제5연대 제1대대(장, William P. Alston 중령)와 임무를 교대하여 △917(坪村 西쪽 6km)西側에서 제5사단 제27연대 제2 대대(장, 成泳煥 소령)와 連繫하였다. 또한 제3대대는 主力으로 坪村에 位置하여 연대 CP를 警戒하고 제9중대는 △793(坪村 西北쪽 5km)에 推進시켜 前進陣地를 引受토록 하였는데 翌日엔 다시 제10중대를 增派하였다.

그런데 이때에 美해병사단으로부터 목표 "3"으로 주어진 연대 목표는 月山嶺 西北方으로 뻗은 △924 —△1,016 —△1,055를 包含하였는데 이 地域은 Punch Bowl 確保를 爲한 戰術的 要地로 그간 彼我間에 激烈한 爭奪의 焦點이 되어 왔으니 여기를 占領하면 Punch Bowl을 完全히 掌握하여 敵의 本據地로 알려진 內金剛을 制御할 수 있는 발판을 굳힐수 있을뿐만 아니라 北方 깊숙히 쐐기(楔)를 박는 形勢가 되어 中東部戰線을 北方으로 끌어올리는 關鍵이 되는 곳이다.

그러므로 敵情과 地勢上으로 보아 激突이 예상되었으며 我軍에서는 △924를 金日成高地, △1,026를 毛澤東高地로 各各 命名하여 將兵들의 적개심을 興起시키고 이 難攻의 據點을 奪取할 것을 굳게 다짐하였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 계획

연대본부가 8월 29일 21.00에 마지막으로 寒溪를 出發한 다음 30일 10.00에 坪村에 도착하여 CP를 開設하자 연대장 金大植대령은 곧 要旨 다음과 같은 攻擊命令을 하달하였다

『① 연대는 8월 31일 06.00를 期하여 목표 "3"을 공격占領하려 한다.

② 제3대대는 △924를 공격 점령하고 제1대대의 前進을 지원하라.

③ 제1대대는 △1,026를 공격 점령하라.

④ 75mm 대전차포소대는 △924와 △1,026 공격을 직접 지원하라.

⑤ 공격부대는 8월 30일 19.20까지 공격개시선으로 進出하라.』

이리하여 제3대대 主力은 30일 07.00에 坪村을 出發한 다음 16.30에 △793에 進出하여 제10중대로 하여금 月山嶺을 前進陣地로 占領케 함으로써 △924에 대한 공격준비를 完了하였으며 제1대대는 同日 08 00에 Kansas線의 방어임무를 제2대대에게 인계하고 21.30에 △793 左端部에 進出하여 역시 攻擊을 準備하였다.

(2) 작전 실시

8월 31일 : 1. 제3대대(—) (장, 金潤根 소령)는 이날 △924를 공격할 目的으로 05 00에 △793에서 행동을 개시하여 06.00에 月山嶺에 前進한 다음 제10중대와 合勢하였는데 여기서 대대장은 제11중대의 1개분대로써 目標지역을 偵察토록 하였다.

偵察隊가 △924 前方 500m지점에 接近하였을때 △924의 左側능선으로부터 集中사격을 받고 敵의 位置를 確認 報告하였다.

이에 대대장 金潤根 소령은 제11중대(장, 陸東旭 중위)를 主攻으로 正面을 突破토록 하고 제9중대(장, 姜福求 중위)를 助攻으로 右側方稜線을 따라 迂回공격토록 하여 08.30에 攻擊을 개시하였다.

이날 짙은 濃霧는 視界를 制限하였으나 공격부대는 相互 긴밀한 協調下에 前進을 거듭하여 일단 △924前方 1km의 中間高地를 占領하고 여기서 잠시 戰列을 整備하고 있었는데 이때 目標制壓射擊을 실시중이던 美해병포병대대의 落伍彈이 공격부대에 集中하여 순식간에 많은 死傷者가 발생하였다.

이때 제11중대 제1소대 傳令 高斗石 海兵은 砲彈이 바로 目前에서 爆發하는 순간 옆에 있는 소대장 林炅燮 소위를 壕속에 밀어넣고 자기 몸으로 덮쳐 결국 소대장 生命은 救하였으나 自身은 등에 무수한 破片을 맞고 쓸어졌다

"高해병!" 소대장이 안타깝게 흔들자 잠시 意識을 回復한 高해병은 "소대장님! 무사하셨군요" 하며 안도의 미소마저 짓고는 다시 의식을 잃었다.

이날 대대 CP에서 이 사고현황을 報告 받은 대대장 金潤根소령은 直接 사고현장에 나가 휘하의 장병들을 慰勞 激勵하고 계속공격을 指揮하였다.

그러나 공격부대는 무수한 地雷의 障碍와 地形의 不利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前進이 어렵게 되자 대대장은 일단 이날 공격을 中止시키고 16 30에 原位置에 철수토록 하였다.

2. 제1대대(장, 金鍾植 소령)는 이날 08.00에 △793 左端部에서 행동을 개시한 다음 09 10에 月山嶺의 공격개시선에 도착하여 부대를 散開하고 제3대대의 공격을 支援하였으며 제3대대가 공격이 膠着되자 제1중대(장, 韓禎龍 중위)로 하여금 제11중대를 增援토록 하였으나 16.30에 제3대대와 함께 隨意撤收하게 되었다.

이날 19.00와 21.00 兩次에 걸쳐 분대규모의 敵의 奇襲이 있었으나 협조된 射擊으로 이를 모두 擊退하였다.

3 제2대대(장, 金秉錦 소령)는 이날 Kansas 線의 防禦陣地를 계속 確保하여 연대의 側後方을 防設하면서 雲田洞(坪村 西北쪽 6km) 一帶에 대한 搜索을 계속하였다.

그런데 이날 공격부대의 戰況을 直接 確認하고 戰線을 指揮하던 연대장 金大旭 대령은 제11중대 지역에서 地雷로 말미암아 다리에 負傷을 입고 後送됨으로써 부연대장 金東河 중령이 연대장職을 대행하게 되었다.

9월 1일 : 이날 연대장 대리 金東河중령은 △924의 正面突破는 다만 損失만을 加重할것으로 判斷하고 제3대대로 하여금 右隣接인 美해병제7연대 지역을 通過하여 △924의 側後方으로부터 奇襲的인 공격을 敢行토록 美해병제7연대장 Herman Nickerson 대령과 協調한 바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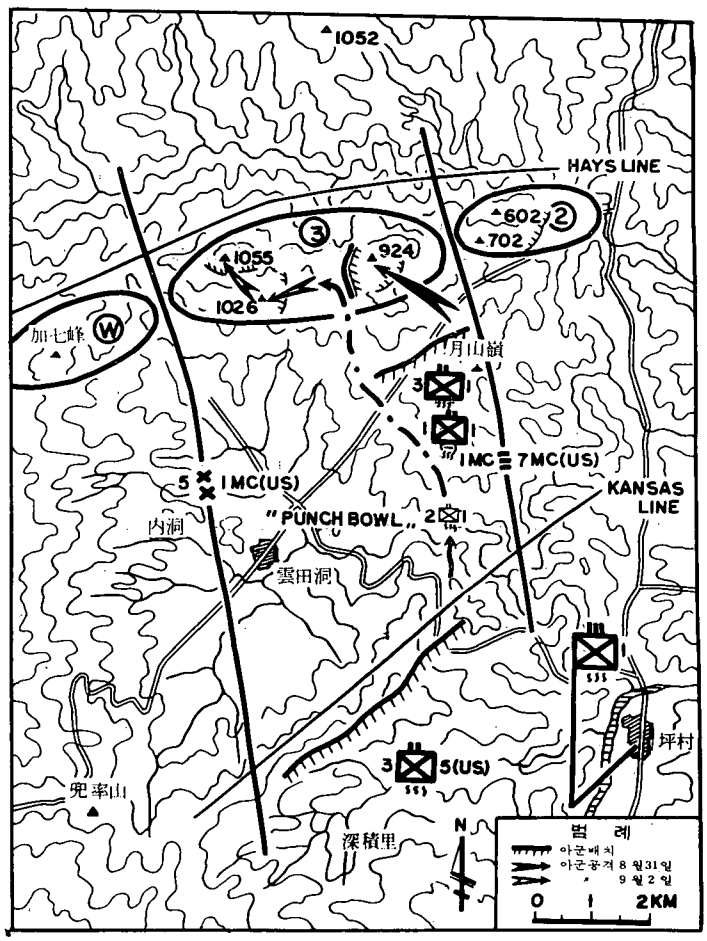
1 이리하여 이날 07 00에 제3대대의 제10 및 제11 兩개中隊가 행동을 개시하여 연대와 美해병제7연대의 戰鬪地境線을 따라 北上하여 △924의 東北方 1km의 攻線一帶에 이르러 제11중대(장, 陸東旭 중위)를 右一線, 제10중대(장, 許 泓 중위)를 左一線으로 展開하여 10.30에 공격을 始作하였다.

그러나 허술하리라 豫想하였던 △924의 右側後方은 그 守備態勢가 堅固하였으며 敵은 치열한 砲擊과 集中射擊으로 抵抗하였다.

이러한 狀況에서도 제11중대는 勇躍 前進을 거듭하여 敵陣 100m 前方에 肉薄하였는데 이때에 最後의 突擊을 指揮하던 중대장 陸東旭 중위가 敵彈으로 목에 貫通傷을 입고 쓰러지자 중대원들은 悲憤慷慨하여 선임장교 姜吉永 소위의 指揮아래 敵陣으로 더욱 肉薄하였다.

그러나 左一線의 제10중대는 敵陣 300m 前方에서 敵의 火力과 地雷의 障碍로 말미암아

◇ 상황도 제33호 金日成—毛澤東高地 戰鬪(8.31~9.3)



死傷者가 續出하여 攻擊은 一時 膠着되고 말았다.

이에 연대장 대리 金東河 중령은 月山嶺에서 攻擊部隊를 支援中인 제1대대에서 1개중대를 뽑아 제10중대를 超越공격토록 하는 한편 제10중대는 月山嶺에 復歸토록 하였다.

이에 제1대대 제1중대(장, 韓禎龍 중위)는 이날 14.00에 友軍의 항공기및 野砲의 支援아래 공격을 始作하여 제10중대를 초월하여 △924의 前方 100m에까지 接近 하였다.

그러나 目標에 가까워 질수록 점점 地勢는 가파르고 무수한 地雷의 埋設과 射擊의 集中으로 중대의 接近을 拒否하였으며 더욱이 左側의 △1,026로부터 加하는 重機關銃의 側射는 중대를 進退兩難으로 몰아 넣었다.

이때 決死突進을 覺悟한 중대원들은 各個躍進을 敢行하여 20.00에 敵陣50m前方까지 肉薄하는데 成功하였다.

그러자 敵은 모든 自動火力과 手榴彈을 集中하여 斷末魔的으로 抵抗하였는데 특히 공격正面에 있는 重機關銃이 發惡的인 亂射를 加하고 있어 我軍의 死傷者만 累加되고 더 이상의 接近이 困難하였다.

이에 중대장 韓禎龍 중위는 즉시 特火點 공격組로 하여금 이 據點을 破壞토록 하였는데 이 특화점 공격組에는 처음으로 登場한 火焰放射器가 첫선을 보이게 되었다.

중대장 명령에 따라 화염방사기組는 앞으로 前進하여 중대원의 엄호사격아래 敵陣을 향해 용감히 突進하였으나 이들은 불과 15m도 前進못하고 射手가 負傷하였으므로 副사수가 임무를 교대하여 다시 일어나 뛰었는데 이번에는 副射手마저 敵彈에 쓰러지고 말았다.

이때에 이를 안타깝게 注視하고 있던 소대 선임하사관이 빗발치는 彈雨속을 突進하여 쓰러진 副射手로부터 화염방사기를 바꿔메고 肉薄을 敢行하여 間斷없이 無差別 사격을 加하는 敵 重機關銃陣地 銃眼에 마침내 火焰을 投射하니 이 광경을 지켜본 我軍의 士氣는 크게 鼓舞되었으며 反面 敵에게는 可恐할 戰慄을 안겨 주었으리라.

이리하여 敵에 動搖의 氣色이 보이자 중대는 일제히 敵陣에 突擊하여 20.30에 마침내 △924를 占領하고야 말았다.

그러나 이때에 高地에 突入한 중대 兵力은 불과 80명으로 이들은 즉각 急編防禦에 臨하였으나 敵이 1개중대 兵力으로 逆襲을 敢行하였다.

이에 중대는 不足한 兵力과 不充分한 彈藥으로 決死固守코자 하였으나 敵이 21.30에 다시 1개대대 병력으로 狂波처럼 밀어닥치기 시작하여 중대는 衆寡不敵으로 끝내 50m 後方까지 밀리는바 되었으나 여기서 제1대대 제3중대(장, 李永虎 중위)의 增援을 받아 敵의 追擊을 일단 阻止하는데 成功하였다.

2. 한편 제2대대는 이날 Kansas 線의 방어진지를 계속 確保하였으며 제6중대(장, 朴鍾武 중위)는 08.00에 1개소대를 뽑아 萬岳里일대에 수색정찰을 실시하였다.

3. 연대는 이날 要旨 다음과 같은 攻擊命令을 下達함으로써 공격에 拍車를 加하였다.

『① 연대는 再編成하는 즉시로 목표 "3"에 대하여 계속 공격하려 한다.

② 제1대대는 指定된 戰鬪區域에서 임무를 수행하되 2개중대 규모로써 △924를 공격 점령케 하라.

③ 제3대대는 계속임무를 수행하고 1개중대로 하여금 제1대대와 협조하여 △924를 공격토록 하라.

④ 제2대대는 Kansas 線의 방어임무를 美해병제 5 연대 제3 대대에게 인계하고 9 월 2 일 05.00에 出發하여 △755부근에 集結하라.』

9월 2일 : 1. 이날 제1대대(장, 金鍾植소령)는 제3중대로 하여금 09.30에 제3대대 제9중대의 左一線에서 △924에 대한 正面공격을 개시토록 하였는데 날씨는 淸明하여 항공기

및 野砲의 支援이 圓滑하였으며 攻擊부대의 士氣는 또한 冲天하였다.

이리하여 공격을 시작한 제3중대(장, 李永庇중위)는 地雷地帶를 踏破하고 右一線의 제9중대(장, 姜福求 중위)와 함께 敵陣을 向해 계속 肉薄하였으며 12.30에 △924에 대한 突擊을 敢行하여 이를 드디어 奪取하였다.

이와같이 이 高地의 占領이 비교적 容易하였던 것은 効果的으로 支援한 항공 및 야포사격에도 있었지만 前날 제1중대의 果敢한 攻擊戰鬪로 말미암아 敵이 甚한 打擊을 입고 이미 戰意를 喪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判斷되었다.

2. 제3대대(장, 金潤根소령)는 제9중대(장, 姜福求 중위)가 제1대대 제3중대와 協調하여 △924를 공격 점령한 다음 14 40에 제2대대에 陣地를 인계하고 月山嶺에 移動하여 部隊를 재편성하였다.

3 제2대대(장, 金秉鎬소령)는 04.00에 행동을 개시하여 Kansas線의 防禦任務를 美해병 제5연대 제3대대(장, Donald R. Kennedy 중령)에 인계하고 05.00에 陣地를 떠나 月山嶺에 轉進하여, 제1 및 제3 兩대대가 △924를 占領하자 제5 및 제6 兩중대를 △924에 10.00에 推進시켜 제3대대 임무를 인수토록 하는 즉시로 △1,026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였다.

이리하여 대대는 15.00에 연대공격명령에 따라 △1,026 前方 1km에 位置한 標高980m의 高地를 中間目標로 設定하고 제5중대(장, 李東用중위)를 右側方, 제6중대(장, 朴鍾武중위)를 左側方으로 迂回시켜 挾擊토록 하였다.

이날 야포 및 박격포의 支援아래 공격부대는 긴밀한 協調를 유지하면서 敵의 地雷地帶를 通過하여 集中射擊의 彈雨속을 뚫고 前進을 거듭한 결과 18.30에 마침내 中間目標인 △980를 占領하였다.

여기서 대대장 金秉鎬소령은 敵의 逆襲에 대비하여 예비대인 제7중대(장, 申鉉玉 중위)를 △980에 推進시켜 3개중대로 四周를 경계 방어토록 하는 한편 △1,026에 對한 最終공격을 준비하였다.

4. 연대장 대리 金東河 중령은 이날 20.00에 다음과 같은 作戰命令을 下達함으로써 △1,026 占領後 目標지역 確保에 완벽을 期하도록 하였다.

『① 제2대대는 9월 3일 04.00에 △1,026를 공격 점령하고 목표 "3"의 右端部를 確保하라.

② 제1대대의 △924에서 제2대대의 공격을 支援하고 연대 右翼을 防護하라.

③ 제 3 대대는 당초豫備隊로서 月山嶺에 位置하여 연대側後方을 警戒하고 연대補給路를 確保하라 』

9월 3일 : 제2대대는 前날부터 추진補給을 받지 못하여 缺食하게 되고 實彈 또한 不足한 實情이었는데 이러한 狀況에서 이날 새벽 03 45에 敵의 奇襲을 받았다.

즉 前날 中間高地인 △980를 잃게된 敵은 殘敵 70여명을 糾合하여 逆襲을 敢行한 것인데 대대는 實彈과 手榴彈을 節約하면서 이 敵을 擊退키로 하였으나 마침내 手榴彈마저 消盡되자 劍光과 肉彈이 相搏하는 白兵戰을 전개하였는데 이때에 제 5중대장 李東用 중위는 突擊隊 30명을 직접 指揮하여 마지막 남은 手榴彈과 實彈을 몽아 分配한 다음 敵中으로 突入케 하였다. 捐身獻命을 決心한 이 隊員들은 일제히 手榴彈을 投擲하면서 突進하여 敵이 모두 엎드려 있는 순간에 일어나 自動小銃으로 掃射를 加한 까닭으로 敵은 30餘의 遺屍를 남긴채로 潰走하였으며 中間高地를 계속 確保하기에 이르렀다. 날이 밝자 再補給을 받게된 대대는 이날 08.00에 항공 및 야포의 지원아래 △1.026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 7중대(장, 申鉉玉 중위)를 主攻으로 退走하는 敵을 追擊케 하여 △1,026의 正面을 直衝토록 하고 제 6중대(장, 朴鍾武 중위)를 助攻으로 右側稜線을 따라 迂回 공격케 하여 敵의 側射威脅을 制壓토록 하였다.

이때에 敵은 二重三重으로된 防禦陣地에서 追擊砲火力의 支援下에 極力抵抗하였으나 대대는 効果的인 支援射擊과 對地 爆擊아래 前進을 계속하여 陣前 100m까지 接近하는데 成功하였다.

이에 百尺竿頭에 다다른 敵은 全火力을 集中 發揮하여 斷末魔의 最後發惡相을 보여주었는데 이때 대대장 金秉鎬 소령은 제5중대(장, 李東用 중위)를 前方으로 推進시켜 제7중대의 右端을 增強하였으나, 대대正面의 기관총 據點에서 불을 吐하고 掩蔽에서 手榴彈이 雨飛하여 彼我 서로 火力의 應酬로써 苛烈되는 判局을 보이게 되었다. 이에 激憤한 화기중대 제 2 소대장 鄭昌玉 見習士官이 陣外에서 彈藥을 운반하던 敵兵을 狙擊하고 소대원 1명이 포복으로 接近하여 手榴彈을 銃眼에 投入 爆發시킴으로써 敵의 機關銃을 沈默시키는데 成功하였다.

이순간 突擊소대 陣頭에서 指揮하던 제5중대 제1소대장 孫晋天 소위는 敵의 수류탄 파편에 負傷을 당하고 쓰러졌다. 그런데 孫소위는 그간 무려 50개소에 破片傷을 입고도 『高地를 占領하기 前에는 물러날 수 없다』면서 後送을 極力 拒絶한 勇士였는데, 다음 순간 그가 다시 몸을 이르키더니 流血이 狼藉한 오른손을 높이 들어 敵陣을 가르키며 『제1소대 돌

격 앞으로!』라고 一喝 大號하였다. 이에 소대원들이 勇躍 突進을 敢行하고 이를 契機로 하여 全중대가 일제히 突進하여 13.45에 드디어 敵의 最後據點인 △1,026를 占領하였다.



<毛澤東 고지의 전황을 설명하는 연대장>

여기서 目標地域일대의 敵陣內를 搜索하던 제6중대 제3소대(장, 李昌洙見士)는 火器陣地안에서 발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紅顔의 少年을 發見하였는데 審問結果, 그는 서울 某中學校에 다니다가 北共에게 強制로 끌려나온 17歲의 學生身分임이 判明되었으며 突擊 直前에 破壞시킨 敵의 水冷式 機關銃진지안에서도 쇠사슬에 발이 묶인채 죽어있는 射手를 발견하고 敵의 非人道的인 蠻行에 다시한번 義憤을 禁치 못하였다.

대대는 계속 敵을 追擊하여 △15.50에 800m 西北方에 位置한 △1,056를 占領 確保하고, 友軍砲는 계속하여 敵의 退路를 猛打함으로써 敵을 潰散케 하였다.

이리하여 연대는 △924 및 △1,026를 모두 占領하고 사단목표 "3"을 確保하였으며 Hays線上에 새로이 防禦陣地를 구축하기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鐵火속에서 寸步를 다투는 熾烈한 攻防戰의 連續이었다.

라. 전투후의 개황

8월 31일부터 美해병제1사단의 左一翼에서 Punch Bowl 北方에 대하여 공격을 開始하여 9월 3일 사

단目標"3"을 占領 確保한 해병제1연대는 △924를 방어하던 제1대대를 西側方으로 移動시켜 △1,026와 △924 사이의 △970 일대에 配置하는 한편, 제3대대를 月山嶺으로부터 △924에 推進시켜 연대의 右一線에서 △702(月山嶺 東北쪽 2km)에 進出한 美해병제7연대 제3대대(장, Bernard T. Kelly 중령)와 連繫토록 하고 제2대대는 △1,026에서 西側方으로 防禦線을 伸張시켜 加七峰에 進擊한 제5사단 제27연대 제2대대(장, 成泳煥소령)와 連繫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연대는 Hays 線上에 協調된 防禦陣地을 編成하고 前方에 대한 捜索과 偵察戰을 展開하였다.

敵의 動向: 美8군情報보고에 의하면 休戰會談이 開催된 이래 共産軍은 그동안 比較的 小規模의 兵力으로 重要한 地形地物을 占據하면서 伸縮性있는 遲延戰을 試圖하던 從來의 遊動防禦로부터 그 防禦戰術을 轉換하여 어떠한 손실과 代償를 치루더라도 陣地를 固守하겠다는 固定防禦로 移行한 것으로 推測되었다.

그런데 Punch Bowl 北方의 △924와 △1,026에서 해병제1연대의 鐵鎚로 거의 潰散狀態에 놓인 北共제3군단 제1사단 제3연대는 9월 4일에 同사단의 제14연대와 任務를 交代한듯 하였는데 同연대는 CP를 看霧峰(月山嶺 西北쪽 7.5km)에 두고 △1,052(看霧峰 東南쪽 1.7km)로부터 △1,049(看霧峰 西南쪽 2km)에 이르는 稜線에 西側으로부터 北共제14연대 제2대대, 同제1대대, 同제2대대 그리고 제3연대 제1대대 순으로 各各 배치하여 防禦陣地을 구축하였다.

이와 같이 敵은 △924와 △1,026에서 敗退한 이래 다음해 봄까지 看霧峰을 根據로 한 一帶의 防禦線을 그들의 最後阻止線으로 定하고 모든 戰力을 集中하여 態勢를 補強하는 한편 我軍 陣地에 대해 빈번한 砲擊과 積極的인 偵察 및 奇襲戰을 敢行함으로써 戰勢를 挽回코자 안간힘을 다 하였으나 勝勢가 자못 騰騰하던 연대의 銳氣에 눌려 번번히 失敗하였으니 敵의 戰力과 士氣는 弱化一路에 놓인 것으로 分析되었다.

我軍의 動向: 美해병제1사단 右翼에서 美해병제7연대가 △673(月山嶺 東北쪽 3 5km)와 △749(月山嶺 東北쪽 5km)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는 동안 사단 左翼의 해병제1연대는 Hays 線上의 防禦陣地를 補強하였으며 特히 △1,052(看霧峰 東南쪽 1.5km)일대의 敵陣에 壓力을 加하여 美제7연대의 作戰을 支援하였다.

그런데 美제8군사령관 Van Fleet 중장은 9월 20일을 期하여 예하野戰指揮官들에게 『攻擊作戰을 中斷하고 現主抵抗線을 安定시키라』는 訓令을 下達함으로써 全一線부대들은 機動戰에서 陣地戰의 樣相으로 轉換하게 되고 따라서 戰線은 더욱 固着되는것 같았다.

그러나 8월 23일에 中斷된 休戰會談이 10월 25일에 再開되면서부터 主로 境界線에 대한 決定問題를 놓고 論難을 벌이게 되자 表面上으로는 相互間에 小康狀態를 維持하는듯 하면서도 內面的으로는 彼我가 서로 좀 더 有利한 地形을 確保하고 境界線을 擴張하기 위한 熾熱한 奇襲戰을 繼續하게 되었다.

연대의 期間中 綜合 戰果및 損失은 다음과 같다.

戰果: 射殺 372명, 捕虜 28명
鹵獲: 蘇式重機 9문, 체코式輕機 17정, 對空砲 1문, 自動小銃 2정, 機關短銃 2정, 俄式小銃 95정, 多發銃 21정, 手榴彈 72발

損失: 戰死 93명, 負傷 202명,

§研 究

1 8월 31일 △928 공격개시前 제1대대의 位置:

해병전투詳報의 8월 31일字 定期情報報告에는 △775, 戰鬪經過報告에는 △755(DT 3740)로 各各 相違하게 記述되었으나 해병전투사 제1집에 △775인 月山嶺으로 收錄하고 參戰者들도 月山嶺으로 證言하고있어 戰鬪經過報告에서의 △755란 △775의 잘못이고 座標 DT 3740은 DT2740의 誤記로 判斷된다.

§參戰者의 證言

◇제3대대 제9중대 제1소대장

李 敏 出 소위

(1965. 6. 20 해병제1상륙사단 정보참모실 중령)

우리 해병연대가 다시 中東部戰線에 出動命令을 받고 洪川지역을 出發하였을 때 마침 심한 장마철이라 억수같이 계속 내린 비로 昭陽江이 氾濫하고 沙汰가 나서 道路는 끊기고 온통 물바다가 되어 車輛과 徒步行軍에 苦難이 極甚하였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Kansas 防禦線에 당도하였을때 우리는 이미 기진맥진하였는데 역시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惡天候와 作戰에 시달려 온 美제2사단 장병들이 우리 交代兵力을 歡呼聲을 치며 맞아주던 기억이 난다.

◇제3대대 제11중대 제1소대장

林 炅 燮 소위

(1965.3.9 해병대 사령부 중령)

우리중대가 제9중대와 함께 △924를 공격하던 첫날 美해병포병부대의 觀測錯誤로 인하여 공격부대 중앙에 砲彈이 떨어진 까닭으로 많은 死傷者를 낸일이 있었는데, 이때 우리소대의 傳令인 高斗石해병은 砲彈이 目前에서 爆發하는 순간 나를 自己壕속에 밀어넣고 自己 몸으로 덮쳤다.

그 결과 나는 無事하였지만 高해병은 온 몸에 破片傷을 입고 쓰러지고 말았다. 내가 안타깝게 그의 이름을 부르며 흔들자, 잠시 意識을 回復한 高해병은 "소대장님! 무사하셨군요"하고 安堵의 微笑를 짓고는 다시 의식을 잃었다. 우리는 즉각 그를 後送하였으므로 다행히 그의 生命만은 건질수 있었다.

2. 제3대대에서 △924를 占領한 중대

해병전투상보10卷1에 의하면 해병제8100作命제106號(1951.9.1.2,000)에 "제11대로 하여금 △924를 공격토록 하라"고 指示되었으나 9월2일 戰鬪經過報告및 해병전투사 제1집에는 모두 제9중대가 제1대대 제3중대와 協同으로 △924를 공격 占領한 것으로 收錄되어 있으며 參戰者의 證言도 이를 뒷바침하고 있다.

◇제3대대 제11중대장 陸 東 旭 중위

(1965.2.25 해병교육기지 상남훈련연대 대령)

첫날 △924의 正面공격에 失敗하자 다음날 우리 중대는 제10중대와 함께 美해병 제7연대지역을 通過하여 △924의 東北 後側方으로부터 奇襲을 敢行하였는데 여기서 우리는 豫想外로 완강한 敵의 저항을 받고 熾熱한 交戰을 벌였는데, 나는 결국 이 戰鬪에서 목에 貫通傷을 입고 쓸어지고 말았다.

이때 忠誠心과 責任感이 強했던 先任將校 姜永吉소위가 쓸어진 나를 붙잡고 "중대장님! 걱정마십쇼, 金日成고지는 우리가 꼭 占領 하겠읍니다"하고 목맨소리로 나를 위로해 주었는데 다음날 그가 △924 突擊中에 戰死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悲憤을 참지 못했었다.

◇제2대대 제5중대 선임장교

朴 熙 泰 소위

(1965.6.19 해병제1상륙사단 제1연대 중령)

우리 중대가 △1,026前方에 中間高地를 占領하였을때 再補給이 늦어져서 많은 臨路가 있었다.

결국 그날밤 敵의 奇襲을 받아 熾熱한 肉薄戰으로 밤새도록 高地爭奪戰을 벌였는데 이때 중대장 李東用중위는 特攻隊 30명을 結成해서 마지막 남은 手榴彈을 分配해 주고 敵陣에 突入시켜 일제히 投擲하고 集中掃射를 加함으로써 마침내 敵을 擊退하고 高地를 再奪還하였다.

◇제2대대 제6중대 제3소대장

李 昌 洙 소위

(1955 2.24 해병보급정비단 회의실 중령)

우리 소대가 중대 右一線에서 △1,026를 占領하고 陣內를 搜索하던 중 발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紅顔의 少年을 發見하였는데, 그는 서울에서 某中學을 다니다가 北共軍에게 強制로 끌려나온 17才의 金某淳이라는 學生이었다.

그는 후에 自己를 救出해준 해병대 恩德를 못잊어 海兵에 自願入隊하였는데 공교롭게도 나하고 1년간 같이 근무한 일이 있다.

◇제2대대 제5중대장

李 東 用 중위

(1973.7.7 해병대사령부 군수참모부 소장)

우리 중대가 △1,026를 공격 중 敵의 완강한 저항을 무찌르고 마침내 最後의 突擊을 감행하려는 순간에 突擊소대를 指揮하던 제1소대장 孫晋天소위가 敵의 手榴彈파편에 맞아 쓰러졌다.

그런데 孫소위는 그때 이미 50여개소에 破片傷을 입고도 "高地를 占領할 때 까지는 죽을 수 없다"고 後送하기를 끝내 拒否했던 용맹스런 소대장이었는데, 그는 마침내 벌떡 몸을일으켜 流血이 狼藉한 오른손을 높이들어 敵陣을 가리키며 "돌격 앞으로!" 大號하자 중대원들이 勇躍敵陣으로 突入하여 드디어 △1,026를 奪還하였다

16. 美제9군단의 華川—金化 進擊戰 (1951년 6월 7일부터 1951년 6월 13일까지)

참조 상황도 제 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我軍			我軍		
美제8군사령관	중장 James A. Van Fleet		제5연대	장 대령 John L. Throckmorton	
美제9군단	장 중장 William M. Hoge		제19연대	장 대령 Ned D. Moore	
美제7사단	장 소장 Claude B. Ferenbaugh		제21연대	장 대령 Richard W. Stephens	
제17연대	장 대령 Royal Reynolds, Jr.		韓제2사단	장 준장	咸 炳 善
제31연대	장 대령 Lloyed R. Moses		제17연대	장 대령	李 貞 錫
제32연대	장 대령 Charles M. Mount, Jr.		제31연대	장 대령	趙 原 英
美제24사단	장 소장 Blackshear M. Bryan		제32연대	장 대령	趙 在 美
			韓제6사단	장 준장	張 都 暎
			제2연대	장 대령	宋 大 厚
			제7연대	장 대령	梁 仲 鎬
			제19연대	장 대령	林 益 淳

敵軍			敵軍		
中共제20군	장	廖 政 國	중공제60군	장	章 杰
제58사단	장	王 쓰 우 링	제179사단	장	吳 仕 宏
제59사단	장	차 이 거 린	제180사단	장	鄭 琪 貴
제60사단	장	劉 亭 雲	제181사단	장	王 誠 漢

나. 전투 전의 개황

1951년 5月中旬 韓國軍과 UN軍이 敵의 春季第2次 攻勢를 擊破하고 全戰線에서 다시 北進을 시작하자 美제9군단(장, William M. Hoge중장)은 中部戰線에서 作戰의 主導權을 잡고 洪川—淸平을 連

하는 綜에서 躍進하여 當面의 敵 中共 제12, 제63, 그리고 제64군을 捕捉 擊滅하면서 加平—春川—華川을 차례로 奪還한 다음 5月下旬에는 Kansas線에 進出하였다.

그러나 이무렵 休戰에 對한 擧論이 進展되어 UN군사령관은 Kansas線 防禦에 必要한 作戰에만 局限할 것을 指令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基本方針의 軟弱化에 따라 6月初에 Van Fleet 중장은 애써 변명하기를 『敵을 계속적으로 추격한다는 것은 할 수도 없으려니와 편한 것도 아니다』라고 自慰하였다.

그러므로 美제8군의 가장 有益한 운용은 38°線北쪽에 있는 戰制高地를 連하여 防禦線을 形成하고 敵에게 最大限의 損失을 주기 위하여 制限된 進擊을 企圖하는 것이라고 分析하였다.

이는 休戰을 예상한 緩衝地帶의 設定과 主陣地방어를 위하여 Kansas線으로부터 20km 以上에 있는 北쪽의 要域을 確保하는 것도 勘案한 것이지만 美제8군의 制限作戰 으로 말미암아 韓國戰爭은 流動的인 단계에서 膠着된 陣地戰으로 移行되기에 이르렀고 따라서 軍事活動도 萎縮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군단은 前進基地로서 Ermine線(白岩山—赤根山—金化를 連하는 線)을 確保하기 위하여 제2단계 進擊戰을 展開하게 되었다

敵軍의 狀況 이무렵 敵은 第5次 제2단계 攻勢(5月攻勢)에서 심한 打擊을 받고 일부병력으로써 鐵原—連川線과 鐵原—場岩里—抱川線, 그리고 春川—華川—金化線과 杉城—麟路—縣里線에서 지연전을 펴면서 後退하더니 杉城—楊口 北쪽—金化—鐵原—朔寧—臨津江 北岸線 北方에서 分散된 兵力을 再結合하고 다시 抵抗하기 시작함으로써 戰局은 새로운 樣相을 띠기 시작하였다.

군단 當面의 中共제63군(장, 鄭維山)은 鐵原 北쪽으로 후퇴하고 中共제64군(장, 曾思玉)은 西部戰線 高浪浦 附近으로 진출하였으나 美제10군단 正面으로 侵攻한 中共제20군(장, 廖政國)과 제60군(장 韋杰)은 金化 地域에서 合流하여 白岩山—赤根山—六成山을 連하는 要線에서 固守防禦를 企圖하는듯하고 淮陽에는 中共 제27군(장, 彭德清)이 그리고 金城—鐵原—平康—伊川에는 예비집단이 集結하고 있는 것으로 判斷되었다.

이리하여 當面의 敵은 天然的 地勢를 利用하여 堅固한 有蓋陣地를 構築하고 陣地 사이는 交通壕로서 연결하여 相互支援을 容易케하는 同時에 障碍物까지 敷設하여 固守防禦로써 發惡的으로 저항코자 狂奔하였으나, 그들의 火力과 機動力은 아직도 微弱하고 士氣는 低下되어 있는 것으로 推測되었다.

我軍의 狀況: 5月下旬 加平—春川을 連하는 線에서 乘勝一路로 진격하던 군단은 右翼에 韓 제6사단을, 中央右翼에 제7사단을, 中央左翼에 제24사단을 그리고 左翼에는 韓제2사단을 併列하고 敵을 각각 進擊하여 5月 28日 Kansas線上에 進出하였다.

이리하여 군단은 6月初에 軍의 새로운 計劃에 따라 제2단계 進擊戰을 展開하여 Ermine線(金化—赤根山—白岩山를 連하는 線)으로 進出하게 되었는데 이때의 군단 戰線의 概況은 다음과 같다.

廣德山(△1,027)—伏杜山(△1,151))—白岩山(△884)—華川北方을 連하는 線으로서 中央右翼인 제7사단(장, Claude B. Ferenbaugh 소장)은 華川—金化사이의 機動路를 中心으로 右一線인 제31연대(장, Lloyed R Moses대령)로 하여금 盧田里 일대에 진출케 하고 그 西側에는 제32연대(장, Charles M Mount, Jr. 대령)를 白岩山(△884)—飛來岩山△689)을 連하는 線에서 進擊態勢를 갖추게 하였으며 예비대인 제17연대(장, Royal Reynold, Jr 대령)는 華川에서 後方에 대한 警戒任務를 담당케 하였는데

이때의 사단지휘소는 新浦里에 位置하였다.

한편 군단 右翼인 韓제6사단(장, 張都暎준장)은 華川貯水池 北岸一帶에 진출하여 右一線인 제19연대(장, 林益淳대령)가 在安山(△1,074) 일대에서, 左一線인 제7연대(장, 梁仲鎬대령)가 △887附近에서 각각 當面의 敵과 對峙하고 예비대인 제2연대(장, 宋大厚대령)는 華川貯水池 橋頭堡를 確保하였으며 사단 지휘소는 大利里에 移設하였다.

그리고 군단 左翼인 韓제2사단(장, 咸炳善준장)은 지휘소를 三浦坪에 두고 右一線인 제17연대(장, 李貞錫대령)는 龍岩(△914)一寅乃里를 連하는 線에 進出하고 左一線인 제31연대(장, 趙原英 대령)는 伏柱山(△1,152)一風德山(△1,045)을 連하는 線에서 敵과 對峙하는 가운데 제32연대(장, 趙在美대령는 戰線으로 躍進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또 제24사단(장, Blackshear M. Bryan 소장)은 戰鬪正面을 제7사단과 韓제2사단에 引繼한 다음 군단예비대로서 지휘소를 齊寧里에 두고 제5연대(장, John L. Throckmorton대령)를 圓坪里에, 제19연대(장, Ned D. Moore 대령)를 龍潭里에 그리고 제21연대(장, Richard W. Stephens 대령)를 楮灘里에 각각 集結케하여 Kansas線上에 防禦陣地를 占領하였는데 이때의 군단 지휘소는 下文廷里에 있었다.

이리하여 全戰線은 韓제1군단으로써 杆城一平昌線을, 美제10군단으로써 元通里一華川貯水池 北岸線을, 그리고 美제1군단으로써 雲川 北方一漣川一汶山 北方을 連하는 線을 占領하게 된것이며 各各 當面의 敵을 擊滅코자 하고 있었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1) 작전계획

美제8軍사령관 Van Fleet 중장은 緩衝地帶 設定을 前提로 하는 休戰을 豫想하여 Kansas線으로 부터 20k 北進하여 보다 防禦에 有利한 鞏制高地를 確保하려고 決心하였다 이러한 構想의 萬全을 期하기 위하여 前進基地의 縱深度와 敵에 대한 打擊力, 그리고 敵攻勢의 策源地에 對한 覆滅을 꾀하는 동시에 敵의 脅威에 對한 剔抉策과 前進基地의 選擇등을 銳意檢討한 결과 戰線을 麟蹄 北쪽 21km의 Punch Bowl(亥安盆地)一金城南쪽一金化一鐵原을 連하는 線을 目標로 進擊토록 決心한 끝에 要旨 다음과 같은 命令을 下達하였다.

『① 美제1군단은 金化一鐵原 地域을 奪取하라.

② 美제9군단은 目標 Wolf(華川 北方一山陽里)와 Fox(大成山一萬峴山)를 占領하라.

③ 美제10군단은 瑞和里 東北쪽 △931—△1,304(大岩山 南쪽)를 連하는 새로운 地域에서 가장 有利한 地形을 選擇하여 防禦하라.

④ 韓제1군단은 美제10군단과 連繫하여 새로운 地域인 巨津里—△931를 連하는 線上에

서 가장 有利한 地形을 選擇하여 防禦陣地를 占領하라.』

이리하여 美제9군단(장, William M. Hoge 중장)은 제2단계 進擊作戰으로 Ermine線(白岩山—赤根山—金化의 線)으로 進出하게 되었는데 이 作戰의 主眼點은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첫째 : 金城—金化—華川間의 機動路를 確保함으로써 東西間에 걸친 敵의 機動을 防遏하고 主補給路를 遮斷한다.

둘째 : 鐵의 三角地帶(平康—金化—鐵原)의 底邊을 奪取함으로써 그의 價値와 利用度를 逓減하고 美제1군단의 金化—鐵原 奪還을 容易케한다.

세째 : Kansas 線 確保에 가장 適合한 前進基地를 占有하여 昌道—金城—平康에 이르는 一圓을 制壓한다.

네째 : 예비대로 하여금 Kansas線 防禦陣地를 占領하여 固守케 한다.

이에 따라 군단의 機動計劃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제7사단은 군단 中央으로, 韓제6사단은 군단 右翼으로 그리고 韓제2사단은 군단 左翼으로 各各 展開한 다음 當面의 敵을 擊破하여 Ermine線으로 進擊하고 제24사단은 군단 예비대로서 控置한다.』

이와같이 하여 군단장 Hoge 중장은 攻擊日을 6月 7日로 定하고 要旨 다음과 같은 命令을 下達하였다.

『① 군단은 現 接觸線(華川 北方—白嶺山—伏柱山—廣德山을 連한 線)에서 攻擊을 再開하여 目標 Wolf(華川北方—山陽里)와 Fox(大成山地域)를 占領하고 계속 Ermine線(白岩山—赤根山—金化의 線)으로 進出하려 한다.

② 제7사단은 目標 Wolf를 占領한 다음 계속 Ermine線(赤根山—新市地)으로 진출하라.

③ 韓제6사단은 군단 右翼을 掩護하면서 Ermine線으로 進出하라.

④ 韓제2사단은 Fox를 占領한 다음 계속 Ermine線(承岩里—松洞)으로 進出하여 군단 左翼을 掩護하라.

⑤ 제24사단은 군단 예비대로서 군단 戰區內의 Kansas線 방어진지를 準備하라.

⑥ 軍團砲兵

(가) 제213機甲野砲大隊(105mm)는 一般支援에 任하면서 제18砲兵大隊 및 제7사단 野砲大隊를 增援하라.

(나) 제2化學迫擊砲大隊(4.2″)는 제7사단에 配屬한다.

(다) 제92機甲砲兵大隊(155mm)는 一般支援에 任하면서 제7사단 野砲大隊및 제18砲兵大隊를 增援하라.

(라) 제987機甲野砲大隊(105mm)는 一般支援에 任하면서 제18砲兵大隊를 增援하라.

(마) 제937野砲大隊(제1砲隊 除外)는 一般支援에 任하라

(바) 제1砲兵觀測大隊 제2중대는 一般支援에 任하라.

(사) 제7사단砲兵은 1개中砲 및 輕砲中隊로써 제27砲兵大隊를 增援하라.

(아) 제24사단 砲兵은 一般支援에 任하되 1개中砲 및 輕砲中隊로써 제27砲兵大隊를 增援하라.

⑦ 軍團工兵

(가) 제86探照燈中隊는 戰場照明에 任하라.

(나) 제19野戰工兵團은 一般支援에 任하면서 군단 地域내에 있는 道路補修와 유지 그리고 제50ton級 M2 浮橋를 유지하라.

(다) 제1437工兵架橋中隊는 50ton級 浮橋機材의 供給유지에 任하라.

⑧ 行政事項 : 行政命令 제10호에 依함

⑨ 通信事項 : 現行 SOI에 依함

각 부대는 군단 通信參謀의 許可없이 民間 通信機關을 使用하지 못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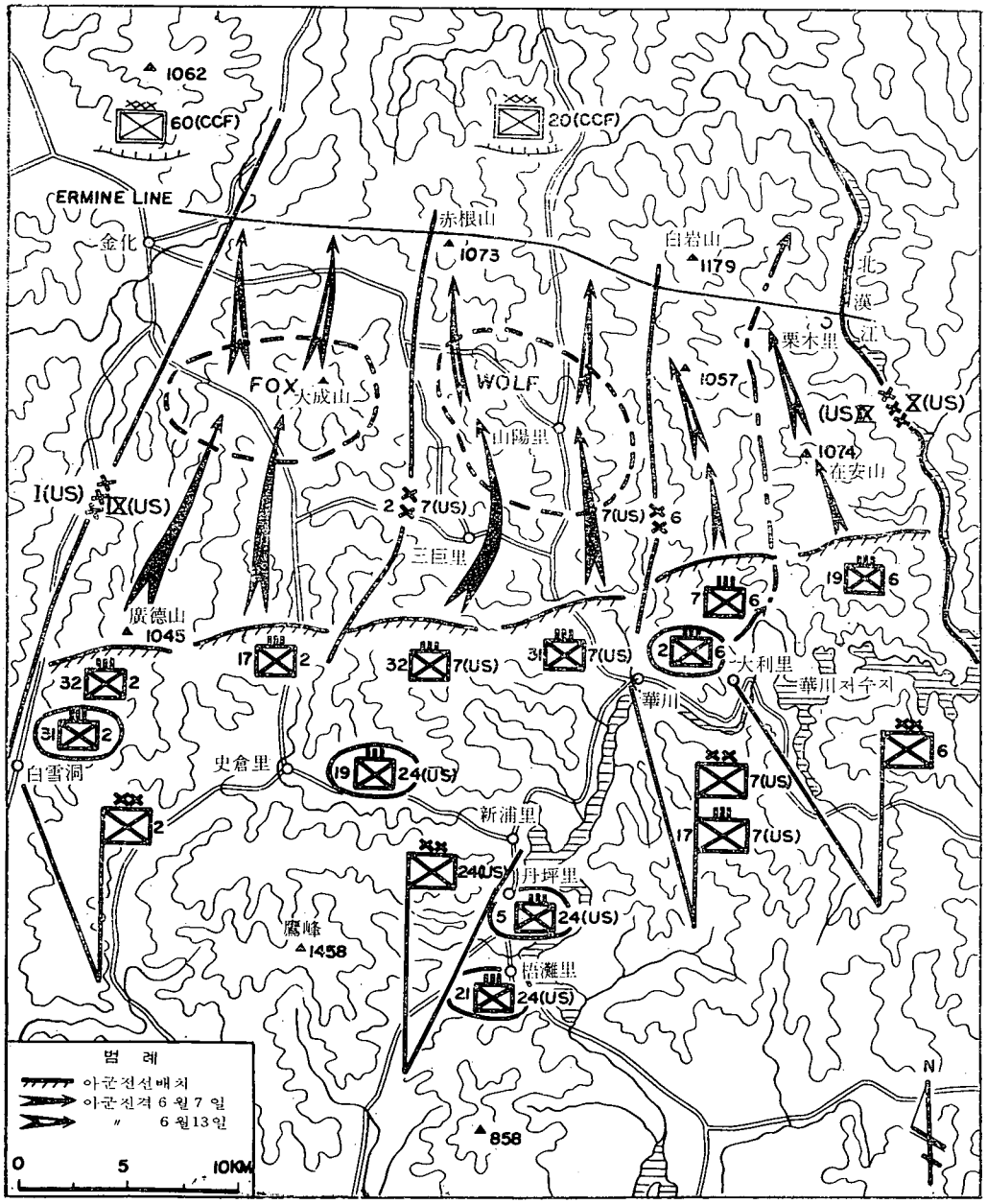
(2) 작전실시

6월 7일 : 군단은 제7사단을 中央으로, 韓제6사단을 右翼, 그리고 韓제2사단을 左翼으로 展開하고 現 接觸線인 華川 北方一白積山一伏柱山一廣德山을 連하는 線에서 目標 Wolf(山陽里 地域)와 Fox(大成山 地域)를 向하여 進擊하였다.

1. 제7사단(장, Claude B.Ferenbaugh 소장)은 제31, 제32 兩연대를 左右 攻擊第一線 연대로 하고 제17연대는 예비대로서 華川에 控置하는 가운데 盧田里一白積山一飛來岩山 間 陣地에서 一齊히 目標 △550—△772를 向하여 攻進하였는데 地形上으로 機甲部隊의 행동이 制限되므로 砲兵과 空中支援을 증강하였다. 優勢한 砲兵群의 砲門에서는 制壓射擊의 熱焰을 吐하고 急降下爆擊機의 編隊群은 對地猛爆의 震動을 加하여 삽시간에 山形이 變하고 巨巖과 老樹가 그 자리를 바꾸었다.

제31연대(장, Lloyed R.Moses 대령)는 이날 下盧田一下陽地間 陣地에서 06.00에 出動하였는데 右一線인 제2대대는 08.30에 △486의 東北쪽 稜線에 이르자 그 前方에 있는 △550

◇ 상황도 제34호 華川—金化 진격전



를 占據하면서 抵抗中인 대대규모의 敵과 接戰하였다.

이 高地는 白岩山(△1179)—鷲峰으로 이어진 險峻한 連峰의 하나로써 急傾斜를 이루었고 樹林이 鬱蒼하므로 敵은 이와 같은 地形을 利用하여 砲擊에도 能히 支撐할 수 있는 有

蓋陣地를 構築하는 동시에 壕와 壕사이를 交通壕로 연결하여 相互間의 支援이 容易케 하고 있었다. 또 그들은 迫擊砲와 各種 自動火器를 集中하고 手榴彈 등으로 我軍의 進擊을 頑強히 막고자 發惡함으로써 마침내 屢次에 걸친 突擊을 敢行하기에 이르렀으나 끝내 敵이 陣地를 固守하여 그 占領이 如意치 못하였다.

이리하여 대대장은 正面突擊만으로서는 도저히 敵陣을 擊破하기 어려울 것으로 判斷한 결과 背後로부터의 強襲과 正面突破를 敢行키로 決心하고 F중대로 하여금 溪谷을 따라 △550의 西側으로 前進시켜 砲兵과 空中支援으로써 敵陣을 強打한 다음 兩面에서 突擊을 敢行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敵陣에 紛戰과 亂鬪가 惹起되어 苦戰에빠진 敵은 마침내 15.00에 北쪽 △500로 後退하기 시작하였다. 이때에 대대는 分散 潰走하는 敵을 追擊集中砲火로써 射殺 100명, 捕虜 17명 그리고 機關銃 및 小銃등을 노획한 다음 連峰인 △500의 敵마저 驅逐함으로써 20.30에는 △500를 完全히 奪取하고 夜間에 對備하는 陣地를 補強하면서 搜索을 계속하였다.

또 中央 제1대대는 下希域 右側 高地로 진출하여 △479에서 抵抗하는 중대 규모의 敵을 一擊하고 17.00에 同高地를 確保하였으며 左一線인 제3대대는 戰車小隊의 支援을 받아 上陽地의 北쪽에 있는 △518에서 執拗하게 저항하는 敵과 熾烈한 白兵戰끝에 19.00에 占據하였다.

그리고 연대 戰車中隊는 外土沃洞까지 進出하여 威力偵察을 實施하다가 17.00에 下陽地로 돌아갔다.

한편 左一線인 제32연대(장, Charles M. Mount 대령)는 제1, 제3 兩대대를 攻擊第一線대대로 하고 제2대대는 예비대로 控置하여 06.00에 攻擊을 開始하였는데 이날 연대目標는 △779—△637에 指向하였다.

제1대대는 下萬山洞 北쪽 △763—△758의 峻嶺을 넘어 △772를 向하여 진격하였으나 飛來岩山(△639) 일대에서 출발한 제3대대는 11.00에 桃李里 北쪽의 △637를 占領하고 있는 대대규모의 敵으로부터 頑強한 저항을 받아 더 이상의 前進이 어렵게 되었다.

이 高地는 △772의 西南쪽에 있으며 高地 南쪽 일부는 開豁地이지만 傾斜가 심하므로 接近路는 東南쪽으로 뻗은 稜線뿐이었다.

이에 연대장 Mount 대령은 먼저 瞰制高地인 △772를 奪取하여 敵의 相互連絡을 遮斷하고 戰力을 分散시켜 後側背를 強打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제3대대는 正面에서 牽制攻擊을 계속하고 砲爆擊으로써 △772 일대의 敵陣을

強打하기에 이르렀는데 이윽고 제1대대는 △772에 突擊하였다.

그리하여 蒼空에는 戰爆機群이 亂舞하고 山谷에는 砲兵의 効力射擊이 殷殷한 가운데 白兵戰이 展開되어 一進一退의 血鬪가 계속되다가 끝내 20.00에는 同高地를 占領하고 敵制下에 있는 △632의 敵을 包圍하여 이를 격멸한 다음 제3대대는 23.00에 △657로 진출하였다.

2. 右翼 韓제6사단(장, 張都映준장)의 제7연대(장, 梁仲鎬대령)는 華川 北쪽 9km의 △887일대에서 격전을 계속中이고, 또 제19연대(장, 林益淳대령)는 在安山(△1074) 附近에 進出하여 當面의 敵을 制壓하고 있었으며 제2연대(장, 宋大厚대령)는 華川貯水池 橋頭堡를 確保中이었다.

또 左翼인 韓제2사단(장, 咸炳善준장)은 龍岩(△914)—伏杜山(1,152)—廣德山△(1,045)을 連하는 線에서 06.00부터 攻擊을 開始하였는데 右第一線에 配備된 제17연대(장, 李貞錫대령)는 上實乃附近에서, 제32연대(장, 趙在美대령)는 芳花洞일대에 進出하여 각각 격전을 展開하였으며 예비대인 제31연대는 廣德里에 集結하고 있었다.

2. 제24사단(장, Blackshear M.Bryan 소장)은 군단예비로서 제5연대(장, John L.Throckmorton 대령)를 14.30에 圓坪里에서 所法里—開谷里에, 제19연대(장, Ned D.Moore 대령)를 龍潭里에서 官廳里에, 그리고 제21연대(장, Richard W. Stephens 대령)를 梧灘里에서 18.00에 華岳里(加平 東北쪽 12km)에 각각 集結케 하였다.

4. 美第1군단은 3日부터 鐵原—金化에 대한 攻略에 着手한 以來 계속 北上中이었으며, 左翼인 韓제2사단의 제32연대는 廣德山 附近에서 美第1군단의 右翼인 Turkey 旅團과 連繫하였는데 戰雲이 차츰 짙어가고 있었다.

6월 8일 : 군단은 이날도 目標 Wolf와 Fox를 向하여 進擊을 계속하였다.

1. 제7사단(장, Claude B.Ferenbaugh 소장)은 右第一線에 主力을 두고 盧田里—上陽地—△722를 連하는 線에서 痛擊을 받은 끝에 潰走하는 敵을 추격하면서 계속 突進하였다.

이때에 제31연대(장, Lloyed R.Moses 대령) 正面인 △550—△500에서 發惡하던 敵은 심한 打擊을 받고 北上 潰走하더니 內土沃洞—外土沃洞을 連하는 線에서 分散된 兵力을 再糾合한 다음 增援兵力을 얻어 대대규모로써 새로운 陣地를 形成하면서 또 다시 연대의 진격을 가로 막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연대는 敵에게 據點強化의 시간적인 餘裕를 주지 않키 위하여 진격을 멈추지 않았는데 戰線配列은 右側第一線에 제2대대, 左側第一線에 제1대대를 展開하고 제3대대로는

現進出線인 上陽地에서 金化一華川間의 主補給路를 警戒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제2대대는 연대主攻으로써 △434를 공격하고 제1대대는 助攻으로서 左側의 △400를 각각 攻擊토록 하였는데 右一線인 제2대대는 E, F중대를 左右 第一線으로 하고 G중대를 예비로 控置하는 가운데 08.00에 각각 目標를 向하여 突進하였다. 이때에 砲聲은 小銃火器와 서로 그 優劣을 다투고 戰爆機는 戰車와 서로 그 進路를 도와 雷霆이 地軸을 흔들고 囂音이 天邊을 가리웠다.

대대는 敵의 警戒線을 一蹴하고 前進하자 11.30에 敵이 迫擊砲와 自動火器 및 手榴彈으로 頑強히 저항함으로써 前進이 一旦 頓挫되고 戰勢는 一時 不利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戰況報告를 받은 연대장 Moses대령은 戰車 1개소대를 增援케 하고 제1대대로 하여금 急速히 鴉屯地로 진출케 함으로써 △400의 敵을 分離孤立케 하여 敵勢를 分散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대대장은 예비대인 G중대를 "용수골"로 移動시켜 東北側으로 包圍토록 하여 이들을 火力으로 制壓한 다음 一齊히 突擊을 敢行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彼我사이에는 熾烈한 白兵戰이 시작되어 대대는 一進一退의 攻防戰을 거듭한 끝에 15.00에 △434를 奪取하였다. 그後 敵은 增援된 兵力으로 두차례에 걸쳐 反擊을 기도하였으나 대대는 이들에게 痛擊을 加하고 分散 潰走하는 敵을 上馬山洞까지 격퇴하여 22.30는 完全히 △434를 占領하였는데 砲彈이 集中하는 곳에 碧血과 肉片이 紛飛하고 爆彈이 炸裂하는 곳에 掩蔽와 火砲가 散亂하여 天誅의一場面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때 左側第一線인 제1대대는 △400를 占領하고 戰車中隊의 支援을 받아 20.00에는 外土沃洞 西北側에 있는 △519까지 진출하였으며 연대의 步戰偵察隊는 山陽里地域에 對한 威力偵察을 계속하였다.

한편 左一線인 제32연대(장, Charles M. Mount, Jr. 대령)는 전날의 攻擊에서 △722—△637를 連하는 線에 진출하였는데 연대의 右第一線인 제1대대는 8일 04.30에 2개중대 규모의 中共軍의 逆襲으로 말미암아 격전이 시작되었는데 茂盛한 樹林과 夜暗, 그리고 濃霧마저 山谷을 메워 咫尺을 分別키 어려울 程度로서 射界는 不良하고 砲擊도 如意치 못 하였다.

四周防禦中인 대대는 接近하는 敵과 두 시간동안에 걸친 白兵戰을 演出한 끝에 血鬪와 慘殺의 攻防混戰을 反復하였다.

이와같이 하여 대대는 一時 危局을 맞이하기도 하였으나 天明이 가까워 질 무렵 砲兵火

力과 空中爆擊으로 聲威를 되찾아 一齊히 前斜面을 向한 攻進을 敢行한 결과 10.30에는 敵을 격퇴한 다음 곧 戰線을 整理하였으며, 左一線인 제3대대는 △697일대에서 敵과 격전끝에 또한 이를 擊破하고 18 00에 △697를 占領한 다음 繼戰을 準備하였다.

예비대인 제17연대(장, Royal Reynold, Jr.대령)는 華川 外廓에서의 警戒任務를 담당하고 있었다.

2 군단 右翼인 韓제6사단(장, 張都暎준장)은 제7연대(장, 梁仲鎬대령)가 △887 일대에에서 전날에 이어 一進一退의 熾烈한 激戰을 계속中이었으며 제19연대(장, 林益淳대령)는 在安山(△1,074) 附近에서 敵을 制壓하고 제2연대(장, 宋大厚대령)는 華川貯水池橋頭堡를 確保하고 있었다.

한편 군단 左翼인 韓제 2 사단(장, 咸炳善준장)은 上實乃一鎭山洞을 連하는 線에 進出하여 제32연대(장, 趙在美대령)가 史倉里 北쪽 9km의 △942 일대에서 敵과 激突中이었고, 또 제17연대(장, 李貞錫대령)는 長財洞 附近에서 捜索을 계속하면서 제32연대의 進出을 掩護하였다.

3. 제24사단(장, Blackshear M. Bryan소장)은 군단 예비대로써 戰區內의 Kansas線 防禦陣地를 準備하기 위하여 제5연대로써 所法里, 제19연대로서 官廳里에 그리고 제21연대로서 華岳里(加平 北쪽 14km)에 각각 集結하고 있었다.

6월 9일 : 군단은 제24사단으로 하여금 1개연대를 抽出하여 9일 日暮까지 坪村(華川 東北方) 新邑里를 連하는 線에서 阻止陣地를 占領토록 하고 군단主力으로써 中間目標인 Wol를 奪取한 다음 계속 Ermine線으로 躍進하였다.

1. 제7사단(장, Claude B. Ferenbaugh소장)은 連日 執拗한 敵의 저항을 격파하면서 內土沃洞 北方一富村里一△722를 連하는 線에 진출 하였는데 敵은 많은 損失을 입었음에도 不拘하고 華川一金化一金城을 連結하는 要衝인 山陽里일대를 固守키 위하여 上馬山洞一△636를 連하는 線에서 또다시 阻止線을 形成하고 사단의 진격을 가로막으려고 企圖하였다.

그리하여 사단은 전날과 같은 戰線配列로서 제31, 제32兩연대를 左右에 展開하고 제1연대를 예비대로 控置하는 가운데 이 阻止線을 目標로 攻進하였다.

제31연대(장, Lloyed R. Moses대령)는 이날 目標 山陽里를 奪還코자 제2 대대를 敵陣地의 東北쪽으로 進出시켜 △557를 占領토록 하고 左一線인 제1대대를 道路 西側 △519稜線으로 前進케 하는 한편 步戰連合 1개중대를 編成하여 道路를 따라 山陽里 正面으로 攻進

케 하였다.

이리하여 각대대는 擔當 正面에 대한 進擊態勢를 갖추었는데, 05.30부터 시작된 攻擊準備射擊으로 敵陣地 △557와 그 北쪽 일대를 強打한 然後에 06.00에 一齊히 目標를 向하여 躍進하니, 砲聲이 요란한 곳에 戰車가 速力을 재촉하고 急降下 爆擊이 集中하는 곳에 地雷가 誘發하였다.

內土沃洞 北쪽에서 출발한 제2대대는 警戒組를 一蹴하고 目標△557로 肉迫하였는데 12.30에 대대는 各種 障碍物을 設置한 堅固한 有蓋陣地에서 頑強히 抵抗하는 대대 규모의 敵과 激突하기 시작되었는데 叱咤와 激勵속에 劍光이 빛나고 刺殺과 屠戮속에 哭鬼가 啾啾하였다.

대대장은 彼我가 서로 對峙한 陣地中間에 溪谷이 있으므로 正面 攻擊 만으로서는 도저히 突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損失도 심할 것으로 判斷하고 即時 연대장에게 이러한 戰況을 報告한 다음 戰車中隊의 增援과 空中支援을 要請하였다.

그리하여 대대는 F중대로 하여금 경사가 심한 敵의 東北背로 移動하여 挾攻토록 하고 增援된 戰車小隊로써 西側背에서 強打를 加하여 一齊히 全面突擊을 敢行하였는데 이와 같은 兩面攻擊으로 敵陣은 左衝右突의 混亂相이 惹起되었다. 이에 包圍網을 계속 압축한 대대는 마침내 F중대의 突擊으로 勝勢를 굳힌다음 17.00에 △577를 奪取하고 分散 潰走하는 敵을 "웃빙골" 北쪽으로 潰退시키고 戰果를 擴大하기에 힘썼다.

이무렵 步戰中隊는 15 00에 山陽里에 突入하여 殘敵을 覆滅하고 敵을 추격하여 橋洞까지 一擧에 進出하였으며 左一線 대대는 山陽里 西側 高地를 目標로 躍進하였다.

제32연대(장, Charles M. Mount, Jr. 대령)는 제31연대의 山陽里 奪還作戰에 呼應하여 제1, 제3兩대대를 攻擊梯隊로 하여 제2대대를 예비로 葛洞에 控置하는 가운데 06.00에 富村里—△722를 連하는 線에서 目標 △636를 向하여 突進하였는데 연대장 Mount대령은 地形과 敵勢를 勘案하여 제1대대가 △636를 占領할 때까지는 제3대대는 現陣地인 △697 일대에서 제 1 대대의 攻擊을 掩護토록 措置하였다.

이리하여 제1대대장은 B중대로 하여금 右側 △519로 진출시켜 敵의 後背를 奇襲 토록하고 A, C 兩개중대로 正面突破를 敢行토록하였는데 △636를 占據한 敵은 대대규모로서 堅固한 有蓋陣地에서 執拗하게 抵抗함으로써 敵의 壓制를 받으면서 緩漫한 稜線을 따라 進擊한 대대는 필경 苦戰을 免치 못하였으나 砲兵火力의 集中과 空中爆擊의 強打로써 2시간에 걸친 激戰을 반복한 끝에 16.40에 비로소 △636를 占領하였으며 이로써 사단은 中間目標의

奪取에 이어 乘勝長驅하여 Ermine線을 目標로 躍進하기에 이르렀다.

2. 군단 右翼인 韓제6사단(장, 張都暎준장)은 連日에 걸친 激戰 끝에 제7연대(장, 梁仲鎬대령)가 △887 일대를 占領함으로써 鷲峰(△897)으로 向하는 攻擊基地를 確保하고 제19연대(장, 林益淳대령)는 이날 在安山 北쪽의 △799까지 突進하였으며 제2연대(장, 宋大厚대령)는 華川貯水池 北岸에서 橋頭堡를 確保하였다.

한편 左翼인 韓제2사단(장, 咸炳善준장)은 제17, 제32兩개연대를 攻擊梯隊로 左右에 展開하고 제31연대를 예비대로 廣德里에 控置하는 가운데 △865(史倉里 北쪽 12km), 一水皮嶺(△1057)을 連한 線에 進出하였는데 右側第一線인 제17연대(장, 李貞錫대령)는 △865 부근에서 激戰 끝에 射殺 60명, 捕虜 7명의 戰果를 거두었고, 제32연대(장, 趙在美대령)는 當面의 敵을 擊破하자 文洙洞(金化 南쪽 7km)으로 北上한 左隣接 Turkey 旅團과 連繫하였다.

3. 제24사단(장, Blackshear M.Bryan 소장)은 군단예비로써 Kansas線上에서의 防禦陣地를 占領하고 있었는데 군단에서 다음과 같은 命令이 下達되었다.

『사단은 1개연대를 抽出하여 9日 日暮까지 坪村—新邑里(華川 東北方)를 連하는 線에서 阻止陣地를 占領하고 華川外廓地區를 防護하라』.

이와같은 命令에 따라 사단은 華岳里에 集結하고 있는 제21연대를 抽出하여 即時 機動케 하였다.

이리하여 제21연대(장, Richard W. Stephens 대령)는 13.00에 集結地를 출발하여 一部兵力을 이날 20.45에 新邑里에 그리고 殘餘兵力은 다음날인 05.00에 坪村에 각각 進出토록 함으로써 새로운 作戰을 담당하게 되고, 제5, 제19연대는 계속 Kansas 線上에서의 防禦陣地를 強化하였다.

이때에 美제1군단은 瓦水里—長興里—金鶴山을 連하는 線에 進出하여 金化—鐵原 前方 3~5 km까지 肉迫하고 있었다.

6월 10일 : 군단은 이날 右翼 正面에서 敵의 抵抗據點인 鷲峰 일대의 高地를 奪取하여 前進基地를 確保하고 美제1군단의 鐵原—金化 攻略에 呼應하여 Ermine 線을 目標로 進擊을 계속하였다.

1. 제7사단(장, Claude B. Ferenbaugh 소장)은 要地인 山陽里 地域을 確保함으로써 機甲部隊의 前進을 도와 活氣를 띄고 北進을 계속하였다.

이날 사단은 예비인 제17연대로 하여금 右一線인 제31연대가 山陽里 北쪽 3km의 於

杜隱洞을 連하는 線에 進出하자 곧 이를 추월 攻擊할 것은 命令하고 目標 新屯地—赤根山을 連하는 線으로 躍進하였는데 砲煙은 天日을 가리우고 爆焰은 山野를 덮었다.

제31연대(장, Lloyed R. Moses 대령)는 제2, 제 1 兩개대대를 攻擊梯隊로 하고 예비대를 山陽里에 控置하는 가운데 06 00에 上馬山洞 附近에서 躍進하였는데 右一線 제2대대는 10.00에 北쪽 △500 일대에서 抵抗하는 1개 중대의 敵을 격파하고 즉시 이를 추격하다가 17.30에 (於杜隱洞 南쪽) △509를 占據하고 저항하는 2개중대 규모의 敵과 또다시 接戰하게 되었다.

이 敵勢는 意外로 強力하여 이로 말미암아 격전만이 반복되고 前進이 如意치 않았으므로 이에 연대장 Moses 대령은 山陽里 北側 稜線으로 진격하여 △667를 占領한 제 1 대대로 하여금 敵制下에 있는 敵陣地 西側에서 陽攻토록 하였다. 이에 힘입은 제2대대는 突擊을 거듭하여 21.00에 △509를 占領하였다.

이리하여 於杜隱洞—△667를 連하는 線에 進出한 연대는 戰線을 整理하면서 戰鬪正面의 交代를 準備하고, 제17연대의 主力은 山陽里 北쪽에 進出하여 超越攻擊 態勢를 갖추었다.

한편 제32연대(장, Chlarles M. Mount, Jr. 대령)는 예비대인 제 2 대대로 하여금 右一線 제 1 대대의 戰線을 交代케 하고 06.00에 目標 橋洞里—赤根洞을 連하는 線으로 突進하였는데 이때의 交敵은 경미하였다.

右一線 戰鬪正面으로 새로이 進出한 제 2 대대는 接敵없이 △546를 넘어 18.30에 橋洞里 附近에 진출하고, 左一線인 제 3 대대는 06 00 葛谷을 출발하여 16.00에 △663의 南麓에서 중대 규모의 敵의 抵抗을 받았으나 砲兵支援으로 이를 격퇴하고 21.00에는 赤根洞 일대에 躍進하여 繼戰을 준비하였는데, 이런 가운데 步戰偵察隊는 接敵을 유지하기 위하여 大谷里 附近에서 偵察을 계속하였다.

2. 韓제6사단(장, 張都暎준장)은 攻擊開始 5일째 되는 이날 제7연대(장, 梁仲鎬대령)로써 鷲峰을 占領한 다음 여기를 中心으로 △802와 △1,057를 連하는 線에서 陣地工事를 着手케 하고 右一線인 제19연대(장, 林益淳대령)로써 堂巨里일대에 北上하여 戰線을 連繫토록 하였다. 이로써 中央제7사단 正面의 敵을 크게 威壓하기에 이르렀으며 또한 白岩山으로 向하는 前進基地를 確保하여 繼戰態勢를 갖춘 가운데 예비인 제 2 연대(장, 宋大厚대령)로써 主力을 따라 祐長洞과 △887를 連하는 예비진지로 進出케하였다.

한편 군단 左翼인 韓제2사단(장, 咸炳善준장)은 敵을 격파하면서 大成山(△1,174) 南쪽까지 北上하였는데 右一線인 제17연대(장, 李貞錫대령)는 赤根洞 西側에서 제 7 사단의 제

32연대와 連繫하고 또는 左一線인 제32연대(장, 趙在美 대령)는 六丹里 附近에서 Turkey 旅團과 連繫하였다.

3. 한편 군단 예비대인 제24사단(장, Blackshear M. Bryan 소장)은 華川 東北方에 있는 新邑里와 坪村을 連하는 線에 진출한 제21연대로써 華川 外廓에 대한 防護에 任하도록 하고 제21, 제19兩연대로서 Kansas 線上에서 陣地工事를 強化토록 하였다.

6월 11일 : 이날 敵은 鴉峰—山陽里—水皮嶺(金化 南쪽 9km)을 連하는 抵抗據點을 상실하고 많은 損失을 보면서 北上潰走하더니 分散된 兵力을 再糾合하여 白岩山—赤根山—△457(金化 東쪽 4km)를 連하는 線에서 阻止線을 形成하고 陣地의 固守를 企圖하는듯 하였다.

군단은 中間目標 Fox(大成山 地域)를 奪取한 다음 敵에게 戰線整理의 餘裕를 주지 않기 위하여 速戰態勢로 突進하였다.

1 제7사단(장, Claude B Ferenbaugh 소장)은 於杜隱洞—△667를 連하는 線에 進出한 右一線인 제31연대로 하여금 제17연대와 戰線을 交代케 한 다음 戰力을 補強하여 目標를 向하여 突進하였다.

새로이 戰線을 擔當한 제17연대(장, Royal Reynold, Jr. 대령)는 제2, 제3兩대대를 攻擊梯隊로 展開하고 제1대대를 下芳洞에서 연대主力의 前進에 따라 後續케 한 다음 07.30에 上芳洞—於杜隱洞 北쪽線에서 躍出하였는데 右 第一線 제2대대는 小規模의 敵을 擊破하고 目標로 前進하여 14 00에 同高地 일대에서 抵抗하는 2개중대의 敵과 交戰이 시작되었다.

이 敵은 傾斜진 巨巖을 利用한 半永久陣地에서 意外로 熾烈한 火力으로 發惡하였기 때문에 瞰制下에서 攻擊하는 대대의 立場이 매우 不利하였다.

이에 대대장은 右第一線인 E중대와 左第一線인 F중대를 正面으로 肉迫케하는 동시에 G중대를 右端으로 延翼投入하여 全面에서 同時에 突擊을 敢行하였다.

그러나 有利한 陣地를 占據한 敵은 集中되는 砲火에도 不拘하고 그 勢力이 누그러지지 않아 끝내 이 陣地를 突破하지 못하고 紛戰과 混鬪만이 계속되었는데 銃砲聲은 山野에 咆哮하고 白兵의 叱咤와 叫喚은 塹壕속에 가득하였다.

이리하여 대대장은 F중대를 左側으로, 그리고 G중대에서 1개소대를 抽出케 하여 同高地 東北側後線을 따라 △778로 迂回토록 하여 敵의 背後를 急襲케 하는 同時에 一齊히 突擊하여 勝勢를 굳히고 一擧에 北斜面까지 敵을 격퇴한 다음 分散潰走하는 敵에게 全砲火를 集中하였다. 이윽고 △825를 完全히 占領한 대대는 左一線에서 △569를 奪取하기에 苦

戰中인 제3대대를 支援하고 17.25에 兩高地를 모두 占有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敵은 增強된 2개중대 규모의 兵力으로 두차례에 걸친 逆襲을 敢行하였으나 그들은 대대의 善戰으로 많은 損失만을 自招하고 결국 격퇴되기에 이름으로써 23.00부터 戰線은 잠시 接敵이 끊기고 다만 砲擊戰만이 계속되었는데 敵屍는 陣地內外에 累累하고 負傷者의 呻吟소리는 初夏의 熱風속에 凄絶하였다.

제32연대(장, Charles M. Mount, Jr. 대령)는 제2, 제3 兩대대를 攻擊梯隊로 하고 제1대대를 橋洞 南쪽에 예비대로 控置하여 07.00부터 橋洞—赤根洞을 連하는 線에서 進擊을 시작 하였다.

右一線인 제2대대는 小規模의 敵을 一蹴하면서 17.00에 △708에 진출하고 左一線인 제3대대는 接敵없이 長坪洞 △514에 躍進하였다.

그러나 제2대대는 이날 後半夜인 04.30에 중대규모의 敵으로부터 逆襲을 받아 夜暗속에서 手榴彈이 紛飛하는 白兵戰을 展開한 끝에 一時混戰相을 보였으나 날이 샐 무렵까지 이를 격퇴하고야 말았다.

한편 전날 23.00에 제17연대에 戰線을 引繼한 제31연대(장, Lloyed R. Moses대령)는 이날 12.00에 연대主力을 華川 附近에, 제2대대를 華川 北쪽 2km의 孝竹坫에 각각 集結케 하였다.

2. 군단 右翼인 韓제6사단(장, 張都暎준장)은 이날 鷲峰을 占領한 다음 松亭子—栗木里 南쪽 △915를 連하는 線에 進出하여 右一線인 제19연대(장, 林益淳대령)를 北漢江岸 松亭子 附近에서 右隣接인 韓제7사단의 제5연대와 連繫케 하고 그리고 제7연대(장, 梁仲鎬대령)를 △1057 西側인 제7사단의 제17연대와 각각 連繫케하였으며 華川貯水池 橋頭堡를 確保中인 제2연대를 北上케하여 祐長洞 附近에 進出토록 하였다.

한편 左翼인 韓제2사단(장, 咸炳善준장)은 전날과 같이 제17, 제32 兩연대를 攻擊梯隊로 展開하고 예비대인 제31연대를 廣德里에서 芳花洞으로 北上시켜 06.00부터 寺洞—水皮를 連하는 線에서 躍進하였는데 右側第一線인 제17연대(장, 李貞錫대령)는 敵을 추격하면서 09.00에 長坪洞—△688間 일대에 進出하였다.

이때에 左側第一線인 제32연대(장, 趙在美대령)는 大成山(△1,170) 일대를 占據하고 執拗하게 抵抗하는 대대 규모의 中共軍과 一進一退의 熾烈한 攻防戰을 反復하였는데 이들은 右一線인 제17연대의 掩護를 받으면서 이를 격퇴 潰散케 하였다. 傷者의 哀號소리가 땅에 차고 死者의 臭氣가 코를 찌르는 慘景속에서 大成山 一帶를 掌握하니 이때가 15.00였다.

이로써 中間目標인 Fox를 奪取한 사단은 最終目標인 Ermine線을 向하여 突進할 準備 태세를 갖추었다.

3. 군단豫備인 제24사단(장, Blackshear M. Bryan 소장)은 제21연대(장, Richand W. Stephens 대령)로써 新邑里—坪村間의 阻止陣地를 占領하면서 華川外廓에 대한 防諜任務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제5, 제19兩연대로서 Kansas 線上에서의 陣地工事를 계속하고 있었다.

4. 한편 左翼인 美제1군단의 제3사단 제16步戰偵察隊는 이날 13.30에 鐵原에 突入하여 偵察基地를 占領하였으며 또 左隣接인 Turkey旅團의 步戰中隊는 이날 12.55에 金化 東南端 長興里 일대에 進出하여 威力偵察을 實施하였다.

6월 12일 : 이날 군단은 左翼으로 Ermine 線에 突進하여 敵의 左肩을 擊碎함으로써 나머지 主力은 이에 呼應하여 一齊히 (Ermine) 同一線上을 確保하였다.

1. 제7사단(장, Claude B. Ferenbaugh 소장)은 전날에 이어 추격을 계속 하였는데, 제17연대(장, Royal Reynold, Jr. 대령)는 제2, 제3兩대대를 攻擊梯隊로 하고 제1대대를 主力의 進出에 따라 上芳洞을 目標로 北上토록 하였다. 07.00에 出動한 右一線 제2대대는 09.30에 △895 附近에서 중대규모의 敵을 격파하고 2km 前進하여 "백맛골"東南쪽에 이르러 또다시 增強된 중대규모의 敵으로부터 頑強한 저항을 받았으나 砲兵과 空中支援으로써 이를 격멸하고 18.15에는 新屯地일대에 進出하였으며, 左一線인 제3대대는 注破嶺△(645)에 이르러 중대 규모의 敵과 激突한 끝에 中央突破를 敢行하여 이를 分斷하고 19.00에 注破嶺의 上峯을 占領하였으며 이로써 연대는 目標 Ermine 線(新屯地—注破嶺)까지 躍進하게 되었다.

제32연대(장, Charles M. Mount, Jr. 대령)는 長坪洞—△708를 連하는 線에서에 07.00에 공격을 開始하였는데 右一線인 제2대대는 前方 △620를 넘어서 경미한 敵의 저항을 擊破한 다음 注破嶺 西側 △680에 進出하였으나, 左一線인 제3대대는 △799(大谷里 南쪽)의 南麓에 이르러 2개중대 규모의 敵과 交戰하였다. 이곳은 要地 赤根山으로 連한 험한 高地로서 敵이 絶壁을 利用하여 堅固한 陣地를 構築하고 있었다. 대대장은 K중대를 正面에서, L중대를 東北側 稜線으로 移動시켜 敵의 左側背를 찌르케 하고 步戰 1개소대를 右側方에 迂回시켜 掩護토록 한 다음 三面에서 同時에 突進토록 하였다.

이리하여 山上峰의 爭奪戰은 두 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어 一進一退로 紛戰을 展開하였으나 드디어 L중대의 1개소대가 上峰에 대한 突擊에 成功함으로써 勝勢를 굳혀 이를 殲滅

한 다음 19 50에 △799를 完全히 奪取하고 戰線을 整備하였다.

이때에 예비대인 제31연대(장, Lloyed R. Moses대령)는 연대主力을 華川에, 제 2 대대를 孝竹岦에 두고 後方 警戒任務를 遂行하였다.

韓제6사단(장, 張都暎준장)은 이날 사단 當面의 Ermine線(松亭子—栗木洞을 連한 線)에 進出하였는데, 祐長洞으로 北上한 제2연대(장, 宋大厚대령)의 主力은 Ermine線 北쪽 水山里까지 進出한 다음 偵察基地를 占領하고 군단右側方을 掩護하였다.

한편 군단 左翼인 韓제2사단(장, 咸炳善준장)은 大成山(△1,174)일대의 陣地에서 戰線을 整備하면서 馬峴里—豊岩里 附近에 對한 偵察을 계속하였다.

3 제24사단(장, Blackshear M. Bryan소장)은 坪村—新邑里間의 阻止陣地를 確保하고 있던 제21연대가 이날 華川貯水池 北岸에 있는 大利里에 集結하였고 제5, 제19兩연대는 계속 Kansas線 防禦陣地를 強化하였다.

6월 13일 : 右翼方面에서 이미 前進基地를 確保하게 된 군단은 當面의 敵을 制壓 격퇴한 다음 目標 Ermine線을 確保함으로써 그 所任을 完遂하였다.

1. 제7사단(장, Claude B. Ferenbaugh소장)의 이날 目標는 Ermine線上의 赤根山(△1,073)地域이었는데 제17연대는 新屯地 일대의 陣地에서 右一線인 韓제7연대와 連繫한 다음 強力한 步戰偵察隊로써 威力偵察을 實施하면서 左第一線인 제32연대의 進擊을 掩護하였다.

赤根山(△1037)은 半徑 14km內에 있는 金城—金化—華川을 眼下에 俯瞰하고 四方으로 連結되는 主補給路를 掌握할 수 있는 要地이며 地勢가 險峻하고 樹林이 鬱蒼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層岩의 傾斜가 甚한 것을 利用하여 敵이 堅固한 有蓋陣地를 構築하여 많은 障碍物까지 設置하고 있었다.

연대장 Reynold대령은 正面突破만으로서는 도저히 成功하기 어려울 것으로 判斷하고, 兩側背에 對한 強打와 正面突破를 配合한 三面包圍를 斷行할 方針으로 우선 제2대대를 敵陣地의 東側으로 移動시켜 △631에서 掩護토록 하는 한편 步戰 1개중대를 西側 承岩고개로 機動케 하여 左側의 敵을 遮斷하여 分離케하였다.

이리하여 제2대대의 K중대는 大谷里의 溪谷을 따라 △845 稜線으로 進攻하고 L중대는 東北側으로 迂回하여 敵의 左側方을 攻圍하는 동시에 1중대는 正面에서 直衝키로 하였다.

이와같이 攻擊態勢를 갖춘 제 3 대대는 08.30에 目標를 向하여 突進하였는데 09 30에 敵

의 迫擊砲彈이 集中하기 시작하고 赤根山—△845 일대에서는 增強된 대대규모의 中共軍이 頑強히 抵抗하였다.

이무렵 제2대대의 E중대는 赤根山 東側으로 깊숙히 進入하여 敵을 抑留하여 牽制하였는데 이러한 掩護 아래 제3대대는 敵의 前進陣地를 突破하고 高地中腹으로 躍進함으로써 激戰이 展開되었다.

敵은 層岩과 急傾斜를 利用하여 構築한 壕에서 手榴彈을 계속投擲하고 機關銃을 亂射하면서 대대의 進出을 阻止함으로써 대대는 地形의 不利와 敵의 瞰制下에 突進하는 格이 되어 負傷者가 續出하였다.

그러나 대대는 火力支援을 받아 果敢한 攻擊을 계속하였는데 이때에 △845로 進攻한 K중대는 이에 呼應하면서 15.00에는 △845를 奪取한 다음 대대의 全力攻擊에 加擔하였다.

이리하여 一進一退하는 高地頂上의 爭奪戰은 무려 3시간에 걸쳐 血鬪를 거듭한 끝에 18.00에 赤根山巖頂을 掌握하였는데 夕陽이 天空에 찬란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潰走한 敵은 分散兵力을 再糾合한 다음 20.30에 夜暗을 利用하여 赤根山—△845 사이로 侵透하는 奇襲을 企圖하였으나, 미리 構成한 火網속에 陷入한 敵은 거의 殲滅되고 一部兵力만이 四散潰走하였으므로 대대는 22.45에 이르러 赤根山일대를 漆夜속에서 照明彈이 白日을 再現하는 가운데 完全히 占領함으로써 이 山上峰의 主人公이 되었다.

이로써 사단은 군단 中央에서 進擊戰을 展開하여 要衝 山陽里를 攻取하고 乘勝一路로 躍進을 거듭한 끝에 新屯地—赤根山 地域을 掌握함으로써 마침내 目標 Ermine線에 進出하였다.

2. 군단 右翼인 韓제6사단(장, 張都暎준장)은 제7, 제19兩연대가 占領한 松亭子—栗木里를 連하는 線에서 陣地工事를 強化하는 한편 接敵유지를 위한 搜索活動을 繼續하고, 또 北漢江 西岸 水上里일대에 進出한 제2연대(장, 宋大厚대령)는 白岩山(△1.179) 東北方에 對한 偵察을 실시하면서 군단 右側方을 掩護하였다.

이 무렵 左翼인 韓제2사단(장, 咸炳善준장)은 Ermine線을 目標로 長坪洞—大成山(△1.174)을 連하는 線에서 07.00부터 前進을 開始하여 09.00에는 馬峴里—泥屯地間에 躍進함으로써 金化—華川間의 5番道路를 完全히 確保한 다음 進擊을 계속하였다. 右側 第一線인 제17연대(장, 李貞錫대령)는 院洞 北쪽에 있는 △549에서 중대규모의 敵을 驅逐하고 17.00에 同高地를 攻略하였으나, 金化 東南 7km의 陽地里 附近까지 進出한 左側第一線인

제32연대(장, 趙在美대령)는 15.00에 △459를 占據한 2개중대 규모의 敵과 交戰하였다.

이 △459는 金化 東南쪽 3km에 있으며 能히 金化를 制壓하고, 金化—金城間의 主補給路를 確保하기 위한 要地인 까닭으로 敵이 堅固히 構築한 有蓋陣地를 交通壕로 連結하고 障碍物 地帶까지 만들어 固守防禦를 企圖함으로써 左一線 대대는 熾烈한 攻防戰을 2시간동안 계속하면서 砲兵과 空中폭격支援을 받는 가운데 突擊을 敢行한 결과 大地를 뒤흔들던 砲聲과 爆擊音이 사라짐에 따라 夜暗의 고요가 짙어지려는 刹那인 △19.45에 高地 頂上을 略取하고야 말았다.

이로써 사단은 事實上 Ermine線에 進出하게 되었으나, 左隣接인 Turkey旅團의 苦戰이 계속되는 가운데 執拗한 敵의 反擊으로 △459—△457高地의 爭奪戰을 連日 계속하다가 마침내 연대 全將兵의 勇戰으로 敵을 격퇴한 다음 16日에 이르러 承岩里—松洞(金化 東쪽 4km)을 連하는 線에 進出하여 金化—金城間의 機動路를 掌握하였다.

3. 제24사단(장, Blackshear M. Bryan 소장)은 군단 예비대로써 坪村—新邑里間의 阻止陣地에 進出한 제21연대를 大利里(華川 東南쪽 3km)에 集結케하여 戰力을 整備토록 하였으며 제5, 제19兩연대로써 Kansas線上의 防禦陣地를 계속 構築케 하였다.

이로써 군단은 제2단계 進擊戰을 開始한 以後 敵의 據點인 鷲峰(△987)—赤根山(△1,073)—大成山(△1,174)을 차례로 奪取하고 目標 Ermine線에 進出하여 前進基地를 確保함으로써 北쪽으로는 昌道—金城—平康까지를 制壓하게 되는 中部의 要衝을 掌握하여 군단의 全面을 防護하기에 이르렀다.

라. 전투후의 개황

敵의 動向: 鷲峯—赤根山—大成山을 連하는 線을 固守하던 中共 제20, 제60 兩군은 絶對로 優勢한 砲兵火力에 壓倒되어 격심한 打擊을 받았으며 步戰協同의 突破로 據點을 상실한 다음 北天을 向하여 一路潰走하였는데 그뒤에 金化地區에서 군단의 進擊을 阻止하여 보려던 中共제60군(장, 章杰)은 決戰을 斷念하고 6月下旬에 멀리 谷山까지 退却한 것으로 判斷되었다.

그러나 지휘소를 金城 附近에 둔 中共제20군(장, 廖政國)은 다시 兵力을 補強하면서 그 隷下인 제59, 제60兩사단을 戰線에 投入하고, 제58사단을 栗沙里(金城 東쪽 5km) 附近에서 再編中인 것으로 進測되었다. 이들은 登大里—外城洞里—後洞里—楸峴里—△433를 連하는 線에서 防守線을 形成하고 有蓋陣地와 塹壕를 마련하는 한편 地雷埋設과 障碍物까지 設置하여 固守態勢를 더욱 強化하는 것으로 推測되었다.

그밖의 中共제12, 제15, 제26, 제27군들은 淮陽—昌道—金城—平康을 連하는 線에서 中部의 要域을 끝까지 確保할 것으로 判斷되었는데, 敵은 休戰會談을 攻擊再擧의 발판으로 逆用하려는 底意가 分明하였다.

我軍의 動向 美제9군단(장, Wiliam M Hoge 중장)은 敵의 據點을 차례로 攻取하고 6月中旬에는 Ermine 線에 進出하여 中部戰線의 要域을 掌握하였으며 이때의 군단의 戰線狀況은 다음과 같다.

군단 右翼인 韓제6사단(장, 張都暎준장)은 CP를 大利里에 두고 제19, 제7兩연대로는 松亭子—栗木里間의 主陣地를 占領케 한 가운데 제2연대로는 水上里 일대에 進出케 하여 군단의 右側方을 掩護하면서 北漢江 岸線에서 韓제7사단과 連繫케 하였다. 中央의 제7사단(장, Claude B. Ferenbaugh 소장)은 CP를 華川에 두고 제17, 제32兩연대로 新中地—赤根山(△1,073)間의 主陣地를 確保하는 한편 步戰偵察隊를 前方에 挺進시켜 接戰을 유지케하고 예비대인 제31연대로써 華川 外廓에 대한 警戒를 담당토록 하였다. 또 左翼인 韓제2사단(장, 咸炳善준장)은 CP를 白雲洞에 두고 제17, 제32兩연대로써 承岩里—松洞間의 主陣地를 占領 掌握케 하는 한편 제31연대를 廣德里에 集結토록 하였다.

한편 군단 예비대인 제24사단(장, Blackshear M. Bryan 소장)은 CP를 新浦里에두고 Kansas 線防禦陣地를 準備하고 있었으며 군단 CP는 下文炬里에 位置하였다.

이때에 韓제1군단과 美제10군단은 Kansas 線(巨津里—瑞和里—六岩山—楊口北方의 線)에서 主陣地를 強化하면서 局部的으로 要地爭奪戰을 展開하고 있었고 金化—鐵原을 攻略한 美제1군단은 強力한 裝甲部隊를 平康 北方까지 進出시켜 威力偵察을 敢行하고 있었다.

그러나 敵과의 休戰을 배들지어 보려는 基本方針에 따라 美제8군은 攻勢를 中止하고 戰線을 防守 一邊倒로 轉換하였으며 隷下部隊의 作戰과 그 兵力規模를 극도로 制限하였으니 대저 父祖傳來의 우리의 땅은 오직 우리 國民의 鐵血으로서만 能히 지킬수 있고 또 지켜져야 할것이니 누구를 탓할 수 있으랴.

이리하여 군단은 Ermine 線에 이르면서부터 現 進出線上에서 陣地를 構築하고 接敵을 유지하기 위한 偵察活動만을 실시하면서 예비대로써 Kansas 線上에 連한 陣地工事를 強化하였는데, 6月 26日부터 24日까지 제24사단(장, Blackshear M. Bryan 소장)은 연대전투단을 盧洞里—△468(金城 東쪽 6 km)—△547를 連하는 線에 進出시켜 主陣地와의 中間에 마련한 敵陣地를 覆滅키로 하였다.

그뒤에 군단은 陣地構築에만 全力을 傾注하고 7月初 부터는 配屬된 一개 勞務師團의 兵力으로 Kansas 線의 陣地工事를 增設키로 하였는데 7月 10日 休戰 本會談이 시작되기에 이르러 戰線은 現陣地를 確保維持하는 膠着狀態에 빠지고 다만 休戰會談이 進行하고 있는 동안 제24사단 正面에서의 黑雲土嶺(△851)—△461 戰鬪와 그리고 韓제2사단 正面에서의 △734 戰鬪등 要地를 確保하려는 高地爭奪戰만이 熾烈하게 계속되었다.

17. 海軍의 活動 (1951년 6월 1일부터 1951년 8월 31일까지)

참조 : 상황도 제35호

要 旨

地上에서 主陣地線의 커다란 변화없이 局部戰만으로 戰線의 膠着을 보게될 무렵, 海軍은 UN海軍과 협동으로 不斷한 哨戒와 偵察로서 韓半島海域에서 敵의 活動을 阻止하고 艦艇의 安全 航海를 보장하였다.

이리하여 東海岸에서는 永興灣에 散在한 麗島와 新島를 비롯하여 大島와 小島 그리고 黃土島를 계속 확보중이므로 同 海域의 警備를 늦추지 않았으며 또한 西海岸에 있어서도 黃海道 沿岸 一帶의 島嶼를 장악하고 이를 中心으로 海上作戰을 展開하면서 遊擊部隊를 支援함으로써 敵의 後方을 계속 교란시켰다.

한편 아직도 東·西 兩 海域에는 부설된 機雷가 浮遊中이었으므로 이에 對한 掃海와 前線海域에서 遊弋中인 戰斗艦艇에 대한 支援任務를 아울러 遂行하였다.

가. 참가함정 및 주요지휘관

海軍總參謀長		소장 孫 元 一	JMS—302艇	장 대위 洪 元 杓	
PF—61艦	장	중령 崔 孝 鏞	JMS—303艇	장 대위 金 元 錫	
		대령 李 龍 雲	JMS—304艇	장 대위 梁 漢 杓	
		(6.27. 부터)		대위 韓 承 錫	
PF—62艦	장	중령 李 哉 松		(8.20. 부터)	
PC—701艦	장	소령 盧 明 鎬	JMS—307艇	장 대위 朴 武 鎬	
		소령 金 鍾 淇	JMS—308艇	장 대위 金 千 鎰	
		(6 27. 부터)	JMS—309艇	장 중위 柳 來 赫	
PC—702艦	장	소령 印 亮 煥	JMS—310艇	장 중위 牟 禮 振	
PC—703艦	장	소령 鄭 昊 謨	YMS—501艇	장 대위 李 完 鏞	
PC—704艦	장	소령 李 泰 榮	YMS—502艇	장 대위 姜 景 遠	
JMS—301艇	장	대위 朴 基 政	YMS—503艇	장 대위 金 炯 培	

YMS—504艇	장 대위 朴 水 玉	YMS—515艇	장 대위 鄭 一 燦
YMS—506艇	장 대위 金 禎 浩	YMS—518艇	장 대위 崔 應 恒
YMS—507艇	장 중위 辛 光 永		대위 高 景 榮
	대위 金 明 煥		(6.27. 부터)
	(6.11. 부터)	LST—801艦	장 중령 柳 海 巨
YMS—512艇	장 대위 林 斗 成	FS—901艇	장 소령 朴 敬 哲
YMS—514艇	장 대위 玄 時 燕		소령 韓 在 根
	대위 崔 京 道		(6.27. 부터)
	(6.27. 부터)	YO—106艇	장 대위 崔 富 英

나. 작전경과의 개요

지난 달에 이어 海軍은 이 期間中에도 韓半島 全海域을 UN海軍과 協同으로 封鎖함으로써 敵의 海上活動을 크게 萎縮케 하면서 艦砲射擊과 輸送 및 掃海活動을 아울러 수행하였다.

東海岸 永興灣 一帶의 島嶼를 계속 확보하고 同 海域에 대한 警備를 실시하여 葛麻半島나 虎島半島의 敵 海岸砲臺를 격멸하기 위하여 CTE 95.21(永興灣 封鎖 戰隊司令官)의 UN海軍 艦艇과 協同으로 艦砲射擊을 集中하였으며 通川과 庫底 前洋에 깊숙히 進入하여 UN軍의 수색대원과 긴밀한 연락아래 敵 高地에 砲擊을 실시하였다.

또한 注文津과 39° 사이의 海域에서 封鎖區域을 위반하며 운항하는 帆船의 出沒이 아직도 빈번하므로 注文津—巨津과 巨津—39°로 作戰上 區分한 이 海域에 各各 1個 艦艇을 배치하고 CTE 95.22(東海岸 封鎖 戰隊司令官)의 UN艦艇과 함께 同 海域을 航海하는 船舶에 對한 統制를 加하였다.

뿐만 아니라 西海岸에서도 白翎島와 鴉洞島를 비롯하여 席島와 椒島 等을 我軍이 확보 중이었으나 敵은 黃海道 沿岸 一帶에 海岸砲臺를 構築하고 機雷를 부설하여 我軍의 作戰을 방해하는 한편 이러한 島嶼에 대한 기습을 企圖하고 있었다.

특히 延白—海州—甕津地區에서 敵은 兵力과 裝備를 增強시키고 있었으므로 이를 制壓하고 敵의 後方을 교란하기 위하여 CTE 95.1(西海 艦隊司令官)의 UN艦艇과 함께 砲擊을 加함으로써 敵 陣地 施設과 裝備를 烏有化하였다.

한편 이러한 作戰을 수행하기 위하여 母港을 멀리 떠난 艦艇과 島嶼 駐屯隊에 補給物資를 適時에 安全하게 現地補給하여야 하는 輸送業務는 海運公社 所屬의 LST 8隻과 FS 10隻 모두 18隻이 濃霧속에서도 계속 수행하였다.

또한 東·西 海域의 到處에서 浮游하는 機雷와 鎭南浦—仁川—麗水—元山 等地에 부설된 繫留機雷로 말미암아 作戰上 또는 艦艇의 運航上 적지않은 지장을 받게 되었으나 開戰以後에 급속도로 技術이 發展하고 裝備가 改善된 掃海艇隊는 艦砲射擊 艦艇의 游弋 水域인 元山港 一帶 그리고 遊擊活動의 근거지인 白翎島와 椵島一帶 海域을 중점적으로 掃海하였으며 期間中 各 月別 作戰의 概要는 다음과 같다.

(1) 6월中의 概況

1일 : 元山灣 麗島의 앞 바다에서 YMS—501艇(장, 李完鏞 대위)과 YMS—518艇(장, 崔應恒대위)은 CTE 95.22에 소속된 UN海軍의 艦艇과 협동으로 경비中이었으며 또한 注文津 前洋에서는 PC—703艦(장, 鄭昊謨 소령)과 YMS—503艇(장, 金烱培 대위)은 38° 以南으로 항해하는 船舶에 대한 統制를 加하였다.

한편 仁川 앞 바다에서 YMS—504艇(장, 朴水玉 대위)과 JMS—302艇(장, 洪元杓 대위) 그리고 JMS—307艇(장, 朴武鎬 대위)이 경비중이었고 또한 白翎島의 前洋에서는 PC—702艦(장, 印亮煥 소령)이 JMS—303艇(장, 金元錫 대위)과 YMS—302艇(장, 姜景遠 대위) 그리고 YMS—507艇(장, 辛光永 대위)을 지휘하여 掃海와 警備에 任하고 있었다.

2일 : YMS—512艇(장, 林斗成 대위)은 麗水港 前洋(北緯 34°37′01″ 東經 120°49′25″)에서 150yds 간격으로 부설된 9개의 機雷에 대한 掃海作業을 실시하였다.

한편 LST 安東號는 釜山港에서 美軍需當局에서 요청한 軍需品을 적재하고 麗島와 墨湖를 向하여 出港하였다.

3일 . JMS—302艇은 呑洞島와 白翎島에 敵의 情報員이 潛伏 중이라는 報告에 接하고 이를 剔抉중에 있었으며 한편 FS—金海號는 海本 作命 甲 제308호에 의거하여 長生浦에서 釜山까지 軍糧米(4,000가마)를 輸送하고 LST—加平號는 鎭海에 있는 海兵隊의 人員과 美軍需品을 墨湖와 注文津에 各各 수송하기 위하여 釜山港을 出港하였다.

4일 : JMS—301艇(장, 朴基政 대위)은 江華島와 呑洞島 사이의 海上에서 JMS—307艇으로부터 임무 교대를 받고 PC—702艦의 지휘를 받아 警備에 任하였다.

한편 海本 作命 甲 제311호에 의거하여 LST—801艇(장, 柳海巨 중령)은 濟州—木浦—群山—仁川—白翎島등 各 基地駐屯 海兵隊의 兵力을 교대키 위하여 釜山을 出港하였다.

또한 YMS—502艇과 YMS—507艇은 掃海와 경비에 任하고 있었으나 이날 午後부터 風波가 심하여 警備만을 수행하였다.

이날 현재 이곳 海域에 대한 掃海는 1/3정도 진행되고 있었으며 作業이 이미 完了한 區域은 다음과 같다.

W—(38° 09′36″ N, 124° 34′42″ E)

X—(38° 04′24″ N, 124° 38′48″ E)

Y—(37° 59′00″ N, 124° 27′12″ E)

Z—(38° 04′06″ N, 124° 23′12″ E)

이상 4點을 연결한 내부의 海域과

B2—(38° 27′48″ N, 124° 49′00″ E)

DOG—(38° 27′18″ N, 124° 56′00″ E)

CHESTER—(38° 30′18″ N, 124° 56′00″ E)

이상 3點을 연결한 내부의 海域이다.

5일 : JMS—310艇(장, 牟禮振 중위)은 白翎島의 앞 바다에서 경비중인 JMS—303艇으로부터 임무를 교대 받고 PC—702艦의 지휘를 받아 이곳 海域의 경비에 들어 갔다.

한편 YMS—503艇은 軍需品을 墨湖로부터 注文津까지 수송하였으며 FS—金海號는 CAC 當局의 救護藥品을 木浦까지 수송하기 위하여 釜山港을 出港하였다.

6일 · YMS—515艇(장, 鄭一燦 대위)은 白翎島의 앞 바다에서 YMS—502艇으로부터 임무를 교대받고 警備任務를 수행하였으며, 한편 FS—忠州號는 仁川까지 군수품을 수송한 다음 硯島 앞 바다에서 掃海艇隊의 補給船인 原州號와 임무를 교대키 위하여 釜山港을 出港하였다.

7일 : 殷栗郡 北部面 金山浦 海岸에서 我軍의 砲擊으로 파괴된 敵 帆船 20隻中 6隻은 완전히 수리되어 이 帆船을 이용한 機雷敷設을 자행할 우려가 있다는 정보에 따라 YMS—502艇은 이곳을 重視 警備하였으며, 한편 YO—106艇(장, 崔富英 대위)은 이날 輕油(100,000G/L)를 鎭海의 前山 貯藏庫에 공급하였다.

8일 . PC—704艦(장, 李泰榮 소령)은 永興灣 麗島 앞 바다에서 YMS—501艇으로부터 임무를 교대받고 CTE 95.22의 UN艦艇들과 협동으로 경비작전을 전개하였으며, 또한 YMS—514艇(장, 玄時燕 대위)은 注文津 앞 바다에서 YMS—503艇으로부터 임무를 인수받아 注文津과 墨湖間의 海域警備에 任하였다.

9일 : 38° 以北 海域으로 夜間에 항해하는 어떠한 大小船舶을 막론하고 我軍 船舶의 1,000m 以內에 접근하면 이를 격침시키라는 CTE 95 28(38° 以南 封鎖 戰隊司令官)의

再指示에 따라 PC—703艦은 注文津 앞 海上에서 항해하는 船舶에 대한 統制를 加하였다.

10일 : YMS—512艇과 YMS—515艇은 이날 13.00부터 18.00까지 松禾郡 眞風面 修山里에 기습 상륙한 椒島 駐屯遊擊隊 150명에 대한 지원사격을 加하여 敵 토치카 3개를 파괴시키고 또한 軍需品 倉庫와 收容所 7개소를 完全 燃燒시켰다.

11일 : PF—61艦(장, 崔孝鏞 중령)은 白翎島 앞 바다에서 PC—702艦으로부터 임무를 인수받고 西海岸에서 作戰中인 우리 艦艇을 지휘하며 CTE 95.12(西海岸 封鎖 戰隊司令官)의 UN艦艇들과 긴밀한 협조아래 해상작전을 전개하였다.

12일 : YMS—501艇은 釜山港에서 海兵隊의 負傷兵을 收容하여 鎭海로 出港하였으며, LST—安東號는 統營에서 陸軍 兵力을 濟州島 和順里까지 수송한 다음 和順里에 있는 兵力과 군수품을 적재하고 釜山까지 수송하기 위하여 이날 17.00에 釜山港을 出港하였다.

13일 : JMS—307艇은 이날 18.00에 JMS—304艇으로부터 임무를 교대받아 PF—61艦의 지휘아래 席島와 椒島사이의 海域에서 경비에 任하였다.

14일 : 西海岸에서 警備區域을 다음과 같이 再 配定하였다.

즉 ① JMS—301艇은 喬洞島 一帶海域을

② JMS—310艇은 龍湖島를 중심한 그 일대 海域을

③ JMS—304艇은 席島와 椒島사이의 海域에서 경비작전을

④ YMS—512艇과 YMS—515艇은 椒島 앞 바다에서 掃海作戰을 전개하였으며 PF—61艦은 全 海域을 巡廻警備하였다.

15일 : 이 戰亂 1週年을 앞두고 豫想되는 敵의 五列 등 騷擾의 突發을 未然에 분쇄하기 위하여 戰鬪部隊 全般에 내려진 非常警戒令에 따라 東西 兩海域에서 作戰中인 各艦艇들은 我軍이 확보하고 있는 島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警備하는 동시에 기타 모든 活動을 계속 強化하였다.

16일 : PC—701艦(장, 盧明鎬 소령)은 墨湖 앞 바다에서 YMS—514艇으로부터 任務를 교대받은 다음 YMS—518艇을 지휘하여 墨湖로부터 北緯 39° 사이의 海域에서 封鎖作戰에 任하였으며 한편 掃海作業中인 YMS—512艇은 이날 09.30에 黃海道 長山串 北쪽 海上(北緯 38° 23′ 40″, 東經 124° 54′ 15″)에서 敵 發動船 1隻에 艦砲射擊을 加하여 이를 擊沈하였다.

또한 FS—901艇(장, 林敬哲 소령)은 海兵隊의 負傷兵을 釜山에서 鎭海까지 수송하고 LST—三浪津號는 麗水에서 陸軍兵力(2,500명)을 濟州島 和順里까지 수송한 다음 즉시 濟州邑에 寄港하여 軍需品 1,000ton을 釜山으로 수송할 예정으로 出港하였다.

17일 : ＰＣ—701艦은 이날 25.25부터 23 25까지 敵 1個聯隊 규모가 占據중인 通川郡 臨南面 斗岩里(北緯 38° 49′, 東經 127° 07′)에 艦砲射擊을 加하였다.

한편 ＹＭＳ—504艇(장, 朴水玉 대위)은 巡威島 近海에서 ＹＭＳ—310艇으로부터 경비임무를 인수받아 ＰＦ—61艦의 지휘 밑에 同 海域에 대한 봉쇄 활동에 任하였다.

18일 : 전날에 이어 ＰＣ—701艦은 이날 23.22부터 23.55까지 通川郡 臨南面 斗岩里(北緯 38° 40′, 東經 127° 07′)에 있는 敵 陣地에 再次 艦砲射擊을 集中하였다.

19일 : ＰＣ—702艦(장, 印亮煥 소령)은 永興灣 海上에서 ＰＣ—704艦으로부터 임무를 인수받아 葛麻半島와 牛尾島 南쪽의 敵 陣地에 艦砲射擊을 加하고 ＰＣ—701艦은 전날에 이어 이날 20 50부터 21 20까지 通川郡 南面 沙湖里에 있는 陣地를 砲爆하여 彈藥과 食糧을 滿載한 자동차 13輛을 爆破하였다.

20일 : ＰＦ—62艦(장, 李哉松 중령)은 仁川 앞 바다에서 ＰＦ—61艦으로부터 임무를 교대받아 西海岸에서 作戰中인 ＹＭＳ—503艇과 ＹＭＳ—504艇을 위시하여 ＹＭＳ—507艇(장, 金明煥 대위)과 ＪＭＳ—303艇 그리고 ＪＭＳ—307艇을 지휘하며 경비를 계속하였다.

21일 : 海本 作命 甲 제345호에 의거하여 ＦＳ—901艇은 日本 Sasebo에서 所要 掃海裝備를 수송하려고 이날 03.00에 釜山港을 出港하였으며, 한편 ＬＳＴ—安東號는 水營에 있는 美軍의 彈藥을 적재하고 釜山에 寄港한 다음 美軍의 軍需物資를 注文津까지 수송하기 위하여 이날 07.00에 釜山港을 出港하였다.

22일 : ＪＭＳ—309艇(장, 柳來赫중위)는 白翎島 앞 바다에서 ＪＭＳ—307艇으로부터 임무를 인수받고 ＰＦ—62艦의 지휘아래 椒島의 近海에서 경비작전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西海岸의 경비강화를 위하여 출동한 ＪＭＳ—302艇은 白翎島 앞 海上에서 耀兵하였다.

23일 : 椒島 近海에서 作戰中인 ＪＭＳ—309艇은 機關의 精度不良으로 ＪＭＳ—302艇으로 교대하고, ＪＭＳ—309艇은 ＣＴＥ 95.1의 요청에 따라 延坪島와 巡威島 사이 海域에서 封鎖作戰에 任하였다.

24일 : 짙은 海霧를 무릅쓰면서 敢行된 海上作戰으로 말미암아 敵은 계속 萎縮을 당하였으며, 이날도 전날에 이어 擔當 海域의 변동없이 경비활동을 계속 하였다.

25일 : ＹＭＳ—501艇은 注文津 앞 바다에서 同 海域을 경비중인 ＹＭＳ—518艇으로부터 임무를 교대받고 ＰＣ—701艦의 지휘下에 巨津과 注文津間의 海域에서 封鎖作戰에 任하였다.

26일 : ＪＭＳ—308艇(장, 金千鎰 대위)과 ＪＭＳ—304艇(장, 梁漢杓 대위)은 仁川 앞 바다에서 ＹＭＳ—504艇과 ＪＭＳ—303艇으로부터 各各 임무를 교대받아 ＰＦ—62艦의 지휘

아래 경비작전에 任하였다.

27일 : JMS—302艇과 YMS—503艇 그리고 YMS—507艇은 遊擊隊員 150명을 夢金浦 海岸에 奇襲 上陸시킨 다음 PF—62艦과 같이 艦砲射擊으로 遊擊隊를 支援하여 敵 射殺 20명과 捕虜 30명 그리고 帆船 3隻을 파괴하였다.

28일 : PF—62艦은 이날 09.00부터 1시간동안 夢金浦 山岳地帶에 도사리고 있는 敵에 대하여 英國 F—626號와 함께 함포사격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JMS—304艇은 黃海道 延安에 인접한 海岸에 砲擊을 加하여 敵 陣地와 住居施設을 파괴하였다.

29일 : PC—704艦은 麗島 앞 바다에서 PC—702艦으로부터 다시 임무를 인수받고 CTE 95 22의 UN艦艇들과 협동으로 永興灣 一帶에 대한 封鎖作戰을 전개하였다.

30일 : PC—701艦은 이날 16.00부터 17.00까지 江原道 庫底一帶의 敵 陣地에 3″砲 22發과 對空彈 29發을 퍼부은 다음 卵道一帶 海域의 경비에 任하였으며 PC—704艦은 庫底 沿海岸을 경비하였다.

(2) 7월 中의 概況

1일 : PF—61艦(장, 李龍雲 대령)은 이날 09 00부터 2시간에 걸쳐 夢金浦 주변 山岳地帶에 集結中인 敵에 대하여 CTE 95 12의 UN艦艇과 합동으로 艦砲射擊을 加하였는데 이때에 UN항공기 95臺도 이 地域에 폭격을 集中하여 敵을 粉碎하였다.

한편 JMS—304艇(장, 梁漢杓 대위)은 延白郡 海月面(北緯 37° 50′57″, 東經 126° 17′ 55″)에서 遊擊活動을 전개하고 있는 乙支 第2兵團의 支援 요청에 따라 이곳 海岸을 운항하는 船舶에 대한 통제를 加하는 同時에 敵 陣地에 艦砲射擊을 실시하여 敵 20名을 射殺하고 토치카 5개를 파괴하였다.

2일 : 이날 현재 PC—704艦(장, 李泰永 소령)은 YMS—502艇과 YMS—506艇을 지휘하여 CTE 95 22에 소속된 UN海軍의 艦艇과 협동으로 경비와 아울러 掃海作戰을 전개하고 있으며 注文津 前洋에서는 PC—701艦과 YMS—501艇이 38° 以南으로 運航하는 선박에 대한 통제를 加하였다.

한편 이날 鎭南浦 앞 海上에서 YMS—503艇과 YMS—507艇이 경비활동 중이었으며 PF—62艦은 JMS—309艇과 JMS—304艇 그리고 JMS—308艇을 지휘하여 黃海道 海岸線 一帶와 이미 확보된 島嶼의 警備에 任하였다.

3일 : JMS—301艇은 JMS—309艇으로부터 임무를 인수받고 PF—62艦의 지시에 따

라 黃海道 海岸線 一帶의 警備에 任하였다.

4일 : YMS—518艇(장, 高景榮 대위)은 巨津港에서 PC—701艦으로부터 임무를 인수받고 巨津과 39° 사이의 海域에서 警備에 任하면서 특히 경비구역 內를 運航하는 帆船에 對한 統制를 중점적으로 加하였다.

5일 : JMS—308艇은 이날 02 50에 愛國靑年 武裝隊 165명을 松禾郡 豊海面 海岸에 奇襲上陸시키는 한편 英國 F—633號와 합동으로 上陸地點 인근에 集結中인 敵 1個大隊 규모에 砲擊을 加하여 이를 擊砕하였다.

한편 YMS—506艇은 天氣不順으로 永興灣 麗島에서 待機整備中, 이날 16 40에 葛麻半島의 敵 陣地로부터 30餘發의 射擊을 받았으나 UN海軍의 艦艇과 합동으로 砲擊을 시작하여 이날 17.20까지 敵 砲臺를 完全히 沈默시켰다.

또한 西海岸 舊洞島 仁士里 앞 海上을 警備中인 JMS—304艇은 延白郡 溫井面 烽火里 海岸에 120mm 追擊砲를 保有하는 敵이 出沒中이라는 情報를 입수하자 곧 海岸 400yds까지 接近한 다음 砲擊을 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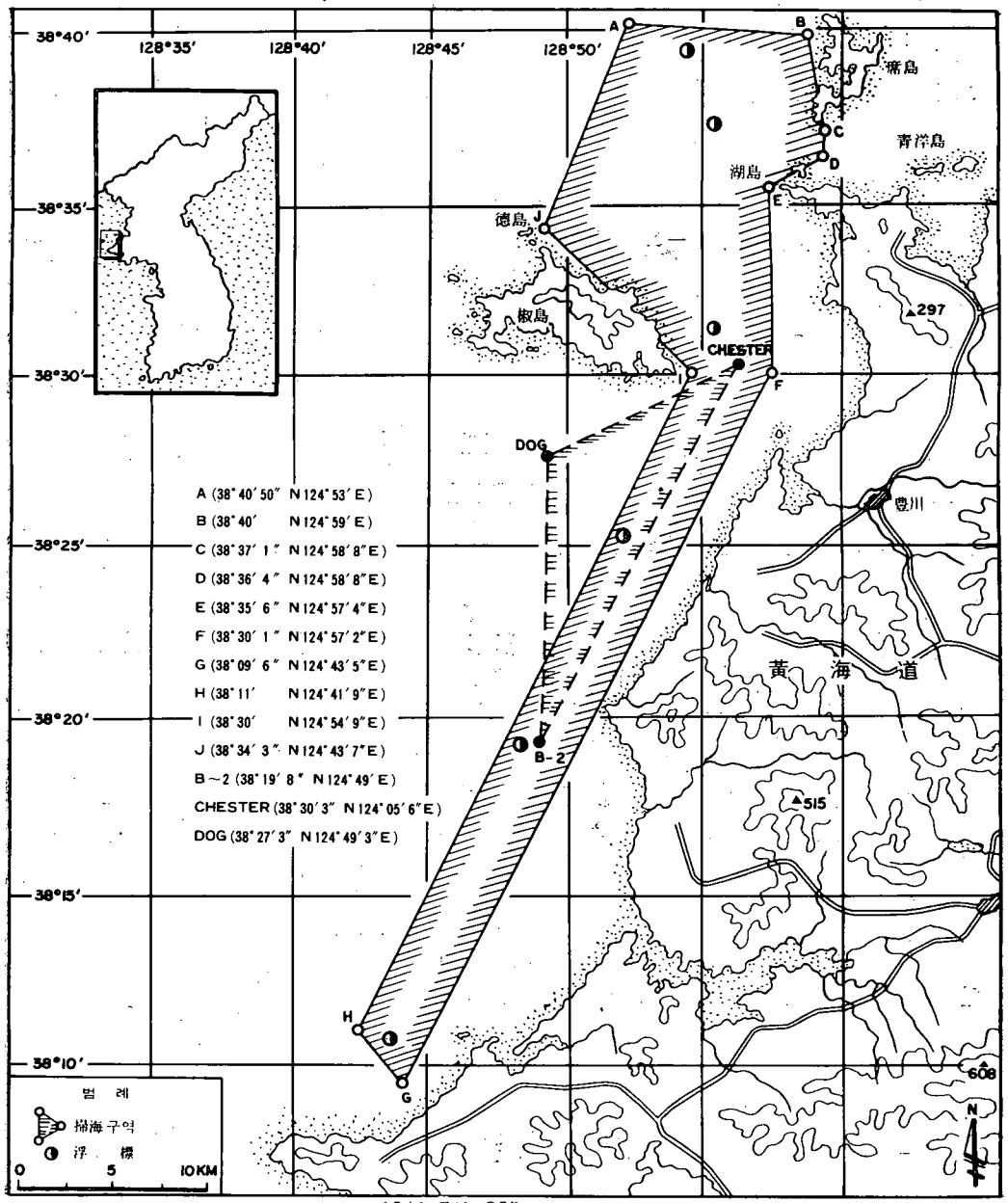
6일 : YMS—518艇은 이날 00 00에 美 第8軍 機動隊 138명을 東海岸에 있는 高城灣에 上陸시키고 支援射擊을 敢行함으로써 敵 3명을 射殺하고 鐵橋 1楔을 파괴하는 한편 上陸部隊는 敵에게 적지않은 損失을 주고 이날 06.00에 復歸하였다.

7일 : LST—安東號는 海本作命 丙 제14호에 따라 仁川까지 美軍의 軍需品을 수송한 다음 白翎島에서 避難民을 收容하여 群山에 輸送하기 위하여 이날 17.00釜山港을 出港하였다.

8일 : YMS—512艇과 YMS—515艇은 黃海道 沿岸에서 掃海作業을 실시하였는데 이날 현재로 完了區域은 다음과 같다.

A—38° 40′ 30″ N	124° 53′ E
B—38° 40′ N	124° 59′ E
C—38° 37′ 6″ N	124° 58′ 48″ E
D—38° 36′ 24″ N	124° 58′ 48″ E
E—38° 35′ 36″ N	124° 57′ 24″ E
F—38° 30′ 6″ N	124° 57′ 12″ E
G—38° 09′ 36″ N	124° 43′ 30″ E
H—38° 11′ N	124° 41′ 54″ E

◇상황도 제35호 西海 掃海 실시(7. 8)



I —38° 30′ N 124° 54′ 36″ E

J —38° 34′ 18″ N 124° 48′ 42″ E

上記 10點을 연결하는 內部의 海域과

ㄱ—38° 10′ N 124° 43′ E

ㄴ—38° 19′ 48″ N 129° 49′ E

ㄷ—38° 25′ 6″ N 124° 52′ 42″ E

ㄹ—38° 30′ 18″ N 124° 56′ E

ㅁ—38° 37′ 12″ N 124° 54′ 54″ E

ㅂ—38° 39′ 42″ N 124° 55′ E

上記 6點을 연결하는 內部의 海域이다.

9일 : ＦＳ—倭舘號(선장, 裵相守)는 海本作命 丙 제17호로서 日本에 있는 軍需品을 수송하기 위하여 이날 17 00에 釜山港을 出港하여 Yokosuka港으로 向하였다.

10일 : ＪＭＳ—310艇은 이날 16 00에 甕津郡 富民面 舟島에 北共 2個小隊 규모가 直射砲2門과 迫擊砲 3門 等으로 무장하고 上陸하였다는 情報를 입수하자 이날 16.45에 同島의 앞 바다에 急航한 다음 곧 敵의 豫想 集結地에 艦砲射擊을 加하여 적지않은 피해를 주는 한편 我軍部隊 40명과 住民 60명 도합 100명을 救出 輸送하였다.

11일 : ＰＦ—61艦은 ＰＦ—62艦으로부터 임무를 인수하고 ＪＭＳ—302艇과 ＪＭＳ—307艇을 비롯하여 ＪＭＳ—301艇과 ＹＭＳ—512艇 그리고 ＹＭＳ—504艇과 ＹＭＳ—515艇 등 도합 6隻을 직접 지휘한 다음 ＣＴＥ 95.12의 ＵＮ艦艇과 협동으로 仁川과 鎭南浦間의 海域에서 封鎖와 掃海에 任하였다.

12일 : ＪＭＳ—302艇과 ＪＭＳ—310艇은 甕津郡 東南面 仁坪里 海岸에 集結中인 敵을 砲擊함으로써 申島와 圖島를 奇襲하려는 敵의 企圖를 烏有化하였다. 또 이날 ＪＭＳ—302艇은 ＪＭＳ—310艇으로부터 任務를 인수하고 이곳 해상을 警備하였다.

13일 : PF—61艦은 JMS—302艇과 JMS—303艇을 引率하고 黃海道 興嵋半島 一帶와 申島와 圖島주변의 敵 陣地에 艦砲射擊을 加하여 敵 45명을 射殺하고 토치카 6개소를 파괴하는 한편 砲臺 2個所를 격파하였다.

14일 : ＪＭＳ—302艇은 이날 22.00에 巡威島 海岸의 北共 集結所에 機銃射擊을 加하여 敵 20명을 射殺하고 敵이 使用하고 있던 家屋 10棟을 파괴하였다.

한편 ＪＭＳ—307艇은 이날 00 30부터 海州灣 一帶에서 夜間 漁撈船에 대한 검문을 실시하였다.

15일 : ＪＭＳ—302艇은 이날 02 40에 甕津郡 申島를 奇襲한 100명의 敵과 交戰한 끝에 이날 05 00까지 이를 擊退하였으며 또 15 00에는 漁化島 앞 바다에서 浮流 機雷 1개를 爆發除去하였다.

16일 : ＰＦ—62艦과 ＪＭＳ—302艇은 이날 15 00에 平安南道 平原郡 漢川面 앞 海上에

墜落된 敵 MIG 15機의 引揚作業을 위하여 同 海域으로 急航하였으며 또 海州灣을 警備中인 JMS—307艇은 交代艦艇없이 이날 20 45에 鎭海로 廻航하였다.

17일 : 전날에 이어 이날도 東西 兩 海域에서 담당 海域의 변동없이 海上作戰을 展開하였다.

한편 LST—801艇은 이날 00 00附로 LST—801艦으로 改稱되었다.

18일 : 西海岸에서 警備中인 YMS—502艇과 YMS—513艇은 이날 08.00부터 椵島 西南端 海上에서 掃海作業을 실시하였다.

한편 FS—原州號는 浦項과 墨湖 兩 警備府와 麗島 駐屯隊에 軍需物資를 수송하기 위하여 또한 LST—801艦(장, 柳海巨 중령)은 西海岸에 출동중인 各 艦艇에 대한 補給을 위하여 釜山港을 떠났다.

19일 : PC—702艦은 注文津 앞 바다에서 YMS—518艇으로부터 임무를 인수하고 PS—703艦과 합동으로 注文津에서 巨津에 이르는 海域을 경비하였으며 또한 JMS—301艇은 YMS—504艇으로부터 임무를 교대하고 椵島 앞 바다에서 警備에 任하였다.

20일 : PF—62艦과 JMS—302艇은 이날 18.30부터 英國 艦載機 4臺의 엄호아래 平原郡 漢川面 앞 海上(北緯 39° 12′ 05″, 東經 125° 15′ 05″)에 추락한 敵 MIG 15機의 引揚作業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여 이날 22.00에 成功裡에 完了하고 椵島로 輸送하였다.

한편 YMS—514艇은 元山灣에서 美 掃海艇隊와 합동으로 浮流機雷 10개를 爆發시켰다

21일 : 敵 MIG—15機의 수송을 마친 PF—61艦은 黃海道에 있는 麒麟島 앞 海域에서 警備에 任하였으며 掃海編隊 YMS—513艇이 機關故障으로 修理中이므로 YMS—502艇 單艇으로 椵島 前洋에서 掃海作業을 실시하였다.

22일 : PF—62艦은 이날 17.00에 PF—61艦으로부터 任務를 인수하고 JMS—304艇과 JMS—301艇을 비롯하여 JMS—302艇과 JMS—513艇 및 YMS—502艇을 지휘하여 CTE 95 12의 UN 海軍艦艇들과 協同으로 仁川과 鎭南浦 사이의 海域에서 警備와 掃海에 任하였다.

23일 : YMS—506艇은 麗水港 前洋(北緯 34° 36′ 00″, 東經 127° 45′ 07″)에서 機雷 11개를 爆發하였다.

24일 : 驪州號는 이날 13 00에 麗島 駐屯隊와 永興灣에서 活動中인 YMS—514艇을 비롯하여 YMS—510艇과 YMS—503艇에 補給할 軍需品을 적재하고 釜山港에서 出航하였다.

25일 : PC—704艦은 이날 09 00에 永興灣에서 YMS—514艇으로부터 임무를 인수하고

YMS—503艇과 YMS—510艇을 지휘하여 麗島 앞 海上의 警備에 任하였는데, 한편 FS—驪州號는 麗島駐屯隊에 軍需品을 수송하기 위하여 이날 13 00 釜山港에서 出航하였다.

26일 : 麗島 앞 바다를 警備中인 PC—704艦은 이날 20 00에 UN艦艇과 協同으로 葛麻半島의 敵 陣地에 砲擊을 加하였으며, 한편 FS—原州號는 麗島에서 陸軍 情報關係者 26명을 비롯하여 避難民 23명과 捕虜 3명을 收容하고 墨湖로 廻航하였다.

27일 : YMS—505艇을 비롯하여 YMS—506艇과 YMS—507艇은 麗水 前洋에서 掃海作業을 실시하였는데 이날 현재 完了된 海域은 다음과 같다.

A—34° 36′ 18″ N　　127° 50′ 19″ E

B—34° 43′ 00″ N　　127° 49′ 42″ E

C—34° 47′ 30″ N　　127° 47′ 30″ E

上記 3點을 연결하는 3角形內의 海域이다.

28일 : 西海岸 甲島 一帶의 海域을 경비중인 JMS—303艇은 이날 19 00에 靈津郡 東南面 海岸의 敵 陣地에 砲擊을 加하여 토치카 2개소를 파괴하였다.

29일 : PC—704艇은 이날 12 00와 20 00의 兩次에 걸쳐 UN海軍의 艦艇과 협동으로 永興灣 葛麻半島의 敵 陣地에 艦砲射擊을 加하여 敵에게 적지 않은 損傷을 주었다.

30일 : 이날 18 00에 釜山에서 FS—金海號는 鎭海에 있는 海軍統制府에 수송할 군수품과 鎭海 病院으로 이송할 患者를 싣고 鎭海로 廻航하였다.

한편 掃海作業을 실시중인 YMS—503艇은 元山 앞 海上에서 3個의 機雷 그리고 YMS—502艇은 海州 前洋에서 2개, 또한 YMS—507艇은 麗水 앞 해상에서 9개 도합 14개의 機雷를 폭발하였다.

31일 : PC—704艦은 이날도 UN艦艇과 협동으로 永興灣 葛麻半島의 敵 陣地에 砲擊을 계속 集中하였다.

(3) 8월中의 槪況

1일 : 我軍이 掌握中인 永興灣 黃土島에 이날 14 00부터 2시간에 걸쳐 砲擊이 集中되었으므로 PC—704艦은 곧 UN艦隊와 합동으로 數倍에 達하는 砲擊을 퍼부어 野砲 3門과 彈藥庫 1棟을 파괴하였다.

또 PF—62艦은 JMS—309艇을 지휘하여 UN艦隊와 합동으로 延白郡 南端 沿岸에 있는 敵의 集結地에 艦砲射擊을 加하였다.

한편 FS—901艇(장, 韓再根 소령)은 이날 20.00에 日本 Sasebo로부터 軍需物資를 수송하기 위하여 釜山港에서 出航하였다.

2일 : PF—62艦과 PC—703艦은 CTU 95.12(西海岸 封鎖 戰隊司令官)의 지시에 따라 이날도 延白郡 温井面 海岸一帶의 敵 陣地에 艦砲射擊을 加하였다.

JMS—302艇은 黃海道 東南面 仁花里에 野砲 2門을 裝備한 北共兵力 105명이 出沒하고 있으며 또 仁坪里에도 80mm 迫擊砲 3門과 重機 2挺으로 武裝한 北共兵 80명이 集結中이라는 情報를 入手하자 이날 19 00부터 19.30까지 이 地域에 砲擊을 실시하였다.

3일 : PF—62艦과 PC—730艦은 이날 07.00에 延白郡 温井面 烽火里 앞 바다까지 깊숙히 進入한 다음 敵 陣地에 砲擊을 加하였다.

4일 : 甕津郡 興媚面 康翎里와 竹橋里에 迫擊砲 2門과 重機 2挺으로 武裝한 北共 120명이 出沒하고 또 東南面 長尺里에 迫擊砲 3門과 重機 1挺으로 武裝한 北共 75명이 我軍이 확보중인 島嶼에 對하여 威脅이 되므로 JMS—309艇과 JMS—304艇은 이곳 海岸線 一帶를 重點的으로 警備하였다.

5일 : PF—62艦은 이날 07.50부터 30분동안에 걸쳐 延白郡 温井面 烽火里의 敵 陣地에 艦砲射擊을 加하였다.

6일 : PF—62艦은 이날 15.08부터 30분 동안에 걸쳐 開豊郡 大聖面 古郡里의 敵 陣地(北緯 39° 49′ 10″, 東經 126° 28′ 30″)에 艦砲射擊을 加하였다.

한편 YMS—514艇은 이날 20.00에 麗島 앞 바다에서 PC—704艦으로부터 任務를 교대받은 다음 YMS—505艇과 YMS—515艇과의 協同으로 警備와 掃海에 任하였다.

7일 : 전날에 이어 PF—62艦은 이날 09 10부터 20分間에 걸쳐 延白郡 温井面 烽火里에 있는 敵 陣地에 砲擊을 集中하였다.

한편 YMS—512艇은 이날 席島 앞 海上의

A—38° 37′ N　　124° 59′ 30″ E

B—38° 37′ N　　125° 00′ E

C—38° 36′ N　　124° 59′ 30″ E

D—38° 36′ N　　125° 00′ E

4點을 연결하는 內部의 海域에 대하여 掃海를 完了하였다.

8일 : YMS—501艇과 YMS—512艇은 이날 03.00에 椒島의 遊擊隊 250명을 松禾郡 豊海面 津江浦에 奇襲上陸케 하고 UN艦隊 D—803艦과의 協同으로 支援射擊을 加함으로써

敵 26명을 射殺하였다.

한편 YMS—518艇은 이날 14.25에 江原道 巨津(北緯 38° 22′ 20″, 東經 128° 40′ 24″) 前洋에서 封鎖海域을 침범한 漁船 2隻을 拿捕하는 즉시로 注文津 派遣隊에 인계하였다.

9일 : PF—62艦은 英國의 艦隊와 合同으로 延白郡 溫井面 烽火里 海岸의 敵 陣地에 艦砲射擊을 集中하고, 또 YMS—504艇은 이날 12.00에 甕津郡 東南面 沙串里의 敵 迫擊砲 陣地에 砲擊을 加하여 토치카 1개소를 파괴하였다.

10일 : 전날에 이어 PF—62艦과 JMS—302艇은 이날 10.50에도 延白郡 溫井面 烽火里의 東쪽 沿岸 一帶에 있는 陣地에 艦砲射擊을 加하였다.

11일 : YMS—512艦은 席島 앞 바다에서 掃海作業을 실시하였는데 이날

A—38° 27′ N	125° 00′ E
B—38° 39′ N	125° 02′ F
C—38°38′ 30″ N	125° 03′ E
D—38° 36′ N	125° 00′ E

이상 4點을 연결한 內部의 海域에 대하여 掃海하였다.

12일 : 龍湖島 東北쪽인 甕津郡 興甕面에서는 敵의 出沒이 전연 없었으나 同島 西北쪽인 甕津郡 東南面 沙串里의 高地(北緯 37° 50′ 15″, 東經 125° 20′ 30″)에서 信號彈 發射가 빈번하므로 JMS—308艇은 龍湖島 一帶 海域을 중점적으로 警備하였다.

13일 : PF—62艦은 CTG 95.1(UN 西海艦隊司令官)의 지시에 따라 이날 08.22부터 20分에 걸쳐 甕津郡 龍泉面의 敵 陣地(北緯 38° 26′ 40″, 東經 125° 04′)에 艦砲射擊을 加하였으며 또 JMS—302艇은 英國 艦隊와 協同으로 延白郡 湖南面 日新里의 敵 陣地(北緯 37° 50′, 東經 126° 08′ 30″)와 松野里의 陣地(北緯 37° 51′, 東經 126° 11′ 30″)에 砲擊을 加하여 토치카 2個所를 파괴하고 敵 5명을 射殺하였다.

14일 : 海本作命 甲 제2호에 따라 8.15 제2주년을 前後로 예상되는 敵의 攻勢를 粉碎코자 非常警備態勢에 들어갔으며, PF—62艦은 이날 10.25부터 40分에 걸쳐 殷栗郡 二道面 西海里의 高地(北緯 38° 39′ 25′, 東經 125° 7′ 20°)에 砲擊을 集中하였다.

15일 : PF—62艦은 이날 16.00부터 30分동안에 걸쳐 松禾郡 眞風面 海岸(北緯 38° 30′ 東經 125° 01′)에 있는 敵 陣地에 艦砲射擊을 加하였다.

한편 JMS—307艇은 西海岸 龍湖島 앞 바다에서 JMS—302艇으로부터 임무를 인수받고 또 JMS—310艇은 昌麟島 前洋에서 YMS—504艇과 任務를 교대한 다음 PF—61

艦의 지시에 따라 警備에 任하였다.

16일 : PC—701艦은 이날 巨津 앞 바다에서 YMS—518艇으로부터 임무를 교대받고 注文津과 39° 사이의 海域에서 CTE 95.28(東海岸 封鎖 戰隊司令官)의 UN艦艇과 협동으로 警備에 任하였다.

17일 : 甕津半島의 茂島와 六島는 我軍이 확보하고 피난민 300명을 수용중이었는 바, 甕津郡 鳳鳩面 玉陰里의 敵 陣地에서 上記 兩島에 수시로 砲擊을 加하므로 이날 YMS—512艇과 JMS—310艇은 陣地에 砲擊을 加하였다.

한편 YMS—507艇은 이날 麗水 前洋(北緯 34° 42° 30″, 東經 127° 56′ 18″)에서 機雷 5개를 發見하고 除去하였다.

18일 : YMS—512艇은 이날 10.00부터 20分동안에 걸쳐 甕津郡 鳳鳩面 玉陰里 海岸의 敵 陣地에 砲擊을 加하였다.

또 YMS—507艇과 YMS—503艇 그리고 YMS—502艇과 YMS—506艇은 麗水 前洋에서 掃海中 이날 현재 完了 구역은 다음과 같다.

A	34° 36′ 00″ N	127° 52′ 00″ E
B	34° 34′ 50″ N	127° 59′ 45″ E
C	34° 35′ 57″ N	127° 57′ 45″ E
D	34° 35′ 32″ N	128° 03′ 00″ E
E	34° 37′ 00″ N	128° 08′ 48″ E
F	34° 41′ 32″ N	128° 05′ 21″ E
G	34° 41′ 00″ N	128° 03′ 00″ E
H	34° 41′ 18″ N	128° 01′ 00″ E
I	34° 42′ 00″ N	128° 50′ 00″ E
J	34° 43′ 26″ N	127° 50′ 05″ E

이상 10點을 연결하는 내부의 海域이다.

19일 : PC—702艦은 이날 15.00에 永興灣 麗島 앞 바다에서 YMS—514艇으로부터 임무를 인계받아 CTE 95.21(永興灣 封鎖 戰隊司令官)의 UN艦艇과 協同으로 警備에 任하였으며, YMS—514艇은 PC—701艦과 합동으로 注文津과 39° 사이의 海域에서 항해 하는 선박에 對하여 統制를 加하였다.

20일 : PF—61艦은 이날 仁川 앞 바다에서 PF—62艦으로부터 任務를 교대받은 다음

YMS—512艇을 비롯하여 YMS—513艇과 JMS—307艇 그리고 JMS—309艇과 JMS—301 艇등 도합 5隻을 지휘하며 仁川과 鎭南浦 사이의 海域에서 警備와 掃海作業에 任하였다.

21일 : YMS—531艇을 비롯하여 YMS—512艇과 YMS—510艇은 이날 西海岸 椒島 앞 바다의

A—38° 39′ 00″ N	125° 03′ 05″ E
B—38° 36′ 30″ N	125° 03′ 24″ E
C—38° 36′ 13″ N	125° 03′ 25″ E
D—38° 37′ 36″ N	124° 02′ 23″ E
E—38° 36′ 42″ N	125° 52′ 00″ E
F—38° 26′ 06″ N	125° 01′ 12″ E
G—38° 35′ 54″ N	125° 01′ 12″ E
H—38° 35′ 57″ N	124° 59′ 36″ E
I—38° 36′ 57″ N	124° 48′ 13″ E
J—38° 36′ 18″ N	124° 48′ 13″ E

이상 10點을 연결하는 內部 海域을 掃海하였다.

22일 : 전날에 이어 이날도 YMS—513艇을 비롯한 YMS—512艇과 YMS—510艇은 椒島 앞 바다의

A—38° 41′ 00″ N	124° 55′ 11″ E
B—38° 41′ 25″ N	124° 55′ 00″ E
C—38° 43′ 00″ N	124° 55′ 59″ E
D—38° 45′ 38″ N	125° 46′ 00″ E
E—38° 44′ 50″ N	125° 01′ 24″ E
F—38° 42′ 30″ N	124° 50′ 00″ E
G—38° 41′ 24″ N	124° 56′ 10″ E
H—38° 41′ 00″ N	124° 56′ 23″ E

이상 8點을 연결하는 내부 海域을 掃海하였다.

23일 . YMS—507艇과 YMS—503艇 그리고 YMS—506艇과 YMS—515艇은 麗水 前洋에서 掃海作業을 실시하던 中

A—34° 41′ 18″ N 128° 01′ 00″ E

B—34° 42′ 00″ N 128° 50′ 00″ E

C—34° 43′ 26″ N 127° 50′ 05″ E

D—34° 42′ 05″ N 127° 51′ 07″ E

이상 4點을 연결하는 內部의 海域에 對하여 掃海를 完了하였다.

24일 : PC—701艦은 이날 永興灣 虎島半島의 敵 陣地(北緯 39° 17′ 48″, 東經 127°33′ 30″)에 砲擊을 加하였다.

25일 : PC—701艦은 전날에 이어 이날 20.30에 UN海軍의 艦艇과 協同으로 虎島半島의 敵 陣地(北緯 39° 14′ 30″, 東經 127° 37′ 54″)에 艦砲射擊을 실시하였다.

26일 : PC—701艦은 注文津과 39°사이의 海域에서 封鎖活動을 展開하고 있던 바, 이날 09.58에 高城 앞 바다(北緯 38° 36′, 東經 128° 31′)에서 機雷 1개를 發見하고 爆發하였다.

한편 YMS—518艇은 이날 17.00에 巨津 앞 바다에서 YMS—514艇으로부터 任務를 교대받아 PC—701艦의 지휘아래 注文津과 巨津사이의 海域을 警備하였다.

27일 : JMS—309艇은 UN海軍의 艦艇과 함께 延白地區 海岸線 一帶의 敵 陣地에 砲擊을 加하여 토치카와 兵舍 數棟을 파괴하였다.

또한 JMS—301艇은 JMS—307艇으로부터 任務를 교대받고 PF—61艦의 지휘아래 西海岸 喬洞島 앞 海上에서 警備에 任하였다.

한편 YMS—513艇을 비롯한 YMS—512艇과 YMS—510艇은 이날 西海岸 椒島 앞 바다에서

A—38° 27′ 12″ N 124° 49′ 25″ E

B—38° 25′ 42″ N 124° 48′ 24″ E

C—38° 30′ 00″ N 124° 46′ 02″ E

D—38° 29′ 30″ N 124° 45′ 36″ E

E—38° 30′ 00″ N 124° 40′ 00″ E

F—38° 29′ 30″ N 124° 40′ 00″ E

이상 6點을 연결하는 海域에 對하여 掃海作業을 실시하였다.

28일 : YMS—507艇과 YMS—503艇 그리고 YMS—506艇과 YMS—515艇은 이날 麗水 앞 바다의

A—34° 37′ 00″ N 128° 08′ 48″ E

B—34° 41′ 32″ N 128° 05′ 21″ E

C—34° 38′ 03″ N 128° 13′ 20″ E

D—34° 42′ 30″ N 128° 09′ 46″ E

4點을 연결하는 海域에 對하여 掃海를 完了하였다.

29일 : ＰＦ—61艦은 이날 08.14에 延白郡 溫井面 昌東里와 湖東面 留亭里의 敵 陣地에 艦砲射擊을 실시하였으며, 또 ＪＭＳ—301艇도 이날 07.00부터 10.00까지 延白郡 海岸線 一帶에 砲擊을 加하였다.

한편 ＦＳ—901艇은 海本作命 乙 제405호에 따라 日本 Sasebo에서 軍需物資를 수송하기 위하여 이날 17.00에 釜山港에서 出航하였다.

30일 : ＰＦ—61艦은 이날 11 00에 延白郡 海月面과 溫井面 海岸線 一帶의 敵 陣地에 砲擊을 加하였으며 또 ＰＣ—702艦은 이날 19.10에 永興灣의 虎島半島를 占領中인 敵에게 美 驅逐艦과 협동으로 艦砲射擊을 加하였다.

한편 ＪＭＳ—304艇은 ＪＭＳ—301艇으로부터 임무를 교대받고 ＰＦ—61艦의 지휘아래 西海岸 龍湖島 앞 바다에서 警備에 任하였다.

31일 : ＰＦ—61艦은 전날에 이어 이날 16.37에도 西海岸 舊洞島 北쪽 對岸의 敵 陣地에 砲擊을 加하였다.

한편 ＹＭＳ—513艇을 비롯하여 ＹＭＳ—512艇과 ＹＭＳ—510艇은 이날 西海岸 椒島 앞 바다의

A—38° 37′ 18″ N 124° 52′ 42″ E

B—38° 34′ 42″ N 124° 46′ 50″ E

C—38° 33′ 48″ N 124° 47′ 47″ E

D—38° 37′ 30″ N 124° 53′ 41″ E

4點을 연결하는 海域에 對하여 掃海를 完了하였다.

18. UN 海軍의 活動 (1951년 6월 1일부터 1951년 8월 31일까지)

참조 : 상황도 제 8 호

要 旨

UN海軍은 不斷한 哨戒活動으로 東·西의 兩海岸을 여전히 봉쇄하면서 敵의 要衝地 및 輸送 動脈에 對한 攻擊을 늦추지 않았다.

元山灣에 집결한 巡洋艦과 驅逐艦들은 連日 砲擊와 道路 그리고 鐵橋에 對하여 艦砲射擊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城津과 浦津一帶에도 同一한 目的의 作戰을 定期的으로 斷行하였다.

한편 戰艦 New Jersey號가 主力이 된 第95機動部隊의 巨砲는 東部 戰線에서 敢闘中인 友軍에 對하여 火力으로써 支援하였으며 또한 第77機動部隊의 艦載機들은 主要 보급로에 對한 폭격을 展開하였다.

뿐만 아니라 西海岸에서도 서울一鎭南浦間의 海域을 완전히 遮斷하면서 主로 서울一平壤의 街道를 猛打하였다.

가. 夏季 및 秋季攻勢에 對한 UN 海軍의 活動(6. 1～8. 31)

(1)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極東艦隊 사령관 중장 C.T. Joy

第7艦隊 사령관 중장 H.M. Martin

第77機動部隊(高速航空母艦部隊)
사령관 소장 W.G. Tomlinson
소장 G.R. Henderson
(1951. 6. 2부터)
소장 J. Perry
(1951. 8 22부터)

第90機動部隊 사령관
소장 I.N. Kiland
소장 T.R. Hill
(1951. 9 3부터)

第92機動部隊 사령관
대령 M.P. Wright

第95機動部隊 사령관
소장 A.E. Smith
소장 G.C. Dyer
(1951 6 20부터)

(2) 작전의 개요

地上에서의 戰線이 38°線 以北 20km 一圓에서 거의 膠着되고 있었으나 友軍은 敵의 機

先을 制하고 主要 高地에 對한 쟁탈전을 展開하고 있었다.

戰艦 New Jersey號와 重巡洋艦 Helena號가 主力艦이 된 第95機動部隊의 艦砲는 高城 西南쪽의 여러 高地에서 敢闘中인 韓國 第1軍團(장, 白善燁 소장)을 掩護하는 砲擊을 斷行하였다.

한편 西海岸에 있어서도 休戰會談에서 共産側 代表들이 38°線 南쪽의 地域과 臨津江을 自己들의 確保區域으로 主張함에 이르러 이를 反證하기 위하여 漢江 上流에까지 시위활동을 展開하였다.

한편 第77機動部隊의 艦載機들은 高城—淸津을 잇는 보급로를 強打하였을 뿐만 아니라 空軍과 海兵隊의 戰闘機와 합동으로 所謂 窒息作戰(Strangle Operation)을 展開하였다

즉 北緯 38°15′와 39°15′ 사이의 地域을 통과하는 8개의 主要補給路 中 海軍은 中部地域의 平安南道 陽德郡—黃海道 新溪郡과 咸鏡南道 德源郡—江原道 伊川郡을 연결하는 2개路線에 對하여 爆擊을 敢行함으로써 敵의 輸送活動을 저지하였는 바 期間中 UN海軍의 主要活動은 다음과 같다.

6월 1일 : 航空母艦 Bon Homme Richard號(함장, C.B. Gill 대령)는 이날 Philippine Sea 號로부터 임무를 인계받고 第77機動部隊의 主力艦으로 高城과 淸津을 잇는 海域에서 海上任務를 수행하였다.

6월 2일 : 航空母艦 Bon Homme Richard號의 艦載機들은 이날 吉州—興南을 잇는 地域을 打擊하고 24개소의 鐵橋와 6개소의 道路 그리고 貨車를 숨겨둔 터널 6개소를 파괴하였다.

또한 巡洋艦 Los Angeles號(함장, R N. McFarlane 대령)는 이날 首都師團(장, 宋堯讚 준장)과 대치중인 高城 南쪽의 敵陣에 砲擊을 加하였다.

6월 5일 : 空軍과 海兵隊의 戰闘機와 합동으로 전개된 Strangle 작전에 참가한 第77機動部隊의 艦載機들은 이날 午後에 伊川郡 一帶의 道路와 鐵路에 爆擊을 斷行하였다.

6월 6일 : 戰艦 New Jersey號(함장, David M. Tyree 대령)가 高城 前洋에 도착함으로써 巡洋艦 Los Angeles號와 合勢하게 되어 高城 南쪽의 敵地에 砲擊을 集中하였다.

6월 8일 : 巡洋艦 Los Angeles號는 美軍事 고문단으로부터 高城 南쪽에 대한 긴급포격요청을 받고 AKA(攻擊輸送艦)으로부터 8″포탄을 보급받으면서 이 地域에 砲擊을 斷行하였다.

6월 14일 : 掃海驅逐艦 Thompson號(함장, W.H. Barckmann 소령)는 이날 城津 앞 바다

에서 攻擊目標를 찾기 위하여 速力을 줄이며 海岸 가까이 進入하다가 突然 위장을 벗긴 敵의 海岸砲射擊을 받아 3명이 戰死하고 4명이 負傷하였다.

6월 20일 : 第77機動部隊의 艦載機들은 이날 北緯 38°15′와 39°15′ 사이의 內陸을 掩護하였다.

한편 開戰이래 海軍의 艦載機는 延 67,000機가 出擊하여 7,000Lb 이상의 爆彈을 投下함으로써 敵 推算 57,000명을 殺傷하고 많은 敵陣地와 보급로를 파괴하였다.

6월 25일 : 航空母艦 Princeton號(함장, W.O. Gallery 대령)에 소속한 第23大隊와 第871大隊의 艦載機들은 이날 北靑地區의 道路와 橋梁에 對한 爆擊活動을 展開하였다.

6월 28일 : 航空母艦 Princeton號의 艦載機들은 興南 北쪽과 高原 一帶 그리고 元山 南쪽의 철교와 도로를 爆破하였으며 또한 Canada 驅逐艦 Huron號(함장, E.T.G. Madgwick 중령)는 이날 興南 앞 바다에서 Junk船 1隻을 捕獲하였다.

7월 4일 : 濃霧와 驟雨로 말미암아 艦載機들의 活動이 制限을 받자 第77機動部隊와 第95機動部隊의 大艦艇들은 이날 城津과 元山港에 對하여 激烈한 艦砲射擊을 加하였다.

7월 7일 : 第77機動部隊와 第95機動部隊의 艦艇들은 元山港을 封鎖한지 142일 되는 이날 應戰하는 敵의 砲臺에 砲擊을 加하여 이들을 沈默토록 하였으며, 또한 第77機動部隊의 艦載機들은 이날 247回의 出擊으로 平安南道 陽德郡과 黃海道 新溪郡을 연결하는 道路를 強打하였다.

7월 12일 : 戰艦 New Jersey號는 驅逐艦 Leonard F. Mason號(함장, J. B. Ferriter중령)와 함께 高城 앞 바다에서 內陸으로 遠距離 砲擊을 敢行하여 敵 推算 129명을 爆殺하였다.

7월 17일 : 驅逐艦 O. Brien號(함장, C.W. Nimitz 중령)를 비롯하여 Blue號(함장, R.S. Burdick 중령)와 Cunninghan號(함장, L.P. Spear 중령)는 이날 元山灣에서 敵 海岸砲臺와 砲擊戰을 展開하였으나 敵의 砲擊이 극심하므로 第77機動部隊에 支援을 요청하였다.

이리하여 이날 17.30에 戰艦 New Jersey號와 重巡洋艦 Helena號 그리고 城津으로 航海中이던 Morecamble Bay號가 元山灣에 도착하여 4시간 동안에 2,336發의 砲彈을 集中함으로써 敵의 砲臺를 粉碎하였다.

7월 22일 : 第77機動部隊의 航空母艦 Princeton號에 소속된 F9 F2機와 F4U機는 黃海道 谷山郡 一帶에서 補給路를 爆擊하였다.

7월 27일 : 巡洋艦 Helena號(함장, J.R. Clark 대령)는 이날 城津 南쪽에 艦砲射擊을 加

하여 철교 8개소와 교량 7개소를 파괴하였다.

한편 重巡洋艦 Los Angeles號와 Sicily號 그리고 Glory號는 海州와 延安 一帶의 敵陣地를 砲擊하였다.

8월 3일 : 巡洋艦 Helena號를 비롯한 第77機動部隊의 艦艇들은 이날도 元山港에 砲擊을 加함으로써 4개소의 砲臺와 陣地를 擊破하였다.

8월 6일 : 掃海驅逐艦 Carmick號(함장 R.K. Margetts 중령)는 長箭 앞 바다에서 Sampan船 1隻을 完破하고 13명의 捕虜를 獲得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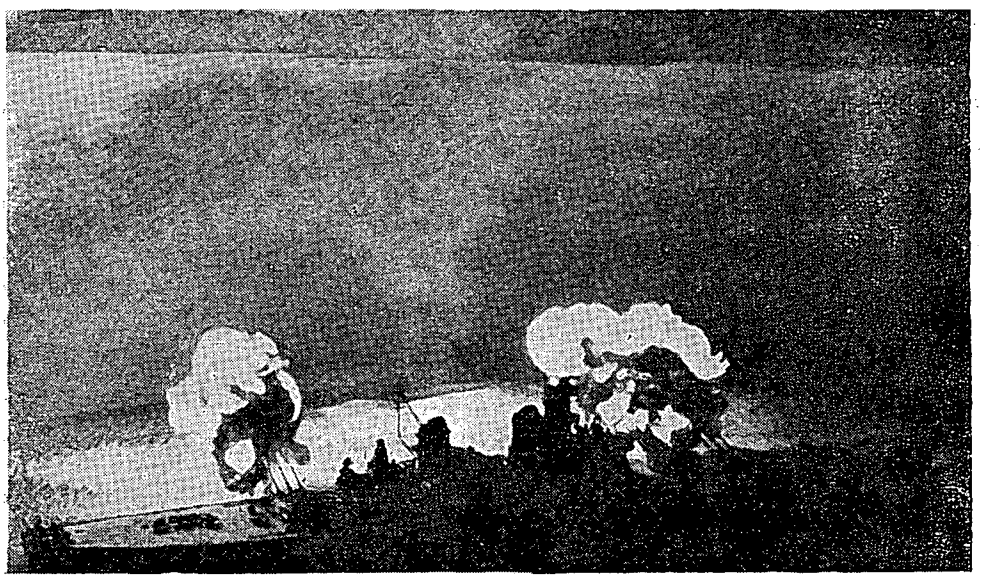
8월 10일 : 極東艦隊의 艦艇들은 이날도 계속적으로 東·西의 兩海岸에서 敵의 海岸砲臺와 補給路를 強打하여 敵의 活動을 크게 위축케 하였다.

8월 14일 : 護衛驅逐艦 William Seiverling號(함장, W. C. Cole 중령)과 掃海驅逐艦 Thompson號(함장, W.H. Barckmann 중령)는 咸鏡南道 端川 前洋에서 敵의 軍事施設에 砲擊을 加하는 동시에 이날 Sampan船 2隻을 파괴하였다.

8월 17일 : 戰艦 New Jersey號와 重巡洋艦 Toledo號는 이날 高城 南쪽에서 敵과 대치중인 首都師團(장, 宋堯讚준장)에 대한 支援 艦砲射擊을 실시하였다.

한편 Comus號를 비롯한 2隻의 驅逐艦들은 禮成江 下流 一帶에서 敵 400명을 發見하고 이에 砲擊을 퍼부어 이들 大部分을 爆殺하였다.

8월 18일 : 戰艦 New Jersey號는 香爐峯 西北쪽으로 6km인 △1,031—△924—△1,000—



〈東海岸 敵陣地에 戰艦 New Jersey號의 16″砲가 작열하고 있다〉

△884—△591—△602에서 敢闘中인 第1軍團(장, 白善燁 소장)을 掩護하는 艦砲射擊을 25일까지 間歇的으로 실시하였다.

8월 30일 : 長箭 앞 바다에 戰艦 New Jersey號와 重巡洋艦 Helena號를 비롯하여 上陸船渠艦 Whetstone號 그밖에 4隻의 驅逐艦 그리고 1隻의 Rocket艦 등이 集結하여 敵 陣地에 砲擊을 加함으로써 적지 않은 戰果를 얻었다.

나. 羅津에 對한 空襲(8. 25)

(1)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第77機動部隊 사령관 소장 John Perry
航空母艦 Essex號 함장 대령 A.W. Wheelock

(2) 전투 전의 개황

羅津은 Vladivostok에서 110 mile 거리에 있는 東北의 要衝地이다.

1950년 8월에 同 地域에 對하여 美 第5空軍의 B—29機에 의한 1回의 폭격은 있었지만, 美 국무장관 James Weeb는 국방장관 Louis A. Johnson에게 이 지역은 蘇聯의 경계선과 불과 17 mile 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中國과도 至近거리에 있으므로 誤爆될 위험 때문에 더 이상 공격을 금지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敵은 이 港口一帶를 은신처로 사용하는 한편 철도의 始發點으로 또는 군수품의 저장지로써 이용하며 계속 兵站物 集積과 철도의 수송을 증가하고 있었으나 『羅津 不可侵』은 계속되었다.

1951년 8월 美 極東艦隊司令部와 極東空軍司令部는 敵이 보다 많은 군수물자를 집적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이곳을 파괴하겠다고 거듭 주장함으로써 이 요구는 관철되었다.

(3) 전투경과의 개요

8월 21일 · 第77機動部隊 사령관 John Perry 소장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수반하여 美 極東空軍과 합동으로 羅津地區에 폭격을 加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즉, 『① 蘇聯이나 中國의 領域을 침공할 우려가 있으므로 重爆擊機가 폭격을 加할 때에는 반드시 機首를 南東쪽으로 두고 北西쪽에서 南東쪽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越境 및 誤爆의 가능성을 최소한 줄이기 위하여 날씨가 좋은 日字를 택하여야 한다.

③ 羅津驛으로부터 1 mile 밖에 안떨어진 포로수용소에 대하여서는 여하한 피해도 없도록 유의하라.

④ 어떤 경우에도 戰鬪機가 豆滿江을 넘어 北쪽으로 비행하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조건은 羅津으로부터 北西쪽 34 mile 거리의 中·蘇 경계선을 越境하지 않도록 5, 6 mile 以內로 制限하여야만 하고 또한 再爆擊의 針路를 취하기 위하여 다시 5, 6 mile의 여유를 두고 기동하여야 하며 더욱이 非爆擊地點을 감안한다면 공중폭격은 상당한 난점이 介在하였다.

8월 25일 : 快晴한 이날 10.30에 드디어 M. U. Beebe 중령이 지휘하는 F9Fs機 11臺와 M. E. Barnett중령이 이끄는 Banshee F2 H2s機 12臺는 航空母艦 Essex號의 射出機를 벗어났다.

이리하여 이날 10 50에 羅津 南쪽 80 mile 上空에서 極東空軍의 B—29편대와 상봉하고 Banshee F2 H2s機는 25, 000ft 中心으로 高空을, F9 Fs機는 低空을 호위하면서 一路 目的地로 向하였다.

이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羅津 前洋에는 重巡洋艦 Helena號를 비롯하여 驅逐艦 Hary E Hubbard號와 電探 哨戒驅逐艦 Roger號가 警備에 任하고 있었다.

이날 11 00에 MIG機와 對空砲의 反擊을 경계하면서 B—29機를 비롯한 戰鬪機들은 高空 19, 000ft에서 첫 폭격을 단행하였다.

11.30까지 砲擊을 감행하였으나 豫想된 敵의 對空砲火도 MIG機의 反擊도 전혀 없었으며 더구나 매우 淸明한 날씨이었으므로 목표물을 정확하게 命中할 수가 있었다.

(4) 전투 후의 개황

不可侵의 聖域으로 알려진 羅津을 폭격한 당시 촬영한 항공 사진에 의하면 投下爆彈의 97%가 군사기지에 命中됨으로써 成功的이었는데 確認된 戰果는 다음과 같다.

破 壞

轉車臺—1개소	鐵橋—1개소
機關車庫—1개소	貨物車—75輛

19. 空軍의 單獨作戰준비와 智異山지구의 第1次 支援作戰

(1951년 8월 1일부터
1951년 9월 30일까지)

참조 : 상 황 도 제 36, 37, 38, 39호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제1전투비행단	장	준장	張德昌
제10전투비행전대	장	대령	金英煥
제11전투비행대대	장	소령	朴熙東
제12전투비행대대	장	소령	姜鎬倫
제14전투비행대대	장	중령	申攸浹
제30정비보급전대	장	중령	全明燮
제31정비대대	장	대위	朴哲東
제32보급대대	장	대위	金圭澈
제33자동차대대	장	대위	李永燦
제101기지전대	장	대령	金 信
제61통신대대	장	대위	金東屹
제71경비대대	장	중위	査 勗
제81시설대대	장	대위	崔海仁
제91급양대대	장	대위	諸葛春
제201의무전대	장	중령	朴天圭
제2정찰비행전대	장	중령	吳占石
제21정찰비행대대	장	대위	閔泳洛
제21정비보급대대	장	대위	金容培
제108기지대대	장	대위	朴炳植 (1951. 8. 25배속)
제219의무대대	장	대위	張炳鍵
제100기지단	장	중령	洪允範
제102기지대대	장	소령	李甲錄
제103기지대대	장	대위	洪帝範
제104기지대대	장	대위	金聖培
제105기지대대	장	대위	姜樺鎰
제1항공교육대	장	소령	魯重信
제40보급창	장	소령	徐鉉圭
제1보급분창	장	소령	李圭星

나. 單獨出擊작전의 준비

空軍은 韓國戰의 開戰初期에 導入된 F—51戰爆機 10臺로 大邱東村기지(K—2)에서 作戰한 이래 鎭海(K—10)—汝矣島(K—16)—平壤美林기지(K—23) 等에서 작전을 하고 있었으나 이 1년간의 작전은 戰術戰技 및 裝備 등 完璧을 이루지 못한 까닭으로 부득이 UN空軍의 戰鬪序列上 하나의 獨立된 戰鬪單位로서 작전을 수행하지는 못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모든 작전은 韓國空軍의 협력부대로서 美 第5空軍에서 파견된 第6146基地부대의 協調下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實情인 공군으로서는 戰鬪機를 확보하고 戰術戰技를 練磨한 다음 美 空軍의 協助없이도 自主的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計劃하여 不斷한 노력을 傾注한 결과 드디어 1951년 6월末에는 20臺의 F—51戰爆機를 보유하게 되었고 6월 30일에는 전투훈련에 가일층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永久기지로 擇한 泗川기지(K—4)에 비행단과 정찰비행전대의 集結을 완료하고 전투조종사 양성에 着手하였다.

그리하여 7월 26일 총참모장 金貞烈소장은 未久에 수행 될 單獨出擊작전을 위하여 江陵에 前進기지를 설치하여 한국지상군에 대한 近接 航空支援작전을 수행하기로 결정하고 江陵기지 강화의 基本計劃을 수립하여 관계관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1. 1951월 10初부터 韓國空軍單獨으로 我陸軍 第1軍團의 前方에서 근접항공지원 작전을 수행한다.

2. 이 작전을 위한 기구정비와 기지전개 및 비행장 복구를 最短時日內로 완료한다.

3. 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各種物資의 지원체제를 확립한다.』

이와같이 單獨出擊작전을 위한 준비가 進行되자 1951년 8월 1일을 期하여 飛行團을 第1戰鬪飛行團으로, 偵察飛行戰隊를 第2偵察비행전대로 各各 개편 강화하였다.

이어 8월 5일에는 비행부대의 空中支援작전을 목적으로 航空基地司令部를 해편하고 第100空軍基地團을 창설하여 기지부대의 편제로 개편하였다.

또한 戰鬪비행단의 편성도 완료하고 練成訓練을 실시하던 조종사들의 戰鬪能力이 成熟 될 무렵에 當時 智異山지구 殘敵의 擊滅작전을 전개한 警察戰鬪부대로부터 航空支援 요청을 받자 이를 수락하고 동년 8월 17일부터 航空支援작전을 시책하였다.

이 작전을 통하여 공군은 美空軍으로부터 하나의 戰鬪單位로 인정되어 戰鬪序列上에 포함 됨으로써 UN空軍力의 一翼을 담당하게 되고 F—51戰爆機 20臺의 운용을 위한 T/O와 T/E 그리고 T/A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정상적인 補給支援계통을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江陸기지(K—18)의 前進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어 自主的인 戰鬪態勢를 갖추고 韓國공군의 전투능력을 發揮하게 됨으로써 韓國지상군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近接航空支援을 할 수 있는 契機가 마련되었다.

(1) 第1戰鬪飛行團의 創設

濟州기지(K—39)와 서울前進기지(K—16)에서 永久기지인 泗川기지(K—4)로 집결한 다음 계속하여 전투조종사 양성과 練成訓練의 임무를 수행하던 비행단을 第1戰鬪飛行團으로 증편강화하고 自主的인 單獨出擊작전을 計劃하게 되었다.

1951년 8월 1일 空軍本部 일반명령 제52호에 의거하여 제1전투비행단에 독립 제101기지전대를 배속시키고 第1戰鬪飛行團을 단사령부(단장, 張德昌준장)와 제10전투비행전대(장 金英煥대령) 및 제30정비보급전대(장, 全明燮중령) 그리고 제101기지전대(장, 金 信대령)와 제201의무전대(장, 朴天圭중령)등 美 空軍의 비행부대의 편성형태와 같은 편성을 하게 되었다.

한편 空本일반명령 제53호에 의거하여 濟州기지(K—39)를 경비중인 第102基地중대를 第100空軍基地隊에 배속케 하였다.

이와같이 편성이 완료되면서 제1전투비행단(장, 張德昌준장)은 「一面戰鬪, 一面訓練 一面建設」이라는 目標아래 전투조종사의 戰術과 戰技를 練磨하여 次期作戰을 준비하기 위한 特殊飛行훈련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 훈련에서 조종사 2명의 殉職을 보게 되었다.

즉 9월 13일 14.00의 出擊을 앞두고 F—51戰爆機의 編隊훈련중 崔浩文중위는 泗川上空에서, 또 10월 27일 10.15 車輔澄중사는 全南 康津 上空에서 愛機와 더불어 空中散華하였던 것이다.

제1전투비행단에서는 이러한 受難을 克服하면서도 訓練機를 확보코자 努力한 결과 드디어 그 實現을 보게 되었다.

제30정비보급전대 제31정비대대장 朴哲東대위를 中心으로 한 整備요원들은 F—51 戰爆 18號機(一名 信念의 鳥人機)를 複座機로 改造하는데 成功함으로써 8월 2일 오전과 오후의 2回에 걸쳐 試驗飛行한 끝에 整備陣의 能力을 確定받게 되고 훈련에 많은 進展을 보게 되었다.

한편 前進기지의 확보에 앞서 江陵비행장의 擴張을 위한 보수공사를 실시하였는데 8월 3일부터 제101기지전대소속 제81시설대대장 崔海仁대위를 江陵기지에 파견하여 이 工事를 統轄指揮케 한 결과 9월 16일까지에는 상당한 進捗을 보았는데 이 공사에는 江陵기지파견대(장, 金振衡중위)와 陸軍 제1201건설공병整備陣의 能力을 確定받게 되고 훈련에 많은 進展을 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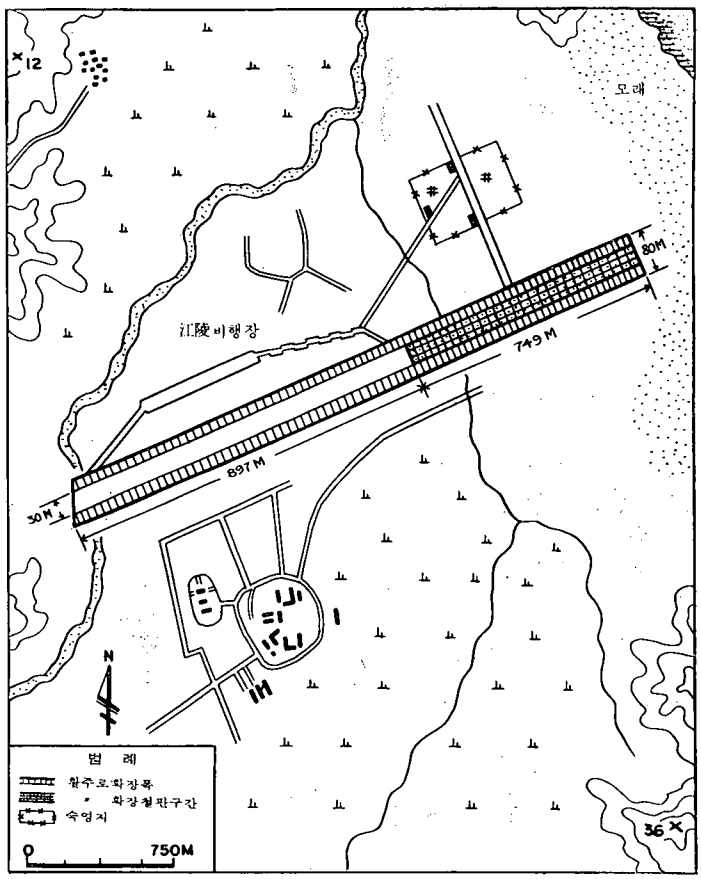
한편 前進기지의 확보에 앞서 江陵비행장의 확장을 위하여 旣存滑走路 2,944 ft(897m)를 5,400ft(1,646m)까지 연장하고 유도로 1,080 ft×200 ft를 신설하는 工事를 실시하였는데 8월 3일 제101기지전대소속 제81시설대대장 崔海仁대위를 江陸기지에 파견하여 이 工事를 統轄지휘케 한 결과 9월 16일에 完成을 보았는데 이 공사에는 江陸기지파견대(장, 金振衡중위)와 陸軍 제1201건설공병단(장, 尹泰日대령)이 協力하였으며 10월 18일에는 泗川기지(K—4)의 滑走路를 7,000 ft까지 연장하는 工事도 完了하였다.

이 이외에 10월 11일에는 金成龍대위를 美國「워싱톤」에서 개최되는 國際聯合日(UN DAY) 경축행사에 한국공군 代表로 선발하여 이날 出途에 올랐다

(2) 第2偵察戰隊의 活動

大邱 南村(K—2)과 東明기지(K—37)에서 泗川(K—4)로 집결하여 조종사의 기초 조종훈

◇ 상황도 제36호 江陵飛行場 확장平面圖



련과 작전 연락비행임무를 수행하던 偵察飛行戰隊는 비행단의 개편과 때를 같이 하여 第2偵察飛行戰隊로써 강화되고 다음 작전을 計劃하였다.

1951년 8월 1일 空本일반명령 제52호에 의거하여 정찰비행전대를 第2偵察飛行戰隊로 개편하면서 전대본부(전대장, 吳占石중령) 제21정찰비행대대(장, 閔泳洛대위)와 제22정비보급전대(장, 金容培대위), 그리고 제219의무대대(장, 張炳鍵대위)의 3個大隊로 편성하는 한편 8월 25일에는 제100공군기지단소속 제108공군기지대대(장, 朴炳植대위)가 배속되어 비행부대로서의 面貌를 갖추게 되었다. 이리하여 51년 8월 20일부터는 陸軍航空隊 창설에 필요한 그 基幹요원인 조종사와 정비사를 양성하여 陸軍航空隊의 창설에 寄與하였다.

(3) 第100空軍基地團의 創設

航空基地司令部는 제2次의 撤收에 따라 大邱를 中心으로 主要기지에 병력을 배치하고, 비행부대의 작전을 지원하는 한편 비행부대와 步調를 같이하여 陸軍步兵式 警備隊의 편성형태로부터 비행부대의 지원부대 형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航空基地司令部를 해편한 다음 第100空軍基地團을 창설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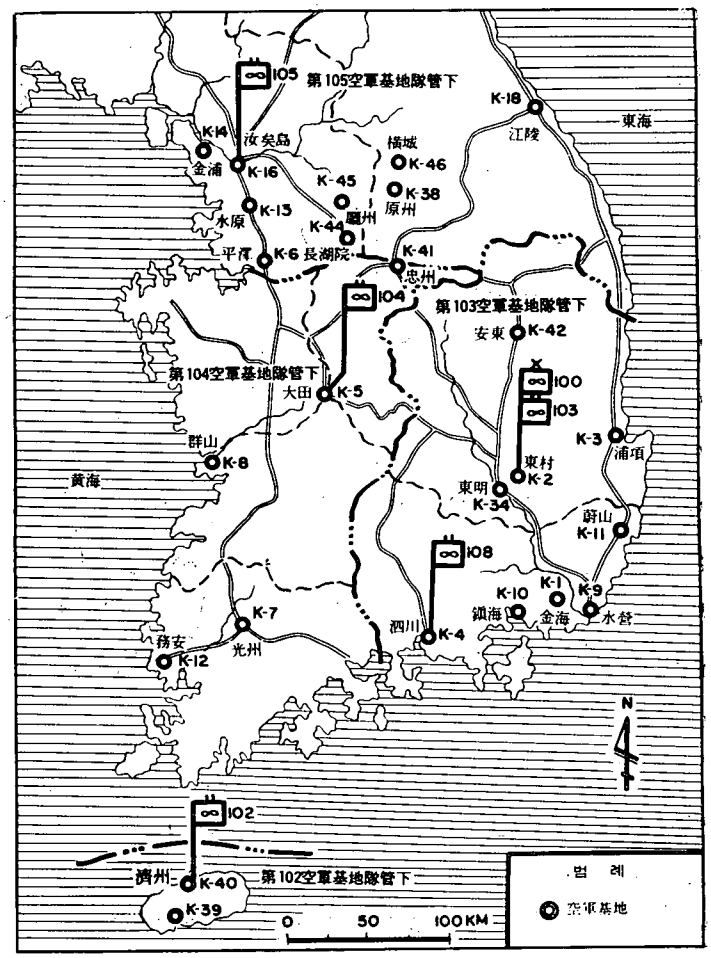
이 개편은 1951년 8월 5일 空本일반명령 제53호에 의거하여 실시되었는데 제100空軍基地團司令部를 大邱에 두고 各기지에 제102공군기지대대(장, 李甲錄소령)와 제103공군기지대대(장, 洪帝範대위) 그리고 제104공군기지대대(장, 金聖培대위)와 제105공군기지대대(장, 姜樺鎰대위)를 비롯하여 第108공군기지대대(장, 朴炳植대위)의 5個 기지부대와 제1

항공교육대로 증편하였다.

또 各기지부대는 通信과 警備 및 施設 그리고 勤務 등 4個중대로 편성하는 한편 濟州기지(K—39)의 제102기지중대를 배속받아 기지지원능력을 강화하였다. 初代團長에는 航空基地司令部 副司令官인 洪允範중령이 임명되어 各부대의 지원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뿐 아니라 8월 10일에는 空本작명 제35호에 의거하여 各主要기지를 확보하면서 비행부대의 작전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各기지대대의 배치와 管轄기지를 다음과 같이 調整하였다(상황도 제37호 참조).

◇상황도 제37호 空軍基地 分布圖



部 隊 名	本 部 位 置	管轄基地
第100基地團	大 邱	
第102基地大隊	濟 州	濟州道內의 2개基地(濟州, 慕瑟浦)
第103基地大隊	大 邱	慶尙南北道內 7개 基地(東村, 東明, 蔚山, 浦項, 金海, 水營, 鎭海)
第104基地大隊	大 田	忠淸, 全羅道內 3개基地(大田, 群山, 光州)
第105基地大隊	서 울	京畿 江原道內 3개基地(서울, 水原, 江陵)
第108基地大隊	泗 川	第2偵察飛行戰隊 후방지원 (51. 8. 25부 정찰비행전대로 배속)

아울러 8월 25일에는 공본일반명령제56호에 따라 第2偵察飛行戰隊의 戰力강화를 위하여 제108공군기지대대를 배속시켰고 10월 1일에는 空軍기지부대의 名稱도 第CCC空軍基地團 (戰隊, 大隊)으로부터 空軍第000基地團(戰隊, 大隊)으로 改稱하면서 부대개편을 완료하였다.

또한 9월 2일에는 美 第5空軍의 要請으로 濟州비행장(K—39) 補修工事를 실시하였는데 이 비행장은 8월 22일 來襲한 颱風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바 있었는데 이 補修工事에는 제102기지대대의 主力이 投入되었고 또 警察과 濟州道民들의 協調가 뒤따랐다.

10월 10일에 美 第5空軍의 作戰을 도우기 위하여 大邱기지(K—2)에 병력을 증파하게 되었다.

즉 제103기지대대에서 55명을 美 第49戰爆비행단에, 그리고 90명을 美 第136戰爆비행단에 各各 파견하였으며 또 제105기지대대에서는 35명을 美 第6153基地전대에 파견하였는데 이는 空軍의 基地業務實習을 兼한 「一石二鳥」의 實効를 거두게 되었다.

한편 江陵비행장(K—18)에서 作戰中인 美 第12海兵飛行戰隊의 일부가 浦項기지(K—3)로 移動함에 따라 10월 21인 15.50에 제103기지대대의 파견병력 金芳鉉중사 등 9명을 撤收시켜 大邱 本隊에 復歸케 하고 지원능력을 強化하고 期間中의 第100空軍基地團의 부대전개를 완료하였다.

(4) 軍援物資의 補給문제

開戰初期에 F—51戰爆機 10臺를 導入하는 것을 始發로 하여 51년 6월末에는 도합 20臺로 보유하게 되었으나 이 戰爆機의 航空油脂와 彈藥 그리고 各種부속품 등의 보급지원 節次가 확립되지 않아 군수지원상에 큰 隘路가 있었다.

이때까지 航空機운영을 위한 물자의 보급은 T/O나 T/E의 인가없이 美 空軍 第6146基地부대에서 韓國空軍의 항공작전과 훈련에 필요한 물자만을 在日本 極東航空廠에 신청하여 지원하였으며 이러한 상태가 6월末까지 계속되었다.

이리하여 이 軍援물자를 美 第5空軍의 第6146基地부대로부터 책임지고 移管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관이 필요하게 되어 51년 6월 23일 泗川기지에 第1補給分廠을 창설하였는데 이로부터 分廠長 李主星소령 主管下에 모든 軍援물자에 대한 申請과 受領, 그리고 拂出과 計定 및 貯藏 등의 업무가 體系化되었다.

그리하여 1951년 9월 9일 비로소 美 第5空軍으로부터 T/O와 T/E 그리고 T/A에 대한 正式同意를 받게 되었는데 즉 첫째 20臺의 F—51戰爆機 및 이에 대한 모든 지원장비

와 연료 둘째 20臺의 F—51戰爆機를 維持하기 위한 各種부속품과 공구등을 지원 할 수 있다는 通牒을 받게 되어 이 T/O와 T/E 그리고 T/A를 根據로 소요물자를 申請하여 보급을 받게 되었고 11월初에는 L型—21臺와 T型 6臺의 T/A도 얻게되어 航空機운영을 위한 물자를 正常的으로 入手하게 되었다.

그러나 航空機 이외의 車輛이나 地上兵器 관계는 T/O나 T/E의 諒承措置가 없어서 根本的인 해결을 보지 못하고 隨時로 措處하였으나 그나마 1951년 6월末 美 第5空軍의 第6146基地部隊가 泗川기지로 轉進하면서 泗川지역과 江陵지역에만 지원되고 그 나머지 지역은 油脂보급을 中斷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油脂를 확보하기 위하여 군수국장 朴의先중령과 병기과장인 李鍾珍대위는 美8軍 G—4와 交涉하여 이러한 現狀을 是正하고 51년 8월末에 合議를 보아 空軍全部隊가 支援대상이 되었다.

또한 車輛維持用 부속품에 있어서도 所要量이 확보되지 않아 作戰上 적지않은 隘路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打開하고자 美 極東空軍司令部와 第5空軍의 A—4를 비롯하여 美8軍 G—4와 數次에 걸쳐 交涉하였으나 이 문제는 1951년末까지 해결을 보지 못하였다.

다. 智異山지구의 第1次 支援작전

(1) 作戰前의 概況

戰鬪부대들이 泗川기지에 집결한 후 第1戰鬪飛行團과 第2偵察飛行戰隊로 개편 강화하면서 次期 작전을 위한 計劃의 樹立과 戰力向上에 注力하게 되었다.

이 당시 中共의 第1, 第2次에 걸친 春季攻勢는 여지없이 失敗로 돌아가고 더구나 UN空軍의 制空權掌握으로 그들의 보급물자가 戰線에 이르기 이전에 이미 爆破 또는 焦燼되어 全소요물자의 20% 정도 밖에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推測되었다.

이리하여 1951년 6월 23인 蘇聯의 UN代表 「Jacob A. Malik」의 休戰提議가 있게 되고 7월 10일부터 休戰會談의 開催를 보게 되었다.

이리하여 會談이 진행되자 戰線은 膠着化되고 그들은 이를 奇貨로 하여 兵力을 정비하는 한편 南韓各地의 山嶽지대에 산재된 殘敵들에게 後方治安을 攪亂시키도록 劃策하게 되었다.

1951년 7월末현재 南韓各地에는 도합 9,500명으로 推算되는 敵兵들이 山嶽지대를 橫行하면서 殺人과 掠奪 그리고 放火와 拉致 등을 恣行함으로써 後方治安上의 癌的存在가 되기에 이르렀다.

이 中에서도 특히 智異山지구에서 跳梁하는 4,000餘名의 共匪들은 1951년 7월에 이르러 山淸警察署관내의 各警察支署와 晋州를 비롯하여 馬山등지를 습격하고자 暗躍中인 것으로 判斷되었고 泗川기

지(k—4)까지 그 餘波가 미치게 되었다.

이 당시 共匪의 剿滅을 위하여 창설된 智異山지구 戰鬪警察사령부는 南原에 위치하면서 全羅南北道와 慶尙南道 西部지구에 兵力을 배치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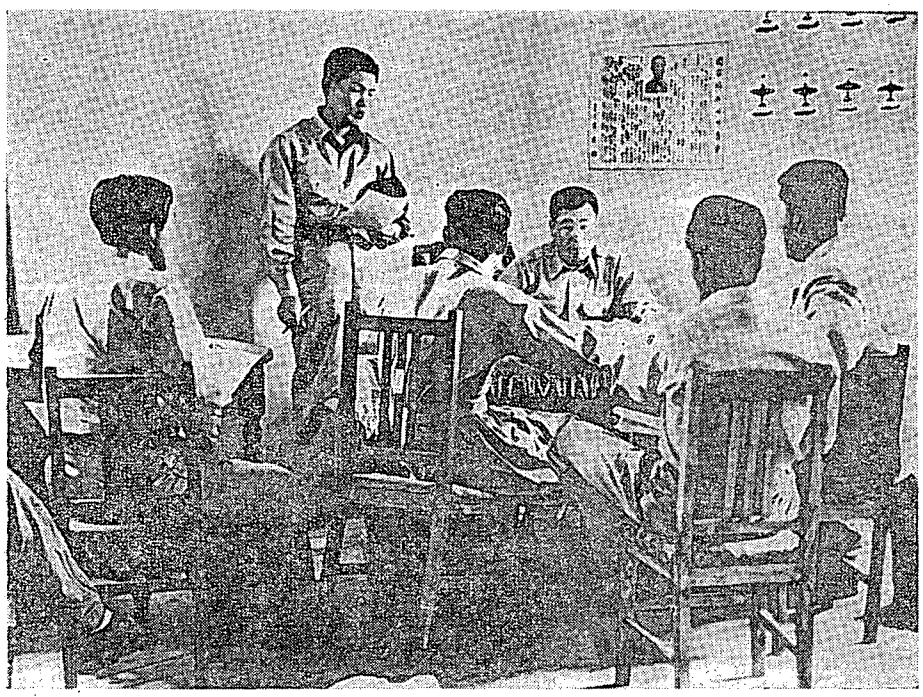
그러나 이 戰鬪警察사령부는 敵情조차 정확하게 파악치 못하는 實情이었으며 武裝도 M1 소총과 99式 그리고 칼빈등에 불과하고 通信機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貧弱한 狀況下에 있었다.

(2) 作戰經過의 개요

智異山을 중심으로 出沒하는 共匪의 剿滅作戰을 전개하던 戰鬪경찰부대는 韓國空軍에게 作戰地域內의 空中偵察과 空中爆擊 등의 支援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1951년 7월 23일 10.00부터 晋州警察署에서 西南지구에 주둔한 軍警情報關係代表者會議가 개최되었는데 當時 비행단 참모장 金英煥대령과 作戰情報處長 張志良중령 그리고 情報장교 南鍾旭소위가, 警察側에서는 西南지구의 各 경찰서장들이 참석하였으며 이 자리에서는 敵情을 비롯하여 本格的인 剿滅작전을 위한 토의가 있었다.

그리하여 8월 2일 第1戰鬪飛行團長 張德昌준장은 命令하기를 『第10戰鬪비행전대장은 智異山지구를 中心으로 跳梁하는 殘敵의 殲滅作戰을 수행하는 我戰鬪경찰부대에 空中지원작전을 遂行하라』는 飛團作命 第8號를 하달하기에 이르렀다.



<金貞烈 총참모장이 제1 전투비행단 간부들과 작전을 숙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第10戰鬪비행전대에서는 1951년 8월 17일부터 F—51戰爆機로서 智異山지구 殘敵을 攻擊하여 戰鬪경찰부대를 支援하게 되었는데 이 作戰에는 第2偵察비행전대에서도 空中偵察에 任함으로써 第10戰鬪비행전대에 協力하였다.

8월 17일과 18일 兩일간은 熊石峰(△1099)과 盤若峰(△1751)을 中心으로 한 德洞里와 坪村里지구에 跳梁하는 殘敵에 對하여 空中攻擊을 敢行하고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1주일간은 熊石峰(△1099)—盤若峰(△1751)—伽倻山(△1430)—回文山(△775)지구 「가마골」—老姑壇(△1507)—蟾津江中流의 花開場 등 各 지구를 攻擊하여 最後發惡하는 殘敵들을 擊砕하였다.

한편 8월 30일과 9월 1일에는 海州 北쪽의 新院지구의 敵 補給路攻擊次 出擊하고 8월 30일에는 8臺가, 9월 1일에는 22臺가 이 地區에 猛爆擊을 斷行하였다.

9월 18일에 다시 智異山 지구의 達宮—馬川—盤若峰—老姑壇지구에 出擊하여 5回에 걸친 爆擊으로 殘敵의 集結地를 強打하였다.

그런데 이 期間中 총참모장 金貞烈소장이 韓國空軍力 強化의 一環策으로 美空軍當局에 要請한 戰鬪態勢檢閱要員인 美 第5空軍소속 Issacson중령등 12名의 檢閱團이 파견되었는데 조종사의 훈련을 비롯하여 공중작전능력 각종 후방지원능력 등 全般的인 사항을 細密히 檢討하고 評價토록 하여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韓國空軍조종사와 같이 出擊하면서 檢閱을 實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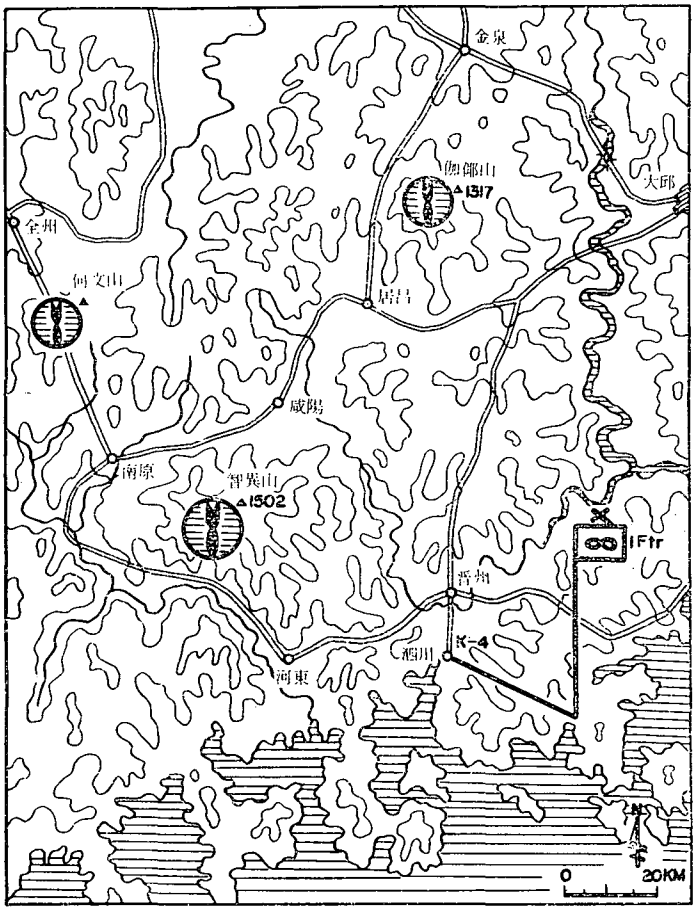
期間中의 氣象은 雨期로서 作戰에 支障을 주었으나 甚한 曇天이나 雨天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氣象條件下에서도 出擊을 敢行하였는데 이는 그간 練磨한 特殊비행훈련을 통하여 이미 熟達되어 있었으며 期間中 主要작전사항을 날자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8월 17일 : 이날 10.30에 戰隊長 金英煥대령이 직접 지휘하여 金成龍대위와 周永福대위 그리고 權成根대위와 함께 F—51戰爆機 4臺를 제1편대로 하여 泗川기지(K—4)를 이륙하였는데 기상은 전날까지의 비가 개이고 아침부터 맑은 날씨였다.

편대는 山淸 南쪽 6km에 있는 智異山지구의 熊石峰(△1099) 上空에 이르러 金 信대령이 조종하는 T—6의 目標提示에 따라 Rocket공격과 機銃사격으로 敵 60餘명을 殺傷한 것을 비롯하여 아지트 3個所와 天幕 4個所를 破壞한 다음 12.00에 귀착하였다.

또한 이날 13.30에 丁永鎭대위와 金成龍대위 및 金斗萬대위 그리고 周永福대위 등이 조종하는 F—51戰爆機 4臺로 構成된 제2편대는 기지를 이륙하여 智異山(△1,915)지구의 德洞里 西南쪽 4km인 敵集結地에 急降下로 進入하여 Rocket와 機銃사격을 敢行하여 건물

◇ 상황도 제38호 智異山 부근 出擊작전도



8個所를 파괴한 다음 16.00에 귀착하였다.

이어 16.00에 기지를 이륙한 金英煥대령과 金斗萬대위의 제3편대는 盤若峰(△1728) 北쪽 1km에 있는 德洞里에서 敵을 捕捉하고 Rocket과 機銃洗禮를 퍼부어 敵 95명을 殺傷하고 陣地 3個所와 아지트 12개소를 비롯하여 彈藥集積所 5個所를 파괴 또는 炎上시킴으로써 敵은 드디어 潰走하기에 이르렀고 彈藥의 連鎖的인 爆發로 말미암아 焰煙이 冲天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이날 제2정찰비행전대의 裵相昊중사 외 3명(鄭重岩중사, 金希道중사 車輔瀅중사)이 L—4 連絡機를 各各 조종하고 敵情을 偵察하여 F—51戰爆機를 공격목표로 誘導하는 한편 戰果의 확인과 18일의 공격목표선정 등의 정찰비행임무를 수행하였다.

8월 18일—24일 : 18일은 아침부터 흐리기 시작하였으나 이에 拘礙하지 않고 09.00에 金英煥대령은 美空軍의 Lagro중위와 제1편대의 2臺로써 출격을 敢行하였는데 이 때에 目標上空에 있던 L—4連絡機(裵相昊중사 조종)의 誘導下에 德洞里 南쪽 1km에 있는 敵 집결지에 對하여 Rocket과 機銃사격을 퍼부어 그 일대에 敵을 分散시킨 다음 09.40에 기지에 귀착하였다.

이어서 09.30에 丁永鎭대위와 金斗萬대위가 조종하는 F—51戰爆機 2臺의 제2편대는 曇天을 무릅쓰고 기지를 이륙하였는데 이때에 목표상공에서 정찰에 임하던 T—6(金 信대령

조종)와 L—4(車輔瀅중사 조종) 연락기의 목표지시에 따라 熊石峰(△1,099) 西南쪽 4km에 있는 坪村里(죽전마을)에서 跳梁하는 敵을 捕捉하자 곧 Rocket과 機銃掃射로 공격 45명을 殺傷하고 11.00에 귀환하였는데 이날 오후부터는 暴風雨가 있을 것이라는 豫報에 따라 일시 出擊을 中止하고 전항공기를 大邱(K—2)와 平澤기지(K—6)로 疎開하였다.

8월 25일 : 暴風雨로 일시 疎開하였던 全航空機는 점차로 氣象상태의 回復에 따라 24일 오후에 다시 泗川기지(K—4)에 集結하였는데 期間中 조종사들은 그동안의 작전과 다음날의 계획을 미리 樹立하였다.

이날 09.15 金英煥대령과 美空軍의 Lagro 중위가 조종하는 F—51戰爆機 2臺의 편대는 목표상공에 다다르자 L—4 정찰기 2臺(裵相昊중사, 白晶鉉중사 조종)의 유도를 받아 德洞里 南쪽 1km에 있는 敵의 집결지를 強打하여 아지트 25個所를 파괴하고 15명을 射殺하였다

그리고 09.45부터 金成龍대위와 尹應烈대위가 조종하는 2臺의 제2편대는 熊石峰지구로 出擊하여 坪村里上空에서 機銃공격으로 敵 40명을 射殺하고 아지트 3個所와 건물 3個所를 파괴한 다음 11 00에 귀착하였다.

또 이날 제1, 제2편대와는 달리 伽倻山(△1430) 지구의 海印寺 東南쪽 1km에 있는 구일庵 주변의 敵을 공격하기 위하여 기지를 이륙한 丁永鎭대위와 玉滿鎬중위의 제3편대는 그 일대에 機銃공격으로 敵 21명을 殺傷하고 아지트 8個所를 파괴한 다음 12 25에 귀착하였다.

이날 熊石峰(△1,099)지구와 伽倻山(△1,430)일대의 공격에서 機銃彈 9.200發을 敵에게 集中하였는데 이로써 敵은 하늘에서 날벼락을 맞은듯이 各己 分散潰走하기에 바빴다.

8월 26일 : 이날 空中偵察에서 敵이 警察부대와 對峙하기 위하여 回文山(△775)지구 「가마골」 上峰과 雲北里 山麓森林지대에 「도치카」와 「아지트」 그리고 그밖에 構造物을 마련하고 있음을 捕捉하게 되었다.

이 때에 我警察부대는 回文山(△775)을 四方面에서 包圍한 다음 漸次로 壓縮하면서 공격태세를 갖추고 있었는데 이 警察부대를 掩護하기 위하여 戰隊長 金英煥대령은 朴熙東소령과 周永福대위 그리고 金斗萬대위등이 조종하는 4臺의 F—51戰爆機 제1편대로써 10 30에 목표상공으로 출격하여 張志良중령(南鍾旭소위 동승)이 조종하는 T—6 정찰기의 목표유도로 공중공격을 加하였다.

이날 공격에는 智異山지구에서의 空中작전 以來 처음으로 500 lb 폭탄을 사용하였는데 이 空中強打에서 편대는 폭탄 8개와 Rocket彈 24發 그리고 機銃彈 7,200發 등으로 아지트

와 건물 50個所를 全破 또는 半破하는 한편 敵 50명을 殺傷하는 동시에 僞裝한 車輛 2臺를 파괴한 다음 12.00에 귀착하였다.

그러나 金英煥대령이 조종하는 F—51戰爆機 38號機는 敵의 對空射擊으로 部分發火함으로써 蟾津江上流인 谷城川邊에 不時着하였다.

이 急報에 接한 第1戰鬪飛行團에서는 곧 救出작전에 나서 T—6항공기(裵成根대위 조종)를 南原비행장에 파견하였는데 이 비행장은 全長 300 ft정도에 지나지 않는 簡易비행장이었기 때문에 相當한 冒險끝에 金 大領을 救出하여 日沒前(20 00)까지 무사히 귀환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날 오후까지는 回文山(△775) 「가마골」 일대를 재공격하여 敵을 完破코자 하였으나 超低層雲으로 말미암아 出擊을 中止하게 되었다.

8월 27일 : 이날 오전까지도 계속 구름이 낮게 깔리어 출격은 中斷되었으나 오후부터는 漸次로 걷히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5 00에 기지를 이륙한 金英煥대령은 姜鎬倫소령과 金成龍대위 그리고 金斗萬대위 등이 조종하는 4臺의 F—51戰爆機 편대로서 回文山(△775)의 「가마골」지구에 출격하여 敵陣을 爆擊으로 震動시켜 전날 對空射擊을 敢行한 그들의 肝膽을 서늘케 하였다.

이 爆擊에서 金 信대령(朴正熙중위 동승)이 조종하는 T—6정찰기의 목표유도로 폭탄과 Rocket 그리고 機銃공격을 連加한 결과 아지트와 건물 48個所를 파괴 또는 불 살라 버리니 「가마골」 일대는 一瞬間에 불바다로 化하고 推定死傷者 80명의 戰果를 거두었다.

그리하여 回文山(△775)일대에서 包圍作戰을 전개중인 警察부대는 戰勢가 一躍好轉되는 가운데 이 지역의 殘敵을 目擊하여 剿滅하게 하였다.

8월 28일 : 이날부터 韓國空軍의 作戰態勢檢閱의 一環으로 파견된 Issacson중령을 同伴하는 出擊작전이 시작되었는데 姜鎬倫소령과 朴熙東소령을 편대장으로 하고 그 이외6명(金成龍대위, 金斗萬대위, 裵成根대위, 田凡熙대위, 周永福대위, 玉滿鎬중위)이 참가하여 2個편대를 이루어 08 00에 密雲을 뚫고 기지를 이륙하였다. 이 때에 Issacson중령은 편대와는 별도의 F—51 항공기로 韓國조종사의 뒤를 따르면서 檢閱을 實施하였다.

出擊한 이들 2個편대는 智異山(△1915) 東쪽 4km에 이르러 T—6정찰기(張志良중령, 조종)의 目標지시에 따라 敵의 아지트를 強打한 결과 推定 25명을 殺傷하고 08.35에 기지로 귀착하였다. 이 이후는 짙은 구름이 깔리어 空中出擊을 中止하고 地上에서의 조종사훈련상황과 各種 후방지원능력 등에 대한 檢閱만이 實施되었다.

8월 29일 : 전날에 이어 오전에는 계속 짙은 구름이 덮혔으나 정오부터는 漸次 개이기 시작하여 출격에는 支障이 없었으므로 14.10에 戰隊長 金英煥대령과 檢閱官 Issacson중령의 2臺로 된 F—51戰爆機 편대는 武裝정찰을 겸하여 기지를 이륙하였다.

蟾津江中流에 있는 花開場지구의 塔里에서 敵을 捕促하자 곧 Rocket과 機銃掃射로 敵의 아지트 9個所와 건물 27棟을 파괴하고 귀로에는 蟾津江下流에서 小舟艇 2隻으로 分散脫走하는 敵들을 捕捉하자 즉시 Rocket彈으로 擊滅하였다.

15.50에 기지를 이륙한 제2편대(姜鎬倫소령, 周永福대위, 金成龍대위, 田鳳熙대위)는 T—6(金 信대령 조종, 朴性鍊중위 동승)의 目標유도에 따라 花開場지구의 塔里에 연속적인 攻擊을 加하여 아지트 4個所와 건물 3棟을 파괴한 다음 귀환하였고, 이어 白雲山(△1,208)지구와 老姑壇(△1,507)지구에 4個의 편대가 各各 출격하여 強打를 계속하였는데 16 15 제3편대(丁永鎭대위, 權成根대위, 金斗萬대위, 玉滿鎬중위)의 4臺의 편대는 竹亭里 老姑壇(△1,507)와 天馬山(△691) 사이의 溪谷에 있는 梨坪里 西南쪽 1km에 이르러 Rocket과 機銃掃射로 強打하고 건물 2棟과 아지트 2個所를 爆破하는 한편 敵 130명을 殺傷한 다음 17.00에 귀착하였다.

계속하여 17.45기지를 이륙한 제4편대(田鳳熙대위, 尹應烈대위, 崔浩文중위, 美 空軍 Lagro중위)는 제3편대가 먼저 強打하여 分散시킨 天馬山(△691) 골짜기의 殘敵을 再次 공격하여 10명을 射殺하고 다시 아지트 5個所와 僞裝된 火藥集積所에 Rocket彈의 命中으로 連鎖的인 폭발을 誘發케 함으로써 竹亭里 일대를 火焰으로 덮게 한 다음 「아지트」로 사용하던 隣近마을에 까지 延燒토록 하였다.

또 18 15에 제5편대의 3機(姜鎬倫소령, 李康和대위, 周永福대위)는 老姑壇 西南쪽 4km인 放光里골짜기에 있는 敵陣을 攻擊하여 건물 6棟을 破壞하고 10명을 사살하였다.

또 이날 19.20에 제6편대의 4機(金英煥대령, 丁永鎭대위, 金斗萬대위, 玉滿鎬중위)는 老姑壇(△1,507) 東南쪽 1km인 밤재에 출격하여 아지트 4個所를 파괴하고 20.20에 귀착함으로써 이날의 작전임무는 모두 끝나게 되었는데 檢閱官 Issacson중령은 僚機(2, 3, 5편대)로써 檢閱임무를 수행하였다. 이 出擊은 開戰以來 6個編組의 出擊이라는 最大記錄을 樹立하였으며 이날 消耗된 彈藥만도 폭탄 6個와 Rocket 112발 그리고 Cal 50 實彈이 37,200발이나 되었다.

8월 30일 : 이날 제1전투비행단에서는 李康和대위가 T—6정찰기(朴完圭소위 동승)로 07.50부터 1時間동안 공중정찰한 바에 의하면 전날 連續的인 空中공격으로 敵이 掌握中인

花開場 警察支署는 燃燒되었으며 아지트와 건물 各 3個所가 파괴되고 敵의 屍體 15俱를 發見 할 수가 있었다.

또 山嶽지방으로 敗走한 敵은 花開場을 중심으로 한 양쪽高〔地兄弟峰(△1,115)—黃獐山(△942)—盤若峰(△1,751)〕 일대에 陣地를 構築하고 있었으며 我警察부대는 전부 撤收하고 보이지 않았다.

이와같은 偵察結果에 따라 F—51戰爆機 4臺로한 제1편대(朴熙東소령, 金斗萬대위, 權成根대위, 玉滿鎬중위)는 檢閱官이 수행하여 點檢하는 가운데 花開場지구에 출격을 敢行하였다.

이 지역의 山 中腹에는 森林이 울창하여 敵이 陰蔽하기에는 좋은 自然條件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目標選定에 많은 支障을 招來하였으나 편대는 이 일대의 敵陣으로 推測되는 곳을 골라 Rocket과 機銃攻擊을 加하여 아지트 4個所와 건물 3棟 그리고 野砲 1門을 파괴하였으며 敵兵 86명을 殺傷하였다.

이어서 花開場지구에 出擊한 제2편대의 5機편대(姜鎬倫소령, 金成龍대위, 田鳳熙대위, 周永福대위, Lagro중위 : 檢閱補助員)는 花開場의 오송마을 山麓에서 出沒하는 敵을 強打하여 아지트 3個所와 건물 5棟을 폭파하여 推定 37명을 사살하였다.

또 이날 09.40에 기지를 이륙한 제3편대(張志良중령, 丁永鎭대위, 尹應烈대위, 崔浩文중위)는 통꼭지((△968), 老姑壇(△1,507) 東南쪽에 있는 木洞마을 西쪽 1km의 中腹에서 敵을 捕捉하자 곧 Rocket와 機銃공격으로 아지트 4個所와 건물 3棟을 폭파한 다음 10 40에 귀착하였다.

이와같이 智異山지구 작전기간중에 韓國空軍은 作戰態勢檢閱로써 主로 편대비행과 戰鬪機動 그리고 對地射擊과 空中指揮能力에 대한 評價를 받았는데 그 結果는 모두 優秀하였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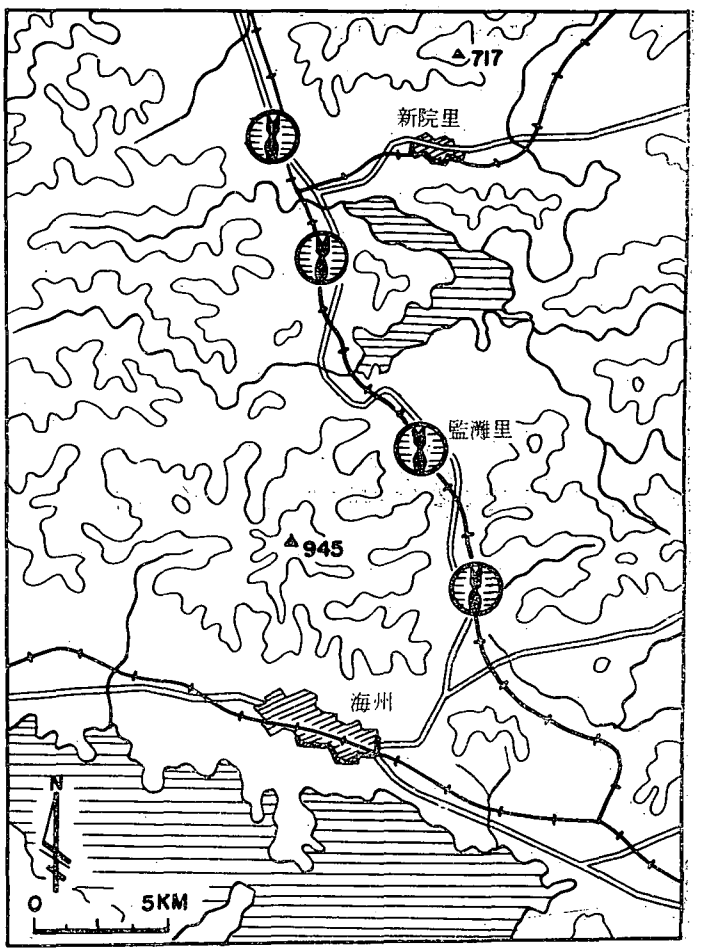
그리하여 午後에는 警察부대의 지원작전과는 別途로 敵後方인 海州 北쪽 10km에 있는 新院지구를 중심으로 한 敵의 交通網을 攻擊하라는 攻擊命令(Flag Order)을 받았다.

이리하여 13 00에 姜鎬倫소령을 편대群長으로 하여 F—51戰爆機 8臺로 한 편대로 기지를 이륙하였는데 이제까지의 작전은 편대별 4機가 1組가 되어 작전을 수행하였을 뿐, 이날 같이 여러편대가 群을 이루어 航空作戰을 수행하기는 처음이었다. 이날 海州 北쪽 鐵道交通의 要衝인 新昌里와 鹽灘里를 연결하는 補給路의 攻擊을 斷行하여 驛舍 1個所를 파괴한 다음 鐵橋 3個所와 건물 2棟 그리고 道路 1個所를 大破하였다.

9월 1일 : 8월 31일은 目標上空에 구름이 깔린 탓으로 출격을 中止하고 이날 다시 海州北쪽에 있는 新院지구 補給路를 遮斷 할 任務를 띠고 出擊하였는데, 08.00에 戰隊長 金英煥대령을 편대群長으로 하여 F—51戰爆機 12臺의 編隊로써 기지를 이륙한 제1편대(金英煥대령, 李康和대위, 金成龍대위, 美空軍의 Lagro중위)와 제2편대(姜鎬倫소령, 周永福대위, 田鳳熙대위, 尹應烈대위) 그리고 제3편대(丁永鎭대위, 權成根대위, 金斗萬대위, 檢閱官 Issacson중령)는 沙海線(海州—沙里院間 鐵道)의 中間에 있는 鹽灘里의 鐵橋에 폭탄과 Rocket彈을 集中投下하여 徑間 6個所를 切斷한 다음 11.15에 귀착하였다.

오후에도 오전에 출격한 각 조종사들이 다시 출격하였는데 13.25에 金英煥대령을 편대군장으로 한 F—51戰爆隊 10臺의 편대는 기지를 이륙하여 新院지구에서 鐵橋을 다시 強打하여 7個所를 切斷함으로써 이 지역의 鐵道交通을 麻痺시키고 16.00에 귀착하였는데 이로써 美 第5空軍의 作戰態勢檢閱도 끝나게 된 것이다.

◇ 상황도 제39호 海州부근 出擊작전도



이와 같이 韓國空軍이 智異山지구와 海州 北쪽 新院里지구의 空中作戰을 수행하는 동안 美空軍은 韓國空軍 조종사들의 戰鬪技倆과 그간 얻어진 赫赫한 戰果에 비추어 하나의 戰鬪單位로서 認定하게 되었으며 UN空軍의 戰鬪序列에 包含되고 마침내 10월初부터 單獨出擊作戰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9월 18일 : 9월 2일부터 17일까지는 다음의 作戰준비와 江陵基地 (K—18)로 前進준비를 위하여 作戰을 一時 中斷하였다.

이날은 가을하늘에 높은 구름이 끼었다가 점차로 快晴한 날씨였으므로 智異山지구에 出擊하였는데 10.15에 戰隊長이 指揮하는 4臺의 F—51戰爆機 편대부터 시작하여 5個편대가 智異山지구의 盤若峰과 馬川지구를 強襲하여 아지트 10個와 건물 12棟을 폭파하고 67명을 殺傷하였다.

이리하여 智異山지구의 警察부대 支援작전을 모두 끝마쳤는데 이 작전에 參加한 조종사의 名單은 다음과 같다.

(가) **F—51** 戰鬪機 조종사

金英煥대령 張志良중령 朴熙東소령 姜鎬倫소령 丁永鎭대위 金成龍대위
金斗萬대위 尹應烈대위 李康和대위 田鳳熙대위 權成根대위 周永福대위
玉滿浩중위 崔浩文중위 朴在浩중위 金錦成중위

(나) **T—6** 偵察機 조종사

金 信대령 張志良중령 全明燮중령 李康和대위 玉滿鎬중위 李基俠중위 朴完圭소위

(다) **L—4** 偵察機 조종사

閔泳洛대위 金東喆대위 具仙眞중위 徐哲權중위 俞大植중위 金昌伍소위
金希道중사 裵相昊중사 白晶鉉중사 鄭重岩중사 車輔燦중사

(3) 作戰後의 槪況

智異山지구는 麗順叛亂사건 이래로 後方治安上의 癌的存在가 된 곳으로써 警察兵力으로써는 難攻의 特殊脆弱지역이라고 불리우고 있었으나 韓國空軍으로써는 커다란 難關은 없어 오히려 有利한 作戰을 전개 할 수 있었고 도리어 實戰的訓練場으로 活用할 수 있었다.

즉 기지를 이륙하여 목표까지는 30분 정도의 戰鬪行動半徑에 있었으며 조종사들은 이 지역의 地理에 能通 할 뿐 아니라 목표의 捕捉에 특수한 장점을 發揮 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1개월간에 걸친 단시일내에 계속적인 空中攻擊을 敢行하였으나 共匪의 散在된 根源을 抜本的으로 覆滅하기에는 未治한 바가 적지 않았으니 이는 孤掌難鳴으로 空地相互間의 協調가 如意치 못한 까닭이라 할 것이다.

즉 경찰부대는 統合된 지휘를 할 수 없었고 경찰本然의 임무인 治安確保와 地方行政面에 대한 負擔으로 地方別로 산재된 大兵力을 한곳에 집결시킬 수 없고 後方보급과 兵力裝備가 빈약한 탓인 것으로 分析되었다.

그 實例로 回文山(△775)「가마골」일대를 四面에서 包圍하고 空中으로부터 垂直攻擊을 加하여 敵勢를 완전히 制壓하는 동시에 地上에서 主力인 경찰부대가 敵을 擊滅하고 이 지역을 奪還하였으나 계속하여 附近에 潛伏하게 된 敗敵을 擊滅하지 못한채로 2일 뒤에는 모두 撤收 함으로써 다시 敵에게 確保지역을 내주는 결과가 되었는데 이는 後方이 弱한 까닭이었고 만약 1주일간만 더 支撑하고 續繼하여 搜索하였더라면 智異山의 西南지역은 쉽게 安定을 確保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작전에서의 我軍의 損失은 없었고 空軍은 出擊回數 총 130回(Sortie)를 通하여 얻은바 綜合戰果는 다음과 같다

綜 合 戰 果

구 분	단위	전 과	구 분	단위	전 과
사살 또는 폭살	명	960	철 도 파 괴	개	16
부 상	명	630	도 로 파 괴	개·	1
아 지 트 파 괴	개	105	차 량 파 괴	량	3
건 물 파 괴	동	178	선 박 격 침	척	2
천 막 파 괴	개	12	야 포 파 괴	문	1
포 진 지 파 괴	개	8	소 총 파 괴	정	5
화 약 집 적 소	개	6			

라. 江陵前進기지의 設置

2次 撤收後 「一面戰과 一面訓練」을 통하여 戰力을 向上하였고 戰鬪부대의 空軍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모든支援부대의 擴張과 整備에 注力한 空軍은 1951년 8월 1일을 期하여 泗川기지(K—4)에서 第1戰鬪비행단을 편성하고 智異山지구의 殘敵擊滅을 위한 空中作戰을 통하여 戰力培養에 拍車를 加하면서 美空軍으로부터 하나의 戰鬪單位로써 認定을 받게 된 것은 이미 敍述한 바와 같다.

이는 空軍의 本然의 使命인 一線 地上軍에 대한 近接支援과 後方遮斷을 遂行하기 위하여 銳意構想하고 그 實現을 보게 된 當宜性 있는 必要조치의 一環이었다.

이리하여 1951년 9월 3일 총참모장 金貞烈소장은 空本作命 第39號로 江陵기지(K—18)에 前進 設置를 위한 다음과 같은 要旨의 作命을 下達하였다.

『第1戰鬪飛行團長은 一部兵力(F—51戰爆機 12臺 AT—6機 1臺와 300명을 초과하지 않는 人員)을 1951년 9월 28일 18.00까지 江陵기지에 前進시켜 10월 1일부터 主로 韓國第1軍團 지상작전에 직접 협력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를 완료하라.』

第1戰鬪비행단에서는 江陵기지(K—18) 前進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移動梯團의 편성과 잔류부대를 구분하였는데 泗川기지(K—4)에는 訓練에 필요한 일부병력과 장비만을 남겨두고 前進을 위한 이동을 개시하였다.

그리하여 9월 17일 06.00에 第101基地전대장 金信대령의 지휘하에 장병 63명과 일부 장비를 第1移動梯團으로 편성한 다음 自動車 15臺에 分乘하여 陸路로 出發하여 同 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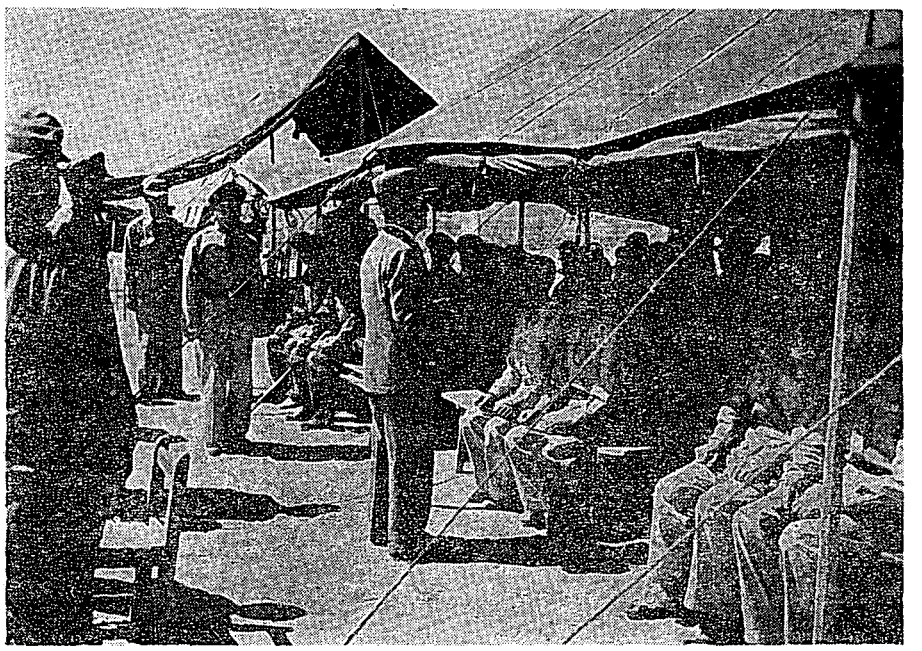
18.30에 江陵기지에 도착하였다.

이어서 9월 23일 07.30에는 第2移動梯團으로 第11整備中隊長 白春得대위의 지휘하에 兵力 123명이 主要장비와 같이 기지를 출발하였으며 馬山까지는 陸路로 가서 馬山港에서 釜山—注文津을 經由하는 LST便으로 9월 27일에 江陵기지에 도착함으로써 地上부대의 前進을 완료하였다.

이러한 地上부대의 前進에 뒤이어 飛行부대와 整備隊主力을 第3移動梯團으로 編成하여 空輸로 前進하였는데 9월 28일 07.30에 副團長兼 第10戰鬪飛行戰隊長인 金英煥대령 지휘하에 F—51戰爆機 10臺가 泗川기지를 이륙하여 이날 08.30에 江陵기지에 進出하고 잔여병력은 C—47 수송기便으로 이날 12.00에 도착함으로써 前進기지 設置를 위한 부대이동을 완료하였으며 이날부로 前進부대 기지司令官에 金英煥대령이 임명되었다.

그리하여 單獨出擊作戰의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決戰即應의 態勢를 갖춘 다음 出擊命令(Flag order)의 下達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이 期間中인 9월 22일 11.20에 李承晩대통령이 國防部長官과 各軍 총참모장 그리고 政府閣僚를 비롯하여 美 第5空軍副司令官 등을 대동하고 C—47便으로 泗川기지(K—4)에 도착하였는데 여기에는 그동안 練磨한 F—51 戰爆機의 編隊 高等 飛行訓練 光景을 본 다음 이 자리에서 大統領은 空軍의 發展狀況과 將兵들의 勞苦를 致賀한 바 있었다.



<李承晩 대통령이 泗川기지를 방문하여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 參戰者의 證言

◇ 총참모장 金貞烈 소장
(1973. 3. 23. 三星物産社長 豫 中將)

51년 9월末에 東海岸지구에 진출한 우리 陸軍 第1軍團의 空中지원을 위해서 美空軍當局과 合議下에 江陵에 第1戰鬪飛團 前進기지를 設置하였다.

이 때에 우리 空軍이 보유한 機種이 F—51 (MUSTANG)로서 이 비행기가 2次大戰時는 勇猛을 떨친 비행기지만 JET機가 出現하면서 時速(786km/h)과 高度面에서 JET와 比肩할 수 없기 때문에 戰術的인 目的이외는 使用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空中戰域을 우리陸軍의 第1軍團 前方으로 결정하고 近接航空支援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江陵(K—18)기지를 결정한 것이다.

또「태극」標識을 한 우리비행기가 직접 우리 陸軍을 空中에서 支援함으로써 地上軍의 士氣問題도 고려하여 作戰기지를 江陵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江陵기지까지 推進하기에 앞서 내가 美極東空軍司令官과 第5空軍司令官에게 우리空軍의 戰鬪能力을 評價해 달라고 要請하였는데 51년 8월末에 第5空軍에서 幹部를 보내서 우리의 智異山地區의 작전과 海州지구의 작전을 평가하였고 바로 本部까지 찾아와 韓國조종사들의 戰鬪能力이 훌륭하다고 激讚한바 있었다.

이때부터 空中作戰과 훈련에 필요한 물자가 제대로 지원되었다.

이때까지만 하여도 空軍을 제외한 陸·海軍에는 美고문단을 설치하고 다수의 고문관이 파견되어 작전에 필요한 보급의 편의를 제공하였으나 공군에만 고문단이 설치되지 않아 물자확보를 비롯하여 作戰運營面에 여러가지 隘路가 있었고 空軍力의 增強에도 큰 問題가 있었다.

◇ 제11전투비행대대장 朴熙東 소령
(1973. 5. 29 現事業 豫 准將)

51년 8월에 警察戰鬪부대의 요청에 의하여 智異山지구 空中支援작전을 하였는데 이 때에 警察의 連絡責任者가 恒時 우리 飛行團에 往來하면서 情報를 交換하였다.

그때 우리 조종사들은 智異山지구의「가마골」과 蟾津江下流에 있는 花開場 그리고 老姑壇일대에서 많은 戰果를 올렸는데 이 지역에는 우리 國軍이 北進時, 미처 도망하지 못한 2個연대 規模의 敗殘兵들이 地方 共匪들과 合流하여 良民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그런데 이 작전이 우리 공군으로서는 중요한 작전의 하나라고 보고 있는 것은 이 작전중 공군의 單獨出擊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美空軍으로부터 作戰態勢檢閱을 받았는데 이때 檢閱官으로서 Issacson중령을 비롯하여 10餘名이 3日間에 걸쳐 우리의 戰鬪能力과 各種 支援能力을 檢閱 하였다.

이 檢閱은 우리 空軍으로서는 처음 받아보는 것으로서 pass하느냐 못나느냐에 따라서 韓國空軍의 增強與否가 決定되는 重要한 작전이었으나 무난히 pass되었다.

이 때에 우리 조종사들은 智異山지구의 地理에 익숙하여 檢閱官이 찾지 못하는 目標物을 찾아서 때리니 예상이외의 큰 戰果를 거두었고 海州지구 出擊에서도 檢閱官이 要求하는 目標를 우리가 찾아서 命中시킴으로써 무난히 통과되어 UN空軍의 戰鬪序列에 包含시켜주었고 며칠 있으니까 江陵으로 前進命令이 떨어졌다.

이와같이 우리가 UN空軍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敵陣에 우리 單獨으로 航空作戰을 遂行하게 되기까지에는 當時 총참모총장인 金貞烈장군을

비롯하여 空軍의 高級幹部들의 고충이 많았다고 본다.

◇ 제11전투비행대대 편대장 權成根 대위
(1973. 5. 22 民生그룹 社長 豫 少將)

51년 8월末에 智異山지구 共匪討伐作戰에 참가하고 있을 때 美空軍으로부터 戰鬪態勢檢閱(O R I)을 처음으로 받았는데 그때 검열관으로 Issacson 美空軍중령이 2명인가 3명을 데리고 와서 검열을 하였다.

이 검열이전에 총참모장이 비행단간부들과 전 조종사들을 집합시켜 훈시가 있었는데 이번의 검열은 공군이 單獨으로 작전을 할 수 있도록 認定을 받는데 중요한 岐路에 놓여있고 앞으로 空軍力이 강화되느냐 안되느냐는 등 空軍의 存廢問題가 걸려 있는 이 時點이니만큼 전장병은 合心하여 참고 견디어 나가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第1戰鬪飛行團은 조종사들이 中心이 되어 그 準備過程에서부터 검열이 끝날때까지 死力을 다하였다.

同년 8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智異山지구에서 4機 편대를 지어 出擊하였는데 우리 조종사는 목표를 찾아서 攻擊하고 검열관은 Check를 하는데 豫想以外의 戰果를 올리니 검열관은 敵의 後方인 南川北方 斜院지구의 鐵橋폭파 出擊命令을 주는데 우리가 처음으로 Flag order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조종사들은 目標地點을 찾는것부터 基地에서 目標까지의 距離에 따른(航速距離) 燃料 및 武裝 搭載量은 비롯하여 目標物을 파괴할 수 있는 武器의 選定등 空中攻擊에 必要한 제반要素를 갖추기 위하여 Flag order를 細密히 分析하여 그대로 임무를 完遂하였다.

이때 12機(3개편대)의 編隊群을 지어서 出擊을 하기는 처음이고 한번도 訓練을 받은적이 없었으니 큰 苦役을 치루었다. 여기에는 특히 정비사들의 苦生도 이만 저만이 아니나 어떻든 무난히 임무를 완수하였고 이 검열에서 후방분야인 整備, 補給, 醫務 등을 비롯하여 各種支援分野도 檢閱을 받았는데 後方支援能力은 不足하나 조종사들의 能力은 充分하다고 評價됨으로써 所要의 物資가 軍援으로 支援되고 江陵基地로 前進하게 된 것이다.

◇제31정비대대장 朴哲東대위
(1973 6 22 지엠코리어(주) 부평공장장 예, 대령)

비행단이 제주도에서 泗川으로 移動하면서 1951년 8월 1일부로 제1전투비행단으로 개편되었는데 이때에 제31정비대대장을 하였다.

그리고 우리 비행단이 本格的으로 비행훈련을 시작한 것은 濟州道에서 부터인데 泗川에 와서도 계속하였다.

그러나 우리 공군의 적은 수의 비행기로 많은 조종사를 양성해야 할 입장이었기 때문에 비행기를 많이 띄우려면 그만큼 우리 정비사들의 일도 많아진다.

그리하여 Col Hess가 타던 F—51 18號機를 두명이 탈 수 있도록 複座로 개조하였는데 8월末경 泗川지구에 태풍이 통과된다는 기상예보에 따라 사전에 비행기는 다른 기지로 대피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항공기를 조종하고 간 미군조종사가 서울 여의도에 착륙하다가 부시먹는통에 나이외 3명이 서울에 出張하여 해체수송하였고 金英煥장군이 불시착할 때를 비롯하여 비행사고가 나면 우리 정비대대에서 전부 회수하여다가 재생하든가 재생이 안되면 뜯어와서 부속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美空軍에 비행기부속을 신청하면 바로 부속품이 들어 오는것이 아니고 몇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항시 A. O. C. P(Aircraft out of Commission for parts : 부속대기 항공기)가 걸려있는 상태라 정비사들의 고충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 제11정비중대장 白春得대위
(1973. 6. 22 지엠코리어(주) 출고사무소장 豫, 대령)

智異山지구에서 作戰을 통하여 좋은 評을 받고 江陵으로 前進 時 제9梯團 인솔하였다

9월 23일 泗川비행장을 출발하여 馬山까지 陸路로 갔는데 떠나기前 指示받은대로 美軍의 항만사령부에 찾아가 절충하니 어찌된 것인지 잘 타협이 안되었다.

그래서 그날 저녁으로 泗川에 되돌아 왔다가 다음날(동월 24일) 11.00에 마산에 도착하여 보니 배가 떠날려고 하기에 올라타고 나니까 13.00경 馬山항을 出航하게 되었다.

이날 오후에 부산에 도착하여 배에서 一泊하고 다음날 부산항을 떠났는데 注文津港에 入港한 것이 9월 27일 11.00쯤 되어 貨物을 揚陸한 다음 강능비행장에 도착하니 18.00가 되었다.

이때 배로 移動한 것이 兵力 120명과 중요한 地上장비이고 江陵에 도착한 후 바로 10棟의 천막을 치고서 숙소를 마련하였고 정비대 주력은 제3梯團로 周鍾喆대위가 인솔하여 C—47便으로 이동하였는데 이것이 9월 28일로 기억한다.

§ 逸 話

國寶를 지킨 하늘의 勇士들

伽倻山 海印寺에 所藏되어 있는 國寶「八萬大藏經板」을 비롯하여 智異山지구의 各寺刹에 보관중인 國寶들이 韓國戰爭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사하였던 것은 奇蹟이라고 볼 수 있다.

이 奇蹟의 뒤에는 故 金永煥장군을 爲始한 우리空軍조종사들의 文化財愛護에 대한 眼目이 없었다면 한날 잿더미로 化했을 것이다.

그 經緯를 살펴보면 1951년 8월 17일부터 8월 30일까지 경찰부대의 要請을 받고 이의 支援作戰을 實施하였다.

이 智異山작전중인 동년 8월 28일부터 3일간은 空軍의 增強과 單獨出擊作戰 可能與否를 決定하기 위하여 美空軍으로부터 戰鬪態勢檢閱(ORI)을 受檢中이었는데 이때에 伽倻山에 있는 海印寺를 비롯하여 智異山지구에 30餘個의 大小寺刹 주변에 많은 殘敵들이 跳梁하고 있었다.

이 檢閱期間中 美空軍의 檢閱官들이 우리空軍編隊의 僚機로서 作戰을 같이하면서 作戰現況 하나하나를 點檢하였는데 出擊할때 마다 寺刹근처에 敵이 우글거리는 것을 보고「寺刹을 攻擊하라」고 하였으나 편대장인 金英煥대령은「편대장의 指示없이는 寺刹을 공격하지 말고 주변의 敵만을 攻擊하라」고 편대원에게 再指示하면서 機首를 낮추어 機銃으로 위협사격을 敢行한 다음 공격을 받은 敵들이 唐慌하여 도주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에야 攻擊을 하는 方法을 取하니 檢閱官들은「Rocket彈과 爆彈으로 寺刹을 공격하라」고 매번 독촉을 하나 편대장과 僚機들은 寺刹주변만을 攻擊하였다.

基地에 귀환한 다음 檢閱官이「왜寺刹들을 攻擊하지 않았는가」고 따지자 金大領은「우리 寺刹들에는 우리民族의 精神的인 支柱가 되는 國寶級寶物들이 많이 所藏되어 있소, 戰線을 形成하지 않고 流動的으로 움직이는 敵의 殘匪를 擊滅하기 위하여 우리의 國家的인 寶物들을 爆擊할 수가 없소. 세계 어느 文化財를 보시요. 우리 韓國조종사들은 國民的 良心에서 寺刹들을 攻擊할 수가 없소」라고 대답하자 美空軍의 檢閱官은 고개를 숙이면서「金대령님같은 훌륭한 上官을 모신 韓國空軍장병이 부럽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이후에도 여러번 各寺刹들이 폭격對象에서 除外되었던 것이다.

20. UN空軍의 活動 (1951년 8월. 1일부터 1951년 8월 31일까지)

要 旨

UN空軍은 6月과 7月 夏期 攻防戰에서 地上軍에 對한 근접 지원을 비롯하여 敵의 後方戰略要衝地에 對한 強打와 敵의 주요 機動路와 補給路를 遮斷하기 위한 活動의 一環으로 鐵路와 鐵橋 및 橋梁等의 目標를 계속 攻擊하였다.

이와 같은 UN空軍의 활약으로 敵은 戰力補強에 致命打를 입고 8월에 休戰 境界線에 관하여會談하는 동안 北共側代表 南日은 말하기를『事實上 空軍의 戰術空軍 폭격기 하나만 없었더라도 地上軍아 現在의 位置를 결코 維持 하지는 못 했을 것이며, 더구나 現前線을 유지 할 수 있는것은 戰術空軍部隊들의 前線에 對한 직접 支援보다도 戰略空軍力의 無差別 폭격 때문이었다』라고 實吐하였다.

그가 말한 戰略空軍의 活動은 敵의 産業 시설과 後方 戰略要衝地에 對한 爆擊등 敵軍의 機動的인 運用을 根本的으로 마비시키는 것을 뜻하는 것이 分明하다.

이에 대하여 UN側代表 C Turner Joy 중장은 답변하되『休戰이 이루어지면 UN側은 그대들에 對한 空中攻擊을 中止하게 될것이므로 아무런 妨害없이 前線을 整備하고 強化 할 수 있을뿐만아니라 戰力도 補強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後方 戰略要地에 對한 爆擊을 中止하는 代價로 그대들의 地上軍을 北으로 어느 程度 後退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多少 模糊 한 主張을 하는등 話戰을 계속 하였다.

이토록 UN空軍은 UN軍이 절대적인 戰力을 維持하면서 계속 유리한 戰勢로 이끌기 위하여 美 제5공군 司令部 예하 全부대들의 韓國으로의 推進을 計劃하고 이의 實施를 熱望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8월 16일부터 同月末까지 계속하여 제67武裝 偵察 비행전대가 金浦(K—14)에 集結하고 제4전투邀擊戰隊가 大邱(K—2)에, 支援部隊들은 日本으로부터 金浦(K—14) 비행장에 各各 進駐 함으로써 드디어 美제5空軍산하 부대들이 전부 한국에 주둔하게 된 것이다.

8월 18일 美 제5공군에서는 釜山東部비행장(K—9)의 제452비행전대 폭격기들이 극히 良好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戰隊의 폭격기들로 하여금 F—84과 F—86 전투 邀擊機들과 後方梯隊의 合同作戰(Rear echelon Maintenance Combined Operation)을 확립 하도록 命令하였다.

한편 제27비행전대와 代替한 제136전투 폭격대대들과 주요 支援部隊들은 日本의 板付(Itazuke)부터 大邱(K—2) 비행장으로 移動 完了하였다.

8월 22일 제3폭격 비행전대는 群山 (K—8) 비행장의 최소한의 시설이 竣工됨으로써 群山에 자리를 잡았다.

또한 8월 20일부터 24일 사이에 제4전투邀擊戰隊와 제8전투폭격전대는 水原(K—13)과 金浦 (K—14) 비행장에서 서로 基地를 바꾸어 作戰을 遂行하게 되었는데 이때 제77濠洲空軍大隊는 제4전투邀擊 전대에 배속되었다.

뿐만 아니라, 제18전투폭격전대는 F—51(Mustang) 2個大隊와 南阿聯邦 공군 2個大隊를 흡수하여 鎭海(K—10) 비행장에서 작전임무를 遂行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美 제5공군에서는 숨가쁜 戰場配置를 斷行하는 한편 모든 작전임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는데 期間中에는 敵의 空中反擊이 強力하여 新安州 西北쪽 지역에 出擊하는 모든 武裝偵察機에 엄호 전투기가 必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제4전투邀擊전대의 F—86 Sabre Jet機 12臺 乃至 16臺가 武裝偵察 出擊의 엄호를 담당하였는데 이러한 엄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敵 MIG機 出現으로 充分한 사진 촬영을 하지 못한채 귀환하게 된 경우가 5~6차나 있었으며 敵의 對空火器가 北韓의 鐵路에 連하여 集中配置됨으로써 UN 空軍機들은 높은 高度에서 急降下하는 폭격술을 사용하여야만 되었던 까닭으로 遮斷作戰의 成果가 지난달에 比하여 많이 감소되었다.

이 期間中 UN空軍은 도합 17,456回에 達하는 出擊을 記錄하였는데 그중 근접지원 818回에 폭탄 689 ton과 Napalm彈 375 ton을 集中投下하고 遮斷作戰에는 6,565回를 出擊하여 폭탄 7,576 ton과 Napalm彈 293 ton을 投下하였으며 空輸지원出擊은 도합 5,255回에 達하였다.

가. 參加部隊 및 主要指揮官

美 極東空軍 司令官
중장 Otto P. Weyland

美 第5空軍 司令官
중장 Frank F. Everest

美 極東空軍 爆擊司令官 代理
준장 Robert H. Terrill

美 極東空軍 전투물자 空輸司令官
준장 John P. Henebry

나. 8月中 夏期 攻防戰에 對한 UN空軍의 活動

UN空軍의 전투 폭격기들은 北韓內에 있는 敵의 주요 機動路와 補給路를 攻擊目標의 최우선 순위로 定하고 그 目標를 集中強打하는데 注力하였다.

한편 8월 1일 Ridgway대장은 聯合參謀本部에 要請하기를 『羅津의 操車場을 비롯한 鐵道 시설과 軍트럭등을 目標로 爆擊 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달라』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聯合參謀本部에서는 合法的인 補給目標만을 攻擊認可 하려고 하였는데 8월 11일 美 大統領의 승인에 따라 羅津 폭격까지 認可 하였다.

極東空軍에서는 이 임무를 遂行하기 위하여 爆擊機 出擊에 그 엄호 전투邀擊機의 出擊도 아울러 要求 되었는데 北韓의 東北部가 美 제5공군의 전투 邀擊機들이 航續距離 밖에 있었기 때문에 美제77기동함대 함재기들의 엄호를 요청하였다.

또한 極東空軍 폭격司令部에서는 1回에 B—29重爆擊機 30台를 出擊시키기로 계획을 수립하여 1차로 제98전투폭격전대의 폭격기들로 금하여 目標를 공격토록 하였으며, 제307과 제19전투폭격전대의 폭격기들로 차례로 뒤 따르도록 하였다.

폭격司令官 Robert H. Terrill준장은 聯合參謀本部(JCS)의 警告에 따라서 出擊 임무를 맡은 全 승무원들에게 指示 하기를 『蘇滿國境線을 결코 侵犯하지 말것이며 目視手段에 依하여서만 操車場을 攻擊하고 途中必要時에 限하여 Radar 補助(Radar Assist)를 使用하라』고 하였다.

한편 武裝으로서는 제98전투폭격전대가 500 lb 一般用 폭탄을 그리고 제19와 제307전투 폭격전대에서는 100 lb의 一般用 폭탄을 최대로 장착하고 出擊토록 하되 敵의 復舊工事를 妨害할 目的으로는 1—144시간의 遲延信管 장치가 된 폭탄으로 무장하고 出擊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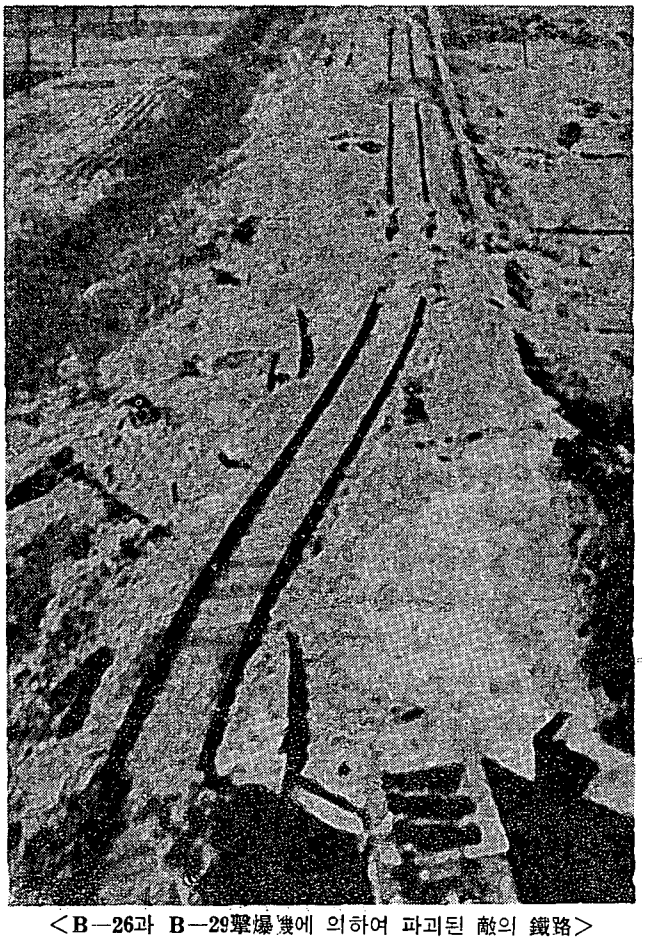
8월 1일부터 15일까지 美 제5공군은 191個의 爆擊目標에 대하여 『Shoran 작전』을 전개하여 83.7%의 成果를 올리고 이어 UN空軍에서는 『Strangle 작전』을 展開하였는데 이 것은 급격히 증가된 敵의 目標를 공격하기 위하여 夜間 奇襲用 出擊機인 B—26輕爆機를 使用토록 전환한 것이다. 즉 8월 18일을 『Strangle 작전』의 D—DAY로 定하였는데 『Strangle』이란 말을 누가 創案하였는지 極東空軍司令官 Otto P. Weyland중장은 勿論, 美 제5공군의 指揮官이나 參謀들도 모르고 있었다.

原來 『Strangle 작전』은 『단거리 配置作戰』이었던 것이 명백하나 共産側과의 休戰會談이 進展됨에 따라 地上戰況이 점차로 불리하게 되고 攻擊地域을 制限하게 되었기 때문에 北韓內에서 좀더 용이한 攻擊目標를 찾을 수가 없었다. 이로 말미암아 鐵道遮斷 작전을 斷行 함으로써 軍事的인 利點을 획득하려고 『Strangle 작전』 계획을 追加로 補完한 것이며 작전의 基本개념은 敵의 보급상황을 細密하게 검토하여 韓國戰에서 後方遮斷作戰 임무 수행중에 익힌 바를 適用하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Strangle 작전』은 계획대로 展開되어 3個月間에 많은 成果를 거두었는데 敵은 갑작스러운 奇襲으로 몹시 당황하는 氣色을 보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8월末에 밀어 닥친 홍수는 新義州와 安州에 架設된 임시 橋梁을 爆破하려는 UN空軍의 作戰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北韓의 鐵道시설地域은 다시금 空軍의 活躍舞臺로 변모하였다.

전투지역 바로 後方에 있는 沙里院—平壤—肅川—新安州—新義州에 通하는 주요 補給路는 複線이었는데 敵은 한쪽 鐵路를 뜯어내어 다른쪽 鐵路를 修理 補完한 까닭으로 全鐵道 軌道를 完全히 파괴하지 않으면 敵은 單線 鐵路를 계속 사용 할 수 있었다.

따라서 8월 18일 美 제5空軍에서 北韓의 鐵道 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종합적인 遮斷 작전을 展



<B—26과 B—29擊爆機에 의하여 파괴된 敵의 鐵路>

開하였는데 이 작전은 UN軍이 決定的인 攻擊을 敢行 할 때에 敵이 對應 할 수 있는 戰力이 弱化되도록 考慮되었고 또 敵이 大大的으로 南侵하지 못하도록 敵 前線에 이르는 輸送網을 비롯해서 補給支援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北韓 鐵道에 對한 全面的인 폭격을 계속 하였다.

뿐만 아니라, 夜間 폭격에 있어서는 C—47 輸送機가 目標上空에 나타나자 곧 조명탄을 投下하면 B—26 경폭기는 目標를 向하여 急降下하면서 火力을 집중시키는 새로운 爆戰術로 轉換하여 8월 24일 야간에 B—26 야간폭격기 2個戰隊는 800台의 트럭을 全破 또는 半破시킴으로써 極東空軍 司令官 Otto P. Weyland중장을 滿足케 하였다.

8월 24일 제16전투邀擊大隊의 1個편대는 氣象이 最高狀態로 良好하여 江을 건너고 있는 많은 敵의 軍트럭을 捕捉하자 뒤따라 出擊한 다른 2個 전투폭격기 편대와 合勢해서 激烈한 폭격을 加하여 40台를 炎上케 하거나 江속으로 쓸어넣었으며 이어 다른 目標로 進入하여 機關車 20輛를 全破하였으며 그밖에 많은 補給品을 운반하는 Boat와 補給品 集積所 1個所를 폭파하였다.

또한 이날 제80전폭대대의 2個 F—80전폭기 편대는 동이 틀때와 해가 넘어갈 때에만 南쪽으로 향하여 大規模로 機動하는 敵의 軍트럭을 捕捉하자 이에爆彈을 集中하여 트럭40台와 戰車 1台를 全破 하였다

뿐만 아니라. 美 제5공군은 MIG機를 擊退하기 위한 F—86 Sabre Jet의 哨戒와 併行하여 1일 2回의 계획된 出擊以外에 指定된 지역의 鐵道遮斷 공격 범위를 넓히면서 作戰을 계속하였는데 各戰隊마다 戰法이 相異하여 氣象 條件如何에 따라 作戰이 변경 되기도 하였다.

즉 이 作戰에는 滑空爆擊과 降下爆擊法이 사용 되었는데 低層雲일 때에는 滑空爆擊이 效果的인 반면 降下 폭격은 敵의 砲火로 因한 擊墜와 損失率이 적은 利點이 있었다.

8월 25일 12.45에서 13.30까지 사이에 極東空軍의 B—29 重爆擊機 35台는 高度 視界등 無制限의 利點을 活用하여 16,000—19,200ft 上空에서 斜角爆擊으로 300 ton이 넘는 폭탄을 目標鐵道에 集中投下하여 97%를 命中시키면서도 아무런 損失도 없이 귀환하였다.

이 期間中 폭격성과는 세계 제2차 大戰때보다 豫想外의 많은 戰果를 거두었는데 投下된 폭탄의 12.9%가 軌道를 切斷하였으며 총 비행출격의 25%가 鐵道遮斷에 投入되었다.

그러나 『Strangle 작전』이 진전되어 갈수록 敵은 鐵路沿線에 對空火器를 集結使用하였으며 美 제5공군이 攻擊目標를 변경 할 때마다 이에 對處하여 對空火器를 移動配置하였다.

제5공군에서 『Strangle 작전』을 展開한 다음 8월末까지 新安州—新義州의 9個 軌道의 70%를, 그리고 平壤—新安州間의 90%와 沙里院—平壤間의 40%를 파괴하는 實績을 보였다.

이에 따라 敵은 道路 輸送網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沙里院—安東에 이르는 117 mile의 軌道를 뜯어 내었으며 沙里院 南쪽에서 13 mile의 軌道를 分解하는 것으로 보아 다른 곳에 많은 修理를 하고 있는 것으로 判斷되었다.

期間中 美 전술기는 1日 평균 775回의 出擊을 감행하였으며 이중 근접지원이 26回, 遮斷作戰이 127回에 達하였다.

또한 1日 武裝偵察은 85回의 出擊을 보였으며 엄호 출격은 3回였고 敵機를 擊退시킨 空中反擊은 34回로 도합 8,532回에 達하는 出擊成果를 記錄 하였다.

8月의 夏期 攻防戰에서 활약한 UN空軍의 日日 作戰狀況의 概要는 다음과 같다.

8월 1일 : UN空軍의 전투폭격기들은 元山—平壤 및 北韓 中部 全域에서 前線으로 移動하는 軍트럭部隊를 捕捉하자 곧 急降下로써 強打하니 삽시간에 그 一帶가 화염으로 휩싸였고 탄약을 실었던 軍트럭에 점화된 까닭인지 폭음이 山河를 뒤흔들고 솟아 오르는 불길과 함께 파손된 트럭의 破片이 亂飛하였다.

뿐만 아니라 美 제5공군의 B—26 夜間 폭격기들은 平壤—順安 비행장을 爆擊하고 이어 연료 貯藏所를 強打하니, 솟아 오르는 불기둥은 낮게 깔린 구름을 꿰뚫어 놓은 듯 하여 검게 거슬린 敵들이 비명을 지르며 앞을 다투어 인근 河川으로 뛰어들게 함으로써 많은 溺死者를 내기도한 듯 하였다.

8월 2일 : 極東空軍의 B—29重爆擊機 편대는 平壤 北쪽 2個의 大操車場 및 兼二浦 補給中心地를 強打하여 全燒시켰다.

또한 B—26 폭격기 대대는 平壤地區에서 彈藥 및 군장비 集積所에 爆彈을 集中投下하여 그 一帶를 火海로 만들게 하였다.

8월 3일 : 美 제307폭격 대대의 B—29重爆擊機 14臺는 鎭南浦에 있는 敵의 補給品集積所를 高性能 폭탄으로 全燒하였으며, 이날 夜間에는 B—26 폭격기들이 平壤—新安州 비행장을 強打하여 그 一帶를 불바다로 만들어 마치 대낮과 같이 밝혀놓았다.

8월 4일 : UN空軍의 B—29重爆擊機 대대는 鎭南浦—平壤—黃州 사이의 鐵路를 攻擊目標로 出擊하여 強打함으로써 보급수송을 中絶토록 만들었는데, 이때 敵의 보급품을 싣고 南쪽으로 向하던 화물차량에 많은 폭탄을 集中하니 그 一帶가 삽시간에 화염으로 휩싸여 視野를 가렸다.

8월 5일 : 美 제5공군의 RF—80 武裝偵察機들은 敵의 前線一帶에 흩어져 있는 보급품 集積所를 捕捉하는 즉시로 이를 爆擊하여 燒却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B—26 夜間 폭격기들은 敵의 前線으로 移動하는 軍트럭 800臺를 攻擊하여 그중 115臺를 全破하였는데 협소한 機動路에서 계곡으로 굴러 떨어지는 트럭들이 마치 불덩이가 구르는 듯하였다.

8월 6일 : 美 제5공군에서는 B—26 폭격기와 F—51(Mustang) 전투폭격기로써 敵의 機動路와 補給路를 遮斷 폭격하는 한편 계곡에 숨겨놓은 軍트럭을 捕捉하여 이를 強打 함으로써 全燒하였다.

또한 이날 極東空軍의 B—29 重爆擊機들은 敵의 주요 보급로와 연결된 橋梁을 爆破하였다.

8월 7일 : 이날 敵機 1臺가 UN軍陣地 上空에 나타나 폭탄 5個를 投下하였으나, 별다른 피해는 없었으며 美 제5공군에서 급히 출격한 F—86 전투 邀擊機에 의하여 擊退되었다.

날씨가 고르지 않아 비행활동이 저조하였던 晝間과는 달리 夜間에는 B—26 야간폭격기로 順安—新安州 비행장을 폭격하여 一時에 불바다를 이루었다.

8월 8일 : UN空軍의 전투폭격기들은 敵 後方의 보급품 集積所를 強打하여 불태웠는데 때마침 거센 바람을 타고 번지는 불길은 敵의 戰線을 위협하는듯 하였다.

이날도 敵機 1臺가 UN軍의 中部戰線에 나타나 폭격을 시도하였으나, 근접지원 임무를 遂行하던 美 제5공군의 전투 폭격기가 즉시 이를 擊退시켰다.

8월 9일 : 平壤 비행장을 비롯하여 敵의 주요 비행장을 폭격하는 B—29重爆擊機를 엄호하던 F—36 Sabre Jet機들은 B—29 重爆擊機로 접근하는 敵의 MIG—15 Jet機 3個 편대와 空中戰을 展開하였다. 이 一戰에서 얻은 戰果는 없으나 B—29 폭격기들은 임무를 完遂하고 無事히 귀환하였다.

8월 10일 : UN空軍의 F—34 Jet機 편대는 平壤市의 軍事目標를 急降下로써 強打하는 한편 B—29 重爆擊機 편대는 Radar 조준으로 黃州 操車場에 爆彈을 集中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그 一帶를 焦熱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UN空軍에서는 8월 4일부터 10일까지 도합 2,700回에 達하는 出擊으로 敵의 트럭 796臺를 全破하고 砲陣地 41個所와 鐵道車輛 49輛을 비롯하여 Boat 32隻등을 全破하였다.

8월 11일 : 極東空軍의 B—29重爆擊機들은 이날 敵의 주요 비행장을 비롯하여 보급품 集積所를 目標로 出擊하여 高性能 爆彈을 集中投下하고 鐵橋를 폭격함으로써 鐵路輸送에 큰 타격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美 제5공군은 各戰線을 따라 地上軍에 對한 근접지원을 敢行하였는데 이 접근지원에서 F—80전투기 1臺가 敵의 對空砲火로 추락하였다.

8월 12일 : 이날 地上에서는 東部와 中部戰線에서 한 두 차례의 小戰이 있었을 뿐이고 대체로 평온하였다. UN空軍은 이날 遮斷作戰에 계속 注力하였는데 極東空軍의 B—29 重爆擊機와 美 제5공군의 전투폭격기들은 平壤 비행장에 폭탄 洗禮를 加하여 비행장을 검은 화염으로 휘감아 놓았으며 沙里院—平壤間의 鐵道와 鐵橋를 強打하였다.

8월 13일 : 極東空軍의 B—29重爆擊機들은 城津 附近의 敵 幕舍와 砲陣地를 폭파하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美 제5공군의 전투폭격대대는 大同江 西岸의 敵 集結地를 強打하였으니 敵으로서는 東奔西走에 골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8월 14일 : UN空軍의 전폭기들은 順安 北쪽에있는 對空砲 陣地를 爆破한 다음 이어 平壤의 탄약 集積所를 強打하니 爆音이 그 一帶를 진동시켰고 솟아 오르는 불기둥과 함께 破片이 쏟아져 連鎖的으로 피해를 주었다.

8월 15일 : 美 제5空軍에서는 UN地上軍과 接戰하고 있는 敵의 前線正面에 대하여 전투폭격기로써 強爆을 퍼붓는 한편 敵의 前線으로 通하는 機動路와 補給路를 爆破하였다.

이날 極東空軍의 B—29 重爆擊機들도 平壤—新幕間의 철도를 強打하여 輸送網을 麻痺시켰는데 이때에 敵의 보급품을 滿載한 화물차량를 捕捉한 B—29 重爆擊機 편대는 이에 폭탄을 集中하였다.

8월 16일 : 美 제5공군의 전투폭격대대는 敵의 前線으로 전투폭격기들은 急襲케하여 各 前線에 散在한 보급품 集積所를 強打하여 燒却케 하는 한편 RF—80 武裝偵察機들은 숲속에 숨겨놓은 敵의 트럭部隊를 捕捉하는 즉시로 이를 全破하였다.

8월 17일 : 極東空軍의 B—26 폭격기와 B—29 重爆機들을 이날 밤낮을 가리지 않고 敵의 輸送網에 對한 폭격을 계속하였는데 특히 夜間에 新安州—平壤—江東과 德川—成川間의 敵 補給路와 주요 戰略要地를 強襲하고 삽시간에 目標物들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8월 18일 : 極東空軍과 美 제5공군은 이날 北韓內의 鐵道를 遮斷하기 위한 『Strangle 작전』을 全面的으로 展開하여 敵의 輸送路를 遮斷하였다.

뿐만 아니라 西北韓 上空에서 美 제5공군의 Jet邀擊機 59臺와 敵 MIG—15 Jet機 19臺間에 空中戰이 展開되는데, 이 一戰에서 MIG—15 Jet機 1臺를 擊墜하고 나머지 敵機들을 모두 擊退하였다.

8월 19일 : 極東空軍의 B—29重爆擊機와 美 제5공군의 F—86 Sabre Jet 邀擊機들은 西北韓 上空에서 敵의 MIG—15 Jet機 46臺와 空中戰 끝에 MIG—15 Jet機 2臺를 擊破하고 다른 5臺를 大破하였다.

또한 B—29重爆擊機를 비롯하여 B—26 폭격기들은 계속되는 鐵道遮斷 작전에 폭탄을 集中投下하여 鐵路와 鐵橋를 폭파하였다.

8월 20일 : 이날 美 제5공군의 F—84 Jet機들은 敵과 接戰하고 있는 韓國 地上軍을 掩

護하는 한편 敵의 地上軍을 攻擊하고 많은 死傷者을 내게하였다.

또한 夜間에는 B—26 폭격기가 出擊하여 新安州—嶺美洞—孟中里의 鐵道操車場을 爆破하였다.

8월 21일 : 極東空軍 폭격司令部에서는 北韓內의 주요 鐵道와 敵의 비행장을 비롯하여 보급품 集積所등을 目標로 B—29重爆擊機를 出擊시켜 戰略的인 폭격을 斷行하는 한편 B—26 夜間 폭격기들은 東部戰線의 敵 後方에서 軍트럭 1,000臺以上이 戰線으로 移動하는 것을 捕捉하는 즉시로 이를 強打함으로써 삽시간에 검은 연기와 불길이 山河에 휘감기게 하였는데 그 불길이 때마침 불어닥치는 바람을 안고 敵의 戰線을 휩쓸었기 때문에 敵들은 四分五裂에 빠지고 一大紛亂이 惹起되는 것을 目擊할 수 있었다.

8월 22일 : 極東空軍의 B—29 重爆擊機와 B—26 輕爆擊機는 制空權을 완전히 掌握하고 있는 F—86 Sabre Jet 邀擊機의 엄호밑에 敵의 戰略地와 補給品 集積所를 強打하였으며 美 제5공군에서는 各 戰線에 對한 근접지원을 斷行 함으로써 敵을 分散케 하였다.

이날 11.20에 休戰 제6차 合同分科委員會議에서 共産側 연락장교는 UN軍側 연락장교에게 말하기를 『UN空軍機가 開城會談地域을 폭격하였다』라고 주장함으로써 現場 조사를 하는등의 喜劇을 演出하기도 하였다.

8월 23일 : UN空軍의 B—29 重爆擊機들은 沙里院—平壤間의 鐵道에 對한 爆擊을 斷行하는 한편 B—26과 B—29 폭격기들의 편대들은 平壤 비행장을 비롯하여 敵의 연료 저장소를 大破하였다.

8월 24일 : 極東空軍 폭격 司令部의 B—29重爆擊機들과 美 제5공군의 B—26 輕爆擊機와 B—29 重爆擊機들은 『Strangle 작전』을 계속 展開하여 敵의 鐵道와 鐵橋를 폭파 하였으며 특히 이날밤 UN空軍의 B—26 輕爆擊機들은 北韓의 各機動路를 따라 前線으로 急進하는 軍트럭 400臺를 全破하였으니 敵으로서는 一面大敗하고 一面全滅하는 狀況속에서 進退維谷에 빠졌을 것이다.

8월 25일 : 極東空軍의 전투폭격대대는 北韓의 各 補給路와 機動路에서 敵의 前線으로 移動하는 트럭部隊를 捕捉하자 즉시 急降下로써 強打하여 순식간에 800臺를 全破하고 말았으니 阿鼻叫喚의 一場面이었을 것이다.

또한 이날 UN空軍의 B—29 重爆擊機 35臺는 羅津으로 出擊하여 操車場과 鐵道 시설을 空襲하였으며 한편 B—26 폭격기대대는 宣川—定州間과 新安州—肅川間을 비롯하여 平壤—沙里院間의 鐵道 시설 目標에 集中 폭격을 敢行하였으니 東擊에 이어 西擊하고 東

西併行으로 左衝右突한 셈이었다.

또한 UN空軍의 F—84 Jet 전투기와 F—86 Sabre Jet 邀擊機들은 敵의 MIG—15 Jet機와 新安州 上空에서 空中戰을 展開하였는데 이때에 濠洲空軍의 Jet機도 처음으로 MIG—15機와 接戰하였으나 彼我間에 損失은 없었다.

8월 26일 : 美 제5공군의 전투폭격기들은 敵의 비행장을 폭파하기 위하여 平壤—熙川—順川등에 폭탄을 集中投下하는 한편 極東空軍의 B—29 重爆擊機들은 軍隅里의 철도시설과 坪里 비행장을 폭격하였다.

8월 27일 : 이날 UN空軍의 전투폭격기들은 敵前線 後方의 補給品 集積所를 強打하는 한편 機動路에서 계곡으로 移動하는 大隊 규모의 敵을 捕捉하여 이를 強打함으로써 많은 損失을 주었다.

8월 28일 : 極東空軍의 B—29 重爆擊機는 平壤—新安州—新義州間의 複線鐵道를 폭파하는 한편 夜間에 B—26 輕爆擊機들은 平壤으로 出擊하자 補給品 集積所와 兵力 集結地를 強打하여 敵의 戰力을 크게 弱化시키는데 寄與하였다.

8월 29일 : 이날 極東空軍의 B—29 重爆擊機와 美 제5공군의 F—86 Sabre Jet 邀擊機 20臺는 MIG—15 Jet機 40臺와 新義州 上空에서 熾烈한 空中戰끝에 敵機를 모두 擊退시켰는데 이 一戰에 參加한 濠洲空軍의 Jet機 1臺가 墜落하였다. 이 당시 UN軍은 滿洲 땅에 一步도 侵入할 수 없었으므로 大破된 敵機는 能히 脫走하는 自由가 있었던 것이다.

8월 30일 : UN空軍의 전투폭격기들은 杆城地區에 있는 敵 사단에 對하여 熾烈한 폭격을 계속하고 美 제5공군의 B—29 重爆擊機 大隊는 北韓의 各 操車場과 甁美洞—新幕등에 多量의 폭탄을 集中投下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날 夜間에 美 제5공군의 B—26 폭격기들은 惡天候를 무릅쓰고 出擊하여 敵의 주요 補給路에서 前線으로 보급품을 수송하는 트럭 900臺를 捕捉하여 이를 一時에 強打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全破된 트럭은 200臺에 達하였다는 것이다.

8월 31일 : UN空軍의 補給路 遮斷으로 敵의 前線은 各種 補給品의 극심한 不足現狀을 면치 못하였다.

따라서 敵은 夜間만을 이용하여 보급품 수송에 狂奔하고 있었는데 이날 밤 美 제5공군의 B—26 폭격기와 F—51(Mustang) 전투폭격기들은 元山—沙里院—陽德—平康—新安州등에서 도합 2,500臺의 軍트럭을 捕捉하여 폭탄 洗禮를 加함으로써 그중 460臺에 達하는 트럭을 全破하였으니 이로써 敵은 夜間의 利用에도 制限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第 46 章

國立警察의 活動

1. 一般狀況
2. 國立警察의 共匪擊滅狀況

第46章 國立警察의 活動 (1951년 5월 1일부터 1951년 8월 31일까지)

1. 一般狀況

國軍과 UN軍이 38°線을 향하여 北進하고 있을 무렵, 後方에서 共匪討伐의 임무를 전담하고 있는 國立警察은 2次에 걸친 토벌작전 기간을 통하여 많은 전과를 올림으로써 士氣는 날로 높아갔다. 특히 六郎의곽선까지 육박하여 後方攪亂을 노리던 北共제10사단의 전멸로 太白山지구에서 活動하고 있던 共匪들도 粉碎되 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人民遊擊軍南半部총사령관 李鉉相은 聞慶—尙州—報恩—槐山—梨花嶺—下延豊을 連하는 俗離山지구에서 忠北道黨과 共匪연합부대를 통합지휘하여 淸州를 기습하였으나 戰鬪警察部隊의 추격을 받고 退却, 三道峰을 경유 智異山지구로 潛入하였다.

이로서 共匪는 全羅南北道 全域과 忠南 大屯山지구, 그리고 慶北西部지구의 智異山과 慶南西部 지구 德谷山으로 활동범위가 위축되었으며 江原道南部地域과 慶北 및 忠北일대에는 殘匪와 地下黨의 미미한 활동만이 殘存하게 되었다.

(1) 後方共匪의 活動概要

가. 李鉉相의 動靜

人民遊擊軍南半部총사령관 李鉉相은 직접 平壤으로부터 무전지령을 받고 南韓에 산재하고 있는 全共匪를 총지휘하여 대담하게도 그들로 하여금 산악지대를 據點으로 하여 要所에 對한 奇襲을 감행토록 指令하고 있었다.

기간중 李鉉相은 全共匪의 조직체계를 완비하여 각지구별로 공비의 출몰지경을 구분하고 後方을 攪亂함으로써 我軍의 北進에 차질을 초래케할 목적으로 직접 淸州, 汶川, 雲峰, 谷城을 奇襲하여 기세를 올렸으나 軍警部隊의 협동작전으로 그 意圖가 분쇄되었다.

나. 地區別 共匪의 出沒樣相

李鉉相으로부터 지령을 받는 各道黨과 道黨遊擊隊및 各級 戰鬪共匪部隊는 地區책임제로 하여 양민납치, 부락습격, 차량 및 열차기습, 관공서, 거점습격을 일삼아 낙관할 수 없는 狀況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그중에도 我方의 거점에 대한 조직적인 공격과 열차, 자동차 기습으로 鐵道와 軍主補給路를 위협하는 것을 제1차적 공격목표로 하여 南原北方 鐵道열차습격 및 和順의 淸風열차기습사건들을 유발시켰다. 특히 공비들은 그 지방 출신으로 집단이 형성되어, 그 지방의 지리, 민심, 기강, 풍습, 언어에 익숙하며 越北共匪 및 戰死傷共匪의 직계 혹은 방계가족과 친족, 친지들로 細胞網을 組織하여 軍警의 작전동정을 낱낱히 在山共匪에게 연락함으로써 토벌부대의 작전을 곤경에 빠트렸으며 『주간

에는 大韓民國, 야간에는 소위 人民共和國』이라 할 정도로 共匪들의 발악이 극심하였다.

다. 裝 備

共匪들의 裝備는 火力裝備로 M—1, 99式, 俄式, 칼빈, 다발총과 美製수류탄, 蘇製수류탄 등 個人火器와 美式 重機, 蘇式 輕機, 수냉식기관총, 60mm, 82mm 박격포 및 신호탄 등 共用火器로 무장하고 通信裝備로는 694무전기를 보유하면서 그들 出沒지구인 回文山지구와 智異山, 巨林, 三壯, 矢川등지에는 유선전화를 架設하고 있었다.

上記한바와 같이 共匪는 後方治安上 輕視할 수 없는 癌的存在로서 國軍과 UN軍이 前方 제一線을 맡고있는 狀況下에서 그들은 後方에 제二線을 구축하여 政治, 軍事兩面으로 위협을 가하려 하였으며 그 수법도 악랄하여 소위 毛澤東遊擊戰法인『敵進我退, 敵疲我打, 敵退我追, 敵駐我擾』를 應用하는 戰法을 活用하였는데 그 例로 소수의 奇襲組가 軍警으로 가장하는 위장전법 또는 僧侶, 乞人, 문둥병환자로 가장하여 軍警部隊의 군사정보를 수집하는등 그들의 活動은 多樣하였으므로 警察은 이러한 수법을 警戒하지 않으면 않되었다.

(2) 民心動向

UN軍총사령관 MacArthur원수의 해임과 居昌事件, 國民防衛軍事件등으로 民心이 동요되자 李承晩大統領은 戰時內閣의 國防, 內務, 法務장관을 권고사임케 한 후 후임장관을 발령조처하였는데 國軍과 UN軍이 38 線의 失地를 회복하게 되자 民心도 점차 安定되었다.

그러나 6월 24일 뜻하지 않은 共產側의 休戰提議가 擧論되어 全國民은 또다시 격분 하였으며 美國의 政策을 의심하는 원성과「休戰決死反對」運動이 거국적으로 일어났다. 피를 토하는 듯 한 민족의 구호는 한결 같았다.

첫째 . 國土의 再 兩斷과 民族統一의 妨害를 우리는 決死反對한다.

둘째 : 敵의 欺瞞政略과 戰略에 美國은 말려들지 말라.

세째 : 휴전제의를 철회하고 中共本土에 원자탄을 投彈하라

네째 . 全世界에 韓國의 統一政策을 呼訴하라.

특히 越南한 동포들의 눈물겨운 외침은 全국민의 심금을 울렸으며 매일 계속된 국민들의 부르짖음은 너무나도 강열하였다.

(3) 國立警察의 後方作戰狀況

後方治安을 完璧하게 하는 길은 共匪를 격퇴하는 길이라고 단정한 李承晩大統領은 5월 7일자로 李淳鎔을 內務部長官에 起用하고 또한 6월 20일에 洪淳琓를 內務部次官에, 또한 6월 24일에는 헌병부사령관 李益興대령을 이사관으로 임명하여 治安局長에 起用 발령하였다. 특히 李益興 신임 치안국장은 원래 경찰출신이므로 시기에 적절한 人事조처라는 評을 받았다.

4월 18일 治安局長은 南原에 설치된 치안국 前方사령부에 崔致煥경무관으로 하여금 그 임무를 말도록 기용하여 智異山지구에서 작전중인 경찰 전병력을 통합지휘케함으로써 행정경찰과 전투경찰의 유기적인 협동을 하게 하여 실질적으로 2개의 경찰 전투사령부와 각 경찰국 전투부대를 총지휘케 하였다. 이때 非常警備總司令部는 後方共匪討伐作戰의 早期打結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치안국 수석고문관 美육군헌병대령 William R Hamby는 駐韓 UN軍 首腦를 설복하여 國立

警察의 장비, 보급, 통신, 차량등 막대한 토벌전용 군수품을 무상원조케 하여 전투 장비에 最惡상태에 있는 전투부대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또한 그는 예하 全고문관들로 하여금 國立警察의 공비토벌작전에 최대한의 협조를 하게 하는등 전술운영상 공헌한 바가 크다. 國立警察의 전투기능이 급진적으로 向上케 되자 정부는 다시 7월 7일과 8월 17일자로 경찰국장급 인사이동을 斷行함으로써 전시경찰로 그 능력을 一新하였다.

新任警察局長 戰鬪司令官 一覽表(8月 1日 現在)

區分 / 局隊	局長, 司令官	副局長	作戰參謀	保安課長
서울	尹 奇 景	洪 秉 完		朴 正 俊
京畿	尹 箕 炳			文 錫 洙
江原	黃 鶴 成			全 炳 斗
忠北	李 成 林			崔 讚 澤
忠南	宋 寬 珠			朴 蒙 實
慶北	邊 宗 鉉			楊 弘 植
慶南	李 東 哲			李 正 鎔
全北	尹 明 運			孫 繼 天
全南	韓 景 錄			曺 在 容
濟州	尹 錫 烈			羅 正 植
太白山地區 戰鬪司令官	李 成 雨		金 億 淳	
智異山地區 戰鬪司令官	辛 相 默		李 根 馥	
鐵道司令官	玄 元 德		金 昌 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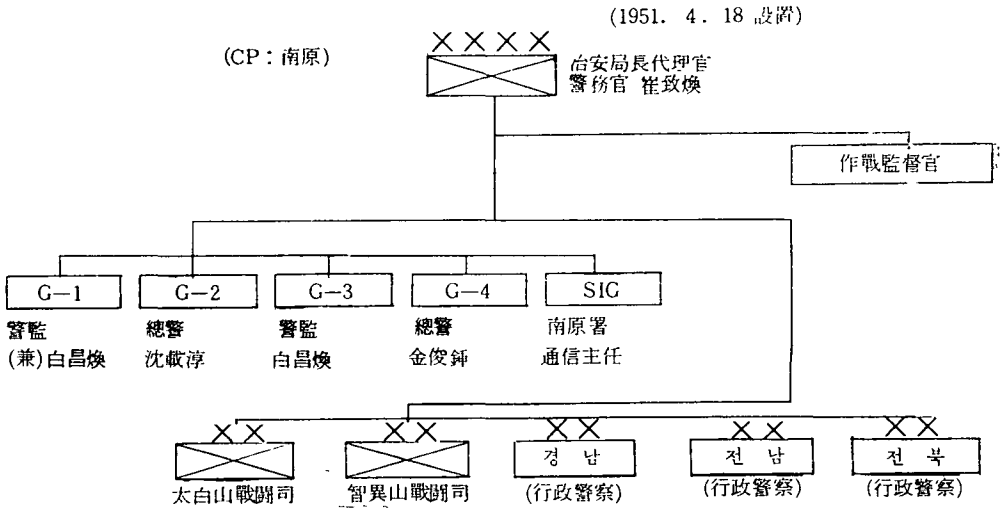
※保安課長은 軍出身 或은 戰鬪經歷者로 補함.

가. 非常警備總司令部

非常警備總司令部는 雲門山지구 경찰전투사령부를 해체하고 그 구성원을 서울시경 및 京畿道 경찰국에 原復케 하고 太白山지구 및 智異山지구의 2個 경찰전투사령부를 主力전투부대로 하여 계속전술책임지역에서 작전케 하였으며 작전상 필요할 때는 지역내 행정경찰과 義勇警察을 통합 지휘하도록 하였다.

또한 행정경찰은 작전지원은 물론 據點警備, 철도 및 軍主補給路경비, 구호, 戰災복구, 五列 및 地下黨組織 색출, 法秩序유지에 임하였다.

治安局前方司令部一覽表



나. **第3次 殘匪殲滅期間**(51년 7월 5일부터 51년 8월 15일까지)

6월말 UN 쏘련대표 Malik의 停戰제의로 7월 10일부터 開城에서 停戰會談이 개최되기에 이르러 이로 말미암아 小康狀態를 지속하는 미묘한 戰局에 편승하여 殘匪들은 好機가 到來한양 그 殘勢를 糾合하고 再整備하는데 광분하여 最後發惡을 하게 되었다. 이에 경찰은 또다시 잔비소탕기간을 설정하였으며 後方치안 확보에 전력하게 되었다. 특히 警察은 그 임무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각지구에 總警級을 작전 감독관으로 하여 계속 파견, 상황을 확인토록 하였다. 期間中 철도기동사령부는 철로경비와 열차호송임무를 담당케 하였으며 지방의 각 경찰서장은 義勇警察을 통합지휘하여 鄕土防衛와 보급로 경비를 專擔하여 全경찰이 殘匪討伐에 仁하게 되었다. 특히 이 作戰은 우리 空軍과 UN공군의 지원을 받으면서 智異山지구를 비롯하여 全國 각지에서 討伐作戰을 성공리에 완수하였다.

第3次 殘匪殲滅期間 綜合戰果

(1951.8.16 統計) 期間 : 7.15~8.15

地區別 / 戰果 \ 戰鬪司	第1地區 全北	全南	慶南	智戰司	第2地區 江原	忠北	慶北	太戰司	第3地區 서울	京畿	忠南	鐵道	濟州	總計
各種銃砲	258	198	144	36	651	64	109	7		36	9	7	1	1,520
射殺, 歸順및 捕虜	1,240	1,986	333	83	234	76	95	6	97	15	65	28	2	4,260

※ 1. 共匪들은 太白山戰鬪警察部隊및 智異山戰鬪警察部隊와의 接戰行動을 忌避하고 있었다.
2. 戰鬪警察은 敵의 主力擊破와 24時間 追擊作戰에 置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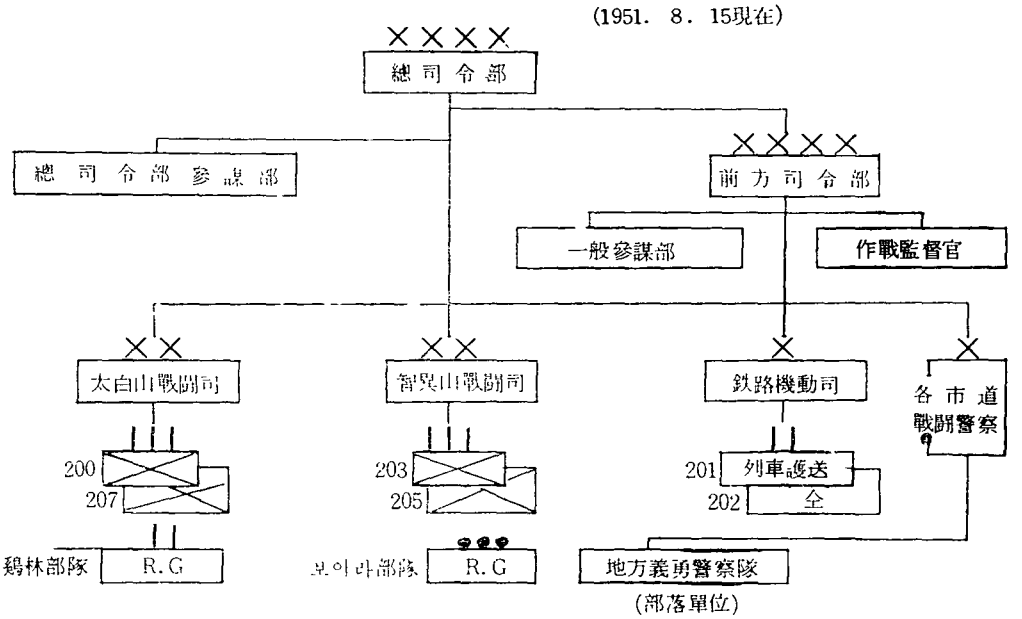
다. 主力戰鬪部隊의 編成槪要

戰術單位의 지휘관과 참모요원은 軍出身 혹은 戰鬪경험자로 編成하고 戰鬪單位 지휘관과 참모요원도 軍出身, 戰鬪경험자, 경찰전문학교 출신간부와 軍에서 위탁 교육을 받은 步兵, 兵器, 情報, 通信등 교육훈련을 받은자 및 治安局 重火器戰鬪訓練所 出身등을 기간요원으로 하였으며, 一般 戰鬪요원은 壯丁경찰관으로서 각 市道에서 차출하여 충원하였다.

그밖에 특별유격전투부대는 軍에서 유격부대로 활동하다가 戰鬪警察에 公式移讓된 雞林部隊와 共匪출신으로 귀순자 생포된자로서 「보아라」부대를 編成하고 各市道의 전투부대는 보안과장 책임지휘下에 각급단위부대로 編成하였으며 義勇警察隊는 各署長 책임下에 각부락단위로 향토 방위와 軍主補給路경비에 任하도록 하였다.

主力戰鬪警察部隊狀況表

(1951. 8. 15現在)



라. 戰鬪敎育

各 戰鬪部隊는 「전투하면서 훈련한다」는 原則아래 기본군사교육을 強行하였다.

특히 山岳과 密林戰鬪에 가장 필요한 至近距離侵透射擊과 照準器없는 박격포로서 百發百中 할 수 있는 砲術敎育등을 반복하여 훈련하였는데 後日 駐韓美8軍사령부의 시찰 검열시 UN軍과 고급장교 및 경찰고문관들을 놀라게하여 전투능력평가에서 滿點을 받음으로써 UN軍 당국의 대전투경찰정책을 전환시켜 軍需無償支援을 받게되고 이로부터 각급 전투에서 共匪에 決定打를 가하는 전투 경찰의 底力을 이루었다.

마. 火力裝備

個人火器로서는 칼빈 M—1, M—2, 소총과 美製수류탄으로 하고 共用火器로서는 바주카砲, 美

製輕機, 美製重機, 60mm, 81mm, 迫擊砲 및 120mm 野砲로 裝備하여 彼我의 부대식별상 착오없게 美製武器로 통일하였다.

바. 通信裝備

전투위주의 野戰通信으로함을 原則으로하여 無線通信은

司 令 部 : 短波送受信機(FM, 20^{W}, FM, 3^{W})

연대본부 : 司令部와 同一하게 施設함

전투대대 : 移動用超短波(FM. 3^{W})

전투중대 : 移動用超短波(BE. 1,000)

有線通信은 사령부로부터 一線중대본부까지 소통하여 共匪들 裝備보다 越等하였다. 特히 通信참모들은 직접 통신가설 업무를 훌륭히 감당함으로써 전투에 最大限 공헌하였다.

사. 車輛裝備

대대장이상 사령관까지는 찝車를 배치하고 사령부와 연대본부에는 2 1/2추럭과 3/4추럭 3~4臺 정도외에는 없으므로 兵力및 補給輸送에 많은 곤란을 겪었으나 戰鬪要員들은 불평없이 默默히 當面의 共匪를 공격하기에 脚力機動을 계속하였다.

아. 個人補給狀況

철모, 전투복, 군화, 배낭, 彈帶, 帶劍, 毛布, 수통등으로 장비하고 給食은 中隊單位의 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戰鬪中의 급식은 前方에 주먹밥을 공급하였으나 敵에 대한 추격이 너무 急速化되면 급식공급이 뒤따르지 못한 事例가 많았다.

자. 士 氣

戰鬪警察들은 철저한 反共精神의 소유자들이었으므로 전투행동에 最善을 다하였고, 戰鬪要員들은 相互 戰友愛가 充滿하였다. 그러나 전투병력차출에 있어서는 전투요원에 부적당한자나 後方에서 사고경찰관을 징계하여 轉勤케하는 인사조치를 취하여 不快한 사건들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질서가 確立되지 않아 전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다.

당시의 國會나 財務當局에서는 戰鬪警察항목의 戰費豫算을 편성하지 않아 全 戰鬪警察에게 失望을 주었다.

차. 臨戰態勢의 完備

政府는 後方에 散在하고 있는 共匪의 早期殲滅을 위하여 內務部長官, 次官을 비롯하여 治安局長등의 수뇌부 人事이동을 斷行한 후 人材를 適在適所에 배치하였다. 51년 7월 27일자로 전투사령관을 군출신으로 起用, 太白山경찰전투사령관에 李成雨총경, 智異山경찰전투사령관에 辛相默총경을 각각 경무관으로 승진 補任케 하고 치안국장대리관 崔致煥경무관으로 하여금 後方공비 討伐과 군경합동사항을 總轄케 함으로써 後方공비 토벌작전을 本格化함에 따라 連日 치열한 상황이 계속되었다.

특히 주목할 것은 共匪의 精銳를 자랑하는 主力戰鬪集團이 我경찰전투사령부예하 전투부대와의 접전을 기피하고 地方行政警察만을 기습하는데 치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당면한 경찰전투사령부는 『敵의 主力부대를 철저히 격파함으로써 敵을 평야지대로 分散 도주케하여 지방행정경찰의 전투부대로 하여금 이들을 포위격멸토록하고 전투부대가 敵과 접촉

되면 24時間 계속 추적하라』고 하였는데 이에따라 철저한 대적조치를 강행함으로써 主力인 전투경찰부대와 행정경찰부대는 계속하여 큰 전과를 거두었다.

카. 一般行政警察 作戰方針

崔致煥治安局長 代理官은 무력전과 對共정치공작전의 政戰 양면작전을 강행하기 위하여 행정경찰의 작전방침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全國 행정경찰에 하달하였다.

一般警察作戰 方針

民衆組織 — 民, 匪分離	1. 戶口調査 2. 糧道遮斷 3. 檢問檢索
治安確保—殘匪殲滅討伐	1. 警察力 侵透 2. 通信攻勢 3. 道路開設
民主警察確立—民弊根絶	1. 質的向上 2. 民怨根絶 3. 監督徹底

行政警察은 以上 體系化한 작전방침에 의하여 전투경찰의 작전과 병합하여 철저한 협동 작전에 臨하였다.

기간중 경찰은 다음과 같은 戰鬪를 통하여 敵에게 결정적 타격을 주게 되었다.

2. 國立警察의 共匪 擊滅狀況

(1) 日月山 攻略戰(1951년 5월 1일부터 1951년 5월 31일까지)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太白山地區경찰전투사령관
- 경무관 李 夏 榮
- 작전참모 경감 孫 繼 天
- 제207연대 장 총경 文 鶴 東
- 제2대대 장 경감 朴 有 天
- 제3대대 장 경감 金 建 培
- 경감 宋 相 基
- 배속부대
  - 安東署靑龍隊 장 총경 朴 松 炫
  - 英陽署유격대 장 경감 李 重 達
  - 奉化署전투대 장 경감 朴 鍾 燮
- 지원부대
  - 美고문관 美육군 대위 호킨 스
  - 美육군 상사 버 — 길
  - 美공군전투기 및 C—46수송기 (大邱기지)

敵 軍

太白山地區 잔비 약 60명(완전무장) — 지휘자성명 및 단대호 미상

나. 전투전의 개황

警察戰鬪部隊는 北共제10사단과 南派되었던 敵유격支隊 및 지방공비를 섬멸하고 太白山지구의 패잔공비를 단시일내에 覆滅하여 軍主補給路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하여 전투부대의 교육과 정비에 전력하여 차기작전에 對備하였다.

敵軍의 상황 : 共匪들은 완전히 낙오된 烏合之卒로서 약 60명이 완전무장을 하였을 뿐이며 太白山지구의 △1,949를 中心으로 日月山(△1,218)~△711~六峴峙~△849—長萬山~將軍峰(△1,135) 一帶에 잠복하여 隣近촌락을 위협하고 있었다.

我軍의 상황 : 太白山지구경찰전투사령부(사령관 李夏榮경무관)은 제207연대와 英陽, 奉化, 安東署전투부대를 총지휘하여 方山에 前方지휘소를 설치하고 日月山 공격을 준비하는 한편 제200연대 제1대대와 제3대대로 하여금 慶州—永川—安東—榮州에 이르는 軍主補給路를 경비케 하였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ㄱ) 작전계획

사령관 李夏榮경무관은 日月山공격을 목표로 작전참모 孫繼天 경감과 方山에 위치하여 작전계획을 수립, 작전을 총지휘하기로 하였는데 그 계획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제207연대 제3대대는 察唐洞, 五尾를 점령하고 日月山 포위지점에 진출한다.

② 제207연대 제2대대는 △711, 龍化洞, 門下洞, 道谷洞을 점령하고 제3대대와 연결지점에서 日月山을 포위 진출한다.

③ 英陽署유격대는 △1,218을 점령하여 유격전을 전개한다.

④ 奉化署전투대는 文珠山에 진출하여 유격활동을 전개한다.

⑤ 安東署靑龍隊는 차기작전에 대비한다.

⑥ 美공군으로부터 敵의 據點에 대한 對地攻擊 支援을 받는다.

⑦ C—46機의 지원을 받아 공중방송과 귀순공작 전단을 撒布한다.

⑧ 美고문관 『호킨스』대위는 美軍지원사항 및 연락사항을 전달케 한다.

⑨ 공격개시 시간은 5월 1일 05 00임 』

이와같은 작전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敵의 근거지를 공격하고, 분산되는 잔적을 各個 격파하는 한편 잔비들의 귀순공작을 위하여 美경찰고문관의 지원으로 C—46機에 의한 공중 대적방송과 귀순공작 전단의 撒布를 요청하였고 제207연대를 主攻 부대로 敵을 격파케 하는 동시에 地區內행정경찰의 전투부대를 助攻부대로 殘匪를 격멸케 하였다.

(ㄴ) 작전실시

4월 30일 : 작전부대는 각기 계획된 攻擊준비를 완료하였다.

5월 1일. 제207연대 제2대대는 日月山 부근 일대를 探索하면서 12.00에 △711~龍化洞~門下洞~道谷洞의 각 거점을 接敵없이 무난히 점령하였다.

제 3 대대는 水谷—察唐洞을 接敵없이 점령하고 계속하여 五尼—大峴峠—燕飛峰—將軍峰에 진출하여 將軍峰後面 말림지대와 日月山側面에 配備하고 각각 威力搜索中 공비 1명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각 부대는 계속 예정목표를 향하여 5월 6일 23 00까지 搜索戰을 전개하였으나 接敵은 없었다.

5월 7일 19 00에 제207연대 제2대대(장, 朴有千경감)는 英陽郡 石保面 新坪洞일대를 搜索中 완전무장한 공비 20명과 조우하고 交戰끝에 공비 10명을 사살하고 소式小銃 7정과 수류탄 2발, 白米 2가을 노획하는등 戰果가 있었으나 10명의 잔비는 분산 도주하였다.

5월 8일. 08.35에 同部隊는 美山麓에서 아지트 4개와 神聖洞에서 아지트 3개를 발견 爆破하였다.

5월 11일. 12 00에 제207연대 제 3 대대(장, 金建培경감)는 五尼 後山을 포위수색중 잔비 5명과 遭遇하여 이를 全滅하고 38式小銃 5정, 실탄 280발, 취사도구등을 노획하였다.

5월 18일 : 17.20에 제 3 대대는 東面里 2區에서 敵情을 탐색중 잔비 2명과 遭遇하여 1명을 사살하고 소式長銃 1정, 실탄 50발을 노획하였다

기간중 작전부대는 그 작전행동에 비해 적은 戰果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작전 계획을 변경하여 5월 30일까지 탐색작전을 전개하였으나 접적은 없었다.

5월 31일 : 04.00에 全작전부대는 日月山을 포위 압축하여 △911, △338, 將軍峰(△1,135) 文明山, 長葛山—長葛峰에 대한 威力搜索을 하고 文鶴東 제207연대장과 洪南植 경감으로 구성되는 前方지휘부에 의해 13 00에 日月山(△1,218)을 全部隊가 완전포위, 美공군의 지원하에 총공격을 展開하여 一網打盡함으로써 太白山지구의 殘匪는 完全殲滅되었다.

라. 전투후의 개황

太白山지구 경찰전투사령부가 발족한지 불과 6개월 만에 太白山지구에서 暗躍하던 共匪는 사실상 이 전투에서 完全殲滅되었다 사령관은 전투종료후 차기작전에 대비하여 전투훈련을 강화하였다.

戰 果

구 분	사 살	포 로	각종 소총	실 탄	수류탄	시 계	식 기	백 미	취사기	아지트
전 과	39	1	13	330	2	1	5	2가	다수	7

損失 : 없음

§ 參戰者의 證言

제207연대 장 文 鶴 東 총경

本作戰은 장기간에 걸쳐 山岳에서의 유격전에 숙달된 경찰과 美 공군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이루어진 甚히 어려운 戰鬪였다. 少數化된 공비들도 전투기능이 향상되고 있었음을 이전투에서 확인하였다.

§ 戰訓

(1) 험악한 山岳, 밀림지대의 戰鬪는 24時間 추격전과 유격전법의 應用이 없이는 對遊擊戰을 할 수 없다.

(2) 敵은 高地帶에서 我軍의 행동을 충분히 觀測하고 지형지물을 최대한으로 活用하므로 我軍은 四周警戒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敵으로부터 奇襲을 받는다.

(2) 大德山, 咸白山戰鬪(1951년 6월 3일부터 1951년 6월 12일까지)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제207연대	장 총경 文 鶴 東	鄕虎수색대	장 경위 朴 莊 遠
제 2 대대	장 경감 朴 有 千	長省署전투대	장 경감 柳 善 靑
제 3 대대	장 경감 宋 相 基		

敵 軍

北共軍 패잔병 300명 (지휘자 성명미상)

나. 전투전의 개황

日月山지구 공비를 소멸하고 次期作戰에 대비하여 교육훈련중이던 제207연대는 敵패잔병 약 300명이 長省쪽으로 南下하고 있다는 隣接 國軍部隊로부터의 通報를 받고 즉시 黃池에 주력을 이동케하였다.

敵軍의 상황 : 江原道 戰線의 後方에서 國軍의 공격을 받은 北共軍 패잔병 약 300명은 大德山—咸白山 一帶에서 掠奪을 계속하고 있었다.

我軍의 상황 : 제207연대(장 文鶴東총경)는 日月山 攻略으로 殘匪를 소멸하고 제2, 제3대대로 하여금 日月山 將軍峰을 점령, 전투훈련을 강화시키는 한편 一部병력으로 大峴峙—長省—縣洞間의 M. R. S 경비에 任하게 하였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ㄱ) 작전계획

敵情을 통보받은 제207연대(장, 文鶴東총경)는 敵의 南下를 저지키 위하여 주력을 黃池에 집결시키고 다음과 같은 작전지시를 하였다.

『① 삼미시리—원동리—직곡을 탐색하고 大峴峙—長省—縣洞間의 도로연변에 대한 탐색전을 강화한다.

② 각 중대는 配備線上에서 南下하는 敵軍을 阻止하고 殘敵을 一擧에 섬멸한다.

③ 공격개시 시간은 6월 3일 05 00로 한다 』

(ㄴ) 작전실시

6월 3일~4일 : 목표를 향하여 탐색전을 전개하였으나 接敵은 없었다.

6월 5일 07.00에 제 2 대대(장, 朴有千경감)는 大德山쪽에 敵軍이 잠복하고 있다는 偵察報告를 받고 進擊中 직곡 뒷山에서 敵 50餘名과 遭遇하자 미리 잠복중이던 敵兵 약300명과 合流하여 彼我間격전을 전개하였으나 14.30에 敵은 葛峙山부근으로 패주하였다. 我軍은 또다시 大德山일대에 대하여 위력수색을 하던중 18 30에 敵軍의 장교 소위 1명과 경기관총 1정을 노획하고 19 30에 △1,213에서 敵軍 20명이 내습하여 1時間에 걸친 교전끝에 敵이 咸白山 入口인 長省으로 敗走하자 長省署戰鬪隊(장, 柳普靑경감)는 이를 추격하였는데 敵은 이에 重火器로 완강히 저항하다가 大德山쪽으로 潰走하였다.

6월 6일 . 12 00에 鄕虎搜索隊(장, 朴莊遠 경위)는 수리봉 △1,171에 잠복중인 敵軍 150명에 대하여 奇襲을 加하여 6명을 사살하고 多數의 武器와 裝備를 노획하였다.

6월 7일 : 15 00에 長省署전투대(장, 柳普靑 경감)는 △1,444를 점령중인 敵軍 약 300명과 遭遇하여 彼我激戰이 전개되어 3명을 사살하고 兵器, 實彈 多數를 노획하였는데 我軍의 兵力은 敵에 비하여 1/6밖에 되지 않아 衆過不敵으로 一時 후퇴하여 國軍 제872부대에 작전지역을 인계하고 撤收하였다

라. 전투후의 개황

제207연대는 계속 敵에 대한 추격을 늦추지 않으려 했으나 총사령부의 이동 명령에 의하여 國軍부대와 地方경찰에 작전임무를 인계하고 智異山과 俗離山으로 이동하였다.

戰 果

구 분	사 살	포 로	M—1	소式小銃	수 류 탄	실 탄
전 과	9	1	2	2	12	376

損 失 없음

§參戰者의證言

太白山지구 경찰전투사령부 작전참모
孫 繼 天 경감

이 작전은 지방공비에 비하여 월등히 우수한 화력장비를 갖춘 패잔병과의 전투로서 전투경찰 장비로서는 어려운 전투였으나 오직 精神무장의 힘으로 싸웠다.

(3) 俗離山地區作戰(1951년 5월 1일부터 1951년 8월 21일까지)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太白山지구경찰전투사령관		제3대대 장	경감 宋 相 基
경무관	李 夏 榮	제5대대 장	경감 鄭 壽 煥
	李 成 雨	美군사고문관	美육군대위 호 킨 스
작전참모	경감 孫 繼 天	배속부대	
제200연대 장	총경 高 尙 遠	丹陽署전투대 장	경감 智 丁 煥
제2대대 장	경감 金 億 淳	槐山署전투대 장	경감 金 基 滿
제3대대 장	경감 梁 碩 興	報恩署전투대 장	경감 田 哲 奎
제207연대		聞慶署전투대 장	경감 金 正 甲
제1대대 장	경감 金 麟 鎬	尙州署전투대 장	총경 金 基 鉉
	洪 南 植		

敵 軍

人民遊擊軍南半部총사령관 李 鉉 相	聯合부대
忠北道黨 유격대	승리사단

나. 전투전의 개황

이 作戰은 國軍의 主補給路인 金泉—店村—聞慶—梨花嶺—延豊—忠州—堤川—原州를 通하는 俗離山지구와 安東—丹陽—堤川을 연결하는 도로주변에서 活動하고 있는 공비를 섬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戰鬪경찰은 이 작전을 위하여 우선 제200연대 제2대대(장, 金億淳경감)를 51년 4월 1일 05.00부로 延豊에 진주케 하고 제207연대 제5대대(장, 鄭壽煥경감)를 계속 丹陽쪽에서 殘匪토벌에 임하게 하여 각각 독립작전을 하도록 하는 동시에 地形偵察과 戰鬪訓練을 하게 하였다.

敵軍의 상황 : 李鉉相은 俗離山 비밀아지트에 잠복하여 無電, 혹은 傳令을 이용하여 全國에 산재하고 있는 공비를 총지휘하였다. 특히 太白山경찰전투사령부의 전술책임구역내의 공비전멸狀態에 直面한 敵은 무방비상태하의 도시습격을 기도하고 있음이 敵情分析에서 나타나 이에 對한 경계가 要望되었다.

我軍의 상황 : 사령부는 俗離山지구내의 행정경찰로 하여금 도시기습에 대비토록 하는 한편 전투경찰은 敵의 주력을 早期擊滅하여 李鉉相을 사로잡게 하고 지방행정경찰부대로 하여금 分散된 敵을 各個擊破토록 하는 작전준비를 완료하고 接敵시는 24時間 추격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여 이에대한 전투훈련을 강화하였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ㄱ) 작전계획

사령관 李夏榮경무관은 敵의 주력부대를 격파하기 위하여 제200연대 제 2 대대로 하여금 敵의 거점인 七寶山一君子山一屯德山一烏項山一俗離山을 반복수색케 하여 我軍이 공격에 유리한 지점에서 敵을 포위공격케 하고 제207연대 제 5 대대는 丹陽署전투대와 협동작전으로 丹陽지구 공비를 섬멸하는 한편 店村一梨花嶺間의 主補給路를 경비중인 육군제10경비대대와 梨花嶺一水安堡間의 主補給路를 경비중인 육군제 9 경비대대를 支援 경계하도록 하며 俗離山지구 공비의 全滅을 위하여 현지에서 총지휘하며 제200연대 제 2 대대로 주력을 삼고 기타 작전부대를 전투부대로 하였으며 본작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의 작전 지시를 하였다.

『① 제200연대 제 2 대대는 敵의 주력부대를 격파하기 위한 독립작전을 한다

② 기타 전투부대는 각기 현지역에서 상황에 適應하는 독립작전을 한다.

③ 행정경찰은 都市防禦에 철저를 期한다.

④ 全부대는 전투훈련을 겸한 수색활동을 한다.

⑤ 공격개시시간은 51년 5월 1일 05.00이다.』

(ㄴ) 작전지시

5월 1일 : 제200연대 제 2 대대(장, 金億淳경감)는 同一地域內를 계속 반복搜索하여 작전이 종료되는 8월 20일 19 00까지 長期 脚力機動을 하며 추격전을 39회나 반복함으로써 國立警察전투부대로서는 最高의 기록을 세웠다.

기간중 大小전투를 10여차례나 전개하면서 부대를 추격부대와 잠복부대로 나누어 敵의 기동을 제한하는 동시에 접적시는 至近距離 集中射擊戰을 展開하였으며 특히 夜間에 敵의 이동을 伏擊戰法으로 擊滅함으로써 敵을 곤경에 처하게 하였다.

5월 26일 : 제200연대 제 2 대대(장, 金億淳경감)는 1주일간의 수색활동에서 敵의 位置를 발견치 못하자 各중대별로 수색활동을 展開하여 제 1 중대(장, 黃澤周경감)는 七寶山一帶를, 제 2 중대(장, 金敏鍾경감)는 延豊주변 山岳地帶를, 제 3 중대(장, 田元春경감)는 君子山一靑川一帶를, 제 5 중대(장, 柳基泰경감)는 예비대로 敵의 기습에 대비시켰는데 23 50에 본부중대(장, 직전주임겸 金永斗경감) 제 1 소대(장, 李斗榮경사)가 延豊西南쪽 1km 부근에 잠복중 敵전투부대 선발대 10여명이 延豊을 향하고 있는것을 捕捉하여 先制攻擊함으로써 敵은 延豊을 기습치 못하고 擊退당하였다. 대대장 金億淳경감은 즉시 제 5 중대(장, 柳

基泰경감)로 하여금 夜間추격전을 展開케 하였는데 이때 槐山경찰서장으로부터 24.00에 淸州市內에 공비연합부대가 기습해 왔다는 敵情을 有線通報를 받았으나 敵과 交戰상태에 있는 제5대대로서는 淸州와의 거리 및 시간상으로 비상출동이 불가능한 상황하에 있었다.

당시에 淸州의 사태는 극히 악화되었는데 그 내용인즉 5월 24일 14.00 淸州北쪽 약수터에 군인을 가장한 2—3명의 공비가 출현했다는 報告를 曾坪지서로부터 접수한 忠北경찰국 경비계장 鄭義澤경감은 즉시 鄭泰燮경찰국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淸州, 槐山경찰서장에게 『敵의 기습에 대비하여 철저한 경계조치를 하라』고 作戰指示를 하였다.

이날(日曜日) 鄭泰燮경찰국장은 本局과장 전원과 淸州서장을 대동하고 「부강」으로 出他하였다가 21.00에 淸州로 돌아왔다. 이틈을 이용한 敵은 槐山쪽으로부터 무방상태하에 있는 淸州市內 牛岩山을 점령하고 一隊는 淸州北쪽 약수터를 경유하여 市內에 침입 21.00에는 忠北道廳을 기습하였으나 휴일인 탓으로 市內에 총성이 울렸으나 경찰의 비상소집은 되지 않았다. 이에 공비들은 또다시 淸州형무소를 기습, 수감자 200여명을 납치하는 사태로 악화되었으나 淸州근방에는 지원해 줄 부대가 없었다.

계속해서 공비들은 도청보건소사무실과 경찰무기를 全燒시키고, 5월 27일 03.00까지 淸州市內에서 一般物資와 藥品등을 약탈하고 槐山으로 退却하고난 후 비로소 04 30에 忠北경찰국부대는 추격을 개시하였다.

이 事件은 政府와 國會에서 크게 논란되어 6월 7일 國會와 政府는 淸州事件의 책임자를 처단키로 합의를 보고 7월 9일자로 忠北경찰국장 경무관 鄭泰燮, 사찰과장 총경 宋榮鎭, 보안과장 총경 金慶仲, 淸州서장 총경 金大堡등을 면직 처분하였다.

6월 18일 : 殘敵제6支隊 약 200명이 永春쪽으로부터 竹嶺으로 南下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제207연대 제5대대(장, 鄭壽煥경감)는 즉각 기동하여 20.00에 「따발굴」부근 山岳에 전투배치하고 대기하던중 敵은 △813 正面으로부터 侵襲 하였다. 我軍은 △813과 무명고지에서 敵을 맞아 6월 19일 03.00까지 熾烈한 夜間攻防戰을 거듭하다가 敵은 我軍의 反擊에 못이겨 敗走하였다.

戰 果		실 탄	260발
射 殺	44명	수류탄	32발
捕 虜	1명		
鹵獲 :		損 失	
각종소총	11정	戰 死	5명
다발총	1정	負 傷	8명

6월 26일 : 丹陽에서 擊退된 敵 제6支隊 약 150명은 俗離山으로 潛入키 위해 聞慶 사루봉 稜線을 따라 南下중이고 屯德山에 잠복중인 忠北道黨 빨지산과 聯合部隊 등 지방공비 150명은 敵제 6지대와 호응키 위하여 俗離山으로 移動中이라는 敵情報告에 접한 李夏榮사령관은 俗離山을 포위 敵을 擊滅코자 前方지휘소를 尙州郡 化北支署에 설치하고 공격개시일을 6월 26일 05 00로 하며 제200연대 제 2 대대(장, 金億淳경감)를 주력으로 하고 제207연대 제 3 대대(장, 宋相基경감)와 제207연대 제 1 대대(장, 金麟鎬 경감)를 협력 부대로, 제200연대 제 3 대대(장, 梁碩興경감)를 예비대로 하여 20 00에 제207연대 제 1 대대는 寶開山에, 제207연대 제 3 대대는 살구목골에, 제200연대 제 3 대대는 銀고개에 配備하고 제200연대 제 2 대대는 무명고지에 진출하였다가 「불치」—官坪里구간에 전투배치하고 寶開山을 경유하여 南下중인 敵을 대기하였다.

6월 28일 : 01.00에 官基里에 敵 약 100명이 출현하였다는 報告를 접수하여 作戰計劃을 변경, 6월 29일 04.00를 기해 제200연대 제 2 대대는 官坪里에 CP를 두고 제 1 중대를 관장리, 제 2 중대를 「벌바우」, 제3 중대를 「불치」, 제5 중대를 官坪里에 배치하였으며 제200연대 제 3 대대는 立石里에 CP를 두고 제 1 중대, 제 2 중대를 송사, 제 3 중대를 立石里, 제 5 중대를 三岱里에 배치하였다. 또한 제207연대 제 1 대대는 龍遊里에 CP를 두고 제 1 중대를 雙龍里, 제 2 중대를 「편천」 제 3 중대를 長岩里, 제 5 중대를 「유치」에 배치하였고, 제207연대 제 3 대대는 沙器幕里에 CP를 설치하고 제 1 중대와 제 2 중대를 △310에, 제 3 중대를 陽地村에, 搜索隊를 君子峰에 각각 배치하였다.

6월 29일 : 06 00에 제200연대 제 2 대대(장, 金億淳경감)는 敵을 추격, 무명고지에서 敵의 主力을 발견하고 攻擊하여 30分間 交戰끝에 이를 擊退하였다 이때 敵은 忠北部隊로 알려진 제 2 대대와의 接戰을 忌避하였으나 제 2 대대는 계속 敵을 추격하였다.

戰　　果

射　殺 : 20명

鹵　獲 · 칼빈소총 10정, 실탄 10발, 아지트 파괴 15 개소

損　失 : 없음

6월 30일 : 03.00에 제200연대 제 3 대대 제 5 중대는 배골에서 敵 약 10명이 農牛를 掠奪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攻擊하여 이를 擊退하였다. 05.00에 제200연대 제 3 대대는 大興里—無名高地—龍化—下亭里線上에, 제207연대 제 1 대대는 활터—無名高地—立石—송사線上에 배치하여 敵의 來襲에 대비하였으며 제200연대 제 2 대대와 제207연대 제 3 대대는 探索을 계

속 하였다.

7월 1일 : 05.30에 大興里 無名高地를 搜索하던 제200연대 제 3 대대는 敵 약 120명을 발견, 攻擊하였으나 敵은 接戰을 忌避하고 退却하여 07.00에 △853까지 추격하여 30分間 交戰끝에 白岳山쪽으로 敗走하였다.

戰 果

射殺 5명 노획 · 칼빈소총 1정, 蘇式장총 1정

실탄 32발, 문서 다량

損 失 : 없음

7월 2일 : 06 00에 제200연대 제2대대는 屯德山에서 敵 약 100명을 추격중이며 09 30에 제207연대 제 1 대대는 △853에 출현한 敵 약 100명을 포위공격했으나 敵은 白岳山쪽으로 패주하였다 13.00에 제207연대 제 3 대대는 배골재에서 敵 30명이 잠복중임을 捕捉, 기습하여 3명을 사살하였다.

7월 3일 . 03.00에 제200연대 제3대대는 龍化里 北쪽 약 200m에 敵 30명이 출현하자, 즉시 공격하여 擊退시키고 피해없이 敵사살 5명, 포로 1명, 각종소총 3정을 노획하는 戰果를 올리고 17.30에 또 白岳山中腹에서 敵 약100명과 接戰하여 24 00까지 야간 전투가 격렬했으나 劣勢에 몰린 敵은 大興里一俗離山으로 敗走하므로 제3대대는 계속 추격하였는데 이 戰鬪에서 다음과 같은 戰果를 올렸다.

戰果 . 射殺 5명, 蘇式기관단총 1정, 蘇式장총 2정, 실탄 365발, 수류탄 5발

損失 · 없음

7월 8일 · 17 00에 李鉉相이 직접 지휘하는 全共匪들이 俗離山, 天皇峰을 中心으로 총집결하고 있음을 확인한 李夏榮사령관은 예하 4개전투대대와 지역내의 槐山, 報恩, 尙州署의 戰鬪隊를 총지휘하고 天皇峰을 包圍攻擊키 위하여 제200연대 제 2 대대(장, 金億淳 경감)로 하여금 三거리一法住寺 東南쪽 「아오너미」線上으로부터 天皇峰을 공격케하고 제200연대 제 3 대대(장, 梁碩興경감)는 天皇峰 西南쪽을, 제207연대제 1 대대(장, 宋相基경감)는 天皇峰 正北쪽을, 제207연대 제 1 대대(장, 金麟鎬경감)는 天皇峰 正東쪽으로 각각 연결 포위하여 총공격을 展開하였다. 제200연대 제 2 대대는 제 1 차 공격을 21 45에 개시하고 제 2 차 공격을 7월 9일 00.50에, 제 3 차 공격을 全大隊돌격전으로 5시간 전투 끝에 難攻不落을 壯談하던 天皇峰을 점령하였다.

이런 격전이 전개되는 동안 제200연대 제 3 대대는 △600에서 敵과 돌격전을 展開하였다

이 작전으로 敵의 主力은 크게 擊破되어 道藏山쪽으로 敗走하였다 제207연대 제1대대의 포위망을 벗어난 敵과 교전하던 제207연대 제1대대장 金麟鎬경감은 壯烈한 戰死를 하였다

구분 / 종별	戰果			損失		
	200R 2BN	200R 3BN	207R 1BN	200R 2BN	200R 3BN	207R 1BN
사살	32	26	5	3	3	10
포로	1					
부상	다수			2		9
각종소총	27	27			1	8
수류탄	31	13				
실탄	830	1,500				
탄창		1				
아지트		12				
의류	다수					

8월 8일 我軍으로부터 큰 타격을 받은 敵제6지대 殘匪 약 70명과 南部軍團 잔비 약10명이 七寶山一君子山一德加山 一帶에서 活動중인 것을 軍主補治路경비를 맡고있던 육군제9경비대대(장, 金鼎植소령) 2개중대가 공격하고 있다는 狀況報告를 받은 제200연대 제2대대장 金億淳경감은 즉시 사령부에 보고하니 李成雨사령관은 孫繼天 작전참모와 제200연대장 高尙憲총경을 대동하고 현지에 赴援하여 官坪里에 前方지휘소를 설치하고 제200연대로 하여금 尙州, 聞慶署에서 각각 1개소대씩 그리고 忠北보안과장 宣鎭澤총경이 지휘하는 1개 전투중대를 배속시켜 작전케 하였는데 이에 200연대장은 제2대대(장, 金億淳경감)를 주력으로하고 제3대대(장, 梁碩興경감)와 배속받은 전투부대를 협동케 하여 敵이 잠복하고 있는 佛峙一帶의 山岳을 搜索하면서 점차 포위망을 압축케하였다.

8월 9일 02.15에 제3대대 제1중대는 佛峙 北쪽 무명고지에서 敵 약 70명과 접전을 展開하였는데 敵은 30分간을 固守하다가 夜陰을 利用하여 佛峙쪽으로 敗走하는 것을 또다시 03.30에 佛峙에서 敵을 발견 기습공격하니 敵은 많은 損失을 입고 官坪里쪽으로 敗走함에 이르러 全戰鬪部隊는 敵에 대한 추격을 계속하였다.

8월 16일 : 14.00에 제200연대 제2대대(장, 金億淳경감)는 △763에서 敵 30명과 交戰 後 14 20에 敵의 據點인 七寶山, △763을 점령하고 추격하였으나 敵은 06 00에 忠北전투부대의 포위망을 뚫고 道明山으로 敗走하였으나 我軍은 차기작전을 위하여 부대정비를 실시하였다.

구분 / 종별	戰果		損失	
	200R 2BN	200R 3BN	200R 2BN	200R 3BN
사살	23	13		
각종소총	20			
B A R		1		
실탄		100		
현금	2만원			
부상				

8월 20일 : 20.00에 「배골재」에 있던 殘匪 약 120명이 忠北전투대의 공격을 忌避하여 가령山에 集結하고 있다는 捕虜의 진술에 따라 이를 확인한 제200연대 제2대대(장, 金億淳 경감)는 즉시 敵을 包圍하고자 各 중대로 하여금 15 00를 기하여 각각 목표지점에 배치케 하여 21.00를 기하여 敵을 기습코자 하였다. 그러나 제5중대(장, 車元彬경위)는 명령을 위반하고 △600東쪽, 河川西쪽도로변 民家에 있으면서 대대장 배치확인 無電에도 3회나 지정위치에서 공격대기중이라고 허위보고를 하다가 20.20에 敵으로부터 奇襲을 받아 중대장은 전사하고 그밖에 많은 損失을 입었다. 이때 공격을 대기중이던 각중대장들은 급히 출동, 敵을 「고모재」까지 맹추격하여 8월 21일까지의 추격에서 敵에게 결정타를 가하였는데 敵은 도저히 俗離山地區에서의 活動이 불가능함을 판단, 三道峰으로 이동하여 忠北 지구에는 극소수의 殘匪가 은거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 戰鬪에서 제200연대 제2대대는 무능한 전투지휘관으로 말미암아 명예가 損傷되었다

戰 果

射殺 12명, 負傷 15명, 蘇式장총 7정, 실탄 30발, 수류탄 1발, 다발총 1정, 쌍안경 1개 백미 1의

損 失

戰死 10명, 負傷 4명, CAR 4, 경찰관 신분증 66매, 행방불명 1명

라. 전투후의 개황

俗離山지구 작전을 展開하는 동안 敵이 淸州를 불의에 기습함에 이르러 이 작전에 대하여 國會와 政府에서는 非難이 일어났고 國民들도 크게 憤怒하였다. 共匪에게 拉致되었던 罪囚들은 자진하여 소속 淸州형무소에 돌아왔으나 이 事件으로 경찰국장 更迭과 해당 책임자를 해고하는 한편 金泰善치안국장의 사임등으로 淸州事件은 그 責任者에 대한 措置로 일단 收拾되는듯 하였는데 뒤따라 경찰전투사령부도 7월 27일자로 李夏榮사령관을 李成雨경무관과 교체하였으며 8월 27일자로 孫繼天경감의 후임

작전참모로 金德淳경감을 補任시키고 대대장도 전투지휘능력이 우수한 간부로 更迭후 9월 15일 李成雨사령관은 사령부와 全主力部隊를 咸陽으로 이동하였다.

戰 果

구분 / 부대별	사살	포로	부상	각종소총	CAR	쏘식장총	기관단총	다발총	수류탄	실탄	쌍안경	아지트	현금
200R 2BN	87	3	15	47	4	7	3	2	32	140	1	15	2만원
3BN	59	1		30			1		18	399		12	
207R 1BN	5												
3BN													
5BN	44	1		11				1	32	260			

損 失

구분 / 부대별	전사	부상	행방불명	소총	신분증
200R 2BN	13	6	1	10	66
3BN	3	1		1	
207R 1BN	10	9		8	
3BN					
5BN	5	8			

§參戰者의 證言

太白山지구전투경찰사령관

총경 李 夏 榮, 경무관 李 成 雨

俗離山지구작전은 慶北과 忠北의 治安確保를 위한 작전이면서 最悪의 조건속에서 勇戰敢鬪한 유격전이었다. 이 작전은 太白山지구경찰전투사령부가 期必코 수행하여야 할 작전인 동시에 이 작전으로 智異山지구 공비토벌에 即應할수 있는 전투력을 培養하는 큰 도움을 주었다

이 기간중에 高州市 기습사건은 전국민의 분노를 샀지만 이로 인하여 國民들이 절대 협력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불어넣어 주었으며 이 지역의 공비는 智異山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戰 訓

(1) 四周防禦의 중요성

高州기습사건은 사령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도시, 사주방어를 輕視한 지휘관의 책임이 큰것이다 제207연대 제1대대장 金麟鎬경감의 陣地離脫, CP에 위치하여 四周警戒를 소홀히 한것 과 제200연대 제2대대 제5중대장 車元彬경위의 허위보고 및 자신들의 安逸만 생각하고 위치를 이탈하고 작전지시를 불이행하여 경계를 소홀함으로써 전체 부대에 미치는 손실이 컸다.

(2) 遊擊戰法

공비와 접촉하면 여유를 주지말고 24時間 추격하는 것만이 敵을 殲滅할 수 있으며 敵만이 夜

襲을 하는 것이 아니고 我軍도 平素에 충분히 훈련하여 이를 응용해서 작전을 한다면 敵에게 큰 損失을 줄 수 있다. 또한 共匪와의 전투에는 반드시 至近距離사격만이 유효하며 특히 密林과 山岳지대 전투에서는 더욱 효과적이다.

(4) 三道峰作戰(1951년 6월 13일부터 1951년 6월 18일까지)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제2CC연대 제3대대 장 경감 梁 碩 興

敵 軍

人民軍 遊擊軍 勝利師團 李 鉉 相 지휘

나. 전투전의 개황

淸州습격직후 俗離山지구에 있던 李鉉相과 勝利師團은 종적이 묘연하였는데 이에따라 我軍은 多角的인 첩보활동을 展開하다가 團隊號 未詳인 敵集團 약 500명이 三道峰에서 活動中이라는 첩보를 入手하게 되었다.

敵軍의 狀況 : 淸州를 기습한 共匪의 주력이 潛跡中이다가 돌연 三道峰에 出沒하여 京釜線(金泉—大田)을 위협하고 있었다.

我軍의 狀況 李鉉相과 淸州습격공비의 종적을 찾기 위하여 계속 探索作戰을 展開하는 동시에 京釜線 취약지점에 대한 경계를 強化하였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ㄱ) 작전계획

敵이 金泉—大田間의 鐵路와 軍主補給路를 위협하고 그 沿邊의 小都市를 기습할 것이라는 첩보를 접한 我軍은 敵에 대한 先制攻擊을 加하기 위하여 제2CC연대 제3대대(장, 梁碩興경감)를 三道峰一帶에 침투작전을 展開케 하고 다음과 같은 작전지시를 하였다.

『① 대대주력은 月谷里에 그 CP를 설치하고 各 중대는 茂豊에 集結하라.

② 三道峰一帶에 대한 위력수색을 展開하라.

③ 敵을 발견하면 최대한으로 敵을 擊破하라.

④ 공격개시일은 51년 6월 13일 05.00로 한다.』

(ㄴ) 작전실시

6월 13일 : 제200연대 제3대대(장, 梁碩興경감)는 茂豊에서 三道峰을 向하여 威力搜索

中 17.20에 한전峰 中腹에서 敵 약 300명과 遭遇하여 火力으로 集中攻擊하게 되었는데 敵은 發惡的으로 我軍의 포위망을 탈출하여 「식기봉」쪽으로 분산 도주하였으나 我軍은 이를 계속 추격하였다.

6월 14일 : 「식기봉」과 眠岡三山사이의 협곡에서 휴식하고 있는 약 50명의 공비를 발견 이를 공격, 20.00에 敵은 交戰中 茂朱쪽으로 敗走하였다.

6월 15일 : 11.00에 三道峰과 石器洞 골짜기에서 敵 약 150명을 발견하여 이를 기습하니 敵은 魂飛魄散하여 暴風雨속에서 交戰 1時間만에 12.00에 「한지봉」쪽으로 敗走하고 我軍은 이를 계속 추격하였다.

6월 17일 : 10 00에 三道峰에서 敵 약 100명과 交戰하여 敵을 격퇴한 我軍은 다음날인 6월 18일 16.40 忠北 永同郡 高興里에서 敵 40명과 接戰 약 3시간만에 敵은 茂朱山쪽으로 敗走하였다.

라. 전투후의 개황

我軍의 계속전인 기습과 추격을 받아 타격을 받은 敵은 三道峰으로부터 德裕山쪽으로 南下하기 시작하고 我軍은 차기작전에 對備하여 부대정비를 실시하였다

戰 果

射殺 . 34명 노획 . M1 3정, 칼빈 3정, 0 3소총 2정, 다발총 138정, 쏘武장총 1정, 실탄 489발, 수류탄 13발, 農牛 1마리

損 失

負傷 15명, 輕機파손 1정

(5) 德裕山地區 戰鬪(1951년 7월 17일부터 / 1951년 8월 5일까지)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我 軍	
智異山지구 경찰전투사령관	경무관 辛 相 默	제 3 대대	장 경감 宋 相 基
		제 5 대대	장 경감 鄭 詩 煥
제205연대	장 총경 金 源 湧	제205연대 제1대대	장 경감 鄭 成 俊
제207연대	장 총경 文 鶴 東	제203연대 제1대대	제1중대
제 1 대대	장 경감 洪 南 植	咸陽署 栢田지서	전투대

敵 軍		敵 軍	
共匪, 南部군단	장 李 鉉 相	屈昌遊擊隊	장 金 明 相

나. 전투 전의 개황

太白山과 俗離山을 비롯한 忠北및 慶北지구에서 만행을 일삼던 李鉉相은 南部군단을 거느리고 三道峯一德裕山을 경유하여 智異山 入山을 企圖하고 있었다. 이 情報에 對備한 智異山지구 경찰전투대는 치안국장 대리인 辛相默 경무관의 命令에 의거하여 太白山지구에서 역전중인 제207연대(장, 文鶴東총경) 주력을 咸陽에 두고 장차 太白山지구 사령부의 이동에 대비하고 있었다 또 한편으로는 慶南 西部지구에 대한 作戰과 智異山지구 사령부 전투대대와 협동작전중이었다.

敵軍의 상황 人民유격군 南部군단 총사령관 李鉉相은 鴻州를 습격하고 俗離山지구에서 脫出하여 三道峯을 經由 德裕山에 入山하여 智異山으로 南下中이었고 居昌유격대 350명은 共匪 金明相의 지휘로 活動중이었는데 이 두 공비집단의 총병력은 750여명이 었다.

我軍의 상황 · 南原 前方사령부에 위치한 崔致煥 치안국장 대리는 智異山, 回文山, 白雲山, 母岳山 德裕山지구의 광범한 지역내의 공비토벌작전에는 병력이 부족함을 認定하여 慶北과 忠北을 平定한 太白山전투사령부의 全兵力을 智異山지구에 투입할 것을 計劃중이었다. 그리고 사령관은 우선 선발되어 온 제207연대를 慶南 西部지구에서 전술임무를 받게하여 공비토벌작전을 展開하였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ㄱ) 작전계획

敵의 총지휘부를 분쇄하여 그들 指揮系統을 瓦解케 하고 동시에 敵의 주력 부대를 격파하기 위하여 李鉉相이 南下하는 通路上에서 대기하다가 敵을 邀擊함을 作戰目標로 定하고 다음과 같은 作戰을 각 전투대에게 下達하였다.

『① D일 H시를 期하여 德裕山 主峯南方에 위치한 全北一慶南 道界線上의 要地인 60嶺峙에서 敵을 奇襲한다.

② 接敵 후에는 24시간 敵을 추격한다.

③ 상황에 수반하여 계속 작전을 수정하여 目標를 達成하며 제207연대가 主攻한다.

④ D일 H시는 1951.7.17 05.00로 한다.』

(ㄴ) 작전실시

7월 17일 : 05 00 智異山 전투사령부 전방지휘소를 咸陽郡 西下面 盤田里에 둔 辛相默사령관은 제205연대장 金源湧 총경과 제207연대장 文鶴東총경을 대동하고 作戰을 총지휘하였다. 主攻인 제207연대 제 5 대대(장, 鄭壽煥경감)는 助攻인 제205연대 제 1 대대(장, 鄭成俊경감)의 협조를 받으면서 行動을 개시하여 이날 12.00 配備線인 60嶺峙 稜線에 전투배치를 완료하고 대기중이었다.

이날 09.00에 636高地에서 400명의 敵과 接戰을 벌여 11.30까지 交戰하고 敵의 南下를 阻止하였는데 敵은 德裕山으로 敗走하므로 추격전을 전개하고 12.00에는 德裕山을 占領하

였다.

이때 側面에서 作戰中이던 제205연대 제 1 대대(장, 鄭成俊경감)는 主攻부대에 호응하여 이날 09.00에 932 고지에서 350명의 敵과 接戰을 벌여 11.40까지 激戰을 전개하여 12.00에 德裕山을 完全 점령하였다.

7월 24일 : 60嶺峙에서 我軍의 打擊을 받은 敵은 이날 17.00에 咸陽郡 栢田面 月鏡山에 潛入하여 栢田支署를 襲擊企圖중이라는 첩보에 의거하여 前方指揮所를 栢田面 平亭里에 이동하고 제207연대장 陣頭下에 작전을 개시하였다.

7월 25일 : 07.30 月鏡山 982高地—544高地 區間의 능선에서 100여명의 敵軍을 발견한 제207연대 제 3 대대(장, 宋相基경감)는 즉시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頑強한 敵軍과 地形의 不利로 926高地—544高地間 後線에 철수하여 次期作戰에 대비하였다.

7월 26일 : 19.00에 982高地에서 150명의 敵軍과 交戰하였으나 敵은 400명의 증강된 兵力으로 強襲하여 我軍은 作戰上 544高地를 철수하여 次期作戰을 對備하였다.

7월 27일 : 17.00에 제 3 대대(장, 宋相基경감)는 제 3 차 공격을 개시하고 982高地의 前方 150m 지점에서 150명의 敵과 交戰을 벌여 30분 後에 敵을 長安山쪽으로 敗走케 하였다.

7월 29일 : 16.00에 제 3 대대(장, 宋相基경감)는 982高地—926高地에 布陣中, 이날 24.40에 20명의 共匪를 발견하여 攻擊하였으나 敵은 光台洞 쪽으로 分散 潰走하였다.

8월 5일 : 05.30에 464高地 아래에 있는 津木里에 60명의 共匪가 접근중임을 발견한 제207연대 제 5 대대(장, 鄭壽煥경감)는 즉시 攻擊을 개시하여 激戰을 벌였는데 敵은 德裕山 쪽으로 潰走하였다.

라. 전투후의 개황

本作戰으로 엄청난 出血을 입은 李鉉相은 智異山 白武洞 쪽으로 潛跡하였으나 慶南 西部地區와 全南, 全北地區의 共匪들의 活動은 점차 惡化하기 시작하였다. 제207연대(장, 文鶴東총경)는 포로들의 陳述에 따라 共匪들에 관한 情報를 入手한 바에 의하면 이들은 높은 山岳으로 移動하여 討伐하기가 매우 곤란한 狀況에 놓이게 되었다.

戰 果

區分 / 戰果	사 살	포 로	쏘式장총	다 발 총	실 탄	現 金
205R 1BN	6		3		200	
207R 1BN	12					
3BN	20		2		250	朝鮮은행권 304,300圓
5BN	15	1	8	1	520	

損 失

區分 / 損失	전	사	부	상
205R 1BN				5
207R 1BN				5
3BN		1		9
5BN				8

§ 參戰者의 證言

제207연대장 文 鶴 東 총경

共匪들은 높은 後線에서 我軍의 行動을 낱낱이 살피고 交戰에 對備하였기 때문에 我軍은 戰鬪에 막대한 곤란을 겪었다. 특히 交戰 位置와 機動路의 距離가 너무 멀고 山岳이 험하여 智異山 토벌전은 正規戰 方式으로는 절대 곤란하였고 敵을 소탕하는데 애로점이 많았다.

(6) 論山 德木里 戰鬪 (1951년 7월 23일부터 1951년 7월 24일까지)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大屯山 전투대대 장 경감 朴 炳 益

敵 軍

忠南도당위원 장 南 忠 烈 | 論山도당위원 장 郭 海 鳳

나. 전투전의 개황

忠南 경찰국장 宋寬洙경무관은 大屯山 지구에서 活動하는 공비토벌에 專力중이었다.

敵軍의 상황 : 忠南도당위원장과 論山郡黨위원장은 大屯山 一帶에서 蠢動하여 大屯山주변 촌락에 대한 掠奪행위가 극심하였다.

我軍의 상황 大屯山 경찰 전투대대는 該敵을 擊滅키 위한 探索作戰을 계속하였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ㄱ) 작전계획

이 전투는 7월 23일 未明에 公州署管內 敬天支署를 奇襲하여 放火한 다음 경찰관 6명과 부락민 4명을 虐殺하고 또 부락민 6명을 납치하여 大屯山 방면으로 潛入하는 共匪를 擊滅키위한 것으로서 大屯山전투대대로 하여금 德木里부근에서 이 共匪를 격멸토록 하였다.

(ㄴ) 작전실시

7월 24일 : 大屯山 지구 德木里에 접근중인 共匪 80여명은 이날 04.30경 德木里에서 邀擊 대비중인 大屯山 전투대대(장, 朴炳益경감)와 接觸되어 약 1시간 동안 彼我는 격전이 전개되었다. 敵은 결국 我軍의 공격에 이기지 못하고 이날 06.00경 大屯山 쪽으로 敗走하였다.

라. 전투후의 개황

敬天支署를 襲擊한 共匪들은 警察의 불의의 邀擊에 敗走하였다. 警察은 계속 추격하여 大屯山까지 이르렀으나 共匪는 險惡한 밀림지대로 잠적함에 따라 探索戰을 전개하였다.

戰 果		損 失	
射 殺	21명	戰 死	6명
負 傷	11명	납치양민	6명
납치민 구출	12명	양민학살	4명
		支署소실	1동

§ 戰訓

① 敬天支署員은 경계태만으로 高州와 마찬가지로 奇襲을 받았다.

② 共匪의 이동통로를 정확히 판단함으로써 이를 격멸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7) 潭陽 山亭里 掃蕩戰(1951년 7월 23일)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全南 경찰연합전투부대 장 총경 曺 在 容

敵 軍

全南 總司

제115연대

나. 전투전의 개황

回文山지구의 공비와 호응한 全南공비들은 潭陽지구에서 빈번히 出沒하여 全南경찰은 방심할 수 없었다 曺在容총경이 지휘하는 全南 전투부대는 이 지구의 치안확보에 盡力하고 있었다

敵軍의 상황 白雅山에서 活動中이던 全南 總司와 제115연대의 공비 250여명은 아군의 攻擊을 받은 후, 潭陽郡 大德面 山亭里를 根據地로하여 부근 일대의 치안을 극도로 混亂케 하였다

我軍의 상황 · 全南 경찰은 共匪의 주력을 격파키 위해 全南 연합전투부대를 主攻部隊로 하여 기동

작전에 대비중이었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ㄱ) 작전계획

全南 경찰국장 韓景錄 경무관은 崔在容 保安課長에게 다음과 같이 全南 경찰연합 전투부대를 지휘하게 하였다.

『① D일 H시를 기하여 山亭里 공비를 급습하여 敵을 擊滅할 것.

② 敵의 主力을 分散逃走케 하여 各署戰鬪隊로 하여금 敵을 完全 섬멸하여 全南 北部지구의 平定을 도모할 것.

③ D일 H시는 1951. 7. 23. 04.00로 한다.』

(ㄴ) 작전실시

7월 23일 : 攻擊開始線에 집결한 각 중대는 이날을 기하여 山亭里를 지향하여 총진격을 개시하였다. 09.00에 共匪와 遭遇하게 된 이들은 3시간 동안이나 共匪와 血戰을 거듭하였다. 11.00에 共匪들은 警察의 포위망을 탈출하여 龍台里方面으로 分散도주하였다.

라. 전투후의 개황

警察의 攻擊을 받고 分散도주한 공비들을 所轄 咸陽署 戰鬪隊가 추격토록 하고 작전부대는 有治자구 토벌작전을 위하여 이동하였다.

戰果		損失
射殺	65명	없음
捕虜	10명	
99式小銃	11정	
쏘식소총	7정	
실탄	150발	
아지트	50개소	
공산지폐	13,000매	
불온문서	다수	

§ 戰訓

敵은 我軍의 공격을 받으면 屍體는 埋沒하고 그들 총기는 모두 거두어 가지고 退走하였다. 사살된 공비의 시체발견에만 만족하는 것은 作戰上 주의해야 한다. 戰鬪의 목적은 共匪의 火力을 완전히 분쇄하거나 이들 무기를 戰利品으로 획득하는데 두어야 할 것이다.

(8) 龍德山 포위작전(1951년 7월 2일)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全南경찰연합전투부대 장 총경 曺 在 容

敵 軍

全南 제3지구사령부

民靑연대 제17대 장 韓 月 洙

각 군당유격대

나. 전투전의 개황

제 3차 殘匪 殲滅기간중에 共匪의 주력을 격파하기 위하여 각 경찰서 전투대는 총공세를 取하였는데 공비들은 이로 말미암아 我軍이 공격키 곤란한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共匪의 主力을 격파키 위하여 全南 保安課長 曺在容 총경은 有治地區에서 지방공비와 일대 결전을 계획하였다.

敵軍의 상황 : 全南 南部地區 일대에서 暗躍中인 三地區司, 民靑연대, 각 군당유격대의 약 500명은 日軍출신 남로당원인 韓月洙의 총지휘하에 長興郡 有治山일대를 본거지로 長興, 康津, 靈岩, 海南, 和順, 寶城등 각 지방을 크게 위협중이었다.

我軍의 상황 : 각 單단위로 所轄지역내의 殘匪를 격멸중인 全南경찰은 共匪주력을 지구별로 각개 擊滅코자 하였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ㄱ) 작전계획

全南 경찰국장 韓景錄 경무관은 曺在容 총경에게 本局 기동대와 羅州·和順·寶城·靈岩·長興·康津·光州·咸平·木浦·務安·筏橋·高興·海南 등의 각 경찰서에서 차출한 총병력 1,560명으로 全南경찰연합전투부대를 편성하게 하고 有治지구 공비토벌을 위해 다음과 같은 命令을 하달하였다.

『① D일 H시를 기하여 각 중대는 龍德山 雪月里를 목표로 포위망을 구성하여 共匪들의 주력을 격파하고,

② 共匪들이 포위망을 탈출하면 철저한 추격전으로 이들을 分散擊滅하라.

③ D일 H시는 1951. 7. 29 05.00로 한다.』

(ㄴ) 작전실시

7월 29일 : 이날을 기하여 일제히 탐색전진한 戰鬪부대는 16.00에 瑞興川 牛峙 부근에서

약 500명의 共匪들이 休息中임을 발견하여 총공격을 전개하였다. 3시간 동안에 치열한 擊戰을 벌여 이를 격파하니 共匪들은 사살된 제3지구사령관의 시체를 버리고 魂飛魄散하여 國師峯쪽으로 分散 도주하였다.

라. 전투후의 개황

각 전투부대는 계속 殘匪들을 追擊하였으므로 이에 大혼란상태를 이룬 敵은 많은 損失을 입었는데 이 작전의 성공으로 작전부대는 次期作戰을 위하여 대비하였다.

戰 果			
射 殺	96명	白 米	5叭
捕 虜	19명	보 리	4叭
M—1	2정	실 탄	178발
쏘式소총	4정	아지트	36개소
99式소총	11정	損 失	
수류탄	4발	戰 死	1명
農 牛	2頭	傷 負	3명

§ 戰訓

① 敵의 據點을 奇襲攻擊함으로써 敵의 根據地를 占領할 수 있었다.

② 敵의 急速再編成을 許容치 않음으로써 敵을 各個分散케 함이 勝利의 要諦이다.

(9) 新等支署 攻防戰 (1951년 8월 13일부터 1951년 8월 14일까지)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 軍

제207연대 제1대대 장 경감 洪 南 植 | 新等支署 전투대

敵 軍

南部軍團 장 李 永 檜 |

나. 전투전의 개황

共匪들이 陜川署 佳會支署를 습격함에 이르러 지역내 各 서장들은 支署경계를 強化하는 가운데 정규 전투경찰부대는 敵의 主力을 擊破하기 위하여 탐색 중이었다.

我軍의 상황 李永檜가 지휘하는 南部軍團의 일부인 400여명의 共匪는 新等支署의 습격을 企圖하고 율현리를 경유하여 침투중이었다.

我軍의 상황 : 8월 13일 09.00에 敵이 新等支署 前方 약 800m 지점에까지 접근하므로 新等支署 전

투대는 전투배치를 완료하고, 新等面 단계리에서 부대를 정비중이던 제207연대 제1대대에 이를 통보하였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ㄱ) 작전계획

新等支署의 전투대는 共匪로부터의 攻擊이 시작되자 支署를 死守하면서 응원부대의 도착과 동시에 육박전을 감행하려 하였는데 이에 應援한 제207연대 제 1 대대는 狀況에 즉응하는 作戰으로 이들을 격퇴코자 계획하였다.

(ㄴ) 작전실시

8월 13일 : 09.0C에 新等支署의 전투대는 支署의 外廓陣地에서 약 30명의 共匪들과 交戰하였다. 이때 共匪들은 약 60명으로 我軍의 측면을 攻擊하고자 하였다. 이때 비상出動한 제207연대 제 1 대대(장, 洪南植경감)는 交戰地域에 도착하여 激戰을 展開하였다. 彼我間 치열한 攻防戰을 계속하다가 18.1C에 全 대대병력은 敵陣으로 突進하니 共匪들은 19.C5에 「둔철동」方面으로 潰走하였다. 我軍은 敵을 계속 추격하는 한편, 22 CC에 1932 高地를 점령하고 단계리—院旨洞間의 보급로를 확보하고 21.CC에 新等支署 전투대는 다시 支署경계에 임하였다.

8월 14일 : 09.0C에는 長田里에서 약 30명의 共匪와, 14.CC에는 원계에서 약 70名의 共匪와 각각 遭遇하여 30여분간 이들과 交戰끝에 격파하였는데 敵은 마침내 「둔철동」方面으로 潰走하였다.

라. 전투후의 개황

共匪들은 많은 損失을 입고 敗走하는데 我軍은 新等支署의 수비에 만전을 期하는 한편 제 1 대대는 次期作戰을 위하여 이동을 준비하였다.

戰果		損失	
射殺	28명	戰死	1명
負傷	27명		
蘇式경기관총	1정		
蘇式소총	2정		

(10) 矢川作戰(1951년 8월 18일부터 1951년 8월 24일까지)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軍			
제207연대	장 총경 文 鶴 柬	제205연대제1대대	장 경감 鄭 成 俊
제1대대	장 경감 洪 南 植	河東署戰鬪隊	장 경감 李 鐘 九
제3대대	장 경감 宋 相 基	山淸署矢川戰鬪隊	장 경감 柳 福 文
제5대대	장 경감 鄭 壽 煥		

敵軍			
南部軍團	장 李 鉉 相	제802연대	장 金 今 生
慶南道黨		제803연대	장 金 起 烈
慶南道黨 遊擊隊		제804연대	장 李 順 泰
제303연대		山淸郡黨	
제81사단	장 金 興 福	河東郡黨	

나. 전투전의 개황

李鉉相이 指揮中인 共匪 약 800명은 山淸署 관내에 있는 三壯支署와 矢川支署를 습격하고 관내에서 掠奪中이므로 警察은 三壯과 矢川支署를 탈환하기 위한 전투를 展開하였다.

敵軍의 상황 : 李鉉相은 약 800명의 共匪를 총지휘하여 三壯과 矢川을 襲擊하고 面內의 住民에 대하여 掠奪을 恣行하였다.

我軍의 상황 : 矢川支署는 敵軍에 의해 孤立되어 無援狀態에서 奮戰中이었다. 제207연대는 共匪를 擊退하고 矢川支署員을 救出하기 위하여 이동하였다.

다. 전투 경과의 개요

(ㄱ) 작전계획

연대장 文鶴柬 총경은 智異山지구 전투사령부 작전명령에 의하여 共匪를 擊退하기 위해 예하 主力을 지휘하여 前方指揮所를 七亭里에 開設한 다음, 다음과 같이 작전을 계획하였다.

『① D일 H시를 期하여 각 대대는 目標에 突入하여 矢川支署와 三壯支署를 奪還하고 부근 일대의 殘敵을 擊破한다.

② 補給路에 대한 경비를 철저히 하여 敵의 奇襲에 대처토록 한다.

③ D일 H시는 1951. 8. 18 20. 00로 한다.』

(ㄴ) 작전실시

8월 18일 : 이날 각 전투대대는 지정된 목표를 指向하여 진출하였다.

8월 19일 : 14.00에 제 1 대대는 △356 및 △515를 確保하고 있었는데 共匪 100여명과 遭遇하여 4시간동안 이들과 치열한 交戰끝에 그들을 「금개동」쪽으로 潰走케 하였다. 07.00에 제 3 대대와 제205연대 제 1 중대는 白雲洞 300高地에서 약 100명의 敵과 遭遇하자 이들이 502高地로 退走하므로 이를 추격하여 11 00에 402高地의 300 m 地點에서 300여명의 敵을 발견하고 이들을 614高地까지 追擊하였으나 不利한 地形條件으로 말미암아 我軍은 일단 反轉하였다. 이날 05.00에 行動을 개시하여 진격중이던 제 5 대대는 矢川支署를 포위중인 敵을 側面攻擊하기 위하여 栗越峙에 진출하였다. 12.00에 300여명의 敵을 擊退하고 栗越峙를 占領하였으나 敵의 再反擊으로 물러나고 말았다. 그러나 이날14.00~18.00에 실탄보급을 받아 激戰끝에 栗越峙를 再奪還하는데 성공하였다. 矢川支署 전투대는 이날 24 00까지 支署를 防禦하기 위하여 결사적으로 이들과 抗戰하였다.

8월 20일 : 02.00 矢川支署 전투대는 실탄의 부족으로 부득이 矢川支署를 포기하고 主力에 합류하였다. 제 3 대대는 河東署의 전투대와 협동하여 攻擊을 감행하였는데 17.00에 약 100명의 共匪들이 河東署 전투대의 측면을 공격하여 왔으나 善戰끝에 이들을 擊退하였다 17.00에 제 5 대대와 河東署 전투대는 614高地에 남아있는 共匪 30명을 攻擊하였다.

8월 21일 : 06.30에 약 200명의 敵을 栗越峙에서 발견한 제 5 연대는 이를 擊退함에 이르러 敵은 三壯쪽으로 敗走하였다. 그리하여 각 전투대대는 8 월 23일 24.00까지 614 高地를 비롯한 白雲洞의 무명고지와 栗越峙 그리고 土亭里일대를 탐색하고 그 수비에 전력하였다

8월 24일 : 06.00에 제 3 대대는 矢川支署전투대와 合勢하여 탐색하던중 402高地에서 3명의 敵을 射殺하였다. 14.30에는 矢川支署를 奪還하고 右翼要人 100여명을 구출하는 한편 敵의 主力을 內大里쪽으로 격퇴하였는데 50여명의 일부共匪는 院里 쪽으로 退走하였다. 15.00에 全 작전부대는 矢川支署를 완전 탈환함에 따라 이 전투를 종료케 되었다.

라. 전투후의 개황

丹城—矢川—三壯을 連하는 機動路는 敵으로부터 攻擊당하기 쉬운 地形이어서 矢川 탈환후의 문제가 큰 일이었으므로 MSR 경계부대에서 義勇警察隊가 담당하고, 경찰전투부대는 수비대로서의 역할에 치중하였다. 제207연대는 次期作戰을 위하여 철수하고 제205연대 제 1 대대와 河東署 전투대는 矢川地區의 殘敵 격멸作戰을 전개하였는데 矢川地區와 三壯地區는 平穩하였다.

본 작전기간중 제205연대 제 1 대대의 鄭成俊 경감은 共匪에 대한 귀순공작으로 人民軍 總尉出身인 文順默을 귀순케 하였는데, 治安局長 代理官 崔玟煥 警務官은 그를 警衛로 특채하여 智異山지구 전

투사령부 직할인 특별유격대「보아라부대」隊長으로 임명하여 智異山地區 공비토벌작전에 많은 공훈을 세우게 하였다.

戰果		0.3"	1정
射殺	110명	쏘式小銃	10정
捕虜	2명	99式 소총	3정
負傷	120명	損失	
美式輕機	1정	戰死	3명
쏘式輕機	1정	負傷	14명
多發銃	1정	납치	1명
M 1	1정	총기	5정

(11) 鎭安地區 掃蕩作戰(1951년 8월 19일부터 1951년 9월 17일까지)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軍

全北 경찰국	장	경무관 尹明運	茂朱署 전투대	장	경감 朴泰緖
보안과	장	총경 孫繼天	錦山署 전투대	장	경감 張元煥
全州署 전투대	장	총경 朱大圭	鎭安署 白雲支署장		경위 朴鳳吉
鎭安署 전투대	장	경감 鄭鎭球			

敵軍

忠南 도당위원	장	南忠烈	全北 도당위원 장 方俊杓
論山 군당위원	장	郭海鳳	錦山 유격대

나. 전투전의 개황

我軍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가운데 全南北 일대에서 暗躍하는 공비들은 李鉉相의 智異山 入山을 계기로 일단 深山地帶로 이동하여 我軍의 공격을 忌避하였다. 非常경비 총사령관은 이 共匪들을 擊滅키 위하여 강력한 攻勢를 취할 것을 전국 경찰국장에게 엄명하였다.

敵軍의 상황 . 大屯山 지구에서 活動하던 忠南도당과 錦山 유격대 약 600명은 完州, 錦山, 鎭安郡界인 錦山郡 南二面 乾川里—上槐木洞—下槐木洞 부근의 山岳에 집결하여 완강한 진지를 구축하고 일대의 경찰관서를 습격하는 한편 소위 補給鬪爭을 자행하여 良民을 위협하였는데 이 일대는 완전히 무경찰상태였다.

我軍의 상황 : 전국적으로 공비토벌을 위한 大作戰을 전개중이었으며, 全北局長은 雲長山 일대의 敵主力을 擊滅키 위한 措置를 구상하고 있었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ㄱ) 작전계획

全北警察局長은 보안과장 孫繼天 총경에게 共匪를 擊滅키 위하여 雲長山지구에서 포위공격을 하는 전투부대를 편성하여 다음과 같은 作戰을 실시하라고 下達하였다.

『① D일 H시를 기하여 行動을 전개하며

② 각 전투대에 攻擊目標를 殲襲토록 하고

③ 追擊戰과 夜間 沿伏戰으로 敵을 擊滅토록 하고

④ 제 1 차 공격이 끝나면 狀況에 즉응하여 반복공격토록 하고

⑤ D일 H시는 1951. 8. 19 05 00로 한다』

(ㄴ) 작전실시

8월 19일 : 鎭安전투대가 05 30까지 乾川里—上槐木洞—738高地를 점령하고 共匪들의 퇴로를 차단하였으며, 또한 05 30에 茂朱전투대가 白岩 608高地를 점령하고 敵의 퇴로를 차단하였다.

이날 05 30에 完州郡 雲洲面 大坪里 南方高地를 全州 전투대가 점령하였으며 下槐木洞은 錦山전투대가 점령하였다. 각전투부대는 敵의 거점을 완전 포위하고 각부대는 점령지대에 1/3兵力만 수비케하고 全兵力으로 總攻擊戰을 전개하였다. 23일 19 00까지 계속 포위당한 敵은 我軍의 포위망을 分散脫出하여 白雲山쪽으로 退走하였으나, 忠南도당과 그 예하공비집단과 錦山유격대에 이 지역에서 다시는 暗躍할수 없을 程度의 損失을 주었다.

敵의 총사령관 李鉉相은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여 예하 全共匪의 死活問題를 토의키 위하여 8월 20일 智異山 白武洞에서 慶南北, 全南北, 忠南北 도당위원장의 비밀회의를 개최하고 투쟁방법을 숙의하였는데 我軍은 계속 이를 警戒하고 있었다.

9월 9일 : 忠北도당 일부와 全北도당 일부의 공비가 鎭安署 白雲支署 관내의 盤松里를 비롯한 4개部落에 침입하여 民家에서 農牛 10마리와 많은 糧穀을 약탈하여 萃岩里쪽으로 도주하였다. 이 敵情을 申告받은 白雲支署 주임 朴鳳吉 경위는 정예대원 49명을 지휘하여 敵을 추적하였는데 9월 7일 15. 30에 萃岩里 계곡에서 放心하고 오락회를 하고 있는 敵을 발견하여 奇襲하였는데 敵은 不意의 襲擊을 받아 70여명의 屍體를 남기고 900高地 쪽으로 분산 退走하였다.

라. 전투후의 개황

全北警察局長의 適切한 攻擊으로 分散된 敵은 白雲山 주변부락에 만행을 가하였으나 白雲支署 戰鬪

隊의 奇襲을 받고 白雲山으로 잠적하였다. 이 전투의 성공이 전국에 알려지자 전국경찰은 共匪活動地區에서 경쟁적전투가 盛行하여 공비격멸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결과가 되어 國立警察의 士氣는 날로 충천하였다.

戰果		기관포탄	200발
射殺	201명	무전기	5대
捕虜	194명	라디오	3대
重機	1정	재봉기	2대
輕機	3정	白米	72叭
小銃	49정	식기	180개
권총	4정	양민구출	6명
수류탄	64발	損失	
소총실탄	1949발	負傷	4명
박격포탄	35발	失踪	2명

(12) 龍楸峯 섬멸작전(1951년 8월 25일부터 1951년 8월 26일까지)

가. 참가부대 및 주요지휘관

我軍

治安局長 대리관 경무관 崔致煥	雙置지구 全南北聯合전투대
智異山지구전투사령관 경무관 辛相默	淳昌署 전투대 장 경감 崔鎭龍
全南경찰연합전투부대 장 총경 曺在容	지원부대
全北제18전투대대 장 경감 車一赫	美空軍 群山기지 전폭편대

敵軍

全北機砲兵團 장 李哲俊	井邑군당유격대 장 白安基
카츄샤兵團	淳昌군당유격대
번개 병단	

나. 전투전의 개황

경찰토벌대로부터 連日 공격을 받은 敵은 李哲俊의 지휘하에 全南北 道界에 있는 龍楸峯 密林속에 隱居하면서 附近일대의 치안을 攪亂하므로 崔致煥 경무관은 美空軍 당국과 事前에 交涉하여 龍楸峯 爆擊을 요청하여 快諾을 얻고 全南北 行政경찰 전투부대로 이 지구공비를 섬멸하기 위하여 智異山지구 전투사령관의 총지휘하에서 작전을 수행토록 하였다.

敵軍의 상황 全北 도당위원장 万俊杓는 戰鬪에 능한 李哲俊, 白安基로 하여금 雙置지구에서 共匪 400명으로 최대한 후방치안을 攪亂토록 지령하였다.

我軍의 상황 : 湖南지방에 散在하여 活動中인 共匪격멸에 있어 戰鬪兵力의 심한 不足을 느끼고 있었던 治安局長 대리관은 全南北 경찰局의 예하병력중에서 戰鬪요원을 차출하여 戰鬪兵力을 補充하고 있었다.

다. 전투경과의 개요

(ㄱ) 작전계획

治安局長대리관 宣致煥 경무관은 敵情을 분석하고 세밀한 作戰계획을 수립하여 智異山지구 전투사령관 辛相默 경무관의 전방지휘하에 작전을 전개하도록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① D일 H시를 期하여 각 전투부대는 龍湫峯을 包圍하고

② UN空軍의 對地攻擊과 동시에 作戰部隊는 포위망을 압축하여 최대한으로 敵에게 出血을 강요토록 하고

③ D일 H시는 1951. 8.25. 06 00로 한다 』

(ㄴ) 작전실시

8월 25일 : 06.00에 「가막골」을 중심으로 완전 포위하여 각 전투부대는 敵의 動靜을 감시하면서 제 2 포위선까지 진출하여 포위망을 압축하고 空軍의 對地攻擊을 대기하였다.

8월 26일 : 14.40에 UN空軍편대는 목표 A에 급강하하여 波狀攻擊을 하였는데 共匪는 공군기의 폭격에 魂飛魄散하여 밀림속으로 도주하였다. 全戰鬪部隊는 이때를 놓치지않고 일제히 총공격을 개시하여 일대探索戰을 전개하니 敵은 최후발악으로 抗戰하였으나 이날 19.00에 그들은 旣成陣地를 포기하고 龍湫峯 北方 405高地로 이동하여 집결중이었는데, 作戰部隊는 이를 계속 추격하여 포위하고 UN공군에 다시 支援攻擊을 요청하였다.

20 00에 UN空軍의 再出擊으로 30여분간이나 폭격을 하니 敵은 극도로 당황하였으며 我軍은 총돌격전으로 敵의 主力을 격파함에 이르러 殘敵은 사방으로 분산 退走하였다.

라. 전투후의 개황

UN空軍의 支援爆擊을 신호로 我軍의 총공격을 받은 공비들은 완전히 攻擊능력을 상실하고 사방으로 분산하였으나 각처에서 경찰전투부대는 이를 각개 격파하였다.

특히 回文山지구 「가막골」은 守備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天然的 地形이었는데 我軍은 이 지구를 계속 점령하여 경계임무의 철저를 期하였다.

戰 果

區分 / 부대별	射殺	捕虜	각종 소총	실탄	白米
全北 경찰부대	56	16	61	750	31叭
全南 경찰부대	114	11	73	820	65叭

×射殺은 UN軍 폭격시의 폭사시체를 合算함.

損 失

구분 / 부대별	戰死	負傷
全北 경찰부대	4	7
全南 경찰부대	9	8

§參戰者의 證言

◇智異山지구 사령관 辛 相 默

「가막골」을 占有치 못하면 回文山지구 토벌작전은 我軍의 막대한 손실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UN空軍의 空中攻擊으로 敵을 격파하였다. 이후부터는 回文山지구 공비토벌은 절대적으로 有利했고 本戰鬪도 사실상 空軍의 지원 덕택에 성공하였다.

附　　錄

1. 作命·作指·訓令

2. 年　表

3. 戰歿者 名單

4. 索　引

1. 作命·作指·訓令

부록 제1호

1951. 5 4. 20.00

陸本作命 제266호

지도 AMS L552 25만분지 1 韓國

六 邱

육 군 본 부

군대구분

제1군단 군단장 육군소장 白善燁

수도사단 사단장 육군준장 宋堯讚

제11사단 사단장 육군준장 崔德新

제3군단 군단장 육군소장 劉載興

제3사단 사단장 육군준장 金鐘五

제9사단 사단장 육군준장 崔 錫

제8사단 사단장 육군준장 崔榮喜

太白山地區 전투사령관 육군준장 李亚一

. 가. 最近 정보요약 참조

제1, 제3군단과 교전한 敵 제3, 제5군단은 甚大한 손해를 받아왔음.

나. 美 제10군단장은 韓國軍과 連繫하여 전진할 지역내의 敵을 격멸하며 "미조리"線을 확보하여 韓國軍의 左(西)側方을 엄호한다.

. 가. 軍은 제1, 제3군단으로서

(1) D일 H시 가능한 최대속도로서 전진할 지역내의 敵을 격멸하여 "미조리"線을 확보하려 한다.

(2) 美 제10군단장과 상호 협의된 전투地境線上의 협의점에서 접촉을 유지하여 美 제10군단장과 전진을 조정하려 한다.

나.

(1) 미조리 線((Line Missouri)

(DS 0911)로부터 東北으로 新月里(DT 1935)—915高地(DT 2117)—(DT2418)—(DT3225)—東方으로(TD 5027)—海岸線(TD 6525)

(2) 제3군단과 美 제10군단간 전투地境線.

現 전투地境線上 986高地(DT 3202)(제3군단에 속함) 西北方으로(DT 2012)—(DT 1318)—602高地(DT 0724)

(3) 제1, 제3군단간 전투지경선

현 전투地境線上 加里峯(DT 4316)(제3군단에 속함) 西北方으로 766高地(DT 3324)(제 1

군단에 속함) 北方으로 加田里(DT 3141) 협조선은 瑞興里(DT 3126) 寒溪里(DT 3521)및 必禮(DT 4414)

다. D일 H시는 1951년 5월 7일 08.00

三. 가. 제1군단

(1) D일 H시에 可能한 최대한의 속도로서 전진할 地域內의 敵을 격멸하고 "미조리"線을 확보하라.

(2) 전진함에 있어서의 계획과 실행에 있어서 제3군단장과 협조하라.

(3) 정상적인 계통을 통하여 추가 필요한 함포사격과 공중지원을 요청하라.

(4) 제1, 3군단間의 전투地境線에 沿하여 지시된 協調點에서 제3군단과 접촉을 확립하라.

나. 제3군단

(1) D일 H시에 가능한 최대한의 속도로 전진할 지역내의 敵을 격멸하고 "미조리"線을 확보하라.

(2) 제1군단과 美 제10군단과 전진함에 있어서 계획과 실행에 있어 협조하라.

(3) 美 제10군단과 협조점을 선택함에 있어서나 접촉을 확립함에 있어서 협조하라.

(4) 제1, 제3군단間의 전투地境線에 沿하여 지시된 협조점에서 제1군단과 접촉을 확립하라.

(5) 冠岳里(DT 2307) 桃村里(DT 1414)間 도로 공동사용에 관하여 美 제10군단장과 협조하라.

(6) 정상적인 계통을 통하여 추가 필요한 공중지원을 요청하라.

다. 제8사단은 現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라. 太白山地區 전투사령부는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1) 전진은 군단간 및 군단내의 協調를 실시하여 敵에게 최대한의 손실을 가하고 주요한 전부대의 건전한 태세를 維持하라는 기본지시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각급 지휘관은 1951년 3월 9일附 陸軍本部 서한 별지에 약술한 「戰鬪原則」을 엄수하여야 한다.

四. 行政命令

1951년 4월 1일附 修正 제18호 참조.

五. 가. 通信規定—현 통신규정 유효하나.

나. 지휘소 위치

(1) 陸軍本部 大邱(DQ 6469)

(2) 제 1 군단 注文津(DS 8564)

(3) 제 3 군단 下珍富里(DS 6265)

다. 通信軸線

(1) 제1군단 : 注文津(DS 8594)—襄陽(DS 6714)

(2) 제3군단 : 下珍富里(DS 6265)—縣里(DT 4101)

陸軍總參謀長 陸軍中將 丁 一 權

부록 제2호

1951. 5. 10. 12.00

陸本 작전계획 제25호 六 邱

지도 AMS. L552 25만분지 1 六韓 陸 軍 本 部

군대구분 : 변경 無

. 가. 省略

나. 美 제10군단

(1) 계속 현재 임무를 수행하여 韓國軍과 연결하여 韓國軍의 左(西)側方을 엄호하면서 "미조리"線을 점령한다.

(2) 제8군 사령관의 別命이 있을 때 공격하여 "토페카"線에 진출함. ("토페카"線 : (CS 7899)～699高地(CS 9795)～"미조리"線上 蒼幕洞(DT 1360)을 連한 일반선)

(3) 別命 있을 때 "토페카"線으로부터 계속 "캔사스"선에 진출할 준비를 함. ("캔사스"線 : (CT 8009)～可兒里(DT 2423) 부근의 "미조리"線에서 合함).

(4) 美 제10군단 지역내에 있는 韓國軍 제3군단의 부대를 교대함.

. 가. 軍은 제1군단 및 제3군단으로서

(1) 현 임무를 계속하여 지역내의 "미조리"線을 확보하려 한다.

(2) 別命있을 때 修正된 "미조리"線에 계속 전진할 준비를 하려한다.

나. (1) 修正된 "미조리"線은 左記와 같음. 현 "미조리"線上(DT 2723) 부근으로부터 西方으로 (DT 2423) 부근에서 "캔사스"線에 合함.

(2) 美 제10군단—韓國軍간의 전투지경선은 下記와 같이 변경됨. 現 전투지경선상(DT 3003) 부근으로부터 西北方으로(DT 2517)에 이르러 1304 高地(DT 2230)〈제3군단에 속함〉～大思山(DT 1935)〈제3군단에 속함〉～(DT 1845). 美 제10군단장 및 제3군단장간의 상호 협의 된 日時附로 효력을 발생함.

(3) 제1, 제3군단의 전투地境을 下記와 같이 修正함. 現 전투지경선상 加里峰(DT 4215)〈제3군단에 속함〉에서 西北方으로 鞍山(DT 4121)〈제3군단에 속함〉 鷹峰山(DT 3931)〈제1군단에 속함〉～獐項(DT 3147)〈제1군단에 속함〉. 제1, 제3군단장간 상호협의 된 日時附로 효력을 발생함.

다. 이 계획은 陸本命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실행됨.

. 가. 제1군단

(1) 가능한 최대속도로서 현 임무를 계속하여 지역내의 "미조리"線을 확보하라.

(2) 제3군단장과 제3군단 지역내에 있는 제1군단의 부대를 交代함에 있어서 협조하라. 제3군단지역내에 있는 제1군단의 병력은 제3군단의 交代가 완료하여 제3군단장이 승인할 때까지 轉用치 못한다. 양 군단장이 상호 합의하여 전투지경선의 효력이 발생한 시일을 陸本에 보고하라.

(3) (DT 4026) 및 (DT 3931) 부근의 협조점에서 제3군단과 접촉을 유지하라.

나. 제3군단

(1) 가능한 최대 속도로서 현 임무를 계속하여 지역내 "미조리"신을 확보하라.

(2) 美 제10군단장과 美 제10군단 지역내에 있는 제3군단의 부대를 交代함에 있어 협조하라. 美 제10군단장이 승인할 때까지 轉用치 못한다. 양군단장이 상호 합의하여 전투地境線의 효력이 발생한 시일을 陸本에 보고하라.

(3) 제3군단 지역내에 있는 제1군단의 병력은 가능한 限 신속히 교대하라.

(4) 제1군단과(DT 4026) 및 (DT 3931) 부근의 협조점에서 접촉을 유지하라.

(5) 美 제10군단과 군단강간에 합의된 협조점에서 접촉을 유지하라.

다. 제8사단. 계속 현 임무를 수행하라.

라. 태백산지구 전투사령부 계속 현 임무를 수행하라.

四. 變更없음.

五. 變更없음.

부록 제3호

1951. 5. 11. 24 00

陸本作命 제267호 大 邱

지도 : AMS L552 25만분지 1 韓國 陸 軍 本 部

군대구분

제1군단 군단장 육군소장 白善燁

수도사단 사단장 육군준장 宋堯讚

제11사단 사단장 육군준장 崔德新

제3군단 군단장 육군소장 劉載興

제3사단 사단장 육군준장 金鐘五

제9사단 사단장 육군준장 崔 錫

제8사단 사단장 육군준장 崔榮喜

太白山전투지구사령부 사령관 육군준장 李亿一

一. 가. 敵軍

(1) 韓國軍 정면에 출현한 敵은 北共 제5군단임. 北共 제32사단은 제3군단의 부대와 교전하였으며 北共 제6사단은 제1군단의 일부와 교전하였음.

적은 敞山(DT 4121)附近의 유리한 지형을 점령하고 있음. 北共 제12사단은 杆城(DT 5446) 부근의 北川江에 沿하여 진지를 점령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北共 제5군단의 추정 병력은 16,500이며 전투병력은 15,000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최근의 정후에 의하면 敵 제5군단은 상당한 정도로 조직이 문란하며 소수의 지원화기(박격포, 砲)를 소유할 뿐 아니라 제5군단의 공격위력은 微力한 것으로 보인다

(2) 현재 敵의 공세능력은 적의 어떠한 성공할 기회를 얻기 위하여 新병력을 사용함에 달렸다. 새로이 전투가입이 가능한 敵의 예비는 북공군 제2군단과 중공군이다. 북공군 제2군단의 추정兵力은 20,000이나.

(3) 敵의 공격개시 전에 집결지역으로서 가장 중산이 있는 地域은(DT 3025)로부터 (DT 3050)에 이르는 昭陽江 河谷線이다.

(4) 최근의 敵 후방지역에 있어서의 車輛 이동의 빈번은 즉시 공격을 취함에 있어서의 지원가능한 소종류의 보급품이 집적되었음을 시사한다.

나 美 제1, 제9, 제10군단은 충분히 前方에 강력한 엄호부대를 배치하여 여하한 敵의 공격이라도 適時에 경계를 실시하는 一方 강력한 방어진지를 현재 점령하고 있는 일반선에 구축하여 현 진지의 北方에 있어서의 敵을 격멸한다.

二. 가. 軍은

(1) 1951년 5월 12~13일 夜에 공세작전을 중지하려 한다.

(2) 적의 조직적인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縱深진지를 점령하고 주요부대의 건전한 태세를 유지하며 砲 기타 지원화기를 가능한 최대한으로 사용하여 1951년 5월 13일 여명에 개시하여 概略 無名線(No Name Line)에 連하는 방어에 최적한 지형상에 현점령진지를 정리하려 한다.

나 (1) 無名線

(DT 2506)—(DT 2712)—1519高地(DT 4315)—降仙里(DT 6523) 부근간의 방어에 최적한 지형을 이용하여 군단장이 선택한 선으로 함.

(2) 전투地境線—變更없음.

三. 가. 제1군단

(1) 1951년 5월 12~13일 夜에 공세작전을 중지하라.

(2) 제3군단과 협조하여 개략 담당지역내의 無名線에 連하여 縱深있는 강력한 방어진지를 점령하라. 선택한 방어선을 가능한 限 신속히 陸軍本部에 보고하라.

(3) 제3군단과 협조하여 敵을 격파하며 적의 공격을 지연시키고 適時에 경보를 發할 수 있도록 無名線의 前方에 강력한 엄호부대로서 경계부대선을 점령하라.

(4) 제3군단과 군단간의 전투地境線과 주 저항선의 교차점 및 군단간 전투지경선과 경계부대선의 교차점 부근에 제3군단장과 상호 합의하여 선정된 협조점에서 긴밀적인 접촉을 확립하고 유지하라. 선정된 협조점을 陸本에 보고하라.

나. 제3군단

(1) 1951년 5월 12~13일 夜에 공격작전을 중지하라.

(2) 제1군단 및 美 제10군단과 협조하여 개략 담당지역내의 無名線에 連하여 縱深있는 강력한 방어진지를 점령하라. 선택한 방어선을 가능한 限 신속히 陸本에 보고하라.

(3) 제1군단 및 美 제10군단과 협력하여 敵을 격파하며 적의 공격을 지연시키고 적시에 경보를 發할 수 있도록 無名線의 전방에 강력한 엄호부대로서 경계부대선을 점령하라.

(4) 인접군단과 군단간의 전투地境線과 주저항선의 교차점 및 군단 전투지경線과 경계부대선의 교차점 부근에 관계 군단장이 상호 합의하여 선정한 협조점에서 실질적인 접촉을 확립하고 유지하라.

다. 제8사단

군 근무지역에 있어서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라. 太白山地區 전투사령부

軍 근무지역에 있어서의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마. 工兵

(1) 최대한 가능한 범위로 철조망과 對人지뢰를 이용하여 방어진지를 구축함에 工兵의 최대의 중점을 置하라.

(2) 군단의 主보급로의 정비는 고도의 우선권이 있다.

X(1) 無名線으로부터의 철수는 陸本別命이 있을 때에 한하여 개시된다. 야간 철수를 禁한다.

(2) 작전은 주요한 전부대의 건전한 태세를 유지하며 군단간 및 군단내의 협조로서 적에게 최대한의 손실을 가하고 적을 최대한으로 지연시키라는 기본지시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3) 각급 지휘관은 엄중히 1951년 5월 9일附로 "전투원칙"에 기술된 전투원칙을 고수한다.

(4) 지뢰원에 관한 원칙은 1951년 4월 9일附 제8군 사령부 발행 "地雷源原則"을 고수한다.

(5) 각급 부대는 긴밀히 협조된 화력으로서 四周방어를 실시하라. 포 및 지원화력을 최대한으로 사용하라.

(6) 야간에 실시되는 여하한 이동이라도 이는 전부 敵으로 인정할 것이며 사격하라. 敵의 야간 공격은 필연 있을 것이나 여명을 기하여 맹렬한 역습으로서 敵을 격멸하여야 한다.

四. 1951년 4월 1일附 行政命令 제18호 修正이 유효하다.

五. 가. 通信

(1) 通信規定 : 현 규정 유효

나. 지휘소

(1) 軍 : 大邱(DQ 6369)

(2) 제1군단 : 注文津(DS 8594)

(3) 제3군단 : 下珍富理(DS 6165)

(4) 제8사단 : 全州(CQ 3365)

(5) 太白山地區 전투사령부 : 榮州(DR 6775)

부록 제4호

1951. 5. 17. 24.00

육본작명 제268호 大 邱

지도 : AMS L552 25만분지 1 韓國 육 군 본 부

군대구분

제 1 군단	군단장	육군소장	白善燁
수도사단	사단장	육군준장	宋堯讚
제11사단	사단장	육군준장	崔德新
제 3 군단	군단장	육군소장	劉載興
제 3 사단	사단장	육군준장	金鍾五
제 9 사단	사단장	육군준장	崔 錫
제 8 사단	사단장	육군준장	崔榮喜
太白山전투사령부	사단장	육군준장	李正一

一. 가. 省略

나. 美 제10군단은 韓國軍과 협조하여 그 東(右)側 진지를 정리하여 제3군단과 전투地境線上 (DS 4181) 부근에서 連繫하기 위하여 웨이코線(Waco Line)으로 철수한다.

二. 가. 軍은

(1) 1951년 5월 18일 여명을 기하여 차량 장비 및 보급품을 웨이코線 東方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현 진지와 웨이코線 중간에 침입한 적을 격멸하고 웨이코線에 협조된 철수를 실시하려 한다.

(2) 美 제10군단장과 (DS 4181) 부근의 상호 협의된 협조점에서 접촉을 확립하며 유지하도록 철수를 조정하려 한다.

(3) 제8사단을 장차 제8군 사령관의 지시에 의하여 이동 및 사용을 준비하기 위하여 現川 (DS 3009) 부근에 집결시키려 한다.

(4) 軍 군무지역의 현 임무를 계속하려 한다.

나. (1) 웨이코線(Waco Line)

1009高地(DS 3178) —稷川洞(DS 5382)—1422高地(DS 6385)—南浿里(DS 8198)를 連한 일반선.

(2) 美 제10군단과 제3군단간의 전투지경 변경 無.

三. 가. 제1군단

(1) 1951년 5월 18일 여명에 웨이코線에 철수하여 該 線上의 방어에 최적한 지형을 택하여 제3군단과 협조下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점령하라.

(2) 웨이코線上(DS 6083) 부근의 협조점에서 제3군단과의 접촉을 확립하며 유지한다.

나. 제3군단

(1) 차량, 장비 및 보급품을 웨이코線 南方에 이동함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현 진지와 웨이코線 중간에 침입한 적을 격멸하라. 필요하면 美 제10군단 지역내의 이동을 허가한다.

(2) 1951년 5월 18일 여명에 웨이코線에 철수하여 該 線上의 방어에 최적한 지형을 택하여 제1군단 및 제10군단과 협조하여 강력한 방어진지를 점령하라.

(3) 美 제10군단과 웨이코線上(DS 6083) 부근의 협조점에서 접촉을 확립하며 유지하라.

(4) 제1군단과 웨이코線上(DS 6083) 부근의 협조점에서 접촉을 확립하며 유지하라.

다. 제8사단

(1) 지체없이 堤川(DS 3009) 지구에 집결하여 別命時 이동 및 전투가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2) 自隊차량은 장비 및 필요한 보급품의 수송에 한하여 사용하라. 인원수송은 大田(CR 5921) 光州(CQ 1091) 晋州(DQ 1794) 및 金州(CQ 3365) 各 역에서 철도편에 의하여 실시하라.

(3) 이동에 관한 필요한 협조를 실시하기 위하여 陸本 輸送監과 직접 통신을 허가한다.

(4) 예하 金 부대의 출발 예정시간, 실지 출발시간, 이동경로(자동차 수송에 限) 목적지 도착 예정시간, 이동진행 상황, 목적지 도착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서 陸本에 보고하라.

라. 太白山지구 전투사령부

현 임무 계속 수행하라

마. 工兵

(1) 제1201 건설 공병단

(가) 계속하여 蔚珍(ER 3794)~江陵(DS 9077) 도로를 50톤 급으로 건설 및 정비하라

(나) 邱山里(DS 8573)~松溪里(DS 8749)~北坪里(ES 1148) 도로를 25톤급으로 改修 정비하는 책임을 담당하라.

(다) 江陵(DS 9077)~橫溪里(DS 7468)~東沙里(DS 5565)~阿彌洞(DS 5253) 도로를 改修 정비하는 책임을 해제한다.

X(1) 웨이코線 南方에의 철수는 陸本 別命時를 제외하고 실시함을 불허한다.

(2) 철수는 적에게 최대한의 손실을 加하고 軍團間 및 군단內의 협조로서 적을 최대한으로 지연시키며 주요한 金軍의 건전을 유지하려는 基本 지시에 의거하여 실시하라.

(3) 철수는 실시 가능한 限 주간에 실시하라.

(4) 各 부대는 긴밀히 협조된 火網으로서 四周 방어를 실시하여야 한다. 砲 및 기타 지원화기를 최대한으로 사용하라.

(5) 夜間에 이동함은 여하한 이동이라도 적으로 인정하며 사격하여야 한다. 夜間 적의 侵透는 필히 있을 것이다. 여명을 기하여 맹렬한 역습을 감행함으로써 격멸하여야 한다.

(6) 工兵의 도로 및 교량의 건설 및 정비를 위한 군단 後方 境界線은 東沙里(DS 5565) 橫溪里(DS 7468) 江陵(DS 9077)(上記 도로는 軍團에 포함됨)

(7) 철조망 및 對人지뢰를 가능한 최대범위로 사용하여야 함.

四. 省略

五. 通信軸線

(1) 제1군단 : 江文津(DS 8594)—江陵(DS 9077)—三陟(ES 1443)

(2) 제3군단 : 下珍富里(DS 6165)—旌善(DS 7137)

(3) 제8사단 : 金州(CQ 3365)~堤川(DS 3009)

부록 제5호

1951. 5. 22. 18 00

陸本作命 제269호

六 邱

陸 軍 本 部

지도 : AMS L552 25만분지 1 韓國

군대구분

제 1 군단 군단장 육군소장 白善燁

수도사단 사단장 육군준장 朱堯讚

제11사단 사단장 육군준장 崔德新

제 3 사단 사단장 육군준장 金鍾五

제 3 군단 군단장 육군소장 劉載興

太白山地區 전투사령부 사령관 육군준장 李亻一

一. 가. 後述함

나. (1) 美 제1군단은 제1목표지역 확보에 주력을 指向하여 현 공격을 계속 실시할 것임. (제1목표지역은 概略(CT 5301)~(CT 4603)~(CT 4709)~(CT 5107)의 각 지점이 도로교차점을 연결 區劃한 지역임)

(2) 美 제9군단은 제2목표지역 확보에 主力을 指向하여 현 공격을 계속 실시할 것임. (제2목표지역은 概略 878高地(CT 9010)~新浦里(CT 8109)~路星里(CT 8215)~草川(CT 8717)~大利里(CT 9116)~楡村里(CT 9412)의 각 지점을 연결 구획한 지점임.

(3) 美 제10군단은 군단명령에 의거하여 즉시 적 보급로를 차단하는 동시에 제3목표지역을 확보하기 위한 공격을 개시할 것임. (제3목표지역은 개략 冠岳里(DT 2306) 875高地(DT1310) 楊口(DT 1117) 加兒里(DT 2222) 도로교차점(DT 3017) 德山里(DT 3015)의 각 지점을 연결 구획한 지역임)

二. 가. 軍은

(1) 美 제10군단 東側方의 進出과 호응하여 西側方에서 진출하려 함.

(2) 美 제8군사령관의 명령이 있을 때에는 全面的으로 진출할 수 있는 준비를 하려 함.

(3) 軍 근무지구 내에서의 現 임무를 계속 수행하려 함.

나. 제1군단과 美 제10군단간의 전투地境線.

後方 전투地境線上 1020高地(DS 7849)~1458高地(DS 7161)〈제1군에 속함〉~(DS 6873)~(DS 6084)~1240高地(DS 5292)〈제1군단에 속함〉~847高地(DT 4505)〈제1군단에 속함〉~1519高地(DT 4216)〈제1군단에 속함〉

三. 가. 제1군단

(1) 현재 위치에서 제3사단을 통합 지휘하라.

(2) 담당 지구내 京元도로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한 同도로를 확보함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방어진지를 점령하고 제8군의 右(東)側方을 엄호하라.

(3) 美 제10군단 진출과 호응하여 진출을 개시하라.

(4) 美 제10군단장과 합의된(DS 6775) 부근 협조점에서 접촉을 확립하라.

(5) 작전은 주력부대를 건전한 태세로 유지할 수 있고 군단간 및 군단내에서 완전한 협조를 유지할 수 있는 限 적에게 최대한의 손실을 가하고 적을 최대한으로 지연시키라는 기본지시에 일치하도록 실시하라.

나. 제3군단

(1) 현재 위치에서 제3사단 및 독립포병 제81 및 제82 砲隊의 배속을 해제하여 제1군단장에 배속시키라.

(2) 현재 위치에서 제9사단의 배속을 해제하여 美 제10군단에 배속시키라.

(3) 제1103 야전공병단을 1951년 5월 24일 12 00附로 배속을 해제하여 美 제10군단에 배속시키라.

(4) 군단 사령부 및 본부 중대는 寧越(DS 5314) 附近에 집결하라.

다. 太白山地區 전투사령부 :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라. 工兵

(1) 제1102 야전 공병단

(가) 제101 및 제105 야전공병대대를 寧越(DS 5314)에 이동시켜 제1103 야전공병단의 작전지시를 받도록 하라.

(나) 1951년 5월 24일 12.00附로 제106 및 제107 야전 공병대대를 통합 지휘하라. 上記 대대를 發翰里(ES 0955)에서 가능한 限 조속한 시일 내에 재편성 및 재정비를 완료하라.

(2) 제1103 야전 공병단

(가) 제106 및 제107 야전 공병대대를 發翰里로 이동시켜 제1102 야전공병단의 작전 지휘를 받도록 하라.

(나) 1951년 5월 24일 12.00附로 제101 및 제105 야전 공병대대를 寧越(DS 5314)에서 통합 지휘하라.

(다) 1951년 5월 24일 12.00附로 제1103 야전 공병단은 제101 및 제104, 제105 각 야전 공병대대 제503철교중대, 제603 공병 경장비중대 및 제1503 工兵 重자동차 중대와 함께 美 제10군단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라.

(3) 제1301 공병 前方 補給中隊

즉시 제3군단에 대한 보급 지원의 임무를 가진 파견대를 철수하고 發翰里(ES 0955)에 있는 제1301 공병 前方 보급중대에 귀환시키라.

(4) 제1201 건설 공병단

(가) 즉시 平昌(DS 4635)～餘糧里(DS 7546)間의 도로유지 및 改修의 임무를 해제한다.

(나) 北坪里(ES 1247)～餘糧里(DS 7546)間의 도로 및 北坪里(ES 1247)～珍珍(ER 3694)間 도로의 改修 및 유지에 최대한의 중점을 置하라.

四. 1951년 4월 1일附 行政命令 제18호 및 修正 有效.

五. 가. 통신사항 . 현 통신규정 유효.

나. 指揮所

(1) 軍—六邱(DQ 6369)

(2) 제1군단—江陵(DS 9178)

(3) 제3군단—寧越(DS 5314)

(4) 太白山지구 전투사령부—榮州(DR 6675)

다. 通信軸線

(1) 제1군단 : 江陵(DS 9178)～注文津(DS 8594)～襄陽(DT 6713)

부록 제6호

1951. 5. 30 18.00

六 邱

陸本 작전지시 제50호 陸 軍 本 部

1951년 5월 22일 18 00附 陸本作命 제269호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工兵사항>

一. 도로 및 교량의 건설 및 보수유지에 대한 군단 후방 地境線을 注文津(DS 8494)으로부터 眞西방면으로 橫斷하여 군단 전투지경선과의 교차점(DS 5694)까지의 선으로 한다. 前記 지점은 군단 지역내에 포함되지 않음.

二. 제1201 건설공병단은 上記 우선 순위에 의거 지구내 도로 및 교량의 건설 및 보수 유지의 책임을 담당하라.

제1 우선순위

1. 北平(ES 1248)～江陵(DS 9278)～注文津(DS 8494)間을 50톤급으로 보수 유지하라.

2. 江陵(DS 9278)～橫溪里(DS 7469)간 도로는 25톤급으로 보수 유지하라.

3. 江陵 비행장 확장공사(KA 1201～19호)를 계속하라.

4. 注文津 축항공사 및 항구 정지작업을 실시하라.

제2 우선순위

제1 우선순위에는 주력을 중점 배치하고 제2, 3 우선 순위 구간은 도로 유지 순찰대를 편성하여 일일 검사하게 하고 自隊역량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규모의 유지 작업을 실시케 하고 순찰대 역량으로 과중한 도로 및 교량의 파괴가 있을 때는 團本部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라.

三. 제1201 건설단의 北坪(ES 1248)～餘搗里(DS 7476)간 도로 보수 책임을 해제한다.

부록 제7호

1951. 5. 30 20.00
亢 邱

陸本 作戰指示 제51호 陸 軍 本 部

一. 제8군 사령관 電文지시(CNRGX～5～5344, KGOC 291538—K)에 의거 1951년 6월 1일附로 제302공병 작업대대를 제1801 기술공병단 배속으로부터 해제하여 美 제1169 야전공병단에 배속한다.

二. 1. 제302 공병 작업대대는 1951년 6월 1일까지 자대 차량 및 제1801 기술 공병단에서 차출하는 차량으로 영등포(CS 1554) 부근으로 이동하라.

2 永登浦(CS 1554) 부근 도착과 동시에 美 제1169 야전 공병단에 배속한다.

부록 제8호

1951. 5. 31. 19 00
亢 邱

陸本 作戰指示 제52호 陸 軍 本 部

제1경비대대는

一.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라.

二. 七寶 땜(CQ 2040) 주변을 확보하여 이 경비에 만전을 기하라.

三. 수시 보고 및 정기 작전 보고로서 상황을 陸本에 보고하라.

부록 제9호

1951. 6. 2. 17.00
亢 邱

陸本 作戰指示 제53호 陸 軍 本 部

1. 陸本作敎乙發 제45호에 의하여 陸本司令室에 配屬된 裝甲車 2臺중 1대를 제1사단에 배속한다.
2. 本部司令은 掌握中인 裝甲車중 性能우수한 1대를 즉시 兵器監室에 인계하라.
3. 兵器監 및 通信監은 車體 및 通信裝置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整備에 萬全을 기하라.
4. 兵器監은 員仁將校 1명을 차출하여 裝甲車를 최 신속수단으로 제1사단까지 이동 배속하라.
5. 各 관계관은 임무를 완료하면 口頭에 의하여 各各 作戰局長에게 보고하라.

부록 제10호

1951. 6. 3. 12 00
大 邱
陸 軍 本 部

陸本 作戰指示 제54호

1951 6. 4. 06.00부로 軍 後方 戰鬪地境을 下記와 如히 變更한다.

1. 國立警察隊 北方戰鬪地境

西海岸線上(BS 9354) 부근 지점으로부터 東으로 도로를 따라(CS 1255)(永登浦 포함) 北으로 漢江을 渡河하여 水色里(CS 1561)—弘濟里(CS 3064) 東으로 長位里(CS 2964)—東으로(CS 3064)—南으로(CS 5256)—東으로 歸鼎里(CS 5251)—兩水里(CS 5256)—東南으로 楊平(CS 6749)—東으로 下珍(CS 6749)—東北으로 加峴里(CS 8656)—東으로 草院里CS 0454)—東南으로 橫城(DS 1149)—東南으로 下安興里(DS 2540)—東으로 芳林里(DS 4942)—南으로 平昌(DS 4631)—東으로 旌善(DS 7139)(上記 各地點을 연하는 道路 및 各郡, 市는 國立警察지역에 속함)

2. 太白山지구 戰鬪司令部 北方戰鬪地境

旌善(DS 7139) 부근 지점으로부터 道路를 따라 餘糧里(DS 7647)—松溪里(DS 8749)—관촌(ES 0252)—海岸線上 北平里(ES 1157)(上記 各지점을 連하는 道路 및 旌善을 除外한 各都市는 太白山지구 戰鬪司令部 지역에 속함).

3. 國立警察軍과 太白山지구 戰鬪司令部 戰鬪地境

現 戰鬪地境線上 木界洞(DS 0101)—平洞里(DS 1310)—堤川(DS 3109)—淵堂里(DS 4815)—旌善(DS 7147)(上記 各지점을 連하는 道路 및 都市는 國立警察隊에 속함)

附圖—省略

부록 제11호

1951 6 4. 20.00
大 邱
陸 軍 本 部

陸本 作戰指示 제55호

第1801技術工兵團長은

1. 1951. 6. 5. 00.01부로 第302工兵整備中隊 및 第1801工兵前方補給中隊를 第1801技術工兵團으로부터 解除하여 美 第10軍團에 作戰上 배속되어 있는 第1103 野戰工兵團(1951 6 1—美 第8軍司令部 發 書簡 "부대 배속에 관한"에 의거하여 배속되어 있음)에 배속하라.

2. 1951. 6. 5까지 第802工兵整備중대 및 第1302工兵前方補給中隊를 自隊輸送으로써 DS 1384부근으로 이동하라.

3. 兩中隊長은 부대가 DS 2384지점 부근에 도착하면 즉시 第1103野戰工兵團長에게 보고하라.

부록 제12호

1951. 6. 4. 21.00
大 邱
陸本 作戰指示 제56호 陸 軍 本 部

1. 第1102野戰工兵團
   가. 1951. 6. 1부 美 8軍司令部 서한 AG 322 KENC "부대배속의 件"에 의하여 1951. 6. 5. 00.00부로 제106 및 제107야전 공병대대와 第1107野戰 工兵團을 美 第19野戰工兵團에 배속한다.
   나. 제106 및 제107야전 공병대대와 함께 제1102야전공병단은 自隊 輸送機關으로 可及的 신속히 加平(CS 6987) 부근으로 이동하라.
   다. 제1102야전 공병단장은 加平부근에 도착하는 即時로 美 第19野戰工兵團長에게 보고하라.
2. 第1801技術工兵團
   가. 1951. 6. 1부 美 第8軍司令部 一般命令 제387호에 의거하여 1951. 6. 9. 00.00부로 제303공병 작업대를 제1801기술공병단으로부터 美 第19野戰工兵團에 配屬한다.
   나. 제303공병작업대대는 자대수송기관 및 철도수송으로 1951. 6. 9까지 加平(CS 6987) 부근으로 이동하라.
   다. 제303공병작업대대장은 加平부근에 도착하는 즉시로 美 第19野戰工兵團長에게 보고하라.

부록 제13호

1951. 6 7. 12.00
大 邱
陸本 作戰指示 제57호 陸 軍 本 部

1. 가. 砲兵司令官은 即時 제50砲兵大隊의 교육훈련을 中止하고 大邱(DQ 6369)부근 현위치로부터 서울(CS 2060) 부근으로 移動시키라.
   나. 第50砲兵大隊는 警備大隊로써의 任務를 담당한다.
2. 第50砲兵大隊는 서울(CS 2060) 부근 到着과 동시에 砲兵司令官 배속으로부터 解除하여 美 第2兵站管區司令官에게 배속한다.
3. 輸送은 철로에 의함.
4 第50砲兵大隊의 고유명칭은 변경치 않는다.

부록 제14호

1951 6. 7. 19.00
大 邱
陸本 作戰指示 제58호 陸 軍 本 部

1. 第5軍團長은 신체부적자의 제대가 완료되는 대로 下記 예비사단을 이동시키라.

가. 제101예비사단(병력 약 2,000명)을 現位置 馬山(DP 6369) 부근으로부터 서울(CS 2060)에 이동하여 목적지 도착과 동시에 美 第1軍團長의 작전지휘를 받으라.

나. 제105예비사단(병력 약 3,000명)을 현위치 大田(CR 5921) 부근으로부터 春川(CS 8893)에 이동하여 목적지 도착과 동시에 美 第9軍團長의 작전지휘를 받으라.

다. 제103예비사단(병력 약 2,000명)을 蔚山(EQ 2036) 부근 현위치로부터 原州에 이동하여 목적지 도착과 동시에 美 第10軍團長의 작전지휘를 받으라.

2. 軍需局長은 前記 예비사단 장비에 관하여 미 고문단 경유 美 第8軍司令部 軍需局과 협의하라.

3. 第5軍團長은 前記 예비사단의 출발, 도착, 예정시간을 보고하라. 수송에 관하여는 군수국에 신청하라.

부록 제15호

1951 6. 8. 11.00

大 邱

陸本 作戰指示 제59호 陸 軍 本 部

1. 第1警備大隊長은

가. 七寶發電所 警備 임무를 수행중인 隷下 1個中隊 兵力中에서 中隊 先任將校가 指揮하는 2個小隊를 즉시 소州(CQ 6532)로 이동시키라.

나. 目的地 도착과 동시에 소州 外廓경비임무를 담당하는 동시에 七寶發電所가 奇襲당할시는 何時든지 增援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도록 하라.

다. 경찰과 긴밀한 협조하에 七寶發電所 경비에 萬全을 기하라.

라. 배치완료와 동시에 결과를 陸本에 보고하라.

부록 제16호

1951. 6. 9. 24 00

大 邱

陸本 作戰指示 제60호 陸 軍 本 部

1. 1951. 6. 12 00.00부로 第502鐵道中隊는 第1801기술공병단 배속으로부터 해제하는 동시에 美 第19野戰工兵團에 배속되어 있는 제1102야전공병단에 예속한다. (1951. 6. 1부 美 第8軍 지시문 AGE 322 KANC "부대배속의 건"에 의거함)

2. 제502철교중대는 가급적 급속히 自隊수송으로써 加平(CS 6987) 부근으로 이동하라.

3. 제502철교중대장은 목적지 도착과 동시에 제1102야전 공병단장에게 보고하라.

부록 제17호

1951 6 11. 08 00
大 邱
陸本 作戰指示 제61호 陸 軍 本 部

1. 獨立砲兵 第110砲隊는 1951. 6. 15. 24.00까지 鎭舟(DR 6989) 부근 현위치로부터 大邱(DQ 6369) 부근으로 이동하라.

2. 獨立砲兵 第110砲隊는 大邱부근 도착과 동시에 陸本直轄로부터 砲兵司令官에게 배속한다.

3. 砲兵司令官은 獨立砲兵 第110砲隊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라.

부록 제18호

1951. 6. 13. 12 00
大 邱
陸軍 作戰指示 제62호 陸 軍 本 部

1. 1951. 6. 16. 00.00부터 第304工兵作業大隊는 第1801技術工兵團 배속으로부터 解除함과 동시에 美 第8224野戰工兵團에 배속하라.

2. 第304工兵作業大隊는 1951 6 16. 24.00까지 자대 수송기관 및 철도수송으로서 原州(DS 0734) 부근으로 이동하라.

3 목적지 도착과 동시에 제304공병작업대대장은 美 第8244野戰工兵團에 보고하라.

부록 제19호

1951. 6. 14. 15.00
大 邱
陸本 作戰指示 제63호 陸 軍 本 部

第1警備大隊長은

1. 1951. 6. 8. 11.00시부 陸本 作戰指示 제59호에 의거하여 현재 全州 外郭경비임무를 수행중인 예하병력 2개소대를 즉시 원대 복귀시켜라.

2 하기 2개소대 병력이 원대복귀하여 배치완료하는 동시에 결과를 육본에 보고하라.

3. 경찰과 긴밀한 협조하에 가일층 七質發電所 경비에 萬全을 기하라.

부록 제20호

1951. 6. 17. 17.00
大 邱
陸本 作戰指示 제64호 陸 軍 本 部

1. 砲兵司令官은

1) 獨立砲兵 第108砲隊를 1951. 6. 19. 24.00까지 六邱부근(DQ 6369) 현위치로부터 六洞(CT 5427) 부근으로 이동시켜 도착과 동시에 美 第3師團 第15聯隊長에게 보고케 하라.

2. 獨立砲兵 第108砲隊를 六洞(CT 2417) 부근 도착 즉시로 배속해제하여 美第1軍團에 배속하라

부록 제21호

1951. 6 17 20 00
六 邱
陸本 作戰指示 제65호 陸 軍 本 部

1. 第1102野戰工兵團

가) 團本部 및 本部中隊를 1951. 6 17, 06 00부로 美 第9軍團 배속으로부터 해제한다.

2. 第1103野戰工兵團

나) 團本部 및 本部中隊 第101野戰工兵大隊 第603工兵輕整備中隊 第1503亞自動車中隊를 美第10軍團 배속으로부터 해제한다.

부록 제22호

1951 6 19 08 00
陸本 作戰指示 제65호 六 邱
수정 제1호 陸 軍 本 部

1951. 6 17. 20 00부 陸本作戰指示 제65호중 제1항 1,을 취소한다.

부록 제23호

1951 6. 21 18.00
六 邱
陸本 作戰指示 제66호 陸 軍 本 部

1. 第1801技術工兵團長은

1951. 6 26. 00.01부로 제504철교중대를 美 第8224野戰工兵團長에게 배속하라.

2. 第504鐵橋中隊長은

가) 1951 6 26까지(CS 932) 부근 비군기지 창고에서 "배리 부리지" 1조를 수령 陰陽里(DT 2106) 부근으로 이동하라.

나) 陰陽里(DT 2106) 부근 도착과 동시에 美 第8224野戰工兵團에 배속한다.

부록 제23호

1951. 6. 22. 09.00
六 邱
陸本 作戰指示 제67호 陸 軍 本 部

1. 1951. 6. 23부로 第1205工兵作業六隊는 第1801技術工兵團 배속으로부터 解除하는 동시에 美 第1169野戰工兵團에 배속한다.

2. 第1205工兵作業六隊는 가급적 조속히 自隊수송으로 현위치 釜山(ED 0590)으로부터 永登浦(CS 1552)로 이동하라.

3. 제1205공병작업대대는 영등포 도착과 동시에 美 第1169工兵團長에게 보고하라.

부록 제24호

1951. 6 30. 12 00
六 邱
陸本 作戰指示 제69호 陸 軍 本 部

1. 砲兵司令官은

가) 獨立砲兵 第109砲隊를 1951. 7. 2. 24.00까지(DQ 6369) 부근 現位置로부터 華川(CT 8617) 부근으로 이동시키라.

나) 목적지 도착과 동시에 砲兵司令官배속으로부터 해제하여 美 第9軍團長에게 배속한다.

부록 제25호

1951. 7. 2. 20.00
六 邱
陸本 作戰指示 제70호 陸 軍 本 部

1. 제1801技術工兵團長은

가) 제307공병작업대대를 1951. 7.7.24 00까지 釜山(ED 0585)부근 現位置로부터 原州(DS 0833) 부근으로 이동시켜라.

나) 原州(DS 0833)부근 도착과 동시에 美 第8224건설공병단장에게 배속한다.

2. 수송은 자대수송 및 철도를 이용하라.

부록 제26호

1951. 6. 25. 12 00
六 邱
陸本作戰指示 제71호 陸 軍 本 部

1. 1951. 6. 30. 00.01부 제306공병작업대대는 제1801야전공병단으로부터 美第19野戰工兵團에 배속중인 第1102野戰工兵團으로 예속이 변경된다.

2. 가) 제306공병작업대대는 철도 및 자대차량에 의하여 가급적 속히 春川(CS 8892) 부근으로 이동 第1102野戰工兵團長 지휘하에 入하라.

나) 目的地 도착 시각을 陸本에 보고하라.

부록 제27호

1951. 7. 6. 12.00
六 邱
陸本訓令 제191호 陸 軍 本 部

直決處分權 취소에 관한 件

1950. 7. 25 12.00 陸本訓令 第12號 訓令으로 命令없이 戰場이탈시의 直決處分權을 分隊長級이상에게 1950. 7. 26. 00 00부터 賦與하였으며 戰場이탈을 국과한 지휘관은 戰場이탈과 동일한 罪科로 處斷하게 되었다.

이는 6.25直後 我국군이 38°선에서 敵에게 突破 當하자 兵力 裝備에 너무 차이가 많으므로 見敵 後退 分散 混亂을 연출하여 國軍으로서의 國難에 대한 自覺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國民의 信賴조차 잃게 된 위기에 戰局을 수습하고 軍의 단결을 조성하기 위한 비상조치로 如此 訓令을 發布한 것이나 力戰一週年을 경과한 今日 我國軍은 質的으로나 軍紀面에서나 作戰行動에 있어서 當時의 상태와는 刮目할만한 進展 向上을 보게 되었으며 民主主義 國家의 國軍으로써 엄연한 軍法이 確立되어 있는 이상 如似한 直決處分權을 行使할 바 없으므로 玆에 이 直決處分權을 1951 7. 10. 00 00부터 取消한다.

各級 指揮官은 部下에 對하여 骨肉之情으로 對하는 同時에 태연 침착한 책임감을 堅持하여 항시 陣頭指揮함으로써 赫赫向勝의 國軍傳統을 造成하기에 한층더 유의할 것이며 國家로 하여금 이와 같은 不名譽한 權限을 再發動하지 않게 하도록 精進할 것을 示達한다.

부록 제28호

1951. 7. 6. 12.00
六 邱
陸本作戰指示 제71호 陸 軍 本 部

太白山지구 戰鬪司令官은

1 제3경비대대 2개중대를 1951. 7. 7. 12 00까지 연풍(DR 1169)부근 현위치로부터 서벽리(DR 8496)부근으로 이동하라.

2. 하기 2개중대는 목적지 도착과 동시에 단지 경비목적으로서 美 第32건설공병단에 배속한다.

3. 협의목적을 위한 直接通信을 허가한다.

부록 제29호

1951. 7. 6 12.00

六 邱

陸本 作戰指示 제72호 陸 軍 本 部

1. 1959. 7. 14 영시부로 제308공병작업대대를 제1801 기술공병단 예속으로부터 해제하는 동시에 제1101야전공병단에 예속한다.

2. 제1101야전공병단은 1951. 7. 15. 24 00까지 제308공병작업대대를 自隊수송력을 이용하여 釜山(EP 0690) 현위치로부터 東草里(DT 9529) 부근에 이동하라.

3 제308공병작업대대장은 목적지 도착과 동시에 제1101야전공병단장에게 보고하라.

부록 제30호

1951 7. 6. 15 00

六 邱

陸本 作戰指示 제73호 陸 軍 本 部

1 1951 7 21 영시부로 제309공병작업대대를 제1801기술공병단 예속으로부터 해제하는 동시에 제1201건설공병단에 예속한다.

2 제1201건설공병단은 1951. 7. 22. 24.00까지 제309공병작업대대를 자대수송력을 이용하여 釜山(EP 0690) 현위치로부터 汀陵(DS 9178) 부근으로 이동하라.

3 제309공병작업대대장은 목적지 도착과 동시에 제1101건설공병단장에게 보고하라.

부록 제31호

951 1 7. 9 12 00

六 邱

陸本 作戰指示 제74호 陸 軍 本 部

1. 太白山지구 戰鬪司令官은

가) 1951. 7. 10 24 00까지 戰鬪警察 第207部隊 第5六隊를 寧越(DS 5325) 현위치로부터 昌

(DQ 0149)부근으로 이동케 하라.

나) 하기부대는 목적지 도착과 동시에 智異山지구 戰鬪司令官 배속으로 한다.

다) 필요한 수송력은 陸軍本部 輸送監 經由 軍需局長에게 신청하라.

2. 智異山지구 戰鬪司令官은 戰鬪警察 第207部隊 第2大隊가 居昌부근에 도착과 동시에 해부대를 지휘하라.

부록 제32호

1951 7 9. 12 00
大 邱
陸本 作戰指示 제75호 陸 軍 本 部

1 砲兵司令官은 1951. 7. 16 24 00까지 獨立砲兵 第110砲隊를 大邱(DQ 6369) 현위치로부터 伊川(DS 1148) 부근으로 이동시키라.

2 하기 砲隊는 목적지 도착과 동시에 포병사령부 배속으로부터 해제하여 美 第10軍團에 배속한다

부록 제33호

1951. 7. 9 13.00
大 邱
陸本 作戰指示 제76호 陸 軍 本 部

1 1951 7 6. 12.00 陸本 作戰指示 제73호중 제2항을 하기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2. 제1801기술공병단장은 1951. 7. 15 24 00까지 제308공병작업대대를 LST에 의하여 釜山(EP 0690) 現位置로부터 東草里(DT 9529) 부근으로 이동하도록 필요한 준비를 취하라.

단, 제308공병작업대대 자대수송력은 육로로써 수송가능한 병력만을 이동케 하라

編成表一省略

부록 제34호

1951. 7. 18. 10 00
大 邱
陸本 作戰指示 제77호 陸 軍 本 部

1. 軍은 1951. 7. 19. 12.00를 기하여 서울에 陸軍本部 分室을 設置함.

2. 서울 派遣 作戰敎育局 先任將校는 陸軍本部 分室長이 되어 別紙 編成人員을 지휘하여 하기 임무를 담당수행하라.

가) 總參謀長 補佐

나) 美 第8軍司令部와 연락.

다) 第一線 各部隊와의 連絡

라) 大邱 陸軍本部와의 連絡

마) 建物 維持

3. 憲兵司令官은 諸서울지구 憲兵隊로 하여금 同 分室의 경비임무를 담당하라.

4. 通信監室은 서울 陸軍本部 分室과 大邱 陸軍本部間의 通信連絡任務를 담당하라.

5. 陸軍本部 分室編成은 별지와 같으며 編成人員은 作戰局長의 指示를 받은 후 오후에 출발하라.

부록 제35호

1951 7. 19. 24.00

大 邱

陸本訓令 제192호 陸 軍 本 部

1. 目下 進行中인 "랜사스"線上의 防禦築成工事는 그 시설과 창의에 있어서 不便한 點이 不少하니 그 重要性에 任하여 別紙 사항에 치중하여 原則에 立脚한 공사의 完成을 기하라.

<別紙>

1. 방어 7원칙에 배치 혹은 결여된 시설을 개축보강하되 特히

1) 인근부대와의 협조

2) 對戰車 시설

3) 부대간격지대에 대한 協調된 火網構成에 置重하라.

2. 對戰車방어시설을 敵戰車의 통과불능 혹은 行動곤란한 地形의 선택을 주하되 人工障碍物과 對戰車火器로써 보충하라.

3. 鐵條網 구성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를 수량의 철조망지대로 하되 사격계획과 부합토록 하라.

4. 敵前의 地形研究를 정밀히 하여 斜傾度 등을 最大한 이용하라.

5. 要地 要部의 編成

주둔지대는 地形을 최대한 이용토록 設定함을 요한다.

砲兵 및 各種火器의 觀測과 射界의 양호, 敵眼 및 敵火로부터의 陰蔽 또는 掩蔽의 良好, 天然의 장애물 통로의 具備등 主要한 地形要素를 구비하여야 한다.

1) 射界

가) 射界를 區分함에 있어서는 砲兵 기타 兵器의 火力을 가장 有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地形을 探究한다.

陣地戰의 地形은 항상 개활하면 먼(遠) 射界가 有함을 利點으로 함

부득이한 경우에는 斜射 側射하도록 함.

나) 自動火器의 최저사격 및 側射에 양호한 地形이 필요하다.

2) 觀測

가) 前面 및 後面에 대한 관측이 保持되어야 함.

나) 관측소의 선정은 主要陣地는 물론 抵抗線의 전방에서도 각종 兵器의 射程의 極限까지 시찰되는 곳이 좋다.

다) 主陣地帶는 敵의 침입을 받아도 긴요한 觀測을 實行할 수 있도록 併定함이 필요하다.

라) 방어陣地에 戰鬪총좌가 결정되면 우선 射界를 청소하여 우군의 관측을 방해하는 事物을 除去하라.

3) 陣礙物

가) 天然의 장애물은 敵戰車 및 機械化부대의 攻擊을 阻止하고 或은 運動方向을 制止함에 최대한으로 利用한다.

나) 天然의 障礙物이라 함은 河水, 湖水, 森林, 濕地 기타 기성建築 등을 말함.

나) 천연의 장애물에는 敵機械化부대의 通過가 不可能한 지역은 稀少하니 천연 장애물에는 나무 의뢰치 말고 경계대책을 세워야 한다.

4) 陰蔽 및 掩蔽

가) 陣地의 주요한 부분을 敵의 地上觀測 및 戰車의 攻擊으로부터 면할 수 있는 지점에 併定함이 有利함.

나) 진지의 비익을 위한 처치(위장등)

5) 通路

主陣地帶의 內部 및 背後의 交通은 자세한 통로의 구비를 要한다.

6) 縱深 編成

가) 主抵抗線과 聯隊豫備線과의 中間에 中隊와 大隊의 豫備隊는 主抵抗線과 携帶火器의 有効射程內(단, 敵 포화의 사정외)에 진지를 조성하여 縱深配備함으로써 敵 포화에 의한 위협을 받지 않고 만일 主陣地帶의 敵의 侵入을 보았을 때에도 즉응할 수 있고 敵의 行動을 中斷케 할 수 있음.

나) 포병의 중심배치는 각종 병기의 射程 目標의 位置, 敵의 對砲兵射擊에 의한 被制壓의可能性을 고려한 까닭이다. 最前方部隊는 敵地의 深部를 射擊可能해야 하고 最後方部隊는 主陣지대의 後部 守備지역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7) 相互支援

부대간격지대에 대한 협조된 火網구성과, 인접부대의 密接한 連絡과 相互협조는 가장 중요한 사항의 하나이다.

8) 四周防禦

침투를 상습전법으로 하는 敵에 대하여서는 陣內 左右 後方을 막론하고 四周에 대하여 同一한 방어시설을 하여야 함.

9) 協調된 火力計劃

가) 全火力을 主抵抗線 前面에 集中되어야 함.

나) 따라서 步砲對戰車 기타 火器로 하는 사격은 일체 밀접한 협조를 요한다.

다) 側射火網의 構成

① 기관총과 이것을 補充하는 기타 휴대화기에 의한 側射火網의 구성은 방어배치의 근기이니 인접부대는 各各 자기의 正面을 방어할 뿐 아니라 側射로써 타의 정면도 掩護한다.

② 기관총의 火制正面의 射角을 側射로 보충한다.

이리하여 가능한한 射角이 생기지 않도록 火制함이 緊要하다.

③ 일부 기관총은 主抵抗線을 突破한 敵부대에 대하여 側面으로부터 火力을 集中 可能하도록 配置한다.

라) 對戰車 火力은 陣地의 全 縱心에 걸쳐 이를 구성할 것이로되 해 부대의 使用에 적합한 지역에 主力을 傾注하여야 한다.

大隊와 聯隊의 對戰車砲는 陰蔽陣地로부터 主陣地帶의 전부를 방어하고 그 이상 부대의 對戰車兵器를 다시금 後方에 配置한다.

對戰車兵器와 障礙物과를 적절히 併用하고 砲兵火力 航空力 및 戰車로써 이를 보강하면 기계화부대의 공격을 파괴할 수 있다.

마) 步兵抵抗지대와 砲兵陣地와의 관계를 양호케 하여 우리 步砲의 火力을 주진지대 全般에 가장 有効히 協助發揮함을 要한다.

10) 協調된 對戰車 防禦計劃

가) 機械化부대에 대한 방어는 종심이 편성되지 않으면 안된다.

나) 對戰車는 이를 진전에서 파괴하여야 함. 연이나 진지내에 있어도 이에 對應하는 處置에 유감없기를 기해야 함

다) 天然장애물을 이용함과 동시에 巧妙히 對戰車砲를 配置하고 그 不足은 人工 장애물로써 보충한다.

라) 人工장애물이라 함은 주로 地雷源 戰車壕 난항截斷과 파괴 등이다.

마) 人工장애물은 敵에게 除去되지 않도록 火力計劃과 연락되어야 한다.

바) 對戰車砲는 대부분 전차의 행동에 적합한 通路에 최대한의 砲火를 신속히 集中토록 배치한다.

사) 對戰車砲 혹은 砲兵의 射擊不可能한 중요지점에 若干 前方 또는 側方에 장치한 장애물은 戰車 및 기계화부대를 所望方向에 轉換케 하여 停止 또는 지체시킴에 役割을 한다.

11) 陣地編成 및 모든 시설에 있어 방어의 實施에 융통성이 있게 함을 요한다.

陸軍總參謀長 육군중장 李 鍾 贊

부록 자36호

1951. 7. 20. 12.00

六 邱

陸本 作戰指示 제78호

陸 軍 本 部

1951. 7. 9. 12.00부 陸本 作戰指示 제75호중 1부를 하기와 여히 정정한다.

1. 砲兵司令官은 1951. 7. 22. 24.00까지 獨立砲兵 第110砲隊를 大邱(DQ 6369) 현 위치로부터 洪川(DS 0272) 부근으를 이동시켜라.

2 하기포대는 목적지 도착과 동시에 砲兵司令部 배속으로부터 해제하여 美 第10軍團에 배속한다.

부록 제37호

1951 7. 18. 11 00
大 邱
陸 軍 本 部

陸本 作戰指示 제79호

1951. 5. 10. 06.00부 陸本作命 제266호 修正作戰指示 제3호에 의거하여 第1201建設工兵團에 배속된 제301鐵道通信大隊 第3中隊는 즉시 第1201建設工兵團 배속으로부터 해제하여 원대 복귀하라.

부록 제38호

1951. 7. 21. 08.00
大 邱
陸 軍 本 部

陸本 作戰指示 제80호

1. 太白山지구 戰鬪司令官은

가) 戰鬪警察 第207部隊(缺2개대대)를 俗離山(DR 0045) 현위치로 부터 1951 7. 24 12.00까지 山淸(CQ 9819)에 도착토록 이동시켜라.

나) 목적지 도착과 동시에 智異山 警察戰鬪司令官에 배속하기 위하여 治安局 非常警備總司令官에게 作戰指揮權을 引繼하라.

다) 수송은 陸軍本部 軍需局長 經由 輸送官에게 申請하라.

2 治安局 非常警備總司令官은

가) 戰鬪警察 제207부대(결 2개대대) 목적지 도착하면 작전지휘권을 담당하라.

3. 相互協議를 위하여 直接通信을 허가한다.

부록 제39호

1951. 7. 23. 08 00
大 邱
陸 軍 本 部

陸本 作戰訓令 제193호

訓令 : 臨戰態勢 強化에 관하여

현재 開城에서 개최되고 있는 休戰會談을 계기하여 各戰線은 小康상태를 유지하면서 맹열한 偵察

戰을 展開하고 있으나 이은 背後에 있어서 戰線兵力을 補強하며 대병력을 집결하여 停戰會談의 추이에 따라 제3차 공세를 企圖하고 있음.

軍은 臨戰態勢를 強化하여 次期 작전에 대비코자 하기와 여히 세부 方針을 示達하니 各級指揮官은 그 實施에 萬全을 期할것.

1 停戰會談에 左右되지 말고 원래의 임무에 精進할 것.

2 現在戰線의 소강상태에 安心하지 말고 수색경계의 철저 및 방어진지의 充實을 期할 것.

3 作戰과 併行한 實戰重點 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것.

4. 寸暇를 이용하여 各隊의 현재 行하는 戰鬪經過를 講評하고 그 長短點을 即時 교정하는 등의 효과적인 교육에 不斷한 노력을 傾注할 것.

부록 제40호

1951. 7. 24 12.00

大 邱

陸本訓令 제194호 陸 軍 本 部

直決處分權 取消에 關한 件(追加)

陸本訓令 제191호 (1951. 7. 6 12.00부) "直決處分權取消에 關한 件"에 추가하여 下記事項을 1951. 8. 1. 00.00부로 取消한다

記

1. 陸本訓令 제155호(1951. 1. 13. 17.00부) 銃砲 및 車輛遺棄禁止 및 嚴罰에 關한 件 중

제1항 銃砲및 車輛을 遺棄하였을시에는 事由如何를 不問하고 當士兵은 極刑, 當該指揮官은 철저한 책임추궁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작전상 부득이 銃砲및 車輛을 遺棄 혹은 破壞하였을 時는 그 증거品으로 別表 明細와 如한 부속品 혹은 此 兵器가 再使用 불가能함을 증명할 수 있는 부속품을 지참 귀대할 것임.

따라서 낙오병이 부속품을 持參치 않고 귀대하였을시는 中隊長 이상 지휘관에게 直決處分權限을 부여한다.

2. 陸本訓令 제179호(1951. 1. 26. 17.00부) "통신器材 遺棄損失嚴禁에 關하여"中

제2항, 작전상 부득이 該器材를 破壞 혹은 遺棄하였을 때는 認定받을 수 있는 부속품 또는 증거품을 持參 귀대할 것이며 해 증거품없이 귀대한 사병에 대하여서는 大隊 通信將校 이상 責任將校에게 直決處分權限을 부여한다.

부록 제41호

1951 7 25 08 00

大 邱

陸本 作戰指示 제81호 陸 軍 本 部

1. 太白山戰鬪司令官은

가) 第3警察大隊(缺 2個大隊)를 1951 7 27 24.00까지 延豊(DR 1168) 부근으로 부터 서울로 이동시켜라.

나) 서울 도착과 동시에 배속 해제하여 第2兵站管區司令官에 배속하라.

다) 목적지 도착시간을 陸本에 보고하라.

다) 수송은 陸本수송감 경유 군수국장에게 신청하라.

2. 砲兵 第50大隊長은

가) 第3警備大隊(缺 2個大隊)와 交代完了와 동시에 大隊를 서울로부터 鎭海(DP 6989)로 이동시켜 원대복귀시켜라.

나) 수송은 육본수송감 경유 군수국장에게 신청하라.

3. 砲兵司令官은

砲兵 第50大隊가 鎭海에 도착하면 該大隊를 지휘하여 가급적 단시간내에 戰鬪能力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라.

부록 제42호

1951. 7 29 12 00

大 邱

陸本 作戰指示 제82호 陸 軍 本 部

1. 1951. 7. 25. 08 00부 陸本 作戰指示 第81호 3항을 취소하는 동시에 하기와 여히 정정한다.

가) 砲司令官은 砲兵 第50大隊를 鎭海(DR 6989) 부근 도착과 동시에 통합 지휘하여 再整備를 실시하라.

再整備완료 후 陸軍本部 명령이 有할시 砲兵 第50大隊를 美 第10軍團長이 지정하는 지구로 이동시켜라.

나) 再整備 일일진도상황을 行日 10 00시에 陸軍本部에 보고하라.

부록 제43호

1951 7 29 24.00

大 邱

陸本 作戰指示 제83호 陸 軍 本 部

1. 1951. 7 30 06 00부로 太白山지구 戰鬪司令部와 第2兵站管區間 戰鬪地境을 하기와 如히 수정한다.

現 戰鬪地境線上(DQ 7970)지점으로부터 DQ 7989 및 EQ 0589를 經由 現 戰鬪地境線上 EQ 0569에

連하는 線임.

2. 太白山지구 戰鬪司令官은

警察 第200부대 제16대대 제2중대를 永川(DQ 9480) 警備임무로부터 解除하여 해당지구내로 이동시켜라.

부록 제44호

1951. 8. 7 12.00

大 邱

陸本 作戰指示 제84호 陸 軍 本 部

1 步兵 第9師團은 1951. 8. 7. 13.00까지 富坪里(CS 4278) 부근에 도착과 동시에 美 第1軍團長 배속으로부터 해제하여 本官지휘하에 복귀한다.

2. 步兵 第9師團長은

가) 1951. 8. 11. 06.00를 기하여 陸本敎育指示 제7호(1951. 8. 7) 부록(1)의 조항에 의거하여 사단을 재정비하라.

나) 1951 8. 16. 06.00를 기하여 野戰訓練 統制本部의 지도 감독하에 陸本敎育指示 제75호(1951 8. 7부)에 의거하여 사단의 재훈련을 개시하라.

訓練은 陸本으로부터 通告가 有한 후 48시간내에 師團이 戰鬪에 參加할 수 있는 태세하에서 실시하라.

3. 後方支援은 陸本行政命令 제19호(1951 6. 13부) 수정 行政指示 제13호(1951 8. 5부)에 의거하여 지원한다.

부록 제45호

1951. 8. 11. 12.00

大 邱

陸本 作戰指示 제85호 陸 軍 本 部

1. 太白山지구 戰鬪司令官은

가) 제2경비대대를 1951. 8. 14. 06 30까지 延豊(DR 1168) 부근 현위치로부터 光州(CR 1191)로 이동시켜라.

목적지 도착과 동시에 陸本直轄로 복귀하라.

나) 제2경비대대의 현 임무를 戰鬪警察부대에 引繼시켜 담당케 하라.

다) 수송은 陸本수송감에 신청하라.

2. 제2경비대대장은 光州(CR 1191) 부근 도착과 동시에 本部를 光州에 置位하고 하기임무를 수행하라.

가) 木浦(BP 6075)—光州(CR 1191)간 公路上의 위협을 제거확보 하라.

나) 光州(CR 1191) 부근 공병부대 作業現場 경비를 담당하라.

이를 위하여 공병부대 代表와 협의하라.

3. 治安局 非常경비총사령관은

가) 1951. 8. 14 06.30부로 大田(CR 0602)—光州(CR 1191)간 運行車輛경비에 임할 경찰인원을 차출하라.

나) 상기 임무수행을 위하여 光州 및 大田에 있는 美 軍事고문단 대표와 협의하라.

부록 제46호

1951. 8. 11 15.00

陸本 作戰指示 제85호 大 邱

수정 제1호 陸 軍 本 部

1. 제2경비대대장은 陸本 作戰指示 제85호(1951. 8. 11 12.00부) 제2항중 하기사항을 추가담당 수행하라.

가) 木浦(BP 6075) 항만시설의 경비를 담당 수행하라.

此 任務수행을 위하여 공병부대장과 협의하라.

부록 제47호

1951. 8. 15. 12.00

大 邱

陸本 作戰指示 제86호 陸 軍 本 部

1. 砲兵司令官은 砲兵 제50대대를 1951. 8. 22 12.00까지 現位置 鎭海(DP 6989)부근으로부터 洪川(DS 9372) 부근으로 移動시켜라.

2. 砲兵 제50대대장은 목적지 도착과 동시에 美 第10軍團에 배속한다.

3. 砲兵 제50대대장은 목적지 도착과 동시에 美 第10軍團 砲兵部長에게 보고하라.

부록 제48호

1951. 8 20. 12 00

大 邱

陸本 作戰指示 제87호 陸 軍 本 部

1. 太白山지구 戰鬪司令官은

가) 제3경비대대 제1, 2중내 지휘권을 1951. 8. 21. 12 00부로 현 위치에서 美 제32건설공병단

장으로부터 인수하라.

나) 제3경비대대 제1, 2중대를 地域內에서 新任務를 賦與하게 하라.

부록 제49호

1951. 8. 25. 12.00

次 秘

陸本訓令 제195호 陸 軍 本 部

1 一般的인 공격시나 제한목표 공격시나를 莫論하고 공격에 주력하여 목표지점을 占領하면 방어에 轉移하여 급속히 敵역습에 대비함으로써 피해를 감소하고 同 地點을 확보 次期作戰 目的達成을 容易케 하는 것임.

그 원칙의 重要性에 비추어 下記사항을 지시하니 實行에 置重하고 加一層 戰鬪効果 증대에 노력하라.

1) 警戒처치

가) 敵의 역습을 조속히 판단하기 위한 계속적인 수색 실시

나) 主陣地 占領 부대의 진지확보 및 재편성을 掩護할 수 있는 경계부대의 배치

다) 敵 역습에 대비하는 四周警戒

라) 敵攻擊 및 수색을 방해하는 수색 경계

2) 火力의 配置

가) 豫想되는 要點에 火力을 급속적으로 集中할 수 있도록 各種火器로써 농밀한 火網構成

나) 敵의 기계화부대에 대비하는 共用火器의 配置

다) 인접부대 측면을 掩護할 수 있는 共用火器의 配置

3) 砲射擊 準備

敵 역습을 豫想하는 지역에 대하여 砲支援의 위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位置選定, 砲의 추진 및 射擊準備

4) 陣地構築

占領地點을 확보할 목적으로 하는 엄호구축(占領과 동시에 개시하고 이후 시간여유를 득함에 따라 強化하고 強固히 함).

5) 障碍物 設置

조속한 장애물 設置가 긴요함. 時期를 상실함은 불가

6) 豫備隊 位置選定

가) 于先 예비대를 추진하여 관계부대와의 연락을 확실히 하여 敵 主攻이 豫想되는 方向 및 폭로되는 翼을 엄호할 수 있는 예비대의 위치 選定

나) 계획적 역습을 위한 예비대 위치 選定

7) 再編成

가) 次間을 移用하여 再編함이 원칙이나 狀況 및 時間 관계상 주간조정을 요할시는 天候의 利用 혹은 煙幕遮障이 필요함.

나) 교란사격 및 저지사격으로써 再編成간의 敵의 행동을 制止함.

부록 제50호

1951. 8. 26

六 邱

陸本訓令 제196호 陸 軍 本 部

1. 軍作戰, 行政을 막론하고 戰鬪遂行의 基本要素는 신속정확한 병력파악이며 일일보고되는 戰鬪日報는 그 單位부대장이 직접 지휘통솔하고 있는 일일總戰鬪力인 동시에 그 부대의 위대한 歷史의 기록인 것이다.

2 故로 日報는 정확신속히 파악하여 규정된 시간내에 보고함으로써 지휘관에게 정확한 狀況判斷의 자료를 제시하게 되는 것이며 확고한 계획과 인사(병력) 운영의 적절을 기하는 根本이 되는 것이다.

3 開戰初에 착잡 무질서한 가운데에도 각지휘관 및 각관계관은 불철주야 병력파악에 心血을 경주하여 온 그 代價로써 현재와 같은 骨幹이나마 대략적인 基盤을 수립하였다고 인정되나 아직 세부적인 면에 있어 是正而專 不少이며 특히 일부부대에서는 尙今 有無線사용의 方法 低劣 및 兵力보고의 認識不足으로 말미암아 병력파악의 정확성을 망각하고 시간의 엄수를 기하지 못하며 심지어는 보고일시 준수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 부대가 不少함

今次戰에 있어서 이는 병력보고의 지연과 미도착으로 인한 用兵上의 그릇된 판단과 착오를 이르켰던 수 많은 戰訓은 尙今 인식치 못한 所致라 아니할 수 없음.

4 軍은 정비된 戰線과 치밀한 작전이 수행되고 있는 現下 聖戰完遂에 가일층의 萬全態勢를 갖추고자 再三 병력보고의 是正事項을 하기와 같이 訓令으로써 嚴達하니 各부대 및 각관계관은 추호의 착오없기를 기하라.

<兵力 報告>

1 昨日 18.00부터 今日 18.00까지의 병력을 當日 24.00까지 陸軍本部에 보고되어야 한다.

<通信網>

上記 規定된 시간에 있어서는 병력보고에 긴급우선권을 준다.

단 긴급작전보고는 별도로 함.

1. 聯隊—師團間 매일 19 00부터 20.00까지(1시간)

2. 軍團 師團—陸本間, 매일 22.00부터 23.00까지(1시간)

3. 기타 至急 作戰, 정보를 제외한 통상적인 통신이용에 있어서도 병력보고에 우선권을 준다.

부록 제51호

1951 6. 15 .09.00
釜 山

海本作命甲 제336호 海 軍 本 部

命 令

一. 1 東海岸 元山近海에는 704艦이 UN海軍 C. T. E. 95.62 及 其他 UN海軍과 協同作戰中이며 703艦이 指揮하는 514艇은 墨湖로부터 北緯 39°間 機雷敷設防止 及 封鎖作戰中에 있음.

2. 東海岸 38°線 以北 封鎖區域을 違反하여 運航하는 쟝크航出沒이 頻繁하여 敵 第5列은 此漁船을 假裝하고 機雷敷設 及 其他 利敵行爲를 敢行할 우려가 있음.

二. 軍은 一部艦艇의 警備交代를 實施하려함.

三. 1 701艦長은 6월 16일 06.00 釜山을 出港하여 6월 16일 06.00까지 墨湖近海에 이르러 514艇과 任務交代하고 518艇을 指揮하여 墨湖로부터 北緯 39°間 封鎖作戰에 任하라.

2. 514艇長은 701艦이 現地到着하면 警備任務를 交代하고 C. T. E 95. 28에게 交代申告한 다음 6월 18일 오전중으로 鎭海에 廻航하여 修理에 着手하라.

3. 鎭海統制府司令長官은 514艇의 修理를 可及的 速히 完了하되 海本發 第806호(海本作戰 第225號)에 依據한 出動豫定日內로 修理完了토록 하라.

4 軍需局長은 701艦 補給物을 供給하라.

5 艦政局長은 701艦 所要 油類 및 淸水를 充分히 供給하라.

四. 1 701艦長은 墨湖近海 514艇과 任務交代한 후 注文津 39°間 警備에 任하고 518艇을 注文津 墨湖間 警備에 任하도록 하라.

2. 701艦 艦長은 警備區域內에서 行動하는 쟝크漁船에 대하여 船舶名, 出港地, 目的地, 所有者姓名, 積荷物名, 行動目的 等으로 매일 08.00 及 20.00에 一回式 報告할 것이며 海本作命甲 第131號로 指示한 封鎖區域 侵透(北緯 38° 以北)가 없도록 各 船舶에 注意를 喚起시키는 동시 封鎖區域을 侵透하는 船舶은 海本作命甲 第131號 條項에 依據 처리토록 하고 可及的 拿捕하여 注文津 或은 墨湖警備府에 押送하라.

38° 以北 封鎖區域을 運行할 수 있는 船舶은 總參謀長 及 부시 중령이 發行한 運航證所持한 船舶과 陸本輸送監이 發行한 登錄證을 所持한 船舶으로서 墨湖司令官 及 注文津派遣隊長의 出入港 수속을 完了하고 UN艦隊와의 連絡信號 規定을 交代받은 船舶에 限하여 可하다. 其他 如何한 船舶이라도 運航不可하다.

五. 余는 釜山 海軍本部에 있음.

海軍總參謀長 海軍少將 孫 元 一

부록 제52호

1951. 6. 16 12 00
釜 山
海 軍 本 部

海本作命甲 第431號

命令

一. 省略

二. 軍은 L.S T 三浪津號로 하여금 釜山—鎭海, 麗水—和順, 濟州—釜山間 軍需品及 兵力 輸送에 任하려함.

三. 1 L.S T 三浪津號 艦長은 軍需局長이 指示하는 軍輸品을 積載完了 즉시 麗水를 向하라. 麗水에 入港하면 陸軍 106師團 當局이 指示하는 兵力 2.500명을 便乘시켜 濟州島 和順里에 輸送하고 上陸 完了 즉시 濟州에 寄港하여 釜山으로 輸送할 海軍 軍需品 1,000噸을 積載하고 釜山으로 歸港하라.

2. 軍需局長은 L.S T 三浪津號에 輸送할 軍輸品及 濟州에 搬入할 軍需品의 積載及 揚陸에 만전을 期하도록 手配하라.

2. 麗水 陸軍當局은 L.S T 三浪津號가 麗水에 入港하면 和順里로 輸送할 陸軍兵力 2.500명을 便乘시켜 和順에 上陸함에 만전을 期하도록 手配하라.

4. 艦政當局은 L S T 三浪津號에 所要 油類及 淸水를 供給하라.

四. 1. L S T 三浪津號 艦長은 輸送時 格別한 留意를 要할 것이며 碇泊 航海時를 莫論하고 特히 船體保安에 만전을 期하라.

2. L.S.T 三浪津號 船長은 鎭海—麗水間 航程에 있어 南海島와 突山島中間에 機雷網이 施設되어 있으므로 此區間航路의 指示를 別途 水路課에서 受하라.

五. 余는 釜山 海軍本部에 있음.

부록 제53호

1951 6. 18. 14.00
釜 山
海 軍 本 部

海本作命甲 第334號

命令

一. 1. 西海岸 白翎島 近海에는 61艦이 指示하는 530. 505. 507. 303. 307. 艇은 62艦及 UN海軍 C.T E 95.12와 協同하여 鎭南浦 近海及 仁川近海 沿岸封鎖作戰에 任하고 있음.

2. 黃海道 一帶에 潛伏한 敵은 海岸線 一帶에 砲陣地를 構築하고 機雷敷設과 我軍이 확보중인 島嶼奇襲을 企圖中에 있음.

3. 最近 敵은 發動船 또는 장크船을 漁船으로 假裝하여 我東西 兩 海域封鎖區域線을 侵透하여 間諜 其他 利敵行爲를 企圖中에 있음.

二. 軍은 西海岸 封鎖作戰을 強化하기 위하여 302艇을 該方面에 出動시키려 함.

三. 302艇長은 6월 21일 17 00 釜山 出港하여 6월 22일 12.00까지 仁川近海에 이르러 61艦長의 指揮를 받아 所要警備에 任하고 6월 23일 08 00를 期하여 61艦長의 指揮를 떠나 62艦長의 指揮下에 入하라.

2. 61艦長은 302艇이 現地 到着하면 도합 지휘하여 所要警備에 任케 하고 6월 23일 08.00를 期하여 302艇 指揮權을 62艦長에게 인계하라.

3. 62艦長은 6월 23일 08.00를 期하여 61艦長으로부터 302艇 지휘권을 인계받아 302艇을 적절히 指揮하여 所要警備에 任하도록 하라.

4. 軍需局長은 302 艇 所要補給物을 供給하라.

5. 艦政局長은 302艇 所要 油類 및 淸水를 充分히 供給하라.

四. 1 302艇長은 6월 22일 12.00를 期하여 23.00 KC로 61艦과 交信하여 指揮를 받고 6월 23일 08.00를 期하여 同 周波數로 61艦과 交信하라.

2. 61艦 62艦長은 所定期間의 302艇 通信을 指定 周波數로 實施하라.

3. 艦艇長은 濃霧期에 際하여 特히 安全한 航海에 留意할 것이며 對空 및 浮流機雷監視를 엄중히 하라.

4 302艇長은 旗艦 61艦長에게 諸般事情을 時時로 遲滯없이 報告할 것이며 61艦長은 302艇으로부터의 狀況을 報告토록 하라.

五. 余는 釜山 海軍本部에 있음.

부록 제54호

1951. 7. 6.

釜 山

海本作命乙 第364號 海 軍 本 部

命 令

302艇長	海軍大尉	洪	元 杓
301艇長	海軍大尉	朴	基 政
61艦長	海軍大領	李	龍 雲

一. 1. 302艇長은 出動에 關한 萬般準備를 完了하고 7월 8일 17.00 釜山 出港하여 10일 20.00까지 西海岸 白翎島近海에 이르러 301艇과 任務交代하고 61艦長의 指示를 받아 所要警備에 任하라.

2. 301艇長은 302艇長 現地到着하면 任務交代하고 61艦長에 申告한 다음 7월 12일內로 鎭海에 歸

港하라.

3. 61艦長은 302艇 現地到着하면 都合指揮하여 警備에 任하는 同時 301艇은 鎭海에 歸港시키라.

4. 各 艦艇은 敵機 來襲의 憂慮가 濃厚하니 對空監視 및 防空態勢에 萬全을 期하라.

二. 1. 302艇長은 釜山出港前에 補給物과 油類 淸水를 補充하라.

2. 軍需局長, 艦政局長, 兵器監은 302艇 出港前에 所要補給物을 供給하라.

3. 統制府司令官은 301艇의 修理를 可及的 速히 完了하여 海本發 第805號(海本作發 第225號)에 依한 出動期日內로 修理完了토록 하라.

三. 1. 302艇長은 7월 10일 20.00를 期하여 本部와 2300KC로 61艦 中軸通信을 維持하라.

2. 301艇長은 7월 10일 20.00를 期하여 本部와의 通信連絡을 8325(4162.5)KC로 實施하라.

3 61艦長은 302艇의 通信을 中繼하라.

四. 余는 釜山 海軍本部에 있음.

부록 제55호

1951. 7. 15.

釜 山

海本作命乙 第367號 海 軍 本 部

命 令

301艇長 海軍大尉 朴 基 政

504艇長 海軍大尉 朴 水 玉

61艦長 海軍大領 李 龍 雲

一. 1. 301艇長은 出動에 관한 萬般準備를 完了하고 7월 18일 12 00 木浦出港 安全한 航路를 經由하여 19일 14.00까지 椒島近海에 이르러 504艇과 任務交代하고 61艦의 指示를 받아 椒島近海 所要警備에 任하라.

2. 504艇長은 301艇이 現地 到着하면 任務交代하고 61艦에 申告한 다음 7월 11일內로 鎭海에 歸港하여 待期하라.

3. 61艦長은 301艇 現地 到着하면 都合指揮하여 警備에 任하게 하고 504艇을 木浦로 歸港시키라.

4. 各 艦艇은 敵機 來襲의 憂慮가 濃厚하니 對空監視 및 防空態勢에 萬全을 期하라.

二. 1. 301艇長은 木浦出港前에 補給物과 油類及淸水를 補充하라.

2. 軍需局長, 艦政局長, 兵器監은 301艇 木浦出港前에 所要補給物을 供給하라.

三. 1. 301艇長은 7월 19일 14 00을 期하여 61艦과 2300KC로 交信하라.

2. 504艇長은 7월 19일 14.00를 期하여 本部와의 通信連絡을 8325(4162.5)KC로 實施하라.

四. 余는 釜山 海軍本部에 있음.

부록 제56호

1951. 8. 10.

釜 山

海本作命乙 第332號 海 軍 本 部

命 令

310艇長 海軍大尉 皆 應 桓

504艇長 海軍大尉 朴 水 玉

62艦長 海軍中領 李 哉 松

一 1. 310艇長은 出動에 關한 萬般準備를 完了하고 8월 13일 17.00 釜山 出港하여 15일 18.00까지 巡威島 近海에 이르러 504艇과 任務交代하고 62艦의 指示를 받아 所要警備에 任하라.

2. 504艇은 310艇 現地 到着하면 任務交代하고 62艦에 申告한 다음 8월 17일內로 鎭海로 歸港하라.

3. 62艦長은 310艇 現地 到着하면 部合指揮하여 警備에 任하는 同時 504艇을 鎭海로 歸港시키라.

4. 62艦長은 310艇, 504艇 交代結果를 CTE 95.12에 通知하라.

5. 各 艦艇은 敵機來襲의 우려가 濃厚하니 對空監視 및 防空態勢에 萬全을 期하라.

二. 1. 310艇長은 釜山出港前에 補給物과 油類及淸水를 補充하라.

2 軍需局長, 艦政局長, 兵器監은 310艇 出港前에 所要 補給物을 供給하라.

3. 鎭海統制府 司令長官은 504艇의 修理를 可及的 速히 完了하되 海本發 第1190號(海本作命 第380號)에 依한 期日內로 修理 完了하도록 하라.

三. 1. 310艇長은 8월 15일 18 00를 期하여 23.00KC로 62艦에 實施하라.

2. 504艇長은 8월 15일 18.00를 期하여 本部와 通信連絡을 8325(4162.5)KC로 實施하라.

四. 余는 釜山 海軍本部에 있음.

부록 제57호

1951. 8. 20.

釜 山

海本作命乙 第388號 海 軍 本 部

命 令

301艇長 海軍大尉 朴 基 政

307艇長 海軍大尉 辛 光 永

61艦長 海軍大領 李 龍 雲

一. 1. 301艇長은 出動에 關한 萬般準備를 完了하고 8월 25일 13.00 釜山出港 安全한 航路를 經由하여 27일 06 00까지 仁川近海에 이르러 307艇과 任務 交代하고 61艦의 指示를 받아 所要警備에

任하라

2 307艇長은 現地到着하면 任務交代하고 61艦에 申告한 다음 23일中으로 木浦로 歸港하여 待期하라.

3. 61艦長은 301艇이 現地到着하면 統合指揮하여 警備에 任하게 하는 同時 307艇을 木浦로 歸港시키라.

4 各 艦艇은 敵機來襲의 우려가 濃厚하니 防空 及 對空監視 防禦에 萬全을 期하라.

二. 1 301艇長은 釜山 出港前에 所要補給物 及 油類 淸水를 補充하라.

2 軍需局長, 艦政局長, 兵器監은 301艇 出港前에 所要補給物을 供給하라

3. 移動 基地 司令官은 307艇의 小修理를 木浦에서 實施하도록 하라.

三. 1 301艇長은 8월 17일 06.00를 期하여 2300kc로 61艦과 交信하라.

2. 307艇長은 8월 27일 06.00를 期하여 61艦과 交信을 中止하며 本部와의 通信連絡은 8325(4162 5) kc로 實施하라.

四. 余는 釜山海軍本部에 있음.

부록 제58호

1951 8 27.

釜 山

海本作命乙 第403號 海 軍 本 部

命 令

703艦長 海軍少領 鄭 昊 謨

701艦長 海軍少領 金 鍾 祺

518艇長 海軍大尉 高 景 采

一. 1. 703艦長은 出動에 關한 萬般準備를 完了하고 8월 29일 17.00 釜山 出港 8월 30일 13 00까지 巨津近海에 이르러 701艦과 任務交代하고 518艦을 指揮하여 注文津 39線間 警備에 任하라.

2. 701艦長은 703艦이 現地到着하면 任務交代하고 CTE 95.28에 交代通告한 다음 現地出港 鎭海에 歸港하여 修理에 着手하라.

3. 703艦長은 518艇을 注文津間 警備에 任하게 하고 703艦은 巨津—39線間 警備에 任하라.

4. 各 艦艇은 敵機來襲의 우려가 濃厚하니 對空監視 및 防空態勢에 萬全을 期하라.

二. 1. 703艦長은 釜山出港前에 所要補給物 及 油類 淸水를 補充하라.

2. 軍需局長, 艦政局長, 兵器監은 703艦 釜山出港前에 所要補給物을 供給하라.

三. 1. 703艦長은 8월 30일 13.00를 期하여 701艦이 交信中이던 各艇의 通信을 引受하여 2160kc로 交信하고 本部와는 旣定周波數로 交信하라.

2. 701艦長은 8월 30일 13.00를 期하여 貴艦이 交信中이던 通信을 703艦長에게 引繼하고 本部와는

旣定周波數로 交信하라.

3. 701艦에 交信하는 各 艇長은 8월 30일 13 00를 期하여 703艦과 2160kc로 交信하라.

四. 余는 釜山 海軍本部에 있음.

부록 제59호

1951. 9. 2.

釜 山

海本作命乙 第429號 海 軍 本 部

命 令

307艇長 海軍大尉 辛 光 永

301艇長 海軍大尉 朴 基 政

61艦長 海軍大領 李 龍 雲

鎭海統制府司令長官 海軍准將 鄭 兢 謨

一. 1. 307艦長은 出動에 關한 萬般準備를 完了하고 9월 5일 17.00 木浦 出港하여 6일 13.00까지 喬桐島近海에 이르러 301艇과 任務交代하고 61艦長의 指示를 받아 江華島 喬桐島近海 警備에 任하라.

2. 301艇長은 307艇이 現地 到着하면 任務交代하고 61艦長에 申告한 다음 9월 7일內로 鎭海에 歸港 하여 修理에 着手하라.

3 61艦長은 307艇이 現地到着하면 統合指揮하여 所要警備에 任케 하는 同時에 301艇을 鎭海로 歸港 시키라.

4. 各 艦艇은 敵機來襲의 우려가 濃厚하니 對空監視 및 防空態勢에 萬全을 期하라.

二. 1. 307艇長은 木浦出港前에 補給物과 油類 淸水를 補充하라.

2. 軍需局長, 艦政局長, 兵器監은 801艦 移動基地司令官과 긴밀한 連絡下에 307艇 出港前에 所要補給物를 供給하라.

3. 鎭海統制府司令長官은 301艇의 修理를 9월 19일까지 完了하라.

三. 1 307艇長은 9월 6일 13.00를 期하여 2300kc로 61艦과 交信하라.

2. 301艇은 9월 6일 13.00를 期하여 61艦과의 交信을 中止하고 木浦와의 通信連絡을 8325(4162.5)kc로 實施하라.

四. 余는 釜山 海軍本部에 있음.

부록 제60호

1951. 4 19.
大 邱
空 軍 本 部

空本作命 第25號

一. 省略

二. 軍은 士官學校를 鎭海에 이동시켜 敎育의 안전을 期하려 함.

三. 士官學校長은 1951. 4. 20부터 행동을 개시하여 可及的 速히 士官學校 本部를 鎭海로 이동시켜 鎭海分校와 統合하라.

四. 1. 軍需局長은 海軍과 협의하여 士官學校 移動에 필요한 船舶을 1951. 4. 24 12.00까지 濟州港에 準備完了하라.

2. 飛行團長은 車輛을 動員시켜 士官學校의 慕恩浦 濟州間 移動에 積極協力하라.

五. 余는 空軍本部에 在함.

空軍總參謀長 空軍少將 金 貞 烈

부록 제61호

1951 4. 27.
大 邱
空 軍 本 部

空本作命 第26號

一. 省略

二. 軍은 士官學校 一部兵力을 泗川에 移動시키려 함.

三. 士官學校長은 1951. 4. 30. 24.00까지 第1期 士官候補生을 泗川에 移動시켜 術科敎育에 萬全을 期하라.

四. 1. 移動用 車輛은 自隊에서 擔當하라.

2. 軍需局長은 移動에 必要한 所要燃料를 供給하라.

五. 余는 空軍本部에 在함.

부록 제62호

1951. 4. 27
濟州邑 三徒里

飛團作命 第6號 空 軍 飛 行 團

作 命

一. 省略

二. 團은 兵力을 K—40으로 移動하여 空軍戰力發揮에 萬全을 期하려 함.

三. 1. 各隊(處)長은 1951. 4. 28부터 行動開始하여 別表 第1에 依한 兵舍로 1951. 4. 30. 24 00까지 移動完了하라.

2 第30整備中隊長은 移動에 要하는 車輛 及 給水車를 差出하라.

3. 第102基地中隊長은 1951 4. 29까지 新兵舍 電氣架設을 完了하라.

4 第102基地中隊長은 4. 30 夕食부터 新兵舍에서 給食케 하라.

5. 新兵舍로 移動하는 部隊는 空軍中領 徐武甲의 區處를 받으라.

6 團本部 移動은 空軍大尉 兼相燮 細部計劃을 實施하라.

7. 其他 細部指示는 別途指示함.

四. 移動에 關한 費用은 軍需處長과 協議하라.

五. 余는 團本部에 在함.

省略 : 附表 1—兵舍配置圖 空軍飛行團長 空軍大領 張 德 昌

부록 제63호

1951. 5. 4
大 邱

空本作命 第27號 空 軍 本 部

命 令

一. 省略

二. 軍은 서울地區의 一部兵力을 移動配置하려 함.

三. 1. 空軍本部 先遣隊長은 長以下 8名을 서울에 殘置하고 先遣隊를 指揮하여 1951 5 10 24.00까지 空軍本部에 復歸하라.

2. 通信隊長은 可及的 速히 第1通信所를 撤收 1951. 5. 6. 24.00까지 泗川에 移動設置하여 7일 12.00까지 連絡交信을 完了하고 基地內外에 必要한 有線通信網을 構成하라.

3. 氣象隊長은 1951. 5. 4. 24.00까지 서울先遣隊를 撤收하여 本隊業務를 強化하라.

四. 1. 軍需局長은 空軍本部先遣隊 移動用 車輛을 差出하여 輸送에 萬全을 期하라.

2 通信隊, 氣象隊 兵力輸送은 空軍本部 先遣隊長이 擔當하라.

五. 余는 空軍本部에 在함.

空軍總參謀長 空軍少將 金 貞 烈

부록 제64호

1951 5. 12

大 邱

空本作命 第28號 空 軍 本 部

命 令

一. 省略

二. 軍은 一部兵力을 移動시켜 次期作戰 及 訓練의 萬全을 期하려함.

三. 偵察飛行戰隊長은 1951 5. 4. 24 00까지 戰隊本部를 東明基地에 移動하고 本部兵力을 除外한 戰隊主力을 1951 5. 15 24.00까지 泗川基地에 移動하여 次期作戰 及 訓練에 萬全을 期하라.

四. 1 軍需局長은 偵察飛行戰隊 收容에 關한 施設을 擔當하라.

2. 移動은 自隊 車輛에 依한다.

五. 余는 空軍本部에 在함.

부록 제65호

1951. 6. 12

大 邱

空本作命 第31號 空 軍 本 部

命 令

一. 省略

二. 軍은 一部兵力을 泗川基地에 移動하여 次期作戰準備에 萬全을 期하려 함.

三. 1. 第101基地戰隊長은 1951. 6 14 24 00까지 一部兵力을 泗川基地에 先發시켜 本隊收容에 萬全을 期하게 하고 水原基地隊 及 無線通信班要員을 除外한 主力을 6. 15부터 行動을 開始하여 6 20. 24.00까지 泗川基地에 移動完了하라.

2. 偵察飛行戰隊長은 作戰上 必要한 一部兵力을 東明基地에 殘置하고 主力을 1951. 6 20. 24.00까지 泗川基地에 移動完了하라.

3. 飛行團長은 第11戰鬪飛行中隊를 1951 6 20. 24 00까지 撤收 泗川基地로 移動케 하고 6월 23일부터 行動을 開始하여 第102基地中隊를 除外한 團主力을 6 30. 24.00까지 泗川基地에 移動完了하라.

4. 通信隊長은 1951. 6. 16. 12.00까지 第1通信所로 하여금 第101基地戰隊長의 指示를 받게하고 서울基地通信所를 掌握케 하여 서울市 前 空軍本部內에 移動 1951. 6. 20 12 00까지 空軍本部와의 連絡通信을 完了케 하라.

四. 軍需局長은 別紙 輸送計劃에 依하여 輸送을 擔當하라.

五. 余는 空軍本部에 在함.

省略 : 別紙 輸送計劃表

부록 제66호

1951. 6. 20

濟州邑 龍潭里

飛團作命 第7號 空 軍 飛 行 團

命 令

一. 省略

二. 戰團은 6월 23일 08.00 行動을 開始 6월 30일 24.00까지 泗川基地에 前進完了하여 8월 以後 作戰을 위하여 戰技訓練을 하려 함.

三. 1. 第1梯團, 第2梯團은 6월 30일 09.00 M—40을 出發 泗川에 前進即時 訓練에 萬全을 期하고 第3梯團은 C—47便을 利用 泗川에 追及 前進하라.

C—47便의 時期는 別途指示함.

2. 地上輸送부대는 6월 23일 09.00 行動을 開始 6월 30일 21.00까지 泗川에 前進完了하라. 輸送計劃 別紙와 如함. (輸送指揮官의 計劃임).

3. 殘留부대 중

가. 第102基地中隊

(1) 警備小隊員은 別命 有할 時까지 第2管區長의 區處를 받아서 行動하라.

(2) 通信班은 別命 有할 時까지 一部 指揮塔을 包含한 基地通信業務를 繼續하라

나. 憲兵隊는 別命 有할 時까지 第2管區長의 區處를 받아 現業務를 繼續하라.

다. 醫務班은 連絡將校와 協力하여 殘留家族의 衛生에 關한 業務를 擔當하라.

라. 連絡將校는 各 中隊로부터 殘留할 士兵 7名을 指揮하여 主로 團主力과 家族과의 連絡 及 保護에 任하라.

마. 殘留부대에 對한 裝備는 別表와 如함.

4. 가. 各 中隊는 連絡兵 1名을 殘留連絡將校 指揮下에 差出하라.

나. 殘留要員을 除外한 各隊는 6월 20일 08.00부터 梱包를 開始하고 其他細部는 輸送指揮官의 指示에 依함.

5 泗川에 前述한 第11戰鬪飛行中隊는 6월 26일 12 00까지 全車輛과 先發隊를 馬山과 晋州에 配置完了하여 主力輸送을 容易케 하라.

四. 行政事項

1. 輸送區分

가. 海上輸送은 6월 X일 Y시에 濟州港을 出港하는 LST○○號에 依함. 時日은 別途指示, 積載區分은 輸送指揮官의 計劃에 依함.

나. 馬山—晋州間은 列車輸送 細部事項은 馬山到着後 指示함. 晋州—泗川間은 自動車輸送을 하라. 細部는 晋州到着後 輸送指揮官에게 指示함.

2. 人事

飛行團特命 第○○號에 依함.

3. 給養 休宿

輸送間 給養, 休宿에 關해서는 時期, 場所, 現場에서 指示함.

4. 家族에 關한 事項

殘留家族에 對해서는 當 飛行團 恤兵課에서 從前과 같이 有償 無償의 糧穀配給의 斡旋을 하기로 함.

移動을 希望하는 家族에 對해서는 船便 其他 一切의 責任을 지지 아니함.

5. 殘留部隊補給에 關한 事項

가. 殘留 부대장은 空本 所有米 500叭를 濟州에 保管하라.

나. 殘留部隊에 對한 補給은 6월 22일 10.00 軍需處에서 指示함.

6. 補給品 集積에 關한 事項

가. 濟州에 集積할 補給品 數量은 別表와 如함.

나. 其他지구에 集積할 補給品目 及 數量은 現地에서 軍需處長이 指示함.

7. 其他事項

가. 梱包材料는 6월 20일 11.00까지 軍需處에 申請하라.

나. 各隊는 梱包數量을 6월 22일 12.00까지 輸送指揮官에게 提出하라.

五. 1. 通信小隊長은 指揮塔 及 基地市內間의 有線通信網 一回線及 無線 1台를 除外하고 6월 20일 20.00까지 撤收하여 6월 29일 24.00까지 泗川基地에 指揮塔 及 無線을 設置 空軍本部間의 連絡을 通케 하고 有線網 構成을 待機하라.

2. 余는 6월 30일 09.00까지는 濟州에, 以後 第2梯團과 같이 T—6으로 泗川에 行함.

省略 : 附表 1. 軍隊區分

附表 2. 殘留부대에 관한 사항

附表 3. 補給品 集積에 관한 事項

空軍飛行團長 空軍大領 張 德 昌

부록 제67호

1951. 6. 27
大 邱
空 軍 本 部

空本作命 第32號

命 令

一. 省略

二. 軍은 一部兵力을 釜山에 派遣 空軍本部 一部業務를 代行케 하려함.

三. 1. 空軍本部 各局監室長 及 補給局長은 別紙에 依하여 逐次 派遣하되 1951. 6. 29. 24.00까지 于先 必要한 人員을 釜山에 派遣하라.

2. 派遣人員중 先任將校는 派遣人員을 統合 掌握하여 1951. 7. 1. 00.00 부터 業務를 開始하라.

3. 通信隊長은 1951. 7. 1. 00.00부터 第8通信所長으로 하여금 空軍本部 釜山分室의 區處를 받게 하라.

四. 人員과견은 別紙에 依함.

五. 余는 空軍本部에 在함.

省略. 別紙一人員派遣割當表

부록 제68호

1951. 7. 18
大 邱
空 軍 本 部

空本作命 第33號

一. 省略

二. 軍은 國防部 一般命令 第32號에 의하여 空軍本部 釜山分室을 移動하려 함.

三. 1. 空軍本部 釜山分室長은 1951. 7. 18. 08.00부터 行動을 開始하여 同日 17.00까지 釜山水晶洞國民學校에 移動完了하라.

2. 細部에 關해서는 國防部 第3局長의 指示를 받으라.

四. 軍需局長은 移動用 車輛支出을 擔當하라.

五. 省略

부록 제69호

1951. 8. 21
大 邱
空 軍 本 部

空本作命 第34號

命 令

一. 1. 智異山을 中心으로 暗躍하는 共匪는 近者, 晋州, 泗川地區에 頻繁히 出沒하여 泗川基地에 威脅을 주고 있음.

2. 我警察戰鬪部隊는 此 共匪掃蕩에 任하고 있음.

二. 軍은 智異山周邊의 共匪에 對한 警察戰鬪部隊 地上作戰에 空中支援攻擊을 하려 함.

三. 1. 第1戰鬪飛行團長은 此敵을 空中攻擊, 警察戰鬪部隊 地上作戰을 支援하라.

2. 偵察飛行戰隊長은 飛行隊 一部로 하여금 偵察에 任하게 하여 第1戰鬪飛行團의 作戰에 協力하라 細部에 關하여서는 智異山지구 警察戰鬪司令官과 協議하라.

四. 該作戰期間中에 所要되는 彈藥 燃料는 第1補給分廠에서 供給하라.

五. 省略

省略·附錄 第1表—南韓一帶의 共匪現況表

부록 제70호

1951. 8. 3

大 邱

空本作命 第35號 空 軍 本 部

一. 省略

二. 軍은 第100空軍基地團 兵力의 配置를 變更하여 主要基地를 確保하고, 飛行部隊 支援에 萬全을 期하려 함.

三. 第100空軍基地團長은 團司令部를 大邱에 두고 1951. 8. 10. 24.00까지 隷下 各大隊를 下記와 如히 移動 配置하라.

1. 第102空軍基地大隊는 本部를 濟州에 두고 島內 所要基地를 確保 強化하라.

2. 第103空軍基地大隊는 本部를 大邱에 두고 泗川飛行場을 除外한 慶尙南北道內 所要基地를 確保 強化하라.

3. 第104空軍基地大隊는 本部를 大田에 두고 忠淸南北道 及 全羅南北道內 所要基地를 確保 強化케 하다.

4. 第105空軍基地大隊는 本部를 서울에 두고 京畿道 江原道內 所要基地를 確保 強化케 하라.

5. 第108空軍基地大隊는 泗川基地에 移動하여 偵察飛行戰隊 戰力發揮를 위한 後方支援에 萬全을 期하라.

四. 1. 移動에 關한 兵力輸送은 自隊車輛에 依하라.

2 移動用 燃料는 補給廠에서 供給한다.

五. 省略

省略 : 附錄 第1表—基地分布圖

부록 제71호

1951 9. 13
大 邱
空本作命 第36號 空 軍 本 部

命 令

一. 省略

二. 軍은 次期作戰을 爲하여 一部兵力을 江陵基地에 前進시키려 함.

三. 第1戰鬪飛行團長은 一部兵力 (F—51機 12臺 AT—6機 1臺와 兵力 300명을 超過하지 않는 人員)을 1951. 9 28. 18.00까지 江陵基地에 前進시켜 1951. 10. 1부터 主로 韓第1軍團 地上作戰에 直接 協力할 수 있는 諸般準備를 完了하라.

四. 1 食糧 9月分은 自隊에서 支給받은 分을 携帶하라. 10월 1일부터는 推進補給한다.

2. 油脂 彈藥은 補給廠 泗川分廠으로부터 派遣된 補給責任將校를 通하여 美空軍 第6151基地部隊長으로부터 補給받으라.

3. 輸送은 別紙(第一) 計劃에 依함.

五. 1 江陵基地와 大邱 空軍本部 및 泗川 第1戰鬪飛行團 司令部間의 無線通信은 1951. 9. 21. 12.00부터 開始하라.

2. 無線通信 開始時까지 陸軍通信網을 利用하라(別表 第二參照)

3. 美空軍과의 通信連絡은 將次 設置되는 直通電話에 依하라.

4. 省略

<別表 第1 輸送計劃>

一. 方針

飛行團은 泗川에서 訓練을 繼續하는 同時에 基地部隊의 一部兵力을 推進하여 江陵基地 展開準備를 完成하는 한편 空中部隊 及 整備部隊는 空中輸送으로 短時日內에 移動을 完了하여 作戰 訓練의 間隙을 極少로 補塡하려 함.

二. 要領

1. 泗川基地에서 實施하는 訓練에 支障이 없는 範圍內에서 基地部隊의 主力 及 器材의 一部를 可及的 速히 江陵基地에 展開시킬 것.

2. 整備部隊의 主力은 空中輸送으로 하고 基地人員 及 器材는 主로 船舶 及 陸軍車輛을 利用함.

3 9 27 18.00까지 完了할 것임.

三. 細部計劃 · 省略

四. 責任限界

輸送指揮官은 第101基地戰隊長(空中部隊 除外)으로 하고 空軍本部 軍需局長이 輸送機關의 準備를 한다.

省略 : 別表 第2—江陵基地作戰通信網圖

空軍總參謀長 空軍少將 金 貞 烈

부록 제72호

1951. 8. 27. 12 00

海兵제8042부대작명 제35호 江原 寒溪里

地圖5萬分之1·韓國 해병제8042부대본부

作戰命令

一. 가. 附表 3. (베이커) 情報참조

나. (1) 第10軍團은 「캔사스」線의 防禦任務를 계속 담당하며 「판치볼」北方 및 西北方의 高地를 占領하기 위하여 제한된 目標에 攻擊을 개시함.

(2) 海兵 第1사단은 別途 指示된 攻擊日時에 美陸軍 제2사단線을 통과하여 目標 2 및 3을 攻擊占領하려 함.

다. 美陸軍 제2사단은 左側에 位置하여 目標 3을 占領하기 위한 攻擊을 開始할 것이며 韓國육군 제8사단은 右側에 位置하고 있음.

二. 가. 部隊는 師團命令에 의거하여 豫備隊 위치로부터 新集結地域에 집결하여 別途지시된 공격개시 일시에 美육군제2사단線을 통과하여 目標3을 攻擊占領코자 함.

나. (1) 境界線 공격목표 友軍진지 및 作戰구역은 別紙 작전투명도를 참조할 것이며 LD線은 별도지시함.

(2) 공격개시 일시는 別途지시함.

(3) 부대집결지역은 별지부표 作戰투명도를 참조하라.

(4) 부대연락은 右에서 左로

다. (1) 砲兵제11연대 제1대대 및 韓國陸軍 제110부대의 4.2吋重迫擊砲중대는 我부대를 직접 지원할 것임.

(2) 下記 편성반이 我부대에 배치됨.

① 第1通信대대 분견대

② 4個 戰術航空 연락반

③ 1個 無線車班 및 1個無線班

④ 1個 交換班

⑤ 4個 砲연락반

⑥ 砲兵 FO班

⑦ 第5연대는 師團예비대로써 我부대 및 第7연대의 임무를 담당하게 됨.

二 가. (1) 各부대는 활당된 車輛便으로 8월 27일 18.00부터 同 28일 06 00까지(DT 3034) 지점에 이동완료와 同時, 즉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萬般 준비하라.

(2) 집결지점에서의 移動順序는 별도 지시함.

나. 各부대는 攻擊개시 前日 별도 지시된 作戰구역에 偵察을 실시할 것이며(友軍 地雷原의 위치는 별도 부표 F를 참조), 美陸軍 第2師團線 통과 즉시로 指定된 담당구역의 책임을 담당하라.

四 가. 各부대는 前集結지역을 선정하기 위하여 연대 作戰將校와 各대대 중대장 및 將校 1名씩을 차출하여 8월 27일 14.00에 출발 연대 집결지인(DT 3034)에 도착하여 各대내 집결지역을 선정하라.

나. 통신대장은 신집결지점에 有線을 架設하고 차후 부대행동에 따라 수시로 이동하라.

다. 輸送대장은 차량배당에 만전을 기하라.

五. 연대지휘소는 各대대가 이동한 후 8월 28일 01 00에 現위치를 출발함.

海兵제8042부대장 海軍大領 金 大 植

부록 제73호

1951. 8 30. 07.00

海兵第8042부대作命 제36호 江原 坪村

지도 5萬분지1 韓國

作戰命令

一. 가. 最近 정기정보보고 참조

나 1 해병제1사단은 캔사스線의 防禦임무를 담당(작전투명도 참조)하고 "관치볼"의 北方高地를 占領하기 위하여 攻擊하려함.

2 韓國육군 제5사단은 관치볼西北方 1242高地를 점령하기 위하여 공격함.

3. 해병제7연대는 目標 1, 2를 점령하기 위하여 공격함(별지투명도 참조)

다. 해병제11연대 제1대대 제3중대 및 제1공병대대는 我부대공격을 직접지원하고 陸軍 4.2吋重迫擊砲 중대는 캔사스線의 방어부대를 지원할 것임.

二. 가. 부대는 目標 3을 점령하기 위하여 攻擊開始線에서 8월 31일 06.00를 기하여 出擊코자 함.

나. 경계선, 공격목표 및 友軍진지 작전지구 대대境界線은 별지 투명도참조.

三. 가. 第3대대는 攻擊目標 924高地(DT 9238)를 점령하고 第1대대의 1026高地의 공격전진을 지원하라.

나. 第1대대는 目標 3(1026高地)을 攻擊점령하라.

다 第2대대는 계속하여 第1대대구역을 包含한 現캔사스線의 방어임무를 담당하라.

라 1 75粍 對戰車砲는 第3大隊에 배속시킴. 第3대대가 目標 924高地를 占領완료후 第1대내공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2. 75粍 對戰車砲소대장은 水陸兩用車로 今日 19 30까지 (DT 278386)에 도착하여 第3대대장의 지휘를 받으라

① 부대연락은 右로부터 左로함.

② 공격대대는 8월 30일 19 20까지 공격개시선 후방으로 이동하고 결과를 보고하라.

③ 對空標識은 8월 31일까지 赤色으로 한다.

四. 가. 通信主任장교는 第3대대前方 CP까지의 通信線을 신속히 가설하라.

나. 75粍 對戰車砲소대에 대한 補給은 배치받은 부대에서 담당하라.

다. 행정사항은 별도지시함.

五. 가. 聯隊지휘소는(DT 3033)에 위치하고 本官은 공격시부터 55高地부근에 位置한다.

나. 各대대는 그 指揮所가 변동되는대로 즉시 보고하라.

부록 제74호

1951. 4. 10. 06 00

海兵제8063부대作命 제24호

지도 5萬分之1 . 陣東里

江原 陽通里

해병제8063부대본부

作戰命令

一. 가. 現情報보고서 참조.

나. 해병제1사단은 제1기갑사단과 4월 10일 07.00를 期하여 任務교대함. 해병 제1사단 제5연대는 本隊의 左側, 제2사단 제23연대는 右側에 있음.

二. 부대는 사단作命에 依據하여 제7기갑연대 및 제8기갑연대의 一部부대와 割當된 戰鬪지역 내에서 4월 10일 07.00에 교대하려 함.

戰鬪地境線—투명도참조

三. 가. 제1대대는 割當된 現위치에서 제7기갑연대 및 제8기갑연대 一部부대와 交代하고 左側 제5연대와 連結하라.

나. 제2대대는 割當된 現위치에서 제7기갑연대의 一部부대와 交代하고 제1대대와 連結하라.

다. 제3대대는 연대예비대로서 陽通里(CS 890 050)로 移動하고 1개소대를 差出하여 연대 CP를 警備케 하라. 別命이 有할 時 出動할 수 있도록 待機하라.

a. 隣接부대와 긴밀히 連絡하라.

b. 交代完了時, 敵과 接觸이 有할 時, 報告하라.

四. 部隊後方은 CS 843040에 在留함.

五. 聯隊本部는 CS 890050에 位置함. 各대대本部는 決定되는대로 報告하라.

海兵제8063부대장 海軍大領 金 聖 恩

부록 제75호

1951 4 20. 19.00

海兵제8063부대作命 제25호 江原 陽通里

지도 5萬分之1 : 華川 해병제8063부대본부

作戰命令

一. 가. 現定期情報보고 참조

나. 해병제1사단은 4월 21일 07.00에 공격을 개시하여 Q線 및 W線以南의 敵을 攻擊하려함.

연대左側에 美해병제5연대, 右側에 美보병사단23연대가 있음.

砲兵제11연대제2대대, 제1工兵대대 B중대 제3소대, 제86공병探照燈중대 제3소대 제1반, 제1水陸兩用 수송중대 제1소대(12대)가 직접 부대를 支援할 것이며 제1대대 및 제2대대는 對空연락반이 配置됨. 必要에 따라 항공기로 煙幕을 할 수 있음.

二. 가. 部隊는 美해병제1사단作命 제3—15호에 의거 目標 C 및 D를 攻擊점령한후 사단명령이 有하는 即時로 攻擊목표 H를 占領하려함.

나. 攻擊개시선—캔사스線

戰鬪地境線—透明圖참조

攻擊目標—透明圖참조

攻擊開始時間—4월 21일 07.00

三. 가. a. 제1대대는 4월 21일 07.00에 攻擊을 개시하여 目標 2 및 6을 占領하고 연대命令이 有하는 即時로 CT 870170 부근에서 水陸兩用車로 北漢江을 渡河할 수 있도록 準備하라.

b. 左側의 美해병제5연대와 接觸을 維持하라.

나. a. 제2대대는 增強한 소총 1개소대로서 攻擊목표 10을 계속 확보하라.

b. 연대命令에 따라 대대잔여부대병력은 제1공병대대 B중대 3소대에서 架設한 人道橋(CT 913162)로 北漢江을 渡河할 수 있도록 準備하라.

c 연대命令에 따라 前進을 계속하여 攻擊목표 9를 占領하도록 準備하라.

d. 공격목표 D를 占領한 즉시로 一部兵力을 差出하여 貯水池(CT 932188)를 警備케 하라.

e 左側 제1대대와의 接觸을 유지하라.

다. 제3대대는 계속하여 연대豫備隊로서 연대命令에 따라 即時 DT 869165부근에 集結하여 追加명령시 CT 870170에서 水陸兩用車로 北漢江도하준비를 하라.

a 左側 및 右側과의 接觸을 긴밀히 하라.

b. 積極的이며 果敢한 對戰車공격방책을 채택하여 使命完遂를 期하라. W線의 攻擊 목표占領즉시 各隊는 對戰車방어계획을 연대本部에 提出하라.

c 연대本部에 下記사항을 即時보고하라.

(1) 대대의 北漢江 도하개시 시간

(2) 대대의 北漢江 도하완료시간.

(3) 대대의 攻擊개시시간.

(4) 내대의 攻擊목표占領時間

(5) 敵과의 接觸

四. 가. 攻擊목표 7 및 11을 占領한 即時로 목표 1, 3, 5 및 補給品집적소를 CT 873183附近으로 移動개시하라.

나 各隊는 1日分의 "J"레이숀을 携帶케 하라.

다. 연대醫務隊는 연대근무중대와 같이CT 873183으로 移動할 수 있도록 準備하라.

라. 제2대대는 負傷者를 直接 春川의 醫務中隊로 後送하라.

五. 가. 제1水陸兩用수송中隊 제1소대 및 제1공병대대 B중내 제3소대는 연대命令이 있는 即時로 SCR 300 特別周波數 "37"을 使用토록 準備하라.

나. 各대대 指揮所는 各대대長이 決定하고 即時 보고하라.

다. 연대指揮所위치는 CT 890050에 계속 存留한다.

부록 제76호

1951. 4. 27. 24.00

海兵제8063부대作命 제26호

지도 5萬分之1—洪川

江原 陽通里

해병제8063부대본부

作戰命令

一. 敵은 繼續하여 西部의 제1군단에 強力한 壓力을 加하고 있음.

二. 가. 해병제1사단은 4월 28일 아침에 洪川 西北方의 B線으로 撤收를 개시함(투명도 참조)

나. 撤收의 序列은 美제7, 제1, 美제5, 美제1연대順임

다. 部隊는 4월 28일 07.30에 목표 F로 徒步行軍으로 撤收를 개시코자 함. 行軍序列은 제3, 제2 제1대대 順임.

三. 가. 제1대대(對空연락반배속)은 4월 28일 07.45에 月谷里(CS 956973)에서 行軍을 개시 下記經路를 經由하여 目標 F에 到着하라.

枝內里(CS 932963)—後坪里(CS 904937)—沙方丘 도로교차점(CS 935785)

目標 F의 北方部를 占領방어하고 右側의 제3대대와 接觸을 유지하라(투명도참조).

나. 제2대대는 연대예비대로서 4월 28일 08.00에 枝內里(CS 932963)로부터 下記지점을 經由, 行軍으로 移動하라.

後坪里(CS 904937)—속사리道路교차점(CS 896905)—사봉리道路교차點(CS 935785) 257高地(CS 946770)와 南으로 1粁 連하는 稜線, 426高地(CS 963754)와의 東北으로 800粁 連하는 稜線, 307高地(CS 951743) 및 東北으로 連하는 稜線을 占領방어하라.

다. 제3대대(對空연락반배속)는 4월 28일 07.30 甘井里(CS 933952)로부터 下記 經路를 經由하여 目標 F에 到达하라.

後坪里(CS 904937)—속사리道路교차點(CS 896905)—沙方丘도로교차點(CS 935785)

目標 F의 南半部를 占領防禦하고 左側의 제5연대와 接觸을 維持하라(투명도참조).

四. 연대 補給品集積所(1, 2, 3種)는 洪川부근에 設置하라.

五. 가. 부대소員은 行軍時 「J레이숀」 1日分을 携帶하라.

나. 연대本部수송대는 연대본부수송에 任하라.

다. 연대本部위치는 CS 972768부근일것임.

부록 제77호

1951. 5. 1. 06 00

海兵제8963부대作命 제27호

지도 5萬分之 1·월천리

江原 明東里

해병제8963부대본부

作戰命令

一. . 省略

나 a. 美陸軍제7사단은 韓國육군제7사단과 交代하고 我해병사단의 左一線을 擔當할 것임.

b. 해병사단은 제9군단을 떠나 제10군단에 配置됨.

二. 部隊는 割當된 地域內의 새로운 主抵抗線의 沿線을 占領防禦코자 함.

三. 가. 제1대대는 5월 2일 06.30에 제고리(CS 916670)부근으로부터 洪川江 沿道를 經由, 上巨里(CS 945746)부근으로 移動하여 연대 右一線이 되어 제7연대 제1대대와 5월 2일 10.00以前에 任務를 交代하고 지역내 새로운 主抵抗線을 占領방어하라.

左側의 제3대대와 接觸을 유지하라.

나. a. 제2대대는 제5연대 제3대대와 任務를 交代한 後에 現위치에서 行動을 개시하여 洪川江 沿道를 經由, 屈只里(CS 944736)부근으로 移動하여 연대豫備隊로 A高地(CS 923734)로부터 389高地(CS 927740) 및 381高地(CS 933741)에 延長하는 高地를 占領방어하라.

b. 제7중대는 5월 2일 06.30에 原隊복귀하라.

c. (1) 增強된 1개중대를 「로자」線 부근에 두어 每日 「레콘」線으로 巡察을 實施하라.

(2) 巡察근거지를 매일 移動하라.

(3) 強力한 敵의 攻擊을 받을 時에는 偵察중대는 대대占領線으로 撤收하라.

(4) 偵察중대는 希望되는 觀測地點을 變更하라.

다. 제3대대는 現위치를 變更하여 割當된 지역내의 새로운 主抵抗線을 占領방어하라.

左側의 제5연대와 接觸을 유지하라.

라. 各대대는 每日 19.00까지 當日 巡察結果 및 翌日정찰예정을 報告하라.

四. 가. 연대補給品(1, 3, 5種) 集積所 및 연대醫務隊는 陽德院里 부근에 在留한다.

나. 各대대본부위치는 設置되는 即時 報告하라.

다. 통신대는 「로쟈」線 부근에 있는 偵察중대본부와 豫備대대間의 有線전화를 設置유지하라.

五. 연대본부위치는 CS 915625에 있음

부록 제78호

1951. 5. 22. 02.00

海兵제8042부대作命 제28호 기원 明東里

지도 5萬分之 1 : 洪川 해병제8042부대본부

作戰命令

一. 가. 省略

나. 美보병제32연대는 그 作戰地區에서 攻擊을 계속하여 一般的으로 橫座標 80線에 沿한 攻擊목표를 占領할 것임.

美해병제7연대는 그 作戰地區 左반부에서 攻擊을 개시하여 472高地(CS 919787)를 占領할 것이며 右翼은 계속 現위치를 維持할 것임.

다. 美포병제11연대 제4대대가 直接 부대를 支援할 것이며 美해병제1戰車대대 D중대 제3소대가 부대를 直接지원함.

二. 부대는 사단命令에 의하여 463高地(CS 899772) 및 248高地(CS 874771)를 攻擊점령코자 함.

攻擊開始時間 : 08.00

戰鬪地境線 : 투명도참조

攻擊目標 : 투명도참조

三. 가. 제1대대는08.00에 現위치에서 攻擊을 개시하여 중간目標 1 및 2를 占領하라.

左側의 제2대대와 接觸을 유지하라.

나. 제2대대(제5중대 제외)는 08.00 以前에 265高地 (CS 891738)에서 제5중대와 合流할 수 있도록 現在위치를 出發하라.

08.00에 265高地를 出發하여 중간目標 3 및 4를 占領하라.

연대命令이 있는 即時로 계속 공격하여 중간目標 8을 占領할수 있도록 準備하라. 左側의 제31연대와 接觸을 유지하라

다. 제3대대는 연대豫備隊로서 現陣地를 유지하고 연대命令이 있는 即時로 420高地(917748)로 移動할 수 있도록 準備하고 我部隊의 右側을 掩護하라.

라. 戰車지원을 받는 대대는 1개소총중대로 하여금 戰車와 協同作戰케 하라.

特히 夜間에는 一部병력을 差出하여 戰車를 掩護하라.

마. 戰車隊는 10 00頃 CS 8737750 地點에서 제2대대 連絡장교에게 攻擊지원준비 如何를 報告할

것임.

四. 省略

五. 가. 各隊는 黃色내공표식을 준비하여 友軍機 또는 友軍地上부대와의 接近時 此를 標示하라.

나. 戰車와 協同하는 부대는 SCR300 周波數 5로서 戰車와 連絡을 維持하라.

다. 연대본부위치는 變動없음

부록 제79호

1951. 5. 22. 24 00

海兵제8042부내作命 제29호

지도 5萬分之 1 : 洪川

江原 明東里

해병제8042부대본부

作戰命令

一. 省略

二. 제7연대는 제31보병연대와 交代하고 一般的으로 MSR에 連하는 地域부근으로 移動할것임.

部隊는 제31보병연대와 交代하고 즉시 松亭里(CS 064763)부근으로 移動하여 北進作戰을 準備코자 함.

三. 가. 제1대대는 5월 23일 12.00까지 現位置에 在留하라.

同時刻에 제31연대가 제1대대前面에 들어와 攻擊을 계속할 것임.

제31연대와 交代한 即時로 最良의 經路를 밟아서 CS 948758 乘車지점으로 前進하여 車輛으로서 集結지역으로 移動하라.

나. 제2대대는 5월 23일 08.00까지 現位置에 殘留하라.

同時刻에 제31보병연대가 제2대대前面으로 들어와 攻擊을 계속할 것임.

제31보병연대와 交代한 즉시로 最良의 經路를 밟아서 CS 948758의 乘車지점으로 前進하여 割當된 車輛으로 集結지점까지 移動하라.

제31보병연대와 交代하는 즉시로 제1戰車대대 D중대 제3소대를 復歸措置하라.

戰車복귀시간을 聯隊本部에 報告하라.

다. 제3대대는 5월 23일 08.00에 現위치를 出發 CS 948758 乘車지점으로 前進하여 集結地域으로 車輛移動하라.

交代부대에 對하여 案內兵을 提供하여 地雷源을 무사히 通過시키라.

CS 929759에 連하는 溪谷을 東南으로 移動하는 部隊는 地雷가 淸掃된 道路만을 利用하라.

四. 가. 해병사단으로부터의 支援車輛을 下記와같이 割當함.

연대본부 5대, 제1125부대 35대, 제2032부대 35대, 제3129부대 35대, 근무중대 8대, 의무대 2대

別命이 없는限 各부대는 松亭里(CS 064763) 부근에서 下車하라.

제2대대는 全彈藥을 搬出하라.

五. 가. 前線대대는 任務교대완료 즉시로 報告하라.

나. 근무중대 및 의무대는 松亭里로 移動함.

다. 연대後方 野戰병원은 主補給路근처 一般的으로 松亭里부근에 移動함.

라. 연대指揮所는 5월 23일 下午에 松亭里부근으로 移動함.

2. 年 表

월 일	중 요 사 항
5월 1일	**軍 事**
	○ UN軍戰車 보병대 서울北方에서 探索戰 계속.
	○ 航母巡洋艦 東海및 西海에서 敵施設 砲擊.
	○ UN空軍 中部, 東部, 猛擊.
	○ UN空軍 空中爆雷로 華川 貯水池에 大打擊을 加함, 敵殺傷 615名.
	○ 美極東海軍司令官「죠이」中將, 開戰以來 10個月間의 海軍에 依한 戰果發表.
	橋梁 376, 機關車 539, 貨車 3,761, 추럭 2,552(以上 各各파괴)
	추럭損傷 1,416, 倉庫폭파 1,271, 補給品集積所 파괴 356, 軍駐屯 건물파괴 2,715, 同損傷 117, 兵舍파괴 117 탱크 파괴 및 파손 304, 敵殺傷 約47,332.
	○ 孫少將, 前線 視察하고 國軍海兵隊의 勇戰을 讚揚.
	政 治
	○ 北韓 行政要員 講習修了式 於慶南道廳.
5월 2일	**軍 事**
	○ 洪川지구 UN軍陣地에 來攻한 敵을 擊退.
	○麟蹄東方地域에서 2—3個中隊의 敵과 熾烈한 戰鬪 계속.
	○ 中共軍 서울北方 지구로부터 東方에 移動.
	○ 今日 地上軍에 의한 敵 殺傷數 1,390名.
	○ UN艦隊 元山港 砲擊
	○ 艦載機隊, 서울北方과 端川北方에서 機關車 및 鐵道車輛 23輛, 自動車 12臺 擊破, 敵 133명 殺傷.
	○ B—29隊, 平壤 北方 40哩의 橋梁爆破.
	○ UN空軍, 敵車輛 60臺, 單發敵機 1臺 擊破.
	○ 제8군사령관 敵의 反攻은 大失敗라고 談話.
	○ 美第25師團長代理「미카엘리스」准將 S.H A.P로 轉任
	○ 丁中將 東部戰線 視察.
	政 治
	○ 軍事郵便法公布 施行.
5월 3일	**軍 事**
	○ 我軍 160哩의 全戰線에서 攻勢로 轉移.
	○ 杜城 西南方에서 敵搜索隊 擊退.
	○UN軍, 春川 東南地區에서 兵力不明의 敵과 交戰.
	○ UN砲兵및 地上부대, 麟蹄주변 敵侵攻을 擊退.
	○ UN軍 機動부대 議政府 突入
	○B—29隊 平壤·沙里院에 爆彈 約 70噸 投下.

월 일	중 요 사 항
	○ 美空軍機 敵 補給路上에서 無數한 추럭 擊破.
	○ UN空軍 敵車輛 638臺擊破, 탱크 40臺擊破, 人員殺傷 500名.
	政 治
	○ 李大統領 國軍 將兵에게 訓示(於大邱)—最後의 勝利는 우리의 것.
	○ 李大統領, 美第5空軍司令部 訪問하여 「덤버—레이크」少將에게 表彰狀 수여
	○ 卞外務部長官, 對蘇 強硬策이 時宜하다고 記者會見談.
5월 4일	**軍 事**
	○ 麟蹄東方에서 敵擊退
	○ 서울 西北方에서 敵을 北方으로 擊退.
	○UN폭격대 敵軍用建物 200, 車輛 180臺 擊破.
	○ 地上軍 全戰線에서 敵 755名 殺傷, 37名 捕虜.
	○ 開戰以來 美軍損害, 戰死 11,001名, 戰傷 42,215名, 行方不名 9,562名, 捕虜 114, 行方不明後 복귀 1,163名 合計 64,055名
	○「릿」將軍 一線視察
	政 治
	○ 李大統領「릿」將軍과 會談.
	○ 李大統領 特別補佐官 「가이싱거」氏 韓國軍 50萬에 武裝되면 中共軍 擊退는 容易하다고 談.
	○ 中國防部長官, 軍醫學校 功績을 讚揚하고 表彰狀 수여
	○ 逮捕된 北共職員, 蘇聯은 過去에 北韓에서 우라늄을 포함하는 鑛石을 搬出하였다고 談.
5월 5일	**軍 事**
	○ UN軍探索隊, 麟蹄突入 敵 255名 殺傷, 57名 生捕.
	○ 高陽 西南지역에서 敵抵抗에 遭遇
	○ 空軍 257臺의 敵移動中輛 發見 其中 140臺 擊破.
	○ 美國側, 今日發表 3月 9日까지의 國軍損害, 戰死 16,182, 戰傷 88,511, 行方不明 63,959, 合計 168,625 其他 13個國 UN軍損害 3,173.
	○ 릿將軍, UN軍은 韓國戰線에서 主導權回復하였다고 談話.
	政 治
	○ 李大統領 中國防部長官의 辭表 受理하였다고 國會代表에 言明.
	○ 引美大使 向美.
5월 6일	**軍 事**
	○UN軍 探索隊, 서울 春川道路北方에 進出.
	○ 昭陽江 및 春川 東北方에서 敵의 輕微한 攻擊에 交着.
	○ 西北上空에서 敵夜間 제트機 3臺(新型?) 美B—26 1臺를 攻擊, (이번이 세번째)
	○ 北韓 重要補給路에서 4000臺의 敵大輸送隊 發見.
	○鎭南浦港口의 補給品 集積所에 高性能爆彈 多量投下.
	○UN地上軍 敵 570名 殺傷, 37名 生捕
	○「밀홀」准將, 美 第25師師團長으로 就任.

월 일	중 요 사 항
	○ 에치오피아 輕步兵大隊(1,185名, 司令官「크부츠」大領)釜山에 到着.
	政 治
	○ 6日 午前零時를 期하여 日光節約時間實施
5월 7일	軍 事
	○ UN軍探索隊, 麟蹄近郊 38°線 突破.
	○ UN軍探索隊 春川에 突入.
	○ 서울北方 지역에서 我軍 4杆 前進.
	○ 我軍 議政府西北方 5杆地點에 進出.
	○ 空軍戰果, 一日間 추럭 239臺破損, 敵 225名. 殺傷
	○ 北韓 補給路上에서 3,700臺의 추럭 發見.
	○ 地上軍 敵 2940名 殺傷, 26名 生捕.
	政 治
	○ 政府 4閣僚 新任
	國防部長官 李 起 鵬
	內務部長官 李 淳 鎔
	司法部長官 趙 鎭 滿
	農林部長官 任 文 桓
	○ 太完善議員, 國民防衛軍 疑獄事件眞相을 國會에 報告.
5월 8일	軍 事
	○ UN軍 議政府 道路로 서울北方 32杆進出, 38°線에 急迫.
	○ 國軍 서울北方 27.2杆進出.
	○ UN軍 議政府 附近에 強力한 防禦線確保.
	○UN空軍 敵 約 300名 殺傷.

월 일	중 요 사 항
	政 治
	○ 李國防部長官 將兵에게 告하는 談話發表—謙虛한 心情으로 責務를 完遂하라.
	○ UNKRA 事務局長 代理「락칙」卿, UNKRA 事業計劃의 作成을 開始하였다고 記者會見에서 談.
	○ 內務, 法務, 總務處, 各長官 處長 就任式
5월 9일	軍 事
	○ 我軍 杆城에 突入.
	○ UN軍 接敵없이 麟蹄突入.
	○ 國軍第1師團, 西部戰線에서 敵 第19師와 第64軍을 擊滅.
	○ 新義州飛行場을 大爆擊, 新義州上空에서 最大의 空中戰, 我空軍 312機出動, 敵機 38臺 擊破.
	○ 美海軍소속「제트」機 2臺 敵에게 擊墜當함.
	○ UN地上軍 敵 2,130名 殺傷, 65名捕虜
	政 治
	○ 李大統領 戰線視察(清平, 加平의 師團訪問) 前般 中共攻勢에서 打擊입은 國軍 1個師團의 敗因은 方今關係當局에서 조사中이라고.
	○ 李副統領 辭表提出.
	○ 故金白一少將 遺骸를 江陵郡 大山面 邱山里山에서 發見
5월 10일	軍 事
	○ UN軍探索隊 春川 및 麟蹄에 突入.
	○ UN軍, 汶山占領.
	○ 敵主力, 汶山北方으로 계속 退却中.

월 일	중 요 사 항
	○ 國軍西部에서 서울을 包圍하려는 敵 6,000名을 擊滅.
	○ 議政府東方 및 東北方지역에서 大隊以上의 敵과 猛烈히 交戰.
	○ B—29 咸興, 淸津, 平壤등의 비행장 폭격.
	○ UN地上軍 敵 約 1,110名 殺傷, 約 700名 捕虜.
	○第10軍團長「알몬드」中將, 中共은 그 老大한 在韓中共軍을 어떻게 먹여 살리는지 기특한 일이라고 談話.
5월 11일	**軍 事**
	○ 敵의 抵抗은 大體로 防禦的.
	○ 國軍, 麟蹄 再탈환.
	○ 敵 서울北方 汶山, 議政府間에 集結中.
	○ 中部戰線의 敵 加平 附近으로 南下.
	○ 美空軍 平壤, 興南 飛行場을 폭격.
	○ 美第1軍團長「밀번」中將 國軍第1師團의 勇戰에 讚揚狀 傳達.
	政 治
	○ 國會, 李副統領 辭表返還을 115對 1로 可決.
	○ 國防：農林部長官, 駐英特命公使 任命式 (대통령관저)
5월 12일	**軍 事**
	○ 華川 東南方地區 敵 漸次 活發히 移動.
	○ 中共軍 昭陽江南岸의 橋頭堡를 擴大中.
	○ AP報道—中部의 中共軍移動은 攻勢再開의 徵兆.
	○ 敵 金化로부터 東方으로 麟蹄北方지대까지 煙幕使用.
	○ 敵 서울東北方 敵陣地 抛棄코 北으로 退却.
	○ UN空軍 加平 西方猛擊, 敵 400名 射殺.
	○ UN空軍 車輛 198, 貨車 253臺 擊破.
	政 治
	○ 國會兵役法改正案 通過
	○ 國民防衛軍設置法 廢止에 관한 法律 公布 施行.
5월 13일	**軍 事**
	○ 敵, 昭陽江 南岸의 그들의 橋頭堡를 向하여 大擧南下.
	○ 國軍麟蹄 부근에서 6回에 亘하는 敵의 反擊을 擊退
	○ 15,000으로 推算되는 兵力이 서울西北方으로부터 20哩 떨어져 있는 西部戰線으로 이동중.
	○ UN空軍, 平壤北方 25哩地點에서 發見된 敵航空基地를 130噸의 爆彈으로 潰滅.
	○ UN空軍 加平西南方 13粁 地點에 集結中인 敵 300名을 攻擊, 155名 射殺
	○ 밴將軍, 東部戰線의 韓國軍을 讚揚.
	政 治
	○ 李副統領 辭表 再提出.
5월 14일	**軍 事**
	○ 敵 約 700, 麟蹄 北方地域에서 我陣地에 反擊敢行 激戰中.
	○ 昭陽江北岸을 따라, 麟蹄西北方지역에 進擊한 我軍, 約 2個 大隊의 敵과

월 일	중 요 사 항	월 일	중 요 사 항
	激戰中.		○ 全戰線에서 彼我間에 探索 攻擊戰 熾烈 敵은 我陣地의 強弱點을 探索계속
	○ 議政府지구, UN軍부내 東豆川 方面으로 14粁以上 進擊코 探索.		○ 北共軍, 麟蹄占領, 我軍 反擊을 계속.
	○ 國軍先遣隊, 汶山南方및 東南方지역에서 中隊程度의 敵과 小規模 충돌.		○ 敵 今夜 麟蹄南方에서 國軍戰線을 突破.
	○ UN空軍 春川 北方지역에서 集結中인 敵을 猛擊 175名 射殺.		○ 中共軍, 春川東方에서 UN軍陣地 攻擊, 我軍 2次에 걸쳐 이를 擊退코 약간 후퇴.
	○ 補給物空輸에 新記錄(35噸投下)		○ 敵 昭陽江 및 北漢江 南方의 그들의 橋頭堡에 強力한 兵力投入.
	○ 地上軍戰果 1580名 殺傷, 73名 捕虜		○ 西部戰線 平穩.
	○「파트리지」第5空軍司令官談—去般의 新義州 비행장 大爆擊은 敵空軍에 큰 打擊을 주었으나 敵은 速히 恢復할 수 있을 것이라고.		○ B—29폭대, 沙里院 咸興 猛爆.
			○ UN軍 3,555名 殺傷, 23名 捕虜.
	政 治		政 治
	○ 國會, 李副統領 辭表 受理可決.		○ 國務總理 公報秘書官에 鄭允朝氏 就任.
	○ 國會, 居昌事件 調査處理에 관한 決議文 可決.		○ 政府, 國會議員 補選, 保留를 要請.
5월 15일	軍 事	5월 17일	軍 事
	○ 汶山南方, 東南方및 議政府北方, 西北方지역에서 경미한 충돌.		○ 麟蹄·春川間에서 激戰 展開中.
	○ 敵 春川 麟蹄間에서 顯著히 增強中.		○ 敵 麟蹄南方의 突破口로 大擧侵透.
	○ 今日戰果, 敵 2850 殺傷, 40名 捕虜		○ 中共軍 西部戰線에서 攻擊開始(兵力約 9萬5千 推算).
	○ 李國防部長官 參席裡에 三軍首腦部, 釜山港, LCI號 艦上에서 5時間 會談.		○ 第5空軍 717回 出擊, 850名 射殺.
	○ 丁中將, 敵第2次攻勢 能히 擊退 可能하다고 自信피력.		○ UN軍將校, 今次 攻勢의 敵兵力 39萬으로 推算.
	○「알몬드」中將 將兵 23名에 最高勳章 授與.		○ 쏘련醫療團, 北韓에서 天然痘 其他 傳染病 患者를 治療中(平壤放送).
	政 治		政 治
	○ 副統領에 金性洙氏 被選(3次投票끝에 在席 151票中 78票로, 次點은 李甲成氏 73票)		○ 故 金白一中將 葬儀式 東泉陸軍步兵學校에서 大統領 參席裡에.
			○ 各道 內務局長會議 慶南道廳에서.
5월 16일	軍 事		○ 張副議長, 國民防衛軍事件으로 金潤

월 일	중 요 사 항
	根을 問招中이라고 談話.
	○ 李大統領, 副統領補選後는 政府育成이 可함이라고 談話.
5월 18일	軍 事
	○ 我軍, 今夜 38線 全戰線에서 南方으로 撤收完了.
	○ 麟蹄西南方陣地 國軍 豫定 防禦線으로 撤收, 共産軍 萬名 侵透.
	○ 土耳其부대 突破口 封鎖에 분투.
	○ 敵, 議政府에 侵入.
	○ 空軍 880回出擊, 平壤 南川 開城 高浪浦 鐵原 金化 華川等地 맹격.
	○ 밴將軍談—敵의 今次攻勢는 失敗에 돌아갈 것이다.
	政 治
	○ 金副統領 國會에서 就任人事.
	○ 金副統領 初登廳.
	○ 國會 曹副議長動議로 李內務部長官, 國籍問題 不問에 붙이기로 可決.
	○ 朝紡事件으로 軍法開廷.
5월 19일	軍 事
	○ 東海岸國軍부대, 新防禦陣地에서 陣地整備中.
	○ 中部戰線에서 敵 洪川江 渡河.
	○ 美第2師 寶溪地區에서 敵의 包圍網을 뚫고 大奮戰.
	○ 敵, 淸平·加平間과 寶溪 春川지구에서 突破口로 繼續南下中.
	○ 議政府지구에 敵 集結顯著.
	○ 全UN軍 38°線以北 陣地로부터 撤收
	○ 敵攻勢 大出血로 점차 弱化中.
	○ UN空軍 892回 出擊.
	○ 第10軍團長「알몬드」中將, 美第2師團의 勇戰을 讚揚.
	政 治
	○ 李公報處長, 工學徒 150名 美·日兩國에 6個月~1年間 기한으로 신발유학시킨다고 發表.
	○ 國會·政府에 李副統領의 生活保障講究토록 建議하기로 可決.
	○ 國會 新政·共和 兩黨合同코 非民國系院內 安定勢力 結合.
	○ 北共 朴憲永, 貝將軍이 UN에 提出한 北共軍命令 文書는 虛僞 捏造라고 UN총회 및 安保에 聲明書發送(平壤放送).
5월 20일	軍 事
	○ 東海岸國軍 38線 南으로 撤收.
	○ 敵 3個師 今夜寶溪一帶地區의 我防禦線을 突破.
	○ 敵 3個師 美第2師前面에서 頑強히 攻擊中.
	○ 美第2師, 侵透敵의 突破口를 封鎖코 敵에게 大出血을 줌.
	○ 西部戰線에서 彼我 探索接觸 漸高.
	○ 元山의 敵砲臺로부터 命中彈에 의하여 美戰艦「뉴저지」驅逐艦「부링키마스」號의 乘務員 3名 戰死, 9名 負傷, 「죠이」中將 23日發表
	○UN空軍 電波探知照準器로서 美第2師지구의 敵兵力集結地의 夜間폭격.
	○ 今日 敵損失 24,700名.
	○「릿」將軍 前線視察後歸仁.
	○ 美極東空軍司令官「스트레이트 메이어」中將 發病(心臟病).

월 일	중 요 사 항
5월 21일	**軍 事**
	○ 中東部—中共軍, 美 第2師 東方 豊岩 北方을 向하여 4個兵團投入 其他 戰線은 安定回復.
	○ 美第2師, 韓國軍陣地의 突破口를 封鎖, 敵 國軍戰線에서 新突破企圖.
	○ 敵 第2次攻勢 6日만에 挫折, 中西部에서 北漢江 南岸의 橋頭堡로부터 後退開始.
	○ 國軍探索隊 汶山에 突入.
	○ 美軍機動부대, 議政府에 突入.
	○「알몬드」中將談—5日間의 敵損害는 48,341名 敵의 如何한 反擊도 擊退可能이라고.
	○ 美第2師 5日間에 敵 37,750名 殺傷.
	○ 敵「제트」機 6臺를 擊墜한 「쟈바라」 美空軍大尉, 戰鬪任務에서 解除됨.
	○ 李大統領 江陵地區 東部戰線視察(李國防部長官, 金空軍總參謀長 帶同).
	政 治
	○ 政府, UN軍 貸上金 中間償還을 美當局에 要請.
	○「메·포스텐박」羅馬 法皇特使 UN軍 慰問次 來韓.
5월 22일	**軍 事**
	○ UN軍 全線에서 2哩 前進 敵의 저항 小規模.
	○ 敵 1個大隊 寒溪, 豊岩間의 美第2師 前面에 래습, 我軍 이를 擊退.
	○ 中共軍, 清平近方의 橋頭堡 拋棄코, 北方으로 後退.
	○ 敵서울北方 15粁地點에서 抵抗強化.
	○ 國軍 汶山突破 臨津江岸으로 進出.
5월 24일	○ UN軍艦隊 東海岸 各地의 敵 集結地를 맹폭격.
	○ 敵機 1臺, 汶山南方 1粁지점의 我軍陣地 爆擊.
	○ 第5空軍司令官「파—트리쥐」中將, 極東軍司令官을 臨時代行.
	○ 美第2師團長「라프너」少將 第2師戰鬪力은 無限하다고 自信披瀝.
	○ 美第1海兵副師團長 更迭 新任에「워—링」准將, 前任「제스타풀러」준장은 美第3海兵旅團長으로 轉任.
	政 治
	○ 愛國福券發行法 公布施行.
	○ 捕虜郵便 취급개시.
	○ 保健部發表—第2國民兵 歸還壯丁治療所 4月 15日에 開所코 75萬名에 施療中 13,000餘名 死亡.
	軍 事
	○ UN軍 總攻擊開始, 敵의 抵抗 殆無
	○ UN軍 機動探索隊 東中部戰線에서 38線 突破.
	○ 美軍부대 春川 再突入, 同探索隊 昭陽江渡河 北進.
	○ UN軍 高浪浦를 通過하고 周圍를 掃蕩.
	○元山港口의 UN艦隊, 今曉 機雷를 부설하려는 敵船에 集中射擊을 加하여 敵兵을 海中으로 離散시킴.
	○ 敵의 熾烈한 對空砲火로 美輸送機 3臺 墜落.
	○「밴」將軍 UN軍 再次 38°線을 突破할 것을 示唆.
	○「밴」將軍, 記者會見 聲明發表—5月

월 일	중 요 사 항	월 일	중 요 사 항
	16日에 始作한 敵의 5次攻勢의 第2段階終了.		近邊에서 찔車事故(地雷)로 戰死.
	政 治		政 治
	○ 國會慰問團三班, 傷痍軍人慰問.		○ 海軍當局 日本漁船 37隻, 乘員 330名 釋放.
	○ 李大統領, UN軍 增派를 希望, 「시카고」紙의 美步兵부대, 不要云云記事는 誤植이라고 強硬히 否認.		○ 李大統領 美陸軍將兵에게 武功勳章 授與.
	○ 日人婦女 80名 歸國次 釜山에 集合.		○ 陸軍本部 參謀副長에 劉載興 少將, 行政參謀副長에 楊國鎭 准將, 作戰參謀副長에 李俊植准將 新任.
5월 25일	軍 事	5월 27일	軍 事
	○ 我軍 洪川 麟蹄 道路, 急進擊.		○ 美第2師, 麟蹄 縣里 占領.
	○ UN軍 春川西北方에서 38°線 突破.		○ UN軍 華川突入.
	○ 春川 華川間 敵 退却中.		○ 敵 300名, 華川近方에서 投降.
	○ 美軍·寒溪東北方에서 敵과 激戰.		○ UN艦隊 杆城北方지구의 敗走敵에게 集中砲火.
	○ 我軍先遣隊, 高浪浦東方 16杆道出.		○ B—29 平壤東方, 兼二浦 咸興 등을 爆擊.
	○ 「밴」將軍 38°線 視察.		○ UN空軍 華川貯水池 北方에서 敵馬匹輸送隊를 攻擊하여 馬匹을 폭살.
	政 治		○ 美第2步兵師團의 一下士官單獨으로 敵 112名을 說諭 生捕.
	○ UN軍 事務總長 行政補佐官「코디에」氏 來韓.		○ 極東空軍發表 前週에 美軍機 4臺가 敵 地上砲火로 擊墜當함.
	○ 李國防部長官, 國民防衛軍解散에 關하여 談話.		政 治
5월 26일	軍 事		○ 國府를 訪問中이던 申貿熙氏 歸國
	○ 國軍 襄陽 占領	5월 28일	軍 事
	○ 美軍 麟蹄到達.		○ 敵, 華川에서 北走中
	○ 美·佛軍 洪川 麟蹄道路를 急進擊, 38線 北쪽의 友軍 橋頭堡陣地를 強化.		○ 我軍, 臨津江 北岸에서 探索中.
	○ 美空軍發表一少數의 新型機 B—45(제트輕爆擊機) F—84(複座 제트機)가 韓國戰線에서 使用되고 있다.		○ 空軍 新義州上空에서 敵「미그」機 1臺 擊墜.
	○ 4月下旬 敵에 包圍當한 英「구루세스터」聯隊第1大隊의 負傷生存兵 一名 33日間 韓國人의 庇護를 받고 있다가 희랍軍人에게 救出됨		○ 韓國에 온 最初의 UN軍 兵士의 어머니—「마틴」女史, 英國에서 飛來 負傷한 그의 아들 「마—틴」少尉를 釜山
	○ 「로이타」通信員 「피어시」氏 議政府		

월 일	중 요 사 항
	港 病院船에서 面會.
	政 治
	○ 李國防長官—泰先人隊를 期待한다고 訓練所 再召集에 談話.
	○ 丁中將—濟州島 陸軍 第1訓練所 視察.
5월 29일	軍 事
	○ UN軍, 杆城을 再탈환.
	○ 敵, 楊口에서 UN軍 進出을 阻止.
	○我軍, 華川貯水池 南方의 敵을 分散시키고 約 9粁前進.
	○我軍, 芝岩里東南方 지역에서 敵 597名 殺傷 150名 捕虜.
	○ 敵, 汶山 高浪浦 漣川 西南方에서 週末初有의 頑強한 抵抗開始.
	○ 第8軍副司令官「콜터」中將, UN連絡將校 兼任.
	政 治
	○ 共和民政會, 國會議事堂에서 發會式 擧行.
	○ 國務院, 國營企業體 指示告示
5월 30일	軍 事
	○ 國軍高城奪還.
	○ UN軍 華川貯水池 南岸 및 東南岸 到達.
	○ 美軍 敵의 砲擊으로 因하여 永平近方陣地에서 撤收.
	○ UN空軍 金化東北方의 敵 補給品 大集散所 擊破.
	政 治
	○ UN軍 戰歿者 合同慰靈祭 擧行 (李大統領「무치오」大使 「콜터」中將 「죠이」中將등 參席).
	○ 中國會議長—北韓 總選擧를 期待한다고 5.30選擧 1週年記念에 談話.
	○ 第10回 定期國會閉會式
5월 31일	軍 事
	○ UN軍 麟蹄 縣里間 道路에서 敵 2,000名 包圍.
	○ 華川貯水池 再奪還 敵屍體 1,028 發見
	○ 敵 2個師 漣川南方에 移動.
	○ 彼我제트機 新安州上空에서 空中戰·敵제트機 2臺擊破 1臺破損.
	○ 新着한 美重巡彈艦 「로스안젤스」號 杆城 高城지구의 敵施設에 夜間砲擊.
6월 1일	軍 事
	○ 華川 西北方에서 敵 抵抗을 粉碎
	○ 美戰車隊 楊口突入後 撤收.
	○ 中共 新精銳부대 戰線投入. 鐵原 今化, 平康지구 防禦強化 介圖.
	○ UN軍 漣川西方, 臨津江 北岸에 橋頭堡構築.
	○ 汶山北方, 高浪浦方面 國軍, 活發한 偵察戰 展開中.
	○ 空軍, 敵機 미그 3臺를 擊墜 2臺를 擊破. 我 B—29 1臺 墜落, 其他 2臺 損害
	○ 空軍出擊, 879回 建物 530, 車輛 253, 斗馬車 120 擊破.
	○ 유엔軍總司令部 發表—南美最初의 콜롬비아부대 韓國으로 派遣中.
	○ 美第24師團長「데비드슨」准將 美軍事顧問團長署理에 任命.
	政 治

월 일	중 요 사 항	월 일	중 요 사 항
	○ 李大統領 發明一重要한 工業, 金融關係 歸屬企業體 42를 國有化.		○ UN軍, 漣川突破.
	○「콜터」中將 張總理訪問코 要談.		○ 我軍 汶山西方, 高浪浦지구에서 探索活動中.
	○ 崔憲兵司令官 記者會見談—後方軍紀團束, 國民防衛軍事件 再調査中, 金錫根准將 釋放은 絶對 高州事件 調査中.		○ B—29 咸興·元山間 鐵橋폭격.
	○ 駐日瑞典代表 來韓 大統領禮訪.		○ C—119「飛行貨車」機 2臺, 我方의 地上砲火에 誤中되어 墜落.
			○ 美太平洋艦隊司令官「래드포드」大將 極東海軍司令官「조이」中將과 戰線視察.
6월 2일	軍 事		政 治
	○ 華川地區 敵砲火活動 增大.		○ 國會, 高州被襲事件 責任糾明하기를 緊急動議, 內務委員會에 調査 報告케 함.
	○ 敵의 楊口北方및 西方의 探索攻擊, 我軍擊退.		○ 金서울市副市長談, 서울귀환은 指示가 있을때까지 기다리라
	○ UN軍 中部에서 猛攻 敵 抵抗을 擊退코 2哩 前進.	6월 4일	軍 事
	○ 漢灘江 橋頭堡 確保中인 我軍, 徐徐히 前進.		○ 全前線에서 我軍 1哩 進出.
	○ 臨津江北岸 敵抵抗 熾烈.		○ 麟蹄지구의 敵, UN空軍의 攻擊으로 陣地抛棄
	○ 美巡洋艦「로스안젤리스」號 高城北方의 敵에 集中砲火.		○ 中部및 中東部戰線에서 激烈한 戰鬪展開.
	○ 艦載機群 咸興附近의 鐵橋 맹공.		○ UN軍, 側面作戰으로 鐵의 三角지대 攻擊
	○ 밴 司令官言明, 中共軍에 대한 追擊戰의 단계는 完了, 敵 2次 攻勢損害 殺傷 10萬, 捕虜 1萬.		○ 敵機 2臺 楊口近方의 我軍陣地 爆擊
	政 治		○UN軍 華川湖南方에서 中共軍 屍體 1,500 馬屍體 700發見, (5月 16日 美2師團 攻擊時의 敵의 被害로 推算).
	○ RP報道—38°西北農民群,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歸鄕中.		○ UN軍 永平 東北方 高地 탈환.
	○ 新任第5空軍司令官「무쵸」大使의 案內로 李大統領 禮訪.		○ B—29 永興爆擊.
6월 3일	軍 事		○ 空軍 850回 出擊
	○ 國軍, 麟蹄지구에서 北進.		政 治
	○ 敵 華川, 楊口線에서 抵抗에 注力.		○ 金治安局長談—各川以南 各署復歸.
	○ UN軍, 永平奪還코 北進.		

월 일	중 요 사 항
6월 5일	○ 政府, 慶南道廳에서 定例朝禮擧行하고 金副統領 就任人事. ○ 民間航空路擴張 光州行開航. **軍 事** ○ 楊口東北方에서 我軍 1.5粁 進出. ○ 華川金化間에 布陣한 敵, 後退할 氣勢. ○ 敵, 麟蹄周邊戰線에서 遲延作戰. ○ 敵 鐵原, 金化間의 公路에 沿하여 防禦中. ○ UN軍 漣川지구에서 3000m 北進. ○ UN軍 鐵原까지 砲兵 射程距離內의 지점으로 진출. ○ 高浪浦東方에서 渡河한 我軍, 敵과 交戰後撤收 漣川地區에서 2.3粁 前進 ○第5空軍 2機 損失. ○UN空軍 845回 出擊. ○第5空軍 661回 出擊. **政 治** ○ 政府關係者談 1952年度 유엔對韓援助 4億弗. ○ 共和民政會 有力議員談 — 10餘名의 脫退에도 不拘 90名의 議員確保 可能. ○ 保建部 歸還壯丁및 避難民 治療狀況 70餘救護病院에 每週 延 11萬 54名.
6월 6일	**軍 事** ○ 敵 楊口 東方, 東北方에서 熾烈히 抵抗. ○ 華川 東北方에서 敵2個大隊와 交戰. ○ 我軍, 鐵原, 金化, 平康을 連結하는 堅固한 鐵의 三角지대에 突入. ○ 漣川에서 UN軍 2哩進擊. ○ 敵 西部에서 局限된 退却後戰鬪를 계속. ○ 空軍 470回出擊 敵車輛 134, 砲陣地 6, 탱크 1臺, 敵 500以上 殺傷. ○ 空軍, 金川 市邊里 砲擊. **政 治** ○ 國防長官談—38°線停戰은 不當하며, 또 不可能하다. ○ 合同通信談—政府는 美第8軍과 連絡以後, 以北收復에 對備하여 行政要員 人選中. ○ 國會, 秘密會議에서 調査委選定코, 自家肅淸에 着手. ○ 釜山—서울間 電報취급개시.
6월 7일	**軍 事** ○ UN軍 戰艦및 艦載機 元山港爆擊. ○ 我軍麟蹄北方 元通里 지구에서 敵의 猛烈한 抵抗에 遭遇. ○ 華川北方 및 楊口北方에서 敵抵抗芝浦里 奪還 金化 向해 猛進. ○ UN軍, 鐵原 3哩以內에 進出. 2,700呎의 「고대」山 탈환. ○ UN軍, 平康 溪谷入口에 到達. ○UN軍, 敵의 稀有의 熾烈한 砲火를 排除코 鐵原, 金化의 敵外郭 防禦線 突破. ○ 我軍 臨津江北岸을 探索 接敵無. ○ B—29, B—26 23機 鐵의 三角지대에 900萬個破片으로 分裂하는 500파운드 폭탄 투하. ○ 極東空軍, 中部戰線에서 大量殺傷 集

월 일	중 요 사 항
	結부대 分散을 爲한 新兵器를 使用하였다고 發表.
	○ 空軍 鐵原, 金化周邊의 敵 集結地를 「네이팜」彈 炸裂彈, 機關銃으로 맹타
	○ 空軍 沙里院, 海州近方철도 맹폭.
	○ 空軍 763回出擊, 車輛 147臺, 建物 520棟, 鐵道車輛 65擊破.
	政 治
	○ 交通部長官言明—鐵道施設 9割復舊.
	○ 濟州事件 責任者 處斷키로 國會, 政府側과 合議.
	○ 文敎部長官—中等校 入試方針은 從來의 學校別考査를 中止하고 全國 一齊히 實施.
6월 8일	軍 事
	○ 敵, 東部戰線에서 猛擊.
	○ 杜城西南方에서 偵察隊衝突이 계속.
	○ 中東部에서 敵遲延作戰弱化, 北方으로 退却中.
	○ UN巨砲, 鐵原金化를 계속 強打, 敵對戰車阻止에 洪水作戰.
	○ 華川東北方 敵抵抗 頑強 我軍 楊口東北方에서 2—4粁 進出.
	○ 空軍 489回 出擊.
	○ B—29 13臺, B—26 17臺 鐵의 三角지대에 200噸 폭탄투하.
	○「마샬」長官 來韓前線 視察, 백中將, 丁中將과 會談.
	○ 2日—8日間 空軍週間戰果 出擊, 4,229回 車輛 800, 鐵道車輛 300, 建物 3,000, 戰車 7, 人員 1,400 殺傷.
	政 治
	○ 서울地方法院長談— 原州 驪州支院

월 일	중 요 사 항
	數日內로 복귀 예정.
	○ 李大統領記者會見談—水道 電氣事情 復舊되면 早速還都를 希望한다고.
	○ 李大統領 國防部長官 海軍總參謀長과 巨濟島避難民 收容所狀況 視察.
	○ 大統領特別聲明發表—對立分裂은 排除하고 나라를 위해 한덩어리가 되자
	○ 國會, 自家藥淸淨造兼委員 各派 18名 選定.
6월 9일	軍 事
	○ UN軍器甲를 무릅쓰고 金化 指呼之間에 到達, 鐵原, 金化南方, 敵 防禦戰 強化.
	○ 敵 鐵原, 金化, 平康의 「鐵의 三角地帶」를 抛棄 金城으로 退却開始.
	○ 敵, 華川지구에서 我軍砲擊.
	○ 空軍 679回出擊, 建物 701, 車輛125 鐵道車輛 88 擊破.
	政 治
	○ 張總理, 西部戰線 서울 大田, 大邱 등지 視察.
	○ 卞外務部長官談—停戰案反對 이는 蘇의 凶計.
	○ 咸台永密計院長談—3 4兩月間, 不正會計 166件.
	○ 鎭海 독크起工式擧行(豫算 50億 3個年 計劃).
	○ 韓青團長 安浩相博士 就任受諾.
6월 10일	軍 事
	○ 백將軍發表—鐵原 金化지구 占領完了(午後 6時).

월 일	중 요 사 항
	○ 敵의 反擊制止코 杜城 確保中.
	○ 敵의 遺棄武器 金化지구에 山積.
	○ 楊口 華川지구, 敵 強力抵抗을 계속
	○ 西部戰線 大體로 平穩.
	○ 英軍, 過般 鎭南浦에 白晝 上陸하여 數時間後에 撤收하였다고 發表.
	○ 海軍, 城津地區艦砲 射擊 一萬發 以上의 巨彈洗禮.
	○ 空軍 鐵의 三角지대에 500封度 破片彈 200個 投下.
	○ 空軍 平壤 沙里院에 爆彈 130噸 投下.
	○ 空軍 707回出擊, 建物 390, 車輛 128, 鐵道車輛 59, 馬匹 40等.
	○ 空軍 敵飛行場, 順安 平康 平壤 沙里院等 7個所 猛擊.
	○ 美第8軍憲兵司令官, 美軍人 5名과 國軍中尉 1名을 包含하는 軍需物資窃盜團을 逮捕하여 軍法裁判에 의하여 처벌하였다고 發表.
	政 治
	○ 李公報處長談—韓國國境은 鴨綠江과 豆滿江, 38°線 停戰은 臆說.
	○ 38°線 停戰反對國民 총궐기대회 釜山 忠武路廣場에서 數萬群衆雲集下 盛況
6월 11일	**軍 事**
	○ 我軍, 杜城西南方 敵을 猛擊.
	○ 華川北方및 楊口北方 敵抵抗 漸減.
	○ 我 鐵原, 金化 完全탈환. 敵 莫大한 裝備 포기코 平康으로 退却中.
	○ 敵 三角지대에서 3個師團 武裝分의 武器를 抛棄.
	○ 臨津江西岸 我軍, 탐색 계속중.

월 일	중 요 사 항
	○ 空軍 宣川猛爆 建物 400 파괴.
	○ 空軍 雨天中에 377回 出擊.
	政 治
	○ 國務院公告第15號「國會議員 보궐선거 무기연기에 관한 건」公布.
	○ 張總理, 釜山에서 「콜터」中將(8軍副司令官)과 漢江以北 農民復歸문제 검토.
	○ 洪內務部次官談—서울市 各區廳 복귀 서울市人口 40萬.
6월 12일	**軍 事**
	○ 楊口北方및 元通里北方 敵抵抗 顯著히 감소.
	○ 華川지구 敵 主力부대 金城方面으로 退却 계속.
	○ UN軍 鐵原, 金化 周邊에서 平康을 向하여 3哩以上 進出.
	○ 我軍 先遣부대, 12時 15分頃 平康突入.
	○ UN軍, 臨津江 일대에서 탐색활동 전개.
	○ 國軍수색대, 開城突入後 귀환.
	○ 敵機 元山上空에 出現.
	○ 밴플리트將軍 言明—UN軍은 勝利可能의 軍事力保有 敵은 서울侵犯能力喪失 臨津江北岸 敵 相當히 堅固한 陣地를 構築하였을 것이라고.
	○ 美空軍長官, 在韓 空軍基地視察.
	政 治
	○ 大統領談—一線將兵 士氣 旺盛에 滿足, 서울환도는 食糧等준비후.
	○ 李大統領, 서울 및 江陵戰線 視察.
	○ 李內務部長官談—後方 治安確立講究

월 일	중 요 사 항	월 일	중 요 사 항
	中, 敵産家屋처리法 위반자 단속.		政 治
6월 14일	軍 事		○ 軍當局, 漢江以北農民撤去令 解除.
	○ 國軍 杆城北方에서 敵의 2次에 反擊을 擊退.		○ 서울郵便電報業務 再開
	○ 敵, 中東部, 楊口 麟蹄北方 新防禦線에서 猛烈히 挑戰.	6월 16일	軍 事
	○ 金化주변에서 激戰中.		○ 杆城西北方에서 我軍 경미한 接敵.
	○ UN軍 戰車부대, 平康을 突破, 同市北方高地를 掃蕩.		○ 金城南方進擊中인 我軍 頑強한 敵의 抵抗에 遭遇.
	○ 敵 中部戰線에서 大擧 退却中.		○ UN軍, 金城周邊을 向하여 2哩前進.
	○ 我軍, 高浪浦 長湍지구에서 수색활동 계속.		○ 金化北方 東北方 敵 頑強히 抵抗
	○ 美驅逐艦, 톰슨號, 城津海上에서 敵의 海岸砲火로 戰死 3, 부상 4.		○ 鐵原 楊口지구 UN軍 各 1哩前進.
	○ 敵機, 水原飛行場 및 永登浦에 各 1臺 來襲.		○ 楊口 麟蹄지구 敵 맹열히 抵抗.
	○ 空軍 順川 沙里院비행장등 맹폭.		○ 我軍 漣川西北方 西方에서 散發的인 接敵
	政 治		○ 臨津江 沿岸 我軍 高浪浦 長湍지역 정찰활동 계속.
	○ 大統領, 美病院船「하벤」號 (難治病治療船) 視察		政 治
	○「무치오」大使「콜터」中將, 張總理를 訪問코 要談.		○ 國內鐵道, 汶山, 東豆川, 春川 까지 運行中.
	○ 慶南 學徒護國團, 學徒統合査列式, 大統領臨席下에 擧行.		○ 駐日金龍周公使 召還.
6월 15일	軍 事		○ 大統領秘書, 金珖燮氏 辭任.
	○ 國軍, 3日間의 杆城北方지구의 敵의 反擊을 艦隊의 掩護下에 擊退.	6월 17일	軍 事
	○ UN軍 平康溪谷을 따라 北進.		○ 革川貯水池 西北方에서 無慘히 虐殺當한 美兵 7名의 屍體를 我探索隊가 發見코 그 復讐를 盟誓.
	○ 金化 寒溪近方 森林地帶의 敵, 追擊中의 我軍에 猛挑戰		○ 敵 金城死守에 狂奔, 我軍 探索隊에 猛烈히 抵抗.
	○ 三角지대에 敵影 無		○ B—29編隊, 平壤·沙里院 飛行場에 數百屯 爆彈投下.
	○ 백將軍前線視察談—敵의 三次攻勢를 豫期.		○ 敵機 1臺 水原飛行場 來襲, 爆彈4個 投下.
			○ 我 F—86, 20臺, 敵미그 25臺와 新義州 上空에서 交戰, 敵機 1臺擊破,

월 일	중 요 사 항	월 일	중 요 사 항
	6臺에 損害.		○ 金商工長官, 水産業者에 警告—漁網使用規格을 준수하라.
	政 治		○ 裵考試委員長談—考試에 數百名應試는 慶賀할일이라고.
	○ 合同通信—國內各地에 病名未詳의熱病流行	6월 19일	軍 事
	○ 國會梁外務委員長, 新停戰案 不可라고 停戰說을 痛駁.		○ 我軍, 東部戰線에서 敵의 猛烈한 砲火를 排除코 年初以來 最深侵透.
	○ 第一回 道路技術者講習會 修了式(於金海工兵校)		○ 敵, 金化, 鐵原北方 新陣地에서 退却中斷.
6월 18일	軍 事		○ 金化 東方에서 激戰, 5時間後, 敵 莫大한 武器遺棄코 도주.
	○ 杆城西部로 來攻한 敵, 我步空協同으로 擊退.		○ 我 艦隊, 元山港에서 敵 海岸砲臺와 1時間半 砲擊戰後 敵 沈默.
	○ 華川지구 3個 UN軍 탐색부대 熾烈한 交戰後 撤收.		○ 成川上空에서 F—86 27臺, 敵 미그30臺와 空中戰, 敵機 4臺에 損傷.
	○ 金城攻防戰 熾烈, 敵 砲火로 戰車부대, 進出을 阻止.		○「콜롬비아」大隊 來韓 (1,050名)
	○ 敵3角지대로 砲兵隊移動, UN 探索隊의 進出阻止.		○楮晙准將(前國府軍 第87師團長) 前線에서 中共捕虜와 會見後 言明, 中共軍의 60%가 前國府軍이며 尙今, 蔣總統을 위하여 싸울것을 希願.
	○ 北共軍, 楊口, 麟蹄北方에서 지연작전계속.	6월 20일	軍 事
	○ 我軍, 高浪浦지구에서 38°線 越北.		○ 杆城西北方지구 抵抗增強.
	○ 我機動부대 臨津江 渡河코 敵후위부대와 接戰.		○ 元通里 北方 敵抵抗弱化.
	○ 空軍機 33臺, 敵미그40臺와 新義州上空에서 空中戰, 敵機 5臺擊破, 2臺損害.		○ 華川東北方, 楊口北方間에서 我軍進擊.
	○國籍不明機 1臺, 仁川에 來襲 海中에 폭탄 4個 投下.		○ 金化西北方및 金城지구의 敵活動 增強.
	○ 백中將警告—4月 22日~6月 17日間의 敵損害 21萬5,898名이나 아직 大攻勢實施能力保有.		○ UN軍, 中部에서 敵의 數次探索 擊退.
	○ 英陸軍省發表—英旅團中 3個大隊를 來 10月, 12月間에 交代.		○ 西部戰線 敵蠢動活發化, 高浪浦지구에서 我軍 攻擊的 偵察活動 계속.
	政 治		○ 宣川上空에서 敵我空軍機 百機 以上

월 일	중 요 사 항	월 일	중 요 사 항
	이 空中戰 敵 야크 6臺, 미그 4臺를 擊墜.		○ 西部와 中部에서 探索隊間에 소충돌
	○ 敵機 議政府北方 我軍集結地에 爆擊.		○ 戰車步兵探索隊 阿川下에 2次開城市 突入.
	○ 天氣不良으로 空軍出擊 486回.		○ 過去 4月間, 敵機擊墜破 24臺, 我方 3臺 喪失.
	○ 初有의 2重 空中戰, 무스탕 24臺와 蘇製푸로페라機 6臺間 F—86 32臺와 미그—15型 36臺間 공중전, 전과 3臺擊墜, 1臺 미확인 격파, 6臺에 손해.		政 治
			○ 國會議事堂에 潛入한 共匪를 特警隊가 逮捕.
		6월 22일	軍 事
	○ 백中將, 敵의 UN軍 擊破는 不能이라고 言明, 또 今後 從前의 倍以上의 火力使用을 士兵에게 命令.		○ 麟蹄北方에서 敵의 2次에 걸친 反擊을 壓制.
			○ 金化지구 比較的平穩.
	○ 美海軍省發表—1年間 海軍및 海兵隊 소속 機出擊數 6萬7千機 폭탄投下, 7千萬파운드 이상, 我方損失 約 300臺, 敵死傷 5萬 7千.		○ 北韓上空에서 2次에 걸쳐 彼我 제트機 87臺間에 空中戰, 敵機, 2臺 擊墜 3臺에 損害.
			○ 極東空軍發表—開戰 1年間戰果, 敵機 391臺 擊墜破, 我方損害 245臺.
	○ 空軍 偵察비행전대 泗川基地 轉進完了		○ 敵機 1臺 今未明 서울上空에서 폭탄 3個投下. 敵機 2臺, 鐵原의 UN軍陣地 2時間攻擊, 小型複葉機(폭격기대) 金浦空港 機銃攻擊.
	政 治		
	○ 許社會部長官談—20日現在 避難民數 571萬 972名, 復歸民 192萬 8,058名 收容所收容數 517萬 1,562名		○ 美第25師團長「부랫드리」准將, 小將으로 昇進.
6월 21일	軍 事		政 治
	○ 高城南方에서 交戰後, 有利한 高地 탈환.		○ 金商工部長官談—唐人里發電所 복구 추진중, 北韓에 輸送예정이던 電力代償物資紛失은 浪說 現在 日本에 保管中.
	○ 華川東北方, 白岩山부근 敵 移動 계속중		
	○ 華川東北. 楊口西北方에서 敵의 6個中隊의 攻擊을 粉碎.		○ 張總理, 國會議員 11人에 대한 國民防衛軍事件證人 訊問을 申議長에게 要求하는 公翰送付.
	○ 平康南方에서 敵, 我軍에 猛烈히 反擊.		
	○ 敵 鉄川西北方에서 60粍 82粍砲로써 我探索隊를 阻止.	6월 23일	軍 事
			○ 全戰線 敵抵抗頑強.

월 일	중 요 사 항
	○ 敵 元山 咸興 西南方面에서 西南으로 移動.
	○ 中東部에서 2日間의 敵의 偵察攻擊을 擊退
	○ 我探索隊, 鐵原西方의 頑強한 抵抗粉碎.
	○ 西部에서 探索隊 경미한 接戰.
	○「마리크」UN蘇代表 韓國戰爭의 和平을 提案(標準時間 26日 下午 9時15分 韓國時間 24일 上午 6時 15分).
	政 治
	○ 陸軍總參謀長에 李鍾贊 少將. 國防部次官 金一煥少將, 丁中將은 軍事上 特命으로 渡美.
	○ 孫海軍參謀長談—密輸船 철저단속.
	○李內務長官談—서울귀향은 시기상조, 후일 지시있을때까지 대기.
6월 24일	○ 全戰線에서 戰鬪 熾烈 西部에 敵부대 出現.
	○ 鱗路北方에서 熾烈한 戰鬪, 金化東方高地 敵의 反擊을 擊退코 再奪還.
	○ 平康南方 敵, 我軍猛攻으로 逋走.
	○ UN탐색대, 鐵原西方, 連川 西方에서 敵의 猛烈한 挑戰에 交着.
	○ 平康近方高地에서 1日半 激戰後 我軍 撤收
	○ 敵 平康, 金化를 방어하기위하여 서울 元山間에 莫大한 증원부대 投入
	○ 高浪浦 西北方에서 中共軍 3,000名 退却.
	○ 美第1海兵師소속 제트機 洗浦里 東方 敵補給기지에 3萬5千파운드의 폭탄投下

월 일	중 요 사 항
	○ 第5空軍 F—86 4臺, 미그15機 4臺와 交戰, 敵 4臺에 破損, 또 成川上空에서 敵數機交戰後, 敵機 2臺 損傷, 我方 1臺 擊墜됨.
	○ 英國軍交替兵 900名 到着.
	○ UN 韓國再建局 聲明發表—韓國再建事業着手
	○ 政府, 國會, (마리크)의 停戰案은 하나의 好計에 不過라고 斷乎 反對態度表明.
6월 25일	**軍 事**
	○ 敵 全戰線에서 小規模 偵察攻擊 熾烈
	○ 杆城지구 接敵 別無
	○ 鱗路北方에서 敵彈藥集積所를 爆破.
	○ 金化東方高地를 탈환한 我軍, 敵의 反擊으로 若干 撤收.
	○ 連川 西北方에서 激戰後, 我軍 一旦撤收
	○ 西部에서 탐색대 別無接戰.
	○ 空軍 624回 出擊, 機關車 5臺, 貨車 100, 建物 450, 戰車 3, 기타 격파
	○ 9日間 8回의 空中戰에서 敵機 13臺擊墜, 27臺 損害.

◉ 國軍一年間 損害

	전 사	전 상	실 종	비전투 사상	계
陸軍	21,179	71,648	71,817	46,146	210,790
海軍	397	1,201	98		1,696
空軍	49	19			68
合計	21,625	72,868	71,915	46,146	212,554

政 治

○ 國民外交使節 金東成氏 4月14日 出發 各國歷訪後 歸國

월 일	중 요 사 항
6월 26일	**軍 事**
	○ 札城지구에서 활동중인 탐색대 各處에서 交戰.
	○ 麟蹄北方에서 攻擊을 試圖하는 敵과 交戰.
	○ 楊口 東北方지역에 總計 130發의 敵彈落下.
	○ UN軍 金化東北方 高地로부터 撤收後 再탈환.
	○ 漣川西北方에서 前進中인 敵에 猛烈한 重砲사격.
	○ 我艦隊, 元山 艦砲사격 계속中.
	○ 空軍 556回 出擊, 車輛 250臺, 貨車 80臺 등 격파.
	政 治
	○ 李外務部長官談—「마리크」 停戰案은 要點成 오직 統一이 있을뿐.
	○ 밴將軍「무치오」大使, 밴中將「콜터」中將等 李大統領을 訪問.
	○ 保健部次官에 崔石裕博士 就任.
6월 27일	**軍 事**
	○ UN軍探索隊, 麟蹄지구 敵防衛線一帶에서 頑強한 抵抗에 遭遇.
	○ UN軍 金城 4哩에 肉迫.
	○ 敵 金化周邊에서 UN軍 1個師에 攻擊을 加한후 擊退됨.
	○ 平康西南方의 我 偵察隊, 敵을 擊退
	○ 漣川西方의 敵을 擊退.
	○ 加奈陀 驅逐艦「휴론」號, 敵의 장크船 捕獲.
	○ 空軍 元山, 新義州, 平壤을 폭격, 車輛 75, 建物 490, 橋梁 및 터널을 各各 擊破.
	○ 空軍 605回 出擊
	政 治
	○ 李大統領, 휴의 停戰案에 重大聲明—더 무서운 戰爭의 序曲이될 如何한 停戰案도 受諾不可.
	○ 政府人事發令, 內務次官에 洪鍾喜, 서울市長에 金泰善, 治安局長에 李益興.
	○ 國會再開, 議事堂은 武德殿.
6월 28일	**軍 事**
	○ 全戰線 大體로 平穩.
	○ 札城西南方에 來攻한 敵을 擊退.
	○ 楊口지구에서 輕微한 交戰.
	○ UN軍砲兵隊 金城南方의 200명의 敵을 砲擊, 約 150名 射殺.
	○ 我軍, 金化西方에서 敵의 攻擊을 擊退.
	○ 空軍出擊 562回, 建物 380, 車輛 220, 貨車 90을 擊破.
	○ 空軍夜間出擊, 車輛60 擊破, 飛行場 폭격, 敵제트機 1臺에 損害.
	○ 敵의 地上砲火로 美제트機 2臺損失.
	○ 밴中將談—어떠한 報道나 風說에 論評을 加할수 없고 軍事的使命을 다할뿐
	政 治
	○ 金泰善서울市長談—首都再建에 全力을 다하겠다.
	○ 公報處發表 — 流言蜚語는 利敵行爲 停戰說로 民心 眩惑은 嚴斷.
	○ 李大統領, 停戰問題에 關하여 「勝敗決定前에 和平을 맞이하기 보다 차라리 죽엄을 願한다」고 表明.

월 일	중 요 사 항
6월 29일	**軍 事**
	○ 全戰線 小康狀態.
	○ 中部의 敵抵抗頑強.
	○ 數百의 敵, 金化地區來襲.
	○ 我機動先遣隊, 鐵原西北方에서 一時交戰.
	○ 西部에서 局部的인 熾烈한 高地爭奪戰展開.
	○ 空軍飛行團, 泗川基地 集結完了.
	政 治
	○ 國會, 38°線 停戰絶對反對의 태도를 再闡明.
	○ 國會 來月 29日까지 會期를 30日延長.
	○ 政府 復興院設置法案을 國會에 提出
	○ 農林部長官—夏穀 35萬石을 買上할 것을 言明.
6월 39일	**軍 事**
	○ 我偵察隊, 杆城西北方에서 敵中隊兵力과 交戰.
	○ 華川北方에서 約 2個中隊의 敵과 熾烈한 交戰 我偵察隊 8粁 前進.
	○ 我軍, 金化東北方에 來攻한 敵을 擊滅.
	○ 我軍, 鐵原西北方에서 數未詳의 敵과 長時間 交戰. .
	○ 高浪浦西北方 및 北方에서 敵小部隊와 交戰.
	○ 空軍, 金城 南方의 2 個大隊의 敵을 猛攻, 地上探索隊 3粁前進.
	○ 空軍, 敵車輛 100臺以上 擊破, 新義州 沙里院비행장, 平壤주변 맹폭.
	○ 極東空軍司令部發表 — 北韓의 敵飛行場 15個所 過去 二週間의 猛攻으로 使用不可能.
	政 治
	○ 政府, 停戰態度를 闡明하는 五個項의 聲明書 發表.
	① 中共의 全面的撤退.
	② 北共軍의 武裝解除.
	③ UN은 第3國의 北共軍에 대한 모든 援助를 防止하며.
	④ 韓國問題에 관한 國際會議에 大韓民國이 參加.
	⑤ 韓國의 主權및 領土保全에 紛爭을 惹起할 決定 또는 計劃 不可.
	○ 國會 : 政府의 停戰에 대한 態度滿場一致로 支持.
	○ 曺慶北知事 後任으로 申鉉燉氏 仟命
7월 1일	**軍 事**
	○ 地上戰線 비교적 平穩 敵, 散發的인 攻擊 企圖.
	○ 國軍 海軍艦艇, 西海岸 夢金浦지구를 UN 海軍 協同下에 猛砲擊.
	○ UN空軍, 계속적으로 順安, 新幕等의 北韓飛行場을 맹격. 9日間 14次에 걸쳐 飛行場 15個所를 파괴.
	○ 孫海軍總參謀長, 海兵隊司令官 申鉉俊准將 等 兜率山의 海兵隊 戰鬪地區最戰線 視察.
	○ 空軍戰鬪부대 泗川基地集結, 業務開始.
	○ 共産軍 休戰提案을 受諾 7月10日—15日間에 開城에서 會談開催를 提議(北京 1日放送).
	政 治
	○ 政府 7月分 財政收支 108億의 黑字

월 일	중 요 사 항	월 일	중 요 사 항
	計定.		○ 國會 停戰問題解決時까지 每月 外務部 長官의 報告를 聽取키로 可決.
	○ 釜山에서 「38°線 停戰反對 國土統一國民總蹶起大會」 開催.		○ 釜山市 小賣物價指數 22,840(1947年 基準), 事變直前의 7倍(韓銀側).
	○ 第2回 建國國債消化率, 6月末現在로 發行額 400億의 23%인 95億 「유네스코」 美代表「스로다—드」氏 1952年度 事業計劃 討議席上에서 韓國停戰이 成立되는 경우, 韓國에 特別援助 必要言明.		○ 公報處發表—6月 1日—6月 15日間의 外國援助物資 7,141톤이 韓國에 到着
		7월 3일	軍 事
7월 2일	軍 事		○ 我軍戰車隊, 三角地帶의 戰略的高地 數個所를 激戰끝에 占領.
	○ 我軍探索隊, 開城을 除外한 全戰線에서 前進, 敵 頑強히 抵抗		○ 敵 開城北方에 7萬集結說 (AP).
	○ UN軍, 金城東北方에서 攻擊해온 敵 1個小隊를 3時間戰鬪後 擊退		○ 空軍, 鎭南浦 兼二浦 等을 맹격하여 鐵道操車場을 破壞.
	○ 華川貯水池北方으로 進出한 我偵察隊를 敵이 遠距離에서 射擊.		○ 我軍機, 平壤飛行場空襲時 敵地上砲로 因하여 2台墜落.
	○ 楊口·杆城·麟蹄 各地區에서 小戰鬪		○ UN軍總司令官, 休戰會談에 대한 1日附 共産軍側 提案을 受諾, 10日에 開城에서의 會談開催에 同意, UN軍側, 于先 豫備會談을 要望
	○ UN艦隊, 東海岸 城津等地를 猛擊.		○ 美政府, 休戰會談은 軍事 問題에 局限할 것을 再次 「릿」總司令官에게 訓令.
	○ 空軍 475回 出擊, 敵의 主要補給路 및 鐵道遮斷.		政 治
	○ 李陸軍總參謀長, 「애버랜드」 美海軍次官補, 「맨」將軍等 西部戰線 視察.		○ 國務會議, 停戰問題에 대하여 積極的態度를 取하는 것을 保留하기로 決定.
	○ 全南警察局 「제트」機 支援下에 共匪巢窟인 白雲山 一帶에 大掃蕩戰 射殺 77名.		○ 國務會議, 戰災復舊活動計劃案 議決, 51年度 物資總需要額 9億萬弗.
	政 治		○ 李大統領 韓國人은 平和를 渴望하나 有和的인 38°線停戰은 絶對 不容許이라고 記者會見談
	○ 大統領臨時官邸에서 緊急國務會議開催코 事態進展을 檢討		○ 政府 休戰會談에 代表派遣說(AFP).
	○ 政府造幣公社法案을 國會에 提出.		○ 國會 釜山市 特別市昇格案 上程.
	○ 國會, 38°線 停戰에 抗議하기 위하여 UN에 代表團을 派遣하자는 對政府建議案을 可決.	7월 4일	軍 事
			○ 百哩의 全線靜寂化, 麟蹄東北方에서

월 일	중 요 사 항
	小戰鬪뿐.
	○ 我軍探索隊, 開城市 突入偵察後 撤退.
	○ UN艦隊, 濃霧와 驟雨를 무릅쓰고 東海岸 敵港을 艦砲射擊.
	○ UN空軍 625回 出擊, 16個 橋梁破壞
	○ 我軍機 一台, 敵 地上砲火로 墜落.
	○「알랙산더」美陸軍次官 飛行機 事故로 負傷(戰線視察中).
	○ 休戰會談에 대한 共産軍의 回答—8日에 豫備會談을 開城에서 開催하기로 提議.
	政 治
	○ 國會, 地方自治法改正案 通過.
	○ 申議長 馬山, 서울等地視察次 出發.
	○ 國會 釜山市 特別市昇格案 保留可決
	○ 米價暴騰一路 釜山市價 1斗에 2萬 6千圓.
7월 5일	○ 各戰線 比較的 平穩, 常例的인 偵察行動에 局限.
	○ 我軍探索隊, 東海岸에서 海軍掩護下에 38°線北方 40哩지점까지 進出偵察.
	○ 中部戰線 鐵의 三角地帶 北端 (平康南方 3哩)에서 2隊의 強力한 UN軍機動部隊 徐徐히 撤收開始.
	○ 空軍 328回 出擊, 新義州 順安 龍井里飛行場等 爆擊.
	○ 韓國에 파견된 泰, 比, 希, 三軍指揮官들, 休戰決裂時에 大規模作戰 用意있다고 言明.
	○ UN軍總司令官, 8日의 豫備會談에 同意코 連絡官(連絡將校 3名 通譯 2名)의 保護를 要求.

월 일	중 요 사 항
	○ 서울—汶山間 鐵道沿線지대에 鐵道警察隊를 配置하고 民間人의 出入을 禁止.
	政 治
	○ 國民防衛軍事件 中央高等軍法會議再審公判 大邱에서 開廷.
	○ 申議長 停戰說에 眩惑되지말라고 馬山에서 時局講演會.
	○ 商工部 51年度 2/4分期 輸入許可 品目및 金額을 告示, 輸入總額 1,051萬弗.
7월 6일	軍 事
	○ 全戰線地上戰과, 平穩狀態 維持.
	○ 中東部戰線에서 小衝突.
	○UN艦隊, 141日째 元山港砲擊, 共産軍海岸砲도 應戰하였으나 我軍猛擊에 沈默.
	○ 空軍 635回 出擊, 夜間爆擊隊, 新義州, 新安州間道路에서 南下中의 敵車輛 100餘台 擊破.
	○ 美極東空軍司令官, 敵 代表通路 開城周邊 5哩以內(敵代表到着後)의 攻擊中止를 命令.
	○ 開城休戰豫備會談의 事前節次 完了.
	政 治
	○ 國會, 政府夏穀買入案을 條件附로 原案대로 通過 買入數量 35萬石.
	○ 政府, 米價抑制策 決定—一般配給계속실시 買占賣惜 徹底團束.
	○ 吳保社部長官, 防疫問題에 關하여 流行病은 銳意研究中이라고 談話發表.
7월 7일	軍 事

월 일	중 요 사 항
	○ 各 戰線에서 輕微한 衝突.
	○ 韓滿國境上空에서 彼我 50台 以上의 제트機 空中戰.
	○ UN軍 戰鬪機와 艦載機, 元山港에 熾烈한 攻擊, B—29 高原猛爆.
	○ 7日 子正以後, 平壤—開城間 公路, 폭격계속.
	○ 平壤放送—UN空軍機 3台를 擊墜하였다고 報導(共同).
	○ 李國防部長官, 三軍總參謀長및 高級幕僚의 首腦部와 釜山港 艦上에서 會談.
	○ 休戰豫備會談 UN軍側 代表(美空軍, 美海兵隊, 韓國軍將校 各一名), 前進基地로 向發.
	政 治
	○ 國會, 地方自治法案 通過. 警察, 消防署長에 對한 指揮監督權을 郡守, 市長에게 賦與
	○ 第1期 戰車將校및 第3期 甲種幹部候補生 合同卒業式, 東來 陸軍步兵學校에서 擧行.
	○ 서울特別市 各區 1個校以上 開校, 兒童就學추진중.
	○ 申性模駐日大使, 赴任次 東京向發.
7월 8일	**軍 事**
	○ 我軍, 戰線一帶를 繼續的으로 探索하는 한편 陣地를 整備強化.
	○ UN軍 海岸지구에서 若干 進出.
	○ 他戰線은 探索隊의 小衝突程度.
	○ 西北韓上空에서 熾烈한 제트機 空中戰, F—86 敵 MIG—15제트機 3台擊破.

월 일	중 요 사 항
	○ UN空軍, 夜間에 北韓內 各主要道路上에서 南下中의 敵車輛 數千台 發見報告.
	○ 全國警察 2日—8日 共匪掃蕩戰果, 射殺 641名, 生捕 99名, 귀순 10名, 各種武器 129挺鹵獲(內務部發表).
	○ 全國警察 綜合戰果(50년 10월 1일—51년 7월 8일). 共匪射殺 55,419名, 生捕 19,421名, 歸順 43,863名.
	○ 休戰豫備會談終了—10日 開城에서의 本會談 開催에 同意.
	兩側代表決定—
	UN軍側
	①「터—너·죠이」中將(美海軍)
	②「L C 크레키」少將(美空軍)
	③「헨리·I 홋지스」少將(美陸軍)
	④「알레이·버—크」少將(美海軍)
	⑤ 白善燁少將(國軍)
	共產軍側
	① 南日大將(北共軍)
	② 李尙朝少將(北共軍)
	③ 鄧 華 (中共軍)
	④ 謝 方 (〃)
	豫備會談 UN軍代表를 發表.
	①「아드루·키니」大領(美空軍)
	②「제임스·모리」大領(美海兵隊)
	③ 李壽榮中領(國軍)
	政 治
	○「듀이」美 紐育州知事 來韓코 李大統領을 禮訪.
	○「듀이」氏 安全保障을 위하여 共同鬪爭에 邁進하자고 國會에 演說
7월 9일	○UN軍 輕微 乃至 頑強한 抵抗을 물리

월 일	중 요 사 항	월 일	중 요 사 항
	치고 局限된 攻擊을 開始.		○ B—29 黑雲을 뚫고 出擊, 東海岸의 高原「신초」의 敵補給中心地에「레이더」使用코 70屯以上의 폭탄 投下.
	○ UN軍 金城南方에서 頑強한 敵軍의 抵抗을 排除하여 3,000m 前進.		○ 空軍 夜間에 順川, 新安州, 平壤 等 5個處 飛行場을 爆擊.
	○ 楊口東北方에서도 我軍 3,000m進出 後 敵의 猛烈한 反擊을 받고 撤收.		**休戰會談**
	○ B—29機隊, 新安州 飛行場에 8萬以 度 以上의 폭탄投下.		○ 開城休戰會談 第1日—議事日程交換, UN軍側, 政治問題 討議拒否를 通告
	○ UN軍 F—86「세이버」機隊, 敵 MIG「제트」機 1台 擊墜.		○ 共産側代表가 表明한 基本的 態度—① 全外國軍의 撤退 ② 38°線을 軍事境界線으로 하고 南北 各 10km에 非武裝지대 設置. 捕虜交換(11日 北京放送)
	○ 美國防省, 韓國戰線 UN軍 構成比率 發表(RP).		**政 治**
	地上軍：美軍 45%, 國軍 45%, 殘餘國 10%.		○ 李大統領「릿」總司令官과 서울近郊에서 要談.
	海軍．美軍 75%, 韓國 25%.		○ 李國防部長官, 陸海空軍 各總參謀長 帶同코 上京 市內에 軍務委員會 設置.
	空軍：美軍 98%. 南阿, 濠州, 新西蘭, 韓國—2%.		○ 李公報處長 停戰問題를 圍繞하고 流布된 聯立政府說에 대하여 北韓 自由選擧에 의한 統一을 強調.
	○「반프리트」美第8軍司令官 大將에 昇進.		○ 釜山市 到處에서 統一없는 停戰反對 示威行列.
	○ UN軍總司令官및 UN軍側 休戰會談 代表 5名, UN軍前進基地, 汶山에 到着.	7월 11일	**軍 事**
	○「릿」將軍 記者會見談—休戰會談에 관하여 信義의 遵守 與否는 成就結果에 의하여 判斷할 수밖에 없다고.		○ 各戰線에서 偵察隊小衝突.
	政 治		○ 空軍, 夜間에 平壤基地 4個所의 敵飛行場을 攻擊.
	○ 崔慶祿 憲兵司令官, 軍紀確立에 관하여 軍人에 대한 民間人의 金品贈賄를 嚴禁.		○ 西北韓上空에서 彼我 제트機 20分間 空中戰 F—86. 敵 MIG—15제트機 3台 擊墜, 1台 擊破.
7월 10일	**軍 事**		○ 美韓國軍事顧問團長에「코—네루—스·라이안」准將 新任.
	○ 各戰線에서 散發的 小衝突, 戰線에서 軍事活動 實質的으로 中斷.		○「밴」將軍, 戰線視察, 最惡의 事態에
	○ 空軍 惡天候로 出擊回數 77回. 4月 28日以來 가장 局限된 活動.		

월 일	중 요 사 항
	對備할 用意있다고 言明.
	休戰會談
	○ 休戰會談 第2日—議題를 檢討討議, 會議運營에 관한 協定成立.
	○ UN軍側代表團「버—크」少將 記者會見談—撤兵問題에 대하여 UN軍側은 이것을 討議하지 않을 것 이라고. (UP)
	政 治
	○「릿」將軍 및「무초」大使 軍務委員會를 訪問하고 長時間要談.
	○ 國軍 陸海空軍 各首腦및 白善燁少將 汶山에서 鳩首會議
	○ 서울市에서 停戰反對 國土統一 國民총궐기대회 개최
	○ 平壤放送, 外國軍隊의 韓國撤退를 強調(共同).
7월 12일	**軍 事**
	○ 我軍 中東部戰線에서 攻擊 敢行, 金城東南方에서 約 5Km進擊 敵, 頑強히 抵抗
	○ UN海軍 元山 城津等地를 砲擊.
	○ 戰爆擊機隊 兼二浦近方의 大同江邊 補給物資 集積所를 爆碎.
	○ 我軍機 順安, 黃州, 新安州, 新幕, 平壤等 飛行場을 反復 폭격.
	○ 美海兵隊機 中東部戰線의 敵軍과 軍事施設을 공격.
	休戰會談
	○ 共產軍側의 記者團通過拒否로 停頓, 「릿」總司令官, 代表團의 出發中止를 命令.
	○「죠이」UN軍側代表, 南日 共產軍側 代表에 뱃세지를 傳達—新聞記者團의 通過가 許可된 경우에 會談을 續行할 用意가 있다고.
	政 治
	○ 國會, 軍法會議 裁判權에 관한 法律案을 可決.
	○ 李 陸軍總參謀長 서울에서 記者會見談—如何한 事態에도 萬全의 準備를 갖추고 있다고,
7월 13일	**軍 事**
	○ 戰線 各處에서 小衝突.
	○ UN軍, 金城東南方에서 敵의 猛烈한 저항을 擊退.
	○ 我空軍, 夜間에 順安, 黃州, 新安州等의 敵飛行場을 反復爆擊.
	○ 敵複葉機(PO—2) 2臺, 未明에 汶山來襲코, 爆彈 3個投下, 我海軍機 그중 1臺를 擊破.
	休戰會談
	○「로버트」五韓英聯邦軍司令官, UN軍側은 停戰問題에 있어서 相當한 進展을 보고있으며 會談에 있어서의 美英의 關心은 恒常 同一하다고 披瀝.
	○ 南日代表 「죠이」中將에 回答—會見—次時까지 記者團의 參加를 拒否하고 會談의 續開를 希望.
	○「릿」總司令官, 共產軍側에 對하여 會談再開의 條件을 提示.
	① 開城地帶의 中立化.
	② UN軍代表團의 行動의 自由.
	③ 新聞記者를 包含한 代表團의 構成決定의 自由.
	○ 國軍三軍首腦部, 汶山 訪問코,「릿」

월 일	중 요 사 항
	將軍및 UN軍代表와 長時間 要談.
	政 治
	○ 許社會部長官, 緊急救護問題等에 관하여 서울·京畿·忠北·江原지구 等의 數百萬 戰災民의 救護에 萬全을 期하고 있으며 衣類·糧穀·建築資材等의 救護物資를 各道에 割當하였다고 記者會見談.
7월 14일	○ 全般的인 敵軍活動은 散發的이고 輕微.
	○ 我軍, 杆城·楊口 지구에서 敵의 反擊을 擊退.
	○ 金城 東南方의 敵抵抗 減少.
	○ 鐵原 東北方에서 敵 2個中隊, 我 搜索隊를 包圍하였으나 我 增援부대 이를 救出.
	○ 美海軍艦隊, 東海岸의 敵 4個聯隊指揮所를 砲擊.
	○ UN空軍, 惡天候로 活動制限이나 空中掩護와 敵輸送施設을 攻擊.
	○ 我 F—80「제트」機 1臺 地上砲火로 因하여 墜落.
	休戰會談
	○ 共産軍側「릿」總司令官의 提案을 全面的으로 受諾, 開城지구의 中立化 및 記者團의 開城지구 出入에 同意(平壤北京放送)
	○「릿」司令官, UN軍代表團 訪問.
	○ 李陸軍總參謀長, 汶山 訪問코 再次「릿」將軍과 長時間 要談.
	政 治
	○ 李公報處長, 會談中斷에 대하여 停戰提案은 始初부터 奸計가 內包된 것이라고 言及.
	○ 中國會議長 民情視察 所感을 國會에 報告—避難民 收容事業에 監督官廳의 誠意를 要望한다고.
	○ 北共機關紙, 民主朝鮮, 外國軍의 撤退를 要求하는 社說 揭載(共同).
7월 15일	**軍 事**
	○ 各戰線에서 散發的인 衝突.
	○ 開城南方 中立地帶外에서 中隊兵力의 敵을 發見.
	○ UN軍艦隊 東海岸 4個港口에 高性能砲彈 射擊.
	○ 空軍 惡天候를 무릅쓰고 夜間에 黃州 沙里院, 順安等 敵飛行場을 攻擊, 新安州의 大補給所를 攻擊.
	○ 美極東空軍 週間戰果 發表—出擊回數 3,600回 以上, MIG—15「젯트」機 7臺를 包含하여 9臺 擊墜, 3臺 擊破, 我方損害 F—80「제트」機 2臺 其他 2臺.
	○ 美第10軍團長「알몬드」中將 後任에「크리비스·바이야스」少將 任命.
	○ 美第8軍 第25師團長「부랫드리」少將 後任에「스위프트」少將 任命.
	休戰會談
	○ 開城會談 再開. UN軍側 新聞記者 20名 同行, 開城半徑 5哩中立化와 通路無制限使用等 UN軍側提案 3個項目에 대하여 共産軍側 原則的으로 同意
	政 治
	○ 美 軍事外交代表, 韓國民의 停戰反對데모는 會談의 進行을 妨害한다고 政

월 일	중 요 사 항	월 일	중 요 사 항
	府에 通告說(RP.)		條에 관하여 한국에 있어서의 前日本 所有財産은 合法的으로 韓國에 歸屬된 것이라고 強調.
	○ 7月 15日 現在 通貨發行高 4252億圓 前月末에 비하여 78億圓增發 UN軍 貸金累計額은 2,114億圓.	7월 17일	軍 事
	○ 京釜線 서울行 急行旅客車 運行開始		○ 各戰線에서 散發的인 小衝突.
	○ 李大統領, 前陸軍總參謀長 丁一權中將에 武功一等勳章 授與.		○ UN艦隊, 계속적으로 元山港砲擊, 我驅逐艦, 敵海岸砲와 約 3時間 交戰
7월 16일	軍 事		○ 空軍出擊回數 830回(夜間 118回) 夜間爆擊機隊 黃州, 沙里院, 順安, 新幕等飛行場과 敵車輛部隊를 攻擊
	○ 我軍偵察機隊, 東海岸地區에서 約 6粁進出.		○ 警察部隊, 智異山지구 德裕山 지역 共匪, 殘敵의 停戰要請을 一蹴코 殲滅戰開始—射殺 69名, 拉致警察官 18名, 良民 500名 救出.
	○ 第5空軍戰鬪機隊, 敵補給路에 對하여 集中攻擊.		休戰會談
	○ 美空軍 爆擊機隊, 開戰 以來 最大의 夜間爆擊敢行—飛行場·兵力集結地및 補給中心地에 「레이더」使用코 爆彈投下.		○ 開城 第5次會談—双方代表 議題內容을 說明 共產軍側, 別로 意外의 것이 아닌 新提案을 提示.
	○ 共產軍, 戰線에 兵力 增強—其間 45個師團에서 72個師團으로 增加, 兵力은 大部分 東部戰線에 集結, 敵 車輛移動은 一日平均 1,795臺(美第8軍情報將校發表).		○ 「릿」總司令官 極秘密裡에 東京 歸還
	休戰會談		政 治
	○ 開城 第4次會談—議題作成에 若干進捗, 共產軍側은 會談場의 中立化에 關한 協定을 履行.		○ 國務院公告第17號「壯丁召集에 관한 件」公告—自 1924年 8月 16日, 至 1933年 8月 15日間 出生, 第2國民兵을 召集.
	○ 李國防部長官, 白善燁代表와 要談		○ 國內各地에서 停戰排擊 國民大會開催 巨濟島 北韓피난민 총궐기코 停戰反對絶叫.
	政 治	7월 18일	軍 事
	○ 大統領, 再次 서울訪問 「무쵸」大使와 要談後 歸釜.		○ 各戰線에서 彼我 愼重한 對戰態勢, 偵察隊間에 小衝突.
	○ 國會, 對日講和問題에 對한 政府態度를 總理出席下에 非公開裡에 聽取.		○ UN艦隊, 元山港의 敵海岸砲臺를 空
	○ 卞外務部長官, 國會에서 對日講和에 관한 政府의 態度를 闡明코 草案第4		

월 일	중 요 사 항	월 일	중 요 사 항
	軍과 呼應하여 攻擊.		撤退問題라고 非公式報道(AP)
	○ UN空軍夜間出擊 108回 兼二浦 補給中心地및 沙里院飛行場 等을 계속 攻擊.		○「릿」總司令官, 空路 前進基地本部到着, UN軍 代表團과 協議後 東京到着
	休戰會談		**政 治**
	○ 開城第6次會談—議事日程協議進捗. 2個의 重要한 議題에 合議, 그러나 交涉의 第1段階의 成功的達成에 不可缺의 主要問題가 未解決.		○ 國會, 外交使節團을 美國에 파견하여 對日講和條約草案 第4條修正을 外交的으로 推進하자는 對政府 建議案을 可決.
	○ 開城에 있어서의 記者團의 活動, 會議建物周圍의 半徑 1/2哩地域內에 制限.		○ 國民防衛軍事件公判—金潤根 等 5名에 死刑言渡.
	政 治		○ 金融通貨委에서 夏穀買入資金 150億放出을 決定.
	○ 戒嚴司令部 서울分室設置.		○ 民國黨 對日講和條約草案 第4條修正을 要求하는 聲明書 發表.
	○ 財務·農林兩長官, 國會에서 夏穀買上 現札 準備完了를 答辯	7월 20일	**軍 事**
	○ 國會, 國債消化是正에 關한 決議案을 採擇.		○ 楊口, 麟蹄, 杆城等지구에서 我偵察隊 敵과 長時間 交戰
	○ 韓國, 救護委員會(ARK)總務「죠세프·B·레—만」氏 來韓.		○ UN空軍, 降雨와 低雲으로 活動制限 夜間에 沙里院 黃州飛行場 爆擊.
7월 19일	**軍 事**		○ B—29機隊, 高原의 鐵道施設과 咸興의 補給 中心地를「라이다」로 폭격.
	○ 地上戰鬪 數個地區에서 搜索隊間에 散發的인 小衝突.		○ 14日—20日間 空軍出擊回數 2,377回 軍用建物 1,100棟, 車輛 772臺, 橋梁 32個處, 鐵道車輛 189輛, 補給要衝 160個所, 탱크 6臺, 砲陣地 62個所 擊破.
	○ 空軍惡天候를 무릅쓰고 470回 出擊, 敵의 補給中心地 橋梁等을 攻擊.		○ 豪雨로 因하여 中止
	○ 李大統領, 前美第1軍團長「밀번」中將에게 二等武功勳章 授與.		○ 14日—20日間 書間의 敵殺傷및 捕虜總計 3,095 名.
	休戰會談		○ 開戰後, 北韓및 中共軍 損傷 1,213,544名(美國防省 發表).
	○ 開城休戰會談無進展—UN軍代表, 議題는 軍事的 性質의 問題에 限定할것을 再次強調. 共產軍側代表는 立場不變更을 言明.		**政 治**
	○ 第7次會談의 論爭點은 各國 軍隊의		○ 李大統領 INS通信社를 通하여 韓國

월 일	중 요 사 항
	政府의 停戰에 관한 입장을 천명하는 特別聲明書發表코 祖國統一과 集團安全保障의 確立을 強調.
	○ 國防部本部및 各軍分室, 釜山水晶國民學校에 集結移轉.
	○ 申國會議長, 江華 鄕土防衛特攻隊에 表彰狀授與.
	○ 1950年 6月 25日—1951年6月 23日間 社會部에서 피난민 구호비로 146億餘圓, 軍事援護費로 24億餘圓 할당.
	○ 國防部및 內務部 合同으로 慶尙南北道全域, 國道補修工事에 着手.
7월 21일	**軍 事**
	○ 各戰線 大體로 平穩
	休戰會談
	○ 開城第8次會談—共産軍側 代表, 現在까지 提出된 提案을 兩側이 檢討하기 위하여 7月 25日까지 休會하기로 要求 이에 同意.
	○「죠이」中將 東京 歸還.
	政 治
	○ 李公報處長,「애」長官의 聲明을 支持 中共軍의 撤退와 侵略者逐出時까지 UN軍의 駐屯을 強硬主張.
	○ 金서울市長, 記者會見席上에서 市再建案은 大體로 樹立, 糧穀配給은 20萬名에 局限한다고 言明.
7월 22일	**軍 事**
	○ 各戰線에서 彼我輕微한 接觸.
	○ 東部戰線에서 敵 偵察攻擊을 擊退.
	○ B—29空中要塞編隊 黃州, 沙里院飛行場 爆擊—2,000噸 以上 爆彈投下

월 일	중 요 사 항
7월 23일	**軍 事**
	○ 我軍, 金城南方 目標高地 奪還.
	○ 敵, 杻城지구에서 猛烈히 抵抗.
	○ UN空軍, 夜間에 黃州, 永柔 敵飛行場및 安州·成川 등지의 敵 補給所를 폭격.
	○「밴」司令官 李陸軍總參謀長·美第十軍團長「바이어—스」少將等 中東部戰線 視察.
	○ 美海兵師團長「토—마스」少將, 兜率山·大愚山등 지구作戰에 偉勳을세운 海兵第1聯隊長 金大植領 以下 6名에 銀星및 銅星勳章을 授與.
	○「죠이」代表 등 前進交涉本部에 귀환.
	政 治
	○ 國會聲明書 發表—美「애」長官의 外國軍撤退反對聲明을 支持하고 韓國主權에 의한 韓國統一을 主張.
	○ 國務總理室에서 復興計劃委員會 開催「킹슬리」再建局長에게 建議할 要綱및 協議事項 決定.
	○ 財務部 純農民에게 割當消化시킨 國債代金의 返還을 各道에 示達.
	○ 憲兵司令官, 軍風紀取締 特別強調週間 設定에 際하여 철저단속과 嚴重處罰을 表明
	○ 韓國銀行 서울分室 業務開始.
7월 24일	**軍 事**
	○ 開城西南方에서 激戰展開.
	○ 金城南方에서 敵 大規模的인 探索攻擊.
	○ UN軍, 東部, 中東部戰線에서 敵의

월 일	중 요 사 항
	8回에 걸친 探索攻擊을 粉碎.
	○ B—29 및 제트機隊, 平壤周邊敵軍과 補給中心地, 沙里院비행장 폭격.
	○ 北京政府 章 外交部 副部長發表—21日에 UN軍「제트」機隊가 滿州 領空에 侵入, 그中 7臺를 擊墜하였다고 (北京放送).
	○ 6月 24日—7月 24日間 UN空軍 綜合戰果—出擊 13,357回, 擊墜破 24臺, 車輛 2,260臺, 機關車 20臺, 貨車 90臺등 격파. 敵兵 4,000名以上 殺傷
	○ 在韓美 第1機甲師團長「찰르스·팔마」少將 後任에 「토마스·하롤드」 准將任命(總司令部).
	政 治
	○ UN韓國再建局長 「도날드 킹슬리」 氏 來韓, 2週間 滯韓豫定.
	○ 大法院, 彈劾裁判所 審判官選出 完了, 國會에 通告
	○ 平壤放送—外國軍撤退問題의 議題包含을 主張.
7월 25일	**軍 事**
	○ 全戰線에서 敵 抵抗開始.
	○ 杆城西南方에서 敵 抵抗依然.
	○ 我 機動先遣隊, 高浪浦 北方 目標地 奪還.
	○ 英輕巡洋艦, 美驅逐艦等 元山港砲擊 美巡洋艦, 城津灣頭 敵交通路 攻擊.
	○ B—29 編隊 平壤·鎭南浦·新安州操車場폭격
	○ 極東空軍, UN軍機의 滿州領空의 侵入을 否定.
	○ 平壤放送—北共軍 飛行機가 東海岸에서 UN輸送船을 擊沈시켰다고 報道.
	休戰會談
	○ 開城第9次會談—議題構成에 關하여 相當進捗. 共產軍側에서 新提案, UN軍代表 이것을 詳細히 檢討하기 위하여 26日 午後까지 休會提議.
	○ 共產軍側記者團에 英國記者 2名 參加.
	政 治
	○ 國會非公開裡에 自家肅淸問題討議. 國民防衛軍關聯事件을 除外한 4個事件을 不問에 붙이기로 決定.
	○ 順川鐵道局管內 橋梁復舊工事 着工.
7월 26일	**軍 事**
	○ 中東部戰線 到處에서 局部的인 交戰.
	○ 金城지구의 敵活動 漸次 活發化.
	○ 我空軍 夜間에 元山, 平壤 부근에서 敵 車輛부대를 攻擊.
	○ UN空軍, 江東·順川·平壤·元山等 飛行場과 高射砲陣地 8個所를 폭격.
	休戰會談
	○ 開城第10次會談—議事日程, 合議, 5項目에 意見一致.
	① 議題의 採擇, ② 敵對行爲停止의 基礎條約으로서의 非武裝지대를 設定하기 위한 軍事的 境界線의 設置, ③停戰을 實現하기 위한 具體的措置 여기에는 停戰및 休戰을 위한 諸 事項을 實現할 監視機關의 構成, 權限 및 機

월 일	중 요 사 항	월 일	중 요 사 항
	能의 問題를 包含, ④ 捕虜交換에 對한 諸般措置, ⑤ 雙方의 諸關係 政府에 대한 勸告. ○ 議事日程 採擇後 第2項目 軍事境界線設定問題의 一部 討議開始. **政 治** ○ UN韓國再建局 事務所 開所式, 李大統領以下 內外國人 多數參席裡 擧行 **休戰會談** ○ 平壤放送—撤兵問題討議의 必要를 強調(AP). ○ 平壤放送—第10次會談의 共産軍側代表의 提案을 報道—休戰會談成立後, 雙方本國代表로 構成될 會議를 召集하여 外國軍隊의 撤退問題를 討議할 것을 提案(UP).		交. ○ 軍事的 休戰 및 戰鬪停止에 관한 사무적 事項및 手續事項 問題에 原則的으로 意見一致. 이 問題에 관한 詳細事項을 作成하기 위하여 各各 專門委員任命—UN軍側委員「키니」空軍大領「마테」海兵隊大領外 1名. ○ UN軍代辯人「나콜스」准將 言明—捕虜交換에 民間人 75名도 包含한다고. **政 治** ○ UN韓國統一復興委員團, UN韓國再建局의 事業計劃開始에 同意 ○ 居昌事件에 대한 中央高等法院, 大邱高等法院에서 開催. ○ 金서울特別市長, 市再建을 위해 機構改編을 言明.
7월 27일	**軍 事** ○ 東部戰線에서 反擊戰 杜城西北方에서 我軍부대 撤收. ○ 楊口東北方 및 鰐路地方에서 熾烈한 交戰. ○ 西部戰線에서 敵의 活動 顯著히 減少 ○ 我空軍, 夜間에 北韓 各地에서 敵車輛부대를 攻擊, 陽德補給所 爆擊. ○ 21日—27日間 敵殺傷 및 捕虜, 總計 2,400名. **休戰會談** ○ 開城第11次會談—軍事境界線 設定問題를 討議, 「죠이」代表, UN軍側 見解를 陳述하고 說明을 軍用地圖로 補充, 終了後 同地圖를 共産側에 手	7월 28일	**軍 事** ○ 楊口東北方에서 彼我 激戰. ○ B—26夜間爆擊機隊, 敵의 兵力集結地와 車輛部隊를 爆擊. ○ 在韓英聯邦諸部隊 統合式 擧行, 英聯邦師團結成, 師團長에 「켓셀」少將. ○ 開城第12次 會談 無進展, 軍事境界線問題 討議. ○ 共産軍側, 議事日程 成立에 表明한 見解—38線 境界線案을 固執. **政 治** ○ 第11回臨時國會, 다시 會期 30日間 延長을 決議. ○ 國會, 兵務行政및 後方治安對策問題를 圍繞하고 對政府질의전 展開. ○ UNKRA局長一行 瑞典病院을 視察.

월 일	중 요 사 항
7월 29일	○ 內務部 警務官級 大幅移動 斷行. ○ 서울에서 休戰反對 데모行進. **軍 事** ○ 楊口東北方의 敵, 普通程度의 抵抗 繼續. ○ 鐵原·金化北方地域에서 我軍偵察隊 11件進出, 接敵 輕微. ○ UN海軍, 城津을 砲擊(美極東海軍司令部). ○ 我空軍, 夜間에 平壤·元山等지구의 道路上의 敵車輛부대를 攻擊. **休戰會談** ○ 開城第13次會談—非武裝지대 設置問題를 繼續討論. 兩側代表앞서 聲明한 各自의 見解를 強力히 主張, **政 治** ○ 休戰會談 UN軍代表 白善燁少將, 서울에서 李國防部長官과 要談. ○ 金國防部次官 各 兵事事務關係官 및 新兵家族과 統營新兵訓練所를 訪問하고 新兵을 慰問激勵. ○ 서울特別市 水道復舊工事 進捗 29日부터 試驗配水.
7월 30일	**軍 事** ○ 我軍, 5日間에 걸친 激戰 끝에 敵의 鐵環陣 擊破코 楊口東北方 高地奪還. ○ 其他戰線에서는 彼我 輕微한 接觸. ○ UN軍艦載機隊 延坪, 海州지구 猛打 ○ 我空軍, 平壤의 敵大補給品 集積所를 猛擊, 沙里院·黃州·興南·平壤 等 飛行場도 反復폭격, 我軍機 3臺 損失 ○ 夜間爆擊機隊 咸興, 鎭南浦 및 兼二浦 補給基地를 「레이더」로 폭격. ○ 「밴」將軍, 警戒態勢의 萬全을 聲明. **休戰會談** ○ 開城第14次會談—非武裝지대 設置問題에 關하여 兩側代表, 雙方의 主張을 堅持, 共產軍側代表, 會議進行中, 交戰狀態가 繼續되리라는 것은 明確히 理解하는 바 라고 言明. **政 治** ○ 國會, 國民防衛軍事件 圍繞코, 院內各派間對立 激甚, 場內修羅場化로 散會宣布. ○ 金東成議員等, 汪華島 피난민수용소 설치를 政府에 건의. ○ 卞外務部長官, 記者會見席上에서 停戰會議에 對한 見解披瀝, 現戰線 境界線을 主張. ○ 對日講和條約 草案修正要請 國民總蹶起大會, 釜山에서 擧行. ○ 濠洲赤十字社 總裁「죤」卿, 大統領禮訪.
7월 31일	**軍 事** ○ 各戰線에서 散發的인 小衝突. ○ 我空軍 平壤을 爆擊. ○ 我空軍, 夜間에 敵 補給品 集積所를 反復폭격. ○ 空軍 7月中 戰果. 出擊回數 13,000回 以上 飛行場 18個所 補給集積所 45個所

월 일	중 요 사 항
	砲陣地 180個所 橋 梁 171個所 軍用建物 5,800棟 車 輛 3,637臺 機關車 11輛 鐵道車輛 750輛 ○ 美國防省發表—開戰以來 1951年 7月末까지의 敵 損害 1,237,872名. 北共軍：621,367名 (戰鬪死傷者 377,035名, 非戰鬪死傷者 97,119名, 捕虜 147,312名) 中共軍：(616,505名 戰鬪死傷者 513,721名, 非戰鬪死傷者 85,159名, 捕虜 7,625名). ○ 李大統領 共匪掃蕩과 民心安定에 多大한 功績을 세운 第8師團에 表彰狀授與. ○「밴」將軍 恒時警戒 狀態維持를 隷下各부대에 嚴示. ○ 開城 第15次會談 無進展. ○ UN軍總司令部 民間情報局, 非武裝지대 設置問題에 관한 UN軍側見解에 대하여 聲明發表코 現在 戰線을 基礎로하여 非武裝지대 설치를 強調. **政 治** ○ 大統領特別顧問「올리버」博士, 停戰會談에 言及하여 韓國政府는 會談의 歸趨를 注視하고 있다고 說明. ○ 國務會議, 江華島에 直轄 收容所를 新設하기로 決議. ○ 李國防部長官, 航空機獻納에 國民의 協力을 要請하는 談話發表. ○ 在京 CAC當局, 各國生産機關의 早速한 서울復歸를 要望.
8월 1일	**軍 事** ○ 各戰線에서 我軍搜索隊 敵軍과 輕微한 接觸. 開城南方에서 短時間接戰. ○ 我空軍, 夜間에 平壤·順安飛行場을 폭격, 元山·平壤 및 北韓中部地域에서, 敵軍 車輛부대 공격. ○「밴」將軍, 鐵의 三角地帶를 奪還한 國軍 第6235部隊를 視察코 激勵. ○ 李大統領,「루—시」美海軍 中領以下 9名에 武功勳章을 授與. ○ 陸軍敎育總監部 創設. ○ 空軍第1戰鬪飛行團 創設 및 第2偵察飛行戰隊로 強化. **休戰會談** ○ 開城第16次會談 無進展, 兩側代表의 基本見解無變化,「죠이」代表, 公正한 現實的 非武裝지대의 設置를 再次主張. ○「죠이」UN軍代表, 軍事的休戰에 관한「하—그」條約을 引用하고 38度線境界線案에 反駁. **政 治** ○「맥도날드」新西蘭 國防長官 來韓, 一線視察後, 李大統領과 會談. ○ 李國防部長官, 白韓國休戰會談 代表의 退場用意說 否認. ○ 政府 總額 1538億圓餘의 1951年度 第2回 追加豫算案을 國會에 提出. ○ 國會政府提出의 1951年度 米穀年度下半期 糧穀—高給計劃案 同意. ○ 卞外務部長官, 對日講和問題에 對하여 在韓國人 財産의 拋棄 및「맥·라

월 일	중 요 사 항	월 일	중 요 사 항
	인의 存續을 主張하고 만일 對馬島가 韓國에 귀속되지 않을경우에는 그 非武裝化를 要求할 것이라고 記者會見談.	8월 3일	**軍 事** ○ 我軍, 金城東南方 戰線에서 約千m進出, 中部 및 東部戰線에 있어서 小規模의 連續的인 熾烈한 戰鬪展開.
	○「킹슬리」再建局長, 記者會見 席上서 言明—休戰會談이 成功되면 UN 韓國부흥기관에 의한 한국부흥계획은 本格的으로 實施될 것이라고.		○ 我空軍部隊 夜間에 平壤및 新安州飛行場을 폭격.
8월 2일	**軍 事**		○ 美第307폭격대소속 B—29要塞機 14台, 鎭南浦 補給集積所에 高性能爆彈投下.
	○ 我軍, 中東部戰線에서 攻勢, 金城東南方에 前進開始.		○ 艦隊 元山의 敵砲台 및 4個敵陣地를 粉碎(美國防省 3日發表).
	○ 我軍 長距離砲兵隊, 鐵原西北方및 漣川西方과 西北方에 共産軍 陣地를 砲擊.		**休戰會談**
	○ B—29編隊, 平壤北方의 大操車場및 兼二浦 補給中心地를 痛爆.		○ 開城第18次會談, 依然 無進展
	○ B—26輕爆擊機隊, 平壤地區에서 彈藥및 裝備貯藏所를 폭격.		○「죠이」代表, 第19次會議에서 共産軍代表에게 現防衛線 不抛棄한다고 UN軍側態度 闡明.
	休戰會談		**政 治**
	○ 開城第17次會談—雙方 見解依然對立		○ 國會, 國民防衛軍事件 問題를 다시 上程, 一次論戰後, 調査委員會의 報告를 接受하기로 可決.
	○ 南日共産軍代表 38°線 以北의 緩衝地帶 設置를 拒否(北京放送).		○ 全國愛國聯主催, 統一없는 停戰反對總蹶起國民大會, 釜山에서 擧行
	政 治	8월 4일	**軍 事**
	○ 美海兵第1航空師團長「쉘드」少將, 李大統領을 禮訪.		○ 我軍, 金城南方에서 敵의 反擊을 擊退.
	○ 拉致愛國人士 救出運動 展開코자 拉致 愛國人士 家族大會 開催(於釜山).		○ UN軍部隊, 漣川西方지구에서 1哩進出, 共産軍砲兵隊의 掩護下에 抵抗.
	○ 韓國水産協會에서 水産業再建을 企圖코 復興對策委員會를 構成.		○ B—29 爆擊機隊, 鎭南浦 및 黃州의 鐵路를 爆破.
	○ 共産軍捕虜食糧中 主食(1日5合5勺)만 韓國에서 負擔키로 UN軍과 妥協成立.		**休戰會談**
	○ 飛行機 獻納運動展開		○ 開城第19次會談—UN軍 代表, 非武裝지대설치에 관하여 問題 地域의 地

월 일	중 요 사 항	월 일	중 요 사 항
	圖를 檢討할 것을 示唆. 共産軍代表, 地圖의 檢討를 拒否, 午後 會議에서 UN軍代表, 中共軍의 中立地帶 侵犯을 共産軍側에 通報.		○ 「릿」總司令官, 中共軍의 中立侵犯에 抗議하고 休戰會談의 中斷을 通告—侵犯行爲에 대한 滿足할만한 說明과 將來의 保障을 要求.
	○ 武裝共産軍部隊 150名, 會談 中立지대를 侵犯通過.		**政 治**
	○ UN軍代辯人 「나콜스」准將 非武裝지대 문제에 對하여 UN軍側 提案은 穩健한 것이라고 言明.		○ 空軍士官學校 第一期生 卒業式 大統領臨席下에 鎭海에서 擧行.
	政 治		○ 發電船 「포—스」號 木浦에서 發送開始.
	○ 趙法務部長官, 防衛軍事件을 內務中이라고 國會서 答辯.	8월 6일	**軍 事**
	○ 嚴祥燮議員, 共和民政會 事務局長 趙永煥氏 逮捕에 대하여 趙法務部長官에 追窮.		○ 金城東南方에서 中共軍 6個小隊兵力과 接觸하여 이를 擊退
8월 5일	**軍 事**		○ 同地方에서 我砲兵隊, 敵 1個小隊를 北方으로 擊退.
	○ 東部戰線에서 彼我間 輕微한 接觸繼續.		○ 2日前부터 攻擊하고 있던 漣川西北方의 數個小隊의 敵을 我砲兵隊가 擊退.
	○ 金城南部및 東南部地域에서 敵 계속적으로 抵抗.		**休戰會談**
	○ UN軍, 西部戰線에서 攻勢, 高浪浦北方 約 5哩지점까지 進出, 我軍砲兵隊및 戰鬪機隊 敵의 反擊을 粉碎.		○ 共産軍側, 「릿」將軍의 通告에 回答 今後의, 中立保障을 聲明하고 會談의 續開를 希望.
	○ UN艦隊, 魚雷로써 元山港一帶, 共産軍砲臺를 攻擊.		○ UN軍 「죠이」代表等 3名, 東京歸還, 「릿」將軍과 協議.
	○ 美航母 「프린스톤」號 艦載機隊 元山港北方의 鐵道施設및 敵軍砲台 攻擊.		○ UN軍總司令部發表—UN軍은 韓國에 있어서의 軍事境界線으로써 現戰線을 主張하는 原則을 변경치 않는다고
	○ 美航母 「시실리」號 艦載機隊 海州 延安, 鎭南浦등 猛攻.		**政 治**
	○ 我 空軍, 夜間에 約 800台의 敵車輛을 攻擊하여 그中 115台 以上 擊破.		○ 李國防部長官, 壯丁召集方法을 刷新하겠다고 記者會見談.
	○ 空軍第100基地 創設.		○ 國會, 飛行機헌납금거출에 관한동의(8月分세비 1할 거출)를 滿場一致로 可決.
	休戰會談		○ 居昌事件軍裁에서 金朱雨大領證言—

월 일	중 요 사 항
	合同調査團 습격사건은 國軍에 의한 것이라고.
	○ 金서울市長 市民복귀는 尙早라고 再次談話를 發表.
8월 7일	**軍 事**
	○ UN軍 鐵原西方에서 敵의 反擊을 擊退.
	○ 空軍夜間에 順安 新安州비행장 계속 폭격.
	○ 敵機 1台, 我軍陣地에 來襲하고 폭탄 5個를 投下.
	休戰會談
	○「릿」司令官, 會談再開 條件으로써 完全中立의 保障을 要求.
	政 治
	○「밴」第8軍司令官, 李陸軍總參謀長안내로 鎭海所在 陸軍砲兵等 各學校를 視察.
	○ 公報處長, 日本出版物密輸入에 대하여 앞으로 嚴斷하겠다고 談話 發表.
8월 8일	**軍 事**
	○ 敵, 金化北方에서 抵抗.
	○ 我軍부대, 平康과 그 西方지구를 偵察.
	○ 我軍, 鐵原西方에서 熾烈한 戰鬪後 一部陣地로부터 撤收.
	○ 高浪浦西方과 漣川 西北方에서 輕微한 接敵.
	○ 敵機 1台, 中部戰線 我軍陣地 爆擊.
	○ 美陸軍省發表—開戰以來 今年 8月 8日까지의 敵軍損害는,
	戰死傷者 892,505名
	捕 虜 164,883名
	其 他 184,658名
	計 1,242,046名
	○「케이서」豪州 外相 서울到着, 英聯邦軍視察.
	休戰會談
	○ UN軍代表「죠이」中將 等 前進基地歸任.
	政 治
	○「밴」司令官 國軍首腦部들과 함께 陸軍通信學校 工兵學校를 視察.
	○ 國會에서 金宗元六鎭의 證言問題化, 國防部長官으로부터 眞相청취키로 決定.
8월 9일	**軍 事**
	○ 地上戰鬪. 大體的으로 探索戰 程度.
	○ 我軍偵察隊 華川北方 水池 北方에서 約 4粁前進, 少數의 敵과 散發的인 接敵
	○ 西部戰線, 高浪浦西北方및 漣川西北方지역에서 短時間 交戰.
	○ UN軍 海軍부대, 延安및 海州를 猛擊, 元山港도 如前 砲擊.
	○ 我空軍機隊, 共産軍「제트」전투기 3個편대와 空中戰.
	○ 木浦경비사령부, 西海岸일대와 荷衣島·長山島·珍島일대의 機雷 完全除去를 發表.
	休戰會談
	○ 共産軍側「릿」將軍의 7日字 通告에 對하여 中立은 이미 保障되었으니 會談의 계속을 希望한다고 回答.
	○ 共産軍側 代表, 連絡將校를 通하여 UN軍機의 共産軍側代表團「추럭」銃

월 일	중 요 사 항
	擊을 抗議, 「죠이」代表.
	政 治
	○ 李國防部長官, 서울에서 白 休戰代表와 要談.
	○ 濠州外相 「케이서」氏 大統領 禮訪
	○ 李公報處長 蘇聯 「슈벨닉」議長의 平和提案에 대하여 共産主義者들이 平和를 말한다는 것은 그들이 戰爭을 意味하고 있는 것이라고 談話 發表.
8월 10일	**軍 事**
	○ 地上戰鬪, 泥濘으로 膠着.
	○ 金化近方에서 敵의 小規模 偵察攻擊을 擊退.
	○ 韓國 海軍 輕巡洋艦, 鴨綠號, 延安부근의 敵시설을 반복공격.
	○ UN艦隊, 계속적으로 東西 海岸의 敵砲臺 및 補給路에 對하여 艦砲사격
	○ UN海軍機動부대, 鎭南浦및 海州의 敵 軍事目標를 猛擊.
	○ F—84「제트」機편대, 平壤市의 軍事目標를 強襲.
	○ B—29편대, 黃州 操車場을 「레이더」로 폭격.
	○ UN空軍, 夜間에 敵 補給路上에서 2,000臺 以上의 車輛을 捕捉코 猛擊.
	○ 空軍 4日—10日間에 2700回 出擊코 敵車輛 796臺, 砲陣地 41個所, 鐵道車輛 49輛, 舟艇 32雙 等을 擊破.
	休戰會談
	○ 休戰會談再開.
	○ 共産軍側 38度線以外의 線을 軍事分界線으로 討議할 것을 拒否.
	○ UN軍 代表, 會談의 膠着狀態를 打開코자 議題, 第3項目의 討議를 提案 共産側代表 議題第2項 以外의 議題事項의 討議를 拒否
	○ UN軍前進司令部, 開城會談의 用語에 관하여 각서를 發表. 開城 會談을 「軍事的 休戰會談」이라고 定義.
	○ 共産軍代表, UN機의 車輛攻擊問題에 관한 第2次 抗議를 UN軍 連絡將校에게 手交.
	政 治
	○ 李大統領 美第7함만사령관 「스탠톤」大領等에 武功勳章을 授與.
	○ 濠外相 「케이서」氏 귀국出發에 앞서 韓國民의 애국심 발휘를 찬양.
	○ 李範奭駐中大使, 國會에서 中國實情을 報告.
	○ 李國防部長官, 居昌事件等 諸般事件에 관련된 軍人은 特別整戒委員會에 廻附되어 處斷될 것이라고 記者會見談.
	○ 北共 民主朝鮮紙, 그 論說에서 開城會談은 不成功할 것이라고 示唆
8월 11일	**軍 事**
	○ 地上戰鬪 계속된 泥濘으로 彼我偵察隊에 의한 衝突程度.
	○ 惡天候를 무릅쓰고 楊口 西北方에서 敵이 攻擊해 왔으나 이를 擊退.
	○ 臨津江 北岸 敵陣內에 洪水로 5日間 孤立되었던 英國부대, 原陣地 귀환.
	○ 濠州및 韓國海軍부대 漢江河口를 砲擊.
	○ F—86機 1臺 敵 地上砲火로 因하여 喪失.

월 일	중 요 사 항
	○ 平壤放送, 中東部戰線에서 UN軍이 6日 10日 兩回에 걸쳐 毒瓦斯彈을 使用하였다고 非難.
	○ 「밴」第8軍司令官, 3月中旬에 原州, 橫城지구서 敢鬪한 在韓和蘭軍부대에 美國最高勳章 授與.
	休戰會談
	○ 開城 第21次會談, 無進展.
	○ UN軍代表, 現戰線 및 全般的 軍事情勢를 基礎로 한 非武裝지대에 관하여 共産軍側의 所見을 地圖上에 提示하도록 提案.
	○ 共産軍代表, 同提案을 拒否.
	○ UN軍「죠이」代表, 午後의 會談에서 38度線을 固執하는 共産軍側 態度는 會談進展을 圖謀하려는 모든 企圖에 門戶를 閉鎖하는 것이라고 激烈히 非難.
	政 治
	○ 金副統領 西面 瑞典病院에서 退院하고 靜養加療中.
	○ 李國防部長官, 居昌事件은 國防部로서는 依法 嚴重 處斷할 것이라고 國會에서 答辯.
	○ 許社會部長官, 記者會見席上에서 西海岸도서에 集結한 以北 避難民을 分散收容하겠다고 言明.
	○ 度美中 白文敎部長官 歸國.
8월 12일	**軍 事**
	○ 東部, 中部戰線에서 小戰鬪.
	○ 平康 西南方에서 敵부대, 夜間에 反擊企圖.
	○ 開城南方에서 輕微한 交戰.

월 일	중 요 사 항
	休戰會談
	○ 開城第22次會談, 共産軍代表 UN軍이 非武裝지대로 提案한 槪括的인 地區와 共産軍側이 要求하는 38度線 및 現戰線을 地圖上에 提示
	○ 「죠이」代表, 現戰線에 基礎를 둔 非武裝지대에 관한 共産軍側의 構想을 地圖上에 表示하도록 要請.
	政 治
	○ 政府, 政府保有外換으로 生必品 等物資의 導入에 着手.
	○ 國民會 各道代表者會議, 新黨 發足에 意見一致.
	○ 「스톡호름」에서 來 18日부터 開催할 國際學生大會 韓國代表로 金在淳(商大), 梁達承(世醫大) 兩君을 決定.
8월 13일	**軍 事**
	○ 東部戰線에서 敵 2個大隊 我軍陣地에 對하여 熾烈한 反擊을 再開.
	○ 金城南方에서 敵軍 3回에 걸쳐 偵察攻擊을 企圖.
	○ UN艦隊, 城津, 淸津, 元山港 등을 砲擊.
	○ UN軍機, 鎭南浦부근 敵 軍用建物을 攻擊.
	○ 我空軍, 城津부근의 敵兵舍 및 砲陣地를 공격.
	○ UN空軍 中爆擊機隊, 平壤西北方 大同江岸의 敵集結所를 攻擊.
	○ 「죠이」中將, 孫元一 海軍總參謀長에게 美國最高勳章을 授與.
	休戰會談
	○ 開城第23次會議 無成果.

월 일	중 요 사 항	월 일	중 요 사 항
	○ 共産軍代表, 議題第3項乃至 第4項 가운데서 同意에 到達할 수 있는 點을 探求하기 爲하여 一時的으로 非武裝地帶문제에 토의를 保留하자는 UN軍側提案을 拒否.	8월 14일	○ 金城 西南方및 西方高地에서 敵 계속적으로 抵抗.
			○ 金城南方에서 頑強히 抵抗中이던 敵을 完全擊退
	○ 共産軍側代表, UN軍提案인 非武裝지대案에 對한 共産軍側의 調整案에 關하여 見解를 提示하라는 UN軍側要請도 無視.		○ 鐵原方面 接敵殆無.
			○ 我空軍 順安北方 高射砲陣地및 平壤의 兵器廠을 爆擊.
	○ UN, 共産兩軍 連絡將校團, 休戰會議場에서 會合하여 共産軍 代表團의 車輛의 識別法을 討議.		**休戰會談**
			○ 開城第24次會談, 無成果.
	○ UN軍代辯人 「니콜스」准將, 現戰線에 관한 兩側見解는 大略一致하고 있다고 言明.		○ 「죠이」代表, UN軍이 軍事的으로 完全히 防衛可能한 地上의 線을 要求하고 있는 理由를 說明
			政 治
	○ 共産軍側 首席代表 南日 平壤放送을 通하여 萬若 UN軍側이 非武裝지대 문제에 관한 그 태도를 변경하지 않는限, 會談은 何等의 進展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聲明書 發表.		○ 中國會議長, 光復節에 際하여 友邦과 威共鬪爭에 邁進하자고 談話 發表
			○ 李國防部長官, 光復節을 맞이하여 感激의 勝利에 歸結시켜 愛國青年의 총궐기를 要望한다고 談話發表.
			○ 14日現在 各道로부터 報告된 피난민 총수 5,578,354名이며 이중2,235,907名은 各道 1742個소 수용소에 收容
	政 治		
	○ 忠州, 丹陽, 堤川等 3郡의 非常戒嚴解除코 警備戒嚴 宣布.	8월 15일	**軍 事**
			○ 我軍, 杻城지구에서 頑強히 抵抗하는 敵을 擊退.
	○ 卞外務部長官, 光復節에 際하여 侵略의 元兇과 傀儡의 掃蕩에 一層奮鬪할 覺悟라고 聲明發表.		○ 西部戰線, 高浪浦西方에서 敵부대, UN軍 偵察隊에 頑強히 抵抗.
			○ UN空軍 平壤, 新幕間鐵道를 猛攻
	○ 白文敎部長官, 記者會見席上에서 美國의 自由亞細亞委員會는 約 千噸의 印刷用紙의 提供을 約束하였다고 言明.		**休戰會談**
			○ 開城第25次會談에서 「죠이」代表 非武裝問題에 關한 停頓상태를 打開코자 2人分科委員會의 設置를 提案. 共産軍代表 同提案을 文書로 提出 要請
	○ 洪慶南兵事區司令官 記者會見席上에서 壯丁召集에 保留規定을 준수할 方針이라고 言明.		○ 共産軍側 新聞記者團, 共産軍代表는

월 일	중 요 사 항
	現戰線을 기초로한 경계선의 討議에 응할지 모르겠다고 示唆.
	政 治
	○ 陸軍經理學校 創設.
	○ 서울特別市 主事級以上 幹部의 登廳 복귀를 下達.
8월 16일	**軍 事**
	○ 各 戰線에서 계속하여 경미한 接戰.
	○ 楊口 西北方지구에서 中隊兵力의 敵 부대, 頑強히 抵抗.
	○ 美國防省 發表—過去 一週日間의 美軍損害 20名, 開戰以來最低의 美軍損失.
	休戰會談
	○ 開城第26次會談—共産軍 代表, 境界線문제에 관한 停頓狀態의 打開를 위한 合同小分科委員會 設置에 同意, 兩側代表, 다시 同小委員會에 各 1名式 代表追加할것을 同意.
	○「죠이」中將 合同分科委員會 UN軍 代表에「홋지스」少將이 任命될 것이라고 言明.
	○ 開城會談에서 共産軍代表 38度線을 軍事境界線으로 希望하고 있으나 萬若 必要하고 合理的이면 이線을 조정하는 것도 可能하다고 言明(北京放送)
	政 治
	○ 李大統領 濟州 第1陸軍訓練所를 視察
	○ 李內務部長官 서울市의 복귀는 當局의 指示가 있을때까지 삼가주기 바란다고 記者會見席上에서 要望.
월8 17일	**軍 事**
	○ 楊口 西北方및 漣川西方에서 白兵戰.
	○ 鐵의 三角地帶에서 搜索戰 展開.
	○ UN空軍 敵의 輸送網을 24時間 연속 폭격.
	○ 空軍 夜間에 新安州 平壤, 江東및 德川 成川間의 敵補給路 및 重要軍事目標를 폭격.
	○ 7月 28日—8月 17日間 敵의 人命損失 9,590名이라고 美第8軍에서 發表.
	○ 空軍 智異山지구 警察부대 支援作戰 開始.
	休戰會談
	○ 開城會談第1次 合同分科委員會 開催
	○ UN軍代辯人「니콜스」准將 4人合同分科委員會에 관하여 定例의 新聞發表는 中止할 것이라고 言明.
	○ UN軍 前進司令部 4人合同分科委員會의 또하나의 UN軍代表로「알데이 바크」少將의 任命을 發表.
	○ 合同分科위원회, 共産軍側代表에 北共軍 李尙朝少將 및 中共軍 解方이 出席.
	政 治
	○ 卞外務部長官, 國會에서 對日講和條約草案 第4條가 韓國에 有利하도록 修正될것 같다고 報告.
	○ 院內 共和 民政 및 國民會, 大韓國民黨 韓靑等 各 團體連絡代表者, 新黨結成 第1次準備會合을 開催.
월8 18일	**軍 事**
	○ 我軍, 東部戰線일대에서 局限된 目的을 가진 突然的인 攻擊開始.
	○ 楊口北方및 西北方에서 進出한 我軍부대, 敵의 反擊으로 若干 撤收.

월 일	중 요 사 항	월 일	중 요 사 항
	○ 金城西方및 西南方주위의 我軍부대, 敵의 反擊을 粉碎코 陣地確保中.		○ 我軍, 東海岸의 杉城 부근에서 敵의 抵抗을 擊退하고 杉城 西南方및 西北方의 重要高地를 各各 確保.
	○ 我軍 鉄川北方및 西北方에서 頑強히 抵抗하는 敵을 擊退.		○ 我軍, 楊口 北方에서 계속 부분적인 進擊을 敢行.
	○ 我軍 鐵原北方및 東北方에서 侵透한 敵을 擊退.		○ 我軍, 金城 南方高地를 탈환.
	○ 西北韓 上空에서 彼我「제트」機 59臺 空中戰을 展開하여 敵 MIG機 1臺를 損傷.		○ 鐵原 西方에서 我軍, 敵의 抵抗으로 原陣地에 복귀
	○ UN空軍, 敵補給線 및 輸送路에 대하여 全面的인 空中攻擊.		○ 美第77艦母艦載機隊 共産軍占領下에 있는 橋梁 폭격.
	○ UN軍 封鎖警護艦隊司令官 「스미스」少將, 李龍雲 海軍大領 以下 50餘名에 勳章授與.		○ B—29폭격기 및 F—86「제트」機隊, MIG「제트」機 46臺와 西北韓 上空에서 空中戰을 展開하여 그中 2臺격파, 5대 損壞.
	休戰會談		**休戰會談**
	○ 第2次合同分科委員會 開催 UN軍代表에 「비—크」少將을 代身하여 「크레기」少將 參席.		○ 第3次 合同分科委員會 開催.
	○ 「죠이」中將 休戰交涉에 관하여 聲明을 發表하고 UN軍의 唯一한 目標는 現實의 軍事的情勢에 基礎를 둔 軍事休戰이라고 強調.		○ 共産軍側, UN軍이 다시 板門店부근에서 中立지대를 침범하였다고 非難, 兩軍合同調査團, 現場調査
			○ 共産軍 首席代表, 開城 侵犯에 관하여 「죠이」代表에게 항의를 제출하고 加害者의 처벌 및 장래의 보장과 만족할만한 회답 요구.
	政 治		**政 治**
	○ 國務總理, 美下院外委의 對韓援助額削減에 대하여 金額이 通過되도록 交涉의 적극추진을 駐美 梁大使에게 指令하였다고 國會에서 答辯.		○ 金서울特別市長, 市民복귀는 時期尙早라고 再次 경고.
			○ 國防部 3局長 姜英勳준장 취임.
	○ 國際聯合 世界聯盟年次大會 (8月 24日부터 「스톡호름」에서 開催) 韓國代表 鄭一享, 金龍周 兩氏 出發.		○ 在韓 華僑團體聯合 辦事處, 韓國과 中國의 對日講和 正式參加를 「트」美大統領에 電講.
8월 19일	**軍 事**	8월 20일	**軍 事**
	○ 東海岸지구, 東部 金城지구 中部 鐵原지구에서 激戰.		○ 東部戰線 楊口및 杉城間 山岳지대에서 國軍부대, 地雷原을 突破코, 白兵

월 일	중 요 사 항	월 일	중 요 사 항
	戰끝에 수개高地 탈환진격.		熙(金九氏殺害犯)等 白書襲步說에 對하여 政府에 질의.
	○ 國軍 楊口北方 重要高地로부터 敵을 驅逐한바 敵은 同高地 傾斜에서 頑強히 抵抗.		○ 襄陽郡管內 各面 民政官 任命.
	○ 金川 北方으로부터 鐵原지구에 이르는 一帶에서 散發的 接觸 不絶.	8월 21일	軍 事
	○ 美戰艦 「뉴—저지」號 및 重巡洋艦 「톨레도」號等 UN艦隊 連 5日째 東海岸에서 敢闘中의 國軍부대를 掩護.		○ 杆城 지구에서 激戰 계속展開.
	○ 美第5空軍所屬 F—84「제트」機隊, 韓國地上軍에 空中掩護.		○ 楊口北方에서 敵, 國軍의 猛攻을 받고 있는 6個高地를 계속 확보하려고 反擊.
	○ 我空軍, 夜間에 新安州 嶺美洞 中洞의 鐵道操車場을 폭격.		○ 我軍 金城지구에서 敵의 反擊을 擊退.
	休戰會談		○ 我空軍 조종사, 夜間에 東部戰線 후방에서 敵車輛 수천대 이동을 목격.
	○ 開城休戰會談 第4次合 同分科委員會開催.		休戰會談
	○ UN軍 前進基地本部, 中立지대侵犯事件 合同조사 결과에 對하여 問題의 武裝兵이 UN軍의 어느부대인지 完全히 확인할 수 없다고 發表.		○ 제5次合同分科委員會 개최
			○ UN軍「죠이」首席代表. 19日의 中立지대 侵犯事件에 대하여 完全한 보고를 접수한後에 回答을 하겠다고 南日 共產軍代表에게 통고.
	政 治		政 治
	○ UNKRA, 2億5千萬弗, 韓國再建計劃의 基礎가 될 諸事業開始를 計劃.		○ 第8軍司令部 피난민 南下의 금지를 재차 요청.
	○ 卞外務部長官, 對日講和會議에 韓國의 參加를 強調하는 談話를 發表.		○ 李公報處長, 對日講和조약조인에 한국은 참가권리 있다고 再次 聲明.
	○ 卞外務部長官, 停戰線의 位置如何를 不拘하고, 그것이 永久的 境界線이라면 決코 受諾할 수 없다고 政府態度 천명.		○ 拉致人士 救出요청에 「릿」司令部側 留意를 회답.
		8월 22일	軍 事
	○ 陸軍敎育總監에 李亨根 少將 취임.		○ 我軍, 杆城 西北方지구 高地상의 敵 擊退.
	○ 陸軍 高級副官學校 創設.		○ 我軍, 5日째걸친 最激戰에서 熾烈한 重砲支援下에 楊口北方의 重要고지 탈환.
	○國會 韓賢宇(宋鎭禹氏殺害犯)및 安斗		○ 李大統領, 戰線視察 海兵隊 表彰 激勵.

월 일	중 요 사 항	월 일	중 요 사 항
	○ 李大統領, 美第2師團長 럿프너 少將 및 美8軍參謀長, 「알렌」 少將에게 現地에서 勳章수여.		훈을 찬양.
	休戰會談		○ 劉육군참모부장, 한국군을 대표하여 中西部전선의 白耳義부대 방문
	○ 開城 제6次合同分科위원회 개최.		**休戰會談**
	○ 共産軍側 연락장교 張大佐 UN軍연락장교에 대하여 UN軍機가 개성회담지구를 폭격하였다고(오후 11시 20분 통고, UN軍側 연락장교 「커니」 대령 및 「마래이」대령 공산측 연락장교와 현장을 조사.		○ 共産軍側 연락장교 張대佐 UN軍연락장교에게 UN軍機가 開城을 폭격한 까닭에 休戰會談및 合同분과위원회의 會合은 今後 停止하겠다고 通告.
	政 治		**政 治**
	○ 李治安局長 기자회견 석상에서 全國治安 상황은 날로 호전하고 있다고 언명.		○ 戒嚴司令部, 서울民事部설치 계엄민사부 서울分室은 폐지.
	○ 平壤放送 : 美國은 現在 國會에서 심의하고 있는 巨大한 軍事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휴전 회담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		○ 颱風, 本州·群山間에 上陸코, 東北東으로 進行中 中心部의 風速은 20—30m.
8월 23일	**軍 事**	8월 24일	**軍 事**
	○ 東部및 中東部戰線에서 계속하여 격전 전개중.		○ UN軍偵察機, 楊口北方과 金化北方에 各各約千名에 달하는 敵부대의 集結을 發見.
	○ 杜城 南方에서 一進一退의 격전계속중.		○ 三角지대로 侵透試圖. 我軍砲門 南下中의 敵부대를 捕捉砲擊.
	○ 楊口北方高地에서 敵 2個大隊의 공격으로 一時 철수한 我軍부대 強力한 反擊으로 同高地 탈환.		○ UN空軍 夜間에 北韓 各 道路上에서 敵車輛 約 400臺를 擊破.
	○ UN海軍 東海岸지구의 地上부대를 掩護, 杜城·高城間의 敵迫擊砲 陣地및 兵力集結所를 포격.		○ 8月 18日 이래 敵損失— 殺傷·捕虜 포함하여 총계 8,905名.
	○ 美海軍 双發 F「제트」機隊 最初로, 한국전투에 참가.		**休戰會談**
	○ 「맨」將軍 第1軍團및 美10軍團의 공		○ UN軍총사령부, UN軍機의 개성폭격을 부정, 해당시각에 개성상공에는 UN軍機는 1臺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聲明.
			○ 共産軍司令官, 休戰會談및 合同分科委員會의 中止를 正式으로 통고. UN軍機의 개성중립지대폭격사건에 대하여 만족할만한 回答을 요구.

월 일	중 요 사 항	월 일	중 요 사 항
	政 治		開城폭격사건은 捏造虛構라고 共産軍側抗議를 拒否하고 共産側이 中止聲明을 撤回하면 會談 再開하겠다고 通告.
	○ 國會, 休戰會談 中斷에 대하여 共産軍側의 常套的凶計는 豫測事라 하며 滅共統一로 結成進軍의 決意를 表明.		**政 治**
8월 25일	**軍 事**		○ 國防部 第4局을 新設 兵務關係 一切를 담당.
	○ 杆城 西北方에서 白兵戰으로 저항하는 敵 격퇴.		○ 李大統領, 新黨조직에 관하여 公正한 政黨에 參加하여 國民의 복리를 求하고자 하는 一般男女의 加入을 권한다고 담화 발표.
	○ 楊口 北方에서 數日前 포기한 高地 재탈환.		○ 國會 中東部戰線 兜率山 전선에서 武勳을 세운 海兵隊격려 「메세지」 보내기로 可決
	○ 金化西北方및 金城 東南方 目標高地를 탈환.		
	○ UN함대, 元山항을 砲擊, 杆城 高城間高地를 占領한 한국군지원.		
	○ 美海軍機 鎭南浦 주변의 공산군부대 공격.	8월 26일	**軍 事**
	○ 美극동공군전폭기대, 北韓 各도로상에서 敵 大車輛부대를 공격 800臺 以上을 擊破.		○ 敵 約 3千, 楊口東方 △773및 △894에 侵透. 我軍, 反擊을 開始하여 戰鬪치열.
	○ B—29 35臺, 羅津폭격 조차장, 기타 철도시설 공격.		○ 楊口北方 戰線일대에도 激烈한 戰鬪展開.
	○ B—26, 宣川·定州間 新安州·蕭川間 平壤·沙里院間 철도시설 집중공격.		○ 金城南方및 東南方에서 頑強한 敵抵抗에 遭遇.
	○ 濠州空軍 「미—터어제트」機, 最初로 MIG「제트」機와 交戰.		○ UN軍 砲兵및 戰爆機隊, 계속하여 鐵의 三角지대 內의 目標物을 공격.
	○ 「밴」장군 한국군 용전을 격찬하는 「멧세지」 전달.		○ 美戰爆機隊, 平壤·熙川 順川 등지를 공격.
	○ 8월 19일—25일 空軍戰果 敵 MIG—15「제트」機 4臺 격추, 6臺 격파, 我軍 2臺 損失, 1臺損傷.		○ B—29機隊, 軍隅里의 鐵道施設과 「坪里」의 敵비행장을 폭격.
	休戰會談		○ 休戰會談의 中斷以來 共産軍 補給物資輸送 激增.
	○ 「릿」將軍 共産軍側 통고에 回答하여		**政 治**
			○ 國軍步兵및 砲兵將校 250名, 美國에

월 일	중 요 사 항	월 일	중 요 사 항
	留學生으로 파견 결정.		表示하여 開城 中立지대 侵犯事件의
	○ 政府, UNKRA 經濟援助에 관한 當面問題를 討議.		再調査와 同事件에 관한 雙方交換 文書의 公表를 提案.
	○ 政府, 重石輸出에 對한 是正策을 檢討中.		○ UN軍總司令部, 聲明發表 共産軍側 回答을 論評하여 開城事件 재조사 요구는 증거를 다시 조작할 수 있는 의도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비난.
8월 27일	**軍 事**		**政 治**
	○ 東部 丘陵地帶戰鬪 계속.		○「밴」司令官, 서울特別市長을 訪問하고 서울市民복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聲明.
	○ 仝南警察陣, 雙置일대의 共匪를 掃蕩하고 百餘名을 射殺.		○ 海軍本部 憲兵隊創設.
	休戰會談	8월 29일	**軍 事**
	○ UN軍 休戰代表團, 會談의 再開를 待機하여 汶山에 滯留中		○ 杜城西方에서 敵抵抗 如前히 熾烈.
	○「릿」將軍, 汶山의 UN軍 前進司令部를 訪問하고 同日東京歸任.		○ 高城西南方및 東方에서 頑強히 抵抗하는 敵을 擊退코 2個 重要高地 탈환.
	政 治		○ 楊口東北方에서 敵, 我軍 戰線에 侵透하여 彼我間에 激戰 展開
	○ 國會, 政府提出 追加豫算案中 項目變更조치에 대한 對政府同意要請案을 滿場一致로 可決코 將兵副食費를 引上.		○ 楊口北方의 敵攻擊을 擊退.
	○ 群山線과 京南線(現長項線) 旅客列車運行 計劃中.		○ 中部및 西部戰線은 偵察戰 程度.
8월 28일	**軍 事**		○ F--86「세이버·제트」機 20臺, 新義州근방 上空에서 MIG—15「제트」機 約 40臺와 空中戰, 鴨綠「마티어 제트」機 1臺 損失.
	○ 杜城北方高地에서 전투		**休戰會談**
	○ 楊口東北方에서 敵, 終日 공격을 계속.		○「릿」將軍. 28日 對共産軍側「멧세지」에 回答하여 開城 폭격사건의 再調査를 拒否하였으나 會談 再開意向 다시 表明.
	○ 華川北方및 西北方에서도 小部隊單位로 熾烈한 전투전개.		**政 治**
	○ 鐵川北方에서 探索中의 UN軍 偵察隊 敵의 迫擊砲火로 原陣地로 歸還.		○ 李大統領, 第8軍副司令官「콜터」中將에 太極勳章 授與
	○ 我空軍, 夜間에 平壤의 敵 補給品및 兵力集結所를 공격.		
	休戰會談		
	○ 共産軍側「릿」將軍의 回答에 不滿을		

월 일	중 요 사 항	월 일	중 요 사 항
8월 30일	○ 金鏞化議員外, 58議員의 連署 支援을 얻어 大田 遷都動議案을 提出. **軍 事** ○ 敵, 東部戰線에서 激烈한 侵透攻擊을 企圖하고 1個所에서 我軍戰線을 突破. ○ UN軍航空隊 및 重砲隊 杆城지구에 布陣한 約 1個師의 共産軍을 終日猛擊. ○ 楊口北方 數個處에서 敵의 暗夜를 利用한 侵透를 擊退. ○ 中部및 西部戰線에서 接敵輕微. ○ 我空軍 夜間 惡天候를 무릅쓰고 敵車輛 900臺 이상을 捕捉하여 그 中 約 200臺 擊破. ○ B—29機隊, 北韓各操車場(嶺美, 삼동, 新幕)을 猛襲. ○ 我軍「선더·제트」機 1臺 敵 地上砲火로 추락. ○ 空軍第1戰鬪飛行團 海州北方폭격. **休戰會談** ○ UN·共産軍 兩側放送—休戰會談中斷에 關한 宣傳戰으로 應酬. ○ 南日共産側 首席代表, 開城照明彈投下事件에 대하여 正式으로 抗議하고 責任者의 嚴罰을 要求. ○ 共産軍側代表, 30日午前 板門店橋부근에서 또 同日午後, 淸潭洞부근에서 UN軍이 中立지대를 侵犯하여 共産軍側, 軍事警察을 攻擊하였다고 抗議 **政 治** ○「로버트슨」 駐韓 英聯邦軍 司令官 李大統領 訪問.	8월 31일	○ 美軍事當局 戒嚴司令部의 建議를 수락하여 서울 生必品 搬入 許容. **軍 事** ○ 我軍, 中部및 中東部戰線에서 幅 40哩에 걸쳐 制限된 공격을 개시. ○ 인제北方에 전진한 我軍부대 敵의 對人地雷源에 遭遇하였으나 掃蕩後 約 4000碼 進出. ○ 楊口北方에서 限定目標 攻擊을 전개한 我軍部隊 敵의 猛烈한 抵抗을 배제코 目標고지 탈환. ○ 金城東南方 및 南方의 敵軍, 猛烈히 抵抗. ○ UN軍艦艇및 함재기 杆城지구에 대하여 戰亂以來 最大의 攻擊敢行. ○ UN空軍, 夜間에 新安州·沙里院·陽德·平康·元山等地에서 250臺 이상의 敵 車輛공격 약 460臺 격파 **休戰會談** ○ 제8軍司令部 言明—開城中立지대에서 30日 戰鬪가 發生하였다는 北京放送에 대하여 아는바 없다고. **政 治** ○ 海軍士官學校 제4회 卒業式 擧行. ○ 卞外務部長官,「맥」線은 우리의 生命線이며 韓·日 兩國間의 平和維持에 重要한 것이라고 談話발표. ○ 海軍의 손으로된 第2忠武號및 水上機 제1호(海燕) 命名式.

3. 戰歿者 名單

<陸　　軍>

首都師團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구　분
사단본부	大　尉	202252	南　正　蓮	51. 6. 5	高　　城	전　사
〃	〃	203177	吳　景　寶	8. 8	香　爐　峰	〃
〃	〃	208429	李　元　浩	5.11	雪　岳　山	〃
〃	〃	210212	任　千　鎬	7. 3		〃
〃	〃	211365	尹　亨　鎬	6.15		〃
〃	〃	212017	徐　成　國	5.17	雪　岳　山	〃
〃	〃	212090	孫　正　鎬	8.25		〃
〃	〃	212777	李　樟　雨	5.11	雪　岳　山	〃
〃	〃	213313	朴　鍾　源	8.28	香　爐　峰	〃
〃	少　尉	223549	延　命　欽	6. 4	麟　　蹄	〃
機甲연대	大　尉	202880	禹　東　赦	5.17	雪　岳　山	〃
〃	〃	203883	宋　東　燮	6. 5	珍　富　嶺	〃
〃	中　尉	205922	金　尙　明	6.11	香　爐　峰	〃
〃	〃	206487	朴　世　榮	8.25	〃	〃
〃	〃	211960	朴　再　京	8.12	〃	〃
〃	〃	211979	仝　正　玉	6.18		〃
제1연대	少　領	11356	崔　春　鎭	7.22	高　　城	〃
〃	〃	14363	鄭　鎭　泰	6. 3	麟　　蹄	〃
〃	大　尉	200513	朴　用　壽	8.21	杆　　城	〃
〃	中　尉	16056	吳　德　福	7 22	高　　城	〃
〃	〃	208333	李　相　德	6.11	麟　　蹄	〃
〃	〃	208457	朴　京　植	7.16	杆　　城	〃
〃	少　尉	208534	張　世　允	6. 3	迎　日(浦河)	순　직
〃	〃	223511	成　百　吉	8.15	高　　城	전　사
〃	〃	223535	任　平　植	6.14	59 육 군 병 원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구 분
제 1 연대	少 尉	223539	高 永 權	51. 8.16	高 城	전 사
〃	〃	223590	李 命 道	7.16	〃	〃
〃	〃	223591	具 永 奐	8.21	〃	〃
〃	〃	223607	金 駿 錫	6.13	〃	〃
〃	〃	223608	金 顯 台	8.22	〃	〃
제26연대	大 尉	203731	鮮 于 寬 善	8.21	〃	〃
〃	〃	203925	金 玉 柱	8.22	〃	〃
〃	中 尉	201372	金 龍 洙	5. 1	〃	실 종
〃	〃	208391	慶 鐵	6.13	杜 城(香爐峰)	전 사
〃	少 尉	201622	金 鳳 燁	7.28		실 종

제 1 사단

사단본부	少 領	12465	林 童 善	51. 7. 3	長 湍	전 사
〃	〃	15010	韓 鳳 得	5.30	坡 州	〃
〃	大 尉	16593	徐 孝 源	6.28	議 政 府	〃
〃	〃	202109	張 尙 龍	7. 6	金 化(△603)	〃
〃	中 尉	205705	鄭 義 軾	5. 7		〃
〃	〃	207387	安 偕 壵	8 5		〃
〃	〃	211581	咸 俊 植	7. 3	長 湍	〃
〃	〃	213294	崔 漢 洙	5.21	東 巨 里	〃
〃	少 尉	213289	朴 斗 瀅	5. 7	水 原 驛 前	순 직
〃	〃	223489	趙 奉 根	5.17	은 악 산	전 사
제11연대	少 領	13588	崔 鎭 根	5. 7	碧 蹄	〃
〃	中 尉	210108	金 鍾 吉	5. 9	高 陽	〃
〃	〃	210356	趙 浩 倫	5. 8	高 陽(元唐)	〃
〃	〃	211805	洪 珍 杓	8.18		〃
〃	〃	213143	金 昇 洙	8.20		〃
제12연대	少 領	14529	姜 勝 一	7. 3		〃
〃	中 尉	21006	金 鏞 植	5.20	高 陽	〃
〃	〃	211686	盧 甲 昞	5 2	高 浪 浦	〃
제15연대	大 尉	210303	尹 萬 壽	5 20	高 陽(元唐)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구 분
〃	中 尉	209785	吳 錫 洙	5. 8	〃	〃
〃	〃	210278	李 鍾 浩	5.19	〃	〃
〃	〃	212388	曺 源 玉	5.29	〃	〃

제 2 사단

사단본부	少 領	13800	朴 海 龍	51. 5. 7	淸 平	전 사
〃	大 尉	202075	金 仁 永	8. 3	金 化	〃
〃	〃	20214	李 貞 雨	8. 5	金 化(△734)	〃
〃	中 尉	16357	金 學 洛	7. 4		순 직
〃	〃	60869	安 英 錫	5 18		실 종
〃	〃	207269	李 基 寅	6. 9	抱 川(二東)	전 사
〃	〃	210497	金 凡 俊	5.17	加 平	〃
〃	〃	212545	金 榮 基	8. 5	金 化	〃
제17연대	大 尉	201278	李 炳 萬	6. 3	華 川	전 사
〃	中 尉	204167	柳 更 邑	5.29		〃
〃	〃	208251	明 壽 碩	6.20	華 川(馬峴里)	〃
〃	〃	208648	黃 承 吉	6. 2	〃	〃
〃	〃	209151	崔 炳 澤	5.28	〃 (史內面)	〃
〃	〃	209284	朴 南 鎭	8.15	抱 川	〃
〃	〃	210527	朴 一 南	6 10	金 化	〃
〃	〃	213970	金 春 植	8.14	鐵 原	〃
〃	少 尉	223500	李 順 培	8. 3	楊 州(琴南面)	〃
제31연대	大 尉	14357	李 基 旭	7. 6		실 종
〃	中 尉	209030	宋 海 充	5.17	加 平	전 사
〃	〃	209046	崔 三 道	5. 1	〃	〃
〃	〃	209083	朴 長 鎬	6.29	金 化(杜木里)	〃
〃	〃	209321	鄭 守 永	5.17	加 平	〃
〃	〃	211783	趙 孝 遠	6. 2	華 川	〃
〃	〃	211867	金 順 祚	6. 1	華 川	〃
제32연대	中 尉	209139	朴 相 甲	5.22	楊 口	전 사
〃	〃	209278	柳 瀅 植	5.20	楊 平	〃
수색중대	少 領	13608	洪 範 述	5.17	淸 平 發 電 所	〃

제 3 사단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구 분
사단본부	少 領	16074	金 偵 圭	51. 5.17	麟 蹄(縣里)	전 사
〃	大 尉	12756	李 長 守	5.18	〃	〃
〃	〃	15880	朴 云 達	8.17		〃
〃	〃	212185	鄭 世 澤	8.16	麟 蹄	순 직
〃	〃	60548	吳 吉 余	5.18		전 사
〃	〃	60919	朴 勝 翊	5.18		〃
〃	中 尉	16618	朴 仁 球	5.20		실 종
〃	〃	204407	朴 性 益	7.18	高 城	전 사
〃	〃	204487	金 光 祐	5.11	麟 蹄	〃
〃	〃	204622	許 石 弘	5. 8	〃	〃
〃	〃	205146	崔 炳 烈	5.17	洪 川	〃
〃	〃	205728	金 仁 煥	5. 8	麟 蹄	〃
〃	〃	208963	金 大 龍	5.17	〃	〃
〃	〃	209656	李 榮 植	5.20	洪 川	〃
〃	〃	211009	沈 載 昨	5.19	麟 蹄(加里山)	〃
〃	〃	210252	金 一 中	5. 3	麟 蹄	〃
〃	〃	210287	宋 龍 求	5 7	〃	〃
〃	〃	210355	洪 淳 元	5.17	〃	〃
〃	〃	211455	姜 尙 近	5. 3	〃	〃
〃	〃	211460	金 楨 宇	7.11	〃	〃
〃	〃	211784	李 哲 雨	5.22	麟 蹄(加里山)	〃
〃	〃	211984	韓 震 源	5.17		〃
〃	〃	212338	尹 孝 德	5.13		〃
〃	〃	212621	朴 觀 敏	5.19	麟 蹄(縣里)	〃
〃	〃	213406	金 鍾 德	5.17	〃	〃
〃	少 尉	204521	梁 益 錫	5.17	〃	〃
사단본부	少 尉	204697	白 仁 俊	5.17	麟 蹄	실 종
〃	〃	207781	李 舜 榮	5.17	〃	〃
〃	〃	208905	李 熙 用	5.17	〃	〃
〃	〃	210322	朱 鍾 晃	5.17	〃	〃
〃	〃	211470	劉 炳 基	5.17	〃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구 분
〃	〃	211428	李 東 均	5.17	〃	〃
〃	〃	213354	朴 鼎 雨	5.17	〃	전 사
〃	〃	223492	金 貴 成	6. 1	〃 (유리산)	〃
제18연대	大 領	10393	金 鳳 翔	5.17	麟 蹄(縣里)	〃
〃	大 尉	12807	鄭 順 珏	5.17	〃	실 종
〃	中 尉	205890	邊 興 均	5 17	〃	전 사
제22연대	大 尉	17287	邊 方 煥	5.22	平 昌(楡川)	전 사
〃	〃	202282	李 鍾 浩	5.11	洪 川	〃
〃	〃	202485	李 龍 德	5.20		〃
〃	中 尉	16057	李 大 植	6.11	東 豆 川	〃
〃	〃	204469	金 京 宇	5.13		〃
제23연대	〃	203915	金 日 煥	5.20		실 종
〃	〃	205964	張 基 稷	5.20	平 昌	전 사

제 5 사단

사단본부	少 領	12733	朴 準 喆	51. 5. 7	洪 川	전 사
〃	大 尉	204025	元 鍾 弼	6 10	〃	〃
〃	〃	204130	張 福 光	5. 2	麟 蹄	〃
〃	〃	204249	嚴 熙 川	5.17	洪 川	〃
〃	〃	204277	李 鍾 赫	5.31	〃	〃
〃	〃	210974	河 再 煥	5.17	〃	〃
〃	中 尉	17398	申 基 鉉	8.15	제 7 육 군 병 원	〃
〃	〃	204003	尹 洪 權	5.17	洪 川	〃
〃	中 尉	204468	李 豪 根	5.17	洪 川	전 사
〃	〃	204415	金 哲 洙	5 17	〃	〃
〃	〃	205440	趙 南 喜	5.31	〃	〃
〃	〃	205816	宋 庚 源	8.19	楊 口	〃
〃	〃	209358	趙 道 衡	8.26	〃	〃
〃	〃	210301	韓 在 純	5.18	洪 川	〃
〃	〃	210328	金 商 發	6. 8		〃
〃	〃	210377	姜 永 昭	6. 9	麟 蹄	〃
〃	〃	210635	金 水 山	5. 8	洪 川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구 분
〃	〃	210831	金 周 興	8.19	楊 口	전 사
〃	〃	210761	李 徹 勳	5.17	洪 川	〃
〃	〃	211463	朴 滋 益	6.21	麟 蹄	〃
〃	〃	211752	林 煥 東	6.17	〃	〃
〃	〃	212098	金 相 會	6.17	〃	〃
〃	〃	212270	鄭 昭 鍾	6. 9	〃	〃
〃	〃	212353	趙 載 現	5.31	洪 川	〃
〃	〃	212369	崔 東 薰	5.17	麟 蹄	〃
〃	〃	212440	梁 性 鉉	6.17	〃	〃
〃	〃	212448	丁 海 鳳	6.17	〃	〃
〃	〃	212840	李 奭 寅	5.28	新 南	〃
〃	〃	212884	太 斗 皓	6,10	麟 蹄	〃
〃	〃	213044	金 潤 根	5.18	洪 川	〃
〃	〃	213050	宋 寅 秀	6. 9	麟 蹄	〃
〃	〃	213054	金 桑 熙	6.10	〃	〃
〃	〃	213058	洪 性 武	5.10	春 城	〃
〃	〃	213215	崔 成 澤	8.27	楊 口	〃
〃	〃	213243	崔 㫜 燮	6.11		〃
〃	〃	213255	李 承 雨	6. 5	麟 蹄	〃
〃	〃	214025	梁 柱 善	8 13	〃	〃
〃	〃	214101	朴 元 健	8.27	〃	〃
〃	〃	214103	康 大 洙	8.24	〃	〃
〃	〃	214294	金 琪 培	8.28	〃	〃
〃	少 尉	204647	金 相 禹	5.16	春 城	〃
〃	〃	207067	李 丙 世	6. 3		〃
〃	〃	208802	池 鎭 浩	5 20		〃
〃	〃	209748	鄭 信 鎔	6.24		순 직
〃	〃	213048	鄭 昌 永	5.18	洪 川	실 종
사단본부	少 尉	213225	曺 緖 煥	6.17		전 사
〃	〃	214161	康 奉 吉	8.24	楊 口	실 종
〃	〃	223540	河 容 慶	5.14	洪 川	전 사
〃	〃	223586	金 容 奭	6.10	제6이동외과병원	〃
제27연대	大 尉	16092	崔 泰 淵	5.18		실 종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구 분
〃	〃	200303	朴 二 齊	5.17	洪 川	전 사
〃	〃	200498	韓 公 洙	5.18	〃	〃
〃	中 尉	208684	金 永 東	6.11	麟 蹄	〃
〃	〃	208696	韓 福 東	6.11	〃	〃
제35연대	中 尉	210619	金 在 玉	5.31	麟 蹄	〃
제36연대	少 領	14382	元 鍾 百	8 28	楊 口	〃
〃	〃	203279	申 昌 錫	5. 3	居 昌	〃
〃	大 尉	200673	高 春 植	6. 9	麟 蹄	〃
〃	〃	201297	李 承 源	8.19	楊 口	〃
〃	中 尉	208798	張 錫 元	8.25	〃	〃

제 6 사단

사단본부	大 尉	16620	鄭 炳 圭	8.29		실 종
〃	〃	205160	安 鍾 贊	6 11		전 사
〃	中 尉	205534	崔 秉 昌	5.19	加 平	〃
〃	〃	206290	朴 重 德	6.22	華 川(史內)	〃
〃	〃	209798	鄭 建 鎬	6.11	제 2 외 과 병 원	〃
〃	〃	210671	秋 沐 慶	5.20	加 平	〃
〃	〃	211426	辛 海 岳	6. 8		〃
〃	〃	211458	金 益 秀	5.16	加 平	〃
〃	〃	212026	金 海 東	5 20	〃	〃
〃	〃	212264	李 福 寧	7. 1	華 川	〃
〃	〃	212797	朴 源 鍾	5.18	加 平	〃
〃	〃	212802	李 海 哲	5 20	〃	〃
〃	〃	212855	李 東 君	5 19	〃	〃
〃	〃	212881	金 在 振	8 14	華 川	〃
〃	〃	212910	金 三 出	5.20	楊 口	〃
〃	中 尉	213004	黃 迪 元	6.10	華 川	전 사
〃	少 尉	212551	崔 榮 一	5. 9		〃
〃	〃	213028	李 鉉 鄕	5.29		실 종
제 2 연대	中 尉	208368	趙 鏞 角	8.31	華 川	전 사
제 7 연대	大 尉	12654	金 明 成	6.20	白 岩 山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구 분
제19연대	少 領	14579	金 雲 畸	7.22	陽 平(梁門里)	전 사
〃	大 尉	16900	崔 春 稷	5.26	加 平	〃
〃	中 尉	202465	姜 相 泰	5.25	〃	〃

제 7 사단

사단본부	大 尉	15890	李 光 燮	51. 5.18	麟 蹄(西湖)	전 사
〃	中 尉	210094	李 光 運	8.26	楊 口(方山)	〃
〃	〃	210136	金 明 善	8.23	〃	〃
〃	〃	210243	金 瑛 圭	5.17	洪 川	〃
〃	〃	211218	李 炳 甲	7.26	楊 口(方山)	〃
〃	〃	211590	朴 亨 斌	7. 2		〃
〃	〃	211766	安 利 謙	8.21	楊 口	〃
〃	〃	212190	尹 致 浩	7.25	〃	〃
〃	〃	214085	咸 泳 達	8.21	〃	〃
〃	少 尉	209982	李 鍾 澈	5. 7	洪 川	전 사
제 3 연대	大 尉	200850	朴 三 植	5.17	〃	〃
〃	〃	201941	尹 炳 善	5.18	〃	〃
〃	〃	207258	鄭 永 鎭	8.18	〃	〃
〃	中 尉	203748	殷 熙 大	7. 4		〃
〃	〃	207049	史 相 烈	5.18		〃
〃	〃	207256	郭 東 植	8.23	제2이동외과병원	〃
〃	〃	208608	裵 玄	6.12	楊 口	〃
〃	〃	209078	李 章 熙	9.29	〃 (方山)	〃
〃	〃	209385	尹 尙 普	6.10		〃
〃	〃	209767	張 根 植	5.10	상 선 지 동	〃
〃	〃	209799	洪 萬 淳	6.10	楊 口	〃
〃	〃	210064	鄭 源 永	5.21	麟 蹄	〃
제 3 연대	中 尉	210769	金 泰 煥	8.19	楊 口(方山)	전 사
〃	〃	211137	鄭 昌 舜	5.17	洪 川	〃
〃	少 尉	205629	姜 基 泰	6. 1		실 종
제 5 연대	准 將	10828	金 龍 培	7. 2	楊 口	전 사
〃	少 領	14690	尹 相 喆	5.18	麟 蹄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구 분
〃	〃	14896	林 春 洙	7.20	제807병 원	〃
〃	六 尉	16779	韓 孝 俊	5.18		〃
〃	〃	200907	金 容 秀	5.18	麟 蹄	〃
〃	〃	202106	玄 昌 勳	7.10	楊 口	〃
〃	中 尉	206331	金 且 榮	7.10	〃	〃
〃	〃	213263	李 堯 中	6.11	〃	〃
〃	〃	213266	張 六 榮	6. 9	楊 口	〃
〃	〃	214106	李 相 均	8.26		〃
제8연대	中 領	11938	裵 炳 演	5.16		〃
〃	少 領	15349	李 鎔 成	5.17	〃	〃
〃	六 尉	200856	蔡 原 默	5.11	〃	〃
〃	〃	200861	晋 樂 八	5.16	〃	〃
〃	〃	201618	申 鳳 雲	5.16	洪 川(斗村)	〃
〃	〃	202994	徐 廷 漠	7.26	楊 口(方山)	〃
〃	〃	206366	趙 樂 遠	7.27	〃	〃
〃	〃	206376	吳 殷 濟	7.10	제18육군병원	〃
〃	〃	206388	柳 奉 安	5.17	洪 川	〃
〃	中 尉	202746	金 鎭 海	5 17	〃	실 종
〃	〃	206360	吉 相 彦	5.17	〃	전 사
〃	〃	206382	鄭 淇 永	5.16	〃	〃
〃	〃	206547	李 昌 植	5 17	〃	〃
〃	〃	207282	金 炯 振	5.17	〃	〃
〃	〃	209334	權 泰 英	7.26	楊 口	〃
〃	〃	209350	仝 官 國	5.18	洪 川	〃
〃	〃	209588	姜 泰 均	5.16	〃	〃
〃	〃	209616	金 學	5.16	〃	〃
〃	〃	209817	李 相 基	5.17	〃	〃
〃	〃	209971	崔 相 福	5.16	〃	〃
〃	〃	210119	金 學 洙	5.16	洪 川	전 사
〃	〃	210785	尹 炳 斗	7. 6	제1육군병원	〃
〃	〃	210793	李 正 誠	8.11	楊 口(方山)	〃
〃	少 尉	205308	田 宣 秀	5. 7		〃
〃	〃	205321	申 昌 秀	5.17	洪 川	실 종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구 분
〃	〃	206338	金 永 述	5.17	〃	〃
〃	〃	206360	吉 相 彦	5.17	〃	전 사
〃	〃	210185	朴 景 鎭	5.16	〃	실 종
〃	〃	210557	朴 鍾 喆	5.16	〃	〃
〃	〃	210584	李 用 基	5.16	〃	〃
通信中隊	少 領	13057	金 永 煥	7. 2	楊 口(方山)	전 사

제 8 사단

사단본부	少 領	11172	金 俊 英	51. 7. 3	수도 육군병원	전 사
〃	〃	12611	申 福 榮	5.17		〃
〃	〃	14246	申 平 均	5.29		〃
〃	中 尉	208503	金 田 京	5.10	井 邑	〃
〃	〃	209522	金 雄 達	8. 9	麟 蹄	〃
〃	〃	209583	金 明 圭	7.29	麟 蹄	〃
〃	〃	209842	李 東 煥	8.13	〃 (瑞和)	〃
〃	〃	209892	鄭 載 錫	7.27	〃	〃
〃	〃	209920	金 駿 植	8.25	〃	〃
〃	〃	210419	沈 達 植	6. 1	〃	전 사
〃	〃	211206	崔 世 定	8.13	加 平	〃
〃	〃	211238	康 昌 鎭	8. 6	蘆 田 里	〃
〃	〃	211327	申 龍 奎	8.26	蘆 田 里	〃
〃	〃	211704	申 俊 鎬	8. 6	麟 蹄	〃
〃	〃	212120	河 明 燮	8.11	〃 (蘆田里)	〃
〃	〃	212738	金 敎 明	8 12	〃	〃
〃	〃	223486	韓 東 文	7. 5		〃
〃	〃	223580	万 漢 吉	6. 1		〃
제10연대	中 尉	207490	朴 暎 東	6.24		〃
제16연대	大 尉	204587	張 相 基	8 23		전 사
〃	〃	208849	林 億 萬	8.13	麟 蹄(加田里)	〃
〃	〃	211156	金 重 萬	8 13	〃	〃
〃	〃	211225	崔 喆 欽	8. 5	〃 (瑞和)	〃
〃	〃	211286	李 泰 用	5.13	咸 陽	〃

제 9 사단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구 분
사단본부	少 領	15508	李 仁 且	6.25	金 化	전 사
〃	大 尉	13767	金 炳 奐	5.18		실 종
〃	〃	17023	朴 元 吉	5.18	麟 蹄(西湖)	전 사
〃	〃	61051	金 善 龍	5.18	〃	〃
〃	〃	200193	金 炳 欽	5.17		〃
〃	〃	203642	金 貞 屹	8.17		〃
〃	〃	207695	李 尙 植	5. 1		〃
〃	中 尉	60886	盧 在 俊	5.18		〃
〃	〃	206041	權 赫 雲	5.17	麟 蹄(龍浦里)	〃
〃	〃	206044	徐 榮 河	5.18	麟 蹄	〃
〃	〃	207849	禹 丙 讚	6.28	金 化	〃
〃	〃	208008	金 龍 植	5.17	麟 蹄(龍浦里)	〃
〃	〃	208010	安 相 賢	5.17		〃
〃	〃	208259	林 中 松	6.24	金 化	〃
〃	〃	208461	黃 在 河	5.20	麟 蹄(龍浦里)	전 사
〃	〃	208644	沈 載 衡	5. 7	洪 川(魔峰山)	〃
〃	〃	209254	金 基 雄	5.18	麟 蹄(西胡)	〃
〃	〃	209351	金 秉 胡	6.25	金 化(△603)	〃
〃	〃	209923	李 貞 九	5.18	麟 蹄(西湖)	〃
〃	〃	210783	李 完 浩	6.24	金 化	〃
〃	〃	211319	李 相 烈	5. 8	洪 川	〃
〃	〃	211453	安 壽 鉉	6.27	金 化(甘頭里)	〃
〃	〃	211512	趙 泰 衡	5.18	麟 蹄(西湖)	〃
〃	〃	211520	朴 大 植	5 18	〃 〃	〃
〃	〃	211527	李 光 鎬	7. 1	金 化	〃
〃	〃	211538	李 遇 東	5. 7	洪 川	〃
〃	〃	211544	李 洪 鍾	5.18	麟 蹄(西湖)	〃
〃	〃	211568	金 炳 德	5. 9	洪 川	〃
〃	〃	212096	孫 才 彦	5.18	麟 蹄	〃
〃	〃	212099	沈 鍾 休	7 25		〃
〃	〃	212412	丁 寅 珏	5 9	麟 蹄(鷹峰山)	〃
〃	〃	212432	金 容 喆	5 18	〃 (龍浦里)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구 분
〃	〃	212515	李 喆 奎	6. 9	漣 川	〃
〃	〃	212559	盧 在 信	6. 6		〃
〃	〃	212648	朴 世 豪	5.25	下 珍 富 里	〃
〃	〃	212769	洪 錫 龜	5.18		〃
〃	〃	212801	李 昌 吉	5.17		〃
〃	〃	212806	梁 道 京	5.18		〃
〃	〃	212836	朱 凡 基	8.17		〃
〃	〃	212856	李 根 峻	8.17		〃
〃	少 尉	204207	俞 貞 權	5.18		실 종
〃	〃	209094	金 洞 植	8.18	제1육군병원	전 사
〃	〃	212498	李 錫 永	5.10		실 종
제28연대	大 尉	15380	金 東 甲	6. 9	제36육군병원	〃
〃	中 尉	209328	崔 浩 吉	5.18	麟 蹄(面胡)	전 사
〃	〃	211875	金 允 浩	5.18	〃	〃
〃	少 尉	204783	金 奎 學	8.31	〃 (용사포)	실 종
제29연대	大 尉	15890	李 光 燮	5.18	麟 蹄(西胡)	전 사
〃	中 尉	208614	金 道 年	5.18	〃 〃	〃
제30연대	〃	202562	河 右 奎	5.18	〃 〃	실 종
〃	〃	204782	鄭 熙 玩	6.23		전 사
〃	〃	208458	裵 哲 凡	5.18	麟 蹄(西胡)	〃
〃	〃	210453	裵 洛 植	5.18	〃 〃	〃
〃	〃	211578	申 龍 均	5.23	平 昌	〃
〃	〃	211788	徐 燦 植	5. 9	제3외과병원	〃

제 11 사단

사단본부	少 領	16312	閔 炯 植	51. 7.22		전 사
〃	大 尉	205780	千 得 基	8.28	麟 蹄	〃
〃	中 尉	204393	趙 奎 煥	8.26	高 城	〃
〃	〃	204405	林 鉉 模	8.18	〃	〃
〃	〃	204449	高 漢 吉	5.11	襄 陽	〃
〃	〃	204541	金 東 禧	5.11	〃	〃
〃	〃	204548	金 熙 京	5.13	〃 (神仙峰)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구 분
〃	〃	205821	劉 聖 學	5.10	〃	〃
〃	少 尉	204502	徐 尙 佑	8.23		〃
〃	〃	223567	金 千 萬	5.10	襄 陽	〃
제 9 연대	大 尉	204317	金 錫 河	8. 3	高 城(縣內面)	〃
제13연대	中 尉	204429	李 起 防	6.19	高 城	〃
〃	〃	204540	李 成 玉	5.28	襄 陽(縣南面)	〃
〃	〃	204549	安 德 云	6.16	高 城	〃
제20연대	〃	204410	姜 文 頻	8.28	〃	〃
〃	〃	204475	金 椿 熙	5.22	大 關 嶺	〃
〃	少 尉	223585	孔 炳 禹	6. 6	高 城(龍下里)	〃

기타부대

陸軍本部	中 領	10473	卞 浩 相	51. 7.11	서 울	순 직
〃	〃	10489	李 海 一	7.11	〃	〃
〃	大 尉	60046	金 基 煥	5 3		실 종
〃	中 尉	200259	辛 悌 然	8.10		전 사
憲 兵 司	大 尉	14804	朴 永 福	6.15		순 직
陸軍通信團	大 尉	60350	鄭 詰 琯	5.23		전 사
〃	〃	60405	鄭 甲 秀	7. 1		〃
〃	〃	60412	李 鍾 培	7.26		실 종
第62通信勤務隊	少 尉	206223	崔 炳 斗	5.26		순 직
第4863부대	大 尉	200255	金 仁 植	6. 3	高 城	전 사
第 1 軍團	中 尉	60164	趙 有 衡	8.20		순 직
第1工兵團	大 尉	13435	李 心 憲	7.13		전 사
〃	少 尉	223546	林 容 九	7.30		〃
〃	〃	223583	金 永 斗	5.17	慶 州	〃
第 1102野工團	中 領	11381	元 陽 鎬	8. 3		〃
第 1103野工團	中 尉	209436	文 重 燁	6. 4	제 3 육 군 병 원	〃
〃	〃	209449	金 和 均	5.17	洪 川	〃
第 1801技工團	少 尉	223520	李 外 鶴	5.30	慶 州(外洞)	〃
第301鐵道연대	少 領	11150	金 昌 延	8.15		순 직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구 분
第805 輸自중대	中 尉	212058	沈 昌 輔	5. 9	平 昌	전 사
野戰財務團	少 領	13836	金 琮 律	7.11	麟 蹄	〃
첩보부대	大 尉	14025	李 成 長	7.14	慶南경찰서	〃
제59연대	中 尉	223633	金 錫 凡	6.26	墨 湖	〃
제1훈련소	少 尉	11562	宋 龍 河	5.23		전 사
제2훈련소	中 尉	60080	姜 君 相	6.30		〃
步兵學校	〃	209343	盧 秉 九	6.26	達 平	〃
兵站學校	准 尉	300572	金 禹 範	7.29		순 직
下士官學校	中 尉	200420	河 基 植	6.11		전 사
제1육군병원	少 尉	201231	鄭 南 順	5.11		순 직
제27육군병원	〃	201236	洪 允 義	5.11	濟 州	〃
제9 〃	〃	212336	梁 英 一	6.28	春 陽	전 사
제13 〃	〃	203899	孫 在 植	7.16	미 상	순 직
제15 〃	〃	203016	李 重 鎬	6 19	〃	전 사
美第24師團	〃	60226	朴 元 淳	6. 9	洪 川	실 종
美第25師團	〃	60229	金 永 培	6. 1	미 상	〃
UN특공대	〃	208553	李 壽 昌	6.15	〃	전 사
所屬未詳	〃	16865	權 永 吉	7.10		〃
〃	〃	16896	姜 亢 基	〃		〃
〃	〃	16899	金 炳 侶	〃		〃
〃	〃	16912	金 秉 信	〃		〃
〃	〃	16914	韓 德 洙	〃		〃
〃	〃	16918	韓 宗 瑞	〃		〃
〃	〃	16919	趙 慶 來	〃		〃
〃	中 尉	16924	李 光 澈	〃		〃
〃	〃	16925	林 景 一	〃		〃
〃	〃	210585	李 六 勳	5.16		〃
〃	〃	211828	柳 鎭 成	7. 3		〃
〃	少 尉	212538	尹 德 潤	8 17		실 종
〃	〃	212386	朱 鳳 善	〃		〃
〃	〃	227141	吳 煥 文	7.29		전 사
〃	〃	303270	金 明 植	6 27		〃

<空 軍>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구 분
제1전투비행단	大 尉	50398	申 泰 煜	51. 6.10		순 직
空 本	一 兵	3202579	田 明 秀	8. 7	미 상	〃

<海 兵 隊>

—將校—

연대본부	2 准	8103649	金 善 告	51. 6. 3	楊 口	전 사
제2대대	〃	8102764	南 松 仁	6. 9	〃	〃
제2대대	〃	60238	林 完 壽	6.19	楊 口	〃
제3대대	〃	60316	沈 水 燗	8.31	月 山 嶺	〃
〃	中 尉	60010	朴 長 煜	7.13	美野戰病院	〃
제5대대	〃	60075	秋 秉 植	6. 5	開 豊	〃
제1대대	〃	60155	宣 濟 昇	6. 4	楊 口	〃
제2대대	〃	60032	金 牲 勳	5 7	〃	〃
제3대대	〃	60025	金 文 性	6 8	〃	〃
〃	〃	60020	明 東 昇	6.21	〃	〃

—下士官—

제2대대	3 曹	9201051	李 相 根	51. 5.21	洪 川	전 사
제6대대	〃	9200993	梁 洙 珍	5. 9	鎭海 해군병원	〃
제3대대	〃	9201279	金 成 澤	5. 2	연대의무대	〃
〃	〃	9201324	洪 賓 南	6 9	美야전병원	〃
제6대대	〃	9201449	朴 命 杓	8.19	鎭海 해군병원	〃
연대본부	〃	8112577	具 成 祖	8.31	〃	〃
제1대대	〃	9202387	金 成 萬	7.12	美야전병원	〃
연대본부	〃	9200217	李 相 告	5.15	楊 口	〃
제5대대	〃	9202608	李 成 律	7.23	풍월암지	〃
제5대대	〃	9202617	安 京 昌	7.23	長 湍	〃
제2대대	〃	9202623	裵 正 千	7. 9	楊 口	〃
연대본부	〃	5101647	安 龍 植	6 22	〃	〃
제1대대	〃	5100714	朴 泳 祚	7. 9	〃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구 분
〃	〃	9201454	朴 萬 俊	4.23	華 川	〃
제 5 대대	〃	9021042	趙 泰 京	7.23	풍 월 암 지	〃
제 3 대대	〃	9200936	吳 國 烈	6. 9	長 湍	〃
제 1 대대	〃	9202585	朴 三 祚	6.22	楊 口	〃
제 3 대대	〃	9201397	高 正 松	6. 5	〃	〃
제 1 대대	〃	9201782	金 而 生	7. 9	楊 口	〃
제 3 대대	〃	9200872	金 萬 炫	6. 9	〃	〃
제 5 대대	〃	9202207	姜 眞 孝	6.24	開 豊	〃
제 3 대대	〃	9291198	姜 武 勳	6.13	〃	〃
제 2 대대	〃	9200430	金 炳 煥	7. 9	〃	〃
제 2 대대	〃	9209129	姜 泰 鎬	8.28	月 山 嶺	〃
제 3 대대	〃	9201594	金 甲 生	8.20	〃	〃
제 3 대대	〃	9201491	金 熙 成	8 20	〃	〃
〃	〃	9209869	梁 福 萬	8.30	麟 蹄	〃
〃	〃	9204165	玄 和 松	8.31	月 山 嶺	〃
〃	〃	9201222	金 水 石	8.31	〃	〃
제 3 대대	〃	9201046	李 昌 允	8.31	月 山 嶺	〃
〃	〃	9200745	徐 昌 龍	8.31	〃	〃
〃	〃	5109098	金 信 圭	〃	〃	〃
〃	〃	5101433	白 永 坤	〃	〃	〃
제 2 대대	〃	9500126	金 三 龍	7. 9	楊 口	〃
제 2 대대	〃	9200707	池 敬 鎭	7. 7	楊 口	〃
〃	〃	9200404	梁 時 華	7. 9	〃	〃
〃	〃	9501322	高 奉 玉	7. 8	〃	〃
〃	〃	9200426	陳 用 萬	〃	〃	〃
〃	〃	9200501	金 允 熙	〃	〃	〃
〃	〃	9220410	姜 君 柄	7.13	〃	〃
〃	〃	9200284	許 福 秀	7. 9	〃	〃
〃	〃	9200424	李 大 碩	〃	〃	〃
〃	〃	9200115	李 炳 植	〃	〃	〃
〃	〃	9200097	李 柱 仁	〃	〃	〃
제 5 대대	〃	9202272	玄 辛 景	7.23	開 豊	〃
제41중대	〃	9209555	邊 龍 善	6.29	受 島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구 분
제 5 대대	〃	9202233	金 始 俊	8. 2	〃	전 사
제 3 대대	〃	5100519	金 次 龍	〃	洪 川	〃
〃	〃	5101013	金 奎 德	〃	〃	〃
제 1 대대	〃	5101208	金 哲 坤	7.10	楊 口	〃
〃	〃	9201409	文 斗 鎔	〃	〃	〃
〃	〃	5101106	金 喜 洙	7. 4	〃	〃
〃	〃	9201792	金 在 亨	7.10	〃	〃
〃	〃	9202592	金 容 候	7. 7	〃	〃
제 3 대대	〃	5101041	秋 錫 益	6.20	〃	〃
〃	〃	5101964	姜 鍾 河	6.17	〃	〃
〃	〃	9201564	黃 太 植	6.22	〃	〃
〃	〃	9201499	高 大 珍	〃	〃	〃
제 5 대대	〃	9202276	金 斗 炳	6. 8	開 豊	〃
〃	〃	9110984	李 晶 植	7.23	〃	〃
〃	〃	9202003	玄 殷 鶴	〃	〃	〃
〃	〃	9202012	蔡 義 成	〃	〃	〃
〃	〃	5100720	鄭 仁 甲	〃	〃	〃
〃	〃	9209355	李 仁 性	〃	〃	〃
제 3 대대	〃	9202089	李 鍾 福	6.17	楊 口	〃
〃	〃	9200862	朴 行 勳	〃	〃	〃
〃	〃	5101510	仝 柱 洛	〃	〃	〃
〃	〃	9200834	梁 昌 熙	6 26	〃	〃
〃	〃	9200881	洪 炳 元	6.17	〃	〃
〃	〃	9201009	康 太 仲	〃	〃	〃
〃	〃	9201020	金 炳 秋	6.11	〃	〃
〃	〃	9200981	池 在 七	6.17	〃	〃
〃	〃	9201243	邊 圭 銑	6.23	〃	〃
〃	〃	9201945	高 宗 彦	6.17	〃	〃
〃	〃	9201116	宋 相 潤	6. 6	〃	〃
〃	〃	5101063	朴 守 奉	6. 9	〃	〃
연대본부	〃	9209831	李 鍾 烈	6.14	〃	〃
제 1 대대	〃	9200042	鄭 斗 鎔	6.25	〃	〃
〃	〃	9201979	韓 永 錫	6.20	〃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구 분
〃	〃	9201407	金 宗 源	〃	〃	전 사
〃	〃	9202648	李 春 柱	〃	〃	〃
〃	〃	9208942	蔡 奎 滿	〃	〃	〃
〃	〃	9201847	邊 海 鵬	〃	〃	〃
제 3 대대	〃	9200848	許 達 京	6. 21	〃	〃
제 2 대대	〃	9200949	李 昌 浩	6. 9	〃	〃
제 3 대대	〃	9200965	任 南 錫	〃	〃	〃
〃	〃	9200839	吳 廷 水	6. 8	〃	〃
〃	〃	9200923	宋 琮 奎	6. 9	〃	〃
〃	〃	5101648	崔 鍾 天	〃	〃	〃
〃	〃	9201013	韓 永 培	6.11	〃	〃
〃	〃	9201117	全 玉 龍	6. 7	〃	〃
〃	〃	9201070	康 洪 三	〃	〃	〃
〃	〃	9201047	吳 奉 夏	6. 6	〃	〃
〃	〃	9201034	李 昌 勳	〃	〃	〃
제 2 대대	〃	9200081	金 道 周	6. 5	〃	〃
〃	〃	9200738	金 外 澤	6. 9	〃	〃
〃	〃	9200105	孫 仁 鎬	〃	〃	〃
〃	〃	9200263	金 友 鎭	〃	〃	〃
〃	〃	9200448	吳 成 休	〃	〃	〃
〃	〃	9200444	吳 丁 休	6. 9	〃	〃
〃	〃	9200502	金 奉 石	〃	〃	〃
〃	〃	9200654	金 文 寶	〃	〃	〃
〃	〃	9200464	禹 點 玉	6. 8	〃	〃
〃	〃	9201592	朴 命 兆	6. 5	〃	〃
제 1 대대	〃	5100755	裵 善 鍾	6. 7	〃	〃
〃	〃	9201811	任 同 元	6. 6	〃	〃
〃	〃	9201835	韓 正 頓	〃	〃	〃
〃	〃	9201458	吳 元 兼	〃	〃	〃
〃	〃	9200682	姜 德 贊	6.11	〃	〃
〃	〃	9200427	金 河 運	〃	〃	〃
제 2 대대	〃	9200127	朴 太 和	6. 9	〃	〃
〃	〃	9200156	韓 昌 玉	〃	〃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구 분
〃	〃	9200122	金 一 泳	6. 4	〃	전 사
〃	〃	9200096	崔 海 泳	6.11	〃	〃
제 1 대대	〃	9202064	高 中 雄	6. 7	〃	〃
〃	〃	9201342	尹 東 順	6. 6	〃	〃
〃	〃	9110183	吳 太 元	〃	〃	〃
〃	〃	9201462	吳 文 道	6. 4	〃	〃
〃	〃	9110578	韓 成 燮	6. 6	〃	〃
〃	〃	9100725	禹 昌 泳	6. 4	〃	〃
〃	〃	9200255	李 鍾 浩	6. 5	〃	〃
〃	〃	9202827	張 成 南	〃	〃	〃
〃	〃	5100922	崔 盛 煥	〃	〃	〃
〃	〃	5100726	金 良 泳	6. 7	〃	〃
제 3 대대	〃	9201146	玄 貴 良	4.26	華 川	〃
〃	〃	9201190	金 鶴 壽	4.24	〃	〃
제 2 대대	〃	9200166	尹 龍 淇	5.17	洪 川	〃
제 3 대대	〃	9201060	金 斗 中	5.19	〃	〃
제 5 대대	〃	9202134	郭 敬 泰	6.15	開 豊	〃
〃	〃	9202297	姜 福 男	〃	〃	〃
〃	〃	9202793	鄭 聖 澤	6.16	仁 川	〃
제 2 대대	〃	9200632	金 亮 淑	5.31	江 原 道	〃
제 1 대대	〃	9202028	高 泰 植	6. 7	楊 口	〃
〃	〃	9202451	崔 君 三	6. 9	〃	〃
제 3 대대	〃	9201120	高 杜 秀	4.24	華 川	〃
〃	〃	9200872	高 元 賛	〃	〃	〃
사 령 부	2 曹	9100467	朴 商 云	〃	진해 해군병원	순 직
해병학교	〃	9100385	金 南 在	6.16	진해 해군병원	〃
제 3 대대	〃	9201025	金 昌 汶	6.17	楊 口	전 사
제 2 대대	〃	9202560	金 興 源	7.19	〃	〃
연대본부	〃	9211153	朴 仁 奎	7. 8	兜 率 山	〃
제5065부대	〃	8112965	白 秉 錫	4.25	開 豊	〃
〃	〃	8811264	李 坤 玉	〃	〃	〃
〃	〃	9100184	鄭 琦 鎔	4.25	〃	〃
〃	〃	8112421	千 春 植	〃	〃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구 분
제 2 대대	2 曹	8103971	金 達 顯	51. 8.26	연 대 의 무 대	전 사
〃	〃	8112028	全 石 伊	8.31	육군이동외과병	〃
〃	〃	9201823	奏 淳 宗	6.11	麟 蹄	〃
〃	〃	8105458	申 義 均	6.14	〃	〃
〃	〃	9202692	洪 玄 模	6.17	〃	〃
〃	〃	8112837	姜 德 成	6.29	〃	〃
제 4 중대	〃	9100341	金 永 鎭	〃	愛 島	〃
제 5 대대	〃	9100087	朴 範 順	7.12	金 浦	〃
포병대대	〃	9201923	金 斗 鑑	8.24	楊 口	〃
제 1 대대	〃	5100215	黃 末 佑	7.10	〃	〃
연대본부	〃	9209440	李 文 衡	7.14	〃	〃
제 2 대대	〃	9201562	金 興 煥	7.11	〃	〃
제 1 대대	〃	8112313	白 水 基	5. 2	洪 川	〃
〃	〃	9100272	林 寬 喆	〃	〃	〃
제 3 대대	〃	8112715	文 再 相	〃	〃	〃
제 1 대대	〃	8112438	朴 正 基	6. 6	楊 口	〃
제 2 대대	〃	9100661	曺 龍 煥	〃	〃	〃
〃	〃	8111421	李 淳 郁	6. 8	〃	〃
제 3 대대	〃	8110250	姜 治 用	6. 9	〃	〃
〃	〃	8111264	池 珠 鉉	〃	〃	〃
〃	〃	8111126	崔 應 澈	6. 6	〃	〃
〃	〃	8111603	金 容 昊	〃	〃	〃
〃	〃	9100160	李 聖 培	4.30	華 川	〃
〃	〃	8113099	金 鍾 聲	〃	〃	〃
해병학교	1 曹	9100061	李 根 昌	4.28	해 군 병 원	순 직
제 2 대대	〃	8115169	李 廷 泰	7. 9	楊 口	전 사
〃	〃	8105410	卞 奉 道	6. 9	楊 口	〃
제 1 대대	〃	5101614	李 福 柱	〃	長 湍	〃
제 2 대대	〃	9100099	金 相 萬	6. 9	楊 口	〃
〃	〃	5107111	禹 得 烈	〃	〃	〃
〃	〃	9100071	朴 琪 用	6.20	〃	〃
제 1 대대	〃	9100494	金 珍 洙	6.25	〃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구 분
〃	〃	9100439	韓 龍 錫	7. 9	〃	〃
〃	〃	9100515	朴 奎 鎭	6.25	〃	〃
제 3 대대	〃	8104009	李 炳 禧	6.18	〃	〃
〃	〃	9202684	李 文 根	6.17	〃	〃
제 5 대대	〃	8112506	金 衡 友	7.23	開 豊	〃
제 1 대대	〃	9100537	洪 淳 珏	7.10	楊 口	〃
제 2 대대	〃	8111972	尹 拓	4.22	華 川	〃
연대본부	1 曹	8111359	韓 洪 錫	5.24	洪 川	전 사
제 5 대대	〃	8104860	陳 興 淳	6.15	開 豊	〃
제 1 대대	〃	9100165	吉 鎬 澤	6. 6	楊 口	〃
〃	〃	9100330	洪 道 植	6.11	〃	〃
제 2 대대	〃	8102776	沈 祉 永	6. 4	〃	〃
〃	〃	8112802	張 慶 柱	6. 5	楊 口	〃
제 3 대대	兵曹長	9100299	韓 基 榮	7. 9	〃	〃
〃	〃	8103456	韓 命 河	6. 5	楊 口	〃
제 5 대대	〃	8103511	許 成 龍	6.15	開 豊	〃
제 2 대대	〃	8103163	權 哲	〃	楊 口	〃
제 3 대대	〃	8103575	金 奉 男	6. 9	〃	〃
〃	〃	8103166	崔 君 柱	6.18	麟 蹄	〃

—兵—

제 5 대대	見 海	9212284	孫 晋 壽	51. 5.15	仁 川	전 사
제 2 대대	2 海	9211691	李 元 夏	6.24	楊 口	〃
해병학교	〃	9211238	具 應 會	7. 4	진해 해군병원	〃
제 5 대대	〃	5101330	全 東 現	4. 5	〃	〃
해병학교	〃	9211089	盧 仁 培	4.16	〃	〃
제 1 대대	〃	9202431	金 寬 植	4.20	〃	〃
해병학교	〃	9211796	鄭 成 鎭	5.25	〃	〃
포병대대	〃	9210389	朱 珍 烈	6.29	〃	〃
제 1 대대	〃	9202398	洪 性 四	6.28	〃	〃
제 3 대대	〃	9209507	盧 載 河	7. 4	兜 率 山	〃
연대본부	〃	9209544	高 淳 濟	5.16	江 原 道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구 분
〃	〃	9209600	鄭 甲 仲	51. 6.20	楊 口	전 사
〃	〃	9203011	全 澈	5.21	江 原 道	〃
제 3 대대	〃	9209857	李 炳 洙	5. 3	華 川	〃
연대본부	〃	9211416	韓 泰 允	7.10	楊 口	〃
연대본부	〃	9211676	金 東 仁	8. 3	〃	〃
제 2 대대	1 海	9211854	金 玉 鉉	8.28	月 山 嶺	〃
제 3 대대	〃	9211726	朴 善 圭	8.31	〃	〃
연대본부	〃	9201839	李 泰 彦	6. 6	洪 川	〃
제 3 대대	〃	9211106	金 永 玉	6 17	楊 口	〃
〃	〃	9211685	金 鎭 九	6.19	〃	〃
제 1 대대	〃	9211734	宋 淳 鎬	6.23	〃	〃
제 5 대대	〃	9210069	朴 浩 寬	6.24	江 華	〃
제 3 대대	〃	9211166	梁 華 龍	6.17	楊 口	〃
〃	〃	9211373	朴 壽 燮	〃	〃	〃
해병학교	〃	9202135	申 有 植	6.27	釜山 해군병원	순 직
제 1 대대	〃	5101898	梁 次 昇	6.12	제 1 육군병원	전 사
포병대대	〃	9201038	金 瀅 珍	4.19	鎭海 해군병원	〃
〃	〃	9210252	金 忠 鎬	5.18	〃	〃
〃	〃	9205670	李 道 豪	5.13	〃	〃
제 5 대대	〃	5102489	李 明 宰	5.17	墨 湖	〃
제 3 대대	〃	9202520	姜 元 俊	5.28	鎭海 해군병원	〃
제 2 대대	〃	9202647	陳 乙 鏞	6.27	鎭海 해군병원	〃
연대본부	〃	9209233	李 義 河	6.18	兜 率 山	〃
제 5 대대	〃	9201974	金 啓 勳	6.20	開 豊	〃
연대본부	〃	9209663	崔 夏 先	〃	兜 率 山	〃
〃	〃	5100679	金 小 介	8.25	〃	〃
〃	〃	9208927	金 麒 泰	6.21	兜 率 山	〃
제 1 대대	〃	9208928	朴 熙 英	6.17	〃	〃
연대본부	〃	9200408	任 元 弘	6. 7	江 原 道	〃
제 3 대대	〃	5100835	崔 敬 在	4.24	華 川	〃
제 1 대대	〃	9202370	金 洛 賢	6.26	兜 率 山	〃
연대본부	〃	9208948	宋 榮 鎭	6. 6	〃	〃
제 2 대대	〃	5101054	李 相 天	6. 7	楊 口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구 분
연대본부	1 曹	9209105	李 順 一	51 6.19	兜 率 山	전 사
제 1 대대	〃	9211200	金 正 熙	6.29	長 湍	〃
제 2 대대	〃	9216678	金 容 大	5.31	〃	〃
제 5 대대	〃	9212821	金 基 俊	5.29	〃	〃
제 3 대대	〃	9201995	金 基 雄	6. 7	濟州 해군병원	〃
공병대대	〃	9208947	金 容 煥	6. 6	楊 口	〃
예대본부	〃	9208924	朴 熙 龍	6 4	연 대 의 무 대	〃
제 2 대대	〃	9209571	馬 相 圭	8 28	月 山 嶺	〃
제 3 대대	〃	9210829	李 漢 相	6. 7	月 山 嶺	〃
〃	〃	9209556	金 春 培	8.31	〃	〃
〃	〃	9211464	韓 長 慶	8.31	〃	〃
〃	〃	9210662	金 宇 鍾	8.31	〃	〃
제 2 대대	〃	9210752	李 英 柱	7. 9	楊 口	〃
〃	〃	9211790	鄭 應 斗	〃	〃	〃
제 3 대대	〃	9211302	林 元 煥	8.31	月 山 嶺	〃
〃	〃	9211490	李 貴 壽	〃	〃	〃
〃	〃	9211137	洪 宗 華	〃	〃	〃
제 1 대대	〃	9208923	李 健 守	7.12	楊 口	〃
〃	〃	9210393	沈 載 敦	7. 7	〃	〃
제 3 대대	〃	9210660	金 德 龍	7. 8	六 思 山	〃
〃	〃	5102626	李 耕 三	〃	〃	〃
제 2 대대	〃	9211780	金 尙 福	7. 9	〃	〃
〃	〃	9209191	吳 春 學	〃	〃	〃
〃	〃	9210440	韓 東 元	〃	〃	〃
〃	〃	9209892	趙 東 煥	6.29	楊 口	〃
〃	〃	9107471	洪 華 植	7. 9	〃	〃
〃	〃	9211804	朴 宗 大	〃	〃	〃
제 3 대대	〃	9209865	金 斗 千	6.18	〃	〃
〃	〃	5102227	安 鍾 烈	6.27	兜 率 山	〃
〃	〃	9202577	金 順 伯	〃	〃	〃
〃	〃	9210735	李 貞 寬	〃	〃	〃
제 5 대대	〃	9209437	方 榮 培	7.23	開 豊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구 분
제 1 대대	1 海	5101160	姜 命 讚	51. 6. 7	楊 口	전 사
〃	〃	9209636	李 昌 烈	7. 9	〃	〃
〃	〃	9211773	鄭 在 壽	7.10	〃	〃
〃	〃	9208881	申 永 南	7. 4	〃	〃
〃	〃	9211761	朴 忠 道	〃	〃	〃
제 3 대대	〃	9205115	金 鎭 聲	6. 9	연대의무대	〃
제 5 대대	〃	9202123	張 君 鴻	6. 8	開 豊	〃
제 1 대대	〃	5102466	金 相 星	6.20	楊 口	〃
〃	〃	9200876	陣 光 秀	〃	〃	〃
〃	〃	9209486	李 相 仁	6.24	〃	〃
제 3 대대	〃	9209213	韓 裕 連	6.21	〃	〃
〃	〃	9210920	李 昌 鉉	6.17	〃	〃
〃	〃	9210897	李 弼 順	〃	〃	〃
〃	〃	9201944	金 承 夏	〃	〃	〃
〃	〃	9210780	金 淳 悟	〃	〃	〃
제 2 대대	〃	5101529	李 起 永	6. 9	〃	〃
〃	〃	5101183	崔 成 模	〃	〃	〃
〃	〃	9202833	崔 雲 山	〃	〃	〃
〃	〃	9202832	梁 殷 秀	6. 6	〃	〃
〃	〃	5101505	崔 炳 極	6. 9	〃	〃
〃	〃	9209060	全 龍 判	6. 4	〃	〃
〃	〃	9209087	徐 補 景	6. 9	〃	〃
〃	〃	9209225	金 相 鉉	〃	〃	〃
〃	〃	9209101	尹 昌 奎	6. 6	〃	〃
제 3 대대	〃	9209106	許 相 基	6. 7	〃	〃
제 1 대대	〃	9201921	劉 觀 浩	6. 5	〃	〃
〃	〃	5102144	申 在 壽	〃	〃	〃
〃	〃	9210726	金 鎭 根	〃	〃	〃
〃	〃	5102051	朴 李 龍	6.11	〃	〃
〃	〃	5100907	鄭 泰 權	〃	〃	〃
〃	〃	9208929	李 龍 淳	6.11	〃	〃
〃	〃	9201825	姜 信 永	〃	〃	〃
〃	〃	9201750	申 文 哲	〃	〃	〃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전사일자	장 소	구 분
제 2 대대	1 海	9209032	李 甲 求	51. 6.15	楊 口	전 사
〃	〃	5102458	金 龍 寬	6. 6	〃	〃
제 3 대대	〃	9209164	李 春 植	4.24	華 川	〃
〃	〃	9209527	金 潤 根	〃	〃	〃
〃	〃	9210400	姜 喜 連	5.21	〃	〃
〃	〃	9200269	朴 金 童	4.28	美야전병원	〃
제 5 대대	〃	9209303	裵 相 五	6.15	開 豊	〃
〃	〃	9209331	李 相 萬	〃	〃	〃
〃	〃	9210109	景 龍 煥	〃	〃	〃
제 3 대대	〃	9210884	張 泰 錫	5.25	연대의무대	〃
〃	〃	9209116	李 鍾 逵	5.27	江 原 道	〃
연대본부	〃	9210613	金 圭 哲	6. 3	楊 口	〃
제 1 대대	〃	5102050	金 鍾 溪	4.18	華 川	〃
〃	〃	9201733	康 贊 德	4.22	〃	〃
〃	〃	9201719	吳 封 候	4.23	坪 村	〃
〃	〃	9202335	李 琯 水	5. 6	洪 川	〃
〃	〃	9201931	金 達 中	〃	〃	〃
제 2 대대	〃	9209034	禹 永 命	4.18	九 萬 里	〃
〃	〃	9209027	金 南 出	4.22	華 川	〃

4. 索 引

人 名 索 引

(ㄱ)

姜景遠 161, 682
姜啓三 195
姜基憲 161
姜大煥 564
姜東遠 298, 480
姜斗鉉 586
姜文奉 48, 51, 98, 103, 145, 148, 154, 239, 297, 477, 478
姜福求 118, 620, 632, 636, 647, 649, 652
康成彦 598
姜英勳 211
姜 勇 118
姜八萬 597
姜鎬倫 706, 717
姜樺鎰 706
桂炳道 649
高景榮 683
高光道 525, 528, 531, 561
高林鉉 51, 60, 98, 105, 289, 298, 477
高白圭 394, 412, 587
高尙遠 750
高在權 446
高學龍 220, 422
高衡玄 412, 414
高熙植 395, 400
孔國鎭 288
孔正植 118, 138, 620, 629, 641
郭海鳳 762
具麗會 524
具泰益 72, 86, 269
權成根 717, 725
權世成 515, 564
權用性 72, 90, 269, 282
權正龍 485, 489, 494, 496
權辰成 394
金甲得 409, 419
金建培 745
金建六 446
金慶仲 751
金寬六 511, 560
金寬敬 354
金 光 511, 560
金敎侃 359
金國柱 51, 98, 289, 477
金圭炳 247
金奎燦 446
金圭澈 706
金根玉 159
金錦成 721
金基東 590
金基滿 750
金基容 51, 55
金基鉉 750
金能憲 33, 43
金大堡 751
金大植 118, 137, 140, 398, 425, 592, 621

金大弘 190, 590
金德福 239
金德俊 200
金德出 446
金德海 195
金道善 33
金東光 165
金東培 359
金東斌 617
金東曉 534
金東喆 721
金東河 553, 649, 652
金東浩 43, 409, 419
金斗業 197
金斗烈 98, 289, 303
金斗逸 239
金明相 759
金明中 289, 305, 477
金明煥 683
金芳鉉 711
金炳坤 296, 482
金炳國 35
金炳權 557
金炳烈 394, 403
金炳喆 511, 560
金秉鎬 649, 652
金鳳喆 241
金三曾 475
金祥鈺 473
金相峯 203, 235, 422
金尙俊 60
金錫祐 354
金成珏 498
金聲大 118, 120
金聖培 706
金性洙 19
金成龍 708, 716
金聖恩 118, 131, 641
金性一 37, 409
金 沼 401, 412
金淳一 161
金順喆 28, 29, 33, 47
金時雲 566
金 信 354
金信一 706, 714, 722
金安一 51, 98, 145, 154, 289, 297, 543
金億淳 742, 750, 753
金榮國 486, 503
金英國 505
金永斗 751
金永錫 51, 98, 289, 477, 617
金英濟 505
金榮鐘 58
金永俊 289, 620
金英煥 356, 706
金玉卿 161
金完泰 485, 490
金龍國 118
金用琳 548
金容培 235, 420, 590, 706
金龍培 422, 432
金容珣 486, 501, 503
金容漢 446
金元錫 161, 682
金源湧 759
金元俊 398, 418
金裕燮 648
金潤根 118, 138, 620, 626, 649, 652
金利德 22, 590
金益烈 28, 40
金益鉉 511
金寅高 58

金仁德 41, 46
金仁洙 647
金仁哲 30, 35, 22
金麟鎬 750
金日成 10, 568, 651
金日哲 302, 306
金子銀 598
金在永 486
金點坤 61, 70, 145, 154
金正甲 750
金禎奎 446
金鼎德 501
金正悴 415
金晶植 755
金貞烈 354, 707, 724
金禎浩 191, 683
金晶煥 590, 600
金鍾九 306
金鍾淇 682
金鍾德 395, 410
金宗璧 167
金鍾淑 40, 399
金淙舜 29, 190
金鍾植 649
金鐘五 29, 72, 190, 192
金鍾行 597
金鍾煥 563
金振暐 477, 620
金晋卓 640
金振衡 708
金俊敎 239
金俊鍾 741
金且先 28, 41, 309
金昌圭 358
金昌滿 742
金昌伍 721
金千鎰 682
金 徹 511, 560
金徹鍾 750
金椿集 416
金弼虎 220, 422
金學烈 647
金漢龍 565
金渙柱 289, 393
金賢淑 641
金炯南 543
金衡祿 299
金炯培 161, 682
金炯一 29, 220, 244, 309, 334
金澄載 477
金昊榮 485, 505
金華山 397
金煌穆 473
金希道 715
金熙燦 563

(ㄴ)

羅燾日 38, 220, 422, 590
羅正植 749
南 日 21
南鍾旭 713
南忠烈 763
盧明鎬 158, 682
盧沈根 590, 600
盧在萬 35, 585
盧載鉉 21, 40, 42, 47
盧重信 706

(ㄷ)

唐子安 477

(ㅁ)

馬 襲 507
孟寶永 511, 560, 565, 566, 567
牟禮振 161, 600, 682
毛澤東 651
文基燮 164
文錫齊 741
文在駿 590
文泰成 350
文鶴東 745, 748, 759
文亨泰 51, 98, 110, 145, 289, 298, 302, 477
閔機植 28, 31, 35, 43, 49, 203, 221, 309, 334, 395, 408, 526, 587, 592, 613
閔邦儆 239, 446
閔泳洛 706, 709, 721

(ㅂ)

朴建燮 118, 620, 640
朴乾源 354
朴敬哲 683
朴貴善 298, 480
朴圭泰 557
朴技南 518
朴基淳 72, 269, 279, 525, 532
朴基政 161, 682
朴魯權 525, 533
朴魯榮 245
朴迸山 110
朴東錫 486, 501
朴東烈 631
朴炳植 356, 706
朴炳益 741
朴蒙賓 161, 682
朴武鎬 511, 560
朴瑞權 683
朴石基 398, 411
朴性鍊 717
朴成哲 28
朴水玉 683
朴榮洙 395
朴完圭 718
朴元寬 28, 393
朴元根 270, 541, 556, 558
朴有天 747
朴應奎 293, 474
朴利馥 620
朴翊均 72, 86, 269
朴仁燁 60
朴林恒 617
朴逸相 41
朴壯處 748
朴再洙 485, 493
朴在東 515
朴正模 120, 620, 649
朴正俊 741
朴正采 239, 446
朴鍾吉 239
朴鍾武 649
朴鍾烈 515
朴鍾燮 745
朴柱根 239
朴珠東 220, 422
朴周用 590
朴重潤 236
朴贊競 525
朴昌基 29, 41
朴昌遂 83
朴昌浩 239, 446
朴天圭 706
朴哲東 706

朴春光 298
朴玟玉 511, 560
朴泰松 43
朴兌鉉 161
朴海軾 511, 560
朴亨默 564
朴洪緖 519
朴熙東 706, 724
朴熙泰 661
厉景源 72, 269, 525
方虎山 28, 72, 269, 422, 521
裵斗龍 51, 105, 289, 306, 477
裵秉魯 435, 445
裵炳魯 599
裵炳演 220
裵相昊 714
裵長煥 563
裵洪圭 263
白基淳 35, 408, 585
白南權 215, 282, 543
白南恒 298
白善燁 72, 193, 269, 278, 310, 420, 525, 543, 591, 701
白潤基 56, 295, 482
白昌鉉 716
白昌煥 741
白春得 723
邊宗鉉 741
邊應梧 236

(人)

徐武甲 355
徐 信 239
徐載松 597
徐廷哲 72, 86, 269, 397, 525
徐鉉圭 354, 706
石鍾燮 51. 66
石泰鎭 632
鮮于鎭明 565
薛景鎬 394
成永煥 28, 40, 393, 659
成宗鎬 412
蘇炳烈 446
蕭應棠 51, 146
孫介同 393, 415, 586
孫繼天 741, 750
孫端夫 190, 220
孫德均 473
孫炳俊 298
孫榮鎭 195
孫元一 161, 682
孫晋天 657
孫昌吉 515, 521
孫熙善 190, 309, 491
宋寬洙 741
宋廣保 239, 446
宋大厚 239, 263, 336, 662, 671
宋相基 745, 750
宋時輪 269
宋堯讚 72, 171, 237, 169, 335, 397, 525 548, 703
宋寅奎 590
宋贊鎬 190, 237
申光守 402
辛光永 161, 683
辛大善 237
申東雨 358
辛相默 742, 759
申攸浹 706
申鉉玉 649, 656
申鉉俊 641
申弘亮 589

沈載淳 741
沈鶴仁 261, 533, 558

(ㅇ)

安洙榮 648
安鍾贊 446
安昌健 107, 302, 306
安哲元 481
楊得志 51, 98, 145
楊弘植 741
梁碩興 750, 755, 758
梁成植 508
梁仲鎬 139, 239, 263, 336, 343, 446, 662, 669
嚴秉吉 56, 295, 482
元相均 46
吳德俊 171, 525, 527, 543
吳蘭亭 501, 507
吳命福 51, 145, 308, 477
吳仁宏 662
吳成玉 516
吳承鎬 394, 403
吳信泉 118
吳世胡 543, 556, 558
吳山石 354, 706, 709
吳正根 631
吳昌輔 485
玉滿鎬 717
王誠漢 662
廖政國 446, 662, 663
禹 鉉 485, 490, 493, 509
韋 杰 662
柳京洙 28, 543, 649
柳基泰 751
俞六植 721
俞同烈 563
柳文鎬 51, 70, 289, 620
柳凡洙 486, 505
柳普靑 749
柳陽洙 190
柳榮隣 446
俞龍善 557
柳義烈 358
俞義濬 28, 37, 227, 309, 393, 560, 588
劉載成 51, 98
劉載興 30, 43, 98, 172, 221, 309, 423
柳重秀 51, 98, 289, 302
劉七福 599
柳海巨 683
劉亭雲 446, 662
劉興守 617
陸東旭 649, 660
尹甲炳 436, 600
尹箕炳 741
尹明運 741
尹炳埈 525, 539
尹錫烈 742
尹永俊 118, 138, 620, 641
尹宇景 741
尹愈烈 718
尹鎰均 354
尹在善 422, 430
尹泰昌 708
尹興禎 89
尹熙徹 247
李甲錄 706
李康和 718
李慶春 355
李寬植 488
李圭星 706
李圭昇 35, 395, 415, 585
李根植 627

李根陽 203
李根馥 742
李基德 649
李基範 485, 490, 495
李南周 28, 36, 394, 396
李大哲 220, 422
李德祚 358
李東根 543, 556
李東星 118, 127
李東用 649, 656, 661
李東哲 771
李斗榮 751
李得春 476
李萬祚 598
李敏出 650
李福鉉 354, 359
李鵬植 540
李相萬 358
李西根 620, 624, 632, 646
李錫鳳 309, 419
李成佳 140, 192, 590
李聖鳳 72, 75, 269, 278, 281
李成株 741
李承晩 19, 21
李承雨 28, 29, 35, 394, 526
李承俊 543, 556, 558
李始榮 19
李揚洙 409
李永吉 45, 220, 422
李榮南 598
李永燦 706
李永虎 649, 655
李完根 159
李完鏞 161, 682
李 龍 72, 75. 81, 85, 269, 273, 276, 397 526, 540
李龍文 203
李龍雲 682
李元炯 620
李潤馥 420
李應德 620, 624, 627, 649
李益興 740
李再起 38
李哉松 682
李載仁 477
李載熙 208
李 靜 508
李貞錫 336, 354, 662, 664, 671, 673
李正鎔 741
李貞雨 485, 495, 489
李政泰 515
李存一 511, 560
李鍾國 617
李鍾錄 281
李鍾贊 548
李鍾徹 161
李鍾宅 220, 422, 435, 590, 595, 598
李佐均 244
李重達 745
李贊植 586
李昌得 28. 34, 39, 397, 413
李昌秀 28, 39
李昌洙 658, 661
李彰宇 521
李昌禎 190, 221, 309, 473
李昌浩 306
李喆用 190, 511, 560
李哲熙 428
李春景 309, 511, 541, 560, 563, 565, 566
李泰根 195
李泰榮 564, 682
李判凱 641

李夏榮 745
李鉉相 739, 750, 758
李賢進 30, 220, 309, 422, 436
李昊宰 600
李洪均 620
李勳榮 33, 44
李興世 356
李喜泰 220, 422
印聖勳 239, 264, 446
印亮煥 682
印禮根 195
林觀默 75, 269, 277
林東根 620
林東振 118
林斗成 683
林秉允 620, 623, 625
林成基 600
林永鎬 543, 553
林益淳 239, 345, 662, 664, 669, 670
林彰煜 511, 560
林春勃 590
林 彪 146
林風清 507
林憲九 619
林炅燮 660

(ㅈ)

張竭誠 118
張庚石 190, 237
張大吉 647
張德昌 354, 706
張都暎 149, 239, 336, 343, 446, 590, 662, 669, 673, 681
張立輝 239
張炳鍵 706
張富兼 60, 64
張壽相 35
張時雨 98, 289, 297, 477, 480
張志良 716
張昌國 526, 527
張春權 29, 190, 193
張泰玩 534
全勉植 477
全明燮 707
全炳斗 741
全富一 511, 590, 564
全濟鉉 266
田東植 239
田炳瑞 115, 305
田奉順 486
田鳳熙 717
田元春 750
田哲奎 750
鄭琪貴 662
鄭文永 356
鄭炳甲 511, 525, 560
鄭奉翊 120, 125, 620, 625, 638
鄭相泰 598
鄭星泳 446
鄭成俊 750, 759
鄭壽煥 511, 521, 560
鄭順基 195
鄭淳珉 195
鄭昇和 296
鄭庸喆 516
鄭雲福 446
鄭元燦 543, 547, 550
鄭有軍 51, 146, 239,
鄭維山 663
鄭義澤 752
鄭一燦 161, 683
鄭重岩 715

鄭 震 20, 30, 43, 141, 220, 309, 422, 428, 590, 600, 622
鄭進洙 42
鄭晋化 515
鄭昌鎬 395, 400, 411, 685
鄭泰燮 752
鄭漢斗 355
鄭亨澤 62, 115, 927, 480
鄭昊謨 161, 682
丁世鎭 76, 269, 276, 279, 283
丁永鎭 714
丁一權 84
丁漢哲 166
諸葛春 706
趙基栢 296
趙東三 195
趙東演 515, 563
趙藍田 190, 220
趙命煥 506
趙炳建 92
趙秉洪 444
趙相璧 57
趙成來 51, 56, 98
趙成華 193, 220, 309
趙始衡 28, 29, 395, 398, 686, 687
趙原英 247, 336, 486, 491, 662, 664
趙容銀 118, 132, 620, 625, 639, 647
趙在美 345, 491, 500, 662, 669, 670
趙在俊 220
趙徹權 208
曺元哉 590, 599,
曺在容 742
曺正哲 299
周永福 714, 717
曾恩玉 51, 98, 146, 343, 477, 663
曾紹山 220
池炳學 543
池錫佑 250
智丁煥 750
陳新中 343, 477

(ㅊ)

車甲俊 190, 309
車東一 398, 411
車文錫 88, 269, 277, 279
車輔瀅 714
車元彬 756
車喜寧 416, 418
蔡命新 444, 590, 596, 597, 598, 600
崔京道 683
崔光烈 600
崔基宗 220, 422, 590, 595, 596
崔德洙 159
崔德新 72, 269
崔同廣 543
崔明道 511, 521, 522, 560, 564, 565
崔文榮 306, 481
崔炳起 163
崔炳淳 51, 58
崔鳳道 480
崔富英 166, 683
崔相根 359
崔 錫 190, 192, 269, 282, 309, 334
崔錫鏞 556
崔守顯 561
崔永植 297, 305, 480
崔榮喜 309, 335, 511, 525, 529, 588, 592 560, 568
崔鏞健 14, 191
崔用德 354

崔應恒 161, 683
崔 仁 221
崔一嶸 294
崔章學 195
崔鍾奭 446
崔周鍾 444, 590, 596
崔讚澤 741, 755
崔 哲 485, 491, 496
崔春影 61, 296
崔忠國 28, 72, 190, 269, 521, 590
崔忠吉 401, 416
崔致煥 740
崔泰炯 485, 493
崔澤元 245
崔海仁 706, 708
崔 賢 511, 522, 560
崔亨祿 543, 556
崔品文 706, 718
崔孝鏞 161, 682
崔熙燮 307, 479

(ㅍ)

彭德浦 220, 269, 507
彭德惇 10

(ㅎ)

河甲浦 445
韓景錄 742
韓國賛 59
韓基天 357
韓炳甲 511, 560, 568
韓承錫 682
韓 信 72, 79, 193, 273, 280, 397
韓榮助 528, 537
韓在根 683
韓禎植 649, 654
咸炳甲 422, 511, 560, 590
咸炳善 241, 336, 447, 500, 662
咸溶翼 72, 85, 269
咸炯甲 422
許炳錫 166
許 誠 239
許亨淳 309
許 弘 649
玄時燕 161, 683
玄元德 742
玄弘燮 407, 417
洪南植 747, 759
洪範熹 740
洪秉定 741
洪 林 28, 72, 190, 444, 590
洪錫疇 28, 394
洪性杓 355
洪淳明 600
洪淳龍 28, 40
洪允範 706
洪元杓 161, 682
洪載翊 239, 267
洪帝範 706
洪昌杓 394, 511, 522, 560
黃德晟 402
黃 烈 486
黃 燁 28, 49, 588
黃元會 485
黃鍾甲 51, 98, 289, 477
黃澤周 751
黃鶴成 741

(A)

Adams, James Y. 309, 561, 645
Almond, Edward M. 31, 217, 309, 406
Alston, William P. 651

(B)

Barnett, M. E. 705
Barckman, W. H. 701, 703
Beebe, M U. 705
Boswell, James O. 145, 151, 309, 334
Bowen Jr, Frank S. 147, 309, 336, 388
Brodie, T 477
Brown, Wilburt S. 309, 425, 622
Brubaker, Elbridge. 330
Bryan, Blackshear M. 48, 145, 336, 351, 447, 664, 681
Burdick, R.S. 702
Byers, Clovis E. 562, 588, 593

(C)

Carlson, H.G. 174
Cheok, Gilbert J. 145, 149
Clark, J.R. 172, 702
Cole, W.C. 703
Corley, John T. 145, 149
Coughlin, John C. 30, 309, 645
Cross, Thomas J. 462
Cushman, Thomas J. 623

(E)

Eekhout, W.D.H. 121, 309
Evans, Holly H. 334
Everest, Frank F. 366, 728

(F)

Ferenbaugh, Claude B. 30, 48, 241, 310, 336, 350, 447
Ferriter, J.B. 702
Field, Eugeam J. 145
Finletter, Thomas K. 371
Fisher, Henry G. 145, 150

(G)

Gallery, W.O. 702
Gill, C.B. 701
Groves, Gould D. 645

(H)

Hamby, William R. 740
Harrey, Michael G. 155
Harris, William W. 145, 309, 325
Hayward, Richard W. 309, 378, 394, 644
Henderson, G.R 170, 700
Henebry, John P. 177, 728
Hightoner, John M. 486
Hoge, William M. 47, 52, 235, 309, 447, 486, 662, 681
Hopkins, John W. 623

(J)

Johnson, Louis A. 704
Joy, C.T. 700

(K)

Kelly, Bernard T. 651, 659

(L)

Lynch, John M. 309

(M)

Maclean, Allen D. 30, 446
Malik, Jakov V. 20, 23, 712
Margetts, R.K. 703
Martin, H.M. 700
McAlister, Francis M. 309
McFarlane, R N. 701
Milburn, Frank W. 54, 145, 290, 352, 389, 478
Monclar, Ralph 309
Mooney, Harley F. 156
Moore, Dennis M. 145, 233, 309, 352
Moore, Ned D. 145, 336, 669
Moses, Loyed R. 336, 662, 674
Mount, Charles M. 30, 336, 662, 672
Muccio, John J. 362

(N)

Newman, Charles A. 330
Nickerson Jr, Herman. 309, 662, 638, 652
Nimitz, C.W. 702

(P)

Palmer, Charles D. 145, 299, 462
Patridge, Earle E. 176, 366
Perry, J. 700, 704
Powell, Herbert B. 450

(R)

Raynold Jr, Royal. 336, 344, 662, 670
Ridgway, Matthew B. 17, 20, 23, 51, 423, 447
Rose, William E. 330
Ruffner, Clark L. 30, 235, 320, 388, 463, 587, 645

(S)

Sloane Jr, Charles C. 30, 588
Smith, A.E. 170, 700
Smith, Oliver P. 119, 125
Soule, Robert H. 145, 309, 335, 389
Stephens, Richard W. 145, 345, 662, 673
Stratemeyer, George E. 177, 356
Struble, A. D. 269, 543

(T)

Taylor, G. D S.O. 336, 343, 352
Terill, Robert H. 177, 366, 728
Thomas, Gerald C. 174, 309, 423, 592, 636, 645
Throckmorton, John L. 145, 343, 485, 669
Tomlinson, W.G. 700
Tyree, David M. 701

(V)

Van Fleet, James A. 12, 47, 128, 184, 336, 389, 447, 659

(W)

West, Robley E. 433
Weyland, Otto P. 18, 364, 376, 728
Wheelock, A.W. 704
Woolnough, James K. 145
Wright, M P. 170, 700

(Y)

Yazici, Tahsin 145, 149

地 名 索 引

(ㄱ)

加德山 256
加羅皮里 286
加路里 35
加里峯 29, 74, 91
加里山 12, 222, 345
加里山里 195
加山里 345
加兒里 30
佳悟作里 31, 425, 625, 714
佳曰里 347, 351
可逸里 253,
加田里 29, 396, 415, 511, 588
加眞浦里 231
加七峯 286, 588
加 平 12, 149, 178, 240 343, 632
間 谷 556
間 垈 600
看霧峰 659
杆 城 9, 172, 232, 335 424, 664
間 村 431
葛麻半島 159, 171, 680
葛峙山 749
甘杜里 233
紺嶽山 61, 148
甘井里 291
江 陵 191, 212, 387, 643, 709
江 東 381, 731
康翊里 694
降仙里 286
康 津 706
江村里 134, 241, 343
江華島 165
開谷里 669
開運里 42
開 城 9, 14 814, 364, 477
啓星里 291
介冑山 343
价 川 11
開豊郡 694
巨津里 287, 68
建伊峴 330
乾鳳嶺 543
乾鳳寺 547
乾鳳山 547
乾牽里 594
劒峯山 343
鏡盤里 343
京安里 232, 319
敬 天 762
鷄冠山 256, 447
鷄鳴山 138
桂芳山 211
桂山洞 357
古郡里 694
古南里 149
高垈里 398
高臺山 462
高頭山里 480

古万山里 426, 594
高浪浦 11, 52,151, 184 478, 663
高 嶝 357
古沙里 36
古石坪 223
高 城 23, 171, 240, 527, 545
姑蘇城里 147
高陽里 14, 67, 157
高陽山 327
庫 底 683
古呑里 344
谷 山 680, 702
谷 城 739
恭 里 140
公須里 429
槐 山 739. 752
掛石里 316
橋 洞 225, 231, 672
喬洞島 163, 683, 699
交河里 65
官基里 753
冠垈里 30, 192, 224, 313, 650
冠帽山 72
官山里 106, 295, 478, 619
觀音山 149
冠 坪 394
官坪里 753
廣德里 669, 673
廣德山 663
廣德山脈 11, 47
鑛山洞 671
廣山里 397, 545
廣水院 148
廣院里 208
廣峙洞 622
光板里 351
九龍德峯 210
九萬里 123, 220, 351, 423
九峯山 134
九峙山 344
九石洞 463
鳩岩洞 132
龜岩里 148
菌把撥 13, 71, 294
九化里 477, 619
國士峯 134
國祀峯 99, 290
軍糧田 192
軍糧峴 422
群 山 165, 375, 684
君子里 133, 344
君子山 75
金剛山 545
金 谷 64, 481
金谷里 132, 305
金 陵 64 481
錦屛山 230, 316
金富里 230, 316
金山浦 685
金 城 353, 423, 663, 681
金水亭里 436, 469
金珠里 154
金 川 369, 478
金村里 289, 292
金坡里 306, 478
錦湖洞 645
金鶴山 130, 147, 315, 673
金 化 9, 17, 126, 240, 353, 491, 474, 664
機山里 147, 291
吉 州 253, 375, 701

金 浦 53, 148, 181 362
金浦半島 619
金 海 362

(ㄴ)

羅 山 248
羅 津 704
南 江 553, 591
南涯里 9, 232
南 川 184
南漢江 240
藍田里 31, 39, 45, 220 313
內麟川 38, 147, 190 208
內坊里 343, 345
內土沃洞 627
內坪里 138, 139, 140, 178
乃村川 233
老姑山 63, 154
老姑壇 714, 718
老里川 155
路 洞 14
蘆洞里 457, 681
蘆田里 663, 666, 669
蘆田坪 34, 524, 560, 564
碌磻里 67
論味里 351
論章里 387, 394, 395, 407
泥屯地 679
泥 坪 31
泥峴里 419

(ㄷ)

丹月面 241
端 川 703
踏楓里 48
大高島 159
大谷里 388, 404, 526 561, 674, 677
大關嶺 15, 269, 525 543
大 邱 152, 180, 182, 355, 362, 375
大基里 283
大德山 470, 619, 748
大 島 159
大同里 139
大屯山 739, 762
大利里 447, 681
大報里 154
大成山 353, 663, 664, 670, 679
大聖面 694
大勝瀑布 30
大岩山 29, 31, 203, 636, 664, 681
大巖山 622
大峴峙 747
大龍山 133, 344
大愚山 29, 141, 591, 593 622, 643, 644, 646
大月里 282
大爲山 300
大慈里 104, 292
大 田 355, 623
大 浦 12
大浦里 222
大和里 213, 334
大興里 753
達田里 244
堂巨里 449, 457, 674
堂亭谷 287
垈谷里 258, 587
德加山 755
德巨里 431, 513, 595
德東里 716
德斗院里 133, 259

德木里 762
德岩山 291
德源郡 701
德裕山 759
德耳山 105
德 亭 154
德亭里 15
德 州 733
德泉里 306
德坡嶺 303
桃李里 668
道谷洞 746
道明山 755
兜率山 141, 637, 647, 650, 588, 592, 621, 622, 636
都沙里 430
道水岩 224
道新里 148
都 坪 147, 149, 152
圖 島 691
東巨里 112, 289, 294
東南面 691
東台山 96
東德里 94
東豆川 14, 149
東幕里 248, 356
東山里 212
東水里 429
東 村 357
東村里 125
東坡里 479
頭老峰 96
斗梅里 260
杜梅里 479
杜木洞 489, 499
斗武里 42
斗門里 302
斗岩里 687
斗只里 57
斗浦里 307
屯德山 751
屯方內里 388
登大里 620
登梅洞 440
登梅里 479, 93, 595, 599
登院里 302

(口)

馬哥垈 600
馬谷里 257, 343
馬登嶺 86
馬 山 164, 221, 355
馬山里 147, 154
磨石峰 422
磨石隅里 343
麻田里 148, 343
馬智里 148
馬 川 714
馬峴里 678
萬垈里 17
萬世橋里 291
萬丈山 116
滿 洲 632
萬泉里 134
萬峴山 664
望海山 483, 619
望月山 68
梅 峰 526
孟峴峰 229
明塘山 29, 386, 394
明洞里 130

鳴鳳山 292
明沙十里 159
名勝洞 449
明吾地 139
明智山 345
鳴鶴山 300
牟谷里 247
慕恩浦 355
沐洞里 260
木 浦 165, 684
夢金浦 163, 688
蒙德山 256, 346, 447
巫 山 29
茂 豊 758
舞鶴里 644
墨 湖 164, 684
聞 慶 739
文登里 17, 426, 591
文明山 747
汶 山 15, 244, 664
汶山川 302
文沐洞 673
文義谷 244
文 川 159
門下洞 746
文惠里 147
勿老里 139
美達洞 230
彌沙里 245, 267
美山里 230

(ㅂ)

朴達山 307
泊水坮 192
博岩里 245
盤若峰 714
盤龍山 619
半場洞 36
半場里 221
盤田里 760
盤項坪 556
發郎里 305
鉢山里 139, 262
坊內里 221
芳盛山 207
芳洞里 262
芳林里 232
防築洞 479
芳河里 244
芳花洞 669
白翎島 162, 683
白武洞 761
白石山 596
白岳山 754
白岩里 76, 164
白岩山 265, 425, 458, 663, 679
白楊里 256
白揚里 343
白雲臺 67
白雲洞 681
白雲山 348, 447, 718
栢子洞 222
白砧山 663
白鶴山 479
白禪峴 291
法院里 19 62, 300
法興里 60

碧 踏 156, 295
屛風山 264
寶蓋山 462, 474
寶納山 343
報 恩 739
普賢寺 44
伏住山 663
本宮里 137
鳳堂德里 489, 506
鳳尾山 243
鳳棲里 63, 303
鳳岩里 152
奉日川里 13, 289
烽火里 689
烽火峰 29
鳳凰村 414
釜谷里 157, 300, 467
富民面 691
釜 山 19, 165, 358, 684
釜淵洞 29, 414, 562
芙蓉山 447
富倉里 424
富村里 671
富虛洞 513
北方里 139
北培山 240, 291, 447
北 靑 720
北漢江 12, 240, 344, 426, 681
佛光里 99, 157, 290
佛岐山 338
飛末岩山 663
比雅里 588
非智山 482

(人)

沙器幕里 753
寺 洞 676
沙里院 82, 370, 733
私參峰 215
沙是里 479
沙田里 139
史倉里 149, 219, 338, 447, 673
泗 川 354, 706
沙川里 29
砂泉里 87
沙泉里 528, 550
絲川峴 140, 622
沙峙里 331
麝香山 152
朔 寧 478, 663
山頭谷山 387, 419, 526
山陽里 353, 512, 664
三道峰 758
三松里 753
三岳山 133
三 陟 146
上傑里 138
上南里 199, 221
上 沓 199
上大田里 153
上馬山洞 670
上博岩里 247
上芳洞 677
上烽燧里 154
上石柱院里 618
湘水里 352
上水內里 222
上院里 397
尙 州 739
上板里 345

上花溪里 344
雙龍里 753
瑞谷里 332
西明山 621
西上里 343
西 井 70
西 川 423, 591
西川里 241
西 坡 154
西海里 695
西 湖 206
西湖里 392
瑞和里 386, 419, 513, 681
西興洞 480
西布里 588
石橋里 94
席 島 162, 693
石龍山 348
石 場 262
石柱院里 482
仙遊里 53
仙儀岳 443
雪嶽山 73, 190, 221, 286
雪馬嶺 150
城谷嶺 426
城內洞 216
城洞里 154
成佛嶺 264
城主峰 438
城 津 170, 702
成 川 733
小桂芳山 211
小斤洞 213
小 島 159
小排村峴 221
所法里 348, 669
素沙峴 64
昭陽江 28, 129, 191, 220, 344, 650
小雄津里 427
所峙里 222
俗離山 750
束沙里 190, 212, 282, 325
束 草 12
束草里 327
松巨里 386, 419
松溪里 213
松 谷 457
松老坪 517
松蘆坪 419
松 洞 665, 681
松野里 695
松田半島 159
松 亭 230
松亭洞 600
松亭里 137, 398
松亭子 679
松川里 76
松靑里 428, 593
松灘里 159
松鶴洞 399, 402
松峴里 590
水甲里 214
水 谷 747
水谷里 418
修德山 240, 344
修德川 15
修理峰 344
水利峰 139
修山里 685

水上里 681
水安堡 751
水次口 600
水 原 375
水仁里 140, 437, 593
水入川 591
水皮嶺 675
水下里 439
肅 川 729
順 安 377, 731
順 天 370, 375
順 川 735
巡威島 163
承岩里 490, 505, 665
市邊里 369, 478
新基洞 305
薪畓里 148
新大里 351
新屯里 233
新屯地 677
薪 島 159
申 島 691
新 幕 379, 733
新銅里 346
神聖洞 747
新衛里 137, 147
新安州 186, 367, 728
新月里 222
新邑里 671, 680
新義州 176, 377, 729
新店里 135, 344
新川里 245
新 村 152, 397
新坪洞 747
新浦里 240, 264, 347
新豊里 222
新灘里 148, 300, 420
新興里 230
實乃里 664
深谷寺 644

(O)

阿彌洞 213
峨眉山 233
鞍 山 234
安 興 388
岩沼里 254
鴨綠江 23, 184, 376, 504
野村里 588
藥水里 74, 239, 424
楊 口 11, 29, 140, 220, 310, 344, 353, 397, 422, 588, 590, 622 640, 681
陽 德 508
梁文里 149
兩水里 12
襄 陽 13, 171, 178, 270, 286, 424, 622
兩迂里 151
陽地村 33, 136, 491, 513, 595, 645
楊 平 240, 319
於口里 429
於杜隱洞 674, 675
於論里 225, 331
漁沙里 167
嚴迂洞 221
麗 島 159, 684
麗 水 684
汝矣島 179, 355
驛內里 222, 329
延 白 687
燕飛峰 747

延 安 163, 703
硬 川 9, 15, 140, 424, 512, 663, 664
延坪島 165
延 豊 751
連下里 343
蓮花里 387, 396, 4, 4
蓮花峰 227
延禧洞 99
永登浦 152, 355, 362
永 川 219
寧 越 213
永 平 147, 149
永平川 9, 149
永興灣 158
禮 峰 240
禮成江 703
吾今里 148
梧南里 291
五陵里 157, 305
五臺山 157, 190, 211, 232, 305
五馬峙 199, 316
五 尾 747
五味嶺 439
五味里 597 ,599, 661
烏 山 146
五色里 72
五龍洞 99
梧月里 261
梧陰里 482
梧灘里 264, 347, 664
吾項里 139
臥 村 139
玉水洞 220
玉隨里 695
玉女峰 244, 343
溫井里 377, 689
甕 津 683
外坊里 343
外土沃洞 668, 670
龍垈洞 30
龍垈里 192, 221, 389
龍潭里 290, 351, 664
龍伏院 295
龍門山 12, 13, 239, 266, 337, 446
龍沼項 424
龍 岩 664, 669
龍遊里 753
龍池洞 157
龍池里 302
龍川里 243
龍泉面 694
龍 浦 190, 193
龍浦里 201, 231
龍化洞 746
龍華山 263
龍湖島 164, 686
雲頭嶺 212
雲門山 742
雲 峰 739
雲山里 152
雲水洞 443
雲田洞 652
雲 川 147, 149, 353, 664
蔚 山 166
熊石峰 714
熊 島 162
雄津里 140
院垈里 192, 201
元 山 146, 158, 172, 684
遠所里 136, 137

原昌里 132
原川里 350
元 通 544
元通里 190, 221, 394
圓坪里 159, 262, 264, 604
月鏡山 761
月谷里 344, 758
月明里 424
月山嶺 650, 651, 652
月運里 588
月精里 283
月精寺 211
月坪里 345
元興里 343
位育里 256
裕長洞 674
柳洞里 233, 320
楡川里 212
楡村里 96, 226 263, 272, 291
六德谷 443
栗谷里 148
栗 洞 148
栗木里 679, 681
栗沙里 680
陰陽里 220, 313, 334
陰地村 29, 407
鷹峰山 45, 222, 397
衣岩里 344, 347
議政府 13, 147, 215, 303
梨谷里 343
二道面 695
利 川 232, 319
伊 川 663
梨川里 300
伊布里 29, 527, 544
梨 峴 220
梨峴洞 231
梨花嶺 739, 751
仁嵐里 351
印 道 688
麟 蹄 9, 13, 28, 139, 161, 190, 216, 240, 310, 533, 416, 511, 650
仁 川 164, 684
仁土里 689
仁坪里 691
一 山 65
日新里 695
日月峰 480
日月山 745
臨 溪 213
臨南面 687
臨津江 9, 51, 146, 289, 424, 619, 663
臨津里 300, 617
立石里 593, 753

(ㅈ)

紫陽里 74
自隱里 221, 314
自作亭 213
雌雄山 62, 157, 304
長葛山 746
長南里 12, 310
長樂山 250
長樂山脈 245
長 湍 479, 619
長山串 167
長 省 748
長壽里 257
長承里 88
長安寺 512

長 箭 703
長尺里 694
長 坪 213
長坪洞 676, 679
長坪里 17, 33, 324, 426, 595
長興里 147, 673
場岩里 663
樟谷里 292
將軍峰 746
左安山 448, 669, 673
赤根洞 674
赤根山 353, 425, 663, 665, 674, 677
積 城 134, 149, 151, 300
全 谷 148
全連洞 457
店 村 750
旌 善 213
亭子里 222
亭子門里 393
鼎足里 133
齊寧里 664
濟 州 164, 355, 362, 684, 706
濟州邑 686
濟祭里 352
堤 川 327, 750
製花嶺 750
鳥歌洞 233
鳥項山 751
照橋里 139
朝陽里 134, 136, 137, 351
佐川洞 358
舟 島 691
注文津 162, 345, 683, 698
主億峰 210
注破嶺 677
竹谷里 427
竹垈里 508
竹院里 293
竹亭里 718
中 畓 194
中 里 350
中培養 563
池內里 344
芝屯里 343, 345
芝岩里 239, 264, 347
芝英里 293, 307
芝浦里 149
支石里 391
智異山 706, 711, 742
地藏峰 149
紙杏里 152
直 洞 229
津江浦 694
津北里 513
珍古介 284
珍富面 463
榛垈里 157
榛子坪 429
榛峴里 494, 496, 680
鎭南浦 11, 163, 171, 183, 367, 377, 381 684, 692
鎭 海 160, 179, 355, 360, 362, 684
晋 州 355
眞風面 685, 695

(ㅊ)

車頂里 279
蔡唐洞 746
昌 道 680, 681

倉 洞 155, 588
昌東里 699
蒼 里 235, 424
倉宜里 246
昌麟島 695
蒼村里 30, 191, 193, 205, 221, 251, 326
泉 內 140
天桃里 395, 408, 412, 415
天摩山 352, 338
天尾里 440
泉田里 139, 262, 351
鐵 原 9, 11, 17, 119, 146, 179, 184, 266, 353, 369, 512, 622, 664
淸溪山 149, 240, 337
靑邱洞 29, 35, 39, 225
靑雨山 343
淸 州 752
淸 津 170, 183, 701
淸 平 154, 240, 242, 262, 662
椒 島 162, 685, 692, 697, 699
哨城里 148, 151
哨村里 153
草 峴 618
燭坮峰 345
楸谷里 139, 140, 425
楸 洞 235
楸 陽 424
春 川 12, 119, 133, 138, 147, 161, 174, 181, 184, 221, 240, 344, 350, 663
鷲 峰 446, 667, 675
七寶山 751
漆田洞 210
七節峯 397
七鐵峯 526
砧 橋 230

(ㅌ)

炭洞里 479
太金山 343
太白山 622, 742
泰鳳里 154
土王洞 491
通洞峴 491
通 川 640, 683
退溪院 154

(ㅍ)

破虜胡 423
坡 州 300
坡平山 152
八味里 133, 134
平 康 10, 17, 126, 266, 353, 360, 370, 663, 665, 680, 681
平 壤 10, 12, 16, 146, 171, 182, 365, 368, 370, 373, 729
平 昌 232, 511, 664
平 川 318
坪 村 595, 651, 670, 677, 716
抱 川 15, 149, 291, 345, 663
浦 項 692, 711
品傑里 138
豊岩里 220, 313, 326, 678
豊田里 387, 394, 395, 404
楓川里 138, 291, 343
皮木亭 213

(ㅎ)

下多物里 331
下 雀 192
下大慈里 296
下南里 191

下盧田 666
下萬山洞 668
下文廷里 664, 681
下色里 245, 343
下水內里 388
下安味里 235
下安興里 324, 388
下陽地 666
下牛望 427
下栗里 159
下梨峴 191, 236, 332
下長津里 165
下亭里 753
下延豊 739
下珍富里 190, 203, 271, 310, 324, 387, 524
下楸里 194
下板里 154
下好音洞 451
鶴谷里 119
寒 溪 220, 425, 645
寒溪嶺 90
寒溪里 13, 72, 178, 286, 393
寒德山 244, 257
翰墨嶺 455
寒石山 192, 201
閑陽里 36
漢灘江 146, 463, 691
咸白山 748
咸 興 11, 183, 367
海安洞 451
亥安盆地 588, 591, 644, 664
海洋島 166
海 州 11, 370, 683, 691, 703
幸 州 70
香爐峯 18, 190, 287, 388, 424, 526, 541, 551, 703
懸燈山 154
縣 里 9, 12, 154, 190, 200, 220, 343, 387, 424, 663, 748
陜 川 357
兄弟峰 719
虎島半島 159, 173, 683, 698
花洞里 137
花峯山 438
和順里 68
華岳里 258
華岳山 240, 670
華 川 119, 174, 220, 239, 291, 338, 491
花田里 290, 298 592, 663, 681
華川貯水池 9, 261
黃柄山 283
黃猄山 719
黃 州 379
黃土島 159
弘恩洞 68
弘濟院 67
洪 川 12, 30, 139, 190, 223, 241, 286, 310, 338, 511, 621, 650, 662
洪川江 343, 423, 447
回文山 714
淮 陽 11, 508, 681
檜田洞 195, 199
橫溪里 212, 270, 279, 525
橫 城 181, 230, 388, 434
後谷里 398
後洞里 680
黑石里 194
黑雲土嶺 681
興 南 183, 382, 701
興嵋半島 691
熙 川 375, 735

合同審議會議芳名錄 (1973. 8. 27)

部署	職責	階級	姓名	署名
陸軍	諮問委員	前 陸軍參謀總長 陸軍大將	白善燁	백선엽
海軍	〃	前 海軍參謀總長 海軍大將	金榮寬	김영관
空軍	〃	前 空軍參謀總長 空軍中將	金貞烈	김정렬
海兵隊	〃	前 海兵隊司令官 海軍中將	申鉉俊	신현준
高麗大學校	〃	教授 文學博士	金成植	김성식
政訓局	局長	副理事官	鮮于塡	선우전
合參	情報局次長	准將	金永祥	김영상
合參	作戰局次長	准將	李景律	이경율
海本	作戰部長	准將	安炳琪	안병기
陸本	軍史室長	大領	朴晟根	박성근
空本	編制處長	大領	崔長龍	최장룡
海兵隊	作戰次長	大領	曺在鼎	조재정
國防部	情報補佐官	大領	南雄鍾	남웅종
		軍事專門家	李漢喆	이한철

執　筆　陣

主　幹		朴　景　錫
編纂委員		鄭　陸　地
〃		金　源　寬
〃		李　謙　周
〃		金　東　郁
〃		姜　聲　湖
〃		甘　成　海
專門委員	空軍中領	李　載　一
〃	海軍少領	俞　在　鎬
〃	海軍大尉	金　秉　柱
〃	空軍大尉	金　顯　洙
非常任委員		劉　官　鍾
〃		金　億　淳
製　圖		李　世　哲

本 戰史의 執筆陣은 上記와 같으며, 어떠한 異議가 있을 때에는
書面 또는 口頭로 一次 當委員會에 問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國戰爭史 〈第6卷〉

1973年 12月 5日 印刷
1973年 12月 10日 發行

戰史編纂委員會 編纂

發行 國防部
印刷 서울신문사

(不許 無斷 複製)